Collections of Data on Gaya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가야 자료 총서

가야 문헌 사료편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문헌 사료편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일러두기

1. 이 책은『가야 자료 총서 1권 －가야 문헌 사료편-』으로, 사료의 시간적 범위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까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수록 대상은 국내외 역사서, 읍지, 지리지 등의 문헌사료와 광개토대왕비문 등 금석문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가야 관련 사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기원전 1세기 이전과 기원후 6세기 이후에 해당되는 사료라도 가야와 관련되는 기록은 함께 수록하였다.

2. 가야 관련 사료가 수록된 국내외 문헌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1905년까지 편찬된 역사서, 읍지, 지리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시대 미상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국외 사료는 265년부터 1060년까지 편찬된 중국자료와 712년부터 917년까지 편찬된 일본자료 중에서 가야 관련 사료를 수록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개요 '가야 기록에 대한 이해'(10~35쪽)에 수록하였다.

3. 사료 정리와 집필은 3세기 이전, 4~5세기, 6세기 이후 등 3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3세기 이전 사료는 이영식(인제대학교)이 담당하였으며, 4~5세기의 사료는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6세기 이후는 남재우(창원대학교)가 집필하였다.

4. 이 책은 개요와 연도별 사료,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개요,「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는 남재우가 집필하였는데, 가야와 관련된 기록의 현황, 관련 문헌 · 금석문 자료 현황 및 내용(해제)을 수록하였다.

5. 연도별 사료는 각 시기별로 주요 표제를 선정하고, 이를 편년체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사료의 기술 방식은 먼저 표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각각의 사료를 '사료1', '사료2', '사료3' 등으로 나열하였다. 각 사료는 해당 문헌(금석문), 원문, 해석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표제는 총 258개이며, 사료는 모두 904개이다.

6. 각 표제의 편년은 해당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연대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필자 회의를 거쳐 해당 연대를 추정 · 수록하였다. 연대 표시는 기원전은 '기원전'을 표기하고, 기원후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7.『일본서기』신공기(日本書紀 神功記) 사료는 집필자 회의를 거쳐 각 사료에 기록된 연대에 120년을 더한 수정 연대를 설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별도 표기하였다.

8. 사료의 원문과 해석에 대한 표기방식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다.

〈표기 방식〉

- 한자표기 : 한글 옆에 '( )'로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같은 사료 내에 한번 표기한 한자는 다시 표기하지 않았다.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 원음대로 적고, '( )'에 일본어 한자를 병기하였다. 또한 연대 표시, 부연 설명의 경우에도 '( )'로 표기하였다.

- 세주(細註) : 원문과 해석 내용 중에 '〈 〉'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사료 해석 중 생략된 단어나 어절, 해석을 위해 필요한 단어나 어절을 넣어줄 때는 '[ ]'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세주가 표시된 경우에는 원문에도 해당 부분에 세주를 표시하였다.

- 책 표시 : 『삼국사기』신라본기와 같이, 본 책과 함께 언급 시에는 생략하되 '신라본기'와 같이 단독으로 언급될 경우 「신라본기」로 표기하였다. 사료 내용 중 문맥상 책을 지칭할 경우, 『』 표기하였다.(예: 신라사에 이르기를...... →여기서 신라사는 『삼국사기』신라본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라사』라고 표기)

- 일본서기 : 일본인 이름의 표기는 일본어 발음대로 쓰고, 성과 이름을 전부 붙여 표기하였다. 사료에서 성과 이름이 모두 나올 경우는 [한자]로 표기하고, 줄여 쓴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하였다. 한자는 일본어 한자로 표기하였다.

- 지리지 및 읍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지리지 · 읍지에서 "고적, 사찰, 불우, 산천, 인물" 등은 【】로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원문과 해석에 모두 적용하였다.

- [보], 〈부〉, [속] 등의 표기 : 원문에 [補], 〈附〉, [續] 이 있을 경우, 해석에는 [보(補)], 〈부(附)〉, [속(續)]으로 표기하였다.

- 중국 연호 해석 : 원문에 〈漢 成帝 下平 元年〉와 같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한 성제 하평 원년〉으로 표기하였다.

- 해석의 대화문, 인용 표기 : " "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해당 대화(인용)문 내에 또 다른 대화(인용)문이 있거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 느낌, 단어 등을 표시할 때는 ' '를 사용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1권 가야 문헌 사료편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사료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부록 사료 목록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조사 자료
Ⅰ. 김해
Ⅱ. 양산
Ⅲ. 함안
Ⅳ. 진주
Ⅴ. 창녕
Ⅵ. 고령
Ⅶ. 성주
Ⅷ. 고성

부록 조사 연표

3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Ⅰ

개요 고고학으로 본 가야

경남동부·부산지역
Ⅰ. 김해
Ⅱ. 부산
Ⅲ. 양산
Ⅳ. 밀양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4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경남중부·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5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충청·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부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7권 가야 논저 목록편

Ⅰ. 기초 자료편
1. 문헌 자료
2. 금석문 자료
3.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4. 도록

Ⅱ. 논저편
1. 정치·군사
2. 사회
3. 문화
4. 경제
5. 외교
6. 지리·교통
7. 종교·사상
8. 유적
9. 유물
10. 고고이론·분석
11. 민속·신화
12. 어문
13. 기타

부록 색인

Contents

개요

사료

부록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들어가며

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사연구가 시작된 것은 40년 정도이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가야사에 대한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가야사는 한국고대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고구려를 비롯한 3국과 함께 한국고대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고, 가야사의 전개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비판적 활용과 고고자료의 확대 때문이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도 가야사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가야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료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야사는 '신화 속의 역사' 가 아니라 한국고대사 속의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실재했던 역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리고 김해의 가락국駕洛國, 고령의 대가야大伽耶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설에서 벗어나 아라가야阿羅伽耶, 비화가야非火伽耶, 다라국多羅國, 소가야小伽耶 등의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가야사의 폭도 확대되었다. 또한 가야사는 일본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의 축적결과 가야가 고대 동아시아세계 변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사연구는 지방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가야가 위치했던 지역에서는 가야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축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사연구가 삼국역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남아있는 기록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고대사의 대표적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가야본기를 두지 않았고, 가야관계기사는 신라본기를 비롯한 지리지地理志, 악지樂志, 열전列傳 등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서술 내용도 지극히 단편적이며, 가야사회의 내부사정을 전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신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와 오가야조五伽耶條의 가야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와 달리 기록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가야사회의 내부사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주로 설화의 형태로 서술되어 한계가 있다.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가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일본 또는 백제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야에 대한 서술이었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없지 않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남제서南齊書』 등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지만, 가야를 직접적인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 백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가야의 모습을 전하고 있을 뿐이며, 내용도 소략하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문헌자료는 가야사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향후에도 문헌자료 없이는 가야사연구를 생각할 수도 없다. 관련 학문연구방법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읽어내야 한다. 문헌기록들을 더욱 더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관점의 변화를 통한 가야사의 새로운 모습과 사회내부의 질적 발전과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기록은 새롭게 읽힐 수 있다. 따라서 가야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가야의 기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 보았다.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87년 설립)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야사 기본사료 정리작업 결과[1]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2]가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야기록

1) 금석문 속의 가야기록

금석문에 가야 관련기록이 있다.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 「창녕진흥왕척경비昌寧眞興王拓境碑」, 「합천매안리비陜川埋安里碑」 등이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금석문이다. 가야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뛰어나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가야사 전체를 이해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함이 많다.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는 통일신라시대 말[92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임나왕족任那王族'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임나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칼이나 토기에 새겨진 글자[銘文]도 있다.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명문대도에 새겨진 상감명문, 저포리E지구 4-1호분에서 출토된 목 짧은 항아리에 새겨진 '下部思利利(하부사리리)'라는 글자가 그것이다. '二得知(이득지)'라 새겨진 토기도 출토되었다.[3]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유적 주거지에서 대가야식 손잡이 있는 토기이다. 명문은 토기를 만든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야시기에는 각종 부호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었다.

광개토왕릉비는 414년(장수왕 3년)에 건립되었다. '임나가라 종발성任那加羅 從拔城',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등이 가야사 이해를 위한 중요한 기록이며, 삼국과 왜와의 국제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어 고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에 틀림없다. 창녕진흥왕척경비는 561년에 설립되었다.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정벌되었으므로 신라의 가야 멸망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매안리비는 가야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비문이다. 입석에 새겨진 것으로서 대가야 관

---

1 김태식·이익주편, 『가야사사료집성(伽倻史史料集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사료총서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1992 : 노태돈, 김은숙, 김태식, 이현혜, 최병현, 『역주(譯註) 한국고대금석문』 제1책.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노태돈, 김은숙, 김태식, 이현혜, 최병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책.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1992 : 김태식 공편, 『(역주)가야사사료집성 1 - 고려이전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자료총서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 김태식 공편, 『(역주)가야사사료집성 2 - 조선시대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사료총서 6,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2 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청 하촌리유적』, 2011.

련 명문이 확인되었다. 명문은 "辛(?)亥年ㅁ月五日ㅁㅁ村(?)四十干支(신(?)해년ㅁ월오일ㅁㅁ촌(?)사십간지)"로 판독되고 있다. 대가야가 멸망한 562년 이전의 신해년인 531년과 471년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4] '四十干支(사십간지)'의 '간지'를 '한기旱岐'로 볼 수 있다면 가야 정치세력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감명문이 남아 있다. 가야 명문으로 교동 11호분 출토 명문대도에 새겨져 있다. 명문의 내용은 글자수가 적고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의미 추적이 어렵다. 현재 7자가 남아 있다. 7자 중 첫 글자는 가로획의 한 부분만 보이지만 나머지 여섯 자는 글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上部先人貴ㅁ刀乃(상부선인귀ㅁ도(내))"로 읽히고 있다.[5] '상부'라는 용례가 가야사회의 내부구조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저포리E지구 4-1호분에서 출토된 목 짧은 항아리에 새겨진 "下部思利利(하부사리리)"이다. 여기에서 '하부'란 지역명이 되고 뒤의 세 글자는 인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6세기 중엽이며, 그 모양으로 보아 대가야계통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가야에서의 '부체제' 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금석문과 토기에 새겨진 명문의 대부분은 가야가 존재하던 당시이거나 가야와 관련된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금석문의 경우 그 내용이 적고, 많은 부분이 마모되어 가야사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토기에 새겨진 명문의 경우, 대왕大王·대간大干·하부下部 등은 가야시기의 정치제도에 대한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井, ＼, ○, ∨, +, × 등의 기호가 새겨진 토기는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2) 고려시대까지의 가야기록

한국고대사의 대표적인 역사서는 『삼국사기』이다. 가야를 주체로 한 역사서는 아니지만, 가야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이지만 많이 남아있다. 가야와 관련된 기록은 신라본기, 제사지·악지·지리지와 열전의 김유신·거도·이사부·강수·물계자전 등이다.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 가야관계기사가 있다. 파사이사금, 지마이사금 기사에서 신라와 가야의 전쟁기사가 보인다. 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가야가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하여 그 기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신라와 가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계자전 등에서 나타나는 포상팔국전쟁기사는 가야내부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4 이문기, 「합천 매안리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Ⅱ』,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 한영희·이상수,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유명원두대도」,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0.

표1 『삼국사기』신라본기, 가야관계 기사

번호	시 기	기 사 내 용
1	탈해 즉위 이전	탈해가 금관국을 거쳐 신라해변에 도착하여 할머니가 양육함
2	탈해21년(77) 8월	아찬 길문(吉門)과 가야병이 황산진(黃山津)에서 싸움
3	파사15년(94) 2월	가야가 마두성(馬頭城)을 포위하므로 아찬 길원(吉元)이 기병 1천명을 이끌고가 격퇴함
4	파사17년(96) 7월	가야인이 남쪽 변방을 습격하여 가성주(加城主) 장세가 죽자, 군사 5천을 보내어 격퇴함
5	파사18년(97) 정월	가야를 정벌하려고 하니, 가야왕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므로 중지함
6	파사23년(102) 8월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의 영토분쟁에 대하여 파사이사금이 수로왕에게 자문을 청함
7	파사27년(106) 8월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정벌하게 함
8	파사29년(108) 5월	군대를 보내어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을 병합함
9	지마4년(115) 2월	가야가 남쪽 변방을 침략함
10	지마4년(115) 7월	왕이 직접 황산하(黃山河)를 건너 가야를 공격함
11	지마5년(116) 8월	왕이 정예병 1만으로 가야를 공격했으나 오랜 비로 인하여 돌아옴
12	나해6년(201) 2월	가야국이 화친을 청함
13	나해14년(209) 7월	포상팔국이 가라(加羅)를 침입하려 하자 가라왕자가 구원을 청함. 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병을 거느리고 가서 팔국장군을 죽이고 포로 6천명을 빼앗아 돌려줌
14	나해17년(212) 3월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냄
15	소지3년(481) 3월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략하므로 신라군과 백제·가야의 구원병이 길을 나누어 방어하여 적을 격퇴함
16	소지18년(494) 2월	가야가 꼬리가 다섯 척인 흰 꿩을 보내옴
17	법흥9년(522) 3월	가야국왕이 혼인을 청하므로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를 보냄
18	법흥11년(524) 9월	왕이 남쪽 경계를 순행하니 가야국왕이 찾아와 만남
19	법흥19년(532)	금관국왕 김구해(金仇亥)가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 항복하므로 왕이 예우하고 금관국을 식읍으로 내리고, 아들 무력에게 각간의 벼슬을 내림
20	진흥12년(551) 3월	왕이 낭성(娘城)을 순수할 때 우륵(于勒)과 니문(尼文)으로 하여금 하림궁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함.
21	진흥13년(552)	왕이 계고(階古)·법지(法知)·만덕(萬德) 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륵으로부터 음악을 배우게 함
22	진흥23년(562)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니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케 함

『삼국유사』도 삼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불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5권인데 정치사에 해당하는 부분

은 2권까지로서 왕력王曆과 기이紀異편이다. 불교사에 해당하는 나머지 3권은 흥법·탑상·의해·신주·감통·피은·효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기駕洛國記」의 내용은 가야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왕력과 가락국기의 거등왕대 멸망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개황력(록)開皇曆錄』이라는 책이 있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가락국의 후손들이 김씨 성씨 취득을 계기로 가락국 왕력을 편찬하면서 만든 것이라 추정된다.[6] 이외에도 가락국 건국신화, 허황옥의 도래기사, 수로왕과 탈해의 술법 싸움, 물계자전에 보이는 포상팔국전쟁 관련기사, 오가야조五伽耶條의 내용 등은 가야사 이해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가야조에 등장하는 아라가야阿羅伽耶, 고녕가야古寧伽耶, 대가야大伽耶, 성산가야星山伽耶, 소가야小伽耶 등의 국명은 가야사 연구의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설화적 요소와 불교적 윤색이 많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료비판과 『삼국사기』 등 과의 문헌비교를 거친다면 중요한 역사서임에 틀림없다.

표2 고려시대까지의 가야기록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광개토왕비문 (廣開土王碑文)	414/미상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장수왕이 세운 비석의 비문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國內城) 동쪽 국강상(國岡上)에 세워졌다. 지금의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集安縣)이다. 사면석비(四面石碑)로서 높이가 약 6.39m인데, 그 내용은 동명왕신화(東明王神話),광개토왕 생전의 업적 및 사후의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야관련기사는 400년 광개토왕 군대가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는 기사로서, 이 사건은 가야사의 전개에 있어서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를 나누는 중요한 획기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기사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의 가야사 이해에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봉림사진경대사보월릉공탑비문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	924/최인곤	통일신라시대 진경대사 심희(審希)의 생애를 기록한 탑비의 비문이다. 심희는 신라 하대의 구산선문(九山禪門)중 하나인 봉림산파(鳳林山派)의 개조(開祖)이다. 탑비는 창원시 봉림사지에 있었는데 1919년 3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비문에 심희가 '신김씨(新金氏)'이고 '임나왕족(任那王族)'이라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아 왔다.
삼국사기 (三國史記)	1145/김부식 등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의 최고(最古) 역사서로 고려의 인종이 김부식 등에게 편찬케 했고, 1145년(인종 23)에 완성되었다.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紀傳體) 관찬사서이다. 50권인데, 신라본기 12권, 고구려본기 10권, 백제본기 6권, 년표(年表) 3권, 지(志) 9권, 열전(列傳) 10권으로 구성되었다. 신라본기의 경우 가야관계 사료가 단편적으로 산재한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준이 되는 편년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3세기 이전의 초기 기록은 편년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신라본기 외에 제사지·악지·지리지 및 렬전의 김유신·거도·이사부·강수·물계자조 등에 단편적인 가야관계 기록들이 전하고 있다.

6 남재우,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한국고대사연구』39, 한국고대사학회, 2005.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삼국유사 (三國遺事)	1275~1308/일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고려시대에 편찬된 한국 고대의 역사상을 전하는 귀중한 역사서이다.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삼국을 비롯한 한국고대사회에 대하여 서술한 사찬사서(私撰史書)이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권은 정치사로서 왕력(王曆)과 기이(紀異)이며, 3·4·5권은 불교사가 서술된 부분으로서 흥법(興法)·탑상(塔像)·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으로 분류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가야관계 전승자료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어 가야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역사서이다. 특히 왕력과 가락국기(駕洛國記)는 가야사의 시작이며, 가야 전기의 중심적인 정치집단이었던 김해의 가락국(駕洛國) 혹은 금관가야의 역사를 살피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3) 조선시대 이후의 가야기록

조선시대 이후 가야에 대한 문헌기록은 지리서나 지방지 등에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서, 혹은 중국사서, 일본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왕명을 받아 편찬한 『동국사략東國史略』,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등 여러 사서들이 있으나,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사찬사서들도 거의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야는 수로왕릉에 대한 훼손 및 보존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조선이 가야시조인 수로왕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대 왕들에 대한 향사에는 수로왕릉이 제외되어 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서는 제외되었다. 다만 수로왕의 후손들이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중앙에 청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지금까지도 김수로왕에 대한 제의가 이어지고 있는 일면에는 이러한 조선시대 김수로왕의 자손들의 노력이 있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7]

또한 사서 편찬과정에서의 인식 변화를 조금씩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경우 가야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조대에 안정복安鼎福이 편찬한 『동사강목東史綱目』은 기자 → 마한 → 통일신라 →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체계를 설정하고 변한, 가락, 대가야 등은 소국으로 처리하여 마한이나 신라에 끼워두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선후기 실학자의 가야에 대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는 가야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명 등을 통해 가야의 권역과 변천을 추정할 수 있고, 전승 등을 기록하고 있어 가야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 1432년(세종 7년) 간행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중의 하나인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고령현과 함창현, 김해도호부의 건치연혁 및 김해도호부의 토성土姓 등을 기술하였으며, 가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451년(문종 원년)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는 경산부(京山府, 지금의 경북 성

7 박양리, 「사서(史書)를 통해 본 가야·가야인식」, 『한국문학논총』 73, 2016.

주)가 성산가야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서 중에서 가야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헌기록 중의 하나가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책에 실린 가야관계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 가야 유적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령현조에 인용된 최치원이 찬한 「석이정전釋利貞傳」과 「석순응전釋順應傳」의 내용은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대가야·신라 사이의 결혼동맹에 관한 내용이 실려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다. 특히 '가야연맹체설'를 주장하는 가야사연구자들에게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체의 맹주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다수의 지리서들이 편찬되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5),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 전국의 읍지들을 취합하여 편집한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정약용의 『강역고疆域考』(1811),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등이다. 영남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읍지』류도 있다. 경남 함안의 『함주지咸州誌』(1587), 경북 성주의 『성산지星山誌』(1677), 경남 산청의 『산청현읍지山淸縣邑誌』(1744), 경남 고성의 『고성현읍지固城縣邑誌』(1785), 경북 상주의 『함창현읍지咸昌縣邑誌』(1786), 경남 김해의 『김해부읍지金海府邑誌』, 경북 고령의 『고령군읍지高靈郡邑誌』(1899) 등이다. 이들 지리서와 읍지류에서는 역사를 적은 '건치연혁建置沿革'과 오래된 유적들을 조사한 '고적古跡'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가야의 정치집단이 존재했던 지역과 가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정약용은 『강역고』에서는 가야의 연원과 가야사회의 발전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변진고弁辰考」에서 변한卞韓이란 본래 없으므로 변진弁辰이 옳으며, 변진은 곧 가라迦羅라 하였다. 「변진별고弁辰別考」는 가라고迦羅考라 하기도 한다. 가라迦羅[伽倻]가 본래 6국이었으나 뒤에 12국으로 성장하였고, 금관국 수로왕은 변진 12국의 총왕으로 마한인이라 하였다. 특히 가야는 해운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하였고, 진한 즉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는 독창적인 주장도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은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요인을 바탕으로 가야사를 보려는 시각이었다. 가야사연구가 일본인들의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가야사 연구 성과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3 조선시대 이후의 가야기록(역사서)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일컫는다. 실록(實錄)은 조정에서 일어나거나 보고되는 일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역사서로서, 일종의 연대기(年代記)에 해당한다. 국왕이 사망하면 춘추관(春秋館)에서 재위 기간 동안의 사실(史實)들을 기록하여 편찬하였다. 가야관련기사는 『세종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등에 실려 있는데 주로 수로왕릉(首露王陵)의 관리와 수로왕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 보일 뿐이다.
동국사략 (東國史略)	1403/권근 등	조선시대 태종이 권근(權近)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단군조선부터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이부(二府)·삼한·삼국의 순으로 서술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고대사의 체계를 수립한 사서이다. 삼국시대 서술은 신라 위주로, 신라의 연기(年紀) 아래에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사건을 서술하였다. 현재 모두 전하지 않고, 제3권과 제4권의 2권 1책만이 남아 있다. 가야관계 기사는 신라 법흥왕(法興王)과 진흥왕(眞興王)대의 일부만 남아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가야사 연구를 위한 사료적 가치는 높지 않다.
삼국사절요 (三國史節要)	1476/노사신, 서거정 등	조선시대 성종 7년에 편찬되었으며, 단군조선으로부터 삼국의 멸망까지 서술된 편년체 역사서이다. 14권으로 구성되어있다. 권수(卷首)에 「외기(外紀)」라 하여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사군이부(四郡二府)·삼한의 순으로 삼국 이전의 상고사가 간략한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본편은 신라 건국부터 고려가 신라를 통합한 경순왕 9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 이용한 자료는 고려시대 혹은 조선 태조 초년에 찍은 판본을 대본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삼국사기』의 오자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지·열전과 『삼국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가야관계 사료를 편년체로 재정리하여 참조하기에 편리하다.
동국통감 (東國通鑑)	1485/서거정 등	조선시대 성종 16년(1485)에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이다. 56권 2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 이전의 역사는 서두에 외기(外紀)로 처리하고, 삼국기(三國紀,제1~8권)·신라기(新羅紀, 제9~12권)·고려기(高麗紀,제13~56권)이다. 삼국의 역사는 『삼국사절요』를, 고려시대는 『고려사절요』를 각각 저본으로 하였다. 가야관계 사료는 체제뿐 아니라 표현까지 『삼국사절요』와 일치하나, 삼한에 관한 내용이 약간 보완되었고, 석탈해(昔脫解)의 금관국(金官國) 관련설화를 탈해왕 원년조가 아닌 남해왕 5년조에 서술한 것이 다르다.
동사보유 (東史補遺)	조선중기/조정	조정(趙挺,1551~?)이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로서 4권이다. 인조 6~8년(1628~1630)사이에 저술되어, 1646년에 조정의 아들 조유도(趙有道)가 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단군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지만 열전을 부기하였다. 가야관계 기사는 성립과 멸망에 대한 것만 실렸고, 가락국 성립조에 『삼국유사』의 수로왕대 기사가 전재되어 있다.
동국사략 (東國史略)	1514년경 /박상	조선시대 중종 때 박상(朴祥,1474~1530)이 편찬한 사찬사서로서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내용을 『동국통감』을 대본으로 하여 축약한 책이다. 6권이며 중종 9년(1514) 무렵에 저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관계 기사는 가야의 성립과 멸망에 대한 것 정도만 간략하게 추출되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표제음주동국사략 (標題音註東國史略)	1546~1552/ 유희령	조선시대 중종때 유희령(柳希齡,1480~1552)이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로서 12권으로 구성되어있다. 단군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권1 단군·기자·위만의 전조선, 사군·이부(二府)·구이(九夷)·삼한(三韓)과 고구려 전 시기, 권2 백제, 권3 신라, 권4는 경덕왕으로부터 경순왕까지 22왕과 가락국·발해국·궁예·견훤, 권5부터 12권까지 고려이며, 끝으로 우왕·창왕을 부기(附記)하였다. 조선시대 현전하는 역사서로서는 신라에 붙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가락국(駕洛國)을 독립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기년 (歷代紀年)	1602~1615년경/ 정구	조선시대 중기 정구(鄭逑,1543~1620)의 저술이다.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영향을 받으면서 연표형식으로 중국사와 한국사를 정리했다. 상·중 2권은 중국의 역사를, 하권은 단군조선(檀君朝鮮)부터 당대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가락국(駕洛國)을 독립시켜 약술하고, 가야국(加耶國)을 동방 35국 가운데 하나의 소국으로 취급하였으며, 동방27국부(東方二十七國部)라 하여 고령현, 김해부, 함창현, 함안현, 고성현 등을 나열하였다. 정구의 문집인 『한강집(寒岡集)』(국립중앙도서관)에 실려 있다.
지봉유설 (芝峯類說)	1614/이수광	조선시대 광해군 6년(1614)에 이수광(李睟光)이 지은 백과사전이다. 20권 10책이다. 한국 고대부터 당시까지의 문화를 천문부(天文部) 등의 2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182항목, 3,435개 조목으로 수록하였다.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혔다. 김해 수로왕릉(首露王陵)이 임진왜란 당시에 훼손되었던 상황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사찬요 (東史纂要)	1614년/오운	광해군 6년(1614)에 오운(吳澐)이 편찬한 기전체 사서로서 8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선조 39년(1606)에 군왕기(君王紀)와 열전으로 초간본을 간행하였고, 광해군 원년(1609)에 개찬하였다가, 다시 지리지를 추가하여 완성했다. 삼한의 위치 비정에 대한 논의가 많고, 『삼국기』(三國紀)에 약간의 가야관계기사를 수록하였지만, 『동국통감』의 것을 요약하였을 뿐이다.
해동악부 (海東樂府)	1617/심광세	조선시대 광해군 9년(1617)에 심광세(沈光世)가 지은 악부체(樂府體) 역사서로 1권 1책이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금독인(金櫝引)이라는 제목으로 알지(閼智)와 탈해(脫解)·수로왕(首露王)의 탄생설화를 싣고 있다.
제왕역년통고 (帝王歷年通攷)	1644,1664/ 정극후,안응창	조선시대 인조 22년(1644)에 정극후(鄭克後,1577~1658)가 저술하고 현종 5년(1664)에 안응창(安應昌,1603~1680)이 보완하여 지은 우리나라의 연표 형식의 약사(略史)이며, 1책이다. 요(堯)임금 원년 갑진년부터 명나라가 멸망한 숭정제(崇禎帝) 17년 갑신년까지 중국 역대 제왕의 역사 4001년과 단군 원년 무진년부터 조선 인조 22년까지 한국 역대 제왕의 역사 3977년을 창업과 멸망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추려 연표형식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동방국도고(東方國都考)라 하여 단군·기자·위만·삼한·사군·이부·신라·고구려·백제·고려·본조(조선)의 강역과 흥망의 사실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가야에 관한 내용은 신라에 붙여 기록하였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기언 (記言)	1595~1682/허목	조선시대 후기(1595~1682)의 문집이며, 67권이다. 원집(原集)과 속집(續集)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집(제1권~제46권)은 현종 15년(1674) 이전에 지은 글들을 묶은 것으로 상편·중편·하편·내편·외편 등으로 나누었고, 속집(제47권~제67권)은 그 이후에 지은 글들을 묶은 것으로 산고(散稿)·습유(拾遺) 등이 들어 있다. 책머리에는 현종 8년(1667)에 허목이 직접 쓴 서문이 있다. 원집의 외편은 『동사(東事)』라 하여 삼국시대까지의 고대사를 서술하였다. 『동사』의 체제는 단군조선부터 신라·고구려·백제 등에 이르기까지 대국(大國)을 세가(世家)로 취급하고 그밖의 소국들을 렬전으로 취급하였다. 즉 단군을 비롯해 기자(箕子)·숙신(肅愼)·위만(衛滿)·부여(夫餘)·삼한(三韓)·신라·고구려·백제·예맥(穢貊)·말갈(靺鞨)·가락(駕洛)·지승(地乘) 등이다. 가락(駕洛)과 대가야(大伽倻)는 신라의 부용국으로 보아 각각의 열전을 두었다. 삼한에 대하여는 새로운 내용이 없이 대게 『삼국지』 동이전을 인용하였고, 그 위치 비정은 권근(權近)의 설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단편적인 기록을 부기한 흑치열전(黑齒列傳)이 있다. 가락열전(駕洛列傳)에서는 6가야의 역사를 개관하고 뒤에 찬(贊)을 붙여 수로왕 등의 탄생설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수로왕비 허씨와 관련된 양천허씨족보서와 납릉비은기(納陵碑隱記), 허태후묘비은기(許太后墓碑隱記) 등이 실려 있다.
동국통감제강 (東國統鑑提綱)	1672/홍여하	조선 현종 13년(1672)에 홍여하(洪汝河)가 편찬한 강목체 역사서이다. 『동국통감』을 저본으로 하여 고대사부분을 첨삭하여 강목체로 재구성하였다. 한국사에 최초로 정통론을 적용하여 기자 →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계승관계를 설정하였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백겸설을 인용하였지만 마한의 경우 평양으로 보아 최치원설을 존중하였다. 가야관계 기사는 『동국통감』 이래의 것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동국역대총목 (東國歷代總目)	1705/홍만종	조선시대 숙종 31년(1705)에 홍만종(洪萬宗)이 단군조선으로부터 조선 현종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1권 1책이다. 책 머리에는 동국역대전통도(東國歷代傳統圖)와 저자의 소서(小序)가 있고, 다음에 범례가 있다. 그리고 본문이 있고 뒤에 지지(地誌)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끝에는 저자의 자서(自序)가 있다. 본문에는 단군조선으로부터 기자·위만조선·삼한·한사군·이부(二府)·삼국·고려·조선의 사적을 사건만 간추려 편년체로 기술했다. 지지에는 8도의 고도(古都)와 산천을 기록하고 있다. 가야관계 기사는 건국과 멸망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동사회강 (東史會綱)	1711/임상덕	조선 숙종 37년(1711)에 소론학자 임상덕(林象德)이 편찬한 강목체 역사서로서 12권으로 되어 있다. 책의 앞 부분에 서례(序例)·범례·논변(論辯) 그리고 연표가 실려 있고, 본문은 삼국기(三國紀)·신라기(新羅紀)·고려기(高麗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려기가 본문 12권 중 9권이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변에서 부론(附論)으로 서술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의 설을 따라 변한을 전라도에 비정하였다. 가야관계 기사는 '가락국 수로왕'을 '가락국군 김수로(駕洛國君 金首露)'와 같이 격하시켰을 뿐이지, 『동국통감』 이래의 서술과 중복된다.
성호사설 (星湖僿說)	1681~1763/ 이익	조선시대 후기에 남인 실학자 이익(李瀷,1681~1763)이 저술한 백과사전으로 30권 30책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물·제도 등을 천지문(天地門)·만물문(萬物門)·인사문(人事門)·경사문(經史門)·시문문(詩文門)의 다섯 가지 문(門)으로 크게 분류해 총 3,007편의 항목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특히 천지문과 경사문의 서술들에서 조선후기 실학자의 삼한 및 가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경사문에는 육경사서(六經四書)와 중국·우리 나라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잘못 해석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실은 논설, 그리고 역사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붙인 1,048항목의 글이 실려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환영지 (寰瀛誌)	1787/위백규	조선시대 후기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저술로 영조 34년(1758)에 완성하고 그 뒤 몇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정조 11년(1787)에 간행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등을 지도 및 도표(圖表)·년표(年表)로 나타내었다. 우주도와 중국의 13성도 8장, 서양 제국(諸國)의 도, 요동도·북막도·영고탑도 각 1장, 조선팔도도 12장, 일본도·유구도 각 1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팔도총론에서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민가수·속오수(束伍數)·전결(田結) 등을 다루고 있다. 조선연역도(朝鮮沿革圖)와 동방국도도(東方國都圖)에 삼한과 삼국이 표기되었으나 가야는 없다. 위백규의 문집인 『존재전서(存齋全書)』에 실려있다.
동사강목 (東史綱目)	1759/안정복	조선시대 후기에 안정복(安鼎福,1712~1791)이 편찬한 강목체 역사서로서 20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영조 32년(1756)부터 편찬을 시작해 3년 만인 영조 35년(1759)에 일단 편찬이 완료되었다. 정조 2년(1778)에 서문이 작성되고 정조 7년(1783)에 정조에게 올려져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책머리에는 제동사편면(題東史編面)·서(序)·목록(目錄)·범례(凡例)에 이어 전수도(傳授圖)·지도(地圖)·관직도(官職圖)로, 본문은 기자조선·마한·삼국·신라(제1~5권)·고려(제6~17권)로, 부록 2권은 고이(考異)·괘설변증(怪說辨證)·잡설(雜說)·지리고(地理考)·강성고정(彊城考正)·분야고(分野考)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정통 왕조를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신라 멸망 뒤의 고려로 파악하고, 마한이 멸망한 뒤의 삼국시대는 정통 국가가 없는 시대로 파악했다. 한사군의 역사도 '고조선'의 역사 속에서 다루었으며, 삼국 초기는 마한의 예속 하에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변한·가락·대가야 등은 소국으로 처리하여 마한(馬韓)이나 신라에 부기하였다. 가야관계의 새로운 사료는 없지만, 조선후기 실학자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서이다.
풍암집화 (楓岩輯話)	1713~1780/ 유광익	조선시대 후기에 유광익(柳光翼,1713~1780)이 엮은 야사,야담집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요 사건별로 기술하고 그에 대한 변의(辨疑)를 부기한 역사로서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광익이 말년에 필사본으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제1권에 삼한지방지변(三韓地方之辨)·동방지명지변(東方地名之辨)·동방국도도기략(東方國都紀略)·알목하회척사기략(斡木河恢拓事紀略)·일본국기문(日本國記聞)·단군사기변의(檀君史記辨疑) 등이 있고, 제2권부터 제7권까지는 조선시대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야관계 논설로서 삼한지방지변(三韓地方之辨)이 있다.
동문광고 (同文廣考)	영조대/미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주변국가들의 고실(故實)을 기록한 책이다. 편찬시기는 영조대 무렵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사서와 『삼국사기』 등을 이용하였으나, 중국 사서에 치중하여, 중국과의 외교 및 전쟁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동이고」(東夷考) 중의 변한 및 가락고 등에 가야관련 기사가 산재한다. 삼국 신라 조항에도 신라와 가야의 전쟁기사가 나온다.
기년아람 (紀年兒覽)	1778/이만운	조선시대 정조 2년(1778)에 이만운(李萬運)이 어린 학생과 일반 독서인들의 참고를 위해 편찬한 역사서로서 8권 5책으로 되어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술하였다. 권1~4는 중국사, 권5~8은 한국사이다. 권1~3은 중국의 고대부터 청대에 이르는 역대 왕조의 순서에 따라 각 제왕의 묘호(廟號) 내지 연호와 각 왕의 이름과 생몰년·재임연대·능묘 등을 병기한 후에 왕과 관련된 역사 사실을 간략하게 적었다. 권4에는 중국 역대의 국도(國都)와 지계(地界)를 자세히 적었다. 권5에는 단군 조선에서 고려에 이르는 역대 왕조의 여러 왕을 시대순으로 배열, 관계 사항을 병기하였다. 권6에는 고대에서 고려에 이르는 지계를, 권7에는 조선의 여러 기사(紀事)를 적되 선원계통(璿源系統)·왕위계보·주요연표를, 권8에는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6가야 외에 가라국(加羅國)과 임라국(任羅國)을 별개의 나라로 취급한 것이 특이하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수산집 (修山集)	1803/이종휘	조선 후기의 학자 이종휘(李種徽)의 시문집이다. 순조 3년(1803) 경에 간행된 소론 학자 수산 이종휘의 문집으로서 아들 동환(東煥)이 편집간행했다. 문집 중 제11권부터 제13권까지는 동사(東史)라는 제목으로 고대 및 고려시대사를 정리하였고, 제14권은 동국여지잡기(東國與地雜記)라 하여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동사의 체재는 본기·세가·열전(이상 제11권). 연표·표·지(제12·13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본기는 단군본기·기자본기·삼한본기·후조선본기로, 世家는 기자세가(보유)·부여세가·발해세가·가야세가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표(表)의 삼한지제칠십팔국분속표(三韓之際七十八國分屬表)에서 변한12국의 위치를 황산하(黃山河,지금의 낙동강 하류)에서 지리산 사이 즉 경상우도에 비정하였다. 동국여지잡기는 역사지리에 관한 임상덕(林象德) 및 자신의 논설들을 한데 묶은 것으로, 이 가운데 삼한지방변(三韓地方辨)에서는 삼한의 위치비정에 대한 임상덕의 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해동역사 (海東繹史)	1814/한치윤 1823/한진서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서로서 한치윤(韓致奫,1765~1814)이 지은 본편 70권과 그의 조카 한진서(韓鎭書)가 보충한 속편 15권을 합쳐 85권이다. 한치윤이 10여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순종 14년(1814)에 70권으로 완성하였고, 그 뒤에 한진서가 자기 의견을 첨가하고 새로이 지리고 15권을 덧붙여 순종 23년(1823)에 간행하였다. 세기(世紀, 제1~16권), 지(志,제17~59권), 고(考,제60~85권)의 순서로 편찬하였다. 객관적인 찬술을 위해 550여종의 인용서를 동원하였다. 즉, 중국의 사서 523종, 일본의 사서 22종과 한국의 기본서를 참고로 했다. 사료마다 전거를 밝히는 실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삼한세기(三韓世紀)가 있고, 제소국세기(諸小國世紀)에 가라(加羅)와 임나(任那)가 포함되어 있다. 교빙지(交聘志)와 지리고(地理考)에 삼한·가야관계기사가 산재한다. 『일본서기』의 사료와 송하견림(松下見林)의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을 인용하면서 조선시대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임나관계 인식을 받아들였다.
대동장고 (大東掌攷)	1818~1821 /홍경모	조선시대 후기에 홍경모(洪敬謨,1774~1851)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사(故事)를 정리한 서적으로 13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순조 18년(1818)부터 21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고(歷代攷)·초액고(椒掖攷)·종영고(宗英攷)·국구고(國舅攷)·의빈고(儀賓攷)·보상고(輔相攷) 등의 37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앞머리의 역대고에서 단군부터 조선 정조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각각의 국도(國都)와 강역(疆域)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한국고대사 인식체계는 삼조선(三朝鮮 : 檀君朝鮮·中朝鮮·後朝鮮)–삼한(三韓)–삼국이다. 신라소속제국(新羅所屬諸國)에 가야제국(加耶諸國)의 이름을 나열하였으나, 이만운의 『기년아람』과 거의 같다.
동사변의 (東史辨疑)	1848/홍경모	조선시대 후기에 홍경모(洪敬謨,1774~1851)가 지은 역사서로이다. 헌종 14년(1848) 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단군조선에서 삼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이설이 분분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고증하였다. 군자국(君子國)·단군국호(檀君國號)·기자수봉(箕子受封)·위만입국(衛滿立國)·한(韓)·삼한지시(三韓之始)·삼한지호(三韓之號)·기준마한(箕準馬韓)·진한6부(辰韓六部)·변진위가락(弁辰爲駕洛)·삼한사실(三韓事實)·삼한분배삼국(三韓分配三國) 등 28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03~1908/ 박용대 등 3000여명	총 16고(考) 250권 50책이며,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고대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분류·정리한 책이다. 조선시대 영조 46년(1770)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일차로 정조 14년(1790)에 리만운이 증보하여 『증보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으며, 이를 1903년부터 박용대(朴容大) 등 3,000여명의 문사들이 다시 증보하여 1908년 『증보문헌비고』를 완성 출판하였다. 역대 한국문화를 상위(象緯)·여지(輿地)·제계(帝系)·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호구(戸口)·시(市)·교빙(交聘)·선거(選擧)·학교(學校)·직관(職官)·예문고(藝文考) 등 모두 16고(考)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문단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부분은 『동국문헌비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가야관계 사료들이 대체로 잘 정리되어 각 조목 속에 산재하며,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역사집략 (歷史輯略)	1905/김택영	1905년에 김택영(金澤榮)이 저술하여 간행한 강목체 역사서로서 11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군부터 고려멸망 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김택영은 1895년과 1899년에 역사교과서 편찬을 주관한 바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1902년에 『동사집략(東史輯略)』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그 증보판이다. 당시 교과서 외에 볼 만한 역사책이 없었는데 교과서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편집된 『동사집략』과 『역사집략』이 저술되어 한말 지식인에게 널리 읽혔다 제1권 조선단군(朝鮮檀君), 제2권 조선기자(朝鮮箕子)·마한(馬韓), 제3·4권 신라·고구려·백제, 제5권 신라, 제6~11권 고려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삼국시대사는 『동국통감』을, 고려시대사는 유계(兪棨)의 『여사제강(麗史提綱)』을 주로 참고하였다. 지리고증에서는 정약용의 『강역고』를 많이 이용하여다. 제4권에서 3국을 본기로 쓰고 가락과 대가야를 부기하였다 가야관계기사의 처리는 『동국통감』과 대체로 같으나, 난데없이 마한기에 마한왕력계보(馬韓王曆系譜)와 임나입공(任那入貢)기사가 나온 점이 특이하다. 신라·고구려·백제기에는 신공황후의 가야7국 평정 및 임나일본부 설치기사 등이 추가되었다.

표4 조선시대 이후의 가야기록(지리지·읍지)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1425/	조선시대 세종 7년(1425)에 작성된 경상도 지방의 지리지이다. 각 도의 지리지들과 함께 세종 14년(1432)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로 간행되었으나, 『팔도지리지』나 다른 도의 지리지들은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이다. 도내의 부·군·현의 행정 단위별로 고금의 연혁·계역(界域)·산천·관방(關防)·공물(貢物)·성곽·진영(鎭營)·병강(兵舡)·교통·고적·토의경종(土宜耕種)·토지·비척·호구·성씨·인물·봉화·기후·풍혈(風穴)·염분·목장·전설 등 인문·자연 두 방면에 걸친 지리적 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고령현과 함창현·김해도호부의 건치연혁 및 김해도호부의 토성과 영이지적(靈異之跡)을 기술하는 가운데 가야에 관한 언급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고려사지리지 (高麗史 地理志)	1451/	조선시대 문종 원년(1451)에 김종서·정인지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기전체 『고려사』의 지리지이다. 모두 3권이다. 『고려사』지리지는 전국을 개성과 5도(양광도·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양계(동계·북계)로 나누고 그 아래 주명·부명·군명·현명을 나열하여 그 상호 통속(統屬)관계만을 밝혔다. 그래서 현(縣) 이하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군현의 승강이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성씨 및 군현 이하의 행정구역에 대한 지명이 많이 누락되었다. 제1권은 서문에 이어 개성부(開城府京畿)와 양광도(楊廣道), 제2권은 경상도·전라도, 제3권은 교주도·서해도·동계·북계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도의 주목(主牧)과 영군(領郡)·속현(屬縣)을 나열하고 각각의 건치연혁(建置沿革)을 기록하였다. 가야관계 기사는 경상도의 금주·함안군·고성현·함창군·고령군의 건치연혁을 기록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단, 경산부(京山府,星州)에는 이곳이 성산가야(星山伽耶)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 地理志)	1454/	조선시대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제148권에서 제155권까지 8권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로서 『세종실록』의 지리지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편년체로 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에만은 예지·악지·지리지·정산지(政算志)가 부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의 제148권부터 제155권까지가 지리지이다. 세종 14년(1432)에 간행된 『팔도지리지』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변동상황을 추가하였다 경상도 고령현·함창현·김해도호부·함안군·고성현의 건치연혁을 서술하는 가운데 가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	1469/	조선시대 예종 원년(1469)에 작성된 경상도 지방의 지리지이다. 세종 7년(1425)에 작성되었던 『경상도지리지』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증보에 그치지 않고 항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29개 항목으로, 첫째 인문·지리와 경제에 관한 제언(堤堰)·지택(池澤)·염분·약재·어량(魚梁)·도자기소·철장(鐵場)·향소(鄕所)·부곡(部曲) 등이 증가되고, 둘째 국방에 관한 양계절도사·야인소재(野人所在)·강무장(講武場)·연대(煙臺)·봉화·역참 등이 증가되었다. 다만 국세에 관한 호구·공물조가 없는 대신, 누대·제영(題詠)·승사(僧寺)·원우(院宇)·정표문려(旌表門閭) 같은 항목이 증가되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있던 호구(戸口)·전결(田結)·공물(貢物)·약제(藥材)·토산(土産)·토의(土宜)·군정(軍政) 등의 항목이 빠지고 명현(名賢)·토성(土姓)·수령(守令)·정표문려(旌表門閭)·능묘(陵墓)·루대(樓臺)·제영(題詠)·승사(僧舍)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김해도호부의 수로왕능과 수로왕비능에 관한 언급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與地勝覽)	1530/이행 등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편찬한 지리서로서 55권이다. 성종 12년(1481)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김종직(金宗直) 등이 수정하여 동왕 17년에 간행하였고, 그 뒤 연산군 5년(1499)에 성현(成俔) 등이 약간 수정한 것을 이행(李荇) 등이 다시 증보하여 간행한 것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새로이 증보한 부분은 '신증(新增)'이라 표시하여 이전 것과 구별하였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각 군현마다 건치연혁·속현·진관(鎭管)·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봉수·궁실·누정·학교·역원·교량·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인물·우거·효자·열녀·제영 등 28개 편목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가야관계 기사들은 조선전기 가야관계 유적의 현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고령현조에 대가야 건국신하가 실려있던 사료적 가치가 높고, 가야사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함주지 (咸州志)	1587/정구	조선시대 선조 20년(1587)에 정구(鄭逑)가 편찬한 경상도 함안군 읍지로 1책이다. 현전하는 사찬읍지(私撰邑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림 출신의 수령과 지역 인사의 합작으로 편찬된 이 읍지는 치읍(治邑)에 참고하려는 의도와, 자기 고장의 문화를 정리하겠다는 재향 인사들의 목적이 합치되어 완성되었다. 편찬 체재는 『동국여지승람』을 모방하였으나 항목이 훨씬 상세하다. 내용 구성은 경사상거(京師相距)·사린강계(四隣疆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풍속(風俗)·각리(各里)·호구(戶口)·전결(田結)·산천(山川)·토산(土産)·관우(館宇)·성곽(城廓)·단묘(壇廟)·학교(學校)·서원(書院)·역원(驛院)·군기(軍器)·봉수(烽燧)·제언(堤堰)·관개(灌漑)·정사(亭榭)·교량(橋梁)·불우(佛宇)·고적(古蹟)·임관(任官)·명환(明宦)·성씨(姓氏)·인물(人物)·선행(善行)·규행(閨行)·견행(見行)·문과(文科)·무과(武科)·사마(司馬)·총묘(塚墓)·정표(旌表)·책판(冊板)·제영(題詠)·총담(叢談) 등으로 되어 있다. 고적조에 가야국(伽倻國) 옛터라는 2곳의 위치를 밝히고, 우곡(牛谷) 구릉에 고총(古塚) 40여 기가 있다고 기록 하였다.
동국지리지 (東國地理志)	1615/한백겸	조선시대 광해군 7년(1615)경에 한백겸(韓百謙)이 지은 역사지리서로서 1책 60장이다. 내용은 중국 사서(史書)의 열전(列傳)에 기록된 부족국가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여 쓴 부분, 삼국(三國)에 대한 서술 및 부록으로 붙인 서술 부분, 고려에 대한 서술 부분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상고사에 대한 기록은『전한서(前漢書)』조선전(朝鮮傳),『후한서(後漢書)』의 고구려전(高句麗傳)·동옥저전(東沃沮傳)·예전(濊傳)·부여전(扶餘傳) 등의 원전을 약간 생략하여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삼국에 관한 부분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서로 국도(國都)·봉강(封疆)·형세(形勢)·관방(關防)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국도는 각 나라의 옛 국도를 시대순으로 쓰고 그 국도를 잡게 된 연혁을 밝히고 있다. 봉강 부분에서는 그 나라의 영역 내에 흡수된 부족국가나 역사적 유래가 있는 지명에 대한 설명이 있다. 고려 시대에 관해서는 국도에서 개성부(開城府)·서경(西京)·남경(南京)·동경(東京)·강도(江都)·중흥전(重興殿)·신경(新京)·북소궁(北蘇宮)에 대한 설명과 봉강·형세·관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 책에 나타난 지리 비정은 후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삼한의 경우 한강을 경계로 북쪽은 조선 및 한사군의 영토이고 남쪽은 삼한의 영토라 하여 이전의 최치원설이나 권근설과 다른 독창적인 학설을 제시하였다. 이 설이 정극후·류형원·정약용 등에게 계승되었다. 금관국과 가야국 등은 신라에 부재되었다.
동국여지지 (東國與地志)	1666/유형원	조선시대 후기에 유형원(柳馨遠,1622~1673)이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며, 9권 10책이다. 효종 7년(1656)에 완성한 뒤 현종 7년(1666) 경에 한차례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권1 경도(京都)·한성부·개성부, 권2 경기, 권3 충청도, 권4 상·하(上·下) 경상도, 권5 상하 전라도, 권6 황해도, 권7 강원도, 권8 함경도, 권9 평안도로 되어 있다. 이 중 권4의 상(上)에 해당하는 경상도 35개 군현의 읍지가 결여되어 있다. 체제는 첫머리에 총서·목록 등이 있고, 본문은 경도·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읍마다 한전(旱田)·수전·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풍속·산천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총서(總敍)에서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강성을 약술하였다. 주로 한백겸을 주장을 많이 참고하였다. 선조 25년(1592)에 수로왕릉이 왜구에게 도굴된 것을 향인(鄕人)들이 함께 봉축(封築)하였고, 그후 관찰사 허적(許積)이 비를 세우고 허목(許穆)이 그 음기(陰記)를 찬수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성산지 (星山誌)	1677/이원정	조선시대 숙종 3년(1677)에 이원정(李元禎)이 편찬한 경상도 성주(星州)의 읍지(邑誌)이다. 처음 간행된 이후 순조 32년(1832)에 지방 사림들에 의해 한차례 증보되었지만, 간행되지는 않았다. 1936년에 재편찬이 이루어져 1938년과 1939년에 각각 6권 3책, 7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 목차는 서(序)·지도·범례·목록에 이어 경계도리(境界道理)·건치연혁(建置沿革)·성씨·풍속·산천·토산 등의 순서로 서술되어있다. 고분조에 속칭 성주군내의 고래장(古來葬) 또는 고려총(高麗塚)에 대한 논설이 재미있다. 고적조에 명암수촌(明巖樹村)이 곧 벽진국고허(碧珍國故墟)였다는 전승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17세기말/이세구	이세구(李世龜,1646~1700)가 지은 역사지리서이다. 삼한과 4군을 비롯하여 옛 지명을 비정하였다. 삼한의 경우 한백겸설이 옳음을 논증하였다.
산청현읍지(山淸縣邑誌)	1744년경/	조선시대 영조 20년(1744)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청현의 읍지이며 1책이다. 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건치연혁(建置沿革)·읍명(邑名)·형승(形勝)·성지(城池)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산청현읍지 가운데 『신증속국여지승람』 이후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산천조에는 속전(俗傳)을 인용하여 왕산(王山)에 오래된 릉이 있었다고 전한다.
강계고(疆界考)	1756/신경준	조선시대 영조 32년(1756)에 신경준(申景濬)이 저술한 역사지리서이며, 4권으로 되어있다. 상고에서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국토의 강계(彊界: 지리적 경계)·위치·산천·성첩(城堞)·섬·교린(交隣)·외침(外侵) 등 영토의 확대와 축소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각 사항마다 저자의 의견도 붙였다. 제1권은 서문과 조선의 다른 이름, 그리고 전조선(前朝鮮)과 후조선(後朝鮮), 제2권은 고구려국·진국·삼한·백제국, 제3권은 백제국·신라국·고려, 제4권은 조선을 수록하였다. 각각에 여러 소국들을 덧붙이고, 국도(國都)와 강계(疆界)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가라국(加羅國)·임나국(任羅國), 금관조(金官條)에 임진왜적에 의해 수로왕릉이 도굴되었을 때 두개골이 나왔다는 전승이 추가되었다.
여지도선(輿地圖書)	1765/	조선시대 1757년(영조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만든 전국 지리지로서, 영조 41년(1765)에 편찬되었다. 55책으로서 전국의 읍지들을 수합하여 편집한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이다. 강도부(江都府)·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경상도·전라도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각도의 채색지도와 고금연혁·군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읍에도 채색지도가 실려 있고, 강성(疆城)·방리(坊里,戶口 포함)·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성지(城池) 등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이기 때문에 18세기 중엽 지방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함안의 고적조에 성산산성(城山山城)이 가야국구허(伽倻國舊墟)라는 서술이 처음 나오고, 함창(咸昌)이 고적조 신증항목에 가야왕묘(伽倻王墓)가 새로 나오면서 본현의 김씨가 그 후예로서 비를 세우고 제사 지낸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고성현읍지(固城縣邑誌)	1785년경/	조선시대 정조 9년(1785)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현의 읍지로서 1책이다. 목차는 방리(坊里)·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성지(城池)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람(勝覽)』을 본뜬 건치연혁에 가야제국(伽倻諸國)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함창현읍지(咸昌縣邑誌)	1786년경/	조선시대 정조 10년(1786)에 편찬된 함창현의 읍지이다. 목차는 위치·방리(호구)·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가야관계 기록은 『여지도서』의 신증항목과 같이 가야왕묘(伽倻王墓) 기록이 나온다.
김해부읍지(金海府邑誌)	조선시대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김해부에서 만든 읍지(邑誌)로서 1책이다. 조선 정조대(1766~1800)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목차는 방리·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산천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소략하다. 풍속조에 부노(父老)들이 수로왕·허후를 제사한 후 회로당(會老堂) 당상에 '정풍속절목(正風俗節目)'을 걸었는데, 지금은 그 당(堂)이 허물어졌다는 기록이 추가되었다.
함안군읍지(咸安郡邑誌)	1776~1800/	조선시대 정조대(1776~1800)에 편찬된 것으로 함안군의 읍지이며, 1책이다. 목차는 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 등이다. 앞서 편찬된 함주지(咸州志)보다 소략하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경상도읍지 (慶尙道邑誌)	1832년경/	조선시대 순조 32년(1832) 경에 편찬된 경상도 71개 군현의 읍지이며,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읍의 선생안조(先生案條)나 호구·전결의 기록 연대, 서원의 사액과 지명의 변천 등을 통하여 1832년에 편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제8책의 고성·금산·영덕·의성읍지는 뒷날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영남읍지(嶺南邑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수록 항목은 총 40항목으로서 각 읍이 모두 같은 순서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읍의 머리에는 채색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하여 관아·향교·서원·산천·도로·봉수·역·사원 등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어서, 각 읍의 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도서·풍속·방리(坊里)·호구·전부·군액(軍額)·성지(城池)·임수(林藪)·군기·창고·관방(關防)·진보(鎭堡)·봉수·학교·단묘(壇廟)·총묘 또는 능묘·불우(佛宇)·공해(公廨 또는 宮室)·누정·도로·교량·제언·장시·역원·목장·형승·고적·토산·진공·봉름(俸廩)·환적(또는 先生案)·과거·인물·제영(題詠)·비판(碑板 또는 册板) 등 역사·지리·정치·경제·사회·문화·풍속·인물·시문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상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야관계 기록으로 별다른 추가사항은 없으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함창현 능묘조에 본읍의 서리(胥吏)는 함녕김씨가 많으며 그들이 가야왕묘(伽倻王墓)의 후예를 칭했다는 설명이 구체적이다. 김해부(金海府) 제영(題詠)·비판(碑板條)에는 가야를 언급한 조선시대의 새로운 문장들이 다수 추가되고 있다.
강역고 (疆域考)	1811/정약용	조선시대 후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역사지리서이며, 10권이다. 1811년에 완성하였고, 1833년에 발해고(渤海考)를 첨부하여 속고(續考)를 완성하였다. 먼저 단군조선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고대 국가들의 강성과 역사를 고증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 및 패수·백산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조선시대 8도의 연혁과 서북로의 연혁을 고증하였다. 특히 삼한사를 복원하는 데 힘을 기울여 삼한총고와 마한고·진한고·변진고·변진별고를 설정하였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한총고에서 한백겸(韓百謙)의 설을 따르고 있다. 변진고에서는 변한(卞韓)이란 본래 없는 것으로 변진(弁辰)이 옳으며, 변진은 곧 가라(迦羅)라 하였다. 변진별고(弁辰別考)는 가라고(迦羅考)라고도 하며, 여기서는 迦羅(伽倻)가 본래 6국이었으나 뒤에 12국으로 성장하였고, 금관국 수로왕은 변진 12국의 총왕으로 마한인이라 하였다. 특히 가야는 해운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함으로써 진한 즉 신라를 속국으로 할 수 있었다는 독창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백겸(韓白謙)의 『동국지리지』,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와 같이 실학자가 저술한 우리 나라의 역사지리서로서, 사료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서술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리서이다.
산청읍지 (山淸邑誌)	1822~1834/	조선시대 순조 22년(1822)부터 34년(1834) 사이에 편찬된 산청현의 읍지로서 1책이다. 채색지도에 이어 건치연혁·읍명·관직·성씨·산천·풍속·방리 등의 순으로 체제가 구성되어 있고, 말미에 산청현군국총목(山淸縣軍國摠目)이 부기되어 있다. 가야관계의 추가 기록사항은 없다.
가락삼왕사적고 (駕洛三王事蹟考)	1800?/	가락국 수로왕·구형왕·흥무왕[김유신] 세 왕의 사적에 대하여 정리한 일종의 사찬읍지이며, 9권으로 되어있다. 반문(跋文)의 내용으로 보아 김봉식(金鳳植)이 편찬한 듯하다. 책의 성격은 김해·산청·경주읍지에서 가야관계의 인물 및 고적·비판조 등을 모아 놓은 것과 같다. 조선시대 정조 24년(1800)에 출간되었다고 하나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철종 2년(1851)의 중간본이 남아있다. 제1권에는 수로왕묘비명(首露王廟碑銘)·왕산구형왕화상비명(王山仇衡王畵像碑銘)·왕산흥무왕사대비명(王山興武王射臺碑銘) 등 산청현 소재 유적들에 대한 비명들이 있다.제2~4권에는 수로왕 및 관계 유적에 대한 각 사서·읍지 기록의 발췌와 조선 영·정조代의 수로왕능 치제문(致祭文), 제5·6권에는 구형왕에 대한 사서 기록 발췌와 전구형왕능의 발견 및 인정을 둘러싼 왕산사기(王山寺記) 등 제반 기록, 제7·8권에는 김유신에 대한 사서기록의 발췌와 김유신묘에 대한 치제문(致祭文)의 기록이 있으며, 제9권에는 부록으로 산청 구형왕능 묘역을 둘러싼 1822년의 「국내범장굴이조관(局内犯葬堀移曺關)」과 1840년의 「묘지비추입영제금양송(廟址碑推立營題禁養訟)」에 대한 해당 관청의 문건(文件)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대동지지 (大東地志)	1864/김정호	조선시대 후기 고종 원년(1864)에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지리서이며, 32권 15책으로 되어있다. 이보다 앞서 철종 14년(1863)에 완성한 『청구도(靑丘圖)』의 지지(地誌)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산수고(山水考)와 변방고(邊方考), 방여총지(方輿總志) 등이 새로이 첨가하였다. 『청구도』의 지도 부분을 재정리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는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체재는 총목과 문목(門目)·인용서목(引用書目)·목록에 이어 경도·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산수고·변방고·정리고(程里考)·방여총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24권까지의 도별 기록에는 각 군읍의 연혁·고읍·방면·산수(嶺路·島嶼)·형승·성지(城池)·영아(營衙)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말미의 방여총지는 4권인데, 제1권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한이부(漢二府)·요심제국(遼瀋諸國)·삼한제국·신라소병제국(新羅所并諸國)·지분미상제국(地分未詳諸國), 제2권은 신라, 제3권은 가야·백제·고구려·발해국·후삼한, 제4권은 고려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산수고(제25권)와 변방고(제26권)는 결본으로 전하지 않는다. 지리지 및 읍지의 가야관계 기록들이 간략하게 종합되어 있다. 산청 산천조에 왕산(王山)에 가야국(加耶國) 구형왕릉(仇衡王陵)이 있고 왕산사(王山寺)는 구충왕의 수정궁(水晶宮)이며 산 아래 구형왕사(仇衡王祠)가 있다는 기록이 지지(地誌) 계통에서 처음 기록된 것이다.
동국통지 지리지 (東國通志 地理志)	1868/박주종	조선시대 고종 5년(1868)에 박주종(朴周鍾)이 편찬한 백과사전인 『동국통지』의 지리지이다. 『동국통지』는 24권 17책으로서 단군 이래 당대까지의 문물제도를 천문지(天文志)·오행지(五行志)·율역지(律歷志)·지리지(地理志)·제사지(祭祀志)·예악지(禮樂志)·병위지(兵衛志)·형법지(刑法志)·식화지(食貨志)·예문지(藝文志)·학교지(學校志)·선거지(選擧志)·백관지(百官志)·여복지(輿服志) 등 14개 지(志)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가야 관련 기록은 제5·6권의 지리지에 실려 있다.
영남읍지 (嶺南邑誌)	1871/	조선시대 고종 3년(1871)에 편찬된 경상도지방의 읍지이다.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보내온 경상도 각 군현의 읍지 및 역지(驛誌)·목장지(牧場誌)·진지(鎭誌)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서 17책이다. 경상도의 71개읍 가운데 거제·거창·김해·상주·선산·성주·창원·하동 등 8개읍을 제외한 63개읍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산청현 산천조에 왕산(王山)의 돌구릉은 정조 무오년(1798)에 고적이 처음 나와서 가락국 구형왕묘임이 확인되었고 김해김씨로서 구형왕을 조상으로 삼는자 들이 사당을 세우고 수호한다는 기록이 추가되었다.
영지요선 (嶺誌要選)	1876/최석봉	조선시대 고종 13년(1876)에 최석봉(崔錫鳳)이 영남지방의 읍지들을 간추려 만든 책으로 2권 2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책에는 서(序)와 총목(總目)에 이어 경주·안동·대구·울산 등 경상좌도의 40개 읍, 하책에는 상주·진주·성주·창원·김해 등 경상우도의 31개 읍이 실려있다. 각 읍마다 연혁·산천·관사·방리·역로 등의 항목이 있다. 함창 고적조에 가야왕(伽倻王)이 유람하며 연꽃을 감상하던 곳이라는 '정연지(井蓮池)'가 추가되었다.
영남읍지 (嶺南邑誌)	1894/	조선시대 말기에 편찬된 경상도 지방의 읍지이다.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에 따라 고종 31년(1894) 11월부터 이듬해 5월에 걸쳐 작성된 경상도 각읍의 읍지들을 의정부에서 한데 묶은 것으로 34책이다. 경주·기장·영일·장기(長鬐)·진해 등 5개읍을 제외한 66개읍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전의 읍지들을 거의 그대로 발췌해서 옮긴 것이며, 체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환적조(宦績條)만은 1894년 경까지 보완했다. 가야관계 기록은 별다른 새로운 기록의 추가는 없다.
고령군읍지 (高靈郡邑誌)	1899/	1899년에 편찬된 고령군의 읍지로서 1책이다. 목차는 지도·목록·건치연혁·군명·성씨·관직·부곡(部曲) 등의 순서이다. 가야 관계 기록은 새로이 추가된 것은 없으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고성군읍지 (固城郡邑誌)	1899/	1899년에 편찬된 고성군의 읍지로서 1책이다. 목차는 채색지도·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방리·호구·전부 등의 순이다. 가야관계 기록은 새로운 추가가 없다.
김해읍지 (金海邑誌)	1899/	1899년에 편찬한 김해군의 읍지로서 1책이다. 목차는 채색지도·목록·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방리·호구·전부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가야에 관한 기록은 많은 편이다.
성주군읍지 (星州郡邑誌)	1899/	1899년에 편찬된 성주군의 읍지로서 1책이다. 목차는 채색지도·목록·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방리·호구·전부 등의 순이다. 가야관계 기록은 추가된 것이 없다.
함안군읍지 (咸安郡邑誌)	1899/	1899년에 편찬된 함안군의 읍지인데 1책이다. 목차는 진가진관방리·도로·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가야관계 기록은 추가된 것이 없다.
함창군읍지 (咸昌郡邑誌)	1899/	1899년에 편찬된 함창군의 읍지인데 1책이다. 목록·사계(四界)·방리·건치연혁·군명·관직·봉품(俸稟)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고종 3년(1871)에 편찬된 영남읍지를 그대로 옮겨적었다. 환적(宦蹟)·호구·전부(田賦) 등의 항목에서는 이후의 변동 사항을 추가하였다. 산천조에 가야왕(伽倻王)이 놀러 왔었다는 '대가산(大駕山)'이 추가되고 교량조(橋梁條)에 가야왕때 이룬 것이라는 '누교(樓橋)'가 추가되었다.
대한강역고 (大韓疆域考)	1903/장지연	1903년에 장지연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현대식으로 증보한 역사지리서이며, 9권이다. 일본 고사(古史)에서 임나고(任那考)를 첨가하고, 새로 발견된 황초령비문(黃草嶺碑文)과 당시 문제시되었던 백두산정계비고(白頭山定界碑考)를 증보하여 '대한강역고'라고 제목을 바꿔 간행하였다. 체제는 강(綱)과 목(目)을 구분하고 목에는 여러 서적에서 강에 관계되는 사항을 뽑아 인용하였고, 밑에는 저자의 견해를 밝힌 안설(按說)이 첨부되었다. 내용 구성에서 1권에는 조선고(朝鮮考)·사군총고(四郡摠考)·낙랑고(樂浪考)·현도고(玄菟考)·임둔고(臨屯考)·진번고(眞番考)·낙랑별고(樂浪別考)·대방고(帶方考), 2권에는 삼한총고(三韓摠考)·마한고(馬韓考)·진한고(辰韓考)·변한고(弁韓考)·변진별고(弁辰別考)·임나고(任那考), 3권에는 졸본고(卒本考)·환도고(丸都考)·안시고(安市考)·위례고(慰禮考)·한성고(漢城考)로 되어있다. 또한 4권에는 옥저고(沃沮考)·예맥고(濊貊考)·예맥별고(濊貊別考)·말갈고(靺鞨考), 5권에는 발해고(渤海考)·발해속고(渤海續考), 6권에는 북로연혁고(北路沿革考), 7권에는 서북로연혁고(西北路沿革考)와 부록으로 구련성고(九連城考), 8권에는 패수변(浿水辨)·백산보(白山譜), 9권에는 백두산정계비고로 되어 있다. 특이점은 일본측 사서에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삼한에 관한 사실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강역고의 삼한총고와 마한고·진한고·변한고·변진별고 등이 그대로 실리고, 그 뒤에 임나고라 하여 대가야(大伽耶)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첨부되었다.

중국사서에 보이는 가야기록

중국의 정사서 중 『후한서後漢書』, 『삼국지』, 『남제서』 등이 가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대표적 역사서이다. 특히 진수陳壽가 편찬한 위魏,촉蜀,오吳 삼국시대를 서술한 기전체 정사서인 『삼국지』 위서魏書에는 최초로 동이전東夷傳을 설정하여 삼한관계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후의 중국 역사서들은 대부분 『삼국지』에 의거해 기록하고 있다.

『삼국지』는 3세기 이전 가야사회의 모습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의 기록으로서 전기가야에 해당하는 변한제국의 사회모습을 보여주는 최상의 문헌사료이다. 하지만 『삼국지』의 삼한에 대한 기록과 『삼국사

기』의 초기 기록이 너무 상이하여 한국고대사회의 국가 형성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후한서』의 경우 진수의 『삼국지』보다 편찬시기가 늦으므로, 『삼국지』에 비해 사료적 가치는 떨어진다. 『남제서』에는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고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제수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소략하지만 가야의 대외관계를 통한 가야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며, 가야 전체를 통틀어 중국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에 가야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8] 특히 '가라국왕'이라는 작호는 가라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는 왕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9]

6세기 전반대에 쓰여진 『양직공도梁職貢圖』의 경우, 백제국사百濟國使 신도경臣圖經조에 6세기초 당시의 가야 여러 나라들의 국명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야사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기문上己汶, 하침라下枕羅 등이 나타나는데 당시 가야제국의 국명을 알 수 있어 의미있다. 『양서梁書』와 『수서隋書』 등의 정사서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 앞의 사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이다. 『한원翰苑』(660년) 번이부蕃夷部에는 한국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위략魏略』이 인용되고 있지만, 가야관계 기록들은 전대의 기록들을 되풀이 하고 있는 수준이다. 송나라 태종대(983년)에 만들어진 『태평어람太平御覽』과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삼한 및 가야관계 기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표5 중국사서에 보이는 가야기록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삼국지 (三國志)	265~316/진수	중국 위·촉·오 삼국시대를 서술한 기전체 정사로서 6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편찬하였다. 유송(劉宋)의 배송지(裵松之)가 보주(補注)를 달아 본문과 합각하였는데, 배송지의 주는 지금은 잃어버린 어환(魚豢)의 『위략(魏略)』 등 많은 사서를 인용하여 『삼국지』의 사료적 가치를 더욱 높혔다.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이며, 지·표 등은 없다. 『삼국지』 위서(魏書)에 동이전(東夷傳)이 최초로 설정되었고, 그 후의 사서들은 이를 따랐다. 동이전에 기록된 삼한관계 사료는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가야가 존재했던 동시기의 기록으로서 전기가야 즉, 가야의 전기에 해당하는 변한제국의 사회모습을 보여주는 최상의 문헌사료이다.
후한서 (後漢書)	420~479/범엽	중국 후한시대에 대한 기전체 역사서로서 1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유송(劉宋)의 범엽(范曄)이 편찬하고, 당나라의 장회태자(章懷太子) 이현(李賢)이 주석을 달았다. 본기 9권, 후기(后紀) 1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80권으로 짜여져 있다. 본기·열전은 남조 송나라 범엽의 저작이고, 지는 남조 진나라 사마표(司馬彪)의 저작이다. 『한서(漢書)』에 이은 정사이지만, 성립연대가 진수의 『삼국지』보다 늦어서 사료적 가치는 그보다 뒤진다. 동이열전에 삼한관계 기록이 전하며, 문장이 간결하고 『삼국지』에 보이지 않는 기사도 더러 있다.

8 임기환, 「남북조기 한중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고구려 · 백제의 책봉 · 조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32, 서경문화사, 2003.

9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진서 (晉書)	627~649/ 방현령	중국 서진(西晉) 및 동진(東晉)시대를 기록한 기전체 정사로서 130권이다. 당나라 태종 정관(貞觀,627~649) 말기에 방현령(房玄齡)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제기(帝紀) 10권, 지(志) 20권, 열전(列傳) 70권 및 5호16국의 사실을 기록한 재기(載記)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는 없다. 진대사(晉代史) 연구의 기본 사료이지만, 많은 사관들이 편찬에 참여하여 전후 기록이나 전기간의 기록들 사이에 어긋난 서술도 있다. 사이전(四夷傳)의 마한 및 진한 관계기사는 대체로 『삼국지』의 기록을 간단하게 요약한 듯하나, 그 말미 기사와 본기에 3세기 후반 당시의 동이(東夷) 또는 마한·진한과 서진 사이의 교역관계 기사가 있어서 삼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송서 (宋書)	488/심약	중국 남조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정사로서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제 무제 영명(永明) 6년(488)에 심약(沈弱) 편찬하였다. 침약의 진표(進表)에는 기(紀)·전(傳)·표(表)·지(志)를 합하여 모두 70권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제기(帝紀) 10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60권이 전하고 있다. 표(表)·식화지(食貨志)·형법지(刑法志)·예문지(藝文志) 등이 결락되었다. 만이전(夷蠻傳)내에 왜국전(倭國傳)에 전하는 잔(讚)·무(武) 등 왜오왕(倭五王)의 작호(爵號)에 임나(任那)·가라(加羅) 등의 이름이 들어있어 가야와 왜와의 관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제서 (南齊書)	502~519/소자현	중국 남조 제(齊)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정사로서 59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국 양대(梁代) 천감(天監)연간(502~519)에 소자현(蕭子顯)이 편찬하였다. 원래는 60권이었는데 당대에 1권을 잃어버려, 현재는 본기 8권, 지(志) 11권, 열전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사 중 유일하게 가라국전(加羅國傳)을 개설하였다. 대가야의 왕으로 보이는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479년에 남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보국장군(輔國將軍) 본국왕(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은 기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양서 (梁書)	629/요사렴	중국 남조 양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정사로서 56권 분량이다. 중국 당나라 태종 정관(貞觀) 3년(629)에 요사렴(姚思廉)이 칙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본기 6권, 열전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이전(諸夷傳)의 왜 관계 기록에서 『삼국지』및 『송서』의 왜국 관계 기록을 간략하게 종합하였는데, 그 중에 임나(任那)·가라(伽羅)의 이름이 다시 나온다.
양직공도 (梁職貢圖)	526~539/소역	중국 남조 양나라에 입조(入朝)한 직공사적(職貢使節)들에 대한 그림과 간단한 기록이다. 중국 양나라 무제(502~549) 때에 소역(蕭繹,후의 양 원제)이 직접 직공도(職貢圖)를 그리고 그 서(序)를 지었으며, 편집시기는 그가 형주자사로 있었던 시기(526~539)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국사(百濟國使) 신도경(臣圖經)에 6세기초 당시의 가야소국들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가야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다.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기문(上己汶), 하침라(下枕羅) 등이다.
수서 (隋書)	656/장손무기, 위징	중국 수나라대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정사로서 85권 분량이다. 중국 당나라의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위징(魏徵)이 편찬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위징과 안사고(顔師古) 등에게 『수사(隋史)』를 편수시켰다. 정관(貞觀) 10년(636)에 제기(帝紀) 5권과 열전(列傳) 50권을 완성하였다. 그후 고종 현경(顯慶) 원년(656)에 양(梁)·진(陳)·제(齊)·주(周)·수(隋)의 오대사지(五代史志) 30권을 추가하여 현재의 『수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은 수대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지는 그 이전의 사적도 서술하고 있다. 「신라전」에 신라가 가라국(迦羅國)에 부용(附庸)이 되었다는 기사가 처음 나온다.
남사 (南史)	659/이연수	중국 남조 송·제·양·진 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통사로서 80권 분량이다. 중국 당나라 고종 현경 4년(659)에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하였다. 본기 10권, 렬전 70권으로 구성되었다. 이대사(李大師)는 남북조 각 왕조의 사서는 공평한 기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남북조 8대의 통사를 쓰려고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인 리연수가 유지를 계승하여 『남사』와 『북사』를 완성했다. 『남사』는 『송서』·『남제서』·『양서』·『진서』보다 내용이 간략하다. 왜국전(倭國傳) 중에 임나(任那)·가라(加羅)의 이름이 나오나, 『송서』를 그대로 좇아 쓴 것이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북사 (北史)	659/이연수	중국 북조 북위·북제·북주·수의 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통사로서 100권이다. 중국 당나라 고종 현경 4년(659)에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하였다. 본기 12권, 열전 8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과정은 『남사』와 동일하다. 『북사』는 『남사』보다 기록이 상세하다. 신라전 중에 진한 및 가라국(迦羅國) 기사가 나오나, 「위지(魏志)」 한전과 『수서』를 요약한 것이다.
구당서 (舊唐書)	945/유후	중국 당나라대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서로서 200권으로 되어 있다. 중국 오대 후진(後晉) 고조(高祖)의 칙명을 받아 개운(開運) 2년(945)에 유후(劉煦)가 편찬하였다. 본기 20권, 지 30권, 열전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말의 내란으로 인하여 사료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편찬 당시 사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라전에 신라가 변한의 묘예(苗裔, 먼후손)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
신당서 (新唐書)	1060/구양수, 송기	중국 당나라대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서로서 225권으로 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 인종의 명을 받아 가우(嘉祐) 6년(1060)에 구양수(歐陽修) 등이 편찬하였다. 송대에 와서 당대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자 이들을 토대로 『구당서』의 결점을 보충하여 고쳤다. 『당서』라고도 불린다. 본기 10권, 지 50권, 표 15권, 열전 1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양수가 본기·지·표를 편찬하였으며, 송기(宋祁)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열전을 편찬하였다. 신라가 변한(弁韓)의 후손[苗裔]라는 기록이 다시 나온다.
한원 (翰苑)	660/장초금	중국 역대 문화에 대한 일종의 사류부(事類賦)로서 30권이다. 중국 당나라 고종 현경 5년(660)에 장초금(張楚金)이 편찬하고 옹공예(雍公叡)가 주(注)를 달았다. 『한원』 번이부(蕃夷部)에는 흉노·오환·선비·부여·삼한·고구려·신라·백제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위략』 등이 주에 인용되고 있어 한국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삼한, 신라 및 왜국에 관한 문장 및 주에 가야관계의 전대기록들이 되풀이 하여 나온다. 다만 신라조의 「지총임나(地惣任那)」 글귀의 주에 『남제서』 가라국전을 인용하여 임나와 가라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당시 신라 기로(耆老)의 언급으로서 "가라·임나가 옛날에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는 내용이 중국측 기록으로는 처음 확인된다.
통전 (通典)	801/두우	중국 상고로부터 당나라 현종대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제도를 8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한 역사서로서 200권 분량이다. 중국 당나라 덕종 정원(貞元) 17년(801)에 두우(杜佑)가 편찬하였다. 식화(食貨) 12권, 선거(選擧) 5권, 직관(職官) 21권, 예(禮)99권, 악(樂) 6권, 병(兵) 16권, 형(刑) 7권, 주군(州郡) 13권, 변방(邊防)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방문에 마한·진한·변한·신라전 등이 따로 있다. 전대의 동이전 관계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신라전에는 신라가 가라(加羅)·임나제국(任那諸國)을 공격하여 멸한 기사가 나온다.
태평어람 (太平御覽)	983/이방	중국 역대의 문화에 대하여 55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한 유서(類書)로서 1,000권이다. 국 송나 태종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이방(李昉) 등이 편찬하였다. 전대의 유서와 일서(佚書)들을 인용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삼한·진한·변한·신라 및 왜전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인용출전(引用出典)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책부원구 (册府元龜)	1013/왕흠약	중국 상고로부터 오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과를 31부, 1115문(門)으로 나누어 기록한 유서(類書)로서, 분량이 1,000권이다. 중국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6년(1013)에 왕흠약(王欽若) 등이 편찬하였다. 당·오대에 관한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외신부(外臣部)에 삼한 및 가야 관계 기사가 종족·국읍·토풍·조공·강부(降附) 등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기존 역사서의 동이전 관계 기록과 본기의 편년 자료들도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사서에 보이는 가야기록

가야는 일찍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인지 일본 역사서에는 가야관련 기사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서기』이다. 이 책은 원정천황元正天皇 양로養老 4년(720년)에 신대부터 지통천황持統天皇 10년(696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으며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와 임나 관련사료가 풍부하지만 내용과 편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백제본기百濟本紀』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6세기대의 기록인 계체기繼體紀·흠명기欽明紀는 편찬과정에서 일본 및 백제 또는 백제유민의 시각에 의해 그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6세기 전반 내지 중엽까지의 가야사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6세기대 들어 한반도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신라의 성장이었다.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시기이다. 아울려 백제도 고구려와의 갈등 속에서 후방을 친백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가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가야를 두고 백제와 신라가 서로 다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상황을 『일본서기』는 잘 보여주고 있다. 6세기 초에 백제는 섬진강 상·하류 지역으로 진출한다. 즉 기문[전북 남원]·대사[경남 하동]지역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아라가야[안라국]은 백제와 신라로부터 가야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529년 '안라고당회의安羅高堂會議'를 개최했다.

하지만 신라는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532년 가락국[금관가야]의 신라항복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야정복을 시작했다. 탁순, 탁기탄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제 성왕은 '사비회의泗泌會議' 개최를 통해 신라에 의해 멸망한 탁순과 탁기탄, 남가라[가락국, 금관가야] 재건을 명분으로 삼아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을 막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백제의 사비회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라가야에 있었던 '재안라제왜신在安羅諸倭臣'들도 가야의 외교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라는 가야지역 진출을 멈추지 않았고, 554년 백제 성왕은 가야의 군대와 함께 신라를 공격했다. 관산성전투이다. 이 전쟁에서 백제와 가야는 패배했고, 이로 인해 신라는 가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아라가야는 560년경, 대가야는 562년에 신라에 정복되었다.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다.

『일본서기』 외에도 가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사서들이 있다. 712년 편찬된 『고사기古事記』, 797년 편찬된 『속일본기續日本記』, 815년 만들어진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등이다. 하지만 가야관련 자료들은 극히 일부이며, 일본에서만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야사회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찬성씨록』의 경우 가야계통의 성씨를 발견할 수 있어, 가야와 일본의 인적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표6 일본사서에 보이는 가야기록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일본서기(日本書紀)	720/도네리친왕[舍人親王]	일본 신대(神代)부터 지토천황(持統天皇) 10년(696)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로서 총 30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과 제2권은 신대(神代)를 다루고 있으며, 이하 28권은 진무(神武) 천황에서 지토(持統) 천황까지 40대에 걸친 역사를 다루었다. 일본 겐쇼천황(元正天皇) 양로(養老) 4년(720)에 편찬되었다. 원래 책명은 『일본기(日本紀)』였다. 『제기(帝紀)』·『구사(舊辭)』 외에 사원의 기록, 씨족의 가전(家傳), 한반도 관계 기록 등 다양한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는 가야와 임나 관련사료가 풍부하다. 하지만 내용과 편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백제본기(百濟本紀)』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계체(繼體)·흠명(欽明) 천황대의 풍부한 기사는, 일본 및 백제 또는 백제유민의 시각에 의해 편찬과정에서 그 내용이 바뀐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6세기 전반 내지 중엽까지의 가야사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여기에 수록한 사료는 신대(神代)의 경우만 복부겸방본(卜部兼方本)을 저본으로 했고, 나머지는 모두 복부겸석본(卜部兼右本)을 저본으로 했다.
고사기(古事記)	712/오노 야스마로[太安萬侶]	일본 덴무[天武]천황 5년(712)에 칙명에 의해 오노 야스마로[太安萬侶]가 편찬했다. 일본의 건국사를 신화 전설을 중심으로 정리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며, 3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는 신대(神代)의 이야기인 신화를, 중권에는 진무(神武) 천황에서 오진(應神) 천황까지 15대에 이르는 역사를, 하권에는 진토쿠(仁德) 천황부터 스이코(推古) 천황에 이르는 18대의 역사를 아울러 총 33대에 이르는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고사기(古事記)』에는 가야 또는 임나관계 사료가 거의 없다. 하지만, 「한(韓)」(カう)자가 나오는 기사, 즉 이이예명대(邇邇藝命代) 천손강림조(天孫降臨條)가 있다.
풍토기(風土記)	8세기/	일본 고대, 즉 나라[奈良] 시대(710~794)에 관명에 의해 각 지방 관청이 쓰고 편집한 지역별 인문지리지이다. 일본 겐쇼천황 6년(713)의 제국(諸國)의 지명유래, 특산물, 기타 전승 등을 실어 보고하라는 명령에 기초하여, 기술한 보고서 들이다. 한권의 책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고 각국의 풍토기가 따로 전하며, 히타치[上陸], 하리마[播磨] 및 히젠[肥前] 등의 풍토기 등에 「한국(韓國)」 또는 「임나(任那)」관계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일본 국내의 전설 차원일 뿐이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815/후지와라노 소논도[藤原園人]	일본 고대의 성씨를 정리한 책으로 30권 분량이다. 일본 사가[嵯峨]천황 6년(815)에 후지와라노 소논도[藤原園人]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목록 1권. 키나이[畿內]에 본거를 둔 1,182씨를 황별(皇別)·신별(神別)·제번(諸蕃)으로 분류하여 그 계보의 유래를 기록하였다. 성씨록(姓氏錄)에서 가야계통의 성씨를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임나 출신임을 자칭하는 성씨는 多多良公·田首·大伴造·豊津造·韓人·荒荒公 등 6개이다. 그러나 발음상 「가라」·「미마나」와 관련이 있거나, 내용상 가야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난다.
속일본기(續日本記)	797/스가노 마미치[菅野真道]	일본 몬무[文武]천황 원년(697)부터 간무[桓武]천황 10년(791)까지를 서술한 편년체 역사서로소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간무[桓武]천황 16년(797)에 스가노 마미치(菅野真道)등이 칙명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가야계 이주민의 후손과 관련한 약간의 사료가 있다. 사성(賜姓)과 관련하여, 자기 조상이 가라국의 출신임을 밝힌 가라조(賀羅造)의 례와, 자기 성씨에서 「한국(韓國)」자를 빼달라는 한국련(韓國連)의 사례가 대조를 이룬다.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869/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	일본 덴초[天長] 10년(833)부터 가쇼[嘉祥] 3년(850)까지 이르는 닌묘[仁明]천황 일대(一代)에 대한 편년체 역사서로서 20권이다. 일본 몬토쿠[文德]천황의 칙명에 의해 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 등이 편찬하여 869에 완성하였다. 대가야와 백제가 패권을 다투던 기문(己汶,임실·남원) 출신의 후손인 기치타노무라지[吉田連] 관계 기사가 있다.

자료명	년도/편찬자	내용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901/미나모토노 요시아리[源能有]	일본 세이와[淸和]·요제이[陽成]·코코[光孝] 삼대(858~887)의 천황에 대한 편년체 실록으로 50권이다. 일본 엔기[延喜] 원년(901)에 미나모토노 요시아리[源能有]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센카[宣化]천황대에 임나에 봉사(奉使)했었다는 대반협수언(大伴狹手彦)의 후손인 반대전숙녜(伴大田宿禰)의 사성(賜姓)관계 기사가 있다.
성덕태자전력(聖德太子傳曆)	917/후지와라노 가네스케[藤原兼輔]	일본 쇼토쿠[聖德]태자의 치적을 기록한 역사서이며, 2권으로 되어있다. 일본 엔기[延喜] 17년(917)에 후지와라노 가네스케[藤原兼輔]가 편찬하였다. 흠명[欽命] 31년(570)부터 야마토[大和] 원년(645)까지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평씨전(平氏傳)』·『평씨태자전(平氏太子傳)』·『이권전(二卷傳)』이라고도 하며, 약칭하여 『전력(傳曆)』이라고도 한다. 『일본서기』와 『성덕태자전보궐기(聖德太子傳補闕記)』 등을 참조하였다. 가야 멸망 후의 임나관계기사 몇 토막이 전하는데, 모두 『일본서기』의 기사와 대동소이하나 서로 다른 점도 있다.

나오며

가야를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국 중심으로 서술된 중국 역사서의 기록, 일본중심 혹은 백제 중심의 일본 기록이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문헌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가야사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문헌자료를 차분하게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록들을 한 겹씩 벗겨내면 가야의 실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데 한걸음 다가설 수도 있다. 특히 기록의 신뢰성이 의문시되었던 『일본서기』에 대한 재해석, 또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광개토왕비문」과 같은 금석문金石文, 토기에 새겨진 명문銘文도 가야사연구 진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왔다. 앞으로도 새로운 고고자료의 축적으로 가야사의 내용이 풍부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자료 또한 가야사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략한 기록이지만 쉼 없이 새롭게 읽다보면 가야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오히려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족한 사료지만 역사발전의 흐름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둘째, 가야사연구가 가야사만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당대 한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가야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시기에 인접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중국사의 흐름이나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영역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반영함으로써 가야사 인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가야사연구는 최소한 삼국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청 하촌리유적』, 2011.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權珠賢, 「'加耶'の概念とその範囲下」, 『国学院雑誌』99-3, 國學院大學, 1998.

김상현, 「합천 매안리고비에 대하여」, 『신라문화』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9.

김창호,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금석문 자료」, 『향토사연구』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89.

김창호, 「한반도 출토의 유명용문환두대도」, 『가야통신』19·20, 1990.

김창호, 「창녕비 전반부 기사에 대한 분석」, 『고문화』39, 1991.

김태식·이익주편, 『가야사사료집성加耶史史料集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사료총서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김태식 공편, 『(역주)가야사사료집성 1 - 고려이전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사료총서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김태식 공편, 『(역주)가야사사료집성 2 - 조선시대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사료총서 6,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남재우, 『안라국사』, 혜안, 2003.

남재우,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39, 한국고대사학회, 2005.

남재우, 「광개토왕비문」과 『송서』로 본 왜의 가야인식과 '임나일본부'」, 『지역과 역사』35, 2014.

노용필, 「창녕 진흥왕순수비 건립의 정치적 배경과 그 목적」, 『한국사연구』70, 1990.

노용필, 『신라진흥왕순수비연구』, 일조각, 1996.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1995.

노태돈,김은숙,김태식,이현혜,최병현, 『역주譯註 한국고대금석문』 제1책,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노태돈,김은숙,김태식,이현혜,최병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책,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백승충, 「가야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부산대학교 박물관, 『합천저포리E지구유적』, 1987.

선석열, 「昌寧地域 出土 土器 銘文 '大干'의 檢討」 『지역과 역사』3,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7.

이문기,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상감철도 명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李永植,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이영식,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3.

이영식, 「가야제국의 외교형식」,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한국고대사연구7), 신서원, 1994.

이형기,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가야 진출과 「창녕비」-가야 방면 재지사회의 재편과 관련하여-」, 『대구사학』127, 2017.

정중환, 『가라사연구』, 혜안, 2000.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녕 진흥왕순수비의 조사와 판독」,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20, 1991.

한영희·이상수,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유명원두대도」,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0.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문헌
사료편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사료

사료 표제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이 남하해 한왕韓王이 되다

사료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져서 그 무리 수천 인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났다. 마한을 공격해 깨뜨리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준의 후예가 끊어지자 마한인이 스스로 서서 진왕이 되었다.

사료2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제30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桓·鮮卑·東夷傳 第三十**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조선)후 준이 이미 참월되게 왕을 칭하다가 연나라 망명인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 빼앗기자 그 좌우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 한의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불렀다. 그 후세가 끊어져 지금은 오직 한인이 그 제사를 받드는 데 한 때에 낙랑군에 속하면서 사시로 조공하였다.

사료3 **『삼국사절요』 외기 삼한 | 『三國史節要』 外紀 三韓**

三韓 箕準南渡海 至韓地 開國 號爲馬韓. 統五十四國 總十萬餘戶. 辰韓 秦之亡人來適韓國 割其東界地 與之. 立國 號曰辰韓. 始統六國 稍分爲十二. 卞韓 不知其世代. 立國於韓地 號卞韓. 亦統十二國.

삼한 기준이 남으로 바다를 건너 한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마한이라 불렀다. 모두 54국 총 10여 만 호였다. 진한 진나라 망명인이 한국에 오자 그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 나라를 세워 진한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6국이었으나 점차 나뉘어 12국이 되었다. 변한 그 세대를 알 수 없다. 한의 땅에 나라를 세워 변한이라 했다. 역시 12국을 통솔하였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삼한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一 三韓**

卞韓 後 朝鮮王箕準 避衛滿南奔 開國號卞韓. 統國十二.

변한, 후에 조선왕 기준이 위만을 피해 남으로 달아나 나라를 열고 변한이라 불렀다. 12국을 통솔하였다.

사료5 **『지봉유설』 권2 제국부 본국 | 『芝峰類說』 卷二 諸國部 本國**

箕子朝鮮之後 始有三韓之稱 而其說不同. 按後漢書云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世謂馬韓卽全羅道 卞韓卽忠清道 辰韓一名秦韓 卽今慶尙道. 或言馬韓最大爲全羅道 · 忠淸道 卞韓 · 辰韓 皆在慶尙道. 或云 京畿 · 忠清 · 黃海等道爲馬韓 全羅道爲卞韓 慶尙道爲辰韓. 未知孰是. 然以史記觀之 則後說似近矣. 此外又有濊國今江陵 貊國今春川. 以此推之. 箕子所封 衛滿所據 皆平壤近地. 三韓則不能悉有之也.

기자조선 후에 처음으로 삼한의 칭호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학설들은 같지 않다. 『후한서』를 살펴보면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마한은 전라도이고 변한은 지금의 충청도이며 진한은 지금의 경상도라 한다. 또는 마한이 가장 커서 전라도와 충청도가 되었고, 변한과 진한은 모두 경상도가 되었다 한다. 또는 경기 · 충청 · 황해도는 마한이 되었고, 전라도는 변한이 되었으며, 경상도는 진한이 되었다 하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후자 가까울 것이다. 이밖에 예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강릉이다. 맥국은 지금의 춘천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기자가 봉해진 곳과 위만이 근거로 했던 곳은 모두 평양 인근의 땅이었으니 삼한은 가질 수 없는 땅이었다.

사료6 **『기언』** 권32 외편 동사 서 | **『記言』** 卷三十二 外篇 東事 序

王準逐於衛滿 立國馬韓. 幷國五十 傳二白年. 秦韓·弁韓各有君長. 三韓屬國七十八. 作三韓列傳. …(중략)… 駕洛稱神明之治. 大伽倻作十二絃琴 作駕洛·大伽倻列傳.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나 마한에 나라를 세웠다. 50국을 아우르고 2백년을 이었다.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군장이 있었다. 삼한에는 78국이 속하였으니 삼한 열전을 지었다. …(중략)… 가락(駕洛)은 신명(神明)의 통치를 칭하였고, 대가야는 12현금을 만들었으니 가락과 대가야 열전을 지었다.

사료7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後漢書 魏略 其子及親 留在國中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準以韓之金馬郡〈按今益山郡〉爲都 民多歸之. 統國五十四 是爲馬韓王. 辰韓·弁韓皆屬焉.〈朝鮮世紀〉 準後絶滅〈三國志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馬韓人復自立辰王.〈後漢書〉

당초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격파당하고 남은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는 스스로 서서 한왕이 되었다.〈『후한서』에 있다. 『위략』에는 그 자식과 친척으로서 조선에 남아 있던 자들이 이로 인해 한씨 성을 썼다. 준은 바다로 가서 왕이 되어서는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준이 마한의 금마군〈살펴보건대 지금의 익산군이다〉을 도읍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다. 5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것이 바로 마한 왕이다. 진한과 변한이 모두 귀속하였다. 〈『조선세기』〉 준의 후예는 끊어져 사라졌다.〈『삼국지』에 지금 한인 가운데에 여전히 그 제사를 받드는 자가 있다라 하였다〉 마한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서서 진왕이 되었다.〈『후한서』〉

기원전 157년 임나가 마한에 조공하다

사료1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甲申〉惠王元年〈衛氏朝鮮開國三十八年 漢文帝後七年〉 任那入貢. 按 任那者 大加耶之別名. 而大加耶開國 在此後百餘年則 今此任那何爲者哉. 豈三韓古初 已有所謂任那一國 而大加耶繼主于其國歟.

〈갑신〉 혜왕 원년〈위씨조선 개국 38년, 한 문제 후원 7년(기원전 157년)〉 임나(任那)가 조공하였다. 살펴보건대 임나는 대가야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대가야가 개국한 것은 이보다 100여 년 뒤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임나는 무엇인가. 어찌 삼한 초기에 이미 소위 임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는가. 대가야가 그 나라를 이어서 주인이 되었는가?

기원전 144년 변한인이 문신하는 것을 금하였다

사료1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丁酉〉明王元年〈衛氏朝鮮開國五十一年 漢景帝六年〉 禁弁韓人文身.

〈정유〉 명왕 원년〈위씨조선 개국 51년, 한 경제 6년(기원전 144년)〉 변한인이 문신하는 것을 금하였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 유민이 나뉘어 변한 12개 소국이 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기이1 칠십팔국 | 『三國遺事』 卷一 紀異一 七十八國**

通典云 朝鮮之遺民 分爲七十餘國 皆地方百里. 後漢書云 西漢以朝鮮舊地 初置爲四郡 後置二府 法令漸煩 分爲七十八國 各萬戶〈馬韓在西 有五十四小邑 皆稱國 辰韓在東 有十二小邑 稱國 卞韓在南 有十二小邑 各稱國〉

『통전』에 말하기를 조선의 유민이 나뉘어 70여 국이 되었는데 모두 땅은 사방 1백리라 하였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서한(전한)이 조선의 옛 땅을 처음에는 4군으로 삼았다가 후에 2부를 두었는데 법령이 점차 번다해져 78국으로 나뉘었는데 각 1만호가 된다고 했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개의 소읍이 있었는데 모두 국(國)을 칭하였다. 변한은 남쪽에 있는데 12개의 소읍이 있어 각각 국(國)을 칭하였다〉

사료2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삼한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一 三韓**

自四郡以後 人民相聚自保 遂爲三韓. 馬韓在西〈今平安道〉 辰韓在東〈今慶尙道〉 卞韓在南〈今全羅道〉. 法令漸繁 分爲七十八國 各萬戶.

[한]사군이 설치된 후에 인민이 서로 모여 스스로 보전하니 마침내 삼한이 되었다. 마한의 서쪽에 있고〈지금 평안도〉,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지금 경상도〉, 변한은 남쪽에 있다〈지금 전라도〉. 법령이 점차 번잡해져 나뉘어 78국이 되었다. 각각 1만호였다.

사료3 **『동사찬요』 권1 상 삼한 | 『東史纂要』 卷一 上 三韓**

弁韓不知其始祖 屬於辰韓. 弁辰二国 各統十二国.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有已柢國等合二十四国.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摠四五萬戶. 史氏按 三韓所統七十餘国之名 見於陳壽三國志者 如此 必鑿空造語 而東史不傳 今不 得考其所在.

변한은 그 시조를 알지 못하는데 진한에 속하였다. 변진 2국은 각각 12국을 통솔하였다. 또한 여러 작은 별읍이 있었는데 각각 거수가 있었다. 기저국 등 24국이 있었다.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로 모두 4~5만호였다. 내가 살피건대 삼한이 다스리는 70여 국의 이름은 진수의 『삼국지』에도 보이는 것이니 반드시 억지로 만들어 낸 말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 사서에는 전하지 않으므로 지금 그 소재를 밝힐 수 없다.

사료4 **『역대기년』 권 하 삼한 | 『歷代紀年』 卷 下 三韓**

弁韓〈今金海 不知其始祖年代. 屬於辰韓. 弁辰二国 各統十二国〉

변한〈지금의 김해이다. 그 시조의 연대를 알지 못한다. 진한에 속하였다. 변진 2국은 각각 12국을 통솔하였다〉

사료5 **『동사보유』 권1 삼한 | 『東史補遺』 卷一 三韓**

弁韓 不知其始祖. 屬於辰韓. 辰弁二国 各統十二国.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摠四五萬戶. 按輿地勝覺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自三國相傳之說也. 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爲是. 及權近修東國史 乃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地者 蓋言卞韓之系出自樂浪耳. 近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 何也. 謹依致遠舊說 以京畿 · 忠淸 · 黃海等道 係于馬韓舊城.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변한은 그 시조를 알지 못하는데 진한에 속하였다. 변진 2국은 각각 12국을 통솔하였다.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로 모두 4~5만호였다.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마한은 고구려가 되었고, 진한은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

은 백제가 되었다 하여 최치원이 이미 정했던 논리였으나 이것은 (최)치원이 창안한 것은 아니었고 삼국시기부터 전해져 오던 설이었다. 김부식의 지리지에서도 또한 최치원의 설이 옳다고 하였다. 권근이 『동국사』를 편찬할 때 마한을 백제로 하고, 변한을 고구려로 했던 것처럼 천년 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당서』에서 변한(卞韓)의 묘예가 낙랑 땅에 있다고 한 것은 아마도 변한의 계통이 낙랑에서 나왔음일 따름이다. (권)근이 묘예(苗裔)의 두 자를 지우고 곧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다고 한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삼가 최(致遠)의 옛 주장에 의지하여 경기도 · 충청도 · 황해도 등을 마한의 옛 영역으로 결부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결부시킨다.

사료6 **『동국통감제강』 권1 조선기 하 기준왕 | 『東國通鑑提綱』 卷一 朝鮮紀 下 箕準王**

馬韓統海南五十國〈以魏書攷之 馬韓統海南五十國. 辰韓亦統二十四國. 其曰伯濟者 百濟也. 辰王江(治)月支國者 謂月城也. 狗盧國·狗奚國 弁辰狗耶國者 加耶之轉訛化也. 皆東漢新國 而非秦漢舊國. 故此不附書云〉.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萬餘戶. 散在山海間 無城郭. 其民土着 力農蠶桑 作綿布. 居土室 其戶向上. 男子具袍履 性勇悍 善用弓循矛櫓. 秦亡人避役入韓 韓割其東界以處之. 立城柵. 言語類秦人 號秦韓 亦曰辰韓. 統十二國. 地宜五穀 作縑布. 嫁娶禮俗. 男女有之別 行者相逢者 皆住讓路. 辰韓之南有弁韓 亦統十二國. 二韓皆服屬馬韓 而輸貢幣.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襲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離之人 常制於馬韓也. 朝鮮王準 子孫承襲爲王.

마한은 바다 남쪽 50국을 통솔하였다. 〈『위서』로 생각해 보면 마한은 바다 남쪽 50국이며, 진한 또한 24국을 아울렀다. 백제(伯濟)라 말하는 것이 백제(百濟)이다. 진왕이 월지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월성(月城)을 이름이다. 구로국(狗盧國) · 구해국(狗奚國) · 변진구야국(弁辰狗耶國)이란 것은 가야(加耶)가 와전된 것이다. 모두 동한(東漢) 때의 새 나라들이지 진한(秦漢) 때의 옛 나라가 아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부쳐 쓰지 않는다〉 대국은 만여가(家), 소국은 수천 가로 모두 십만여 호이다. 산과 바다 사이에 산재해 있는데 성곽이 없다. 그 백성들은 토착하여 농사와 잠상에 힘쓰고 면포를 지었다. 토실에 사는데 그 문은 위를 향하였다. 남자는 모두 도포와 신을 신는다. 성품이 용맹하고 거칠었으며 활 · 방패 · 창 · 큰 방패를 잘 썼다. 진의 망명인이 난리를 피해 한으로 들어오니 한은 동쪽 경계를 나누어 살게 하였다. 성책을 세우고 언어가 진인과 닮아서 진한(秦韓)이라 하였는데, 또는 진한(辰韓)이라고도 하였으며, 아울러 12국이었다. 땅은 오곡에 알맞았고 합사된 비단을 지었다. 혼인예절이 있었고, 남녀 유별하였다. 길가는 자가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양보하였다. 진한의 남쪽에 변한(弁韓)이 있었는데 역시 12국을 아울렀다. 2한은 모두 마한에 속해 공납하였다. 진한은 언제나 마한인으로 왕을 삼았다. 비록 세습하였으나 스스로 즉위하지는 못하였다. 그 유민들이 언제나 마한에 통제되었음이 분명하다.

사료7 **『기언』 권32 외편 동사1 삼한열전 | 『記言』 卷三十二 外篇 東史一 三韓列傳**

弁韓 樂浪之苗裔也. 附於秦韓. 弁辰狗邪 冉奚 不斯 弁樂奴 諸夷屬二韓者各十二國. 大國家四五千 小國六七百 又屬邑各有渠帥 曰臣智 曰險側 曰樊濊 曰殺奚 曰邑借. 三韓屬國七十八國 見於陳壽三國志 東史不傳. 漢書曰 玄菟 · 樂浪箕子所封也. 後漢書曰 弁韓與辰韓雜居 其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相類. 唐書曰 弁韓在樂浪之地. 平壤古樂浪郡. 玄菟古朝鮮地. 浿水西北七百里. 臨屯 · 薉貊之國. 東暆爲薉國. 沃沮在樂浪東 古肅愼氏之國也.

변한은 낙랑의 후예이다. 진한에 의지하였다. 변진구야(弁辰狗邪) · 염해(冉奚) · 불사(不斯) · 변낙노(弁樂奴) 등 여러 족속들로 2한(변한 · 진한)에 속한 것이 각각 12국이었다.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였다. 또 소속 읍락에는 각기 거수가 있었는데, 신지(臣智) · 험측(險側) · 번예(樊濊) · 살해(殺奚) · 읍차(邑借)라 하였다. 삼한의 속국은 모두 78개국인데 진수의 『삼국지』에 보이고 『동사(東史)』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서』에 이르기를 현도와 낙랑은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다라 하였고,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한과 진한은 뒤섞여 살았는데, 의복 · 거처 · 언어 · 풍속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당서』에 이르기를 변한은 낙랑 땅에 있다. 평양은 옛 낙랑군이다. 현도는 옛 조선 땅으로 패수 서쪽 700리이다. 임둔은 예맥의 나라에 있었다. 동이는 예국이다. 옥저는 낙랑 동

쪽에 있는데 옛 숙신씨의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사료8 『기언』 권35 외편 동사4 지승 | 『記言』 卷三十五 外篇 東史四 地乘

上古自檀君 歷箕子氏 · 三韓·四郡·二府及三國之世 弁韓·馬韓爲百濟所幷. 眞番赫居世所起. 而臨屯·夷貊之地 悉幷於新羅. 樂浪幷於句麗. 玄菟幷於遼東.

상고시대에 단군부터 기자씨 · 삼한(三韓) · 사군(四郡) · 이부(二府)를 거쳐 삼국의 세상에 이르러 변한(弁韓)과 마한은 백제에 병합되었고, 진번은 혁거세가 일어난 곳으로 임둔과 이맥(夷貊) 땅까지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낙랑은 고구려에 병합되었고, 현도는 요동에 병합되었다.

사료9 『기언』 권48 속집 사방2 관서지 | 『記言』 卷四十八 續集 四方二 關西誌

弁韓 樂浪之苗裔也. 韓書曰 弁韓·樂浪 箕子所封也. 唐書曰 弁韓在樂浪之地.

변한(弁韓)은 낙랑의 후예이다. 『한서(韓書)』에 이르기를 변한과 낙랑은 기자를 봉한 곳이라 하였고, 『당서』에 이르기를 변한은 낙랑 땅에 있다고 하였다.

사료10 『동국역대총목』 역대건도지도 | 『東國歷代總目』 歷代建都之圖

按 東國文獻無徵 三韓區域 傳說錯亂 未有定說 可勝惜哉. 我東方 漢水限其南北. 北則三朝鮮之地 後爲四郡 · 二府 仍爲高句麗之所有. 南則本三韓之地 後分屬新羅 · 百濟之所有. 自檀箕 歷三韓 至三國 諸國建都之地矣 然可知也. 而崔孤雲 以弁韓爲百濟 馬韓爲高句麗. 權陽村 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句麗之非弁韓 以二公之近古博識 猶有誤認 史氏之乘訛襲謬 無足恠也. 唯久菴韓百謙所著三韓辨說 考據詳而精 意見明而覈 若燭照鏡鑑. 其所謂南自南北自北等語 可爲千古斷案 而實發前人所未發也. 今參考諸書 且採韓公之論 作圖于右.

생각건대 『동국문헌』에는 삼한의 구역을 증명하지 못하고 전설이 착란되어 정설이 없으니 가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동방은 한강으로 남북의 한계가 된다. 북은 삼조선의 땅으로 뒤에 4군 · 2부가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다. 남은 본래 삼한의 땅으로 뒤에 신라와 백제에 나뉘어 속하게 되었다. 단군과 기자에서 일어나 삼한을 거쳐 삼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가 도읍을 세운 땅으로 그런고로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운이 변한이 백제가 되고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 하였으며, 권양촌이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을 알았으나 구려가 변한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했으니 두 분이 옛날에 가깝고 박식하였으나 오히려 잘못이 있었다. 역사가들이 잘못을 계승하고 답습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오직 구암 한백겸이 지은 『삼한변설』만이 근거를 생각함이 자세하고 정밀하며 의견이 명료하고 핵심을 찌른 것이 촛불로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른바 남쪽은 남쪽에서 나오고 북쪽은 북쪽에서 나온다는 따위의 말은 가히 천고의 진리로 실로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제 여러 책을 참고하고 한백겸을 주장을 채택하여 오른쪽에 지도를 작성한다.

사료11 『동국역대총목』 삼한 | 『東國歷代總目』 三韓

弁韓〈不知其始祖 而屬於辰韓 亦統十二國. 後以其地 降於新羅〉〈按東史曰 弁韓屬於辰韓云 則弁韓之始起 疑在於辰韓. 建國之後 而亦未詳其世系年數. 按漢書曰 馬韓在西 辰韓在東 弁韓在辰韓之南 與倭接. 又曰 弁韓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云. 其曰與倭接 則南濱海 可知. 其曰 與辰韓雜居 則地之相近 亦無疑. 蓋其地必在於嶺南右道之南邊. 韓百謙所謂 首露所起 乃弁韓之地云者 得之矣〉

변한〈그 시조를 알지 못하나 진한에 속해 있으며 역시 아울러 12국이었다. 후에 그 땅이 신라에 항복하였다〉〈살피건대 『동사(東史)』에서 말하기를 변한이 진한에 속해있다는 것은 변한의 처음 일어남이 진한에 있었던 듯하다. 건국 후에도 그 세계와 연수가 자세하지 않다〉〈살피건대 『한서(漢書)』가 말하기를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변한은 진한의 남쪽으로 왜와 접해 있다. 또 말하기를 변한은 진한과 섞여 살며, 의복 · 거

처 · 언어 · 풍속이 같다."고 한다. 거기에 왜와 접하고 있다고 말했으니 남쪽 바닷가임을 알겠다. 진한과 함께 섞여 살았다 하니 땅이 서로 가까웠음을 의심할 수 없으니 대개 그 땅은 반드시 영남 우도의 남변이었을 것이다. 한백겸이 이른바 수로가 일어난 곳이 곧 변한의 땅이라 말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사료12 『성호사설』 권1 천지문 백두정간 | 『星湖僿說』 卷一 天地門 白頭正幹

昔戰國之際 衛最多賢 故獨能扶持 於龍啖虎噬之間. 至秦二世而亡. 其源兆朕 於竿旄 一詩養成人物也. 我三國之際 嶺南之伽倻 亦一小國 亦能撑保麗濟雲屯雷馳之 世傳世久遠 其事相類設. 或千萬世後 國值危亂 訏謨在斯 忠節在斯 可執左契以待矣.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위(衛)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았으므로 물고 뜯고 하는 판국에서도 나라를 유지하다가 진 2세 때에 가서야 망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간모시(竿旄詩) 한 편이 많은 인재를 양성한 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가야(伽倻)가 조그마한 나라였으나 고구려와 백제가 아귀다툼을 하는 틈바구니에서도 버티어 나갔고 오랜 세대를 이어 나갔으니 그 사정이 매우 비슷하다. 천만 년의 역사가 지난 뒤에 국가가 위태로운 국면을 당할 경우라도 전략자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며 충절도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는 장담하고 기다려도 틀림없을 것이다.

사료13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삼한시종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三韓始終

通典云 三韓在朝鮮之東南 晉魏以後分五韓 並新羅百濟而稱五也. 馬韓之地合五十四國 不知始自何時 箕準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 走入海攻馬韓破之 自立為韓王 則準之先 已有馬韓之國矣. 辰韓自言秦之亡人 馬韓割其東界以與之 準之入海 在孝惠高后之際 則避秦東入 已在先矣. 其割界與之者 又非準 明矣. 自秦并天下 至惠高之際 纔三十有餘年 則辰韓之先於準 亦不久矣.

『통전』에 "삼한은 조선의 동남쪽에 있다. 진(晉) · 위(魏) 이후로는 5한(五韓)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신라와 백제를 합쳐서 5한이라 한 것이다."라 했다. 마한은 54국을 아울렀는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공격을 당하자 그의 측근과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쳐 들어와 마한을 쳐서 격파한 다음, 스스로 서서 한왕(韓王)이라 하였으니 기준보다 먼저 이미 이 마한이란 나라가 있었던 것이다. 진한(辰韓)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 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라 했는데, 마한이 그 동쪽 접경을 갈라 주었다는 것이다. 기준이 바다로 들어온 것은 효혜(孝惠)와 고후(高后)의 시대이니 진 나라를 피해 동쪽으로 왔다는 것도 이미 이보다 앞서 있었던 일이고, 마한이 그 동쪽 접경을 갈라 주었다는 것도 분명 기준에게 준 것이 아닐 것이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때부터 효혜 · 고후까지는 겨우 30년이 조금 넘으니 진한이 기준보다 먼저라 하더라도 역시 아주 오래지는 않았던 것이다.

弁韓者 又別為一國 而馬在西 辰在東 弁在南 而與倭接 則其地必南際海也. 恐是今晉州等數邑. 準始雖逐馬韓而自立 復自立為辰王. 盖辰與弁皆仰屬馬韓 其王皆馬韓人 而不得自立 則準統三國 而為王 仍號曰 辰王也. 新莽始建國元年 馬韓為百濟所滅 然後漢光武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帝封蘇馬諟為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後七十九年 漢延光中 高勾麗與馬韓濊貊 侵遼東.

변한이란 것은 다시 별도로 한 나라가 되어 마한은 서쪽에, 진한은 동쪽에, 변한은 남쪽에 위치해 왜(倭)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으니 그 지대는 반드시 남쪽 바다 옆이었던 것인데 이는 지금 진주(晉州) 등 몇 고을인 듯하다. 기준이 처음에는 비록 마한을 쫓아내고 자립하여 왕이 되었다 해도 나중에는 다시 또 진왕(辰王)이라 하였으니, 대개 진한과 변한은 모두 마한에 소속되었던 것이다. 그 왕들은 모두 마한 사람이었는데도 자립할 수 없었던 때문에 기준이 삼국을 통일해 왕이 된 다음, 그대로 진왕이라 칭했던 것인 듯하다. 신(新) 왕망(王莽) 시건국(始建國) 원년(9년)에는 마한이 백제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후한 광무 건무(建武) 20년(44년)에 한인 염

사(廉斯) 사람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으로 나가 공물을 바쳤다. 그러므로 황제가 소마시를 한(漢)의 염사읍군(廉斯邑君)으로 봉해 낙랑군에 소속시켰다. 이후 79년 만에 한(漢) 연광(延光; 122~125년) 중에 고구려가 마한·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략하였다.

사료14 **『성호사설』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嶺南之地 始有辰弁二韓 及新羅之興二國尚存. 又有駕洛及五伽耶最大與新羅並立 其終不可考. …(중략)… 東史駕洛亦稱伽耶 又稱金官國 今金海地是也. 其餘為五伽耶 高靈為大伽耶 固城為小伽耶 星州為碧珎伽耶 咸安為阿那伽耶 咸昌為古靈伽耶 與駕洛 皆六夘所出矣.

영남지방에 처음에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의 두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일어날 때까지도 이 두 나라는 아직 남아 있었다. 또 가락(駕洛)과 다섯 가야(伽耶)가 가장 강대할 때에는 신라와 병립(並立)하였으나, 그 뒷일은 상고할 수 없다. …(중략)… 『동사(東史)』에는 가락도 역시 가야라 했고 또 금관국(金官國)이라고도 하였으니, 지금 김해(金海) 지방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섯 가야는, 고령은 대가야(大伽耶), 고성은 소가야(小伽耶), 성주는 벽진가야(碧珍伽耶), 함안은 아라가야(阿那伽耶), 함창은 고녕가야(高寧伽耶)라고 했는데, 가락왕(駕洛王)과 함께 모두 여섯 개의 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료15 **『성호사설』권25 경사문 전대군신사 | 『星湖僿說』卷二十五 經史門 前代君臣祠**

如金得培 不但武功 圃隱之受業者 其必有可觀矣. 余每謂前代刱基之君 皆不可不祠. 古禮可證檀·箕·三國 在今祀典 惟馬韓·駕洛闕焉. 三韓之中 弁辰無攷 馬韓者 先聖之裔 東方之正統. 樹國於益山. 謚曰武康與其夫人之冢至今流傳. 麗史所謂盜發虎康王冢 是也. 當時 避恵宗諱 以武為虎. 今輿地記 不能詳記 乃反致疑 則誤矣. 駕洛王金首露傳世五百年 與三國並甚著靈異 金海即其故都也.

김득배 같은 이는 단지 무공뿐만 아니라 포은이 수업한 스승이니, 그는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양 전대 창업한 임금에 대하여 다 향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례(古禮)를 보아도 증거할 수 있다. 단기(檀箕)와 삼국(三國)은 지금 사전(祀典)에 있으나 오직 마한(馬韓)과 가락(駕洛)이 빠졌으며, 삼한 가운데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은 근거가 없다. 마한은 선성의 후손이요 동방의 정통으로서 나라를 익산(益山)에다 세웠는데, 시호는 무강(武康)이라 하며, 그 부인의 무덤과 함께 지금까지 유전하니, 『고려사』에 이른바 "도적이 호강왕(虎康王)의 무덤을 파냈다."는 것이 바로 이 무덤이다. 당시에 혜종의 휘를 피하여 무(武)자를 호(虎)자로 썼었는데, 지금 『여지기(輿地記)』에 자상히 기록되지 못하여 도리어 의문을 만들어 냈으니, 그릇된 일이다. 가락왕 김수로는 5백년 동안이나 세대를 전하면서 삼국과 더불어 병립하였으며 매우 특이하고 신령함을 나타냈다. 김해가 바로 그 옛 도읍지였다.

사료16 **『동사강목』제1 상 기자조선 마한 | 『東史綱目』第一 上 箕子朝鮮 馬韓**

[戊申]二十八年〈朝鮮王衛滿元年〉 韓地在朝鮮東南海上 其鐘有三 曰馬韓 曰辰韓 曰弁辰〈卽卞韓地. 晉梁二史 作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地 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有十二國 其地 北與濊貊 南近倭. 弁辰在辰韓之南 亦有十二國 地近倭. 凡七十八國 大者萬餘戶 小者數千戶. 各在山海間 皆古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今未詳〉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來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言語有似秦人 謂之秦韓. 其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襲不得自立爲즉王 明其爲流移之亡人也. 弁辰不知其始祖 屬於辰韓 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風俗相似 號三韓.〈後漢書·杜氏通典補〉

[무신]28년(기원전 193년) 〈조선왕 위만 원년〉한의 땅은 조선 동남 바닷가에 있으며, 그 종족이 셋인데 마한·진한·변진(弁辰)〈곧 변한(卞韓)이다. 『진서』와 『양서』에는 변한(弁韓)이라 지었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며 그 땅은 북으로 낙랑과 접하고 남으로 왜(倭)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며 땅은 북으로

예맥과 접하고 남으로 왜에 가깝다. 변한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땅은 왜에 가깝다. 모두 78국으로 큰 것은 만여 호이고 작은 것은 수천 호이다.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모두 옛 진국(辰國)이었다. 마한이 가장 커서 함께 그 종족을 진왕(辰王)으로 세워 목지국(目支國)〈지금은 미상〉에 도읍하여 삼한의 땅을 다스렸다. 그 여러 나라 왕의 선대는 모두가 마한 종족의 사람이었다. 진한의 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진(秦)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고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오니,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베어 주었는데, 언어가 진 사람과 같으므로 진한(秦韓)이라고도 하였다. 그 왕은 항상 마한 사람으로 하고 대대로 세습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지 못하였으니, 유망하여 옮겨온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변진의 시조는 알 수 없으나 진한에 소속되어 진한과 섞여 살았다. 성곽이 있었으며 의복·거처가 진한과 같았고 언어 풍속이 서로 비슷하였으므로 삼한이라 불렀다."〈『후한서』·『두씨통전』에서 보충하다〉

韓氏〈百謙〉曰 我東方在昔皆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後爲高句麗 其南乃三韓之地. 後漢書云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亦已詳矣. 後赫居世 爲辰韓所推 而新羅始焉.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首露據 辰韓南界 伽倻之南 智異之東 皆其所有 疑卽弁韓之地.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攙入. 雖其界限不知的계在何處 而 恐漢水一帶爲限 隔南北之天塹也. 林氏〈象德〉曰 是時 朝鮮旣亡 三韓洪荒 人民隨地聚落 各爲部落 間有雄長 皆稱曰國 三韓所統 無慮七十餘國. 朝鮮、濊貊之間 小國不可殫記. 自新羅肇興數十年間 高句麗起於浿北 百濟起於漢南 而諸小國或降或滅 皆爲三國郡縣.

한씨〈백겸(百謙)〉가 이르기를 "우리 동방은 예전에 스스로 남북으로 나뉘었었는데, 북은 본디 삼조선(三朝鮮) 땅이었다가 뒤에 고구려(高句麗)가 되었고, 남은 삼한(三韓)의 땅이 되었다. 『후한서』에 변한은 남에 있고 진한은 동에 있고 마한은 서에 있다 하였는데, 그것이 삼한지방을 가리킴은 역시 확실하다. 그 뒤에 혁거세(赫居世)가 진한에서 추대되어 신라가 시작되었고,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켜 백제를 일으켰고, 수로(首露)가 진한의 남쪽 경계를 차지하여 가야산(伽倻山)의 남쪽과 지리산(智異山)의 동쪽이 모두 그의 소유였는데 곧 변한(弁韓)의 땅인 듯하다. 그러니 남쪽은 남쪽대로이고 북쪽은 북쪽대로 라서 본디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 경계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한수(漢水) 일대가 남북을 가르는 천연의 구덩이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임씨〈상덕(象德)〉가 이르기를 "이때에 조선은 이미 망하고 삼한은 넓고 거칠었는데, 백성이 지리를 따라 모여 살면서 각각 부락을 만들고 간혹 웅장(雄長)이 있으면 다 나라라고 칭하니, 삼한이 거느린 나라가 무려 70여 국이나 되었고 조선·예맥 사이에 있던 작은 나라는 다 적을 수 없다. 신라가 처음 일어나서부터 수십 년 사이에 고구려가 패수 북쪽에서 일어나고 백제는 한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작은 나라들이 항복하거나 멸망하여 모두가 삼국의 군현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료17 『수산집』 권12 동사표 삼한지제칠십팔국분속표 | 『修山集』卷十二 東史表 三韓之際七十八國分屬表

古者黃帝之時 天下萬國. 其後稍稍衰減 及周之初而爲千八百國 至其衰也 天下六國而一於秦. 盖後世德衰而兼弁之患滋也. 至於方外別國 秦之害未至 而隆古之風猶存. 故漢武之時 西南夷有百餘國 而西域諸國又爲六十國之多. 其後漢郡西南夷 而西域亦自相呑滅. 盖亦中國之毒所及也. 三韓之地在朝鮮. 南與齊魯隔海相望 北過帶水〈今臨津〉東接濊貊 西南際海. 地方千里而有大小七十八國. 箕氏之世爲外服之臣 及衰平南遷 而稍兼並爲三國. 自悉直以南並海 至莨山八公 右轉帶洛東 凡十二國爲辰韓. 渡黃山沿海 而西包智異 而左轉 又十二國爲卞韓. 漢水河南度熊津 西薄海 東被大嶺 大率五十四國爲馬韓. 大國四五萬家 小國數千家 而辰卞不能自國 常服於馬韓. 馬韓立當漢文帝·景帝之世. 嗟夫 此七十八國者 雖不知其所始 然以理推之 盖亦當在生民之初 民就其仁且智者而君長之. 各自爲國 歷檀箕累數千年而不絶 豈不以其德哉. 及夫衛滿一亂 而事勢相迫 一朝擧爲韓氏之郡縣 悲夫. 然推原其所以亡 盖亦莫非中國之遺毒也. 此所以令人痛恨於秦漢之際也.

옛날에 황제(黃帝) 시절에는 천하에 만국이 있었다. 그 후에 점차 쇠퇴하고 없어져 주(周) 초에 이르러 천 팔백

나라가 되었다가 주나라가 쇠퇴함에 이르러 천하가 6국이 되었다가 진에서 하나가 되었다. 대개 후세에 덕이 쇠해 겸병의 우환이 무성하게 되었지만 중국 밖의 여러 나라에는 진의 해가 미치지 않아 옛날의 풍속이 오히려 융성하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한 무제 때는 서남이 100여국이 있었고 서역의 여러 나라 또한 60국이나 되도록 많았다. 그 후 한이 서남이에 군을 서역 또한 서로 병탄하여 자멸하였다. 대개 역시 중국의 독이 미친 것이었다. 삼한의 땅은 조선 남쪽에 있어서 제(齊)와 노(魯)와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북으로 대수〈지금의 임진〉를 지나고 동으로 예맥과 접했으며 서쪽과 남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였다. 사방 천리에 크고 작은 78개국이 있었다. 기씨 시절에 외복(外服)의 신하가 되었다가 쇠해져 남으로 옮긴 뒤에 점차 병합되어 3국이 되었다. 실직 이남으로 바다를 따라 장산(萇山)과 팔공(八公)에 이르러 오른쪽으로 돌아 낙동강을 끼고 무릇 12국이 진한이 되었다. 황산(하)의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지리산을 안고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12국이 변한이 되었다. 한수 하남에서 웅진을 건너고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며 동쪽으로 대령에 미치기 까지 대략 54국이 마한이 되었다. 대국은 4~5만가이고 소국은 수 천가이다. 그러나 진한과 변한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언제나 마한에 복속하였다. 마한은 한 문제와 경제의 시기에 섰다. 아! 비록 저 78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치로 추리해 본다면 대개 백성이 생긴 처음부터 백성들이 인자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가 군장이 되게 하여 각각 스스로 나라를 이룬 것인데 단군과 기자를 거쳐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았으니 어찌 그 덕 때문이 아니겠는가. 위만이 한번 난리를 일으켜서 형세가 서로 급하게 되어 하루아침에 한씨의 군현이 되었으니 슬프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망한 까닭을 살펴보면 대개 또한 중국의 남은 독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진한의 시기를 아프고 한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사료18 『동국지리지』 | 『東國地理志』

後漢書 三韓傳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辰韓在東 十有二國 與穢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중략)… 馬韓之西海島上 有州胡國.其人短小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후한서(後漢書)』삼한전(三韓傳)의 한(韓)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진(弁辰)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었고, 54개국이 있었으며, 그 북쪽은 낙랑(樂浪)과,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었고, 12개국이 있었는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었으며, 역시 12개국이 있었는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삼한이] 모두 78개 나라로, 백제(百濟)는 그 가운데 한 나라이다. 큰 나라는 만여 호(戶), 작은 나라는 수천 가(家)이며, 각기 산과 바다의 사이에 있어 모두 합하면 사방이 4천여 리가 되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가 끝이 되니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중략)… 마한의 서쪽 바다 섬 위에 주호국(州胡國)이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키가 작고 머리를 깎으며[髡頭], 가죽 옷[韋衣]을 입는데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는다.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며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한(韓)에서 물건을 사고판다.

愚按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檀君與堯竝立 歷箕子 暨衛滿 分以爲四郡 合以爲二府與高朱蒙迭爲盛衰. 東晉以後 高氏遂幷其地 是爲高句麗也.其南乃三韓之地也. 漢初 箕準爲衛滿所逐浮海而南 至韓地金馬郡 都焉.稱爲韓王 是爲馬韓. 秦之亡人避役入韓地 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有弁韓 屬於辰韓.各有渠帥.漢書云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亦已詳矣. 新莽元年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爲辰韓六部民所推戴 而新羅始焉. 弁韓 前史雖不 言其所傳 而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據有辰韓之南界.其後入於新羅. 疑此卽爲弁韓之地也.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攙入.雖其界限不知的在何處 而恐不出於漢江一帶也.崔致遠始謂 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 混而說之. 此再誤也. 自是以後 作史之家 承誤襲謬 不復就其地 而竅其某. 遂將一區 三韓之地 左牽右引 紛耘

錯雜. 至今數千年間 未有定說 可勝借哉. 何以明其然也.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북쪽은 본래 3조선의 땅으로 단군이 [중국의] 요임금과 병립하였고, 기자(箕子)를 거쳐 위만(衛滿)에 이르러 4군(四郡)으로 갈라졌다가 2부(二府)로 합쳐졌으며, 고주몽(高朱蒙)과 더불어 성쇠를 갈마들었는데 동진(東晉) 이후 고씨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것이 고구려이다. 그 남쪽은 곧 삼한의 땅이다. 한(漢)나라 초에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쫓겨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한(韓)의 땅인 금마군(金馬郡[전북 익산])에 이르러 도읍하고 한왕(韓王)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이 마한이다. 진(秦)나라에서 유망한 사람들이 부역을 피해 한(韓) 땅으로 들어오자 한(韓)이 동쪽 땅을 떼어 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다. 또 그 남쪽에 변한이 있었는데, 진한에 속하였으며, 각기 거수(渠帥)가 있었다.『한서(漢書)』에서 이르기를 변한(弁韓)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삼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매우 자세하다. 신(新)나라 왕망(王莽) 원년(9년)에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가 흥기하였으며,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진한 6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신라가 시작되었다. 변한(弁韓)은 앞의 사서들이 그 전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首露王)이 가락(駕洛)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진한의 남쪽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 신라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곧 변한(弁韓)의 땅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남쪽은 남쪽대로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있어서 본래 서로 뒤섞이지 않았으며, 비록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한강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치원(崔致遠)이 처음으로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이다 라 말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權近)은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되었음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은 알지 못하여 혼동해서 말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로부터 이후 역사가들이 오류를 답습하여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드디어 한 구역인 삼한의 땅이 좌우에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지럽게 뒤섞이게 되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정설이 없으니, 안타깝다. 무엇으로써 그것을 밝힐 것인가.

當三韓時 本國雖無文字 兩漢書皆有列傳 試以年代上下 · 地界遠近求之. 則百代雖遠 歷歷如在眼前 夫何難辨之有哉. 漢武帝元封三年 討朝鮮王右渠 遂定其地 以朝鮮縣爲樂浪 東暆縣爲臨芚 霅縣郡爲眞番 沃沮城爲玄菟 而高句麗爲 玄菟屬縣 是爲四郡. 朝鮮縣今之平壤 東暆縣今之江陵 沃沮城今之咸鏡道 高句麗今之平安道江邊一帶. 此則 皆有可據之書 不可誣也. 霅縣郡雖不詳其所在當昭帝合四郡爲二府也 以樂浪 · 臨芚合爲東府都督府 以玄菟 · 平那合爲平州都督府 樂浪 · 臨芚之間 黃海 · 江原 · 京畿左道地界 固已相接矣. 平那卽眞番之別稱<平那眞番境山在內故云> 眞番堷內故云玄菟旣不可跨越樂浪 · 臨范千里之地 而與下三道合. 則所謂霅縣 其必在於西北 與玄菟附近之地 可知. 然則 四郡 · 二府之界限 其止於此 亦明矣. 又何 時爲弁韓 或馬韓耶.漢書云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同. 其稱弁韓 必曰弁辰.則弁韓之於辰韓 必爲附庸 而不相懸遠 可知. 又云馬韓統五十四國 辰 · 弁韓各統十二國.所謂國卽今之郡縣. 合辰 · 弁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當馬韓之半. 以此見之 湖西 · 湖南 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辰 · 弁二韓 又何疑乎. 馬韓歷四郡 · 二府 至新莽時爲百濟. 辰韓亦歷四郡 · 二府 至宣帝時爲新羅. 弁韓之與辰韓 始爲附庸 終爲合屬. 如上所云則 三韓又何時入中國 爲四郡 · 二府哉. 吾以是知 四郡 · 二府之自爲四郡 · 二府 三韓之自爲三韓 而不相涉也. 盖三韓僻在東南一隅之地 去中國最遠. 雖堯舜揖遜 而聲化不暨.楚漢交爭 而干戈不擾耕鑿 晏如長育子孫 別爲天地間一壽域. 故西北避亂之民 多歸之. 仍成村落 各以其本管名其居. 慶州之得號樂浪 亦如辰韓之或名秦韓也. 後人不知此二樂浪 因以平壤爲弁韓. 何其誤哉.
삼한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었으나『한서(漢書)』와『후한서』에 모두 열전이 있어 연대의 상하와 경계의 원근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비록 백대(百代)나 멀리 있어도 또렷하기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한(漢) 무제 원봉 3년(기원전 108년)에 조선왕 우거(右渠)를 토벌하고 마침내 그 땅을 평정하여, 조선현(朝鮮縣)으로 낙랑(樂浪)을 만들고 옥저성(沃沮城)으로 현도(玄菟)를 만들고 고구려를 현

도의 속현(屬縣)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4군(四郡)이다. 조선현은 지금[조선]의 평양이고, 동이현은 지금[조선]의 강릉이고, 옥저성은 지금[조선]의 함경도이고, 고구려는 지금[조선]의 평안도 강변(江邊) 일대이다. 이것들은 모두 근거할 만한 책이 있으니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삽현군(霅縣郡)은 비록 그 소재가 불확실하지만, 소제(昭帝)가 4군을 합쳐 2부(二府)를 만들 때 낙랑과 임둔을 합쳐 동부도독부(東府都督府)로 삼고, 현도와 평나(平那)를 합쳐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삼았으니, 낙랑과 임둔 사이에 황해 · 강원 · 경기좌도의 경계는 본래 서로 접해 있었고, 평나는 곧 진번의 별칭이니〈평나산(平那山)이 진번 경내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현도가 악랑, 임둔에서 천리를 넘어가 하삼도와 합쳐질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삽현이란 반드시 서북쪽 현도 부근의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군의 경계가 여기서 그치는 것 또한 분명하니 또 언제 변한 혹은 마한이 되었겠는가?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변진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의복과 거처(居處)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한이라 칭할 것을 반드시 변진이라 하였으니, 변한이 진한에게 틀림없이 부용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에서] 또 이르기를 마한은 54개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을 거느렸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국(國)이란 지금[조선]의 군현으로 진한과 변한을 합하면 겨우 24개국이 되어 마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아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이 합하여 마한이 되고, 영남(嶺南) 한 도(道)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이 되는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마한은 4군, 2부를 거쳐 신나라 왕망 때 백제가 되었고, 진한은 역시 4군, 2부를 거쳐 선제(宣帝) 때 이르러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은 진한에 처음부터 부용하였다가 끝내 합해 속하게 되었으니, 위와 같이 말한다면 삼한이 또 언제 중국에 편입되어 4군, 2부가 되었겠는가? 나는 이것으로써 4군, 2부는 본래 4군, 2부이고, 삼한은 본래 삼한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대개 삼한이 동남쪽의 구석진 땅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어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양보하였어도 가르침이 미치지 않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웠어도 방패와 창이 생업을 어지럽히지 않아 편안히 자손을 길러 따로 천지간에 하나의 태평한 세상[壽城]이 되었다. 그 때문에 서북쪽에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고 각기 그 본관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의 이름을 붙였으니, 경주가 낙랑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진한(辰韓)의 지역이 진한(秦韓)이라고도 불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뒷사람들이 이 두 개의 낙랑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평양을 변한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新羅 封疆 弁韓舊地〈今慶尙西南之地 智異一帶之地 有時爲百濟所侵據〉

신라(新羅) 봉강(封疆) 변한의 옛 땅이다〈지금[조선] 경상도 서남부의 땅이다. 지리산 일대의 땅은 때때로 백제가 침략한 바 있었다〉

사료19 『강계고』 제2 삼한 마한 | 『疆界考』第二 三韓 馬韓

三韓歷年之辨. 鄭烏川國都記 馬韓二百二年 辰韓一百三十七年 弁韓一百五十六年. 按 馬韓有三. 箕準馬韓間 於前後二馬韓之間. 箕準馬韓之始 其年可攷 而其終不可知也. 前後馬韓 · 辰弁二韓之終 其年可攷 而其始不可知也. 烏川所記 未知得於何書. 而以箕準奔馬韓之年 · 溫祚並馬韓之年 爲馬韓始終 則是不知 馬韓之有三也. 以辰弁二韓 爲與馬韓同始 則未免臆矣. 馬韓割東界與秦人爲辰韓 則辰韓之起 後於馬韓 可知也.

삼한역년지변(三韓歷年之辨). 정오천(鄭烏川)의 『국도기(國都記)』에서 마한은 202년, 진한은 137년, 변한은 156년이라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마한은 셋이 있었으니 기준마한(箕準馬韓)이 전 · 후 두 마한의 사이에 끼어 있었다. 기준마한의 시작은 그 해를 살필 수 있으나 그 끝은 알 수 없다. 전 · 후 마한, 변한(弁韓), 진한(辰韓)의 끝은 그 해를 살필 수 있으나 그 시작은 알 수 없다. 오천이 기록한 것은 어떤 책에서 얻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준이 마한으로 패주한 해와 온조(溫祚)가 마한을 병합한 해를 마한의 시작과 끝으로 삼았으니 이는 마한이 셋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진한과 변한이 마한과 같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억측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한이 동쪽 땅을 떼어 진나라 사람들[秦人]들에게 주어 진한(辰韓)이 되었으니, 진한이 일어난 것이 마한보다 뒤인 것을 알 수 있다.

弁韓國〈漢書作弁辰〉 後漢書 弁辰與辰韓雜居 城郭 · 衣服皆同 言語 · 風俗有異. 三國史 新羅始祖王十九年春正月 弁韓以其國來降.
변한국〈『한서』는 변진(弁辰)으로 지었다〉 『후한서』에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사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고, 언어와 풍속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시조왕 19년(기원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弁韓)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고 하였다.

疆界. 後漢書 弁韓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按 弁韓之北與辰韓接 而其界不可詳. 其南與倭接 則是抵于海 而海中諸島 爲其所屬 以與倭接也. 今慶尙道附 於智異山東南濱海之地 乃其提封. 而東國地志 以首露所起 駕洛 爲弁韓之地者 似得之矣. 駕洛卽伽倻之一也. 文獻通考謂 伽倻琴曰弁韓琴 此亦可證也. 以三韓所統國名觀之 馬韓無弁辰名. 而辰韓以弁辰爲名者五. 弁韓以弁辰爲名者六. 並爲二十五國之半. 漢書所云卞辰雜居者 是也.
강계(疆界). 『후한서』에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고, 역시 12개 국(國)이 있으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변한의 북쪽이 진한과 접하였는데, 그 경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 남쪽은 왜와 접했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다에 다달아 바다의 여러 섬들이 그에 속한 바 됨으로써 왜와 접한 것이다. 지금[조선] 경상도의 지리산 동남쪽 해안에 붙은 땅이 곧 그 영토[提封]이다. 그리고 『동국지지』에서 수로(首露)가 일어난 가락(駕洛)을 변한의 땅이라고 한 것은 옳은 것 같다. 가락은 곧 가야(伽倻)의 하나인데, 『문헌통고』에서 가야금(伽倻琴)을 변한금(弁韓琴)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증명이 된다. 삼한이 통할한 나라 이름을 보면 마한에는 변진(弁辰)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없지만, 진한에는 변진을 이름으로 것이 다섯이고 변한에는 변진을 이름으로 한 것이 여섯으로 모두 25개국의 반이 된다. 한서에서 말한 바, 변한과 진한이 섞여 산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十二國. 弁軍彌國 彌烏邪馬國 如湛國 甘路國 戶路國 州鮮國〈鮮一作鄒〉 馬延國 狗邪國 走曹馬國 安邪國 瀆盧國〈魏曰 瀆盧國者與倭接界〉 斯盧國 優中國〈中一作田〉. 按 漢書云 辰韓有十二國 而此爲十三 可疑. 盖辰韓十二國列錄之末 爲軍彌國. 弁韓十二國列錄之首 爲弁軍彌國. 是或軍彌國 相連以錄 而弁韓之軍彌國 是疊書以誤者歟. 三韓有七十八國者 出於漢書. 而七十八國之名 著於陳壽三國志. 東國通鑑亦載之. 而羅濟二國之初 滅國降國前後相續 而七十八諸國 一不見焉. 無其自相呑並 已盡於三國之前歟. 漢書云 七十八國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各在山海間.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 東國通鑑云 馬韓所統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摠十餘萬戶. 辰弁所統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摠四五萬戶.
십이국(十二國). 변군미국(弁軍彌國) 미오야마국(彌烏邪馬國) 여담국(如湛國) 감로국(甘路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선(鮮)은 추(鄒)로도 쓴다〉 마연국(馬延國) 구야국(狗邪國) 주조마국(走曹馬國) 안야국(安邪國) 독로국(瀆盧國)〈[『위(서)』]에서 이르기를 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로국(斯盧國) 우중국(優中國)〈중(中)은 전(田)으로도 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한서』에서 진한에는 12국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13개가 되었으니 의심할만하다. 대개 진한 12국을 차례로 기록한 것의 마지막이 군미국(軍彌國)이고, 변한 12국을 차례로 기록한 것의 처음이 변군미국(弁軍彌國)인데, 이는 혹시 군미국을 서로 이어 기록하면서 변한의 군미국을 겹쳐 써서 잘못된 것인가? 삼한에 78개국이 있었음은 『한서』에 나오고, 78개국의 이름은 진수(陳壽)의 『삼국지』에 밝혀져 있으며, 『동국통감』 역시 이를 실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초기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이 앞뒤로 서로 잇달아 78개국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들까지 서로 삼킨 것이 없고 삼국 전에 모두 없어진 것인가? 『한서』에 이르기를, 78개국이 큰 것은 만여 호(戶)이고 작은 것은 수천 가

(家)이고,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으며, 여러 나라 국왕들의 선대는 모두 마한종자(馬韓種)의 사람이라고 하였다.『동국통감』에 이르기를 마한이 통괄하는 바 대국(大國)은 만여 가(家)이고 소국(小國)은 수천 가로 모두 10만여 호(戶)이며, 진변이 통괄하는바 대국은 4~5천가이고 소국은 6~7백가로 모두 4,5만 호라고 하였다.

(기원전 108년 이후 사정) 신라 최치원 이래 삼한 삼국의 계통론과 위치를 주장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三 地理一**

新羅 崔致遠曰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신라 최치원은 마한은 고려가 되었고, 변한은 백제가 되었으며, 진한은 신라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료2 **『삼국사기』 권46 열전6 최치원 |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六 崔致遠**

崔致遠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최치원은 마한은 고려가 되었고, 변한은 백제가 되었으며,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료3 **『삼국유사』 권1 기이1 변한·백제 | 『三國遺事』 卷一 紀異一 卞韓·百濟**

新羅 始祖 赫居世 卽位十九年 壬午 …(중략)… 新舊唐書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後漢書云 卞韓在南 馬韓在西 辰韓在東. 致遠云 卞韓 百濟也. 按本紀 溫祚之起 在鴻嘉四年甲辰 則後於赫居世 東明之世 四十餘年. 而唐書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云者 謂溫祚之系 出自東明 故云耳. 或有人出樂浪之地 立國於卞韓與馬韓等幷峙者 在溫祚之前爾 非所都在樂浪之北也. 或者濫九龍山 亦名卞那山. 故以高句麗爲卞韓者 蓋謬. 當以古賢之說爲是. 百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百濟全盛之時 十五萬二千三百戶.

신라 시조 혁거세 즉위 19년 임오년에 …(중략)… 『신 · 구당서』에는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의 땅에 있다고 했다.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했다. [최]치원은 변한은 백제라 하였다. 「본기」를 보면 온조가 홍가 4년(기원전 17년) 갑진년에 일어났으니 혁거세보다 후가 되고 동명이 즉위한지 40여년이 된다. 그러나 『당서』에 변한의 후손이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한 것은 온조의 계통이 동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는 낙랑의 땅에서 나온 사람이 변한에 나라를 세워 마한 등과 대치했던 것은 온조 이전의 일이었을 뿐이고 도읍이 낙랑 북쪽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어떤 자는 함부로 구룡산 또한 변나산(卞那山)이라 부른다 하여 고구려를 변한이라 하나 모두 잘못이다. 마땅히 옛 현인의 설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백제 땅에 변산(卞山)이 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한 것이다. 백제의 전성시기에는 15만2천3백호였다.

사료4 **『구당서』 권199 상 열전 제149 동이 | 『舊唐書』 卷百九十九 上 列傳 第百四十九 東夷**

新羅國 本弁韓之苗裔也. 其國在漢時樂浪之地. 東及南方俱限大海 西接百濟 北隣高麗. 東西千里 南北二千里.

신라국은 본래 변한(弁韓)의 후예이다. 그 나라는 한(漢) 나라 때 낙랑 땅에 있었다. 동쪽과 남쪽은 모두 큰 바다를 경계로 하고, 서쪽은 백제와 접해 있으며, 북쪽은 고구려에 인접해 있다. 동서는 1천리이고 남북으로는 2천리이다.

사료5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동이 |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百四十五 東夷**

新羅 本弁韓之苗裔也. 居漢樂浪地. 横千里 從三千里. 東距長人 東南日本 西百濟 南俱瀕海 北高麗.

신라는 본래 변한(弁韓)의 후예이다. 한(漢) 나라 때 낙랑 땅에 살았다. 동서로 1천리이고 남북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으로 장인(국)에 도달하고, 동남쪽은 일본이며, 서쪽은 백제이고, 남쪽은 모두 바다에 접해있으며, 북쪽은 고구려이다.

사료6 **『삼국사절요』 외기 삼한 | 『三國史節要』 外紀 三韓**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之亂 浮海而南 開國 號馬韓. 至百濟溫祚 遂幷之. 今之益州有古城 至今人稱爲箕準城. 則馬韓之爲百濟 無疑矣. 辰韓 新羅始祖朴赫居世所起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 漢之樂浪郡. 則辰韓之爲新羅 卞韓之爲高句麗 亦無可疑. 後漢書以爲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 卞韓在南者 蓋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百濟也 誤矣.

권근이 말하기를 "삼한의 설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 준이 위만의 난을 피하여 바다에 떠서 남에서 나라를 열어 마한이라 했는데 백제 온조에 이르러 마침내 병합하였다. 지금 익주에 고성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준성이라 부르니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진한은 신라시조 혁거세가 일어난 땅이다." 『신당서』가 말하기를 "변한은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평양은 옛날에 한의 낙랑군이었다 했으니 진한은 신라가 되었고 변한은 고구려가 되었음 의심할 것이 없다." 『후한서』가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이 서쪽에 있다고 했으니 그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 보아 그렇게 말했을 따름으로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최치원이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 하였다.

사료7 **『동국사략』 권1 삼한 | 『東國史略』 卷一 三韓**

弁韓〈弁一作卞 今平壤〉 立國於韓地 不知其始祖年代. 屬於辰韓 亦統十二國〈權近曰 後漢書以爲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卞韓在南者 蓋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百濟也 誤矣〉

변한〈변(弁)은 변(卞)으로도 쓴다. 지금의 평양이다〉 한지에 나라를 세웠으나 그 시조와 연대를 알 수 없다. 진한에 속해있었는데 또한 모두 12국이다.〈권근이 말하기를 "『후한서』가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이 서쪽에 있다고 했으니 그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 보아 그렇게 말했을 따름으로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최치원이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 하였다〉

사료8 **『동사찬요』 권1 상 삼한 | 『東史簒要』 卷一 上 三韓**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之亂 浮海而南 開國 號馬韓. 至百濟溫祚 遂幷之. 今之益州有古城 至今人稱爲箕準城 則馬韓之爲百濟 無疑矣. 辰韓 新羅始祖朴赫居世所起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漢之樂浪郡. 則辰韓之爲新羅 卞韓之爲高句麗 亦無可疑. 後漢書以爲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 卞韓在南者 蓋自漢界遼東之地而云耳.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百濟也 誤矣.

권근이 말하기를 "삼한의 설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 준이 위만의 난을 피하여 바다에 떠서 남에서 나라를 열어 마한이라 했는데 백제 온조에 이르러 마침내 병합하였다. 지금 익주에 고성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준성이라 부르니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진한은 신라시조 혁거세가 일어난 땅이다." 『신당서』가 말하기를 "변한은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평양은 옛날에 한의 낙랑군이었다 했으니 진한은 신라가 되었고 변한은 고구려가 되었음 의심할 것이 없다." 『후한서』가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

쪽에 있으며 마한이 서쪽에 있다고 했으니 그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 보아 그렇게 말했을 따름으로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최치원이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 하였다.

按輿地勝覺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此非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也. 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弁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然未有昌言指之者. 及權近修東國史略 乃斷然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而亦爲是論 以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後漢書載 卞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曰 卞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不曰卞韓 而曰弁辰. 是雖懸聞之稱 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 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地者 蓋言卞韓之系出自樂浪耳. 近引以又爲證 而證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재樂浪之郡地 何也. 故謹因致遠舊說 以辰京畿 · 忠淸 · 黃海等道 係于馬韓舊域云.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詳見勝覽. 按之高麗世祖說弓裔曰 大王若爲欲新王羅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興松岳之地云 則以句麗爲卞韓 非權近創說. 又通鑑唐太宗紀 百濟下小註云 百濟之國 馬韓之屬也. 則百濟之爲馬韓 亦有所據. 又按本史 百濟遣使馬韓 告遷都 定疆域 北至浿河 南限熊川. 又馬韓王遣使 責百濟王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百里之地界云云. 則馬韓地爲全羅地 據史無疑. 而勝覽斷以全羅道係卞韓下 不知有何明證. 吾 東方文獻無徵 三韓之稱號 非如小小郡縣沿革之此 而尙不的定其地 論義紛紜可嘆.

『[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은 백제가 되었다." 하였다. 최치원이 이미 정한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최치원이 창안한 설이 아니다. 삼국 초부터 전해지던 설이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지리지에서도 [최]치원의 논의가 옳다고 하였다. 그[고려]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이 백제의 경역에 있고, 평나산이 고구려의 경역에 있는데, 평(平)과 변(弁)의 소리가 서로 가까워 마침내 마한이 백제가 되고 변한이 고구려가 된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드러내서 말하여 가리키는 자가 없었다. 권근이 『동국사략』을 편찬하면서 단연히 마한은 백제가 되고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다. 권근은 근세의 대유학자로서 역시 이러한 논의를 하여 천고에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어찌된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진(卞辰)이 진한의 남쪽에 있으면서 또한 왜와 접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며 의복 · 거처 · 언어 · 풍속이 같으나 변한(卞韓)이라 말하지 않고 변진(弁辰)이라 말하였다. 이것이 비록 걸려 들은 말이지만 역시 2한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서』가 말하는바 변한(卞韓)의 후예가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卞韓)의 출자가 낙랑에서 나왔다는 것일 따름이다. [권]근이 끌어서 또 증거로 삼으니 묘예(苗裔)의 두 자를 빼버리고 곧바로 변한(卞韓)이 낙랑군에 있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런고로 삼가 [최]치원의 옛 설에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에 결부시켰고, 전라도를 변한(卞韓)의 옛 영역에 결부시켰다. 『승람』에 자세히 보인다. 살펴보건대 고려 세조가 궁예(弓裔)를 달래면서 말하길 대왕이 만약 조선 · 숙신 · 변한(卞韓)의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다면 먼저 송악의 땅에서 일어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런즉 [고]구려를 변한(卞韓)으로 한 것은 권근이 창안한 설은 아니었다. 또 『통감』당태종기에서 백제(百濟) 아래 작은 주로 말하기를 "백제국은 마한의 속국이다." 라 하였기 때문에 백제를 마한으로 한 것 또한 근거하는 바가 있었다. 또 본사(本史; 『삼국사기』)를 살펴보건대 백제가 마한에 사신을 보내 천도를 알리고 강역을 정하는데 북으로 패하(浿河)에 이르고 남으로 웅천(熊川)까지로 하였다. 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왕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넜을 때 발 디딜 곳조차 없었는데, 내가 동북 백리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 것은 곧 마한의 땅이 전라의 땅이었음은 역사에 근거한 것으로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동국여지]승람』이 전라도를 변한(卞韓) 아래에 결부시킨 것은 어떤 확증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동방의 문헌에는 증거할 것이 없으니 삼한의 칭가 소소한 군현의 연혁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 여전히 그 땅을 정하지 못하고 논의가 분분하니 한탄스럽다.

사료9 **『동사찬요』 권2 중 지리 | 『東史簒要』 卷二 中 地理**

按 西原韓百謙三韓辨說曰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地 檀君與堯竝立 歷箕子暨衛滿 分四郡合二府. 至漢元帝建昭元年 高 朱蒙起而高句麗焉. 其南乃三韓之地. 三韓 古之辰國也. 其中馬韓最大. 秦之亡人避役 入韓地 馬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也. 又其南有弁韓 屬於辰韓. 各有渠帥 共立馬韓種以王三韓之地. 漢初 箕準爲衛滿所逐 浮海而南 至金馬郡 攻馬韓而有基地. 仍爲馬韓焉. 後漢書云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亦 已詳矣.

생각건대 서원(西原) 한백겸(韓百謙)의 삼한변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동방은 예부터 저절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북쪽은 본래 삼조선의 땅으로 단군(檀君)이 요임금과 함께 섰고 기자(箕子)를 거쳐 위만(衛滿)에 이르러 4군으로 나뉘고 2부로 합하였다. 한 원제 건소 원년(기원전 38년)에 고주몽이 일어나 고구려가 되었고, 그 남쪽이 곧 삼한의 땅이다. 삼한(三韓)은 옛 진국(辰國)이다. 그 중에 마한이 가장 컸다. 진(秦)의 망명인이 전쟁을 피하여 한의 땅이 들어오니 마한이 동쪽 경계를 떼어 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 되었다. 또한 구 남쪽에 변한(弁韓)이 있어 진한에 속하였다. 각각 거수(渠帥)가 있는데, 마한인 종족이 삼한 땅의 왕 노릇을 하였다. 한(漢) 초에 기준(箕準)이 위만에게 쫓겨 나게 되어 바다에 떠서 남으로 금마군(金馬郡)에 이르러 마한을 공격하여 그 땅을 터로 하였으니 일러 마한이라 하였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한(弁韓)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 하였으니 그것이 삼한지방을 가리키는 것이 또한 이미 상세하다.

사료10 **『동국통감제강』 권1 조선기 하 기준왕 | 『東國通鑑提綱』 卷一 朝鮮紀 下 箕準王**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避衛滿 入南海 開國號馬韓. 今益州 有古城 人稱爲箕準城 其地後爲百濟. 辰韓 赫居世所居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漢樂浪郡 則辰韓爲新羅 而卞韓爲高句麗也. 韓百謙曰 我東方在昔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地 其南乃三韓之地. 崔致遠始謂 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不知高句麗之非弁韓 此再誤也. 自是 史家承誤踵謬 至今未有定說.

권근이 말하기를 삼한의 논의는 서로 같지 않음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 준이 위만을 피해 남해로 들어가 나라를 열고 마한이라 불렀다. 지금 익주에 오래된 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이라 부른다. 그 땅이 후에 백제가 되었다. 진한은 혁거세가 거주한 땅이다. 『신당서』가 말하기를 "변한(卞韓)은 낙랑의 땅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평양은 옛날에 한(漢)의 낙랑군이었는데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 그러나 변한(卞韓)은 고구려 땅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백겸이 말하길 우리 동방 옛날에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북쪽은 본래 삼조선의 땅이었고, 그 남쪽은 삼한(三韓)의 땅이었다. 최치원이 처음으로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弁韓)이 백제라 말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라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역시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때부터 역사가들이 오류를 답습하여 지금 정설이 없다.

夫東國文獻雖不足徵 而 地形不變 參驗中國之史 試年代上下 · 地界遠近求之 則百代雖遠 歷歷如在眼前 亦何難辨之有哉. 前漢書 漢武帝討右渠 定朝鮮地爲樂浪 · 臨屯 · 玄菟 · 眞番四郡. 昭帝時 合爲二府. 至成帝時 高句麗興於西北 樂浪之地 悉爲其有 何時容得爲弁韓或馬韓也. 後漢書云 弁韓在辰韓南 又云馬韓統五十四國 辰弁韓各統十二國. 以此知湖西 · 湖南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辰弁二韓也. 馬韓歷四郡之時 至新莽爲百濟所滅. 辰韓 歷四郡之時 至宣帝時 新羅興於其地 又何時容得入中國爲四郡之哉. 其三韓之自爲三韓. 四郡之自爲四郡 兩地界不相攙入 明矣. 今唐書所載 皆崔致遠遊學時所說 致遠入中國時 年十二 雖所生之國 其能穿貫故事 而無失誤歟. 權近久居金馬郡 親見所謂箕準城 遂定馬韓爲百濟 此則固. 然其釋弁韓在南 曰 自漢界遼地而云爾 其引弁韓苗裔在樂浪 則乃去苗裔二字 直云弁韓在樂浪 其誤 豈不甚哉.

비록 동국의 문헌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나 지형이 변하지 않았고 중국사서를 참고로 하여 연대의 상하와 경계의 원근을 조사해 구한다면 백대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역력하니 어찌 분별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전한서』에 한(漢) 무제가 우거(右渠)를 토벌하여 조선 땅을 평정하고 낙랑 · 임둔 · 현토 · 진번의 4군으로 삼았

다. 소제(昭帝) 때 합하여 2부가 되었다. 성제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서북에서 일어나고 낙랑 땅 모두가 그 소유로 되었으니 언제 변한(弁韓) 혹은 마한이 될 수 있었겠는가?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마한은 54국을 거느리고 진변한은 각각 12국(國)을 거느렸다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호서와 호남이 합해 마한이 되었고, 영남 1도가 저절로 나뉘어 진변(辰弁)의 2한이 되었다. 마한은 4군의 시기를 지나 신망(新莽) 때에 이르러 백제에게 멸망당했고, 진한도 4군 시기를 지나 선제 때에 이르러 신라가 그 땅에서 일어났으니 또한 언제 중국에 들어가 4군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삼한(三韓)은 원래부터 삼한이었고, 4군은 처음부터 4군이었다. 양쪽 땅의 경계가 서로 섞여 들어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지금 『당서』에 실려 있는 바는 모두 최치원이 유학할 때 말한 것으로 치원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12세였다. 비록 태어난 나라라 하더라도 그가 능히 옛 일을 꿰뚫어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권근은 오랫동안 금마군(金馬郡)에 거주하여 소위 기준성(箕準城)이란 것을 친히 보았을 것으로 마침내 마한이 백제가 되었음을 정하였으니 이는 확실하다. 그러나 변한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는 한나라의 경역인 요동 땅을 가지고 말했을 따름이다. 그가 변한(弁韓)의 묘예(苗裔)가 낙랑에 있다는 것에서 묘예의 두 자를 제거하고 곧바로 변한이 낙랑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잘못함이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按 馬韓旣爲溫祚所滅 其逋遷裔冑 還居舊都 依樂浪爲邑國. 皆朝鮮舊民 思太師之德 樹其苗裔而存其祀焉. 是時句麗居在鴨綠江西北 而馬韓爲句麗之與國 兵勢增盛 句麗征戰 馬韓常領兵助之. 魏書曰 桓靈之末 韓濊强盛 郡縣不能制. 明帝景初中 遣兵渡海 襲馬韓滅之. 蓋馬韓滅 而復存還居舊都 因稱馬韓 經數百年. 故崔文昌因以平壤爲馬韓 其 說有自來矣. 且弁韓在辰韓南 兼管湖嶺之間 今全羅左道數邑之地 蓋屬弁韓. 文昌以百濟爲弁韓者 其說亦不爲無據. 權陽村以平壤爲弁韓之說 可謂謬之甚矣.
생각건대 마한이 이미 온조에게 멸망되자 달아났던 후예들이 옛 도읍지로 돌아와 살면서 낙랑에 의지해 읍국을 이루었다. 대개 조선의 옛 백성들이 태사의 덕을 생각하여 그 후손들을 세우고 제사를 존속하게 한 것 같다. 이때 고구려가 압록강 서북쪽에 살았는데 마한이 고구려의 동맹국이 되어 병력의 세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고구려가 정복전쟁을 벌이면 마한은 언제나 병력을 거느리고 도왔다. 『위서』에서 말하기를 "환제와 영제 말년에 한(韓)과 예(濊)가 강성하여 [한] 군현이 능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명제 경초(景初) 중(238년)에 병력을 바다를 건너보내 마한을 습격해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대개 마한이 멸망하였으나 다시 보존하고 옛 도읍지에 다시 돌아가 살면서 마한을 칭하기를 수백 년이 지났다. 그런고로 문창후 최치원이 평양을 마한이라 한 것으로 그 설은 원래부터 있어 왔다. 또한 변한(弁韓)이 진한의 남쪽에 있으면서 호남과 영남의 사이를 아울러 관할하였는데 지금 전라좌도 여러 읍의 땅은 대개 변한에 속하였다. 문창후가 백제를 변한이라 한 그 설 또한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촌 권근이 평양을 변한이라 한 설은 그 잘못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韓久庵三韓四郡不相參入之說 爲東方千古雙眼. 然不知馬韓還居平壤 而東漢二百年間 平壤不屬句麗. 眞番以古東眞之國界 蕃韓而得名. 韓氏以今京畿 · 黃海以北當之. 殆攷之未審也.〈平壤旁邑 有韓始城 · 馬邑城. 此其馬韓所都歟. 或曰 弁韓亦箕氏之後 故與馬韓 同時北徙 王隆有肅愼弁韓之說 渤海有弁韓定治之事. 姑記于此 必俟知者〉
구암 한백겸이 삼한과 사군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 주장은 동방에 천고에 빛날 식견이다. 그러나 마한이 평양으로 돌아가 살았고 동한 시기 200년간 평양은 고구려에 속하지 않았다. 진번(眞番)은 옛 동진[東眞; 고려 고종 3년에 금나라의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연길과 함경도 지방에 세웠던 나라]의 국경지역인 반한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다. 한씨(한백겸)가 지금의 경기 황해 이북을 진번에 연결시킨 것을 잘 살펴 고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평양 근방 마을에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이 있다. 이곳이 마한이 도읍을 전했던 곳이 아니겠는가. 혹자가 말하기를 변한(弁韓) 역시 기씨(箕氏)의 후예이기 때문에 마한과 같은 시기에 북으로 옮겼다거나 왕융(王隆)이 숙신(肅愼)과 변한(弁韓)에 대해 한 말과 발해(渤海)가 변한(弁韓)을 다스렸다는 일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우선 여기에 기록해 두어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

사료11 『동사회강』범례 부 론변 삼한지방지변 | 『東史會綱』凡例 附 論辨 三韓地方之辯

問 三韓地方 今何以的攷. 曰 此互相抵牾 儘未易辯. 輿覽攷據 最似得之 而亦有誤處. 今盡錄古今諸說 因附愚見以俟知者. 三國史地理志曰 新羅疆界 古傳記不同. 杜佑通典云 其先本辰韓種 其國在百濟高麗二國東南 東濱大海. 劉煦唐書云 東南俱限大海. 宋祈新書云 東南日本 西百濟 北高麗 南濱海. 賈耽四夷述云 辰韓在馬韓東 東抵海 北與濊接. 新羅崔致遠曰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此諸說可謂近似焉. 若新舊唐書皆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新書又云 東距長人 長人者 人長三丈 鋸牙鉤爪 搏人以食 新羅常屯弩士數千守之. 此皆傳聞懸說 非實錄也. 按兩漢志 樂浪郡距洛陽東北五千里 註曰 屬幽州 故朝鮮國也. 則似與鷄林之隔絶. 又相傳 東海絶島上 有大人國 而人無見者. 豈有弩士守之者.

묻기를 삼한지방을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는가 하자, 답하기를 이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 있어 모두 다 쉽게 분별 할 수는 없다. 『[동국여지]승람』에서 근거를 들어 가장 가깝게 [요체를]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잘못된 곳이 있다. 이제 고금의 주장을 다 기록하고 나의 견해를 첨부함으로써 후대에 알 수 있는 자를 기다린다. 『삼국사[기]』지리지가 말하길 신라의 강역은 옛 전기가 같지 않다. 두우의 『통전』이 말하기를 그 조상은 본래 진한의 종족으로 그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두 나라 동남쪽에 있으며 동쪽은 큰 바다에 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후의 『당서』에 말하기를 동남은 모두 바다를 경계로 한다 하였다. 송기의 『신(당)서』가 말하기를 "동남은 일본이고 서쪽은 백제이며 북쪽은 고[구]려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다." 가탐 (『군국지』)사이전이 서술해 말하기를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고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북쪽은 예와 접해 있다." 신라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卞韓)은 백제이며 진한은 신라이다." 라 하였다. 이런 여러 주장들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구당서』가 모두 말하기를 "변한(卞韓)의 후예가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신[당]서』에 다시 말하기를 "동쪽에 장인(長人)과 거리를 두고 있다. 장인이란 자는 키가 3장이나 되며 톱니같은 이빨에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 사람을 쳐서 잡아먹으므로 신라가 언제나 석궁 병사 수천으로 지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전재지는 말이나 떠도는 말이지 사실이 아니다. 양(兩) 한지(漢志; 『한서』와 『후한서』)를 살펴보면 낙랑군은 낙양으로 동북쪽 5천리 떨어져 있다는데, 주에 유주(幽州)에 속하는데 옛 조선국이었다 한다. 그런즉 계림(鷄林)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듯하다. 또 서로 전하기를 동해의 고도에 대인국(大人國)이 있는데 본 자가 없다고 한다. 어찌 석궁 병사가 있어 지킨 일이 있었겠는가?

東國通鑑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避衛滿之亂 浮海以南 開國號馬韓. 至百濟溫祚王立 遂兵之. 今之益州 有古城 至今人稱爲箕準城則馬韓之爲百濟 無疑矣. 辰韓 新羅始祖赫居世所起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故樂浪郡 則辰韓之謂新羅 卞韓之謂高句麗 亦無可疑. 後漢書以爲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卞韓在南者 皆自漢界遼東之地而云耳. 非謂卞韓在辰馬韓以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百濟也 誤矣.

『동국통감』에서 권근이 말하기를 "삼한의 논설이 서로 같지 않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왕 준이 위만의 난리를 피해 바다에 떠서 남으로 가서 개국을 하여 마한으로 불렀다. 백제 온조왕이 즉위하여 마침내 병합하였으니 지금의 익주(益州)이다. 옛 성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기준성으로 부르고 있으니 마한이 백제로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진한은 신라시조 혁거세가 일어난 곳이다. 『신당서』가 이르기를 "변한은 낙랑 땅에 있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평양은 옛 낙랑군이었다. 그런즉 진한을 신라라 하고, 변한(卞韓)을 고구려로 하였음 또한 가히 의심할 것이 없다. 『후한서』에서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 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나라가 요동지역을 경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지 변한이 진한과 마한이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최치원이 이 말로 인해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 한 것은 잘못이다.

東國輿地勝覽曰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此非崔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

也. 高麗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卞聲相近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然而未有昌言指之者. 及金敬叔編周官六翼 敍三韓 則云 高句麗幷樂浪 · 卞韓 百濟幷馬韓 · 帶方. 至敍三國 則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卞韓. 一人之言 自相矛盾 何足道哉.
『동국여지승람』에서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고 진한은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卞韓)은 백제가 되었다.” 한 것은 최치원이 이미 정한 논의지만 이것이 최치원이 창안한 설은 아니었고 삼국 초부터 서로 전해지던 설이었다. 고려 김부식의 지리지 또한 [최]치원의 논의가 옳다고 하였지만 그[고려]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이 백제의 경역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은 고구려의 경역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의 소리가 서로 가까워 마침내 마한이 백제가 되었고 변한(卞韓)이 고구려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드러내 말해 지적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김경숙(金敬叔)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하면서 삼한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고구려가 낙랑과 변한을 합병하고, 백제가 마한과 대방을 병합하였다 하였고, 삼국을 서술하는데 이르러서는 곧 바로 고구려를 마한이라 하였고, 백제를 변한(卞韓)이라 하였으니 한 사람의 말이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되니 어찌 따르기에 족하겠는가?

逮于本朝 吉昌君權近與李詹等 修東國史略 乃斷然 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 東人擬之 蓍蔡. 而亦爲是論 以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臣反覆攷中國及東史 三韓之時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辰卞二韓 各統十二國 則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矣. 意者 馬韓王道 其南密近於卞韓 而東北則與樂浪 · 靺鞨 · 沃沮等 封疆相接. 其後 高句麗東明王起於樂浪 而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 皆以此也. 後漢書載 卞辰在辰韓之南 本與倭接. 又曰 卞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不曰弁韓 而曰弁辰. 是雖懸聞之稱 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
본조에 이르러 길창군 권근과 이첨 등이 『동국사략』을 편찬하면서 단정하기를 마한이 백제가 되었고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다. 권근은 근세 대 유학자로서 우리 사람들이 시작과 법에 비하고 있는데 또한 이러한 논의로 천고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신이 중국과 우리 역사를 여러 번 살펴보니 삼한 때에는 마한이 가장 커서 54국을 통솔하였고, 진변(辰弁) 2한(韓)은 각각 12국을 통솔하였다. 그런즉 지금의 익산 이남에 54국이 들어 갈 수 있는 땅은 없다. 생각건대 마한의 왕도는 그 남쪽이 변한에 아주 가까웠고 동북쪽은 낙랑 · 말갈 · 옥저 등과 경역이 서로 접해 있었다. 그 후에 고구려 동명왕은 낙랑에서 일어나고 마한 동북의 땅을 거의 차지하였으니 후에 사람이 마한이라 칭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한(卞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고 본래 왜에 접해있었다. 다시 말하기를 변진(卞辰)은 진한과 뒤섞여 살아 의복 · 거처 · 언어 · 풍속이 같아서 변한(弁韓)이라 하지 않고 변진(弁辰)이라 하였다. 이것이 멀리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두 한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羅赫居世十九年 卞韓以國來降. 其後 百濟旣滅馬韓 兵力强盛 蠶食新羅 · 卞韓舊地 智異山以西盡爲所幷. 後人稱濟爲卞韓者 皆以此也. 乃何近或於金馬 · 平那之說 謂馬韓在百濟封域之中 遂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地者 皆言卞韓之系出自樂浪耳. 金富軾猶謂非實錄 近之論顧因以爲證 而乃去苗裔二字 只云卞韓樂浪之地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皆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 信如是 則其所云馬韓在西者 亦可謂之 在遼東之西乎. 周官六翼 其高麗世祖說弓裔之言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占松嶽. 註云 今西京古之卞那京 故曰卞韓. 此尤謬妄. 以卞韓爲西京 則朝鮮更指何地. 後日 裔之用兵 自羅州始 則世祖所謂卞韓 指百濟也 審矣.
신라 혁거세 19년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그 후 백제가 이미 마한을 멸하고 병력이 강성해져 신라와 변한(卞韓)의 옛 땅을 잠식하니 지리산 이서가 모두 병합되었다. 후인이 백제를 변한(卞韓)으로 칭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권근은 어찌 금마와 평나의 설에 혹하여 마한이 백제의 경역 안에 있었다 하고 마침내 백제로 하였던 것인가? 또한 『당서』 말하는바 변한의 묘예가 낙랑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변한의 계통이 낙랑에서 나왔던 것을 말할 따름이었다. 김부식도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권

근의 설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 증거로 삼으면서 묘예(苗裔)의 두 자를 빼고 단지 변한은 낙랑 땅에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가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 한의 경계인 요동 땅을 가지고 말한 것일 따름이지 변한(卞韓)이 진 · 마 2한의 남쪽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처럼 믿는다면 마한이 서쪽에 있다고 말한 것이 역시 요동의 서쪽에 있다고 말한 것인가? 『주관육익』에서 고려 세조가 궁예를 달래는 말을 하면서 "대왕이 만약 조선 · 숙신 · 변한 땅의 왕이 되려 한다면 송악을 선점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라 하였는데, 주(註)에서 지금 서경(西京)이 옛날의 변나경(卞那京)이었던 까닭으로 변한(卞韓)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변한(卞韓)이 서경이 되었다면 조선은 다시 어떤 땅을 가리켜야 하는가. 후일에 [궁]예의 용병이 나주에서 시작되었으니 세조가 말한 변한은 백제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名卞韓. 今平壤府有馬邑山 扶安縣有邊山 則遺事之云 恐或有徵. 是書未知誰作 亦出於高麗 中葉以後. 其所記載 皆荒誕不經 不足取信. 然於辯三韓之說 則證據甚明. 欲志東方地理志者 固宜參觀. 臣故謹因致遠舊說 以京畿 · 忠淸 · 黃海等道 係于馬韓舊域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삼국유사』에서 말하기를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딴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卞韓)이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평양부에 마읍산(馬邑山)이 있고, 부안현에는 변산(邊山)이 있으니 『[삼국]유사』가 말하는 것이 혹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책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한 고려에서 나왔으니 [고려]중엽 이후에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모두 황탄하고 옳지 않으므로 믿어 취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삼한을 분별한 주장은 매우 명확하므로 우리나라의 지리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참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신은 그런 까닭으로 삼가 최치원의 옛 주장을 따라 경기도 · 충청도 · 황해도 등을 마한의 영역에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다.

東史簒要 吳澐曰 按高麗世祖說弓裔曰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興松岳之地云 則以句麗爲卞韓非權近創說. 又通鑑唐太宗紀 百濟下小註云 百濟之國 馬韓之屬也 則百濟之爲馬韓 亦有所據. 又按本史 百濟遣使馬韓 告遷都定疆域 北至浿河 南限熊川. 又馬韓王遣使 責百濟王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百里之地界云云. 則馬韓地爲全羅地 據史無疑. 而勝覽斷以全羅道係卞韓下 不知有何明證. 吾東方文獻無徵 三韓之稱號 非如小小郡縣沿革之比 而尙不的定其地 論義紛紜 可嘆.
『동사찬요』에서 오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려 세조가 궁예를 달래면서 대왕이 만약 조선 · 숙신 · 변한 땅의 왕이 되려 한다면 먼저 송악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고]구려를 변한으로 한 것이 권근의 창안이 아니다. 또 『통감』당 태종기 백제 하(下) 세주[小註]에서 "백제가 마한에 속국이다." 하였으니 백제가 마한이었다는 것 또한 근거가 있다. 또 본사를 살펴보니 "백제가 마한에 사신을 보내 천도를 알리고 강역을 정했는데 북쪽은 패하(浿河)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왕을 꾸짖으며 그대가 처음 강을 건너 올 때 발디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백리의 땅을 떼 주어 경계로 삼았었다."고 말했으니 마한이 전라도 땅이었음은 사서에 근거해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런데도 『[동국여지]승람』에서 전라도를 변한 아래에 단정지어 연결시킨 것에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동방의 문헌에는 근거할 것이 없어서 삼한의 칭호가 소소한 군현의 연혁에 비할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 영역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 논의가 분분하니 가히 한탄스럽다.

謹按 三韓之界 諸家之言 互相牴牾 而勝覽攷據 最明. 今從之. 然其言亦不能無得失 而吉昌之論 恐亦有不可全廢者. 竊謂 東方有朝鮮之地 又三韓之地. 混之則亂矣. 朝鮮之地 卽 箕子舊邦 · 衛滿所據 而在漢爲四郡 · 二府. 其地西南 與韓地相錯. 東北盡沃沮 · 肅愼 北極遼河. 而漢書云 玄菟距洛陽東北四千里 所屬三縣 高句麗縣 是其一 則東明王初起之地 卽古之朝鮮 · 玄菟之域 今之遼瀋東北之界 而以地名爲國號也. 三韓之域 卽朝鮮以南之地. 而辰

韓在東 今之慶尙道. 卞韓在南 當爲今之全羅道. 馬韓在西 而地方最大 當爲今之黃海 · 京畿 · 忠淸等道. 東史言 箕準避衛滿之亂 入海南奔 居韓地金馬郡 國號馬韓. 金馬今之益山郡 自平壤奔而入海 至于益山. 其路 蓋自西海島 乘船 歷今京畿 · 忠淸等道地方 而益山正今忠淸 · 全羅之界 則箕準之國 卽馬韓之域. 亦以地名爲國號 而今之黃海 · 京畿 · 忠淸等道 皆其地也.

삼가 살피건대 삼한의 영역에 대해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지만 『[동국여지]승람』이 고찰한 논거가 가장 확실하므로 이제 따른다. 그러나 그 말에도 득실이 없을 수 없으니 길창의 주장에도 또한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한다. 생각건대 동방에는 조선의 땅이 있고 또 삼한의 땅이 있다. 이것을 혼동하면 혼란스러워 진다. 조선 땅은 바로 기자의 옛 나라로 위만이 근거하고 있었던 곳으로 한 나라 때 4군과 2부로 되었다. 그 땅 서남쪽은 한(韓)의 땅과 서로 뒤섞여 있었고, 동북쪽은 옥저와 숙신에서 경계를 다 하였으며 북쪽 끝은 요하였다. 그런데 『한서』에서 "현도는 동북쪽으로 4천여 리 떨어져 있는데 소속된 현 중에 고구려현이 그 중 하나이다."라 했으니 동명왕이 처음 일어났던 바로 조선 현도의 영역으로 지금의 요동과 심양의 경계이니 지명을 가지고 국호를 삼았다. 삼한의 영역은 바로 조선 이남의 땅이다. 진한은 동쪽에 있었으니 지금의 경상도이고 변한은 남쪽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지금의 전라도가 된다. 마한은 서쪽에 있었는데 땅의 규모가 가장 넓어 마땅히 지금의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도 등이다. 『동사』에서 말하기를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바다에 들어가 남쪽으로 달아나 한(韓)의 땅 금마에 살게 되어 국호를 마한(馬韓)이라 하였다." 금마는 지금의 익산군이다. 평양에서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 익산에 이르렀다. 그 길은 대개 서해도(西海島)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을 거쳤다. 익산이 바로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이니 기준의 나라가 곧 마한의 영역이다. 역시 지명을 국호로 한 것으로 지금의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도 등이 모두 그 땅이다.

百濟溫祚王 逃難南奔 馬韓王割東北百里之地界之. 溫祚初都慰禮 今之稷山縣. 後徙漢山 今之南漢城. 於此 京圻 · 忠淸等道之爲馬韓 益明矣. 漢書旣言 弁韓在南 又言 南與倭接 又言 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其爲今之全羅道之地方 無疑. 赫居世十九年 弁韓以其國降于新羅 馬韓王所云 辰弁二韓 爲我屬國 比年不修職貢 是也. 故當時稱馬韓爲西韓 稱新羅爲南韓. 而樂浪地方 在箕氏爲已失之邦 在新羅無降附之時.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侵新羅 及境而還 是也. 於此 卞韓之不可爲平安道 又無疑矣. 蓋三國之時 赫居世起於辰韓 東明起於朝鮮舊域 玄菟之地 溫祚起於馬韓東北之地. 其後百濟 旣滅馬韓 漸拓南地 今之全羅道地方 盡爲其所據. 於是 卞韓入於百濟 而新羅地界則西南窮於智異山矣. 高勾麗自遼界 漸東遷浿水之側 旣幷樂浪 益噬馬韓之地 今之黃海 · 京畿 · 忠淸等道地方 多爲麗濟所分據. 及其中葉 濟爲麗所困. 至蓋鹵王時 麗兵圍北漢都城 蓋鹵出走遇害. 其子文周王移都熊川 今之公州地. 其孫聖王 又徙泗沘河 今之扶餘縣. 於是 馬韓北偏之地 幾盡入於高勾麗 而百濟提封. 遂北短於馬韓 南長於卞韓矣. 高勾麗自東遷之後 其東北之地 稍稍入於靺鞨. 而其後一喪於隋 再喪於唐 遼東諸城 盡屬於中國. 於是 麗之幅員 亦北短於遼野 南長於馬韓矣. 大抵 原其始而論之 麗得朝鮮 濟得馬韓 羅得辰卞. 究其終而觀之 麗界馬韓 濟界弁韓 羅界辰韓.

백제 온조왕이 난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니 마한왕이 동북 100리의 땅을 잘라서 경계로 삼게 하였다. 온조가 처음 위례에 도읍했으니 지금의 직산현이다. 후에 한산(漢山)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한성이다. 이에 경기 · 충청도 등이 마한이 된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미 『한서』가 말하기를 변한은 남에 있고 또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으며 다시 진한과 섞여 살며 의복 · 거처 · 풍속이 같다. 그것이 지금의 전라도가 되었다 하니 의심할 것이 없다.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신라에 항복하고, 마한왕이 진 · 변의 2한이 우리의 속국인데 근래에 조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고로 당시 마한을 서한이라 칭하고 신라를 남한이라 칭하였다. 낙랑지방에 기씨가 있었으나 이미 나라를 잃은 것으로 신라 때에는 항복하지 않았을 나라가 없었다. 혁거세 30년(기원전 28년)에 낙랑인이 신라에 침략했다가 국경에 이르러 돌아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에 변한이 평안도가 되는 것은 불가하며 의심할 바가 없다. 대개 삼국의 시기에 혁거세가 진한에서 일어나고, 동명이

조선의 옛 땅인 현도에서의 땅에서 일어났으며, 온조가 마한 동북의 땅에서 일어났다. 그 후에 백제가 이미 마한을 멸하여 점차 남쪽으로 척경하였으니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 모두 그 근거지가 되었다. 이때 변한이 백제에 들어갔으니 신라와의 경계가 서남쪽으로 지리산까지가 되었다. 고구려는 요하의 경계로부터 점차 동쪽 패수 옆으로 이동하여 낙랑을 병합하고 나아가 마한의 땅을 삼켰으니 지금의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도 지방의 대부분을 고구려와 백제가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다. 삼국시대 중엽에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곤경을 당해 개로왕(蓋鹵王) 때 이르러 고구려병이 북한도성(北漢都城)을 포위하자 개로가 나와 달아나다 해를 당했다. 그 아들 문주왕이 도읍을 웅천(熊川)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공주 땅이다. 그 손자 성왕이 다시 사비하(泗沘河)로 옮기니 지금의 부여현이다. 이에 마한의 북쪽 땅이 거의 고구려에 들어가고, 백제의 영역은 마침내 마한의 북쪽이 줄어들고 남쪽 변한(卞韓)으로 확장되었다. 고구려가 동천했을 때부터 그 동북 땅은 점점 말갈에 들어가고 그 후에 한때 수(隋)에게 한번 당하고 다시 당에게 당하여 요동의 여러 성이 모두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의 영역도 요동벌이 줄어들고 남쪽으로 마한으로 뻗쳤다. 대개 그 시작을 가지고 논하면 고구려가 조선을 얻고, 백제가 마한을 얻었으며 신라는 진 · 변한[卞]을 얻었다. 그 결과를 보면 고구려는 마한을 경계로 삼았고 백제는 변한(弁韓)을 경계로 삼았으며, 신라는 진한을 경계로 삼았다.

吉昌徒見其始之馬韓爲百濟 而不究其終之卞韓亦爲百濟 謂益山今在全羅道地 而遂以全羅道盡係馬韓 則卞韓無可指之處 不得不以屬之平安道. 而獨據新唐書卞韓苗裔在樂浪之說 截去苗裔二字 而湊合於已說. 以硬定難定之論. 其失遂不止以卞爲馬. 亦以朝鮮混於韓地矣. 然要之 百濟始於馬韓 終於馬韓. 則其以馬韓爲百濟 未可非也. 至於周官六翼註 以西京爲卞韓 勝覽斥以朝鮮更指何地者 得之矣. 而勝覽却又引三國遺事 麗地自有馬邑山之說 而釋之以平壤府有馬邑山 以訂馬韓之爲麗 則朝鮮更指何地之斥 恐不得獨施於六翼也. 勝覽考據三韓 最明. 而其以高勾麗爲起於樂浪 以平壤馬邑山 訂馬韓 恐又失之.
길창(吉昌; 권근)이 다만 처음에 마한이 백제가 된 것만을 보았지, 마지막에 변한(卞韓)이 백제가 되었음은 궁구하지 못하였다. 익산이 지금 전라도에 있다고 말해 마침내 전라도 모두를 마한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변한을 가리킬만한 곳이 없어져 불가불 평안도에 속하게 한 것이었다. 다만 『신당서』에 변한의 후예가 낙랑에 있다는 설만을 홀로 믿어 묘예의 두 자를 끊어 내어 자기 설에 합해 정하기 어려운 논쟁을 확정하였으니 그 잘못이 변한을 마한이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조선을 한의 땅에 섞었다. 그러나 요컨대 백제가 마한에서 시작하고 마한에서 끝났으니 마한을 백제로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주관육익(周官六翼)』의 주에 서경을 변한(卞韓)이라 한 것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이 "그렇다면 조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고 지적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승람』은 도리어 『삼국유사』의 고구려 땅에 마읍산(馬邑山)이 있다는 설을 인용하여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한이 고구려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마한을 고구려로 고쳤으니 조선은 다시 어느 땅을 가리킬 것인가 아마도 오직 『육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승람』이 삼한에 대해 근거하고 고찰한 것이 가장 분명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낙랑에서 일어난 것과 평앙 마읍산을 가지고 마한으로 고쳤던 것은 아마도 잘못인 듯하다.

今盡置諸家得失 若折衷以斷之曰 高勾麗本朝鮮之域 而後幷馬韓爲其界. 百濟 本馬韓之域 而後幷弁韓爲其界. 新羅本辰韓之域 而後幷麗濟 爲三韓之主. 東明之初起之地 本朝鮮之玄菟舊域 而後入中國爲遼東蓋建州衛等地方. 庶幾無大謬 而紛紜之論 亦或有時而定焉云.〈輿覽 以今成川 爲東明所都沸流川之類 皆誤也〉
지금 여러 설들의 잘잘못을 다 그대로 두고 절충하여 단정해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본래 조선의 경역이었다. 그러나 마한을 병합하여 그 경계로 삼았고, 백제는 본래 마한의 경역으로 후에 변한(卞韓)을 병합하여 경계로 삼았으며, 신라는 본래 진한의 경역으로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여 삼한의 주인이 되었다. 동명이 처음 일어나 땅은 본래 조선 현도의 옛 땅이었고, 후에 중국에 들어가 대개 요동 건주위 등 지방이 되었으니 큰 잘못이 없으니 어지러운 논쟁 또한 어떤 시기에 정해 졌으면 한다. 〈『여람』에서 지금의 성천(成川)을 동명

이 도읍을 정한 비류천 같은 곳이라 했지만 모두 잘못이다〉

又按卞韓地方 見於史書者 獨有一處可疑. 新羅聖德王十二年 叙渤海國幅員 有曰 盡得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諸國云云. 此皆高麗舊境. 槩高氏之亡 浿南之地屬新羅 其西北之地屬中國 東北之地盡入靺鞨〈疑今咸鏡 · 平安道等地 皆爲靺鞨所侵占〉 而靺鞨爲渤海國. 以此言之 麗境固自有弁韓矣. 却怪吉昌不引此爲證 而苟且牽合弁韓苗裔在樂浪之說 何也. 然反復攷詳中國文籍及東史所載 弁韓地分 決無越在東北界之理. 豈東方別有二弁韓耶. 東方地名如二東暆 · 三帶方之類 甚衆. 意者 三韓之世 蠻觸紛紜 隨其所在 輒立名號. 故重複錯互 如南北朝江南九州之名者多有之. 渤海域内 所謂卞韓 恐亦此類. 且以弁韓苗裔在樂浪之說 細尋其文義 則似謂弁韓部種 有入樂浪之域 而冒弁韓舊號者 此則理亦或然. 要之 三韓本界分 則東辰 · 西馬 · 南卞 不可易也.

또 생각건대 변한지방으로 사서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한 곳이 의심스러운데, 신라 성덕왕 12년(713년)에 발해국의 영역을 서술하면서 부여 · 옥저 · 변한 · 조선 등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대개 고씨(高氏)가 망하고 패수 남쪽의 땅은 신라에 속하였고, 그 서북의 땅은 중국에 속해, 동북의 당은 모두 말갈에 들어갔는데, 〈지금의 함경도와 평안도 등은 모두 말갈에게 침략되고 점령되었던 땅이란 말인가〉 말갈은 발해국(渤海國)이 되었다. 이로 말하면 고구려의 경계에는 진실로 변한(弁韓)이 있었다. 그런데 도리어 길창은 이를 이끌어 고치지 않고 구차하게 변한(弁韓)의 후예가 낙랑에 있다는 설을 끌어 다 부쳤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다시 중국의 문적과 『동사』에 실려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한(弁韓)의 땅은 결코 건너 뛰어 동북지방에 있을 수가 없다. 어찌 동방에 별도로 두 개의 변한이 있었겠는가? 동방의 지명에는 두 개의 동이(東暆)와 세 개의 대방(帶方) 같은 것들이 아주 많다. 생각한대 삼한 시대에 사소한 분쟁이 빈번하여 그 소재에 따라 이름을 세웠다.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중복되고 착각된 것이 남북조시대 강남과 구주의 이름에 같은 것이 많다. 발해 영역 내에 이른바 변한(弁韓) 또한 아마도 이런 종류일 것이다. 또한 변한의 묘예(苗裔)가 낙랑에 있었다는 설에 대해 그 글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면 마치 변한의 일부 종족이 낙랑영역에 들어가 변한의 옛 이름을 강제로 쓴 것일 것이다. 이런즉 이치 또한 그럴 듯하다. 요컨대 삼한 본래의 경계가 동쪽은 진한 서쪽이 마한임은 바뀔 수 없다.

사료12 『성호사설』 권2 천지문 삼한금마 | 『星湖僿說』 卷二 天地門 三韓金馬

崔致遠云 馬韓為髙句麗 弁韓為百濟 辰韓為新羅. 人疑其失實 崔卽當時人 寧有錯說 若是耶. 後漢書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後新羅實據有辰韓之域 今慶尚道 是也. 然晉州等八邑 是百濟之地 又在南邉 此恐弁韓之域也. 辰弁始皆馬韓之東界 要在慶尚道内者 百濟旣并馬韓 弁在两國之間 則弁雖始附于羅 其終必入扵百濟也. 不然崔何以云弁韓為百濟. 据崔之說詳地之勢 弁之地方 舍此更無其地矣. 權陽村引新唐書云 弁韓在樂浪郡 盖唐滅百濟并扵羅 封樂浪王 則樂浪非漢之樂浪也. 馬韓者指箕準也. 本居句麗之地 後雖奔逃而南 指句麗為馬韓故地 亦或宜然也. 百濟起扵馬韓境内 馬韓所統五十餘國 原有伯濟國 恐是始基于此地 後人謂自十至伯者妄矣. 馬韓都金馬郡 甄萱又謂百濟開國金馬山 何也. 余謂 古者 東方中分為界 自今之圻甸以上為朝鮮 以下為韓. 然韓之地中分為界 東為辰 · 弁 西為馬韓 馬韓之地 通名金馬. 箕準之益山 温祚之稷山 孰非金馬中縣邑乎. 以此言之 文昌 · 甄萱之語未見註誤 今人従典籍旣堙之後 依俙臆揣 乃反致疑扵當時目擊之言 何異衛朴之 自以無目 而廢天下之視也.

최치원(崔致遠)은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변한이 백제가 되었으며,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최치원은 당시의 사람인데, 어찌 이 같이 어긋난 말은 할 수 있겠는가? 『후한서』에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후에 신라가 실로 진한의 지역에 근거했다." 하니 지금의 경상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진주 등 여덟 고을은 백제의 땅이었으며, 또한 남변(南邊)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 변한의 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진한과 변한이 처음에 다 마한의 동쪽에 있었다 하니 경계는 경상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백제가 마한을 병탄하므로 변한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한다

면, 변한은 비록 처음에는 신라에 부속되었으나 나중에는 백제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치원이 어찌 변한이 백제가 되었다고 했겠는가. 권양촌(權陽村)은 『신당서』를 인용하여 변한은 낙랑군에 있었다고 했으나, 대개 당 나라가 백제를 멸해 신라에 병합시키고 낙랑왕(樂浪王)을 봉하였던 즉 낙랑이라는 것이 한(漢)의 낙랑이 아닐 것이다. 마한이라는 것은 기준(箕準)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디 고구려 땅에 살다가 후에 비록 남쪽으로 달아났으나, 고구려를 가리켜 마한의 옛 땅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그랬을 것 같다. 백제는 마한의 경내에서 일어났으며, 마한이 통할하던 50여 나라에 원래 백제국(伯濟國)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아마도 맨 처음 이 땅에 기반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후세 사람들이 십제(十濟)로부터 백제(伯濟)에 이른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마한이 금마군(金馬郡)에 도읍하고 견훤이 다시 백제라 하면서 금마산(金馬山)에서 개국한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에는 동방(東方)을 반으로 나누어 지금의 서울[圻甸] 이북을 조선이라 하고, 이남을 한(韓)이라고 했다하니, 한의 땅을 반으로 나누어 동쪽은 진한 · 변한이 되고 서쪽은 마한이 되었으며, 마한의 땅을 통틀어 금마(金馬)라 했으니, 기준의 익산(益山)이나 온조의 직산(稷山) 중 어느 것이 금마의 고을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말한다면 문창후(文昌侯)와 견훤의 말도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전적들이 이미 없어진 뒤를 따라 희미한 것에 의거하여 추단하면서 오히려 당시에 눈으로 본 사람의 말을 의심하니, 어찌 위박(衛朴)이 자기는 눈도 없으면서 천하가 본 것을 잘못 보았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료13 **『성호사설』** 권21 경사문 발해 | **『星湖僿說』** 卷二十一 經史門 渤海

仲象之子祚榮 始建國 國號震 地方五千里 盡得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諸國云. 扶餘在鴨綠之外 人謂在成川府者非也. 沃沮即今北路六鎭等地 朝鮮今遼東西 皆其舊界. 而弁韓在今慶尚道内辰韓西南 則非渤海所統也. 或者 三韓皆自外来 馬韓従朝鮮来 辰韓従秦地来 亦安知弁韓本在鴨綠之外 逐於山戎 而来者耶. 不然 必記者之有誤耳.

중상의 아들 조영(祚榮)이 비로소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震)이라 하였다. 지방은 5천리쯤 되었는데 부여 · 옥저 · 변한(弁韓) · 조선의 모든 나라를 다 얻었다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그때 부여는 압록강 밖에 있었고, 성천부(成川府)에 있었다는 말은 잘못이며, 옥저도 지금 북도의 육진(六鎭) 등지이다. 조선(朝鮮)은 지금 요수의 동서쪽이 모두 옛날 경계이고, 변한은 지금 경상도 진한 서남쪽에 있었으니 이는 발해가 통솔한 지역이 아니다. 추측컨대 삼한은 모두 밖에서 들어온 나라인 듯하다. 마한은 조선에서 들어오고, 진한이 진지(秦地)에서 들어왔다면 변한도 본래 압록강 밖에 있다가 산융(山戎)에게 쫓겨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를 또한 어찌 알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기록한 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사료14 **『환영지』** 조선연혁도 | **『寰瀛誌』** 朝鮮沿革圖

弁韓〈始祖未詳 今全羅地以邊山舊號卞那山 故名云而未詳 地之稱卽 詩經所稱王錫韓侯者〉

변한〈시조는 잘 알 수 없다. 지금 전라도 변산(邊山)의 옛 이름인 변나산(卞那山)을 가지고 이름을 삼았다고 하나 잘 알 수 없다. 땅을 이름으로 한 것이니 『시경』에 왕이 한후(韓侯)에게 주다 같은 것이다〉

사료15 **『환영지』** 동방국도도 | **『寰瀛誌』** 東方國都圖

弁韓〈全羅南邊 始祖未詳〉

변한〈전라남도의 남쪽 변두리로 시조는 잘 알 수 없다〉

사료16 **『수산집』** 권14 동국여지잡기 삼한지방변 | **『修山集』** 卷十四 東國輿地雜記 三韓地方辨

林氏象德曰 三韓地界 諸家之言 互相牴牾. 而勝覽攷據最明 今從之. 然其言 亦不能無得失 而吉昌之論 恐亦有不可全廢者. 竊謂 東方有朝鮮之地 又有三韓之地 混之則亂矣. 朝鮮之地 卽箕子舊邦 · 衛滿所據 而在漢爲四郡二府. 其地西南 有韓地相錯. 東北盡沃沮 · 肅愼 北極遼河. 而漢書云 玄菟距洛陽東北四千里 所屬三縣 高勾麗縣 是其

一. 則東明王初起之地 卽古之朝鮮 · 玄菟之域 今之遼瀋東北之界 而以地名爲國號也.
임상덕[『동사회강(東史會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한의 경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이 고찰했던 증거가 가장 분명하므로 지금 따른다. 그러나 그 말에도 또한 득실이 없을 수가 없고 길창(吉昌; 권근)의 진술에도 또한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동방에는 조선의 땅이 있고, 또한 삼한의 땅이 있으니 섞이면 어지러워진다. 조선의 땅은 기자의 옛 나라이며 위만이 근거했던 곳으로 한이 사군과 이부를 두었다. 그 땅 서남쪽에 한의 땅이 서로 섞여 있었다. 동북은 옥저와 숙신에 닿고 북쪽은 요하가 끝이었다. 『한서』가 말하기를 현토는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4천리 떨어져 있는데, 딸린 3현 중 고구려현이 바로 그 하나인 즉 동명왕이 처음 일어난 땅으로 옛 조선과 현토의 영역이었다. 지금의 요동과 심양의 경계이니 지명을 국명으로 삼았다.

三韓之域 卽朝鮮以南之地. 而辰韓在東 今之慶尙道. 卞韓在南 當爲今之全羅道. 馬韓在西而地方最大 當爲今之黃海 · 京圻 · 忠淸等道. 東史言箕準避衛滿之亂 入海南奔 居韓地金馬郡 國號馬韓 金馬今之益山郡. 自平壤奔而入海 至于益山 其路蓋自西海道乘船 歷今京圻 · 忠淸等道地方 而益山正今忠淸 · 全羅兩道之界 則箕準之國 卽馬韓之域. 亦以地名爲國號 而今之黃海京圻忠淸等道 皆其地也. 百濟溫祚王 逃難南奔. 馬韓王割東北百里之地畀之. 溫祚初都慰禮 今之稷山縣. 後徙漢山 今之南漢城. 於此 京圻 · 忠淸等道之爲馬韓 益明矣. 漢書旣言 弁韓在南 又言南與倭接 又言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其爲今之全羅道之地方 無疑.
삼한의 영역은 조선 이남의 땅이다. 그래서 진한은 동쪽에 있으니 지금의 경상도이다. 변한은 남쪽에 있으니 마땅히 지금의 전라도가 되었다. 마한은 서쪽에 있으면서 땅이 가장 크니 지금의 황해 · 경기 · 충청도 등이다. 『(東史)』가 말하기를 "기준이 위만의 난리를 피해 바다에 들어가 남쪽으로 달아나 한의 땅인 금마군에 거처하면서 나라를 마한이라 불렀다." 금마(金馬)는 지금의 익산군이다. 평양에서 달아나 바다에 들어가 익산에 이르렀으니 그 길은 대개 서해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경기 · 충청지방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니 익산은 정말로 지금의 충청 · 전라 양 도의 경계에 있으니 기준의 나라는 곧 마한의 영역이었다. 또한 지명을 국호로 했으니 지금의 황해 · 경기 · 충청 등이 모두 그 땅이다. 백제 온조왕이 난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니 마한왕이 동북 100리의 땅을 잘라서 경계로 삼게 하였다. 온조가 처음 위례에 도읍했으니 지금의 직산현이다. 후에 한산(漢山)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한성이다. 이에 경기 · 충청도 등이 마한이 된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미 『한서』가 말하기를 "변한은 남에 있고 또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으며 다시 진한과 섞여 살며 의복 · 거처 · 풍속이 같다. 그것이 지금의 전라도가 되었다 하니 의심할 것이 없다.

赫居世十九年 卞韓以其國降于新羅 馬韓王所云 辰卞二韓爲我屬國 比年不修職貢 是也. 故當時稱馬韓爲西韓 稱新羅爲南韓 而樂浪地方在箕氏 爲已失之邦 在新羅無降附之時.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侵新羅 及境而還 是也. 於此卞韓之不可爲平安道 又無疑矣.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그 나라로 신라에 투항하였다. 마한왕이 진변 2한이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이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마한을 서한이라 불렀고 신라를 남한이라 불렀다. 그러나 낙랑지방은 이미 기씨 때 잃어버린 나라였으므로 신라에 항복할 때가 없었다. 혁거세 30년(기원전 28년)에 낙랑인이 신라에 침입하여 국경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에 변한이 평안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蓋三國之時 赫居世起於辰韓 東明起於朝鮮舊域玄菟之地 溫祚起於馬韓東北之地. 其後 百濟旣滅馬韓 漸拓南地今之全羅道地方 盡爲其所據. 於是 卞韓入於百濟 而新羅地界 則西南窮於智異山矣. 高句麗自遼界 漸東遷浿水之側 旣幷樂浪 益噬馬韓之地 今之黃海京圻忠淸等道地方 多爲麗濟所分據.

대개 삼국의 시기에 혁거세는 진한에서 일어나고 동명은 조선의 구지와 현토의 땅에서 일어났으며 온조는 마한 동북의 땅에서 일어났다. 그 후 백제가 이미 마한을 멸하고 점차 남쪽 땅으로 확장하였으니 지금 전라도지방 모두를 근거로 삼게 되었다. 이에 변한이 백제에 들어가니 신라 땅과의 경계가 지리산 서남까지 다하였다. 고구려는 요의 경계부터 점차 동으로 패수 가로 이동해 이윽고 낙랑을 병합하여 점차 마한의 땅을 삼키니 지금의 황해 · 경기 · 충청도지방이 많이 고구려와 백제에 분할 점거되었다.

及其中葉 濟爲麗所困 至蓋鹵王時 麗兵圍北漢都城 蓋鹵出走遇害. 其子文周王移都熊川 今之公州地. 其孫聖王 又徙泗沘河 今之扶餘縣. 於是 馬韓北偏之地 幾盡入於高勾麗 而百濟提封 遂北短於馬韓 南長於卞韓矣. 高勾麗自東遷之後 其東北之地 稍稍入於靺鞨 而其後一喪於隋. 再喪於唐 遼東諸城 盡屬於中國. 於是是麗之幅員 亦北短於遼野 南長於馬韓矣. 大抵原其始而論之 麗得朝鮮 濟得馬韓 羅得辰卞. 究其終而觀之 麗界馬韓 濟界弁韓 羅界辰韓.
중엽에 이르러 백제가 고구려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개로왕 대에 이르러 고구려병이 북한도성을 포위하자 개로가 나와 달아나다가 해를 입었다. 그 아들 문주왕이 도읍을 웅천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공주 땅이다. 그 후손 성왕이 다시 사비하(泗沘河)로 옮겼으니 지금의 부여현이다. 이에 마한의 북에 치우친 곳은 거의 고구려에 들어갔으니 백제의 영역은 마한의 북쪽이 짧아지고 변한으로 남쪽으로 길어졌다. 고구려가 동천한 후 그 동북 땅은 말갈에 들어가고 그 후에 수에게 한번 당하고 다시 당에게 당하여 요동의 여러 성이 모두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의 영역 또한 북쪽의 요동벌판이 작아지고 남쪽 마한으로 길어졌다. 대개 그 시초를 논한다면 고구려는 조선을 얻었고, 백제는 마한을 얻었으며, 신라는 진변을 얻었으나 그 마지막을 보는 것으로 연구해 보면 고구려가 마한을 영역으로 삼았고 백제는 변한을 영역으로 삼았으며 신라는 진한을 영역으로 삼았던 것이다.

吉昌徒見其始之馬韓爲百濟 而不究其終之卞韓亦爲百濟. 謂益山今在全羅道地 遂以全羅道盡係馬韓 則卞韓無可指之處. 不可不以屬之平安道. 而獨據新唐書卞韓苗裔在樂浪之說 截去苗裔二字 而湊合於已說 以硬定難定之論 其失遂不止以卞爲馬 亦以朝鮮混於韓地矣. 然要之 百濟始於馬韓 終於馬韓 則其以馬韓爲百濟 未可非也. 至於周官六翼註 以西京爲卞韓 勝覽斥以朝鮮更指何地者 得之矣. 而勝覽却又引三國遺事 麗地自有馬邑山之說 而釋之以平壤府有馬邑山 以訂馬韓之爲麗 則朝鮮更指何地之斥. 恐不得獨施於六翼也. 勝覽考據三韓最明. 而其以高勾麗爲起於樂浪 以平壤馬邑山 訂馬韓 恐又失之.
다만 길창(권근)이 처음에 마한이 백제였던 것만 보았지 마지막에 변한이 백제가 됨을 궁구하지 않았다. 익산이 지금의 전라도 땅에 있다면서 마침내 전라도 모두를 마한으로 묶었기 때문에 변한으로 가리킬 곳이 없어지니 불가불 평안도에 속하게 한 것이다. 『신당서』에서 변한의 후예가 낙랑에 있다는 설 만에 의거해 묘예의 두 글자를 떼어 내 버리고 기왕의 설에 맞추어 정하기 어려운 다시 억지로 정했으니 그 잘못이 변한을 마한이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을 한 지역과 혼동하였다. 그러나 요컨대 백제가 마한에서 시작하고 마한에서 끝났으므로 마한을 백제라 한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주관육익』의 주에 이르러 서경을 변한이라 했던 것을 『승람』이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 땅을 가리킨다는 말인가 하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승람』은 도리어 『삼국유사』의 고구려 땅에 마읍산이 있다고 한 설을 인용해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다고 해석하여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정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 땅을 가리킨단 말인가 라고 지적했던 것은 아마도 육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삼한에 대해서는 『승람』의 고찰이 가장 분명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낙랑에서 일어 난 것과 평양의 마읍산을 가지고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고친 것은 아마도 잘못인 것 같다.

今盡置諸家得失 若折衷以斷之曰 高勾麗本朝鮮之域 而並馬韓爲其界. 百濟本馬韓之域 而後並卞韓爲其界. 新羅本辰韓之域 而後並麗濟. 爲三韓之主. 東明之初起之地 本朝鮮之玄菟舊域 而後入中國 爲遼東蓋建州衛等地方. 庶

幾無大謬 而紛紜之論 亦或有時而定焉云.〈輿覽以今成川 爲東明所都沸流川之類 皆誤也〉
지금 여러 사람들의 잘잘못을 그대로 두고 만약 절충해 단정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본래 조선의 영역으로 [시작해 다시] 마한을 영역으로 삼았다. 백제는 본래 마한의 영역으로 [시작해 다시] 변한을 영역으로 삼았다. 신라는 본래 진한의 영역에서 시작해 후에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여 삼한의 주인이 되었다. 동명왕이 처음 일어난 지역은 본래 현토의 옛 땅으로 뒤에 중국에 들어가 요동의 개주 건주위 등의 지방이다. 바라건대 큰 잘못이 없다면 분분한 논의도 또한 때가 되면 정해질 것이다. 〈『여람』은 지금의 성천을 동명이 도읍을 정했던 비류천 같은 곳이라 하였지만 모두 틀렸다〉

又按卞韓地方見於史書者 獨有一處可疑. 新羅聖德王十二年 叙渤海國幅員有曰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諸國云云 此皆高麗舊境. 槩高氏之亡 浿南之地屬新羅 其西北之地屬中國 東北之地盡入靺鞨 而靺鞨爲渤海國. 以此言之 麗境固自有弁韓矣. 却怪吉昌不引此爲訂 而苟且牽合弁韓苗裔在樂浪之說 何也. 然反復攷詳中國文籍及東史所載 弁韓地分 决無越在東北界之理. 豈東方別有二弁韓耶. 東方地名如二東𣆶三帶方之類甚衆. 意者三韓之世 蠻觸紛紜 隨其所在 輒立名號 重複錯互.如南北朝江南九州之名者多有之. 渤海域內 所謂弁韓 恐亦此類. 且以弁韓苗裔在樂浪之說 細尋其文義 則似謂弁韓部種有入樂浪之域 而冒弁韓舊號者 此則理亦或然. 要之三韓本界分 則東辰 · 西馬 · 南卞 不可易也.
또 살펴 보건데 변한지방으로 사서에 보이는 것에는 오직 한 곳만이 의심스럽다. 신라 성덕왕 12년(713년)에 발해국의 영역을 서술하면서 말하길 "부여 · 옥저 · 변한 · 조선 등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구려의 옛 영역이다. 대개 고씨[고구려]가 망하자 패수 남쪽의 땅은 신라에 속하게 되었고, 서북의 땅은 중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동북의 땅은 모두 말갈에 속하게 되니 말갈이 발해국이 되었다. 이로써 말하면 고구려의 경역에는 진실로 처음부터 변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길창[권근]은 이것을 증거로 삼지 않고, 구차하게 변한의 후손이 낙랑에 있다는 주장을 끌어다 부쳤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반대로 다시 중국의 문적과 우리 사서에 실려 있는 변한 땅의 서술을 살펴보면 결코 건너 뛰어 동북경계의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어찌 동방에 다른 두 개의 변한이 있을 것인가? 동방의 지명에는 두 개의 동이와 세 개의 낙랑과 같은 종류가 매우 많다. 생각건대 삼한시대에는 사소한 분쟁이 빈번하여 그 소재에 따라 쉽게 이름을 세웠던 까닭에 중복되고 뒤섞여 남북조 때 강남 구주의 이름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 발해 영역 내의 소위 변한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변한의 후예가 낙랑에 있었다는 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한의 부류가 낙랑의 영역에 들어가 변한의 옛 이름을 모칭했던 것이었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치가 그럴싸하다. 요컨대 삼한 본래의 경계가 동쪽은 진한이고, 서쪽은 마한이며, 남쪽이 변한[卞]인 것은 바꿀 수 없다.

사료17 『해동역사』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崔致遠始謂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 混而說之 此再誤也. 漢書云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同. 其稱弁韓 必曰弁辰 則弁韓之於辰韓必爲附庸 而不相懸遠 可知. 又云 馬韓統五十四國 辰弁韓各統十二國. 所謂國卽今之郡縣 合辰弁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 馬韓之半. 以此見之 湖西 · 湖南合爲馬韓 以嶺南一道 自分爲辰弁二韓 又何疑乎.
최치원이 비로소 마한을 여(麗)라고 하고 변한을 제(濟)라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라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역시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서 뒤섞어서 말하였는데,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한서』에 이르기를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왜(倭)와 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변진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가 같다."고 하면서 변한을 칭하면서는 반드시 변진이라 하였다. 그런즉 변한은 반드시 진한에 부용국이었을 것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르기를 마한은 54국을 총괄하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총괄한다고 하였기에 이른바

국(國)이라는 것은 지금의 군현(郡縣)으로 진한과 변한의 두 한을 합해도 겨우 24국으로 마한의 반도 못 된다. 이로써 본다면 호서와 호남이 합해 마한이 되고, 영남의 한 도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의 두 한이 되었음을 어찌 의심할 것인가.

〈[韓]鎭書〉 謹按 自古漢水之南 通謂之韓國. 其總王謂之辰王 故亦謂之辰國. 其中最大者 名曰馬韓. 馬韓東界之別居者 名曰辰韓. 辰韓之中 又分爲弁辰. 蓋三韓地界 東人辨說 踵訛襲謬 紛紜不定 唯久庵所論 明確不易 世以爲定論也.
〈[한]진서(鎭書)〉가 삼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한수(漢水)의 남쪽을 통틀어서 한국이라고 하였으며, 그곳을 총괄하는 왕을 진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시 진국이라고도 이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마한이라고 한다. 마한의 동쪽 경계에 별도로 거주하는 것을 진한이라고 하는데, 진한 가운데서 또 나뉘어서 변진이 되었다. 대개 삼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설은 잘못된 것을 답습하여 일정한 설이 없이 분분한데, 오직 구암 한백겸이 논한 것만이 명확하여 바뀌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정론이라 여긴다.

馬韓最大 辰弁二韓 皆屬於馬韓. [晉書 辰韓傳] 弁辰十二國 皆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 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 〈(韓)鎭書〉謹按 後漢書 馬韓共立其種爲辰王 盡王三韓之地. 新羅史云 赫居世三十八年〈漢成帝時〉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馬韓當時主覇三韓 斯可驗矣. 其後 馬韓諸國並爲百濟所呑 辰弁二韓 並於新羅. [通典] 三韓之地 在海島之上 朝鮮之東南. 三韓蓋爲百濟 · 新羅所呑並. 百濟據有馬韓古地.
마한이 가장 크며 진한과 변한이 모두 마한에 복속하였다. [『진서』진한전] 변진 12국은 모두 진한에 예속되었으며, 진한에서는 항상 마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고, 그 나라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었는바,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므로 마한에게 제압당한 것이 분명하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후한서』에 여러 한이 함께 마한의 종족을 진왕(辰王)으로 세웠는데, 진왕이 삼한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 신라사(『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르기를 혁거세 38년(기원전 20년)〈한 성제(成帝) 때〉에 호공(瓠公)을 마한에 보내 조빙하니,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들어서는 직공을 보내지 아니하니 대국 섬기는 예가 이와 같아서 되겠는가?라 하였다. 마한이 당시에 삼한의 패권을 잡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 후에 마한의 여러 나라들은 백제에 병탄되었고, 진한과 변한은 신라에 병합되었다. [『통전』] 삼한의 땅은 해도(海島)가에 있으며, 조선의 동남쪽에 있다. 삼한은 대부분 백제와 신라에 병탄되었으며, 백제는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中國書其指三韓之界 或襲東儒謬論甚非. [大淸一統志] 古三韓地 今朝鮮之黃海 · 忠淸道 本古馬韓舊地. 全羅道本弁韓地. 慶尙道本辰韓地. 三韓尋爲百濟 · 新羅所並.〈潛確類書及武備志亦同〉〈[韓]鎭書〉 謹按 崔致遠「上太師侍中狀」云 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 · 卞韓 · 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輿地勝覽云 京畿 · 黃海道 古朝鮮馬韓之域. 全羅道本卞韓之地 慶尙道本辰韓之地. 蓋輿覽則祖於崔說之誤. 淸統志諸書又襲輿覽之誤也.
중국의 서적에서 삼한의 경계를 말한 것은 우리 유자들의 잘못된 설을 답습하였는바, 몹시 그르다.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옛 삼한의 지역은 지금의 조선의 황해도와 충청도가 본디 옛 마한의 옛 지역이며, 전라도는 본디 변한의 지역이며, 경상도는 본디 진한의 지역이다. 삼한은 얼마 뒤에 백제와 신라에 병탄되었다. 〈『잠확유서』 및 『무비지』에도 이와 같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최치원의 「상태사시중장」에 이르기를 "동해의 바깥쪽에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한 · 변한 · 진한으로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고, 진한은 신라다."라 했으며, 『여지승람』은 "경기와 황해도는 옛 조선과 마한의 지역이며, 전라도는 본디 변한의 지역이며,

경상도는 본디 진한의 지역이다."라 하였다. 대개 『여지승람』은 최치원의 잘못된 설을 따른 것이고, 『대청일통지』 등 여러 서책은 또 『여지승람』의 잘못된 설을 따른 것이다.

又或以遼東爲三韓古地 此傳會遼史者也. [遼史 地理志] 辰州本高麗蓋牟城 渤海改爲蓋州 又改辰州 以辰韓得名. [盛京通志] 蓋平縣 周屬朝鮮 本辰韓地. 遼以路通辰韓設辰州. 復州 周朝鮮界辰韓地. 寧海縣 周朝鮮界 辰韓地.〈謹按 通志傳會遼史 此說妄矣〉[日知錄] 今人謂遼東爲三韓者 遼史地理志有高州三韓縣 辰韓爲扶餘 弁韓爲新羅 馬韓爲高麗. 開泰中 聖宗伐高麗 俘三國之遺民置縣. 據此乃俘三國之人置縣於內地 而取三韓之名爾. 今人乃遼東爲三韓 是以內地而目之爲外國也. 原其故 本於天啓初失遼陽以後章奏之文 遂有謂遼人爲三韓者 外之也. 今遼人乃以 之自稱 夫亦自外也已.
또 혹은 요동을 삼한의 옛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사』의 설을 견강부회한 것이다. [『요사』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진주(辰州)는 본래 고구려 개모성으로, 발해에서 개주로 고쳤다가 또 진주로 고쳤는데, 진한(辰韓)으로 이 명칭이 붙은 것이다. [『성경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개평현은 주나라 때 조선에 속하였으며, 본디 진한의 지역이다. 요나라에서 이 길을 통해 진한에 통하였으므로 진주를 설치하였다. 복주는 주나라 때 조선의 경계로서 진한 지역이다. 영해현은 주나라 때 조선의 경계로서 진한 지역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성경)통지』에서는 『요사』의 설을 부회하였으니 이 설이 망녕되다〉 [『일지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지금 사람들이 요동을 일러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지리지에 고주(高州)의 삼한현(三韓縣)에서 진한은 부여가 되고, 변한은 신라가 되고, 마한은 고구려가 되었다. 개태 연간(1012~1021년)에 성종이 고려를 정벌해 삼국의 유민들을 포로로 잡고 현을 설치하였다는 글이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삼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내지에 현을 두면서 삼한이라는 이름을 취한 것일 뿐인데, 지금 사람들이 곧 요동을 삼한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내지를 가지고 외국이라 지목한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을 따져 보면 명나라 천계(天啓) 초(1621~1627년)에 요양을 잃은 뒤의 장주(章奏)에서 드디어 요동 사람을 일러 삼한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내지를) 외국으로 여긴 것이다. 지금 요동 사람들이 이것으로 자칭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외국으로 여긴 것일 따름이다.

或謂韓之稱 已三代時 或謂箕氏亦曾稱韓 並未可準爾. [山海經] 韓雁在海中都州南. [郝懿行箋疏] 蓋三韓古國名. 韓有三種 見魏志東夷傳. [尙書傳] 海東諸夷 駒麗 · 扶餘 · 馯 · 貊之屬 武王克商 皆通道焉. [公氏疏] 馯卽韓也 音同而字爾矣. [日知錄] 詩 溥彼韓城 燕師所完 王錫韓侯 其追其貊 奄受北國. 王符潛夫論曰 昔周宣王時 有韓侯 其國近燕 後爲衛滿所伐 遷居海中. 漢時 去古未遠 當有傳受.〈(韓)鎭書〉謹按 苟如山海經 · 尙書傳等說 韓之稱已在三代時矣. 且據王符之說 詩所云韓侯卽箕氏也. 然則韓之稱 似由箕氏 而箕氏之稱韓 又似在南奔金馬以前也. 然與後漢書不合 又無他證 未可詳也.
혹은 한(韓)이라는 칭호가 이미 삼대(三代)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고, 혹은 기씨(箕氏) 역시 일찍이 한을 칭했다는데, 모두 따르기 어려운 말일 따름이다.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안(韓雁)은 바다 가운데 도주(都州)의 남쪽에 있다. [『학의행』의 전소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개 삼한은 옛 나라의 이름이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위지 동이전에 나온다고 하였다. [『상서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해동의 여러 오랑캐(夷)에는 (고)구려 · 부여 · 한(馯) · 맥의 족속이 있는데,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모두와 길을 통하였다. [『공씨소』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馯)은 곧 한(韓)으로 음이 같으면서 글자가 다르다. [『일지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시(詩)』에 "크도다 저 한성(韓城)이여, 연의 백성들이 쌓았구나. 왕께서 한나라 제후에게 추와 맥을 다스리게 하시매, 북쪽 나라를 모두 맡았도다." 하였고, 왕부의 『잠부론』에 이르기를 옛날에 주나라 선왕 때도 한후(韓侯)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연(燕)과 가까웠다. 그 뒤에 위만(衛滿)에게 정벌되어 바다 건너에 옮겨 살았다고 하였다. 한나라 때는 주나라와 시기상으로 머지않았으므로 당연히 전수되었을 것이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참으로 『산해경』이나 『상서전』 등의 설과 같다면, 한이라는 칭호는 이미 삼대 시대 때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

고 왕부의 설에 근거하여 보면, 『모시』에서 이른 바 한후(韓侯)는 바로 기씨(箕氏)이다. 그렇다면 한이라는 칭호는 기씨에게서 말미암은 것인 듯한데, 기씨가 한이라고 칭한 것은 또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金馬)로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듯하다. 그러나 『후한서』와 맞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상세히는 알 수가 없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참으로 『산해경』이나 『상서전』 등의 설과 같다면, 한이라는 칭호는 이미 삼대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왕부의 설에 근거해 보면, 『모시』에서 이른 바 한후(韓侯)는 바로 기씨(箕氏)이다. 그렇다면 한이라는 칭호는 기씨에게서 말미암은 것인 듯한데, 기씨가 한이라고 칭한 것은 또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金馬)로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듯하다. 그러나 『후한서』와 맞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상세히는 알 수가 없다.

사료18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鏞案 迦羅之國始建於漢光武中年 卒亡於梁武帝中年. 故後漢書 · 三國志 · 晉書 皆立三韓列傳. 至南 · 北史 · 隋 · 唐書 始有百濟 · 新羅 無馬韓 · 辰弁 迦羅之爲弁辰 不旣明甚乎. 然且魏志 · 北史 皆以百濟爲馬韓. 至於新羅 則北史謂之辰韓遺種 唐書謂之弁韓苗裔. 由是觀之 馬韓之終爲百濟 辰韓 · 弁辰之終爲新羅 確然無疑. 而東儒舍此迦羅 別求弁辰. 西摸北撈 轍環青丘 而弁韓之地 終不可得 豈不惜哉. 一言以蔽曰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 弁辰者迦羅也.

나[용(鏞)]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라(駕羅)라는 나라는 한(漢) 광무제 중년에 처음 건국하여 마지막으로 양(梁) 무제 중년에 망하였다. 그러므로 『후한서 · 삼국지 · 진서』가 모두 「삼한열전(三韓列傳)」을 두었고, 『남 · 북사』와 『수 · 당서』에 이르러 비로소 백제, 신라를 두고 마한, 진, 변을 없앴다. 가라(迦羅)가 변진(弁辰)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또한 『위지(魏志)』와 『북사(北史)』가 모두 백제를 마한이라고 하고, 신라에 이르러서는 『북사』에서는 진한의 남은 종족이라 하고 당서에서는 변한의 후예[苗裔]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한의 마지막 후손이 백제가 되었고 진한과 변진의 마지막 후손이 신라가 되었음이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이 가라(迦羅)를 버려두고 따로 변진(弁辰)을 구하여 서쪽으로 찾고 북쪽으로 더듬어 우리나라의 땅[青丘]을 두루 훑으면서도 변한(弁韓)의 땅은 끝내 찾지 못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한 마디로 말해서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왜(倭)와 접하였으니, 변진(弁辰)이란 것은 가라이다.

사료19 『증보문헌비고』 권13 역대국계1 | 『增補文獻備考』 卷十三 歷代國界一

辰韓國 [補]東史綱目曰 辰韓今慶尚道洛江以東之地. 北連濊貊 西北接馬韓 西界多與卞韓錯居 東渡海通倭 服屬馬韓 後爲新羅.

진한국(辰韓國) [보(補)] 『동사강목』에서 말하기를 진한은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동쪽의 땅이다. 북쪽은 예맥(濊貊)과 이어지고, 서북쪽은 마한과 접해 있으며, 서쪽 경계의 많은 부분은 변한(卞韓)과 많이 섞여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왜와 통하였다. 마한에 복속되었다가 뒤에 신라가 되었다.

弁韓國 後漢書曰 弁辰在弁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自異.十二國 弁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辰狗邪國 · 弁辰走漕馬國 · 弁辰安邪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中國.

변한국(卞韓國) 『후한서』에서 말하기를 변진(弁辰)은 변한(弁韓)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 있다.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은 섞여 사는데, 성곽과 의복은 모두 같으나 언어와 풍속은 차이가 있다. 12국은 변군미국(弁軍彌國) ·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 여담국(如湛國) ·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 · 호로국(戶路國) · 주선국(州鮮國) · 마연국(馬延國) ·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 변진안야국(弁

辰安邪國) ·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 사로국(斯盧國) · 우중국(優中國)이다.

韓百謙曰 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 據有辰韓之南界. 其後入於新羅 疑此即爲弁韓之地也. 臣謹按弁韓 · 馬韓 其南皆與倭接 則弁韓在於馬韓南界之東 以北接辰韓 其四履正合 駕洛之墟 駕洛卽伽倻之一也. 文獻通考 以伽倻琴爲弁韓琴 此其證也. 又按 漢書云 辰韓有十二國 而此爲十三 可疑.辰韓十二國列錄之末 有軍彌國 弁韓十二國 列錄之首 有弁軍彌國 是或相連 而疊錄歟. 新羅初號斯盧 而此有斯盧. 或新羅之號混入歟.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이 가락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진한의 남쪽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 신라에 들어갔다. 아마 이것이 곧 변한의 땅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변한과 마한은 그 남쪽이 모두 왜와 접해 있습니다. 변한은 마한 남쪽 경계의 동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진한과 접해 있습니다. 그 사방의 경계는 정확히 가락(駕洛)의 터와 합치합니다. 가락은 곧 가야(伽倻)의 하나입니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가야금(伽倻琴)을 변한금(弁韓琴)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살펴보건대, 『한서』에 이르기를 진한은 12국이 있다고 하였으나, 여기는 13국이 되니 의아한 일입니다. 진한 12국을 나열한 마지막에 군미국(軍彌國)이 있는데, 변한 12국을 나열한 첫머리에는 변군미국(弁軍彌國)이 있었다. 이것은 혹시 서로 이어지면서 중첩되게 기록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의 처음 이름이 사로(斯盧)인데 여기에도 사로가 있습니다. 혹 신라의 이름이 섞여 들어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補]東史綱目曰 卞韓今慶尙道 洛江以西 西南跨智異山延 至今全羅道東南之地. 東與辰韓雜居 西北與馬韓接 東南渡海通倭. 服屬馬韓 後降新羅 又分爲五伽倻之地. 其在智異以西之地 入于百濟.

[보(補)]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말하기를 변한은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洛江]의 서쪽이다. 서남쪽으로는 지리산(智異山)을 넘어 지금의 전라도 동남 지역까지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진한과 섞여 있었으며, 서북쪽으로는 마한과 접하였고, 동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왜(倭)와 통하였다. 마한에게 복속하였으며, 뒤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또 나뉘어 5가야 땅으로 되었다. 지리산 서쪽의 땅은 백제에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附〉 三韓辨說. 崔致遠曰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之亂浮海而南 開國號馬韓. 至百濟溫祚 立 遂并之. 今之益山 有古城 人稱箕準城 馬韓之爲百濟無疑矣. 辰韓 新羅始祖所起之地. 新唐書曰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漢之樂浪郡 則卞韓之爲高句麗 無可疑. 後漢書謂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曰卞韓在南者 盖自漢界遼東之地而云耳. 非謂卞韓在馬辰二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濟也 誤矣.

〈부(附)〉 삼한변설(三韓辨說).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한은 곧 고구려[高麗], 변한(卞韓)은 백제, 진한은 신라이다."라 하였다.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삼한에 대한 주장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조선왕(朝鮮王) 준(準)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해 바다 건너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개창하여 마한이라 불렀다. 백제의 온조(溫祚)가 왕위에 올라 마침내 [마한을] 병합하였다. 지금 익산에 옛 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이라 부르고 있으니 마한이 백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진한은 신라 시조가 일어난 땅이다." 『신당서』에서 말하기를 "변한(卞韓)은 낙랑 땅에 있다고 하고, 또 평양은 옛날 한(漢)나라의 낙랑군(樂浪郡)이다."라 하였다. 진한이 신라이고 변한이 고구려인 것 또한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말한 한 것은 대개 한(漢)나라의 경계인 요동지역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지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최치원이 [『후한서』의 기록으로]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다."라 말한 것은 잘못이다.

輿地勝覽曰 京畿 馬韓之域 忠淸 · 全羅道 卞韓之域 黃海道 馬韓 · 朝鮮舊地 慶尙道 辰韓之地.馬韓爲高句麗辰韓

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正論. 金富軾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井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及金九容編周官六翼敍 三韓則云 高麗幷樂浪百濟幷馬韓 · 帶方.至敍三國則 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弁韓 一人之言 自相矛盾 何足道哉.逮本朝權近與李詹 修東國史略乃斷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近乃近世大儒 而爲是論 以亂千載已定之論 何也.反覆攷中國史及東史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 意者 馬韓王都密近於弁韓 而東北與新羅 · 靺鞨 · 沃沮等 封疆相接.其後 高句麗東明王 起於樂浪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以此也.

『[동국]여지승람(輿地勝覺)』에서 말하기를 경기는 마한의 영역이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변한(卞韓)의 영역이다. 황해도는 마한과 조선의 옛 땅이다. 경상도는 진한의 땅이다. 마한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이 신라로 되고, 변한이 백제로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이미 최치원(崔致遠)이 의논을 정한 바 있다. 김부식(金富軾)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다. 그 [고려]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弁]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뒤를 이어 드러내 말하여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김구용(金仇容)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함에 삼한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구려[高麗]는 낙랑(樂浪)과 변한(卞韓)을 병합하였고, 백제는 마한과 대방(帶方)을 병합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에 대해 서술하기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고구려가 마한이고, 백제가 변한(弁韓)이다 라고 하였다. 한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되니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본조의 권근(權近)과 이첨(李詹) 등은 『동국사략(東國史略)』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권근은 근세의 대유(大儒)인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여 천년 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 번 살펴보니, [삼한 때에는] 마한이 가장 커서 54국을 거느렸는데, 지금의 익산 이남은 54국을 받아들일만한 땅이 없다. 살펴보건대, 마한의 왕도는 그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북쪽은 신라 · 말갈(靺鞨) · 옥저(沃沮)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었다. 그 뒤에 고구려 동명왕이 낙랑에서 일어나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다.

後漢書載 弁韓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曰弁辰雜居 不曰弁韓 而曰弁辰 可知二韓之相隣附也. 新羅赫居世十九年弁韓以其國來降. 其後 百濟滅馬韓 兵力強盛 蠶食新羅 · 卞韓舊址 智異山以西盡爲所幷. 後人稱濟爲弁韓者以此也. 奈何近惑於金馬 · 平那之說 謂馬韓在百濟封域之中遂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弁韓苗裔在樂浪之地者 蓋言卞韓之系 出自樂浪耳. 金富軾猶謂非實錄近顧 乃引以爲證 去苗裔二字 直云弁韓在樂浪之地 何也.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蓋自漢界遼東而云爾 非謂卞韓 在辰 · 馬二韓之南也. 信如是則 其所云馬韓在西者 亦可謂之遼東之西乎 周官六翼云云.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今平壤府有馬邑山 扶安縣有邊山. 遺事之云恐或有徵 是書未知誰作. 亦出於高麗中葉所記 荒誕不經. 然辨三國之說 則證據甚明 近因崔致遠舊說 以京畿 · 忠清 · 黃海等道 係於馬韓舊域 以全羅道 係於卞韓云.

『후한서(後漢書)』에는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다. 또 변진은 진한과 섞여 있었다고도 했다. 변한이라 하지 않고 변진이라고 실려 있으니, 두 한(韓)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혁거세(赫居世)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그 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신라의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智異山)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찌하여 [권]근은 금마(金馬)와 평나(平那)의 설에 미혹되어 마한이 백제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고는 [마한을] 백제로 여긴 것인가. 또 『당서』에서 말한 바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김부식은 오히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권근의 논의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苗裔) 두 자를 빼고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에

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漢)나라 경계인 요동 지역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지,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서 말 한 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주관육익』에서 말히고 『삼국유사』에서 말하기를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는 까닭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땅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는 까닭에 변한(卞韓)이라 불렀다. 지금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고, 부안현에 변산(邊山)이 있으니, 『삼국유사』의 기록이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 책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고려 중엽 이후에 나온 것으로, 거기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허황되고 불경스럽다. 그러나 삼한[三國]의 설을 변증한 것은 증거가 매우 분명하다. 삼가 최치원의 옛 설을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다.

韓百謙曰 東方在昔 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檀君與堯竝立 歷箕子 暨衛滿 分以爲四郡 合以爲二府. 與高朱蒙迭爲盛衰 東晋以後 高氏遂并其地 是爲高句麗也. 其南乃三韓之地也. 漢初 箕準爲衛滿所逐 浮海而南至韓地金馬郡都焉 稱爲韓王 是爲馬韓. 秦之亡人避役入韓地 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有弁韓屬於辰韓 各有渠帥. 漢書云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亦已詳矣. 新莽元年 溫祚滅馬韓而百濟興焉. 宣帝 五鳳元年 朴赫居世 爲辰韓六部民所佳戴 而新羅始焉. 弁韓前史 雖不言其所傳 而駕洛據有辰韓之南界 疑此爲卞韓之地也.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攝入 雖其界限不知的在何處 而恐不出於漢江一帶也. 崔致遠始謂 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 混而說之此再誤也. 自是以後 作史之家 承誤襲謬 不復就其地而覈其實 遂將一區三韓之地 左牽右引 紛紜錯雜. 至今數千年間 未有定數 可勝惜哉. 何以明其然也. 當三韓時 本國雖無文字 兩漢書皆有列傳 試以年代上下 · 地界遠近求之 則百代雖遠 歷歷如在眼前 夫何難辨之有哉. 漢武帝 元封三年 討朝鮮王右渠 遂定其地 以朝鮮縣爲樂浪 東暆縣爲臨屯 霅縣郡爲眞番 沃沮城爲玄菟 而高句麗爲玄菟屬縣 是爲四郡. 朝鮮縣 今之平壤 東暆縣今之江陵 沃沮城 今之咸鏡道 高句麗 今之平安道江邊一帶 此則皆有可據之書 不可誣也. 霅縣郡 雖不詳其所在 當昭帝 合四郡爲二府也. 以樂浪 · 臨屯 合爲東府都督府 以玄菟 · 平那 合爲平州都督府 樂浪 · 臨屯之間 黃海 · 江原 · 京畿左道地界 固已相接矣. 平那卽眞番之別稱 玄菟旣不可跨越樂浪 · 臨屯 千里之地 而與下三道合則所謂霅縣 其必在於西北 與玄菟附近之地 可知. 然則四郡二府之界限其止於此 亦明矣. 又何時爲弁韓或馬韓耶. 漢書云 卞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同. 其稱弁韓 必曰弁辰 則弁韓之於辰韓 必爲附庸 而不相懸遠 可知. 又云 馬韓統五十四國 辰 · 弁韓各統十二國 所謂國卽今之郡縣. 合辰 · 弁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當馬韓之半. 以此見之 湖西 · 湖南 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辰 · 弁二韓 又何疑乎. 馬韓 歷四郡二府 至新莽時 爲百濟. 辰韓 亦歷四郡二府 至宣帝時 爲新羅.弁韓之與辰韓 始爲附庸 終爲合屬 如上所云.則三韓 又何時入中國 爲四郡二府哉. 吾以是知四郡二府之自爲四郡二府 三韓之自爲三韓 而不相涉也. 盖三韓僻在東南一隅之地 去中國最遠.雖堯舜揖遜 而聲化不暨. 楚漢交爭 而干戈不擾 耕鑿晏如長育子孫 別爲天地間-壽域. 故西北避亂之民多歸之 仍成村落. 各以其本管 名其居 慶州之得號樂浪 亦如辰韓之或名秦韓也. 後人不知此二樂浪 因以平壤爲弁韓 何其誤哉.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북쪽은 본래 3조선의 땅으로 단군(檀君)이 요(堯)임금과 병립하였고, 기자(箕子)를 거쳐 위만(衛滿)에 이르러 4군(四郡)으로 갈라졌다가 2부(二府)로 합쳐졌으며, 고주몽(古朱蒙)과 더불어 성쇠를 갈마들었는데 동진(東晉) 이후 고씨(高氏)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것이 고구려이다. 그 남쪽은 곧 삼한의 땅이다. 한(漢)나라 초에 기준(箕準)이 위만에게 쫓겨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한(韓)의 땅인 금마군(金馬郡)에 이르러 도읍하고 한왕(韓王)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이 마한이다. 옛 유망인들이 진(秦)나라의 부역을 피해 한국(韓國)으로 오자, 한(韓)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갈라 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다. 또 그 남쪽에 변한이 있었는데, 진한에 속하였으며, 각기 거수(渠帥)가 있었다. 『한서』에서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 삼한의 방향

을 가리키는 것이 또한 매우 자세하다. 신(新)나라 [왕]망(王莽) 원년(9년)에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켜 백제가 흥기하였다. [한(漢)나라]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 6부(六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신라가 시작되었다. 변한은 앞의 사서들이 그 전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락(駕洛)이 진한의 남쪽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변한(弁韓)의 땅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남쪽은 남쪽대로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있어서 본래 서로 뒤섞이지 않았다. 비록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한강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치원이 처음으로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이다 라 말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로 되었음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란 것은 알지 못하여 혼동해서 말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로부터 이후 역사가들이 오류를 답습하여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드디어 한 구역인 삼한의 땅이 좌우에서 서로 끌어당겨 어지럽게 뒤섞이게 되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정설이 없으니 안타깝다. 무엇으로 그것을 밝힐 것인가. 삼한 당시 우리나라에는 비록 문자가 없었으나 『한서』와 『후한서』에 모두 열전이 있어 연대의 상하와 경계의 원근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비록 백대(百代)나 멀리 있어도 또렷하기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한 무제 원봉 3년(108년)에 조선왕 우거(右渠)를 토벌하고 마침내 그 땅을 평정하여 조선현(朝鮮縣)으로 낙랑(樂浪) · 동이현(東暆縣)으로 임둔(臨芚) · 삽현군(霅縣郡)으로 진번(眞番) · 옥저성(沃沮城)으로 현도(玄菟)를 각각 만들고 고구려를 현도의 속현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4군이다. 조선현은 지금의 평양이고, 동이현은 지금의 강릉이며, 옥저성은 지금의 함경도로 고구려는 지금의 평안도 강변(江邊) 일대이다. 이것들은 모두 근거할 만한 책이 있으니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삽현군은 비록 그 소재가 불확실하나 소제(昭帝)가 4군을 합쳐 2부를 만들 때 낙랑과 임둔을 합쳐 동부도독부(東府都督府)로 삼고, 현도와 평나(平那)를 합쳐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삼았는데, 낙랑과 임둔 사이에 황해 · 강원 · 경기좌도의 경계가 본래 서로 접해 있었으며 평나는 곧 진번의 별칭이고 현도가 낙랑 · 임둔을 넘어 천리 밖의 하삼도와 합쳐질 수는 없다. 이른바 삽현이란 반드시 서북쪽 현도 부근의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군 2부의 경계가 여기서 그치는 것 또한 분명하니 또 언제 변한 혹은 마한이 되겠는가. 『[후]한서』에서는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하였다고 기록하고, 또 변진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의복과 거처가 같다고 기록하였다. 변한을 지칭하면서 반드시 변진이라 하였으니, 변한이 진한에게 틀림없이 부용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 마한은 54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거느렸다고 하였다. 이른바 국(國)이란 곧 지금의 군현이다. 진한과 변한을 합하여 겨우 24국이 되니, 마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아 호서와 호남이 합하여 마한이 되고 영남의 한 도(道)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이 되는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마한은 4군 2부를 거쳐 신(新)나라 왕망 때 백제가 되었다. 진한 역시 4군 2부를 거쳐 선제(宣帝) 때 이르러 신라가 되었다. 변한은 진한에 처음부터 부용하였다가 끝내 합해 속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말한다면 삼한이 또 언제 중국에 편입되어 4군 2부가 되었겠는가. 나는 이것으로써 4군 2부는 본래 4군 2부이고, 삼한은 본래 삼한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대개 삼한은 동남쪽의 구석진 땅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었다.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양보하였어도 가르침이 미치지 않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웠어도 방패와 창이 생업을 어지럽히지 않아 편안히 자손을 길러 따로 천지간에 하나의 태평한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서북쪽에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고 각기 그 본관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의 이름을 붙였다. 경주가 낙랑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진한(辰韓)의 지역이 진한(秦韓)이라고도 불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뒷사람들이 이 두 개의 낙랑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평양을 변한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臣謹按 古之論方輿者 當求三韓舊地 於朝鮮之境. 又以羅 · 麗 · 濟三國 分配於三韓之舊地.辰常不易 而卞 · 馬互換. 崔說兩失其眞 權說一是一誤 紛紜不定.殆至數百年之久 與覽一書 始置三韓於南 朝鮮於北 竝舉而對峙之 領略

其大體矣. 但以篤信崔說 故牽引卞 · 馬邊幅 欲實麗 · 濟之分占. 然韓百謙之論 實源於輿覽而開說分明 世以爲定論也. [續]臣謹按三韓疆界 當以後漢書及韓百謙之說 爲正.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 영역과 지리[방여(方輿)]를 논하는 사람들은 삼한의 옛 땅을 의례 조선의 영역에서 찾았습니다. 또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삼국을 삼한의 옛 땅에 분배하였는데, 진[한]은 바뀌지 않았지만 변[한]과 마[한]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최치원의 설은 둘 다 틀리고 권근의 설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논의가 분분하여 거의 수백 년의 오랫동안 정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에서] 최치원의 설을 굳게 믿는 바람에 변한과 마한의 영토를 억지로 늘려서 고구려와 백제가 나누어 차지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백겸의 논의도 실은 『여람(輿覽)』에서 연원한 것이지만, 설명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논의를 정하였습니다. [속(續)]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삼한의 영토와 경계는 『후한서』와 한백겸의 설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사료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경기 서문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六 京畿 序文**

古馬韓地域〈臣按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此非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也. 高麗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卞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然而未有昌言指之者. 及金敬叔編周官六翼 敍三韓 則云 高麗幷樂浪 · 卞韓 百濟幷馬韓 · 帶方. 至敍三國 則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弁韓. 一人之言 自相矛盾 何足道哉. 逮于本朝 吉昌權近與李詹等 修東國史略 乃斷然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及近世大儒 東人擬之蓍蔡 而亦爲是論 以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臣反覆攷中國及東史 三韓之時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辰卞二韓 各統十二國. 則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矣. 意者馬韓王都 其南密近於卞韓 而東北則與樂浪 · 靺鞨 · 沃沮等封疆相接. 其後高句麗東明王 起於樂浪 而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 盖以此也. 後漢書載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曰 弁辰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不日弁韓 而日弁辰. 是雖懸聞之稱 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

[경기(京畿)는] 옛날 마한(馬韓)의 영역이다. 〈신이 살피건대, 마한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辰韓)이 신라로 되고, 변한(卞韓)이 백제로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최치원(崔致遠)이 의논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치원이 처음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삼국 초부터 전해 내려온 말입니다. 고려 김부식(金富軾)의 지리지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지만 드러내 말하여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경숙(金敬叔)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함에 미쳐 삼한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구려[高麗]는 낙랑(樂浪)과 변한(卞韓)을 병합하였고, 백제는 마한, 대방(帶方)을 병합하였다."라 하였고, 삼국에 대해 서술하기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고구려가 마한이고, 백제가 변한이다."라 하였으니, 한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되어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조[조선]에 이르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과 이첨(李詹) 등이 『동국사략(東國史略)』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弁韓)이 고구려로 되었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권근은 근세(近世)의 대유(大儒)로서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채(蓍蔡)에 비유되는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여 천년 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 번 살펴보니 삼한 때에는 마한이 가장커서 54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지금[조선] 익산(益山) 이남은 54국을 받아들일 만한 땅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마한의 왕도(王都)는 그 남쪽이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북쪽은 낙랑, 말갈(靺鞨), 옥저(沃沮)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으며, 그 뒤에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이 낙랑에서 일어나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합니다. 『후한서』에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해 있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변진(弁辰)은 진한과 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 언어, 풍속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한(弁韓)이라 하지 않고 변진(弁辰)이라 한 데서도, 비록

[그것이] 먼 데서 들은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변한과 진한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新羅赫居世十九年 卞韓以其國來降. 其後百濟既滅馬韓 兵力強盛 蠶食新羅卞韓舊地. 智異山以西盡爲所幷. 後人稱濟爲卞韓者 盖以此也. 乃之何近感於金馬 · 平那之說 謂馬韓在百濟封域之中 途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者 盖言卞韓之系 出自樂浪耳. 金富軾猶謂非實錄 近之論順引以爲證 而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盖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 信如是 則其所云馬韓在西者 亦吋謂之在遼東之西乎. 周官六翼記高麗世祖說弓裔之言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占松岳 注云 今西京 古之卞那京 故日 卞韓.此尤謬妄. 以卞韓爲西京 則朝鮮更指何地. 後日 裔之用兵 自羅州始 則世祖所謂卞韓 指百濟也 審矣.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今平壤府 有馬邑山. 扶安縣 有邊山. 則遺事之云 恐或有徵. 是書未知誰作 亦出於高麗中葉以後 其所紀載 皆荒誕不經 不足取信. 然於辨三韓之說 則證據甚明. 欲志東方地理者 固宜參觀. 臣故謹因致遠舊說 以京畿 · 忠清 · 黃海等道 係于馬韓舊域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신라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弁韓)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고, 그 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신라의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권근은 금마, 평나의 설에 미혹되어 마한이 백제의 영역 안에 있었다고 하고는 [마한을] 백제로 여긴 것인가? 또한『당서』에서 말한바 변한(卞韓)의 후손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부식은 오히려 [그말이] 실록(實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권근의 논의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苗裔) 두 자를 빼고는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후한서』에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나라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부터 말한 것일 뿐이고,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서 말한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주관육익(周官六翼)』에서 기록하기를 고려 세조(世祖)가 궁예(弓裔)를 설득하면서 대왕께서 만일 조선과 숙신(肅愼), 변한 땅의 왕이 되시려면 송악(松岳)을 먼저 차지하는 것 만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하고는 주(註)에서 지금[고려] 서경(西京)은 옛날의 변나경(卞那京)이므로 변한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변한을 서경이라고 한다면, 조선은 또 어느 땅을 가리키겠습니까? 뒷날 궁예가 전쟁을 한 것이 나주(羅州)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조가 말한 변한은 백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는 까닭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땅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는 까닭에 변한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조선]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고, 부안현(扶安縣)에 변산(邊山)이 있으니『삼국유사』의 기록이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고려 중엽 이후에 나온 것으로 거기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허황되고 옳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한의 설을 변증한 것은 증거가 분명하여 동방의 지리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하여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그런 까닭으로 삼가 최치원의 옛 설을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사료21 『동국여지지』 권2 경기 서문 | 『東國輿地志』 卷二 京畿 序文

古朝鮮馬韓地域〈輿地勝覽日.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金富軾地志 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 境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卞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及權近修東國史略 乃斷然以馬韓爲百濟 卞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 而亦爲是論 未知何謂也.意者 馬韓王都 其南密近於卞韓 而東北則與樂浪 · 靺鞨 · 沃沮等封疆相接. 其後高句麗東明王 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 盖以此也. 後漢書載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日 弁辰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亦可以知二韓之

相隣附也.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 在南者 漢界遼西盡爲所幷. 後人稱濟爲卞韓者 盖以此也. 唐書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近引而爲証 而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盖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韓在辰馬二韓之南. 信如是則其所云馬韓在西者 亦可謂之在遼東之西乎. 故近因致遠舊說 以京畿 · 忠淸 · 黃海等道 係于馬韓舊域.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경기는] 옛날 조선과 마한의 영역이었다.『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한(馬韓)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辰韓)이 신라로 되고, 변한(卞韓)이 백제로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이미 최치원(崔致遠)이 의논을 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식(金富軾)의 지리지(地理志)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고려]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권근(權近)이 『동국사략(東國史略)』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권근은 근세의 대유(大儒)로서 이 같은 주장을 하였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마한의 왕도(王都)는 그 남쪽이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북쪽은 낙랑, 말갈(靺鞨), 옥저(沃沮)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으며, 그 뒤에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이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합니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居處) · 언어 · 풍속이 같다고 하였으니, 변한과 진한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당서』에서는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권근이 [이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苗裔) 두 자를 빼고는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에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아마 한나라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부터 말하는 것일 뿐이고,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후한서』]서 말한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 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까닭으로 삼가 최치원의 옛 설을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습니다.

韓百謙日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檀君與堯並立 歷箕子 暨衛滿 分四郡合二府. 至漢元帝建昭二年 高朱蒙起而爲高句麗焉. 其南乃三韓之地也. 韓之爲韓 不知其所始. 而漢初箕準爲衛滿所逐 浮海而南 至韓地金馬郡 稱爲王 是爲馬韓. 秦之亡人避役入韓地 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有弁韓 屬於辰韓.各有渠帥. 後漢書云 弁韓在南 辰在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亦已詳矣. 漢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爲辰韓六部民所推戴 而新羅始焉. 新莽元年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弁韓 前史雖不言其所傳. 而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據有辰韓之南界. 伽倻之南 智異之東 皆其所有.其後入於新羅. 疑此卽爲弁韓之地也.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參入 雖其界限不知的在何處 而恐漢水一帶爲限 隔南北之天塹也. 崔致遠始謂 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 混而說之. 此再誤也. 自是以後 作史之家 承誤襲謬 不復就其地而覈其實 途將一區三韓之地 左牽右引 紛紜錯雜 至今數千年間 未有定說 可勝惜哉. 何以明其然也. 當三韓時 本國雖無文字 兩漢書皆有列傳 試以年代上下 · 地界遠近求之 則百代雖遠 歷歷如在眼前 夫何難卞之有哉.前漢書曰 漢武討右渠 遂定朝鮮地 爲樂浪 · 臨芚 · 玄菟 · 眞番四郡. 樂浪郡治朝鮮縣 臨芚郡治東暆縣 玄菟郡治沃沮城 眞番郡治霅縣云. 朝鮮縣今之平壤 東暆縣今之江陵 沃沮城今之咸鏡道 此則皆有可據之書不可誣也. 霅縣雖不知其所在當漢昭帝合四郡爲二府時 以樂浪 合爲東府都督府. 則樂浪 · 臨芚之問 今黃海 · 江原 · 京畿右道等地 又以玄菟 · 平那 合爲平州都督府. 平那卽眞蕃也. 玄菟 北窮野人 東濱大海 南接臨芚. 既不可跨越臨芚千里之地而與下三道合. 則所謂眞番 其必在玄菟西北之地 而與玄菟合也歟.

한백겸(韓百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동방은 예부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북쪽은 본래 3조선의 땅으로 단군이 [중국의] 요임금과 병립하였고, 기자를 거쳐 위만에 이르러 4군으로 갈라졌다가 2부로 합쳐졌으며, 한(漢)나라 원제 건소 2년(기원전 37년)에 이르러 고주몽(高朱蒙)이 일어나 고구려가 되었다. 그 남쪽은 곧 삼한의 땅이다. 한(韓)이 한(韓)이 된 것은[韓之爲韓]그 시작된 바를 알지 못하나 한(漢)나라 초에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쫓겨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한(韓)의 땅인 금마군(金馬郡)〈현재 전북 익산시〉에 이르러 한왕(韓王)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이 마한이다. 진(秦)나라에서 유망한 사람들이 부역을 피해 한(韓) 땅으로 들어오자 한(韓)이 동쪽 땅을 떼어 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다. 또 그 남쪽에 변한이 있었는데, 진한에 속하였으며, 각기 거수(渠帥)가 있었다. 『후한서(後漢書)』에서 이르기를,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삼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매우 자세하다. 한(漢)나라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 6부(六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신라가 시작되었고, 신(新)나라 왕망 원년(9년)에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가 흥기하였다. 변한은 앞의 사서들이 그 전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首露王)이 가락(駕洛)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진한의 남쪽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의 남쪽과 지리산의 동쪽이 모두 그 소유였으며, 그 뒤 신라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곧 변한의 땅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남쪽은 남쪽대로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있어서 본래 서로 뒤섞이지 않았으며, 비록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한강 일대를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천연의 요새[天塹]를 가로막았을 것이다. 최치원(崔致遠)이 처음으로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權近)은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되었음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역시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로부터 이후 역사가들이 오류를 답습하여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드디어 한 구역인 삼한의 땅이 좌우에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지럽게 뒤섞이게 되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정설이 없으니, 안타깝다! 무엇으로써 그것을 밝힐 것인가. 삼한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었으나 『한서』와 『후한서』에 모두 열전이 있어 연대의 상하와 경계의 원근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비록 백대나 멀리 있어도 또렷하기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전한서(前漢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무제가 우거(右渠)를 토벌하고 마침내 조선 땅을 평정하여 낙랑(樂浪), 임둔(臨屯), 현도(玄菟), 진번(眞番)의 4군으로 삼았다. 낙랑군은 조선현(朝鮮縣)을 다스리고, 임둔군은 동이현(東暆縣)을 다스리고, 현도군은 옥저성(沃沮城)을 다스리고, 진번군은 삽현(霅縣)을 다스렸다. 조선현은 지금[조선]의 평양이고, 동이현은 지금[조선]의 강릉이고, 옥저성은 지금[조선]의 함경도이니, 이것들은 모두 근거할 만한 책이 있는 것으로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삽현은 비록 그 소재가 불확실하나 한(漢)나라 소제가 4군을 합쳐 2부(二府)를 만들 때 낙랑과 임둔을 합쳐 동부도독부(東府都督府)로 삼았으니, 낙랑과 임둔 사이에 지금[조선]의 황해 · 강원 · 경기우도(京畿右道) 등이 서로 접해 있었고, 또 현도와 평나(平那)를 합쳐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삼았는데, 평나는 곧 진번이고, 현도는 북쪽 구석의 야인(野人)으로 동쪽에 바다를 접하고 남쪽에 입둔과 접하였으니 임둔에서 천리를 넘어가 하삼도와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진번이란 반드시 현도 서북쪽의 땅으로 현도와 합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今按 玄菟初置沃沮. 昭帝時 徙郡於高句麗西北矣. 此仍以沃沮爲玄菟 猶有所未考也. 然則 四郡二府之界限 其止於此 亦明矣. 自高句麗起 因得其地 南至漢江 北至遼河 皆其所有.又何時爲弁韓或馬韓耶. 以此知四郡二府之自爲四郡二府 以與三韓不相涉也. 後漢書云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其稱弁韓 必曰弁辰. 則弁韓之於辰韓 必爲附庸而不相懸遠 可知. 又云 馬韓統五十四國 辰弁韓各統十二國. 所謂國卽今之郡縣. 合辰 · 弁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當馬韓之半. 以此見之 湖西 · 湖南 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弁 · 辰二韓 又何疑乎. 馬韓歷四府二郡之時 至新莽時爲百濟. 辰韓亦歷四郡二府之時 至宣帝時爲新羅. 弁韓之與辰韓 始爲附庸 終爲合屬 如上所云. 則三韓又何時入中國爲四郡二府哉. 吾又以是知三韓之自爲三韓 而與四

郡二府 不相涉也.

지금 생각건대 현도는 처음 옥저(沃沮)에 설치되었고, 소제(昭帝) 때에 군(郡)을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이로 인하여 옥저가 현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미처 살피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4군 · 2부의 경계가 여기서 그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고구려가 일어난 이래 그 땅을 차지하여 남쪽으로 한강에 이르고 북쪽으로 요하(遼河)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소유였으니 또 언제 변한 혹은 마한이 되었겠는가? 이로써 4군 · 2부는 스스로 4군 · 2부가 되어 삼한과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변진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의복과 거처, 언어, 풍속이 같다고 하여, 그 변한(弁韓)이라 칭할 것을 반드시 변진이라 하였으니, 변한이 진한에게 틀림없이 부용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르기를 마한은 54개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을 거느렸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국(國)이란 지금의 군현으로 진한과 변한을 합하면 겨우 24개국이 되어 마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아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이 합하여 마한이 되고 영남(嶺南) 한 도(道)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이 되는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마한은 4군 · 2부의 시기를 거쳐 신(新)나라 왕망 때 백제가 되었고, 진한은 역시 4군 · 2부의 시기를 거쳐 선제(宣帝) 때 이르러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은 진한에 처음부터 부용하였다가 끝내 합속되었다. 위와 같이 말한다면 삼한이 또 언제 중국에 편입되어 4군 · 2부가 되었겠는가? 나는 또한 이것으로써 삼한은 본래 삼한이고 4군 · 2부가 되었겠는가? 나는 또한 이것으로써 삼한은 보래 삼한이고 4군 · 2부와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崔致遠 唐昭宗時人 上遡三韓時 幾千有餘年. 其出於傳聞 非耳目所及 則與權近何異 權近亦何異於今時之人哉. 而況崔致遠 聰明才氣 固 東方第一人. 然其歷代興廢 必資聞見而知. 致遠入唐遊學時 年十二. 其還國纔二十八. 今唐書所載 皆致遠遊學時所統. 十二世童子 雖所生之國 其能貫穿千年沿革 而不一誤亦未可必也. 後之覽者 每以古今人不相及 必欲奉信 而不敢疑 其亦過矣. 權近亦近世大儒 久居金馬郡 親見所謂箕準城 遂以馬韓定爲百濟. 則亦庶幾乎有見矣. 而終不能大眼遠察. 其釋弁韓在南 則乃曰 盖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其引弁韓苗裔在樂浪 而直云弁韓在樂浪. 何其穿鑿之甚哉. 其他平那山之平字 與弁聲相近 遂謂弁韓爲高句麗云者 則又與兒童迷藏之戱 無異.

최치원(崔致遠)은 당나라 소종(昭宗) 때 사람으로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천여 년이 넘는다. 그의 전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직접 이목이 미치지 않은 것이니 권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권근 역시 오늘날[조선]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물며 최치원은 총명과 재기가 실로 동방에서 첫째가는 사람이지만, 역대 왕조의 흥망은 반드시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인데 최치원이 당나라에 들어가 유학할 때 나이가 12세였고, 환국하였을 때 겨우 28세였다. 지금 『당서』에 실려 있는 것이 모두 최치원이 유학할 때 모아진 것으로, 12세 어린이가 비록 태어난 나라지만 천년의 연혁을 깊이 꿰뚫어서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뒷날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매번 고금(古今)의 사람들이 서로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받들어 믿고 감히 의심하지 않으려 하니, 그 역시 잘못된 것이다. 권근 역시 근세의 대유(大儒)로 금마군에 오래 살면서 소위 기준성(箕準城)을 직접 보고 마침내 마한을 백제라고 하였으니, 역시 가까이로는 볼만한 것이지만 끝내 크게 보고 멀리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 변한이 남쪽에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여 대개 중국 땅의 요동으로부터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 변한의 묘예(苗裔)가 낙랑에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면서 묘예(苗裔)의 두 글자를 빼고 곧바로 변한이 낙랑에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천착함이 그리 심하였는가? 그밖에 평나산(平那山)의 평(平)자가 변(弁)과 소리가 가깝다 하여 마침내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또한 어린아이들의 숨바꼭질[迷藏] 놀이와 다르지 않다.

盖三韓僻在東南一隅之地 去中國最遠. 雖堯舜揖遜 而聲化不曁. 楚漢交爭 而干戈不擾耕鑿 晏如長育子孫 別爲天地間一壽域. 故西北避亂之人 多歸之 仍成村落 各以其本管名其居. 慶州之得號樂浪 亦如辰韓之或名秦韓也. 後

人不分此二樂浪 因以平壤爲弁韓 何其誤哉. 今按杜佑通典云 周初封殷太師國於朝鮮. 至漢高帝時國滅. 武帝元封中 開其地置樂浪等郡. 其三韓之地 在海島之上 朝鮮之東南. 百濟 · 新羅分三韓地. 新罷又在百濟之東南 倭又在東南隔越大海. 高句麗本朝鮮地. 漢武置縣屬玄菟郡 時甚微弱. 後漢以後 累代皆受中國封爵 所都平壤城 卽故朝鮮國王儉城也. 又云 馬韓在西 五十有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園.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弁辰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與辰韓同 言語 · 風俗相似. 三韓盖爲百濟 · 新羅所呑幷. 又云 百濟據有馬韓故地. 其國 東西四百里 南北九百里. 南接新羅 北拒高句麗. 則其指朝鮮 三韓南北地界 及朝鮮之爲高句麗 三韓之爲羅濟 已了然矣.
대개 삼한이 동남쪽의 구석진 땅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어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양보하였어도 가르침이 미치지 않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웠어도 방패와 창이 생업을 어지럽히지 않아 편안히 자손을 길러 따로 천지간에 하나의 태평한 세상[壽城]이 되었다. 그 때문에 서북쪽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고 각기 그 본관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의 이름을 붙였으니, 경주가 낙랑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진한(辰韓)의 지역이 진한(秦韓)이라고도 불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뒷사람들이 이 두 개의 낙랑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평양을 변한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지금 살펴보니,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나라 초에 은태사(殷太師)를 봉하여 조선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고, 한나라 고제(高帝) 때에 나라가 멸망하였다. 무제 원봉 중에 그 땅을 열어 낙랑 등의 군을 설치하였다. 그 삼한의 땅은 섬 위, 조선의 동남쪽에 있었다. 백제와 신라가 삼한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신라가 또한 백제의 동남쪽에 있었으며, 왜가 또 동남쪽의 큰 바다 건너에 있었다. 고구려는 본래 조선의 땅이었다. 한 무제가 군현을 설치하였을 때 현도군에 속하였는데, 그때는 매우 미약하였다. 후한 이후 대대로 중국의 봉작을 받았고, 도읍인 평양성은 곧 옛 조선국의 왕검성(王儉城)이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한 서쪽에 있다. 54개국이며, 그 북쪽으로는 낙랑과, 남쪽으로는 왜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다. 12개국이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접하였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다. 역시 12개국이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모두 78개국인데, 큰 것은 만여 호이고, 작은 것은 수천 가(家)이다.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으며, 동쪽과 서쪽은 바다가 끝이 된다.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와 풍속이 서로 비슷하다. 삼한은 모두 백제와 신라에게 병탄되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제는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그 나라는 동서로 400리이고 남북으로 900리 였는데,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맞서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과 삼한이 남북의 지역을 가리켰으며, 조선이 고구려로 되고 삼한이 신라, 백제로 된 것이 이미 명확하다.

又據三國史 新羅始祖赫居世十九年 弁韓以國來降 則弁韓之合於新羅 而同爲今慶尙地 明甚. 百濟始祖溫祚十三年遣使馬韓 告遷都 定疆域 立城闕於漢山. 二十四年 溫祚立熊川柵. 馬韓王遣使責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百里之地界之. 今大設城池 侵孩封疆 何也. 至二十七年 溫祚襲滅馬韓因幷其國. 則馬韓之幷於百濟 而爲今忠淸 · 全羅地 亦無疑矣. 而勝覽 斷以全羅係升韓 黃海係馬韓者 何哉. 馬韓在西 辰韓在東 弁韓在南 後漢書亦已明言矣. 勝覽旣知馬韓在弁辰之西 而不知弁韓之已合於新羅境內 以全羅爲弁韓. 故不得已 以黃海等地 爲馬韓也. 權近以弁韓爲高句麗 則固失之 勝覽議之當矣. 然臆度傅會倒置弁馬之失 又甚於近矣. 大抵 三韓地域 辰韓之爲新羅 則古今無疑. 而弁馬二韓 前輩之說 互歸抵抵. 惟近世韓氏所辨 深得千載未定之論. 謹依其說以定之. 以今京畿左道 · 忠淸 · 全羅道係于馬韓舊域. 以慶尙係以辰韓. 弁韓之域. 漢江以北 係于朝鮮舊域云〉
또한『삼국사(三國史)』에 의하면 신라 시조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弁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고 하였으니, 변한이 신라에 합쳐졌음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상도 땅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백제 시조 온조 13년(기원전 6년)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하였음을 알리고 강역을 정하며 한산(漢山)에 성과 궁궐을 세웠다

고 하였고, [온조왕]24년(6년)에는 온조가 웅천책(熊川柵)을 세우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와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와 발 디딜 곳이 없자 내가 동북쪽의 100리 땅을 떼어주고 경계로 삼았는데, 지금 성지(城池)를 크게 만들고 나의 영토를 침략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고 하였으며, [온조왕] 27년(9년)에 이르러 온조가 마한을 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병합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한이 백제에 병합되었음과 지금[조선]의 충청·전라도 땅이 되었음 역시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런데 『승람(勝覽)』에서 단정하여 전라도를 변한에 연계시키고 황해도를 마한에 연계시킨 것은 어찌된 일인가? 마한이 서쪽에 있고, 진한이 동쪽에 있고, 변한이 남쪽에 있었음은 『후한서』에서도 또한 명백하게 말하였다. 『승람』에서는 마한이 변진(弁辰)의 서쪽에 있었음은 알고 있었지만, 변한(弁韓)이 이미 신라 경내에 합해졌음을 알지 못하여 전라도를 변한(弁韓)이라 하였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해도 등을 마한이라 하였던 것이다. 권근이 변한(卞韓)을 가지도 고구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승람』에서 논의한 것이 옳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억지로 갖다 붙여 변한(弁韓)과 마한(馬韓)을 뒤바꾼 잘못은 권근보다도 더하다. 대체로 삼한의 영역은 진한이 신라가 되었음은 예나 지금이나 의문이 없지만, 변한과 마한은 앞사람들의 설이 서로 충돌한다. 오직 근세에 한씨[한백겸]가 분별한 것이 오래 동안 정해지지 못하던 의논을 깊이 만족시켰으니, 삼가 그 설에 따라 [영역을] 정하여 지금[조선]의 경기좌도, 충청도, 전라도를 마한에 연결시키고, 경상도를 진한과 변한의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한강 이북은 조선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킨다〉

사료22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 |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或問於余曰 東方舊有三韓 · 四郡 各有分界 古今沿革不同. 而文獻無徵 雖號鉅儒博識 率多茫昧 指東畫西 互相辟戾 其說多端靡所適從. 孰得孰失 皆可詳論歟. 曰 中國諸史 所記頗詳 東史雖多疎謬亦可參攷矣. 諸家之說則 崔孤雲致遠 以辰韓爲新羅 馬韓爲高句麗 卞韓爲百濟. 權陽村近修東國史略 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辰韓則無異論. 兩公之說 辰韓爲是矣. 陽村之以馬韓爲百濟則得矣 說卞韓爲失. 孤雲所說卞 · 馬兩韓 俱爽其眞. 而前朝金富軾 撰三國史地理誌 取孤雲之說. 我朝梁誠之 · 盧思愼 · 徐居正等 撰東國輿地勝覽 從孤雲所論 以慶尙道屬辰韓 京畿 · 忠淸 · 黃海等道係于馬韓 以全羅道係于卞韓. 而取三國遺事 麗地有馬邑山 故稱馬韓 濟地有卞山 故稱卞韓之說 爲傍證. 徐居正等 撰東國通鑑 其敍三韓也 引陽村之言 以益山箕準城 爲馬韓爲百濟之驗 而卞韓在南 諉以遼東之南. 一得一失 自不相掩. 吳斯文溟 撰東史纂要 亦襲陽村之說 俱未免承訛襲謬 而不究其實 良可歎也. 近世有韓久庵伯謙 東史纂要後敍 以爲四郡在北 三韓在南 不相交涉 而湖西〈忠淸道〉 · 湖南〈全羅道〉合爲馬韓 嶺南〈慶尙道〉一道 自分爲辰 · 卞二韓 此實眞知的見也.

누가 내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동방에 옛날 삼한(三韓)과 사군(四郡)이 있어 각각 경계를 나누고 있었는데, 옛과 지금의 연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근거가 없어 비록 거유(鉅儒)라거나 박식하다고 불리는 사람들도 모두가 잘 몰라서 [경계의]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구획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며, 그 설명들을 따르지 못할 바가 많으니,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 모두 상론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국의 여러 사서에서 기록한 것이 자못 상세하고, 우리나라의 사서들은 비록 소략하거나 잘못이 있지만 역시 참고할만하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고운 최치원은 진한(辰韓)이 신라로 되고, 마한(馬韓)이 고구려로 되고, 변한(卞韓)이 백제로 되었다고 하였다. 양촌 권근은 『동국사략』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으며, 진한은 [최치원과]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설명에서 진한에 대한 것은 옳다. 양촌의 마한이 백제로 되었다는 것은 옳지만, 변한(卞韓)에 대한 설명은 잘못이다. 고운이 말한바, 변·마한에 대한 것은 모두 사실과 어긋난다. 전조(前朝)[고려]의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三國史)』지리지(地理誌)를 지으면서 고운의 설을 받아들였고, 아조(我朝)[조선]의 양성지(梁誠之)·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지으면서 고운이 주장한 바에 따라 경상도를 진한에 있고, 경기·충청·황해도를 마한에 연결하였으며, 전라도를 변한에 연결하였다. 그리고는 『삼국유사』에서 고구려 땅에 마읍산(馬邑山)이 있으므로

마한이라 불렀고, 백제 땅에 변산(卞山)이 있으므로 변한(卞韓)이라 불렀다고 한 설명을 가지고 방증으로 삼았다. [그런데]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지으면서 삼한에 대한 서술은 양촌의 말을 인용하여 익산(益山)의 기준성(箕準城)을 가지고 마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근거로 삼고, 변한(卞韓)이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요동의 남쪽이라는 것으로 핑계하였으니, 하나가 옳으면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가 서로 맞지 않는다. 유학자[斯文] 오운(吳澐)이 『동사찬요(東史纂要)』를 지으면서 역시 양촌의 설을 이어받았다. [서거정과 오운이] 모두 그릇된 것을 이어받기를 면치 못하고 그 진실을 궁구하지 못하였으니 자못 한탄스러운 일이다. 근세[조선]에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의 『동사찬요』후서(後敍)가 있는데, 사군(四郡)은 북쪽에 있었고, 삼한은 남쪽에 있어 서로 뒤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호서(湖西)〈충청도〉와 호남(湖南)〈전라도〉을 합쳐 마한으로 하고, 영남(嶺南)〈경상도〉 한 도를 나누어 진한과 변한(卞韓)이라 하였으니, 이는 실로 참되고 정확한 의견이다.

或者笑曰 崔孤雲新羅名人 金富軾高麗鉅手 權陽村國初名儒. 凡此數公必有所據. 勝覽取舍 豈無權衡耶. 韓公生於近千載之後 創出新見 已涉不韙. 其所爲說 雖引范史 未有東方的證殆同臆料. 吾子以藐然後學 只守坐井之見 盡掃前輩之說 獨取韓公 肆然立幟 難免忘率之譏 豈有其說耶. 願聞之. 曰 愚也. 歷玫諸史參之 數家所論 皆不相合竊疑之. 反復究閱 自信管見 晩得韓公所記鑿鑿相符 故竊有所取 何敢好異而苟同也. 大抵 四郡之前 有三朝鮮 唐堯戊辰之歲 神人降于太白山〈卽寧邊 妙香山〉檀木下 都平壤. 是爲檀君朝鮮. 終於商戊丁八年. 見於東國史略及通鑑 而皆據古記爲說. 周武王克商 箕子入朝鮮 因而封之. 都平壤. 是爲箕子朝鮮〈或稱後朝鮮 已上東史〉 至後孫 當六國時 燕遣將秦開 攻取其西二千餘里 以滿潘汗爲界〈漢書地理志 遼東郡番汗縣 縣有沛水 沛 · 浿聲相近 疑浿水也. 番汗音盤寒.〉 朝鮮遂弱.秦築長城 抵遼東.四十代孫否 畏秦服屬〈魏略〉 屬遼東外徼. 及漢興 否子準 與燕王綰 以浿水〈疑 鴨綠水〉爲界. 爲衛滿所逐南奔. 衛滿者燕人亡命 夷服東走 渡浿水 居秦古空地. 役屬眞番 · 朝鮮 · 臨屯 · 燕 · 齊亡者 王之. 都王險〈平壤〉 是爲衛滿朝鮮. 至孫右渠 雍閼眞番 · 辰國. 武帝元封三年 討滅之. 以其地爲樂浪〈治朝鮮縣〉 臨屯〈治東暆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見武帝本紀註下 眞番同 勝覽云江陵 一名臨屯〉 玄菟〈治沃沮城〉 · 眞番〈治霅郡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番普安反〉郡 是爲四郡. …(중략)… 夫三朝鮮皆都平壤 漢以朝鮮地爲四郡. 後以臨屯合樂浪 以眞番合玄冤. 樂浪爲平壤 其列口等縣 皆遼東地. 其很水等縣 皆關西〈平安道〉地. 臨屯爲江陵 挾嶺東西諸郡 皆江原等地. 自江原連接關西 以及遼東一帶 爲臨屯 · 樂浪之界. 臨屯在東 樂浪在西. 而薉貊等諸小國 厠在其間矣. 玄菟在沃沮 卽咸鏡南北道. 眞番當在句麗之南 鴨綠江外 與玄菟合遼東郡. 有縣沓氏 疑是眞番所治霅縣也. 玄菟旣徙高句麗西北 則眞番 · 玄菟之界 當在鴨綠江西北 以至遼東近北之地. 管內高句驪縣有遼山 是遼水所出則 卽遼東之北也. 西盖〈通典盖音合〉 縣有馬訾水 水卽鴨綠江 是鴨綠一帶也. 大抵四郡在三韓之北 而不雜於韓地 則亦明矣.

어떤 사람은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고운(崔孤雲)은 신라의 명인(名人)이고, 김부식(金富軾)은 고려의 거수(鉅手)이며, 권양촌(權陽村)은 국초의 명유(名儒)입니다. 무릇 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이며, 『승람(勝覽)』에서 취사한 것이 어찌 기준이 없었겠습니까? 한공(韓公)은 천년 가까이나 뒤에 태어나 새로운 견해를 창출해냈으니, 이미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설명한 바는 비록 범엽(范曄)의 사서[范史]를 인용했다 하여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증거가 없이 억측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후학으로서 단지 좌정(坐定)의 견해를 지킬 뿐이며, 앞 사람들의 설명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한공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마음대로 기치를 세운다면 망령된 것을 좇는다는 나무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그의 설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리석구나. 여러 사서들을 두루 살펴 헤아려 보면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가 모두 서로 맞지 않아 의심이 간다. 반복해서 살피고 조사하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믿게 되어 늦게야 한공이 기록한 바가 착착 맞아떨어짐을 알고 취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하여 감히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구차하게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대개 4군 이전에는 세 조선이 있었다. 당요(唐堯) 무진년(기원전 2333년)에 신인(神人)이 태백산〈즉 영변의 묘향산〉 단목(檀木) 아래에 내려와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이것

이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 상(商) 무정 8년에 끝이 났다. 『동국사략(東國史略)』과 『통감(通鑑)』에 보이는데, 모두 고기(古記)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주 무왕(周武王)이 상(商)을 멸망시키자 기자(箕子)가 조선에 들어왔으므로 [조선에] 봉하였으며, 평양에 도읍하였는데, 이것이 기자조선(箕子朝鮮)〈혹은 후조선(後朝鮮)이라고도 한다. 이상은 『동사(東史)』이다〉 후손에 이르러 6국 때를 당하여 연나라가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 그 서쪽의 2천여 리를 공격해 빼앗고 만번한(滿潘汗)으로 경계를 삼으니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요동군에 반한현(潘汗縣)이 있고, 현에는 패수(沛水)가 있다고 하였다. 패(沛)과 패(浿)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므로 패수(浿水)가 아닌가 한다. 潘汗은 반한(盤寒)으로 소리 난다〉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 진나라가 장성을 쌓아 요동에 다다르니 40대손 부(否)가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복속하였으므로 〈『위략(魏略)』〉 요동 밖의 요새[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 한나라가 흥기함에 미쳐 부의 아들 준(準)이 연왕(燕王) 노관(盧綰)과 더불어 패수(浿水)〈압록수(鴨綠水)가 아닌가 한다〉로써 경계를 삼았다. [준은] 위만(衛滿)에게 쫓기어 남쪽으로 달아났다. 위만이란 자는 연나라 사람으로 망명하여 오랑캐 옷[夷服]을 하고 동쪽으로 들어와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빈 땅에 거주하였는데, 진번(眞番). 조선(朝鮮), 임둔(臨屯),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한 사람들을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다. 왕검(王險)〈평양〉에 도읍하였는데, 이것이 위만조선(衛滿朝鮮)이다. 손자 우거(右渠)에 이르러서는 진번(眞番)과 진국(辰國)을 가로막았다. 무제 원봉 3년(기원전 108년)에 토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으로 낙랑(樂浪)〈치소(治所)는 조선현(朝鮮縣)〉· 임둔(臨屯)〈치소는 동이현(東暆縣), 장안(長安)으로부터 6,138리 떨어져 있었고, 15개 현(縣)이 있었다. 「무제본기(武帝本記)」 주(註)에 나온다. 아래 진번(眞番)도 같다. 『승람(勝覽)』에서는 강릉(江陵)을 일명 임둔이라 하였다〉· 현도(玄菟)〈치소는 옥저성(沃沮城)〉· 진번(眞番)〈치소는 삽현(霅縣), 장안으로부터 7,640리 떨어져 있었으며, 15개 현이 있었다. 번(番)은 보(普)와 안(安)의 반절음이다〉군을 삼았으니, 이것이 4군이다. …(중략)… 무릇 세 조선이 모두 평양에 도읍을 하였고, 한나라가 조선 땅을 4군으로 삼았던 것이다. 뒤에 임둔을 낙랑에 합하고 진번을 현도에 합쳤으니, 낙랑은 평양이 되고 [낙랑의] 열구현(列口縣) 등의 현들은 모두 요동 땅이며 [낙랑의] 패수현(浿水縣) 등 현들은 모두 관서(關西)〈평안도〉 땅이다. 임둔은 강릉이 되고 산맥을 끼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여러 군들은 모두 강원도(江原道) 등지이다. 강원도로부터 관서에 연접하여 요동에 미치는 일대가 임둔과 낙랑의 경계인데, 임둔이 동쪽에 있고 낙랑이 서쪽에 있었으며, 예맥(濊貊) 등 여러 소국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현도는 옥저에 있었으니, 곧 함경남북도이다. 진번은 당연히 고구려의 남쪽, 압록강 밖에 있었으며, 현도와 더불어 요동군에 합쳐졌다. 현답씨(縣沓氏)가 있었는데, 이것이 진번이 다스리던 삽현(霅縣)이 아닌가 한다. 현도가 이미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으므로 진번과 현도의 경계는 마땅히 압록강 서북쪽에 있으면서 요동에서 가까운 북쪽 땅에 이르렀어야 한다. 관내의 고구려현(高句麗縣)에는 요산(遼山)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수(遼水)가 발원하는 곳이므로 곧 요동의 북쪽이다. 서개현(西盖縣)〈『통전(通典)』에 개(盖)는 합(合)으로 소리난다〉에 마자수(馬訾水)가 있었는데, 수(水)는 곧 압록강이므로, 이것은 압록 일대이다. 대체로 사군은 삼한의 북쪽에 있었고, 한(韓)의 땅과 섞이지 않았음이 또한 분명하다.

前漢書朝鮮傳只云 辰國欲上書見天子. 後漢書東夷傳 始敍三韓曰 韓有三種.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 辰韓耆老言 秦之亡人 避苦役適韓. 馬韓人割東界地 與之. 故或名之爲秦韓.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初朝鮮王準 爲衛滿所破 將其餘衆 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夫馬韓則言南北所接 辰韓只言北接穢貊不言南接 卞韓只言南接倭 不言北接 而只云弁辰在辰韓之南.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然則 辰韓之南接弁韓 弁韓之北接辰韓 據此可見也. 馬韓之北爲樂浪 辰韓之北爲濊貊. 濊貊乃卽今江原道之地 則三韓在樂浪. 臨屯之南. 而南自南 北自北 而不相雜 亦可見也. 唐書 高宗滅百濟 置五都督府 而馬韓爲一府. 此亦馬韓爲百濟之一證. 而通典云 三韓在海島上朝鮮之東南. 百濟 · 新羅 魏晉以後分三韓地. 高麗本朝鮮地. 此又爲三韓在南

與四郡不相交涉之證也.

『전한서(前漢書)』조선전(朝鮮傳)에는 단지 진국(辰國)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다고만 하였다.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에서 처음으로 삼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마한(馬韓)은 서쪽에 위치하며 54국이 있다. 그 북쪽은 낙랑과 남쪽은 왜와 접하고 있다. 진한(辰韓)은 동쪽에 위치하며 12국이 있다.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하고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위치하며 역시 12국이 있다. 그 남쪽 역시 왜와 접하고 있다. 무릇 78국인데, 백제(百濟)는 그 가운데 한 나라이다. 대국은 만 여 호이며, 소국은 수 천 가로 이루어졌다. 땅은 사방 4천여 리 이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 그 여러 나라 왕들의 선조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었다. 진한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진(秦)의 유망민(流亡民)들이 고된 부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으로 오니, 마한이 동쪽 경계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하니, 이 때문에 혹 진한(秦韓)이라고도 부른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뒤섞여 살았는데, 성곽과 의복은 모두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은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 조선왕 준(準)이 위만에게 격파 당하매, 그 나머지 무리 수 천인을 데리고 바닷길로 도망하여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끊어지자, 마한 사람들이 스스로 왕에 올라 진왕(辰王)이 되었다고 하였다. 무릇 마한은 남쪽과 북쪽에 접한 것을 말하였고, 진한은 북쪽으로 예맥(濊貊)과 접하였다고 하였을 뿐 남쪽에 접한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변한은 남쪽으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을 뿐 북쪽으로 접한 것은 말하지 않고 단지 변진(弁辰)이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변진이 진한과 섞여 살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진한의 남쪽이 변한과 접하고 변한의 북쪽이 진한과 접하였음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 마한의 북쪽은 낙랑이 되고, 진한의 북쪽은 예맥이 되니, 예맥은 곧 지금의 강원도 땅이다. 즉, 삼한은 낙랑과 임둔의 남쪽에 있었으니,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역시 알 수 있다. 『당서(唐書)』에 고종(高宗)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5개의 도독부(都督府)를 두었는데, 마한이 한 부가 되었다. 이 역시 마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것의 한 증거이다. 또 『통전(通典)』에서 이르기를 "삼한은 바다의 섬에 있으며, 조선의 동남쪽이다. 백제와 신라는 위진(魏晉) 이후 삼한의 땅을 나누었고, 고구려는 본래 조선 땅이다."라 하였다. 이 또한 삼한은 남쪽에 있어 사군과 서로 교섭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陳壽三國志 馬韓五十餘國. 爰襄國 · 牟水國 · 桑外國 · 小石索國 · 大石索國 · 優休牟涿國 · 臣濆活國 · 伯濟國 · 速虜不斯國 · 日華國 · 古誕者國 · 古離國 · 怒藍國 · 月支國 · 咨離牟 · 盧國 · 素謂乾國 · 古爰國 · 莫盧國 · 卑離國 · 占離卑國 · 臣釁國 · 支侵國 · 狗盧國 · 卑彌國 · 監奚卑離國 · 古蒲國 · 致利鞠國 · 冉路國 · 兒林國 · 駟盧國 · 內卑離國 · 感奚國.萬盧國 · 辟卑離國 · 臼斯烏旦國 · 一離國.不彌國.支半國 · 狗素國 · 捷盧國 · 牟盧卑離國 · 臣蘇塗國 · 莫盧國 · 古臘國 · 臨素半國 · 臣雲新國 · 如來卑離國 · 楚山塗卑離國 · 一難國 · 狗奚國 · 不雲國 · 不斯濆邪國 · 爰池國 · 乾馬國 · 楚離國. 總十餘萬戶. 其國治月支〈後漢書作自支〉國. 辰韓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已柢國 · 不斯國 · 弁辰彌離彌凍國 · 弁辰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辰古資彌凍國 · 弁辰古淳是國 · 冉奚國 · 弁辰半路國 · 弁樂奴國 · 軍彌國 · 弁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其路國 · 尸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辰狗邪國 · 弁辰定漕馬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由國. 弁 · 辰韓合二十四國 摠四五萬戶. 弁辰瀆盧國 與倭接界.

其敍倭曰 倭人在帶方東南大海中. 從郡至倭 循海岸 歷韓國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漢國〈卽後漢書倭傳狗耶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千餘里 至對馬國. 盖狗邪韓國 卽弁辰狗邪國也. 其所謂歷韓國乍南者 自帶方 至我國湖南地方也. 乍東者 自湖南 至嶺南地方也. 至其北岸狗邪國者 狗邪正在倭國隔海之北岸也. 今金海府在嶺南 南陲海岸 一名伽倻 似是狗耶也. 瀆盧與倭接界 狗邪當倭海入水之路 而俱是弁韓之地. 則弁韓在辰韓之南 沿海一帶 可知也. 三國史新羅紀 辰韓六郡推赫居世爲君. 十九年 卞韓以國來降. 三十八年 馬韓王讓瓠公曰 辰 · 弁二韓爲我屬國不修職貢. 又云 中國人苦秦亂 東來者衆多 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寢盛 故馬韓忌之. 又指馬韓爲西韓. 據此則辰 · 卞二韓在馬韓之東 可知也. 百濟紀 溫祚王都河南慰禮城〈今稷山〉北帶韓水. 二十一年 王作熊川柵. 馬韓王遣

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 不爲不厚. 今大設城池 侵我封疆 其如義何. 王慙壞其柵. 王有幷呑辰 · 馬之心. 二十六年 襲馬韓 遂幷其國. 惟圓山 · 錦峴二城固守 七年降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據此則 溫祚初渡漢水而南馬韓割東北一百里之地 以安之. 遂都稷山 後作熊川柵 而馬韓以侵封疆 讓之. 然則 馬韓在公州以南之地. 當初封域 僅及於漢水之南 而割與百濟 遂以熊津爲界也. 其後百濟定疆域 北至浿河〈勝覽云 掮掮一名貝江 百濟北至 疑卽此水〉是則 百濟所開拓 而非馬韓之舊界也. 大都與漢史相符 攷諸漢史 旣如彼參之. 東史又若此 北有四郡 南有三韓 界限不亂. 而馬韓在西 其界自全羅 · 忠淸兩道 北及漢水之南. 辰 · 卞兩韓在東 而中分慶尙一道 北爲辰韓 而鳥 · 竹嶺爲其北界. 南爲卞韓 而倭海爲其南界 壤地相錯也. 其亦彰明較著 更無可疑者矣.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마한은 50여국은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신분활국(臣濆活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일화국(日華國), 고탄자국(古誕者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怒藍國), 월지국(月支國),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소위건국(素謂乾國), 고원국(古爰國), 막로국(莫盧國), 비리국(卑離國), 점리비국(占離卑國), 신흔국(臣釁國), 지침국(支侵國), 구로국(狗盧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고포국(古蒲國), 치리국국(致利鞠國), 염로국(冉路國), 아림국(兒林國), 사로국(駟盧國), 내비리국(內卑離國), 감해국(感奚國), 만로국(萬盧國), 벽비리국(辟卑離國),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 일리국(一離國), 불미국(不彌國), 지반국(支半國), 구소국(狗素國), 첩로국(捷盧國),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신소도국(臣蘇塗國), 막로국(莫盧國), 고랍국(古臘國),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일란국(一難國), 구해국(狗奚國), 불운국(不雲國), 불사분야국(不斯濆邪國), 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 초리국(楚離國)이다. 총 10만여 호(戶)이며, 국치(國治)는 월지〈후한서에는 목지국(目支國)이라 하였다〉이다. 진한은 처음에는 6국이었다가 차츰 나뉘어져서 12국이 되었다. 변진 역시 12국이다. 이저국(已柢國), 불사국(不斯國),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 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근기국(勤耆國), 난미리미동국(難彌離彌凍國),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염해국(冉奚國), 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 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 군미국(軍彌國), 변군미국(弁軍彌國),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여담국(如湛國), 변진기로국(弁辰其路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 마연국(馬延國),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변진정조마국(弁辰定漕馬國),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마연국(馬延國),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사로국(斯盧國), 우유국(優由國)이 있다. 변 · 진한은 합쳐서 24국, 총 4,5만호이다.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

왜(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왜인(倭人)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 군에서 왜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 바닷길로 가는데, 한국(韓國)을 거치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그 북쪽 해안인 구야한국(狗邪韓國)은 곧 변진구야국(弁辰狗倻國)이다. 거기서 이른바 한국(韓國)을 거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란 대방(帶方)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호남에 이르는 것이며,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란 호남으로부터 영남지방에 이르는 것이다. 그 북안(北岸)에 이른 구야국(狗倻國)이란 구야가 왜국과 바다를 격한 정북쪽 해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조선] 김해부(金海府)는 영남에 있으며, 남쪽이 바다이고 일명 가야(伽倻)인데 이것이 구야(狗耶)와 비슷하다. 독로(瀆盧)는 왜와 경계를 접했으니, 구야는 마땅히 왜해(倭海)로 물이 들어가는 길이며, 둘 다 변한(弁韓)의 땅이다. 그러므로 변한이 진한의 남쪽에 있었으며, 연해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신라기(新羅紀)에 "진한 6부가 혁거세를 추대하여 왕[君]으로 삼았는데, [혁거세거서간]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고, [혁거세거서간] 38년(기원전 20년)에 마한왕 호공(瓠公)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辰) · 변(卞) 두 한은 우리의 속국이 되었는데, 직공(職貢)을 닦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중국 사람들이 진나라의 난리로 고통스럽자 동쪽으로 온 자가 많았는데, 다수는 마한의 동쪽에 거처를 잡아 진한과 섞여 살았다. 이 때 이르러 점차 강성해졌으므로 마한이 꺼려했다."고 하였다. 또 마한을 가리켜 서한(西韓)이라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진 · 변 두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백제기[본]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온조왕(溫祚王)이 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지금 직산(稷山)〉에 도읍하였는데, 북쪽으로 한수(韓水)를 둘

었다. [온조왕] 21년(2년)에 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와 책망하여 말하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와 발 디딜 곳이 없을 때 내가 동북쪽의 백 리 땅을 떼어주어 편안하게 해주었으니, 두텁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성지(城池)를 크게 만들고 나의 영토를 침략하니 어찌된 일인가?라 하므로 왕이 부끄러워 그 책(柵)을 부쉈다. 왕이 진(辰)·마(馬)를 삼킬 뜻이 있어 [온조왕] 26년(8년)에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오로지 원산(圓山)·금현(錦峴) 두 성만은 굳게 지켰는데, [온조왕] 27년(9년)에 항복하니 그 백성들을 한산(漢山)의 북쪽으로 옮겼다. 마한이 마침내 멸망하였다. 이에 의하면 온조가 처음 한수를 건너 남쪽으로 가니 마한이 동북의 백리 땅을 떼어 주어 편히 살게 하였다. 마침내 직산에 도읍을 하고 뒤에 웅천책(熊川柵)을 세우자 마한이 영토를 침범한다 하여 꾸짖었다. 그러므로 마한은 공주 이남의 땅에 있었다. 처음에 영토는 한수(漢水)의 남쪽에 겨우 미쳤으나, 백제에 [땅을] 떼어주고는 마침내 웅진(熊津)으로 경계를 삼았다. 그 후 백제가 강역을 정하여 북쪽이 패하(浿河)〈『승람(勝覽)』에 이르기를, 저탄(猪灘)은 일명 패강(浿江)이라 하였다. 백제가 북쪽으로 패하(浿河)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강이 아닌가 한다〉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백제가 개척한 것이지 마한의 옛 영역이 아니다. 대체로 중국의 사서와 서로 부합하니, 여러 중국 사서들을 살펴 그와 같이 참고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서가 또한 이러하다면, 북쪽에 사군이 있었고, 남쪽에 삼한이 있어서 경계가 어지럽지 않았다. 마한은 서쪽에 있었고, 그 경계는 전라·충청도로부터 북쪽으로 한수 남쪽에 이르렀다. 진·변한은 동쪽에 있었는데 경상도를 가운데로 나누어 북쪽은 진한이 되고 조령과 죽령으로 북쪽 경계를 삼았으며, 남쪽은 변한(卞韓)이 되고 왜해(倭海)를 남쪽 경계로 하였는데, [진한과 변한은] 땅이 서로 섞여 있었다. 그 역시 밝고 분명하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或者曰 按三國史 馬韓之亡 在百濟溫祚王二十六年. 而句麗太祖六十九年 王率馬韓 圍玄菟.七十年 與馬韓 侵遼東. 晉書馬韓傳晉武帝咸寧三年 來朝. 四年 又請內附. 辰韓之亡 在於漢宣帝五鳳元年. 而三國志 魏景明中 吳林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晉太康七年 又來朝. 彼此矛盾 將何所適從. 曰 三韓懸遠 漢·晉諸史 容有誤認.而三國史所說 必有指的.意者 馬韓雖亡 未必盡爲殄滅 或有種落保在一隅者. 金富軾疑其有滅而復興者. 古人固已思量及此矣. 盖與句麗同寇者 明是韓之餘種. 朝晉者 亦或爲然. 而八國之分割 其爲誤認明矣. 到魏時 辰韓之亡已久 豈有八國之可割者耶羃劈.〈詳見論 帶方下〉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를 살펴보면 마한이 망한 것이 백제 온조왕 26년(8년)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태조 69년(121년)에 왕이 마한을 거느리고 현도를 포위하였고, [태조] 70년에는 마한과 함께 요동을 쳤다고 하였다. 『진서(晉書)』마한전(馬韓傳)에는 진 무제 함녕 3년(277년)에 [마한이] 와서 조회하였고, [함녕] 4년에 다시 내부하기를 청했다고 하였다. 진한이 망한 것이 한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인데, 『삼국지』에는 위나라 경명 중에 오림(吳林)이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주었고, 진 태강 7년(286년)에는 [진한이] 다시 내조하였다고 하여 서로가 모순되니 장차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삼한이 오래되어 한나라와 진나라의 여러 사서들은 오인한 것이 있지만, 『삼국사』에서 말한 바는 틀림없이 정확하다. 생각건대, 마한이 비록 망했지만 모두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혹은 종족이 흩어져 한 모퉁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니, 김부식은 그것이 망했지만 부흥하지 않았나 했던 것으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이에 미쳤다. 대개 고구려[句麗]와 함께 노략질을 한 것은 이 한(韓)의 남은 종족이었음에 틀림없으며, 진나라에 조회한 것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8국의 분할은 오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위나라 때에 이르러 진한이 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분할할 수 있는 8국이 있었겠는가.〈대방(帶方)을 논한 아래에 상세히 보인다〉

或者曰 四郡·三韓之說 子之言 實有所據矣. 四郡之前 有滄海郡. 四郡合爲二郡之後 又有二府. 及帶方·昌黎·遼東諸郡 及安東都護府·雙城摠管·東寧府·鐵嶺衛·熊津五府. 三韓之後 又有新羅·百濟·高句麗三國. 三國之後 又有高麗. 而北界則 我朝又開拓. 府郡之沿革 三國之界至 皆可歷指歟. 曰 …(중략)… 若夫三國則 新羅居西

干〈辰言王〉 赫居世 姓朴氏 漢宣帝五鳳元年 起於辰韓之地 六部推爲君. 十九年 卞韓以國來降 卽今之慶尙道也. …(중략)… 炤知金王三年[秣鞨與句麗]同入北邊 取孤鳴等七城 進軍彌秩夫.〈今興海〉 我軍與百濟 · 伽耶援兵 分禦. 破之泥河西. …(중략)… 伽耶在南 自脫解王以後 屢侵南鄙. 祗摩王親征 渡黃山河〈今梁山〉 遇伏兵. 眞興金王 二十三年 討降之. 金官國〈今金海〉 法興金王時 來降.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군 · 삼한에 대한 설명은 당신의 주장에 실로 근거가 있다. 사군의 앞에 창해군(滄海郡)이 있었고, 사군이 2군으로 합쳐진 뒤에는 다시 2부가 있었으며, 대방(帶方) · 창려(昌黎) · 요동(遼東) 등 여러 군(郡)에 미치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쌍성총관(雙城總管), 동녕부(東寧府), 철령위(鐵嶺衛) 웅진(熊津) 5부에 미쳤다. 삼한 뒤에는 또한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있었고, 삼국 뒤에는 또 고려가 있었으며, 북쪽 경계는 아조(我朝)[조선]가 또 개척하였다. 부군(府郡)의 연혁과 삼국의 경계를 모두 훑어볼 수 있는가?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중략)… 신라의 거서간(居西干)〈진국(辰國)의 말로 왕이다〉 혁거세(赫居世)는 성이 박씨이고 한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진한 땅에서 일어나 6부가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 19년에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니, 즉 지금[조선]이 경상도이다. ….(중략)… 소지김왕(炤知金王) 3년에 [말갈과 구려(句麗)가] 함께 북쪽을 침범하여 고명(孤鳴) 등 7개 성을 빼앗고 미질부(彌秩夫)〈지금의 흥해(興海)〉로 진군하였다. 우리[신라] 군사가 백제 · 가야의 원병과 함께 나누어 지켜 이하(泥河)의 서쪽에서 격파하였다. …(중략)…가야는 남쪽에 있다. 탈해왕 때로부터 남쪽 변경을 자주 침략하였다. 지마왕이 친정하였는데, 황산하(黃山河)〈지금의 양산(梁山)〉를 건너다 복병을 만났다. 진흥김왕(眞興金王) 23년에 토벌하여 항복시켰다. 금관국(金官國)〈지금의 김해(金海)〉은 법흥김왕(法興金王) 때 와서 항복하였다.

或者曰 子之說然矣 夫餘 · 兩沃沮 · 挹婁 · 秣鞨 · 渤海 · 女眞 · 契丹 · 濊貊 · 長人 · 加耶 · 駕洛 · 州胡 · 耽羅之屬 皆與三韓 · 三國接境.皆可卞其界限歟.曰 …(중략)… 伽耶國在慶尙道. 金海本駕洛國 又號伽耶. 咸昌爲古寧伽倻 星州爲碧珍伽耶 高靈爲大伽耶 固城爲小伽耶 咸安爲阿那伽倻.〈勝覽〉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耶山 西南際大海 西北至智異山.〈高麗史〉 金海首露王 姓金氏 爲駕洛國主. 又有五人 各主五伽耶 乃新羅儒理王十八年也.〈勝覽〉 靈駕洛後改爲金官國.〈高麗史〉 首露王赴新羅婆娑王之召 決音汁伐 · 悉直谷兩國爭疆之事.〈三國史〉 傳國四百九十一 至九代孫亥仇 降于新羅法興王.〈高麗史〉 伽耶屢侵新羅南鄙 互相侵伐 殆無寧歲.奈解王時 伽耶請和 送王子爲質. 眞興王時 伽耶叛. 遣異斯夫討降之.〈三國史〉 盖金官. 伽耶 俱是嶺南南邊沿海一帶 而延及西陲智異山一帶矣. …(중략)… 大抵東方諸國 鴨綠江外 最北爲夫餘 其地橫亘遼東北傲之外 東與挹婁爲界. 次北爲高句麗 其地橫豆遼東之北徼 東與北沃沮爲界. 秦 · 漢之時 爲東夷部落 屬於朝鮮. 四郡旣開 玄菟旣徙 爲其屬縣. 朱蒙南奔 亦開國于其地 襲高麗之號. 遂有國與縣之別矣. 又次北爲眞番 其地在遼東之東北. 秦 · 漢以前 爲東夷小國 屬于朝鮮. 漢開四郡 爲眞番郡. 故前漢地理志云 上谷遼東 北隙〈隙際也〉 烏桓 · 夫餘 東賈眞番之利. 已上三域 俱係鴨綠之北矣. 稍南爲樂浪 其地在鴨綠之南. 朝鮮舊都橫亘鴨江之西 遼東地方. 其東北玄菟郡 乃兩沃沮之地 卽今之咸鏡南北道也. 其東南臨屯郡 乃穢貊之地 卽今之江原道嶺東西也. 後臨屯合樂浪 眞番合玄菟 玄菟更徙句麗西北 沃沮 · 穢貊俱屬樂浪矣. 故前漢志云 玄菟 ·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 穢貊 · 句麗 · 蠻夷. 次南爲帶方郡 乃割樂浪郡屯有縣以南荒地 而置之者. 其地自今 平安南界 黃海北境 橫亘遼東之南也. 已上俱係豆滿 · 鴨綠之南 轉及鴨水之西矣. 又其南爲馬韓 其地在漢江以南 以及忠淸 · 全羅道. 其東南爲辰韓 在今鳥 · 竹兩嶺以南. 辰韓之南爲卞韓 俱在今慶尙道. 至於三國時 則疆域漸變. 句麗漸徙而南 樂浪 · 帶方漸徙而西. 其末也 鴨江東南 樂浪之界 句麗盡有之矣. 新羅初起辰 · 卞之域 漸爲開斥 盡有辰 · 卞之地. 及其盛也 又得穢貊之地 侵及沃沮 · 樂浪之南界. 百濟起於馬韓之東北 盡有馬韓之地. 盖伽耶是卞韓之南鄙. 而耽羅則又是馬韓之極南徼外矣.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주장이 그렇다면, 부여(夫餘), 양옥저(兩沃沮), 읍루(挹婁), 말갈(靺鞨), 발해(渤海), 여진(女眞), 거란(契丹), 예맥(濊貊), 장인(長人), 가야(加耶), 가락(駕洛), 주호(洲胡), 탐라(耽羅)의 무리는 모두 삼한, 삼국과 경계를 마주하였는데, 그 경계가 미친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답

하여] 말하였다. …(중략)… 가야국(伽耶國)은 경상도에 있었다. 김해(金海)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으로 또는 가야(伽耶)라고 불렀다. 함창(咸昌)은 고녕가야(古寧伽倻)가 되고, 성주(星州)는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고령(高靈)은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은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은 아나가야(阿那伽倻)가 된다〈『승람』〉. 사방의 경계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에 이르고, 서남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에 이르렀다〈『고려사』〉. 김해 수로왕(首露王)은 성이 김씨이고, 가락국의 군주가 되었으며, 또 다섯 사람이 있어 각각 다섯 가야의 군주가 되었는데,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의 일이었다〈『승람』〉. 가락은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고려사』〉. 수로왕이 신라 파사왕의 부름으로 달려가 음즙벌(音汁伐) · 실직곡(悉直谷) 양국의 영토를 둘러싼 싸움을 판결하였다〈『삼국사』〉. 나라를 전한지 491년 만에 9대손 구해(仇亥)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였다〈『고려사』〉. 가야는 신라의 남쪽 변방을 자주 침범하여 서로 다투었으므로 편한 해가 거의 없었다. 나해왕때 가야(伽耶)가 화의를 청하고 왕자를 보내 인질로 삼았다. 진흥왕 때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이사부(異斯夫)를 보내 토벌하고 항복시켰다〈『삼국사』〉. 대개 금관(金官)과 가야(伽耶)는 모두 영남 남쪽 변방의 연해 일대로, 서쪽으로 곧장 가면 지리산 일대이다. …(중략)… 대체로 동방의 여러 나라는 압록강 밖으로 가장 북쪽이 부여인데, 그 땅은 옆으로 요동 북요(北徼)의 밖에 걸쳐 있고 동쪽으로는 읍루(挹婁)와 경계를 하였다. 다음 북쪽은 고구려인데, 그 땅은 옆으로 요동의 북요(北徼)에 걸쳐 있고, 동쪽으로는 북옥저(北沃沮)와 경계를 하였다. 진(秦) · 한(漢)의 때에는 동이(東夷) 부락이 되어 조선(朝鮮)에 속했으며, 사군이 열리고 현도가 옮겨오자 그 속현(屬縣)이 되었다. 주몽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그 땅에 나라를 열고 고려라는 이름을 이었으니, 마침내 국(國)과 현(縣)의 구별이 생겼다. 또 그 다음 북쪽은 진번(眞番)인데, 그 땅은 요동의 동북쪽에 있었다. 진 · 한 이전에는 동이(東夷)의 소국(小國)으로 조선에 속하였으며, 한나라가 사군을 열자 진번군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전한서(前漢書) 지리지에서 이르기를 상곡(上谷), 요동(遼東)이 있고, 북쪽으로는 오환(烏桓), 부여(夫餘)와 사이〈극(隙)은 際(사이)이다〉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진번의 이익을 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 지역(부여, 고구려, 진번)은 모두 압록강의 북쪽에 있었다. 조금 남쪽은 낙랑인데, 그 땅은 압록강의 남쪽에 있었다. 조선의 옛 도읍은 옆으로 압록강의 서쪽 요동지방에 걸쳐 있었고, 그 동북쪽은 현도군으로 곧 양 옥저의 땅이니 지금[조선]의 함경남 · 북도이며, 그 동남쪽은 임둔군으로 곧 예맥의 땅이니 지금의 강원도 영동, 영서이다. 뒤에 임둔이 낙랑에 합해지고, 진번이 현도에 합해졌으며, 현도는 다시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지고,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소속되었다. 이 때문에 『전한서』 지리지에서 이르기를 "현도와 낙랑은 무제(武帝) 때 설치되었다. 모두 조선, 예맥, 구려(句麗)[고구려] 만이(蠻夷)이다."라 하였다. 다음 남쪽은 대방군(帶方郡)인데, 낙랑군 둔유현(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쪼개어 설치한 것이다. 그 땅은 지금[조선] 평안도 남계, 황해도 북경(北境)으로부터 옆으로 요동의 남쪽에 걸쳐 있었다. 이상은 모두 두만강과 압록강의 남쪽에 있었으며, 압록강의 서쪽에 이른다. 또 그 남쪽은 마한인데, 그 땅은 한강 이남에 있으며, 충청 · 전라도에 이른다. 그 동남은 진한인데, 지금[조선]의 조령과 죽령 이남에 있었다. 진한의 남쪽은 변한으로, [진한과 변한은] 모두 지금[조선]의 경상도에 있었다. 삼국 때에 이르면 강역이 점차 변하여 구려(句麗)는 점점 남쪽으로 옮겼고, 낙랑과 대방은 점점 서쪽으로 옮겼으며, 그 말기에는 압록강 동남쪽 낙랑의 영역을 구려가 모두 차지하였다. 신라는 처음에 진한과 변한의 영역에서 일어나 점차 영역을 넓혀 진한과 변한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으며, 전성함에 미쳐서는 예맥의 땅까지 차지하고 옥저와 낙랑의 남쪽까지 침략하였다. 백제는 마한의 동북쪽에서 일어나 마한의 땅을 다 차지하였다. 무릇 가야는 변한의 남쪽 변방이었고, 탐라(耽羅)는 마한의 가장 남쪽 변방이었다.

或者曰 子之論諸國疆域 可謂詳矣. 諸史 · 諸家之差謬處若不指摘論之 恐誤後學.幸爲我悉陳之. 曰 諸史 · 諸家互有得失 難以縷指. 而其大段逕庭處 則亦可以言之矣. 其所得失 旣論於各條之下 而撮而言之. …(중략)… 崔孤雲之以馬韓爲麗 以卞韓爲濟. 權陽村之以卞韓爲麗之失 旣已論之. 三國史 · 勝覽取孤雲之說. 而金富軾則 於百濟本紀載馬韓與溫祚 以熊川栅爲界之事 而地志則取孤雲 自相逕庭.盖本紀則從古紀 而地志則自爲說故也. 勝覽用孤雲說

以全羅道係卞韓 以黃海 · 京畿 · 忠淸道係馬韓 以平安道則亦不敢係于馬韓. 盖平壤爲三朝鮮都 舊跡甚明 故不敢拖引 亦不得純用孤雲. 而終不悟四郡 · 三韓之各異其域. 可謂惑之甚者矣. 東國通鑑及纂要 從陽村說. 徐居正一人參修通鑑及勝覽 而兩書皆編於我成宗十六年 宜無異同. 而其辟戾 至此 何歟. 無乃旣無主一之的見 故未免牽於衆說 而東傾西不正耶. 鄭慶欽東輿攷 棠州郡地理 專用勝覽. 而三韓圖則 置馬韓於京畿 註以已上 皆馬韓舊地 此以平安道屬馬韓 而忠淸以下則 皆屬卞韓矣.然而益山金馬國則 又註以箕準. 鄭公亦無定見故也. 勝覽地理 皆從三國史地志而訛謬處亦多. 如成川之沸流水 · 紇骨城 寧邊之優渤水 · 荇人國 可以擧隅 而見其餘也 最是. 孤雲 · 陽村之博識多聞 豈不及於後人.而未知南自南 北自北. 意者 東方文獻不足徵 而中原全史 其時未及 盡爲東來 故見聞不足而然耶. 韓久庵生於數千載之下 的然知四郡在北 三韓在南. 而其論三南界分不差 可謂攷之詳而見之卓也. 然言馬韓從箕準而始 似襲東史之舊. 至論四郡頗疎 謂眞番必在平壤西之地. 是又欠照管處也. 眞番本在鴨江之北 而北沃沮陟絶北入 與眞番地勢正相等. 玄菟初治沃沮城 故與之相合 後徙高句麗西北 亦與眞番地界相連矣.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여러 나라들의 강역을 설명하는 것은 자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서와 여러 학자들이 어긋난 곳을 지적하지 않고 말한다면 후학들이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를 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러 사서와 여러 학자들은 서로 잘잘못이 있어 세세하게 지적하기는 어렵고, 크게 틀린 곳은 말할 수 있다. 그 잘잘못은 각 조 아래서 이미 논하였으므로 모아서 말하겠다. …(중략)… 고운 최치원의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변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것과, 양촌 권근의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은 이미 논하였다. 『삼국사기』와 『승람』은 고운의 설을 받아들였는데, 김부식은 백제본기에 마한과 온조가 웅천책(熊川柵)으로 경계를 삼은 일을 싣고는 지리지에서 고운[의 설]을 받아들여 스스로 어긋났다. 대개 [백제]본기에서는 고기(古紀)를 따르고, 지리지에서는 스스로의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승람』은 고운의 설을 써서 전라도를 변한(卞韓)에 연결시키고 황해 · 경기 · 충청도를 마한에 연결시켰으나, 평안도는 감히 마한에 연결시키지 못하였는데 대개 평양이 세 조선의 도읍으로 옛 흔적이 너무도 명백하여 감히 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이 때문에 고운의 설을 순전히 사용하지 못하였고 끝내 사군과 삼한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미혹됨이 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과 『찬요(纂要)』는 양촌의 설을 따랐다. 서거정(徐居正) 한 사람이 『통감』과 『승람』을 지었는데, 두 책은 모두 우리[조선] 성종 16년에 편찬되어 차이가 없어야 마땅한데도 그 어그러짐이 이와 같으니 어찌된 일인가? 주가 되는 하나의 견해가 없으므로 여러 사람의 견해에 끌려 다니는 것을 면치 못하고 동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경흠(鄭慶欽)의 『동여고(動輿攷)』에서 포주군(宲州郡)의 지리(地理)는 『승람』의 것을 그대로 썼는데, 삼한도(三韓圖)는 마한을 경기(京畿)에 두고 주를 달기를 이상은 모두 마한의 옛 땅이다. 이로써 평안도는 마한에 속했고, 충청 아래는 모두 변한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익산(益山) 금마국(金馬國)은 또 기준(箕準)으로써 주를 달았으니, 정공 역시 정해진 주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승람』의 지리(地理)는 모두 『삼국사(기)』의 지리를 따랐으므로 잘못된 곳이 역시 많다. 성천(成川)의 비류수(沸流水), 흘골성(紇骨城)이나 영변(寧邊) 우발수(優渤水), 행인국(荇人國) 같은 것들은 가히 우반(隅反)으로 들 만하며, 그 나머지를 보아도 모두 그러하다. 고운과 양촌의 박식 다문(多聞)한 것이 어찌 뒷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남쪽은 남쪽이고, 북쪽은 북쪽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으니,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문헌에 근거가 부족하고 중국의 사서[中原全史]들은 그 시기가 미치지 못하여 동쪽으로 건너왔으므로 견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구암(久庵) 한백겸은 수천 년 뒤에 태어났지만 사군이 북쪽에 있었고, 삼한이 남쪽에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삼남(三南)의 경계를 나눈 것이 틀리지 않아 자세하게 고찰한 탁견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마한을 말하면서 기준(箕準)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마 『동사(東史)』의 구태를 이어받은 것이고, 사군에 대한 설명이 매우 소략하며, 진번이 평양 서쪽에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살핌이 부족한 대목이다. 진번은 본래 압록강[鴨江]의 북쪽에 있었고, 북옥저(北沃沮)가 척절(陟絶)하여 북쪽으로 들어가 진번과 지세(地勢)가 비슷해졌다. 현도는 처음에 옥저성(沃沮城)을 다스렸으므로 [진번과] 서로 마주했는데 뒤에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 진번 경계와 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或者曰 子敍諸國必列 陳隣境 以見其四至.比亦一法也. 至於物產之有無 風俗之同異 政敎之沿革 亦可見境土之離合 古今之傳襲. 此不可謂無關於疆域之辨. 其散見於諸史者 亦可擧其槪 而論說耶. 曰 語太繁則傷支 請略言之 自南而北 從古及今. 大抵馬韓知田蠶 作綿布. 大栗如梨. 有長尾鷄. 邑落雜 無城郭. 作土室 形如塚 開戶在上. 無長幼男女之別. 不知拜跪之禮. 不貴金寶錦罽 唯重瓔珠以綴衣 或懸頸垂耳. 皆魁頭露紒 布袍草履. 其人壯勇 有所作力 輒繩貫脊皮 唱呼爲健. 每稼穡畢 祭鬼神 晝夜酒會 群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蹋地爲節. 各以一人主祭天 號爲天君. 又立蘇塗 有似浮屠. 其南界近倭 男子亦有文身者. 其北方近郡 差曉禮俗 不知騎乘牛馬. 牛馬盡於送死. 辰韓土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以鐵爲貨 穢 · 馬韓皆市之. 有城柵屋室. 諸邑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儉側次有樊秖 次殺奚 次邑借. 其名物有似秦語. 其俗嫁娶以禮 男女有別 乘駕牛馬 行者讓路. 又喜歌舞飮酒鼓瑟. 兒生便以石壓頭欲其扁. 以大鳥羽送死.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卞韓與辰韓同 祭祀鬼神有異. 作廣幅細布. 其人形長大美髮. 用法嚴峻.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已上據後漢書 · 三國志〉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국경을 나란히 하였음을 차례로 서술하여 그 사방이 이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물산(物產)의 유무와 풍속의 같고 다름(同異),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의 연혁 또한 영토가 붙고 떨어지는 것과 예부터 지금까지 전승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강역을 변증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서들에서 산견되는 것들이 또한 그 대강을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말이 너무 번거로우면 가지를 치고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다. 대개 마한은 밭 갈고 누에 치기를 알며 면포(綿布)를 만들었다. 큰 밤[栗]은 배[梨]만 하고 꼬리가 긴 닭이 있었다. 읍락에 뒤섞여 살았고, 성곽(城郭)은 없었으며, [집은] 흙 방[土室]을 만들었는데 모양은 무덤과 같았고 문은 윗부분에 있었다. 장유(長幼)와 남녀의 구별이 없었으며, 한 무릎을 꿇어 절하는 궤배(跪拜)하는 예의를 알지 못하였다. 금보(金寶)와 비단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단지 구슬[瓔珠]을 중히 여겨 옷에 꿰매 달기도 하고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달기도 한다. 모두 머리칼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그 사람들은 힘세고 용감하며, 일을 할 때에는 등가죽을 뚫어 밧줄로 묶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건장한 것으로 여긴다. 매년 씨뿌리고 거두는 것을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무리가 모여 노래하고 춤춘다. 춤은 수십 명이 서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가락을 맞춘다. 각기 한 사람이 제천을 주관하는데, 이름하여 천군(天君)이라 한다. 또 소도(蘇塗)를 세웠는데, 부도(浮屠)와 비슷하다. 그 남쪽 경계는 왜와 가까워 남자들은 문신을 한 사람도 있다. 그 북방은 군(郡)에 가까워 그런 대로 예속을 깨달았다. 소와 말을 탈줄 모르기 때문에 소와 말은 모두 장례에만 사용한다. 진한은 토지가 오곡에 적합하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심기를 알아 비단[縑布]를 만들었다. 철(鐵)로써 화폐를 삼아 예(濊)와 마한이 모두 사갔다. 성책(城柵)과 옥실(屋室)이 있었다. 여러 읍에는 각각 거수가 있었는데, 큰 것은 신지(臣智)라 하였고, 그 다음은 검측(儉側), 그 다음은 번지(樊秖), 다음은 살해(殺奚), 다음은 읍차(邑借)라 하였다. 그 사물의 이름이 진나라 말과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 풍속에 혼인은 예로써 하였고, 남녀의 구별이 있었으며, 소와 말을 타고 다니며 길에서 만나면 길을 양보하였다. 또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고 북치고 비파 타기를 좋아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들었고, 큰 새의 깃털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보전(步戰)을 잘하였고, 무기[兵仗]는 마한과 같았다. 변한은 진한과 같지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는 차이가 있었다. 폭이 넓은 세포(細布)를 만들었으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장대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법을 쓰는 것이 엄준하였다. 그 나라는 왜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문신을 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이상은 『후한서』와 『삼국지』에 의거하였다〉

사료23 『강계고』 제2 삼한 마한 | 『疆界考』 第二 三韓 馬韓

附三韓地分諸說. 崔文昌侯致遠上唐侍中書 馬韓則高句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 權陽村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之亂浮海而南 開國號馬韓. 至百濟溫祚立 遂並之. 今之益州有古城 人稱箕準城 馬韓之爲

百濟 無疑矣. 辰韓 新羅始祖赫居世所起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漢之樂浪郡 則卞韓之爲高句麗 無可疑. 後漢書爲 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卞韓在南者 盖自漢界遼東之地而云耳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也. 崔致遠因謂 馬韓麗也 卞韓濟也. 誤矣. 東國史 馬韓今全羅地. 辰韓今慶州. 卞韓一作弁 今平壤. 輿地勝覽 京畿 故馬韓之域. 黃海道 馬韓 · 朝鮮舊地. 忠淸道 故弁韓之域. 全羅道 本弁韓之地. 慶尙道 本辰韓之地.
〈부(附)〉삼한지분제설(三韓地分諸說). 문창후 최치원이 당나라 시중에게 올린 글에 마한이 곧 고구려이고, 변한(弁韓)이 곧 백제이고, 진한이 곧 신라라고 하였다. 양촌 권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한에 대한 설들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 준(準)이 위만(衛滿)의 난리를 피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하였으며, 백제 온조가 즉위하여 마침내 병합하였는데, 지금[조선] 익산(益山)에 옛 성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이라 부르니, 마한이 백제가 되었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진한은 신라 시조 혁거세가 일어난 땅이다. 『신당서』에서 변한(卞韓)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고, 또 평양이 옛 한나라의 낙랑군이라 하였으므로 변한(卞韓)이 고구려가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후한서』에 변한(卞韓)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한나라 경계인 요동 땅으로부터 말한 것일 뿐으로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최치원이 말한 대로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는 것은 잘못이다. 『동국사(東國史)』에서 마한은 지금의 전라도 땅이고, 진한은 지금의 경주이며, 변한(卞韓)은 변(弁)으로도 쓰는데 지금의 평양이라고 하였다. 『여지승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기는 옛 마한의 영역이고, 황해도는 마한, 조선의 옛 땅이고, 충청도는 옛 변한(卞韓)의 영역이고, 전라도는 본래 변한(卞韓)의 땅이었고, 경상도는 본래 진한의 땅이었다.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高麗金富栻地理志 亦以致遠之論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弁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及金敬叔〈九容〉編周官六翼 敍三韓 則云高句麗並樂浪 百濟並馬韓 · 帶方. 至敍三國 則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卞韓. 一人之言 自相矛盾何足道哉. 逮本朝 權近與李詹 修東國史略 乃斷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 而爲是論 以亂千載已定之論 何也. 反覆攷中國史及東史.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 意者 馬韓王都 密近於弁韓 而東北則與新羅 · 秣鞨 · 沃沮等封疆相接. 其後高句麗東明王 起於樂浪 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 以此也. 後漢書載 弁韓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曰 弁韓雜居 不曰弁韓 而曰弁辰. 可知二韓之相隣附也. 新羅赫居世十九年 卞韓以其國來降. 其後百濟滅馬韓 兵力強盛 蠶食新羅卞韓舊地. 智異山以西盡爲所並. 後人稱濟爲卞韓者 以此也. 乃何近惑於金馬平那之說 言胃馬韓在百濟封疆之中 遂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者 盖言卞韓之系 出自樂浪耳. 金富軾猶謂非實錄 近顧乃引以爲證 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盖自漢界遼東而云爾 非謂卞韓在辰馬二韓之南也. 信如是 則其所云馬韓在西者 亦可謂之遼東之西乎. 周官六翼記高麗世祖說弓裔之言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占松嶽. 註云今西京 古之卞那京 故曰卞韓. 此尤謬妄. 以卞韓爲西京則朝鮮更指何地. 後日 裔之用兵 自羅州始 則世祖所謂卞韓 指百濟也 審矣.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名卞韓. 今平壤有馬邑山 扶安縣有邊山 則遺事之云 恐或有徵.
마한(馬韓)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辰韓)이 신라로 되고, 변한(卞韓)이 백제로 되었으니, 이미 최치원이 의논을 정한 바 있다. 고려 김부식의 지리지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다. 그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김경숙(金敬叔)〈구용(九容)〉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함에 삼한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구려는 낙랑(樂浪)을 병합하였고, 백제는 마한과 대방(帶方)을 병합하였다."고 하였고, 삼국에 대해 서술하기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고구려가 마한이고, 백제가 변한이다."라 하였으니, 한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되어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본조[조선]에 이르러 권근과 이첨

(李詹)이 『동국사략』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다고 단정하였는데, 권근 근세의 대유(大儒)로서 이 같은 주장을 하여 천년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중국사 및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번 살펴보니 마한이 가장 커서 54국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지금 익산(益山) 이남은 54국을 받아들일 만한 땅이 없다. 생각하건대, 마한의 왕도는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북쪽은 신라, 말갈, 옥저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으며, 그 뒤에 고구려 동명왕이 낙랑에서 일어나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한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한(弁韓)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변한은 [진한과] 섞여 산다고 하였다. 변한이라 하지 않고 변진(弁辰)이라 하였으니 변한과 진한이 서로 붙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卞韓)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고, 그 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신라의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百濟)를 변한(卞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권근은 금마와 평나의 설에 미혹되어 마한이 백제의 영역 안에 있다 하고는 [마한을] 백제로 여긴 것일까? 또 『당서』에서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卞韓)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김부식은 오히려 실록(實錄)이 아니라 하였는데, 권근의 논의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苗裔) 두 자를 빼고는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에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漢)나라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부터 말한 것일 뿐이고,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서 말한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주관육익』에서 기록하기를 고려 세조(世祖)가 궁예(弓裔)를 설득하면서 대왕께서 만일 조선과 숙신(肅愼) 그리고 변한 땅의 왕이 되시려면 송악(松岳)을 먼저 차지하는 것 만한 일이 없습니다고 하였다하고, 주(註)에서 지금[고려]의 서경(西京)은 옛날의 변나경(卞那京)이므로 변한(卞韓)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변한을 서경이라고 한다면 조선은 또 어느 땅을 가리키겠는가? 뒷날 궁예가 전쟁을 한 것이 나주에서 시작되었으니, 세조가 말한바 변한은 백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는 까닭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땅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는 까닭에 변한(卞韓)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지금[조선]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고, 부안현(扶安縣)에 변산(邊山)이 있으니, 『삼국유사』의 기록이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韓久庵曰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檀君與堯幷立 歷箕子 暨衛滿 分以爲四郡 合以爲二府. 與高朱蒙迭爲盛衰 東晉以後 高氏遂並其地 是爲高句麗也. 其南乃二韓之地也. 漢初 箕準爲衛滿所逐 浮海而南 至韓地金馬郡 稱爲韓王 是爲馬韓. 秦之亡人 避役入韓 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有弁韓 爨於辰韓. 各有漢書云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地方 一已詳矣. 新莽元年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 爲辰韓六部民所推戴 而新羅始焉. 弁韓前史雖不言其所傳 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 據有辰韓之南界. 其後入於新羅. 疑此爲卞韓之地.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攙入. 雖其界限不知的在何處 恐不出於 漢南一帶也. 崔致遠所謂 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 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卞韓 此再誤也. 自是以後 作史之家 承訛襲謬 不復就其地 而覈其實. 遂將一區三韓之地 左牽右引 紛紘錯雜 至今數千年間 未有定說可勝歎哉. 何以明其然也. 當三韓時 本國雖無文字 兩漢書皆有列傳 試以年代上下 · 地界遠近求之. 漢武帝元封三年 討朝鮮王右渠 遂定其地. 以朝鮮縣爲樂浪郡東暆縣爲臨屯郡 霅縣爲眞番郡 沃沮城爲玄菟郡 而高句麗爲玄冕屬縣是爲四郡. 朝鮮縣今之平壤 東暆縣今之江陵 沃沮城今之咸鏡道 高句麗今之平安道江邊一帶. 此則皆有可據之書不可誣也. 霅縣郡雖不詳其所在 當昭帝合四郡爲二府也 以樂浪 · 臨窀 合爲東府都督府 以玄菟 · 平那 合爲平州都督府. 樂浪 · 臨奄之間 黃海 · 江原 · 京畿左道地界固已相接矣. 平那卽眞番之別稱.玄菟 旣不可跨越樂臨 窀千里之地 而與下三道合 則所謂霅縣 其必在於西北與玄冤附近之地 可知. 然則 四郡 · 二府之界限 其止於此 明矣. 又

何時爲卞韓或馬韓耶. 漢書云 卞韓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卞韓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同. 其稱卞韓必曰辰卞則卞韓之於辰韓 必爲附庸 而不相懸遠 可知.

한구암(韓久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북쪽은 본래 3조선의 땅으로 단군이 요임금과 병립하였고, 기자(箕子)를 거쳐 위만(衛滿)에 이르러 4군으로 갈라졌다가 2부(二府)로 합쳐졌으며, 고주몽(高朱蒙)과 더불어 성쇠를 갈마 들었는데 동진(東晉) 이후 고씨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것이 고구려이다. 그 남쪽은 곧 삼한의 땅이다. 한(漢)나라 초에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쫓겨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한(韓)의 땅인 금마군(金馬郡)[전북 익산]에 이르러 한왕(韓王)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이 마한이다. 진(秦)나라에서 유망한 사람들이 부역을 피해 한(韓)으로 들어오자 한이 동쪽 땅을 떼어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다. 또 그 남쪽에 변한이 있었는데, 진한에 속하였으며, 각기 거수(渠帥)가 있었다. 『한서』에서 이르기를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삼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매우 자세하다. 신(新)나라 왕망(王莽) 원년(9년)에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가 흥기하였고,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 6부(六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신라가 시작되었다. 변한(弁韓)은 앞의 사서들이 그 전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이 가락(駕洛)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진한의 남쪽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 신라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변한(弁韓)의 땅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남쪽은 남쪽대로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있어서 본래 서로 뒤섞이지 않았으며, 비록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한강 남쪽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치원이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다 라 말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되었음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은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로부터 이후 역사가들이 오류를 답습하여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드디어 한 구역인 삼한의 땅이 좌우에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지럽게 뒤섞이게 되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정설이 없으니, 안타깝다. 무엇으로 그것을 밝힐 것인가. 삼한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었으나 『한서』와 『후한서』에 모두 열전(列傳)이 있어 연대의 상하와 경계의 원근을 밝혀 놓았다. 한 무제 원봉 3년(기원전 108년)에 조선왕 우거(右渠)를 토벌하고 마침내 그 땅을 평정하여, 조선현(朝鮮縣)으로 낙랑군(樂浪郡)을 만들고 동이현(東暆縣)으로 임둔군(臨屯郡)을 만들고 삽현(霅懸)으로 진번군(眞番郡)을 만들고 옥저성(沃沮城)으로 현도군(玄菟郡)를 만들고 고구려를 현도의 속현(屬縣)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4군(四郡)이다. 조선현은 지금[조선]의 평양이고, 도이현은 지금[조선]의 강릉이고, 옥저성은 지금[조선]의 함경도이고, 고구려는 지금[조선]의 평안도 강변(江邊) 일대이다. 이것들은 모두 근거할 만한 책이 있으니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삽현군은 비록 그 소재가 불확실하나 소제(昭帝)가 4군을 합쳐 2부를 만들 때 낙랑과 임둔을 합쳐 동부도독부(東府都督府)로 삼고, 현도와 평나(平那)를 합쳐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삼았는데, 낙랑과 임둔 사이에 황해 · 강원 · 경기좌도의 경계가 본래 서로 접해 있었으며, 평나는 곧 진번의 별칭이고 형도가 낙랑, 임둔에서 천리를 넘어가 하삼도와 합쳐질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삽현이란 반드시 서북쪽 현도 부근의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군, 2부의 경계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분명하니 또 언제 변한 혹은 마한이 되겠는가. 『한서』에 이르기를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변한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의복과 거처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한이라 칭할 것을 반드시 진변(辰卞)이라 하였으니, 변한이 진한에게 틀림없이 부용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又云 馬韓統五十四國 卞辰韓各統十二國.所謂國卽今之郡縣.合辰卞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當馬韓之半.以此見之 湖西 · 湖南 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卞辰二韓 又何疑乎.馬韓 歷四郡 · 二府 至新莽時 爲百濟.辰韓 亦歷四郡二府 至宣帝時 爲新羅.弁韓之於辰韓 始爲附庸終爲合屬.如上所云 則三韓又何時入中國 爲四郡二府哉.以是知四郡二府之自爲四郡二府 三韓之自爲三韓 而不相涉也.盖三韓僻在東海一隅 去中國最遠.雖堯舜揖遜 而聲化不

曁.楚漢交爭 而干戈不擾耕鑿 晏如長育子孫 別爲天地間一壽域.故西北避亂之民 多歸之 仍成村落 各以其本管名其居.慶州之得號樂浪 亦如辰韓之或名秦韓也.後人不知此二樂浪 因以平壤爲弁韓 何其誤哉.
또 이르기를 마한은 54개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을 거느렸다고 했는데, 이른바 국(國)이란 지금[조선]의 군현(郡縣)으로 진한과 변한을 합하면 겨우 24개국이 되어 마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아 호서와 호남이 합하여 마한이 되고 영남의 한 도(道)가 나뉘어 변한과 진한이 되는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마한은 4군, 2부를 거쳐 신나라 왕망 때 백제가 되었고, 진한은 역시 4군, 2부를 거쳐 선제(宣帝) 때 이르러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은 진한에 처음부터 부용하였다가 끝내 합속되었으니, 위와 같이 말한다면 삼한이 또 언제 중국에 편입되어 4군, 2부가 되었겠는가? 이것으로써 4군, 2부는 본래 4군, 2부이고, 삼한은 본래 삼한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대개 삼한이 동해의 구석진 땅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어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위를 양보하였어도 가르침이 미치지 않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웠어도 방패와 창이 생업을 어지럽히지 않아 편안히 자손을 길러 따로 천지간에 하나의 태평한 세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서북쪽에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고 각기 그 본관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의 이름을 붙였으니, 경주가 낙랑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진한(辰韓)의 지역이 진한(秦韓)이라고도 불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뒷사람들이 이 두 개의 낙랑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평양을 변한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東史會綱 三韓地界 諸家之言互相牴牾. 而勝覽攷據 最明今從之. 然其言亦不能無得失 而陽村之說 恐亦有不可全廢者. 竊謂 東方有朝鮮之地 又有三韓之地 混之則亂矣. 朝鮮之地 卽箕子舊邦 衛滿所據 而在漢爲四郡二府. 其地西南 與韓地相錯. 東北盡沃沮 · 肅愼.北極遼河 而玄冤所屬高句麗縣 則東明王初起之地也. 三韓之域 卽朝鮮以南之地. 而辰韓在東 今之慶尙道. 卞韓在南 當爲今之全羅道. 馬韓在西 而地方最大 當爲今之黃海 · 京畿 · 忠淸等地. 東史言 箕準避衛滿之亂 入海南奔 居韓地金馬郡. 國號馬韓. 金馬今之益山. 自平壤奔而入海 至于益山. 其路蓋自西海 歷今京畿 · 忠淸等地 而益山正今忠淸 · 全羅兩道之界 則箕準之國 卽馬韓之域. 而今黃海 · 京畿 · 忠淸等道 皆其地也. 百濟溫祚逃難南奔. 馬韓割東北百里之地界之. 溫祚 初都慰禮 今之稷山. 後徙漢山 今之南漢城. 於此京畿 · 忠淸等道之爲馬韓 益明矣. 漢書旣言 弁韓在南 又言 南與倭接 又言 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其爲今之全羅道地方 無疑.
『동사회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한의 경계에 대해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지만, 『동국여지승람[勝覽]』이 고찰한 논거가 가장 확실하므로 이제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그 말에도 잘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양촌(陽村)의 주장에도 또한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한다. 생각건대 동방(東方)에는 조선(朝鮮) 땅이 있고 또 삼한(三韓) 땅이 있다. 이것을 혼동하면 혼란스러워진다. 조선 땅은 바로 기자(箕子)의 옛 나라요, 위만(衛滿)이 근거하고 있었던 곳으로 한(漢)나라 때 4군, 2부로 되었다. 그 땅의 서남쪽은 한(韓)의 땅과 서로 뒤섞여 있었고, 동북쪽은 옥저(沃沮), 숙신(肅愼)에서 [경계가] 다하였으며, 북쪽 끝은 요하(遼河)였다. 현도(玄菟)에 소속된 고구려현은 동명왕(東明王)이 처음 일어났던 지역이다. 삼한의 경역은 바로 조선(朝鮮) 이남의 땅이다.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었으니 지금의 경상도이고, 변한(卞韓)은 남쪽에 있었으니 마땅히 지금의 전라도가 된다.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었는데 땅의 규모가 가장 광대하여 마땅히 지금의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등이 된다. 우리 역사[東史]에서는 기준(基準)이 위만(衛滿)의 남을 피해 바다로 들어가 남쪽으로 달아나 한(韓)의 땅인 금마군(金馬郡)에 거처하면서 국호를 마한(馬韓)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금마(金馬)는 지금의 익산(益山)이다. 평양으로부터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 익산에 이르렀으니, 그 경로는 아마도 황해도[西海]로부터 지금의 경기 · 충청 지역을 거쳤던 듯하다. 그런데 익산은 바로 지금[조선]의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이니 기준(箕準)의 나라는 바로 마한의 영역이며, 지금의 황해 · 경기 · 충청도 등이 모두 그 땅이다. 백제 온조왕(溫祚王)이 고난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자 마한이 동북쪽 백리 땅을 떼어 주어 경계로 삼게 하였다. 온조가 처음 위례(慰禮)

에 도읍을 정했으니 지금의 직산(稷山)이다. 뒤에 한산(漢山)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남한성(南漢城)이다. 여기에서 경기 · 충청도 등이 마한이었음이 더욱 분명하다. 『한서』에서는 이미 변한(弁韓)은 남쪽에 있다고 하였고, 또 남쪽으로 왜(倭)와 접해 있다고 하였으며, 다시 [변한은] 진한(辰韓)과 뒤섞여 살았는데 의복, 거처, 언어, 풍속이 같다고 하였으니, 그곳이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었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赫居世十九年卞韓以其國降于新羅. 馬韓王所云 辰卞二韓爲我屬國 比年不修職貢 是也. 故當時 稱馬韓爲西韓 稱新羅爲南韓.而樂浪地方 在箕氏爲已失之 邦在新羅 無降附之時.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侵新羅及境而還 是也.於此卞韓之不可爲平安道 又無疑矣.百濟旣滅馬韓 漸拓南地 今之全羅道地 盡爲其所據.於是 卞韓入於百濟 而新羅地界 則西南窮於智異山矣.高句麗東遷 旣並樂浪 益噬馬韓之地.今黃海 · 京畿.忠清等地 多爲麗濟分據.及其中葉 濟爲麗所困.文周王 移都熊川 今之公州.聖王 又徙泗沘 今之扶餘.百濟提封遂北短於馬韓 南長於卞韓矣.大抵 原其始而論之 麗得朝鮮 濟得馬韓 羅得辰弁.究其終而觀之 麗界馬韓 濟界卞韓 羅界辰韓.陽村徒見其始之馬韓爲百濟 而不究其終之 卞韓亦爲百濟.謂益山今在全羅道地 而遂以全羅道盡係馬韓 則卞韓無可指之處 不得不以屬之平安道. 而篤據新唐 書卞韓苗裔在樂浪之說 截去苗裔二字 而溱合於已說 以硬定難定之論. 其失不止以卞爲馬 亦以朝鮮混於韓地矣. 然要之 百濟始於馬韓 終於馬韓 則其以馬韓爲百濟 未可非也. 至於周官六翼 註 以西京爲卞韓 勝覽斥以朝鮮更指何地者 得之矣. 而勝覽却又引三國遺事 麗地自有馬邑山之 說而釋之 以平壤府有馬邑山 以證馬韓之爲麗 則朝鮮更指何地之斥 恐不得獨施於六翼也. 勝覽攷據三韓最明 而其以高句麗 爲起於樂浪 以平壤馬邑山 證馬韓 恐又失之.

혁거세(赫居世)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신라에 항복하였는데, 마한왕이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인데도 근래에 직공(職貢)을 닦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마한을 서한(西韓)이라 불렀고 신라를 남한(南韓)이라 불렀다. 그리고 낙랑지방은 기씨(箕氏) 때에 이미 잃어버린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 때에는 항복해 올 시기가 안되었다. 혁거세 30년(기원전 28년)에 낙랑인들이 신라에 침입하여 국경까지 이르렀다가 돌아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에 변한이 평안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점차 남쪽 땅을 개척하여 지금[조선]의 전라도 땅이 모두 [백제에게] 장악되었다. 이에 변한(卞韓)이 백제(百濟)로 들어가고 신라의 국경은 서남쪽으로 지리산(智異山)에 그쳤다. 고구려가 동쪽으로 옮기어 낙랑을 병합하고 게다가 마한 땅도 삼킴으로써 지금[조선]의 황해 · 경기 · 충청도 땅이 대부분 고구려와 백제에게 분할 점령되었다. [삼국] 중엽에 이르러 백제가 고구려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어 문주왕(文周王)이 도읍을 웅천(熊川)으로 옮겼으니 지금[조선]의 공주(公州)이며, 성왕(聖王)이 다시 [도읍을] 사비(泗沘)로 옮겼으니 지금[조선]의 부여(扶餘)이다. 백제의 영역은 북쪽 마한 지역은 줄어들고 남쪽 변한 지역은 커졌다. 대개 그 시초를 가지고 논한다면 고구려는 조선(朝鮮)을 얻었고 백제는 마한(馬韓)을 얻었으며 신라는 진한(辰韓)과 변한(卞韓)을 얻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놓고 보면 고구려는 마한을 경계로 삼았고 백제는 변한을 경계로 삼았으며 신라는 진한을 경계로 삼았다. 양촌(陽村)은 단지 처음에 마한이 백제였던 것만을 보았지 최종적으로 변한 역시 백제가 된 것을 살피지 않았다. 익산(益山)이 지금[조선] 전라도 땅에 있다면서 마침내 전라도를 모두 마한에 연계시켰기 때문에 변한으로 지목할 만한 곳이 없어 부득불 [변한을] 평안도에 속하게 하였다. 『신당서』에서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에 있다는 주장을 지나치게 믿어 묘예(苗裔)의 두 글자를 떼 내 버리고 기왕의 주장에 합치어 결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억지로 정하였다. 그 잘못은 변한을 마한이라 한 것에 그치지 않아 조선(朝鮮)을 한(韓) 지역과 혼동하였다. 그러나 요컨대 백제가 마한에서 시작하고 마한에서 끝났으므로 마한을 백제라 한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심지어 『주관육익』의 주(註)에서 "서경(西京)이 변한(卞韓)이다."라 한 것에 대해 『동국여지승람[勝覽]』에서 [그렇다면] 조선(朝鮮)은 어떤 지역을 가리킨단 말인가 라면서 지적한 것은 요체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삼국유사』에 고구려 땅에 마읍산(馬邑山)이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해석하면서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한이 고구려였다고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 지역을 가

리킨단 말인가 하면서 지적했던 것은 아마도 [요체를] 얻지 못한 채 오직 『주관육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동국여지승람』에서 삼한(三韓)에 대해 고찰한 근거가 가장 명확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낙랑(樂浪)에서 일어난 것과 평양 마읍산(馬邑山)을 가지고 마한(馬韓)이라 증명한 것은 아마도 잘못한 것인 듯하다.

按 漢置郡於朝鮮 · 濊貊 與三韓爲隣 而其經略之者詳. 故漢書所載 皆爲信文. 而三韓傳曰 馬韓在西 其北與樂浪南與倭接. 辰韓在東 其北與穢貊接. 弁韓在辰韓之南 其南亦與倭接. 夫樂浪 · 穢貊已詳於上 樂浪郡可考以知矣. 倭在今慶尙 · 全羅道之南 而海中島嶋 相連爲界. 與全羅之濟州接者 薩摩島也. 與慶尙之東萊接者 對馬島也. 先明乎樂浪 · 獩 · 倭界接處 則三韓地分 自可以明矣. 東儒之論三韓者 在昔不知三韓與朝鮮南北對峙 地自有別. 故常求三韓舊地於朝鮮之境 遂以羅濟麗 分配於三韓. 然而辰常不易 卞馬互換. 崔說 馬麗而卞濟可謂兩失. 權說 馬濟而卞麗 一是一誤. 粉耘不定 殆至數百年之久. 輿覽一書 始做三練於南 朝鮮於北 能得其大體. 而但以篤信崔氏之故牽引馬韓之邊幅 欲實麗濟之分占. 文辭渾淪 却晦本意 而其敍諸道 則以今京畿 · 黃海道 爲馬韓之地 以忠淸 · 全羅道 爲卞韓之地. 其敍諸郡 則以益山郡 爲馬韓所都. 夫忠全兩道旣盡爲弁 則益山一邑 在全羅之內 隔絶超越 何獨爲馬之有 而又況爲其國都乎. 言相矛盾之譏 恐不得獨施 於金敬叔也.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한나라가 조선과 예맥에 군현을 설치하여 삼한과 인접하게 되었고, [삼한을] 경략한 것이 상세하다. 그러므로 『한서』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있는 글이다. 「삼한전(三韓傳)」에 이르기를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그 북쪽은 낙랑, 남쪽은 왜와 접해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해 있고,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다. 그 낙랑과 예맥은 위에서 이미 상세하고, 낙랑군은 살펴서 알 수 있다. 왜는 지금[조선] 경상 · 전라도의 남쪽에 있었고, 바다 위의 섬들이 서로 이어져 경계가 되었는데, 전라도의 제주와 접한 것은 사츠마도[살마도(薩摩島)]이고 경상도의 동래(東萊)와 접한 것은 츠시마도[대마도(對馬島)]이다. 먼저 낙랑, 예, 왜와 경계를 접한 곳이 밝혀지니, 삼한의 위치는 저절로 분명해진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삼한을 논한 것은 옛날에는 삼한과 조선이 남북으로 대치하여 땅도 구별되었음을 몰랐기 때문에 삼한의 옛 땅을 조선의 영역에서 찾아 마침내 신라, 백제, 고구려를 삼한에 분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한은 언제나 고쳐지지 않았고, 변한(卞韓)과 마한은 서로 바뀌었다. 최치원의 설에서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고 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근의 설에서 마한이 백제이고 변한이 고구려라고 한 것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이다. 어지러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다. 『여지승람』 한 책에서도 처음에는 삼한을 남쪽에 두고 조선은 북쪽에 두어 능히 그 큰 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최치원을 굳게 믿었던 까닭에 마한의 가장자리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가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채우고자 하였으므로 문장이 분명치 않고 도리어 본 뜻을 어둡게 하였다. 여러 도(道)를 서술하면서 지금[조선]의 경기(京畿)와 황해도(黃海道)를 마한의 땅이라고 하고, 충청(忠淸) · 전라도(全羅道)를 변한(卞韓)의 땅이라고 하고, 여러 군(郡)을 서술하면서는 익산군(益山郡)을 마한이 도읍한 곳이라고 하였으니, 충청 · 전라 양도(兩道)가 이미 모두 변한이 되었는데 익산 한 읍만은 전라도 안에 있으면서 건너 뛰어 홀로 마한의 소유가 되었으며, 더욱이 그 국도(國都)가 되었겠는가. 말이 서로 모순된다는 나무람이 오직 김경숙(金敬叔)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且馬韓最大有五十四國 辰弁合二十四國 不及馬韓之半 而卞又屬於辰 則卞尤小矣. 今以全羅 · 忠淸爲卞 以慶尙爲辰 以京畿 · 黃海爲馬 則卞爲最大 辰爲次 馬爲尤小 可乎. 且忠淸爲卞 京畿爲馬 則是卞在馬之南 而非辰之南也. 漢書云 卞韓在辰韓之南者 何也. 馬之界止於京畿 則是卞隔其南 而不得與倭接也. 漢書云 馬韓南與 倭接者 何也. 慶尙全道爲辰則辰之界南 抵于海 是南與倭接 而不與弁接也. 漢書云 辰韓南與弁韓接 而不云與倭接者 何也. 京畿 · 黃海爲馬 則是馬之東非辰 而又穢貊也. 漢書云 馬韓在西 辰韓在東 而不云穢貊在東者 何也. 於穢傳云 西至樂浪 而不云西至馬韓者 又何也. 夫馬韓之爲百濟者 有信史. 而今之百濟 卽古之馬韓. 全忠在今爲百濟之地 則在

古自當爲馬韓之地矣. 卞韓爲新羅所並者 亦有信史. 而新羅全疆 不出於慶尙一道 則弁韓舊地 亦當不出於慶尙道內矣. 以全忠二道 謂百濟得之於馬韓 則其說順而有據. 得之於弁韓 則其說窘而無徵. 以卞韓舊地 謂在於慶尙道內則其勢節節皆合. 在於全忠二道 則其勢節節皆違而然 而輿覽 終不免牽制於崔氏卞韓爲百濟之說 會綱 又不免牽制於輿覽全忠爲卞韓之說. 雖其說後勝於刖漸入悟境 而皆不能細究漢書之旨矣. 必以全忠二道爲馬韓以慶尙一道爲辰卞. 而辰居北 弁居南然後 可以與漢書合焉. 愚則以韓久庵之說 爲三韓定論也.

또 마한이 가장 커서 54개국이 있었고, 진 · 변한은 합하여 24개국으로 마한의 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변(한)[卞(韓)]은 또 진한에 속하였으므로 변한이 더욱 작았다. 지금[조선] 전라 · 충청도를 변한으로 삼고, 경상도를 진한으로 삼고, 경기와 황해도를 마한으로 삼는다면 변한이 가장 크고, 진한이 다음이고, 마한이 가장 작으니 그럴 수 있는가? 또 충청도가 변한이 되고 경기가 마한이 된다면 변한이 마한의 남쪽에 있었지 진한의 남쪽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게 된다. [그렇다면] 『한서』에서 변한이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마한의 경계가 경기에 그친다면 변한이 그 남쪽에 끼어 있어 왜와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서』에서 마한이 남쪽으로 왜와 접했다고 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경상 · 전라도가 진한이라면 진한의 경계가 남쪽으로 바다에 막혔을 것이니, 남쪽으로 왜와 접하고 변한과는 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서』에서 진한의 남쪽은 변한과 접하였다고 하고, 왜와 접하였다고는 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겠는가. 경기와 황해도가 마한이라면 마한의 동쪽은 진한이 아니라 예맥(濊貊)이 된다. [그렇다면] 『한서』에서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었다고 하고는 예맥이 동쪽에 있었다고 하지 않은 것은 어찌하겠는가? 「예전(濊傳)」에서 서쪽으로 낙랑에 이르렀다고 하고는 서쪽으로 마한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은 것은 또 어찌하겠는가. 마한이 백제로 되었음은 믿을만한 사적(史籍)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의 백제는 곧 예전의 마한이니, 전라도와 충청도가 이제 백제의 땅이 되므로 예전에는 스스로 마땅히 마한의 땅이 된다. 변한(卞韓)이 신라에 병합되었음도 또한 믿을만한 사적이 있다. 그런데 신라의 전 영토가 경상도 한 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변한의 옛 땅 역시 경상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이 마땅하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백제라고 하고 그것을 마한에서 구한다면, 그 설은 순조롭고 근거가 있는 것이며, 변한에서 구한다면 그 설은 하는 궁색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변한의 옛 땅이 경상도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형세가 마디마디 마다 모두 합당하지만, 전라 · 충청 두 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형세가 마디마디 마다 모두 어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여지승람』은 끝내 최치원의 변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설에서 제약받기를 면치 못하였고, 『동사회강』 또한 『여지승람』의 전라 · 충청이 변한(卞韓)이 된다는 설에서 제약받기를 면치 못하였으니, 비록 그 설이 앞의 것들보다 낫고 점점 믿음의 경지에 들었다 하더라도 모두 『한서』의 요지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반드시 전라 · 충청 두 도를 마한으로 하고 경상도 한 도를 진한과 변한으로 하여 진한을 북쪽에 두고 변한을 남쪽에 두어야만 『한서』와 합치될 수 있다. 나는 구암(久庵) 한백겸의 설로써 삼한의 정론으로 삼는다.

渤海得卞韓之辨. 文獻通考 渤海盡得夫餘 · 沃沮 · 弁韓 · 朝鮮海北諸國. 東史會 綱渤海幅 員皆句麗舊境.概高氏之亡 狽南之地屬新羅 西北之地屬中國 東北之地盡入秫鞨 而鉄鞨爲渤海. 以此言之 麗境固自有弁韓矣. 却怪陽村不引此爲證 而苟且牽合弁韓苗裔在樂浪之說 何也. 然反覆玫詳中國文籍及東史所載 弁韓地分決無越在東北界之理. 豈東方別有二弁 韓耶. 東方地名 如二東啦 · 三帶方之類 甚衆. 渤海域內 所謂弁韓 恐亦此類. 且以弁韓苗裔在樂浪之說 細尋其文意 則似謂弁韓部種有入樂浪之域 而冒弁韓舊號者. 此則理 亦或然. 東儒一說 弁韓在今慶尙道內 則非渤海所統也. 或者 三韓皆自外來 馬韓從朝鮮來 辰韓從秦來 亦安知弁韓本在鴨綠之外 逐於山戎而來者耶.不然必記者之誤耳. 按 渤海得卞韓之說 或疑以弁韓人自南而北. 或疑以弁韓人自南而北. 或疑以弁韓人. 而一說概以弁韓有二也. 然而考郡國志及遼地志 渤海五京十二府 皆錄某國故地 而無弁韓. 其曰記者之誤 似是矣.

발해득변한지변(渤海得卞韓之辨). 『문헌통고』에 "발해(渤海)가 부여(夫餘), 옥저(沃沮), 변한(弁韓)과 조선(朝鮮) 바다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동사회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해의 강역[幅員]은 모두 고구려[句麗]의 옛 영토이다. 대개 고씨(高氏)가 망하고 패수(浿水) 남쪽의 땅은 신라에 속하고,

서북쪽의 땅은 중국에 속하고, 동북쪽의 땅은 말갈에 속하였는데, 말갈이 발해가 되었다. 이로써 말한다면 고구려의 영토에 본래 변한(弁韓)이 있었던 것인데, 도리어 이상하게 권양촌은 이것을 인용하여 증명하지 않고 구차하게 변한의 후예[苗裔]가 낙랑에 있다는 설을 끌어 맞추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중국의 문적과 우리나라 역사에 실려 있는 것을 반복해서 살펴보니, 변한의 땅이 결코 동북계를 넘어 있었을 리가 없으니, 설마 동방에 두 개의 변한이 따로 있었던 것인가? 동방의 지명에는 두 개의 동이(東暆)나 세 개의 대방(帶方) 같은 것들이 매우 많다. 발해 영역 안의 소위 변한이란 아마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변한의 후손이 낙랑에 있었다는 설을 가지고 그 글의 뜻을 세세히 살펴보면, 변한의 종족으로 낙랑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변한의 옛 칭호를 쓴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다면 이치가 또한 그러하다. 우리 유학자[東儒]의 일설(一說)에 변한이 지금[조선] 경상도 안에 있었다고 한 것은 발해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삼한이 모두 밖으로부터 왔으니, 마한은 조선으로부터 왔고, 진한은 진나라로부터 왔는데, 변한도 본래 압록강 밖에 있다가 산융(山戎)에게 쫓기어 온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발해가 변한을 차지했다고] 기록한 사람의 잘못일 것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발해가 변한(弁韓)을 차지했다는 설은 변한 사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든, 변한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고 생각하든 두 설은 대체로 변한이 두 개 있었다고 대강 짐작한 것이다. 그러나 「군국지(郡國志)」와 「요지지(遼地志)」를 살펴보면 발해의 5경(京), 12부(府)에 모두 어떤 나라의 옛 땅이라고 기록하였는데 변한은 없다. 그가 말하는, 기록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卞韓苗裔在樂浪地之辨. 唐書 卞韓苗裔在樂浪之地. 三國史 此傳聞非實錄也. 漢志 樂浪距洛陽東北五千里 註曰 屬幽州 故朝鮮國也. 則似與雞林地分隔絶. 按 卞韓苗裔在樂浪之說 權陽村 引以證卞韓之爲高句麗. 而拔去苗裔二字 已見譏於輿覽. 輿覽引以證卞韓之爲百濟 而謂溫祚之系出自東明. 反不合於文意. 會綱之說 最爲有理 而亦無可稽. 按 崔文昌上唐宰書 卞韓爲高句麗云. 唐人之聞於東人者如此 則將認樂浪爲卞韓故地 而以卞韓子 孫爲在樂浪者 宜矣. 抑或新羅在古亦稱樂浪 而卞韓降於新羅 則其子孫自當在於新羅. 唐書所謂樂浪 指新羅耶. 卞韓地分 新羅末猶不能詳 則宋祈之修唐書 其何以知之. 其懸聞錯載 亦非異事也.
변한묘예재낙랑지지변(卞韓苗裔在地樂浪之辨). 『당서』에 변한의 후손[苗裔]가 낙랑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소문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한지(漢志)」에 낙랑은 낙양(洛陽)에서 동북쪽으로 5천리 떨어져 있다고 하고, 주에서 말하기를 유주(幽州)에 속하였으며, 옛 조선국이라 하였으니, 계림의 땅과는 사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에 있다는 설은 양촌 권근이 끌어들여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는데, 묘예(苗裔) 두 글자를 빼버린 것이 이미 『여지승람』에서 책망을 받았다. 『여지승람』에서 [이 설을] 끌어들여 변한이 백제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온조의 계보가 동명(東明)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글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 『동사회강』의 설이 가장 이치에 맞고 또한 상고할 만한 것이 없다. 생각건대, 최치원이 당나라 재상에게 글을 올리면서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장차 낙랑을 변한의 옛 땅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니 변한의 자손이 낙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신라가 옛날에 낙랑이라고도 불렀는데, 변한이 신라에 항복하였으므로 그 자손이 자연히 신라에 있게 되었는데, 당서에서 말하는바 낙랑은 신라를 가리킨다. 변한이 차지한 땅은 신라 말에 이미 상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송기(宋祈)가 『당서』를 편찬하면서 그 무엇으로써 알았겠는가? 그 멀리 떨어진 데서 듣고 뒤섞어 실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료24 『강계고』 제3 신라국 강계 | 『疆界考』 第三 新羅國 疆界

『三國史』 新羅合弁韓爲國 西至智異 北至鷄立.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가 변한을 합병하여 나라가 되었는데, 서쪽은 지리산에 이르고 북쪽은 계립(鷄立)에 이르렀다.

加羅國 任羅國. 杜氏通典新羅傳 百濟征高麗 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至強盛 因襲加羅 · 任羅諸國〈三韓之地〉滅之. 按 加羅 · 任羅今不可考. 而三國史 新羅奈解王十四年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于克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以浦上八國侵伐及 所虜六千觀之 加羅盖近於浦上 而其國之不甚小 亦可知矣. 文獻通考 宋文帝元嘉三年 倭王珍遣使 自稱持節都督百濟新羅任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倭國王. 二十八年 宋加倭王濟 職如故. 順帝昇明二年 加倭王武 職如故.以任羅置於百濟新羅之下 諸觀之 任羅亦不小之國 而盖在南海之傍者也. 金官國〈初號駕洛 或作加落 又稱伽倻 後改爲金官. 駕洛記亦稱衝有〉 始祖王 姓金氏 諱首露. 至王九衡〈一作亥〉降于新羅.〈新羅王待以客醴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起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新羅儒理王十九年〉 止梁武帝中大通四年壬子〈新羅法興王十九年〉 凡十世歷四百九十一年. 古記 諸韓時 駕洛之地 亦無君長. 散居山海之間. 有九干爲其酋. 壬寅三月 脩禊忽見龜旨〈峰名〉有異氣.就得金盒. 啓視有六金卵. 浹旬皆化爲男子 形貌奇偉 衆皆驚異.推首生者爲主. 因姓金氏 以其首見 名首露.甲辰 築城營室. 餘五人 各有分地. 按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惱窒青裔二人. 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青裔爲首露王之別稱. 又釋順應傳 大伽倻國 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云. 與駕洛古記六卵之說有異 而皆不經矣. 檀君之育於熊. 東明之生於卵. 金蛙之出於鵾淵. 新羅三姓之始也 或白馬路拜 或神鵲鳴隨 或金櫃掛樹. 至於登諸史册 世以東人之 好荒誕譏之. 而中國亦有之. 自古創業之君 憑神欲著奇異 以聳人聽 而結衆心者 多焉. 澤畔神樞之哭 亦此類也. 以其終成大業 故謂之祥. 而若敗 則同歸於叢祠之孤鳴矣.

가라국(加羅國) 임라국(任羅國). 두씨(杜氏) 『통전』신라전에 백제가 고구려[句麗]를 치자 사람들이 군역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따르며 귀부해왔으므로 마침내 강성해졌으며, 그로 인해 가라(加羅)와 임라(任羅)의 제국(諸國)〈삼한의 땅〉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가라와 임라는 지금[조선] 고찰할 수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나해왕 14년(209년)에 포상의 여덟 나라[蒲上八國]가 가라를 침범하려고 하였으므로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太于]에게 명하여 가서 구원하도록 하니 여덟 나라의 장군을 공격하여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6천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포상의 여덟 나라가 침략해 왔다거나 포로가 된 사람이 6천명이라는 것으로 보면, 가라(加羅)는 대체로 포상(浦上)에 가깝고, 그 나라가 그다지 작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문헌통고』에 송 문제 원가 3년(426년) 왜왕 진(珍)이 사신을 보내와 지절 도독 백제 · 신라 · 임나 · 진한 · 모한 육국제군사 왜국왕(持節都督百濟新羅任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倭國王)을 자칭하였다고 하였고, [원가] 28년(451년)에는 송나라가 왜왕 제(濟)에게 전과 같은 직을 더해 주었으며, 순제 승명 2년(478년)에는 왜왕 무(武)에게 전과 같은 직을 더해 주었는데, 임라를 백제와 신라 아래에 둔 것을 본다면 임라(任羅) 역시 작지 않은 나라였고, 대체로 남해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다. 금관국(金官國)〈처음 이름은 가락(伽落)이라고 쓰기도 하며, 또는 가라(伽倻)라고 불렀다. 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가락기(駕洛記)에서는 충유(衝有)라고도 불렀다[亦稱衝有]〉 시조왕은 성이 김씨이고, 이름[諱]은 수로(首露)이다. 구형(九衡)〈해(亥)로도 쓴다〉왕이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였다〈신라왕이 객례(客禮)로써 대우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아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한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신라 유리왕 19년(42년)부터 양나라 무제 중대통 4년 임자〈신라 법흥왕 19년〉(532년)까지 모두 10세, 491년을 전하였다. 고기(古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한(韓)의 시기에 가락(駕洛)의 땅에는 역시 군장(君長)이 없고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아홉 간(干)이 있어 우두머리가 되었다. 임인년(42년) 3월에 계제(禊祭)를 지내는데 갑자기 구지(龜旨)〈산봉우리의 이름〉에 이상한 기운이 보이므로 나아가 금상자[金盒]를 얻었다. 열어서 보니 여섯 개의 금빛 알[金卵]이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자[浹旬] 모두 변화하여 남자가 되었으며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무리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가장 먼저 난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主]으로 삼았다. 이로써 성이 김씨이고 가장 먼저 나타났다 하여 수로(首露)라고 이름하였다. 갑진년(44년)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땅을 나누어 가졌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최치원(崔致遠)이 「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政見

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主日)과 금관국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또 「석순응전(釋順應傳)」에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최치원의 말은] 「가락고기(駕洛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차이가 있으니, [「석이정전」과 「가락고기」는] 모두 믿을만한 책이 아니다. 단군(檀君)이 곰에게 키워진 것, 동명(東明)이 알에서 태어난 것, 금와(金蛙)가 곤연(鵾淵)에서 태어난 것, 신라 3성(三姓)의 시작, 혹은 백마가 길에서 절하는 것, 혹은 신령스런 까치가 울면서 따르는 것, 혹은 금궤(金櫃)가 나무에 걸린 것이 여러 역사책에 실리기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당하고 허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비웃지만, 중국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있다. 예부터 나라를 세운 군주는 신기하고 괴이한 것을 가지고 기이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좇도록 하고 무리의 마음을 결집하는 일이 많았다. 택반(澤畔) 신구(神嫗)의 곡(哭) 역시 이러한 종류이다. 그 마지막에 대업을 이루었으므로 그것이 상서롭다도 말하는 것이지, 만일 실패하였다면 수목이 우거진 사당의 외로운 울음과 한가지로 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87년 임나국이 마한에 산호珊瑚를 바치다(?)

사료1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甲午〉孝王二十七年〈漢武帝後元二年〉任那國貢珊瑚 一本十餘枝. 王以爲瑞 獻于太廟.

〈갑오〉 효왕 27년〈한 무제 후원 2년(기원전 87년)〉 임나국이 10여 개의 가지가 있는 산호(珊瑚) 1개를 바쳤다. 왕이 상서롭게 여겨 태묘에 올렸다.

기원전 73년 임나대인을 임나군에 봉하다(?)

사료1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戊午〉襄王元年〈漢宣帝本始元年〉 封任那大人媚和辭突 爲任那君.

〈무신(戊申)〉 양왕 원년〈한(漢) 선제 본시 원년(기원전 73년)〉 임나대인(任那大人) 인화사돌(媚和辭突)을 임나군(任那君)에 봉하였다.

기원전 39년　변한이 신라에 항복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19년　|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十九年

赫居世居西干 十九年 春正月 卞韓以國來降

혁거세거서간 19년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사료2　**『삼국유사』** 권1 기이1 변한·백제　|　**『三國遺事』** 卷一 紀異一 卞韓·百濟

新羅始祖赫居世 卽位十九年壬午 卞韓人以國來降.

신라 시조 혁거세 즉위 19년 임오년에 변한인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사료3　**『삼국사절요』** 권1　|　**『三國史節要』** 卷一

〈壬午〉 新羅始祖十九年 〈漢永光五年〉 春正月 卞韓以其國來降.

〈임오[년]〉 신라 시조 19년 〈한(漢) 영광 5년(기원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사료4　**『동국통감』** 권1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一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壬午〉 新羅始祖十九年 〈漢永光五年〉 春正月 卞韓以其國來降.

〈임오[년]〉 신라 시조 19년 〈한 영광 5년(기원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사료5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삼한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一 三韓

至新羅始祖十九年〈漢永光五年〉 以其國來降.

신라 시조 19년〈한 영광 5년(기원전 39년)〉에 이르러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사료6　**『제왕역년통고』**　|　**『帝王歷年通攷』**

中國 漢高帝〈乙未〉元年 〈丙午〉十二年 東國 箕子四十一代孫 準 避衛滿南奔 爲馬韓. 中國 元帝〈壬午〉永光五年 東國 弁韓降新羅〈一百五十六年〉

중국 한 고제〈을미[년]〉원년(기원전 206년) 〈병오[년]〉12년(기원전 195년) 동국 기자 41대 손자 준이 위만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 마한이 되었다. 중국 원제〈임오[년]〉 영광 5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신라에 항복했다〈(기원전 195년) 성립부터 이때(기원전 39년)까지 156년이었다〉

사료7　**『제왕역년통고』** 동방국도고　|　**『帝王歷年通攷』** 東方國都考

弁韓亦以馬韓人作主 新羅始祖十九年來降. 蓋一百五十六年〈所都未的何地〉〈按漢書云 馬韓在西 辰韓在東 弁韓在辰韓之南 與倭接. 又曰 弁韓與辰韓雜居 城郭 · 衣服皆同. 則弁韓在 辰馬二韓之間 而南濱海 可知矣. 且新羅始祖十九年 而來降 則其地之相近 亦可知矣. 近世韓久庵百謙以爲 首露所起之地 疑卽弁韓. 所居者爲近之 而首露所起之地 乃今金海也. 去辰韓逌近 未知其果是與否. 而蓋在今嶺南右道南邊 則的然矣也. 昔之人 或以爲高句麗 或以爲百濟者 恐皆未得其詳也.

변한 또한 마한인으로 주를 삼았는데 신라 시조 19년에 항복해 왔다. 대개 156년이었다〈도읍한 곳은 어디인지 확실치 않다〉〈『한서』를 살펴보면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변한(弁韓)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변한은 진한과 섞여 사는데 성곽 · 의복 모두가 같다. 곧 변한은 진한

과 마한 2한 사이에 있으며 남쪽으로 바다에 접해 있다고 했으니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시조 19년에 와서 항복했다 했으니 그 땅이 서로 가까웠음 역시 알 수 있다. 근세에 구암 한백겸은 수로(首露)가 일어난 땅이 변한(弁韓)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거처한 곳 가까운 곳에 일어난 곳이 있으니 수로가 일어난 땅은 지금의 김해(金海)이다. 진한(辰韓)과 매우 가까우니 과연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개 지금 영남우도의 남쪽 변경임은 확연하다. 옛사람들이 혹은 고구려라 하고, 혹은 백제라 하는 것이 아마도 모두 그 상세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료8 **『동국역대총목』삼국 신라 | 『東國歷代總目』三國 新羅**

赫居世〈壬午〉 弁韓以國來降. 儒理王〈壬寅〉 金首露建國於駕洛〈今金海府. 初駕洛有我刀干等九干 各爲酋長率其民 禊飮. 望見龜峯 有異氣 就得金盒 開視之 有六金卵. 不日 而六男子 割殼而出 奇偉長大. 衆咸異之 推立始生子爲主. 以其首出 故稱首露 出於金卵 故以金以姓. 國號大駕洛. 其餘五人 各爲五伽倻主 曰阿羅伽倻 曰古寧伽倻 曰六伽倻 曰星山伽倻 曰小伽倻. 王妃許氏 乃南天竺國女 渡海而至 王迎入爲後. 生九子 而二子從母姓 今之金海金氏 · 許氏 皆首露之子孫也. 王壽之一百五十八〉

혁거세〈임오[년]〉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유리왕〈임인[년]〉 때 김수로가 가락에 건국을 하였다〈지금 김해부이다. 처음에 가락(駕洛)에 아도간(我刀干) 등 9간이 있어 각각 추장이 되어 그 백성을 인솔하여 계욕하며 마셨다. 구봉(龜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어 나아가 금합을 얻어 열어 보니 금란 여섯이 있었다. 하루가 못되어 여섯 남자(六男子)가 껍질은 깨고 나왔는데 기골이 장대하였다. 무리 모두가 이상하게 여겨 처음 태어난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 처음 나왔으므로 수로라 칭하였으며, 금란에서 나왔다고 금(金)을 성(姓)으로 하였다. 국호를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다. 그 나머지 5인은 각각 오가야의 주가 되었으니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녕가야(古寧伽倻), 육가야(六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 소가야(小伽倻)라 하였다. 왕비 허씨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딸로 바다를 건너 왔는데, 왕이 맞아들여 (왕)후로 삼았다. 아홉 아들을 낳았으나 두 아들은 어머니 성(母姓)을 따랐다. 지금 김해 김씨 · 허씨 모두가 수로의 자손이다. 왕은 158세까지 살았다〉

사료9 **『동사회강』권1 상 | 『東史會綱』卷一 上**

〈壬午 新羅始祖十九年〉 春正月 弁韓以國來降新羅.〈弁一作卞〉 弁韓不知其始 而其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其人與辰韓雜居 衣服 · 居處 · 言語 · 風俗同. 或言 其地有卞山 故以名云. 常服事馬韓 至是降于新羅. 後入百濟爲郡縣.

〈임오[년] 신라 시조 19년(기원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弁韓)이 나라를 들어 신라에 와서 항복했다.〈변(弁)은 변(卞)으로도 짓는다〉 변한의 시원을 알지 못 한다. 그러나 그 땅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倭)와 접해있다. 그 사람은 진한과 섞여 사는데 의복 · 거처 · 언어 · 풍속이 같다. 혹 말하기를 그 땅에 변산(卞山)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여 부른다고 한다. 언제나 마한에 복종해 섬겼는데 이때 신라에 항복하였다. 뒤에 백제에 들어가 군현이 되었다.

사료10 **『수산집』권14 동국여지잡기 삼한지방변 | 『修山集』卷十四 東國輿地雜記 三韓地方辨**

林氏象德曰 三韓地界 諸家之言 互相牴牾. 而勝覽攷據最明 今從之. 然其言 亦不能無得失 而吉昌之論 恐亦有不可全廢者. 竊謂 東方有朝鮮之地 又有三韓之地 混之則亂矣. 朝鮮之地 卽箕子舊邦 · 衛滿所據 而在漢爲四郡 · 二府. 其地西南 有韓地相錯. 東北盡沃沮肅愼 北極遼河. 而漢書云 玄菟距洛陽東北四千里 所屬三縣 高勾麗縣 是其一 則東明王初起之地. 卽古之朝鮮 · 玄菟之域 今之遼瀋東北之界 而以地名爲國號也.

임상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지만 『(동국여지)승람』이 고찰한 논거가 가장 분명하여 이제 따른다. 그러나 그 말에도 득실이 없을 수 없고 길창(吉昌; 권근)의 주장에도 또한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한다. 생각건대 동방에는 조선의 땅이 있고 또 삼한의

땅이 있으니 혼동하면 어지러워진다. 조선의 땅은 곧 기자의 옛 나라이며 위만이 근거하고 있었던 곳으로 한 시기에 4군과 2부로 되었다. 그 땅의 서남쪽은 한의 땅이 서로 뒤섞여 있었고, 동북쪽은 옥저·숙신에서 다 하였으며 북쪽은 요하가 끝이었다. 그러나 『한서』에서 현도는 낙양에서 동쪽으로 4천리 떨어져 있는데 소속 삼현 중에 고구려현이 그 하나이니, 동명왕이 처음 일어난 땅이다. 그런즉 옛 조선과 현도의 영역으로 지금의 요동과 심양의 동북 경계이니 지명을 가지고 국호를 삼았다.

三韓之域 卽朝鮮以南之地. 而辰韓在東 今之慶尙道. 卞韓在南 當爲今之全羅道. 馬韓在西而地方最大. 當爲今之黃海·京圻·忠淸等道. 東史言箕準避衛滿之亂 入海南奔 居韓地金馬郡 國號馬韓 金馬今之益山郡. 自平壤奔而入海 至于益山 其路蓋自西海道乘船 歷今京圻·忠淸等道地方 而益山正今忠淸·全羅兩道之界 則箕準之國 卽馬韓之域 亦以地名爲國號. 而今之黃海·京圻·忠淸等道 皆其地也. 百濟溫祚王 逃難南奔 馬韓王割東北百里之地界之 溫祚初都慰禮 今之稷山縣 後徙漢山 今之南漢城. 於此 京圻·忠淸等道之爲馬韓益明矣.
삼한의 경역은 곧 조선의 남쪽이다. 그러나 진한이 동쪽에 있으니 지금의 경상도이고, 변한은 나쪽에 있으니 마땅히 지금의 전라도가 된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땅이 가장 크니 마땅히 지금의 황해·경기·충청 등이 된다. 『동사』에서는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바다에 떠서 남으로 달아나 한의 땅인 금마군에 살면서 국호를 마한이라 하였다. 금마는 지금의 익산군이다. 평양에서 달아나 바다에 떠서 익산에 도착하였으니 그 길은 대개 서해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등을 거쳤던 듯하다. 그런데 익산이 바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이니 곧 기준의 나라가 마한의 지역으로 역시 지명을 국호로 삼았다. 그래서 지금의 황해도·경기도·충청도 모두가 그 땅이다. 백제 온조왕이 난을 피해 남으로 달아나자 마한왕이 동북 백리의 경계를 잘라 주어 온조가 처음에 위례에 도읍하였으니 지금의 직산현이었고, 뒤에 한산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남한성이다. 이에 경기도·충청도 등이 마한이었음은 더욱 자명해진다.

漢書旣言弁韓在南 又言南與倭接 又言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其爲今之全羅道之地方無疑. 赫居世十九年 卞韓以其國降于新羅 馬韓王所云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修職貢 是也. 故當時稱馬韓爲西韓 稱新羅爲南韓. 而樂浪地方在箕氏 爲已失之邦 在新羅無降附之時.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侵新羅 及境而還 是也. 於此 卞韓之不可爲平安道 又無疑矣. 蓋三國之時 赫居世起於辰韓 東明起於朝鮮舊域玄菟之地 溫祚起於馬韓東北之地. 其後百濟 旣滅馬韓 漸拓南地 今之全羅道地方 盡爲其所據. 於是 卞韓入於百濟 而新羅地界則西南窮於智異山矣. 高勾麗自遼界 漸東遷浿水之側 旣幷樂浪 益噬馬韓之地 今之黃海京圻忠淸等道地方 多爲麗濟所分據. 及其中葉濟爲麗所困. 至蓋鹵王時 麗兵圍北漢都城 蓋鹵出走遇害. 其子文周王移都熊川 今之公州地. 其孫聖王 又徙泗沘河今之扶餘縣. 於是馬韓北偏之地 幾盡入於高勾麗 而百濟提封 遂北短於馬韓 南長於卞韓矣. 高勾麗自東遷之後 其東北之地 稍稍入於靺鞨. 而其後一喪於隋 再喪於唐 遼東諸城 盡屬於中國. 於是 麗之幅員 亦北短於遼野 南長於馬韓矣. 大抵 原其始而論之 麗得朝鮮 濟得馬韓 羅得辰卞. 究其終而觀之 麗界馬韓 濟界弁韓 羅界辰韓.
『한서』에서 이미 "변한은 남쪽에 있고, 또 남으로 왜와 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진한과 섞여 살면서 의복·거처·언어·풍속이 동일하다."고 말하였으니 그곳이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었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신라에 항복하고, 마한왕이 진·변의 2한이 우리의 속국인데 근래에 조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고로 당시 마한을 서한이라 칭하고 신라를 남한이라 칭하였다. 낙랑 지방에 기씨가 있었으나 이미 나라를 잃은 것으로 신라 때에는 항복하지 않았을 나라가 없었다. 혁거세 30년(기원전 28년)에 낙랑인이 신라에 침략했다가 국경에 이르러 돌아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에 변한이 평안도가 되는 것은 불가하며 의심할 바가 없다. 대개 삼국의 시기에 혁거세가 진한에서 일어나고, 동명이 조선의 옛 땅인 현도에서의 땅에서 일어났으며, 온조가 마한 동북의 땅에서 일어났다. 그 후에 백제가 이미 마한을 멸하여 점차 남쪽으로 척경하였으니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 모두 그 근거지가 되었다. 이때 변한이 백제에 들어

갔으니 신라와의 경계가 서남쪽으로 지리산까지가 되었다. 고구려는 요하의 경계로부터 점차 동쪽 패수 옆으로 이동하여 낙랑을 병합하고 나아가 마한의 땅을 삼켰으니 지금의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도 지방의 대부분을 고구려와 백제가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다. 삼국시대 중엽에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곤경을 당해 개로왕(蓋鹵王) 때 이르러 고구려병이 북한도성(北漢都城)을 포위하자 개로가 나와 달아나다 해를 당했다. 그 아들 문주왕이 도읍을 웅천(熊川)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공주 땅이다. 그 손자 성왕이 다시 사비하(泗沘河)로 옮기니 지금의 부여현이다. 이에 마한의 북쪽 땅이 거의 고구려에 들어가고, 백제의 영역은 마침내 마한의 북쪽이 줄어 들고 남쪽 변한(卞韓)으로 확장되었다. 고구려가 동천했을 때부터 그 동북 땅은 점점 말갈에 들어가고 그 후에 한때 수(隋)에게 한번 당하고 다시 당에게 당하여 요동의 여러 성이 모두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의 영역도 요동벌이 줄어들고 남쪽으로 마한으로 뻗쳤다. 대개 그 시작을 가지고 논하면 고구려가 조선을 얻고, 백제가 마한을 얻었으며 신라는 진 · 변한을 얻었다. 그 결과를 보면 고구려는 마한을 경계로 삼았고 백제는 변한(弁韓)을 경계로 삼았으며, 신라는 진한을 경계로 삼았다.

吉昌徒見其始之馬韓爲百濟 而不究其終之卞韓亦爲百濟 謂益山今在全羅道地 遂以全羅道盡係馬韓 則卞韓無可指之處 不可不以屬之平安道. 而獨據新唐書卞韓苗裔在樂浪之說 截去苗裔二字 而湊合於己說. 以硬定難定之論.其失遂不止以卞爲馬. 亦以朝鮮混於韓地矣. 然要之 百濟始於馬韓 終於馬韓 則其以馬韓爲百濟 未可非也. 至於周官六翼註 以西京爲卞韓 勝覽斥以朝鮮更指何地者 得之矣. 而勝覽却又引三國遺事 麗地自有馬邑山之說 而釋之以平壤府有馬邑山 以訂馬韓之爲麗 則朝鮮更指何地之斥 恐不得獨施於六翼也. 勝覽考據三韓最明. 而其以高勾麗爲起於樂浪 以平壤馬邑山 訂馬韓 恐又失之.

길창(吉昌; 권근)이 다만 처음에 마한이 백제가 된 것만을 보았지, 마지막에 변한이 백제가 되었음은 궁구하지 못하였다. 익산이 지금 전라도에 있다고 말해 마침내 전라도 모두를 마한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변한을 가리킬만한 곳이 없어져 불가불 평안도에 속하게 한 것이었다. 다만 『신당서』에 변한의 후예가 낙랑에 있다는 설만을 홀로 믿어 묘예의 두 자를 끊어 내어 자기 설에 합해 정하기 어려운 논쟁을 확정하였으니 그 잘못이 변한을 마한이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조선을 한의 땅에 섞었다. 그러나 요컨대 백제가 마한에서 시작하고 마한에서 끝났으니 마한을 백제로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주관육익』의 주에 서경을 변한(卞韓)이라 한 것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이 그렇다면 조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하고 지적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승람은 도리어 『삼국유사』의 고구려 땅에 마읍산(馬邑山)이 있다는 설을 인용하여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한이 고구려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마한을 고구려로 고쳤으니 조선은 다시 어느 땅을 가리킬 것인가 아마도 오직 『육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승람』이 삼한에 대해 근거하고 고찰한 것이 가장 분명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낙랑에서 일어난 것과 평양 마읍산을 가지고 마한으로 고쳤던 것은 아마도 잘못인 듯하다.

今盡置諸家得失. 若折衷以斷之曰. 高勾麗本朝鮮之域. 而並馬韓爲其界. 百濟. 本馬韓之域. 而後並卞韓爲其界. 新羅本辰韓之域. 而後並麗濟. 爲三韓之主. 東明之初起之地. 本朝鮮之玄菟舊域. 而後入中國爲遼東蓋建州衛等地方. 庶幾無大謬. 而紛紜之論. 亦或有時而定焉云. 輿覽. 以今成川. 爲東明所都沸流川之類. 皆誤也.

지금 여러 설들의 잘잘못을 다 그대로 두고 절충하여 단정해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본래 조선의 경역이었다. 그러나 마한을 병합하여 그 경계로 삼았고, 백제는 본래 마한의 경역으로 후에 변한(卞韓)을 병합하여 경계로 삼았으며, 신라는 본래 진한의 경역으로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여 삼한의 주인이 되었다. 동명이 처음 일어나 땅은 본래 조선 현도의 옛 땅이었고, 후에 중국에 들어가 대개 요동 건주위 등 지방이 되었으니 큰 잘못이 없으니 어지러운 논쟁 또한 어떤 시기에 정해졌으면 한다.〈『여람』에서 지금의 성천(成川)을 동명이 도읍을 정한 비류천 같은 곳이라 했지만 모두 잘못이다〉

又按卞韓地方 見於史書者 獨有一處可疑. 新羅聖德王十二年 叙渤海國幅員 有曰 盡得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諸國云云. 此皆高麗舊境. 檗高氏之亡 浿南之地 屬新羅 其西北之地屬中國 東北之地盡入靺鞨 而靺鞨爲渤海國. 以此言之 麗境固自有弁韓矣. 却怪吉昌不引此爲訂 而苟且牽合弁韓苗裔在樂浪之說 何也. 然反復攷詳中國文籍及東史所載 弁韓地分 决無越在東北界之理. 豈東方別有二弁韓耶. 東方地名如二東暆 · 三帶方之類甚衆. 意者 三韓之世 蠻觸紛紜 隨其所在 輒立名號. 重複錯互 如南北朝江南九州之名者 多有之. 渤海域內 所謂卞韓 恐亦此類. 且以弁韓苗裔在樂浪之說 細尋其文義 則似謂弁韓部種 有入樂浪之域 而冒弁韓舊號者 此則理亦或然. 要之 三韓本界分 則東辰 · 西馬 · 南卞 不可易也.

또 생각건대 변한 지방으로 사서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한 곳이 의심스러운 데, 신라 성덕왕 12년(713년)에 발해국의 영역을 서술하면서 부여 · 옥저 · 변한 · 조선 등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대개 고씨(高氏)가 망하고 패수 남쪽의 땅은 신라에 속하였고, 그 서북의 땅은 중국에 속해, 동북의 당은 모두 말갈에 들어갔는데, 말갈은 발해국(渤海國)이 되었다. 이로 말하면 고구려의 경계에는 진실로 변한(弁韓)이 있었다. 그런데 도리어 길창은 이를 이끌어 고치지 않고 구차하게 변한(弁韓)의 후예가 낙랑에 있다는 설을 끌어 다 부쳤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다시 중국의 문적과 『동사』에 실려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한(弁韓)의 땅은 결코 건너 뛰어 동북지방에 있을 수가 없다. 어찌 동방에 별도로 두 개의 변한이 있었겠는가. 동방의 지명에는 두 개의 동이(東暆)와 세 개의 대방(帶方) 같은 것들이 아주 많다. 생각한대 삼한 시대에 사소한 분쟁이 빈번하여 그 소재에 따라 이름을 세웠다.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중복되고 착각된 것이 남북조시대 강남과 구주의 이름에 같은 것이 많다. 발해 영역 내에 이른바 변한(弁韓) 또한 아마도 이런 종류일 것이다. 또한 변한의 묘예(苗裔)가 낙랑에 있었다는 설에 대해 그 글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면 마치 변한의 일부종족이 낙랑영역에 들어가 변한의 옛 이름을 강제로 쓴 것일 것이다. 이런즉 이치 또한 그럴 듯하다. 요컨대 삼한 본래의 경계가 동쪽은 진한(辰韓), 서쪽이 마한(馬韓), 남쪽이 변한(卞韓)임은 바뀔수 없다.

사료11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삼한시종 | 『星湖僿說』卷十九 經史門 三韓始終

弁韓 元帝永光五年 降於新羅.

변한이 원제 영광 5년(기원전 39년)에 신라에 항복하다.

사료12 『증보문헌비고』 권13 여지고1 | 『增補文獻備考』卷十三 輿地考一

東方自檀箕以降 諸國分南北而國焉.屬國與國如一郡一縣者 又紛如也 互相爭奪 區域不明. 而且國號地名重複混雜 馬韓 · 濊貊 · 高句麗有二 沃沮 · 安市有三 扶餘有四 帶方有五 伽倻有六 餘不可勝記. 以方言吏語雜行 名號之厖亂甚矣. 况東國置史 濟自近肖古 羅自眞興麗自嬰陽 乃梁隋間也.而是猶不傳郡國 故實其何以考乎. 至高麗中葉金富軾 作三國地志. 是必得於新羅舊籍 可謂信文 而關西與北闕焉 山川道里不之載. 我成廟辛丑 命纂輿地勝覽.中廟庚寅 又命續纂. 於是 東方輿地井然 如指掌盛矣哉.然頗有說誤 且已後二百四十餘年 州郡分合改號者多 不可無增修.且固國不以山谿 而設險以守 大易之訓也. 山川關防亦宜致詳 作輿地考第二凡十七卷.續今二十七卷.

우리나라[東方]는 단군과 기자 이래로 여러 나라가 남과 북에 나뉘어 나라를 세웠다. 하나의 군(郡)이나 현(縣)만한 속국(屬國)과 나라가 또한 어지럽게 일어나 서로 다투고 빼앗아서 나라의 구역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호와 지명도 중복되고 뒤섞여서 마한(馬韓) · 예맥(濊貊) · 고구려(高句麗)는 둘이 있고 · 옥저(沃沮) · 안시(安市)는 셋, 부여(扶餘)는 넷, 대방(帶方)은 다섯, 가야(伽倻)는 여섯이 있으니, 그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방언(方言)과 이두[吏語]가 뒤섞여 부르는 이름인 명호(名號)는 더욱 뒤섞이게 되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역사서를 둔 것이 백제는 근초고(近肖古), 신라는 진흥(眞興), 고구려는 영양(嬰陽)왕부터이니, 곧 중국 양(梁)나라 · 수(隋)나라 연간인데, 여기에도 오히려 군국(郡國)의 일이 전하지 않으니 실상을 무엇으로 고찰하겠는가. 고려 중엽에 이르러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지지(三國地志)」를 썼는데, 이는 필시 신라의 옛 책에서 얻은 것이니

믿을 만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백제와 고구려[西與北]에 관해서는 빠져 있고, 산천과 도리(道里)는 신지 않았다. 우리 성종[成廟] 신축년(1481년, 조선 성종 12년)에 명하여 『(동국)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하도록 하였으며, 중종[中廟] 경인년(1530년, 조선 중종 25년)에 또 명하여 이를 이어서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지리[輿地]가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정연해졌으니, 훌륭하도다. 그러나 자못 잘못된 이야기도 있다. 또한 [편찬된 지] 240여 년이 지나서 주군(州郡)을 나누거나 합쳐서 이름을 개정한 것도 많다. 증수(增修)가 없을 수 없다. 또 '견고한 나라란 험한 지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요새를 세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주역[大易]의 가르침이다. 산천과 관방도 마땅히 자세하기를 다하여야 한다. 「여지고(輿地考)」 제2(第二) 무릇 17년을 쓴다. [속(續)] 지금은 27권이다.

사료13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壬午〉元王二十年〈新羅始祖十九年 漢元宗永光五年㼆〉 先是 以蓋守驗爲弁韓官. 守驗貪暴 妄殺弁韓馬延部長. 春正月 弁韓各部民群起 逐守驗降于新羅. 按『三國史(記)』新羅始祖紀云 十九年春正月 弁韓以其國來降. 而其事不明 今依遺事記 補之. 然其所謂降者 乃一時之依附羈縻 而非實降也. 如其實降也則 駕洛王金首露何從而建國耶. 又曰 盖守驗事信有據觀此一叚亦可以知遺事記之非全杜撰也.

〈임오(壬午)[년]〉 원왕(元王) 20년〈신라 시조(新羅始祖) 19년, 한(漢) 원제(元帝) 영광(永光) 5년(기원전 29년)〉 이에 앞서 개수험(蓋守驗)이 변한관(弁韓官)이 되었다. 수험(守驗)은 탐욕스럽고 포악하였는데, 변한 마연부장(馬延部長)을 망령되게 죽였다. 봄 정월에 변한(弁韓) 각 부(部)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봉기하니, 드디어 수험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살펴보건대 『삼국사[기]』 신라시조기(新羅始祖紀)에 [혁거세] 19년 봄 정월에 변한(卞韓)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일이 분명치 않다. 지금 『유사기(遺事記)』에 의거해서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항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의탁하여 매인 것이지 실제로 항복한 것은 아니다. 만약 [변한이] 실제 항복하였다면 가락왕 김수로(金首露)가 어찌 건국하였겠는가? 또 말하기를 개수험의 일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 일단의 기사로 보면 『유사기(遺事記; 『삼국유사』가락국기)가 전적으로 틀린 곳이 많은 책[杜撰]이 아님을 다시 알 수 있다.

기원전 33년 『일본서기』 임나국을 처음으로 언급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5 숭신천황65년 무자 7월 | 『日本書紀』 卷五 崇神天皇六五年 戊子 七月

崇神天皇六十五年 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國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

숭신천황 65년(기원전 33년) 가을 7월에 임나국이 소나갈질지를 보내 조공하게 하였다. 임나란 것은 츠쿠시국(筑紫國)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바다 건너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사료2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任那. 按 任那或作任羅. 今未詳其地界. 蓋弁韓之地 而新羅與國也. 日本紀 以任那爲加羅之別稱 而宋書 倭王武自稱都督新羅任那加羅諸軍事 則任那與加羅 當時二國 而卽六加耶之一.

임나. 살펴보건대 임나(任那)는 혹 임라(任羅)로도 되어 있다. 지금은 그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개 변한 지역이며 신라와 더불어 있는 나라이다. 『일본기』에는 임나를 가라의 별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송서』에서

는 왜왕 무가 자칭 도독 신라·임나·가라 제군사라고 하였으니, 임나와 가라는 마땅히 두 나라로, 바로 6가야 가운데 한 나라이다.

사료3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按 我邦之通日本 始自任那 其後羅 · 濟 · 句麗 次第通焉. …(중략)… 〈漢元帝 竟寧 元年〉 崇神天皇六十五年 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 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國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日本書紀 是歲 任那國人來 是異國來貢之始也. 任那本名加羅. 其人額有角曰 我是意富加羅國王之子 名都怒我阿斯羅 到越前笥飯浦 留居三年.〈和漢三才圖會〉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일본과 통교한 것은 임나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 신라 · 백제 · 고구려가 차례로 통교하였다. …(중략)… 〈한 원제 경녕 원년(기원전 33년)〉에 숭신천황 65년(기원전 33년? 87년?) 가을 7월에 임나국이 소나갈질지를 보내 조공하게 하였다. 임나란 것은 츠쿠시국(筑紫國)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바다 건너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일본서기』 이 해에 임나국 사람이 왔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 조공의 시작이었다. 임나의 본래 이름은 가라이다. 그 사람은 이마에 뿔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의부[오호(意富;크다는 감탄사)]가라국왕의 아들로 이름은 츠누가(도노아)아사라이다."라 했다. 에치젠(越前)의 게히노우라[사반포(笥飯浦)]에 이르러 3년 동안 머물렀다.〈『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있다〉

松下見林曰 是意富加羅國王之子 都怒我阿羅斯等 得神石 化爲美麗童女. 後童女東方去 阿羅斯等 乃尋追求浮海入日本國 仕崇神天皇 所求童女爲比賣語曾社神. 我朝人號外國稱曰 伽羅者 皆外國人始來者 都怒阿羅斯等也 乃意富加羅國王之子也. 意富加羅國 東國通鑑作大駕洛國. 始祖名金首露 後新羅滅其國 號金官郡.〈異稱日本傳〉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이 말하기를 이 오호(意富)가라국왕의 아들인 츠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가 신령스런 돌을 얻었는데 변하여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되었다. 뒤에 소녀가 동방으로 가니 아라시토(阿羅斯等)가 찾고자 뒤를 쫓아 바다에 떠서 일본국에 들어가 숭신천황에게 벼슬하였다. 찾던 소녀는 히메코소신사(比賣語曾社)의 신이 되었다. 우리나라[왜(倭)] 사람들이 외국을 호칭할 때 가라라고 하는 것은 츠누가아라시토가 곧 오호가라국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오호가라국을 『동국통감』은 대가락국으로 지었다. 시조가 김수로로 후에 신라가 그 나라를 멸하여 금관군이라 불렀다.〈『이칭일본전』〉

사료4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강역총론 | 『海東繹史』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疆域總論**

知羅之種 有任那者 此亦弁辰之屬. [通典] 加羅 · 任那竝三韓之地.〈[宋書] 昇明中 倭王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辰韓慕韓七國諸軍事.〉 [日本書紀] 崇神六十五年〈漢元帝十六年〉 任那國朝貢. 任那者 去築紫國二千餘里 北阻海 鷄林之西南. [和漢三才圖會] 崇神六十五年任那國人來. 任那本名加羅. 其人曰 我是意富加羅國王子 名都怒我阿羅斯. 垂仁二年 任羅國人 都怒我阿羅斯請歸國. 乃許之. 且曰 改汝本國名 追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阿羅斯等歸國 改其國名 謂彌摩那國.〈異稱日本傳 松下見林曰 意富加羅國 東國通鑑 大駕洛國 始祖名金首露〉

지[가]라의 종족에 임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변진의 족속이다. [『통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라와 임나는 모두 삼한의 땅이다.[『송서』] 이르기를 승명 연간(477~479년)에 왜왕이 도독 왜 · 백제 · 신라 · 임나 · 가라 · 진한 · 모한 칠국제군사를 자칭하였다고 했다〉 [『일본서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숭신 65년(기원전 33년? 87년?)〈한나라 원제 16년〉에 임나국이 조공하였다. 임나국은 츠쿠시국(筑紫國)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는데, 북으로는 바다 건너에 있고, 계림(鷄林)의 서남쪽에 있다. [『화한삼재도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숭신 65년에 임나국 사람이 왔다. 임나의 본명은 가라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오호가라국(意富加羅國)의 왕자로 이름은 츠누가아라사[都怒我阿羅斯]다."라고 하였다. 수인 2년(기원전 28)에 임라국(任羅國) 사람 츠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가 귀국을 청하니 허락하고 "너희 본국의 이름을 바꾸되, 미마키천황(御間城天皇)

의 이름을 따라서 너희 나라의 이름으로 삼으라." 하였다. 츠누가아라시토이 귀국해 그 나라의 이름을 고쳐 미마나국(彌摩那國)이라고 하였다.〈『이칭일본전』에서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이 말하기를 오호가라국은 『동국통감』에 대가락국(大駕洛國)으로 되어 있으며, 시조의 이름은 김수로(金首露)라 하였다〉

〈鎭書〉 謹按 任那又作任羅. 見林曰 任那卽大駕洛. 大駕洛者大伽倻也. 日本紀 欽明二十三年 新羅滅任那. 而據新羅史 是年滅大伽倻. 以此參考 任那之爲大伽倻明矣. 大伽倻者 加羅國首露王之同種 今之高靈縣卽其地也. 今考日本書 崇神時任那通于日本 則任那之稱 已在前漢時矣. 又按 任那卽是加羅與國也. 加羅是弁辰屬國也. 此云任那改名爲彌摩那國 彌摩那似弁辰彌烏邪馬國之音轉也.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임나는 또 임라(任羅)로도 쓴다. 마츠시타켄린[松下見林]이 말하기를 "임나가 바로 대가락(大駕洛)이다."라 하였다. 대가락이란 것은 대가야이다. 『일본서(일본서기)』를 보면 흠명 23년(562년)에 신라가 임나를 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사(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이 해에 대가야를 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상고해 보면 임나가 대가야가 됨은 분명하다. 대가야라는 것은 가라국 수로왕과 같은 종족으로 지금 고령현(高靈縣)이 바로 그 땅이다. 이제 『일본서(일본서기)』를 상고해보면, 숭신 때 임나가 일본과 통하였다. 그런즉 임나라는 칭호는 이미 전한(前漢)시대에 있었다. 또 살펴보건대, 임나는 바로 가라의 동반국이다. 가라는 바로 변진의 속국이다. 이곳에 말하기를 임나가 미마나국으로 이름을 고쳤다는데, 미마나는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과 비슷하니 음이 변한 듯하다.

〈附〉 [日本書紀] 神功四十九年〈魏正始十年〉 以荒田別爲將軍 以百濟久氐等爲導 擊新羅破之. 因以平比自炑・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人回至古奚津 百濟王古肖等來會將軍於古奚津.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翌年春定三韓宮倉 以任那王爲宮倉首. 比自炑・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共七國及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大邑 倚於任那爲宮藏.〈鎭書〉 謹按 比自等諸國 明是加羅之類 而任那隣此者也. 意亦弁辰之屬 故附於此 以備參考.

〈부(附)〉『일본서기』 신공 49년(249년)〈위 정시 10년〉에 아라타와케[荒田別]를 장군으로 삼고 백제의 구저(久氐) 등을 향도로 삼아 신라를 쳐서 깨뜨렸다. 이어서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등 7국을 평정하였다. 군사를 돌려 고해진에 이르자, 백제왕 고초(古肖) 등이 고해진으로 장군을 찾아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벽중・포미지・반고의 네 고을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다음 해 봄에 삼한의 궁창(宮倉)을 정하여 임나왕을 궁창수(宮倉首)로 삼고,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등 7국과 비리・벽중・포미지・반고 등 네 큰 고을을 임나에 붙여 궁장(宮藏)으로 삼게 하였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비자발 등 여러 나라는 분명히 가라의 무리로서 임나와 이웃해 있는 나라들이다. 생각건대 이들은 변진의 족속이므로 이곳에 붙여 참고에 대비하였다.

기원전 27년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귀국을 청하다

사료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세9 통제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世九 通諸日本始末

〈漢 成帝 下平元年〉 垂仁二年 任那人蘇那曷叱智 請歸于國. 蓋崇神之世來朝 未還. 故厚賞蘇那曷叱智 仍賫赤絹一百疋 賜任那王.〈日本書紀〉

〈한 성제 하평 원년〉 수인 2년(기원전 27년)에 임나 사람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대개 숭신천황 때 조공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소나갈질지에게 후하게 상을 내렸다. 이어 적견(赤絹) 100필을 주어 임나왕에게 하사하였다.〈『일본서기』〉

任那國人都怒阿羅斯等 請欲歸國乃許之. 且曰改汝本國名 追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仍以赤織絹給之. 阿羅斯等歸國 改其國名 爲彌摩那國. 於是 新羅人聞之 起兵奪其赤絹. 是二國相怨之始也.〈和漢三才圖會 松下見林曰 新羅得罪于我 起于此際 終至神功皇后得征之 盖爲任那而征之也〉

임나국인 츠누가아라시토[都怒阿羅斯等]이 귀국을 청하여 곧 허락하였다. 다시 말하기를 "너희 본국의 이름을 고쳐라. 미마키스메라미코토(御間城天皇御)의 이름을 따라 너희 나라의 이름을 삼도록 하라."고 하고, "그러면 붉은 비단을 주겠다."고 하였다. 아라시토가 귀국하여 그 나라의 이름을 고쳐 미마나국(彌摩那國)으로 하였다. 이때 신라인이 듣고 병을 일으켜 그 붉은 비단을 빼앗았으니 이로써 두 나라의 원한이 시작되었다.〈『화한삼재도회』 마츠시타켄린이 말하기를 "신라가 우리에게 죄를 얻은 것은 이 무렵에 시작되었으니 마침내 신공황후의 정벌을 당하게 된 것으로 대개 임나를 위하여 정벌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원전 20년　마한왕이 진·변한을 속국으로 주장하다

사료1　**『삼국사절요』** 권1 | **『三國史節要』** 卷一

〈辛丑 漢鴻嘉元年 新羅始祖三十八年〉 春二月 新羅遣瓠公 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 我屬國. 比年不輸職貢事大之禮 其若是乎. 對曰我國自二聖肇興 人事脩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自辰韓遺民 以至卞韓 · 樂浪 · 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反怒 刼之以兵 何耶. 馬韓王愈怒. 欲殺之. 左右諫止乃聽還. 先是 中國之人 若秦亂 東來馬韓者頗多 與辰韓雜居. 至 是寖盛 故馬韓忌之 有是責焉. 瓠公者 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繫腰 渡海而來 故稱瓠公.

〈신축(辛丑) 한 홍가 원년 신라 시조 38년〉 봄 2월 신라가 호공(瓠公)을 마한에 보내 안부를 물으니,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변(辰卞) 2한은 우리 속국인데 근년에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예절에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였다.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二聖]이 일어나 인사(人事)가 정비되고 하늘의 때와 조화를 이루었으며 창고가 충실해지고 인민이 공경하며 겸손하여 진한의 유민에서 변한(卞韓) · 낙랑 · 왜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을 품지 않는 자가 없는데도, 우리 왕이 겸허하여 저를 보내어 외교를 하게 하였으니 가히 예보다 지나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은 도리어 화를 내고 병사로 겁박하니 어찌된 것입니까?" 마한왕이 더욱 화를 내면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간하여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만약 진(秦)의 난리가 있으면 동쪽 마한으로 오는 자가 자못 많아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 이제 강성해지니 그런 까닭으로 마한이 그를 꺼려 이렇게 책망한 것이었다. 호공이란 자는 그 족성(族姓)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본래 왜인(倭人)으로 처음에 표주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 왔기에 호공(瓠公)으로 칭하였다.

사료2　**『동국통감』** 권1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一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辛丑 漢鴻嘉元年 新羅始祖三十八年 高句麗始祖十八年〉 春二月 新羅遣瓠公 聘於馬韓. 馬韓王讓曰 辰卞二韓 爲 我屬國 比年 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對曰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辰韓 · 卞

韓 · 樂浪 · 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反怒 劫之以兵 何耶. 馬韓王愈怒. 欲殺之. 左右諫止 乃聽還. 先是 中國之人 若秦亂 東來馬韓者頗多 與辰韓雜居. 至是寖盛 故馬韓忌之. 瓠公本倭人 初以瓠渡海而來 故號焉.

〈신축년[辛丑] 한 홍가 원년, 신라 시조 38년, 고구려 시조 18년〉 봄 2월 신라가 호공(瓠公)을 마한에 보내 안부를 물었다. 마한왕이 꾸짖어 말하기를 "진변(辰卞)의 2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예절에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였다.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二聖)이 일어나 인사(人事)가 정비되고 하늘의 때와 조화를 이루었으며 창고가 충실해지고 인민이 공경하며 겸손하여 진한의 유민에서 변한(卞韓)·낙랑·왜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을 품지 않는 자가 없는데도, 우리 왕이 겸허하여 저를 보내어 외교를 하게 하였으니 가히 예보다 지나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은 도리어 화를 내고 병사로 겁박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 마한왕이 더욱 화를 내면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간하여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만약 진(秦)의 난리가 있으면 동쪽 마한으로 오는 자가 자못 많아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 이제 강성해지니 그런 까닭으로 마한이 그를 꺼려 이렇게 책망한 것이었다. 호공이란 자는 그 족성(族姓)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본래 왜인(倭人)으로 처음에 표주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 왔기에 호공(瓠公)으로 불렀다.

사료3 **『해동역사』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강역총론 | 『海東繹史』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疆域總論**

馬韓最大 辰弁二韓 皆屬於馬韓. [晉書 辰韓傳] 弁辰十二國 皆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 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 〈[韓]鎭書〉謹按 後漢書 馬韓共立其種爲辰王 盡王三韓之地. 新羅史云 赫居世三十八年〈漢成帝時〉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馬韓當時主霸三韓 斯可驗矣. 其後 馬韓諸國並爲百濟所呑 辰弁二韓 並於新羅. [通典] 三韓之地 在海島之上 朝鮮之東南. 三韓蓋爲百濟 · 新羅所呑並. 百濟據有馬韓古地.

마한이 가장 크며 진한과 변한이 모두 마한에 복속하였다. [『진서』진한전] 변진 12국은 모두 진한에 예속되었으며, 진한에서는 항상 마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고, 그 나라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었는바,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므로 마한에게 제압당한 것이 분명하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후한서』에 여러 한이 함께 마한의 종족을 진왕(辰王)으로 세웠는데, 진왕이 삼한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 신라사(『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이르기를 혁거세 38년(기원전 20년)〈한 성제(成帝) 때〉에 호공(瓠公)을 마한에 보내 조빙하니,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들어서는 직공을 보내지 아니하니 대국 섬기는 예가 이와 같아서 되겠는가?"라 하였다. 마한이 당시에 삼한의 패권을 잡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 후에 마한의 여러 나라들은 백제에 병탄되었고, 진한과 변한은 신라에 병합되었다. [『통전』] 삼한의 땅은 섬 위에 있으며, 조선의 동남쪽에 있다. 삼한은 대부분 백제와 신라에 병탄되었으며, 백제는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사료4 **『역사집략』권2 마한기 | 『歷史輯略』卷二 馬韓紀**

〈辛丑〉[稽王]十三年〈新羅始祖三十八年 高句麗東明王十八年 漢成帝鴻嘉元年〉 先是 中國之人苦秦亂東來馬韓者頗多 與辰韓雜居. 至是寖盛. 王憂之. 春二月 新羅遣使瓠公來聘. 王讓曰辰 · 弁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 事大之禮 固若是乎. 瓠公對曰 我國自二聖肇興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辰韓 · 弁韓 · 樂浪 · 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反怒 何耶. 辭極倨慢. 王愈怒 欲殺之. 左右諫止 乃聽還. 瓠公本日本人 以瓠渡海故名之. 按 辰韓 · 弁韓 · 樂浪 · 倭人之文 則新羅之外 別有辰韓一國. 而至新羅助賁王時 始爲曹魏所滅. 此出李建初辨說.

〈신축(辛丑)〉 [계왕(稽王)] 13년〈신라 시조 38년 고구려 동명왕(東明王) 18년, 한(漢) 성제 홍가 원년(기원전 20

년)〉 이에 앞서 중국인으로 진(秦)나라의 난을 괴로워하여 동쪽 마한(馬韓)으로 오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들은] 진한과 섞여 살았다. 이때에 이르러 점차 강성해지니, 왕이 근심하였다. 봄 2월에 신라가 호공(瓠公)을 사신으로 보내어 빙문(聘問)하였다. 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이다. 근년에 공물(貢物)을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절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호공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聖人)께서 나라를 일으킨 이후로 인사(人事)가 닦이고 천시(天時)가 조화를 이루었으며 창고가 충실해지고 인민(人民)들이 공경하고 겸손하여, 진한 · 변한 · 낙랑(樂浪) · 왜인(倭人)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우리 임금이 겸허하여 신을 보내 빙례(聘禮)를 닦게 하였으니 지나친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은 오히려 화를 내시니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하였는데, 말이 극도로 거만하였다. 왕이 더욱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좌우 신하들이 간(諫)하자 그만두고 돌아가게 하였다. 호공은 본래 일본인(日本人)인데, 표주박[瓠]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살펴보건대 진한 · 변한 · 낙랑 · 왜인이라는 대목은 곧 신라 이외에 별도로 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니, 신라 조분왕(助賁王) 때에 비로소 조씨의 위나라[曹魏]에게 멸망당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 초기[李建初]의 변설(辨說)에 나온 것이다.

기원전 20~19년　탈해 금관국에 오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니사금 1·2년 | 『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尼師今 一·二年**

脫解尼師今立〈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 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幷寶物 置於櫝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

탈해이사금이 즉위하니〈또는 토해(吐解)라고도 한다〉 나이가 62세에 성은 석(昔)이고 왕비는 아효부인(阿孝夫人)이었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 출생인데, 그 나라는 왜국(倭國)의 동북쪽 1천리에 있다. 처음에 그 나라왕이 여왕국의 딸에게 장가들어 처로 삼았는데, 임신한지 7년이 되어 커다란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마땅히 버려야 한다." 하니, 그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비단으로 보물과 함께 싸서 궤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두었다. 처음에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이르자 금관인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으니, 다시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시조 혁거세 재위 39년이었다.

기원전부터　가야의 이주민 일본열도에 천손으로 강림하다

사료1　**『고사기』 상권 니니기노미코토 천손강림 | 『古事記』 上巻 邇邇藝命 天孫降臨**

故爾 詔天津日子番能邇邇藝命而 離天之石位 押分天之八重多那〈此二字以音〉雲而 伊都能知和岐知和岐弖〈自伊以下十字以音〉 於天浮橋 宇岐士麻理 蘇理多多斯弖〈自宇以下十一字亦以音〉 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穂之久士布流多気〈自久以下六字以音〉 故爾 天忍日命 · 天津久米命二人 取負天之石靭 取佩頭椎之大刀 取持天之波士弓

手挾天之真鹿児矢 立御前而仕奉. 故 其天忍日命〈此者大伴連等之祖〉· 天津久米命〈此者久米直等之祖也〉. 於是詔之 此地者 向韓国 眞来通笠沙之御前而 朝日之直刺国 夕日之日照国也. 故 此地甚吉地詔而 於底津石根宮柱布斗斯理 於高天原氷椽多迦斯理而坐也.

그리하여 아마츠히코호노니니기노미코토[天津日子番能邇邇藝命]에게 조서를 내려 명하니 하늘의 바위자리를 떠나 하늘의 여덟 겹의 선반〈이 두 글자는 음을 표기하였다〉 같은 구름을 신성하고 위풍당당하게[伊都能知和岐知和岐弖]〈이(伊) 이하 10자는 음으로 하였다〉 밀어 헤치고, 하늘의 뜬 다리(天浮橋)가 이어진 떠 있는 섬[宇岐士麻理]에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에 위엄 있게 서 있었다[蘇理多々斯弖]〈우(宇) 이하 11자는 음을 표기하였다〉 하늘에서 츠쿠시(竺紫; 큐슈) 히무카(日向; 미야자키? 후쿠오카?)의 타카치호(高千穂; 미야자키?)의 쿠시후루노타케(久士布流多気; 구지봉)〈구(久) 이하 6자는 음을 표기하였다〉에 내려앉았다. 이에 아마오시노히노미코토와 아마츠쿠메노미코토 이 두 사람은 하늘의 돌화살통을 메고, 방방이 머리가 달린 큰 칼을 찼으며, 하늘의 큰 활을 가지고, 하늘의 사슴뿔로 만든 화살을 손에 끼고 천손의 앞에 서서 받들었다. 그런고로 아마오시노히노미코토[天忍日命]〈이 자는 오토코노무라지(大伴連) 등의 조상이다〉와 아마츠쿠메노미코토[天津久米命]〈이 자는 쿠메노아타히(久米直) 등의 조상이다〉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이 땅은 카라쿠니(韓国)를 향하고 있는 카사사(笠沙)의 궁궐에 곧 바로 통하는 곳으로 아침 해가 곧바로 비추고, 저녁 노을이 비추는 나라이다. 그런고로 이 땅은 매우 길한 곳이다. 지하의 암반에 궁궐의 기둥을 굵게 세우고 하늘로 타카마가하라(高天原)를 향해 천목(千木; 신사의 치미)을 높게 올려 짓고 거기에 앉았다.

사료2 『일본서기』 권2 신대 하 제9단 본문 | 『日本書紀』 卷二 神代 下 第九段 本文

天照太神之子 正哉吾勝勝速日天忍穗耳尊 娶高皇産靈尊之女栲幡千千姫 生天津彦彦火瓊瓊杵尊 故皇祖高皇産靈尊 特鍾憐愛以崇養焉. 遂欲立皇孫天津彦彦火瓊瓊杵尊 以爲葦原中国之主. …(중략)… 于時 高皇産靈尊 以眞床追衾 覆於皇孫天津彦彦火瓊瓊杵尊使降之. 皇孫乃離天磐座.〈天磐座.此云阿麻能以簸矩羅〉且排分天八重雲.稜威之道別道別而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既而皇孫遊行之狀也者. 則自 日二上天浮橋.立於浮渚在平處.〈立於浮渚在平處.此云羽企爾磨梨陀毘邏而陀陀志〉而膂完之空国. 自頓丘覓国行去.〈頓丘.此云毘陀烏.覓国.此云矩貳磨儀.行去.此云騰褒屢〉到於吾田長屋笠狹之碕矣.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太神]의 아들 마사카아카카치하야히아마노오시호미미노미코토[正哉吾勝勝速日天忍穗耳尊]가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高皇産靈尊]의 딸 타쿠하타노치치히메[栲幡千千姫]에게 장가 들어 아마츠히코노니니기노미코토[天津彦彦火瓊瓊杵尊]를 낳았다. 그런고로 황조(皇祖)의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高皇産靈尊)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랐다. 마침내 황손의 아마츠히코노니니기노미코토를 세워 아시하라(葦原)의 나카츠쿠니(中國)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중략)… 이때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가 신성한 이불로 황손 아마츠히코의 니니기노미코토를 내려 보냈다. 황손이 곧 하늘의 반석의 자를 떠나〈천반좌(天磐座), 이것은 아마노이하쿠라라고 읽는다〉하늘의 여덟 겹의 구름을 헤치고 뛰어난 위엄으로 길을 헤치고 나가 하늘에서 히무카(日向)의 소츠(襲)의 타카치호봉우리에 내렸다. 이에 황손이 나아가는 모습은 곧 하늘에 떠 있는 아마노우키하시(天浮橋)를 지나 떠 있는 섬 우키시마(浮島)의 파도치는 가장자리 평지에 서서〈서 있던 곳은 우키지마리타히라니타다시(羽企爾磨梨陀毘邏而陀陀志)라 한다〉 불모의 카라쿠니(空国)에서 좋은 나라를 찾아 나서 아타(吾田) 나가야(長屋)의 카사사(笠狹)의 곶에 도착하였다.

사료3 『일본서기』 권2 신대 하 제9단 6 | 『日本書紀』 卷二 神代 下 第九段 六

一書曰 …(중략)… 是時 高皇産靈尊 乃用眞床覆衾 裹皇孫天津彦根火瓊瓊杵根尊 而排披天八重雲 以奉降之. 故稱 此神曰 天国饒石彦火瓊瓊杵尊. 干時 降到之處者 呼曰日向襲之高千穗添山峯矣. 及其遊行之時也 云々. 到干吾田笠狹之御碕 遂登長屋之竹嶋.

어떤 책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략)… 이때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高皇産靈尊]가 신성한 이불을 준비하여 황손 아마츠히코의 니니기노미코토를 싸서 하늘 여덟 겹의 구름을 헤치고 내려 보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아메쿠니니기시히코호노니니기노미코토[天國饒石彦火瓊瓊杵尊]라 하였다. 그때 내려 온 곳을 불러 히무카(日向)의 소츠(襲)의 타카치호(高千穗)의 소호리노야마노미네(添山峰)라 하였다. 그 내려 올 때였다. 운운… 아타(吾田) 카사사(笠狹)의 곶에 이르렀다. 마침내 나가야(長屋)의 타케[치쿠]시마(竹嶋)에 내렸다.

8년 탈해, 가락국(금관국) 해변에 나타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탈해왕 | 『三國遺事』 卷一 紀異二 第四脫解王**

脫解齒叱今〈一作吐解尼師今〉 南解王時〈古本云 壬寅年 至者 謬矣. 近則 後於弩禮卽位之初 無爭讓之事. 前則 在於赫居之世 故知壬寅非也〉 駕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譟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今有上西知 · 下西知村名〉

탈해니질금〈토해니사금으로도 지었다〉 남해왕 때〈고본에 임인년에 왔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가깝게 잡으면 노례[왕] 즉위 후의 일이 되니 왕위를 서로 다투어 사양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먼저의 것이라면 혁거세왕 때로 임인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락국(駕洛國) 바다 가운데 배가 와서 머물렀다. 그 나라 수로왕이 신하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며 맞아들여 머물게 하려 하였으나 곧 배가 날듯이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지금도 상서지와 하서지란 마을 이름이 있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忽有琓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 故來耳. 王答曰 天命我俾卽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鸇.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鸇 獲免焉. 此盖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麟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

홀연히 완하국(琓夏國) 함달왕(含達王)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사람으로 변하니 이름을 탈해라 하였다. 바다에서 왔는데 신장이 3척에 머리 둘레가 1척이나 되었다. 기뻐하며 궁궐에 찾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고 했다. 왕이 답해 말하기를 하늘이 내게 명해 자리에 올라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케 하라고 하였는데, 감히 천명을 어기고 자리를 줄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술법을 겨루어 보겠는가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왕은 독수리로 변했다.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왕은 새매로 변하였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그렇게 하였다. 탈해가 곧 항복하며 말하기를 "제가 술법을 다투는 장면에서는 독수리 앞에 매였고 새매 앞에 참새였는데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성인이 살인을 미워하는 인자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왕과 자리를 다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고 곧바로 절하며 물러 나갔다. 교외에 있는 부두에 이르러 중국(中國)의 배가 와서 정박하는 물길로 가려고 하였다. 왕은 체류하면서 난리를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내어 쫓게 하였다. 탈해가 계림 땅으

로 달아나자 수군들이 모두 돌아 왔다. 실려 있는 일의 기록이 신라와 많이 다르다.

사료3 『동국통감』 권1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一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戊辰 漢王莽初始元年 新羅 南解王五年 高句麗 琉璃王二十七年 百濟 始祖二十六年〉 春正月 新羅王以長女 妻昔脫解. 脫解本多婆那國人. 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生大卵. 王以不祥棄之. 女裹以帛幷寶物 置櫝中 浮海任所之. 初至金官國海濱 人怪之 不取. 轉至辰韓阿珍浦口.

〈무진[년] 한 왕망 초시 원년 신라 남해왕 5년 고구려 유리왕 27년 백제 시조 26년〉 봄 정월에 신라왕이 장녀를 석탈해(昔脫解)의 처가 되게 하였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 사람인데,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천리에 있다.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왕국의 딸에게 장가들어 처로 삼았는데, 임신한지 7년이 되어 커다란 알을 낳았다.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리게 하였다. 그 여자가 비단으로 보물과 함께 싸서 궤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두었다. 처음에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이르자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옮겨서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렀다.

23~43년경 이후부터　변한(변진), 중국사 동이전에 기록되다

사료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75 |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七十五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閒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중략)…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하나는 마한이라 하고, 둘은 진한이라 하며, 셋은 변진이라 한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國)이다. 그 북쪽은 낙랑과 더불고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다. 북쪽은 예맥과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다.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모두 78국인데 백제(伯濟)가 그 1국이다. 큰 나라는 1만여 호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땅은 모두 사방 4천여 리로 동서가 바다로 한정되었으니 모두 옛날의 진국이다. 마한이 가장 커서 그 종자를 진왕(辰王)으로 함께 세웠는데, 목지국(目支國)에 도읍해 삼한(三韓)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 그 여러 나라 왕들의 조상은 모두 마한 종족 사람이다. …(중략)…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城柵屋室. 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有儉側 次有樊秖 次有殺奚 次有邑借.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行者讓路. 國出鐵 濊 · 倭 · 馬韓並從市之. 凡諸貿易 皆以鐵爲貨. 俗熹歌舞飮酒鼓瑟. 兒生欲令其頭扁 皆押之以石.

진한은 노인들이 스스로 "우리들은 진나라 망명인으로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 한국(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에서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곳에서는 국(國)을 방(邦)이라 이름하고, 궁(弓)을 호(弧)라 하며, 적(賊)을 구(寇)라 하고, 행주(行酒)를 행상(行觴)이라 하고, 서로 호칭하기를 도(徒)라 하는데, 진(秦)나라 말과 비슷한 까닭에 진한(秦韓)이라고도 한다. 성책(城柵)과 옥실(屋室)이 있고, 여러 작은 별읍에는

각각 거수(渠帥)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험측(險側)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번지(樊祗)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살해(殺奚)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읍차(邑借)가 있다. 토지는 비옥하고 좋아서 오곡에 적합하였다. 뽕나무 기르기와 누에치기를 알아 비단포를 지었으며, 수레로 소와 말을 타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예로 갖추었으며 가는 사람이 길을 양보하였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예 · 왜 · 마한이 함께 사갔는데, 여러 무역에서는 모두 쇠를 돈으로 썼다. 풍속에는 가무음주와 북치고 거문고 타기를 즐겨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머리를 찌그러뜨리려 모두 돌로 눌렀다.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形皆長大 美髮 衣服絜淸. 而刑法嚴峻.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중략)…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변진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았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았으며 언어와 풍속에 차이가 있었다. 그 사람의 형태가 모두 장대하고 머릿결이 아름다웠으며 의복이 청결하였으며 형법은 엄준하였다. 그 나라가 왜와 가까워 문신을 새긴 자들이 자못 있었다. 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공파되었을 때 곧 그 나머지 사람들 수천인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 마한을 공략해 깨뜨리고 스스로 즉위해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의 후예가 끊어지자 마한 사람이 다시 스스로 즉위해 진왕이 되었다. …(중략)… 마한 서쪽 섬 위에 주호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고 머리를 깎았으며 가죽 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있었고 아랫도리는 없었다. 소와 돼지 기르기를 잘했으며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한(韓)에서 거래하였다.

사료2 **『삼국지』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제30 |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桓鮮卑東夷傳 第三十**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在西. 其民土着種植 知蠶桑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중략)…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 · 邑君 · 歸義侯 · 中郎將 · 都尉 · 伯長.…(중략)…
한(韓)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서가 바다로 한정되었는데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땅은 4천리가 된다. 세 종족이 있는데, 하나는 마한이라 하고, 둘은 진한이라 하며, 셋은 변한이라 한다. 진한이란 것은 옛 진국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 의지해 씨 뿌리고 심었으며 뽕과 누에 기르기를 알아 비단포를 만들었다. 각각 장수가 있는데 큰 자는 스스로 신지라 이름하고 그 다음은 읍차가 되었다. …(중략)… 모두 50여 국이다. 대국은 만여가이고 소국은 수천가로 모두 10여 만호가 된다.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린다. 신지는 좋은 호칭을 더하기를 신운견지보 · 안야축지 · 분신리아불례 · 구야진지렴의 호를 더해 부른다. 그 관작은 위솔선 · 읍군 · 귀의후 · 중랑장 · 도위 · 백장이었다. …(중략)…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鑡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鑡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可. 辰鑡因將戶來 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鑡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鑡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弁韓布萬五千匹, 鑡收取直還. 郡表鑡功義 賜冠幘 · 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위략』에 말하기를 처음에 우거가 아직 깨뜨려지지 않았을 때 조선상(朝鮮相) 역계경이 간하였으나 우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쪽 진국으로 따라 나가 사는 자가 2천여 호나 되었는데, 역시 조선에 조공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왕망 지황 때에 염사치가 진한의 우거수가 되었는데, 낙랑의 땅이 좋고 인민이 잘 산다는 말을 들어 망명하

여 가서 항복하고자 하였다. 그 읍락을 나서면서 밭 가운데서 참새를 쫓고 있는 남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말이 한인(韓人)이 아니었다. 물으니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한인(漢人)으로 이름은 호래이다. 우리들 1천 5백 명은 벌목을 하는데 한이 쳐서 얻어진 잡혀 와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되었는데 3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염사치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한의 낙랑에 항복하려는데 너는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니, 호래가 "좋다."고 하였다. 치가 호래를 데리고 함자현에 나아가자 현이 군에 보고하였다. 군에서 치를 통역으로 삼아 잠중에서 나와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가서 호래와 함께 포로가 되었던 무리를 천명을 얻었으나 그 5백인은 이미 죽었다. 이에 치가 진한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5백인을 돌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낙랑이 1만 명의 군사를 병선에 태워 보내 너희를 칠 것이다."라 하였다. 진한이 말하기를 "5백인은 이미 죽었으니 내가 마땅히 보상으로 속죄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진한 사람 1만 5천인과 변한포 1만 5천 필을 내니 치가 거두어 곧바로 돌아 왔다. 군이 치의 공로를 표창하여 관책과 토지와 집을 내려 주었다. 자손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안제 연광 4년(125년)에 이르러 그 공으로 세금을 면제 받았다〉

桓 · 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 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 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 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환제(147~167년)와 영제(168~189년)의 말년에 한과 예가 강성해지자 군현이 능히 통제하지 못하자 많은 백성들이 한국(韓國)으로 흘러 들어갔다. 건안 연간(196~220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대방군으로 삼았다. 공손모 · 장창 등을 보내 유민들을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 한과 예를 치자 옛 주민들이 점차 나타났다. 이후로 왜(倭)와 한(韓)이 마침내 대방에 귀속되었다. 경초 중(238년)에 명제가 은밀히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보내 바다 건너 2군을 정하였다.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더해 주었으며 그 다음은 읍장(邑長)에게 주었다. 그 풍속에 의책(衣幘)을 좋아해 하호(下戶)들이 군에 조알할 때 모두 임의로 의책을 빌려 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하는 자가 천여 인이 되었다. 부종사 오림이 낙랑군이 본래 한국(韓國)을 통괄하였다고 하여 진한(辰韓)의 8국을 낙랑에게 주었다. 통역의 전달에 다름이 있어 신지(臣智)가 격분하여 대방군기리영을 공략하였다. 이때 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을 일으켜 공격하다가 궁준이 전사하였으나 2군은 마침내 한(韓)을 멸망시켰다.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跪拜之禮.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擧家共在中無長幼男女之別. 其葬有槨無棺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紒 如炅兵, 衣布袍 足履革 蹻蹋.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鍤之 通日嚾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그 풍속은 기강이 완만해 국읍(國邑)에 비록 주수(主帥)가 있으나 읍락(邑落)들이 섞여 있어 잘 제어하지 못한다. 무릎을 꿇어 절하는 예(禮)가 없다. 거처는 초가집과 흙방으로 짓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이 위에 있다. 온 집안 식구가 속에서 함께 사는데 연령과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 장례 지내는데 곽(槨)은 있으나 관(棺)은 없다. 소와 말 탈 줄을 모르고 모두 주검을 보내는데 쓴다. 옥과 구슬을 보배로 여기는데 때로는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기도 한다. 금은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성정이 굳세고 용맹하고, 머리카락을 틀어서 묶고, 맨머리를 드러내니 그 모양이 굳센 병사와 같았다.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데 발을 높이 들고 걷는다.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게 할 때는 여러 나이 어린 용감하고 건장한 자들은 모두 등가죽을 뚫어 큰 밧줄로 꿰고 또한 한 길 남짓한 나무를 꽂았다. 온종일 소

리 지르면서 힘을 쓰는데 아프다 하지 않으니,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한 이를 씩씩한 것으로 여긴다.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無他珍寶 禽獸草木略與中國同. 出大栗 大如梨. 又出細尾雞 其尾皆長五尺餘. 其男子時時有文身.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언제나 5월에 파종을 마치면 귀신에 제사를 지내는데, 무리 지어 모여 가무 음주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 뒤따르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는데 손발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가락과 박자가 중국의 탁무(鐸舞)와 비슷하였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면 또 이와 같이 하였다. 귀신을 믿는데 국읍에 각각 한 명씩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름하여 천군이라 불렀다. 또한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어 이름하여 소도라 하였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여러 도망자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으니 도둑질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들이 소도를 세우는 뜻은 불탑과 유사하나 선악을 행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북쪽의 중국 군현에 가까운 여러 나라들은 다소 예속(禮俗)에 밝았으나 멀리 있는 나라들은 마치 죄수나 노비들이 서로 무리 지어 사는 것과 같았다. 특별한 보물은 없으며 동식물은 대체로 중국과 같다. 큰 밤이 나는데 크기가 배만 하다. 또한 꼬리가 가는 닭(細尾鷄)이 나는데 그 꼬리 길이가 모두 5척 남짓이다. 그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하였다. 또한 주호(州胡)가 있는데 마한 서해 중의 큰 섬에 있다. 그 사람이 왜소하고 언어는 한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선비족처럼 머리를 밀었다. 다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잘하였다. 그들은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아서 나체와 같았다. 그들은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한의 나라들에서 거래하였다.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 · 齊之名物也.名樂浪人爲阿殘 ;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今有名之爲秦韓者.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노인들이 대대로 전하기를 스스로를 옛날 망명한 자로서 진(秦)의 난리를 피해 한국(韓國)으로 오니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성책(城柵)이 있다.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 나라 국(國)을 방(邦)이라 이름하고, 활 궁(弓)을 호(弧)라 하며, 도둑 적(賊)은 구(寇)라 하고, 술 따를 행주(行酒)를 잔질하는 행상(行觴)이라 한다. 서로를 모두 무리[도(徒)]라 한다. (가까운) 연(燕)나라와 제(齊)나라의 물건 이름 뿐 아니라 진(秦) 사람과도 유사하다. 낙랑 사람을 우리들의 아잔(阿殘)이라 하는데, 동방 사람들이 나 아(我)를 아(阿)라 불렀으니 낙랑인이 본래 그 남은 사람들이었음을 말한다. 지금도 그를 가리켜 진한(秦韓)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 처음에 6국이었다가 점차 나뉘어 12국이 되었다.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 · 不斯國 · 弁辰彌離彌凍國 · 弁辰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辰古資彌凍國 · 弁辰古淳是國 · 冉奚國 · 弁辰半路國 · 弁樂奴國 · 軍彌國 · 弁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辰狗邪國 · 弁辰走漕馬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由國. 弁 · 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移之民 故爲馬韓所制〉
변진(弁辰) 또한 12국이 있다는데 역시 여러 작은 별읍(別邑)이다. 각각 거수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험측(險側), 다음에 번예(樊濊), 다음에 살해(殺奚), 다음에 읍차(邑借)가 있다. 이저국(已柢國) · 불

사국(不斯國)·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근기국(勤耆國)·난미리미동국(難彌離彌凍國)·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염해국(冉奚國)·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변낙노국(弁樂奴國)·군미국(軍彌國)·변군미국(弁軍彌國)·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여담국(如湛國)·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호로국(戶路國)·주선국(州鮮國)·마연국(馬延國)·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마연국(馬延國)·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사로국(斯盧國)·우유국(優由國)이 있다.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모두 24국이다. 대국은 4~5천가이고 소국은 6~7백가로 모두 4~5만호이다. 그(진한) 12국은 진왕(辰王)에 속해 있는데 진왕은 언제나 마한인으로 세워 대대로 계승하였는데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였다. 〈『위략』에 말하기를 그들이 유이민이었던 까닭에 마한의 통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褊. 今辰韓人皆褊頭. 男女近倭 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灶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絜淸 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오곡과 벼 심기에 알맞았다. 일찍이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길러 합사한 비단[겸포(縑布)]을 짰다. 소와 말에 굴레를 씌워 탔으며, 혼인의 예절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하였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를 지내는데, 그 뜻은 죽은 자가 날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한·예·왜가 모두 와서 사갔다. 모든 시장의 거래에서는 모두 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 같았으며 또 2군에도 공급되었다. 풍속에 가무음주를 즐겼다. 거문고가 있는데 그 모양이 축(筑)과 비슷하였으며 타면 또한 음곡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돌로 그 머리를 눌렀는데, 그 모양이 납작하였다. 지금 진한인은 모두 납작머리[편두(褊頭)]이다. 남녀가 왜에 가까워 문신을 하였다. 보병전을 일삼는데 병장기가 마한과 같았다. 그 풍속에 길 가는 자가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양보하였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섞여 살았으며 역시 성곽이 있었다. 의복·거처가 진한과 같았으며 언어·법속이 서로 비슷하였으나 귀신을 제사하는 데는 차이가 있었다. 부뚜막은 모두 집 서쪽에 두었다. 그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 12국에 역시 왕(王)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모두 컸으며 의복이 청결하고 머리가 길었다. 역시 넓고 촘촘한 베를 짰다. 법속이 특히 엄격하였다.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왜인은 대방군 동남의 큰 바다 가운데 있는데 산 같은 섬에 의지해 국읍(國邑)을 삼았다. 옛날에는 100여 국이었는데 한나라 때 조공을 바쳐 오는 나라가 있었다. 지금 통역을 써서 통교하는 나라가 30여 국이다. [대방]군을 나와 왜에 이르는데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면서 한국(韓國)을 거쳐 남으로 가고 동으로 가면 그[바닷길의] 북쪽 해안에 구야한국(狗邪韓國)에 이르는데 7천여 리가 된다. 처음 바다를 건너 천여리 가면 츠시마국(對馬國)에 이른다.

사료3 **『진서』 권97 열전67 사이전 동이 마한 | 『晉書』 卷九十七 列傳六十七 四夷傳 東夷 馬韓**

韓種有三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馬韓居山海之間. 無城郭 , 凡有小國五十六所 大者萬戶 小者數千家 各有渠帥. 俗少綱紀 無跪拜之禮. 居處作土室 形如冢 其戶向上 擧家共在其中 無長幼男女之別. 不知乘牛馬 畜者但以送葬. 俗不重金銀錦罽 而貴瓔珠 用以綴衣或飾髮垂耳. 其男子科頭露紒 衣布袍 履草蹻 性勇悍. 國中有所調役 及起築城隍 年少勇健者皆鑿其背皮 貫以大繩 以杖搖繩 終日讙呼力作 不以爲痛.
한(韓)에는 세 종족이 있다. 하나는 마한이라 하고, 둘은 진한이라 하며, 셋은 변진이라 한다. 진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이 바다에 막혀 있다. 마한은 산과 바다 사이에 사는데 성곽이 없다. 소국(小國)은 모두 56

개소가 있는데, 큰 것은 만 호이고 작은 것은 수천 가이다. 각각 거수(渠帥)가 있다. 풍속에 기강이 완만하고 한쪽 무릎을 꿇어 인사하는 예절이 없다. 거처는 토실(土室)로 만드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은 위를 향하고 있다. 가족 모두 함께 그 안에 사는데 장유와 남녀의 구별이 없다. 소와 말을 탈줄 몰라 기르는 자는 장송하는 데만 쓴다. 풍속에 금은비단은 귀히 여기지 않고 옥구슬을 중하게 여겨 옷에 꿰거나 머리칼을 꾸미고 귀에 늘어뜨리는 데 쓴다. 그 남자는 머리카락을 틀어서 묶고 맨머리를 드러내며 베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데 성정이 용감하고 거칠다. 나라 안에 난리를 조절하거나 성과 해자를 쌓을 때는 나이 어린 용감하고 건장한 자들은 모두 등가죽을 뚫어 큰 밧줄로 꿰고 또한 한 길 남짓한 나무를 꽂았다. 온종일 소리 지르면서 힘을 쓰는데 아프다 하지 않았다.

善用弓楯矛櫓 雖有鬥爭攻戰 而貴相屈服. 俗信鬼神 常以五月耕種畢 群聚歌舞以祭神 至十月農事畢 亦如之.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謂爲天君. 又置別邑 名曰蘇塗 立大木 懸鈴鼓. 其蘇塗之義 有似西域浮屠也 而所行善惡有異. 武帝太康元年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 · 八年 · 十年又頻至. 太熙元年 詣東夷校尉何龕上獻. 咸寧三年復來. 明年又請內附.
활과 방패 · 창과 방패를 잘 사용하였다. 비록 싸움이나 전쟁이 있어도 서로 굴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풍속에 귀신을 섬기는데, 항상 5월에 씨뿌리기를 마치면 무리지어 가무를 하면서 신(神)에게 제사지내는데, 10월에 농사를 마치면 역시 그렇게 하였다. 국읍(國邑)에는 각각 1인을 세워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일러 천군(天君)이라 하였다. 또 별읍(別邑)을 두는데 이름하여 소도(蘇塗)라 하였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다. 그 소도의 뜻은 서역의 부도(浮屠)와 같았으나 선악을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 무제 태강 원년(281년)과 2년에 그 왕이 자주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쳤다. 7 · 8 · 10년에도 자주 왔다. 태희 원년(290년) 동이교위 하감(何龕)에게 공물을 바쳤다. 함녕 3년(277년)에 다시 왔다. 다음 해에 또 와서 귀부를 청하였다.

辰韓在馬韓之東. 自言秦之亡人避役入韓 韓割東界以居之. 立城柵, 言語有類秦人, 由是或謂之爲秦韓.初有六國 後稍分爲十二. 又有弁辰 亦十二國 合四五萬戶. 各有渠帥 皆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 地宜五穀 俗饒蠶桑 善作縑布 服牛乘馬 其風俗可類馬韓, 兵器亦與之同. 初生子 便以石押其頭使扁. 喜舞 善彈瑟 瑟形似筑. 武帝太康元年 其王遣使獻方物. 二年復來朝貢. 七年又來.
진한(辰韓)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를 진(秦)나라의 망명인으로서 난리를 피해 한국(韓國)으로 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나누어 살게 했다. 성책(城柵)을 세우고, 언어가 진인(秦人)과 닮아, 이런 까닭으로 혹은 진한(秦韓)이라 불렀다. 처음에 6국이었다가 뒤에 점차 나뉘어 12국이 되었다. 또 변진(弁辰)이 있는데 역시 12국으로 합하여 4~5만호가 되었다. 각각 거수(渠帥)가 있지만 모두 진한에 예속되었다. 진왕은 언제나 마한인으로 세워 대대로 계승하였으나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했으니 유이민이었던 까닭에 마한의 통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땅은 오곡에 알맞았다. 풍속에 일찍부터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기를 하여 겸포(縑布)를 잘 지었다. 소와 말을 탔으며 그 풍속이 마한과 비슷하였으며 병장기 또한 같았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 그 머리를 납작하게 하였다. 춤추기를 좋아 하며 거문고를 잘 타는데 거문고가 축(筑)과 닮았다. 무제 태강 원년(280년) 그 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2년에 다시 조공해 왔다. 7년에 다시 왔다.

사료4 **『한원』권30 번이부 삼한 | 『翰苑』卷三十 蕃夷部 三韓**

境連鯷壑 地接鼇波 〈魏略曰 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 地方四千里.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辰韓 古之辰國也 · 馬韓在其西 其人土著 種稻知作綿布. 鯷壑東 · 鯷人居海中州 · 鼇波 · 俱海也[中]有也〉. 南届倭人 壯[北]隣穢貊〈後漢書曰 韓有三種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穢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之也〉. 職標臣智 都號目支〈魏略曰 三韓各有長師[帥]. 其置官 大者名巨[臣]智 次曰邑借 凡有小國五十六 惣十餘萬戶. 辰王治目支國〈目〉支國置官 赤[亦]

多曰臣智. 後漢書云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 皆 〉古之辰國也. 〈 馬 〉韓〈 最 〉大 共立其種爲辰王 治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焉〉

경계는 [동쪽 바다] 제인(鯷人)의 땅에 이어지고, 땅은 (바다위 신선의 산) 오파(鼇波)에 닿아있다.〈『위략』에 말하기를 한(韓)은 대방(帶方)의 남쪽에 있는데, 동서는 바다로 구분되어 땅은 4천리가 된다. 하나는 마한, 둘은 진한, 셋은 변진(弁辰)이라 한다. 진한(辰韓)은 옛 진국(辰國)이다. 마한(馬韓)은 그 서쪽에 있는데 그 사람은 토지에 근거해 산다. 볍씨를 뿌리고 면포(綿布)를 짤 줄 안다고 하였다. 제(鯷) 땅은 동쪽에 있는데, 제인(鯷人)은 바다 가운데 오파(鼇波)에 산다. 모두 바다 가운데 있다〉 남으로 왜인(倭人)에 이르고, 북은 예맥(穢貊)에 인접하고 있다.〈『후한서』에 한(韓)에는 세 종족이 있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국이 있는데 그 북쪽은 낙랑과 더불고 남쪽은 왜와 접하고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 있다. 그 북쪽은 예맥(穢貊)과 접해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으로 그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 모두 78국으로 백제(伯濟)가 바로 그 한 나라이다〉 관직은 신지(臣智)로 나타내고 서울은 목지(目支)라 불렀다.〈『위략』에 말하기를 삼한(三韓)에는 각각 우두머리인 장수(長帥)가 있는데, 그 관리 두기를 큰 자는 신지(臣智)라 하고, 다음을 읍차라 한다. 모두 56개의 소국이 있는데 총 10여 만호이다. 진왕(辰王)은 목지국(目支國)을 다스리는데, 관리 두기를 대부분이 신지(臣智)라 한다고 하였다. 『후한서』에 큰 곳은 만여 호, 작은 곳은 수천 가로 각각 산과 바자 사이에 사는데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마한(馬韓)이 가장 커서 그 종자를 함께 세워서 진왕(辰王)으로 삼는데 목지국(目支國)을 다스리는데 삼한 땅의 왕 노릇을 한다. 그 여러 나라의 선조는 모두 이 마한의 종자이다〉

飾重綴珠 不珍金罽之美〈後漢書曰 馬韓人不貴金寶 · 錦罽 不知騎乘牛馬. 唯重瓔珠 以綴衣爲飾 及懸頸垂耳. 大率皆魁頭露紒[紒] 布抱[袍]草履也〉. 居崇仰戶 詎資城郭之華〈後漢書曰 馬韓人知田替[蠶] 珪[畦?]作綿布. 出夫栗[大栗]如梨. 有長尾雞 尾長五尺. 色[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室形如冢 開戶在上. 不知跪拜 無長幼男女之別〉. 尙勇標能 貫脊之風猶扇〈後漢書曰 馬韓人壯勇 少年有築室作力者 輕輒以繩貫脊皮 縋以大木 囆呼爲健 不以爲痛也〉. 矜容表也麗 扁首之俗仍存 〈魏略曰 辰韓俗喜歌舞彈瑟 瑟形似筑. 兒生欲其頭扁 便以名[石]押其頭 今辰韓人皆扁頭 亦文身. 施竈皆在戶西. 其續[瀆]盧國與倭界接 其人形皆大 衣服潔淨也〉. 鈴鼓旣懸 用展接神之禮〈後漢書曰 馬韓人常以五月田竟 祭鬼神. 盡[晝]夜酒會 郡[群]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蹋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遠[建]大夫[木] 以懸鈴鼓 事鬼神 蘇塗之義 有似於西方淳[浮]圖之〉. 鳥羽彼[攸?]設 方盡送往之儀〈魏略曰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 代代相承. 其地宜五穀 若作縑布 服牛乘馬. 某[其]俗 嫁娶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颺〉. 居城識秦人之風 髡髮驗州胡之俗〈後漢書曰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冠[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謂之爲秦韓. 有城栅 · 屋室 諸小別邑各有[渠]渠師[帥] 大者名巨[臣]智 次有儉側 次有樊祇[秖] 次有殺奚 次有邑借. 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 嫁娶以禮 行者讓路. 國出鐵 濊 · 倭 · 馬韓並從市之 諸貨易皆以鐵爲貨. 弁辰與辰韓雜居城郭 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刑]形皆長大美髮 衣服潔淨. 而形[刑]嚴峻. 馬韓之西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兒頭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 貨市韓中也〉

장식으로 구슬 꿰는 것은 귀하게 여겼고, 금과 모직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후한서』에 마한인은 금과 보물을 비단과 모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와 말을 탈 줄 모른다. 오직 구슬만을 중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꾸미며 목에 걸고 귀에 달아 늘어뜨린다. 대개 모두 맨머리에 상투를 드러냈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고 하였다〉 거처는 위를 향한 문을 존중하고 성곽(城郭)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다.〈『후한서』에 마한인은 농사와 양잠을 알았으며 면포를 짰다. 큰 밤이 나는데 크기가 배와 같았다. 꼬리 긴 닭이 있는데 꼬리 길이가 5척이 되었다. 읍락이 잡거하였고 역시 성곽이 없었다. 토실(土室; 움집)을 만드는데 무덤과 같아 여는 문이 위에 있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을 몰랐으며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다고 하였다〉 용감하고 건장함을 숭상하여 등을 뚫어 꿰는 풍습이 유행하였다.〈『후한서』에 마한인은 건장하고 용맹하여 소년으로 집 짓는데 힘쓰는 자는 밧줄로 등가죽을 꿰어 큰 나

무를 매달고 소리 지르며 건장하다고 여겨 아프다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얼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힘써 (납작 머리를 만드는) 편두의 풍속이 남아 있었다.〈『위략』에 진한은 가무와 거문고 타기를 즐기는 풍속이 있는데 거문고는 축(筑)과 닮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납작 머리를 만들고자 돌로 머리를 누르는데 지금 진한 사람은 모두 편두(扁頭)이며 또한 문신(文身)을 하였다. 부뚜막을 모두 집이 서쪽에 만들었다. 그 속(續)[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 사람 몸이 모두 컸으며 의복은 청결하였다고 말하였다〉 방울과 북을 매달아 접신하는 의례를 펼쳤다.〈『후한서』에 마한인은 언제나 5월에 밭갈이를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모여 술을 마시고 모여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다. 춤은 수십 인이 서로 따르며 땅을 박차며 박자를 맞추었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역시 그렇게 하였다. 여러 국읍(國邑)에는 한 사람이 있어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내는데 이름하여 천군(天君)이라고 불렀다. 또한 소도(蘇塗)를 세워서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 소도의 의미는 마치 서방의 부도(浮圖)와 같았다고 하였다〉 새 깃털을 넣어 장송의 의례를 다하였다.〈『위략』에 진한인은 언제나 마한인을 임금(主)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하였다. 그 땅이 오곡에 적합하고 겸포(縑布)를 지어 입었다. 소와 말을 탔으며 그 풍속에 시집가고 장가 드는 데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송하는데 그 뜻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잘 날라 가도록 하려 함이었다〉 성(城)에 거처하는 것을 보아 진(秦)나라 사람의 풍속을 알 수 있고, 민머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주호(洲胡)의 풍속을 알 수 있다.〈『후한서』에 진한의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의 망명인이 고된 부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오니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국(國)을 방(邦), 궁(弓)을 호(弧), 적(賊)을 구[寇(冠)], 행주(行酒)를 행상(行觴)이라 부르며 서로를 도(徒)라 불렀으니 진나라 말과 비슷하였다. 그런 까닭에 진한(秦韓)이라 불렀다. 성책(城柵)과 가옥[家屋(屋室)]이 있었다. 여러 작은 별읍(別邑)에는 각각 거수[渠帥(渠師)]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이름하고, 다음은 험측(儉側), 다음은 번지(樊祇), 다음이 살해(殺奚), 다음은 읍차(邑借)라 하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좋아 오곡에 마땅하였으며 잠상(蠶桑)을 알아 겸포(縑布)를 짰다. 소와 말의 수레를 탔으며 시집가고 장가 드는데 예절이 있었으며, 길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였다. 나라에서 철(鐵)이 나는데 예(濊)·왜(倭)·마한(馬韓)이 와서 사갔다. 여러 무역에는 모두 철이 화폐로 쓰였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잡거하였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은 다름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몸이 크고 머릿결이 아름다우며 의복이 청결하였다. 형법이 엄준하였다. 마한 서쪽 바다의 섬에는 주호국(州胡國)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작고 소아의 민머리였으며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았다. 소 돼지 기르기를 잘하고 배를 타고 왕래하는데 한(韓)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사료5 **『책부원구』** 권957 외신부2 국읍1 | **『冊府元龜』** 卷九百五十七 外臣部二 國邑一

馬韓 古之辰國也. 居山海之間. 無城郭. 凡有小國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亦與倭接. 辰韓 在帶方東南. 西海以爲限. 十有二國. 其北與濊貊矣. 弁辰 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三韓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有山海 地各俗方少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倭國 在帶方東南. 其王居邪馬臺國〈案今名邪馬 堆音之訛〉 樂浪郡徼去其國 萬二千里. 其西北界拘邪韓國 七千餘里.

마한은 옛 진국(辰國)이다. 산과 바다 사이에 사는데 성곽이 없다. 소국(小國)이 모두 54국이 있는데, 그 북쪽은 낙랑과 접하고 남쪽은 왜와 접하고 있다. 진한은 대방의 동남쪽에 있는데 서해로 한계를 삼는다. 12국이 있는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접한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으로 그 남쪽은 역시 왜(倭)와 접한다. 삼한은 모두 78국으로 백제도 그 1국이다. 큰 것은 만여 호이고 작은 것은 수천 가로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다. 땅은 각각 사방 4천여 리로 동서는 바다에 막혀 있다. 왜국(倭國)은 대방(帶方)의 동남에 있는데 그 왕은 야마타이국(邪馬臺國)〈생각건대 지금 야마타이(邪馬堆)는 와전된 음일 것이다〉에 산다. 그 나라는 낙랑군에서 만이천리 떨어져 있다. 그 서북 경계에 구야한국(拘邪韓國)이 있는데 [낙랑군에서] 7천여 리 된다.

사료6 **『책부원구』** 권959 외신부4 토풍1 | **『冊府元龜』** 卷九百五十九 外臣部四 土風一

馬韓國 韓種有三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 北與樂浪 南與倭接 東西以海爲限. 人

知蠶桑 作綿布. 出大栗如梨 有長五丈. 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知跪拜 無長幼男女之別. 不貴金寶錦罽. 不知騎乘牛馬 雅重瓔珠 以綴衣爲飾 及縣頸垂耳. 大率皆魁頭露紒〈魁頭 猶科頭也. 謂以髮索繞 成科結也. 紒音計〉布袍草履. 其人壯勇. 少年. 有築室 作力者 輒以繩貫脊皮 縋以大木 嚾呼爲楗. 嘗[常]以五月田竟 祭鬼神 晝夜酒 會群聚歌舞 舞輒十人相隨 蹋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主 祭天神 號爲大[天]君. 又立蘇塗 建大木 以縣鈴鼓 事鬼神.〈諸國各有別 以爲蘇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蘇塗之義 有似浮屠〉其南界近倭 亦有文身者. 又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마한국 한의 종자에 셋이 있다. 하나는 마한이라 하고, 둘은 진한이라 하며, 셋은 변진이다. 진한이란 것은 옛 진국이다. 마한은 북으로 낙랑과 더불고, 남으로 왜와 접하였으며, 동서는 바다로 막혀있다. 사람들은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기를 알고 면포를 지었다. 큰 밤이 나는데 배와 같아 길이가 5장이나 되었다. 읍락이 섞여 있으며 성곽이 없었다. 흙방을 만드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아서 그 문이 위에 달려 있다. 궤배(한쪽 무릎을 꿇는 절)를 아는데, 장유남녀의 구별이 없다. 금 · 보석 · 비단 · 융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와 말을 탈 줄 몰랐다. 옥과 구슬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 달아 장식으로 삼았으며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를 달았다. 대개 맨머리를 드러내 상투를 틀었는데〈괴두(魁頭)는 과두(科頭)와 같으니 머리를 틀어 묶은 것을 이른다. 개(紒)의 음은 계(計)이다〉 베의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 그 사람 됨됨이가 건장하고 용맹스러웠다. 집을 지을 때 소년으로 힘을 쓰는 자는 등가죽을 뚫어 새끼를 꿰고 큰 나무를 꽂아 소리 지르는 것을 건장하다 하였다. 언제나 5월에 밭갈이를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지내는데 밤낮으로 마시고 모여 무리지어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 춤추는데 [수]십명이 서로 따르며 땅을 박차며 곡조에 맞추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면 다시 그렇게 하였다. 여러 국읍에는 각각 한 사람이 있어 천신에 제사지내는데, 대군[大君(天君)『후한서』]이라 불렀다. 또 소도(蘇塗)를 세우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겼다.〈여러 나라에 각각 별도로 소도를 두었는데, 도망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소도의 뜻은 부도(浮屠)와 비슷하다〉 그 남쪽 경계가 왜에 가까워 역시 문신을 하는 자가 있었다. 그 풍속에 의책(衣幘)을 좋아하였다. 하호(下戶)가 군에 이르러 조알하는데 임시 의책을 하였으니 스스로 인수(印綬)와 의책을 하는 자가 천여 인에 달했다.

辰韓 在馬韓之東 言語有類秦人繇 是或謂之秦韓. 其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作縑布 乘駕牛馬. 嫁娶禮俗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 欲使死者飛揚. 其國作屋 橫累之木爲之 有似牢獄也. 國出鐵 韓 · 濊 · 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有瑟有形似筑 彈之 亦有音曲. 生兒 便以石壓其頭 狀令其編. 今辰韓人 皆編頭. 男女近倭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언어가 진나라 사람들과 비슷하였다. 이로써 혹은 진한(秦韓)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오곡과 벼 심기에 알맞았다. 일찍이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기를 알아 합사한 비단[겸포(縑布)]를 짰다. 소와 말에 굴레를 씌워 탔으며, 혼인의 예절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하였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를 지내는데, 그 뜻은 죽은 자가 날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나라에서 집을 짓는데 나무를 가로 쌓아서 지었으므로 감옥과 같았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한 · 예 · 왜가 모두 와서 사갔다. 모든 시장의 거래에서는 모두 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 같았으며 또 2군에도 공급되었다. 풍속에 가무음주를 즐겼다. 거문고가 있는데 그 모양이 축(筑)과 비슷하였으며 타면 또한 음곡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문득 돌로 그 머리를 눌렀는데, 그 모양이 납작하였다. 지금 진한인은 모두 납작 머리[편두(褊頭)]이다. 남녀가 왜에 가까워 문신을 하였다. 보병전 만을 일삼는데 병장기가 마한과 같았다. 그 풍속에 길 가는 자가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양보하였다.

弁辰國 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변진국은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 성곽이 있어 의복거처가 진한과 같았다.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였으나, 귀신을 제사하는 데 차이가 있어, 부뚜막을 만드는데 모두 집의 서쪽에 두었다.

23~43년 이후의 변한(변진)이 조선시대 사서에 기록되다

사료1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韓有三種〈三國志 韓在帶方之南〉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閒.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焉.

한(韓)에는 세 종족이 있다.〈『삼국지』에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하나는 마한이라 하고, 둘은 진한이라 하며, 셋은 변진(弁辰)이라 한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國)이다. 그 북쪽은 낙랑과 더불고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다. 북쪽은 예맥과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다.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모두 78국인데 백제(伯濟)가 그 1국이다. 큰 나라는 1만여 호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땅은 모두 사방 4천여 리로 동서가 바다로 한정되었으니 모두 옛날의 진국이다. 마한이 가장 커서 그 종자를 진왕(辰王)으로 함께 세웠는데, 목지국(目支國)에 도읍해 삼한(三韓)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 그 여러 나라 왕들의 조상은 모두 마한 종족 사람이다.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割東界地 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城柵屋室. 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有儉側 次有樊秖 次有殺奚 次有邑借. 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行者讓路. 國出鐵 濊 · 倭 · 馬韓並從市之. 凡諸貿易 皆以鐵爲貨. 俗憙歌舞飮酒鼓瑟. 兒生欲令其頭扁 皆押之以石.

진한은 노인들이 스스로 "우리들은 진나라 망명인으로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 한국(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에서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국(國)을 방(邦)이라 이름하고, 궁(弓)을 호(弧)라 하며, 적(賊)을 구(寇)라 하고, 행주(行酒)를 행상(行觴)이라 하고, 서로 호칭하기를 도(徒)라 하는데, 진(秦)나라 말과 비슷한 까닭에 진한(秦韓)이라고도 한다. 성책(城柵)과 옥실(屋室)이 있고, 여러 작은 별읍에는 각각 거수(渠帥)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험측(險側)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번지(樊秖)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살해(殺奚)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읍차(邑借)가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에 알맞고, 뽕나무 기르기와 누에치기를 알았다. 멍에는 씌워 소와 말을 탔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예절로 하며 길가는 자는 길을 양보한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예·왜·마한이 모두 와서 사갔다. 모든 무역에 모두 철은 화폐로 하였다. 풍속에 가무음주와 북치고 거문고 타기를 즐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편두[납작머리]를 만들기 위해 모두 돌로 머리를 눌렀다.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後漢書〉

변진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았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았으며 언어와 풍속에 차이가 있었다. 그 나라가 왜와 가까워 문신을 새긴 자들이 자못 있었다. 〈『후한서』〉

馬韓有爰襄國〈按通考作愛襄〉 · 牟水國 · 桑外國 · 小石索國 · 大石索國 · 優休牟涿國 · 臣濆活國 · 伯濟國 · 速盧不斯國 · 日華國 · 古誕者國 · 古離國 · 怒藍國 · 月支國〈按月(木)支國之譌〉 · 咨離牟盧國 · 素謂乾國 · 古爰國 · 莫盧國 · 卑離國 · 占離卑國 · 臣釁國 · 支侵國 · 狗盧國 · 卑彌國 · 監奚卑離國 · 古蒲國 · 致利鞠國 · 冉路國 · 兒林國 · 駟盧國 · 內卑離國 · 感奚國 · 萬盧國 · 辟卑離國 · 臼斯烏旦國 · 一離國 · 不彌國 · 支半國 · 狗素國 · 捷盧國 · 牟盧卑離國 · 臣蘇塗國 · 莫盧國 · 古臘國 · 臨素半國 · 臣雲新國 · 如來卑離國 · 楚山塗卑離國 · 一難國 · 狗

奚國 · 不雲國 · 不斯濆邪國 · 爰池國 · 乾馬國 · 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其民土著種植 散在山海間.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不能善相制御〈三國志 · 晉書 馬韓凡有小國五十六所 各有渠帥. 謹按馬韓諸國 後漢書稱五十四國 而魏志所錄莫盧國 疊載 爲五十五國 則一當删.〉
마한에는 원양국〈살피건대 『[문헌]통고』는 애양(愛襄)으로 썼다〉 · 모수국 · 상외국 · 소석색국 · 대석색국 · 우휴모탁국 · 신분활국 · 백제국 · 속로불사국 · 일화국 · 고탄자국 · 고리국 · 노람국 · 월지국〈살피건대 목지국의 잘못이다〉 · 자리모로국 · 소위건국 · 고원국 · 막로국 · 비리국 · 점리비국 · 신흔국 · 지침국 · 구로국 · 비미국 · 감해비리국 · 고포국 · 치리국국 · 염로국 · 아림국 · 사로국 · 내비리국 · 감해국 · 만로국 · 벽비리국 · 구사오단국 · 일리국 · 불미국 · 지반국 · 구소국 · 첩로국 · 모로비리국 · 신소도국 · 막로국 · 고랍국 · 임소반국 · 신운신국 · 여래비리국 · 초산도비리국 · 일난국 · 구해국 · 불운국 · 불사분사국 · 원지국 · 건마국 · 초리국 등 모두 오십여 국이 있다. 대국은 만 여가이고 소국은 수천 가로 총 십여만 호이다. 그 백성들은 땅을 갈아 씨 뿌리고 사는데 산과 바다 사이에 산다. 국읍(國邑)에 비록 주수(主帥)가 있으나 읍락(邑落)이 잡거하여 능히 잘 제어할 수 없다.〈『삼국지』와 『진서(晉書)』에 마한 소국은 모두 56개소로 각각 거수가 있다고 했다. 삼가 살피건대 마한의 여러 나라는 『후한서』가 54국으로 칭하였다. 그러나 『위지』가 기록한 막로국(莫盧國)은 중복이니 55국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는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辰韓古之辰國也. 在馬韓之東.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有已柢國 · 不斯國 · 弁辰彌離彌凍國 · 弁辰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辰古資彌凍國 · 弁辰古淳是國 · 冉奚國 · 弁辰半路國 · 弁樂奴國 · 軍彌國 · 弁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辰狗邪國〈按詳見諸國紀〉 · 弁辰走漕馬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中國 弁 · 辰韓合二十四國.〈謹按 軍彌國下 又有弁軍彌國 且馬延國有二 此必傳寫之誤也. 删此二國則爲二十四國. 又按弁辰亦辰韓也. 其懷地相錯 人民雜居 不可以從某之某分而二之 故魏志亦錯雜書之. 唯於弁辰諸國 標以弁辰二字 其雜居可知也〉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離之人 故爲馬韓所制. 同上〉
진한은 옛날의 진국이다. 마한의 동쪽에 있으며, 처음에는 6개국이었다가 나뉘어 12개국이 되었고, 변진(弁辰) 역시 12개 나라이다. 이저국 · 불사국 · 변진미리미동국 · 변진접도국 · 근기국 · 난미리미동국 · 변진고자미동국 · 변진고순시국 · 염해국 · 변진반로국 · 변락노국 · 군미국 · 변군미국 · 변진미오야마국 · 여담국 · 변진감로국 · 호로국 · 주선국 · 마연국 · 변진구야국〈살피건대, 「제국기(諸國紀)」에 상세히 보인다〉 · 변진주조마국 · 변진안야국 · 마연국 · 변진독로국 · 사로국 · 우유국이 있는 바,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모두 24국이다.〈삼가 살펴보건대, 군미국 아래에 또 변군미국이 있으며, 또 마연국이 두 곳에 있으니, 이는 반드시 베껴 쓰는 자가 잘못 적은 것이다. 이 두 나라를 삭제하면 24국이 된다. 또 살펴보건대, 변진 역시 진한이다. 그 지역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백성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탓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디라고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위지』에서도 뒤섞어서 쓰면서 오로지 변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변진 두 자를 붙여 표시하였는 바, 그들이 뒤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대국은 4~5천가이고, 소국은 6~7백가로 총 4~5만호이다. 이 12개국은 진왕(辰王)에게 속하였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다. 진왕은 스스로 즉위해 왕이 될 수는 없었다.〈『위략』에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마한에게 제압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다〉

按 古初漢水以南之地 爲三韓. 其中馬韓最大 據有今全羅 · 忠清道及京畿南道之地. 其後秦亡人東來. 馬韓割與今慶尙道地. 稱以辰韓 秦之爲辰. 據左傳辰嬴可證辰韓之中. 又分一種曰弁辰.
살펴보건대 옛날에 한수 남쪽의 지역이 삼한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한이 가장 커서 지금의 전라도 · 충청도 및 경기의 남쪽 지역을 점유하였다. 그 뒤에 진(秦)나라 사람들이 망명하여 동쪽으로 나오자, 마한에서는 지금의 경상도 지역을 떼어 주고는 그곳을 진한이라고 칭하였다. 진(秦)이 진(辰)임은 『춘추좌전』의 '진영(辰嬴)'을 근거로 하여 증명할 수가 있다. 진한 가운데서 또 한 종족이 나뉘어졌는데, 이를 변진(弁辰)이라 한다.

사료2 **『해동역사』 권20 예지3 의물 장복 | 『海東繹史』 卷二十 禮志三 儀物 章服**

弁辰衣服潔淸〈後漢書〉

변진은 의복이 청결했다〈『후한서』〉

사료3 **『해동역사』 권22 악지 악제·악기 | 『海東繹史』 卷二十二 樂志 樂制·樂器**

弁辰國有瑟 其形如筑 彈之有音曲 與胡琴類.〈文獻通考. 謹按三國志及通典 皆作辰韓瑟 卽伽倻琴也. 詳見新羅樂制. 新羅琴自新羅國來. 有十二絃 以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天地名之. 舊傳有新羅琴三張 箜篌無識者.〈和漢三才圖會. 日本書紀 允恭四十二年 新羅貢種種樂人 · 八十樂器〉 按 新羅琴 卽于勒所傳伽倻琴 是也. 凡十二絃 武絃稍大至五短 音漸次而細 柱亦漸次而低.

변진국에는 현악기가 있었다. 그 모양은 거문고 같은데 튕겨서 음곡을 만든다. 〈『문헌통고』에 있다. 삼가살피건대 『삼국지』와 『통전』은 모두 진한슬로 지었으니 곧 가야금이다. 신라의 악제에 상세히 보인다. 신라금은 신라국으로부터 전해졌다. 12줄이 있는데, 갑 · 을 · 병 · 정 · 무 · 기 · 경 · 신 · 임 · 계 · 천 · 지로 이름하였다. 옛부터 전하는 것에 신라금 3장(三張)과 箜篌의 2장(二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만 쟁(箏)을 쓸 따름이다. 금과 공후는 아는 자가 없다.〈『화한삼재도회』·『일본서기』 윤공 42년에 신라가 각종 악인과 악기를 바쳤다〉 살펴보건대 신라금은 곧 우륵이 전하는 가야금이 바로 이것이다. 무릇 12현은 무현이 조금 크고 5단에 이르기까지 음이 점차 가늘어지고 안족 또한 점차 낮아진다.

사료4 **『해동역사』 권26 물산지1 포백류 포 | 『海東繹史』 卷二十六 物産志一 布帛類 布**

弁辰作廣幅細布〈三國志〉

변진은 넓은 폭에 촘촘한 비단을 만든다〈『삼국지』〉

사료5 **『해동역사』 권28 풍속지 잡속 | 『海東繹史』 卷二十八 風俗志 雜俗**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形皆長大 美髮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後漢書 按 近倭文身三韓皆同〉 弁辰與辰韓 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三國志〉 方言 弁辰與辰韓雜居 言語有異〈後漢書〉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산다. 성곽과 의복이 같으나 언어와 풍속에는 다름이 있다. 그 사람 모양이 장대하다. 머리가 아름다우며 그 나라가 왜에 가까워 문신한 자가 자못 많았다〈『후한서』 살피건대 왜에 가까워 문신을 하는 것은 삼한이 모두 같았다〉 변한과 진한은 법과 풍속이 서로 비슷하나 귀신을 제사하는데는 차이가 있다. 부뚜막은 모두 집의 서쪽에 설치하였다〈『삼국지』〉 한편으로는 변진은 진한과 잡거하였으며 언어에 다름이 있었다 한다〈『후한서』〉

사료6 **『해동역사』 권40 교빙지8 해도 부 통왜해로 | 『海東繹史』 卷四十 交聘志八 海道 附 通倭海路**

倭在韓東南大海中 依山島爲居 凡百餘國. 武帝滅朝鮮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 · 國皆稱王 世世傳統. 其大倭王居邪馬臺國. 樂浪郡徼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狗耶韓國七千餘里. 其地大較在會稽 · 東冶之東 與朱崖 · 儋耳相近.〈後漢書 謹按 耶馬臺 後漢書注及魏志作耶摩堆 異稱日本傳曰 邪馬臺國卽大和國也. 古稱大養德國所謂倭奴國也. 邪馬臺大和和訓也. 自其神武天皇 至光仁天皇 都大和國〉

왜는 한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산과 섬에 의지하여 사는데 무릇 100여 국이다.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자 사신과 통을 보내 한과 통교한 나라가 30여 국이 되었다. 나라들은 왕을 칭하면서 대대로 이어졌는데 그 중 대 왜왕은 야마타이국에 살았다. 낙랑군에서 1만 2천리 떨어져 있고 그 서북쪽의 경계 구야한국은 7천여리 떨어져 있다. 그 땅은 대개 회계와 도야의 동쪽에 있으며, 주애와 담이에 가깝다.〈『후한서』에 있다. 삼가 살피건대 야마타이(耶馬臺)는 『후한서』의 주와 『위지』가 야마타이(耶摩堆)라 하였다. 『이칭일본전』에는 야마타이국(邪馬臺國)은 곧 야마토국(大和國)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야마토국(大養德國)이라 칭했으니 이른바 야마토국(倭奴

國)이다. 야마타이(邪馬臺)는 야마토(大和)의 야마토(和; 고대일본어)의 훈이다〉

倭人在帶方東南大海中. 從郡至倭 循海岸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 至對馬國. 又渡一海千餘里 至一支國.〈三國志〉
왜인은 대방 동남의 큰 바다 가운데 있다. 군에서 나와 왜에 이르는데 해안을 따라 가면서 한국을 거치고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서 그 북쪽 해안의 구야한국에 이르는데 7천여 리이다. 처음으로 한 바다를 건너 천여리 가면 대마(츠시마)국에 이른다. 다시 한 바다를 천여 리 건너면 이키국(一支國)에 이른다.〈『삼국지』〉

〈鎭書〉 謹按 漢初 倭屬樂浪 建安中 屬帶方. 狗邪韓國 今金海府. 對馬國 今對馬島. 一支國 今一岐國. 古今通倭 由此二島.
〈[한]진서〉가 삼가 살피건대 한나라 초기에 왜가 낙랑에 속하였다가 건안 연간(196~200년)에 대방에 속하였다. 구야한국은 지금의 김해부이다. 츠시마국(對馬國)은 지금의 대마도(對馬島)이다. 이키국(一支國)은 지금의 이키국(一岐國)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왜에 통하는 데는 이 두 섬을 경유하였다.

사료7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古初 漢以南 謂之韓國 亦謂之辰國. 其中分爲三種. 西曰馬韓 馬韓之東曰辰韓 辰韓之南曰弁辰. [後漢書韓傳]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閒.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옛날에는 한수[漢水] 남쪽을 한국(韓國)이라고 일렀고 또한 진국(辰國)이라고 일렀다. 그것이 중간에 세 종족으로 나뉘었는데, 서쪽을 마한이라 하고, 마한의 동쪽을 진한이라 하고, 진한의 남쪽을 변진(弁辰)이라 하였다. [『후한서』열전] 한에는 세 종족이 있는데,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진이라 한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國)이며, 그 북쪽은 낙랑(樂浪)과 접하였고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며, 북쪽은 예(濊)·맥(貊)과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모두 78국으로 백제(伯濟)는 그중 한 나라이다. 큰 나라는 1만여 호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호인데,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사방의 지역을 합하면 4천여 리이며,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삼았는바,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그 가운데서 마한이 가장 크므로 그 종자를 공립하여 진왕(辰王)으로 삼았다. 목지국(目支國)에 도읍해 삼한의 땅을 모두 다스렸다. 그 여러 나라 왕들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

[三國志 三韓傳] 韓在帶方之南.〈謹按帶方郡南以漢水爲界〉
[『삼국지』 삼한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삼가 살펴보건대 대방군의 남쪽은 한수(漢水)로 경계를 삼는다〉

[久庵東國地理志]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其北本三朝鮮之地 檀君與堯竝立 歷箕子 暨衛滿 分爲四郡合爲二府. 與高朱蒙迭爲盛衰. 東晉以後 高氏遂並其地 是爲高句麗.
[구암(久庵)의 『동국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 동방은 옛날에 스스로 나뉘어서 남북으로 되었는데, 북쪽은 본디 세 조선 지역으로, 단군이 요임금과 나란히 섰으며, 기자를 거치고 위만을 지나 4군(四郡)으로 나뉘었다가 2부(府)로 합해져 고주몽과 번갈아 가면서 성쇠를 반복하였다. 동진 시대 이후로는 고씨가 드디어 그 지역을 병합하였으니 곧 고구려이다.

其南乃三韓之地. 漢初 箕準爲衛滿所逐 浮海而南 至韓地金馬郡都焉 稱謂韓王 是爲馬韓. 秦之亡人 避役入韓地 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有弁韓 屬於辰韓 各有渠帥. 漢書云 弁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指三韓 地方 亦已詳矣.

그 남쪽은 곧 삼한(三韓)의 땅이다. 한나라 초기에 기준(箕準)이 위만에게 축출되어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와 한(韓) 지역에 이르러 금마군(金馬郡)에 도읍하여 한왕(韓王)이라 칭했으니, 이것이 마한(馬韓)이다. 진(秦)의 망명인들이 전쟁을 피해 한 지역으로 들어오자 한이 동쪽 경계를 떼어내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이다. 또 그 남쪽에는 변한(弁韓)이 있어서 진한에 복속하였는데, 각각 우두머리[거수(渠帥)]가 있었다.『한서(漢書)』에 이르기를 "변한은 남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삼한 지방을 가리킨 것이 이미 상세하다.

新莽元年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 爲辰韓六部民所推戴 而新羅始焉. 弁韓前史雖不言其所傳 而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 據有辰韓之南界 其後入於新羅. 疑此卽弁韓之地也. 然則 南自南 北自北 本不相攙入 雖其界限不知的何處 而恐不出漢江一帶也.

신(新)[왕]망([王]莽) 원년(9년)에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百濟)를 일으켰다.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의 6부(部) 백성들에 의해 추대되어 신라가 비로소 건국되었다. 변한에 대해서는 전사(前史)에서 비록 전해 온 바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라 유리왕 18년(41년)에 수로왕(首露王)이 가락(駕洛)에 나라를 처음 열고 진한의 남쪽 경계 지역에 근거하였다. 그 후에 신라로 편입되었는데, 아마도 이곳이 바로 변한 지역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있어서 본디 서로 간에 침범해 들어가지 않았는바, 비록 경계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강 일대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崔致遠始謂馬韓麗也 弁韓濟也 此一誤也. 權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亦不知高句麗之非弁韓 混而說之 此再誤也. 漢書云 弁辰在辰韓之南 亦與倭接. 又云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同. 其稱弁韓 必曰弁辰 則弁韓之於辰韓必爲附庸 而不相懸遠 可知. 又云 馬韓統五十四國 辰弁韓各統十二國. 所謂國卽今之郡縣 合辰弁二韓 僅得二十四國 不能 馬韓之半. 以此見之 湖西 · 湖南合爲馬韓 以嶺南一道 自分爲辰弁二韓 又何疑乎.

최치원이 비로소 마한을 여(麗)라고 하고 변한을 제(濟)라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라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역시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서 뒤섞어서 말하였는데,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한서』에 이르기를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왜(倭)와 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변진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가 같다고 하면서 변한을 칭하면서는 반드시 변진이라 하였다. 그런즉 변한은 반드시 진한에 부용국이었을 것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르기를 마한은 54국을 총괄하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총괄한다고 하였기에 이른바 국(國)이라는 것은 지금의 군현(郡縣)으로 진한과 변한의 두 한을 합해도 겨우 24국으로 마한의 반도 못 된다. 이로써 본다면 호서와 호남이 합해 마한이 되고, 영남의 한 도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의 두 한이 되었음을 어찌 의심하심할 것인가.

사료8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弁辰 弁辰十二國 今慶尙右道沿海地也. [後漢書 韓傳]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三國志 三韓傳] 弁辰十二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弁辰古資彌凍國〈謹按 今固城郡〉 弁辰古淳是國 弁辰半路國) 弁樂奴國〈謹按脫辰字〉 弁辰彌烏邪馬國〈謹按 今高靈縣〉 弁辰狗邪國〈謹按 今金海府〉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弁辰瀆盧國.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韓)鎭書〉 謹按范史 弁辰在辰韓之南 馬韓之東 其南與倭接 今慶尙右道沿海之地역 是也.

변진(弁辰) 12국은 지금 경상우도의 연해지역이다. [『후한서』한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변진은 진한과 뒤섞여 살았다.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나라는 왜에 가까워서 문신(文身)을 하는 자가 자못 많았다. [『삼국지』한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변진 12국은 변진미리미동국 · 변진접도국 · 변진고자미동국〈삼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고성군이다〉 · 변진고순시국 · 변진반로국 · 변낙노국〈삼가 살펴보건대 진(辰) 자가 빠졌다〉 변진미오야마국〈삼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고령현이다〉 · 변진구야국〈삼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김해부이다〉 · 변진주조마국 · 변진안야국 · 변진독로국이 있다. 그 독로국은 왜와 접경하였다. 12국에는 역시 왕이 있다. 〈[한]진서〉가 범사(범엽의 『후한서』)를 삼가 살펴보니, 변진은 진한의 남쪽과 마한의 동쪽에 있으며, 그 남쪽은 왜와 접하였으니, 지금 경상우도의 연해지역이 이곳이다.

弁辰十二國 皆屬辰韓. [晉書 辰韓傳] 弁辰十二國 各有渠帥 皆屬辰韓. 〈鎭書〉 謹按新羅史 赫居世十九〈漢元帝十年〉 卞韓以國來降. 弁辰十二國 不應一時頓降. 且十二國猶在後漢 · 魏 · 晉史 則不得於前漢之時獻國於新羅也. 此云來降者 來相服屬 非謂竝國土而獻之也.

변진 12국은 모두 진한에 복속되었다. [『진서』진한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변진(弁辰) 12국은 각자 우두머리[거수(渠帥)]가 있는데 모두 진한에 복속되었다. 〈[한]진서〉가 신라사(『삼국사기』신라본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한 원제 10년〉에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고 하였지만 변진 12국이 일시에 항복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또한 12국이 여전히 『후한(서) · 위지 · 진서』 등의 사서에 실려 있으니, 전한 시대에 신라에 나라를 들어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고 한 것은 와서 복속한 것이지, 온 나라를 들어서 바친 것은 아니다.

사료9 **『해동역사』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蓋東史所稱六伽倻 皆弁辰諸國也. [文獻備考] 大伽倻今高靈縣 小伽倻今固城縣 古寧伽倻今咸昌 阿羅伽倻今咸安郡 星山伽倻今京山一云碧珍〈今星州〉〈鎭書〉 謹按東史 首露王立爲駕洛國王. 其弟五人 各爲五伽倻主. 此所謂六伽倻也. 弁辰狗邪國爲駕洛國 弁辰彌烏邪馬國爲大伽倻 卽有明證. 且魏志有弁辰古資國 古資者固城之舊名也.〈東史作古自〉 固城者小伽倻也. 以此推之 六伽倻之爲弁辰諸國 更何疑乎. 東史之伽倻與新羅雜居 始於後漢 而終於齊 · 梁. 華史之弁辰與辰韓雜居 起於後漢 而於顯於魏晉. 彼此所記年代不差 疆理悉合. 新羅旣爲辰韓 則伽倻自爲弁辰. 久庵地志 以首露所起爲弁辰 豈非卓見乎.

대개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칭한 여섯 가야는 모두 변진의 여러 나라이다. [『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가야는 지금 고령현이고,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현이며, 고녕가야는 지금의 함창이고, 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군이며,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 또는 벽진〈지금 성주(星州)〉이라고도 한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사서[『동사(東史)』]를 보면 수로왕이 가락국왕이 되었고 그의 동생 다섯 사람은 각각 다섯 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여섯 가야이다. 변진구야국이 가락국이 되고, 변진미오야마국이 대가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위지를 보면 변진고자국이 있는데, 고자(古資)라는 것은 고성(固城)의 옛 이름이다.〈『동사(東史)』는 고자(古自)로 지었다〉 고성이란 것은 소가야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여섯 가야가 변진의 여러 나라임은 다시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동사』에서 가야는 신라와 뒤섞여 살면서 후한시대에 시작되어 제 · 양나라 때 없어졌다고 했으나, 중국사서 [『화사(華史)』]에서 변진은 진한과 뒤섞여 살면서 후한시대에 일어나 위진(魏晉) 시대에 번성했다고 했으니, 피차 기록한 바가 연대의 차이도 없고 강역이 모두 합치된다. 신라가 이미 진한이니 가야는 저절로 변진인 것이다. 구암(한백겸)의 지리지(『동국지리지』)를 보면 수로왕이 일어난 곳을 변진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탁월한 견해가 아니겠는가.

又按一說 弁者駕洛也 駕洛者伽倻也. 東俗 凡冠幘之尖頂者 通謂之弁 亦謂之駕那. 今禁府皁隷及郡縣侍奴 猶戴尖

頂之幘 名之曰駕那 亦謂之金駕那. 方言流傳 必有所本也. 新羅之時 駕洛國在今金海府 或稱加羅 或稱伽倻. 且乃弁辰之總王也. 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 故號之曰駕羅國 而中國人譯之以文 則謂之弁辰也. 及其末王仇亥投降新羅之後 名其國曰金官. 金官者金冠 金冠者金駕那也. 駕那之爲弁辰 尙足疑乎.〈本說止此〉 此可謂 發前人之所未發而理固然矣. 大抵 弁辰卽伽倻也 伽倻卽弁辰也. 弁辰與伽倻 決非前後二國之乎.

또 일설을 살펴보건대 변(弁)은 가락(駕洛)이고, 가락은 가야(伽倻)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꼭대기 부분이 뾰족한 모자를 통틀어서 변(弁)이라고 하며, 또한 가나(駕那)라고도 한다. 지금도 의금부(義禁府)의 조례(皁隷)들이나 군현(郡縣)의 시노(侍奴)들이 꼭대기 부분이 뾰족한 모자를 쓰면서 그것을 가나(駕那)라고 부르며, 또한 금가나(金駕那)라고도 하는데, 방언(方言)이 흘러 전해 내려온 것이 반드시 그 근원이 있을 것이다. 신라 시대에 가락국이 지금의 김해부에 있었는데, 혹 가라(加羅)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 가야(伽倻)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변진(弁辰)을 총괄해 다스리는 왕으로, 반드시 모자의 끝 부분이 뾰족한 모양새의 모자를 만들어 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국이라고 호칭하였던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를 글자로 표기하면서 변진이라고 한 것이다.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仇亥)가 신라에 투항한 뒤로는 그 나라를 이름하여 금관(金官)이라고 하였는데, 금관(金官)은 금관(金冠)이고, 금관(金冠)은 금가나(金駕那)이다. 그러니 가나가 변진으로 변한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이 일설은 전 시대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치상 참으로 그럴듯하다. 대개 변진이 곧 가야이며, 가야가 곧 변진이다. 변진과 가야는 결단코 전후에 있었던 별개 두 나라의 호칭이 아니다.

其四履 東至洛東江 北至伽倻山 西限智異山 南盡海. [高麗史 地理志] 伽倻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鎭書〉 謹按 黃山江 今洛東江下流 俗云三叉水者也. 伽倻山在星州. 今自星州 · 陜川等 至왼左限洛東 右限智異 南至金海 · 固城沿海之地 此其弁辰疆域也.

그 사방은 동쪽으로 낙동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가야산에 이르고, 서쪽은 지리산까지이며, 남쪽은 바다에 닿아 있다. [『고려사』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야의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으로 가야산까지 이르며, 서남쪽은 바다에 닿아 있고, 서북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하였다.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황산강은 지금의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세속에서 삼차수(三叉水)라 이르는 곳이다. 가야산은 성주에 있다. 지금 성주와 합천 등지로부터 왼쪽으로는 낙동강까지, 오른쪽으로는 지리산까지, 남쪽으로는 김해 · 고성 등의 연해지역까지가 바로 변진의 강역이다.

사료10 『해동역사』속집 권7 지리지7 신라 강역총론 | 『海東繹史』續集 卷七 地理志七 新羅 疆域總論

〈鎭書〉 謹按 辰韓十二國 今慶尙左道地也. 新羅卽其十二國之一也. 據新羅史 脫解王以後 呑滅十數小國 北至鳥嶺東盡大海 西隣伽倻 盡有慶尙左道 則辰韓諸國之竝於新羅 明矣.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진한 12국은 지금의 경상좌도의 땅이며, 신라는 바로 그 12국의 하나이다. 신라사(『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탈해왕 이후 10여 개의 작은 나라를 병탄하여 북쪽으로는 조령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서쪽으로는 가야와 이웃하여 경상좌도를 전부 차지하였다. 그런즉 진한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병탄된 것은 분명하다.

〈鎭書〉 謹按 自新羅法興王時 盡竝六伽倻地.〈見弁辰條〉 西以智異山爲界 今自鳥嶺南 迤至智異山. 嶺脊千里界限東西 東爲慶尙 卽新羅地 西爲忠淸 · 全羅 卽百濟地. 此其大概也. 然而忠淸道之永同 · 黃澗 · 靑山 · 報恩 · 沃川五邑及全羅道之雲峯 · 茂朱二邑 則本屬新羅.

〈[한]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신라 법흥왕 때 6가야의 땅 모두를 병합하였다.〈(이것은) 변진조에 보인다〉 서쪽은 지리산으로 경계를 삼았고. 지금 조령 남쪽에서 뻗어내려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 산맥이 동서를 나누어서 동쪽은 경상도로 바로 신라 지역이고, 서쪽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바로 백제 지역이다. 이것이 신라의 대개이다. 그

러나 충청도의 영동 · 황간 · 청산 · 보은 · 옥천 다섯 고을 및 전라도의 운봉 · 무주 두 고을은 본디 신라에 속하였다.

사료11 **『성호사설』권19 경사문 삼한시종 | 『星湖僿說』卷十九 經史門 三韓始終**

三韓之中 惟辰韓之俗 嫁娶以禮 男女有別 行者相逢皆住讓路 今嶺南為東邦儒賢之府 有自来矣. 意者 箕封之後 境接胡貊 衛滿又推髻来據 舊俗變盡. 及天下既并拎秦 而中土之民避役来投立國拎東南. 尚帶華夏之風 不受變拎戎虜者 惟嶺南故然耳 豈不美哉.

삼한 중에는 오직 진한 풍속만이 혼례[嫁娶]를 꼭 예로써 하고 남녀의 구별이 있어서 길에서 서로 만나면 모두 멈추고 서서 길을 양보하였다. 지금 영남(嶺南)이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부고(府庫)가 된 것이 이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기자(箕子)의 봉강(封疆)이 된 후로 경계가 호맥(胡貊)이 닿게 되었고, 위만(衛滿)이 또 퇴계(椎髻)로 와서 점거하자 옛날 풍속이 다 변경되었던 것인 듯하다. 그리고 천하가 이미 진(秦)나라에 병합되자 중국 백성이 부역을 피해 삼한으로 투입하여 동남쪽에서 나라를 세웠다. 중국 풍속을 오히려 제대로 지키고 오랑캐에게 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영남 지대였던 까닭에 그렇게 되었다.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사료12 **『동사강목』제1 상 기자조선 마한 | 『東史綱目』第一 上 箕子朝鮮 馬韓**

〈按 後漢書及三國魏志 始立三韓傳. 文獻通考曰 馬韓人 知田蠶 作綿布. 出大栗如梨. 有長尾鷄. 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不知跪拜 無長幼男女之別. 不貴金寶錦罽. 不知騎乘牛馬. 唯重瓔珠以綴衣爲飾 又懸頸垂耳. 大率 皆魁頭露紒 布袍草履. 其人壯勇 少年有築室作力者 輒以繩貫脊皮 縋以大木 嚾呼爲犍. 常以五月祭鬼神 晝夜酒會 群聚歌舞 舞輒十人 相隨蹋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蘇塗之義 有似浮屠. 其南界近倭 亦有文身者. 其國有帥 大者自名爲神智 其次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생각건대 『후한서』와 『삼국지』위지에 처음으로 삼한전(三韓傳)을 세웠다. 『문헌통고』에 이렇게 적혀 있다. 마한 사람들은 농사짓고 누에치며 면포를 만들 줄 알았다. 배만한 큰 밤이 나고, 길이가 5척이나 되는 꼬리 긴 닭이 있다. 마을에 모여 살지만 성곽은 없으며, 토실을 지어 사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고 문이 위로 나 있다. 꿇어앉아 절할 줄 모르며, 어른아이와 남자여자의 분별이 없다. 금은보화와 비단 · 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과 소를 탈 줄 모르며, 다만 구슬을 중히 여겨 옷에 꾸미고 또 목에 걸며 귀걸이를 한다. 대개 머리를 틀고 들어 내 베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그들은 씩씩하고 용맹하여 소년 중에도 집짓기에 힘을 쓰는 자가 있는데, 등가죽을 끈으로 꿰어 큰 나무를 거기에 꽂아서 건장하다고 떠들어댄다. 항상 5월이면 귀신에게 제사지내며 밤낮으로 술잔치를 벌리고 여럿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데, 춤을 출 때에는 수십 인이 서로 따라 가며 땅을 차는 것으로 절도를 삼는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또한 다시 그와 같이 한다. 모든 국읍(國邑)은 각각 한 사람이 천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천군(天君)이라 부른다. 또 소도(蘇塗)를 두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어 놓고 귀신을 섬기는데, 소도란 뜻은 부도와 비슷한 데가 있다. 남쪽이 왜국과 가까워 역시 문신(文身)하는 자들이 있다. 그 나라들은 각각 장수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하며,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성곽은 없다.

有爰襄國 · 牟水國 · 桑外國 · 小石索國 · 大石索國 · 古誕者國 · 臣濆活國 · 伯齊國 · 速盧不斯國 · 優休牟涿國 · 古離國 · 怒藍國 · 月支國 · 咨離牟盧國 · 素謂乾國 · 古爰國 · 莫盧國 · 卑離國 · 占離卑國 · 巨釁國 · 支侵國 · 狗盧國 · 卑彌國 · 監奚卑離國 · 古蒲國 · 致利鞠國 · 冉路國 · 兒林國 · 駟盧國 · 內卑離國 · 感奚國 · 萬盧國 · 辟卑離國 · 舊斯烏旦國 · 一離國 · 不彌國 · 友半國 · 狗素國 · 捷盧國 · 牟盧卑離國 · 臣蘇塗國 · 莫盧國 · 古臘國 · 臨素半國 · 臣雲新國 · 如來卑離國 · 楚山塗卑離國 · 一難國 · 狗奚國 · 不雲國 · 不斯濆邪國 · 爰池國 · 乾馬國 · 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摠十餘萬戶.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 · 安邪踧支 · 濆臣離兒不例 · 拘

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 · 邑君 · 歸義侯 · 中郎將 · 都尉 · 伯長 · 候.
애양국 · 모수국 · 상외국 · 소석색국 · 대석색국 · 고탄자국 · 신분활국 · 백제국 · 속로불사국 · 우휴모탁국 · 고리국 · 노람국 · 월지국 · 자리모로국 · 소위건국 · 고원국 · 막로국 · 비리국 · 점리비국 · 신흔국 · 지침국 · 구로국 · 비미국 · 감해비리국 · 고포국 · 치리국국 · 염로국 · 아림국 · 사로국 · 내비리국 · 감해국 · 만로국 · 벽비리국 · 구사오단국 · 일리국 · 불미국 · 우반국 · 구소국 · 첩로국 · 모로비리국 · 신소도국 · 막노국 · 고랍국 · 임소반국 · 신운신국 · 여래비리국 · 초산도비리국 · 일난국 · 구해국 · 불운국 · 불사분야국 · 원지국 · 건마국 · 초리국 등 무릇 50여 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인데, 모두 합하여 10여 만 호이다. 신지(臣智)는 신운견지보(臣雲遣支報) · 안야축지(安邪踧支) · 분신리아불례(濆臣離兒不例) · 구야진지렴(拘邪秦支廉)이라는 칭호로 더 우미(優美)하게 부르기도 한다. 그 벼슬에는 위솔선(魏率善) · 읍군(邑君) · 귀의후(歸義侯) · 중랑장(中郎將) · 도위(都尉) · 백장(伯長)이 있다.

辰韓其俗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諸小邑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有險側 次有樊穢 次有殺奚 次有邑借 皆其官名. 土地肥美 宜五穀 知桑蠶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其俗有別男女.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國出鐵 韓 · 濊 · 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鼓琴瑟其瑟 形如筑 彈之亦有音曲. 兒生 便以石壓其頭 欲其匾 辰韓人皆扁頭. 男女近倭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往讓路.
진한의 풍속은 나라[國]를 방(邦)이라 하고, 활[弓]을 호(弧)라 하고, 적(賊)을 구(寇)라 하고, 술 따르는 것[行酒]을 잔질한다(行觴)고 한다. 서로 호칭하기를 모두 도(徒)라 하며, 모든 작은 고을에는 각각 우두머리[渠帥]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라 부르고, 다음에는 험측(險側)이 있고, 다음에는 번예(樊穢)가 있고, 다음에는 살해(殺奚)가 있고, 다음에는 읍차(邑借)가 있는데, 모두 벼슬 이름이다. 땅이 기름져 오곡을 심기에 마땅하며, 뽕을 가꾸어 누에를 치며, 겸포(縑布)를 짓고 말과 소를 탈 줄 안다. 예를 갖추어 혼인하며, 남녀의 분별이 있으며,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에는 큰 새의 깃을 쓰는데 그 뜻은 죽은 사람을 하늘로 오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라에서 쇠가 나는데, 한 · 예 · 왜가 모두 여기서 가져간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데 모두 쇠를 쓰는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이군(낙랑군 · 대방군)까지 공급한다. 풍속이 노래와 춤과 술 마시고 거문고 · 비파 타기를 좋아하는데 비파의 모양은 축(筑)과 같으며 타면 또한 음곡이 나온다. 아이를 낳으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 넙적하게 하려 하므로, 진한 사람은 모두 납작머리[편두]이다. 남녀가 왜에 가까워 문신을 한다. 보병전을 장기로 하는데 병장기는 마한(馬韓)과 같다. 그 풍속에 길가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양보한다.

弁辰亦有城郭 衣服 · 居處與辰韓同 言語風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其人形皆長大 美髮 衣服潔淨 刑法嚴峻. 其國近倭 高頗有文身者. 辰弁二國 有已柢國 · 不斯國 · 弁彌離彌凍國 · 弁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古資彌凍國 · 弁古淳是國 · 冉奚國 · 弁半路國 · 弁樂奴國 · 軍彌國 · 弁軍彌國 · 弁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狗邪國 · 弁走漕馬國 · 弁安邪國 · 弁瀆盧國 · 斯盧國 · 優中國 合爲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摠四五萬戶. 此爲二十五國 恐軍彌國疊錄也.
변진에는 역시 성곽이 있고, 의복 · 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와 풍속이 서로 비슷하나, 귀신을 제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달라서, 부뚜막을 모두 집 서쪽에 설치한다. 사람의 생김새는 모두 크고 머리털이 아름다우며, 의복이 깨끗하고, 형법이 매우 엄하다. 그 나라가 왜에 가까워 문신한 사람이 매우 많다. 진 · 변 두 나라에는 기저국 · 불사국 · 변미리미동국 · 변접도국 · 근기국 · 난미리미동국 · 변고자미동국 · 변고순시국 · 염해국 · 변반로국 · 변낙노국 · 군미국 · 변군미국 · 변미오야마국 · 여담국 · 변감로국 · 호로국 · 주선국 · 만연국 · 변구야극 · 변주조마국 · 변안야국 · 변독로국 · 사로국 · 우중국이 있는데, 합하여 24국이 된다. 대국은 4~5천가이고 소국은 6~7백가인데, 모두 합해 4~5만호이다.〈여기에 25국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군미국이 거듭 적힌 듯하다〉

사료13 『강역고』 권1 | 『疆域考』 卷一

三韓總考. 秦 · 漢之際 洌水以北 謂之朝鮮 卽武帝四郡之地也. 洌水以南 謂之韓國 亦謂之辰國 卽東方三韓之地也. 馬韓五十四國 卽今京畿南道〈卽洌水以南〉 及忠淸 · 全羅之地也. 其部落通謂之韓國 其總王通謂之辰王. 其後嶺南別居者 名曰辰韓 而西韓謂之馬韓. 嶺南之地 西北阻山 東南際海 別爲一局. 謠俗特殊 故居此地者 謂之辰韓. 辰韓之中 又分二種. 其小者曰弁辰. 後漢書云 辰韓在東 十有二國.其北與穢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與倭接〈魏志云 辰韓在馬韓之東〉 魏志云 辰韓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有已柢國 · 不斯國 · 弁辰彌離彌凍國 · 弁辰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辰古資彌凍國 · 弁辰古淳是國 · 冉奚國 · 弁辰半路國 · 弁辰樂奴國 · 軍彌國 · 弁辰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馬延國 · 弁辰狗邪國 · 弁辰走漕馬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中國.弁 · 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魏書云 其瀆盧國 與倭接界. 十二國 亦有王. 鏞案 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本裳郡 方言裳曰斗婁技 瀆盧聲近〉 斯盧國者 今之慶州也. 金富軾云 新羅本稱斯羅 斯羅者 斯盧也. 又按 弁辰亦辰韓也. 其壤地相錯 人民雜居 不可以從某至某 分而二之. 故魏志亦錯雜書之 唯於弁辰諸國 標以弁辰二字.其雜居可知也. 特其總王所居辰韓稍北 弁辰稍南. 故後漢書謂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也. 若其君長廢立 皆自馬韓主之. 馬韓者 三韓之覇國也. 秦漢之際 已有君長 能遠通中國 或爲朝鮮人所阻. 其後 馬韓五十四國 竝爲百濟所呑. 辰韓 · 弁辰竝爲新羅所統. 鏞謂 例水以北 本非三韓之地. 東儒每以三韓分配三國 此其所以七藤八葛 而彌失其眞也. 竝詳下考.

「삼한총고(三韓總考)」. 진(秦), 한(漢) 시대에 열수(例水) 이북은 조선(朝鮮)이라 불렀으니, 곧 무제(武帝)가 사군(四郡)을 설치한 땅이다. 열수 이남은 한국(韓國)이라고 부르고 진국(辰國)이라고도 불렀으니, 곧 동방 삼한(三韓)의 땅이다. 마한(馬韓) 54국은 곧 지금[조선]의 경기도 남부〈곧 열수(洌水) 이남〉및 충청 · 전라도의 땅이다. 그 부락을 통틀어 한국(韓國)이라 하였고, 그 총왕(總王)을 통틀어 진왕(辰王)이라 하였다. 그 뒤 영남(嶺南)에 따로 있는 것을 진한(辰韓)이라 하게 되니 서쪽의 한[西韓]을 마한(馬韓)이라 하게 되었다. 영남의 땅은 서쪽과 북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과 동쪽은 바다에 대어 있으므로 따로 하나의 형국을 이루고 노래와 풍속이 아주 달랐다. 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진한이라 하였다. 진한은 또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그 작은 것을 변진(弁辰)이라 하였다. 『후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고, 12개국이다. 그 북쪽은 예맥(穢貊)과 접해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12개국이다. 그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위지(魏志)』에 이르기를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한은] 처음에는 6개국이었다가 차츰 나뉘어져서 12개국이 되었다. 변진 역시 12개국이다. 이저국(已柢國), 불사국(不斯國),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 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근기국(勤耆國), 난미리미동국(難 彌離彌凍國),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염해국(冉奚國), 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 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 군미국(軍彌國), 변진군미국(弁辰軍彌國),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여담국(如湛國),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 마연국(馬延國),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마연국(馬延國),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사로국(斯盧國), 우중국(優中國)이 있다.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24개국인데, 대국은 4~5천가(家), 소국은 6~7백가이며, 총 4~5만호(戶)이다. 「위서(魏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12개국은 또한 왕이 있다. 나[鏞]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鏞案]. 독로국(瀆盧國)은 지금[조선]의 거제부(巨濟府)이며〈본래는 상군(裳郡)인데, 방언으로 상(裳)을 두루기(斗婁技)라고 하여 독로(瀆盧)와 소리가 비슷하다〉, 사로국(斯盧國)은 지금[조선]의 경주이다. 김부식(金富軾)은 "신라(新羅)는 본래 사라(斯羅)라고 불렀는데, 사라란 사로(斯盧)이다."라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변진(弁辰)도 또한 진한(辰韓)이다. 그 땅이 서로 섞여 있고, 사람들이 섞여 살았으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여 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위지(魏志)」에서도 [진한과 변한을] 섞어 쓰고 오직 변진(弁辰)의 여러 나라들은 변진(弁辰)두 글자를 붙여 표시하였으니, [진한과 변진이] 뒤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총왕(總王)이 거처하는 곳에서 진한은 조금 북쪽에 있고, 변진은 조금 남쪽에 있었으므로 『후한서』

에서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 왜와 접해 있다고 한 것이다. 만일 그 군장(君長)을 세우거나 쫓아낼 때에는 모두 마한에서 관여하였으니, 마한이 삼한의 패국(覇國)이었다. 진(秦), 한(漢)시대에 이미 군장(君長)이 있었고, 멀리 중국과 통하였는데, 가끔 조선(朝鮮) 사람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 뒤 마한 54국은 모두 백제가 차지하였고, 진한과 변진은 모두 신라가 차지하였다. 나는 말한다[鏞謂]. 열수(洌水) 이북은 본래 삼한의 땅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모두 삼한을 삼국으로 연결시켰고, 이것이 얽히고 설키어 그 진실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밝히겠다.

弁辰考. 弁辰者 金海 · 巨濟 · 咸安 · 固城等 沿海之地也. 後漢書云 弁辰與辰韓雜居.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魏書云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節〉施竈皆在戶西. 鏞案 三韓國邑 莫詳於後漢書.後漢書旣以弁辰 謂在辰韓之南.則弁辰者 辰韓之南隣也.瀆盧者 巨濟也. 其稱弁辰者 或其頂戴之幘 異於辰韓 遂以得名也. 韓百謙云 首露王所起〈卽金海〉乃弁韓之地也. 鏞案 弁者駕洛也. 駕洛者 伽耶也. 東俗 凡冠幘之尖頂者 通謂之弁 亦謂之駕那. 今禁府皂隷〈稱羅將〉及郡縣侍奴〈稱及唱〉猶戴尖頂之纊. 名之曰駕那 亦謂之金駕那. 方言流傳 必有所本也. 新羅之時 駕洛國在今金海府 或稱加羅 或稱伽耶. 此乃弁辰之總王也. 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 故號之曰駕羅國. 而中國之人 譯之以文 則謂之弁辰也. 及其末王 仇亥投降新羅之後 名其國曰金官. 金官者 金冠也〈聲之轉〉金冠者 金駕那也. 駕那之爲弁辰 尙足疑乎.
「변진고(弁辰考)」. 변진은 김해(金海), 거제(巨濟), 함안(咸安), 고성(固城) 등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다. 『후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뒤섞여 있었다. 성곽과 의복은 모두 [진한과]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에 차이가 있었다. 그 나라는 왜와 가까이 있어서 문신을 한 자들이 자못 있었다. 『위서(魏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 12국 역시 왕이 있었다. 조왕신(竈王神)을 차려놓은 것이 모두 입구의 서쪽에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鏞案] 삼한의 국읍(國邑)은 『후한서』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후한서』에서 이미 변진을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곧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이웃해 있었고, 독로(瀆盧)는 곧 거제(巨濟)이다. 변진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머리에 쓰는 건[幘]이 진한과 달랐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수로왕(首露王)이 일어 난 곳〈즉 김해(金海)〉이 바로 변한(弁韓)의 땅이다."라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변(弁)은 가락(駕洛)이요, 가락은 가야(伽耶)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모자의 끝이 뾰족한 것을 통틀어 변(弁)이라 하고, 가나(駕那)라고도 한다. 지금[조선] 의금부의 조예(皂隷)〈나장(羅將)을 말한다〉 및 군현의 시노(侍奴)〈급창(及唱)을 말한다〉들이 아직도 끝이 뾰족한 건을 쓰는데, 이것을 가나(駕那)라고도 하고 금가나(金駕那)라고도 한다. 사투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근본이 있는 것이다. 신라 때에 가락국이 지금[조선] 김해부에 있으면서 가라(加羅) 또는 가야(伽耶)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 틀림없이 머리에 쓰는 건책(巾幘)이 끝이 뾰족하였으므로 가라국(駕羅國)이라 하였고,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변진(弁辰)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 마지막 왕인 구해(仇亥)가 신라에 투항한 뒤에는 그 나라를 금관(金官)이라 하였는데, 금관은 금관(金冠)〈소리가 옮겨진 것〉이고, 금관(金冠)은 금가나(金駕那)이다. 가나(駕那)가 변진이 되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咸安爲阿那伽耶〈亦名阿尸良在金海西〉固城爲小伽耶〈亦名古自縣〉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者 非是之謂乎.高靈爲大伽耶 星州爲碧珍伽耶〈亦名云 本彼〉咸昌爲古寧伽耶〈亦名曰 古冬攬〉陜川有伽耶山. 此皆弁辰之屬 故名之曰伽耶也. 魏志有弁辰古資國. 古資者 固城之舊名也〈東史作古自〉弁辰非伽耶乎. 大抵 漢 · 魏之際 新羅 · 駕洛同居嶺南 四五百年 至梁武帝中大通四年 仇亥始降新羅〈又晉文帝天嘉三年 異斯夫滅伽耶〉駕洛者 新羅之耦國也.新羅旣爲辰韓則 駕洛自爲弁辰. 無用崎嶇然辨論也. 漢史 · 魏志弁辰與辰 韓雜居. 羅史 · 麗志 駕洛與新羅雜居. 其差北差南 差強差弱 東史所記與華史所載 毫髮不爽情形悉合. 駕洛之爲弁辰 無可疑也. 韓久菴 以首露所起爲弁辰 豈非卓見乎. 如云不然 弁辰非可食之物. 請一思之. 弁辰十二國 竟爲新羅所呑. 新羅史云 赫居世十九年〈漢

元帝永光五年〉 卞韓以國來降. 鏞案 弁辰十二國 不應一時頓降 或其一國來降. 不然 史家臆說耳. 據赫居世三十八年 公之對馬韓曰 卞韓 · 樂浪無不畏懷.〈詳見馬韓考〉 苟於是年 早已亡滅 誰將畏懷.其不亡可 知也. 降者 服也. 降而不亡 亦無怪也. 且弁辰十二國 猶載於後漢書 · 魏 · 晉史 則不得於前漢之時 獻國於新羅也.此云來降者 來相服屬 非謂竝國土而獻之也.〈韓時都無弁韓之名〉

함안(咸安)이 아나가야(阿那伽耶)〈아시량(阿尸良)이라고도 한다. 김해 서쪽에 있었다〉이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耶)〈고자현(古自縣)이라고도 하였다〉이니,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 왜와 접했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耶)이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본피(本彼)라고도 하였다〉이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耶)〈고동람(古冬攬)이라고도 하였다〉이고, 합천(陜川)에 가야산(伽耶山)이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변진에 속하였으므로 이름을 가야(伽耶)라 한 것이다. 「위지(魏志)」에 변진고자국(弁辰古資國)이 있는데, 고자(古資)는 고성(固城)의 옛 이름이다〈『동사(東史)』에는 고자(古自)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변진이 가야가 아니겠는가. 대체로 한(漢), 위(魏) 시대에 신라와 가락이 영남에 같이 자리 잡고 있기를 4~5백 년 동안 하다가 양(梁) 무제 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구해(仇亥)가 비로소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또 진(陳) 문제 천가 3년(562년) 이사부(異斯夫)가 가야를 멸망시켰다〉 가락은 신라의 이웃 나라였다. 신라가 이미 진한이 된 것이니, 가락은 저절로 변진이 된 것임은 까다로운 변론이 필요 없다. 『한사(漢史)』와 「위지(魏志)」에는 변진이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고, 『나사(羅史)』와 『여지(麗志)』에는가락이 신라와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다. [또] 그 조금 남쪽에 있고 조금 북쪽에 있으며,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하다고 한 것이 우리 나라 역사책의 기록과 중국 역사책의 기록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고 정황이 모두 합치되니 가락(駕洛)이 변진(弁辰)에서 된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구암(久菴) 한백겸은 수로왕이 일어난 곳이 변진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탁견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진이 먹을 만한 [작은] 물건이 아니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변진 12국은 끝내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신라사(新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한 원제 영광 5년〉 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변진 12국이 한꺼번에 모두 항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나라씩 항복해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가의 억지 이야기일 뿐이다. 혁거세 38년(기원전 20년) 호공(瓠公)이 마한에 대하여 변한(卞韓), 낙랑(樂浪)이 [신라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다〈「마한고(馬韓考)」에 자세히 보인다〉고 한 것에 따른다면, 만일 [변한이] 이 때 이미 멸망해 없어졌다면 누가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인가? [그러니 변한이] 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항복[降]이란 복속[服]이니, 항복하고도 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또 변진 12국은 오히려 『후한서』와 「위지」, 『진사(晉史)』에 실려 있으니, 전한 때 나라를 신라에 바쳤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내항(來降)이란 와서 복속되었다는 것이지, 국토를 모두 들어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한(韓) 시대에는 변한(弁韓)이란 이름이 전혀 없었다〉

又按 新羅之史 智證王時 取小伽耶.〈今固城〉 法興王時 取金官伽耶.〈今金海〉 眞興王時 取大伽耶.〈今高靈〉 此方是新羅呑滅弁辰之宗跡也.〈竝詳別考〉 乃東俗蒙昧 忽以三韓配于三國. 馬配句麗 弁配百濟. 七藤八葛 悉違古典. 崔致遠上太師侍中狀云 東海之外 有三國.其名馬韓 · 卞韓 · 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甄萱傳云 萱西巡至完山州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謂新羅〉 故辰 · 卞從之而興 於是百濟開國. 高麗史云 王隆〈高麗太祖王建父〉說弓裔曰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城松嶽.裔從之. 輿地勝覽云 扶安邊山 或云卞山. 卞韓之得名以此. 鏞案 崔孤雲久游中國 反昧本鄕之事. 深溺佛典 好爲誕妄之說. 其所作佛家碑誌 無非怪談. 雖其時代較古 文詞精巧 其言未必 皆信文也. 箕氏之留在平壤者 冒姓韓氏〈見魏略〉 從征句暇.〈見東史〉 馬韓之爲句麗 猶有影響. 百濟之爲弁韓 抑何據也. 百濟始都廣州〈河南城〉 中徙公州〈卽熊津〉 終於扶餘〈卽泗沘〉 皆在慶州之北. 北極出地 當差數度 而猶爲弁韓則 漢史所謂弁辰 在辰韓之南 南與倭接者 是夢囈之言乎. 秦 · 漢之際 洌水以北 謂之朝鮮 洌水以南 謂之韓國. 其後 朝鮮爲句麗 韓國爲新羅 · 百濟. 今乃以三韓配三國 其不組

鍺乎. 孤雲之說 不可從也. 又按 甄萱 · 王隆之說 皆是大略蘑談 不足理會. 至於扶安邊山之說 此乃童騃嬉戲之談. 不足辨也. 誠若邊山爲弁韓 將無痲田爲馬韓 信川爲辰韓乎. 又按 古有弁辰 未有卞韓. 東儒離開弁 · 辰二字 以作卞韓則 弁辰可移於北方 可移於西方. 此其受病之源也. 又或誤據唐書閑漫之筆 遂疑弁辰在北方. 唐書渤海傳云 大祚榮盡得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海北諸國〈東史同〉 句麗史云 泉男生旣陵〈男生蓋蘇文之子〉 帝召入進右衛大將軍卞國公. 鏞案 東儒又執此文 以爲男生句麗之人 而號曰卞國. 渤海北蕃之國 而盡得弁韓 則句麗亦可爲卞韓. 然當時封號 多不以實 故新羅諸王 皆封樂浪郡公豈卽慶州爲樂浪乎. 此不足爲據. 又如大祚榮旣得朝鮮 又得弁韓. 其云朝鮮. 正是今平安道之地 句麗故疆也. 豈得復以卞韓 爲句麗哉. 此皆閑漫不核之筆 無足據者.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신라의 역사에는 지증왕(智證王) 때 소가야(小伽耶)〈지금[조선] 고성(個城)〉를 차지했고, 법흥왕(法興王) 때 금관가야(金官伽耶)〈지금[조선] 김해(金海)〉를 차지했으며, 진흥왕(眞興王) 때 대가야(大伽耶)〈지금[조선] 고령(高靈)〉를 차지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가 변진을 차지하여 멸망시킨 자취이다. 〈모두 별고(別考)에 자세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몽매하여, 삼한을 삼국과 짝지으면서 마한을 고구려와 짝짓고 변한을 백제와 짝지었으니, 얽히고 설키어 모두 고전(古典)에 어긋난다. 최치원(崔致遠)이 태사(太師) 시중(侍中)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쪽 바다[東海] 밖에 삼국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한, 변한(卞韓), 진한이다. 마한이 곧 고려이고, 변한이 곧 백제이고, 진한이 곧 신라이다. 「견훤전(甄萱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견훤이 서쪽을 순행하다가 완산주(完山州)〈현재 전북 전주시〉에 이르러 주위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한의 시초를 살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신라를 가리킨다〉 진 · 변한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에 백제가 개국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륭(王隆)〈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이 궁예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대왕께서 만일 조선(朝鮮), 숙신(肅愼), 변한(卞韓)의 땅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송악(松嶽)[현재 황해도 개성시]에 성을 쌓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 하니, 궁예가 따랐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을 변산(卞山)이라고도 하는데, 변한(卞韓)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여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고운(孤雲) 최치원은 오래 동안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본국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몰랐고, 불교 전적에 깊이 빠져서 허황된 말하기를 좋아했으니, 그가 지은 불가(佛家)의 비문(碑文)과 기록들이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다. 비록 그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고 문장이 정교하더라도 그의 말이 반드시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 기씨(箕氏) 가운데 평양에 남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을 한씨(韓氏)라 한 것〈『위략(魏略)』에 보인다〉과, 고구려에 정복당한 것〈『동사(東史)』에 보인다〉이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백제가 변한에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백제는 처음에 광주(廣州)〈하남성(河南城)〉에 도읍했고, 중간에 공주(公州)〈즉 웅진(熊津)〉로 도읍을 옮겼으며, 부여(扶餘)〈즉 사비(泗沘)〉에서 멸망하였으니 모두 경주(慶州)의 북쪽에 있었고, [신라가] 북쪽 국경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백제가] 변한에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사(漢史)』에서 말하는,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었고, 남쪽으로 왜와 접하였다."고 하는 것이 잠꼬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진(秦), 한(漢) 시대에 열수(例水) 이북은 조선(朝鮮)이라 하였고, 열수 이남은 한국(韓國)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이 고구려가 되고, 한국이 신라 · 백제가 되었으니, 지금 삼한을 삼국에 짝짓는 것은 착오가 아니겠는가. 고운의 설은 따를 수가 없다. 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견훤(甄萱)과 왕륭(王隆)의 설은 아주 소략한 이야기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안 변산의 설에 이르러서는 어린 아이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따질 것도 없다. 진실로 변산(邊山) 때문에 변한(弁韓)이 되었다면, 앞으로 마전(痲田) 때문에 마한이 되고, 신천(信川) 때문에 진한이 되었다는 말은 없겠는가? 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옛날에는 변진(弁辰)이 있었고, 변한(卞韓)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변(弁) · 진(辰) 두 글자를 떼어내 변한(卞韓)을 만들어냈으므로 변진이 북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서쪽으로 옮겨지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그 잘못된 근본 원인이다. 또 『당서(唐書)』의 느슨한 기술에 의거하여 마침내는 변진이 북쪽 지방에 있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다. 『당서』발해전(渤海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조영(大祚榮)이 부여(扶餘), 옥저(沃沮), 변한(弁

韓),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동사(東史)』도 같다〉『고구려사[句麗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천남생(泉男生)이 항복하자〈남생은 연개소문의 아들이다〉황제가 불러들여 우위대장군변국공(右衛大將軍卞國公)에 임명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이 문장에 집착하여 남생이 고구려 사람이므로 변국(卞國)이라 한 것이고, 발해가 북쪽의 나라로 변한을 거의 다 차지하였으므로 고구려 역시 변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봉호(封號)는 많은 경우가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신라의 여러 국왕들이 모두 낙랑군공(樂浪郡公)에 봉해졌으니, 어찌 경주를 낙랑이라고 하겠는가. 이는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 또 만일에 대조영이 이미 조선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변한을 차지했다면, 그 조선은 바로 지금[조선] 평안도의 땅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이니 어찌 다시 변한을 고구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 이 모두 느슨하여 알맹이가 없는 기술로, 근거할 만하지 못한 것이다.

又或誤讀唐書 遂疑弁韓苗裔 實居平壤. 唐書新羅傳云 新羅 弁韓苗裔也. 居漢樂浪地 橫千里縱三千里. 金富軾云唐書 · 舊唐書皆云 卞韓苗裔後在樂浪之地. 此皆傳聞懸說 非實錄也. 鏞案 唐書弁韓 必是辰韓之譌. 蓋謂新羅 卽辰韓之後孫也. 其云居漢樂浪地者 謂新得春川 · 漢城等地也.〈卽漢樂浪南部地〉金富軾忽去新羅二字 發此疑語 遂使百喙爭鳴 靡所底定. 不可歎乎.〈北史云 新羅其先本辰韓種也. 隋書云新羅居漢時樂浪之地.唐書襲用此文〉至撰輿地勝覽 其定馬韓 · 弁辰之疆域 皆指越爲燕 以齊待蜀. 而三韓舊界 不可復問.『輿地勝覽』云 京都 · 黃海道 古朝鮮 · 馬韓之域. 忠淸道 古馬韓之域. 全羅道 本卞韓之地. 又云 臣按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此非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也. 高麗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 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卞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然而未有昌言指之者. 及金敬叔編周官六翼 叙三韓則云 高麗幷樂浪 · 卞韓 百濟幷馬韓 · 帶方. 至叙三國則 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卞韓. 一人之言 自相矛盾 何足道哉. 逮于本朝 吉昌君權近與李詹等 修東國史略. 乃斷然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 東人擬之蓍蔡 而亦爲是論 以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臣反覆攷中國及東史 三韓之時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辰 · 卞二韓 各統十二國. 則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矣. 意者 馬韓王都其南 密近於卞韓 而東北則與樂浪 · 靺鞨 · 沃沮等封疆相接. 其後高句麗東明王起於樂浪 而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麗爲馬韓者 蓋以此也. 後漢書載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 又曰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不曰弁韓 而曰弁辰. 是雖懸聞之稱 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 新羅赫居世十九年 卞韓以其國來降 其後百濟旣滅馬韓 兵力強盛 蠶食新羅 · 卞韓舊地. 智異山以西 盡爲所幷. 後人稱濟爲卞韓者 蓋以此也. 柰之何近惑於金馬 · 平那之說 謂馬韓在百濟封域之中 遂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者 蓋言卞韓之系出自樂浪耳.金富軾猶謂非實錄.近之論顧引以爲證 而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卞韓在南者 蓋自漢界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在辰 · 馬二韓之南. 信如是則 其所云馬韓在西者 亦可謂在遼東之西乎.

또『당서』를 잘못 읽어 변한(弁韓)의 후손[苗裔]이 실제로 평양에 살았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당서』신라전(新羅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라는 변한의 묘예이다. 한(漢)나라 낙랑(樂浪)의 땅에 있었는데, 옆으로 1천리이고 위 아래로 삼천리였다. 김부식(金富軾)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당서』와『구당서』에서 모두 변한(卞韓)의 후예가 뒷날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다 전해 내려오는 아득한 이야기이고 실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당서』에서 변한이라고 쓴 것은 틀림없이 진한의 잘못으로 신라가 곧 진한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다. 한(漢)나라의 낙랑 땅에 있었다는 것은 춘천(春川), 한성(漢城) 등의 땅은 새로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다.〈즉 한나라 낙랑의 남부이다〉김부식이 신라 두 글자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내어놓음으로써 백가지 말이 다투어 안정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한탄스럽지 않은가.〈『북사(北史)』에 신라는 그 조상이 본래 진한의 종족이었다고 하였고,『수서』에 신라는 한나라 때의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는데,『당서』는 이 문장들을 이어받아 쓴 것이다〉『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할 때에는 마한, 변진의 강역을 정하면서 월(越)나라를 연(燕)나라라 하고, 제(齊)나라를 촉(蜀)나라로 간주하였으니, 삼한의 옛 경계는 다시 물어볼 것도 없다.『여지

승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도(京都), 황해도는 옛날 조선, 마한의 영역이고, 충청도는 옛날 마한의 영역이며, 전라도는 본래 변한의 땅이었다. [『여지승람』에서]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이 살피건대 "마한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이 신라로 되고, 변한이 백제로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이미 최치원(崔致遠)이 의논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치원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 삼국 초부터 전해 내려온 말입니다. 고려 김부식의 지리지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고려]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었지만 드러내 말하여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경숙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함에 미쳐 삼한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구려[高麗]는 낙랑(樂浪)과 변한(卞韓)을 병합하였고, 백제는 마한과 대방(帶方)을 병합하였다 하였고, 삼국에 대해 서술하기에 이르러서는 곧 바로 고구려가 마한이고, 백제가 변한이다 라 하였으니, 한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되어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조[조선]에 이르러 길창군(吉昌君) 권근과 이첨 등이 『동국사략』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권근은 근세의 대유(大儒)로서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채(蓍蔡)에 비유되는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여 천년 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臣)이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 번 살펴보니 삼한 때에 는 마한이 가장 커서 54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지금[조선] 익산(益山) 이남은 54국을 받아들일 만한 땅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마한의 왕도(王都)는 그 남쪽이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 북쪽은 낙랑, 말갈(靺鞨), 옥저(沃沮)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으며, 그 뒤 에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이 낙랑에서 일어나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합니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와 접해 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 · 언어 · 풍속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한이라 하지 않고 변진이라 한 것도 비록 먼 데서 들은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변한과 진한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혁거세(赫居世)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고, 그 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신라의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권근은 금마 · 평나의 설에 미혹되어 마한이 백제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고는 [마한을] 백제로 여긴 것입니까. 또 『당서』에서 말한 바, 변한의 후손[苗裔]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부식은 오히려 [그 말이] 실록(實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권근의 논의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 두 자를 빼고는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에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 나라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부터 말한 것일 뿐이고,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서 말한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周官六翼記 高麗世祖說弓裔之言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卞韓之地 莫如先占松岳. 注云 今西京古之卞那京 故曰卞韓. 此尤謬妄 以卞韓爲西京則 朝鮮更指何地. 後日裔之用兵 自羅州始則 世祖所謂卞韓指百濟也. 審矣.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今平壤府有馬邑山 扶安縣有邊山 則遺事之云 恐或有徵. 是書未知誰作 亦出於高麗中葉以後. 其所紀載 皆荒誕不經 不足取信. 然於辨三韓之說則 證據甚明. 欲志東方地理者 固宜參觀. 臣故謹因致遠舊說 以京畿 · 忠淸 · 黃海 · 等道 係于馬韓舊域.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鏞案 漢 · 魏諸史 武帝四郡之地 不至於洌水以南.而辰國南韓 每在四郡之外則 旣爲朝鮮之地 又爲馬韓之域 萬無是理. 今乃於京都 · 黃海之地 書之曰朝鮮 · 馬韓之域則 首鼠兩端拖泥帶水. 其蒙昧不核 一何至此. 旣以句麗定爲馬韓 而平安不擧馬韓. 旣以全羅定爲卞韓. 而益山猶謂馬韓. 其糾繞狼狽 一何至此. 若云 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 則今全羅一道 恰爲五十三邑. 何況洌水以南 畿甸 · 忠淸之地 將設百國 奚但五十四而已哉. 將謂五十四國 皆

如晉 · 楚 · 齊 · 秦之廣大乎. 此過慮也. 又云 句麗東明起於樂浪. 此又何說也. 東明所據只卒本而已 降及曹魏之時 句麗始得平壤. 何況馬韓.〈東儒誤以今成川爲卒本 故其言如是〉只句麗史一通 不曾夢見 徑主大論 可乎. 至論卞韓之事 旣云卞韓降于新羅 卒以百濟號爲卞韓. 抑何武斷. 吾聞百濟先亡 劉府尋撤. 智異山以西南原諸郡 皆入新羅之疆理 終爲新羅之罪案. 未聞新羅獻其所得弁韓之地於百濟也. 卞韓之系出自樂浪 又何說也. 唐書本論 新羅世德出於辰弁. 金富軾割去新羅二字 權陽村割去苗裔二字 於是乎. 弁韓在樂浪矣. 夫唐書一部 本非枕中鴻寶 何至迷昧如此. 諸家紛紛總屬 不根究其病 崇都坐三韓三國 必欲分配. 故七藤八葛 百孔千瘡 皆由此而發也. 總之 三韓之訟 亦當以中國史冊 決之. 北史云 百濟蓋馬韓之屬. 通典云 三韓.蓋爲百濟 · 新羅所幷呑. 鏞案 天下之辨是非決嫌疑者當先揆本末. 不探其本唯末是趨者 未有不纏繞而迷昧也. 東國當時 本無文字 安有史策 尼斯今 · 麻立干以爲王號 徐耶火 · 音汁伐以爲地名. 當時無文 不可諱也. 故我邦史冊 皆據漢 · 魏 · 晉諸史 點綴成文. 其或收拾於本國之傳記者 皆虛荒誕妄 不根之說 卵剖櫝汎鷄鳴鵲噪 下俚詿言 可愧之甚. 今乃輕違中國之信史 自立委巷之野言 其可曰揆其本乎. 中國撰史之家 皆知句麗無涉於三韓. 故北史 · 通典之筆 明核如是也. 吾家譜牒 反遜他家之藏 愧甚矣.

『주관육익(周官六翼)』에서 기록하기를 고려 세조(世祖)가 궁예(弓裔)를 설득하면서 대왕께서 만일 조선과 숙신(肅愼), 변한 땅의 왕이 되시려면 송악(松岳)을 먼저 차지하는 것 만한 일이 없습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고는 주(注)에서 지금[고려] 서경(西京)은 옛날의 변나경(卞那京)이므로 변한(卞韓)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변한을 서경이라고 한다면 조선은 또 어느 땅을 가리키겠습니까. 뒷날 궁예가 전쟁을 한 것이 나주에서 시작되었으니, 세조가 말한바 변한은 백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는 까닭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땅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는 까닭에 변한(卞韓)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조선]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고, 부안현(扶安縣)에 변산(邊山)이 있으니, 『삼국유사』의 기록이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고려 중엽 이후에 나온 것으로 거기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허황되고 옳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한의 설을 변증한 것은 증거가 분명하여 동방의 지리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하여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臣)은 그런 까닭으로 삼가 최치원의 옛 설을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한(漢), 위(魏)의 여러 사서들에 무제(武帝) 사군의 땅이 열수(洌水) 이남에 있고, 진국과 남쪽의 한(韓)은 모두 4군의 밖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미 조선의 땅이 되었던 것이 또 마한의 영역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조선] 경도와 황해도 땅을 조선, 마한의 땅이라고 쓴 것은 어느 편을 택할지 망설이다가 진흙을 끌어들여 물을 두른 것처럼 그 어둡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고구려를 마한으로 정했으면서도 평안도는 마한이라 하지 않고, 전라도를 변한으로 정했으면서도 익산은 도리어 마한이라 하니 그 얽히고설킨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 가령 익산(益山) 이남에 54국을 받아들일 땅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조선] 전라도 하나만 해도 53읍(邑)이 넉넉히 되니 하물며 열수 이남의 기전(畿甸), 충청도 땅에는 100국을 베풀 것이다. 어찌 다만 54개뿐이겠는가. 54국이 모두 진(晉) · 초(楚) · 제(齊) · 진(秦)나라처럼 광대했다고 할 것인가? 이는 지나친 생각이다. 또 말하기를 고구려 동명왕이 낙랑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동명왕이 근거로 삼았던 것은 졸본(卒本)일 뿐으로, 조위(曹魏)시대에 내려와서야 고구려가 비로소 평양을 차지하였으니, 하물며 마한이랴.〈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조선] 성천(成川)을 졸본이라고 잘못 알았으므로 그 말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단지 고구려사 한편을 꿈속에서도 보지 않고 큰 논의를 지레짐작하는 것이 옳은가? 변한의 일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이미 변한이 신라에 항복했다고 해놓고는 느닷없이 백제가 변한이라 불렀다고 한 것은 대체 무슨 우격다짐인가. 내가 듣기에 백제가 먼저 망하고 오래지 않아 유인원의 부[劉府]가 철수하자 지리산 서쪽 남원의 여러 고을이 모두 신라 영토로 편입되어 신라의 지배를 받았지, 신라가 자신이 얻은 변한의 땅을 백제에 바쳤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변한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당서』에서는 본래 신라의 세덕(世德)이 변진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김부식은 신라(新羅) 두 글자를 지워버렸고, 양촌 권근은 묘예(苗裔) 두 글자를 지워버

려 이제 변한이 낙랑에 있던 것으로 되었다. 『당서』라는 책이 본래 베개 속의 홍보(鴻寶)가 아닌데, 어찌 미혹되어 어두운 것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는가. 여러 학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모두 근거가 없는데, 그 병폐의 빌미를 따져보면 모두가 삼한과 삼국을 반드시 짝지으려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된 것이니, 여러 가지 결함으로 엉망이 된 것이 모두 여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총괄하건대, 삼한에 대한 다툼은 역시 중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사(北史)』에 이르기를 "백제는 대체로 마한의 족속이다."라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삼한은 모두 백제, 신라의 차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세상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의심을 끊을 사람은 마땅히 그 본말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 근본을 살피지 않고 다만 끄트머리만 따르면 얽히고 감겨서 미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문자가 없었으니 어찌 기록이 있겠는가? 이사금(尼斯今), 마립간(麻立干)으로 왕호(王號)를 삼고, 서야화(徐耶火), 음즙벌(音汁伐)로 지명을 삼았으니, 당시 문자가 없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은 모두 한, 위, 진(晉) 등 [중국의] 여러 역사책에 의거하여 흩어진 것을 모아 책을 만들었고, 간혹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기록을 수습한 것들은 모두 허황되고 거짓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알에서 부화되고, 함[櫝]이 물에 떠오고, 닭이 울고, 까치가 시끄럽게 울고 하는 천한 거짓말들이니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중국의 믿을만한 역사책들을 가벼이 여겨 버리고 스스로 거리의 야담을 세우려 하니 그 근본을 살핀다고 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 사서를 편찬한 사람들은 모두 고구려가 삼한과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사』와 『통전』의 기록이 명백하기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집안의 족보책이 남의 집에 보관된 것보다 못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료14 『강역고』 권2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亦名 迦羅考〉 弁辰明是迦羅. 而迦羅之跡 僅見於北史 · 隋書 · 玆就 羅 · 麗史. 採取迦羅之事 爲弁辰別考 以當弁辰之史. 辰韓 · 弁辰 · 初皆六國 後各十二. 而迦羅只有六國者 史家失其六也. 鏞謂 凡作新羅之史者 宜作迦羅本紀一部 以當秦本紀 · 項羽本紀義例 而金富軾闕焉不錄. 今考羅 · 麗地志 凡得迦羅 · 伽耶之名者 總有六國. 金海爲金官伽耶〈亦名大迦羅〉 咸安爲阿那伽耶〈亦名阿尸良〉 固城爲小伽耶〈亦名古自國〉. 此皆潢水以南之諸縣也. 潢水發源於太白山之潢池 西南流三百餘里. 至咸昌縣東 折之爲南流三百餘里. 至咸安郡北. 又折之爲東流百餘里. 至金海府東北黃山浦口 又折爲南流. 至金海府東入海. 此所謂洛東江也. 謂之洛東者 言在駕洛之東也.

「변진별고(弁辰別考)」〈「가라고(迦羅考)」라고도 한다〉 변진은 분명히 가라(迦羅)이다. 그러나 가라의 흔적이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 겨우 보이므로 이제 『삼국사기』, 『고려사』[羅麗史]에서 가라의 사적을 채취하여 「변진별고」를 만들고 변진의 역사에 해당시키고자 한다. 진한과 변진은 처음에는 모두 6국이었다가 뒤에 각각 12국이 되었다. 그런데 가라가 단지 6국만 있는 것은 역사가들이 그 [나머지] 여섯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鏞謂]. 무릇 신라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마땅히 [『사기(史記)』에서] 「진본기(秦本紀)」와 「항우본기(項羽本紀)」를 따로 만든 범례에 따라 「가라본기(迦羅本紀)」 한 권을 지었어야 하는데, 김부식이 [이것을] 빠트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지금 『삼국사기』[羅史]와 『고려사』지리지를 살펴보면 가라, 가야의 이름을 가진 것이 모두 6국이 있다. 김해가 금관가야〈대가라(大迦羅)라고도 부른다〉가 되고, 함안이 아나가야〈아시량(阿尸良)이라고도 부른다〉가 되고, 고성이 소가야〈고자국(古自國)이라고도 부른다〉가 되니, 이것들은 모두 황수(潢水)이남의 군현이다. 황수는 태백산의 황지(潢池)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3백여 리를 흐르다가 함창현 동쪽에서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3백여 리를 흘러 함안군 북쪽에 이르면 다시 방향을 꺾어 동쪽으로 1백여 리를 흐르고 김해부 동북쪽의 황산포구(黃山浦口)에 이르면 또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흐르다 김해부 동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을 소위 낙동강이라고 하는데, 낙동이라 하는 것은 가락의 동쪽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又咸陽府南 · 智異山之北 濫水出焉.〈俗謂之淸川〉 東流至晉州城南 折之爲東北流 至咸安郡北 與潢水合流. 凡在潢水 · 濫水之南者 最東曰金海 次西曰熊川 曰昌原 曰漆原 曰咸安 曰鎭海 曰固城 曰泗川. 最西曰昆陽. 新羅史謂

之浦上八國 蓋指此類. 此皆古弁辰之地也. 慶州在金海直北二百里 遠在潢水之東. 漢史所謂弁辰在辰韓之南者 此之謂也. 又高靈爲大伽耶 星州爲碧珍伽耶 咸昌爲古寧伽耶. 皆在潢水之西 而潢東諸縣絶無駕洛之跡 潢水之稱洛東江 固其宜也. 若論東西緯度 高靈東直慶州. 星州在高靈之北四十里. 咸昌在星州之北百四十里. 漢史 猶謂之弁辰在南者 金官駕洛國 爲弁辰之總王 故得云在南. 又或謂與辰韓雜居也. 今若於金官之國 加之以浦上八國 又加以高靈 · 星州 · 咸昌等三國 恰充其數. 但浦上八國 所謂骨浦者 今合于昌原. 所謂漆浦者 今之漆原. 所謂古史浦者 似指固城.〈本名古自浦〉 餘不可考也.

또 함양부 남쪽 지리산 북쪽에서는 남수(濫水)가 나오는데〈민간에서는 청천(淸川)이라고 부른다〉 동쪽으로 흘러 진주성 남쪽에 이르면 방향을 꺾어 동북쪽으로 흐르다 함안군 북쪽에 이르면 황수와 합류한다. 황수와 남수의 남쪽에 있는 것이 가장 동쪽이 김해이고, 그 다음 서쪽으로 웅천(熊川), 창원(昌原), 칠원(漆原), 함안(咸安), 진해(鎭海), 고성(固城), 사천(泗川)이 있으며, 가장 서쪽이 곤양(昆陽)이다. 「신라사」에서 포상팔국(浦上八國) 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옛 변진의 땅이다. 경주는 김해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2백리 되는 곳에 있어서 황수의 동쪽에서 멀리 있다. 『중국사서[한사(漢史)]』에서 말하는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또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耶)이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耶)이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耶)이니, 모두가 황수의 서쪽에 있다. 황수 동쪽의 여러 현에는 가락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 황수를 낙동강이라 부르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고령은 경주에서 곧바로 동쪽에 있고, 성주는 고려 북쪽으로 40리 되는 곳에 있으며, 함창은 성주에서 북쪽으로 140리 되는 곳에 있다. 그런데 한사(漢史)에서 변진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금관가락국(金官駕洛國)이 변진의 총왕이 되었으므로 [변진이]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는 진한과 섞여 살았다고 한 것이다. 이제 금관국에 포상팔국을 더하고, 또 고령, 성주, 함창 등 세 나라를 더하면 [12국이 되어] 그 숫자가 꼭 채워진다. 다만, 포상팔국 가운데 골포(骨浦)라 하는 것은 지금[조선] 창원(昌原)에 들어맞고, 칠포(漆浦)라 하는 것은 지금[조선]의 칠원이며, 고사포(古史浦)라 하는 것은 고성 〈본래 이름은 고자포(古自浦)〉을 가리키는 듯하나, 나머지는 알 수 없다.

又按 漢史有弁辰軍彌國 · 弁辰甘路國. 今之昆陽 本名昆彌. 開寧 本名甘文國.〈在星州之北〉 疑卽軍彌 · 甘路之聲轉也. 瀆盧者 巨濟也.〈已見前〉 雖與金官隔以海口 瀆盧南與倭接 恐非他邑也.〈巨濟有加羅山.輿覽云望對馬島最近.〉 弁辰十二國 皆隷金官首露之國. 金官者 弁辰之總王也. 漢光武時 始開其國. 金富軾三國史云 金庾信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出金庾信傳〉 鄭麟趾高麗史云 金州本駕洛國. 新羅儒理王十八年〈建武十七年〉 駕洛之長 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等 九人率其民禊飮 望見龜旨峰 有非常聲氣. 就視之 …(중략[節])… 有一童子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盡禮. 童子日就歧嶷 身長九尺 九人遂奉以爲主 卽首露王也. 國號駕洛 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卽位一百五十八年 薨.〈見地理志〉 又云金州有首露王墓〈在州西〉 · 招賢臺.〈在州東〉 世傳 駕洛國居登王 登此臺 招七點山昰始仙人. 昰始 乘舟而來 因名焉. 東史略云初 駕洛〈今金海〉有九干 各總其衆 爲酋長. 九干脩禊事 適見龜峯 有異氣 就得六男 …(중략[節])… 推始生者爲主. 因金卵姓金 以始見名首露. 國號大駕洛.〈權近著〉 東國總目云始生者 爲大駕洛 其餘五人 爲五伽倻主. 曰阿羅伽耶 曰古寧伽倻 曰大伽倻 曰星山伽倻 曰小伽倻. 鏞案 首露開國之年 三國史以爲漢光武十八年 〈壬寅年〉 高麗史以爲儒理王十八年.〈辛丑年〉 所差一年也. 東史諸家並從三國史〈從壬寅〉 貴古也. 又按 鄭史 有金榼 · 金卵之說 妄誕鄙俚 今並刪之. 余謂 漢史 · 魏志 皆云 辰韓 · 弁辰之王 皆以馬韓人爲之. 此當時之實聞也. 辰韓之昔脫解 · 弁辰之金首露皆係西韓之人 而新羅 · 百濟後世 竟成仇隙 新羅之人恥其前代受命百濟 諱其根本 遂造櫝卵之說 以欺愚俗. 而三國遺事 並載委巷之說 鄭公不知刪落耳. 又按 東史略 有六卵之說. 而東國總目遂云 首露王兄弟六人 分作六伽倻之始祖. 此皆後人推演爲說 不足徵也. 唯崔致遠以爲大伽耶始祖朱日 · 金官國始祖靑裔 爲同母兄弟.〈詳見大伽耶〉 此必有據之言也. 金富軾云南加耶始祖首露 與新羅同姓也.〈又云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후한서』[漢史]에 변진군미국(弁辰軍彌國),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이 있는데, 지금[조선]의 곤양(昆陽)은 본래 이름이 곤미(昆彌)이고 개령(開寧)은 본래 이름이 감문국(甘文國)〈성주의 북쪽에 있다〉이니, 군미와 감로의 소리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독로(瀆盧)는 거제(巨濟)이다〈이미 앞에 나왔다〉 비록 금관국(金官國)과 떨어져 바다 어귀 건너편에 있지만 독로가 남쪽으로 왜와 접하고 있었으므로 딴 고을이 아닐 것이다. 〈거제에 가라산(加羅山)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輿覽]에서 이르기를 대마도(對馬島)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 변진 12국은 모두 금관가야의 수로(首露)의 나라였으니, 금관(金官)은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 한 광무제[漢光武] 때 그 나라를 개국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김유신의 12세조 수로(首露)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후한 건무 18년(42년) 임인년에 구봉(龜峰)에 올라 가락(駕洛) 9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어 가야라고 이름하였다. 뒤에 이름을 고쳐 금관국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김유신전(金庾信傳)」에 나온다〉 정인지의 『고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주(金州)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신라 유리왕 18년(42년)〈건무 17년〉에 가락의 우두머리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있어 가서 보았다. …(중략)…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경하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내아이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 [이 달 보름날에(是月望)] 아홉 사람이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나라 이름을 가락(駕洛)이라 하고 또는 가야(伽倻)라고 불렀으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에 이르며, 서남쪽은 바다와 만나고,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삼았다. [수로왕은]즉위한 지 158년 만에 돌아갔다[薨].〈[『고려사』]지리지에 보인다〉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주(金州)에는 수로왕묘(首露王墓)〈주(州)의 서쪽에 있다〉와 초현대(招賢臺)〈주의 동쪽에 있다〉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이 대(臺)에 올라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불렀더니 참시가 배를 타고 왔으므로 그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동국사략』[東史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원래 가락(駕洛)〈지금[조선]의 김해(金海)〉에는 9간(九干)이 있어서 각기 무리를 거느리고 추장(酋長)이 되었다. 9간 들이 계사(禊事)를 지내다가 마침 구봉(龜峯)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한 기운이 있더니 여섯 사내아이를 얻게 되었다. …(중략)… 처음 태어난 자를 임금으로 추대하였는데, 금알[金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金)을 성으로 삼았으며,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다. 국호(國號)는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다.〈권근(權近) 저(著)〉『동국역대총목』[東國總目]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대가락(大駕洛)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기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는데,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령가야(古寧伽倻), 대가야(大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 소가야(小伽倻)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로왕이 개국한 해에 대해 『삼국사(기)』는 후한[後漢] 광무(光武) 18년〈임인년〉(42년)으로 보았고, 『고려사』는 유리왕 18년〈계축년〉(41년)로 보았으니 차이가 1년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가(史家)들은 모두 『삼국사기』를 따랐는데〈임인년을 따랐다〉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긴 까닭이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정인지의 『고려사』[鄭史]에 있는 금합[金榼]과 금알[金卵]의 설은 망령되고 촌스러우니 지금 모두 삭제한다. 내가 말했듯이 『후한서』[漢史]와 「위지(魏志)」에서 똑같이 말하기를 진한(辰韓)과 변진(弁辰)의 왕을 모두 마한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실문(實聞)이었다. 진한의 석탈해(昔脫解)와 변진의 김수로(金首露)는 모두 서한(西韓) 사람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가 후세에 원수가 되어 사이가 벌어지자, 신라 사람들이 선대에 백제로부터 명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근본을 숨기려다가 결국 궤와 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매한 사람들을 속였다. 『삼국유사』에는 뒷골목[委巷]의 이야기들이 모두 실려있는데, 정공(鄭公)이 삭제할 줄 몰랐던 것이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동국사략[東史略]』에 여섯 알의 설이 있고, 『동국역대총목[東國總目]』이 이것을 따라서 수로왕의 형제 여섯 사람이 나뉘어 6가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후대 사람들이 미루어 부연하여 만든 이야기이니 증명할 수가 없다. 오직 최치원

(崔致遠)이 대가야의 시조 주일(朱日)과 금관국의 시조 청예(靑裔)가 동모형제(同母兄弟)라고 보았으니〈자세한 것은 대가야에 보인다〉 이것은 틀림없이 근거가 있는 말이다. 김부식이 이르기를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는 신라와 동성이다.' 라고 하였다.〈또 이르기를 신라사람들이 스스로 소호천씨(少昊天氏)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로 했다고 하였다〉

洪萬宗云 王妃許氏〈南天竺王女〉生九子 而二子從母姓. 今之金海金氏 · 許氏 皆首露之子孫也. 王壽至一百五十八. 鏞案 鄭史 首露王在位百五十八年. 洪說以爲享壽百五十八年. 揆之常理 洪義似長. 然今從鄭史 所以貴古也.

홍만종(洪萬宗)이 [『동국역대총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비 허씨(許氏)〈남천축(南大竺)의 왕녀〉가 아홉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모성(母姓)을 따랐으니 지금[조선]의 김해 김씨와 허씨가 모두 수로(首露)의 자손이다. 왕의 나이는 158세에 이르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는 수로왕의 재위가 158년이라 하였고, 홍만종의 설은 [수로왕이] 수를 누린 것이 158년이라 하였는데, 상식에 비추어보니 홍만종의 의견이 더 나은 듯하다. 그러나 지금 정인지의 『고려사』를 따르는 것은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사료15 『동사변의』 삼한지호 | 『東史辨疑』 三韓之號

朝鮮世紀曰 三韓 馬韓 辰韓 弁韓也. 古初 韓國分而爲三 曰馬韓.辰韓, 弁韓.後漢書云 韓有三種 皆古之辰國也, 夫辰者臣也.當時 遠聞秦王爲中國大君 遂謂其首長曰臣王, 其後 中國人譯之曰辰王 亦謂之辰國.辰國之爲馬韓 以箕準襲取韓國 都於金馬渚郡 故稱之以馬韓 以別於辰弁兩韓也. 辰韓者 秦韓也. 秦人之東走者也.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馬韓割東界地與之, 其語有似秦語 故或名之秦韓, 辰之爲秦 據左傳辰嬴 可證也, 或曰在帶方之辰方 故曰辰韓. 而魏志云 辰韓人名樂浪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也. 弁韓一作弁辰 又稱卞韓. 後漢書曰 弁辰在辰韓之南 與辰韓雜居 衣服居處同 盖弁韓者弁辰也 弁辰亦辰韓也., 其壤地相錯 人民雜居不可以從某至某分而二之 故魏志亦書以錯雜 雄於弁辰諸國 標以弁辰二字其雜居可知也. 其稱弁韓 必曰弁辰 則弁韓之依於辰韓 明是附庸而不相懸遠 特其總王 所居辰韓稍北 弁辰稍南. 故後漢書謂弁辰在辰韓之南也.

『조선세기(朝鮮世紀)』에서 말하기를 삼한은 마한(馬韓) · 진한(辰韓) · 변한(弁韓)이다. 옛날에 한국(韓國)이 나뉘어 셋이 되었는데 마한 · 진한 · 변한이라 하였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한(韓)은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라 하였다. 무릇 진(辰)은 신(臣)이다. 당시에 진왕(秦王)이 중국의 대군(大君)이 되었다는 것을 멀리서 듣고는, 드디어 그 수장을 일컬어 신왕(臣王)이라고 하였다. 그 후 중국인이 이것을 진왕(辰王)이라고 해석하고, 또 진국(辰國)이라 불렀다. 진국이 마한으로 된 것은 기준(箕準)이 한국(韓國)을 습격하여 얻고는 금마저군(金馬渚郡)에 도읍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칭하여 마한이라고 하였던 것이니, 진 · 변 두 한(韓)과는 구별된다. 진한(辰韓)은 진한(秦韓)이니, 진(秦)나라 사람으로 동쪽으로 이주한 자들이다. 『후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한의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의 유망인들이 고된 부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으로 오니, 마한이 동쪽 경계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라 하였다. 그 말이 진(秦)의 말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혹은 진한(秦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辰)이 진(秦)이 되는 것은 『좌전(左傳)』의 진영(辰嬴)을 근거해서 볼 때 증명할 수 있다. 혹은 대방(帶方)의 진방(辰方)에 있기 때문에 진한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위지(魏志)」에서는 "진한인은 낙랑(樂浪)을 아잔(阿殘)이라고 이름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동방(東方)] 사람들은 나(我)를 이름하여 아(阿)라고 하니, 낙랑인이 본래 그 잔여(殘餘)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변한(弁韓)은 또는 변진(弁辰)이라고도 썼으며, 또한 변한(卞韓)이라고도 불렀다. 『후한서』에서는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니, 진한과 뒤섞여 있으며, 의복과 거처가 같다라 하였다. 대개 변한(弁韓)은 변진이고, 변진은 또한 진한이다. 그 영토가 뒤섞여 있고 주민이 뒤섞여 살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어 둘로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지 또한 뒤섞어서 쓰면서, 다만 변진 여러 나라에는 변진이라는 두 글자로 표시하였다. 그들이 뒤섞여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변한을 부를 때 반드시 변진이라고 하였으니, 변한이 진한에 의탁하여 부용한 것이 분명하며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총왕(總王)이 거처하는 곳에서 진한은 조금 북쪽, 변진은 조금 남쪽이었다. 그러므로 『후한서』에서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한 것이다.

或曰 古有弁辰 未有弁韓. 東人離開弁辰二字 以作弁韓 至於弁之爲卞 必是聲相近而爲譌也. 或云 一說弁者冠之一名也. 韓人頂戴之幘 有似乎弁 遂以爲名. 東俗 凡冠幘之尖頂者 通謂之弁 亦謂之駕那 今金吾皂隸及郡縣侍奴 猶戴尖頂之責 名之曰駕那亦謂之金駕那.方言猶傳必有所本. 新羅之時 駕洛國在今金海府 或稱加羅 或稱伽倻. 而弁者駕洛也 駕洛者伽倻也 加羅 · 駕洛 · 伽倻 一也 此乃弁辰之總王. 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 故號之曰駕洛國 而以弁稱名. 似或以此 而自首露王時 始稱以弁辰歟. 然弁辰之號 與馬 · 辰二韓 幷稱於首露立國之前則未知何以解也. 及其末王仇亥投降新羅之後名其國曰金官. 金官者金冠也. 金冠者金駕那也. 駕那之爲弁辰 筒足疑乎. 然則弁辰卽伽倻也. 伽倻卽弁辰也. 弁辰與伽倻 決非前後二國之號也.
혹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옛날에 변진(弁辰)은 있었지만 변한(弁韓)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弁)과 진(辰)의 두 글자를 분리시켜서 변한이라고 쓴 것이다. 변(弁)이 변(卞)이 되기에 이른 것은 필시 소리가 서로 비슷해서 와전된 것이다. 혹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일설에 변(弁)은 모자의 한 이름이다. 한인(韓人)이 머리에 쓴 모자[책(幘)]가 고깔모자[변(弁)]처럼 생겼기 때문에 부른 이름이다. 우리나라 풍속[東俗]에 모자[冠幘]의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통틀어서 고깔[弁]이라고 한다. 지금 금부[金吾]의 조예(皂隸)와 군현의 시노(侍奴)는 아직도 꼭대기가 뾰족한 모자[尖頂之幘]를 쓰는데, 그것을 가나(駕那)라고도 부르고 또는 금가나(金駕那)라고도 한다. 방언(方言)이 널리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근본하는 바가 있다. 신라 때에 가락국은 지금의 김해부에 있었다. 혹은 가라(加羅)라고도 부르고, 혹은 가야(伽倻)라고도 불렀다. 변(弁)은 가락(駕洛)이고, 가락은 가야(伽倻)이다. 가라(加羅), 가락, 가야는 하나이니 이는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 반드시 그 모자를 특별히 꼭대기를 뾰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가라국이라고 한 것이다. 변(弁)이라고 이름한 것이 혹 이처럼 된 것이라면, 수로왕 때부터 비로소 변진으로 부른 것인가. 그러나 변진이라는 호칭은 마한 · 진한과 함께 수로왕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부터 불리고 있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마지막 왕 구해(仇亥)가 신라에 투항한 후에는 그 나라를 이름하여 금관(金官)이라고 하였다. 금관(金官)은 금관(金冠)이다. 금관(金冠)은 금가나(金駕那)이다. 가나가 변진이 됨을 오히려 족히 의심하겠는가. 그렇다면 변진은 곧 가야이고, 가야는 곧 변진이다. 변진과 가야는 결코 전후(前後) 두 나라의 호칭이 아니다.

사료16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 『增補文獻備考』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新羅國. 三國史曰 新羅合卞韓爲國 西至于智異 北至于鷄立. 邇東史綱目曰 新羅其始起於辰韓之地 今慶州即其肇業之基也.此時 辰 · 卞所統諸小國 存滅未詳 而以其見於東史者言之 則洛江以東 有伊西國 · 押梁國 · 骨火國 · 召文國 · 昌寧國 · 萇山國 又有音汁伐國. 洛江以西 有甘文國 · 沙伐國 又有駕洛國 及五伽倻國分治. 則新羅初起 其地甚少 後來呑併 遂拓土 西至智異山接百濟 西北至漢江 北至井泉郡接高句麗 東南至大海通倭 此其大概也. 然而互相侵伐 得失無常. 訖解王開碧骨堤 眞興王置完山州 百濟東南郡邑 盖多入于羅矣. 眞興王置北漢山州 善德王時高句麗來侵七重城 句麗東南亦多入于羅矣. 及倂麗 · 濟 三面際海 而西北則只得句麗南界. 聖德王三十四年 勅賜浿江以南地 至唐岳 · 土山爲界. 後浿北之地 唐亦不能有 而爲渤海 · 靺鞨所據矣. 東北濊貊地 曾已入羅而北界止於井泉郡 景德王築炭項關門 疑今德源府鐵關之地也.
신라국. 『삼국사(三國史)』에서 말하기를 "신라가 변한(卞韓)을 병합하여 나라로 삼았다. 서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계립(鷄立)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보(補)] 『동사강목』에 말하기를 신라는 처음 진한 땅에서 일어났으니, 지금의 경주는 곧 신라가 처음 일어난 터이다. 이 당시 진한과 변한이 통솔한 여러 소국(小國)의 존망은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서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낙동강[洛江] 동쪽에는 이서국(伊西國) · 압량국(押

梁國) · 골화국(骨火國) · 소문국(召文國) · 창녕국(昌寧國) · 장산국(萇山國)이 있었고 또 음즙벌국(音汁伐國)이 있었다. 낙강 서쪽에는 감문국(甘文國) · 사벌국(沙伐國)이 있었고 또 가락국(駕洛國)과 5가야국(五伽倻國)이 있어서 나누어 다스렸다. 따라서 신라가 처음 일어난 땅은 아주 작았지만, 뒤에는 다른 지역을 병합하여 영토를 넓혀, 마침내 서쪽으로는 지리산에 이르러 백제와 국경을 접하였으며, 서북쪽으로는 한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정천군(井泉郡)에 이르러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였으며, 동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러 왜와 통하였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그러나 (삼국이) 서로 쳐들어가고 정벌하여 땅을 얻고 잃는 것이 무상하였다. 흘해왕이 벽골제를 열었고 진흥왕이 완산주를 두었으니, 백제 동남쪽 군현이 많이 신라에 편입되었다. 진흥왕은 북한산주를 두었고, 선덕왕 때는 고구려가 칠중성(七重城)으로 쳐들어왔으니, 고구려 동남쪽 또한 많이 신라에 편입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함에 삼면이 바다에 접하였으나 서북쪽은 단지 고구려의 남쪽 영역을 얻는데 그쳤다. 성덕왕 34년(735년)에 [당나라가] 칙령으로 패강(浿江) 이남의 땅을 주면서 당악(唐岳)과 토산(土山)으로 경계를 삼았다. 뒤에 패강 북쪽의 땅은 당나라 역시 차지하지 못하였고 발해와 말갈의 근거지가 되었다. 동북쪽 예맥의 땅은 일찍이 이미 신라에 편입되었으나 북쪽 경계는 정천군에 그쳤다. 경덕왕은 (정천군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는데, 아마도 지금의 덕원부(德源府) 철관(鐵關)의 땅이 아닌가 싶다고 하였다

音汁伐國〈伐或作火 新羅方言 坪謂之伐 火謂之弗 變伐爲火 二音相似故也〉 婆娑王二十三年 音汁伐國 與悉直谷國爭疆 王召首露王決之. 六部會饗首露 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命奴殺之 奴逃依音汁伐主. 王索其奴 主不送. 王怒伐之 音汁伐主以其衆降.

음즙벌국〈벌(伐)은 혹은 화(火)라고도 썼다. 신라 방언에 들[坪]을 벌(伐)이라 하고, 불[火]을 불(弗)이라 하였다. 벌(伐)이 변하여 불[火]이 되었으니, 두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파사왕 23년(102년)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를 놓고 다투었다. 왕이 수로왕(首露王)을 불러 판결하니, 육부(六部)가 모여 수로왕을 대접하였다. 한기부(漢祇部)가 지위가 낮은 자로 주관하여 대접하니, 수로가 노하여 노(奴)에게 명하여 그를 죽였고, 노(奴)는 음즙벌국의 임금[主]에게로 달아났다. 왕이 그 노비를 색출하였지만, [음즙벌국의] 임금(主)이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임금[主]이 백성을 이끌고 항복하였다.

金官國〈初號駕洛 或作伽落 又稱伽倻 後改金官. 駕洛國紀亦稱衡有 [補]臣謹按 自始祖首露王 至仇衡王 凡十世四百九十一年〉 輿地志曰 今金海府 宮墟在府西三百步 有首露王墓 墓傍有廟. 龜旨山東有王妃墓 府人弁祭以正 · 五 · 八月. 新羅末 有英規者 奪廟爲淫祠 後入廟樑折壓死.〈宣祖壬辰 倭寇發基墓 棺中歛以金玉 頭骨大如銅盆. 棺外有二美人 顔色如 生 出置壙中 見曰卽消 蓋當時殉葬者也〉 駕洛國紀曰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倻山 南爲國.〈黃山江俗號三叉水 在金海府東〉 臣謹按 金官四履 古記所載 有可以證者. 三國史 新羅祇摩王四年 春 伽倻寇南邊. 秋 王親征伽倻 帥步騎度黃山江 伽倻人伏兵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奮擊 決圍而退. 觀於此則 東界黃山江者 加知. 婆娑王十八年 以國家 西隣百濟 南接伽倻 築加召 · 馬頭二城. 加召 卽今居昌縣 馬頭 未詳地分 而似是馬利縣 即今安義所屬廢縣利安也. 觀於此則 西至地理山者 可知.

금관국(金官國)〈처음 이름은 가락(駕洛)이었다. 혹은 가락(伽落)이라고도 썼다. 또 가야(伽倻)라고도 불렀다. 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또한 형유(衡有)라고도 불렀다〉 [보(補)]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시조 수로왕(首露王)으로부터 구형왕(仇衡王)에 이르기까지 16세 491년입니다. 『여지지(輿地志)』에서 말하기를 지금의 김해부(金海府)이다. 부의 서쪽 300보 되는 곳에 있는 궁궐터에 수로왕의 무덤이 있다. 무덤 옆에는 사당이 있다. 구지산(龜旨山) 동쪽에는 왕비의 무덤이 있다. 부(府)의 사람들이 정월, 5월, 8월에 함께 제사지냈다. 신라 말에 영규(英規)라는 자가 있어서 사당을 빼앗아 잡신을 제사지냈었다. 뒤에 사당에 들어갔다가 대들보가 부러져서 깔려 죽었다고 하였다.〈선조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그 무덤을 파헤쳤는데, 관 안에는 금과 옥으로 염을 하였고 머리뼈는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다. 관 밖에는 미인 두 명이 있었는데, 얼

굴색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 구덩이 안에서 꺼내 두니, 해를 보자 곧 사라졌다. 당시 순장한 사람인 듯하다〉 「가락국기」에 동쪽으로는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으로는 바다, 서북쪽으로는 지리산(地理山), 동북쪽으로는 가야산(伽倻山) 남쪽을 나라로 하였다고 하였다.〈황산강은 보통 삼차수(三叉水)라고 부른다. 김해부 동쪽에 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금관의 사방 경계는 옛 기록에 실려 있는 것 중에 고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신라 지마왕(祗摩王) 4년(115년) 봄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가을에 왕이 가야를 친히 정벌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강을 건너는데, 가야 사람이 군사를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니, 복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왕이 힘껏 공격해서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본다면, 동쪽으로 황산강을 경계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사왕 18년(97년)에 국가가 서쪽으로는 백제, 남쪽으로는 가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소(加召)·마두(馬頭) 두 개의 성을 쌓았다고도 하였습니다. 가소는 곧 지금[조선]의 거창현(居昌縣)입니다. 마두는 지역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현(馬利縣)인 듯하니, 곧 지금의 안의(安義) 소속의 폐현(廢縣)인 이안(利安)입니다. 이를 본다면, 서쪽으로 지리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大伽倻國〈自始祖伊珍阿鼓王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王二十三年 伽倻叛 王命異斯夫 討降之. 輿地志曰 大伽倻 今高靈縣. 縣南一里 有宮闕遺址 傍有石井 俗傳御井. 縣西二里許 有古藏 世傳錦林王陵. 琴谷在縣北三里. 世傳 伽倻國嘉悉王樂士于勒 率工人肄琴之地. 或云此琴出於金官之伽倻國. 東京堤 在縣東十里. 世傳 新羅謀攻大伽倻 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대가야국(大伽倻國)〈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16세 520년이다. [이진아시왕은] 또는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 진흥왕 23년(562년)에 가야(伽倻)가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도록 하여 항복시켰다. 『여지지(輿地志)』에는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현(高靈縣)이다. 현의 남쪽 1리에 궁궐터가 있는데, 옆에는 돌로 된 우물이 있다. 민간에서 어정(御井)이라고 전해진다. 현 서쪽 2리쯤에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전해진다. 금곡(琴谷)은 현 북쪽 3리에 있다. 민간에서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악공[工人]을 데리고 금을 연주하던 지역이라고 전해진다. 혹은 이 금(琴)이 금관가야국[金官之伽倻國]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동경제(東京提)는 현 동쪽 10리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할 것을 도모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 왔으나 [대가야가] 방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퇴각하였다. 밤에 이 제방을 쌓아서 무리가 많음을 보였다고 하였다.

小伽倻國. 高麗地志曰 固城縣 本小伽倻 新羅取之置郡.
소가야국(小伽倻國). 『고려사』지리지[高麗地志]에 고성현(固城縣)은 본래 소가야였다. 신라가 빼앗아 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古寧伽倻國. 三國地志曰 古寧郡 本古寧伽倻國 新羅取之爲郡.〈古寧伽倻 今咸昌〉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 『삼국사기』지리지[三國地志]에 고녕군(古寧郡)은 본래 고녕가야국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군(郡)으로 삼았다고 하였다.〈고녕가야는 지금의 함창(咸昌)이다〉

阿羅伽倻國〈羅一作那 一云阿尸良〉. 法興王滅阿尸良國 以其地爲州. 景德王改爲咸安郡. 輿地勝覽曰 今咸安郡. 北白沙里 有古國. 牛谷東西境上有古塚 高五丈者 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 古老相傳.〈[補]臣謹按 原本所載 雖此白沙里古國 斗谷古塚等說 不載 輿覽欠考. 續臣謹按 阿羅 盖嘉悉王之國 而伽倻琴所出也. 據三國史 新羅王用嘉悉臣于勒所造琴樂曰 伽倻王淫亂自滅 樂何罪乎. 此時 大伽倻尚未亡 而上距阿羅之滅纔十餘年則 所謂嘉悉者 非阿羅王而何.
아라가야국(阿羅伽倻國)〈라(羅)는 또는 나(那)라고도 썼다. 또한 아시량(阿尸良)이라고도 하였다〉. 법흥왕이 아시

량국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주(州)로 삼았다. 경덕왕이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 『동국여지승람[輿地勝覽]』에 지금의 함안군 북쪽 백사리(白沙里)에 고국(古國)[터]이 있다. 우곡(牛谷)의 동쪽과 서쪽 경계 위에는 높이가 다섯 길[장(丈)]에 이르는 옛 무덤 40여 개소가 있는데, 모두 그 나라 임금의 무덤이라고 노인들 말로 전해 온다고 하였다. 〈[보(補)] 신이 삼가 원본에 실린 것을 살펴보건대, 비록 이런 백사리 고국이나 우곡 고총(高塚)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지는 않지만, 『동국여지승람[輿覽]』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속(續)]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아라(阿羅)는 대개 가실왕(嘉悉王)의 나라이며 가야금(伽倻琴)이 나온 곳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왕이 가실[왕]의 신하 우륵이 만든 금(琴)의 음악을 수용하면서 가야왕이 음란해서 자멸한 것이다. 음악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대가야는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아라가 멸망한 것은 불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가실이라는 자가 아라의 왕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星山伽倻國. 東國記異曰 星山伽倻 今京山 一云碧珍.〈三國遺事 以星山爲六伽倻之一〉 臣謹按 右五伽倻 五童子分主者也. 權近 以金官 列於五伽倻. 東國記異註 金官不入五數 是矣. 東國史略則 幷數金官 而濫記昌寧 誤矣.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 『동국기이(東國記異)』에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京山)이니, 혹은 벽진(碧珍)이라고도 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성산이 6가야의 하나라고 하였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위의 5가야는 다섯 동자가 나눠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권근(權近)은 금관(金官)을 5가야에 넣었습니다. 『동국기이』의 주(註)에 금관은 다섯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동국사략(東國史略)』이 금관을 함께 헤아리고 창녕(昌寧)을 함부로 기록한 것은 잘못입니다.

加羅國. [續]臣謹按 加羅卽駕洛變稱 而非別有一國也.
가라국(加羅國) [속(續)]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가라는 곧 가락(駕洛)의 다른 칭호이며, 따로 하나의 나라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任羅國 通典新羅傳曰 百濟征高麗 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至強盛 因襲加羅 · 任羅諸國〈三韓之地〉滅之 [續]臣謹按 任羅 任那之變稱 卽大伽倻也. 疊書誤也. 臣謹按 加羅 · 任羅 今不可考. 而三國史 新羅奈解王十四年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 來請救. 王命太子于老〈原本作干 克今厘改〉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以浦上八國侵伐及所虜六千人觀之 加羅蓋近浦上 而其國之不甚小 可知. 文獻通考 宋文帝元嘉間 倭王珍遣使 自稱持節 · 都督百濟新羅任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 倭國王. 後宋加倭王職皆如故 以任羅列於百濟 · 新羅 則任羅亦不小之國也. 三國史斯多舍傳 眞興王命異斯夫襲加羅 註云 加羅一云加耶 然則加羅是加耶原本作別稱歟. 異斯夫所滅卽大伽倻也. [續]臣謹按 任那之見於東史者 僅不過新羅史任強首傳云國原京任那人. 國原今忠州舊號 故後世遂以任那爲忠州屬地. 然據日本史 則任那國之交通 已在崇神.〈新羅赫居世二十五年〉之代. 居三國之最先. 歷三百餘年至孝德〈新羅喜德王魏 仁平十二年〉之初 其間 交聘 侵伐 置府 · 屯戍之跡 昭載歷歷 往來如織 與新羅 · 百濟竝稱 而列數之. 則其國之大 亦非甘文 · 押督之可比 其迹不少 概見於三國史 何也. 且當時伽倻 · 加羅之國 其地在今慶尙東南沿海 最與日本接近 則宜其與日本交通 頻繁於羅 · 濟 而日本之史 亦無加羅之迹 何哉. 今以日史考之 則任那之爲伽倻 明矣. 新羅史眞興王二十三年 討滅大伽倻 而與日本史新羅滅任那之年相符. 又其地界來往之跡 亦分明於伽倻之地 則任那之爲伽倻 無疑矣. 且日本史每擧新羅 · 任那 · 百濟三國 而稱爲三韓 則任那之爲三韓 確矣. 大伽倻亡後 樂士于勒 入國原地 有彈琴之臺 則或者國原一部原屬伽倻之地界 故國亡之後 于勒入此 而國原一部有任那之稱歟. 通典註稱 任那 三韓之地 其亦有據乎.
임라국(任羅國). 『통전(通典)』신라전(新羅傳)에 백제가 고구려[高麗]를 정벌하니 사람들이 군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귀부하였다. [신라가] 마침내 강성하게 되어 가라(加羅) · 임라(任羅) 여러 나라〈삼한(三韓)의 땅이다〉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속(續)]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임라(任羅)는 임나(任那)의 다른 칭호

로 곧 대가야입니다. 겹쳐 쓴 오류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가라와 임라는 지금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신라[본기]에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치려고 모의하였다.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 우로(于老)〈원본에서는 우극(于克)이라고 썼는데, 지금 교정하여 고친다〉에게 명하여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8국의 장군들을 쳐서 죽이고 포로 6천인을 빼앗아 돌아왔다고 하였다. 포상팔국이 공격하였고 포로가 6천인이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가라(加羅)는 대개 포상(浦上) 근처에 있으며, 그 나라가 그리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통고』를 보면, 송(宋) 문제 원가 연간에 왜왕 진(珍)이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라·진한·모한 육국제군사·왜국왕(持節·都督·百濟·新羅·任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倭國王)이라고 칭하였고, 그 후 송이 더해준 왜왕직(倭王職)에도 모두 그대로 임라를 백제·신라의 반열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임라 역시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삼국사[기]』사다함전[斯多含傳]을 보면, 진흥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가라를 공격하였는데, 그 주(註)에 가라는 또는 가야(加耶)라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라는 바로 가야의 별칭이 아닐까 합니다. 이사부가 멸망시킨 것은 곧 대가야(大伽倻)입니다. [속(續)]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임나(任那)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타나는 것은 겨우 『신라사』 강수전(强首傳)에 국원경(國原京) 임나인(任那人)이라고 말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원은 지금 충주(忠州)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마침내 임나를 충주의 속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사에 근거해 보면, 임나국이 [일본과] 교통한 것은 이미 숭신(崇神)〈신라 혁거세 25년(기원전 33년)〉 시대였으니, 삼국에서 가장 앞선 위치였습니다. 300여 년을 거쳐 효덕(孝德)〈신라 선덕왕 인평 12년(643년)〉의 초에 이르기까지 그 간의 교빙·공격과 정벌·부(府)의 설치·군대주둔 등의 자취가 환히 실려 있으며, 빈번하게 왕래하여 신라·백제와 병칭되어 나열하기를 여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크기가 또한 감문(甘文)이나 압독(押督)에 비할 것이 아니며 그 자취가 적은 것이 아닌데, 『삼국사』에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당시 가야(伽倻)·가라의 나라는 그 땅이 지금의 경상도 동남쪽 연해에 있었으니, 일본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으므로 마땅히 일본과의 교통이 신라나 백제보다 빈번하였을 것인데, 일본의 역사에 또한 가라의 흔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일본사로 고찰해 볼 때, 임나가 가야가 됨은 명백합니다. 신라사에서는 진흥왕 23년(562년)에 대가야를 토벌하여 멸망시켰는데, 일본사에서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킨 해와 서로 부합합니다. 또 그 영토를 왕래한 자취 또한 가야의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임나가 가야가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일본사에서 매번 신라·임나·백제의 세 나라를 들어서 삼한(三韓)이라고 칭하였으니, 임나가 삼한이 됨은 확실합니다. 국원은 대가야가 망한 후에 악사 우륵(于勒)이 들어 간 땅으로 탄금대(彈琴臺)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국원의 일부가 원래 가야의 영토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후에 우륵이 여기로 들어간 것이라고도 하니, 국원의 일부란 임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통전』의 주(註)에서 임나를 삼한의 땅이라고 지칭한 것도 또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사료17 『증보문헌비고』 권232 직관고19 외관3 |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三十二 職官考十九 外官三

縣令. 固城縣令 新羅取加耶國 置郡太守. 高麗成宗置刺史 後降縣令. 顯宗革之〈[補]革屬巨濟〉後復設. 元宗陞知州事. 忠烈王革之〈[補]革屬南海〉尋復設. 恭讓王〈[補]作恭愍王〉降縣令. 本朝因之. 續今上七年 改爲判官 尋陞府使.

현령. 고성 현령(固城縣令) 신라가 가야국(加耶國)을 빼앗고 군태수(郡太守)를 두었다. 고려 성종 때 자사(刺史)를 두었다. 뒤에 현령으로 강등시켰다. 현종 때 혁파하였다〈[보(補)] 혁파하여 거제(巨濟)에 소속시켰다〉 뒤에 다시 설치하였다. 원종 때 지주사(知州事)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 혁파하였다〈[보(補)] 혁파하여 남해(南海)에 소속시켰다〉 얼마 후 다시 설치하였다. 공양왕 때〈[보(補)] 공민왕 때라고도 한다〉 현령으로 강등시켰다.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 [속(續)] 지금 주상[고종] 7년(1870년)에 판관(判官)으로 고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府使)로 승격시켰다.

縣監. 咸昌縣監 新羅取高寧伽倻國 置郡太守. 高麗顯宗革之.〈[補]革屬尙州〉 明宗置縣監務. 本朝改縣監.

현감(縣監). 함창 현감(咸昌縣監) 신라가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을 빼앗고 군태수(郡太守)를 설치하였다. 고려

현종 때 혁파하였다.〈[보(補)] 혁파하여 상주(尙州)에 소속시켰다〉 명종 때 현감무(縣監務)를 두었다. 본조[조선]에서 현감으로 고쳤다.

高靈縣監. 新羅眞興王滅大伽倻國 置郡主. 高麗革之.〈[補]革屬〉 明宗置縣監務. 本朝改縣監.
고령현감(高靈縣監).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국(大伽倻國)을 멸망시키고 군주(郡主)를 두었다. 고려 때 혁파하였다.〈[보(補)] 혁파하여 경산(京山)에 소속시켰다〉 명종 때 현감무(縣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 현감으로 고쳤다.

사료18 『동국여지지』 서 총서 | 『東國輿地志』 序 總敍

其南卽三韓之地. 馬韓有五十四國 辰韓弁韓各有十二國 並古之辰國也.〈箕準旣爲衛滿所攻奪 乃率其左右南奔 至韓地金馬郡 立爲馬韓王 辰韓 秦之亡人避役入韓地. 馬韓割東界以與之 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能自立 制於馬韓.弁韓亦曰弁辰 屬於辰韓. 與辰韓雜居.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 東西以海爲限.皆古之辰國也〉
그 남쪽은 곧 삼한의 땅이다. 마한은 54개국이 있었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이 있었는데,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기고는 이내 그 좌우를 이끌고 남쪽으로 달아나 한(韓) 땅의 금마군(金馬郡)[현재 전북 익산시]에 이르러 마한왕이 되었다. 진한은 진(秦)나라에서 유망한 사람들이 부역을 피해 한(韓)땅으로 들어오자 마한이 동쪽의 땅을 떼어 준 것이다. 언제나 마한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비록 대대로 이어졌으나 자립하지 못하여 마한의 통제를 받았다. 변한(弁韓)은 변진(弁辰)이라고도 하였다. 진한에 속하였고, 진한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마한은 서쪽에 있었고 54개국(國)이었으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접하였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었고 역시 12개국이었으며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였다. 모두 78개국으로 큰 것은 만여 호(戶)이고 작은 것은 수천 가(家)였으며, 각각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써 끝을 삼았다.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사료19 『대동지지』 권29 방여총지1 삼한제국 | 『大東地志』 卷二十九 方輿總志一 三韓諸國

大同江鐵嶺 環海數千里之地. 陳壽三國志 列馬韓五十四國〈中有伯濟國 卽百濟〉 辰弁各十二國〈中有斯盧國 卽新羅〉 凡七十八國. 其國號不能考據 故删之 而引三國史所載諸國錄之. 前漢書云 太祖四年 北貉燕人 致梟騎助漢.〈師古曰 師古曰貉在東 北方三韓之屬皆是也〉 後漢書云 三韓地方 合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在三國志〉 盡有三韓之地. 文獻通考云 辰與朝鮮 分南北而建國 其始末不可考. 通鑑輯覽辰國註 卽辰韓. 韓有三種 曰馬韓 · 辰韓 · 弁韓.〈按 前漢時 濊貊滅而三韓繼之. 盖新羅 · 加耶 · 百濟 卽三韓之新國 與句麗 · 扶餘 · 沃沮 相南北〉
[삼한 여러 나라는] 대동강(大同江)과 철령(鐵嶺) [이남으로] 바다를 둘러있는 수천 리의 땅이다. 진수(陳壽)의 『삼국지』에는 마한(馬韓) 54개국〈그 가운데 있는 백제국(伯濟國)이 바로 백제(百濟)이다〉, 진한과 변한(弁韓)각 12개국〈그 가운데 있는 사로국(斯盧國)이 바로 신라(新羅)이다〉, 모두 78개국이 나열되어 있다. 그 국호들은 근거를 살필 수 없으므로 생략하고 『삼국사』에 실려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인용하여 기록한다. 『전한서』에 이르기를 태조(太祖) 4년(기원전 203년)에 북쪽 오랑캐[北貉] 연인(燕人)들이 용맹스런 기병을 보내 한을 도왔다고 하였다.〈사고(師古)가 말하기를 맥(貉)은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것이니, 삼한의 무리가 모두 이것이다." 라 하였다〉 『후한서』에 삼한지방은 모두 4천여 리인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써 경계를 삼으며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마한이 가장 커서 그 종족을 세워 진왕(辰王)으로 삼았으며, 목지국(目支國)에 도읍하고〈『삼국지』에 있다〉 삼한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문헌통고』에 이르기를 "진(辰)과 조선(朝鮮)은 남북으로 나뉘어 건국하였는데, 그 시말(始末)은 살필 수 없다."고 하였다. 『통감집람(通鑑輯覽)』의 진국(辰國)에 대한 주(註)에는 "곧 진한

(辰韓)이다. 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다.”라 하였다.〈내가 생각하기에, 전한 때에는 예맥(濊貊)이 없어지고 삼한이 그를 계승하였으며, 대개 신라, 가야(加倻), 백제가 바로 삼한에서 새로 생긴 나라들로서 고구려[句麗], 부여(扶餘), 옥저(沃沮)와 남북으로 마주하였다〉

弁韓. 後漢書云 在辰韓之南 亦有十二國. 其南亦與倭接與辰韓雜居. 魏志云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主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弁辰諸小别邑 各有渠師 大者名臣智 其次名險側次有樊穢 次有殺奚 次有邑借.〈按 自慶尙之洛江以西 以南沿全羅南邊濱海 皆其地也〉 謹按 唐書云 弁韓在漢樂浪地. 又云 新羅居漢樂浪地. 又云 渤海盖有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諸國之地.盛京志 以復州 · 寧海 · 蓋平 俱係辰韓地. 又云 百濟據有遼西. 豈三韓地界 至於此乎 不可攷也.高麗史 以黃海 · 楊廣 · 忠淸 · 全羅 俱係馬韓之域 則此亦可據. 而考百濟戰守之蹟 則大同以南 是馬韓地界 而爲百濟之全疆. 高句麗南遷以後 漢北又入於麗矣. 東史綱目 以漢北係朝鮮樂浪地界者 徒以平壤爲箕都 作標準 而分布四郡沃穢於鳴水以南也. 盖辰弁二韓攻取諸國 略見於三國史 而百濟所幷諸國 無見焉. 豈百濟本紀之闕漏歟. 後人 以三韓爲大國 而七十八國若屬國 焉是大.不然 東人方言 稱物之大曰馬 又凡言大曰韓. 五十四國統而大 故曰馬韓. 非别有馬辰弁以主之 如天子之制諸侯也 如今蒙古等二十五部之通稱蒙古也. 三國史 百濟始祖二十七年 滅馬韓云. 豈盡滅五十四國乎. 新羅始祖十九年 弁韓以國來降. 豈並降十二國乎. 以此兩條爲弁馬之始終 是文獻之無徵耳. 盖考戰攻之蹟 則大同以南 馬韓也. 鐵嶺〈在淮陽〉 以南 辰弁也. 而其地界之相錯 不可卞也.然則 大同以北爲濊沃雜居 而終爲樂浪南界 可推也. 俗傳 檀都白岳 貊都牛頭 穢都溟州. 想必三韓諸國遺址耳. 三國史 作於高麗中葉 而只據漢唐書南北史. 故不能述鴨江以北. 而地界漸明於近世者 是從遼金元史也. 若列四郡沃穢於漢北 則三韓不言而自退於漢南矣. 然則 紉山之蓋馬 江陵之濊貊漢水之例 猪灘之湏 或述似乎. 是由於錄舊平壤之事 於新平壤註 北樂浪之界 於南樂浪 混淆無的 務主牽合 各從甲乙.而華史亦據東史 頗有謬訛. 是後人之當博考也.〈三國志所載 三韓七十八國 今煩而不錄〉

변한(弁韓). 『후한서』에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12국이 있다. 그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하고 있고, 진한과 섞여 살고 있다고 하였다. 『위지(魏志)』에 대국(大國)은 4~5천가(家)이고 소국은 6~7백가이다. 그 12국은 진왕(辰王)에게 속하였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인으로 삼았으며, 대대로 [마한인끼리] 계승하였다. 진왕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변진의 여러 소별읍(小別邑)에는 거수(渠師)가 있는데, 큰 자를 신지(臣智)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험측(險側), 그 다음에 번예(樊穢), 그 다음에 살해(殺奚), 그 다음에 읍차(邑借)가 있었다고 하였다.〈내가 생각건대 경상도의 낙동강 서쪽과 남쪽으로부터 전라도 남쪽의 해안을 따라서 모두 그 땅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당서』에 이르기를 변한(弁韓)은 한(漢)의 낙랑(樂浪) 땅에 있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신라는 한(漢)의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고, 또 발해(渤海)는 대개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등 여러 나라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성경지(盛京志)』에서는 복주(復州) · 영해(寧海) · 개평(蓋平)을 모두 진한의 땅으로 연결시키고 또 이르기를 백제가 요서(遼西)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삼한의 경계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살필 수가 없다. 『고려사』에서 황해(黃海) · 양광(楊廣) · 충청(忠淸) · 전라(全羅) 등을 모두 마한의 영역으로 연결시켰으니, 이 또한 근거할 만하다. 백제가 전쟁을 벌인 흔적을 살펴보면, 대동강 이남이 바로 마한의 영역으로 백제의 전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천도한 뒤에는 한강 북쪽이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동사강목』에서 한강 이북을 조선, 낙랑의 영역으로 연결시킨 것은 단지 평양(平壤)을 기자(箕子)의 도읍으로 삼아서 표준을 만들고 사군(四郡)과 옥저, 예를 압록강 이남에 분포시킨 것이다. 대체로 변 · 진 2한이 여러 나라를 공격한 것은 『삼국사[기]』에 간략히 보이는데 백제가 병합한 여러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어찌 「백제본기」에서 빠뜨렸겠는가. 후대 사람이 삼한을 대국으로 여겼으니 78국과 속국들이 어찌 크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방언에 물건이 큰 것을 일컬어 마(馬)라고 하고 또 모두 큰 것을 말하여 한(韓)이라고 하였다. 54국을 통솔하여 컸기 때문에 마한이라고 하였다. 다름 아니라 마(馬) · 진(辰) · 변(弁)이 있어서 [소국들의] 임금(主)이 되었으니, 천자의 제도의 제후와 같고 지금 몽고 등 25부를 통칭하여 몽고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삼국사(기)』에 백제

시조 27년(9년)에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어찌 54국을 전부 멸망시켰겠는가. 신라 시조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弁韓)이 나라를 가지고 항복해왔다고 하였는데, 어찌 12국을 함께 항복시켰겠는가. 이 두 기사를 변(弁)·마(馬)의 시종(始終)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의 증거가 없다. 대체로 싸운 흔적을 살펴보면 대동강 이남은 마한이고, 철령(鐵嶺)〈회양(淮陽)에 있다〉이남은 진 · 변인데, 그 경계가 서로 어긋나 정확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동강 이북은 예와 옥저가 섞여 살다가 끝내 낙랑의 남쪽 경계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단도(檀都)는 백악(白岳)이고, 맥도(貊都)는 우두(牛頭)이며, 예도(穢都)는 명주(溟州)라 하는데, 생각해보면 삼한 제국의 유지(遺址)와 꼭 들어맞는다. 『삼국사기[三國史]』는 고려 중엽에 지어져서 단지 『한 · 당서(漢 · 唐書)』와 『남 · 북사(南 · 北史)』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록강 이북을 서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경계가 근세에 점차 분명해진 것은 요 · 금 · 원사(遼 · 金 · 元史)를 따랐기 때문이다. 만약 4군, 옥저, 예를 한강 이북에 열거해 놓는다면 삼한은 말할 것도 없이 한강 이남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검산(紉山)의 개마(蓋馬), 강릉의 예맥(穢貊), 한수(漢水)의 열수[例], 저탄(猪灘)의 패수[浿]가 아마 비슷하게 쓰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구 평양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신 평양(新平壤) 주(註)에 쓰는가 하면 북낙랑의 경계를 남낙랑에 쓰기도 하여 뒤죽박죽 정확함이 없이 무리하게 주장하고 억지로 부합하게 하여 각자 우열을 따진다. 중국사[華史]도 역시 우리나라 역사[『東史』]에 근거하니 자못 오류와 와전이 있다. 후대 사람들이 마땅히 널리 살펴야할 것이다.〈『삼국지』에 실려 있는 삼한 78국은 지금 번잡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사료20 『동국통지』 권5 지리지 상 | 『東國通志』 卷五 地理志 上

三韓 其地與中國齊魯 隔海相望. 北過帶水 東接濊貊 西南際海. 有大小七十國. 皆臣屬朝鮮. 杜氏通典 朝鮮遺民 分爲七爲七十餘國. 皆地方百里. 及王準南遷 而梢兼幷爲三國. 李種徽曰 古者 黃帝之時 天下萬國. 其後稍稍衰滅 及周之初 而爲千八百國. 至其衰也 天下六國 而一於秦. 盖後世德衰 而兼幷之患 滋也. 至方外別國 秦之害未至 而陵古之風格存. 故漢武之 時 西南夷有百餘國 而西域諸國又爲六十國. 其後漢郡西南城 亦自相呑滅盖亦中國之毒 所及也. 此匕十國 歷檀箕累數千年而不絶. 及衛滿一亂 事勢 相迫 一朝擧爲韓氏之郡縣. 悲夫 此所以令痛限於秦漢之際也. 自番直 今三陟 幷海至萇山 今東萊古萇山國. 八公轉帶洛東 凡十二國 國名幷見東國通鑑. 下倣此. 韓百謙曰 國卽今之郡縣. 爲辰韓. 東史 辰韓在馬韓之東. 自言 秦之亡人 避役入韓 韓割東界以與之. 立城柵. 言語有類秦人 或謂之泰韓 後漢書 辰韓在東 十二國 其北與濊貊接. 今慶尙道. 渡黃山 金海江名 沿海 以西包智異 而左轉 又十二國 爲弁韓. 東史 弁韓. 不知其始祖. 屬於辰韓. 後漢書 弁韓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與倭接. 弁韓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自異. 輿地勝覽 今全羅道 . 韓百謙曰 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肇國於駕洛 據有辰韓之南界. 其後入於新羅. 疑此卽爲弁韓之地也. 李種徽曰 新唐書 弁韓苗裔在樂浪. 而吉昌 之論 截去苗裔二字 以朝鮮混於韓地. 至於周官六翼註 以西京爲爲卞韓. 勝覽斥以朝鮮更指何地者得之. 狽河 今平山猪灘詳見下. 漢南度熊津 西薄海 東被大嶺 大率五十 四國 爲馬韓. 東史 箕準爲衛滿所攻奪 率其左右宮人 走入海 , 居金馬郡 自號敦王. 後漢書 馬韓在西 爲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勝覽 今京畿 · 忠淸黃海等道. 韓百謙曰 馬韓 歷四郡二府 至新莽時爲百濟. 辰韓 亦歷四郡二府 至宣帝時爲新羅. 弁韓始爲附庸辰韓 終爲合屬. 四郡二府之界 何時爲弁韓或馬韓耶. 湖西湖南合爲馬韓 而嶺南一道 自分爲辰弁二韓. 林象德曰 三韓地界 諸家之說 互相牴牾 而勝覽考據 最明. 今從之. 李種徽曰勝覽最明 而其引三國遺事 以平壤馬邑山 訂馬韓之爲麗 則恐又失之. 朝鮮更指何地之斥 不獨施於六翼也. 高句麗本朝鮮之域 而後幷馬韓爲界. 東明王初起之地 本朝鮮之玄菟舊域 而後入遼東 盖建州衛等地方.

삼한의 땅은 중국 제나라, 노나라와 바다를 두고 서로 바라보았다. 북으로 대수(帶水)를 지나고, 동으로 예맥에 접하며 서남으로 바다에 닿아있다. 크고 작은 70국이 있는데 모두 조선에 신속하였다. 〈두우(杜佑)의 『통전』에서는 "조선의 유민들이 나뉘어 70여 국으로 되었는데 땅이 모두 사방 백리이다."라 하였다〉[고조선의] 준왕이 남천 할 때에 차츰 겸병하여 삼국으로 되었다.〈이종휘(李種徽)가 말하기를 옛날 황제(黃帝) 때 천하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차츰 소멸하여 주나라 초기에는 1천 8백 국으로 되었다. [그 나라들이] 쇠약해짐에 이

르러 천하의 6국이 진나라로 통일되었으니, 대개 후세에 덕이 쇠하여 겸병의 고통이 늘어났다. 방외(方外)의 별국(別國)에까지는 진나라의 해악이 미치지 않아서 융성한 옛 풍속이 여전히 존속되었다. 그러므로 한 무제 때 서남오랑캐[西南]가 백여 국이 있었고, 서역제국들도 60국이 되었다. 그 뒤 한나라가 서남오랑캐를 군(君)으로 삼고 서역 역시 스스로 서로 병탄하고 멸망하였으니, 대개 또한 중국의 해독이 미친 것이었다. 이 70국이 단군, 기자를 지나 수천 년에 걸치도록 끊어지지 않았다. 위만 때에 이르러 한 번 어지럽게 되어 정세가 서로 긴박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두 한씨(韓氏)의 군현이 되었다. 슬프도다. 이것이 진한의 때를 통한케 하는 까닭이다〉 실직(悉直)〈지금[조선] 삼척〉에서부터 바다를 함께 하여 장산(萇山)〈지금[조선] 동래 고장산국(古萇山國)〉, 팔공산에 이르러 낙동강을 둘러 모두 12국〈국명은 모두 『동국통감』에 보인다. 아래도 이와 같다.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국(國)은 곧 지금의 군현이다." 라 하였다〉이 진한(辰韓)이 된다. 〈『동사(東史)』에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길 진(秦)의 유망민(流亡民)으로 [고된] 부역을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 왔다. [마]한(韓)이 동쪽 경계를 나누어주어 성책(城柵)을 세웠다.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어 혹 진한(秦韓)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후한서』에서는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는데 [모두] 12국으로 그 북쪽은 예맥과 접했다고 하였다. 지금의 경상도이다〉 황산(黃山)〈김해의 강 이름〉을 건너 바다를 따라서 지리산을 안고 왼쪽으로 돌아 또 12국이 변한(弁韓)이 된다. 〈『동사(東史)』에 변한은 그 시조를 모른다. 진한(辰韓)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후한서』에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위치하며 역시 12국이 있다. 그 남쪽 역시 왜와 접하고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뒤섞여 있었다. 성곽과 의복은 모두 [진한과]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지승람』에 지금 전라도이다라고 하였다. 한백겸(韓百謙)이 [동국지리지에서] 말하길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이 가락(駕洛)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진한의 남쪽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 신라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곧 변한의 땅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이종휘(李種徽)가 말하길 『신당서』에 변한(弁韓)의 후예[苗裔]가 낙랑에 있다고 하였는데 권근[길창(吉昌)]의 주장에서는 묘예(苗裔) 두 글자를 잘라버려서 조선을 한지(韓地)에 섞었다. 『주관육익(周官六翼)』의 주(註)에 이르러서는 서경을 변한으로 삼았는데, 『동국여지승람[勝覽]』에서 ["서경을 변한으로 삼는다면] 조선은 다시 어느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지적한 것이 옳다〉 패하(浿河)〈지금[조선] 평산(平山) 저탄(猪灘)이다. 상세한 것은 아래에 보인다〉와 한강 남쪽으로 웅진을 건너 서쪽으로 바다에 닿으며 동쪽으로 큰 산맥을 업고서 크게 54국을 거느리던 나라가 마한이다.〈『동사』에 기자조선의 준왕[箕準]이 위만에게 공격받아 빼앗겨서 그 좌우 궁인들을 데리고 달아났다. 금마군(金馬郡)에 머물며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후한서』에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다. 그 북쪽은 낙랑과 남쪽은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勝覽]』에 "지금의 경기 · 충청 · 황해 등의 도(道)이다."라 하였다. 한백겸이 말하길 마한은 4군, 2부(府)를 거쳐 신(新)의 왕망 때에 백제가 되었고, 진한 역시 4군, 2부를 거쳐 [한나라] 선제(宣帝) 때 신라가 되었으며, 변한은 원래 진한에 부용하였다가 결국 합쳐졌으니, 4군, 2부의 땅이 언제 변한 또는 마한이 되었겠는가. 호서와 호남이 합하여 마한이 되었고, 영남 1도는 나뉘어 진 · 변 2한이 되었다. 임상덕(林象德)이 말하길 삼한 땅의 경계는 제가의 설이 서로 다른데 『동국여지승람[勝覽]』의 고증이 가장 명확하다. 지금 그것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종휘(李種徽)가 말하길 『동국여지승람[勝覽]』이 가장 명확하지만, [『승람』에서] 『삼국유사』를 인용하여 평양 마읍산(馬邑山)을 가지고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정정한 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다. [『승람』에서] 조선은 다시 어느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라는 지적은 『주관육익[六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본래 조선의 영역이었는데 뒤에 마한을 병합하여 경계를 삼았다. 동명왕이 처음 일어선 곳은 본래 조선의 옛 현토(玄菟) 지역이었는데, 뒤에 요동으로 들어갔으니 대개 건주위(建州衛) 등의 지방이다라고 하였다〉

사료21 **『역사집략』** 권2 마한기 | **『歷史輯略』** 卷二 馬韓紀

〈戊申〉馬韓武康王元年〈衛氏朝鮮開國二年 漢惠帝二年〉 先是 朝鮮東南 有大國 曰辰國〈於朝鮮爲辰方〉 後分爲三韓. 其最大者曰馬韓. 馬韓之東南曰辰韓.〈今慶尙地〉 或曰 其始祖本秦人 避役入馬韓.馬韓人割東界以處之. 故或

謂之秦韓. 辰韓之南曰弁韓〈今慶尙地〉 亦謂之卞韓. 是三國者各統諸小部 而辰 · 弁又役屬於馬韓.至是 王改國號曰馬韓 遂命博士樂聾建 治辰韓事 左大夫秦垸 治弁韓事.
〈무신(戊申)〉 마한(馬韓) 무강왕(武康王) 원년〈위씨조선(衛氏朝鮮) 개국 2년 · 한 혜제 2년(기원전 193년)〉 이에 앞서 조선의 동남쪽에 진국(辰國)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다.〈조선에 대해서 진방(辰方)이 된다〉 후에 나뉘어 삼한이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마한이다. 마한의 동남쪽은 진한(辰韓)이라 한다.〈지금[대한제국]의 경상도 땅〉 혹은 말하기를 그 시조가 본래 진(秦)나라 사람인데, 부역을 피해 마한에 들어오니 마한 사람들이 동쪽 경계의 땅을 갈라 주어 거처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혹은 진한(秦韓)이라고도 한다. 진한의 남쪽은 변한(弁韓)이라고 한다.〈지금[대한제국]의 경상도 땅〉 또는 변한(卞韓)이라고도 한다. 이 세 나라는 각각 여러 작은 마을들을 거느렸으며, 진한과 변한은 또한 마한에게 지배당하였다. 이때[마한 무강왕 원년]에 이르러 왕이 나라 이름을 마한으로 고치고, 드디어 박사(博士) 악농건(樂聾建)에게는 진한의 일을 다스리도록 하고 좌대부(左大夫) 진완(秦垸)에게는 변한의 일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按 魏志所見馬韓五十四國 曰爰襄 曰牟水 曰桑外 曰小石索 曰大石索 曰優休牟涿 曰臣濆沽 曰伯濟 曰速盧不斯 曰日華 曰古誕者 曰古離 曰怒藍 曰月支 曰恣離牟盧 曰紹謂乾 曰古爰 曰莫盧 曰卑離 曰占離卑 曰臣釁 曰支侵 曰狗盧 曰卑彌 曰監奚卑離 曰古蒲 曰致利鞠 曰冉盧 曰兒林 曰駟盧 曰內卑離 曰感奚 曰萬盧 曰辟卑離 曰舊斯烏且 曰一離 曰不離 曰友卑 曰狗素 曰捷盧 曰牟盧卑離 曰臣蘇塗 曰古臘 曰臨素半 曰臣雲新 曰如來卑離 曰楚山塗卑離 曰一難 曰狗 奚 曰不雲 曰不斯濆邪 曰爰池 曰乾馬 曰楚離.
살펴보건대 「위지(魏志)」에 보이는 마한 54국은 원양(爰襄) · 모수(牟水) · 상외(桑外) · 소석색(小石索) · 대석색(大石索) · 우휴모탁(優休牟涿) · 신분활[臣濆活] · 백제(伯濟) · 속로불사(速盧不斯) · 일화(日華) · 고탄자(古誕者) · 고리(古離) · 노람(怒藍) · 월지(月支) · 자리모로(恣離牟盧) · 소위건(紹謂乾) · 고원(古爰) · 막로(莫盧) · 비리(卑離) · 점리비(占離碑) · 신흔(臣釁) · 지침(支侵) · 구로(狗盧) · 비미(卑彌) · 감해비리(監奚卑離) · 고포(古蒲) · 치리국(致利鞠) · 염로(冉路) · 아림(兒林) · 사로(駟盧) · 내비리(內卑離) · 감해(感奚) · 만로(萬盧) · 벽비리(辟卑離) · 구사오단[舊斯烏旦] · 일리(一離) · 불리[不離] · 우비(友卑) · 구소(狗素) · 첩로(捷盧) · 모로비리(牟盧卑離) · 신소도(臣蘇塗) · 고랍(古臘) · 임소반(臨素半) · 신운신(臣雲新) · 여래비리(如來卑離) · 초산도비리(楚山塗卑離) · 일란(一難) · 구해(狗奚) · 불운(不雲) · 불사분야(不斯濆邪) · 원지(爰池) · 건마(乾馬) · 초리(楚離) 등이다.

辰韓 十二國 曰已祇 曰不斯 曰弁辰彌離彌凍 曰弁辰接塗 曰勤耆 曰難彌離彌凍 曰弁辰古資彌凍 曰弁辰古淳是 曰冉奚 曰弁辰半路 曰弁樂奴 曰弁軍彌.
진한 12국은 이저[已柢] · 불사(不斯) · 변진미리미동(弁辰彌離彌凍) · 변진접도(弁辰接塗) · 근기(勤耆) · 난미리미동(難彌離彌凍) · 변진고자미동(弁辰古資彌凍) · 변진고순시(弁辰古淳是) · 염해(冉奚) · 변진반로(弁辰半路) · 변낙노(弁樂奴) · 변군미(弁軍彌) 등이다.

弁韓十二國 曰弁辰彌烏邪馬 曰如湛 曰弁辰甘路 曰戶路 曰州鮮 曰馬延 曰弁辰狗邪 曰弁辰走漕馬 曰弁辰安邪 曰弁辰瀆盧 曰斯盧 曰優中. 而今考三國史 自伯濟 · 斯盧 以 外槪無一彷彿者 豈皆當時州縣之小小部落 而暫起旋滅如浮胊樞者耶.闕之可也. 又按 後漢書 敍三韓七十八國 曰伯濟是其一. 伯濟者 百濟也. 盖當范曄之時 三韓諸國 惟百濟之名 略達於中國 此所以獨擧百濟也. 然旣擧百濟則 其所謂韓者 并包當時新羅 · 駕洛而言也. 其下所書 風土謠俗 亦隨而然. 故今不敢 以其風土謠俗 載之于箕準以前 三韓之紀焉. 又按 馬卓韓 或曰 因金馬郡而名. 弁韓 或曰 因其人所載弁而名. 駕洛 或曰 東俗凡冠幘之尖頂者 通謂之弁 其黃者 謂之金駕那. 駕洛 · 駕那聲相近也. 金官或曰 官者冠也 亦金駕那之變稱也. 未知是否. 後漢書曰 弁韓在辰. 韓之南 南與倭接.
변한(弁韓) 12국은 변진미오야마(弁辰彌烏邪馬) · 여담(如湛) · 변진감로(弁辰甘路) · 호로(戶路) · 주선(州鮮) · 마연

(馬延) · 변진구야(弁辰狗邪) · 변진주조마(弁辰走漕馬) · 변진안야(弁辰安邪) · 변진독로(弁辰瀆盧) · 사로(斯盧) · 우중(優中) 등이다. 지금 『삼국사』를 고찰해 보면 백제(伯濟)와 사로(斯盧) 이외에는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다. 대개 당시 주현(州縣)의 아주 작은 부락(部落)들이 잠시 일어났다가 곧 거품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빠질 만도 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후한서』에서 삼한 78국을 서술하면서 백제(伯濟)를 그 하나로 말하고 있다. 백제(伯濟)는 백제(百濟)이다. 대개 범엽(范曄)이 살던 당시에 삼한 여러 나라 중 오직 백제의 이름만이 중국에 대략 알려졌기 때문이니 이것이 백제만을 든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백제를 거론하였다면 이른바 한(韓)이란 것은 당시 신라와 가락을 아울러 포함해 말하는 것이다. 그 아래 쓰인 풍토(風土)와 요속(謠俗)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 풍토와 요속을 기준(箕準) 이전의 삼한기(三韓紀)에 감히 싣지 못한다. 또 살펴보건대, 마한(馬韓)은 혹은 금마군(金馬郡)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 하였다. 변한(弁韓)은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 쓴 고깔모자[弁]로 인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 하였다. 가락(駕洛)은 혹은 동쪽 풍속에 모자[冠幘]의 꼭대기가 위로 솟은 것을 통틀어서 고깔[弁]이라고 하는데, 그 중 노란 것을 일컬어 금가나(金駕那)라고 한다. 가락(駕洛)과 가나(駕那)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금관(金官)은 혹은 관(官)은 모자 관(冠)이다. 또한 금가나(金駕那)의 변한 칭호이다라고 하였다. 맞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후한서』에는 변한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다.

사료22 『대한강역고』 권2 삼한총고 | 『大韓疆域考』 卷二 三韓總考

秦 · 漢之際 洌水以北 謂之朝鮮 卽武帝四郡之地也. 洌水以南 謂之韓國 亦謂之辰國 卽東方三韓之地也. 馬韓五十四國 卽今京畿南道及忠淸 · 全羅之地也. 其部落 通稱韓國 其總王通稱辰王. 其後嶺南別居者 名曰辰韓 而西韓謂之馬韓. 嶺南之地 西北阻山 東南際海 別爲一局. 謠俗特殊 故居此地者 謂之辰韓. 辰韓之中 又分二種. 其小者曰弁辰. 後漢書云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 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與倭接. 魏志云 辰韓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有已祇國 · 不斯國 · 弁辰彌離彌凍國 · 弁辰接塗國 · 勤耆國 · 難彌離彌凍國 · 弁辰古資彌凍國 · 弁辰古淳是國 · 冉奚國 · 卞辰半路國 · 弁辰樂奴國 · 軍彌國 · 弁辰軍彌國 · 弁辰彌烏邪馬國 · 如湛國 · 弁辰甘路國 · 戶路國 · 州鮮國 · 弁辰狗邪國 · 弁辰走漕馬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 斯盧國 · 優中國.弁 · 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魏書云 其瀆盧國 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鏞案 瀆盧國者 今之巨濟府. 本裳郡 方言裳曰斗婁技與瀆盧聲近. 斯盧國者 今之慶州也. 金富軾云 新羅本 稱斯羅 斯羅者斯盧也. 又案 弁辰亦辰韓也. 其壤地 相錯 人民雜居 不可以從某至某 分而二之. 故魏志亦錯 雜書之 唯於弁辰諸國 標以弁辰二字. 其雜居可知也. 特其總王所居 辰韓稍北 弁辰稍南. 故後漢書謂 弁辰在 辰韓之南 南與倭接也. 若其君長廢立 皆自馬韓主之. 馬韓者 三韓之霸國也. 秦漢之際 已有君長 能遠通中國 或爲朝鮮人所阻. 其後 馬韓五十四國 竝爲百濟所呑. 辰韓 · 弁辰竝爲新羅所統. 鏞謂 洌水以北 本非三韓之地. 東儒每以三韓分配三國 此其所以七藤八葛 而彌失其眞也. 竝詳下考.

진(秦) · 한(漢) 시대에 열수(例水) 이북은 조선(朝鮮)이라 불렀으니, 곧 무제(武帝)가 4군(四郡)을 설치한 땅이다. 열수 이남은 한국(韓國)이라고 부르고 진국(辰國)이라고도 불렀으니, 곧 동방 삼한의 땅이다. 마한(馬韓) 54국은 곧 지금[조선]의 경기도 남부〈곧 열수(洌水) 이남〉및 충청 · 전라도의 땅이다. 그 부락을 통틀어 한국(韓國)이라 하였고, 그 총왕(總王)을 통틀어 진왕(辰王)이라 하였다. 그 뒤 영남에 따로 있는 것을 진한(辰韓)이라 하게 되니 서쪽의 한을 마한이라 하게 되었다. 영남의 땅은 서쪽과 북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과 동쪽은 바다에 대어 있으므로 따로 하나의 형국을 이루고 노래와 풍속이 아주 달랐다. 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진한이라 하였다. 진한은 또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그 작은 것을 변진(弁辰)이라 하였다. 『후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고, 12개국이다. 그 북쪽은 예맥(穢貊)과 접해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12개국이다. 그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위지(魏志)」에 이르기를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한은] 처음에는 6개국이었다가 차츰 나뉘어져서 12개국이

되었다. 변진(弁辰) 역시 12개국이다. 이저국(已柢國), 불사국(不斯國), 변진미리미동국 (弁辰彌離彌凍國), 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근기국(勤耆國), 난미리미동국(難 彌離彌凍國),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염해국(冉奚國), 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 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 군미국(軍彌國), 변진군미국(弁辰軍彌國),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여담국(如湛國),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 마연국(馬延國),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마연국(馬延國),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사로국(斯盧國), 우중국(優中國)이있다.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24개국인데, 대국은 4~5천가(家), 소국은 6~7백가이며, 총 4~5만호(戶)라 하였다.『위서(魏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12개국은 또한 왕이 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鏞案] 독로국(瀆盧國)은 지금[조선]의 거제부(巨濟府)이다.〈본래는 상군(裳郡)인데, 방언으로 상(裳)을 두루기(斗婁技)라고 하여 독로(瀆盧)와 소리가 비슷하다〉 사로국(斯盧國)은 지금[조선]의 경주이다. 김부식(金富軾)은 "신라(新羅)는 본래 사라(斯羅)라고 불렀는데, 사라란 사로(斯盧)이다." 라 하였다. [정약용은]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진도 또한 진한이다. 그 땅이 서로 섞여 있고, 사람들이 섞여 살았으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여 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위지」에서도 [진한과 변한을] 섞어 쓰고 오직 변진의 여러 나라들은 변진 두 글자를 붙여 표시하였으니, [진한과 변진이] 뒤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총왕(總王)이 거처하는 곳에서 진한은 조금 북쪽에 있고 변진은 조금 남쪽에 있었으므로『후한서』에서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 왜와 접해 있다고 한 것이다. 만일 그 군장(君長)을 세우거나 쫓아낼 때에는 모두 마한에서 관여하였으니, 마한이 삼한의 패국(覇國)이었다. 진(秦)·한(漢)시대에 이미 군장(君長)이 있었고, 멀리 중국과 통하였는데, 가끔 조선(朝鮮) 사람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 뒤 마한 54국은 모두 백제가 차지하였고, 진한과 변진은 모두 신라가 차지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鏞謂] 열수(洌水) 이북은 본래 삼한의 땅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모두 삼한을 삼국으로 연결시켰고, 이것이 얽히고 설키어 그 진실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밝히겠다.

사료23 **『대한강역고』권2 변진고 | 『大韓疆域考』卷二 弁辰考**

弁辰者 金海·固城·巨濟·咸安等 沿海之地也. 後漢書云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魏書云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施竈皆在戶西. 鏞案 三韓國邑 莫詳於後漢書. 後漢書既以弁辰 謂在辰韓之南. 則弁辰者 辰韓之南隣也. 瀆盧者 巨濟也. 其稱弁辰者 或其頂戴之幘 異於辰韓 遂以得名也. 韓百謙云 首露王所起 乃弁韓之地也. 鏞案 弁者 駕洛也. 駕洛者 伽耶也. 東俗 凡冠幘之尖頂者 通謂之弁亦謂之駕那. 今禁府皂隸〈稱羅將〉 及郡縣侍奴〈稱及唱〉 猶戴尖頂之幘. 名之曰駕那 亦謂之金駕那. 方言流傳 必有所本也. 新羅時 駕洛國在今金海 或稱加耶 或稱伽耶. 此乃弁辰之總王也. 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 故號之曰駕羅國. 而中國之人 譯之以文 則謂之弁辰也. 及其末王仇亥投降 新羅之後 名其國曰金官. 金官者 金冠也. 金冠者 金駕那也. 駕那之爲弁辰 尙足疑乎. 咸安爲阿那伽耶 固城爲小伽耶.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者 非是之謂乎. 高靈爲大伽耶 星州爲碧珍伽耶 咸昌爲古寧伽耶 陜川有伽耶山. 此皆弁辰之屬 故名之曰伽耶也. 魏志有弁辰古資國. 古資者 固城之舊名也. 弁辰非伽耶乎. 大抵 漢·魏之際 新羅·駕洛同居嶺南 四五百年 至梁武中大通四年 仇亥始降新羅. 駕洛者 新羅之耦國也. 新羅既爲辰韓則 駕洛自爲弁辰. 無用崎嶇然辨論也. 漢史·魏志 弁辰與辰韓雜居. 羅史·麗志 駕洛與新羅雜居. 其差北差南 差強差弱 東史所記與華史所載 毫髮不爽情形悉合. 駕洛之爲弁辰 無可疑也. 韓久菴以首露所起爲弁辰 豈非卓見乎. 如云不然 弁辰非可食之物. 請一思之.

변진은 김해(金海), 거제(巨濟), 함안(咸安), 고성(固城) 등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다.『후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변진(弁辰)은 진한과 뒤섞여 있었다. 성곽과 의복은 모두 [진한과] 같았으나 언어와 풍속에 차이가 있었다. 그 나라는 왜와 가까이 있어서 문신을 한 자들이 자못 있었다.『위서(魏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 12국 역시 왕이 있었다. 부뚜막을 설치하는데 모두 문의 서쪽에 하

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鏞案] 삼한의 국읍(國邑)은 『후한서』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후한서』에서 이미 변진을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곧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이웃해 있었고, 독로(瀆盧)는 곧 거제(巨濟)이다. 변진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머리에 쓰는 건[幘]이 진한과 달랐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수로왕(首露王)이 일어 난 곳이 바로 변한(弁韓)의 땅이다."라 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弁)은 가락(駕洛)이요, 가락은 가야(伽耶)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모자의 끝이 뾰족한 것을 통틀어 변(弁)이라 하고, 가나(駕那)라고도 한다. 지금[조선] 의금부의 조예(皂隸)〈나장(羅將)을 말한다〉 및 군현의 시노(侍奴)〈급창(及唱)을 말한다〉들이 아직도 끝이 뾰족한 건을 쓰는데, 이것을 가나(駕那)라고도 하고 금가나(金駕那)라고도 한다. 사투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근본이 있는 것이다. 신라 때에 가락국이 지금[조선]의 김해(金海)에 있으면서 가라(加羅) 또는 가야(伽耶)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 틀림없이 머리에 쓰는 건책(巾幘)의 끝이 뾰족하였으므로 가라국(駕羅國)이라 하였고,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변진(弁辰)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 마지막 왕인 구해(仇亥)가 신라에 투항한 뒤에는 그 나라를 금관(金官)이라 하였는데, 금관은 금관(金冠)〈소리가 옮겨진 것〉이고, 금관(金冠)은 금가나(金駕那)이다. 가나(駕那)가 변진이 되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함안(咸安)이 아나가야(阿那伽耶)이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耶)이니,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 왜와 접했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耶)이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이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耶)이고, 합천(陜川)에 가야산(伽耶山)이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변진에 속하였으므로 이름을 가야(伽耶)라 한 것이다. 「위지(魏志)」에 변진고자국(弁辰古資國)이 있는데, 고자(古資)는 고성(固城)의 옛 이름이다. [그러니] 변진이 가야가 아니겠는가. 대체로 한(漢)·위(魏) 시대에 신라와 가락(駕洛)이 영남에 같이 자리 잡고 있기를 4~5백년 동안 하다가 양(梁) 무제 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구해(仇亥)가 비로소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가락은 신라의 이웃나라였다. 신라가 이미 진한이 된 것이니, 가락은 저절로 변진이 된 것임은 까다로운 변론이 필요 없다. 『한사(漢史)』와 「위지(魏志)」에는 변진이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고, 『나사(羅史)』와 『여지(麗志)』에는 가락이 신라와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다. [또] 그 조금 남쪽에 있고 조금 북쪽에 있으며,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하다고 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의 기록과 중국 역사책의 기록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고 정황이 모두 합치되니 가락(駕洛)이 변진(弁辰)에서 된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구암(久菴) 한백겸은 수로왕이 일어난 곳이 변진(弁辰)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탁견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진이 먹을 만한 [작은] 물건이 아니니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弁辰十二國 竟爲新羅所呑. 新羅史云 赫居世十九年〈漢元帝永光五年〉 卞韓以國來降. 鏞案弁辰十二國 不應一時頓降 或其一國來降. 不然 史家聽說耳. 據赫居世三十八年 瓠公之對馬韓曰 卞韓·樂浪無不畏懷. 苟於是年 早已亡滅 誰將畏懷. 其不亡可知也. 降者 服也. 降而不亡 亦無怪也. 且弁辰十二國 猶載於後漢書·魏·晉史 則不得於前漢之時 獻國於新羅也. 此云來降者 來相服屬 非謂竝國土而獻之也. 又案新羅史 智證王時 取小伽耶. 法興王時取金官伽耶. 眞興王時 取大伽耶. 此是呑滅弁辰之實跡也. 乃東俗蒙昧 以三韓配于三國. 馬配句麗 弁配百濟. 七藤八葛 悉違古典. 崔致遠上太師侍中狀云 東海之外 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甄萱傳云 萱西巡至完山州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百濟開國. 高麗史云 王隆〈王建父〉說弓裔曰 大王若欲王朝鮮·肅愼·卞韓之地 莫如先城松岳. 裔從之. 輿地勝覽云 扶安邊山或云卞山. 卞韓之得名以此. 鏞案 崔孤雲久游中國 反昧本鄕之事. 沈溺佛典 好爲誕妄之說. 其所作佛家碑誌 無非怪談. 雖其時代較古 文詞精巧 其言未必皆信文也. 箕氏之留在平壤者 冒姓韓氏 從征句麗. 馬韓之爲句麗猶有影響. 百濟之爲弁韓 抑何據也. 百濟始都廣州 中徙公州 終於扶餘. 皆在慶州之北. 北極出地 當差數度 而猶爲弁韓則 漢史所謂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 接者 是夢囈之言乎. 秦·漢之際 洌水以北 謂之朝鮮 以南 謂之韓國. 其後 朝鮮爲句麗 韓國爲新羅·百濟. 今乃以三韓配三國 其不齟齬乎. 孤雲之說 不可從也. 又案 甄萱·王隆之說 皆

是大略麤談 不足理會. 至於扶 安邊山之說 此乃童騃嬉戲之談. 不足辨也. 誠若邊山爲卞韓 將無厤田爲馬韓 信川爲辰韓乎. 又案 古有弁辰未有卞韓. 東儒離開弁 · 辰二字 以作弁韓則 弁辰可移於北方 可移於西方. 此其受病之源也. 又或誤據唐書閑漫之筆 遂疑弁韓在北方. 唐書渤海傳云 大祚榮盡得扶餘 · 沃沮 · 弁韓 · 朝鮮海北諸國. 句麗史云 泉男生旣降. 帝召入進右衛大將軍卞國公. 鏞案 東儒又執此文 以爲男生句麗之人 而號曰卞國. 渤海北蕃之國而盡得卞韓 則句麗 亦可爲卞韓. 然當時封號多不以實 故新羅諸王皆封樂浪郡公 豈卽慶州 爲樂浪乎. 此不足爲據. 又如大祚榮旣得朝鮮 又得卞韓. 其云朝鮮 正是今平安道之地 句麗故疆也. 豈得復 以卞韓爲句麗哉. 又或誤讀唐書遂疑弁韓苗裔實居平壤. 唐書新羅傳云 新羅 弁韓苗裔也. 居漢樂浪地 橫千里縱三千里. 金富軾云 唐書 · 舊唐書皆云 卞韓苗裔後在 樂浪之地. 此皆傳聞懸說 非實錄也. 鏞案 唐書弁韓 必是辰韓之訛. 盖謂新羅 卽辰韓之後孫也. 其云居漢樂浪地者 謂新得春川 · 漢城等地也. 金富軾忽去新羅二字 發此疑語 遂使百喙爭鳴 靡所底定. 寧不可歎乎.〈北史云 新羅其先本辰 韓種也〉 至撰輿地勝覽 定馬韓 · 弁辰之疆域 皆指越爲燕 以齊待蜀. 而三韓舊界 不可復問.

변진 12국은 끝내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신라사(新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한 원제 영광 5년〉변한(卞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진 12국이 한꺼번에 모두 항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나라씩 항복해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가의 억지 이야기일 뿐이다. 혁거세 38년(기원전 20년)에 호공(瓠公)이 마한에 대하여 변한(卞韓), 낙랑(樂浪)이 [신라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 것에 따른다면, 만일 [변한이] 이 때 이미 멸망해 없어졌다면 누가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인가. [그러니 변한이] 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항복[降]이란 복속[服]이니, 항복하고도 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또 변진 12국은 오히려 『후한서』, 「위지」, 『진사(晉史)』에 실려 있으니, 전한 때 에 나라를 신라에 바쳤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내항(來降)'이란 와서 복속되었다는 것이지, 국토를 모두 들어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의 역사에는 지증왕(智證王) 때 소가야(小伽耶)를 차지했고, 법흥왕(法興王) 때 금관가야(金官伽耶)를 차지했고, 진흥왕(眞興王) 때 대가야(大伽耶)를 차지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가 변진을 차지하여 멸망시킨 자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몽매하여, 삼한을 삼국과 짝지으면서 마한을 고구려와 짝짓고 변한을 백제와 짝지었으니, 얽히고 설키어 모두 고전(古典)에 어긋난다. 최치원(崔致遠)이 태사(太師) 시중(侍中)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동쪽 바다[東海] 밖에 삼국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한, 변한(卞韓), 진한이다. 마한이 곧 고려이고, 변한이 곧 백제이고, 진한이 곧 신라이다. 「견훤전(甄萱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견훤이 서쪽을 순행하다가 완산주(完山州)〈현재 전북 전주시〉에 이르러 주위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한의 시초를 살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진 · 변한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에 백제가 개국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륭(王隆)〈왕건의 아버지〉이 궁예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대왕께서 만일 조선(朝鮮), 숙신(肅愼), 변한(卞韓)의 땅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송악(松嶽)[현재 황해도 개성시]에 성을 쌓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궁예가 따랐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을 변산(卞山)이라 하는데, 변한(卞韓)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여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운(孤雲) 최치원은 오래 동안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본국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몰랐고, 불교 전적에 깊이 빠져서 허황된 말하기를 좋아했으니, 그가 지은 불가(佛家)의 비문(碑文)과 기록들이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다. 비록 그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고 문장이 정교하더라도 그의 말이 반드시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 기씨(箕氏) 가운데 평양에 남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을 한씨(韓氏)라 한 것과 고구려에 정복당한 것이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백제가 변한에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백제는 처음에 광주(廣州)에 도읍했고, 중간에 공주(公州)로 도읍을 옮겼으며, 부여(扶餘)에서 멸망하였으니 모두 경주(慶州)의 북쪽에 있었고, [신라가] 북쪽 국경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 여러번이었다. 그런데 [백제가] 변한에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사(漢史)』에서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었고, 남쪽으로 왜와 접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잠꼬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진(秦) · 한(漢) 시대에 열수(冽水) 이북은 조선(朝鮮)이라 하였고, 열

수 이남은 한국(韓國)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이 고구려가 되고, 한국이 신라·백제가 되었으니, 지금 삼한을 삼국에 짝짓는 것은 착오가 아니겠는가. 고운의 설은 따를 수가 없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견훤, 왕륭의 설은 아주 소략한 이야기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안 변산의 설에 이르러서는 어린 아이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따질 것도 없다. 진실로 변산(邊山) 때문에 변한(弁韓)이 되었다면, 앞으로 마전(麻田) 때문에 마한이 되고, 신천(信川) 때문에 진한이 되었다는 말은 없겠는가.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변진(弁辰)이 있었고, 변한(卞韓)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변(弁)·진(辰) 두 글자를 떼어내 변한(卞韓)을 만들어냈으므로 변진이 북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서쪽으로 옮겨지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그 잘못된 근본 원인이다. 또 『당서』의 느슨한 기술에 의거하여 마침내는 변진이 북쪽 지방에 있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다. 『당서』발해전(渤海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조영(大祚榮)이 부여(扶餘), 옥저(沃沮), 변한(弁韓),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 『고구려사[句麗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천남생(泉男生)이 항복하자 황제가 불러들여 우위대장군변국공(右衛大將軍卞國公)에 임명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이 문장에 집착하여 남생이 고구려 사람이므로 변국(卞國)이라 한 것이고, 발해가 북쪽의 나라로 변한을 거의 다 차지하였으므로 고구려 역시 변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봉호(封號)는 많은 경우가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신라의 여러 국왕들이 모두 낙랑군공(樂浪郡公)에 봉해졌으니, 어찌 경주를 낙랑이라고 하겠는가. 이는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 또 만일에 대조영이 이미 조선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변한을 차지했다면, 그 조선은 바로 지금[조선] 평안도의 땅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이니 어찌 다시 변한을 고구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 이 모두 느슨하여 알맹이가 없는 기술로, 근거할 만하지 못한 것이다. 또 당서를 잘못 읽어 변한의 후손[苗裔]이 실제로 평양에 살았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당서』신라전(新羅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라는 변한의 묘예이다. 한나라 낙랑(樂浪)의 땅에 있었는데, 옆으로 1천리이고 위아래로 삼천리였다. 김부식(金富軾)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서(唐書)』와 『구당서(舊唐書)』에서 모두 변한(卞韓)의 후예가 뒷날 낙랑의 땅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다 전해 내려오는 아득한 이야기이고 실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서』에서 변한이라고 쓴 것은 틀림없이 진한의 잘못으로, 신라가 곧 진한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다. 한나라의 낙랑 땅에 있었다는 것은 춘천(春川), 한성(漢城) 등의 땅은 새로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다.〈즉 한나라 낙랑의 남부이다〉 김부식이 신라 두 글자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내어놓음으로써 백가지 말이 다투어 안정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한탄스럽지 않은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할 때에는 마한, 변진의 강역을 정하면서 월(越)나라를 연(燕)나라라고 하고, 제(齊)나라를 촉(蜀)나라로 간주하였으니, 삼한의 옛 경계는 다시 물어볼 것도 없다.

輿地勝覽云 京都·黃海道 古朝鮮·馬韓之域. 忠淸道 古馬韓之域. 全羅道 本弁韓之地. 又云 臣按 馬韓爲高句麗 辰韓爲新羅 卞韓爲百濟 崔致遠已有定論. 此非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也. 高麗金富軾地理志 亦以致遠之論 爲是. 至其中葉 始有以金馬山在百濟之境 平那山在高句麗之境 平與卞聲相近. 遂疑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然未有昌言指之者. 及金敬叔編周官六翼 敍三韓則云 高麗幷樂浪·弁韓 百濟竝馬韓·帶方. 至敍三國則 直以高句麗爲馬韓 百濟爲卞韓. 一人之言自相矛盾 何足道哉. 逮于本朝 吉昌君權近與李詹等 修東國史略. 乃斷然以馬韓爲百濟 卞韓爲高句麗. 近乃近世大儒 東人擬之蓍蔡 而亦爲是論 以錯亂千載已定之說. 未知何謂也. 臣反覆考中國及東史 三韓之時 馬韓最大 統五十四國 辰·弁二韓 各統十二國. 則今益山以南 無地可容五十四國矣. 意者 馬韓王都其南 密近於卞韓 而東北則與樂浪·靺鞨·沃沮等封疆相接. 其後句麗東 明王起於樂浪 而盡有馬韓東北之地. 後人稱爲馬韓者以此也. 後漢書載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 又曰 弁辰與辰韓雜居 衣服居處言語風俗同. 不曰弁韓 而曰弁辰. 是雖懸聞之稱 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 新羅赫居 世十九年 弁韓以其國來降 其後百濟旣滅馬韓 兵力強盛 蠶食新羅·卞韓舊地. 智異山以西 盡爲所幷. 後人稱濟爲弁韓者 以此也. 奈何近惑於金馬·平那之說 謂馬韓在 百濟封域之中 遂以爲百濟乎. 且唐書所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者 盖言卞韓之系出自樂浪耳. 金富軾猶

云非實錄. 近之論願引以爲證 而乃去苗裔二字 直云卞韓在樂浪之地 何也. 又其言曰 後漢書謂弁韓在南者 盖自漢界 遼東之地而云爾 非謂弁韓在辰 · 馬二韓之南. 信如是則 馬韓在西者 亦可謂在遼東之西乎.

『여지승람』에서 말하기를 경도(京都)와 황해도는 옛날 조선과 마한의 영역이고, 충청도는 옛날 마한의 영역이며, 전라도는 본래 변한의 땅이었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신(臣)이 살피건대, 마한이 고구려로 되고, 진한이 신라로 되고, 변한이 백제로 되었으니, 이미 최치원(崔致遠)이 의논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치원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 삼국 초부터 전해 내려 온 말입니다. 고려 김부식의 지리지 또한 최치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금마산(金馬山)이 백제 땅에 있고, 평나산(平那山)이 고구려 땅에 있는데, 평(平)과 변(卞)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마침내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었지만 드러내 말하여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경숙(金敬叔)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을 편찬함에 미쳐 삼한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구려[高麗]는 낙랑(樂浪), 변한(卞韓)을 병합하였고, 백제는 마한, 대방(帶方)을 병합하였다고 하였고, 삼국에 대해 서술하기에 이르러 서는 곧바로 고구려가 마한이고, 백제가 변한(卞韓)이다 라 하였으니, 한 사람의 말이 서로 모순되어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조[조선]에 이르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과 이첨(李詹) 등이 『동국사략』을 지으면서 마한이 백제로 되고, 변한이 고구려로 되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권근은 근세의 대유(大儒)로서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채(蓍蔡)에 비유되는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여 천년 동안 정해져 있던 설을 어지럽혔으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臣)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 번 살펴보니 삼한 때에는 마한이 가장 커서 54국을 거느렸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지금[조선] 익산(益山) 이남은 54국을 받아들일 만한 땅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마한의 왕도(王都)는 그 남쪽이 변한에 아주 가깝고 동북쪽은 낙랑 · 말갈(靺鞨) · 옥저(沃沮) 등과 국경이 서로 붙어 있으며, 그 뒤 에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이 낙랑에서 일어나 마한의 동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합니다. 『후한서』에 실려 있기를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으며, 또한 왜(倭)와 접해 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아 의복과 거처 · 언어 · 풍속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한이라 하지 않고 변진이라 한 것도 비록 먼 데서 들은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변한과 진한이 서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에 변한(卞韓)이 그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고, 그 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뒤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신라의 변한 옛 땅을 잠식하여 지리산 서쪽을 모두 병합하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권근은 금마 · 평나의 설에 미혹되어 마한이 백제의 영역 안에 있다 하고는 [마한을] 백제로 여긴 것입니까. 또 『당서』에서 말한 바, 변한의 후손[묘예(苗裔)]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대개 변한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부식은 오히려 [그 말이] 실록(實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권근의 논의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끌어다가 증명하면서 묘예 두 자를 빼고는 바로 변한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후한서』에서 변한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대개 한 나라의 경계인 요동의 땅에서부터 말한 것일 뿐이고, 변한이 진한과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거기서 말한바 마한이 서쪽에 있다는 것 역시 그것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周官六翼記 高麗世祖說弓裔之言 大王若欲王朝鮮 · 肅愼 · 弁韓之地 莫如先占松岳. 注云 今西京古之卞那京 故曰卞韓. 此尤謬妄以弁韓爲西京則 朝鮮更指何地. 後日裔之用兵 自羅州始則 世祖所謂弁韓 指百濟也 審矣. 三國遺事謂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 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今平 壤府有馬邑山 扶安縣有邊山 則遺事之云 恐或有徵. 是書未知誰作 亦出於高麗中葉以後. 其所記載 荒誕不經 不足取信. 然於辨三韓之說 證據甚明. 欲志東方地理者 固宜參觀. 臣故謹因致遠舊說 以京畿 · 忠淸 · 黃海等道係于馬韓舊域. 以全羅道 係于卞韓舊域云. 鏞案漢 · 魏諸史 武帝四郡之地 不至於洌水以南. 而辰國南韓 每在四郡之外則 旣爲朝鮮之地 又爲馬韓之域 萬無是理. 今乃於京都 · 黃海之地 書之曰朝鮮 · 馬韓之域則 首鼠兩 端拖泥帶水. 其蒙昧不核 一何至此. 若云 益山以南 無

地可容五十四國則 今全羅一道 恰爲五十三邑. 何況例水以南 畿甸 · 忠淸之地 將設百國 奚但五十四而已哉. 將謂五十四國 皆如晉 · 楚 · 齊 · 秦之廣大乎. 此過慮也.
『주관육익(周官六翼』에서 기록하기를 “고려 세조(世祖)가 궁예(弓裔)를 설득하면서 대왕께서 만일 조선과 숙신(肅愼), 변한 땅의 왕이 되시려면 송악(松岳)을 먼저 차지하는 것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는, 주(注)에서 지금[고려] 서경(西京)은 옛날의 변나경(卞那京)이므로 변한(卞韓)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변한을 서경이라고 한다면 조선은 또 어느 땅을 가리키겠습니까? 뒷날 궁예가 전쟁을 한 것이 나주에서 시작되었으니, 세조가 말한바 변한은 백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는 까닭에 마한이라 이름하였고, 백제 땅에는 본래 변산(卞山)이 있는 까닭에 변한(卞韓)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조선] 평양부에 마읍산이 있고, 부안현(扶安縣)에 변산(邊山)이 있으니, 『삼국유사』의 기록이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고려 중엽 이후에 나온 것으로 거기 실려 있는 내용이 모두 허황되고 옳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한의 설을 변증한 것은 증거가 분명하여 동방의 지리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하여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臣)은 그런 까닭으로 삼가 최치원의 옛 설을 따라 경기 · 충청 · 황해도를 마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전라도를 변한의 옛 영역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漢), 위(魏)의 여러 사서들에 무제(武帝) 사군의 땅이 열수(洌水) 이남에 있고, 진국과 남쪽의 한(韓)은 모두 사군의 밖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미 조선의 땅이 되었던 것이 또 마한의 영역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조선] 경도와 황해도 땅을 조선, 마한의 땅이라고 쓴 것은 어느 편을 택할지 망설이다가 진흙을 끌어들여 물을 두른 것처럼 그 어둡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고구려를 마한으로 정했으면서도 평안도는 마한이라 하지 않고, 전라도를 변한으로 정했으면서도 익산은 도리어 마한이라 하니 그 얽히고설킨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 가령 익산(益山) 이남에 54국을 받아들일 땅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조선] 전라도 하나만 해도 53읍(邑)이 넉넉히 되니 하물며 열수 이남의 기전(畿甸), 충청도 땅에는 100국을 베풀 것이다. 어찌 다만 54개뿐이겠는가. 54국이 모두 진(晉) · 초(楚) · 제(齊) · 진(秦)나라처럼 광대했다고 할 것인가. 이는 지나친 생각이다.

又云 句麗東明起於樂浪. 此又何說也. 東明所據只卒本而起 降及曹魏之時 句麗始得平壤. 何況馬韓〈東儒誤以今成川爲卒本 故其言如此〉只句麗史一通 不曾夢見 徑主大論 可乎. 至論卞韓之事 旣云卞韓降于新羅 卒以百濟號爲卞韓. 抑何武斷. 吾聞百濟先亡 劉府尋撤. 智異山以西南原諸郡 皆入新羅之疆 理終爲新羅之罪案. 未聞新羅獻其所得弁韓之地於百濟也. 卞韓之系出自樂浪 又何說也. 唐書本論 新羅世德出於辰弁. 金富軾割去新羅二字 權陽村割去苗裔二字. 於是乎 弁韓在樂浪矣. 夫唐書一部 本非枕中鴻寶 何至迷昧如此. 諸家紛紛總屬 不根究其病 祟都坐三韓三國 必欲分配. 故七藤八葛 百孔千瘡 由此而發也.
또 말하기를 고구려 동명왕이 낙랑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동명왕이 단지 졸본(卒本)을 근거로 삼아 일어났으므로, 조위(曹魏)시대에 내려와서야 고구려가 비로소 평양을 차지하였으니, 하물며 마한이랴.〈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조선] 성천(成川)을 졸본이라고 잘못 알았으므로 그 말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단지 고구려사 한편을 꿈속에서도 보지 않고 큰 논의를 지레짐작하는 것이 옳은가. 변한의 일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이미 변한이 신라에 항복했다고 해놓고는 느닷없이 백제가 변한이라 불렀다고한 것은 대체 무슨 우격다짐인가. 내가 듣기에 백제가 먼저 망하고 오래지 않아 유인원의 부[劉府]가 철수하자 지리산 서쪽 남원의 여러 고을이 모두 신라 영토로 편입되어 신라의 지배를 받았지, 신라가 자신이 얻은 변한의 땅을 백제에 바쳤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변한의 계통이 낙랑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당서에서는 본래 신라의 세덕(世德)이 변진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김부식은 신라 두 글자를 지워버렸고, 양촌 권근은 묘예(苗裔) 두 글자를 지워버려 이제 변한이 낙랑에 있던 것으로 되었다. 『당서』라는 책이 본래 베개 속의 홍보(鴻寶)가 아닌데, 어찌 미혹되어 어두운 것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는가. 여러 학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모두 근거가

없는데, 그 병폐의 빌미를 따져보면 모두가 삼한과 삼국을 반드시 짝지으려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게 된 것이니, 여러 가지 결함으로 엉망이 된 것이 모두 여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總之三韓之訟 亦當以中國史册 決之. 北史云 百濟 馬韓之屬. 通典云 三韓盖爲百濟 · 新羅所呑倂. 鏞案 天下之辨是非決嫌疑者 當先揆本末. 不採其本惟末是趨者 未有不纏繞而迷昧也. 東國當時 本無文字 安有史策 尼斯今 · 麻立干以爲王號 徐那火 · 音汁伐以爲地名. 當時無文 不可諱也. 故我邦史册 皆據 漢 · 魏 · 晉諸史 點綴成文. 其或收拾於本國之傳記者 皆虛荒誕妄 不根之說 卵剖櫝汎鷄鳴鵲噪 下俚詿言 可愧之甚. 今乃輕違中國之信史 自立委巷之野言 其可曰揆其本乎. 中國撰史之家 皆知句麗無涉於三韓. 故北史 · 通典之筆 明核如是也. 吾家譜牒 反遜他家之藏 愧甚矣.

총괄하건대, 삼한에 대한 다툼은 역시 중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사(北史)』에 이르기를 "백제는 대체로 마한의 족속이다."라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삼한은 모두 백제, 신라의 차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의심을 끊을 사람은 마땅히 그 본말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 근본을 살피지 않고 다만 끄트머리만 따르면 얽히고 감겨서 미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나라는 당시에 문자가 없었으니 어찌 기록이 있겠는가. 이사금(尼斯今), 마립간(麻立干)으로 왕호(王號)를 삼고, 서야화(徐耶火), 음즙벌(音汁伐)로 지명을 삼았으니, 당시 문자가 없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은 모두 한, 위, 진(晉) 등 [중국의] 여러 역사책에 의거하여 흩어진 것을 모아 책을 만들었고, 간혹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기록을 수습한 것들은 모두 허황되고 거짓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알에서 부화되고, 함[櫝]이 물에 떠오고, 닭이 울고, 까치가 시끄럽게 울고 하는 천한 거짓말들이니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중국의 믿을만한 역사책들을 가벼이 여겨서 버리고 스스로 거리의 야담을 세우려 하니 그 근본을 살핀다고 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 사서를 편찬한 사람들은 모두 고구려가 삼한과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사』와 『통전』의 기록이 명백하기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집안의 족보 책이 남의 집에 보관된 것보다 못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료24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弁辰明是迦羅. 而迦羅之迹 僅見於北史 · 隋書 玆就羅 · 麗史. 採取迦羅之事 爲弁辰別考 以當弁辰之史. 辰韓 · 弁辰初皆六國 後各十二. 而迦羅只有六國者 史家失 其六也. 鏞謂 凡作新羅之史者 宜作迦羅本紀一部 以當秦本記. 項羽本記義例 而金富軾闕焉不錄. 今考羅 · 麗地志 凡得 迦羅 · 伽耶之名者 總有六國. 金海爲金官伽耶〈亦名大迦羅〉 咸安爲阿那伽耶〈亦名阿尸良〉 固城爲小伽耶〈亦名古自國〉. 此皆潢水以南之諸縣也. 潢水發源於太白山之黃池 西南流三百餘里 至咸昌縣東 折之爲南流三百餘里 至咸安郡北 又折之爲東流百餘里 至金海府東北黃山浦口 又折爲南流 至金海府東入海. 此所謂洛東江也. 謂之洛東者 言在駕洛之東也. 又咸陽府南 智異山之北 藍水出焉〈俗謂之菁川〉 東流至晉州城南 折之爲東北流 至咸安郡北 與潢水合流. 凡在潢水 · 藍水之南者 最東曰金海 次西曰熊川 曰昌原 曰漆原 曰咸安 曰鎭海 曰固城 曰泗川 最西曰昆陽. 新羅史謂之浦上八國 盖指此類. 此皆古弁辰之地也. 慶州在金海直北二百里 遠在潢水之東. 漢史所謂 弁辰在辰韓之南者 此之謂也. 又高靈爲大伽耶 星州爲碧珍伽耶 咸昌爲古寧伽耶. 皆在潢水之西. 而潢東諸縣 絶無駕洛之跡. 潢水之稱洛東江 固其宜也. 若論東西緯度 高靈東直慶州 星州在高靈之北四十里 咸昌在星州之北百四十里. 漢史猶謂之弁 辰在南者 金官駕洛國爲弁辰之總王 故得云在南 又或謂與辰韓雜居也. 今若於金官之國 加之以浦上八國 又加以高靈 · 星州 · 咸昌等三國 恰充其數. 但浦上八國所謂骨浦者 今合于昌原 所謂漆浦者 今之漆原 所謂古史浦者似指固城. 餘不可考也.

변진(弁辰)은 분명히 가라(迦羅)이다. 그러나 가라의 흔적이 『북사』와 『수서』에 겨우 보이므로, 이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가라(迦羅)의 사적을 채취하여 「변진별고(弁辰別考)」를 만들고 변진(弁辰)의 역사에 해당시키고자 한다. 진한과 변진은 처음에는 모두 6국이었다가 뒤에 각각 12국이 되었다. 그런데 가라가 단지 6국만 있

는 것은 역사가들이 그 여섯을 잃어버린 것이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鏞謂]. 무릇 신라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마땅히 [『사기(史記)』에서] 「진본기(秦本紀)」와 「항우본기(項羽本紀)」를 따로 만든 범례에 따라 「가라본기(迦羅本紀)」 한 권을 지었어야 하는데, 김부식이 [이것을] 빠트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지금 『삼국사기』[羅史]와 『고려사』지리지를 살펴보면 가라(迦羅), 가야(伽耶)의 이름을 가진 것이 모두 6국이 있다. 김해가 금관가야〈대가라(大迦羅)라고도 부른다〉가 되고, 함안이 아나가야〈아시량(阿尸良)이라고도 부른다〉가 되고, 고성이 소가야〈고자국(古自國)이라고도 부른다〉가 되니, 이것들은 모두 황수(潢水) 이남의 군현이다. 황수는 태백산의 황지(潢池)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3백여 리를 흐르다 함창현 동쪽에서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3백여 리를 흘러 함안군 북쪽에 이르면 다시 방향을 꺾어 동쪽으로 1백여 리를 흐르고 김해부 동북쪽의 황산포구(黃山浦口)에 이르면 또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흐르다 김해부 동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을 소위 낙동강이라고 하는데, 낙동(洛東)이라 하는 것은 가락(駕洛)의 동쪽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함양부 남쪽 지리산의 북쪽에서는 남수(濫水)가 나오는데〈민간에서는 청천(淸川)이라고 부른다〉 동쪽으로 흘러 진주성 남쪽에 이르면 방향을 꺾어 동북쪽으로 흐르다 함안군 북쪽에 이르면 황수와 합류한다. 황수와 남수의 남쪽에 있는 것 중 가장 동쪽이 김해이고, 그 다음 서쪽으로 웅천(熊川), 창원(昌原), 칠원(漆原), 함안(咸安), 진해(鎭海), 고성(固城), 사천(泗川)이 있으며, 가장 서쪽이 곤양(昆陽)이다. 『신라사』에서 포상팔국(浦上八國)이라 하는 것이 대체로 이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옛 변진의 땅이다. 경주는 김해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2백리 되는 곳에 있어서 황수의 동쪽에서 멀리 있다. 『한사(漢史)』에서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耶)이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耶)이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耶)이니, 모두가 황수의 서쪽에 있다. 황수 동쪽의 여러 현에는 가락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 황수를 낙동강이라 부르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고령은 경주에서 곧바로 동쪽에 있고, 성주는 고려 북쪽으로 40리 되는 곳에 있으며, 함창은 성주에서 북쪽으로 140리 되는 곳에 있다. 그런데 『한사(漢史)』에서 변진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금관가락국(金官駕洛國)이 변진의 총왕(總王)이 되었으므로 [변진이]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는 진한과 섞여 살았다고 한 것이다. 이제 금관국에 포상팔국을 더하고, 또 고령, 성주, 함창 등 세 나라를 더하면 [12국이 되어] 그 숫자가 꼭 채워진다. 다만, 포상의 여덟 나라 가운데 골포(骨浦)라 하는 것은 지금의 창원(昌原)에 들어맞고, 칠포(漆浦)라 하는 것은 지금의 칠원이며, 고사포(古史浦)라 하는 것은 고성〈본래 이름은 고자포(古自浦)〉을 가리키는 듯하나, 나머지는 알 수 없다

又案 漢史有弁辰軍彌國 · 弁辰甘路國. 今之昆陽本名昆彌 開寧本名甘文國. 疑卽軍彌 · 甘路之聲轉也. 瀆盧者 巨濟也. 雖與金官隔以海口 瀆盧南與倭接 恐非他邑也.〈巨濟有加羅山. 輿覽云 望對馬島最近〉 弁辰十二國 皆隷金官. 金官者 弁辰之總王也. 漢光武時 始開其國. 三國史云 金庾信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伽耶 後改爲金官國. 高麗史云 金州 本駕洛國. 新羅儒理王十八年 駕洛之長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等九人 率其民禊飮 望西龜旨峰 有非常聲氣 就視之. …(중략[節])… 有一童子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盡禮. 童子日就岐嶷 身長九尺. 九人遂奉以爲主 卽首露王也. 國號駕洛 又稱伽耶 後改爲金官國.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耶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卽位一百五十八年 薨.〈見地理志〉 又云 金州有首露王墓〈在州西〉 · 招賢臺〈在州東〉. 世傳 駕洛國居登王 登此臺 招七點山人旵始. 旵始乘舟而來 因名焉. 東史略云 初駕洛有九干 各總其衆 爲酋長. 九干修禊事 適見龜峰 有異氣. 就得六男 …(중략[節])… 推始生者爲主. 因金卵姓金 以始見名首露. 國號大駕洛.〈權近著〉 東國總目云 始生者爲大駕洛 其餘六人爲五伽耶主 曰阿羅伽耶 曰古寧伽耶 曰大伽耶 曰星山伽耶 曰小伽耶. 鏞案 首露開 國之年 三國史以爲漢光武十八年 高麗史以爲儒理王十 八年 所差一年也. 東史諸家竝從三國史 貴古也. 又案 鄭史有金榼 · 金卵之說 妄誕鄙俚 今竝删之. 余謂漢史 · 魏志皆云 辰韓 · 弁韓之王 皆以馬韓人爲之 此當時之實聞也. 辰韓之昔脫解 弁辰之金首露 皆係西韓之人. 而新羅 · 百濟後世竟成仇隙. 新羅之人恥其前代受命百濟諱其根本 遂造櫝卵之說 以欺愚俗. 而三國遺事竝載委巷之說 鄭公不

知刪落耳. 又案 東史略有六卵之說. 而東國總目遂云 首露王兄弟六人 分作六伽倻之始祖. 此皆後人推演爲說 不足徵也. 唯崔致遠以爲大伽倻始祖朱日 金官國始祖靑裔 爲同母兄弟. 此必有據之言也.
또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한서』[漢史]에 변진군미국(弁辰軍彌國)과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이 있는데, 지금 곤양(昆陽)은 본래 이름이 곤미(昆彌)이고, 개령(開寧)은 본래 이름이 감문국(甘文國)이니, 군미와 감로의 소리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독로(瀆盧)는 거제(巨濟)이다. 비록 금관국(金官國)과 떨어져 바다 어귀 건너편에 있지만 독로가 남쪽으로 왜와 접 하고 있었으므로 딴 고을이 아닐 것이다.〈거제에 가라산(加羅山)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輿覽]에서 이르기를 대마도(對馬島)를 바라보기에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 변진 12국은 모두 금관가야의 수로(首露)의 나라였으니, 금관(金官)은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 한나라 광무제[漢光武] 때 그 나라를 개국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김유신의 12세조 수로(首露)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후한 건무(建武) 18년(42년) 임인년에 구봉(龜峰)에 올라 가락(駕洛) 9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어 가야라 이름하였다. 뒤에 이름을 고쳐 금관국이라고 하였다.〈「김유신전(金庾信傳)」에 나온다〉 정인지의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주(金州)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신라 유리왕 18년(42년)〈건무 17년〉에 가락의 우두머리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하는데,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있어 가서 보았다. …(중략)…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경하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내아이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 [이 달 보름날에(是月望)] 아홉 사람이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나라 이름을 가락(駕洛)이라 하고 또는 가야(伽倻)라고 불렀으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이 이르며 서남쪽은 바다와 만나고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삼았다. 즉위한 지 158년 만에 돌아갔다[薨].〈[『고려사』]지리지에 보인다〉 또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주(金州)에는 수로왕묘(首露王墓)〈주(州)의 서쪽에 있다〉와 초현대(招賢臺)〈주의 동쪽에 있다〉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이 대(臺)에 올라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불렀더니 참시가 배를 타고 왔으므로 그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동국사략』[東史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원래 가락(駕洛)〈지금의 김해(金海)〉에는 9간(九干)이 있어서 각기 무리를 거느리고 추장(酋長)이 되었다. 9간들이 계사(禊事)를 지내다가 마침 구봉(龜峯)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한 기운이 있더니 여섯 사내아이를 얻게 되었다. …(중략)… 처음 태어난 자를 임금으로 추대하였는데, 금알[金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金)을 성으로 삼았으며,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다. 국호(國號)는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다』〈권근(權近) 저(著)〉『동국역대총목』[東國總目]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대가락(大駕洛)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기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는데,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녕가야(古寧伽倻), 대가야(大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 소가야(小伽倻)이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이 개국한 해에 대해 『삼국사(기)』는 한[後漢] 광무(光武) 18년(42년)으로 보았고, 『고려사』는 유리왕 18년(41년)으로 보았으니 차이가 1년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가(史家)들은 모두 『삼국사기』를 따랐는데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긴 까닭이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인지의 『고려사』[鄭史]에 있는 금합[金榼]과 금알[金卵]의 설은 망령되고 촌스러우니 지금 모두 삭제한다. 내가 말했듯이 『후한서』[漢史]와 「위지(魏志)」에서 똑같이 말하기를, 진한(辰韓)과 변진(弁辰)의 왕을 모두 마한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사실[實聞]이었다. 진한의 석탈해(昔脫解)와 변진의 김수로(金首露)는 모두 서한사람[西韓之人]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가 후세에 원수가 되어 사이가 벌어지자, 신라 사람들이 선대에 백제로부터 명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근본을 숨기려다가 결국 궤와 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매한 사람들을 속였다. 삼국유사에는 뒷골목[委巷]의 이야기들이 모두 실려있는데, 정공(鄭公)이 삭제할 줄 몰랐던 것이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국사략』[東史略]에 여섯 알의 설이 있고, 『동국역대총목』이 이것을 따라서 수로왕의 형제 여섯 사람이 나뉘어 6가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후대 사람들이 미루어 부연하여 만든 이야기이니 증명할 수가 없다. 오직 최치원(崔致遠)이 대가야의 시조 주일(朱日)과 금관국의 시조 청예(靑裔)가 동모형제(同母兄弟)라고 보았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근거가 있는 말이다.

淵案 今以日本史考之則 大伽倻是任那. 則崔文昌兄弟之說 恐誤矣.〈詳見任那考〉 金富軾云 南伽倻始祖首露 與新羅同姓也. 洪萬宗云 王妃許氏〈南天竺王女〉生九子 而二子從母姓. 今之金海金氏 · 許氏 皆首露之子孫也. 王壽至一百五十八. 鏞案 鄭史首露王在位百五十八年 洪說以爲享壽百五十八年. 揆之常理 洪義似長. 然今從鄭史 所以貴古也. 首露王三十五年 發兵侵新羅. 自玆以後二十餘年 戰爭不息. 新羅史云脫解王二十一年〈章帝建初二年〉 秋八月 阿飡吉門 與加耶兵 戰於黃山津 獲一千餘級. 婆娑王八年秋 下令曰 國家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築加召〈在居昌〉 · 馬頭〈今未詳〉二城. 十五年〈和帝六年〉 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湌吉元 將騎一千 擊走之. 十七年秋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出戰 敗之. 虜獲甚多. 十八年春正月 擧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鏞案 黃山津者 潢水入海之口也. 在今梁山郡西十餘里 與金官府隔水相望. 二國之戰 旣在黃山津口則 加耶者 金官也. 又案 加召城所以備百濟也 馬頭城所以備加耶也. 今淸道郡東百餘里 有馬谷山 在慶州之南. 馬頭城 或在此山頭也. 其後五六年 迦羅 · 新羅忽有和睦之跡. 意者 婆娑王中年迦羅乞和 而暫相親附也. 新羅史云 婆娑王二十三年秋八月 音汁伐國〈古安康縣 在慶州北三十里〉 與悉直谷國〈今三 陟〉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 召問之. 首露立議 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王命六部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飡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漢部本加祇利部〉 鏞案 首露王生十五歲卽位 則是年七十五歲 亦云老矣. 後四年 新羅 · 迦羅復相侵伐者十餘年. 厥後兩國無事者 八十年. 首露薨. 新羅史云 婆娑王二十七年〈殤帝元年〉 秋八月 命馬頭城主 伐加耶. 祇摩王四年〈安帝九年〉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 度黃山河 加耶人伏兵 林薄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五年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鏞案 八十年都無一事 史失之也.

나(장지연)[淵]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대한제국] 일본사로 살펴보면 대가야는 임나(任那)이니 최문창(崔文昌: 최치원)의 [대가야와 금관가야가] 형제라는 설은 아마 틀린 듯하다.〈자세한 것은 「임나고(任那考)」에 보인다〉 김부식이 이르기를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는 신라의 동성이다."라 하였다. 홍만종(洪萬宗)이 [『동국역대총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비 허씨(許氏)〈남천축(南大竺)의 왕녀〉가 아들 아홉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모성(母姓)을 따랐으니 지금[조선]의 김해 김씨와 허씨가 모두 수로(旨露)의 자손이다. 왕의 나이는 158세에 이르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는 수로왕의 재위가 158년이라 하였고, 홍만종(洪萬宗)의 설은 [수로왕이] 수를 누린 것이 158년이라 하였는데, 상식에 비추어보니 홍만종의 의견이 더 나은 듯하다. 그러나 지금 정인지의 고려사를 따르는 것은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수로왕 35년(76년)에 군대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였다, 이로부터 20여 년 간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신라사(新羅史)』는 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탈해왕 21년(77년)〈한(漢) 장제 건초 2년(77년)〉 가을 8월에 아찬 길문(吉門)이 가야병과 황산진(黃山津; 현재의 양산시 물금면 가야진사 강안) 입구에서 싸워 포로 1천여 명을 얻었다. 파사왕(婆娑王) 8년(87년)〈한(漢) 장제 말년〉 가을에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나라가 서쪽에는 백제가 남쪽에는 가야가 접해 있어 덕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고, 위세로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성채를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가소(加召)〈거창(居昌)에 있다〉와 마두(馬頭)〈지금 어디인지 알 수 없다〉두 성을 쌓았다. [파사왕]15년(94년)〈한 화제(和帝) 6년〉 봄 2월에 가야적이 마두성을 에워쌌다. 아찬 길원을 보내어 기병(騎兵) 천 명을 거느리고 공격하여 퇴각시켰다. [파사왕]17년(96년) 가을 9월에 가야인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소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 막게 하였는데, 적에게 살해당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 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워 이겼다. 포로와 노획물이 매우 많았다. [파사왕]18년(97년) 봄 정월에 병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

벌하고자 하였다. 그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다. 이에 그쳤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산진(黃山津)은 황수(潢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로 지금의 양산군(梁山郡) 서쪽 10여 리에 있으며, 금관부(金官府)와는 강을 건너 서로 바라보는 곳이다. 두 나라의 전쟁이 황산진 입구에서 있었다면 [그때의] 가야는 금관가야이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소성(加召城)은 백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마두성(馬頭城)은 가야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청도군(淸道郡) 동쪽 백여 리에 마곡산 (馬谷山)이 있어서 경주의 남쪽에 있으니, 마두성은 이 산의 정상에 있었을 것이다. 그 후 5, 6년 간 가라(迦羅)와 신라(新羅)가 느닷없이 화목했던 흔적이 있는데, 생각해보건대 파사왕(婆娑王) 중년에 가라(迦羅)가 화해를 청하여 잠깐 서로 친해졌던 것이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파사왕 23년(102년) 가을 8월 음즙벌국(音汁伐國)〈옛 안강현[古安康縣]으로 경주 북쪽 30리에 있다〉과 실직곡국(悉直谷國)〈지금[조선]의 삼척(三陟)〉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이르러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기다가 금관국의 수로왕이 나이도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고는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즉석에서 의견을 내어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육부(六部)에게 명하여 모여서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오부(五部)는 모두 이찬을 주(主)로 삼았는데, 유독 한지부(漢祇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노(奴)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지부의 주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한지부는 본래 가리부(加利部)이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은 태어나서 15세에 즉위하였으니, 이 때 나이가 75세이므로 역시 늙었다고 말한 것이다. 4년 뒤에 신라와 가라가 다시 서로 침공한 것이 10여 년 동안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양국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은 지 80년 만에 수로왕이 죽었다[薨].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파사왕 27년(106년)〈한(漢) 상제 원년〉 가을 8월,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정벌하게 하였다. 지마왕(祇摩王) 4년(115년)〈한(漢) 안제 9년〉 봄 2월 가야가 남쪽 변경 을 침략하였다. 가을 7월에 [지마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하여,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너는데, 가야사람이 병사를 숲 속에 숨겨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나아가니, 복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왕이 군사를 지휘하여 힘껏 싸워 포위를 헤치고 퇴각하였다.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하였다. 왕이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때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려,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首露王薨 子居登王立. 旣立三年 請和於新羅. 此漢獻帝六年也. 新羅史云 奈解王六年〈建安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耶. 加耶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飡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十七年春 加耶送王子爲質. 勿稽子傳云 浦上八國同謀伐柯羅國. 柯羅遣使請救. 王使王孫奈音 率近部及六部軍 往救 遂敗八國兵. 後三年 骨浦 · 漆浦 · 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鏞案 旣云浦上不云海中 則今巨濟. 南海不在計也. 今浦上之地 東自昌原 西至昆陽 恰爲八邑. 而咸安 · 固城本有加耶之名 骨浦 · 漆浦已著新羅之史. 八邑之爲浦上八國 無疑. 縱有沿革 不甚相遠.
수로왕이 죽자 아들 거등왕(居登王)이 왕이 되었다. 즉위 3년에 신라에 화친을 청하였으니, 이 때가 한(漢) 헌제 건안 6년(201년)이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해왕(奈解王) 6년(201년)〈한(漢)건안 6년〉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가을 7월에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치려고 모의하였다.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인 우로(于老)와 이벌찬 이음(利音)에게 명하여 육부병(六部兵)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8국의 장군 들을 쳐서 죽이고 포로 6천명을 빼앗아 돌아왔다. [나해왕]17년(212년)〈건안 17년〉 봄에 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 [『삼국사기』] 물계자(勿稽子)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포상팔국이 함께 모의하여 가라국(柯羅國)을 치니 가라국이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나해]왕이 왕손 나음(奈音)으로 하여금 근부(近部)와 6부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도와주도록 하여, 마침내 8국의 군사를 이겼다. 3년 뒤에 골포(骨浦), 칠포(漆浦), 고사포(古史浦) 3국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竭火城)을 공격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여 삼국의 군사를 크게 이겼다. [이 때] 물계자가 수 십여 급을 베고 빼앗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미 포상(浦上)이라고 말하고 바다 가운데[海中]라고 하지 않았으니, 지금 거제(巨濟)와 남해(南海)는 셈에 들지 않는다. 지금[조선] 포상의 땅은 동쪽으로 창원(昌原)으로부터 서쪽으로 곤양(昆陽)에 이르기까지 8읍에 꼭 들어맞는다. 그리고 함안(咸安)과 고성(固城)은 본래 가야의 명칭이었으며, 골포(骨浦)와 칠포(柒浦)는 이미 신라의 역사에 나타나 있다. 8읍이 포상팔국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설사 변천되어 온 내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멀지는 않을 것이다.

建安以後二百六十八年 迦羅之跡 史册無文. 至齊高帝建元元年 迦羅國王荷知 遣使于南齊. 南齊書東南夷傳云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耶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鏞案 首露子孫有坐知王 · 絰知王 · 鉗知王之等. 所謂荷知 亦是三知之 一也. 後三年 三韓連和 以拒句麗. 此又東方之大事也. 新羅史云 炤知王三年 春三月 高句麗與秣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 · 加耶援兵 分道禦之. 十八年春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鏞案 輿地勝覽 彌秩夫 今之興海郡也. 孤鳴等七城 雖不可詳旣取七城 乃進興海則 今淸河 · 寧海 · 平海 · 眞寶之等 卽其地也. 當時竹嶺久已開路 句麗已據丹陽等數邑 其自竹嶺之路 直衝慶州之北 明矣. 百濟者 馬韓也 新羅者辰韓也 迦羅者 弁辰也. 三韓會盟以擯句麗 其間聘享遊說之迹 必多奇偉之觀 而文獻無徵 悲夫. 此時 三韓之中 新羅猶荒昧無文 其朝聘中國 或附庸於百濟與迦羅. 北史新羅傳云 新羅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初附庸于百濟. 梁書新羅傳云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二年 始隨百濟 奉獻方物. 又云 百濟征高麗 不堪戎役 後相率歸之. 遂致強盛 因襲百濟 附庸於迦羅國焉. 傳世三十至眞平 遣使貢方物於隋. 鏞案 蕭齊之時 新羅君長猶稱尼師今 · 痲立干則 其無文可知也. 三韓之中 百濟最強最文〈梁書云 新羅無文字 刻本爲信 語言待百濟而後通焉〉新羅自古服屬 其附庸無怪也. 而旣別百濟 又乃附庸於迦羅者 豈非文字之技 反遜加羅而然乎. 且自辰弁 水路朝天則 迦羅直居海口 習知舟楫之事. 新羅深居陸地 但輸皮幣之供. 其勢不得不加羅爲主 而新羅附庸也. 中國之記東事者 雖有懸聞 至於朝聘中國之迹 不容有誤. 北史 · 隋書皆信文也. 後五十一年 加羅竟以其國降于新羅. 此梁武帝三十一年也. 於是乎 辰韓 · 弁辰合而爲一. 新羅史云 法興I十一年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 來降. 王禮待之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金庾信傳云 首露九世孫仇亥 於庾信爲曾祖父. 鄭麟趾地理志云 首露王九代孫仇亥 賫國帑寶物 降于新羅. 自首露以後居登王. 痲品王 · 居叱彌王 · 伊尸品王 · 坐知王 · 吹希王 · 絰知王 · 鈕知王 至仇亥王〈三國遺事 仇刻作仇衡〉有國凡四百九十一年. 新羅法興王旣受降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爲金海小京. 鏞案 加耶之國 始建於漢光武中年 卒亡於梁武帝中年 故後漢書 · 三國志 · 晉書 皆立三韓列傳. 至南北史 · 隋唐書始有百濟 · 新羅 無馬韓 · 辰 · 弁. 加耶之爲弁辰 不旣明甚乎. 然且魏志 · 北史 皆以百濟爲馬韓 至於新羅則 北史謂之辰韓遺種 而唐書謂之弁韓苗裔. 由是觀之 馬韓之終爲百濟辰韓 · 弁辰之終爲新羅 確然無疑. 而東儒舍此迦羅 別求弁韓 西摸北撈 轍環靑邱 而弁韓之地終不可得 豈不惜哉. 一言以蔽曰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 弁辰者 加耶也.

건안(建安) 이후 268년 동안 가라의 자취는 역사책에 글이 없다가, 제(齊) 고제 건원 원년(479년)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냈다. 『남제서(南齊書)』동남이전(東南夷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建元)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荷知)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치니, 조칙을 내리기를 널리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랑캐가 두루 감화를 받는구나.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의 해외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받들었으니,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으로 삼을 만 하도다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의 자손은 좌지왕(坐知王), 질지왕(絰知王), 겸지왕(鉗知王) 등이 있었으니, 이른바 하지(荷知)는 당연히 3지(知) 가운데 하나이다. 3년 뒤에 삼한이 연합하여 고구려[句麗]를 막았다. 이는 또한 동방(東方)의 대사였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지왕(炤知王) 3년(481년) 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에 쳐들어왔다. 호명(孤鳴) 등 일곱 성을 취하였다. 또 미질부(彌

秩夫)〈현재 경북 포항시 흥해읍〉까지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백제와 가야의 원병과 더불어 길을 나누어 방어하였다. [소지왕] 18년(496년) 봄에 가야국에서 흰 꿩[白雉]을 보냈는데, 꼬리가 다섯 자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여지승람』에 미질부(彌秩夫)는 지금[조선]의 흥해군(興海郡)이다. 호명(孤鳴)등 일곱 성은 비록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일곱 성을 취하고 나서 흥해(興海)까지 진군하였다면 지금[조선]의 청하(淸河), 영덕(盈德), 영해(寧海), 평해(平海), 진보(眞寶) 등이 그 곳일 것이다. 당시[신라] 죽령은 길을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고구려가 이미 단양(丹陽)등 여러 읍을 근거지로 하여 죽령의 길로 바로 경주의 북쪽을 공격하였음이 분명하다. 백제는 마한이고, 신라는 진한이며, 가라는 변진이다. 삼한이 회맹하여 고구려를 물리쳤으니, 그 동안 빙향(聘享)과 유세(游說)의 흔적이 반드시 많았을 것이고, 기이하고 괴상한 광경이었을 것이지만, 문헌이 증명하지 못하니 슬프구나. 이 때 삼한 가운데 신라가 아직도 미개하고 문자가 없어서 중국에 조빙(朝聘)함에 백제에 부용하기도 하고 가라에 부용하기도 하였다.『북사』신라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라왕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바다로부터 도망하여 신라로 들어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백제에 부용하였다.〈『양서』신라전에 이르기를 그 나라가 작아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고 보통(普通) 2년(521년, 법흥왕 8년)에 처음으로 백제를 따라 방물을 바쳤다고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백제가 고구려를 정복하자 [고구려인들이] 힘든 군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신라에] 귀부하여 마침내 강성해졌다. 이로 인하여 백제를 급습하고 가라국(迦羅國)에 부용하였다. 왕통이 전하여 30세(世)인 진평왕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수나라에 방물을 바쳤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소제(蕭齊) 때 신라의 군장은 아직도 이사금과 마립간을 칭하였으니 문자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 가운데 백제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문자가 발달하였으니〈『양서』신라전에 이르기를 신라에는 문자 없어서 나무를 깎아 신표를 삼고 있으며, 언어는 백제를 거쳐야만 통하였다고 하였다〉 신라가 예로부터 [백제에]복속하여 부용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백제와 결별하고 나서 또 곧바로 가라에 부용한 것은 문자의 기술이 도리어 가라에 순응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진변(辰弁)의 수로를 이용하여 천자에 조회한 것은, 가라는 바로 해구(海口)에 자리잡아 선운의 일에 능숙하고 신라는 깊이 육지에 자리 잡아 단지 피폐(皮幣)의 공물만 수출할 뿐이니 그 세가 부득이하게 가라(迦羅)가 주가 되고 신라(新羅)가 부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동쪽의 일을 기록한 것에는 비록 멀리서 들리는 소문[懸聞]이 있었지만, 중국에 조빙한 자취에 이르러서는 오기(誤記)가 용납되지 않았다.『북사』와『수서』가 모두 믿을만한 기록이다. 51년 뒤 가라가 마침내 그 나라를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이 때가 양 무제 31년이었다. 이로써 진한과 변진이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 11년(524년) 가을 9월에 왕이 남쪽 국경에 순찰하고 땅을 개척하였다. 가야국왕이 와서 회동하였다. 금관국의 주(主)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 장남 노종(奴宗), 차남 무덕(武德), 삼남 무력(武力)을 데리고 나라의 보물을 갖고서 항복해왔다. 왕이 예로 대접하였다. 상등(上等)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을 하여 각간(角干)에 이르렀다.〈「김유신전(金庾信傳)」에 이르기를 수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서 9세손인 구해(仇衣)[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도 부른다]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고 하였다〉 정인지의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수로왕의 9대손인 구해(仇亥)에 이르러 국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수로왕으로부터 거등왕(居登王), 마품왕(痲品王), 거질미왕(居叱彌王), 이시품왕(伊尸品王), 좌지왕(坐知王), 취희왕(吹希王), 질지왕(絰知王), 겸지왕(鉗知王) 이후 구해왕〈『삼국유사』가락국기에는 구해가 구형(仇衡)으로 되어 있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있은지 모두 491년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항복을 받은 뒤 [구해왕을] 객례(客禮)로써 대우하여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경덕왕 이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삼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야(加耶)라는 나라는 한(漢) 광무제(光武帝) 중년에 처음 건국하여 마지막으로 양(梁) 무제(武帝) 중년에 망하였다. 그러므로『후한서 · 삼국지 · 진서』가 모두「삼한열전(三韓列傳)」을 두었고,『남 · 북사』와『수 · 당서』에 이르러 비로소 백제, 신라를 두고 마한, 진, 변을 없앴다. 가야(加耶)가 변진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또한「위지(魏志)」와『북사(北史)』가 모두 백제를 마한이라고 하고, 신라에 이르러서는『북사』에서는

진한의 남은 종족[遺種]이라 하고 당서에서는 변한의 후예[苗裔]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한의 마지막 후손이 백제가 되었고 진한과 변진의 마지막 후손이 신라가 되었음이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학자[東儒]들은 이 가라를 버려두고 따로 변진을 구하여 서쪽으로 찾고 북쪽으로 더듬어 우리 나라의 땅[青丘]를 두루 훑으면서도 변한의 땅은 끝내 찾지 못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한 마디로 말해서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왜와 접하였으니, 변진은 가야이다.

東史云 金官國初立始祖廟於首陵之側 享祀必於孟春三日 · 七日 仲夏重五 仲秋五日 · 十五日. 逮仇衡失位 有英規阿干 奪廟而享淫祀 當端午致告 梁壓而死. 後圭林繼世 年八十八而卒. 其子簡元績而克軽. 鏞案 圭林繼世者 奉祀而已 非其國統再興也. 大伽耶者 今之高靈縣 亦弁辰十二國之一也. 其始祖阿豉王 實爲首露王之同母兄 以故別謂之大伽耶. 金富軾地理志云 高靈郡本大加耶國. 鄭麟趾地理志云 高靈郡本大加耶國. 始祖伊珍阿豉王 一云內珍朱智. 崔致遠釋利貞傳云 伽耶山正見母主 爲夷毗訶之所感生大加耶王惱室朱日卽伊珍 · 金官國王惱室青裔卽首露二人. 鏞案 首露王當時 威德竝盛 竝呑甌越之域 有類南佗平斷虞芮之訟 遠追西伯 厥享國百五十年. 浦上八國翕然讋伏 罔敢蠢動. 此弁辰霸主也. 然而高靈以區區 一縣之聚 特謂之大加耶者 以其爲首露王之兄故也. 金官曰南伽耶高靈曰北伽耶. 又金官曰下加耶 高靈曰上加耶. 皆首露私尊之稱. 若論主霸之國 金官爲弁辰之總王也.
우리나라 역사[『동사(東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관국에서는 처음에 수릉(首陵) 옆에 시조묘(始祖廟)를 세우고 1월[孟春] 3일 · 7일, 5월[仲夏] 5일[重五], 8월[仲秋] 5일 · 15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 구형(仇衡)이 왕위를 잃자 아간(阿干)에 영규(英規)가 묘향(廟享)을 빼앗아 음사(淫祀)를 지내다가 단오(端午) 때 고유(告由)하다가 대들보에 깔려 죽었다. 뒤에 규림(圭林)이 대를 잇다가 88세에 죽자, 그 아들 간원(間元)이 이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규림(圭林)이 대를 이은 것은 제사를 받들기 위함일 뿐이지 그 나라를 통일하여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가야는 지금[조선]의 고령현이니 또한 변진 12국 중 하나이다. 그 시조 아시왕(阿豉王)은 실제로 수로왕의 동모형(同母兄)이다. 이 때문에 따로 대가야라고 일컫는다. 김부식의 지리지에서는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다."라 하였다. 정인지의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大伽揶國)이었다. 시조는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이다."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야산(伽揶山)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은 당시 위엄과 덕이 함께 성하였으니 구월(甌越)의 지역을 병탄하여 남타(南佗)와 비슷하였으며 우예(虞芮)의 송사(訟事)를 평단(平斷)하여 멀리 서백(西伯)을 좇았으니 그 나라를 향유한 것이 150년이었다. 포상(浦上)의 여덟 나라가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감히 준동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변진의 패주(覇主)였다. 그런데 고령의 작은 한 현을 유독 대가야라고 부른 것은 수로왕의 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관을 남가야(南伽耶), 고령을 북가야(北伽耶)라고 하기도 하고, 금관을 하가라(下加耶), 고령을 상가라(上加耶)라고도 하니 모두 수로(首露)가 사사로이 높여 일컫는 것이다. 주패(主覇)의 나라를 따진다면 금관이 변진의 총왕(總王)이다.

淵案 當時大加耶之國 北自星州 · 咸昌 南統浦上八國 以爲疆域. 則幾與新羅竝大. 而茶山未見日本史任那之跡 故其案說如是也. 若其建國之年 疑亦漢光武建武十八年 始開其國. 與首露分長二國. 鏞案 古記六卵之說 雖不可信崔孤雲正見二子之說 必有所據. 首露兄弟分立 必如沸流 · 溫祚之事矣.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시 북쪽은 성주와 함창으로부터 남쪽은 포상팔국을 통합하여 강역으로 삼았으나 아마 신라와 더불어 대국이었다. 그런데 다산(茶山)이 일본사의 임나의 흔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이 이와 같았다. 만약 그 건국된 해라면, 아마도 역시 한(漢) 광무제 건무 18년에 그 나라를 건국하고 수로왕과 더불어 두 나라를 나누어 맡았을 것이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락고기(駕洛古記)」의 여섯 알에 대한 전설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 최치원의 정견(正見)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

을 것이니 수로왕 형제가 나뉘어 선 것은 비류(沸流)와 온조(溫祚)의 일과 똑같다.

淵案 任那有國 已在首露之先七十餘年. 則崔孤雲兄弟之說亦未可信矣. 詳見下. 至八世孫異腦王時 大加耶請婚於新羅. 此梁武帝普通三年也. 新羅史云 法興王九年春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飡比助夫之妹 送之. 崔致遠釋順應傳云 大加耶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鏞案 金富軾之史 凡加耶六國通稱加耶 無所標別. 今以事在南界及黃山津者 係之金官. 至於此條 更據崔孤雲之文 繫之大加耶國. 庶不謬也. 至末孫道設智王時 大加耶竟爲新羅所滅. 此陳文帝天嘉三年也. 新羅史云 眞興王二十三年 秋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栴檀門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鄭麟趾地理志云 大加耶國 自始祖阿鼓王 至道設智王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耶郡. 鏞案 加耶叛者 大加耶也. 金官旣亡 大加耶獨存 本以魯衛之國 遽失祀許之依 悲憤謀叛. 遂滅其國也. 又案金富軾之史 旣無標別則 所謂加耶叛 未必非金官也. 然金官之亡 今已三十一年 仇亥三子竝仕新羅 駕洛遺民何以叛背. 且據鄭史 大伽耶寔爲眞興王所滅. 而自漢光武建武十八年 至陳文帝天嘉三年 爲五百一十九年則 其歷年之數 恰與相合 所差惟一年耳. 其差一年者 古記或擧大數 或大加耶建國在建武十九年 差後於首露也. 又案 崔孤雲以月光太子之父異腦王 爲始祖朱日王八世孫則 此時唯九王傳授矣. 大伽耶十六王尙餘七王 不應四十年之間 遽傳七王. 以此言之 崔說·鄭史必有一誤 不可曰兩合也.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임나가 나라를 소유한 것은 이미 수로왕보다 70여 년 앞선 일이다. 곧 최고운(崔孤雲)의 형제에 설은 역시 믿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보인다. 8세손 이뇌왕(異腦王) 때에 이르러 대가야가 사신을 보내어 신라에 청혼을 하였다. 이 때가 양(梁) 무제 보통 3년(522년)이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法興王) 9년(522년) 봄에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였다. 왕이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보내었다. 최치원의 「석순응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가야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곧 정견(正見)의 10세손이고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부식의 역사는 무릇 가라 6국을 통칭 가야라고 하여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구분하지 않았다. 지금 일이 신라의 남쪽 경계 및 황산진(黃山津)에 있던 것은 금관가야에 연관 짓고, 이 조에 이르러서는 다시 최치원의 글을 근거로 하여 대가야국에 연관지었으니 아마도 오류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후손[末孫]인 도설지왕(道設智王) 때에 이르러 대가야가 마침내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이 때가 진(陳) 문제(文帝) 천가(天嘉) 3년(562년)이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흥왕(眞興王) 23년(562년) 가을 9월에 가야가 배반하였다. 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사다함(斯多含)이 뒤를 따랐다. 사다함은 5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장서 전단문(栴檀門)으로 달려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병사들을 이끌어 압박해 들어가니 한순간에 모두들 항복 하였다. 정인지의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가야국(大伽倻國)은 시조 아시왕(阿豉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世) 520년이었다. 신라 진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揶郡)으로 삼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야가 배반하였다는 것은 대가야를 말하는 것으로, 금관가야는 이미 망하고 대가야만이 홀로 남았었다. [대가야는] 본래 노나라를 막아주던 나라[魯衛之國]로서 갑자기 사허의 의지함[祀許之依]을 잃고 비분하여 모반하였다가 결국 멸망당하였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부식의 역사에 이미 [가야에 대한] 구별이 없었으니 이른바 가야가 배반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금관가야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관가야가 망한 지 이미 31년이 되어 구해의 세 아들이 모두 신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가락의 유민들이 어찌 모반을 하겠는가. 더구나 정인지의 역사에 따르면 대가야는 진실로 진흥왕에게 멸망당하였는데 한(漢) 광무제 건무 18년(42년)으로부터 진(陳) 문제(文帝) 천가(天嘉) 3년(562년)에 이르기까지 519년이 되니 그 역년(歷年)의 수가 꼭 서로 들어맞고 차이가 단지 1년뿐이다. 그 1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고기(古記)」가 대강의 수[數]를 들었거나, 대가야의 건국이 광무(光武) 19년(43년)에 있던 일로 수로(首露)의

뒤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치원이 월광태자(月光太子)의 아버지 이뇌왕(異腦王)을 시조 주일왕(朱日王)의 8세손이라고 하였으니, 이때 오직 아홉 왕만이 전수하였다. 대가야는 16왕이므로 여전히 일곱 왕이 남는데, 40년간 이 일곱 왕이 전수한 기간이 된다. 이로써 말한다면 최치원의 설과 정인지의 기록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잘못된 것으로, 둘이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

淵案 以日本史考之 大加耶卽任那. 而任那之通聘日本 在赫居世二十五年. 則下距首露王開國之年 爲七十五年也. 至眞興王二十三年加耶滅國之年 共五百九十七年也. 崔說 · 鄭史俱未可信而茶山之說 恐失考矣.〈見下任那考〉鄭麟趾地理志云 高靈古大伽耶國. 縣南有宮闕遺趾 傍有石井 俗傳御井. 小伽耶者 卽弁辰古資國 今之固城縣也. 新羅智證王滅之. 東史略云 智證王六年 遣異斯夫 取小伽耶國. 新羅史異斯夫傳云 智證王時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戱誤伽耶國 取之. 鏞案 于山國之來降 在智證王十一年. 則小伽耶之伐取 當在其後. 東史略六年之說 誤矣. 阿那加耶者 今之咸安郡也. 新羅法興王滅之. 東史略云 法興王二十五年〈梁武大同四年〉伐阿尸良國 滅之. 鄭麟趾地理志云 咸安本阿那加耶. 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隋書煬帝紀云 大業四年 百濟 · 倭 · 加羅舍國 竝遣使貢方物. 鏞案 加羅之亡 在梁武三十一年. 大加耶之亡 在陳文天嘉三年. 此云迦羅舍者 或者六加耶之中有一後亡者歟.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사로 살펴보면 대가야는 곧 임나이고 임나가 일본과 통교한 것은 혁거세 25년(기원전 33년)이다. 이로부터 수로왕이 개국한 연도와 거리가 75년이 되고, 진흥왕 23년(562년)에 가야가 멸망한 해까지 모두 597년이다. 최치원의 논설과 정인지의 고려사가 모두 믿을만 하지 못하고 다산의 설은 아마 고증을 잃은 듯하다〈아래 「임나고(任那考)」에 보인다〉 정인지의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령은 옛 대가야국이다. 현의 남쪽에 궁궐의 유지(遺址)가 있으며 곁에 돌우물[石井]이 있는데, 민간에서 전하기를 어정(御井)이라 한다. 소가야(小加耶)는 곧 변진의 고자국(古資國)이니 지금[조선]의 고성현(固城縣)이다. 신라 지증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東史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증왕 6년(505년)에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 소가야국을 빼앗았다. 『신라사』이사부전(異斯夫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증왕 때 연변관(沿邊官)이 되어 거도(居道)의 권모를 이어 받아 말놀이[馬戱]로 가야〈가라라고도 한다〉국을 속이고 빼앗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해 온 것이 지증왕 11년(510년)이었으니 소가야를 쳐서 빼앗은 것은 당연히 그 뒤에 있어야 한다. 『동사략』의 6년 설은 잘못되었다. 아나가야(阿那加耶)는 지금[조선]의 함안군이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 25년(538년)〈양 무제 대동(大同) 4년〉에 아시량국(阿尸良國)을 쳐서 멸하였다. 정인지의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함안은 본래 아나가야(阿那伽耶)였는데 법흥왕이 멸하여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수서』양제본기(煬帝本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업(大業) 4년 백제, 왜, 가라사국(迦羅舍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라가 망한 것은 양 무제 31년(532년)이고, 대가야가 망한 것은 진(陳) 문제 천가 3년(562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사(迦羅舍)란 것이 혹시 6가야 가운데 유일하게 뒤에 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淵案 日本史 推古天皇三十一年 新羅復侵任那遣將伐之. 新羅 · 任那入貢. 此時卽唐高祖武德六年也. 任那之亡 在唐太宗貞觀之代 則隋書所云迦羅舍國 卽任那無疑. 又加耶嘉悉王製十二絃琴. 至今流傳. 金富軾樂志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 造加耶琴.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今忠州〉乃遣大柰麻注知 · 階古 大舍萬德傳其業. 三人旣傳十二曲 爲五曲約. 奏之王前. 王聞之 大悅. 諫臣獻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遂行之 以爲大樂. 加耶琴有二調 一河臨調 二嫩竹調. 共一百八十五曲.〈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連伎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本紀云 眞興王十二年 王巡守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 知音樂. 特召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歌 奏之. 鏞案 省熱者 沙熱也. 沙熱者 今

淸風也. 于勒遊於淸風 · 忠州之間 故忠州有彈琴臺〈在州南五里〉 · 四休亭〈在州西二十里荷潭之上〉 皆于勒之所嘗游也. 則河臨宮者 疑在今安東地. 安東有臨河故縣. 淵案 于勒所製十二曲 皆似地名. 而上 · 下加羅卽大 · 小加耶也. 思勿卽史勿〈今泗川〉 居烈〈今居昌〉 沙八兮卽艸八兮〈今草溪〉. 餘未詳. 文獻通考曰 弁韓國有瑟. 其形如筑 彈之有音曲 與胡琴類. 鏞案 我邦琴瑟之可以得名者 唯有伽耶琴一種而已. 馬氏云 弁韓國有瑟 其形如筑. 則伽耶之爲弁韓 豈不明甚. 謂之瑟者 絃有十二 其形差大也.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사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추고천황(推古天皇) 31년(623년, 신라 진평왕 45년)에 신라가 다시 임나를 침범하니 [일본에서] 장수를 보내어 [신라군을] 쳤다. 신라와 임나가 입공(入貢)하였다. 이때가 곧 당 고조 무덕 6년(623년)이다. 임나가 망한 것은 당 태종 정관의 시대에 있었으니 『수서』에서 이른바 가라사국(迦羅舍國)은 곧 임나(任那)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가야의 가실왕(嘉悉王)이 12현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되었다. 김부식의 악지(樂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야국 가실왕(嘉實王)이 당의 악기를 보고서 가야금을 만들고는 악사(樂師) 성열현(省熱縣)〈현재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람 우륵(于勒)에게 명하여 열두 곡을 만들게 하였다. 그 뒤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악기를 가지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왕이 받아들이고 국원〈지금[조선] 충주이다〉에 안치하였다. 그리고는 대나마 주지(注知), 계고(階古), 대사 만덕(萬德)을 보내어 그 업을 전하게 하였다. 세 사람이 십이 곡을 전수 받고서 [이것을] 요약하여 다섯 곡을 만들었다. 왕 앞에서 그것을 연주하니 왕이 듣고서 매우 기뻐하였다. 간(諫)하는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은 취할 수 없습니다." 라 하니, 왕이 말하기를 "가야는 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 하고 드디어 그것을 행하여 대악(大樂)으로 삼았다. 가야금에는 두 가지 음조가 있으니, 하나는 하림조(河臨調)이고, 다른 하나는 눈죽조(嫩竹調)로 모두 185곡이다.〈우륵이 만든 12곡은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部),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已),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째 사팔혜(沙八兮), 열한째 이사(爾赦), 열두째 상기물(上奇物)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本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흥왕 12년(551년) 왕이 순수하다가 낭성(娘城)에 행차하였다. 우륵과 그 제자인 이문(尼文)이 음악에 능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에 머물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각기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열(省熱)은 사열(沙熱)이다〈사(沙)와 성(省)의 소리가 비슷하다〉 사열(沙熱)은 지금[조선]의 청풍(淸風)이다. 우륵이 청풍, 충주 사이를 유람했기 때문에 충주에 탄금대(彈琴臺)〈충주의 남쪽 5리에 있다〉와 사휴청(四休亭)〈충주의 서쪽 20리 하담(荷酌) 가에 있다〉이 있다. 모두 우륵이 일찍 이 유람했던 곳이다. 하림궁(河臨宮)은 아마도 지금[조선]의 안동 일대일 것이다. 안동에는 임하고현(臨河故縣)이 있다. 나(장지연)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륵이 만든 12곡은 모두 지명을 따른 것이다. 상 · 하가라는 곧 대 · 소가야이고 사물(思勿)은 곧 사물(史勿)〈지금[대한제국]의 사천(泗川)〉이며, 거열(居烈)〈지금[대한제국]의 거창(居昌)〉, 사팔혜(沙八兮)는 곧 초팔혜(艸八兮)〈지금[대한제국]의 초계(草溪)〉이다. 나머지는 미상이다. 『문헌통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변한국에 슬(瑟)이 있는데 그 형태가 축(筑)과 같으며 뜯으면 가락이 있으니 호금(胡琴)과 비슷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금슬(琴瑟)이 이름을 얻은 것은 오직 가야금 한 종류뿐이다. 마씨(馬氏; 馬端臨)가 말하길 변한국에 슬(瑟)이 있는데 그 형태가 축(筑)과 같다고 하였으니, 가야(伽耶)가 변한(弁韓)이라는 점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는가. 슬(瑟)이라고 부른 것은 현(絃)이 12개이기 때문이나 그 형태는 차이가 크다.

사료25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日本史云 任那大伽耶也. 其通聘交涉 屢見不一. 而與新羅 · 百濟竝稱三韓 則任那者 大伽耶之 別名也. 今據通典及日本史 別爲任那考 以補東史之闕文. 任那者 大伽耶之別名. 其立國 遠在駕洛之先 與新羅略同. 日本史云 崇神天皇六十五年〈新羅赫居世二十五年〉 任那國遣蘇那曷叱知入貢. 外交始此. 又云 垂仁天皇二年〈赫居世三十年〉 遣

歸蘇那曷叱知 厚賜任那主. 新羅人途要奪之. 二國相仇怨始此〈又云 明年 新羅王子天日槍歸化.〉
일본사에 이르기를 임나는 대가야이다. [일본과 임나가] 통빙(通聘)하고 교섭한 것이 자주 보이지만 같지는 않다. 신라, 백제와 더불어 모두 삼한이라 칭한다 라 하였으니 임나는 대가야의 별명이다. 지금[대한제국] 『통전』과 일본사를 근거로 하여 따로 「임나고」를 만들어 우리나라 역사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임나는 대가야의 별명이다. 그 나라를 세운 것이 가락보다 많이 앞서고 신라와 더불어 대략 같다. 일본사에서 말하기를 "숭신천황(崇神天皇) 65년(기원전 33년)〈신라 혁거세 25년〉 가을 7월에 임나국(任那國)이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를 보내 조공케 하였다." 라 하였으니, 외교가 이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일본사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수인 천황(垂仁天皇) 2년(기원전 28년)〈혁거세 30년〉[임나인(任那人)]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를 [임나로] 돌려보내면서 임나왕[任那主]에게 두터이 하사하였다. [그러나] 신라인(新羅人)이 길에서 그를 막고 [그것을] 빼앗았다. 두 나라의 원한은 이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또 말하기를 다음해에 신라왕자(新羅王子) 천일창(天日槍)이 귀화했다고 하였다〉

淵案 任那之通日本 最在三國之先 而卽新羅赫居世二十五年. 則立國年代 想與新羅略同. 而乃崔孤雲釋利貞傳云 大伽耶始祖阿鼓王 與駕洛國始祖首露王爲同母兄弟〈詳見弁辰別考〉. 首露王立國之年 距此戸七十五年 則兄弟立國 必不應如是懸殊矣. 崔傳 · 金史〈三國史〉 必有一誤於其間 而今不可詳. 且東史六卵之誨 尤荒誕不足信. 而五伽耶同時竝立云者 可知其無稽矣. 若其國都 在今高靈. 而洛江以西 至于浦上八國 皆其屬地也.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임나가 일본과 통교한 것이 삼국 가운데 가장 앞서서 곧 신라 혁거세 25년(기원전 33년)이다. 곧 나라를 세운 연대가 생각건대 신라와 대략 같다. 최고운이 「석이정전」에서 말하기를 대가야 시조 아시왕(阿鼓王)은 가락국 시조 수로왕과 더불어 동모형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변진별고」에 보인다〉 수로왕이 나라를 세운 해가 이로부터 75년 떨어져 있으니 형제가 나라를 세운 것이 틀림없이 맞지 않고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최치원의 「석이정전」[崔傳]과 김부식의 김사[金史]〈『삼국사』〉가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의 착오가 있으나 지금[대한제국]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東史]의 여섯 알의 가르침[誨]은 더욱 황탄하여 믿을 수 없고, 다섯 가야가 동시에 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국도(國都)는 지금[대한제국]의 고령에 있었으며, 낙동강 서쪽에서 포상팔국(浦上八國)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그에 속한 땅이었다.

日本史云 神功皇后攝政四十九年〈新羅沾解王二年〉 先是 新羅奪百濟貢物 相易而獻. 勅逐新羅使者 遣使其國 責問之. 至是 遣荒田別等 將兵援百濟 討新羅破之. 遂定任那七國加賜於百濟. 又云 欽明天皇十六年〈新羅眞興王開國四年〉 百濟王聖明 爲新羅所殺〈前年 百濟聖王攻 新羅 爲羅所殺〉 王子餘昌 使弟惠來告哀. 明年 惠歸 藩賜兵仗馬匹 發兵護送. 別遣筑紫大君 率兵守彌抵津. 尋立餘昌. 輿地勝覽云 彌助項津在巨濟郡南. 又云 伽耶山在郡北. 又云 陜川郡本新羅大耶城. 新羅史云 奈解王十三年秋 浦上八國謀侵駕洛. 王命太子于老 將兵救之. 淵案 當時大伽耶之國 始起於今高靈 · 陜川之地 稍稍呑併小國 疆土寢大 故謂之大伽耶也. 神功定任那七國云者 疑卽浦上諸國也. 據此則 其疆土之轄據 可知矣. 且彌抵津卽彌助項也. 巨濟亦屬任那 故日本必以兵扼守而護百濟也. 又其地有伽耶山 豈非因大伽耶而得名歟. 東史 固城爲小伽耶則 亦任那之屬國耳. 又云 雄略天皇二十一年〈新羅慈悲王十九年〉 賜久麻那利地於百濟. 文周王圖復其國. 淵案 久麻那利 未詳何地. 想是任那境土 而屬於日本者也. 特文周王父蓋鹵王 爲句麗所殺 故使文周 移都熊津 而圖復故地. 日本置司戍兵 徵調納款. 被其保護 以抗新羅. 日本史云 神功皇后庚辰冬十月 后爲男裝 誓師而發. 冬十月 至新羅. 新羅主婆娑寐錦出降. 命納質子 申盟約徵金帛八十艘 遂爲歲貢定額. 高麗 · 百濟竝望風歸款 乃置司戍兵 振旅而還.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공황후 섭정 49년〈신라 첨해왕 2년〉 이보다 앞서서 신라가 백제의 공물을 서로 바꾸어 바쳤다. [황태후가] 신라의 사신을 나무라며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꾸짖었다. 이에 이르러 아라타와케[荒田別] 등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도와 신라를 토벌하여 깨뜨렸다. 드디어 임나7국

을 정하여 백제에 보태어 내려주었다.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흠명천황(欽明天皇) 16년(554년)〈신라 진흥왕 개국(開國) 4년〉에 백제왕 성명(聖明)이 신라에 죽임을 당하자〈전 해에 백제 성왕(聖王)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신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왕자 여창(餘昌)이 동생 혜(惠)를 보내어 와서 죽음을 알렸다. 다음 해에 혜(惠)가 돌아가는 편에 번(藩)이 병사와 지팡이, 말을 내려주면서 병사를 일으켜 호송하고 츠쿠시[筑紫] 대군(大君)을 따로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미저진(彌抵津)을 지키게 하였다. 얼마 안 있어 여창(餘昌)을 세웠다. 『여지승람』에서 말하기를 미조항진(彌助項津)은 거제군(巨濟郡) 남쪽에 있다고 하고, 또 가야산(伽耶山)은 군(郡)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 [『여지승람』에서] 말하기를 합천군(陜川郡)은 본래 신라의 대야성(大耶城)이라 하였다.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해왕 13년(208년) 가을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락(駕洛) 침범을 꾀하였다. 왕이 태자 우로(于老)에게 명해 병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다.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시 대가야라는 나라는 지금[대한제국]의 고령, 합천의 땅에서 처음 일어나 조금씩 소국을 병탄하여 강토가 매우 커졌으므로 대가야라고 하였다. 신공황후가 임나7국을 정하였다는 말은 아마도 곧 포상팔국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면 그 강토가 쪼개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저진(彌抵津)은 곧 미조항(彌助項)이다. 거제(巨濟) 역시 임나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반드시 병사로써 지켜서 백제를 호위해야 했다. 또 그 땅에 가야산이 있는데 어찌 대가야로 인하여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역사[東史]에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耶)라고 하였으니 또한 임나의 속국이었다.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웅략천황(雄略天皇) 21년(477년)〈신라 자비왕 19년)〉 쿠마나리[(久麻那利; 久麻=쿠마=코마=곰=熊+那利=나리=나루=津), 곰나루=웅진(熊津)] 땅을 백제에 내려주었다. [그래서] 문주왕(汶洲王)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나(장지연)은 이렇게 생각한다. 쿠마나리가 어느 땅인지 잘 모른다. 생각건대 임나의 국경으로 일본에 속한 것이다. 특히 문주왕의 아버지 개로왕이 고구려에 죽임을 당하므로 문주왕으로 하여금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도록 하여 옛 땅을 회복 하려 한 것이다. 일본이 지키는 사수병(司戍兵)을 두고 조(調)와 문서를 거두어 들였다. 그 보호를 받아 신라를 항복시켰다.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공황후(神功皇后) 경진년(200년) 겨울 10월 왕후가 남장을 하고 군대에게 맹세시켜 출발하였다. 겨울 10월에 신라에 이르렀다. 신라왕 파사매금(波沙寐錦)이 나와 항복하였다. 볼모로 들이기를 명하고 맹약하게 하고 금색 채색 비단[金帛] 80소(艄)를 거두고 드디어 해마다 일정하게 조공을 받기로 하였다. 고구려[高麗]와 백제가 함께 문서를 가지고와 귀속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수병(司戍兵)을 두어 군대를 돌려 돌아왔다.

又云 應神天皇七年〈新羅味鄒王十五年〉 百濟 · 新羅 · 任那入貢. 令武內宿禰 役韓人穿池. 池曰韓人池. 又云 雄略天皇七年〈新羅慈悲王五年〉 以吉備田狹爲任那國司. 又遣其子弟君 伐新羅 奪其妻.田狹據任那反. 又云 明年 高麗與新羅相攻. 新羅乞援於任那日本府. 府帥遣兵 大破高麗兵. 又云 繼體天皇二年〈新羅智證王五年〉 遣使百濟 檢其民逃在任那者 令歸于國. 淵案 日本史 凡高麗 · 新羅 · 百濟 · 渤海諸國之通聘 皆稱入貢. 是皆撰史者自尊之語則不足據此 而便謂實有入貢之事. 然新羅初年 國勢未張 遽被神功之來伐 或有輸幣之事. 至于中葉 未必然也. 百濟三韓之最強國也. 謂其通聘則可 貢則否也. 若夫任那 其七國旣爲日本之略屬 又置司戍兵 則其勢不得不畏服日本而徵調納貢矣. 然如三浦館市之類 非任那全邦服屬也. 自是以後 或服新羅 或向日本. 竟歸新羅之轄治.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응신천황(應神天皇) 7년(276년)〈신라 미추왕 15년〉 백제·임나·신라가 조공해 왔다. 타케시우치노스쿠네[武內宿禰]에게 명하여 카라히토[한인(韓人)]들을 거느리고 못을 만들었다. 그 못을 카라비토노이케[한인지(韓人池)]라 부른다.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웅략천황(雄略天皇) 7년(463년)〈신라 자비왕 5년〉에 키비노타사(吉備田俠)를 미마나노쿠니노미코토모치[任那國司]로 삼았다. 또한 그 아들 오토키미(弟君)를 보내 신라를 치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타사[田狹]가 임나를 근거로 모반하였다.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음해 고구려[高麗]가 신라와 더불어 서로 공격하였다. 신라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구원을 청하였다. 부수(府帥)가 병사를 보내어 고구려 병사를 크게 깨트렸다. 또 [일본사에서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체천황(繼體天皇) 2년(508년)〈신라 지증왕 5년〉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에 도망해 있는 (백제) 백성을 단속하여 나라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나(장지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사에서는 고구려[高麗], 신라, 백제, 발해 등 여러 나라들의 통빙(通聘)을 모두 입공(入貢)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모두 역사를 편찬한 사람[撰史]이 스스로 높인 말이니 이것을 근거 삼기에 부족하며, 단순히 실제로 입공의 일이 있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신라 초년에 국세가 아직 확장되지 못하여 신공황후의 침략을 받고 폐백을 바친 일이 혹시 있었겠지만, 중엽에 이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백제는 삼한 중에 최강국이었다. [백제가 일본과] 통빙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공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임나가 그 7국이 이미 일본에 속하게 되었고 또 사수병을 두었다면 그 세가 부득이하게 일본에 복속하지 않을 수 없어 조(調)를 거두고 조공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삼포관시(三浦館市)의 경우와 같이 임나의 전체 나라가 복속한 것은 아니었다. 이 이후로 혹 신라에 복속하기도 하고 혹 일본을 향하기도 하다가 결국 신라의 통치로 돌아갔다.

日本史云 繼體天皇二十一年〈新羅法興王十三年〉 夏 遣近江毛野 專兵六萬 赴任那 復新羅侵地. 又云 二十三年 百濟 · 任那訴新羅背約. 遣近江毛野 和解諸蕃. 毛野綏御失 方召還之. 又云 宣化天皇二年〈法興王建元二年〉 新羅侵任那. 遣大伴金村及二子磐 · 狹手彥 援之. 狹手彥赴任那府. 又云 欽明天皇元年〈新羅眞興王元年〉 任那入貢. 二年 詔任那及百濟 謀復新羅侵地. 二十三年春〈眞興王開國十二年〉 新羅侵任那 毁我官府. 秋 新羅貢調使至 拘留之. 以紀男麻呂爲大將 率兵討新羅. 我軍不利 軍人伊企儺爲虜所擒. 三十二年春 遣使新羅 詰其滅任那狀. 夏四月 天皇不豫 召皇太子入臥內 執其手曰 朕欲征新羅復任那 不果. 汝繼朕志 死無恨. 遂崩.
일본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체천황(繼體天皇) 21년(527년)〈신라 법흥왕 13년〉 여름에 오우미노게나[近江毛野]를 보내어 병사 6만을 맡게 하여 임나로 가서 다시 신라가 침범한 땅에 쳐들어갔다. 또 이르기를 23년(529년)에 백제와 임나가 신라가 맹약을 어겼다고 하소연하였다. 오우미노케나[近江毛野]를 보내어 제번(諸蕃)을 화해시켰다. 게나[毛野]가 잘 다스리지 못하자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선화천황(宣化天皇) 2년(537년)〈법흥왕 건원(建元) 2년〉 신라가 임나를 쳐 들어갔다. 오호토모노가나무라[大伴金村]와 두 아들 이하[磐]와 사테히코[狹手彥]를 보내 도와주었다. 사테히코가 임나부(任那府)로 갔다. 또 이르기를 [흠명천황] 원년(540년)〈신라 진흥왕 원년〉임나가 입공(入貢)하였다. 2년 임나와 백제에 조서를 내려 신라가 침범한 땅을 회복할 것을 꾀하였다. [흠명천황]23년(562년)〈진흥왕 개국(開國) 12년〉봄에 신라가 임나를 쳐들어와서 우리 관부[임나부]를 없앴다. 가을에 신라의 공조사(貢調使)가 이르렀는데 붙잡아 두었다. 기노오마로[紀男麻呂]를 대장으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쳤다. 우리 군대가 불리하여 군인 이키나[伊企儺]가 사로잡혔다. [흠명천황]32년(571년) 봄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를 멸망시킨 데 대해 나무랐다. [흠명천황 32년] 여름 4월 천황이 앓아누웠다. 황태자를 병석에 불러 들여 손을 잡고 말하기 "짐이 신라를 정벌하여 다시 임나로 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네가 짐의 뜻을 잇는다면 죽어서도 한이 없겠다." 라 하고 마침내 죽었다[崩].

敏達天皇十二年〈新羅眞平王四年〉 初 我葦北國造阿利斯登 在任那府 生子日羅 居百濟. 帝聞其才 勅百濟徵之 諮以討新羅 服任那. 日羅曰 服夷之道 在培養國本. 何必動凶器事末節 爲當今之計. 上自臣連二造 下至小吏 節用薄斂 訓士敎民 結以信義 二年食給兵足然後 多造舟艦 列置海津 大張聲勢 使韓人見之 乃遣才辯士 明視恩威 召其國王 國王不來 召其太佐平王子 先服其心 而問其罪云云. 又云 崇峻天皇四年〈眞平王建福八年〉 以紀男麿 · 巨勢比良夫 · 膳賀拖夫 · 大伴齧 · 葛城烏奈良爲大將軍率兵二萬餘 屯筑紫 遣使於新羅. 新羅行成 遂復任那.
민달천황(敏達天皇) 12년(583년)〈신라 진평왕 4년〉 이보다 앞서서 우리 아시키타노쿠니노미야츠코[葦北國造] 아리시토[阿利斯登]가 임나에 있으면서 아들 니치라[日羅]를 낳았는데 백제에 머물렀다. 천황이 그의 재능이 있음을 듣고 백제에 칙령을 내려 [일본으로] 불러 신라를 치고 임나를 복속시킬 것을 물었다. 니치라가 말하기를 "오랑캐를 복속시키는 길은 나라의 근본을 배양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필이면 흉기를 움직이는 끄트머리의 일을 지금의 계

획으로 삼겠습니다. 위로는 오미[臣] · 무라지[巨連] · 도모노미야츠코[伴造] · 구니노미야츠코[國造]에서부터 아래로는 소리(小吏)에 이르기까지 쓰임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며, 선비를 가르치고 백성을 교화시키며, 신의로써 결속시키고 2년 간의 식량을 병사들에게 충분히 지급한 뒤에 군함을 많이 만들고 항구[해진(海津)]를 줄지어 두며, 명성과 위세를 크게 하여 한인(韓人)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재능 있는 자를 보내 은혜와 위엄을 분명히 보이고 그 국왕을 부르십시오. 국왕이 오지 않으면 그 태좌평(太佐平) 왕자(王子)를 불러서 먼저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 죄를 물으십시오."라 하였다.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숭준천황(崇峻天皇) 4년(591년)〈진평왕 건복(建福) 8년〉 키노오마로[紀男麻呂], 코세노히라오[巨勢比良夫], 카시와데노카타오[膳賀拖夫], 오호토모노쿠히[大伴齧], 카츠라기노오나라[葛城烏奈良]를 대장군으로 삼아 병사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츠쿠시[筑紫]에 주둔하게 하고는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가 화해를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임나를 회복하였다.

又云 推古天皇八年〈眞平王建福八十年〉 新羅侵任那. 遣境部臣等 率兵萬餘 伐新羅 拔其五城 復侵地. 旣而又叛侵任那. 十年春 以來目皇子爲征新羅將軍 率兵二萬五千 討新羅. 三十一年〈建福四十年〉 新羅復侵任那. 遣大德境部雄麻呂等 將兵伐之. 新羅降. 新羅 · 任那入貢. 又云 孝德天皇大化元年〈新羅善德王仁平十二年〉 七月 百濟 · 新羅來貢. 百濟攝任那使事 其數有闕. 詔却之. 遣栗隈東人 觀察任那國界. 二年九月 遣使徵新羅質 罷任那調. 通典云 新羅襲滅駕羅 · 任那諸國. 新羅史云 眞興王二十三年 遣異斯夫 滅大伽耶國. 淵案 新羅史滅大伽耶之年 與日本史新羅毁任那府之年 相合. 任那之爲大伽耶 無疑. 而曰皇至以任那之未復 臨死遺恨. 至崇峻四年 雖與新羅行成 而暫復任那. 然而旋復旋侵 不復服屬於日本 故使百濟攝其使事. 至孝德二年 竟罷其調 而永歸新羅者也.
또 이르기를 추고천황(推占天皇) 8년(600년)〈진평왕 건복(建福) 8년(600년)〉 신라가 임나에 쳐들어갔다. 사카히베노오미[境部臣] 등을 보내 병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쳐서 그 다섯 성을 빼앗고 [신라가] 침범한 땅을 회복하였다. [신라가] 또 배반하여 임나에 쳐들어갔다. [추고천황]10년(602년) 봄에 쿠메노미코[來目皇子]를 정신라장군(征新羅將軍)으로 삼아 병사 2만 5천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 [추고천황]31년(623년)〈건복40년〉신라가 다시 임나에 쳐들어갔다. 다이토쿠[大德]의 사카히베(境部臣)오마로(雄摩侶) 등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신라가 항복하였다. 신라와 임나가 입공(入貢)하였다. 또 이르기를 효덕천황(孝德天皇) 다이카[大化]원년(645년)〈신라 선덕왕 인평(仁平) 12년〉7월 백제와 신라가 조공해 왔다. 백제의 섭임나사사(攝任那使事)의 수가 모자람이 있어 조서를 내려 없애버렸다. 쿠루쿠마노아즈마히토[栗限東人]를 보내 임나국의 경계를 관찰(觀察)하였다. [다이카]2년(646년) 9월에 사신을 보내어 신라의 볼모를 징수하는 대신 임나의 조(調)를 없앴다. 『통전』에 이르기를 신라가 가라(駕羅)와 임나제국(任那諸國)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신라사』에 이르기를 진흥왕 23년(562년)에 이사부(異斯夫)를 보내 대가야국을 멸망시켰다. 나 장지연[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신라사』에 대가야국을 멸망시킨 해는 일본사에서 신라가 임나부를 없앤 해와 서로 합치되므로 임나가 대가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황(日皇)이 임나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한을 남겼고, 숭준(崇峻) 4년(591년)에 비록 신라와 화해를 행하여 잠시 임나를 회복하였지만, 회복하였다가 침범당하여 다시 일본에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백제로 하여금 그 사사를 맡게 하였고, 효덕(孝德) 2년에 결국 그 조(調)를 없애고 영원히 신라에 귀속시켰던 것이다.

25년경 한韓, 한漢군현과 외교하다

사료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建武之初 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肜威讋北方 聲行海表. 於是 濊 · 貊 · 倭 · 韓 萬里朝獻. 故章 · 和已後 使聘流通. 逮永初多難 始入寇鈔 桓 · 靈失政 漸滋曼焉.

건무(25~56년) 초에 다시 조공해 왔다. 이때 요동태수 제팽이 북방을 위협하고 밖으로 진출하였다. 이 해에 맥 · 왜 · 한이 만리 밖에서 조공하였다. 따라서 장제(章帝) · 화제(和帝) 이후에 사절을 교환해 통하였다. 영초(107~113년) 연간에 이르러 다난해지자 침범해 노략질하기 시작했으며 환제(桓帝) · 영제(靈帝)가 실정하자 [같은 일이] 점차 번성하고 만연하게 되었다.

42년 수로왕 가락국을 건국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가락국 | 『三國遺事』 卷一 王曆 駕洛國**

後漢光虎〈武〉帝 建虎乙酉三十一 駕洛國〈一作伽耶 今金州〉 首露王〈壬寅三月卵生 是月卽位理一百五十八年. 因金卵而生 故姓金氏 開皇曆載〉

후한 광호〈무〉제 건호 을유 31년 가락국(駕洛國)〈또는 가야(伽耶)로도 짓는데 지금의 금주(金州)이다〉 수로왕〈임인 삼월에 알에서 태어났다. 이 달에 즉위하여 158년을 다스렸다. 금란(金卵)에서 태어난 까닭에 성을 김씨로 했다. 『개황력(開皇曆)』에 실려 있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駕洛國記〈文廟朝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 · 五刀干 · 留水干 · 留天干 · 五天干 · 神鬼干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一百戶 七萬五千人. 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飮 耕田而食. 你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裹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裹著 抱持而歸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顔如龍焉則漢之高祖 眉之八彩則有唐之高 眼之重瞳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爲國尾 俾創假宮而人御 但要質儉 茅茨不剪 土階三尺.

「가락국기」〈(고려)문종조 대강(大康) 연간(1075~1085년)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 문인이 찬하였다. 지금 줄여서 싣는다〉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이 땅에는 아직 국호와 군신의 칭호가 없었는데, 아도간(我刀干) · 여도간(汝刀干) · 피도간(彼刀干) · 오도간(五刀干) · 유수간(留水干) · 유천간(留天干) · 신천간(神天干) · 오천간(五天干) · 신귀간(神鬼干) 등의 구간(九干)이 있게 되었으니 이들은 추장(酋長)으로서 1백호 7만 5천인 정도의 백성을 영도하여 그 대부분이 산과 들에 거주하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浴之日 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 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玆故降矣.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42년) 임인 3월의 계욕일(禊浴日)에 북쪽의 구지(龜旨)〈이는 봉우리를 칭하는 말로 거북이 엎드린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음에서 연유된 말이다〉에 소리 높여 부르는 듯한 특별한 소리와 기운이 있었다. 이 삼백인의 무리가 여기에 모이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는 소리만 들렸다. 구간(九干) 등이 "저희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다. "구지(龜旨)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다시 말하기를 "하늘(皇天)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나라를 이루고 임금이 되기 위하여 내려왔노라."고 하였다.

你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裹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裹著 抱持而歸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顔如龍焉則漢之高祖 眉之八彩則有唐之高 眼之重瞳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謚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爲國尾. 俾創假宮而入御 但要質儉 茅茨不剪 土階三尺.

[九干을 비롯한] 너희들은 봉우리를 파고 흙을 모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 대왕(大王)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타내어라 하였다. 구간 등이 같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랏빛의 새끼줄이 땅에 내려졌다. 그 줄의 아래를 살펴보니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궤(金櫃)가 있었다. 이를 열어 보니 황금알 여섯이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무리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백배를 올렸다. 금궤를 다시 조심스럽게 덮어서 안고 아도(我刀)의 집으로 가서 평상위에 모셔 두고 그 무리는 각기 해산하였다. 12시간이 지나 다음날 동 틀 무렵 무리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었더니 여섯 알이 사내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심히 훌륭하였다. 곧 평상에 앉으니 무리들이 절하여 하례하고 공경을 다하였다. 나날이 성장하여 십여 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 되었으니 은(殷)의 천을(天乙)을 닮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漢) 고조(高祖)를 닮았으며, 눈썹이 여덟 빛깔로 당(唐)의 고(高; 堯) 임금을 닮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우(虞)의 순(舜) 임금과 닮았다. 그 달 보름에 즉위하였다. 처음 나타난 까닭에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였으며 또는 수릉(首陵)〈수릉은 돌아 간 뒤의 시호이다〉, 나라를 대가락(大駕洛)이라 칭하였는데 또는 가야국(伽耶國)으로도 칭하였으니 곧 6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5인은 각각 돌아가 5가야(五伽耶)의 임금(主)이 되었다. 동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은 푸른 바다, 서북은 지리산(地理山), 동북은 가야산(伽耶山), 남쪽을 나라의 끝으로 삼았다. 임시 가궁(假宮)을 짓게 하여 들어가 다스렸다. 다만 질박하고 검소함을 구할 따름으로 이엉을 고르게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된 계단은 3척이었다.

사료3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壬寅 漢 建武十八年 新羅 儒理王十九年 高句麗 大武神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十五年〉 春三月旣望 駕洛國始祖金首露立. 初駕洛有九干 曰我刀 曰汝刀 曰彼刀 曰五刀 曰留水 曰留天 曰神天 曰神鬼. 各總其衆 爲酋長. 凡戶百口七萬五千. 聚居山野 耕鑿食飮 無君臣之號. 九干修屬禊事 適見龜峯 有異氣. 且於空中 若有數百人呼九干語曰 皇天命我莅玆土建邦家 若等宜歌龜首之曲 迎之. 九干如其言 俄而天降金合. 開視之. 有六金卵. 不日皆化爲男 寄偉長大. 貌類古聖人. 衆皆驚異 推立始生者爲王. 因金卵而生 故姓金氏 始現故名首露 國號大駕洛 又稱伽耶. 餘五人各爲五伽耶主.曰阿羅伽耶 曰古寧伽耶 曰大伽耶 曰星山伽耶 曰小伽耶. 駕洛後改稱金官國.

〈임인[년](42년) 한(漢) 건무 18년, 신라 유리왕 19년, 고구려 대무신왕 25년, 백제 다루왕 15년〉 봄 3월에 가락국 시조 김수로가 즉위하였다. 처음에 가락(駕洛)에 구간(九干)이 있어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신귀(神鬼)[오천(五天) 탈락] 등은 각각 그 무리들을 다스리며 추장(酋長)이 되었다. 무릇 호(戶)는 1백에 인구(人口)가 7만 5천이었다.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셨는데 군신의 칭호가 없었다. 구간이 목욕제계의 행사를 벌이다 구봉(龜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또 공중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간들을 부르는 것처럼 말하기를 "하늘(皇天)이 나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명령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수곡(龜首曲)을 부르며 맞이하라."고 하였다. 구간들이 그 말과 같이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금합(金合)이 내려왔다. 그것을 열어보니 여섯의 금알(金卵)이 있었다. 하루가 되지 않아 모두 남자로 변하였다. 매우 훌륭하고 장대하여 용모가 옛 성인과 닮았다. 무리가 모두 놀라 처음 태어난 자를 왕으로 추대하여 세웠다. 금알(金卵)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성을 김씨(金氏)라 했으며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首露)라 했다. 국호를 대가락(大駕洛)이라 칭하고 또한 가야(伽耶)로도 칭했다. 나머지 5인은 각각 5가야(五伽耶)의 임금(主)이 되었으며, 아라가야(阿羅伽耶) · 고녕가야(古寧伽耶) · 대가야(大伽耶) · 성산가야(星山伽耶) · 소가야(小伽耶)라고 했다. 가락(駕洛)은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개칭하였다.

사료4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壬寅 漢 建武十八年 新羅 儒理王十九年 高句麗 大武神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十五年〉 春三月 駕洛國始祖金首露立. 初駕洛有九干 曰我刀 曰汝刀 曰彼刀 曰五刀 曰留水 曰留天 曰神天 曰神鬼 曰五天 各總其衆 爲酋長. 聚居山野 無君臣位號. 九干修禊事 適見龜峯 有異氣. 且聞空中語 就得金合 開視之 有六金卵 不日皆化爲男 寄偉長大. 衆皆驚異 推立始生者爲王. 因金卵 姓金氏 以始見 名首露. 國號大駕洛 又稱伽耶. 餘五人各爲五伽耶主. 曰阿羅伽耶 曰古寧伽耶 曰大伽耶 曰星山伽耶 曰小伽耶. 駕洛後改稱金官.

〈임인년(42년) 한(漢) 건무 18년, 신라 유리왕 19년, 고구려 대무신왕 25년, 백제 다루왕 15년〉 봄 3월 가락국 시조 김수로가 즉위하였다. 처음에 가락(駕洛)에 구간(九干)이 있어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신귀(神鬼) · 오천(五天) 등은 각각 그 무리들을 다스리며 추장(酋長)이 되었다.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셨는데 군신의 칭호가 없었다. 구간이 목욕제계의 행사를 벌이다 구봉(龜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또 공중에서 말이 들려 나아가 금합을 얻어 그것을 열어보니 여섯의 금알(金卵)이 있었는데, 하루가 되지 않아 모두 남자로 변하였다. 매우 훌륭하고 장대하여 무리가 모두 놀라 처음 태어난 자를 왕으로 추대하여 세웠다. 금알(金卵)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성을 김씨(金氏)라 했으며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首露)라 했다. 국호를 대가락(大駕洛)이라 칭하고 또한 가야(伽耶)로도 칭했다. 나머지 5인은 각각 5가야(五伽耶)의 임금(主)이 되었으니, 아라가야(阿羅伽耶) · 고녕가야(古寧伽耶) · 대가야(大伽耶) · 성산가야(星山伽耶) · 소가야(小伽耶)라 했다. 가락(駕洛)은 뒤에 금관(金官)으로 개칭하였다.

사료5 **『동국사략』 권1 삼국 | 『東國史略』 卷一 三國**

駕洛國〈卽今金海府始祖金首露〈漢建武十九年〉. 初九干酋長〈駕洛無君臣位號 九干各總衆 爲酋長〉 得金盒於龜峯. 開視之 有六金卵. 皆化爲男 寄偉長大. 衆推始生者爲主. 姓金氏〈因金卵爲姓〉 以始見名首露. 國號大駕洛〈又稱伽倻〉. 餘五人各爲五伽耶主〈曰阿羅伽倻 曰古寧伽倻 曰大伽倻 曰星山伽倻 曰小伽倻. 駕洛後改金官〉. 駕洛國王金仇衡 降于新羅. 駕洛亡〈自始祖至亡 凡十王 總五百二十年〉

가락국(駕洛國)〈곧 지금의 김해부(金海府)이다〉 시조는 김수로(金首露)이다.〈한(漢) 건무 19년(42년)〉 처음에 구간(九干) 추장(酋長)〈가락에는 군신의 이름이 없었으며 구간이 각각 무리를 다스리며 추장이 되었다〉이 구봉(龜峯)에서 금합을 얻어 열어 보니 여섯의 황금알이 있었다. 모두 남자로 변했는데 매우 훌륭하고 장대하였다. 무리가 처음 태어난 자를 임금(主)으로 삼았는데 성이 김씨(金氏)였다〈금알을 성으로 삼았다〉 처음 나타난 까닭에

이름을 수로(首露)라 했다. 국호를 대가락(大駕洛)〈또는 가야(伽倻)라 칭했다〉이라 했다. 나머지 5인은 각각 5가야의 임금(主)이 되었다.〈아라가야(阿羅伽倻), 고녕가야(古寧伽倻), 대가야(大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 소가야(小伽倻)라 했는데 가락(駕洛)은 후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가락국왕 김구형(金仇衡)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가락이 멸망하였다〈시조부터 망할 때까지 모두 10왕 520년이었다〉

사료6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김해도호부 | 『慶尙道地理志』 晋州道 金海都護府**

【金海都護府】古之駕洛國. 一云伽倻國 又云金官國. 後漢光武建武壬寅 始祖首露王始立國號. 十世金仇亥王 降于新羅. 法興王禮待之. 以本國爲食邑 稱金官郡. 文武王二十年 置金官小京.

【김해도호부】 옛날의 가락국(駕洛國)이다. 가야국(伽倻國)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관국(金官國)이라고 하였다. 후한 광무제 건무(建武) 임인(42년)에 시조 수로왕(首露王)이 비로소 나라 이름을 정했다. 10세 김구해왕(金仇亥王)이 신라에 항복하자 법흥왕이 예로써 대우하여 본국을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 20년(680년)에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土姓】金庾信 金官國仇亥王之曾孫. 仕於新羅 位至太大角干 統合三韓 皆庾辰之力也. 德藝功業載在羅記.

【토성(土姓)】 김유신(金庾信)은 금관국 구해왕의 증손이다. 신라에 벼슬하여 관등이 태대각간(太大角干)에 이르렀다. 삼한을 통합한 것이 모두 유신의 힘이었다. 덕과 재주, 공로와 업적이 신라의 기록[羅記]에 실려 있다.

靈異之跡. 駕洛國首露王傳云 開闢之後 此地未有國號 亦無君臣有 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 · 五方干 · 留水干.留天干 · 神天干 · 五天干 · 神鬼干等 九千爲長 率百姓 凡七萬五千餘家. 後漢光武建武壬寅三月 禊浴之日 所居北龜旨峯 有非常聲氣. 衆庶會見. 紫繩自天垂而著地 尋見有紅幅裏金大榼. 開覩黃金卵 其圓如日.衆驚喜 持歸我刀干家 置榻上. 翌日 其卵剖折 化爲十五歲許神童 容貌甚偉. 十餘日 身長九尺 龍顔眉八彩目重瞳. 是月望卽位 諱首露. 愛民如子 不肅而敎成 不嚴而政治. 後漢獻帝建安四年己卯 殂落 壽一百五十八. 妃許氏. 漢光武建武甲辰 浮海而來. 自云南天竺國公主 姓許 名黃玉. 漢靈帝建平戊寅 薨壽一百五十七. 伽倻國嘉悉王 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之律. 命于勒製其曲. 及國亂 于勒操樂器 授新羅. 今之伽倻琴 是也.

신령스럽고 이상한 흔적[靈異之跡]. 가락국 수로왕전(首露王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개벽이후 이 땅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었고 임금과 신하 또한 없었다.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방간(五方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 등 9간(干)이 우두머리가 되어 백성을 다스렸는데, 모두 7만 5천여 가(家)였다. 후한 광무제 건무(建武) 임인(42년) 3월 계욕의 제사[禊祭]를 지내는 날에 마을 북쪽의 구지봉(龜旨峯)에서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있었다. 무리들이 모여서 보니 자줏빛 끈이 하늘로부터 드리워 땅에 닿아 있었고, 얼마 후 붉은 보자기로 싼 금색의 커다란 상자[金大榼]가 있는 것이 보였다. 열어서 보니 황금 알인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무리들이 놀랍고도 기뻐하며 [알을] 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놓았다. 다음 날 그 알이 쪼개지면서 열다섯 살쯤 되는 신동(神童)이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훌륭했다. 십여 일만에 신장이 아홉 자가 되었는데, 얼굴은 용과 같고 눈썹은 여덟 빛깔을 띠었으며 눈동자는 겹으로 되었다. 이 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이름[諱]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다.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엄숙하지 않게 하여도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정사가 잘 다스려졌다. 후한 헌제 건안 4년 기묘(199년)에 돌아가니 나이가 158세였다. 왕비 허씨(許氏)는 한 광무제 건무 갑진(20년)에 바다를 건너 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남천축국(南天竺國)의 공주로 성은 허씨(許氏)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라고 했다. 한 영제 건평 무인[년]에 돌아가니 나이는 158세였다.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이 열두 줄의 가야금[琴]을 만들어 열두 달의 음율을 상징하고, 우륵(于勒)에게 명하여 그 곡을 짓도록 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우륵이 악기를 가져다 신라에 주었으니, 지금의 가야금이 이것이다.

사료7 **『고려사』**권57 지리2 경상도 금주 | **『高麗史』**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金州

金州本駕洛國. 新羅儒理王十八年, 駕洛之長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等九人 率其民禊飮 望見龜旨峯 有非常聲氣. 就視之 有金榼 自天而降 中有金色卵 圓如日輪. 九人拜而神之 奉置我刀干家. 翼日 九人咸會 開榼而視 有一童子 剖殼而生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盡禮.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是月望 九人遂奉以爲主 卽首露王也. 國號駕洛 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卽位一百五十八年 薨 至九代孫仇亥 齎國帑寶物 降于新羅. 自首露以後 居登王 · 麻品王 · 居叱彌王 · 伊尸品王 · 坐知王 · 吹希王 · 銍知王 · 鉗知王 至仇亥王〈亥 三國遺事駕洛國記 作衡〉. 有國 凡四百九十一年 新羅法興王 旣受降 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 置金官小京. 景德王 爲金海小京. 首露王墓〈在州西〉.

금주(金州)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신라 유리왕(儒理王) 18년(42년)에 가락의 우두머리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상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해처럼 둥근 금색 알이 있었다. 아홉 사람이 절하고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기어 아도간의 집에 받들어 모셨다. 다음 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그릇을 열어서 보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경하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내아이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 이 달 보름날에 아홉 사람이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나라 이름을 가락(駕洛)이라 하고 또는 가야(伽倻)라고 불렀으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에 이르며 서남쪽은 바다와 만나고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삼았다. [수로왕은] 즉위한 지 158년 만에 죽었다[薨]. 9대손인 구해(仇亥)에 이르러 국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수로왕으로부터 거등왕(居登王), 마품왕(麻品王), 거질미왕(居叱彌王), 이시품왕(伊尸品王), 좌지왕(坐知王), 취희왕(吹希王), 질지왕(銍知王), 겸지왕(鉗知王) 이후 구해왕〈해(亥)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형(衡)으로 되어 있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있은 지 모두 491년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항복을 받은 뒤 [구해왕을] 객례(客禮)로써 대우하여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경덕왕이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삼았다. 수로왕묘(首露王墓)〈주(州)의 서쪽에 있다〉

사료8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金海都護府 本駕洛國後. 漢 光武皇帝 建武十八年壬寅 駕洛之長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等九人率其民禊飮 望見龜旨峯 有非常聲氣 就視之 有金榼自天而降 中有金色卵 圓如日輪. 九人拜而神之 奉置我刀干家. 翼日 九人咸會開榼而視 有一童子剖殼而生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盡禮. 童子日日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是月望 九人遂奉以爲主 卽首露王也. 國號駕洛 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 其國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卽位一百五十八年 以獻帝 建安四年己卯薨. 至九代孫仇亥王以梁 武帝 中大通四年壬子 齎國帑寶物 降于新羅. 自首露至仇衡有國 凡四百九十一年. 新羅 法興王旣受仇亥降 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始置金官小京 景德王改爲金海小京. 高麗 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金海府 後降爲臨海縣 又陞爲郡. 成宗十四年乙未 改爲金州ˊ安東都護府. 顯宗三年壬子 降爲金州防禦使 元宗十一年庚午 以防禦使金晅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陞爲金寧都護府 仍擢晅爲都護以鎭之. 忠烈王三十四年戊申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 首露王宮殿遺基在府內 墓在府西大歧里.〈距府三百步〉

김해도호부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후한(後漢) 광무황제 건무 18년 임인(42년)에 가락의 우두머리 아도간(我刀干) · 여도간(汝刀干) · 피도간(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을 이끌고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하늘에서 내려 온 금 상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해처럼 둥근 금색 알이 있었다. 아홉 사람이 절하고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기어 아도간의 집에 받들어 모

셨다. 다음 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상자를 열어서 보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경하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내아이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 이 달 보름날에 아홉 사람이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나라 이름을 가락(駕洛)이라 하고 또는 가야(伽倻)라고 불렀으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그 나라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에 이르며, 서남쪽은 바다와 만나고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삼았다. [수로왕은] 즉위한 지 158년, [후한] 헌제 건안 4년 기묘(199년)에 돌아갔다. 9대 손인 구해(仇亥)에 이르러 양(梁) 무제 중대통 4년 임자(532년)에 국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수로로부터 구형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있은 지 모두 491년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구해의 항복을 받은 뒤 객례(客禮)로써 대우하여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文武王)이 처음으로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경덕왕(景德王)이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 23년 경자(940년)에 김해부(金海府)로 고쳤다. 뒤에 임해현(臨海縣)으로 강등시켰다가 다시 군으로 승격시켰다. 성종 14년 을미(995년)에 금주 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쳤다. 현종 3년 임자(1012년)에 금주방어사(金州防禦使)로 내렸다. 원종 11년 경오(1270년)에 방어사(防禦使) 김훤(金晅)이 밀성(密城)의 난을 평정하였고, 또 삼별초를 막는데 공이 있었으므로 금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김훤을 발탁하여 도호(都護)로 삼아 진무하게 하였다. 충렬왕 34년 무신(1308년)에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 경술(1310년)에 모든 목(牧)을 없애면서 다시 김해부(金海府)로 삼았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두었다가, 태종 13년 계사(1413년) 예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다. 수로왕 궁전의 남은 터가 부(府) 안에 있다. [수로왕]묘는 부 서쪽의 대기리(大岐里)에 있다. 〈거리는 부에서 300보이다〉

사료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建置沿革】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 至仇亥王 凡十世 四百九十一年. 仇亥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高麗太祖降爲府 後又降爲臨海縣 未幾陞爲郡. 成宗改金州安東都護府. 顯宗降爲防禦使. 元宗以防察使金晅 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擢晅爲都護以鎭之. 忠烈王二年以殺按廉使劉顥 降爲縣 後陞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太宗朝改爲都護府. 世祖朝置鎭.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혹은 가야(伽倻)라고도 했는데,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으로부터 구해왕(仇亥王)에 이르기 모두 10대, 491년이었다.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식읍을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가 강등시켜 부(府)로 삼았다. 뒤에 또 강등하여 임해현(臨海縣)으로 삼았다가 머지않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성종이 금주 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쳤다. 현종이 강등시켜 [금주]방어사로 삼았다. 원종(元宗)은 방어사(防禦使) 김훤(金晅)이 밀성(密城)[현재의 경남 밀양시]의 난을 평정하였고 또 삼별초(三別草)를 물리치는데 공이 있었으므로 승격시켜 금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삼고 김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주둔하게 하였다. 충렬왕 2년(1276년) [이곳 사람들이] 안렴사(按廉使) 유호(劉顥)를 죽였으므로 강등하여 현으로 삼았다. 뒤에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1310년) 여러 목(牧)들을 없앨 때 다시 김해부가 되었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두었다가 태종 때 [김해]도호부로 고쳤다. 세조 때 진(鎭)을 설치하였다.

【郡名】駕洛伽倻金州金官臨海金寧盆城.

【군명(郡名)】은 가락(駕洛), 가야(伽倻), 금관(金官), 임해(臨海), 금주(金州), 금녕(金寧), 분성(盆城)이었다.

【形勝】古伽倻之虛.〈鄭夢周山城記.〉
【형승(形勝)】 옛 가야 터이다.〈정몽주(鄭夢周)의 「산성기(山城記)」가 있다〉

【山川】龜旨峯〈在府北五里. 後漢光武建武十八年三月 駕洛九千我刀 · 汝刀 · 彼刀 · 五刀 · 留水 · 留天 · 神天 · 五天 · 神鬼等 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繩係金盒而下. 開視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九人咸會又開視 六卵剖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身長九尺. 衆途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生于金盒 因姓金氏 國號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 餘五人各歸爲五伽倻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海隅 西北以智異山 東北以伽倻山爲境. 首露王在位一百五十八年薨 次居登 次麻品 次居叱彌 次伊尸品 次坐知 次吹希 次銍知 次鉗知 次仇亥 相繼爲王. 有國凡四百九十一年. 五伽倻 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 咸安爲阿那伽倻 咸昌爲古寧伽倻〉
【산천(山川)】 구지봉(龜旨峯)〈부의 북쪽 3리에 있다. 후한(後漢) 광무제 건무 18년(42년) 3월에 가락의 9간(干)인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오천(五天) · 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하다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合]를 매달고 내려왔다. [상자를]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금색 알을] 받들어 아도의 집에 두고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열어서 보니 여섯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 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금빛상자[金盒]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야(伽倻)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가야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으로, 서남쪽은 바다로,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으로,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으로 경계로 삼았다. 수로왕이 15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고 다음은 거등(居登), 마품(麻品), 거질미(居叱彌), 이시품(伊尸品), 좌지(坐知), 취희(吹希), 질지(銍知), 겸지(鉗知), 구해(仇亥)가 서로 이어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있은 지가 모두 491년이었다. 5가야는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이 아나가야(阿那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倻)가 된다〉

【宮室】會老堂〈在府城北.弘治辛亥 邑之父老建. 金馹孫記 堂以會老名者 鄕黨父老之 所會也. 會之荷爲.飮射讀法無非會也.堂在府城之北 前十年間 府人金順孫 因故趾而建焉.自祖宗朝 建議留鄕者非一 旣設而罷 尋復而又廢. 飮射讀法等事 朝廷非不留意 而鄕黨無有任擧者 堂爲巋然之空舍矣. 歲己酉春 朝廷慮鄕俗之不古 特復留鄕所立鄕正而定令 州府五員 郡四員 縣三員 各推邑之望 以任其責. 金海府也 前義城縣令金先生係錦 前靑山縣監白啓英 前引儀裵炯 前參軍宋叔亨 與吾從兄進士金伯堅 實備五員之數皆一府之望也. 鄕有公事 皆於是堂會議焉.
【궁실(宮室)】 회로당(會老堂)〈부성(府城)의 북쪽에 있다〉은 홍치(弘治) 신해년(성종 22년, 1491년)에 읍의 부로(父老)들이 건립하였다. 김일손(金馹孫)의 「기문(記文)」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堂)을 회로(會老)라 이름한 것은 향당(鄕黨) 부로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향음(鄕飮)과 사어(射御) · 독법(讀法)이 모임 아닌 것이 없다. (회로)당은 (김해)부 성의 북쪽에 있는데, 10년 전에 (김해)부 사람 김순손(金順孫)이 옛 터에 건립한 것이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유향소(留鄕所)를 건의한 것이 한번 뿐이 아니었으나, 설치했다가는 파하고, 곧 복구하였다가는 또 폐지하였다. 음사(飮射)의 독법(讀法) 등의 일은 조정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향당(鄕黨)에서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당(堂)은 우뚝하나 빈집이 되어버렸다. 기유년(1489년, 성종 20년) 봄에 조정에서 시골 풍속[鄕俗]이 옛날과 같지 않음을 우려하여 특별히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고 향정(鄕正)을 세워 령(令)을 정하였다. 주(州)와 부(府)에는 다섯 명, 군(郡)에는 네 명, 현

(縣)에는 세 명으로 하고, 각각 온 고을에서 명망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책임을 맡겼다. (김해)부는 전 의성현령(前義城縣令) 김계금(金係錦), 전 청산현감(前青山縣監) 백계영(白啓英), 전 인의(引儀) 배형(裵炯), 전 참군(參軍) 송숙형(宋叔亨)과 나의 종형인 진사(進士) 김백견(金伯堅)이 다섯 명의 정원을 채웠는데, 모두 부(府) 전체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로 고을에 공사가 있으면 다 같이 당(堂)에 모여 의논하였다.

府故駕洛之墟 始祖首露王墓 在今西郭門之外 官禁樵木 故事父老具時羞 修祀事 既徹 鄉人共餕 歲以爲常.予 金海人也. 先世相傳 以爲系出首露 而遠不可詳 每過陵下 嫌於郭崇韜之拜子儀 而不敢自附. 然猶隨鄉人之後列 陳俎豆 去年冬 予自道州田墅而來 適值鄉人祭峻之日 大會於是堂. 予趨拜父老於堂下 金先生迎謂予曰 此吾鄉人之俗也. 相因已久 不奈有妨於故義乎. 予對日 何妨. 自古帝王有功德者繼世之後 其土民 莫不立祠 雜出於傳記 如堯舜大禹廟 尚矣. 後世漢之高祖 · 光武蜀先主皆有廟 齊民有祈焉 有告焉. 得以祀之 雖不應經文 而邦人所以懷不盡之思 · 起千載之敬 在所不禁也. 嘗考首露王 於後漢建武十八年開國 傳四百年 十一世 至末王仇亥 降入新羅 國除至今千有餘年 王迹熄矣 餘澤渴矣. 鄉人猶薦䭲芬不怠者 盖首露吾鄉生民之始王 追而報之 不容已者 此固吾鄉之善俗 宜吾鄉之世守也. 先生曰 善 國家復留鄉 欲善鄉俗. 子以此爲吾鄉之善俗 則此會也 於此堂 爲有光矣. 吾既以會老名子當記之. 予起而復曰 今日會此堂者 皆父兄宗族而匪他 其所以講睦者 宜無不至 第一鄉 必有一鄉之俗 而鄉俗因循 有善有不善者 其善者 雖不出於國家之典 而不可去 其惡者 雖自來舊習 而決不可存 率一驾之子弟化於善 戒菸惡 非父老之責乎. 今留鄉 卽古之鄉大夫 三物八刑 所以教而糾者 自有其事 其 或父而不父 子而不子 兄而不兄 弟而不弟 夫而不夫 婦而不婦 不睦者 不婣者 下許上者 吏漁民者 皆在所察提撕焉 警覺焉 其甚者 告于有司 驅一鄉之善 反吾鄉於撲散之後 熙熙 爲首露氏淳厖之俗 然後還就此堂. 把一盃酌大平之春 則非徒一鄉之幸 乃國家之幸也. 前府使李公蓀 曾充墓田之資 今府使金公義亨 又是吾鄉之人 凡所以善吾俗者 父老方屬望焉. 先是金兄伯堅 營齋室五架於堂之西夾 有田以供祭用 有室以致其齋敬 而將之以黍稷 首露能不享乎. 祭而飲 父老能無樂乎. 白首他年 吾亦爲此堂之老矣. 途作延神歌 以與父老 歌曰 紫綴墮地兮 垂統綿綿 九宇無主兮 有隕自天 海上定鼎兮 垂四百年 編戶居民 曰昪雲遠孫 歲時報事兮 父老駿奔 神鴉啼散兮 古木荒原 籩豆靜嘉兮 黍稷其芬 簫鼓鳴兮 不見不聞神之來兮 如雲 醉飽洋洋兮 何不福我元元 我民受賜兮 於以樂康 鶴髮鬖鬖兮 鳩杖鏘鏘 歌舞年年兮 其永無疆〉

[김해]부는 옛 가락(駕洛)의 유허이다. 시조 수로왕(首露王) 묘가 지금[조선] 서쪽 문 밖에 있으며, 관에서 [사람들이] 나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옛날부터 부로(父老)들이 때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고을 사람들이 함께 음복하기를 해마다 상례로 하였다. 나는 본관이 김해이다. 선대에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세계(世系)가 수로(首露)에게서 나왔다고 하지만, 너무 멀어 밝힐 수 없다. 능 아래를 지날 때마다 곽숭도(郭崇韜)가 자의(子儀)에게 절하던 것과 같을까 꺼려져서 감히 스스로 엮히지 못하였지만, [제사 때는] 고을 사람들의 뒤를 따라 조두(俎豆)를 진설하였다. 작년 겨울에 내가 도주(道州)[경북 청도군]의 농막에서 오는데 마침 고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날이어서 이 당(堂)에 많이 모여 있었다. 내가 당 아래에서 부로들께 절하니 김계금 선생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고을 사람들의 풍속이다. 전해 내려온 지도 오래 되었는데, 옛 도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셨다. 내가 대답하기를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제왕으로서 공덕 있는 사람은 세대가 끊긴 뒤로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기(傳記)에도 가끔 나오는데, 요순(堯舜)과 대우(大禹)의 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후세에 한나라의 고조(高祖)와 광무(光武), 촉(蜀)의 선주(先主)도 모두 사당이 있어서 백성들이 기원하거나 알릴 일이 있으면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경문(經文)에는 맞지 않지만 나라 사람들이 더할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천재(千載)의 공경을 일으키는 것은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수로왕에 대해 살펴보니, 후한 건무(建武) 18년(42년)에 개국하였고 400년에 11세를 전하여 마지막 왕 구해(仇亥)에 이르러 신라 영토에 들어간 지 지금 천여 년입니다. 왕의 흔적은 사라지고 남긴 은택도 없어졌지만 고을 사람들이 오히려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태만하지 않는 것은 모두 수로가 우리 고을 백성들의 첫 왕이었으므로 추모하고 보답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 고을의 아름다

운 풍습으로, 마땅히 우리 고을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좋다. 나라에서 유향소를 다시 설치한 것은 고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우리 고을의 좋은 풍속이라 하였으니, 이 모임에서 이 당(堂)에 광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회로(會老)라고 이름 지었으니, 그대가 기문(記文)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일어나 답하기를, "오늘 이 당에 모인 분들은 모두 부형과 종족으로 남이 아니니, 화목하기를 강구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할 것 입니다. 또한 고을에는 반드시 그 고을의 풍속이 있으며, 고을의 풍속은 [옛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 국가의 전례에 나오지 않더라고 없앨 수 없고, 그 나쁜 것은 비록 스스로 전해오는 구습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한 고을의 자제들을 거느리고 선해지도록 교화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것은 부로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유향소는 곧 옛날의 향대부(鄕大夫)입니다. 삼물(三物)과 팔형(八刑)으로 가르치고 규찰하는 데는 스스로 그 조건이 있습니다. 혹 아비가 아비의 구실을 못하고 아들이 아들 노릇을 못하며, 형이 형 구실을 못하고 동생이 동생의 노릇을 못하며, 지아비가 지아비 구실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을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한 자, 우애하지 못하는 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아전으로서 백성들을 침탈하는 자는 모두 살펴서 훈계하여 이끌고 깨닫게 할 것이며, 심한 자는 관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고을을 선한 데로 몰고 갈 것이니, 우리 고을을 질박하고 산만한 데에서 돌이킨 다음에야 화락해져서 수로왕 시대의 순박한 풍속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당으로 돌아와 잔을 들고 태평춘(太平春)을 잔질한다면, 한 고을의 행운일 뿐 아니라 국가의 행복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전 부사 이공손(李公蓀)이 일찍이 묘전(墓田)의 밑천을 내었고, 지금 부사 김의형(金義亨) 또한 우리 고을 사람으로서 우리 풍속을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니, 부로들이 바야흐로 촉망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김백견(金伯堅)이 제실(齋室) 다섯 칸을 당의 서쪽 곁에 지었다. 밭이 있어 제용(祭用)을 대고 집이 있어 제사를 지낼 수 있으므로 장차 제물[黍稷]을 바칠 것이니, 수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사하고 마시니, 부로가 즐거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훗날 머리 희어지면 나 또한 이 당의 노인이 되리라. 마침내 신을 맞이하는 노래를 지어 부로들과 더불어 불렀다. 자줏빛 끈이 땅에 드리워서 왕통을 이은 것이 면면하였다. 세상[九宇]에 주인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닷가에 도읍을 정하여 400년을 이어갔다. 호적에 편입된 주민들 부르기를 곤손(昆孫)이요, 운손(雲孫)이라 하였다. 해마다 그 때에 제사하니 부로가 분주하다. 고목이 거친 들에 신령스런 갈가마귀 울며 흩어진다. 제기[籩豆]가 정결하니 제물[黍稷]이 향기롭다. 피리소리 북소리 울리건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신이 오니 구름과 같아 취하고 배불러 만족하다. 우리 백성들에게 어찌 복주지 않으리. 우리 백성은 내리심을 받아 즐겁고 편안하다. 흰 머리털이 너풀너풀하니 지팡이(鳩杖) 소리가 쟁쟁하다. 해마다 노래하고 춤추어 한없이 영원하여라〉

【樓亭】燕子樓〈在虎溪上 王康詩 伽倻勝事幾經春 寂寞金徽掩素塵 只有招賢臺上月 淸光猶照古今人. 鄭夢周詩 訪古伽倻草色春 興亡幾變海爲塵 當時斷腸留詩客 自是心清如水人. 孟思誠詩 駕洛遺墟幾見春首王文物亦隨塵 可憐鷰子如懷古 來傍高樓喚主人〉 涵虛亭〈在燕子樓北. 府使崔潤身建引虎溪爲蓮塘築亭其中極清灑. 金馹孫記 金官古國也 多奇跡 今府使崔侯強幹爲辦 既新燕子樓 凡所以賁飾 古國之文物者 無所不用其極 直樓之北 婆娑塔之南 鑿方塘引虎溪之水 而匯之築假島於波心 以爲漸臺 架屋其上〉

【누정(樓亭)】 연자루(燕子樓)〈호계(虎溪) 위에 있다. 왕강(王康)의 시에 "가야의 뛰어난 일 몇 봄이나 지났나. 금빛 찬란함은 적막해지고 한데 뽀얀 먼지만 덮여있네. 다만 초현대(招賢臺) 위에는 달이 있어 맑은 빛이 아직도 고금(古今)을 비추네."라 하였다. 정몽주(鄭夢周)의 시에 "옛 가야 찾아오니 풀빛이 봄이다. 흥망이 몇 번 변하여 바다가 진토되었나. 당시에 애끓음에 시 남긴 객이여, 마음이 맑기가 물 같은 사람이었네." 라 하였다. 맹사성(孟思誠)의 시에 가락의 남은 터여, 몇 번 봄을 보았는가. 수로왕[首王] 문물도 또한 티끌 뿐이네. 가련한 제비가 옛날을 회고하는 듯, 다락방 옆에 와서 주인을 부르네."라 하였다〉 함허정(涵虛亭)〈연자루(燕子樓) 북쪽에 있다. 부사(府使) 최윤신(崔潤身)이 지었다. 호계(虎溪)의 물을 끌어 연못을 만들고 그 가운데 정자를 지었는데, 매우 맑

고 깨끗하다.

김일손(金馹孫)의 기(記)에 금관(金官)은 옛 나라로 기이한 흔적이 많다. 지금 부사(府使) 최후(崔侯)는 굳센 의지와 재간을 갖추었다. 이미 연자루(燕子樓)를 새로 짓고 옛 나라의 문물을 꾸미는 데 매우 극진하였다. 누의 바로 북쪽에 있는 파사탑[婆娑塔] 남쪽에는 네모진 못을 파고 호계(虎溪)의 물을 끌어들이고, 못 한복판에는 섬을 만들어 [물결이] 휘돌게 하였으며, [그 섬을] 축대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지었다〉

【佛宇】金剛社〈在府北大寺里. 高麗忠烈王幸合浦時 來遊于此 有不毁樓. 河崙記 金海古之駕洛伽倻也. 駕洛與新羅並起 首露之生 儘奇異遺 俗尚有淳風 且其 登臨之美冠於南方 金剛社之小軒 爲第一. 徐居正詩 歷盡名區信馬蹄 盆城城北訪招提 金官古國乾坤老 王輦曾遊歲月迷 始祖陵深山寂寂 將軍樹老草萋萋 伽倻古物琴猶在 要遣佳人唱更低〉
離世寺〈在神魚山. 高麗郭興詩 三秋碧海千尋浪 一葉扁舟萬里人 遠聽鍾聲尋到寺 暫留風馭欲栖眞 伽倻國業連江章 首露王孫作郡民 南土舊都今已見 片帆還向海山春〉
【불우(佛宇)】금강사(金剛社)〈부(府)의 북쪽 대사리(大寺里)에 있다. 고려 충렬왕이 합포(合浦)〈현재 경남 마산시〉에 거둥하였을 때 여기 와서 놀았다. 불훼루(不毁樓)가 있다. 하륜(河崙)이 기(記)에 "김해(金海)는 옛날의 가락가야(駕洛伽倻)이다. 가락은 신라와 함께 일어났고, 수로왕의 탄생은 매우 기이하며, 남아 있는 풍습은 아직까지도 순박하다. 또한 산에 올라 내려다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남방에서 으뜸인데, [그 중에서도] 금강사의 작은 마루가 제일이다."라 하였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말발굽 가는 대로 이름난 구역 다 지나 분성(盆城) 북쪽의 절을 찾았네. 금관(金官)은 옛 나라, 건곤(乾坤)이 늙었고, 왕의 수레가 일찍이 놀았던 세월도 아득하다. 시조의 능은 깊은데 산은 적적하고 장군나무는 늙었는데 풀은 무성하다. 가야 옛 물건 금(琴) 아직도 남아 있으니, 가인(佳人)을 보내 나지막하게 창(唱)해 볼거나."라 하였다. 이세사(離世寺)〈신어산(神魚山)에 있다. 고려 곽여(郭與)의 시에 "늦은 가을[三秋] 푸른 바다 천 길 물결인데, 한 잎의 조각배로 만 리가는 사람일세. 멀리 종소리 듣고 문득 절에 찾아와서 잠시 바람에 날리는 돛대[風馭]를 쉬고 진리에 깃들고자 한다. 가야의 왕업은 강의 풀에 이어졌고, 수로왕의 자손들은 군민이 되었다. 남쪽의 옛 도읍을 이제 다 보았으니, 조각배를 돌려 바다와 산의 봄으로 향해 갈거나."라고 하였다〉

사료10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駕洛國首露 姓金氏 與新羅同姓. 初駕洛無君臣位號 九干等各總其衆 爲酋長. 號駕洛九村. 後漢 建武壬寅春 首露等龜旨峯〈山名在轡金海府〉 望九村. 遂至其地 開國號駕洛 或稱伽倻〈始有五伽倻主〉 後改號金官〈今金海府也〉
가락국(駕洛國) 수로(首露)는 성이 김씨(金氏)로 신라와 같은 성이다. 처음에 가락에는 군신의 칭호가 없이 구간(九干) 등이 각각 그 무리를 다스리며 추장(酋長)이 되었으니 가락구촌(駕洛九村)이라 하였다. 후한 건무 임인년 봄에 수로 등이 구지봉(龜旨峯)〈산 이름으로 김해부의 산이다〉에서 9촌을 바라보다 마침내 그 땅에 이르어 나라를 열고 가락이라 불렀다. 또는 가야(伽倻)〈처음에 5가야(五伽倻)의 임금(主)이 있었다〉 라고도 했는데 뒤에 금관(金官)〈지금의 김해부이다〉으로 고쳐 불렀다.

사료11 **『동사찬요』 권2 중 지리 | 『東史簒要』 卷二 中 地理**

漢 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爲辰韓六府民所推戴 而新羅始焉. 新莽元年 溫祚滅馬韓 而百濟興焉. 弁韓 前史雖不言其所傳 而新羅儒理王十八年 首露王 肇國於駕洛 據有辰韓之南界 伽倻之南 智理之東 皆其所有. 其後入於新羅. 疑此等地卽爲弁韓之地也.
한(漢) 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 6부의 백성들에게 추대되었으니 신라의 시작이다. 신 왕망[(新)莽] 원년(9년)에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를 일으켰다. 변한(弁韓)은 전사(前史)에 비록 그 전하는 바가 말해지지 않으나 신라 유리왕 18년(42년)에 수로왕(首露王) 가락(駕洛)에 나라를 열어 진한의 남쪽

경계에 거처하면서 가야산(伽倻山)의 남쪽과 지리산(智異山)의 동쪽 모두를 소유하였다. 그곳은 후에 신라에 들어갔다. 의심하건대 이러한 땅들이 변한(弁韓)의 땅이 되었나 한다.

사료12 **『지봉유설』 권3 군도부 제왕 | 『芝峯類說』 卷三 君道部 帝王**

自古 帝王享國四十年者 甚罕. 三代以下 唯漢武帝在位五十四年 梁武帝在位四十八年 唐玄宗在位四十四年 宋仁宗在位四十二年 理宗在位四十年 皇明世宗皇帝在位四十五年 神宗皇帝在位四十八年. 享壽七十以上者 漢武帝七十二 梁武帝八十六 唐高祖七十一 玄宗七十八 宋高宗八十一 元世祖八十 皇明高皇帝七十一. 上下數千載間 只此而已 豈不難哉. 按駕洛國首露王始生時 剖金卵而出 不日化爲男子 奇偉長大 生年卽立爲王 在位一百五十八年 怪矣. 新羅始祖及脫解王 高句麗始祖 皆從卵生. 豈是時東方鴻荒始剖 元氣未漓 有此異事歟. 高句麗太祖王 在位九十四年 壽一百十九歲. 長壽王 在位七十九年 壽九十八歲云. …(중략)… 我東歷年長久者 檀君一千四十八年 箕子訖馬韓一千七十一年 百濟六百七十八年 高句麗七百五年 新羅九百九十二年 駕洛國四百九十一年 高麗四百七十五年.

예로부터 제왕으로 40년을 다스린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하·은·주]삼대 이래로 오직 한 무제가 54년, 양 무제가 48년, 당 현종이 44년, 송 인종이 42년, 이종이 40년, 황국[皇] 명 세종이 45년, 신종황제가 48년이었다. 70 이상의 수명을 누린 자는 한 무제가 72세, 양 무제가 86세, 당 고조가 71세, 현종이 78세, 송 고종이 81세, 원 세조가 80세, 황국 명(明)의 고황제가 71세였다. 위아래 수 천 년 동안 단지 이들 뿐이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살피건데 가락국 수로왕은 처음 태어날 때 금알을 깨고 나온지 며칠이 되지 않아 변하여 남자로 되었는데 모습이 훌륭하고 장대하였다. 태어난 해에 즉위해 왕이 되고 158년간 재위하였으니 괴이하다. 신라 시조와 탈해왕은 모두 알에서 났으니 아마 우리나라의 하늘이 이때 처음 열리고 원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고구려 태조왕은 94년 간 재위에 119세였고, 장수왕은 79년 재위에 98세였다고 한다. …(중략)… 우리 나라의 역사가 장구한 것은 단군 1048년, 기자에서 마한까지 1071년, 백제 678년, 고구려 705년, 신라 992년, 가락국 491년, 고려 475년이었다.

사료13 **『해동악부』 금궤인 | 『海東樂府』 金櫃引**

其事有無 雖不可知 足見我國上世人心之淳古也. 新羅脫解王 夜聞金城西林間有鷄聲 遲明 見人視之 有金色小櫃掛樹梢 鷄鳴於下. 還以告 王取櫃 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貌奇偉. 王喜謂左右曰 此豈非天祚我以胤乎. 名曰閼智 地曰鷄林. 閼智七世孫味鄒 遂有羅國 凡三十七王. 脫解王亦是婆那國人 浮海而來 解櫃而出. 南解王聞其賢 妻以女. 遂至爲王. 駕洛國初無君. 聚居山野 一日修禊 適見龜旨峯上 紫繩垂下金合. 開視 有六金卵不日開化爲男. 推立始生者爲首露王 都金海. 其餘五人 各王伽倻. 首露王妃許氏 乃南天竺國王女 渡海而至 緋帆茜旋 來泊主浦. 王迎入闕 立爲后 後生九子 令二人從其姓. 今之金海金氏·許氏 皆其子孫. 至今先世之事 傳以爲實云〈龜旨峯在金海〉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대 우리나라의 인심이 순박하고 고졸하였음을 보기에는 족하다. 신라 탈해왕이 밤에 금성 서쪽 숲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어 날이 새기를 기다려 사람을 보내 보게 하였더니 금색의 작은 상자가 나무 끝에 걸려 있었는데 닭이 아래서 울고 있었다. 돌아와 보고하고 왕이 상자를 가져다 열었더니 그 안에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용모가 기이하고 위대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하늘이 후손으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름하여 알지(閼知)라 하고 땅을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알지의 7세손인 미추(味鄒)가 신라를 차지해 모두 37왕이 되었다. 탈해왕 또한 시파나국(是婆那國) 사람으로 바다로 떠서 와 궤를 열고 나왔는데, 남해왕(南解王)이 그 현명함을 듣고 딸을 주어 처로 삼게 하였는데 마침내 왕이 되었다. 가락국(駕洛國)에는 처음에 임금(君)이 없이 산과 들에 모여 살았는데, 어느 날 계욕의 제사를 지내다가[修禊] 마침 구지봉(龜旨峯) 위를 보니 자주빛 줄에 금 상자가 내려 왔다. 열너 보니 여섯의 황금 알이 있었는데 깨어 사내로 변하였다. 처음 태어난 자를 수로왕(首露王)으로 추대하고 그 나머지 5

인은 각각 가야의 왕이 되었다. 수로왕비 허씨(許氏)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王女)로 바다에서 이르러 붉은 돛과 꼭두서니 빛 깃발을 달고 주초(主浦)에 와서 정박하였다. 왕이 맞이하여 궐로 들어 왕후가 되었다. 뒤에 아홉 아들을 낳았는데 두 사람에게 그 성을 따르게 하였으니, 지금의 김해 김씨와 허씨는 모두 그 자손이다. 지금 선대의 일이 전해져 사실로 이야기 되고 있다〈구지봉은 김해에 있다〉

사료14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首露王〈漢光武壬寅立. 獻帝建安己卯卒. 在位一百五十八〉

수로왕〈한 광무제 임인[년]에 섰다. 헌제 건안 기묘년에 돌아갔다. 재위 158년이었다〉

사료15 『역대기년』 권 하 동방이십칠국도 | 『歷代紀年』 卷 下 東方二十七國都

高靈縣〈本大伽倻國 自始祖伊珍阿豉王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滅之〉 金海府〈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咸昌縣〈本古寧伽倻國〉 咸安郡〈本阿尸良國〉 固城縣〈本伽倻國 竝爲新羅所收〉 右今皆屬慶尙道.

고령현〈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 까지 모두 16대 520년으로 신라가 멸하였다〉 김해부〈본래 가락국(駕洛國) 또는 가야(伽倻)라 칭하였다.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함창현〈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다〉 함안군〈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이다〉 고성현〈본래 가야국(伽倻國)인데 모두 신라에 통합되었다〉. 이는 지금 모두 경상도에 속한다.

사료16 『제왕역년통고』 동방국도고 | 『帝王歷年通攷』 東方國都考

新羅儒理王十八年〈卽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也〉 首露王始都于駕洛國〈今金海〉 凡十世四百九十一年 降新羅. 初金榼中六卵 自天而降 故以金爲姓. 以其首出 故稱首露. 其餘五人 各歸爲五伽倻主. 一阿羅伽倻〈今咸安〉 二古寧伽倻〈今咸昌〉 三大伽倻〈今高靈〉 四星山伽倻〈今星州〉 五小伽倻〈今固城〉

신라 유리왕 18년(42년) 수로왕이 처음으로 가락국〈지금의 김해〉에 도읍을 정하였다. 모두 10대 491년이 되어 신라에 항복하였다. 처음에 금합 속의 6란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 그런 까닭에 김을 성으로 했다. 처음나왔다 하여 수로라 불렀으며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오가야의 주가 되었다. 하나 아라가야〈지금의 함안〉, 둘 고녕가야〈지금의 함창〉, 셋 대가야〈지금의 고령〉, 넷 성산가야〈지금의 성주〉, 다섯 소가야〈지금의 고성〉이다.

사료17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유리왕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儒理王

儒理立 …(중략)… 駕洛始祖金首露 立爲附庸之國. 於是有五伽倻 曰阿羅伽倻 曰古寧伽倻 曰大伽倻 曰小伽倻.

유리(儒理)가 즉위하였다. …(중략)… 가락(駕洛)의 시조는 김수로(金首露)이니 세워서 부용국(附庸國)으로 삼았다. 이에 다섯 가야(伽倻)가 있었으니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녕가야(古寧伽倻), 대가야(大伽倻), 소가야(小伽倻)이다.

사료18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駕洛. 駕洛者 新羅南境海上別國. 初無君長 始祖化生 當東漢建武十八年. 有九落九干 神明之 推其始出者立爲君. 號曰首露 姓曰金 建國號曰駕洛. 亦曰 伽倻此所謂駕洛伽倻者也. 其次五人各爲五伽倻主. 一曰阿那伽倻 今咸安郡也. 二曰古寧伽倻 今咸昌縣也. 三曰大伽倻 今高靈縣也. 四曰碧珍伽倻 今星州牧也. 五曰小伽倻 今固城縣也. …(중략)… 後新羅祇摩立 伐駕洛 敗於黃山河. 於是國益強 其地東至黃山河 北至大良州 西南際海 西北至居陁州 百濟之界.

가락(駕洛). 가락이란 신라의 남쪽 경계 바닷가에 따로 떨어진 나라이다. 처음에는 군장(君長)이 없었다. 시조가 (알에서 인간으로) 변화해 태어났으니 동한(東漢) 건무 18년(42년)이다. 아홉 마을의 아홉 명의 간(九干)이 신명하다고 여겨 처음 탄생한 자를 추대하여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호를 수로(首露)라고 하고, 성을 김(金)이라고

하였으며, 나라를 세워 가락이라 불렀다. 또는 가야(伽倻)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가락가야(駕洛伽倻)라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사람은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으니, 첫째는 아나가야(阿那伽倻)이니 지금의 함안군(咸安郡)이다. 둘째는 고녕가야(古寧伽倻)이니 지금의 함창현(咸昌縣)이다. 셋째는 대가야(大伽倻)이니 지금의 고령현(高靈縣)이다. 넷째는 벽진가야(碧珍伽倻)이니 지금의 성주목(星州牧)이다. 다섯째는 소가야(小伽倻)이니 지금의 고성현(固城縣)이다 라 하였다. …(중략)… 후에 신라의 지마(祗摩)가 즉위하여 가락을 정벌하였으나 황산하(黃山河)에서 패하였다. 이에 나라가 더욱 강성해져서 국토가 동쪽으로 황산하에 이르고 북쪽으로 대량주(大良州)에 이르렀으며, 서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서북쪽으로는 거타주(居陁州)에 이르렀으니, 이곳은 백제와의 경계이다.

贊曰 古初 海隅生人物最後. 堯時始有檀君. 至漢時 有赫居世,金蛙,朱蒙,閼智,毛羅良高夫 皆無人道而化生. 建武世有六伽倻主 其生亦然. 上古有熊氏婦 感大電生軒轅. 契之生 簡狄吞玄鳥墮卵. 后稷之生 姜嫄踐巨人迹. 自古生民之祖 其生固然. 釋利貞傳曰 大伽倻厥初有神女 感夷毗訶 生腦窒朱日 · 腦窒青裔. 此天地之氣生之也. 朱日者 大伽倻主伊珍阿致也. 青裔者 駕洛始祖金首露云. 此不可知也. 崔致遠作利貞傳.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태곳적 바다 모퉁이의 우리나라는 사람과 생물의 탄생이 가장 늦었다. 요임금 시절에 비로소 단군이 있었고, 한나라 시절에 이르러서 혁거세(赫居世) · 금와(金蛙) · 주몽(朱蒙) · 알지(閼智) · 모라(毛羅)의 양씨(良氏) · 고씨(高氏) · 부씨(夫氏)가 있었으니, 모두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알에서] 변화하여 생겨났다. 또 건무(建武) 연간에 6가야(伽倻)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들의 탄생도 그러하였다. 상고시대에 웅씨(熊氏) 부인은 큰 번개에 감응하여 헌원(軒轅)을 낳았고, 설(契)은 간적(簡狄)이 현조(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낳았으며, 후직(后稷)은 강원(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낳았으니, 예로부터 생민(生民)의 시조는 그 탄생이 참으로 그러하였다.「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 이르기를 대가야는 초기에 신녀(神女)가 있었는데, 이비가(夷毗訶)에게 감응하여 뇌질주일(腦窒朱日)과 뇌질청예(腦窒青裔)를 낳으니, 이들은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탄생한 것이다. 주일은 대가야의 군왕 이진아치(伊珍阿致)이고, 청예는 가락의 시조 김수로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최치원(崔致遠)이「이정전(利貞傳)」을 지었다.

사료19 『동사회강』 권1 상 | 『東史會綱』 卷一 上

〈壬寅 新羅 儒理王十九年 高句麗 大武神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十五年〉 春二月 駕洛人立金首露爲君. 駕洛亦辰韓之地. 其無始君臣位號 有九干〈我刀干 · 汝刀干 · 彼刀干 · 五刀干 · 留水干 · 留天干 · 神天干 · 神鬼干 · 五天干〉者 各爲酋長 聚居山野. 金首露 不知其所自出 九干共推爲君. 國號大駕洛〈後改金官〉 其屬國有五 皆號曰伽耶. 首露有弟五人 分長五伽耶. 其地 東至黃山江 東北至伽耶山 西南際大海 西界智異山. 後皆爲新羅郡縣〈阿羅伽倻今咸安 古寧伽倻今咸昌 大伽倻今高靈 星山伽倻今星州 小伽倻今固城〉

〈임인년(42년) 신라 유리왕 19년, 고구려 대무신왕 25년, 백제 다루왕 15년〉 봄 2월에 가락인(駕洛人)들이 김수로(金首露)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가락은 또한 진한의 땅이다. 그곳은 처음에는 군신의 칭호가 없었다. 구간〈아도간 · 여도간 · 피도간 · 오도간 · 유수간 · 유천간 · 신천간 · 신귀간 · 오천간〉이란 자가 있어 각각 추장(酋)이 되었다. 산과 들에 모여 살았다. 김수로는 그 출자를 알지 못한다. 구간들이 함께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나하를 대가락(大駕洛)〈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그 속국이 다섯이 있는데 모두 가야(伽倻)라 불렀다. 수로에게는 동생 다섯이 있어 5가야로 나누어 다스렸다. 그 땅은 동으로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으로 가야산(伽倻山)에 이르렀으며 서남쪽은 큰 바다에 접했다. 서쪽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하였다. 뒤에 모두 신라의 군현이되었다.〈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 고녕가야는 지금의 함창,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성산가야는 지금의 성주,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사료20 『성호사설』 권3 천지문 김해속 | 『星湖僿說』 卷三 天地門 金海俗

府卽首露肇基之地 或者有遺風猶在耶.

부는 곧 수로가 건국한 땅이다. 혹자는 남은 흔적인가 하였다.

사료21 『동사강목』 범례 명호 | 『東史綱目』 凡例 名號

名號 正統之君曰王 無統之君曰某國王 小國之君曰 某國君〈金首露之類〉 盜賊曰某〈甄萱之類〉

國號 或書以當時所定之號〈若新羅之初 稱斯盧 脫解以後 稱鷄林 智證以後 始定新羅之號〉 或從其本號〈駕洛不稱金官 百濟不稱南夫餘之類〉

명칭은 정통의 임금은 왕(王)이라 하고, 정통이 아닌 임금은 모국왕(某國王)이라 하며, 작은 나라의 임금은 모국군(某國君)〈김수로(金首露)와 같은 부류〉이라 하고, 도적은 이름을 썼다〈견훤 같은 부류이다〉 국호는 혹 당시에 정해진 이름으로 쓰는데〈신라 초기는 사로(斯盧), 탈해 이후는 계림(鷄林), 지증(智證) 이후에 비로소 신라(新羅)의 이름을 정했다〉, 또는 그 본래의 이름을 따른다〈가락(駕洛)은 금관(金官)을 칭하지 않고, 백제(百濟)는 남부여(南夫餘)로 칭하지 않는 부류이다〉

사료22 『동사강목』 범례 통계 | 『東史綱目』 凡例 統系

一. 濊貊 沃沮 駕洛 加耶之屬 幷依小國列.

1. 예맥(濊貊) · 옥저(沃沮) · 가락(駕洛) · 가야(加耶) 등은 모두 소국의 예에 따랐다.

사료23 『동사강목』 제1 하 삼국 | 『東史綱目』 第一 下 三國

〈漢 建武 十八年 壬寅 新羅 儒理王十九年 高句麗 大武神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十五年〉 駕洛國始祖 是歲以後大國三 小國一 凡四國 若五伽耶等諸小國年代無考者 略之〉 春三月 駕洛人立金首露兄弟六人爲君 分治加耶. 駕洛古卞韓之地. 其始無君臣位號 有九干 曰我刀 · 汝刀 · 彼刀 · 五刀 · 留水 · 留天 · 神天 · 神鬼 · 五天. 各爲酋長. 其衆摠七萬五千 聚居山野. 至是 九干修禊事. 時有金首露者 不知何許人 登龜旨峯〈在今金海府〉 望駕洛九村 遂至其地. 九干見首露兄弟六人容貌 皆奇偉長大. 衆皆驚異 立以爲君. 而首露長 故國號大駕洛〈今金海府〉 又稱伽耶. 餘五人各 爲五伽耶君 曰阿羅伽耶〈今咸安郡〉 曰古寧伽耶〈今咸昌縣〉 大伽耶〈今高靈縣〉 曰星山伽耶〈今星州府一云 碧珍伽耶〉 小伽耶〈今固城縣〉 東以黃山江 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爲界. 駕洛後改號金官國.

〈한 광무 건무 18년(42년) 임인년, 신라 유리왕 19년, 고구려 대무신왕 25년, 백제 다루왕 15년〉 가락국(駕洛國) 시조 김수로(金首露) 원년 이해 이후는 대국이 셋, 소국이 하나 모두 4국이며, 5가야(伽耶) 등 여러 소국의 상고할 수 없는 연대는 생략한다〉 봄 3월에 가락 사람이 김수로 형제 6인을 세워 임금(君)으로 삼고, 가야(加耶)를 나누어 다스렸다. 가락은 옛날 변한(卞韓) 땅이다. 처음에는 군신의 위호(位號)가 없고 구간(九干)이 있었으니,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신귀(神鬼) · 오천(五天)이 그것으로 각각 추장(酋長)이 되었다. 그 무리는 총 7만 5천이었는데 산과 들에 모여 살았다. 이에 이르러 9간이 계사(禊事; 계제사 3월 3일 상사(上巳)에 물가에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더니, 이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김수로라는 이가 있어 구지봉(龜旨峯)〈지금 김해부(金海府)에 있다〉에 올라 가락의 아홉 마을을 바라보고 그곳에 이르렀다. 9간이 수로 형제 여섯 사람의 용모가 모두 기위(奇偉)하고 장대한 것을 보고는 여럿이 모두 경이하여 이들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는데, 수로가 연장자였으므로 국호를 대가락(大駕洛)〈지금 김해부〉이라 하고, 또 가야라고도 하였다. 나머지 다섯 사람이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니, 아라가야(阿羅伽耶)〈지금 함안군〉 · 고녕가야(古寧伽耶)〈지금 함창현〉 · 대가야(大伽耶)〈지금 고령현〉 · 성산가야(星山伽耶)〈지금 성주부, 일설에는 벽진가야(碧珍伽耶)〉 · 소가야(小伽耶)〈지금 고성현〉가 그것이다.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남쪽은 푸른 바다(滄海), 서북쪽은 지리산(地理山), 동북쪽은 가야산(伽耶山)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가락은

뒤에 금관국(金官國)이라고 국호를 고쳤다.

사료24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加羅. 按加羅卽駕洛國也. 南齊書 加羅國王荷知 東史作駕洛國王銍知. 蓋加, 駕字之變也. 羅, 洛音之轉也. 加羅東史又稱伽倻.〈三國志云加羅一名伽倻〉 伽倻卽魏志所謂狗耶 東語狗謂之加 故伽倻之轉爲狗耶. 華稱加羅, 狗耶 東史稱駕洛,伽倻 其實一也. 駕洛國始祖金首露 以漢光武建武十八年開國 都於金海府. 其弟五人 各爲五伽倻主 其後六伽倻 竝爲新羅所並. 弁辰十二國 有弁辰狗耶國.〈三國志 吾學編 日本有附庸百餘國 狗耶韓國最大 按狗耶韓國者以狗耶本弁韓之屬國 故云然〉

가라(加羅). 살펴보건대 가라는 곧 가락국이다. 『남제서』의 가라국왕 하지(荷知)는 『동사』에 가락국왕 질지(銍知)로 되어 있다. 대개 가(加)와 가(駕)는 글자가 변한 것이고, 라(羅)와 락(洛)은 음이 전이된 것이다. 가라를 동사에는 또 가야(伽倻)라고도 칭하는데, 『삼국사』는 가라(加羅)는 일명 가야(伽倻)이다라고 하였다. 가야(伽倻)는 곧 「위지(魏志)」가 말하는 구야(狗耶)이다. 우리말에 구(狗)를 개[加]라 하므로 가야가 전이되어 구야가 된 것이다. 중국에서 가라·구야라 칭하고, 우리 역사에서 가락·가야라 칭한 것이 실은 하나이다. 가락국 시조 김수로는 한 광무제 건무 18년에 개국하여 김해부에 도읍하였고, 그의 동생 5인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어 그 후에 6가야로 되었다가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다. 변한 12국에 변진구야국이 있다.〈『삼국지』 오학편에 일본에 백여 개의 부용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야한국(狗邪韓國)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야한국이라는 것은 구야가 변한의 속국이므로 그렇게 이른 것이다〉

사료25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後漢初 金首露立爲加羅國王 此卽弁辰狗邪國 今金海府 是其地也. [後漢書 倭傳] 倭在韓東南大海中 樂浪徼去 其西北界 狗邪韓國 七千餘里. [三國志 倭人傳] 從帶方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渡一海 一千餘里 至對馬國. 又南渡一海千餘里 至一支國.〈[吾學編]〉 日本有附庸百餘國 狗邪韓國最大〉

후한 초에 김수로가 가라국왕이 되었으니, 이것이 곧 변진구야국으로 지금의 김해부가 바로 그 땅이다. [『후한서』왜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왜는 한의 동남쪽 대해 가운데에 있는데, 낙랑군의 변경 지역에서 왜의 서북쪽 경계 지역인 구야한국(狗邪韓國)까지의 거리는 7000여 리이다. [『삼국지』왜인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방군에서 출발해 왜에 이르고자 하면 해안을 따라서 물길로 가 한국을 거쳐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왜의 북쪽 해안인 구야한국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가 7000여 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바다 하나를 건너 1000여 리 가면 대마국(對馬國)에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바다 하나를 건너 1000여 리 가면 이키국(一支國)에 이른다.〈「오학편(吾學編)」에 이르기를 일본에는 100여 국의 부용국이 있는데 구야한국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사료26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文獻備考] 弁韓 · 馬韓 其南皆與倭接 則弁韓在於馬韓南界之東 以北接辰韓. 其四履正合駕洛之墟. 駕洛卽伽倻之一也. 文獻通考 以伽倻琴爲弁韓琴 此其證也.〈謹按 三國史 伽倻國嘉悉王制十二絃琴〉〈鎭書〉 謹按 加羅, 伽倻, 駕洛 皆一也. 其國都在今金海府. 魏志所云弁辰狗邪國卽此也. 東語狗謂之伽伊 音轉而義同. 狗邪者加羅也. 且考倭人傳 對馬國今對馬島 而狗邪國在對馬國之越海西北岸 相距千餘里 則其爲金海府尤驗. 是時 任那 · 狗邪等國皆服屬於倭 故指爲倭西北界也. 以其三韓之種 故必曰狗邪韓國也.

[『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변한과 마한은 그 남쪽이 모두 왜와 접하였다. 그런즉 변한이 마한 남쪽 경계의 동쪽에 있고, 북쪽은 진한에 접하였는바, 사방의 경계가 바로 가락의 지역과 합치된다. 가락은 바로 가야 가운데 하나이다. 『문헌통고』에 가야금(伽倻琴)을 변한금(弁韓琴)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삼가 살펴보건대 『삼국사』[『삼국사기』권4 진흥왕조]에 가야국의 가실왕이 십이현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한]진

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가라·가야·가락은 모두 같은 것이다. 그 나라의 도읍은 지금의 김해부(金海府)에 있었다.「위지」에서 이른바 변진구야국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말에 구(狗)를 '가이(伽伊)'라고 하는 바, 음은 바뀌었으나 뜻은 같다. 그러니 구야(狗邪)는 가라이다. 또한『삼국지』왜인전을 상고해 보면 츠시마국(對馬國)은 지금의 대마도이며, 구야국은 츠시마(對馬島)에서 바다 건너편의 서북해안에 있는데, 서로 간의 거리가 1000여 리이다. 그런즉 그곳이 김해부임을 더욱더 알 수가 있다. 이 당시에 임나(任那)·구야(狗邪) 등의 나라가 모두 왜에 복속되었으므로 왜의 서북쪽 경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삼한의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야한국이라고 한 것이다.

사료27 **『동사변의』변진위가락 | 『東史辨疑』弁辰爲駕洛**

弁辰爲駕洛. 世紀云 駕洛國王金首露 起於弁辰. 其地分爲六伽倻. 弁辰十二國皆屬於辰韓 而亦有主帥. 新羅儒理王十八年駕洛之長九人 奉金首露爲王 國號駕洛. 此弁辰狗耶國 今慶尙左道金海府 是其國都 而十二國皆隸於駕洛首露之國. 首露者弁辰之總王也. 新羅史云 炤知王三年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我軍與百濟伽倻援兵 分道禦之 彌秩夫 今之興海郡也. 狐鳴等七城 雖不可詳 旣取七城乃進興海 今淸河·盈德·寧海·平海·眞寶 卽其地也. 當時 竹嶺久已開路 句麗已據丹城等數邑. 其自竹嶺之路 直衝慶州之北 明矣. 百濟者 馬韓也.新羅者 辰韓也. 駕洛者 弁辰也. 首露王三十五年 發兵侵新羅. 自玆以後二十餘年 戰爭不息 辰韓·弁辰 截然爲二. 及其末孫 竟以國降于新羅. 於是乎 辰韓 , 弁辰 合而爲一.

변진(弁辰)이 가락(駕洛)이 되었다.「[조선]세기(世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락국(駕洛國)의 왕 김수로(金首露)가 변진(弁辰)에서 일어났다. 그 땅이 나뉘어 6가야(六伽倻)로 되었다. 가야는 가락이다. 변진(弁辰) 12국은 모두 진한에 속하였는데, 또한 [각각] 추장[主帥]이 있었다. 신라 유리왕(儒理王) 18년(41년)에 가락의 추장(酋長) 아홉 명이 김수로(金首露)를 받들어 왕으로 삼고 국호를 가락이라고 하였다. 이 변진구야국(弁辰狗倻國)은 지금의 경상좌도 김해부(金海府)이다. 이것은 그 나라의 서울[국도(國都)]이니, 12국은 모두 가락 곧 수로의 나라에 예속되었으며, 수로는 변진의 총왕(總王)이었다.『신라사(新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지왕(炤智王) 3년(481년)에 고구려와 말갈(靺鞨)이 북쪽 변방을 침입하여 호명(狐鳴) 등 일곱 성(城)을 빼앗았다. 또 미질부(彌秩夫)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와 백제·가야의 원병이 길을 나누어 막았다. 미질부는 지금의 흥해군(興海郡)이다. 호명 등 일곱 성을 빼앗고 이에 흥해로 진격하였으므로 지금[조선]의 청하(淸河)·영덕(盈德)·영해(寧海)·평해(平海)·진보(眞寶)가 곧 그 땅이다. 당시 죽령(竹嶺)은 이미 길이 난지 오래였고, 고구려는 이미 단성(丹城)등 여러 고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죽령길로 부터 곧장 경주 북쪽을 쳤음이 분명하다. 백제는 마한이고, 신라는 진한이며, 가락은 변진이다. 수로왕(首露王) 35년(77년)에 [가락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로부터 20여 년간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니, 진한과 변진이 확연히 둘이 되었다. 그 말손(末孫)에 미쳐서는 끝내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이에 진한과 변진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夫駕洛之國 始建於漢光武中年 卒亡於梁武帝中年.故後漢書·三國志·晋書 皆立三韓列傳.至南北史·隋唐書 始有百濟·新羅 無馬韓·辰弁.駕洛之爲弁辰 不旣明甚乎.然且魏志·北史 皆以百濟爲馬韓.至於新羅 則北史謂之辰韓遺種 唐書謂之弁韓苗裔.由是觀之 馬韓之終爲百濟 辰韓之終爲新羅 弁辰之爲駕洛 而又終爲新羅 確然無疑.而東人舍此駕洛 別求弁韓 西摸北撈 轍環靑邱 而弁韓之地 終不可得矣.大抵 漢魏之際 新羅·駕洛 同居嶺南 四五百年至梁武帝大通四年 仇亥始降新羅 駕洛者 新羅之耦國也.辰韓旣爲新羅 則弁辰自爲駕洛 無用辨論也.漢書·魏志弁辰與辰韓雜居.羅史·麗志 駕洛與新羅雜居.其差北差南 差強差弱 東史所記 與中國史所載 毫髮不爽. 弁辰之爲駕洛 無可疑也.

무릇 가락이란 나라는 한(漢) 광무 연간에 처음 건국하여 양(梁) 무제 연간에 망하였다. 따라서『후한서·삼국지·진서(晉書)』는 모두「삼한열전(三韓列傳)」을 두었다.『남사』와『북사』·『수서』와『당서』에 이르러서 비로소 백

제와 신라가 있고 마한과 변진은 없었다. 가락이 변진임은 이미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위지(魏志)」와 『북사』는 모두 백제로 마한을 삼았다. 신라에 대해 『북사』에는 진한의 남은 종족이라고 하였고, 『당서』에는 변한의 후예[苗裔]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마한이 마침내 백제로 되었고, 진한이 마침내 신라로 되었으며, 변진이 가락으로 되었다가 또 마침내는 신라로 되었음은 확연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東人]이 이 가락을 놔두고 달리 변한을 구해서, 여기저기 더듬으며 우리나라[靑邱]를 돌아다니지만 변한의 땅은 끝내 얻을 수 없었다. 대개 한(漢)나라 · 위(魏)나라의 때에 신라와 가락은 400~500년간 영남에 함께 있었다. 양(梁) 무제[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구해(仇亥)가 비로소 신라에 항복하니, 가락은 신라의 한 짝이 되었다. 진한이 이미 신라로 되었다면, 변진이 스스로 가락이 되었음은 변론할 것이 없다. 『한서』와 「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변진과 진한이 섞여 있었다. 『신라사[羅史]』와 『여지(麗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락과 신라가 섞여 있었다. 그 북과 남의 차이가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서[東史]에 기록한 것과 중국사에 실린 것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 변진이 가락으로 되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사료28 『동국지리지』 신라 | 『東國地理志』 新羅

【新羅 附】 金官國 今在金海. 駕洛有我刀干 · 汝刀干等九人 各爲酋長 無君臣位號. 率其民禊飮 望見龜峯 有異氣. 且聞空中語. 就得金榼. 開視之 有六卵. 不日皆化爲男 奇偉長大.衆皆驚異 推立始生者爲主 因金卵姓金氏 以始見名首露. 國號大駕洛 又稱伽倻. 餘五人各爲五伽倻主 曰阿羅伽倻〈今咸安〉 曰古寧伽倻〈今咸昌〉 曰大伽倻〈今高靈〉 曰星山伽倻〈今星州〉 曰小伽倻〈今固城〉. 後改稱金官國.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界智異山. 傳至仇亥王 凡十世四百九十一年 降于新羅法興王. 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此某弁韓之地也.

【신라 부(附)】 금관국(金官國)은 지금[조선] 김해에 있었다. 가락(駕洛)에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등 아홉 사람이 있어 각각 추장(酋長)이 되고 임금이나 신하의 자리와 칭호는 없었다. [아홉 추장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을 하면서 구지봉[龜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또 공중에서 하는 말을 듣고 가서 금상자[金榼]를 얻었는데, 열어서 보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며칠 안 되어 모두 남자로 변하였는데, 아주 훌륭하고 장대하여 무리가 모두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처음 태어난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세우니, 금알[金卵]로 인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고, 처음 나타났으므로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였다. 국호는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고, 또는 가야(伽倻)라 칭하였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는데, 이름하여 아라가야(阿羅伽倻)〈지금[조선]의 함안(咸安)〉, 고녕가야(古寧伽倻)〈지금[조선]의 함창(咸昌)〉, 대가야(大伽倻)〈지금[조선]의 고령(高靈)〉, 성산가야(星山伽倻)〈지금[조선]의 성주(星州)〉, 소가야(小伽倻)〈지금[조선]의 고성(固城)〉라고 하였다. [대가락은] 뒤에 금관국으로 이름을 고쳤다.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서남쪽은 바다와 만나며 서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삼았다. 전하여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모두 10세(世), 491년 만에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왕이 객례(客禮)로써 대우하여 그 나라를 읍(邑)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이것이 실은 변한의 땅이다.

伽倻國 都高靈.自始祖伊珍阿豉王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愚按 前史互有不同 或云伽挪始祖卽首露王.未知孰是.

가야국(伽倻國)은 고령을 도읍으로 하였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 진흥왕이 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내가 생각건대, 전사(前史)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어서 혹은 가야(伽倻)의 시조를 수로왕이라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사료29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與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建置沿革】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 傳十世孫至仇亥王〈十世 四百九十一年〉降新羅. 法興王改爲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時爲金海小京.

【건치연혁(建置沿革)】 옛 가락국(駕洛國)이다. 혹은 가야(伽倻)라고도 하였으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시조 수로왕(首露王)으로부터 10세를 전하여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10세, 461년이었다〉 항복하니 신라 법흥왕이 금관군(金官郡)으로 고쳤다. 문무왕 때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삼았다.

【郡名】駕洛 伽倻 金州 金官 臨海 金寧.

【군명(郡名)】 가락, 가야, 금관, 금주, 금녕.

【形勝】古伽倻之虛.〈高麗鄭夢周府城記〉

【형승(形勝)】 옛 가야 터이다.〈고려 정몽주(鄭夢周)의 「부성기(府城記)」〉

【山川】龜旨峯〈在府北三里. 世傳首露王降生處〉

【산천(山川)】 구지봉〈부의 북쪽 3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수로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

【陵墓】首露王墓〈在府西三百步. 每歲春秋 府中父老 共會設祭. 漢獻帝建安四年 伽倻始祖首露王薨. 葬城北踰納陵傍田三十頃 以充春秋祭祀之費. 相傳羅季將軍忠至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於將軍 奪廟饗而致告祠堂 梁折壓英規頂死. 忠至懼畵王眞安於屋壁 朝夕以祀 及三日 影流血淚 忠至懼而焚之. 後有群盜欲發塚 有猛士被甲從中射之 盜驚走.數日復來 有大蟒 自陵傍出 咬殺人 賊皆僵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將以陵田減其半 夢神人七八 操劒欲斬 文善驚覺得疾死. 萬曆八年 觀察使許曄修墓. 二十年爲倭寇所堀 鄕人共封築之. 後觀察使許積增修立碑. 許穆撰其陰記〉

【능묘(陵墓)】 수로왕묘〈부의 서쪽 300보 되는 곳에 있다. 해마다 봄 가을로 부중(府中)의 부로(父老)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에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돌아가자[薨] 성 북쪽 구석[北踰]에 장사지내고 주변의 밭 30경을 능에 들여 봄 가을로 제사지내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전해오기를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빙자하여 제물을 빼앗고는 말로만 고했더니 사당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 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있어서 무덤을 파헤치려 하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 활을 쏘았다. 도적들이 도망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오니 큰 이무기가 능 부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물러 죽이자 도적들이 모두 놀라 나자빠지면서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려 하였는데, 꿈에 귀신 7~8명이 칼을 들고 베고자 하였으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는 병을 얻어 죽었다. 만력 8년(1580년, 조선 선조 13년)에 관찰사 허엽(許曄)이 묘를 수리하였다. 20년(1592년)에 왜구(倭寇)에게 파헤쳐졌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함께 봉분을 쌓았다. 뒤에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으며, 허목(許穆)이 그 음기(陰記)를 지었다〉

許妣墓〈在龜旨山東. 首露王妣許氏號普州太后. 邑人祭王墓時共祭. 萬曆中 許曄與王墓同修. 後爲倭寇所堀 鄕人共封築之. 後許積增修立碑 許穆記其陰〉

허비묘(許妣墓)〈구지산(龜旨山) 동쪽에 있다. 수로왕비 허씨는 호가 보주태후(普州后)라 부른다. [김해]읍 사람[邑人]들이 왕묘에 제사지낼 때 함께 제사지낸다. 만력(萬曆) 중에 허엽(許曄)이 왕묘와 함께 수리하였다. 뒤에

왜구에게 파헤쳐졌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함께 봉분을 쌓았다. 뒤에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으며, 허목(許穆)이 그 음기(陰記)를 지었다〉

사료30 **『강계고』 제3 신라국 금관국 | 『疆界考』 第三 新羅國 金官國**

金官國〈初號駕洛 或作加落 又稱伽倻 後改爲金官. 駕洛記亦稱衡有〉 始祖王 姓金氏 諱首露. 至王九衡〈一作亥〉 降于新羅.〈新羅王待以客醴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起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新羅儒理王十九年〉 止梁武帝中大通四年壬子〈新羅法興王十九年〉 凡十世歷四百九十一年. 古記 諸韓時 駕洛之地 亦無君長.散居山海之間. 有九干爲其酋. 壬寅三月 脩禊忽見龜旨〈峰名〉有異氣. 就得金盒.啓視有六金卵. 浹旬皆化爲男子 形貌奇偉 衆皆驚異. 推首生者爲主. 因姓金氏 以其首見 名首露. 甲辰 築城營室. 餘五人 各有分地. 按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惱窒青裔二人. 朱曰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又釋順應傳 大伽倻國 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云. 與駕洛古記六卵之說有異 而皆不經矣. 檀君之育於熊. 東明之生於卵. 金蛙之出於鵾淵. 新羅三姓之始也 或白馬路拜 或神鵲鳴隨 或金櫃掛樹. 至於登諸史册 世以東人之 好荒誕譏之. 而中國亦有之. 自古創業之君 憑神鋐著奇異 以聳人聽而結衆心者 多焉. 澤畔神樞之哭 亦此類也. 以其終成大業 故謂之祥. 而若敗 則同歸於叢祠之 孤鳴矣.

금관국(金官國)〈처음 이름은 가락(伽落)이라고 쓰기도 하며, 또는 가라(伽倻)라고 불렀다. 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가락기(駕洛記)」에서는 충유(衡有)라고도 불렀다[亦稱衡有]〉 시조왕은 성이 김씨이고, 이름[諱]은 수로(首露)이다. 구형(九衡)〈해(亥)로도 쓴다〉왕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였다〈신라왕이 객례(客禮)로써 대우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아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한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신라 유리왕19년(42년)〉부터 양나라 무제(武帝) 중대통(中大通) 4년 임자〈신라 법흥왕 19년〉(532년)까지 모두 10세(十世), 491년을 전하였다. 「고기(古記)」에서 여러 한(韓)의 시기에 가락의 땅에는 역시 군장이 없고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아홉 간(干)이 있어 우두머리가 되었다. 임인년 3월에 계제(禊祭)를 지내는데 갑자기 구지(龜旨)〈산봉우리의 이름〉에 이상한 기운이 보이므로 나아가 금 상자[金盒]를 얻었다. 열어 보니 여섯 개의 금빛 알[金卵]이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자[浹旬] 모두 변화하여 남자가 되었으며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무리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가장 먼저 난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主]으로 삼았다. 이로써 성이 김씨이고 가장 먼저 나타났다 하여 수로(首露)라고 이름하였다. 갑진년(44년)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최치원(崔致遠)이 「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 이르기를가야산신 정견모주(政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主日)과 금관국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또 「석순응전(釋順應傳)」에서 이르기를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최치원의 말은] 「가락고기(駕洛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차이가 있으니, [「석이정전」과 「가락고기」는] 모두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 단군(檀君)이 곰에게 키워진 것, 동명(東明)이 알에서 태어난 것, 금와(金蛙)가 곤연(鵾淵)에서 태어난 것, 신라 3성(三姓)의 시작, 혹은 백마가 길에서 절하는 것, 혹은 신령스런 까치가 울면서 따르는 것, 혹은 금궤(金櫃)가 나무에 걸린 것이 여러 역사책에 실리기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당하고 허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비웃지만, 중국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있다. 옛 부터 나라를 세운 군주는 신기하고 괴이한 것을 가지고 기이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좇도록 하고 무리의 마음을 결집하는 일이 많았다. 택반(澤畔) 신구(神嫗)의 곡(哭) 역시 이러한 종류이다. 그 마지막에 대업을 이루었으므로 그것이 상서롭다고 말하는 것이지, 만일 실패하였다면 수목이 우거진 사당의 외로운 울음과 한가지로 되었을 것이다.

사료31 『강계고』제3 신라국 강계 | 『疆界考』第三 新羅國 疆界

疆界. 駕洛國記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倻山 献爲國.〈黃山江 在梁山郡. 黃山江水 奔流五十餘里 分三浦入海 俗號三叉水. 在金海府東〉 按 金官四履 古記所載 有可以證者. 三國史 新羅祇摩王四年春 伽倻寇南邊. 秋 王親征伽倻 帥步騎 渡黃山河. 伽倻人伏兵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奮擊決圍而退. 觀於此則東界黃山河者 可知. 婆娑王八年 以國家西隣百濟 南接伽挪 築加召・馬頭二城. 加召卽今居昌縣. 馬頭未詳地分而似是馬利縣 卽今安陰所屬廢縣利安也. 觀於此 則西至地理山者 可知矣. 地理山今稱智異山.

강계(疆界).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 남쪽으로 나라를 삼았다고 되어 있다.〈황산강은 양산군(梁山郡)에 있다. 황산강의 물은 5십여 리를 달리듯 흘러 3포(浦)로 나뉘어 바다에 들어가므로 민간에서 삼차수(三叉水)라고 부른다. 김해부 동쪽에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금관국의 사방 영토는 「고기(古記)」에 실려 있는 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지마왕 4년(115년) 봄에 가야가 [신라의]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가을에 왕이 몸소 가야를 정벌하였는데 몸소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넜다. 가야 사람들이 군사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깨닫지 못하고 똑바로 나아가니 복병들이 일어나 몇 겹으로 에워쌌다. 왕이 분발하여 싸워 포위를 뚫고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신라의] 동쪽 경계가 황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사왕 8년(87년)에 국가가 서쪽으로 백제와 이웃하고 있고, 남쪽은 가야와 접하고 있으므로 가소(加召), 마두(馬頭) 두 성을 쌓았다. 가소는 곧 지금[조선]의 거창현(居昌縣)이고, 마두는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마리현(馬利縣)인 것 같은데 곧 지금[조선] 안음(安陰) 소속 폐현(廢縣) 이안(利安)이다. 이를 본다면 서쪽은 지리산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산(地理山)은 지금[조선] 지리산(智異山)이라 한다.

사료32 『여지도서』경상도 김해 | 『輿地圖書』慶尙道 金海

【建置沿革】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 至仇亥王 凡十世 四百九十一年. 仇亥降于新羅法興王 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혹은 가야(伽倻)하고도 했는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으로부터 구해왕(仇亥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0대 491년이었다. 구해가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왕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식읍(食邑)을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郡名】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군명(郡名)】 가락, 가야, 금관, 임해, 금주, 금녕, 분성.

【山川】龜旨峯〈在府北三里. 自羅峴來. 後漢光武建武十八年三月 駕洛九干 我刀・汝刀・彼刀・五刀・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 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繩係金盒而下. 開視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九人咸會 又開視 六卵剖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衆途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生于金盒 因姓金氏. 國號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 餘五人 各歸爲五伽倻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海隅 西北以智異山 東北以伽倻山爲境. 首露王在位一百五十八年薨 次居登 次麻品 次居叱彌 次伊尸品 次坐知 次吹希 次銍知 次鉗知 次仇亥 相繼爲王. 有國凡四百九十一年. 五伽倻 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 咸安爲阿那伽倻 咸昌爲古寧伽倻〉

【산천(山川)】 구지봉(龜旨峯)〈부(府)의 북쪽 3리 되는 곳에 있으며, 나현(羅峴)으로부터 내려온다. 후한(後漢) 광무제 건무 18년(42년) 3월에 가락의 9간(九干) 아도(我刀), 여도(汝刀), 피도(彼刀), 오도(五刀), 유수(留水), 유천(留天), 신천(神天), 오천(五天), 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하다가 구지봉

(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내려왔다. [상자를]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금색 알을] 받들어 아도(我刀)의 집에 두고 다음 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서 보니 여섯 알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금빛 상자[金盒]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야(伽倻)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 가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가야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으로 경계를 삼았다. 수로왕이 15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돌아가고[薨], 다음은 거등(居登), 다음은 마품(麻品), 다음은 거질미(居叱彌), 다음은 이시품(伊尸品), 다음은 좌지(坐知), 다음은 취희(吹希), 다음은 질지(銍知), 다음은 겸지(鉗知), 다음은 구해 (仇亥)가 이어가며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있은 지가 모두 491년이었다. 5가야는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이 아나가야(阿那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揶)가 된다〉

【陵寢】首露王陵〈在府西三百步. 每歲春秋 府中父老 共會設祭. 漢獻帝建安四年 伽倻始祖首露王薨. 葬城北納陵 傍田三十傾 以充春秋祭祀之費. 新羅之季將軍忠至 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於將軍 奪廟饗而致告祠堂 梁折墮於英規頂 途斃焉. 忠至懼 畵王眞安於屋壁 朝夕以祀 及三日 影流血淚 貯於地幾一斗. 忠至懼而焚之. 後有群盜謂 陵中必藏金銀寶器 欲發冢 有猛士被甲 從陵中出射之 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皆僵仆而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以陵田減其半 屬于民 其夕夢神人七八 操劒而至云 爾有大憝 故欲斬耳. 文善驚覺得疾 宵遁死于道傍〉 許王后陵〈在龜旨山東. 世傳 王妃阿踰陀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 號普州太后. 邑人祭王陵之共祀. [新增] 丙寅 因朝令 兩陵四方百步立石爲表. 戊辰 王陵陷隅 啓請香祝改封〉
【능침(陵寢)】 수로왕릉(旨露王陵)〈부의 서쪽 300보 되는 곳에 있다. 해마다 봄 가을로 부중(府中)의 부로(父老)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한 헌제 건안 4년(199년)에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돌아가니[薨] 성 북쪽에 장사하고 주변의 밭 30경을 능에 들여 봄 가을로 제사지내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빙자하여 제물을 빼앗고 말로만 고하였더니, 사당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나 되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있어서 능 속에 틀림없이 금은보화를 보관하였을 것이라 하고는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오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모두 나자빠지면서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 7~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허왕후릉(許王后陵)〈구지산(龜旨山)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비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왕녀라 하고, 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許氏)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읍 사람들이 왕릉에 제사할 때 함께 제사를 지냈다. [신증(新增)] 병인년에 조정의 명령으로 두 릉[수로왕릉과 허왕후릉] 사방 400보(步)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였다. 무진년에 왕릉의 모퉁이가 헐었으므로 제사지내고 봉분을 다시 쌓았다〉

【古蹟】首露王宮〈遺址在今府內〉望山島 東漢建武二十四年七月 許王后 自阿踰陁國. 渡海而至 首露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神鬼干望於乘岾見緋帆茜旗 自海西南隅而指北 神鬼馳奏之.王於宮西 設幔殿候之. 王后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着綾袴 贄于山靈. 及至 王迎入幔殷 越二日 同輦還闕 立以爲后. 至靈帝中平六年 己巳三月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村 解綾袴處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猶存其名〉王后寺〈舊址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招賢臺〈在府東七里小山也.俗傳 駕洛國居登王 招七點山㫒始仙人 㫒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戲 因以爲名王所坐蓮花石與棋局石 至今存焉〉婆娑石塔〈在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雕鏤甚奇 世傳 許后自西域來時 船中載此塔 以鎮風濤〉

【고적(古蹟)】 수로왕궁(首露王宮)〈옛 터가 지금[조선] 부(府) 안에 있다〉 망산도(望山島)〈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48년) 7월 허왕후(許王后)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왔다.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望山島)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천간(神鬼干)에게는 승첩(乘岾)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깃발이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신귀(神鬼)가 달려와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궁 서쪽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왕후가 배를 묶고 육지에 올라 높은 산[高嶠]에서 쉬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쳤다. [왕후가] 도착하자 왕이 맞아들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이틀이 지나서 같은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와 왕후로 삼았다.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9년) 기사 3월에 이르러 왕후가 돌아갔는데[崩], 나이가 157세였다. 국인(國人)들이 [왕후가] 처음 와서 배를 바쳤던 곳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 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깃발이 바다로 들어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불렀다. [망산도는] 주포(主浦) 왼쪽에 있으며, 지금[조선]까지 그 이름이 전해 온다〉 왕후사(王后寺)〈옛 터가 장유산(長遊山)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혼인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王后寺)라 이름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莊)으로 삼았다〉 초현대(招賢臺)〈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 작은 산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俗傳]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㫒始仙人)을 부르자 참시가 배를 타고 금(琴)을 안고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는데, 이로 인하여 [초현(招賢)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을 두었던 돌이 지금[조선]도 남아 있다〉 파사석탑(婆娑石塔)〈호계(虎溪) 변에 있다. 모두 5층으로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긴 것이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허왕후가 서역으로부터 올 때 배 안에 이 탑을 싣고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사료33 **『증보문헌비고』** 권22 여지고10 산천4 경상도 |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二 輿地考十 山川四 慶尙道

金海. 龜旨峯〈在北三里〉

김해(金海). 구지봉〈북쪽 3리에 있다〉

사료34 **『경상도읍지』** 제10책 김해부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冊 金海府邑誌

【建置沿革】本首露王駕洛國. 至仇亥王 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國除改號金官郡. 文武王改置金官少京. 髙麗太宗降為府.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수로왕(首露王)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法興王)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였다. 나라를 없애고 금관군(金官郡)으로 고쳤다. 문무왕(文武王)이 고쳐서 금관소경(金官少京)을 두었다. 고려 태종(太宗)이 강등시켜 부(府)로 삼았다.

【郡名】駕洛 伽倻 金州 金官 臨海 金寧 盆城.

【군명(郡名)】 가락, 가야, 금주. 금주. 임해. 금녕. 분성

【山川】龜旨峯〈在府北五里 自盆山中麓西向 降伏如龜 即首露王誕降處〉

【산천(山川)】 구지봉(龜旨峯)〈부(府)의 북쪽 5리에 있다. 분산(盆山) 중턱 기슭에서 서쪽을 향하여 거북이처럼 엎드려 있으니, 바로 수로왕(首露王)이 태어나 내려온 곳이다〉

【陵墓】 納陵〈在府西郭外.漢獻帝建安四年 首露王薨 壽一百五十八 葬于此 號納陵 有祭閣齋室. 冬至日鄉人祭之.有守陵軍祭田. 世宗丙寅 命環二陵 四方百步立石為表 而封植之. 戊戌陵自陥. 啓請改封 甲午命府使改封植而祭之. 正宗庚子 致祭改竪碑. 羅季 将軍忠至 鎮金官城 有英規者 奪陵閣 樑摧墮英規項 遂斃 忠至懼 晝王之真安於屋壁朝夕以祀之 及三日 影像流血淚 貯於地幾一斗 懼而焚之. 後羣盗欲發塚 有猛士被甲 従陵中出射之 中殺八人 盗驚走. 數日復来 有蟒長三十餘尺 眼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驚走.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将減陵田之半屬于民 其夕夢 神人七人 操釼而至曰 爾有大憝欲斬之耳. 文善驚覺得疾 遁死于道傍. 壬辰倭賊發王陵 壙中甚濶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亦甚偉. 傍有二女 貌如生 年可二十 出壙中即消 盖殉葬者也〉

【능묘(陵墓)】 납릉(納陵)〈부(府)의 서쪽 성곽 밖에 있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 수로왕이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8세였다. 여기에 장사지내고 이름을 납릉(納陵)이라 하였다. 제각(祭閣)과 재실(齋室)이 있었다. 동짓날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수릉군(守陵平)과 제전(祭田)이 있었다. 세종(世宗) 병인년에 명하여 두 릉[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을 둘러 사방 100보(步)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흙을 북돋고 떼를 심었다. 무술년(1778년, 정조 2년)에 능이 절로 허물어졌으므로 계(啓)를 올려 다시 쌓기를 청하였다.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에 부사(府使)에게 명하여 다시 흙을 북돋아 떼를 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정종(正宗) 경자년에 제사를 바치고 비를 다시 세웠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있어 [제수를] 침탈하였더니 능각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주변에서 나와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神시 일곱 명]이 칼을 들고 와서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가에서 죽었다. 임진년(1592년)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하며 손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許后陵〈南距王陵二里 在龜旨峯東. 漢靈帝中平三月薨 壽一百五十七 冬至配享王陵. 正宗壬子遣禮官致祭.御製祭文 氣鍾龜嶽 地分雞林 燁如神人 自天儼臨 乃受靈符 金盒紫纓 君乎牧乎 澤流南瀛 田有讓耦 屋有比封 于于皡皡 赫胥禪通 百五十八 厥享國年 雲仍得姓 以萬以千 翼翼堂斧 在府之西 即祠于傍 春秋首稽 如漢拜陵 如蜀走臘 父老飮宴 降福孔洽 肇稱殷禮 猗我列朝 錫圡置丁 立墻限樵 予又致酹 載屹龜頭 寢不如古 有司之羞 裔孫進言 輦路攬感 俾立之監 爰及篋襂 儀於何倣 崇靈崇德 豊切異蹟 匹美齊襘 神之佑之 壽我宗國 士民與樂 絃誦耕鑿 伽山欝葱 竹島瀰液 洋洋靈隲 萬世無斁. 自其後每年春秋 頒送香祝享祀〉

허후릉(許后陵)〈왕릉에서 남쪽으로 2리 떨어진 구지봉(龜旨峰)에 있다. [허왕후는] 동한(東漢) 영제 중평 6년(189년) 3월에 죽었는데 나이가 157세였다. 동지에 왕릉에 배향하였다. 정조[正宗] 임자년(1792년)에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냈는데, 제문(祭文)을 왕이 친히 지었다.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기가 모여 귀악(龜嶽)이 되고, 땅이 나뉘어 계림(雞林)이 되었는데, 빛나기가 신인(神人)같은 이가, 하늘에서 (이곳에) 임하시었다. 곧 영부(靈符)를 받으시니, 금합(金盒)과 자영(紫纓)이로다. 임금이신가 백성을 기르는 사람이신가. 은택이 흘러 남쪽에

뿌려졌도다. 밭에는 양보[讓]와 협동[耦]이 있고, 집에는 가지런히 봉함[比封]이 있으니,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워서, 밝게 서로 양보하고 통하였다. 158년이 그 나라를 향유한 연수이며, 자손이 구름처럼 많아져서, 만이 되고 천이 되었구나. 익익(翼翼)한 당부(堂斧)가 부(府)의 서쪽에 있어, 그 곁에서 제사지내는데, 봄가을로 머리를 조아려, 한나라와 같이 능(陵)에 절을 하고, 촉나라와 같이 달려가 납제사를 지내니, 부로(父老)가 연회를 즐기고, 복을 내려줌이 매우 흡족하도다. 비로소 은나라 예(禮)에 걸맞게 되었으니, 아름답도다 우리 열조(列朝)여. 토지를 내려주고 정자각[丁]을 두었으며, 담장을 세우고 나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또한 술을 부어 제사를 지내며, 높이 솟은 구지봉에 절을 하였지만, 침릉이 예전 같이 못한 것은, 유사(有司)의 수치이다. 후손들이 진언(進言)하기를, 연로(輦路)가 뒤섞여 감응한다고 하여, 감(監)을 세워 보살피게 하니, 이에 제사지내는 일이 원만하게 되었다. 의례는 무엇을 본떴는가. 영험함을 높이고 덕을 높임이다. 공적을 풍요롭게 하고 흔적을 기이하게 여겨서, 아름다움에 짝하고 약제사를 가지런하게 한다. 신령스럽게 여기고 도와서, 우리 종국(宗國)을 오래하게 하며, 사대부와 백성이 더불어 즐기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농사짓는 일을 [더불어] 한다. 가산(伽山)이 울창해지고, 죽도(竹島)가 화합하여, 신령스러움이 가득해져서, 만세토록 싫증남이 없도다. 그 뒤로 매년 봄가을에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

【佛宇】 臨江寺〈許后自天竺来 泊于此 王設幔殿迎之. 王八代 孫銍知王建寺 名曰王后寺. 今改名曰臨江寺.
【불우(佛宇)】 임강사(臨江寺)〈허후(許后)가 천축(天竺)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정박하니, 왕이 만전(幔殿)을 설치하고 맞이하였다. 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절을 짓고 왕후사(王后寺)라 하였다. 지금[조선]은 임강사로 이름을 고쳤다〉

【古蹟】 東漢建武十八年三月 駕洛九干〈即我刀 · 汝刀 · 彼刀 · 五刀 · 留水 · 留天 · 神天 · 五天 · 神鬼〉等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纓繫金盒而下. 開視之 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干之家. 翌日 九干咸集 又開視之 六卵剖殼為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遂奉一人為主 即首露王也.〈史稱首露名也 因為國號〉 以生于金盒 因姓金氏. 國號駕洛 或稱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也. 餘五人分為五伽倻〈大伽倻今高靈 小伽倻固城 碧珍伽倻星州 阿那伽倻咸安 古寧伽倻咸昌也〉. 封疆 東至黄山江 西南際海 西至智異山 北至伽倻山為界 限以洛東江. 東漢獻帝建安四年薨 壽百五十八. 葬西郭外納陵. 傳十世〈首露 · 居登 · 痲品 · 居叱彌 · 伊尸品 · 坐知 · 吹希 · 銍知 · 鉗知 · 仇亥〉 至梁大統四年 降新羅法興王 歷年四百九十一年. 國除為郡. 王之治淳厖 邦人追思報德至今冬至日 祀用大牢以后配享.〈事見陵寢〉 王妃許氏 世傳阿彌陁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黄玉 號普州太后. 漢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立為后. 漢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峯之東 距王陵二里. 有子十人. 后自以客於東土 悲無傳世 王甚慽 錫二子以后姓 東方之許本於此.
【고적(古蹟)】 동한(東漢) 건무 18년(42년) 3월 가락의 9간(九干)〈즉 아도(我刀), 여도(汝刀), 피도(彼刀), 오도(五刀), 유수(留水), 유천(留天), 신천(神大), 오천(五大), 신귀(神鬼)이다〉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하다가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내려왔다. [상자를] 열어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금색 알을] 받들어 아도간의 집에 두고 다음 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서 보니 여섯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역사서에서는 수로가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국호(國號)가 되었다. 이 금빛 상자[金盒]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는 가락(駕洛)이라 하고, 혹은 가야(伽揶)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나뉘어 5가야가 되었다.〈대가야(人伽倻)는 지금[조선] 고령(高靈), 소가야(小伽倻)는 고성(因城), 벽진가야(碧珍伽倻)는 성주(星州), 아나가야(阿那伽揶)는 함안(咸安), 고녕가야(古

寧伽倻)는 함창(咸昌)이다〉 영토[封疆]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서남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었으며, 서쪽은 지리산(智異山)에 이르고, 북쪽은 가야산(伽揶山)을 경계로 삼아 낙동강(洛東江)까지 미쳤다. 동한(東漢) 헌제(獻帝) 건안(建安) 4년(199년)에 죽으니[薨] 나이가 158세였다. 서쪽 교외에 장사 지내고 능을 들였다. 10세를 전하여〈수로(首露), 거등(居登), 마품(痲品), 거질미(居叱彌), 이시품(伊尸品), 좌지(坐知), 취희(吹希), 질지(銍知), 겸지(鉗知), 구해(仇亥)〉양(梁) 대통 4년 신라 법흥왕(法興王)에게 항복하였으니, 역년(歷年) 491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군(郡)으로 되었다. [수로]왕의 정치는 순박하고 넉넉하여 고장 사람들이 덕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여 지금[조선]까지 동짓날에 소를 써서 제사지내고 있다. 왕후를 배향하였는데, 〈이 일은 능침(陵寢) 조를 보라〉 왕비 허씨는 세상에 전하기를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왕녀(王女)라고 하고, 혹은 남천축국(南天竺國)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한(漢) 건무(建武) 24년, 수로왕 7년(48년) 세워져 왕후가 되었다. 한(漢) 영제 중평 6년(189년) 3월에 돌아가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龜旨峯)의 동쪽에 장사지냈는데, 왕릉에서 2리 떨어져 있다. 아들이 10명 있었다. 허왕후는 객으로서 동토(東土)에 와서 성(姓)을 전할 수 없음을 슬퍼하였다. 왕이 매우 근심하여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東方]의 허씨는 여기서 기원하였다.

婆娑塔〈許后自天竺来時 舟中所載 以鎮風濤. 其色赤斑. 其質脆樸 雕鏤有理層摋猶存. 今留城中虎溪上〉
파사탑(婆娑塔)〈허후(許后)가 천축(天竺)으로부터 올 때 배에 싣고 있던 것으로 바람과 파도를 진정시켰다.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무르고 조각해 새긴 것이 바르다. 층의 모양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조선] 성 가운데 호계(虎溪) 위에 남아 있다〉

望山島〈許后渡海来時 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命神鬼干望於乘岘 緋帆茜旗 自海西南隅而来. 維舟處曰主浦. 解綾袴 贄于山靈處曰綾岘. 茜旗入處曰旗出邉〉
망산도(望山島)〈허후(許后)가 바다를 건너 올 때 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현(乘岘)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왔는데, 배를 묶었던 곳을 주포(主浦)라고 하고 [허왕후가]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산신령에게 바쳤던 곳을 능현(綾岘)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로] 들어왔던 곳을 기출변(旗出邉)이라 한다〉

招賢臺〈賢一作仙 在府東七里大野中小石山前 臨七點三义. 駕洛居登王 招昆始仙人於此臺 仙人必乘舟抱琴而来遊. 王所坐石曰蓮花塔 臺西立石 有大人像 亦有巨人跡〉
초현대(招賢臺)〈현(賢)은 선(仙)으로 쓰기도 한다. 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큰 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산 앞의 세 갈래 강 앞 칠점산(七点山)에 임해 있다. 가락(駕洛)의 거등왕(居登王)이 참시선인(昆始仙人)을 이 대(坮)에 부르면 선인이 반드시 베를 타고 금(琴)을 안고 와서 놀았다. 왕이 앉았던 곳을 연화탑(蓮花塔)이라 하고, 대(坮) 서쪽의 입석(立石)에 대인(大人)의 상(像)이 있으며, 또한 거인(巨人)의 흔적이 있다〉

瞻星臺〈在府西三十里 世傳 駕洛封太子 為進禮城主 有圡城瞻星臺 遺址在焉〉
첨성대(瞻星臺)〈부의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駕洛)이 태자를 봉하여 진례성주(進禮城主)로 삼았는데, 흙으로 쌓은 첨망대(瞻望枱)가 있었다. 옛 터가 남아 있다〉

駕洛宮墟〈遺址在今西郭外.徐居正詩 金陵往事與誰論 千古猶存首露墳 龜旨曲亡人已遠 伽倻琴在妙堪聞 銅駞古里山如戟 翁仲遺墟樹似雲 百六十年能享國 可憐荒壠幾斜曛.郭輿詩 伽倻國業連江草 首露王孫作郡民. 土城〈世傳首露 王蒸圡築之 號曰盆城 今存體勢〉

가락궁터[駕洛宮墟]〈옛 터가 지금[조선] 서곽(西郭) 밖에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금릉(金陵) 지난 일을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리. 천고(千古)에 오직 수로왕의 봉분이 남아 있네. 구지곡(龜旨曲)은 없어져 사람이 볼 수 없으나, 가야금(伽倻琴)이 있어서 신묘한 소리를 들을 만하네. 동타(銅駝) 옛 마을에 산이 창[戟] 같고, 옹중(翁仲) 빈터에 나무가 구름 같다. 160년 동안 나라를 누렸으나 가련하다. 거친 무덤에 몇 번이나 저녁 해 비꼈던가."라 불렀다. 곽여(郭輿)의 시에 "가야국(伽倻國)의 왕업(王業)이 강의 풀처럼 연이어,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이 군민(郡民)이 되었네."라 불렀다〉

【土城】〈世傳首露 王蒸土築之 號曰盆城 今存體勢〉
【토성(土城)】〈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흙을 쪄서 쌓고 분성(盆城)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조선] 대체적인 형체가 남아 있다〉

【人物】新羅 金武力〈首露王十世孫 爲新州摠管 嘗護百濟王〉
【인물(人物)】 신라 김무력(金武力)〈수로왕(首露王)의 10세 손이다. 신주도총관(新州道摠管)이 되었으며, 일찍이 백제왕을 사로잡았다[嘗護百濟王]〉

【題詠】〈南冥曺植詩 遼鶴依依愴客情 古邦深鎖野烟平 首露龜峯城北古 徐生馬島日南清 高臺按去梁州晩 美酒寒来輭霧生 今年莫作前年恨 冬至明朝又一蓂. 趙浚詩 烟鬟鏡面海山青 雲錦波頭夕照明 多謝伽倻舊時月 夜深偏照倚樓情.趙浚詩 烟鬟鏡面海山青 雲錦波頭夕照明 多謝伽倻舊時月 夜深偏照倚樓情. 柳得恭詩 訪古伽倻烟竹枝 婆娑塔影虎溪湄 面看落日沉西海 正似紅旗入浦時. 蘓凝天詩 龜旨峯明夕照低 短碑秋草古城西 凄凉五百年王業 隔樹寒鴉盡意啼.慈仁縣監許珩詩 千年駕洛國 两位納陵尊 黃帝喬山葬 蒼梧湘水原 神靈如昨日 凄愴拜遺孫 王祭非私禮 人情未敢論. 繡衣金學淳詩 東風歇馬問城門 駕洛遺墟古俗存 近海村居多竹樹 環洲島嶼盡塩盆 歸雲渺渺家千里 芳草萋萋雨一番 經歲南遊何所得 湖山到處觧方言. 知府權馥詩 金陵昔日盛繁華 往跡蒼茫首露家 龜旨于今苔蝕石 虎溪依舊月籠沙 王京極目山千疊 客宦非心海一涯 吏退公庭簾影静 終朝閑對映堦花〉
【제영(題詠)】〈남명(南冥) 조식(曺植)의 시에 "요동학[遼鶴]을 사모하는 슬픈 나그네 마음, 옛 나라는 깊이 닫혀 들판의 굴뚝 연기는 평화롭네. 수로(首露)의 구봉(龜峯)은 성의 북쪽에 오래되었고, 천천히 드러나는 마도(馬島)에 해는 중천에 떠서 쾌청하구나. [해가] 높은 대(臺)을 어루만지다 사라져 양주(梁州)에 으스름이 깔리는데, 맛좋은 술에 차가운 기운이 다가와 가볍게 안개가 피어나네. 올해는 지난해의 한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동지 다음날 아침에 명협(蓂莢)이 또 한 잎 자라네."라 읊었다. 조준(趙峻)의 시에 "굴뚝 연기 나는 산머리 거울에 비춘 듯 해산(海山)은 푸르고, 구름비단 파도사이 산머리에 석양이 밝게 비추는데, 가야의 옛 시절에 많이 고마워하여, 밤 깊어 [달빛이] 치우쳐 비추는데, 누(樓)에 기대는 이 마음."이라 읊었다. 유득공(柳得恭)의 시에 "옛 가야 찾아오니 굴뚝 연기 사이의 대나무가지 파사탑(婆娑塔)의 그림자 호계(虎溪)의 물가에 비추네. 마주 보이는 저무는 해 서해로 잠기는 것이 바로 홍기(紅旗)가 포구로 들어오는 때와 비슷하구나."라 읊었다. 소응천(蘇凝天)의 시에 구지봉에 밝은 석양이 낮게 비추는데, 짧은 비석과 가을 풀은 옛 성의 서쪽에 있네, 처량하구나 오백년 왕업이여, 나무 저 편 갈가마귀 마음을 다해 우는구나."라 읊었다. 자인현감(慈仁縣監) 허형(許珩)예의 시에 "천년 가락국(駕洛國)에, 두 분이 납릉(納陵)에서 존엄하다. 황제(黃帝)를 교산(喬山)에 장사지내니, 푸른 오동나무는 상수(湘水)의 발원지 신묘하고 영험한 것은 어제와 같은데, 처량하고 슬프게 남은 후손이 절을 하네. 왕제(王祭)가 사례(私禮)가 아니니 인정은 감히 논할 바도 못되는 일."이라 읊었다. 수의(繡衣) 김학순(金學淳)의 시에 "동풍에 말을 쉬게 하며 성문을 물어보니, 가락의 유허(遺墟)와 고속(古俗)이 남아있구나. 바다 근처 마을에는 대나무 수풀도 많고, 빙 둘러 섬마다 소금 항아리 지천이네. 돌아가는 구름 아득하여 집은 천리 길인데, 향기 나는 풀 무성한 곳에 비가 한 차례 오는구나. 일년이 다 가도록 남쪽을 유람하였건만 무슨 소득 있었는가.

호수와 산 도착하는 곳마다 방언이나 풀어보았지."라 읊었다. 지부(知府) 권복(權馥)의 시에 "금릉(金陵)에 지난 날 번성했던 꽃들, 지나간 흔적이 아득한 수로(首露)집안. 구지(龜旨)는 이제 돌들에 이끼가 끼고, 호계는 의구하여 달빛에 둘러싸여 있네. 왕경(王京)은 산이 천 겹이라 눈에 닿지 않으니, 객환(客宦)은 바다 한 쪽 끝에서 마음이 좋지 않네. 관리가 공정(公庭)에서 물러 나와 발을 치고 조용히 머물러 아침이 다 가도록 한가로이 대하는 영롱한 계단의 꽃."이라 읊었다〉

【碑板】〈納陵碑面 駕洛國首露王陵. 碑陰 王姓金氏 生於漢光武建武十八年 始建國號駕洛. 薨於獻帝建安四年 壽百五十八 葬納陵. 首露史稱王名 因以為王號云. 梁大統四年國亡傳世九 歷年四百九十一. 王有子十人 感后言 賜后姓者二 東方之許 本原于此. 王之世治臻淳厖 邦人追思王 以報德. 至今冬至日 祀用大牢 以后配焉. 葬後千有餘載 逮皇明萬曆庚辰 後孫許曄為方伯 修墓備床砌. 壬辰倭寇掘發 鄉人改封之. 後庚辰六十七年丙戌 積以遺紹而忝按道 又加封植碑于墓前 維月若日 工告訖功 實丁亥仲春也. 床若砌亦皆新焉 而安于樽所者 即前日陳牲石也. 同宗幼學穆 省峴察訪崘 進士嵰 新寧縣監坵 幹其事. 噫. 煌煌功德浹人骨入民耳深 一片石不足為輕重 在子孫報本之誠又安得不爾. 後孫 通政大夫 · 守慶尚道 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 巡察使許積 謹識.外裔 幼學全榮 謹書. 后陵碑面 駕洛國首露王妃普州太后許氏之陵. 碑陰 太后姓許氏 原系之出 載籍不詳 無所徵. 漢光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立為后 號曰普州太后 媲德匹休 克贊内化. 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東 距王陵二里餘. 有子十人自以客於東土 悲無傳姓為言. 王甚憾 王錫二子以后姓 我國之許 本於此. 修墓立石顛末 在王陵表陰 此不備述云. 爾與王陵同日立〉

【비판(碑板)】〈납릉(納陵) 비면(碑而)에는 가락국수로왕릉(駕洛國首露王陵)이라고 되어 있다. 비(碑) 음기(陰記)는 다음과 같다〉 왕의 성은 김씨로 한(漢) 광무 건무 18년(42년)에 태어나 처음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가락(駕洛)이라고 하였다. 헌제 건안 4년(199년)에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8세였으며 납릉(納陵)에 장사지냈다. 수로는 역사서에서 왕의 이름[王名]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왕호(王號)가 되었다. 양(梁) 대통(人統) 4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9세를 전하여 역년이 491년이었다. 왕은 아들을 열 명 두었는데 왕후의 말에 감동하여 왕후의 성을 내려준 사람이 두 명이었다. 동방의 허씨(許氏)는 여기에서 기원한다. 왕의 다스림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다.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왕의] 덕에 보답하였으니 지금 동지에 이르러 대뢰(大牢)를 써서 제사를 지내고 왕후를 짝하게 하였다. 장사를 지낸 후 천여 년이 지나 황명(皇明) 만력(萬軒) 경진년(1580년, 선조 13년)에 이르러 후손 허엽(許曄)이 방백(方伯)이 되어 묘를 수리하고 상석(床石)과 섬돌을 마련하였다. 임진년의 왜구가 파헤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만들었다. 경진년(庚辰年)으로부터 67년 후인 병술년[丙戌年](1646년, 인조 24년)에 이르러 허적(許積)이 후손으로서 황송하게도 [경상]도를 어루만지게 되어 또 봉분을 더하고 묘 앞에 비를 세웠다.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여 끝낸 때가 실로 정해년(1647년, 인조 25년)중춘(仲春)이었다. 상석과 섬돌 역시 모두 새롭게 하였으며, 술 단지 놓는 곳[樽所]에 둔 것은 곧 전날의 희생을 진설하는 돌[陳牲石]이었다. 같은 종씨인 유학(幼學) 허목(許穆), 성현찰방(省峴察訪) 허륜(許崘), 진사(進士) 허겸(許嵰), 신령현감(新寧縣監) 허구(許近)가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 아, 빛나는 공덕이 뼈에 사무쳐 백성들의 귀에 깊이 들어갔으니 한 조각돌로 경중을 따지기에 부족하다. [빛나는 공덕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이 근본에 보답하는 성실함에 달려있으니 또한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손 통정대부(通政人夫) 수경상도관찰사(守慶尙道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인 허적(許稂)이 삼가 짓고, 외손[外裔]유학 전영(仝榮)이 삼가 쓰다. 후릉(后陵). 비면(碑面)은 '가락국수로왕비보주태후허씨지릉(駕洛國首露下妃普州太后許氏之陵)'이라고 되어 있다. 비의 음기는 다음과 같다.

태후의 성은 허씨인데, 원계(原系)의 출신은 재적(載籍)이 분명치 않아서 알 수가 없다. 한(漢) 광무(光武) 24년 생(48년) 수로왕 7년에 왕후가 되었으며 호를 보주태후(普州太后)라고 하였다. 배필의 덕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수로왕을] 도와 안으로 교화를 펼 수 있었다.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6년) 3월에 돌아가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의 동쪽에 장사지냈는데, 왕릉과 2리 정도 떨어져 있다. 아들 열 명을 두었는데 스스로 동토의 객으로서 성을 전해줄 수 없음을 비통 하게 여겨 말을 삼았더니 왕이 매우 슬퍼하고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었다. 우리나라의 허씨(許氏)는 여기에서 기원한다. 묘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이 일의] 전말은 왕릉의 비문에 새겨 져 있으므로 여기에는 갖추어 서술하지 않는다. 왕릉과 같은 날 세웠다〉

사료35 **『대동지지』권10 경상도 김해 | 『大東地志』卷十 慶尙道 金海**

【沿革】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 新羅儒理王十九年〉金首露建國于此 國號加耶.〈一云 加羅國 促呼駕洛國 卽弁韓諸國之一〉歷十王 至仇衡 降于新羅.〈歷年四百九十日年 卽新羅法興王十九年壬子〉新羅置加耶郡.〈一云 金官郡 授金仇衡位上大等 以其國爲食邑〉文武王二十年 置金官小京. 景德王十六年 改金海小京 隸良州.

【연혁(沿革)】한(漢) 광무제 건무 18년(42년)〈임인, 신라 유리왕 19년〉김수로(金首露)가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가야(加耶)라고 하였다.〈가라국(加羅國)이라고도 하며, 빨리 부르면 가락국(駕洛國)이 된다. 변한(弁韓)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열 명의 왕을 거쳐 구형(仇衡)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였다. 〈역년이 491년이니, 곧 신라 법흥왕 19년(532년) 임자년이다〉 신라가 가야군(加耶郡)을 두었다〈금관군(金官郡)이라고도 한다. 김구형(金仇衡)에게 상대등(上大等)의 자리[位]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문무왕(文武王) 20년(680년)에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년)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고치고 양주(良州)에 예속시켰다.

【城池】加耶首露王三年 築都城 營宮室.〈今府城內有王宮遺址〉高麗靖宗六年 城金海府. 高宗三十八年 城金州 以備倭寇.

【성지(城池)】가야 수로왕(首露王) 3년에 도성(都城)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지금[조선] 부(府)의 경계 안에 왕궁의 옛 터가 있다〉 고려 정종 6년(1040년) 김해부(金海府)에 성을 쌓았다. 고종 38년(1251년) 금주(金州)에 성을 쌓고 왜구(倭寇)에 대비하였다.

【陵墓】首露王陵.〈府內三百步 號納陵 春秋陵香祝致祭 監一人以姓孫差〉首露王妃許氏陵.〈在 龜旨峯 與王陵共祀〉

【능묘(陵墓)】수로왕릉(首露王陵)〈부의 서쪽 300보 되는 곳에 있는데, 납릉(納陵)이라고 부른다. 봄 가을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고 제사를 지낸다. 감(監) 한 사람이 후손 가운데 파견된다〉 수로왕비허씨릉(宵露王妃許氏陵)〈구지봉(龜旨峯)에 있다. 왕릉과 함께 제사를 지낸다〉

【典故】新羅儒理王二十一年 秋 阿飡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祇摩王五年 秋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繼之. 加耶嬰城固守 乃還.

【전고(典故)】신라 유리왕 21년(44년) 가을에 아찬 길문이 가야병과 황산진의 입구에서 싸워 포로 1천여 명을 얻었다. 지마왕 5년(116년)가을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하였다. 왕이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

사료36 **『대동지지』권31 방여총지3 가야 | 『大東地志』卷三十一 方輿總志三 加耶**

加耶. 弁韓諸國之一也. 一云加羅.〈加一作迦〉轉爲駕洛.〈按俚訓 每促呼國字 故羅轉爲洛耳〉

가야(加耶). 변진제국(弁辰諸國) 중 하나이다. 가라(加羅)〈가(加)는 가(迦)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기도 한다. 변하여 가락(駕洛)이 되었다〈이훈(俚訓)을 살펴보면 매번 국자(國字)를 빨리 불렀기 때문에 라(羅)가 변하여 락(洛)이 되었다고 한다〉

【紀年】始祖首露王〈姓金氏 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 元年〉在位一百五十八年.〈陵在金海內西 三百步 號納陵 春秋

陵香祝致祭 王妃許氏陵. 在龜旨峯 與王陵共祀〉 居登王〈漢獻帝建安五年庚辰 元年〉 在位五十四年. 痲品王 〈漢後帝延熙十七年甲戌 元年〉 在位三十八年. 居叱彌王〈晉惠帝原康二年壬子 元年〉 在位五十五年. 伊尸品王〈晉穆帝永和三年丁未 元年〉 在位六十一年. 坐知王〈晉安帝義熙四年戊申 元年〉 在位十四年. 希王〈宋高祖永初三年壬戌 元年〉 在位三十年. 絰知王〈宋文帝元嘉二十九年壬辰 元年〉 在位四十一年. 鉗知王〈宋武帝永明十一年癸酉 元年〉 在位二十九年. 仇衡王〈一作仇亥王.梁武帝普通三年壬寅 元年〉 在位十一年.〈陵在山淸縣西二十里 王山寺後.卽遜國後所居水晶宮遺址. 山中累石爲邱 四面皆有疊級俗傳王陵. 其後 姓孫尋得. 又立祠于王山下. 新羅法興王十九年降于新羅. 法興王授位上大等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右十王 共四百九十一年.

【기년(紀年)】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성이 김씨이다. 한(漢) 광무 건무 18년 임인(42년) 원년〉재위 158년.〈능이 김해부에서 서쪽으로 300보 떨어진 곳에 있는데 납릉(納陵)이라 부른다.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보내 제사를 지낸다. 왕비 허씨릉은 구지봉에 있는데 왕릉과 함께 제사를 지낸다.〉 거등왕(居登王)〈한(漢) 헌제 건안 5년 경진(200년) 원년〉 재위 54년. 마품왕(痲品王)〈한(漢) 후제 연희 17년 갑술(254년) 원년〉 재위 38년. 거질미왕(居叱彌王)〈진(晉) 혜제 원강 2년 임자(292년) 원년〉 재위 55년. 이시품왕(伊尸品王)〈진(晉) 목제 영화 3년 정미(347년) 원년〉 재위 61년. 좌지왕(坐知王)〈진(晉) 안제 의희4년 무신(408년) 원년〉 재위 14년. 취희왕(吹希王)〈송(宋) 고조 영초 3년 임술(422년) 원년〉 재위 30년. 질지왕(銍知王)〈송(宋) 문제 원가29년 임진(452년) 원년〉 재위 41년. 겸지왕(鉗知王)〈제(齊) 무제 영명 11년 계유(493년) 원년〉 재위 29년. 구형왕(仇衡王)〈구해왕(仇灰王)이라고도 한다. 양(梁) 무제 보통 3년 임인(522년) 원년〉재위 11년. 〈능이 산청현 서쪽 20리 왕산사의 뒤에 있다. 곧 나라를 양보한 뒤에 머물던 수정궁 유지(遺址)이다. 산허리에 돌을 쌓아 둔덕을 만들고 네 면에 모두 층계를 두었는데 세속에서 전하길 왕릉이라고 한다. 그 뒤 같은 성씨의 후손들이 찾아 발견하였다. 또 왕산 아래에 사당을 세웠다. 신라 법흥왕 19년(53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법흥왕이 상대등(上大等)의 지위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았으며, 금관군이라고 불렀다〉 위 10왕이 모두 491년이다.

【國都】 首露王三年 築都城〈卽金海府城〉 營宮室.

【국도(國都)】 수로왕 3년 도성을 쌓고〈곧 김해부성이다〉 궁실을 지었다.

【疆域】 三國史云 東以黃山江〈卽洛東江下流〉 西南以海 西北以智異山 東北以伽倻山爲界. 謹按 三韓是馬 · 辰 · 弁 而若列三國 則新羅 · 加耶 是爲宜矣. 高麗自丸都南遷黃城後一百九十年 而加耶亡. 三國史不記加耶 而引遼瀋之句麗者 泥於幅員之廣國勢之強耳. 地志 又移漢水竹嶺以南 於高句麗者 何也. 徒因一時之侵伐 妄誤千載之疆域耳. 盖弁辰地界西至全 · 武二州所領郡縣 而武州〈今光州〉 以南 爲加耶之西南界 後爲百濟之所攻取.

【강역(疆域)】『삼국사기[三國史]』에 이르기를 동쪽은 황산강〈곧 낙동강 하류〉,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謹按]. 삼한은 마 · 진 · 변한으로, 삼국으로 열거한다면 신라, 가야, 백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고구려[高麗]가 환도에서 황성(黃城)으로 남천한 뒤 190년이 지나서 가야가 망하였다.『삼국사기[三國史]』에 가야를 기록하지 않고 요(遼), 심(瀋)의 고구려[句麗]를 끌어들인 것은 너비와 둘레의 넓음과 국세의 강함에 빠졌기 때문이다.『지지(地志)』에서 또 한수(漢水)와 죽령 이남을 고구려로 옮겨 놓은 것은 어째서인가. 단지 한 때의 침벌로 인하여 천년의 강역을 그릇되게 한 것일 뿐이다. 대체로 변진(弁辰)의 경계는 서쪽으로 전주, 무주 2주의 관할 군현에 이르며, 무주(武州)〈지금[조선] 광주〉이남은 가야의 서남 경계가 되며 뒤에 백제가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사료37 『동국통지』 권6 지리지 하 | 『東國通志』 卷六 地理志 下

金海.〈本駕洛國 又稱伽倻. 後更爲金官國. 其國界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凡四百九十日年. 降新羅爲郡. 置金官小京. 有首露王墓 招賢臺 三义水 今黃山江〉

김해(金海).〈본래 가락국 또는 가야라고 불렀으며, 뒤에 다시 금관국이 되었다. 그 나라의 경계가 동쪽으로 황산강에 이르고, 동북쪽으로 가야산에 이르며, 서남쪽으로 큰 바다에 닿았으며, 서북쪽으로 지리산을 경계로 하였다. 491년 만에 신라에 항복하여 군이 되었고,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수로왕묘, 초현대(招賢臺), 삼차수(三叉水)가 있는데, 지금의 황산강이다〉

사료38 **『역사집략』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壬寅〉〈新羅儒理王十八年 高句麗大武神王二十四年 百濟多婁王十四年 東漢光武帝建武十八年〉春三月 駕洛〈日作加羅 今金海等地〉國始祖金首露立. 初駕洛有九干 曰我刀·彼刀·汝刀·五刀·留水·留天·神鬼·五天·神天. 各統其衆 聚居山野 無君臣位號. 有伽倻〈一作加耶〉山正見母主者 生子惱窒朱日及惱窒青裔二人.而惱窒青裔特奇傑 身長九尺 龍顏重瞳. 衆推爲君 是爲首露 王. 國號駕洛 或稱加耶 後改金官. 或曰 首露自以少昊金天氏之後 以金爲姓.惱窒朱日別開國 曰大加耶 或稱任羅〈一作任那〉是爲伊珍阿豉王. 或曰 駕洛之始 有男子六人 皆英偉長大. 衆推其兄爲主 是爲首露. 餘五人分爲五加耶 一曰大加耶〈今高靈〉一曰小加耶〈一名古自 今固城〉一曰阿羅加耶〈一名阿戶良 今咸安〉一曰古寧加耶〈今咸昌〉一曰碧珍加耶〈今星主〉. 其地 東以黃山江〈在今落山〉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今智異山〉東北以伽倻山〈在今 星主〉爲界. 疆域考曰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正見母主 生大加耶王惱窒朱日及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朱日爲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又曰 東史略有六卵之說. 而東史總目遂云 首露王兄弟六人 分作六加耶之始祖. 此皆後人推演爲說 不足徵也. 又曰 文獻通考〈馬端臨作〉曰 弁韓國有瑟 其形如筑 彈之有音曲 與胡琴相類. 我邦琴瑟之可以得名者 惟有加耶琴一種而已. 馬氏乃云弁韓瑟形如筑 則伽倻之爲弁韓 豈不明甚.謂之瑟者 絃有十二 其形差大也.

〈임인년[壬寅]〉〈신라 유리왕 18년, 고구려 대무신왕 24년, 백제 다루왕 14년, 동한(東漢) 광무 건무 18년(42년)〉 봄 3월에 가락국〈[가락은] 또는 가라(加羅)라고도 쓴다. 지금(대한제국)의 김해(金海) 등 지역이다〉 시조 김수로(金首露)가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앞서 가락에는 9간(九干)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아도(我刀)·피도(彼刀)·여도(汝刀)·오도(五刀)·유수(留水)·유천(留天)·신천(神天)·오천(五天)·신귀(神鬼) 등이었다. [9간은]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산과 들에 모여 살았으며 임금과 신하의 지위나 호칭은 없었다. 가야산(伽倻山)〈[가야는] 또는 가야(加耶)라고도 쓴다〉에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있어서 뇌질주일(惱窒朱日)과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청예는 특히 기이한 호걸이었으니[奇傑], 신장이 아홉 척이며 용의 얼굴에 겹눈동자를 지녔다. 무리가 추대하여 임금[君]으로 삼았으니, 이 사람이 수로왕이다. 국호는 가락(駕洛), 혹은 가야(加耶)라고도 칭하였으며 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혹은 수로가 스스로 소호(少昊)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고 하여 김으로 성을 삼았다고도 한다. 뇌질주일은 따로 대가야(大加耶)를 개국하였으니, 혹은 임나(任羅)〈[라(羅)는] 또는 나(那)라고도 쓴다〉라고도 칭하니, 이 사람이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이다. 혹은 가락이 시작할 대 남자 여섯 명이 있었으니 모두 영특하고 위대하며 재주가 뛰어났다. 무리가 그 맏형을 추대하여 군주로 삼았으니 이 사람이 수로가 되었다. 나머지 다섯 명은 다섯 가야를 만들었으니, 대가야(大加耶)〈지금의 고령(高靈)〉, 소가야(小加耶)〈또는 고자(古自)라고 불렀다. 지금의 고성(固城)〉, 아라가야(阿羅加耶)〈또는 아시량(阿尸良)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함안(咸安)〉, 고녕가야(古寧加耶)〈지금의 함창(咸昌)〉, 벽진가야(碧珍加耶)〈지금의 성주(星州)〉 등이다. 그 영토는 동쪽으로는 황산강(黃山江)〈지금의 양산(梁山)에 있다〉, 남쪽으로는 바다, 서북쪽으로는 지리산(地理山)〈지금의 지리산(智異山)〉, 동북쪽으로는 가야산(伽倻山)〈지금의 성주(星州)〉을 경계로 하였다고 하였다. 『강역고(疆域考)』에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는 가야산의 정견모주(正見母主)가 대가야왕(大加耶王)인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인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주일은 아시왕(阿豉王)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다. 또 말하기를 『동사략(東史略)』에 여섯 개의 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동사총목(東史總目)』에서는 드디어 수로왕의 형제 여섯 명이 나누어 6가야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뒷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며, 증거가 부족하다. 또 말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마단임(馬端臨)이 지었다〉에 변한국

에 큰 고[瑟]가 있다. 그 모습이 축(筑)과 같았으며 연주함에 또한 가락이 있었다. 호금(胡琴)과 비슷한 종류이다 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슬(琴瑟) 중에 이름을 얻은 것은 오직 가야금 한 종류뿐이다. 마단임이 이에 변한금(弁韓琴)은 형태가 축과 같다고 하였으니, 가야가 변한이 됨은 어찌 더욱 분명하지 않은가? 큰 고[瑟]라는 것은 현이 12줄이며 형태가 다소 큰 것을 말한다.

42년부터　가야, 삼국과 시종을 함께 하다

사료1　『성호사설』 권22 경사문 촉한사동로 | 『星湖僿說』 卷二十二 經史門 蜀漢似東魯

昔 戰國之間 衛獨多賢故 能守社稷. 至於秦之二世 我邦三國時伽倻之微 而與共終始存亡之兆 惟在其人也. 況嶺南衆水同滙 區域別開 自大小白 南止頭流 天成界限 安知天意不畀以國家之保障耶.

옛날 전국시대에 오직 위(衛)나라에 어진 이가 많았던 까닭에 능히 사직을 지켜 진(秦)나라 2세 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미약한 가야(伽倻)로써 삼국과 함께 종시(終始)를 같이 하였으니, 나라의 유지와 멸망은 오직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하물며 영남(嶺南)은 여러 갈래의 물이 한 데로 모이고 구역은 딴 판국으로 생겼다. 대소백(大小白)으로부터 남쪽 두류산(頭流山)에 이르기까지 하늘이 한계를 이루어 놓았으니, 하늘 뜻이 우리나라 보장을 이렇게 정해 준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42년경　수로왕, 김유신의 선조로 기록되다

사료1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 『三國史記』 卷四十一 列傳一 金庾信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 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 加耶. 後改爲金官國. 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曾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無君臣位號. 有九干等各總其衆 爲酋長. 號駕洛九村.

김유신은 왕경 사람이다. 12세조 수로(首露)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후한 건무 18년(42년) 임인에 구봉(龜峯)에 올라 가락구촌(駕洛九村)을 바라보다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 개국하였는데 가야(加耶)라 불렀다. 뒤에 고쳐 금관국(金官國)으로 하였다. 자손이 계속 이어져 9대손 구해(仇亥) 또는 구차휴(仇次休)라고 하는데 유신(庾信)의 증조부가(曾祖)가 된다.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로 성을 김(金)으로 하였다. 유신비(庾信碑)에 역시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혈통이라 하였으니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首露)는 신라와 동성이다. 군신의 칭호가 없었는데 구간(九干)들이 각각 우리를 다스리며 추장(酋長)이 되었으니 가락구촌(駕洛九村)이라 하였다.

사료2　『동국통감제강』 권3 삼국기 | 『東國通鑑提綱』 卷三 三國紀

〈乙丑 漢永平八年 脫解王八年麗太祖王十二年 濟多婁王三十七年〉 春三月 王得金閼智 …(중략)… 按 金庾信碑

云 少昊金天氏之後 故爲金氏. 又曰 與新羅同姓. 蓋秦民數萬流入辰韓 其中固多賢聖冑裔. 意者 少昊之後 亦隨以東來 因遂蕃昌 爲新羅駕洛開國之祖歟. 首露 · 閼智之誕 所記荒謬 不足信也. 若如權陽村說 姦人逞術竊國 一時則有之矣. 至如享國長久 本支千億 非天啓之曷 克臻是哉.

〈을축년 한(漢) 영평 8년 탈해왕 8년[고구]려 태조왕 12년 [백]제 다루왕 37년〉 봄 3월에 왕이 김알지를 얻어 …(중략)… 생각건대 「김유신비」에 말하기를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인 까닭에 김씨(金氏)를 성으로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라와 동성이다 라 하였다. 대개 진나라 인민[秦民] 수만이 진한(辰韓)으로 흘러들었다. 그 가운데 현자와 성인 많았다. 생각건대 소호의 후예가 따라서 동쪽으로 와 제후의 나라로 번창하였으니 신라와 가락을 개국한 시조가 되었는가. 수로(首露)와 알지(閼智)의 탄생으로 기록된 것은 황당하고 잘못이니 믿을 수 없다. 만약 양촌 권근의 설처럼 간사한 사람이 억센 방법으로 나라를 훔친 일이 한 때 있었던 것인가.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는데 본래 천억을 지탱하는 것은 하늘의 인도함으로 능히 여기에 이르렀던가.

사료3 **『기언』 권12 중편 족씨 양천허씨족보서 | 『記言』 卷十二 中篇 族氏 陽川許氏族譜序**

吾族氏出自駕洛. 譜牒所記 自我孔巖村主以後 著於譜牒 號爲甲族. 自得姓來二十六世七世. 凡七百餘年

우리 족씨는 원래 가락(駕洛; 김해)에서 나왔다고 『보첩(譜牒)』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공암 촌주(孔巖村主) 허선문(許宣文) 이후부터 『보첩』에 실려 있고 갑족(甲族)으로 불려졌다. 우리 양천 허씨는 시조 이후 26~27대 정도로 700여 년이 되었다.

사료4 **『성호사설』 권20 경사문 기화 | 『星湖僿說』 卷二十 經史門 氣化**

金庾信 是南加耶首露王之後. 而其碑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羅人自謂金天氏後 加耶新羅即同姓也. 其遠引先聖雖不可信. 其非氣化生則當時人已有定說矣.

김유신(金庾信)은 남가야(南加耶)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의 비(碑)에는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자손이다."라고 하였다. 신라 사람은 자칭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 하니, 가야와 신라는 곧 동성(同姓)이다. 그들이 멀리 (신)성[(神)聖]을 인용한 것은 비록 믿을 수 없으나 그것이 처음부터 기화(氣化; 기의 작용)로 생겨나지 않았음은 당시 사람에게도 이미 정설이 되어 있었다.

사료5 **『성호사설』 권22 경사문 고김이성 | 『星湖僿說』 卷二十二 經史門 高金二姓**

新羅金櫝之閼智 自稱金天之後 已是無考 駕洛金卵之首露 亦云軒轅之裔 少昊之胤 何哉. 其說見金庾信碑 而三國史採之. 或者 高金二姓 始従中土流移 而詭恠之說乃氓俗訛謬耶. 其在邃古人物肇生 必將氣化 至扵繁植形化之後更無此理. 三國之起 在西漢之末. 東方亦自檀箕傳世久遠 三韓鼎峙 汚隆迭變 豈扵此時種種化生 若是其多哉. 余故曰 其遠祖扵聖神 都未必信 而國史所傳 亦荒恠可廢.

신라의 금독(金櫝)에서 난 알지(閼智)는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고 자칭했으나 이는 자세히 상고할 수 없고, 가락(駕洛)의 금알(金卵)에서 난 수로(首露)도 헌원의 후예라고도 하고 소호의 후예라고도 하였으니 무슨 이유였을까. 이 말은 김유신(金庾信)의 비문(碑文)에 나타났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채록하였다. 어떤 자는 고씨(高氏)와 김씨(金氏) 두 성은 처음 중국 땅에서 옮겨온 듯하다. 그런데도 금궤에서 나왔느니 알에서 나왔느니 하는 이상한 말은 그때 민간에서 와전되었던 것인가. 상고시대에 인물이 처음 생겨날 때는 반드시 기[氣]가 화[化]해서 되었다 할지라도, 점점 번식하여 형[形]체로 변화[化]된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이치가 없었다. 삼국이 일어난 것은 서한(西漢) 말기였고, 우리나라도 역시 단(檀; 단군) · 기(箕; 기자) 때부터 전해 온 세대가 오래 되었는데, 삼한이 정립해서 이리저리 서로 변해진 그 시대에 기화(氣化)로 생겨났다는 인물들이 어찌 그토록 많았을까. 이러므로 나는 먼 조상에 대한 신성하다는 이야기도 다 믿을 필요가 없고, 국사(國史)에 전하는 허황되고 괴상한 말은 역시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료6 **『해동역사』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 『海東繹史』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高麗史 地理志] 新羅 儒理王十八年〈漢光武十七年〉 駕洛之長九人 奉首露王爲主 國號駕洛 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新羅史自註加羅一名伽倻〉

[『고려사』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 유리왕 18년(41년)〈한 광무제 17년〉에 가락(駕洛)의 (촌)장 9인이 수로왕(首露王)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고 국호를 가락(駕洛)이라고 칭하였으며, 또 가야(伽倻)라 칭하였다. 후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신라사[『삼국사기』권44 사다함열전]는 가라(加羅)는 일명 가야(伽倻)라고도 한다고 스스로 주를 부쳤다〉

사료7 **『증보문헌비고』권9 상위고9 보물이1 | 『增補文獻備考』卷九 象緯考九 補物異一**

李萬運物異考敍曰 馬氏通考既有象緯考一部. 凡係日月薄蝕之災 星文祲孛之變 無不詳載.而又以雨暘霜雹 · 人妖物怪之可驚而可愕者 復作物異編數目 以究天人孚感之妙. 皇王修省之 則必曰某政召某異 某災應某事 反復援据丁寧告誡 要使人君 乾惕對越 罔敢荒寧者. 此魏相李沆之有見於斯 而爲後辟鑑戒之資審矣. 今臣學慙窺斑才蔑識時 其於感應之幾 休咎之徵不敢開喙 妄有所論列以犯古人不韙之戒 而謹以歷代災祥之見於東史者 掇拾成編 庸備九重之柯則.

이만운(李萬運)은 『물이고(物異考)』에서 다음과 같이 머리글(敍)을 썼습니다. 마씨(馬氏)의 통고(通考)에는 이미 상위고(象緯考) 한 부(部)가 있으니, 가벼운 일 · 월식의 재변과 별빛이 요사스러운 기운을 띠는 변고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 내리고, 햇볕 나고, 서리 내리고, 우박 오는 것과 사람의 요사스러움과 물건의 괴이함 등 놀랄만 하고 기이한 것들로 다시 「물이편(物異編)」 여러 항목을 지어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오묘함을 궁구하였습니다. 군왕[皇王]이 스스로를 반성하여 수양할 때에는 반드시 아무 정사(政事)는 아무 재이(災異)를 부르며, 아무 재이는 아무 일에 응한다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끌어다가 의거하여서 되풀이하여 고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군주[人君]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천지신명을 대하게 함으로써 감히 태만하여 안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위상(魏相)과 이항(李沆)이 이런 것들을 보고, 후세 군주의 감계 자료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신의 학문은 사물 전체를 보기에는 힘들고, 재주도 때를 알기에는 천박하니, 그 감응의 조짐에 있어서 길흉[休咎]의 징후를 감히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논열할 바가 있어서, 옛 사람들이 옳지 않다는 경계를 어기면서까지 삼가 역대의 재이[災異]와 상서[祥瑞]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이는 것을 모아서 한 편(編)을 만들어, 이에 구중의 군주가 본받을 법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臣謹按李萬運所補物異考 既奉欽裁 附之象緯考末 而獨其序辭 有意戒勸 得古人事君之體. 因以存之 以備觀省至於人異一條 有可疑者. 夫朴昔金三姓 · 駕洛始祖以下 卵生櫝產之類. 臣未知其果信與否 然使其果信也 則乃古初鴻濛氣化之跡 而與一產四男 嫗化爲男等 變異大有間矣. 而今乃列之于人異何哉 玆幷刪之.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이만운이 증보한 『물이고』는 이미 재결을 받들어 상위고의 끝에 덧붙인 것입니다. 그 서문의 말은 오직 경계하고 권면하려는데 뜻이 있으니, 옛 사람들이 임금을 섬기던 요체를 얻어서 보존함으로써 [군주가] 보고 깨닫는데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것[인이(人異)]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릇 박(朴) · 석(昔) · 김(金) 세 성씨와 가락(駕洛) 시조 이하가 알에서 태어나고 궤짝에서 태어났다는 부류는 신으로서는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믿을 수 있다면, 태초의 홍몽(鴻濛)한 기운이 변화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네 아들을 낳았다거나 노파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등의 변이와는 크게 다른 것이니, 지금 이에 인이(人異)에 나열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에 아울러 삭제합니다.

사료8 **『증보문헌비고』권46 제계고7 씨족1 | 『增補文獻備考』卷四十六 帝系考七 氏族一**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蘿井林間有馬嘶 往見得大卵 剖有嬰兒.六部異之 共立爲君 年十三. 以所剖之卵似瓠 以

朴爲姓 是爲新羅始祖. 林象德曰 玄鳥巨跡 不過陰陽靈感 其胎孕產育 與人不異. 後世如劉媼之龍感事 雖非常理 或不怪 豈如赫居世卵降馬嘶之怪異無理耶. 況當時解慕漱 · 金蛙 · 朱蒙 · 松讓皆言天帝之子 閼英 · 脫解 · 首露 皆無父母而生 是何偏邦小國擾擾多天神之子孫耶. 又況三國史金富軾之言 赫居世之母 或言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泛海抵辰韓生赫居世 遂爲神. 朱蒙則 晋書云 高句麗自稱高辛氏之後 姓高氏. 金閼智則 武烈王碑 以少昊金天氏爲世系.其變幻不的如此 又豈可襲謬 而傳訛耶 疑固可傳訛 不可傳也. 臣謹按 羅 · 麗 · 駕洛始祖之蹟 皆出於古記之荒誕 語甚不經 故金富軾三國史 亦不取焉. 然安鼎福所云 假托神怪聳動愚民者 亦草昧古代之所 不能無者. 故試考東西洋 萬國歷史 其始祖刱國之際 未嘗無此等神怪荒誕之蹟. 我東卵瓢金櫝之說 雖未敢遽信 亦姑存之以備古跡可也. (儒理王)十九年 駕洛九干 禊飮于水濱 望龜旨峯 有異氣就視之 有紫繩繫金盒. 而下開視 有金色六卵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九人咸會 又開視六卵 破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童子日就峙嶷歷十餘日身長九尺 推首生者一人爲主 卽首露王也. 以其生于金盒姓金氏. 駕洛君妃許氏 稱皇玉夫人 有子十人 得后姓者二人. 金富軾曰 或謂新羅 自謂少昊金天氏之後 而金首露亦其同姓云.

고허촌(高墟村)의 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 기슭의 나정(蘿井) 수풀 사이에 말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서 보니 큰 알이 있었는데, 알을 가르니 어린아이가 있었다. 6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함께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으니, 나이 13세였다. 가른 알이 바가지[匏]와 비슷하므로 박(朴)을 성으로 삼았다. 이 사람이 신라 시조가 되었다. 임상덕(林象德)이 말하기를 "제비의 큰 발자취[玄鳥巨跡]도 음양의 영묘한 감응에 불과한 것이니,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것이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후세의 유온(劉媼)이 용과 감응한 일 같은 것은 비록 당연한 이치[常理]는 아니지만 혹 괴이한 것은 아니다. 어찌 혁거세의 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말이 우는 괴이한 것들이 무리한 것이겠는가. 하물며 당시 해모수(解慕漱) · 금와(金蛙) · 주몽(朱蒙) · 송양(松讓)은 모두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알영(閼英) · 탈해(脫解) · 수로(首露)는 모두 부모 없이 나왔다. 이런 변방의 작은 나라에 천제의 자손이 이토록 어지럽도록 많은가. 또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金富軾]에는 혹은 제실(帝室)의 딸인데 지아비 없이 임신하였다.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 바다에 버려져 진한에 이르렀다. 혁거세를 낳고는 드디어 신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 않았는가. 주몽은 곧 『진서(晋書)』에서 고구려는 스스로 고신씨(高辛氏)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고씨를 성으로 하였다. 김알지(金閼智)에 대해서는 무열왕(武烈王)의 비문에서 소호(少昊) 금천씨(金天氏)의 세계(世系)가 된다고 하였다. 그 변환(變幻)이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다. 또 어찌 오류를 이어받아 거짓을 전하겠는가. 진실로 거짓을 전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면 전할 수는 없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신라 · 고구려 · 가락 시조의 자취는 모두 옛 기록[古記]의 허황된 것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 몹시 불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정복(安鼎福)이 말하기를 신비하고 괴이한 것을 거짓으로 의탁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태고의 고대에도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동서양 만국의 역사를 증험하여 고찰해 보면, 그 시조가 나라를 세울 때 일찍이 이런 신기하고 괴이하며 허황된 자취가 없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알 · 표주박 · 금궤의 이야기는 비록 감히 창졸간에 믿을 수는 없지만, 우선 보존해서 옛 자취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왕(儒理王)] 19년(42년)에 가락의 9간(九干)이 물가에서 계욕(禊浴)의 의식을 행하다가, 구지봉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으로 매어 있는 금합(金盒)이 있었다. 내려서 열어보았더니, 둥글기가 태양과 같은 금빛 알 여섯 개가 있었다. 받들어 아도(我刀)의 집에 두었다.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또 열어보았더니, 여섯 개 알의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명의 사내아이로 되었다. 나이는 15세 가량인데 용모가 매우 뛰어나므로 무리가 모두 공손히 절하였다. 사내아이들은 날로 쑥쑥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척이었다. 가장 먼저 나온 한 명을 추대하여 임금[主]으로 삼으니, 바로 수로왕이었다. 그가 금합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로 하였다. 가락군(駕洛君)의 비(妃) 허씨는 황옥부인(皇玉夫人)이라 불렀다. 아들 10명이 있었는데 왕비의 성을 따른 자가 두 명이었다. 김부식이 혹은 "신라는 스스로 소호(少昊)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고도 하는데, 김수로 또한 같은 성씨이다."라고 한다고 하였다.

42년 가락국과 오가야가 성립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기이2 오가야 | **『三國遺事』** 卷一 紀異二 五伽耶

五伽耶〈駕洛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當矣. 而本朝史略 並數金官 而濫記昌寧 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阿羅 · 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오가야〈「가락기」가 찬(贊)해 말하기를 하나의 보랏빛 줄이 내려오니 아래에 6개의 둥근 알이 있었다. 다섯은 각각 마을로 돌아갔다. 하나가 이 성에 있은 즉 수로왕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은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금관(金官)은 다섯 수에 들어가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본조사략(本朝史略)』에 금관을 세고 창녕(昌寧)을 흘린 것은 잘못이다〉 아라(阿羅)〈또는 야(耶)로도 지었다〉가야(伽耶)〈지금 함안이다〉, 고령가야(古寧伽耶)〈지금의 함녕(咸寧)이다〉, 대가야(大伽耶)〈지금의 고령(高靈)이다〉, 성산가야(星山伽耶)〈지금의 경산(京山)이니 또는 벽진(碧珍)이라고도 한다〉, 소가야(小伽耶)〈지금의 고성(固城)〉. 또 『본조사략』이 말하기를 태조(太祖) 천복(天福) 5년 경자(庚子)에 5가야(五伽耶)의 이름을 고쳐 하나 금관(金官)〈김해부가 된다〉 둘 고령(古寧)〈가리현(加利縣)이 된다〉 셋 비화(非火)〈지금의 창녕이나 고령(高靈)의 와전일 수도 있다〉 나머지 둘은 아라(阿羅) · 성산(星山)〈앞과 같이 성산(星山)는 또는 벽진가야(碧珍伽耶)로도 지었다〉

사료2 **『동국역대총목』** 지지 | **『東國歷代總目』** 地誌

金海〈古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新羅取爲金官郡 至高麗 改爲金海府〉 高靈〈古大伽倻國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縣南有宮闕遺址 傍有石井 俗傳御井〉 咸昌〈古古寧伽耶國 新羅取之置郡〉 咸安〈古阿那伽倻國 或云阿尸良國. 新羅法興王滅之爲郡〉 固城〈古小伽倻國. 新羅智證王取之爲郡〉 星州〈古碧珍伽耶國. 新羅取之爲郡〉

김해〈옛 가락국으로 혹은 가야(伽倻)라 칭했다. 후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신라가 취해 금관군으로 삼았다. 고려에 이르러 김해부로 고쳤다〉 고령〈옛 대가야국으로 신라 진흥왕이 멸망시켜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현(縣) 남쪽에 궁궐터가 있고 근처에는 돌우물(石井)이 있는데 세속에 어정(御井)이라 전한다〉 함창〈옛 고녕가야국으로 신라가 취하여 군(郡)을 두었다〉 함안〈옛 아나가야국으로 또는 아시량국(阿尸良國)이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이 멸하여 군(郡)으로 삼았다〉 고성〈옛 소가야국으로 신라 지증왕이 취하여 군(郡)으로 삼았다〉 성주〈옛 벽진가야국으로 신라가 취하여 군(郡)으로 삼았다〉

사료3 **『성호사설』** 권8 인사문 생재 | **『星湖僿說』** 卷八 人事門 生財

慶尚道 東南濵海 西隔大嶺 與湖南為隣 洛江經其中 始新羅居洛之東 五伽倻居西 後伽倻合於新羅 慶州又辰韓之墟也.…(중략)… 晉州古弁韓之墟.

경상도(慶尙道)는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대령(大嶺)을 사이에 두고 호남과 인접하였다. 낙동강(洛東江)이 도내(道內) 한복판으로 흘러가는데, 옛날에는 신라(新羅)가 이 강의 동쪽, 오가야(五伽倻)가 이 강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얼마 뒤에 가야는 신라에 통합되었다. 경주(慶州)는 진한(辰韓)의 옛터이고, …(중략)… 진주(晉州)는 변한(弁韓)의 옛 터이다.

사료4 **『증보문헌비고』** 권17 여지고5 군현연혁3 | **『增補文獻備考』** 卷十七 輿地考五 郡縣沿革三

慶尙道. 慶尙道本辰地 後北爲辰韓 南爲弁韓 新羅倂有二韓地.

경상도(慶尙道). 경상도는 본래 진(辰)의 땅이었다. 뒤에 북쪽은 진한으로 되고, 남쪽은 변한으로 되었는데, 신라가 두 한(韓)의 땅을 병합하여 가졌다.

진 진한	신라	고려	본조[조선]
	김해소경(金海小京)〈옛 금관국(金官國). 법흥왕(法興王) 때 금관군으로 고침. 문무왕(文武王) 때 소경을 설치함.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침〉	금주(金州)〈태조(太祖) 때 부(府)로 강등함. 또 임해군(臨海郡)으로 강등함. 얼마 후 군(郡)으로 승격함. 성종(成宗) 때 금주로 고침. 원종(元宗) 때 금녕부(金寧部)로 삼음. 충렬왕(忠烈王) 때 현(縣)으로 강등함. 뒤에 금주로 승격함. 충선왕(忠宣王) 때 김해부로 삼음〉	김해군(金海郡)〈국초에 인하여 부로 삼음. 지금 주상[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침〉
	고녕군(古寧郡)〈옛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 뒤에 고동람군(古冬攬郡)으로 됨. 또는 고릉(古陵)이라고도 함〉	함창군(咸昌郡)〈광종(光宗) 때 함녕군(咸寧郡)으로 고침. 현종(顯宗) 때 상주(尙州)에 편입함. 명종(明宗) 때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쳐 현으로 삼음〉	함창군(咸昌郡)〈태종(太宗) 13년에 현으로 고침. 지금 주상[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침.〉
	함안군(咸安郡)〈옛 아시량국(尸良國). 또는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부름. 법흥왕 때, 군으로 삼고 지금 이름으로 고침〉	함안군(咸安郡)〈성종 때 함주(咸州)로 삼음. 현종 때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쳐 김주에 편입함. 명종 때 현으로 삼음. 공민왕(恭愍王) 때 군으로 승격함〉	함안군(咸安郡)〈본조에서 그대로 따름〉
	고성군(固城郡)〈옛 소가야국(小伽倻國). 뒤에 고자군(古自郡)으로 됨〉	고성현(固城縣)〈성종 때 고주(固州)로 삼음. 뒤에 현으로 강등함. 현종 때 거제(巨濟)에 편입함. 뒤에 다시 설치함. 원종 때 주(州)로 승격함. 충렬왕 때 남해(南海)에 편입함. 얼마 후 다시 예전대로 함. 공민왕 대 현으로 강등함〉	고성군(固城郡)〈국초에 그대로 현으로 삼음. 지금 주상[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침〉
	고령군(高靈郡) 〈옛 대가야국(大伽倻國). 진흥왕 때 군을 설치함.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침〉	고령현(高靈縣)〈초기에 경산(京山)에 편입됨. 명종 때, 다시 현을 설치함〉	고령군(高靈郡)〈국초에 인하여 현으로 삼음. 지금 주상[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침〉
	성산군(星山郡) 〈또는 이산군(理山郡)이라도 하고, 또 일리현(一利縣)이라고도 쓴다. 옛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	가리현(加利縣)〈현종 때 성주(星州)에 편입됨. [성주]남쪽 59리에 있음〉	

1세기경부터 대가야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다

사료1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계 상 대가야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史二 新羅世系 上 大伽倻

大伽倻.自伊珍阿致九世 有異腦. 異腦七世至道設智 滅於新羅. 凡十六世 五百二十七年. 伊珍阿致之世 富強五百年. 或傳 嘉悉時有伶人于勤 學秦箏 作十二絃琴云.

대가야는 이진아치로부터 9세를 내려와 이뇌(異腦)가 있었고, 이뇌로부터 7세를 내려와 도설지(道設智)에 이르러 신라에 멸망하니 모두 16세 527이었다. 이진아치의 시대부터 500년 동안 부강하였다. 혹 전하기를 가실(嘉悉)의 관리 우륵(于勒)이 있었는데, 진(秦)나라의 쟁(箏)을 배워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료2 **『동사강목』 범례 조선삼성지도 | 『東史綱目』 凡例 朝鮮三姓之圖**

〈附〉 駕洛國〈今金海. 起漢光武壬寅 亡于梁武壬子 傳世十君 歷年四百九十一年 駕洛改號金官〉 〈一世〉始祖首露王-金氏-〈二世〉居登-〈三世〉麻品-〈四世〉居叱彌-〈五世〉伊尸品-〈六世〉坐知-〈七世〉吹希-〈八世〉銍知-〈九世〉鉗知-〈十世〉仇衡〈亡入新羅〉. 按 首露兄弟六人分長 首露爲駕洛〈今金海〉 餘稱王伽倻 皆文獻無徵 略記大伽倻〈今 高靈〉于下. 餘幷闕之.

〈부(附)〉 가락국(駕洛國)〈지금의 김해이다〉은 한(漢) 광무 임인년(42년)에 일어나 양(梁) 무제 임자(壬子)년에 망하였다. 열 임금이 세대를 이었는데 491년을 거쳤다. 가락을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1세〉시조 수로왕-김씨-〈2세〉거등-〈3세〉마품-〈4세〉거질미-〈5세〉이시품-〈6세〉좌지-〈7세〉취희-〈8세〉질지-〈9세〉겸지-〈10세〉구형〈망해 신라에 들어가다〉. 생각건대 수로의 형제 6인이 나뉘어 군장이 되어, 수로는 가락왕(駕洛王)이 되고, 나머지도 가야伽倻에서 왕을 칭하였으나, 모두 문헌에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 대가야(大伽倻)〈지금의 고령이다〉를 약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한다.

〈附〉 大伽倻國〈今高靈〉起〈漢光武壬寅 亡于陳文王壬午 傳世十六君 歷年五百三十一年〉 〈一世〉始祖伊珍阿豉王〈或云 內珍朱智 此下傳世闕〉-〈九世〉異腦王-〈此下傳世闕〉-〈七世〉道設智王〈亡入新羅〉

〈부(附)〉 대가야국(大伽倻國)〈지금의 고령이다〉은 〈한(漢) 광무제 임인[년](42년)에 일어나 진(陳) 문왕(文王) 임오(壬午)년(562년)에 망하였다. 열여섯 임금이 세대를 이었는데 531년을 거쳤다〉〈1세〉시조 이진아시왕〈또는 내진주지(內珍朱智)라 한다. 이 아래는 전하지 않는다〉-〈9세〉이뇌왕〈이 아래는 전하지 않는다〉-〈7세〉도설지왕〈망해 신라에 들어가다〉

사료3 **『경상도지리지』 상주도 성주목관 |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星州牧官**

高靈縣 本大加耶國.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景德王時 改名高靈郡. 此載在羅史.

고령현(高靈縣)은 본래 대가야국(大加耶國)이었다. 신라 진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加耶郡)으로 삼았다. 경덕왕 때 고령군(高靈郡)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것은 신라의 역사[羅史]에 기록되어 있다.

사료4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高靈郡本大伽倻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初 來屬. 明宗五年 置監務.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었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世) 520년이었다. 신라 진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5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高靈縣 本伽倻國 自始祖伊珍阿豉至道說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 眞興王二十二年 壬午 滅之 以其地爲伽倻郡. 〈卽陳文帝天嘉三年〉 景德王改今名 高麗 明宗五年 乙未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 癸巳 例改爲縣監.

고령현은 본래 가야국(伽倻國)이었다. 시조 이진아고(伊珍阿豉)로부터 도설지왕(道說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世) 520년이었다. 신라 진흥왕 22년 임오(562년)〈즉, 진(陳) 문제 천가 3년〉에 멸망시키고 그 땅을 가야군(伽

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두었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료6 『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고령현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九 高靈縣

【建置沿革】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 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高麗初屬京山府. 明宗置監務. 本朝太宗朝改爲縣監.

【건치연혁(建置沿革)】본래대가야국(大伽倻國)이었다.〈김해부(金海府) 산천조(山川條)에 자세히 보인다〉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正見母主)는 천신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와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金官國) 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 되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迎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경산부(京山府)에 속하게 하였다. 명종이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본조[조선] 태종 때에 현감으로 고쳤다.

【郡名】大伽倻 高陽 靈川.

【군명(郡名)】대가야(大伽倻), 고양(高陽), 영천(靈川).

【古蹟】御井〈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傍有石井. 俗傳御井〉琴谷〈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錚制琴號伽倻琴. 縣北三里 有曰琴谷. 世傳于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錦林王陵〈縣西二里許有古葬. 俗稱錦林王陵〉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新羅謀攻大伽倻擧兵来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고적(古跡)】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 되는 곳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는데,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이라 한다〉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樂師) 우륵(于勒)이 중국의 진쟁(秦箏)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 북쪽 3리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금림왕릉(錦林王陵)〈현의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부른다〉동경제(東京提)〈현의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한다〉

사료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합천군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陜川郡

【佛宇】月光寺〈在冶爐縣北五里.世傳 所創光大伽倻太子月光所創〉

【불우(佛宇)】 월광사(月光寺)〈야로현(冶爐縣) 북쪽 5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대가야의 태가 월광(月光)이 창건했다고 한다〉

【祠廟】正見天王祠〈在伽倻山中. 俗傳 大伽倻國王后正見 死為山神〉

【사묘(祠廟)】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해인사(海印寺) 안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대가야국의 왕후 정견(正見)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사료8 **『동국여지지』** 권4 하 고령현 | **『東國與地志』** 卷四 下 高靈縣

【建置沿革】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朱智至〉 至道設智王〈十六世凡五百二十年〉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又釋順應伟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 父曰 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高靈郡.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었다〈김해부(金海府)에 자세히 보인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또는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16세를 전하여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렀다. 〈16세, 520년이었다〉 살피건대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는 가야산신(伽倻山神)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 뇌질청예(惱窒靑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과]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은 모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는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대가야군(大伽倻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고령군(高靈郡)으로 고쳤다.

【郡名】大伽倻.

【군명(郡名)】 대가야.

【山川】伽倻井〈在縣南一里 古大伽倻宮臺內. 俗稱御井也〉

【산천(山川)】 가야정〈현 남쪽 1리에 있는데, 옛 대가야의 궁대(宮臺) 안에 있다. 민간에서 어정(御井)이라고 부른다〉

【陵墓】錦林王塚〈縣西二里許有古藏. 俗傳古錦林王陵〉

【능묘(陵墓)】 금림왕총(錦林王塚)〈현에서 서쪽으로 2리쯤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서 옛 금림왕릉이라고 전한다〉

【古跡】古伽倻王宮〈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旁有石井. 俗稱御井〉 琴谷〈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箏而製琴 號伽倻琴. 縣北三里 有地名琴谷. 世傳 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고적(古蹟)】 옛 가야왕궁(伽倻王宮)〈현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진 곳이 대가야국의 궁궐 흔적이 있다. 그 옆에

돌우물[石井]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어정(御井)이라고 전해온다〉 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樂師) 우륵(于勒)이 중국의 진쟁(秦箏)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료9 **『강계고』 권3 신라국 대가야국 | 『疆界考 』 卷三 新羅國 大伽倻國**

大伽倻國. 古記 大伽倻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 內珍朱智〉 至道設王.凡十六世 五百二十年. 三國史 新羅眞興王二十三年九月 伽倻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一時盡降. 三國地理志 高寧郡 本大伽倻國. 眞興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 改爲高靈郡. 輿地勝覽 高靈縣南一里 有伽倻國宮闕遺址.傍有石井 俗傳御井. 輿地志 琴谷 在縣北三里. 世傳 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率工人肄琴之地. 勒象秦箏而制琴 號伽倻琴.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三此爲是. 縣西二里許 有古藏. 俗傳錦林王陵. 東京堤 在縣東十里. 俗傳新羅謀攻大伽倻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而示其衆.

대가야국(大伽倻國). 고기(古記)에 대가야국은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부터 도설왕(道設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世), 520년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진흥왕 23년(562년)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사다함(斯多含)이 부장(副將)이 되었다.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지리지(三國地理志)』에 "고령군(高靈郡)은 본래 대가야국이었는데, 진흥왕이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으며, 경덕왕(景德王) 고령군으로 고쳤다." 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고령현(高靈縣) 남쪽 1리 되는 곳에 가야국 궁궐의 허물어진 터가 있으며, 옆에는 돌우물[石井]이 있는데 민간에 어정(御井)이라 전해온다고 하였다. 『여지지(輿地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곡(琴谷)은 현의 북쪽 3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고[琴]를 익힌 곳인데, 우륵은 진쟁(秦箏)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 가야의 역대 왕 중에는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오래된 고분[古藏]이 있는데, 민간에 전하기를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한다. 동경제(東京提)는 현의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민간에 전해오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가 방비가 있으므로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사료10 **『여지도서』 경상도 고령 | 『輿地圖書』 慶尙道 高靈**

【建置沿革】 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朱智至〉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按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又釋順應伟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 父曰 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揶國)이었다.〈김해부(金海府)의 산천조(山川條)에 자세히 보인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 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大伽倻 高陽 靈川.
【군명(郡名)】대가야, 고양, 영천.

【古跡】御井〈縣南一里 有大加耶國宮闕遺址. 其旁有石井. 俗稱御井〉 琴谷〈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箏而製琴 號伽倻琴. 縣北三里 有地名琴谷. 世傳 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錦林王陵〈縣西二里許有古藏. 俗稱錦林王陵〉 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 新羅謀攻大伽倻 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고적(古跡)】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 되는 곳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는데, 그 곁에 돌우물[石井]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이라 한다〉 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樂師) 우륵(丁勒)이 중국의 진쟁(秦箏)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 북쪽 3리 되는 곳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금림왕릉(錦林王陵)〈현의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부른다〉 동경제(東京堤)〈현의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사료11 **『강역고』권2 변진별고 | 『疆域考』卷二 弁辰別考**

大伽耶者今之高靈縣 亦弁辰十二國之一也. 其始祖阿豉王 實爲首露王之同母兄. 以故 別謂之大伽耶. 金富軾地理志云 高靈郡本大加耶國. 鄭麟趾地理志云 高靈郡本大伽倻國. 始祖伊珍阿豉王 一云內珍朱智.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正見母主 爲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輿地勝覽云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青裔爲首露王之別稱.〉 鏞案 首露王當時 威德並盛 並呑甌越之域 有類南佗平斷虞 · 芮之訟. 遠追西伯厥享國百五十年. 浦上八國翕然讋伏 罔敢蠢動. 此弁辰之霸主也. 然而高靈以區區一縣之聚 特謂之大加耶者 以其爲首露王之兄也. 故金官曰南加耶〈新羅史〉 高靈曰北加耶. 又金官曰下加羅 高靈曰上加羅〈即于勒仙人琴曲之名〉 皆首露私尊之稱.若論主霸之國 金官爲弁辰之總王也. 若其建國之年 疑亦漢光武建武十八年. 始開其國 與首露王分長二國. 義詳下節. 鏞案 駕洛古記六卵之說 雖不可信 崔孤雲正見二子之說 必有所本.〈原有山神 · 天神之說.此其荒誕處〉 首露王兄弟分立 必如沸流 · 溫祚之事矣. …(중략)… 鄭麟趾地理志云 高靈古大伽耶國. 縣南有宮闕遺址. 傍有石井 俗傳御井.

대가야는 지금[조선]의 고령현이니 또한 변진 12국 중 하나이다. 그 시조 아시왕(阿豉王)은 실제로 수로왕의 동모형(同母兄)이다. 이 때문에 따로 대가야라고 일컫는다.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다라고 하였다. 정인지의 (『고려사』)지리지에서는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大伽揶國)이었다. 시조는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이다 라 하였다.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서는 가야산(伽揶山)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여지승람(輿地勝覽)』에 이르기를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仍珍阿豉工)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라 하였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수로왕은 당시 위엄과 덕이 함께 성하였으니 구월(甌越)의 지역을 병탄하여 남타(南佗)와 비슷하였으며 우예(虞芮)의 『송사(訟事)』를 평단(平斷)하여 멀리 서백(西伯)을 좇았으니 그 나라를 향유한 것이 150년이었다. 포상(浦上)의 여덟 나라가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감히 준동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변진(弁辰)의 패주(覇主)였다. 그런데 고령의 작은 한 현을 유독 대가야라고 부른 것은 수로왕의 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관(金官)을 남가야(南加耶)〈신라사〉, 고령(高靈)을 북가야(北加耶)라고 하기도 하고, 금관을 하가라(下加羅), 고령을 상가라(上加羅)〈곧 우륵선인의 가야금 곡의 이름이다〉라고도 하니 모두 수로가 사사로이 높여 일컫는 것이다. 주패(主覇)의 나라를 따진다면 금관이 변진의 총왕(總王)이다. [대가야가] 건국된 해라면, 아마도 역시 한(漢) 광무제 건무 18년(42년)에 그 나라를 건국하고 수로왕과 더불어 두 나라를 나누어 맡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밝히겠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락고기(駕洛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 최치원의 정견(正見)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이니〈원래 산신(山神)과 천신(天神)이란 말이 있었으나 이는 허황된 것이다〉 수로왕 형제가 나뉘어 선 것은 비류(沸流)와 온조(溫祚)의 일과 똑같다. …(중략)… 정인지의 [『고려사』]지리지에서 이르기를 고령은 옛 대가야국이다. 현의 남쪽에 궁궐의 유지(遺址)가 있으며 곁에 돌우물[石井]이 있는데 세속에서 어정(御井)이라고 전한다.

사료12 **『경상도읍지』 제15책 합천군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五册 陜川郡邑誌**

【壇廟】正見天王祠〈在伽倻山中.俗傳 大伽倻國王后正見 死為山神〉

【단묘(壇廟)】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가야산(伽揶山) 산중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대가야국의 왕후(王后) 정견(正見)이 죽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佛宇】月光寺〈今無〉

【불우(佛宇)】 월광사(月光寺)〈지금은 없다〉

사료13 **『경상도읍지』 제17책 고령현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七册 高靈縣邑誌**

【建置沿革】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 異腦王.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었다.〈김해부(金海府)의 산천조(山川條)에 자세히 보인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으니,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6란(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라 하였는데, [이것] 역시 살필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大伽倻 高陽 靈川.
【군명】대가야, 고양, 영천.

【古蹟】御井〈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傍有石井. 俗傳御井〉 琴谷〈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錚制琴號伽倻琴. 縣北三里 有曰琴谷. 世傳于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錦林王陵〈縣西二里許有古葬. 俗稱錦林王陵〉 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新羅謀攻大伽倻舉兵来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延詔洞〈在縣西一里.俗傳 伽倻國時 有延詔門於此. 至今門變爲洞 而延詔二字不改云〉
【고적(古跡)】 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 되는 곳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는데,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이라 한다〉 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工)의 악사(樂師) 우륵(丁勒)이 중국의 진쟁(秦錚)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耶琴)이라 불렀다. 현 북쪽 3리 되는 곳에 금곡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금림왕릉(錦林王陵)〈현의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부른다〉 동경제(東京堤)〈현의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연조동(延詔洞)〈현의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가야국 때 연조문(延詔門)이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조선] 문이 골짜기로 변하였으나 연조의 두 글자는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題詠】〈金淑滋本縣東軒詩 伽倻千古地 文物更舒長 大寶光臨宇 雲霞映澗塘. 佔畢齋金宗直詩 伽倻古縢薛 謫宦勝封留 筍鱖供厨興 溪山與目謀 風淳甿保靜 官冷屋廬幽 昔我趍庭處 絃歌待子遊. 南溟曹植月磯詩 綠蘿池面雨生痕 遠峀烟沉近峀昏 松老萬年低壓水樹經三世倚侵門 伽倻古國山連塚 月磯荒村亡且存 小草斑斑春帶色 一年銷却一寸魂. 縣監金守默将臺詩 講武新臺續舊成 春風細柳拂層楹 水迴千古伽倻國 地接重關禿用城 卧看夕烽邊警晏 俯臨南畝野雲平 軍民共樂伊誰力 勉爾誠心報聖明〉
【제영(題詠)】〈김숙자(金叔滋)의 본현 동헌(東軒) 시에 "가야 천 년 옛 땅에 문물이 다시 펴서 커지네. 큰 보물이 세상에 밝게 드리우니, 구름과 노을이 계곡과 저수지에 비치는구나."고 읊었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가야의 옛 등설(滕薛)에 귀양가는 신하 능을 지나다가 머무르게 하네. 구차하게나마 쏘가리가 바쳐지면 주방은 신이 나고 계산(溪山)을 눈으로 찾아보게 되지. 바람이 순박하게 불며 농부가 고요함을 더하고 관가의 차가운 집은 어둡지만 오래 전 내가 뛰어 다니던 뜰에서 가야금 뜯고 노래 부르며 그대를 기다리며 놀고 있네." 라고 읊었다. 남명(南冥) 조식(會植)의 월기시(月磯詩)에 "초록 담쟁이 같은 연못의 수면에 비가 상처를 만든다. 멀리 산봉우리는 연기에 잠기고 가까이 산봉우리는 희미해졌는데, 노송은 만년이 되어 밑으로 물을 막고, 나무는 삼대를 거쳐 침문을 의지하네. 가야 고국의 산에는 무덤이 연이어있고, 달이 물가의 황량한 마을에 기울었다가 또 차는데, 작은 풀이 알록달록 봄 띠 색이 되었구나. 일 년이 사라짐이 한 순간의 넋이로다." 라고 읊었다. 현감(縣監) 김수묵(金守默)의 장대시(將臺詩)에 "무예를 닦는 신대(新臺)는 옛 것을 이어 만들었는데, 봄바람불어 자잘한 버들 층계 기둥에 떨 구고, 물굽이의 천년 옛 가야국 땅은 중요 관문인 독용성(禿用城)에 접하고, 누워 바라보는 저녁의 봉화가 변경에서 평온함을 경계하네, 굽어 임하는 남쪽 밭고랑과 들판은 구름처럼 평탄하고, 군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니 이 누구의 힘인가. 힘써 너희들의 성심으로 성명(聖明)에 보답할지어다." 라고 읊었다〉

사료14 『대동지지』 권9 경상도 고령 | 『大東地志』 卷九 慶尙道 高靈

【沿革】本大加耶國.〈自始祖伊珍阿豉王 至道設智王 凡十六世共五百二十年. 國基在縣南一里〉 新羅眞興王二十三

年 滅之 置大加耶郡. 景德王十六年 改高靈郡.〈領縣二新復冶爐〉 隷康州.

【연혁(沿革)】 본래 대가야국(大加耶國)이었다.〈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었다. 도읍[國基]은 현에서 남쪽으로 1리 되는 곳에 있다〉 신라 진흥왕 23년(562년)에 멸망시키고 대가야군(大加耶郡)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년)에 고령군(高靈郡)〈영현(領縣) 둘의 신복(新復)과 야로(冶爐)〉로 고치고 강주(康州)에 속하게 하였다.

【山水】 琴谷〈北三里. 加耶國嘉悉王之樂師于勒 象中國秦箏而製琴 號加耶琴. 此地卽干勒率工人肄肄之地〉 御井〈南一里 有大加耶國宮室遺址.其傍有石井. 俗稱御井〉

【산수(山水)】 금곡(琴谷)〈북쪽으로 3리.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樂師) 우륵(丁勒)이 중국의 진쟁(秦竽)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加耶琴)이라 불렀다. 이 곳이 곧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다〉 어정(御井)〈남쪽으로 1리. 대가야국의 궁실(유室) 터 가 있는데,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이라 한다〉

【陵墓】 錦林王陵〈西二里許有古藏.世傳錦林王陵〉

【능묘(陵墓)】 금림왕릉(錦林王陵)〈서쪽으로 2리쯤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세상에서 금림왕릉이라 한다〉

【典故】 新羅眞興王二十三年 加耶叛 命金異斯夫討之 副將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栴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전고(典故)】 신라 진흥왕 23년(562년) 가야가 배반하니 김이사부(金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부장(副將) 사다함(斯多含)이 5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장서 전단문(栴檀門)으로 달려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니 한순간에 모두들 항복하였다.

사료15 **『영남읍지』제5책 합천군읍지 | 陜『嶺南邑誌』第五冊 川郡邑誌**

【壇墓】 正見天王祠 在伽倻山〈大伽倻國 王后王見 死爲山神〉

【단묘(壇墓)】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가야산에 있다. 대가야국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

【佛宇】 月光寺〈今無〉

【불우(佛宇)】 월광사(月光寺) 〈지금[조선]은 없다〉

사료16 **『영남읍지』제2책 고령현읍지 | 『嶺南邑誌』第二冊 高靈縣邑誌**

【建置沿革】 本大伽倻國.〈詳見金海 府山水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 珍朱智翻〉 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興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다.〈자세한 것은 김해부 산천(山川) 아래에 보인다〉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다.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살펴보면, 가야산신(伽倻山神)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그

러나 [이 말은] 가락국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또 「석순응전(釋順應傳)」에서,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삼았다.

【郡名】大伽倻 高陽 靈川.
【군명(郡名)】 대가야(大伽倻), 고양(高陽), 영천(靈川).

【古蹟】御井〈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傍有石井. 俗傳御井. 琴谷 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錚制琴號伽倻琴. 縣北三里 有地名琴谷. 世傳 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世代 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錦林王陵〈縣四二里許有古臧. 俗稱錦林士陵〉 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 新羅謀攻大伽倻 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고적(古蹟)】 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다.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서 어정이라고 한다〉 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중국의 진쟁(秦錚)을 본떠서 현악기[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의 북쪽 3리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우륵이 공인들을 데리고 가야금을 익히던 곳이라고 한다. 혹 이르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을 칭한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금림왕릉(錦林王陵)〈현 서쪽 2리쯤에 고분[古藏]이 있는데 민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부른다〉 동경제(東京堤)〈현 동쪽 10리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사료17 『영지요선』 하책 고령 | 『嶺誌要選』 下册 高靈

【沿革】本大伽椰國 後改今名. 一云 高陽・靈川.
【연혁(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인데, 뒤에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양(高陽), 영천(靈川)이라고도 한다.

【古跡】〈御井 南一里 有石井. 又有宮闕遺址 琴谷 北三里. 伽倻國嘉悉王時 藥師于勤 象中國秦爭製琴 號伽倻琴. 世傳 勒率藥工 肄琴于此谷. 錦林王陵〈西二里〉 東京堤〈東十里. 新羅攻 大伽倻 築此堤〉
【고적(古跡)】 어정(御井)〈남쪽 1리에 돌우물이 있으며 또한 궁궐의 유지가 있다〉 금곡(琴谷)〈북쪽 3리에 있다. 가야국 가실왕 때 악사 우륵이 중국의 진쟁(奏箏)을 본떠서 현악기[琴]를 만들고 가야금이라 불렀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우륵이 악공들을 거느리고 이 계곡에서 가야금을 익혔다고 한다〉 금림왕릉(錦林王陵)〈서쪽 2리에 있다〉 동경제(東京堤)〈동쪽 10리에 있다.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면서 이 둑을 쌓았다〉

사료18 『영남읍지』 제5책 합천군읍지 | 『嶺南邑誌』 第五册 陜川郡邑誌

【壇墓】正見天王祠翻〈在伽倻山中. 俗傳 大伽倻國王后正見 死爲山神〉
【단묘(壇墓)】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가야산 속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대가야국의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佛宇】月光寺今無
【불우(佛宇)】 월광사(月光寺)〈지금[조선]은 없다〉

사료19 『영남읍지』 제15책 고령현읍지 | 『高靈縣邑誌』『嶺南邑誌』第十五册 高靈縣邑誌

【建置沿革】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按崔 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為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為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為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新羅眞興王 以其地為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다.〈자세한 것은 김해부 산천(山川) 아래에 보인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다.〈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살펴보면, "가야산신(伽倻山神)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이 말은] 가락국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서,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의 명칭으로 고쳤다.

【郡名】大伽倻 高陽 靈川.

【군명(郡名)】 대가야, 고양, 영천.

【題詠】吳肅詩〈昔讀文昌史 頻據伽倻跡 夸娥配天神 聖子降惱窒 結繩亦云煩 至化自坱圠 相傳五百年 熙熙擊壤樂 後葉漸衰薄 往來何倏忽 俄然七竅開 玉帛歸徐伐 山河竟蕭瑟 周遭但如昨 園陵金盤出 御井村媼汲 盤桓無興廢 千古一歎息〉監司金守默 將臺詩〈講武新臺續舊成 春風細柳拂層楹 水回千古伽倻國 地接重關禿用城 臥看夕烽警晏 俯臨畝南野雲平 軍民共樂伊誰力 勉爾誠心報聖朝.

【제영(題詠)】 오숙(吳肅)의 시(詩)에 "옛날 문창사(文昌史)를 읽어 보았더니 빈번하게 가야의 사적에 의거하였다. 자랑스럽게도 천신(天神)의 아름다운 베필이 되어 성스러운 아들 뇌질(惱窒)을 내려 보냈네. 맺어진 것이 또한 번거롭다 하지만 지극한 교화로 먼지처럼 사라졌네. 서로 전하여 오백년 눈부신 태평연월의 음악이었지. 후손이 점점 쇠약해지니 오고 감이 어찌 이리 빠른가. 갑자기 일곱 구멍이 열리고 구슬과 비단이 서라벌로 돌아갔네. 산하가 마침내 소슬해 지고 두루 만나는 것은 어제와 같더니만 원릉에서 금 쟁반이 나오고 어정(御井)에선 마을 할머니가 물을 긷는구나. 머뭇거리며 흥하고 폐함을 어루만지니 천고의 한 탄식이라."고 읊었다. 감사 김수묵의 장대 시에 "무예 닦는 신대(新臺)는 옛 것을 이어 만들었는데 봄바람 불어 자잘한 버들 계단 기둥에 떨 구고 물이 도는 천년의 옛 가야국(伽倻國) 땅은 중요 관문인 독용성(禿用城)에 접하고 누워 바라보는 저녁의 봉화가 변경에서 평온함을 경계하네. 굽어 임하는 남쪽의 밭이랑과 들판은 구름처럼 평탄하고. 군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 하니 이 누구의 힘인가. 너희들의 성심으로 힘써 성조(聖朝)에 보답할 지어다."라고 읊었다.

【陵墓】錦林王陵〈大伽倻國錦林王 諱元祖陵. 在 縣西二里〉

【능묘(陵墓)】 금림왕릉〈대가야국 금림왕(錦林王) 휘(諱) 원조(元祖)의 능인데, 현 서쪽 2리에 있다〉

【古蹟】御井〈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傍有石井. 俗傳御井〉. 琴谷 伽倻國痛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錚 制琴號伽倻琴. 縣北三里 有地名琴谷. 世傳 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國 但金海伽倻 世代無稱

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錦林王陵〈縣四二里許有古臧 俗稱錦林士陵〉 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 新羅謀攻大伽舉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고적(古蹟)】 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다.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이라 한다〉. 금곡(琴谷)〈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중국의 진쟁(秦錚)을 본떠서 현악기[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의 북쪽 3리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우륵이 공인들을 데리고 가야금을 익히던 곳이라고 한다. 혹 이르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가야(金海伽倻)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을 칭한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금림왕릉(錦林王陵)〈현 서쪽 2리 쯤에 고분[古藏]이 있는데 민간에서 금림왕릉이라고 부른다〉. 동경제(東京堤)〈현 동쪽 10리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사료20 『고령군읍지』 | 『高靈郡邑誌』

【建置沿革】 本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按 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金官國王惱窒青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惱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다.〈자세한 것은 김해부 산천(山川) 아래에 보인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세 520년이다.〈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伽倻山神)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 뇌질청예(惱窒青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伊珍阿豉工)의 별칭이 되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의 명칭으로 고쳤다.

【郡名】 大伽倻 高陽 靈川 高靈.

【군명(郡名)】 대가야(大伽倻), 고양(高陽), 영천(靈川), 고령(高靈).

【樓亭】 碧松亭〈在縣西二十五里. 龍潭上流 林木陰濃. 亭之創建 在漢五鳳元年 而重修時孤雲作上樑文 今無所徵焉. 孤雲入伽倻山日有詩 暮年歸臥松亭下 一抹伽倻望裡青〉

【누정(樓亭)】 벽송정(碧松亭)〈현 서쪽 25리에 있다. 용담(龍潭)이 위로 흐르고, 임목 숲이 짙게 드리운다. 정자를 처음 세운 것은 한(漢) 오봉(五鳳) 원년(기원전 57년)이었다. 중수할 때 고운(孤雲; 최치원)이 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조선]은 흔적이 없다. 고운이 가야산에 들어간 날에 지은 시에 "저무는 해 돌아가 송정 아래에 누워, 아련한 가야의 푸른 빛을 보네."라 읊었다〉

【古蹟】 御井〈縣南一里 有大伽倻國宮闕遺址. 其傍有石井. 俗傳御井〉 肄琴〈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箏制琴 號伽倻琴. 于勒率工人肄琴. 或云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縣北有肄

琴谷〉 東京堤〈在縣東十里. 俗傳 新羅謀攻大伽倻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延詔洞〈在縣衙後. 俗傳 伽倻國時 有延詔門於此. 至今門變爲洞 而延詔二字不改云〉

【고적(古蹟)】 어정(御井)〈현의 남쪽 1리 되는 곳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는데, 그 곁에 돌우물이 있으니 민간에서 어정(御井)이라 한다〉 이금(肄琴)〈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중국의 진쟁(秦錚)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우륵이 공인들을 데리고 가야금을 익혔다. 혹은 말하기를 "이[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을 칭한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의 북쪽에 이금곡(肄琴谷)이 있다〉 동경제(東京堤)〈현 동쪽 10리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침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가 방비가 있음을 알고 물러나 밤에 이 둑을 쌓아서 그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연조동(延詔洞)〈현아(懸衙)의 뒤쪽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가야국 때 연조문(延詔門)이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조선] 문[門]이 골짜기[洞]로 변하였으나 연조 두 글자는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陵墓】 錦林王陵〈大伽倻國錦林王 諱元祖陵. 在縣西二里〉

【능묘(陵墓)】 금림왕릉(錦林王陵)〈대가야국 금림왕(錦林王) 휘 원조(元祖)의 능(陵)이다. 현 서쪽 2리에 있다〉

1세기경부터　아라가야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다

사료1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尚道

咸安郡本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新羅法興王 滅之 以爲郡. 景德王 改今名. 成宗十四年 爲咸州刺史. 顯宗九年 復今名.

함안군은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아나가야(阿那加耶)라고도 한다〉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尚道

咸安郡本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九年 戊午 屬金海州任內. 明宗二年壬辰 始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癸丑 以縣人周英贊之女 入爲大明皇帝侍姬有本寵 拜英贊密直使 陞爲知郡事. 本朝因之.

함안군은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아나가야(阿那加耶)라고도 한다〉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 9년 무오년(1018년)에 김해주(金海州)의 관내로 속하게 하였다. 명종 2년 임진년(1172년)에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공민왕 22년 계축년(1373년)에 현 사람 주영찬(周英贊)의 딸이 대명황제의 시종녀로 들어가 총애를 받아 영찬을 밀직사(密直使)에 임명하고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다. 본조(本朝;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사료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함안군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咸安郡

【建置沿革】 本阿尸良國.〈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咸州刺史. 顯宗復今名 屬金州. 明宗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入大明爲宮人有寵 陞爲郡. 本朝因之.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또는 아나가야(阿那伽耶)라고도 하였다〉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때에는 함주자사(咸州刺史)로 삼았다. 현종이 다시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금주(金州)에 소속시켰다. 명종이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공민왕 22년(1373년) 현 사람 주영찬(周英贊)의 딸이 명나라 궁인이 되어 총애를 받았으므로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본조[조선]에서 그대로 따랐다.

사료4 **『함주지』 | 『咸州志』**

【建置沿革】本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이었으며, 일명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하였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載覽勝〉, 巴山.

【군명(郡名)】은 아시량(阿尸良), 아나가야(阿那伽倻), 함주(咸州), 금라(金羅), 사라(沙羅)〈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다〉 파산(巴山)이 있었다.

【古跡】伽倻國舊墟〈在郡北五里許城山之上. 周回四千三白八十三尺. 至今城基宛然. 隆慶己巳張侯範建書院于此〉古國遺基〈白沙里扶尊亭之北 有古國遺墟. 周回一千六白六尺 土築遺址. 至今宛然. 世傳伽倻國古基云〉古塚〈牛谷東西丘 有古塚 高大如丘陵者四十餘. 諺傳古國王陵云〉

【고적(古跡)】 가야국(伽倻國) 옛 터[舊墟]〈군에서 북쪽으로 5리쯤 되는 성산(城山)의 위에 있다. 둘레가 4,383척이며, 지금까지도 성터가 완연하다. 융경(隆慶) 기사년(1569년, 선조 2년)에 장후범(張侯範) 이곳에 서원을 세웠으며, 지금은 금천(琴川)으로 옮겼다〉 옛 나라 터[古國遺墓] 〈백사리(白沙里) 부존정(扶尊亭)의 북쪽에 옛 나라[古國]의 흔적이 있다. 둘레가 1,606척으로 흙으로 쌓은 터인데, 지금까지도 완연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야국의 옛 터라고 한다〉 옛 무덤[古塚]〈우곡(牛谷)의 동서쪽 언덕에 옛 무덤이 있다. 높이와 크기가 언덕만 한 것이 40여 기인데, 민간에 전하기를 옛 나라의 왕릉이라고 한다〉

사료5 **『동국여지지』 권4 하 함안군 | 『東國輿地志』 卷四 下 咸安郡**

【建置沿革】古阿尸良國.〈一云阿那伽倻〉新羅法興王幷其地爲郡. 景德王時改爲咸安郡.

【건치연혁(建置沿革)】〈옛 아나가야(阿那伽耶)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이 그 땅을 병합하고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 때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

사료6 **『강계고』 권3 신라국 아라가야국 | 『疆界考』 卷三 新羅國 阿羅伽倻國**

阿羅〈一作郡〉伽倻國〈一云阿尸良國〉. 三國地理志 新羅法興王 滅阿良國 以其地爲州. 景德王改爲咸安郡.

輿地志 咸安郡北白沙里 有古國墟. 牛谷東西壞上 有古塚高五丈者 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古老相傳.

아라(阿羅)〈군(郡)이라고도 쓴다〉가야국(伽倻國)〈아시량국(阿尸良國)이라고도 한다〉『삼국사(기)』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법흥왕이 아량국(阿良國)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주(州)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함안군 북쪽의 백사리(白沙里)에 옛 나라 터가 있고, 우곡(牛谷) 동서의 언덕 위에는 옛 무덤들이 있어서 높이가 다섯 길이 되는 것들이 40여 개인데, 모두 그 나라 임금들의 무덤이라고 노인들이 서로 전한다.

사료7 **『여지도서』 경상도 함안 | 『輿地圖書』 慶尙道 咸安**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阿那伽倻〉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또는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하였다〉이었다. 신라 법흥왕(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羅伽倻 咸州 金羅 沙羅 巴山.

【군명(郡名)】은 아시량, 아라가야, 함주, 금라, 사라, 파산이었다.

【古跡】新增 伽倻國舊墟.〈在郡城北五里城山之上.城基宛然〉

【고적(古跡)】 신증(新增) 가야국(伽倻國) 옛 터[舊墟]〈군성(郡城) 북쪽으로 5리 되는 성산(城山)의 위에 있다. 성터가 완연하다〉

사료8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阿那加耶者 今之咸安郡也. 新羅法興王滅之. 東史略云 法興王二十五年〈梁武帝大同四年〉伐阿尸良國 滅之. 鄭麟趾地理志云 咸安本阿那伽耶. 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隋書煬帝紀云 大業四年 百濟 · 倭 · 迦羅舍國並遣使貢方物. 鏞案 迦羅之亡在梁武帝三十一年 大加耶之亡在陳文帝天嘉三年. 此云迦羅舍者 或者六加耶之中有一後亡者歟. 今不可考.

아나가야(阿那加耶)는 지금[조선]의 함안군(咸安郡)이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에 이르기를 법흥왕 25년(538년)〈양(梁) 무제 대동 4년〉에 아시량국(阿尸良國)을 쳐서 멸하였다고 하였다. 정인지의 [고려사]지리지에 이르기를 함안(咸安)은 본래 아나가야(阿那伽耶)였는데 법흥왕이 멸하여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수서』 양제본기(煬帝本紀)에 이르기를 대업(大業) 4년 백제, 왜, 가라사(迦羅舍)의 나라들이 모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고 하였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라(迦羅)가 망한 것은 양(梁) 무제(武帝) 31년(532년)이고, 대가야가 망한 것은 진(陳) 문제(文帝) 천가(天嘉) 3년(562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사(迦羅舍)란 것이 혹시 6가야 가운데 유일하게 뒤에 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사료9 **『대동장고』 제1책 역대고 신라소속제국 | 『大東掌攷』 第一册 歷代攷 新羅所屬諸國**

阿羅伽倻國〈一作阿那伽倻. 一作阿尸良國. 六伽倻之一 今咸安. 新羅法興王二十午年戊午滅之 置阿尸良郡〉攷異〈與地勝覽曰 白沙里 有古國牛谷 東西境上 有古塚 高五 今咸安郡北丈者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 古老相傳〉

아라가야국(阿羅伽倻國)〈또는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지었고, 아시량국(阿尸良國)이라고도 지었다. 6가야의 하나이니 지금의 함안이다. 신라 법흥왕(法興王) 25년(538년) 무오년에 멸망시키고, 아시량군(阿尸良郡)을 설치하였다〉 다름을 상고한다.〈『([동국]여지승람(與地勝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금의 함안군 북쪽 백사리(白沙里)에 옛 나라(古國)가 있다. 우곡(牛谷)의 동쪽과 서쪽 경계 위에는 높이가 다섯 [길(장(丈)] 되는 옛 무덤[고총(古塚)] 40여 개가 있는데, 모두 그 나라 임금들의 무덤이라고 노인들 말로 전해 온다〉

사료10 **『함안군읍지』 | 『咸安郡邑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 阿那邴倻〉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일명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한다〉이었다. 신라 법흥왕(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羅伽倻 咸州.

【군명(郡名)】 아시량(阿尸良), 아라가야(阿羅伽倻), 함주(咸州), 금라(金羅), 사라(沙羅), 파산(巴山).

【陵基】〈牛谷面東西丘 有古塚 高大如丘 陵者四十餘. 諺傳古國王陵云.載舊誌〉
【능묘(陵墓)】〈우곡면(牛谷面) 동서쪽 언덕에 옛날 무덤이 있다. 높이와 크기가 구릉 같은 것이 40여 기가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諺傳]에 옛날 국왕의 무덤이라고 한다.「구지(舊誌)」에 실려 있다〉

사료11 『경상도읍지』 제15책 함안군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五册 咸安郡邑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 阿羅伽倻國〉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為郡.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이었다.〈일명 아라가야국(阿羅伽倻國)이라고도 하였다〉신라 법흥왕(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
【군명(郡名)】 아시량, 아나가야, 함주, 금라, 사라(沙羅).

【古蹟】伽倻國舊墟.〈在郡北五里城山之上.城基宛然〉
【고적(古蹟)】 가야국(伽倻國) 옛 터[舊墟]〈군에서 북쪽으로 5리에 있는 성산(城山)의 위에 있다. 성터가 완연하다〉

사료12 『대동지지』 권10 경상도 함안 | 『大東地志』 卷十 慶尙道 咸安

【沿革】本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新羅智證王十五年取之 置小京於阿尸村.〈徒六部及南地人戶實之〉法興王二十四年 置阿尸良郡. 景德王十六年 改咸安郡.〈領縣二 玄武 · 宜寧〉
【연혁(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아나가야(阿那加耶)라고도 한다〉이었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15년(514년)에 빼앗고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두었다.〈6부(部)와 남쪽 지방 사람들을 옮겨 그 곳을 채웠다〉 법흥왕 24년(537년)에 아시량군(阿尸良郡)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년)에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영현(領縣) 둘로 현무(玄武), 의령(宜寧)이 있다〉

사료13 『동국통지』 권6 지리지 하 | 『東國通志』 卷六 地理志 下

【咸安】故阿尸良國. 新羅爲咸安郡
【함안(咸安)】〈옛 아시량국(阿尸良國)이다. 신라가 함안군으로 삼았다〉

사료14 『영남읍지』 제11책 함안군읍지 | 『嶺南邑誌』 第十一册 咸安郡邑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新羅 伽倻國〉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일명 아라가야국(阿羅伽倻國)이다〉인데,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
【군명(郡名)】 아시량, 아나가야, 함주, 금라, 사라.

사료15 『영지요선』 하책 함안 | 『嶺誌要選』 下册 咸安

【沿革】本阿那伽倻國 後改今名. 一云 咸州, 金羅, 沙羅, 巴山.
【연혁(沿革)】 본래 아나가야국(阿那伽倻國)인데, 뒤에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함주(咸州), 금라(金羅), 사

라(沙羅), 파산(巴山)이라고도 한다.

사료16 **『영남읍지』 제29책 함안군읍지 | 『嶺南邑誌』 第二十九册 咸安郡邑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 阿羅伽倻國〉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為郡.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일명 아라가야국(阿羅伽倻國)이다〉인데,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사료17 **『함안군읍지』 | 『咸安郡邑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아시량국(阿尸良國)〈일명 아나가야국(阿那伽倻國)이다〉인데,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郡名】阿尸良 阿羅伽倻 咸州 金羅 沙羅 巴山.

【군명(郡名)】 아시량(阿尸良), 아라가야(阿羅伽倻), 함주(咸州), 금라(金羅), 사라(沙羅), 파산(巴山).

【古跡】[新增] 伽倻國舊墟〈在郡城北五里城山之上 城基宛然〉

【고적(古蹟)】 [신증(新增)] 가야국구허(伽倻國舊墟)〈군성(郡城) 북쪽 5리 성산(城山)의 위에 있다. 성터가 완연하다〉

사료18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고15 관방3 |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慶尙道 咸安 [補]伽倻古城 邑誌在北五里 基址宛然.

경상도 함안(咸安) [보(補)] 가야(伽倻)의 옛 성이 있다. 『읍지(邑誌)』에 [군의] 북쪽 5리에 있다는데 그 터가 [지금도] 완연하다.

1세기경부터 소가야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다

사료1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固城縣本小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 改今名 爲郡.

고성현은 본래 소가야국(小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두었으며,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군(郡)으로 삼았다.

사료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固城縣本小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爲固城郡. 高麗改爲縣. 顯宗戊午 屬巨濟任內. 後置縣令. 本朝因之.

고성현은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고성군(固城郡)으로 고쳤다. 고려에서 현(縣)으로 고쳤다. 현종 무오년(1018년)에 거제(巨濟) 관내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현령(縣令)을 두었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사료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고성군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固城郡**

【建置沿革】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固州刺史 後降爲縣. 顯宗屬巨濟 後置縣令. 元宗陞爲州. 忠烈王時 併于南海 尋復舊. 恭愍王朝降爲縣令. 本朝因之.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때 고주자사(固州刺史)로 삼았다가 뒤에 현으로 강등시켰다. 현종이 주(州)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 남해(南海)에 합쳤다가 곧 복구하였다. 공민왕 때 현령으로 강등시켰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두었다.

사료4 **『동국여지지』 권4 하 고성군 | 『東國輿地志』 卷四 下 固城郡**

【建置沿革】古加耶國. 新羅取之 置古有郡. 景德王時改固城郡.

【건치연혁(建置沿革)】 옛 가야국(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유군(古有郡)을 두었다. 경덕왕 때 고성군(固城郡)으로 고쳤다.

사료5 **『강계고』 권3 신라국 소가야국 | 『疆界考』 卷三 新羅國 小伽倻國**

高麗地理志 固城縣 本小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爲郡. 輿地勝覽 固城縣 本小伽倻國.

『고려사』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성현(固城縣)은 본래 소가야국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삼았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고성현(固城縣)은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이었다고 하였다.

사료6 **『여지도서』 경상도 고성 | 『輿地圖書』 慶尙道 固城**

【建置沿革】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고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7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小加耶者 卽弁辰古資國 今之固城縣也.新羅智證王滅之. 東史略云智證王六年〈梁武帝天監四年〉遣異斯夫 取小加耶國. 新羅史 · 異斯夫傳云智證王時 爲沿邊官襲居道 權謀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 取之.〈馬戲 所以滅于尸山國 詳見居道傳〉鏞案 于山國之來降 在智證王十三年 則小加耶之伐取 當在其後. 東史略六年之說 誤矣.

소가야(小加耶)란 것은 곧 변진(弁辰)의 고자국(古資國)이니 지금[조선]의 고성현(固城縣)이다. 신라 지증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東史略)』에 이르기를 지증왕 6년(505년)〈양(梁) 무제 천감 4년〉에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 소가야국(小加耶國)을 빼앗았다고 하였다. 신라사 이사부전(異斯夫傳)에 이르기를 지증왕 때 연변관(沿邊官)이 되어 거도(居道)의 권모술수를 이어 받아 말놀이[馬戲]로 가야(加耶)〈가라(加羅)라고도 한다〉국을 속이고 빼앗았다고 하였다.〈말놀이는 우시산국(于尸山國)을 멸망시킬 때 썼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거도전(居道傳)에 보인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해 온 것이 지증왕 11년(510년)이었으니 소가야(小加耶)를 쳐서 빼앗은 것은 당연히 그 뒤에 있어야 한다. 『동사략(東史略)』의 6년(505년) 설은 잘못되었다.

사료8 **『경상도읍지』 제8책 고성읍지 | 『慶尙道邑誌』 第八册 固城邑誌**

【建置沿革】本伽倻國. 新羅取之置古自郡. 景德王攺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伽倻國)이었다. 신라가 차지하고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9 **『고성현읍지』 | 『固城縣邑誌』**

【建置沿革】本加耶國.新羅取之 置古自郡.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加耶國)이었다. 신라가 차지하고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10 **『대동지지』 권10 경상도 고성 | 『大東地志』 卷十 慶尚道 固城**

【沿革】本小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一云 古自國 今固城 是浦上八國之一〉景德王十六年 改固城郡.〈領縣三 文和 泗水 尙善〉

【연혁(沿革)】 본래 소가야국(小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고자국(古自國)이라고도 한다. 지금[조선]의 고성(固城)이다. 포상팔국(浦上八國) 가운데 하나이다〉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년) 고성군(固城郡)으로 고치고〈영현(領縣)이 셋인데 문화(文和), 사수(泗水), 상선(尙善)이다〉 강주(康州)에 예속시켰다.

사료11 **『동국통지』 권6 지리지 하 | 『東國通志』 卷六 地理志 下**

固城. 故小伽倻國. 新羅爲固城郡.

고성.〈옛 소가야국이다. 신라가 고성군으로 삼았다〉

사료12 **『영남읍지』 제2책 고성현읍지 | 『嶺南邑誌』 第二册 固城縣邑誌**

【建置沿革】本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인데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13 **『영지요선』 하책 고성 | 『嶺誌要選』 下册 固城**

【沿革】本小伽椰國 後改今名. 一云 固自, 固州, 鐵城.

【연혁(沿革)】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인데, 뒤에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자(固自), 고주(固州), 철성(鐵城)이라고도 한다.

사료14 **『영남읍지』 제31책 고성부읍지 | 『嶺南邑誌』 第三十一册 固城府邑誌**

【建置沿革】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伽倻國)이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子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의 이름으로 고쳤다.

【古蹟】伽倻 蚊火良廢縣〈金富軾云 新羅時爲固城郡領縣 今未詳〉

【고적(古蹟)】 가야(伽倻) 문화량 폐현(蚊火良廢縣)〈김부식이 신라 때 고성군의 영현(領縣)이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조선]은 미상이다〉

사료15 **『고성군읍지』 | 『固城郡邑誌』**

【建置沿革】本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가야국(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1세기경부터 성산가야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다

사료1 **『경상도지리지』** 상주도 성주목관 |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星州牧官

古稱碧珍國 此諺傳也. 在新羅時 稱星山郡.

옛날에 벽진국(碧珍國)이라 불렀는데, 이는 민간에서 전해지는 것이다. 신라 때에 성산군(星山郡)이라고 불렀다.

사료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성주목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八 星州牧

【建置沿革】本新羅本彼縣〈三國遺事 以星山伽倻 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 治本被縣. 詳見金海府山川下〉景德王改新安屬星山郡. 後改碧珍郡. 高麗太祖改京山府. 景宗降爲廣平郡. 成宗改岱州都團鍊使. 顯宗廢團鍊使 復爲京山府. 忠烈王陞興安都護府. 後改今名爲牧. 忠宣王降爲京山府. 本朝因之. 太宗朝 安御胎于府之祖谷山 陞爲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이었다.〈『삼국유사』에서 성산가야(星山伽倻)를 6가야의 하나로 삼았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의 산천조(山川條)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경덕왕(景德王)이 신안(新安)으로 고치고 성산군(星山郡)에 속하게 하였다. 뒤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경산부(京山府)로 고쳤다. 경종이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으로 고쳤다. 성종이 대주 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로 고쳤다. 현종이 단련사를 폐지하였다. 뒤에 다시 경산부로 삼았다. 충렬왕이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높였다.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목(牧)으로 삼았다. 충선왕이 경산부로 강등시켰다. 본조[조선]에서 그대로 하였다. 태종 때에 임금의 태(胎)를 부의 조곡산(祖谷山)에 안치하고 승격시켜 목으로 삼았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군명(郡名)】은 본피(本彼), 성산(星山), 가야(伽倻), 신안(新安), 벽진(碧珍), 광평(廣平), 대주(岱州), 경산(京山), 흥안(興安)이었다.

사료3 **『동국여지지』** 권4 하 성주목 | **『東國輿地志』** 卷四 下 星州牧

【建置沿革】本新羅本彼縣.〈古記以星山伽倻 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 置本彼縣 詳見金海府〉景德王改新安爲星山郡領縣. 後改碧珍郡.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이다.〈고기(古記)에는 성산가야(星山伽倻)를 6가야의 하나로 삼았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해부(金海府)에 자세히 보인다〉 경덕왕(景德王) 때 신안(新安)으로 고치고 성산군(星山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뒤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

사료4 **『성산지』** 권1 | **『星山志』** 卷一

【建置沿革】東漢光武皇帝建武十八年三月 駕洛〈卽今 金海郡〉九干 我刀·汝刀·彼刀·五刀·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 禮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繩繫金合而下. 開視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九人咸會又開視 六卵部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衆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生于金合 因姓金氏. 國號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也. 餘五人各歸爲伽倻主. 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三國遺事 稱星山伽倻〉咸安爲阿那伽倻 咸昌爲古寧伽倻. 三國遺事 以星山伽倻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爲本彼縣也. 愚按 三國遺事 · 輿地勝覽 皆以星州 爲六伽倻之一 而其國號 或稱碧珍伽倻 或稱星山伽倻 蓋一國而二名也.

【건치연혁(建置沿革)】 동한(東漢) 광무황제 건무 18년(42년) 3월에 가락(駕洛)〈곧 지금의 김해〉 구간(九干)·아도(我刀)·여도(汝刀)·피도(彼刀)·오도(五刀)·유수(留水)·유천(留天)·신천(神天)·오천(五天)·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음(禊飮)을 하다가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상자[金合]를 매달고 내려왔다. 열어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받들어 아도(我刀)의 집에 두고 다음 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서 보니 여섯 알의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이 나날이 자라나서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 금빛상자[金合]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야(伽倻)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돌아가 가야의 군주가 되었다. 고령(高靈)은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은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성주(星州)는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은 고녕가야(古寧伽倻)가 되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성산가야(星山伽倻)를 6가야의 하나로 삼았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本彼縣)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내가 생각건대 『삼국유사』와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모두 성주(星州)를 6가야의 하나로 삼았으니, 그 국호를 벽진가야(碧珍伽倻)라고도 하고, 혹은 성산가야(星山伽倻)라고도 한 것은 한 나라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星州.
【군명(郡名)】 본피, 성산, 가야, 신안, 벽진, 광평, 대주, 경산, 흥안, 성주.

【古墳】星州面星山下 及月恒面 · 金水面 古墳甚多. 大者如邱峰 小不下培 俗稱古來葬 又稱高麗塚. 年前自京府送官 堀破幾所 則塚內石築 如窖窟樣 有間架陣列金銀銅鐵磁陶製器皿什具 與生人房室無異 審查者謂伽倻及任那時代云. 嘗考葬書 有生墳說曰 生墳之義 其來已遠 南人多用 北人罕用 似是上古羅代生墳也.
【고분(古墳)】 성주면 성산 아래에는 월항면과 금수면에 이르기까지 고분이 매우 많다. 큰 것은 언덕이나 봉우리만하고 작은 것도 작은 언덕보다 못하지 않다. 속칭 고래장(古來葬)이라고 하며, 또는 고려총(高麗塚)이라고도 한다. 몇 해 전에 서울에서 관리를 보내와 몇 군데를 파보니, 무덤 안의 석축이 움막 모양으로 생겼고 시렁 사이에는 금, 은, 동, 철, 자기, 도기로 만든 그릇 열 개가 진열되어 있었으며, 살아 있는 사람의 방과 다름이 없었다. 심사한 사람이 말하기를 가야(伽倻)나 임나(任那)시대의 것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장서(葬書)를 살펴보니 생분(生墳)에 대한 설명이 있어 말하기를 생분의 뜻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남쪽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북쪽 사람들은 드물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상고 신라 때 생긴 고분이 아닌가 한다.

사료5 『성산지』 권2 | 『星山志』 卷二

【古蹟】碧珍國古墟. 世傳 舊明巖樹村 今碧珍面海平洞 卽其地云.
【고적(古蹟)】 벽진국의 옛 터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옛 명암수촌(明巖樹村), 지금의 벽진면(碧珍面) 해평동(海平洞)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한다.

사료6 『강계고』 권3 신라국 성산가야국 | 『疆界考』 卷三 新羅國 星山伽倻國

東國記異 星山伽倻 今京山. 一云碧珍. 輿地勝覽 星山 本新羅本彼縣. 三國遺事 以星山伽倻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 置本彼縣. 木翁地志 右五伽倻 五童子分主者也. 若首露伽倻 乃六伽倻之一. 而權陽村 反以金官列於五伽倻. 東國記異註 金官不入五數是矣. 東國史略 則並數金官 而濫記昌寧 誤矣. 斯論得之.
『동국기이(東國記異)』에 성산가야는 지금[조선]의 경산(京山)인데, 벽진(碧珍)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산은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이었다. 『삼국유사』에서 성산가

야를 6가야의 하나라 하였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목옹지지(木翁地志)』에 위의 5가야는 다섯 동자가 나누어 임금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수로가야는 6가야의 하나인데,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오히려 금관(金官)을 5가야에 넣었다. 『동국기이』 주(註)에서 금관이 5가야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옳고, 『동국사략』에서 금관을 아울러 세고 창녕(昌寧)을 함부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라 하였으니, 이 논의가 옳다.

사료7 『여지도서』 경상도 성주 | 『輿地圖書』 慶尚道 星州

【建置沿革】本新羅本彼縣.〈三國遺事 以星山伽倻 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 置本彼縣 詳見金海府 山川下〉景德王 改新安屬星山郡. 後改碧珍郡. 高麗太祖改京山府.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이었다.〈『삼국유사』에서 성산가야(星山伽倻)를 6가야의 하나로 삼았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김해부(金海府) 산천조(山川條)에 자세히 보인다〉 경덕왕이 신안(新安)으로 고치고 성산군(星山郡)에 속하게 하였다. 뒤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太祖)가 경산부(京山府)로 고쳤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군명(郡名)】 본피, 성산, 가야, 신안, 벽진, 광평, 대주, 경산, 여안.

사료8 『경상도읍지』 제4책 성주목읍지 | 『慶尚道邑誌』 第四册 星州牧邑誌

【建置沿革】按三國遺事 以星山伽倻 爲六伽倻之一.疑新羅取之 置本彼縣也. 新羅景德王改名新安爲星山郡. 後改碧珍郡.

【건치연혁(建置沿革)】 생각건대 『삼국유사』에서 성산가야를 6가야(伽倻)의 하나로 삼았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本彼縣)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 경덕왕이 신안(新安)으로 이름을 고치고, 성산군(星山郡)으로 삼았다. 뒤에 벽진군(碧珍君)으로 고쳤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군명(郡名)】 본피, 성산, 가야, 신안, 벽진, 광평, 대주, 경산, 홍안.

사료9 『대동지지』 권9 경상도 성주 | 『大東地志』 卷九 慶尚道 星州

【沿革】本碧珍伽倻. 新羅取之 置碧珍郡.〈一云 本彼縣〉景德王十六年 改新安爲星山郡領縣.

【연혁(沿革)】 본래 벽진가야(碧珍加耶)였다. 신라가 빼앗아 벽진군(碧珍郡)으로 삼았다.〈본피현(木彼縣)이라고도 하였다〉 경덕왕 16년(757년)에 신안(新安)으로 고치고 성산군(星山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사료10 『동국통지』 권6 지리지 하 | 『東國通志』 卷六 地理志 下

星州.〈故新羅新安縣. 後更碧珍郡 高麗爲京府. 忠烈王 以安東及本府 爲公主湯沐邑. 又曰 廣州·岱州 幷加利縣. 加利古星山伽倻國〉

성주(星州).〈옛 신라 신안현(新安縣)이었다가 뒤에 다시 벽진군(碧珍郡)이 되었다. 고려가 경산부(京山府)로 삼았다. 충렬왕이 안동과 본부(本府)를 공주(公主)의 탕목읍(湯沐邑)으로 삼았다. 또 광주(廣州), 대주(岱州)라고도 한다. 가리현(加利縣)을 속현으로 거느렸는데, 가리는 옛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이다〉

사료11 **『영지요선』하책 성주 | 『嶺誌要選』下冊 星州**

【沿革】本碧珍伽倻國. 後改今名. 一云 星山, 新安, 碧珍, 京山, 岱州, 興安

【연혁(沿革)】 본래 벽진가야국(碧珍伽倻國)이다. 뒤에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성산(星山), 신안(新安), 벽진(碧珍), 경산(京山), 대주(岱州), 흥안(興安)이라고도 한다.

【山川】太子巖〈西二十里. 舊傳伽倻太子 爲質於碧珍 未歸而死. 或云 碧珍太子 來遊之地. 故名之 以太子岩〉

【산천(山川)】 태자암(太子巖)〈서쪽 20리에 있다. 구전(舊傳)에 가야태자가 벽진(碧珍)에 인질이 되었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하고, 벽진태자가 놀러왔던 곳이므로 태자암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古跡】伽倻國〈首露王弟五人 分爲五伽倻. 祥金海誌〉

【고적(古跡)】 가야국(伽倻國)〈수로왕의 아우 다섯 명이 나뉘어 5가야가 되었다. 『김해지(金海誌)』에 자세하다〉

사료12 **『영남읍지』제19책 경산지 권1 | 『嶺南邑誌』第十九册 京山誌 卷一**

【建置沿革】後漢光武皇帝建武十八年三月 駕洛〈卽今金海郡〉 九干 我刀·汝刀·彼刀·五刀·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 禮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繩繫金合而下. 開視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九人咸會又開視 六卵部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衆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生于金合 因姓金氏 國號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也. 餘五人各歸爲伽倻主. 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三國遺事稱 星山伽倻〉咸安爲阿那伽倻 咸昌爲古寧伽倻. 三國遺事 以星山伽倻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爲本彼縣也. 愚按三國遺事·輿地勝覽 皆以星州 爲六伽倻之一 而其國號. 或稱碧珍伽倻. 或稱星山伽倻. 蓋一國而二名也.

【건치연혁(建置沿革)】 후한(後漢) 광무 건무 18년(42년) 3월 가락 〈곧 지금[조선]의 김해부이다〉 아홉 간 아도(我刀), 여도(汝刀), 피도(彼刀), 오도(五刀), 유수(留水), 유천(留天), 신천(神天), 오천(五天), 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며 음복을 하다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를 매달고 내려왔다. 열어서 보니 금색 알이 여섯 개 있었는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상자를] 받들어서 아도의 집에 두었다.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서 보니 여섯 개의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절을 하며 하례하였다. 동자가 나날이 자라나서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가 되었다. 무리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으니 곧 수로왕이다. 금빛 상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김씨로 하고 국호를 가야로 하니, 이 때가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기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主]이 되었다.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倻),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삼국유사』에는 성산가야(星山伽倻)라 하였다〉, 함안(咸安)이 아나가야(阿那伽倻),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倻)이다.〈『여지승람』〉 『삼국유사』에서는 성산가야를 6가야의 하나라고 하였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本彼縣)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여지승람』〉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생각하건대[愚按] 『삼국유사』와 『여지승람』이 모두 성주를 6가야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 국호를 혹 벽진가야라고 하고 또는 성산가야라고 하였으니 한 나라에 두 이름이 있는 것이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군명(郡名)】 본피, 성산, 가야, 신안, 벽진, 광평, 대주, 경산, 흥안.

【山川】太子巖〈西二十里. 舊傳伽倻太子 爲質於碧珍 未歸而死. 或云 碧珍太子 來遊之地. 故名之 以太子岩〉

【산천(山川)】 태자암(太子巖)〈서쪽 12리에 있다. 둥근 돌을 쌓아 3층을 세웠는데 높이가 9척이며 원지름이 13척

이니 자못 기괴하다. 하늘이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면 가끔 응답이 있다. 구전에 대가야의 태자가 벽진(碧珍)에 인질이 되어 항상 이곳에서 놀았는데 [대가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서 나그네 혼이 의탁한 곳이라고 한다. 또는 벽진국의 태자가 항상 이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바위가 이로써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도 한다〉

【古跡】碧珍國古墟.〈世傳 舊明巖樹村 今碧珍面海平洞 卽其地云〉
【고적(古蹟)】 벽진국 옛터[古墟]〈세상에 전하기를 명암수촌(明巖樹村)이 곧 그 땅이라고 한다〉

사료13 『성주군읍지』 | 『星州郡邑誌』

【建置沿革】按三國遺事 以星山伽倻 爲六伽倻之一. 疑新 羅取之 置本彼縣也. 新羅景德王改名新安爲星山郡. 後改碧珍郡.
【건치연혁(建置沿革)】 생각컨대 『삼국유사』에서는 성산가야를 6가야의 하나라고 하였으니, 아마 신라가 점령하고 본피현(本彼縣)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 경덕왕이 신안(新安)을 개명하고 성산군(星山郡)으로 삼았다. 뒤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

【郡名】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군명(郡名)】 본피, 성산, 가야, 신안, 벽진, 광평, 대주, 경산.

1세기경부터 고녕가야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다

사료1 『경상도지리지』 상주도 성주목관 |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星州牧官

咸昌縣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爲古冬攬郡〈一云 古陵縣〉 景德王時 改名古寧郡.
함창현(咸昌縣)은 본래 고녕가야국(古寧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고릉현(古陵縣)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다. 경덕왕 때 고녕군(古寧郡)으로 이름을 고쳤다.

사료2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咸昌郡 本古寧伽倻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郡〉 景德王 改爲古寧郡.
함창군은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고릉군(古陵郡)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으며, 경덕왕이 고녕군(古寧郡)으로 고쳤다.

사료3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咸昌縣 本古寧伽倻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 景德王改爲古寧郡. 高麗 光宗十五年甲子 改爲咸寧郡.〈卽宋 太祖 乾德二年〉 顯宗九年戊午 屬尙州任內 後改爲咸昌郡. 明宗二年壬辰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함창현은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군(古寧郡)으로 고쳤다. 고려 광종 15년 갑자(964년)〈곧, 송(宋) 태조 건덕 2년이다〉에 함녕군(咸寧郡)으로 고쳤다. 현종 9년 무오(1018년)에 상주(尙州)의 임내(任內)로 속하게 하였다. 뒤에 함창군(咸昌郡)으로 고쳤다. 명종 2년

임진(1172년)에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조선]에서도 그대로 두었다가 태종(太宗) 13년(1413년) 예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료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함창현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九 咸昌縣**

【建置沿革】 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 景德王改古寧. 高麗光宗改咸寧. 顯宗時屬尙州 改今名. 明宗置監務. 本朝太宗朝例改縣監.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의 산천조(山川條)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古冬攬)〈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古寧)으로 고쳤다. 고려 광종(光宗)이 함녕(咸寧)으로 고쳤다. 현종 때 상주(尙州)에 속하게 하고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명종이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본조[조선] 태종 때 예에 따라 현감으로 고쳤다.

사료5 **『동국여지지』 권4 하 함창현 | 『東國與地志』 卷四 下 咸昌縣**

【建置沿革】 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 景德王改古寧郡.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김해부에 상세히 보인다〉 신라가 빼앗고 고동람(古冬攬)〈또는 고릉(古陵)이라고도 하였다〉 군(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고녕군(古寧郡)으로 고쳤다.

사료6 **『강계고』 권3 신라국 고녕가야국 | 『疆界考』 卷三 新羅國 古寧伽倻國**

古寧伽倻國. 三國地理志 古寧郡 本古寧伽倻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 景德王改今名. 輿地勝覽 咸昌郡 本新羅古寧郡.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녕군(古寧郡)은 본래 고녕가야국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여지승람(輿地勝覺)』에 함창군(咸昌郡)은 본래 신라의 고녕군(古寧郡)이었다고 하였다.

사료7 **『여지도서』 경상도 함창 | 『輿地圖書』 慶尙道 咸昌**

【建置沿革】 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 景德王改古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김해의 산천조에 자세히 보인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占冬攬)〈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古寧)으로 고쳤다.

【古蹟】 [新增] 伽倻王墓〈在縣南二里.世傳 本縣金氏爲其裔 立碑守護歲祭之〉

【고적(古跡)】 [신증(新增)] 가야왕묘(伽倻王墓)〈현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본현(木縣)의 김씨가 그 후예라 하여 비석을 세우고 수호하며 해마다 제사를 올린다〉

사료8 **『함창현읍지』 | 『咸昌縣邑誌』**

【建置沿革】 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 景德王改古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김해부 산천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신라가 차지하고 고동람군(古冬攬郡)〈또는 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古寧)으로 고쳤다.

【古跡】 伽倻王墓〈在縣南二里 世傳本縣金氏爲其裔 立碑守護歲祭之〉

【고적(古跡)】 가야왕묘(伽倻王墓)〈현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본현(木縣)의 김씨가 그 후예라 하여 비석을 세우고 수호하며 해마다 제사를 올린다〉

사료9 **『경상도읍지』 제17책 함창현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七册 咸昌縣邑誌**

【建置沿革】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景德王改古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김해부 산천조에 자세히 보인다〉 신라가 차지하고 고동람(古冬攬)〈또는 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古寧)으로 고쳤다.

【陵墓】伽倻王墓〈在縣南二里 左右麓有二墓 世傳爲王陵 本邑胥吏多咸寧之金 稱爲後裔 改封築竪碑 歲祀之〉

【능묘(陵墓)】 가야왕릉(伽倻王陵)〈현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좌우 기슭에 두 개의 묘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왕릉이라고 한다. 본 읍의 서리 가운데 함녕(咸寧)김씨가 많은데, 후예라 칭하며 봉분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우고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료10 **『대동지지』 권9 경상도 함창 | 『大東地志』 卷九 慶尙道 咸昌**

【沿革】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縣〉景德王十六年改古寧〈領縣三 冠山 · 嘉善 · 虎溪〉隷尙州.

【연혁(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加耶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고릉현(古陵縣)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다. 경덕왕 16년(757년) 고녕(古寧)〈영현(領縣)이 셋인데, 관산(冠山) · 가선(嘉善) · 호계(虎溪)가 있다〉으로 고치고 상주(尙州)에 예속시켰다.

사료11 **『동국통지』 권6 지리지 하 | 『東國通志』 卷六 地理志 下**

咸昌 〈故古寧伽倻國. 新羅爲告寧郡〉

함창. 〈옛 고령가야국(古寧伽倻國)이다. 신라가 고령군으로 삼았다〉

사료12 **『영남읍지』 제2책 함창현읍지 | 『嶺南邑誌』 第二册 咸昌縣邑誌**

【建置沿革】本古寧伽倻國 〈詳見金海府山川下〉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景德王改古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자세한 것은 김해부 산천(山川) 아래[下]에 보인다〉인데,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고녕으로 고쳤다.

사료13 **『영지요선』 하책 함창 | 『嶺誌要選』 下册 咸昌**

【沿革】古寧伽倻國 後改今名. 一云 咸寧, 古冬攬, 古陵.

【연혁(沿革)】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인데, 뒤에 지금[조선]의 이름으로 고쳤다. 함녕(咸寧), 고동람(古冬攬), 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

【古跡】伽倻王陵〈南二里 有基址井〉. 井花池 〈北五里 古傳伽倻 王遊幸 賞蓮之地〉

【고적(古跡)】 가야왕릉(伽倻王陵)〈남쪽 2리에 터가 있다〉. 정화지(井花池)〈북쪽 5리. 옛날에 전하기를 가야 왕이 놀러 와서 연꽃을 감상하던 곳이라고 한다〉

사료14 **『영남읍지』 제21책 함창현 | 『嶺南邑誌』 第二十一册 咸昌縣**

【建置沿革】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 古陵〉景德王改古寧郡.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자세한 것은 김해부 산천 아래에 보인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고릉(古陵)이라고도 한다〉으로 삼았다. [신라] 경덕왕이 고녕(古寧)군으로 고쳤다.

사료15 **『함창군읍지』 | 『咸昌郡邑誌』**

【建置沿革】本古寧伽倻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景德王改古寧.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녕가야국(古寧伽倻國)이었다.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또는 고릉(占陵)이라고 한다〉으로 삼았다. [신라] 경덕왕이 고녕(古寧)으로 고쳤다.

【山川】大駕山〈在郡西七里. 俗傳 伽倻王遊幸于此 故名云〉

【산천(山川)】 대가산(大駕山)〈군 서쪽 7리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俗傳] 가야왕이 여기에 놀러 행차하였기 때문에 이름했다고 한다〉

【橋梁】樓橋〈在郡南二里. 世傳 伽倻王時所成〉

【교량(橋梁)】 누교(樓橋)〈군 남쪽 2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야왕 때 만든 것이라고 한다〉

【陵墓】伽倻王陵〈在郡南二里. 本郡金氏 以其後裔 立碑守護 歲祭之〉

【능묘(陵墓)】 가야왕릉(伽倻王陵)〈군 남쪽 2리에 있다. 본군(本郡)의 김씨가 그 후예라고 하여 비를 세우고 지키며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姓氏】本郡金〈伽倻王後裔〉

【성씨(姓氏)】 본군(本郡) 김(金)〈가야왕의 후예이다〉

43년경　가락국 수로왕,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짓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二年癸卯春正月 王若曰 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新畓坪〈是古來閑田 新耕作故云也. 畓乃俗文也〉四望山嶽顧左右曰 此地狹小如蓼葉 然而秀異 可爲十六羅漢住地 何況 自一成三 自三成七 七聖住地 固合于是. 托土開疆終然允臧歟. 築置一千五百步周廻羅城·宮禁殿宇及諸有司屋宇·虎庫倉廩之地. 事訖還宮 徧徵國內丁壯·人夫·工匠 以其月二十日資始金陽 暨三月十日役畢. 其宮闕屋舍 俟農隙而作之 經始于厥年十月 逮甲辰二月而成 涓吉辰御新宮 理萬機而懃庶務.

2년(43년) 계묘년 봄 정월 왕이 그렇다 하고 짐이 서울과 도읍을 정하고 한다 하고 곧 수레를 타고 임시 궁궐 남쪽의 신답평(新畓坪)〈이것은 예부터 노는 땅인 한전(閑田)을 새로 경작함을 말한다. 답(畓)은 속자이다〉에 나아가 사방으로 산세를 둘러보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협소하기가 여뀌 잎 같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뛰어나 가히 16나한이 살만한 땅이다. 하물며 하나에서 셋이 이루어지고 셋에서 일곱이 이루어지니 칠성(七聖)이 살만한 땅이니 진실로 이[도읍을 삼기]에 합당하다. 이 땅을 바탕으로 강토를 열고 끝날 때까지 잘 갈무리할 것이다. 1천5백보의 나성(羅城)을 두르고 궁궐전각과 여러 관청 건물, 그리고 창고 자리를 마련한 후에 일을 마치고 환궁하였다. 두루 국내의 장정·인부·공장(工匠)을 징발하여 그 달 20일에 견고한 성곽[금양(金陽)〈금탕(金湯)=金城湯池; 쇠 같은 성과 끓는 해자〉〉의 잘못인 듯]을 쌓기 시작해 3월 10일에 역사를 마쳤다. 그 궁궐과 건물들은 농한기를 기다려 만들었는데, 그 해 10월부터 시작해 갑진(甲辰)년(43년) 2월에 완성하였다. 길일을 받아

새 궁에 들어가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인민의 일에 힘썼다.

사료2 **『강계고』제3 신라국 국도 | 『疆界考』第三 新羅國 國都**

【國都】三國地理志 金海小京 本金官國. 輿地志 首露王宮遺址 在今金海府內. 墓在府西三百步. 廟在墓傍. 許妃墓在龜旨山東. 府人並祭以正 · 五 · 八月〈按 新羅末有英規者 奪廟爲淫祀 後入廟 樑折壓死.後有盜聚黨入廟 偸祭器 忽有猛士被甲持弓 從廟出 四面射賊 賊驚散.數日復來 有大蟒 長三丈餘 目光如電 咬殺九人.墓起於建安四年 歷九百年 封土不崩 植木長茂.宣祖壬辰 倭寇發其墓 壙中斂以金玉 頭骨大如銅盆 棺外有二美人 顔色如生 出置壙外 見日卽消.蓋當時殉葬者也〉高麗史地理志 招賢臺 在州東.世傳 駕洛國居登王登此臺 招七點山旵始仙人.旵始乘舟而來 因名焉.

【국도(國都)】『삼국지리지(三國地理志)』에 금관소경(金海小京)은 본래 금관국(金官國)이었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궁(首露王宮)의 옛 터가 지금[조선] 김해부 안에 있다. 묘(墓)는 부(府)의 서쪽 3백보 되는 곳에 있으며, 사당이 무덤 옆에 있다. 허비(許妃)의 묘는 구지산(龜旨山) 동쪽에 있다. 부의 사람들이 정월, 5월, 8월에 [왕과 왕비를] 함께 제사한다〈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신라 말에 영규(英規)라는 자가 사당을 빼앗아 음사(淫祀)를 지냈는데, 뒤에 사당에 들어갔다가 대들보가 꺾이어 압사당하였다. 뒤에 도적들이 무리지어 사당에 들어가 제가를 훔쳤는데, 갑자기 용맹스런 병사가 갑옷을 입고 활을 가지고 사당으로부터 나와 사방으로 도적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도적들이 놀라 흩어졌다. 며칠 뒤에 다시 오니 큰 이무기가 길이는 3장(丈)이 넘고 눈빛이 번개 같았는데, 아홉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 묘(墓)는 건안(建安) 4년(199년)에 지어져 9백년을 지나도록 봉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았고 나무가 오래도록 우거졌다. 선조(宣祖)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그 무덤을 파헤쳐 구덩이[壙] 안에서 금과 옥을 거두었는데, 두[개]골(頭骨) 크기가 구리 그릇 만하였고, 관 바깥에는 두 미인(美人)이 있어서 안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구덩이 밖으로 내놓자 해를 보고 곧 사라졌다. 대개 당시에 순장(殉葬)된 사람일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에 초현대는 [금관]주의 동쪽에 있는데 세속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이 이 대에 올라 칠점산 참시선인을 초대하니 참시가 배를 타고 왔기에 이름이 되었다 하였다.

사료3 **『김해부읍지』 | 『金海府邑誌』**

【建置沿革】本首露王駕洛國. 至仇亥王 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國除改號金官郡. 文武王改置金官小京.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수로왕(首露王)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法興王)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였으며, 나라를 없애고 이름을 금관군(金官郡)으로 고쳤다. 문무왕(文武王)이 고쳐서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郡名】駕洛 伽倻 金海 金官 臨海 金寧 盆城.

【군명(郡名)】가락, 가야, 김해, 금관, 임해, 금녕, 분성.

【風俗】每年冬至 一鄕父老皆會 以是日 祭首露王 · 許后于陵 所飮餕于老堂 堂上揭正風俗節目 遵講料褒 歲以爲常. 今毁其堂 節目亦廢.〈事在濯纓金馹孫 會老堂記 見下〉

【풍속(風俗)】 매년 동지(冬至)에 온 마을의 부로(父老)들이 모두 모인다. 이날 수로왕(首露王)과 허왕후(許王后)를 능 있는 곳에서 제사 지내고 회로당(會老堂)에서 마시고 먹으며, [회로]당 위에는 정풍속절목(正風俗節目)을 걸고 살피고 포상하도록 강론하기를 해마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이 무너졌고, 절목(節目)도 역시 폐지되었다〈이 일은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회로당기(會老堂記)」에 실려 있다. 아래를 보라〉

【陵寢】納陵〈在府西郭外. 漢獻帝建安四年 首露王崩 壽百五十八. 葬于此 號納陵 有祭閣齋室. 冬至日鄕人祭之. 有守陵軍祭田. 英廟朝丙寅 命環二陵 四方百步立石爲表 而封植之. 戊戌 陵自陷 啓請改封. 甲午 命府使 改封植而祭之. 當宁庚子 致祭改竪碑. 羅季 將軍忠至鎭金官城 有英規者 奪陵亨陵 閣樑摧墮英規頂 遂斃. 忠至懼 畵王之眞安於屋壁 朝夕以祀之. 及三日 影像流血淚 貯於地幾一斗. 後群盜欲發塚 有猛士被甲 從陵中出 射之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如電 自陵傍 咬殺九人 賊驚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減陵田之半 屬于民 其夕夢 神人七人操劒而至曰爾有大憝 欲斬之耳. 文善驚覺得疾 宵遁死于道傍. 壬辰倭賊發王陵 壙中甚闊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亦甚偉 傍有二女 貌如生年可二十 出壙中卽消 盖殉葬者也.〉 許后陵〈南距二里 在龜旨峰東. 東漢靈帝中平六年三月 薨壽一百五十七 冬至 配享王陵〉

【능침(陵寢)】 납릉(納陵)〈부의 서쪽 성곽 밖에 있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 수로왕이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8세였다. 여기에 장사지내고 이름을 납릉이라 하였다. 제각(祭閣)과 재실(齋室)이 있었다. 동짓날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수릉군(守陵軍)과 제전(祭田)이 있다. 영조[英廟] 병인년(1746년)에 명하여 두 릉[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을 둘러 사방 100보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흙을 북돋고 떼를 심었다. 무술년(1778년, 정조 2년)에 능이 절로 허물어졌으므로 계(啓)를 올려 다시 쌓기를 청하였다.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에 부사(府使)에게 명하여 다시 흙을 북돋아 떼를 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지금 임금[헌종] 경자년(1840년)에 제사를 바치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능의 제물을 빼앗았더니, 능각(陵閣)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 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 7~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임진년(1592년)에 왜적(倭賊)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 하며 손 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허후릉(許后陵)〈남쪽으로 2리 떨어진 구지봉(龜旨峰) 동쪽에 있다. [허왕후는] 동한(東漢) 영제 중평 6년(189년) 3월에 돌아갔는데, 나이가 157세였다. 동지에 왕릉에 배향한다〉

【寺刹】臨江寺〈許后自天竺來 泊于此 王設幔殿迎之. 王八代孫銍知王建寺 故名曰王后寺. 今名臨江寺〉

【사찰(寺刹)】 임강사(臨江寺)〈허후(許后)가 천축(大竺)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정박하니 왕이 만전(幔殿)을 설치하고 맞이하였다. 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절을 짓고 그런 이유로 왕후사(王后寺)라 이름하였다. 지금[조선]은 임강사라 부른다〉

【古蹟】東漢 建武十八年 三月 駕洛九干〈卽我刀 · 汝刀 · 彼刀 · 五 · 留水 · 留天 · 神天 · 五天 · 神鬼〉等 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有紫纓繫金盒而下. 開視之 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干之家.翌日 九干咸集又開視之 六卵剖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 身長九尺. 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史稱首露名也.因爲國號〉 以生于金盒 因姓金氏 國號駕洛 或稱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 餘五人分爲五伽倻.〈大伽倻卽高靈 小伽倻固城 碧珍伽倻星州 阿那伽倻咸安 高靈伽倻咸昌也〉 封疆 東至黃山江 西南際海 西至智異山 北至伽倻山爲界 限以洛江. 東漢獻帝建安四年薨 壽百五十八. 葬西郭外納陵. 傳十世〈首露 · 居登 · 麻

品 · 居叱彌 · 伊尸品 · 坐知 · 吹希 · 銍知 · 鉗知 · 九亥〉 至梁大統四年 降新羅法興王 歷年四百九十一年. 國除爲郡. 王之治淳厖 邦人追思報德 至今冬至日 祀用太牢以后配享.〈事見陵寢〉 王妣許氏 世傳 阿踰陀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 號普州太后. 漢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立爲后. 漢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峯之東 距王陵二里 有子十人. 后自以客於東土 悲無傳姓 王甚憾 錫二子以后姓 東方之許本此. 婆娑塔〈許后自天竺來時 舟中所載 以鎭風濤. 其色赤斑 其質脆樸 雕鏤有理 層樣猶存. 今在城中虎溪上〉 望山島〈許后渡海來時 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命神鬼干望於乘岘 緋帆茜旗 自海西南隅而來 維舟處曰主浦 解綾袴 贄干山靈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招賢坮〈賢一作仙.在府東匕里大野中小石山前 臨七点三义. 駕洛居登王 招昷始仙人於此坮 仙人必乘舟抱琴而來 而來遊 王所坐曰蓮花塔 坮西立石 有大人像 亦有巨府跡〉 瞻星坮〈在府西三十里.世傳駕洛封太子 爲進禮城主 有土城瞻望坮 遺址在焉〉 駕洛宮虛〈遺址在今西郭外. 徐居正詩 金陵往事與論 千古猶存首露墳 龜旨曲亡人已遠 伽倻琴在妙堪聞 銅馳古里山如戟 翁仲山河樹似雲 百六十年能享國 可憐荒壠幾斜曛 郭興詩 伽倻國業連江草 首露王孫作郡民〉 土城〈世傳 首露王蒸 土築之 號曰盆城 今存體勢〉

【고적(古蹟)】 동한(東漢) 건무 18년(42년) 3월에 가락의 9간(九干)〈즉 아도(我刀), 여도(汝刀), 피도(彼刀), 오도(五刀), 유수(留水), 유천(留天), 신천(神天), 오천(五天), 신귀(神鬼)이다〉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하다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내려왔다. [상자를]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금색 알을] 받들어 아도간의 집에 두고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서 보니 여섯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하례 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아홉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었다.〈사서에서 수로를 이름이라 하였는데, 그대로 국호를 삼았다〉 금빛 상자[金盒]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는 가락(駕洛)이라 하고, 혹은 가야(伽倻)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나뉘어. 5가야가 되었다.〈대가야(大伽倻)는 지금[조선] 고령(高靈), 소가야(小伽倻)는 지금[조선] 고성(固城), 벽진가야(碧珍伽倻)는 성주(星州), 아나가야(阿那伽倻)는 함안(咸安), 고녕가야(古靈伽倻)는 함창(咸昌)이다〉영토[封疆]는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서남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었으며, 서쪽은 지리산(智異山)에 이르고, 북쪽은 가야산(伽倻山)을 경계로 삼아 낙강(洛江)까지 미쳤다. 동한(東漢) 헌제 건안 4년(199년)에 죽으니[薨] 나이가 158세였다. 서쪽 교외에 장사지내고 능을 들였다. 10세를 전하여〈수로(首露), 거등(居登), 마품(麻品), 거질미(居叱彌), 이시품(伊尸品), 좌지(坐知), 취희(吹希), 질지(銍知), 겸지(鉗知), 구해(仇亥)〉양(梁) 대통(大統) 4년에 신라 법흥왕(法興王)에게 항복하였으니, 역년(歷年) 491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군(郡)으로 되었다. [수로]왕의 정치는 순박하고 넉넉하여 고장 사람들이 덕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여 지금[조선]까지 동짓날에 소를 써서 제사지내고 있다. 왕후를 배향하였는데,〈이 일은 능침(陵寢) 조를 보라〉 왕비 허씨는 세상에 전하기를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왕녀(王女)라고도 하고, 혹은 남천축국(南天竺國)왕녀 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한(漢) 건무 24년, 수로왕 7년(48년)세워져 왕후가 되었다. 한(漢) 영제 중평 6년(189년) 3월에 돌아가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龜旨峯) 동쪽에 장사지냈는데, 왕릉에서 2리 떨어져 있다. 아들이 10명 있었다. 허왕후는 객으로서 동토(東土)에 와서 성(姓)을 전할 수 없음을 슬퍼하였다. 왕이 매우 근심하여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東方]의 허씨(許氏)는 여기서 기원하였다. 파사탑(婆娑塔)〈허후(許后)가 천축(天竺)으로부터 올 때 배에 싣고 있던 것으로 바람과 파도를 진정시켰다.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무르고(其質脆樸) 조각해 새긴 것이 바르다. 층의 모양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조선] 성 안 호계(虎溪)위에 있다〉. 망산도〈허후(許后)가 바다를 건너 올 때 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望山島)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현(乘岘)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깃발이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왔는데, 배를 매었던 곳을 주포(主浦)라고 하고, [허왕후가]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산신령에게 바쳤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깃발이 [바다로] 들

어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한다〉. 초현대(招賢枱)〈현(賢)은 선(仙)으로 쓰기도 한다. 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큰 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산으로, 칠점산(七点山)의 세 갈래 길 앞에 임해 있다. 가락(駕洛)의 거등왕(居登王)이 참시선인(旵始仙人)을 이 대(枱)에 부르면 선인이 반드시 배를 타고 거문고[琴]를 안고 와서 놀았다. 왕이 앉았던 곳을 연화탑(蓮花塔)이라 하고, 대 서쪽의 입석(立石)에 대인(大人)의 상(像)이 있으며, 또한 거인(巨人)의 흔적이 있다〉 첨성대(瞻星抬)〈부의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駕洛)이 태자를 봉하여 진례성주(進禮城主)를 삼았는데, 흙으로 쌓은 첨망대(瞻望培)가 있었다. 옛 터가 남아 있다〉 가락궁터[駕洛宮墟]〈옛 터가 지금[조선] 서곽(西郭) 밖에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금릉(金陵) 지난 일을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리, 천고(千古)에 오직 수로왕의 봉분이 남아 있네. 구지곡(龜旨曲)은 없어져 사람이 볼 수 없으나, 가야금(伽倻琴)이 있어서 신묘한 소리를 들을 만하네. 동타(銅駝) 옛 마을에 산이 창[戟] 같고, 옹중(翁仲) 빈터에 나무가 구름 같다. 160년 동안 나라를 누렸으나, 가련하다. 거친 무덤에 몇 번이나 저녁 해 비꼈던가."라 불렀다. 곽여(郭輿)의 시에 "가야국(伽倻國)의 왕업(王業)이 강의 풀처럼 연이어,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이 군민(郡民)이 되었네."라 불렀다〉 토성(土城)〈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흙을 쪄서 쌓고 분성(盆城)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조선] 대체적인 형체가 남아 있다〉

사료4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고15 관방3 성곽3 |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城郭三**

慶尙道 金海 [補]舊土城〈邑誌周八千六百八十三尺〉 俗傳首露王開國初 蒸土隔築 仍號盆城 今幾頹落.

경상도 김해(金海)[보(補)] 옛 토성(土城)〈읍지(邑誌)에 둘레가 8,683척이라고 한다〉 민간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개국 초기에 흙을 쪄서 쌓고는 분성(盆城)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사료5 **『영지요선』 하책 김해 | 『嶺誌要選』 下册 金海**

【沿革】本首露駕洛國. 後改今名. 一云 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寧, 盆城.

【연혁(沿革)】 본래 수로의 가락국(駕洛國)이다. 뒤에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가락(駕洛), 가야(伽倻), 금관(金官), 임해(臨海), 금녕(金寧), 분성(盆城)이라고도 한다.

【山川】龜旨峰〈北五里. 狀如龜伏 卽首露王降臨之處. 主浦 南西十里. 許后自天竺初到維舟處〉

【산천(山川)】 구지봉(龜旨山夆)〈북쪽 5리에 있다. 형상이 거북이가 엎드린 듯하니, 곧 수로왕이 강림한 곳이다〉 주포(主浦)〈남쪽 40리에 있다. 허왕후[許后]가 천축으로부터 처음 이르러 배를 댔던 곳이다〉

【古跡】首露王故事〈東漢建武八年三月 駕洛九干等 禊飮于水濱 望見龜旨城 有異氣就視之 有紫繩繫金盒而下. 開視之 金色六卵圓如日輪. 翼日六卵剖殼爲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歷十餘日 身長九尺. 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 史稱首露名也. 因爲國號. 以生于金盒 因姓金氏. 餘五人則爲五伽倻. 大伽倻高靈也. 小伽倻固城 碧珍伽倻星州也. 阿那伽倻咸安也. 古靈伽倻咸昌也. 傳卜世 至梁太統四年 降于新羅. 王妃 阿踰陁國王女 或云天竺國王女. 姓許名黃玉 號普州太后. 有子十人. 后自以爲客於東土 悲無傳世 王憐之 賜二子以后姓. 東方之許 本於此. 始后來時 舟中有所載以鎭風濤. 其色赤斑 其質脆樸 雕鏤有理 層樣猶存. 今留虎溪. 納陵 在四門外. 漢獻帝建元 四年 首露王入葬於此 至日鄕人祭之. 羅季 將軍忠至 鎭金官城 有英規者 奪陵閣 樑摧墮英規頂卽斃. 忠至懼 畵王之眞安於屋壁 朝夕以祀之 及三日 影像流血淚 貯於地幾一斗 懼而焚之. 後群盜欲發塚 有甲卒從陵中出射之 中殺八人. 復數日 盜復來 有蟒長三十餘丈 眼如電光 自陵傍 咬殺九人 盜不復來.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減陵田之半 屬于民 其夕夢 七紳人 操劒而至曰 爾有大慼 欲斬之. 文善得疾死. 壬辰倭賊發王陵 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亦 甚偉 傍有二女 容貌如生 年可二十 出陵中卽消 盖殉葬者也〉 招仙臺〈東七里. 篤洛居登王 招旵始仙人 抱琴來游. 基坐石曰蓮花坮. 西有立石 如臣人狀 又有臣人之跡〉 駕洛宮墟〈在西門〉 土城〈首露王蒸土築之. 號曰盆城〉

【고적(古跡)】 수로왕고사(首露王故事) 〈동한(東漢) 건무 8년 3월 가락의 9간(干)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며 음복을 하다가 구지성(龜旨城)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내려왔다. [상자를]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다음 날 그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 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십여 일만에 키가 아홉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이었다. 역사서에서는 수로가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국호(國號)가 되었다. 금빛 상자[金盒]에서 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5가야가 되었는데, 대가야가 고령이며, 소가야는 고성, 벽진가야는 성주, 아나가야는 함안, 고녕가야는 함창이다. 10세를 전하다가 양(梁) [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였다. 왕비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왕녀인데 혹은 천축국(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아들을 열 명 두었다. 왕후가 스스로 동토의 객이라고 여겨 전세(傳世)가 없음을 슬퍼하자 왕이 가엽게 생각하고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었다. 동방의 허씨가 여기에 본을 둔다. 시후(始后)가 [바다를 건너] 올 때 배 안에 실어서 풍랑을 누르던 것이 있었다.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 긴 것이 아름다운데 [그 탑의] 층 모습[層樣]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 호계(虎溪)에 있다〉. 납릉(納陵)〈서문 밖에 있다. 한(漢) 헌제 건원 4년 수로왕을 여기에 장사지내고 동짓날에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능각(陵閣)을 침탈하자 [능각의] 대들보가 꺾여 영규의 이마에 떨어져 즉사하였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왕의 진영을 그려 건물 벽에 안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니 사흘 만에 진영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바닥에 거의 한 말이나 괴었다. [충지가] 두려워서 [그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자 갑옷 입은 병사가 능 안에서 나와서 활을 쏘아 8명을 죽였다, 다시 며칠 뒤에 도적들이 다시 왔는데 길이 30여 장(丈)의 구렁이가 눈을 번갯불처럼 번쩍이며 능 옆으로부터 나와서 9명을 물어 죽였다. 도적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전(陵田)의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에 속하게 하려 하자 그 저녁 꿈에 일곱 명의 신인(神人)들이 칼을 들고 와서 말하기를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 목을 베어야겠다고 하였다. 문선이 병을 얻어 죽었다.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그 무덤을 파헤쳤는데 두골(頭骨) 크기가 구리 쟁반[銅盤] 만하였고, 팔 다리와 정강이뼈 또한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 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초선대(招仙臺)〈동쪽 7리에 있다.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부르면 [참시선인이] 금(琴)을 안고 와서 놀았는데, [그 때] 앉았던 돌을 연화대(蓮花坮)라고 한다. 대의 서쪽에 선 돌[立石]이 있는데 거인의 모습과 같으며 또 거인의 흔적이 있다〉. 가락궁허(駕洛宮墟)〈서문 밖에 있다〉 토성(土城)〈수로왕이 흙을 쪄서[蒸] 쌓았다. 분성(盆城)이라고 부른다〉

사료6 **『영남읍지』 제14책 김해읍지 | 『嶺南邑誌』 第十四册 金海邑誌**

【建置沿革】〈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 至仇亥王 凡十年 四百九十一年.仇亥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건치연혁(建置沿革)】〈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혹은 가야(伽倻)라고도 했는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으로부터 구해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세 491년이었다.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례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읍(邑)을 삼고 금관군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 [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郡名】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군명(郡名)】 가락, 가야, 금관, 임해, 금주, 금령, 분성.

【山川】龜旨峯〈後漢光武建武十八年三月 駕洛九干 干 城將也. 卽我刀·汝刀·彼刀·五·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而視之 有紫纓繫金盒而下. 開視 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干之家. 翌日九干咸會 又開 六卵剖殼爲六童子 年可十五 容貌甚偉 拜賀. 童子日就岐嶷 身長九尺. 衆遂奉一人爲王 卽首露王也 生于金盒之中 故因姓金氏 國號駕洛 乃新羅儒理王十八年. 餘五人歸爲五伽倻主 東以黄山, 西南以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爲境. 首露王在位百五十八年薨. 次居登 次痲品 次居叱彌 次伊尸品 次坐知 次吹希 次銍知 次鉗知 次仇亥 相繼爲王. 有國凡四百九十一年

【산천(山川)】구지봉(龜旨峯)〈부의 북쪽 3리에 있다. 후한(後漢) 광무 건무 18년(42년) 3 월 가락의 아홉 간〈간(干)은 성의 장수[城將]이다〉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오천(五天) · 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며 음복을 하다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천천히 내려왔다.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상자를] 받들어서 아도의 집에 두고 다음날 아홉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 보았더니 여섯 개의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 쯤 되었고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신장이 아홉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 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이었다. 금빛 상자에서 태어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야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기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主]이 되었다. [가야는] 동쪽은 황산강으로, 서남쪽은 바다로, 서북쪽은 지리산으로,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경계를 삼았다. 수로왕이 15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고[薨] 다음은 거등(居登), 다음은 마품(痲品), 다음은 거질미(居匕彌), 다음은 이시품(伊尸品), 다음은 좌지(坐知), 다음은 취희(吹希), 다음은 질지(銍知), 다음은 겸지(鉗知), 다음은 구해(仇亥)가 서로 이어 왕이 되었다. 나라가 있은 지가 모두 491년이었다.

【五伽倻】〈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 咸安爲阿羅伽倻 咸昌爲古寧伽倻〉

【오가야(五伽倻)】〈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이 아라가야(阿羅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倻)가 된다〉

【陵墓】納陵〈在府西郭外. 漢獻帝建安四年 首露王薨 壽百五十八 葬于此 號納陵 有祭閣齋室. 冬至日鄕人祭之 有守陵軍祭田. 世宗丙寅 命環二陵 四方百步立石爲表 而封植之. 戊戌 陵自陷 啓請改封. 甲午 命府使 改封植而祭之. 正宗丙子 致祭改竪碑. 羅季 將軍忠至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於將軍 奪廟饗而致告 祠堂 梁折墮於英規頂 途斃焉. 忠至懼 畵王眞安於屋壁 朝夕以祀 三日 影流血淚 貯於地幾一斗. 忠至懼而焚之. 後有群盜有陵中必藏金銀寶器 盜驚走.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皆僵仆而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以陵田減其半 屬于民 其夕夢神人七八 操劒而至云 爾有大憝 故欲斬耳. 文善驚覺得疾 宵遁死于道傍. 高麗文宗時有知州事撰陵銘曰 摜陵名〉

【능묘(陵墓)】납릉(納陵)〈부의 서쪽 성곽 밖에 있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 수로왕이 죽었는데[薨] 나이가 158세였다. 여기에 장사지내고 납릉이라 하였다. 제각(祭閣)과 재실(齋室)이 있고, 동짓날에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수릉군(守陵軍)과 제전(祭田)이 있다. 세종(世宗) 병인년에 명하여 두릉[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을 둘러 사방 100보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흙을 북돋아 떼를 심었다. 무술년(1778년, 정조 2년)에 능이 절로 허물어졌으므로 계(啓)를 올려 다시 쌓기를 청하였다.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에 부사(府使)에게 명하여 다시 흙을 북돋아 떼를 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정종(正宗) 경자년(1840년)에 제사를 바치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빌어 묘향(廟嚮)을 빼앗고 말로만 고하였더니, 사당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

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 떼가 능 가운데 틀림없이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모두 놀라 나자빠지면서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 7~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임진년(1592년)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하며 손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다. 고려 문종 때 지주사(知州事)가 있어 그 성명은 잊어버렸는데, 능명(陵銘)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해와 달[利眼]이 비로소 밝았다. 사람의 무리는 비록 태어났으나, 임금 자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중국 왕조는 여러 대가 거듭되고, 우리나라는 서울을 나누었다. 계림(雞林)이 먼저 정해졌고, 가락(駕洛)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제대로 저울질하여 다스릴 이 없으니, 누가 백성을 다스리리. 이에 하늘이 저 창생을 돌보시어 부명(符命)을 내리시고 특별히 정령(精靈)을 보내셨다. 산중에 알을 내렸으나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추었다. 안은 더욱 막막하고, 겉도 또한 어두웠다. 바라보아도 형상이 없으나, 들어보면 소리가 들렸다. 무리가 노래하며 연주하고, 춤추며 부탁하였다. 이레가 지나니 일시에 모두 조용해졌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며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여섯 개의 둥근 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 가닥 자줏빛 끈이 드리워졌다. 먼 지방 딴 지역에 집들이 나란히 잇닿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섰고 국같이 들끓었다. 다섯 사람은 각각 자기 고을로 돌아가고 한사람만이 이 성에 남았다. 같은 때, 같은 자취가 마치 아우 같고 형 같았다. 진실로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낳았고,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보위(寶位)에 처음 오르니 다스리는 지역이 청명하였다. 화려하게 지으면서도 옛 것을 따르니, 흙섬돌이 바르게 되었다. 큰 정무에 비로소 힘쓰니 일반 정사도 시행되었다. 치우침이 없고 파당을 짓지 않으며 오직 하나같고 오직 정성스러웠다. 길가는 사람들이 길을 서로 양보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밭 갈기를 사양하였다. 사방이 베개를 높이 베고 만백성이 화평하였다. 잠깐 동안에 해로(薤露)가 마르니 춘령(椿齡)을 보전할 수 없었다. 천지가 기색을 잃고 조야(朝野)가 마음 아파하였다. 그 자취는 금의 모습이었고, 그 목소리는 옥 부딪치는 소리였다. 후손은 끊어지지 않아서 바치는 제물이 늘 향기롭다. 세월이 비록 흘렀어도 의식은 기울지 않았다."

崇禎丙戌 觀察使許曄積 加土竪碑. 錄運 王姓金氏 漢光武建武十八年 始建國 號駕洛 薨於獻帝建安四年 壽百五十八 納納陵 首露史稱王名 因以爲王號云. 梁大統四年國亡 傳世九 歷年四百九十一年 王有子十人 感后言 賜后姓者二 以后配焉. 逮皇明庚辰 後之孫許曄爲方伯 修墓備床砌. 壬辰倭寇掘發 鄕人改封之. 後庚辰六十七年 積以遺紹而忝按道 惟月若日 工告訖功 寔丁亥仲春也. 床若砌皆新焉 而安于尊所者 卽前日陳牲石也. 同宗幼學穆 省峴察訪崙 進士嵰 新寧縣監坵幹其事. 噫. 煌煌功德 浹民骨入人耳深 一片石不足爲輕重 在子孫報本之誠 又安得不爾. 后孫 觀察使許積 識. 己卯春 許侯梓齊室四門謹廚舍四間營建 除一吏以爲典守〉

숭정(崇禎)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의 성은 김씨로, 한(漢) 광무 건무 18년(42년)에 태어나 처음 나라를 세우고 호를 가락이라고 하였다. 헌제 건안 4년(199년)에 죽으니[薨] 나이가 158세였으며 납릉(納陵)에 장사지냈다. 수로는 사서에 이르기를 왕의 이름[王名]인데, 그대로 왕호(王號)를 삼았다고 한다. 양(梁) [중]대통 4년(532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9세를 전하여 역년이 491년이다. 왕은 아들을 열 명 두었는데 왕후의 말에 감동하여 왕후의 성을 내려준 사람이 두 명 이었다. 동방의 허씨는 여기에 본원(本原)을 두었다. 왕의 다스림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다.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왕의] 덕에 보답하였으니 지금 동지에 이르러 대뢰(大牢)를 써서 제사를 지내고 왕후를 짝

하게 하였다. 장사를 지낸 후 천여 년이 지나 황명(皇明) 만력(萬曆) 경진년(1580년, 선조 13년)에 이르러 후손 허엽(許曄)이 방백(方伯)이 되어 묘를 수리하고 상석(床石)과 섬 돌을 마련하였다. 임진 왜구가 파헤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만들었다. 경진년에서 67년 후인 병술년(1646년, 인조 24년)에 이르러 적(積)이 후손으로서 황송하게도 [경상]도를 어루만지게 되어 또한 봉분을 더하고 묘 앞에 비를 세웠다.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여 끝낸 때가 실로 정해년(1647년, 인조 25년) 중춘(仲春)이었다. 상과 섬돌 역시 모두 새롭게 하였으며, 술단지[樽] 놓는 곳에 둔 것은 곧 전날의 희생을 진설하는 돌[陳牲石]이었다. 같은 종씨 유학(幼學) 목(穆), 성현찰방(省峴察訪) 윤(崙), 진사(進士) 겸(嵰), 신령현감(新寧縣監) 구(坵)가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 아, 빛나는 공덕이 뼈에 사무쳐 백성들의 귀에 깊이 들어갔으니 한 조각돌로 경중을 따지기에 부족하다. [빛나는 공덕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이 근본에 보답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으니 또한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손 관찰사 허적이 삼가 짓다. 기묘년 봄에 후(侯) 허재(許梓)가 재실(齋室) 4문과 주사(廚舍) 4칸을 짓고 아전 한 명을 임명하여 전수(典守)로 삼았다〉

許王后陵.〈在龜旨峰東. 世傳 王妣阿踰國陁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 號普州太后.邑人祭王陵時其祀.崇禎丙戌 觀察許積 加土竪碑. 銘曰 太后姓許氏也.載籍不詳 無所徵. 漢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立爲后 號普州太后 媲德匹休 克贊內化. 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峯東 去王陵二里餘. 有子十人 自以客於東土悲無傳姓爲言. 王甚慽 錫二子以后姓 我國之許 本於此. 修墓立石顚末 在王陵表 與王陵同立. 祭王陵祝文 王函自天 金卵墮地 定錫伽倻 傳祚十二 一區民物 莫非雲仍 歲具香火 瞻拜遺陵 盆山峯峯 洛水洋洋 惟王化澤 山水共長 沒世何忘 千秋萬代 願言來格 王妃與配.

허왕후릉.〈구지봉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비는 아유타국(阿踰施國)의 왕녀(王女)라고 하고, 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읍 사람들이 왕릉에 제사할 때 함께 제사를 지냈다. 숭정(崇禎)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태후의 성은 허씨인 데, 재적(載籍)이 분명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한(漢) 건무 24년(48년) 수로왕 7년에 왕후가 되었으며 호를 보주태후라고 하였다. 배필의 덕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수로왕을] 도와 안으로 교화를 펼 수 있었다. 영제 중평 6년(186년) 3월에 돌아가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의 동쪽에 장사지냈으니 왕릉과 2리 정도 떨어져 있다. 아들 열 명을 두었는데 스스로 동토의 객으로서 성씨를 전해줄 수 없음을 비통하게 여겨 말을 삼았더니 왕이 매우 슬퍼하고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었다. 우리나라의 허씨는 여기에 근본을 둔다. 묘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이 일의] 전말은 왕릉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 왕릉과 같이 세웠다고 하였다. 제왕릉축문(祭王陵祝文)은 다음과 같다. "옥함(玉函)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정하여 내려 준 가야이며, [하늘에서] 전하여 준 복이 열둘이니, 한 치 땅의 백성과 만물이 구름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향화를 갖추어 남겨진 능에 우러러 절을 하니 분산(盆山)은 높고 높으며, 낙수(洛水)는 잘도 흐릅니다. 왕의 교화와 은택으로 산수가 모두 좋아졌으니 영원토록 잊겠습니까, 천추만대까지 가리니, 왕림하시길 청하며 왕비와 더불어 배향합니다."

壬辰之亂 倭賊撥王陵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 亦甚偉 柩傍有二女 面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 旋卽消滅 盖殉葬者也. 事見芝峯類說〉 新增〈陵享每年行於冬至日矣.壬子 登聞自朝朝家 降香祀行於春秋仲月〉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의 난에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만하며 손, 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널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사라져 없어졌는데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이 일은 『지봉유설』에 보인다〉 [신증(新增)]〈능향(陵享)이 매년 동짓날에 행해진다. 임자년에 [능에 대한 내용이 조정에] 올라가 들렸고 조정으로부터 향화가 내려와 봄과 가을 가운데 달에 제사를 행한다〉

【古蹟】首露王宮遺址〈在今府內. 諺傳古宮有址 在今古西門外 狐峴里 而東土階三等 時有瓊瑤得者云〉 望山島〈東漢建武二十四年七月 許王后 自阿踰陀國 渡海而至 首露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神鬼干望於乘峴 緋帆茜旗自海西南隅而指北 神鬼干馳走之. 王於宮西 設幔殿候之. 王后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着綾袴 贄于山靈. 及至 王迎入幔殿 越二日 同輦還闕 立以爲后. 至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 解綾袴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 猶存其名焉〉. 王后寺〈舊基在長有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招賢臺〈賢一作仙. 在府東七里 廣野中小石山也. 俗傳 駕洛國居登王 招七點山昆始仙人 昆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喜 因以爲名. 王所坐蓮花石與棊局 至今猶存. 臺西有大石 有大人形. 其下石 有巨人跡〉. 婆娑石塔〈在府城中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雕鏤甚奇. 世傳 許王后自西域來時 船中載此塔 以鎭風濤〉

【고적(古蹟)】 수로왕궁유지(首露王宮遺址)〈지금[조선] 부(府) 안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고궁 터가 지금[조선] 고서문(古西門) 밖 호현리(狐峴里)에 있었는데 흙으로 된 단이 3층이었으며, 당시 옥구슬을 얻은 자가 있었다고 한다〉 망산도(望山島)〈동한(東漢) 건무 24년(48년) 7월 허왕후(許王后)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왔다.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현(乘峴)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신귀(神鬼)가 달려와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궁 서쪽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왕후가 배를 받치고 육지에 올라 높은 산에서 쉬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쳤다. [왕후가] 도착하자 왕이 맞아들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이틀이 지나서 같은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와 왕후로 삼았다. 영제 중평 6년(189년) 기사 3월에 이르러 왕후가 죽었는데[崩], 나이가 157세였다. 국인(國人)들이 [왕후가] 처음 와서 배를 바쳤던 곳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 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로 들어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불렀다. [망산도는] 주포(主浦)의 왼쪽에 있으며, 지금[조선]까지 그 이름이 전해 온다〉. 왕후사(王后寺)〈옛 터가 장유산(長遊山)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혼인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王后寺)라 이름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莊)으로 삼았다〉. 초현대(招賢臺)〈현(賢)은 선(仙)으로 쓰기도 한다.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큰 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산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昆始仙人)을 부르면 참시가 배를 타고 고[琴]를 안고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는데, 이로 인하여 [초현(招賢)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을 두었던 들이 지금[조선]도 남아 있다. 대 서쪽에 있는 큰 돌에 대인(大人)의 상(像)이 있으며, 아래의 들에 거인(巨人)의 흔적이 있다〉. 파사석탑(婆娑石塔)〈호계(虎溪) 변에 있다. 모두 5층으로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긴 것이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허왕후가 서역으로부터 올 때 배 안에 이 탑을 싣고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人物】 新羅 金武力〈首露王十世孫 爲新州道摠管.嘗領兵獲百濟王〉

【인물(人物)】 신라 김무력(金武力)〈수로왕의 11세손으로 신주도총관(新州道摠管)이었다. 일찍이 병사를 이끌고 백제왕을 잡았다〉

【題詠】首露王兩陵加土祭文 觀察使許積〈粤若建武 國于駕洛 窈窕作配 內治肅肅 分父母姓 以傳不億 餘慶滾滾 冠冕赫赫 吵余小子 適忝方伯 何幸諸孫 列守郡驛 佳城千載 草樹蕪沒 時不可失 禮宜封植 玆遣兩員 日月涓吉 加以新莎 表立片石.[后陵]德植宜降 化洽內理 心存繼絶 傳姓二子 千年百代 冠冕煥赫 默佑所致 餘慶之及 眇余小子 適忝方面 況此諸孫 列守郵縣 瞻適彼龜旨 墓道崩圻 夺命郡邑 各就功役 仍遣兩員 代行告辭 加以新莎 表立短碑. 大明嘉靖 丁酉 原州元栢壽星山金璟宋昌孫岩 以此十九字 深刻於大罔麗之北大石上.今幾數百年 字畫宛然 是亦古迹也〉 新增〈宋昌後孫 逋代題名〉

【제영(題詠)】 수로왕양릉가토제문(首露王兩陵加土祭文) 관찰사 허적(許積)이 〈"아, 건무 때 가락에 나라를 세우시고 정숙한 배필을 맞아 내치를 엄숙히 하시었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성을 나누어 전하게 하신 [공덕을] 헤아릴 길 없습니다. 경사가 많고 많으며 관면(冠冕)은 빛나고 빛났습니다. 우매한 소자가 황송하게도 방백이 되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자손들이 군역(郡驛)을 줄지어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성이 천 년이 되어 수목이 무성하여 성이 묻혔으니 때를 잃을 수 없는지라 예로 마땅히 흙을 북돋고 나무를 심고 이 두 사람을 보내어 길일을 택하여 새 향부자를 더하여 돌조각을 세워 표합니다."라 읊었다. 후릉[后陵]에 대해서는 "덕으로 반려자가 되어 다스리려고 내려오셔서 교화로 화합하게 하고 안으로 이치에 맞게 다스렸습니다. 후손이 없을까 걱정하시어 두 아들에게 성을 전하시니 천년 백대에 관면(冠冕)이 빛나고 빛났습니다. 조용히 [수로왕을] 도우시어 이루신 바에 나머지 경사가 미쳤습니다. 우매한 소자가 황송하게도 방백이 되었고 하물며 이 여러 자손들이 줄지어 우현(郵縣)을 지킵니다. 저 구지봉을 우러러보니 묘도(墓道)가 무너져 있어 나누어 군읍에 명하여 각각 공역을 가게 하였습니다. 인하여 두 사람을 보내어 고사(告辭)를 대신 행하게 하니 새 향부자를 더하여 짧은 비를 세워 표합니다." 대명(大明) 가정 정유년(1537년) 원주(原州) 원백수(元栢壽), 성산(星山) 김경(金璟), 송창(宋昌), 손암(孫嵒) 이 열 아홉 글자가 대망려(大罔麗)의 북쪽 큰 돌 위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까지 몇 백년이 지났지만 자획이 완연하니 이 또한 고적(古迹)이다〉 [신증(新增)]〈송창(宋昌)의 후손들이 잇달아 명(名)을 지었다〉

傳曰〈伽倻始祖 厥享國 一百五十有八年. 偉功靈蹟 至今爲東人之傳誦. 其宮基·陵地 在金海府.府之父老 建宇扁之曰 會老祭之曰 受胙肉飮福尊 以爲常.自朝廷劃祀田 置守丁立石以表界 禁民犯懇逮予嗣脈 遣官致侑 復竪龜頭 近來監護 不如式極目 蕪葉過封 前無不指 點咨嗟者 又奸民籍其地 所出蠶食之.其遺裔 具以事訴籲于輩路 申命有司治其民 續其賦.大抵 致敬於歷代陵廟 卽帝王之令典 而文化·平壤·月城之立監降香其議可就 而倣嗣後 春秋時享送香祝 邑倅尊獻監人貫於是鄕者 充之〉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傳曰] 〈가야 시조가 그 나라를 향유한 것이 158년이다. 큰 공덕과 영험한 흔적이 지금 [조선]에 이르러서도 동인(東人)이 전하여 칭송한다. 그 궁궐터[宮基]와 능지(陵地)가 김해부에 있다. 부(府)의 부로(父老)들이 건물을 짓고 편액을 회로(會老)라고 하였으며, 제사지내는 날에 제사지낸 고기를 먹고 음복하기를 상례로 하였다. 조정으로부터 사전(祀田)을 나누어 받고 수정(守丁)을 두었으며 돌을 세워 경계를 표시하여 백성들이 정성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후손들에 이르러 관리를 보내어 보답을 담당케 하였으며 다시 귀두(龜頭)를 세웠다. 근래의 감호(監護)가 극목(極目)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 같지 않아서 무성한 잎이 봉분을 넘어섰다. 전에 지적하지 않은 바가 없지만 [지금] 탄식하는 것은 또한 간악한 백성이 [능의] 땅을 문서로 만들어 소출을 잠식한 것이다. 남은 후손들이 갖추어서 일을 공손하게 하고 배로(輩路)에서 제사를 지내었으며[籲] 유사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부(賦)를 이었다. 대저 역대 능묘에 공경을 다함은 곧 제왕의 영전(令典)이니 문화(文化) 평양(平壤) 월성(月城)의 감(監)을 세우고 향(香)을 내려 보내는 그 논의에 버금갈 만 하였다. 후손에게 따르게 하여 봄가을 시제를 지낼 때 향축을 보내고 읍의 높은 사람[倅尊] 중에 헌감(獻監) 한 사람[을 뽑는데] 이 마을에 익숙한 자로 하여금 보충케 하였다〉

傳曰 〈駕洛國始祖之陵 春秋享祀事 率有定式. 依文化三聖祠·平壤崇靈殿·崇德殿例·以春秋仲 朔行祭 而祭議 令該曹 參考可倣之例 磨鍊下送. 監一人 亦依崇靈·崇德殿例 道臣差出 狀聞. 啓下今年 則春仲已過 遺承旨 寒食日告事由行祭 祭田及祭 閣修治等事 奉命承旨 一一詳問親審 還朝後以啓. 道臣鄭大容奉〉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傳曰]〈가락국 시조의 능에 봄가을로 제사지내는 일은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문화(文化)의 삼성사(三聖祠), 평양(平壤)의 숭령전(崇靈殿), 숭덕전(崇德殿)의 예에 의거하여 춘추 중삭(仲朔)에 제사를 행한다. 제의는 해당 조(曹)로 하여금 따를 수 있는 예를 참고하고 마련하여 내려 보냈다. 감(監) 한 사람 역시

숭령, 숭덕전의 예에 의거하여 도신(道臣)이 차출하여 계를 올려 보냈다. 계(啓)를 내리기를 올해는 춘중(春仲)이 이미 지났으니 승지를 보내어 한식일에 사유를 고하고 제사를 행하게 하라. 제전(祭田)과 제사[祭]와 각(閣)을 수치(修治)하는 등의 일은 봉명 승지가 일일이 자세히 물어 친히 살피고 조정에 돌아온 뒤에 계(啓)하라고 하였다. 도신(道臣) 정대용(鄭大容)이 받들다[奉]〉

【跋】昔孔子作春秋 褒善貶不善 而爲法於萬世. 後之正言直論者 皆以爲春秋筆法也. 我東列邑邑誌 亦此意也哉. 盖輿 地所以記山川風土人物 而有邑之不可闕者也. 余到官越五月 恭承朝命 與鄕之老少諸君子 續成新誌. 噫. 金陵 古首露氏都邑也. 川瀆之雄宜其鴻儒碩德 而矧乎南冥 · 濯纓兩先生 與起之薰陶之俾 是鄕貞忠孝烈 蔚乎相望 則別爲人物篇 有以也. 後之覽是誌者 周閱首露氏一千古臺榭樓觀之往迹山川風土之美. 而次考人物欽艶乎方寸之地 而思所以自勉 豈非是鄕之幸歟. 功訖 鄕之父老屬余文記 辭不獲 遂爲之書. 歲黑龍流火下浣 知府青松沈有祖 跋.
【발(跋)】옛날에 공자가 춘추를 지어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나무라서 만세에 법을 삼았다. 뒤의 정언(正言), 직론(直論)은 모두 춘추필법이다. 우리 동방[我東]의 열읍(列邑)의 읍지(邑誌) 또한 이 뜻이리라. 대개 『여지승람[輿地]』이 산천, 풍토, 인물을 기록하여 읍[읍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까닭이다. 내가 부임하여 다섯 달이 지나 조정의 명을 공손히 받들어 마을의 늙고 젊은 군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읍지를 이어 만들었다. 아, 금릉(金陵)은 옛 수로씨(首露氏)의 도읍이다. 천독(川瀆)의 영웅이 마땅히 홍유(鴻儒)와 석덕(碩德)이니 하물며 남명(南冥; 조식), 탁영(濯纓; 김일손) 두 선생이 더불어 일어나 덕으로 사람을 교화한 데에 있어서이랴. 이 마을의 정충효열(貞忠孝烈)이 많아서 서로 바라보니 [읍지의] 인물 편을 따로 만든 것은 까닭이 있다. 후대의 이 읍지를 열람하는 자는 수로씨(首露氏)의 천년 고대(古臺), 사루(榭樓), 볼만한 지난 흔적과 산천풍토의 아름다움을 두루 열람한 다음에 인물들이 방촌의 땅에 흠염(欽艶)함을 살피고 스스로 노력하는 바를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 마을의 복이 아니겠는가. [읍지를 만드는] 일을 마치고 마을의 부로(父老)들을 나의 문기(文記)에 넣고자 하였으나 사양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글로 썼다, 세(歲), 흑룡(黑龍), 유화(流火) 하완(下浣) 지부(知府) 청송(青松) 심유조(沈有祖) 발(跋)을 짓다.

【金海事蹟】本駕洛國 或稱伽椰 後改金官國. 漢光武建武十八年 駕洛 九干 干城將 禊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 就視之 紫纓繫金盒 自天而來. 盒中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家中. 翌日 九干咸集開視 六卵剖殼爲六童 歷十餘日 身長九尺. 其一人卽首露王也. 生于金盒 故因姓金氏. 餘五人各爲伽椰. 分封于高靈.固城·星州.咸安.咸昌. 建武二十四年 許王后 自阿踰陁國 渡海而至. 王命九干 望見緋帆茜旗 自海西而來 住纜于熊川主浦. 王於宮西 設幔殿迎入 立爲后. 或云阿踰陁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號普州太后. 有子十人 后自以客於東土 悲無傳姓. 王甚慽 錫二子以后姓 東方之許 始此. 漢獻帝建安四年 王薨壽百五十八 葬城西納陵. 靈帝中平六年 后薨 壽百五十七葬龜峯之東 距納陵二里. 自首露王 至仇亥王 傳世九 歷年四百九十一年. 仇亥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以其國爲邑 改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김해사적(金海事蹟)】본래 가락국으로 가야라고도 하였다.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한(漢) 광무 건무 18년(42년) 3월 가락 아홉 간〈간(干)은 성(城)의 장(將)수이다〉이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며 음복을 하다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상가 안에 금색 알이 여섯 개 있었는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상자를] 받들어서 집 안에 두었다가 다음날 아홉 간이 모두 모여 열어 보았더니 여섯 개의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다. 10여 일이 지나 신장이 아홉 자가 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이 곧 수로왕이다. 금빛 상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김씨라 하였다. 나머지 다섯 사람을 각기 가야로 삼아 고령, 고성, 성주, 함안, 함창에 나누어 봉하였다. 건무(建武) 24년(48년) 허왕후(許王后) 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왔다. [수로]왕이 아홉 간에게 명하여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기를 바라보게 하니 바다 서쪽으로부터 와서 웅천 주포(熊川主浦)에 배를 대었다. [그러자] 왕이 궁 서

쪽에 장막으로 궁전을 만들고 [허왕후를] 맞이하여 들어가 왕후로 삼았다. 아유타국의 왕녀라고도 하고 남천축국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아들을 열 명 두었는데 왕후가 스스로 동토의 객이라 성을 전해줄 수 없음을 슬프게 여겼다. 왕이 [이런 왕후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니 동방의 허씨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에 왕이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8세였다. 성 서쪽에 장사지냈다. 영제 중평 6년(189년)에 왕후가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龜旨峯] 동쪽에 장사지냈으니 납릉과 2리 떨어져있다, 수로왕으로부터 구해왕에 이르기까지 9세를 전하여 역년이 491년이다.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례(客禮)로 대우하고 그 나라를 읍으로 삼아 금관군으로 고쳤다. 문무왕이 금관소경을 두었다.

사료7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甲辰〉〈新羅儒理王二十年 高句麗大武神王二十六年 百濟多婁王十六年 東漢光武帝建武二十年〉春二月 駕洛築都城 營宮室.

〈갑진〉〈신라 유리왕 20년, 고구려 대무신왕 28년, 백제 다루왕 16년, 동한(東漢) 광무 건무 20년(44년)〉 봄 2월에 가락이 도성(都城)을 쌓고 궁궐을 만들었다.

사료8 **『김해읍지』 | 『金海邑誌』**

【建置沿革】〈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 至仇亥王 凡十年 四百九十一年. 仇亥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건치연혁(建置沿革)】〈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 혹은 가야(伽倻)라고도 했는데,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으로부터 구해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세 491년이었다.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례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읍(邑)을 삼고 금관군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郡名】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군명(郡名)】 가락, 가야, 금관, 임해, 금주, 금녕, 분성.

【山川】龜旨峯〈在府北三里. 後漢光武建武十八年三月 駕洛九干〈干 城將也〉〉 我刀·汝刀·彼刀·五刀·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 稧飮于水濱 望見龜旨峯 有異氣就而視之 有紫纓繫金盒而漸下. 開視 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 九人咸會又開視 六卵剖殼爲六童子 年可十五歲 容貌甚偉 拜賀. 童子日就岐嶷 身長九尺. 衆遂奉一人爲王 卽首露王也. 生于金盒之中 故因姓金氏 國號伽倻 乃新羅儒理王十八年也. 餘五人各歸爲五伽倻之主. 東黃山江. 西南以海 西北以智異山 東北以伽倻爲境. 首露王在位一百五十八年薨. 次居登 次痲品 次居叱彌 次伊尸品 次坐之 次吹希次銍知 次鉗知 次仇亥 相繼爲王. 有國凡四百九十一年〉 五伽倻〈高靈爲大伽倻 固城爲小伽倻 星州爲碧珍伽倻 咸安爲阿羅伽倻 咸昌爲古寧伽倻〉

【산천(山川)】 구지봉(龜旨峯)〈부의 북쪽 3리에 있다. 후한(後漢) 광무 건무 18년(42년) 3월 가락의 아홉 간〈간(干)은 성장(城將)이다〉 아도(我刀) · 여도(汝刀) · 피도(彼刀) · 오도(五刀) · 유수(留水) · 유천(留天) · 신천(神天) · 오천(五天) · 신귀(神鬼) 등이 물가에서 계제(稧祭)를 지내며 음복을 하다 가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자줏빛 끈이 금빛 상자[金盒]를 매달고 천천히 내려왔다. 열어서 보니 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상자를] 받들어서 아도의 집에 두고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다시 열어 보았더니 여섯 개의 알이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 쯤 되었고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나서 신장이 아홉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마침

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이었다. 금빛 상자에서 태어났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야라 하였으니, 신라 유리왕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기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主]이 되었다. [가야는] 동쪽은 황산강으로,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경계를 삼았다. 수로왕이 15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돌아가고[薨] 다음은 거등(居登), 다음은 마품(麻品), 다음은 거질미(居叱彌), 다음은 이시품(伊尸品), 다음은 좌지(坐知), 다음은 취희(吹希), 다음은 질지(銍知), 다음은 겸지(鉗知), 다음은 구해(仇亥)가 서로 이어 왕이 되었다. 나라가 있은 지가 모두 491년이었다〉 5가야〈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加倻)가 되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이 아라가야(阿羅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이 고녕가야(古寧伽倻)가 된다〉

【陵墓】納陵〈在府西郭外. 漢獻帝建安四年 首露王崩 壽百五十八 葬于此 號納陵 有祭閣齋室. 冬至日鄕人祭田. 世宗丙寅 命環二陵 四方百步立石爲表 而封植之. 戊戌陵自陷 啓請改封. 甲午命府使 封植而祭之. 正宗庚子 致祭而改竪碑. 羅季 將軍忠至 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於將軍 奪廟禴而致告 祠堂梁折 墮英規頂 遂斃焉. 忠至懼 畵王眞安於室壁 朝夕以祀. 三日影流血淚 而貯於地幾一斗. 忠至懼而焚之. 後有群盜 謂陵中必藏金銀寶器 欲發塚 有猛士被甲 從陵中出射之 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皆僵仆而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以陵田 減其半 屬于民. 其夕夢 神人七八 操劒而至云 耳有大慜. 故欲斬耳. 文善驚覺得疾宵遁死于道傍. 高麗文宗時 有知州使 失其姓名 撰陵銘曰元胎肇啓 利眼初命 人倫雖誕 君位未成 中朝累世 東國分京 鷄林先定 駕洛後營 自無銓宰 誰察民氓 遂玆玄造 顧彼蒼生 用授符命 特遣精靈 山中降卵 霧裏藏形 內猶漠漠 外亦冥 望如無象 聞乃有聲 群歌而奏 衆舞而呈 七日冥而後 一時所丁 風吹雲卷 碧空天青 下六圓卵 垂一紫纓 殊方異土 比屋連甍 觀者如堵 覩者如羹 五雲五色 一在玆城 同時同迹 如弟如兄 實天生德 爲世作程 寶位初陟 寰區淸華 構微古土 階尙平萬 欲機始勉 庶政施行 無偏無黨 惟一惟精 行者讓路 農者讓耕 四方尊枕 萬姓迓衡 俄晞薤露 靡保春齡 乾坤變氣 朝野痛情 金相其躅 玉振其聲 來苗不絶 薦藻惟香 日月雖遠 規儀不傾.

【능묘(陵墓)】 납릉(納陵)〈부의 서쪽 성곽 밖에 있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 수로왕이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8세였다. 여기에 장사지내고 납릉이라 하였다. 제각(祭閣)과 재실(齋室)이 있고, 동짓날에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수릉군(守陵軍)과 제전(祭田)이 있다. 세종(世宗) 병인년에 명하여 두릉[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을 둘러 사방 100보(步)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흙을 북돋아 떼를 심었다. 무술년(1778년, 정조 2년)에 능이 절로 허물어졌으므로 계(啓)를 올려 다시 쌓기를 청하였다.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에 부사(府使)에게 명하여 다시 흙을 북돋아 떼를 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정종(正宗) 경자년(1840년)에 제사를 바치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빌어 묘향(廟禴)을 빼앗고 말로만 고하였더니, 사당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 떼가 능 가운데 틀림없이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 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모두 놀라 나자빠지면서 달아났다. 순화(淳化)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 7~8명이 칼을 들고 와서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임진년(1592년)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하며 손발과 정강이 뼈가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다. 고려 문종 때 지주사(知州事)가 있어 그 성명은

잊어버렸는데, 능명(陵銘)을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해와 달[利眼]이 비로소 밝았다. 사람의 무리는 비록 태어났으나, 임금자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중국 왕조는 여러 대가 거듭되고, 우리나라는 서울을 나누었다. 계림(雞林)이 먼저 정해졌고, 가락(駕洛)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제대로 저울질하여 다스릴 이 없으니, 누가 백성을 다스리리. 이에 하늘이 저 창생을 돌보시어 부명(符命)을 내리시고 특별히 정령(精靈)을 보내셨다. 산중에 알을 내렸으나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추었다. 안은 더욱 막막하고, 겉도 또한 어두웠다. 바라보아도 형상이 없으나, 들어보면 소리가 들렸다. 무리가 노래하며 연주하고, 춤추며 부탁하였다. 이레가 지나니 일시에 모두 조용해졌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며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여섯 개의 둥근 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 가닥 자줏빛 끈이 드리워졌다. 먼 지방 딴 지역에 집들이 나란히 잇닿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섰고 국같이 들끓었다. 다섯 사람은 각각 자기 고을로 돌아가고 한사람만이 이 성에 남았다. 같은 때, 같은 자취가 마치 아우 같고 형 같았다. 진실로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낳았고,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보위(寶位)에 처음 오르니 다스리는 지역이 청명하였다. 화려하게 지으면서도 옛 것을 따르니, 흙섬돌이 바르게 되었다. 큰 정무에 비로소 힘쓰니 일반 정사도 시행되었다. 치우침이 없고 파당을 짓지 않으며 오직 하나같고 오직 정성스러웠다. 길가는 사람들이 길을 서로 양보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밭 갈기를 사양하였다. 사방이 베개를 높이 베고 만백성이 화평하였다. 잠깐 동안에 해로(薤露)가 마르니 춘령(椿齡)을 보전할 수 없었다. 천지가 기색을 잃고 조야(朝野)가 마음 아파하였다. 그 자취는 금의 모습이었고, 그 목소리는 옥 부딪치는 소리였다. 후손은 끊어지지 않아서 바치는 제물이 늘 향기롭다. 세월이 비록 흘렀어도 의식은 기울지 않았다.”

崇禎丙戌 觀察使許積 加土竪碑. 銘曰 王姓金氏 生於漢光武建武十八年 始建國 號駕洛. 薨於獻帝建安四年 壽百五十八 葬納陵. 首露史稱王名 因以爲王號云. 梁大統四年 國亡 傳世九 歷年四百九十一年. 王有子十人 感后言賜后姓者二. 東方之許 本原于此. 王之世治臻淳厖. 邦人追思王以報德 至今冬至 祀用太牢 以后配焉. 葬後千有餘載 逮皇明庚辰 後之孫許曄爲方伯 修墓備床砌. 壬辰倭寇掘發 鄕人改封之. 後庚辰六十七年 積以遺紹而忝按道 又加封植 碑于墓前 惟月若日 工告訖功 寔丁亥仲春也. 床若砌皆新焉 而安于尊所者 卽前日陳牲石也. 同宗幼學穆省峴察訪崙 進士嵰 新寧縣監坵幹其事. 噫. 煌煌功德 浹民骨入人耳深 一片石不足爲輕重 在子孫報本之誠 又安得不爾. 後孫 觀察使許積 識. 己卯春 許侯梓齊室四門謹廚舍四間營建 除一吏以爲典守.〉 許王后陵〈在龜旨峰東. 世傳 王妣阿踰國陁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 號普州太后. 邑人祭王陵時其祀. 崇禎丙戌 觀察許積 加土竪碑. 銘曰 太后姓許氏也. 載籍不詳 無所徵. 漢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立爲后 號普州太后 媲德匹休 克贊內化. 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峯東 去王陵二里餘. 有子十人 自以客於東土 悲無傳姓爲言. 王甚慽 錫二子以后姓 我國之許 本於此. 修墓立石顚末 在王陵表 與王陵同立.

숭정(崇禎)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銘]은 다음과 같다. 왕의 성은 김씨로, 한(漢) 광무 건무 18년(42년)에 태어나 처음 나라를 세우고 호를 가락이라고 하였다. 헌제 건안 4년(199년)에 죽으니[薨] 나이가 158세였으며 납릉(納陵)에 장사지냈다. 수로는 사서에 이르기를 왕의 이름[王名]인데, 그대로 왕호(王號)로 삼았다고 한다. 양(梁) [중]대통 4년(532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9세를 전하여 역년이 491년이다. 왕은 아들을 열 명 두었는데 왕후의 말에 감동하여 왕후의 성을 내려준 사람이 두 명 이었다. 동방의 허씨는 여기에 본원(本原)을 두었다. 왕의 다스림은 지극히 순박하고 도타왔다.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왕의] 덕에 보답하였으니 지금 동지에 이르러 대뢰(大牢)를 써서 제사를 지내고 왕후를 짝하게 하였다. 장사를 지낸 후 천여 년이 지나 황명(皇明) 만력(萬曆) 경진년 (1580년, 선조 13년)에 이르러 후손 허엽(許曄)이 방백(方伯)이 되어 묘를 수리하고 상석(床石)과 섬돌을 마련하였다. 임진 왜구가 파헤쳤는데 마을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만들었다. 경진년으로부터 67년 후인 병술년(1646년, 인조 24년)에 이르러 적(積)이 후손으로서 황송하게도 [경상]도를 어루만지게 되어 또한 봉분을 더하고 묘 앞에 비를 세웠다.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여 끝낸 때가 실로 정해년(1647년, 인조 25년) 중춘(仲春)이었다. 상과 섬돌 역시 모두 새롭게 하였으며, 술단지[樽] 놓는 곳에

둔 것은 곧 전날의 희생을 진설하는 돌[陳牲石]이었다. 같은 종씨 유학(幼學) 목(穆), 성현찰방(省峴察訪) 윤(崙), 진사(進士) 겸(嵰), 신령현감(新寧縣監) 구(坵)가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 아, 빛나는 공덕이 뼈에 사무쳐 백성들의 귀에 깊이 들어갔으니 한 조각 돌로 경중을 따지기에 부족하다. [빛나는 공덕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이 근본에 보답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으니 또한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손 관찰사 허적이 삼가 짓다. 기묘년 봄에 후(侯) 허재(許梓)가 재실(齋室) 4문과 주사(廚舍) 4칸을 짓고 아전 한 명을 임명하여 전수(典守)로 삼았다〉 허왕후릉〈구지봉(龜旨峯)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비는 아유타국(阿踰施國)의 왕녀(王女)라고 하고, 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읍 사람들이 왕릉에 제사할 때 함께 제사를 지냈다. 숭정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에 다음과 같다. "태후의 성은 허씨인데, 재적(載籍)이 분명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한(漢) 건무 24년 (48년) 수로왕 7년에 왕후가 되었으며 호를 보주태후라고 하였다. 배필의 덕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수로왕을] 도와 안으로 교화를 펼 수 있었다. 영제 중평 6년(186년) 3월에 죽으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의 동쪽에 장사지냈으니 왕릉과 2리 정도 떨어져 있다. 아들 열 명을 두었는데 스스로 동토의 객으로서 성씨를 전해줄 수 없음을 비통하게 여겨 말을 삼았더니 왕이 매우 슬퍼하고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었다. 우리나라의 허씨는 여기에 근본을 둔다. 묘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이 일의] 전말은 왕릉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 왕릉과 같이 세웠다."

【祭王陵祝文】王函自天 金卵墮地 定錫伽倻 傳祚十二 一區民物 莫非雲仍 歲具香火 瞻拜遺陵 盆山峯峯 洛水洋洋 惟王化澤 山水共長 沒世何忘 千秋萬代 願言來格 王妃與配. 壬辰之亂 倭賊撥王陵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 亦甚偉 柩傍有二女 面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 旋卽消滅 盖殉葬者也. 事見芝峯類說〉 新增〈陵享每年行於冬至日矣.壬子 登聞自朝朝家 降香祀行於春秋仲月〉

【제왕릉축문(祭王陵祝文)】 옥함(玉函)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정하여 내려준 가야이며, [하늘에서] 전하여 준 복이 열둘이니, 한 치 땅의 백성과 만물이 구름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향화를 갖추어 남겨진 능에 우러러 절을 하니 분산(盆山)은 높고 높으며, 낙수(洛水)는 잘도 흐릅니다. 왕의 교화와 은택으로 산수가 모두 좋아졌으니 영원토록 잊겠습니까, 천추만대(千秋萬代)까지 가리니, 왕림하시길 청하며 왕비와 더불어 배향합니다.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의 난에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만하며 손, 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널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사라져 없어졌는데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이 일은 『지봉유설』에 보인다. [신증(新增)]〈능향(陵享)이 매년 동짓날에 행해진다. 임자년에 [능에 대한 내용이 조정에] 올라가 들렸고 조정으로부터 향화가 내려와 봄과 가을 가운데 달에 제사를 행한다〉

【古蹟】首露王宮遺址〈在今府內. 諺傳古宮有址 在今古西門外 狐峴里 而東土階三等 時有瓊瑤得者云〉 望山島〈東漢建武二十四年七月 許王后 自阿踰陀國 渡海而至 首露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神鬼干望於乘峴 緋帆茜旗自海西南隅而指北 神鬼干馳走之. 王於宮西 設幔殿候之. 王后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着綾袴 贄于山靈. 及至 王迎入幔殿 越二日 同輦還闕 立以爲后. 至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 解綾袴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 猶存其名焉〉 王后寺〈舊基在長有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招賢臺〈賢一作仙. 在府東七里 廣野中小石山也. 俗傳 駕洛國居登王 招七點山旵始仙人 旵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喜 因以爲名. 王所坐蓮花石與棊局 至今猶存. 臺西有大石 有大人形. 其下石 有巨人跡〉 婆娑石塔〈在府城中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雕鏤甚奇. 世傳 許王后自西域來時 船中載此塔 以鎭風濤〉 進禮城〈在府西三十五里. 新羅時 以金仁匡爲進禮諸軍事. 諺傳 首露王封其一子 爲進禮城主

以設王宮·太子壇·瞻星臺. 臺址至今猶存. 居人號稱京城內云〉 瞻星臺〈在府西三十里.世傳 駕洛封太子 爲進禮城主 有土城·瞻望臺 遺址在焉〉 土城〈世傳 首露王蒸土築之 號曰盆城. 今存體勢〉

【고적(古蹟)】 수로왕궁유지(首露王宮遺址)〈지금[조선] 부(府) 안에 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고궁 터가 지금[조선] 고서문(古西門) 밖 호현리(狐峴里)에 있었는데 흙으로 된 단이 3층이었으며, 당시 옥구슬을 얻은 자가 있었다고 한다)〉. 망산도(望山島)〈동한(東漢) 건무 24년(48년) 7월 허왕후(許王后)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왔다.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望山島)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현(乘峴)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신귀(神鬼)가 달려와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궁 서쪽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왕후가 배를 받치고 육지에 올라 높은 산에서 쉬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쳤다. [왕후가] 도착하자 왕이 맞아들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이틀이 지나서 같은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와 왕후로 삼았다. 영제 중평 6년(189년) 기사 3월에 이르러 왕후가 죽었는데[崩], 나이가 157세였다. 국인(國人)들이 [왕후가] 처음 와서 배를 바쳤던 곳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 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로 들어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불렀다. [망산도는] 주포(主浦)의 왼쪽에 있으며, 지금[조선]까지 그 이름이 전해 온다〉. 왕후사(王后寺)〈옛 터가 장유산(長遊山)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혼인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王后寺)라 이름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莊)으로 삼았다〉 초현대(招賢臺)〈현(賢)은 선(仙)으로 쓰기도 한다.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큰 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산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부르면 참시가 배를 타고 고[琴]를 안고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는데, 이로 인하여 [초현(招賢)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을 두었던 들이 지금[조선]도 남아 있다. 대 서쪽에 있는 큰 돌에 대인(大人)의 상(像)이 있으며, 아래의 들에 거인(巨人)의 흔적이 있다〉. 파사석탑(婆娑石塔)〈호계(虎溪) 변에 있다. 모두 5층으로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긴 것이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허왕후가 서역으로부터 올 때 배 안에 이 탑을 싣고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진례성(進禮城)〈부(府)서쪽 35리에 있다. 신라 때 김인광(金仁匡)을 진례제군사(進禮諸軍事)로 삼았다고 한다. 민간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그 아들 하나를 봉하여 진례성주(進禮城主)로 삼아 왕궁, 태자단, 첨성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의 터[臺址]가 아직 남아있다. 살고있는 사람들이 경성내(京城內)라고 부른다."고 한다. 첨성대(瞻星臺)〈부의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駕洛)이 태자를 봉하여 진례성주(進禮城主)로 삼았다고 한다. 토성과 첨망대(瞻望坮)의 옛 터가 남아있다〉. 토성(土城)〈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흙을 쪄서 쌓고 분성(盆城)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조선] 대체적인 형체가 남아있다〉

44년 가락국 수로왕 궁궐을 짓다

사료1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甲辰 漢建武二十年 新羅儒理王二十一年 高句麗大武神王二十七年 閔中王元年 百濟多婁王十七年〉 春二月 駕洛國主 築都城營宮室.

〈갑진년 한(漢) 건무 20년(44년), 신라 유리왕 21년, 고구려 대무신왕 27년, 민중왕 원년 · 백제 다루왕 17년〉 봄 2월에 가락국(駕洛國) 임금(主)이 도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

사료2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甲辰 漢建武二十年 新羅儒理王二十一年 高句麗大武神王二十七年 閔中王元年 百濟多婁王十七年〉 春二月 駕洛築都城 營宮室.

〈갑진년 한(漢) 건무 20년(44년), 신라 유리왕 21년, 고구려 대무신왕 27년, 민중왕 원년·백제 다루왕 17년〉 봄 2월에 가락(駕洛)이 도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

사료3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卽位] 三年 春 築都城 營宮室.

[즉위] 3년(44년)에 도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

사료4 **『증보문헌비고』 권37 여지고25 궁실1 역대궁실 | 『增補文獻備考』 卷三十七 輿地考二十五 宮室一 歷代宮室**

馬韓宮室 三國志云 弁辰國人俗 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

마한궁실(馬韓宮室) 『삼국지』에 변진국(弁辰國) 사람들의 풍속에 집을 짓는 것은 나무를 가로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으니 감옥과 비슷하였다고 하였다.

駕洛國宮室 駕洛國宮室〈在金海府內〉 駕洛王金首露三年〈新羅儒理王二十二年〉 二月 築都城 營宮室.

金官志云 首露王初立 刱建假闕 土堦三尺.

가락국궁실(駕洛國宮室)〈김해부 안에 있다〉은 가락왕 김수로(金首露) 3년(44년)〈신라 유리왕 22년〉 2월에 도성(都城)을 쌓고 궁실을 조성하였다. 「금관지(金官志)」에 수로왕이 처음 즉위하여 임시 궁궐[假闕]을 창건하였으니, 흙으로 만든 계단은 높이가 세 척이었다고 하였다.

사료5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古蹟】 首露王宮〈遺址在今府內〉 古記 新羅儒理王十八年 駕洛國九干我刀等 望見龜旨峯 有異氣. 得金榼. 開視 有六卵 剖殼爲六童子.岐嶷奇偉 衆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因金榼姓金氏 國號伽倻 乃漢光武十八年也. 餘五人各歸爲五伽倻主. 駕洛後改金官國. 東以黃山江 西南以海 西北以智異山 東北以伽倻山 爲境. 首露王在位一百五十八年薨. 次居登 次痲品 次居叱彌 次伊尸品 次坐知 次吹希 次銍知 次鉗知 次仇亥 相繼爲王. 凡四百九十年. 五伽倻 大伽倻今高靈 小伽倻今固城 碧珍伽倻今星州 阿那伽倻今咸安 古寧伽倻今咸昌. 按古記 所傳金榼之說固不足信. 又與崔致遠說 俱爲怪誕 互相抵捂 亦可見其無稽矣. 致遠說見高靈縣〉

【고적(古蹟)】 수로왕궁〈빈터가 지금[조선] 부(府) 안에 있다〉 고기(古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유리왕 18년(42년) 가락국의 9간(九干) 아도(我刀) 등이 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금빛 상자[金榼]를 얻어 열어서 보니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 껍질이 깨지면서 여섯 동자가 되었으며, 자라서는 용모가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마침내 한 사람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다. 금빛 상자로 인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고, 국호를 가야라 하였으니, 한(漢) 광무 18년(42년)이었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군주가 되었다. 가락(駕洛)은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동쪽은 황산강으로, 서남쪽은 바다로, 서북쪽은 지리산으로,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경계를 삼았다. 수로왕은 왕위에 있은지 158년만에 죽고[薨] 다음은 거등(居登), 다음은 마품(痲品), 다음은 거질미(居叱彌), 다음은 이시품(伊尸品), 다음은 좌지(坐知), 다음은 취희(吹希), 다음은 질지(銍知), 다음은 겸지(鉗知), 다음은 구해(仇亥)가 서로 이어 왕이 되었다. 모두 491년이었다. 5가야. 대가야(大伽倻)는 지금 고령(高靈)이고, 소가야(小伽倻)는 지금 고성(固城)이며, 벽진가야(碧珍伽倻)는 지금 성주(星州)이고, 아나가야(阿那伽倻)는 지금 함안(咸安)이며, 고녕가야(古寧伽倻)는 지금 함창(咸昌)이다. 생각건대 고기(古記)에 전하는 금합(金榼)의 이야기는 진실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 또 최치원(崔致遠)의 주

장과 더불어 모두 괴이하고 허망하며, 서로 어긋나니 그 무계함을 또한 알 수 있다. 최치원의 주장은 고령현(高靈縣)조에 보인다〉

44년 한韓의 염사인이 낙랑군에 나아가 통교하다

사료1 **『후한서』 권1 하 광무제기 제1 하 | 『後漢書』 卷一 下 光武帝紀 第一 下**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건무 20년(44년)에 한인 염사인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에 나아가 공헌하였다. 광무(光武)가 소마시를 한의 염사읍군에 봉하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여 사시로 조알케 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3 외신부8 봉책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三 外臣部八 封册一**

[後漢 光武 建武]二十年 東夷韓國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帝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所屬樂浪郡 四時朝貢.

[후한 광무제 건무]20년 동이 한국인(韓國人) 염사인(廉斯人)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에 나아가 공헌하였다. 광무제가 소마시를 한(漢)의 염사읍군(廉斯邑君)에 봉하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여 사시로 조공케 하였다.

사료3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後漢 光武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鞮等 詣樂浪貢獻.

후한 광무[제] 건무 20년에 한인 염사인 소마제(蘇馬鞮) 등이 낙랑에 나아가 공헌하였다.

사료4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十三 朝貢一**

後漢 光武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鞮等 詣樂浪貢獻.

후한 광무제 건무 20년(44년)에 한인 염사인 소마제 등이 낙랑에 나아가 공헌하였다.

사료5 **『책부원구』 권999 외신부44 입근 | 『册府元龜』 卷九百九十九 外臣部四十四 入覲**

後漢 光武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후한 광무[제] 건무 20년(44년) 한인 염사인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에 나아가 공헌하였다. 광무[제]가 소마시를 한(漢)의 염사읍군에 봉하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여 사시로 조공케 하였다.

사료6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後漢光武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廉斯邑名〉. 光武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後漢書〉

후한 광무 때 한인 염사인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을 찾아 공헌하였다〈염사는 읍 이름이다〉. 광무[제]가 소마시를 한(漢)의 염사읍군에 봉하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여 사시로 조알케 하였다.〈『후한서』〉

44년 한국인 무리가 낙랑에 나아가다

사료1 **『후한서』** 권1 하 광무제기 제1 하 | **『後漢書』** 卷一 下 光武帝紀 第一 下

建武二十年 秋 東夷韓國人率衆 詣樂浪內附〈東夷有辰韓 · 卞韓 · 馬韓 謂之三韓國也〉

건무 20년(44년) 가을에 동이(東夷)의 한국인(韓國人)이 무리를 이끌고 낙랑에 나아가 내부하였다.〈동이에는 진한·변한·마한이 있는데 삼한국(三韓國)이라 일컫는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十三 朝貢一

後漢 光武 建武二十年 秋 東夷韓國人率衆詣樂浪內附〈東夷有辰韓 · 馬韓 謂之三韓國也〉

후한 광무[제] 건무 20년(44년) 가을에 동이의 한국인이 무리를 이끌고 낙랑에 나아가 내부하였다.〈동이에는 진한과 마한이 있는데, 삼한국이라 일컫는다〉

44~48년경(또는 57년경) 수로왕 탈해를 맞아 변신하며 싸우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기이2 탈해왕 | **『三國遺事』** 卷一 紀異二 脫解王

脫解齒叱今〈一作吐解尼師今〉 南解王時〈古本云 壬寅年至者 謬矣. 近則後於弩禮卽位之初 無爭讓之事. 前則在於赫居之世. 故知壬寅非也〉 駕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譟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今有上西知·下西知村名〉

탈해치질금(脫解齒叱今)〈또는 토해니사금(吐解尼師今)이라고도 짓는다〉 남해왕(南解王) 때(4~24년)〈고본(古本)에 임인년(壬寅年; 기원전 19년)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가까운 임인년을 찾으면 노례(弩禮)왕 즉위 초보다 뒤가 되니 다투어 사양한 일이 없게 된다. 보다 전의 임인년이라면 혁거세의 치세가 되는 까닭에 임인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락국(駕洛國)의 바다 가운데에 배 한 척이 와서 정박하였다. 그 나라 수로왕(首露王)과 인민들은 북을 치며 환영하여 장차 머무르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배는 날 듯이 빠르게 달아나 계림(雞林) 동쪽의 하서지촌(下西知村)의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지금도 상서지(上西知)·하서지촌의 이름이 있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忽有琓夏國 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 故來耳. 王答曰 天命我俾卽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 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鸇.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鸇 獲免焉 此盖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麟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

갑자기 완하국(琓夏國) 함달왕(含達王)의 부인이 임신한지 7년이 되어 알을 낳았는데 사람으로 변해 이름을 탈해라 하였다. 바다에서 왔는데 신장 3척에 머리 둘레가 1척이나 되었다. 득의양양하게 궁궐을 찾아 와서 [수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위를 빼앗고자 왔다고 하였다. 왕이 답해 말하기를 하늘이 내게 명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나라와 인민을 돌보게 하였는데 감히 천명을 어기고 자리를 내줄 수 없으며, 또 감히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너에게 줄 수 없고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술법을 다툴 수 있겠느냐."하니 왕이 "좋다."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니 왕은 독수리로 변했다.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왕은 새매가 되었다. 잠깐 사이의 일이었다. 탈해가 본래의 몸으로 돌아 노니 왕 또한 그렇게 하였다. 탈해가 곧 항복하여 말하기를 "제가 술법을 다투는 장면에서 독수리 앞에 매였고 새매 앞에 참새였는데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대개 성인이 살인을 미워하는 인자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왕과 자리를 다투기 아주 어렵습니다."하고 곧 바로 절하며 물러 나갔다. 교외에 있는 부두에 이르러 중국(中國)의 배가 와서 정박하는 물길로 가려고 하였다. 왕은 체류하면서 난리를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백 척을 내어 쫓게 하였다. 탈해가 계림 땅으로 달아나자 수군들이 모두 돌아 왔다. 실려 있는 일의 기록이 신라와 많이 다르다.

사료3 **『삼국사절요』권2 | 『三國史節要』卷二**

〈丁巳 漢中元二年 新羅儒理王三十四年 脫解王元年 高句麗太祖大王五年 百濟多婁王三十年〉 冬十月 新羅王儒理崩 婿昔脫解立 年六十二. 脫解本多婆那國人. 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 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不祥 宜棄之. 女以帛裹卵幷寶物置櫝中 浮之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濱 人怪之不取. 轉至辰韓阿珍浦口. 有老嫗繩之 開櫝有兒存焉. 遂收而養之〈或曰 是赫居世三十九年〉 及壯 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時人不知姓氏. 以櫝初來有鵲飛鳴而隨 省鵲以昔爲氏. 又以解櫝而出 名脫解. 脫解始以漁釣爲業 奉養老嫗 無怠色. 嫗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力學立功名. 脫解遂精專學問 兼通地理. 望楊山下瓠公宅爲吉地 計取而居之. 南解王聞其賢 以其女妻之.

〈정사(丁巳)년 한(漢) 중원 2년(57년), 신라 유리왕 34년, 탈해왕 원년, 고구려 태조대왕 5년, 백제 다루왕 30년〉 겨울 10월에 신라왕 유리(儒理)가 돌아갔다. 사위 석탈해(昔脫解)가 즉위하니 나이가 62세였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 사람인데 그 나라는 왜국(倭國) 동북쪽 1천리에 있었다. 처음에 그 국왕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처로 삼았는데 임신 7년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비단으로 보물과 함께 싸서 궤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두었다. 처음에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이르자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자리를 옮겨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렀다. 노구(老嫗; 노파)가 세끼 줄로 당겨 궤를 여니 어린 아이가 있었다. 거두어서 기르니〈혹은 이 때가 혁거세 39년이었다고도 한다〉 자라서 신장이 9척이고 풍채가 수려하고 남보다 지식이 뛰어났다. 혹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은 성씨를 알 수 없었는데 궤에서 처음 나왔을 때, 까치가 울며 날아 따랐다 해서 작(鵲)을 생략해 석(昔)을 성씨로 삼았다. 또한 궤에서 나왔다 하여 이름을 탈해(脫解)라 하였다. 처음에 탈해는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아 노파를 봉양하면서 게으름 피는 일이 없었다. 노파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상(骨相)이 특별하니 마땅히 공부에 힘써서 공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마침내 탈해가 학문에 정진하여 지리에도 통달하였다. 양산(楊山) 아래 호공(瓠公) 집을 보고 길지(吉地)임을 알고 계책으로 차지하여 살았다. 남해왕(南解王)이 그 현명함을 듣고 그에게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遺事 南解王時 有船來駕洛國 首露王欲留之. 船至鷄林之阿珍浦. 有嫗阿珍義 望見鵲集海中 拏船尋之. 船中有大櫃 開見 有童男. 言曰 我本龍城國人. 父王含達婆 聘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 禱求七年 生一大卵 王以人而生卵非吉祥. 乃造櫃 盛我浮海 至此尒. 言訖 登吐含山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半月勢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 云昔是吾祖家. 訟曰 我系冶匠 乍出隣鄕 人取居之. 請掘地. 驗之. 果得礪炭 乃取之. 南解王知其爲智人 以長公主阿尼夫人妻之. 以昔是吾家取他人家故 因姓昔氏. 殊異傳 龍城國王 妃生大卵 怪之 置卵小櫃 以奴婢七寶文貼 載船泛海 來至阿珍浦. 村長阿珍等 開櫃出卵 忽有鵲來啄卵 開有童男 自稱脫解. 托村嫗爲母 學書史 兼

通地理. 體貌雄傑. 登吐含山 相 京師地勢 新月城據可居 而有瓠公者居焉. 瓠公浮瓠渡海來居 不知何人也. 脫解謀欲取之. 夜入其家園 埋鍛金器. 告於朝曰 吾世業鍛金 暫適隣鄕 瓠公取居吾家 請驗之. 掘之 果有鍛金器. 王知脫解實非鷄林人也. 特善其非凡 以其家賜之 遂降長公主. 龍城國在倭國東北二千里〉

〈『[삼국]유사』에는 남해왕 때 가락국(駕洛國)에 배가 오자 수로왕(首露王)이 머물게 하려 했으나 배는 계림(鷄林)의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고, 노파 아진의(阿珍義)가 바다 가운데 까지가 모이는 것을 보고 배를 끌어당겨 살피니 배 안에 큰 궤가 있어 열어 보니 사내아이가 있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용성국(龍城國) 사람이다. 부왕인 함달파(含達婆)가 적녀국왕(積女國王)의 딸에게 장가들어 비(妃)로 삼았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기도해 구하기 7년에 큰 알 하나를 낳았는데 왕이 사람이 알을 낳았다하여 불길하자 하고 궤짝을 만들어 나를 태워서 바다에 띄워 여기에 이르렀다."하고 말을 마치자 토함산(吐含山)에 올라 성안에 살만한 곳을 찾다가 반달처럼 생긴 봉우리 하나가 보여 그 아래를 찾으니 호공(瓠公)의 집이었다. 이에 간사한 꿰를 내어 몰래 숫돌과 숯을 묻어 놓고 옛날에 바로 우리 할아버지 집이었다 하였다. 시비를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장장이(冶匠) 이웃마을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얻어 산 것이다. 땅을 파 보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와 집을 차지하였다. 남해왕(南解王)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 첫째 공주를 아니부인(阿尼夫人)을 처로 삼게 하였다. 옛날에(昔) 이곳이 우리 집이었다 해서 남의 집을 차지했기 때문에 석씨(昔氏)를 성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수이전(殊異傳)』에는 용성국 왕비가 큰 알을 낳자 이상하게 여겨 작은 궤짝에 알을 넣고 노비와 칠보문첩(七寶文貼)을 넣고 실어서 바다에 띄우니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 촌장 아진(阿珍) 등이 궤를 여니 알이 나왔고 갑자기 까지치가 날아와 알을 쪼았다. 연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스스로 탈해(脫解)라 하였다. 마을 노파에게 맡겨 어미가 되게 하였다. 글과 역사를 배우고 아울러 지리에도 능통하였다. 풍체와 용모가 사내답게 걸출하였다. 토함산(吐含山)에 올라 서울의 지세를 바라보니 새 월성이 가히 살만하였는데 호공(瓠公)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호공은 표주박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탈해가 계략으로 차지하려고 밤에 그 집 정원에 들어가 담금질 기구(鍛金器)를 묻어 놓았다. 조정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대로 쇠부리를 업으로 하다가 잠시 이웃 마을에 갔었는데 호공(瓠公)이 우리 집을 차지해 살았다. 청컨대 증명하게 해주십시오."하였다. 파보니 과연 담금질 도구가 있었다. 왕이 탈해가 실로 계림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 비범함을 특별히 좋아하여 그 집을 주고 큰 딸을 내려 주었다. 용성국(龍城國)은 왜국(倭國) 동북쪽 2천리에 있다〉

48년 가락국에 허왕후가 와서 혼인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屬建武二十四年戊申七月二十七日 九干等朝謁之次 獻言曰 大王降靈已來 好仇未得. 請臣等所有處女絶好者 選入宮闈 俾爲伉儷. 王曰 朕降于玆天命也. 配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就乘岾〈望山島 京南島嶼也. 乘岾 輦下國也〉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茜旗 而指乎北. 留天等先擧火於島上 則競渡下陸 爭奔而來. 神鬼望之 走闕奏之. 上聞欣欣 尋遣九干等 整蘭橈 揚桂楫而迎之 旋欲陪入內. 王后乃曰 我與(爾)等素昧平生 焉敢輕忽相隨而去. 留天等返達后之語 王然之 率有司動蹕 從闕下西南六十步許地 山邊設幔殿祗候. 王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 其地侍從媵臣二員 名曰申輔·趙匡 其妻二人 號慕貞·慕良 或臧獲幷計二十餘口 所齎錦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瓊玖服玩器 不可勝記. 王后漸近行在 上出迎之 同入帷宮 媵臣已下衆人 就階下而見之卽退. 上命有司 引媵臣夫妻曰 人各以一房安置 已

下臧獲各一房五六人安置. 給之以蘭液蕙醑 寢之以文茵彩薦 至於衣服疋段寶貨之類 多以軍夫遴集而護之.
건무 24년(48년) 무신(戊申)년 7월 27일에 구간(九干)등이 조알할 때 아뢰기를 "대왕(大王)이 강림하신 이래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시었으니 신(臣) 등의 처녀 중에서 젊고 아름다운 자를 궁중에 뽑아 드려 배필을 삼게 하소서."하였다. 왕이 가로되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나의 배필로 왕후가 되는 것 또한 하늘의 명이니 그대들은 염려치 말라."하고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 명해 가벼운 배(輕舟)와 날랜 말(駿馬)을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또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해 승점(乘岾)〈망산도는 서울 남방의 섬이고, 승점(乘岾)은 서울 아래[연하(輦下)]의 지방(國)이다〉으로 가게 하였다. 홀연히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며 북쪽을 향해 오는 배가 있었다. 유천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드니 앞을 다투어 상륙하려 하였다. 신귀가 바라보고 대궐로 달려와서 아뢰니 왕이 듣고 기뻐하였다. 이어 구간 등을 보내어 향기로운 배[난요(蘭橈)]와 계수나무 노[桂楫(계즙)]를 갖추어 맞이하여 곧 모시고 궐내로 들어오려 하였다. 왕후가 말하기를 "나와 너희들은 본래 알지 못한 터인데 어찌 경솔히 따라가랴."하였다. 유천 등이 돌아 와 왕후의 말을 전하니 왕이 그렇게 여겨 집사(有司)를 거느리고 궐 아래에서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산기슭에 가서 만전(幔殿)을 베풀고 기다렸다. 왕후는 산 바깥의 별포나루(別浦津) 가에 배를 매고 육지에 올라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은 비단바지를 벗어 그것을 선물로 삼아 산신령에게 바쳤다. 기타 시종해 온 신하 2인의 이름은 신보(申輔)와 조광(趙匡)이고, 그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정(慕貞)과 모량(慕良)이다. 혹은 노비까지 아울러 20여 인인데 싸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경구복완기(瓊玖服玩器)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왕후가 점점 행재소에 가까이 오니, 왕이 나아가 맞아 함께 만전으로 들어왔다. 신(臣) 이하 여러 사람은 뜰아래에서 뵙고 곧 물러가니 왕이 집사에게 명해 따라 온 신하의 부부를 인도케 하되 각인을 각방에 두고 그 이하 노비는 한 방에 5~6인씩 두어 난즙(蘭液)과 향초[혜서(蕙醑)를 주고 체색이불[문인(文茵)]과 채색자리[彩薦(채천)]에서 자게하고 의복필단 보화 종류까지 주었으며 군인들을 많이 모아 보호케 하였다.

於是 王與后共在御國寢. 從容語王曰 妾是阿踰陁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莅家邦 未定匹偶 卿等須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形開之後 上帝之言 其猶在耳 你於此而忽辭親 向彼乎往矣. 妾也浮海遐尋於蒸棗 移天夐赴於蟠桃 螓首敢叨 龍顔是近. 王答曰 朕生而頗聖 先知公主自遠而屆 下臣有納妃之請 不敢從焉. 今也淑質自臻 眇躬多幸. 遂以合歡 兩過淸宵 一經白晝. 於是 遂還來船 篙工楫師共十有五人 各賜粮粳米十碩·布三十疋 令歸本國. 八月一日廻鑾 與后同輦 媵臣夫妻齊鑣並駕 其漢肆雜物 感使乘載 徐徐入闕 時銅壺欲午. 王后爰處中宮 勅賜媵臣夫妻 私屬空閑二室分入 餘外從者以賓舘一坐二十餘間 酌定人數 區別安置. 日給豊羡 其所載珍物 藏於內庫 以爲王后四時之費.
이에 왕과 왕후가 함께 침전에 계실 때 [왕후가] 왕께 조용히 말하기를 "나는 본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許氏)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금년 5월에 본국에 있을 때 부왕이 황후와 더불어 나에게 말씀하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上帝)를 뵈오니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왕(駕洛國王) 수로(首露)는 하늘이 내려보내 등극케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신성한 사람이다.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리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거기로 가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떠서 찐 대추[증조(蒸棗)]를 구하고 하늘에 가서 3천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반도(蟠桃)]를 얻어 미미한 우두머리[진수(螓首)]로서 외람히 용안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아주 신성하여 먼저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알고 신하들의 납비의 청을 듣지 않았더니 지금 현숙한 그대가 저절로 왔으니 이 사람의 다행이라."하고 드디어 동침하여 두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내었다. 이에 드디어 [그들의]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낼 때 뱃사공 모두 15인에게 각각 쌀 10석과 베 30필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8월 1일에 본궁으로 환가할 때 왕후와 더불어 수레를 타고 신하의 부처도 다 수레를 타고 한나라의 사치스러운 물품[한사잡물(漢肆雜物)]을 모두 실어 서서히 대궐로 들어오니 때는 정오가 되려 하였다. 왕후는 중궁(中宮)에 거처하고 따른 신하의 부처와 사속들에게는 빈 두 집에 나누어 들게 하고 나머지 종자는 빈관(賓館) 한 채의 20여 간에 사람 수를 작성하여 구별 안치케 하고 날마다 풍부한 음식을 주며 그들의 신고 온 진귀한 물건은 내고(內庫)에 두어 왕후의 생활비용을 삼게 하였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戊申 漢 建武二十四年 新羅 儒理王二十五年 高句麗 閔中王五年·慕本王元年 百濟 多婁王二十一年〉 秋七月 駕洛國主納許氏爲妃. 初九干請納妃. 王曰 朕降于玆 天命也. 當有配朕作后者 卿等無憂. 至是 阿踰陁國公主浮海而至. 王納爲妃.

〈무신(戊申)년(48년) 한(漢) 건무 24년, 신라 유리왕, 25년 고구려 민중왕 5년 · 모본왕 원년, 백제 다루왕 21년〉 가을 7월에 가락국 임금(主)이 허씨(許氏)를 들여 왕비(妃)로 삼았다. 처음에 구간(九干)이 왕비들이기를 청했었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에 내린 것도 하늘의 명령이니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 왕후를 만들어 주실 것이니 경(卿) 등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아유타국(阿踰陁國) 공주가 바다에서 와서 왕이 왕비로 받아들였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戊申 漢建武二十四年 新羅儒理王二十五年 高句麗閔中王五年 慕本王元年 百濟多婁王二十一年〉 秋七月 駕洛國王金首露 納許氏爲妃.

〈무신(戊申)년(48년) 한(漢) 건무 24년, 신라 유리왕 25년, 고구려 민중왕 5년 · 모본왕 원년, 백제 다루왕 21년〉 가을 7월에 가락국 임금(主)이 허씨(許氏)를 들여 왕비(妃)로 삼았다.〈『동국통감』은 『삼국유사』와 『삼국사절요』가 소개한 허왕후의 출자에 관한 전승을 생략하였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4 駕洛國**

七年 秋七月 納許氏爲妃. 妃南天竺國女 名黃玉 渡海而來. 命留天[于] 神鬼于[干] 望候 設幔殿 迎立爲妃.

[즉위]7년(48년) 가을 7월에 허씨를 들여 왕비로 삼았다. 왕비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딸로 이름은 황옥인데 바다를 건너 왔다. [왕이] 유천간과 신귀간에게 망을 보게 명령하였다. 만전을 설치해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허왕후 출자에 관한 남천축국 설이 주목된다〉

사료5 **『성호사설』 권18 경사문 수로허후 | 『星湖僿說』 卷十八 經史門 首露許后**

三國之際 櫝出卵生之類 都不可信 余既有成說. 按 輿地勝覧引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為天神夷毗訶所感 生大伽倻王 窒朱日. 金官國王 窒青裔二人 則 窒朱日為伊珍阿豉王之别稱 青裔為首露王之别稱也.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十世孫 父曰異惱王求昏于新羅 迎伊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乃 窒朱日之八世孫 與駕洛古記不合. 致遠新羅人 為人作傳 亦必攄傳述而書之 獨不知有金卵之說者耶. 意者 荒裔之地 未有信史 愚俗喜談 鬼佛家多捏誣. 新羅之末 禪道大行 誕恠之說 流行不禁 或云如此 或云如彼 不獨甲之非實 乙亦難攄. 致遠無識 筆之拎書 疑亂後人 何足責哉. 金庾信 首露之後也. 而新羅博士薛因宣撰其碑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羅人亦自謂金天氏之後. 朴居勿撰三郎寺碑亦然. 故其傳因此 謂與新羅同姓. 新羅之金始拎閼智 生拎始林之金櫝 與金海之卵生 何干. 又豈與伽倻感神者相涉 又豈與少昊相涉 而混謂之同姓.

삼국의 즈음에 독(櫝)에서 나왔다느니 알[卵]에서 나왔다느니 한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단정한 설이 있거니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인용해 이르기를 “가야산신(伽

倻山神)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 이비가(夷毗訶)에게 느낀(感) 바가 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 뇌질청예(惱窒靑裔)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다."라 하였다. 또 「석순응전」에 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인데 아버지 이뇌왕(異惱王)이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伊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들여 태자를 낳았다고 했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세손이 된다. 이것은 가락국(駕洛國)의 고기(古記)와는 합치하지 아니한다. (최)치원은 신라 사람으로 남을 위해 전(傳)을 지을 때 반드시 기록에 의거했을 것인데 다만 금란(金卵)의 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인가. 추측하건대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못한 땅이라 믿을 만한 정사(正史)가 없었고 어리석은 풍속이 귀신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불가(佛家)에서는 허황된 말을 날조했을 것이다. 신라의 말기에 불교가 크게 성하였으므로 허황하고 기괴한 말들이 제멋대로 유행하여, 혹은 이렇다 하고 혹은 저렇다 하여 다만 갑(甲)의 말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을(乙)의 말도 또한 증거하기 어려웠으니, [최]치원의 무식하면서 글로 써서 후세 사람을 혹하고 혼란케 하였다 해서 꾸짖을 것이 뭐 있겠는가. 김유신(金庾信)은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인데 신라의 박사(博士) 설인선(薛因宣)이 그 비문을 지으면서 황제(黃帝) 헌원(軒轅)과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이라 하였고, 신라인들 또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자손이라 자칭하여, 박거물(朴居勿)이 삼랑사비문(三郎寺碑文)을 지으면서 또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김유신전」에 신라와 동성(同姓)이라 하였다. 신라의 김씨는 알지(閼智)에서 비롯하였는데 시림(始林)의 금독(金櫝)에서 나왔으니 김해(金海)의 알(卵)에서 나온 이와 무슨 상관이며, 가야산에서 천신(天神)과 감응(感)하여 생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며, 또 소호금천씨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동성이라 섞어 불렀는가.

句麗高朱蒙即天神解慕漱之子 而至廣開王 與高雲叙族 雲句麗之支 而自云高陽氏之苗裔 或謂句麗高辛之後 或云始祖沸流王 乃北扶餘王解扶婁庶孫 其父優台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温祚 其說多歧 將何適従. 盖新羅至真興王始修史 高麗始有留記百卷 至嬰陽王約為新集 百濟至契王始有書記. 其間許多年 都未有信史. 東方之有人民久矣恐無氣化若是其多也. 其金海許后·耽羅三女之類 假饒有是不過飄海偶至者. 聞 我世宗時 七歲女兒来泊濟州 舟中有一琴·一樽及資治通鑑 命養之宮中及長 為王孫江陽君副室. 今坡谷丹厓諸公 皆其後. 先王朝 魚舠来泊西海 有四歲兒 柳大將赫然 家育之 白扵朝賜姓魚氏 以舠中有魚網故也. 子孫武舉 多為邉堡將 今之震海·震淵等 是也. 此類若在三國之際 必將增飾竒幻 作神降鬼 設無限怳惚矣. 又不知耳目以外 千載以上 更有許多在也. 今人不能該考為其後者 亦曰吾祖 實如此可異.

[고]구려 시조 고주몽(高朱蒙)은 천신 해모수(解慕漱)의 아들인데 광개토왕(廣開土王)에 이르러 고운(高雲)이란 사람과 한 조상의 자손이라 하여 서로 종족(宗族)의 정의(精誼)를 말하였으니, 고운은 고구려의 지파(支派)인데 스스로 고양씨(高陽氏)의 후손이라고 말하였고 혹자는 고구려는 고신씨(高辛氏)의 후손이라고 말하였고, 혹자는 고구려의 시조 비류왕(沸流王)은 곧 북부여왕(北扶餘王) 해부루(解夫婁)의 서손인데 그 아버지 우백(優白)이 두 아들을 두었으니 맏이는 비류(沸流)요 다음은 온조(溫祚)라 하여, 그 설이 여러 갈래이니 장차 어느 것을 믿고 따라야 하겠는가. 대개 신라에서는 진흥왕에 이르러 비로소 역사를 기록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비로소 『유기(留記)』 1백 권이 있었는데 영양왕에 이르러 요약하여 『신집(新集)』을 만들었고, 백제에서는 계왕에 이르러 비로소 『서기(書記)』가 있었으니 그 중간에는 도무지 믿을 만한 역사책이 없었다. 우리 동방에 인민이 있은 지 오래이니 아마도 이렇게 많은 기화(氣化)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해 허후(許后)와 탐라(耽羅) 3녀도 같은 종류이다. 가령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다에 표류하다가 우연히 이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세종 때에 7세 되는 계집아이가 바다에 표류하여 제주도에 닿았는데 배 안에 거문고 하나, 항아리 하나, 『자치통감(資治通鑑)』한 질이 있었다. 세종은 명령하여 궁중에 기르게 하였다. 그가 자라서 왕손 강양군(江陽君)의 첩이 되었으니 지금의 파곡(坡谷)·단애(丹厓) 등 제공(諸公)이 모두 그 후손이며 선왕조 때 고기잡이배가 표류하여 서해안에 닿았는데 배 안에 4세 된 아이가 있었다.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집에서 길러 조정에 아뢰어 성(姓)을 어씨(魚氏)로 주었으니 그 배 안에 고기그물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 자손이 무과에 합격하여 변방의 무관이 많이 났으니 지금

의 진해(震海)·진연(震淵) 등이 그 자손이다. 이런 종류가 만약 삼국 때에 있었더라면 반드시 기괴한 말을 보태고 꾸며서 신(神)이 내려오고 귀신의 조화라 하여 한없이 신비스럽고 황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천 년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던지 알지 못하나 지금 사람들은 널리 상고하지도 않고 또 그 후손이 되는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실로 이와 같았다고 말하니 이상하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首露立七年 得阿隃陀國君之女 立爲妃 是爲皇玉夫人 亦曰普州太后 姓許氏. 或曰 南天竺國君之女 或曰 西域許國君之女. 亦曰 許黃之國誌 記其先君之命曰 東方有駕洛元君 得女爲配 浮海而至云.

수로가 즉위한지 7년(48년)에 아유타국(阿隃陀國) 임금의 딸을 얻어 비로 삼으니, 이 사람이 황옥부인(皇玉夫人)이다. 또는 보주태후(普州太后)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許氏)이다. 혹은 남천축국(南天竺國) 임금의 딸이라고도 하고, 혹은 서역(西域)의 허국(許國) 임금의 딸이라고도 한다. 또 말하기를 『허황국지(許黃國誌)』가 그 선군(先君)의 명령을 기록해 말하기를 동방에 가락의 시조 임금[원군(元君)]이 있으니 [내] 딸을 얻어 배필로 삼을 것이다 하였으니, 바다를 건너 이르렀다고 하였다.

사료7 **『증보문헌비고』 권42 제계고3 후비 | 『增補文獻備考』 卷四十二 帝系考三 后妃**

駕洛國首露王妃許氏 名黃玉 號普州太后. 世傳 阿踰陁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之女. 東漢光武 建武二十四年 浮海而至 王迎于幔殿 同輦還闕 立以爲后. 生九子 而一子從母姓. 至靈帝 中平六年 薨 壽一百五十七. 國人號 初來維舟處曰主浦村 解綾袴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存其名.

가락국 수로왕비 허씨(許氏)는 이름이 황옥(黃玉)이요, 시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로 불렸다. 세상에 전하기를 아유타국(阿踰陁國) 왕녀(王女), 혹 말하기를 남천축국왕(南天竺國王)의 딸이라고도 한다. 동한 광무 건무 24년에 바다에서 오니, 왕이 만전(幔殿)에서 마중하여 같이 수레를 타고 궐로 돌아가 세워 왕비로 삼았다. 아들 아홉을 낳았는데, 그러나 한 아들은 어미의 성(姓)을 따랐다. 영제 중평 6년(189년)에 돌아가시니 수명이 157세였다. 나라사람들은 처음 와서 배를 매었던 곳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 진홍색 깃발이 들어 온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하는데, 주포(主浦)의 왼쪽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있다.

사료8 **『증보문헌비고』 권73 예고20 혼례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三 禮考二十 婚禮**

駕洛國首露王 納許氏爲妃. 許氏名黃玉 號普州太后. 世傳 阿諭陁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東漢建武二十四年 王迎于幔殿 同輦還闕 立以爲后. 至靈帝中平六年崩 壽一百五十七.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村 解綾袴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存其名.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이 허씨(許氏)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허씨의 이름은 황옥(黃玉), 시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민간에 전하기를 아유타국(阿諭陀國) 왕녀라고 한다. 혹은 남천축국왕(南天竺國王)의 딸이라고도 한다. 동한(東漢) 광무 건무 24년(48년)에 왕이 장막으로 맞이하여 함께 가마에 타고 궁궐에 돌아와서 왕비로 삼았다. [후한] 영제 중평 6년(189년)에 돌아가니 나이가 157세였다. 나라 사람들이 부르기를 처음 와서 배를 매었던 곳을 주포촌(主浦村), 비단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 붉은 깃발[茜旗]을 달고 들어왔던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였으니, [기출변]은 주포의 왼쪽에 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

사료9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戊申〉〈新羅儒理王二十四年 高句麗閔中王四年 百濟多婁王二十年 東漢光武帝建武二十四年〉 秋七月 駕洛國王納許氏爲妃是爲普熙太后. 后生十子 二子從母姓 今之金海金氏及諸許 皆其後也.

〈무신(戊申)〉〈신라 유리왕 24년, 고구려 민중왕 4년, 백제 다루왕 20년, 광무 건무 24년(48년)〉 가을 7월에 가락국왕이 허씨(許氏)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이 사람이 보희태후(普熙太后)이다. 태후는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아들 두 명이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지금 [대한제국]의 김해 김씨 와 허씨는 모두 그 후손이다.

사료10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古蹟】…(중략)… 望山島〈古記 首露王七年 許后自阿踰陁國 渡海而至. 王命天于望於望山島 王於宮西 設幔殿以候之. 后維舟登陸 及至迎入幔殿 還宮立爲后. 至〈漢靈帝中平六年〉薨 壽一百五十匕.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 今俗猶傳其名. 或云后南天竺國君之女〉

【고적】…(중략)…망산도(望山島)〈고기(古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로왕 7년에 허후(許后)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 왕이 천우(天于)에게 명하여 망산도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왕이 궁궐 서쪽에 장막[幔殿]을 치고 기다렸다. 허후가 배를 받치고 육지에 올랐다. 도착하자 [왕이] 맞아들여 장막으로 들어갔고, 궁궐로 돌아가 왕후로 세웠다. 〈한(漢) 영제 중평 6년(189년)〉에 돌아갔는데[薨], 나이가 157세였다. 국인(國人)들이 [왕후가] 처음 와서 배를 매었던 곳을 주포(主浦)라 하였는데, 지금도 민간에는 그 이름이 전해온다. 혹은 왕후가 남천축국(南天竺國) 군주의 딸이라고도 한다〉

王后寺〈舊址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迎后之地 建寺 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왕후사〈옛 터가 장유산(長遊山)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銍知王)이 [수로왕이] 장막에 나아가 왕후를 맞이했던 땅에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하였다. 뒤에 절이 없어져 풀밭(莊)이 되었다〉

48년 허왕후 파사석탑을 싣고 오다

사료1 **『삼국유사』 권3 탑상4 금관성파사석탑 |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金官城婆娑石塔**

金官虎溪寺婆裟石塔者 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 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 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 初公主承二親之命 泛海將指東 阻波神之怒 不克而還 白父王 父王命載玆塔 乃獲利涉 來泊南涯. 有緋帆茜旗珠玉之美. 今云主浦. 初解綾袴於岡上處曰綾峴 茜旗初入海涯曰旗出邊. 首露王聘迎之 同御國一百五十餘年 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 蓋像教未至 而土人不信伏 故本記無創寺之文.

금관(金官) 호계사(虎溪寺)의 파사석탑(婆娑石塔)은 옛날 이 마을이 금관국(金官國)이었을 때 세조(世祖) 수로왕(首露王)의 왕비(妃) 허황후 황옥(黃玉)이 동한(東漢) 건무 24년 갑신(甲申)년(48년)에 서역(西域)의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싣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양친의 명령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장차 동쪽으로 향하려다가 파도의 신(波神)의 노함을 만나 견디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에게 아뢰었더니 이 탑을 싣고 가게 하였다. 이에 무사히 건너 남쪽 해안에 도착하였는데 붉은 비단 돛(緋帆)과 진홍색 깃발(茜旗), 그리고 옥구슬(珠玉)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지금 주포(主浦)라 한다. 처음 언덕 위에서 비단바지를 벗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고 진홍색 깃발이 처음 들어오던 해안을 깃발이 나타난 해변이라는 기출변(旗出邊)이라 하였다. 수로왕이 맞아들여 함께 1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이때 해동(海東)에는 절을 세우고(創寺) 불법을 받드는 일(奉佛)이 없었으니 대개 불교가 전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착인들은 믿어 따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본기(本記)」에도 창사의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逮第八代銍知王二年壬辰 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在阿道訥祗王之世 法興王之前〉 至今奉福焉 兼以鎭南倭 具見本國本記. 塔方四面五層 其彫鏤甚奇 石微赤班色 其質良脆 非此方類也. 本草所云 點鷄冠血爲驗者 是也. 金官國亦名駕洛國 具載本記. 讚曰 載厭緋帆茜旆輕 乞靈遮莫海濤驚 豈徒到岸扶黃玉 千古南倭遏怒鯨.

제 8대 질지왕(銍知王)2년 임진[년](452년)에 이르러 그 땅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王后寺)를 창건하였는데 〈아도(阿道)와 눌지왕 때에 해당하니 법흥왕(法興王) 이전이다〉. 지금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의 왜(倭)를 누르고 있으니 모두 「본국본기(本國本記)」에 자세히 보인다. 탑은 모진 4면 5층탑인데 조각이 매우 기묘하고 돌은 조금 붉은 빛의 반점무늬가 있고 질이 연하고 좋아 이 자방에서 나는 종류가 아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이 말하는 바 닭 벼슬 피를 떨구어 시험한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금관국(金官國)은 가락국(駕洛國)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본기」에 실려 있다. 찬(讚)하여 말한다. 석탑(厭勝)을 실은 붉은 돛과 진홍빛 깃발이 가볍게 날린다. 신령께 빌었더니 성난 파도가 그치는 구나. 어찌 한갓 황옥(黃玉)의 도착만을 도왔을 것인가. 영원히 남쪽의 왜(倭)를 성난 고래로 막는구나

사료2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전략)… 婆娑石塔〈在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雕鏤甚奇 諺傳許后時物〉

…(전략)…파사석탑〈호계(虎溪) 변에 있다. 모두 5층이다.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긴 것이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허왕후 때의 물건이라고 한다〉

48년 가락국 관제를 정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一日上語臣下曰 九干等俱爲庶僚之長 其位與名 皆是宵人野夫之號 頓非簪履職位之稱 儻化外傳聞 必有嗤笑之耻. 遂改我刀爲我躬·汝刀爲汝諧·彼刀爲彼藏·五方爲五常 留水·留天之名 不動上字 改下字留功·留德 (神)(天)改爲神道 五天改爲五能 神鬼之音不易 改訓爲臣貴. 取雞林職儀 置角干·阿叱干·級干之秩. 其下官僚 以周判漢儀而分定之 斯所以革古鼎 新設官分職之道歟. 於是乎 理國齊家 愛民如子 其敎不肅而威 其政不嚴而理.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日之有月·陽之有陰 其功也塗山翼夏 唐煖興嬌.

하루는 왕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구간(九干)들이 다 모든 관료의 장(長)이지만 그 직위와 명칭이 모두 작고 촌스런 이름으로 귀하고 영화로운 칭호가 아니니 만일 밖으로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 하였다. 드디어 아도(我刀)를 아궁(我躬)으로 여도(汝刀)를 여해(汝諧)로, 피도(彼刀)를 피장(彼藏)으로, 오방(五方)을 오상(五常)으로 고치고, 유수(留水)와 유천(留天)의 이름은 위 글자는 그냥 두고 아래 글자를 고쳐 유공(留功)과 유덕(留德)으로 하고, 신천(神天)은 신도(神道)로, 오천(五天)은 오능(五能)으로 고치고, 신귀(神鬼)의 소리는 그대로 두고 그 뜻만 고쳐 신귀(臣貴)라 하였으며, 계림(鷄林)의 직제를 취하여 각간(角干), 아질간(阿叱干), 급간(級干)의 차례를 두고 그 아래 관료는 주(周)의 규례와 한(漢)의 제도로 정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옛 것을 고쳐 새로 새 것을 세우고 관직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었던 도리였던 것이다. 이에 나라가 다스려 지고 집안이 질서 있게 되고 인민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니, 그 교화는 엄숙치 아니하여도 위엄이 서고 그 정치는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왕이 왕후와 더불어 있는 것이 마치 하늘이 땅을, 해가 달을, 양(陽)이 음(陰)을 가진 것과 같고 그 공(功)은 도산(塗山)씨가 하(夏) 나라를 돕고 도당(陶唐)씨의 딸들(唐媛)이 수임금의 가문인 교씨(嬌氏)를 일으킴과 같았다.

사료2 **『증보문헌비고』** 권214 직관고1 |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十四 職官考一

[補]三國遺事 駕洛王金首露七年戊申 謂其臣曰 九干爲庶僚之長 而名稱鄙野 非簪履職位之稱. 遂改我刀爲我躬 汝刀爲汝諧 彼刀爲彼藏 五刀爲五常 留守爲留功 留天爲留德 神天爲神道 神鬼爲臣貴 五天爲五能.餘竝取新 羅職儀.

[보(補)] 『삼국유사』에 가락왕(駕洛王) 김수로(金首露) 7년 무신년(48년)에 [수로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9간(九干)은 모든 관리의 수장인데, 명칭이 촌스러워 존귀한 직위의 칭호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드디어 아도(我刀)를 아궁(我躬)으로, 여도(汝刀)를 여해(汝諧)로, 피도(彼刀)를 피장(彼藏)으로, 오도(五刀)를 오상(五常)으로, 유수(留水)를 유공(留公)으로, 유천(留天)을 유덕(留德)으로, 신천(神天)을 신도(神道)로, 신귀(神鬼)를 신귀(臣貴)로, 오천(五天)을 오능(五能)으로 고쳤다. 나머지는 아울러 신라의 직관 체계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사료3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戊申〉〈新羅儒理王二十四年 高句麗閔中王四年 百濟多婁王二十年 東漢光武帝建武二十四年〉 …(중략)… 駕洛王謂其臣曰 九干爲庶僚之長 而名稱鄙野 非簪履職位之稱. 遂改我刀爲我躬 汝刀爲汝諧 彼刀爲彼藏 五刀爲五常 留水爲留功 留天爲留德 神天爲神道 神鬼爲臣貴 五天爲五能 餘幷取新羅職儀.

〈무신(戊申)〉〈신라 유리왕 24년, 고구려 민중왕 4년, 백제 다루왕 20년, 광무 건무 24년(48년)〉 …(중략)… 가락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9간(九干)은 모든 관리의 수장인데, 명칭이 촌스러워 존귀한 직위의 칭호라 할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아도(我刀)를 아궁(我躬)으로, 여도(汝刀)를 여해(汝諧)로, 피도(彼刀)를 피장(彼藏)으로, 오도(五刀)를 오상(五常)으로, 유수(留水)를 유공(留功)으로, 유천(留天)을 유덕(留德)으로, 신천(神天)을 신도(神道)로, 신귀(神鬼)를 신귀(臣貴)로, 오천(五天)을 오능(五能)으로 고쳤다. 나머지는 아울러 신라의 직관 체계를 취하였다.

49년 거등왕이 탄생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그 해 큰 곰[웅비(熊羆)]을 얻는 꿈의 징조가 있더니, 태자(太子) 거등공(居登公)을 낳았다.

수로왕 대에 만어산 나찰녀를 제압하다(만어사 불법 효험 전설)

사료1 **『삼국유사』** 권3 탑상4 어산불영 |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魚山佛影

古記云 萬魚寺者 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當作摩耶斯 此云魚也〉 傍有呵囉國. 昔天卵下于海邊 作人御國 卽首露王. 當此時 境內有玉池 池有毒龍焉. 萬魚山有五羅刹女 往來交通. 故時降電雨 歷四年 五穀不成. 王呪禁 不能 稽首請佛說法 然後羅刹女受五戒 而無後害. 故東海魚龍 遂化爲滿洞之石 各有鍾磬之聲[已上古記]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만어사(萬魚寺)는 옛날의 자성산(慈成山) 또는 아야사산(阿耶斯山)〈아야사(阿耶斯)는 마땅히 마야사(摩耶斯)라 해야 할 것이니 곧 어(魚)라는 말이다〉인데, 그 옆에 가라국(呵羅國)이 있었다. 옛적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다. 당시 경내에 옥지(玉池)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속에 독룡(毒龍)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萬魚山)에 다섯 나찰녀(羅刹女)가 있어 왕래 교통하였기 때문에, 때로 번개와 비를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잘 익지 않았다. 왕이 주술로 이것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능히 막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처에 청하여 설법한 후에야 나찰녀가 오계(五戒)를 받아 그 뒤에는 재해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동해의 어룡(魚龍)이 마침내 동굴에 가득 찬 돌로 변하여 각기 종(鐘)과 경쇠(磬)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이상이 고기(古記)이다]

57~59년 탈해왕 때 신라가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복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도 | 『三國史記』 卷四十四 列傳四 居道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 爲干. 時 于尸山國 · 居柒山國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거도(居道)는 그의 족성(族性)이 전해지지 않아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때 벼슬하여 간(干)이 되었다. 그때, 우시산국(于尸山國; 울산)과 거칠산국(居柒山國; 동래)이 이웃 경계에 끼어 있어 자못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의 장관이 되어 속으로 병합할 생각을 가졌다. 매년 한 번씩 여러 말들을 장토(張吐)의 들에 모아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리면서 즐겨 놀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말아재(馬叔)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익숙해져 신라의 보통 있는 일이라 하며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

76년 수로왕, 신라를 침공하다

사료1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首露王三十五年 發兵侵新羅. 自玆以後二十餘年 戰爭不息. 辰韓 · 弁辰之截然爲二 良以此也.

수로왕(首露王) 35년(76년) 군대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였다, 이로부터 20여 년 간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니 진한(辰韓)과 변진(弁辰)이 갈라져 둘이 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77년 가야와 신라 황산진구에서 싸우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脫解王二十一年 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賞功也

탈해왕 21년(77년) 8월에 아찬(阿飡) 길문(吉門)이 가야병(加耶兵)과 황산나루 입구(黃山津口)에서 싸워 천여 급(級)을 얻었다. 길문을 파진찬(波珍飡)으로 삼아 그의 공로에 상을 주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丁丑 漢 建初二年 新羅 脫解王二十一年 高句麗 太祖王 二十五年 百濟多婁王五十年·己婁王元年〉 秋八月 新羅 阿飡吉門 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정축(丁丑)년(77년) 한(漢) 건초(建初) 2년 신라 탈해왕 21년 고구려 태조왕 25년 백제 다루왕 50년·기루왕 원년〉 가을 8월에 신라 아찬 길문(吉門)이 가야병과 황산나루 입구[黃山津口]에서 싸워 1천여 급을 얻었다.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아 공에 대한 상을 주었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丁丑 漢建初二年 新羅 脫解王二十一年 高句麗 太祖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五十年·己婁王元年〉 秋八月 新羅 阿飡吉門 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정축(丁丑)년(77년) 한(漢) 건초 2년, 신라 탈해왕 21년, 고구려 태조왕 25년, 백제 다루왕 50년·기루왕 원년〉 가을 8월에 신라 아찬 길문(吉門)이 가야병과 황산나루 입구에서 싸워 1천여 급을 얻었다.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사료4 **『동사강목』** 제1 하 삼국 | **『東史綱目』** 第一 下 三國

〈漢 建初二年[丁丑] 新羅 脫解王二十一年 高句麗 太祖王二十五年 百濟 多婁王五十年·己婁王元年〉 秋八月 鷄林 敗伽倻兵于黃山津.

〈정축[丁丑]년(77년) 한(漢) 건초 2년, 신라 탈해왕 21년, 고구려 태조왕 25년, 백제 다루왕 50년 · 기루왕 원년 〉 가을 8월에 신라[계림(鷄林)]가 가야병(伽倻兵)을 황산나루 입구[黃山津口]에서 깨뜨렸다.

사료5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云 脫解王二十一年〈漢章帝建初二年〉 秋八月 阿飡 吉門 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신라사(新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탈해왕 21년(77년)〈한(漢) 장제 건초 2년〉 가을 8월에 아찬 길문(吉門)이 가야병과 황산진(黃山津) 입구에서 싸워 포로 1천여 명을 얻었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 권217 직관고4 제부 충훈부 |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十七 職官考四 諸府 忠勳府

新羅置賞賜署 後改爲司勳監. [補]脫解王時.阿飡吉門 敗伽倻兵于黃山津 獲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賞功也. [補]眞興王二十三年 滅大伽倻. 策功軍副斯多含爲最 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含固辭. 王强之. 乃受之 以其田分於戰士 只取閼川不毛之地 生口放爲良人.

신라가 상사서(賞賜署)를 설치하였다. 뒤에 사훈감(司勳監)으로 고쳤다. [보(補)] 탈해왕 때 아찬(阿飡) 길문(吉門)이 황산진(黃山津)에서 가야병(伽倻兵)에게 이기고 1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길문을 파진찬(波珍飡)으로

삼아 공을 포상하였다. [보(補)] 진흥왕 23년(562년)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군공을 책정하는데 부지휘관인 사다함(斯多含)이 으뜸이었다. 상으로 좋은 토지와 포로 300명을 주었다. [사다]함이 거듭 사양하였으나 왕이 억지로 권하니 마침내 받았다. [그러나] 그 토지는 전사에게 나누어주고 단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을 취하였으며, 포로[生口]는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사료7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丁丑〉〈新羅脫解王二十年 高句麗太祖王二十四年 百濟多婁王四十九年 東漢章帝建初二年〉 秋八月 新羅阿飡吉門 與駕洛兵 戰於黃山津〈卽黃山江〉 獲一千餘級. 羅王拜吉門爲波珍飡 以賞其功. 按 東國通鑑紀駕洛事 於其某立某卒之外 皆依三國史本文 以加耶書之.時或以加羅 · 金官錯雜書之. 一國四名 不旣煩亂乎. 故今於其開國之初 一備書之然後就加耶等文 悉易以駕洛 俾讀者便焉.

〈정축(丁丑)〉〈신라 탈해왕(脫解王) 20년, 고구려 태조왕(太祖王) 24년, 백제 다루왕(多婁王) 49년, 동한(東漢) 장제 건초 2년(77년) 가을 8월에 신라 아찬[阿飡] 길문(吉門)이 가야의 군사와 황산진(黃山津)〈곧 황산강(黃山江)이다〉에서 싸워, 포로 1천여 명을 얻었다. 길문을 파진찬[波珍飡]으로 삼아 공을 포상하였다. 살펴보건대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가락(駕洛)의 일을 적은 것은 아무개가 왕위에 올랐다. 아무개가 죽었다는 기사 외에는 모두 『삼국사(三國史)』의 본문에 따라 가야(加耶)라고 썼다. 때때로 혹은 가라(加羅)나 금관(金官)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하나의 나라에 이름이 네 개이니 이미 번잡하고 어지럽지 않은가. 따라서 지금 개국 초에 한번 갖추어 써주고, 이후로는 가야(加耶) 등의 글을 모두 가락(駕洛)으로 바꾸어 읽는 사람에게 편하도록 하였다.

87년 신라, 가야에 대비해 가소·마두 2성을 쌓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 八年 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 有此國家 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파사이사금 8년(87년) 가을 7월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짐이 부덕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서쪽으로 백제를 이웃하고, 남쪽으로 가야(加耶)와 접하였다. 덕(德)은 능히 인민을 편안케 못 하고 위엄은 원방을 족히 두렵게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수선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 하였다. 이 달에 가소(加召) · 마두(馬頭)의 2성을 쌓았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丁亥 漢 章和元年 新羅 婆娑王八年 高句麗 太祖王三十五年 百濟 己婁王十一年〉 秋七月 新羅王下令曰 國家西隣百濟 南接加耶. 朕德不能綏 威不能讋 宜繕葺城壘 以備不虞.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정해(丁亥)년(87년) 한(漢) 장화 원년, 신라 파사왕 8년, 고구려 태조왕 35년, 백제 기루왕 11년〉 가을 7월에 신라왕이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나라가 서쪽으로 백제에 이웃해 있고, 남쪽으로 가야(加耶)에 접해 있는데, 짐의 덕이 능히 인민을 편안케 못 하고 위엄은 원방에 위엄 있게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수선하여 재난에 대비하라."하였다. 이 달에 가소(加召) · 마두(馬頭)의 2성을 쌓았다.

사료3 **『동국통감』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丁亥 漢 章和元年 新羅 婆娑王八年 高句麗 太祖王三十五年 百濟 己婁王十一年〉 秋七月 新羅令曰 國家西隣百濟 南接加耶. 朕德不能綏 威不能讋. 宜繕葺城壘 以備不虞. 乃築加召·馬頭二城.

〈정해(丁亥)년(87년) 한(漢) 장화 원년, 신라 파사왕 8년, 고구려 태조왕 35년, 백제 기루왕 11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나라가 서쪽으로 백제에 이웃해 있고 남쪽으로 가야(加耶)에 접해 있다. 짐의 덕이 능히 인민을 편안케 못 하고 위엄은 원방에 위엄 있게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수선하여 재난에 대비하라." 하고, 곧 가소(加召)·마두(馬頭) 2성을 쌓았다.

사료4 **『동사강목』제1 하 삼국 | 『東史綱目』第一 下 三國**

〈漢章和元年 [丁亥] 新羅婆娑王八年 高句麗太祖王三十五年 百濟己婁王十一年〉 秋七月 鷄林繕葺城壘. 王下令曰 國家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葺城壘 以待備侵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加召今居昌縣. 馬頭未詳〉.

〈한(漢) 장화 원년 정해[丁亥], 신라 피사왕 8년, 고구려 태조왕 35년, 백제 기루왕 11년〉 가을 7월에 계림(鷄林)이 성루를 수리하였다. 왕이 명령내리기를 국가가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인접하여, 덕으로 능히 편안히 하지 못하고 위엄으로 능히 두렵게 하지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보수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가소(加召)·마두(馬頭) 두 성〈가소는 지금 거창현(居昌縣), 마두는 미상〉을 쌓았다.

사료5 **『강역고』권2 변진별고 | 『疆域考』卷二 弁辰別考**

婆娑王八年 〈漢章帝末年〉秋 下令曰 國家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 築加召〈在居昌〉· 馬頭〈今未詳〉二城.

파사왕(婆娑王) 8년(87년)〈한(漢) 장제 말년〉 가을에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나라가 서쪽에는 백제가 남쪽에는 가야가 접해 있어 덕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고, 위세로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성채를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가소(加召)〈거창(居昌)에 있다〉와 마두(馬頭)〈지금[조선] 어디인지 알 수 없다〉두 성을 쌓았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권25 여지고13 관방1 성곽1 역대판축 | 『增補文獻備考』卷二十五 輿地考十三 關防一 城郭一 歷代版築**

[補]新羅婆娑王八年七月 築加召〈今居昌〉· 馬頭兩城. 下令曰 國家隣百濟 南接伽倻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葺城壘 以待侵軼.

[보(補)] 신라 파사왕 8년(87년) 7월에 가소(加召)〈지금의 거창(居昌)〉· 마두(馬頭) 두 성을 쌓았다. 영을 내리기를 국가가 서쪽으로는 백제, 남쪽으로는 백제와 접해 있다. [짐이] 덕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고, 위세로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성채를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사료7 **『역사집략』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丁亥〉〈新羅婆娑王七年 高句麗太祖王三十四年 百濟己婁王十年 東漢章帝章和元年〉 秋七月 新羅令曰 國家西隣百濟南接駕洛. 朕德不能綏 威不能譽.宜繕葺城壘 以備不虞. 乃築加召〈今居昌〉 馬頭二城.

〈정해(丁亥)〉〈신라 파사왕 7년, 고구려 태조왕 34년, 백제 기루왕 10년, 동한(東漢) 장제 장화 원년(87년)〉 가을 7월에 신라 [파사왕이] 서쪽으로는 백제와, 남쪽으로는 가락과 접해 있어, 짐이 덕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고, 위세로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성채를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가소(加召)〈지금의 거창(居昌)〉와 마두(馬頭) 두 성을 쌓았다.

일본신화와 숭신 시대 등의 조상전승을 주장하는 가야계통의 씨족들

사료1 **『신찬성씨록』** 제2 섭진국 신별 천신 | **『新撰姓氏錄』** 第二 攝津國 神別 天神

物部韓国連 伊香我色雄命之後也.

모노노베노카라쿠니노무라지(物部韓國連)는 [숭신 대의] 이카가시코오노미코토(伊香我色雄命)의 후예이다.

사료2 **『신찬성씨록』** 제1 섭진국 황별 | **『新撰姓氏錄』** 第一 攝津國 皇別

韓矢田部造 上毛野朝臣同祖 豊城入彦命之後也. 三世孫彌母里別命孫現古君. 氣長足比賣〈諡神功〉筑紫橿冰宮御宇之時 海中有物 差現古君遣見 復奏之曰 率韓蘇使主等參來. 因玆賜韓矢田部造姓. 日本紀漏.

카라야카베노미야츠코[韓矢田部造] 카미츠케노노아손[上毛野朝臣]과 조상이 같다. 토요키이리비코노미코토(豊城入彦命)의 후예이다. 3세손 미오와케노미코토[彌母里別命]의 손자는 우츠시코노키미(現古君)이다. 오키나가타라시히메[氣長足比賣]〈시호는 신공(神功)이다〉가 츠쿠시(筑紫)의 카사히노궁(橿冰宮)에서 천하를 다스릴 때, 바다 안에 물건이 있어 우츠시코노카미를 보내 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아뢰는 길에 카라소노오미(韓蘇使主) 등을 데리고 왔다. 이로 인해 카라야카베노미야츠코[韓矢田部造]의 성을 내려 주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빠져 있다.

사료3 **『신찬성씨록』** 제3 우경 제번 상 한 | **『新撰姓氏錄』** 第三 右京 諸蕃 上 漢

錦織村主 出自韓国人波努志也.

니시코리노스구리[錦織村主]는 카라쿠니(韓国) 사람인 하노시(波努志)로부터 나왔다.

사료4 **『신찬성씨록』** 제3 대화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大和國 諸蕃 任那

大伴造 出自任那国主龍主王孫佐利王也.

오오토모노미야츠코(大伴造)는 임나국(任那国) 임금(主) 용주왕(龍主王)의 손자 좌리왕(佐利王)의 후손이다.

사료5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백제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百濟

村主 葦屋村主同祖. 意寶荷羅支王之後也.

스구리(村主)는 아시야노스구리(葦屋村主)와 조상이 같다. 오호카라시왕(意寶荷羅支王)의 후손이다.

사료6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豊津造 出自任那国人左李金〈亦名佐羅利支已牟〉也.

토요츠노미야츠코(豊津造)는 임나국(任那国) 사람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佐利已牟)이다〉의 후손이다.

사료7 **『신찬성씨록』** 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韓人 豊津造同祖. 左李金〈亦名佐羅利已牟〉之後也.

카라히토(韓人)는 토요츠미야히코(豊津造)와 조상이 같다.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좌리기모(佐利已牟)]이다〉의 후손이다.

사료8 **『신찬성씨록』제3 섭진국 제번 임나 | 『新撰姓氏錄』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荒荒公 任那国豊貴王之後也.

아라라노키미(荒荒公)는 임나국(任那国) 호우키왕[풍귀왕(豊貴王)]의 후손이다.

사료9 **『신찬성씨록』미정잡성 우경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右京**

大辛 天押立命四世孫劒根命之後也.

오호카라(大辛)는 아메노오시타츠노미코토(天押立命)의 4세손인 츠루기네노미코토(劒根命)의 후손이다.

사료10 **『신찬성씨록』미정잡성 우경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右京**

加羅氏 百濟国人大都玖君之後也.

카라씨(加羅氏)는 백제국(百濟国) 사람 츠쿠노키미[도구군(都玖君)]의 후손이다.

사료11 **『신찬성씨록』미정잡성 대화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大和國**

長倉造 韓国天師命之後也.

나가쿠라노마야츠코[長倉造]는 카라쿠니아마시노미코토(韓国天師命)의 후손이다.

사료12 **『신찬성씨록』미정잡성 섭진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攝津國**

韓海部首 武內宿禰男平群木菟宿禰之後也.

카라아마노오비토(韓海部首)는 타케누치노스쿠네(武內宿禰)의 아들 헤구리노츠쿠노스쿠네[平群木菟宿禰]의 후손이다.

사료13 **『신찬성씨록』미정잡성 하내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河內國**

三間名公 仲臣雷大臣命之後也.

미마나노키미(三間名公)는 나카토미노이카츠노오오미노미코토[仲臣雷大臣命]의 후손이다.

사료14 **『신찬성씨록』미정잡성 하내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河內國**

竹原連 新羅国 阿羅羅国主弟伊賀都君之後也.

타카하라노무라지(竹原連)는 신라국(新羅国) 아라라국(阿羅羅国) 임금(主)의 동생인 이카츠노키미(伊賀都君)의 후손이다.

사료15 **『신찬성씨록』미정잡성 하내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河內國**

大賀良 新羅国良子王之後也.

오호카라(大賀良)는 신라국(新羅国) 로시왕[량자왕(良子王)]의 후손이다.

사료16 **『신찬성씨록』미정잡성 하내국 |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河內國**

賀良姓 新羅国良子王之後也.

카라세이(賀良姓)는 신라국(新羅国) 로시왕[량자왕(良子王)]의 후손이다.

87년경(또는 기원전 33년경) 임나국 소나갈질지를 파견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5 숭신천황 | 『日本書紀』 卷五 崇神天皇

崇神天皇 六十五年 秋七月 任那国遣蘇那曷叱智 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国 二千餘里. 北阻海 以在鷄林之西南.

숭신천황 65년(기원전 33년) 가을 7월에 임나국(任那国)이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를 보내 조공케 하였다. 임나란 것은 츠쿠시국(筑紫国)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는데, 북쪽에 바다로 막혀 있으며[阻海],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91년경(또는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카라 전승

사료1 『일본서기』 권1 제8단 1서 제3 | 『日本書紀』 卷一 第八段 一書 第三

一書曰 素戔鳴尊欲幸奇稻田媛而乞之. 脚摩乳·手摩乳對曰 請先殺彼蛇 然後幸者宜也. 彼大蛇每頭各有石松 兩脇有山 甚可畏矣. 將何以殺之. 素戔鳴尊乃計釀毒酒以飮之 蛇醉而睡. 素戔鳴尊 乃以蛇韓鋤之劒 斬頭斬腹. 其斬尾之時 劒刃少缺 故裂尾而看卽別有一劒焉 名爲草薙劒. 此劒昔在素戔鳴尊許 今在於尾張国也. 其素戔鳴尊斷蛇之劒 今在吉備神部許也. 出雲簸之川上山 是也.

어떤 책에는 말하였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가 쿠시이나다히메(奇稻田媛)와 결혼하려고 청하니 아니나즈치(脚摩乳)와 데나즈치(手摩乳) 대답해 말하기를 "바라건대 먼저 저 뱀을 죽이십시오. 그런 다음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뱀 오로치(大蛇)뱀은 머리 마다 돌소나무[石松]가 나 있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산(山)이 있어 매우 무섭습니다. 장차 무엇을 가지고 죽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가 꾀를 내어 독한 술을 빚어서 그에게 먹였다. 뱀이 취하여 잠이 들자 스사노오노미코토가 뱀을 카라사히노츠루기(韓鋤劍)로 머리와 배를 베었다. 그 꼬리를 잘랐을 때 칼날이 조금 이지러졌다. 그래서 그 꼬리를 가르고 들여다보니 따로 칼 한 자루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쿠사나기노츠루기(草薙劍)라 하였다. 이 칼은 옛날에 스사노오노미코토가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8세기)은 오와리국(尾張国)에 있다. 스사노오노미코토가 뱀을 베었던 칼은 지금 키비(吉備)의 카무도모노오(神部)에 있는데 이즈모국(出雲国)의 히노강(簸川) 가의 산이 바로 이 곳이다.

91년경(또는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신라 전승

사료1 『일본서기』 권1 제8단 1서 제4 | 『日本書紀』 卷一 第八段 一書 第四

一書曰 素戔鳴尊所行無狀. 故諸神 科以千座置戸而遂逐之. 是時 素戔鳴尊帥其子五十猛神 降到於新羅国 居曾尸茂梨之處. 乃興言曰 此地吾不欲居 遂以埴土作舟乘之東渡 到出雲国簸川上所在鳥上之峯. 時彼處有呑人大蛇 素戔鳴尊乃以天蠅斫之劒斬彼大蛇. 時斬蛇尾而刃缺 卽擘而視之 尾中有一神劒. 素戔鳴尊曰 此不可以吾私用也. 乃

遺五世孫天之葺根神上奉於天. 此今所謂草薙劒矣. 初五十猛神天降之時 多將樹種而下 然不殖韓地盡以持歸. 遂始自筑紫. 凡大八洲国之內 莫不播殖而成青山焉. 所以稱五十猛命爲有功之神 卽紀伊国所坐大神是也.

다른 책에 말하기를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의 행실이 매우 버릇이 없으므로 여러 신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 속죄하는) 무쿠라오키토(千座置戶)의 벌을 내리고 마침내 쫓아내었다. 이때 스사노오노미코토는 그의 아들 이타케루노카미[五十猛神]를 데리고 신라국(新羅国)에 내려가 소시모리(曾尸茂梨; 서라벌)란 곳에 살았다.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하고 찰흙으로 배를 만들어 그것을 타고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이즈모노쿠니(出雲国) 히노강(簸川) 가에 있는 토리카미노타케(鳥上峯)에 도착했다. 그때 그곳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 오로치(大蛇)가 있었다.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아마노하하키리노츠루기(天蠅斫劍)로 오로치를 베어 죽였다. 뱀의 꼬리를 베었을 때 칼날이 이지러졌으므로 꼬리를 쪼개어 보니 꼬리 가운데 한 자루의 신령스러운 칼이 있었다.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이것은 내가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 하고는 5세손 아마노후키네노카미(天之葺根神)를 보내어 하늘에 바쳤다. 이것이 지금의 이른바 쿠사나기노츠루기(草薙劍)이다. 처음에 이타케루노카미(五十猛神)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무의 종자를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러나 카라쿠니(韓地)에는 심지 않고 모두 가지고 돌아와 마침내 츠쿠시(筑紫)부터 오호야시마노쿠니(大八洲国) 안에 심어 푸른 산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이타케루노카미노미코토(五十猛命)를 일컬어 공(功)이 있는 신(神)이라 하는데, 키노쿠니(紀伊国)에 모셔진 오오카미(大神)가 바로 이것이다.

91년경(또는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카라쿠니 전승

사료1 **『일본서기』 권1 제8단 1서 제5 | 『日本書紀』 卷一 第八段 一書 第五**

一書曰 素戔嗚尊曰 韓鄉之嶋 是有金銀. 若使吾兒所御之国. 不有浮寶者 未是佳也. 乃拔鬚髯散之 卽成杉. 又拔散胸毛 是成檜. 尻毛是成柀. 眉毛是成櫲樟. 已而定其當用. 乃稱之曰 杉及櫲樟 此兩樹者 可以爲浮寶. 檜可以爲瑞宮之材. 柀可以爲顯見蒼生奧津棄戶將臥之具. 夫須噉八十木種皆播生. 于時素戔嗚尊之子 號曰五十猛命 妹大屋津姬命. 次抓津姬命. 凡此三神亦能分布木種 卽奉渡於紀伊国也. 然後素戔嗚尊居熊成峯 而遂入於根国者矣. 棄戶 此云須多杯. 柀 此云磨紀.

어떤 책에는 말하였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가 카라쿠니(韓鄉)의 섬에는 금은(金銀)이 있다. 만약 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배가 없으면 좋지 않다 하고 수염을 뽑아 뿌리니 삼나무(杉)가 되었다. 또 가슴 털을 뽑아 뿌리니 이것이 편백나무(檜)가 되었고 꽁무니의 털은 비자나무(柀)가 되었으며 눈썹의 털은 녹나무(樟)가 되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의 쓰임새를 정하여 이르기를 삼나무와 녹나무 이 두 가지 나무는 배 만드는 데 쓸 만하고, 편백나무는 상서로운 궁전을 짓는 재목으로 쓰며, 비자나무는 천하의 백성들이 장사지낼 때 죽은 이를 눕히는 도구로 쓸 만하다. 또 모름지기 먹을 수 있는 80종의 나무를 모두 심으라고 하였다. 이 때 스사노오노미코토의 아들 이타케루모미코토[五十猛命]와 그의 누이 오호야츠히메노미코토[大屋津姬命] 그 다음인 츠마츠히메노미코토[抓津姬命], 이 3명의 신(神) 역시 나무종자를 나누어 퍼뜨릴 수 있었으므로 명을 받들어 키노쿠니(紀伊国)로 건너갔다. 그 후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쿠마나리노타케(熊成峯)에 살다가 마침내 (황천국의) 네노쿠니(根国)로 들어갔다. 기호(棄戶)는 우리말로 스타헤(須多杯)라 부른다. 피(柀)는 마키(磨紀)라 한다.

92년경(또는 기원전 28년경)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귀국을 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6 수인천황 | 『日本書紀』 卷六 垂仁天皇**

二年 是歲 任那人蘇那曷叱智請之 欲歸于国. 蓋先皇之世來朝未還歟. 故敦賞蘇那曷叱智 仍齎赤絹一百疋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国之怨始起於是時也. 〈一云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泊于越国笥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 問之曰 何国人也. 對曰 意富加羅国王之子 名都怒我阿羅斯等. 亦名曰于斯岐阿利叱智于岐. 傳聞日本国有聖皇. 以歸化之. 到于穴門時 其国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吾則是国王也. 除吾復無二王. 故勿往他處. 然臣究見其爲人 必知非王也. 既更還之. 不知道路留連嶋浦 自北海廻之. 經出雲国至於此間也. 是時遇天皇崩 便留之. 仕活目天皇逮于三年 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 欲歸汝国耶. 對諮 甚望也. 天皇詔阿羅斯等曰 汝不迷道必速詣之. 遇先皇而仕歟. 是以改汝本国名 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国名. 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 返于本土 故號其国謂彌摩那国. 其是之緣也. 於是 阿羅斯等以所給赤絹藏于己国郡府 新羅人聞之 起兵至之 皆奪其赤絹. 是二国相怨之始也〉

2년 이 해에 임나인(任那人)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가 나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대개 선황의 세대에 와서 돌아가지 못한 것인가. 그러므로 소나알질지에게 많은 상을 주고 붉은 비단 1백 필을 가지고 임나왕에게 주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인이 길을 막고 그것을 빼앗았다. 그 두 나라의 원한은 이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다.〈일설은 다음과 같다. 미마키스메라미코토(御間城天皇; 崇神天皇) 때에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한 척의 배에 타고 코시노쿠니(越国)의 게히노우라(笥飯浦)에 와서 정박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츠누가(角鹿)라 이름하였다. 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고 물으니, 오호가라국왕(意富加羅国王)의 아들로 이름은 츠누가노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또는 우시키아리시치칸키[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 하였다. 야마토노쿠니(日本国)에 훌륭한 임금이 있다고 전해 들어 귀화하려 한다고 하였다. 아나토(穴門)에 도착했을 때, 그 나라에 이츠츠히코[伊都都比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신(臣)에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 말고는 다시 두 왕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 사람 됨을 자세히 보니 분명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곧 다시 그곳을 물러났으나 길을 몰라 섬과 포구를 오랫동안 맴돌다가 북해(北海)로부터 돌아 이즈모노쿠니(出雲国)를 거쳐 이곳에 왔다고 하였다. 그때 천황의 장례를 만나 머물러 이쿠메노스메라미코토(活目天皇; 垂仁天皇)에게 벼슬하여 3년에 이르렀다. 천황이 츠누가노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묻자, "매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천황이 아라시토(阿羅斯等)에게 네가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왔다면 선황을 뵙고 모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본국의 이름을 바꾸되 미마키(御間城)천황의 이름을 따서 너희 나라 이름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붉은 비단(赤織絹)을 아라시토(阿羅斯等)에게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나라 이름을 미마나노쿠니(彌摩那国)라 부르게 된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다. 이에 아라시토는 받은 붉은 비단을 자기 나라의 구부(郡府)에 간직하였는데, 신라인들이 듣고 군대를 일으켜 와서 그 붉은 비단을 모두 빼앗았다. 이것이 두 나라가 서로 원한을 맺은 시작이다〉

〈一云 初都怒我阿羅斯等 有国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教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授牛主 因以將來置于寢中 其神石化美麗童女. 於是 阿羅斯等大歡之欲合 然阿羅斯等去他處之間 童女忽失也. 阿羅斯等大驚之. 問己婦曰 童女何處去矣. 對曰 向東方 則尋追求 遂遠浮海以入日本国. 所求童女者 詣于難波爲比賣語曾社神 且至豐国国前郡 復爲比賣語曾社神 並二處見祭焉〉

〈일설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츠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 황소에 농기구를 싣고 밭에 가려는데, 황소가 갑자기 없어져 그 자취를 찾아보니 발자취가 한 군청(郡家)에 머물렀다. 당시 한 노인이 말하기를 네가 찾는 소가 이 군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군수 등이 소가 짊어진 물건으로 미루어 보니 반드시 죽여서 먹으려는 것이다. 만약 그 주인이 찾으러 오면 물건으로 배상하자 하고 곧 죽여서 먹었다. 만약 소 값으로 어떤 물건을 얻기를 바라는지 물으면 재물을 바란다고 하지 말고, 군(郡)에서 제사지내는 신(神)을 얻고자 할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얼마 후 군수(郡公) 등이 와서 소 값으로 어떤 물건을 얻기를 바라는가 라고 묻자 노인이 가르쳐 준대로 대답하였다. 그들이 제사지내는 신은 흰 돌이었다. 흰 돌을 소 값으로 주었으므로 가지고 와서 침실 속에 두었더니, 그 신돌(神石)이 아름다운 여자아이(童女)로 변하였다. 이에 아라시토(阿羅斯等)가 크게 기뻐하여 동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아라시토가 다른 곳에 간 동안 동녀가 갑자기 없어졌다. 아라시토가 크게 놀라 자기 부인에게 여자아이가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동방(東方)을 향해 갔다고 대답하였다. 곧 찾기 시작하여 드디어 멀리 바다에 떠서 야마토노쿠니(日本国)에 들어갔다. 그가 찾던 동녀는 나니와(難波)에 나아가 히메코소야시로(比賣語曾社)의 신(神)이 되었고 또 토요쿠니(豊国)의 쿠니사키군(国前郡)에 이르러 다시 히메코소야시로(比賣語曾社)의 신(神)이 되어 두 곳에서 함께 제사를 받았다〉

사료2 **『신찬성씨록』 제3 좌경 제번 하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左京 諸蕃 下 任那**

大市首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

오호치노오비토(大市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사료3 **『신찬성씨록』 제3 좌경 제번 하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左京 諸蕃 下 任那**

清水首 出自任那國人都怒何阿羅志止也.

시미즈즈노오비토(清水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사료4 **『신찬성씨록』 제3 우경 제번 상 임나 | 『新撰姓氏錄』 第三 右京 諸蕃 上 任那**

辟田首 出自任那國都奴加阿羅志等也.

히라타노오비토(辟田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

사료5 **『신찬성씨록』 제3 미정잡성 | 『新撰姓氏錄』 第三 未定雜姓**

三間名公 彌麻奈国主牟留支王之後也. 初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諡崇神〉御世 額有角人 乘船泊于越国笥飯浦. 遣人問曰 何国人也. 對曰 意富加羅国王子 名都努我阿羅斯等 亦阿利叱智干岐. 傳聞日本国有 聖歸化. 到于穴門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吾是国王也. 除吾復無二王 勿往他處. 臣察其爲人 知非王也. 卽更還不知道路 留連島浦 海北廻經出雲国 至此国也. 是時 會天皇崩 便留仕活目入彦五十狹茅天皇〈諡垂仁〉詔曰 汝速來者 得仕先皇. 是以改汝本国名 追負御間城諡號 曰彌麻奈. 因給織卽還本鄕. 是改国號之緣也.

미마나노카무키(三間名公)는 미마나국(彌麻奈国) 임금 모루시왕(牟留支王)의 후예이다. 처음에 미마키이리히코노이니에노스메라미코토[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시호는 숭신(崇神)이다〉 시대에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있어 배를 타고 코시노쿠니(越国) 게히노우라(笥飯浦)에 와서 정박하였다. 사람을 보내 묻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 대답해 말하기를 오호가라국(意富加羅国) 왕자로 이름은 츠누가아라시토[都努我阿羅斯等]라 하며 또는 아리시치칸키(阿利叱智干岐)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야마토노쿠니(日本国)에 훌륭한 임금이 있다고 전해 들어 아나토(穴門)에 도착하니 이츠츠히코[伊都都比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臣)에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 말고는 다시 두 왕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갈 것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아님을 알고, 곧 다시 돌아 왔으나 길을 몰라 섬과 포구를 연달아 머물다가 북해(北海)를 돌아 이즈모노쿠니(出雲国)를 거쳐 이 나라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때 천황의 장례

를 만나 머물러 이쿠메노스메라미코토(活目天皇; 垂仁天皇)에게 머무니, 조(詔)를 내려 말하기를 네가 빨리 왔으면 선황을 뵙고 모셨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본국의 이름을 바꾸되 미마키(御間城)천황의 이름을 좋게 불러 미마나(彌麻奈)로 하라 하였다. 그리고 비단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이 국호를 고쳤던 인연이다.

사료6 **『신찬성씨록』 제1 좌경 황별 하 | 『新撰姓氏錄』 第一 左京 皇別 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謚孝昭〉皇子天帶彦国押人命四世孫彦国葺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国 奏曰 臣国東北有 三己汶地〈上己汶 · 中己汶 · 下己汶〉 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 與新羅国相爭 彼此不能攝治. 兵戈相尋 民不聊生. 臣請將軍令治此地. 卽位貴国之部也. 天皇大悅 勅群卿令奏應遣之人. 卿等奏曰 彦国葺命孫塩垂津彦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因號松樹君〉. 其長五尺 力過衆人 性亦勇悍也. 天皇令塩垂津彦命遣 奉勅而鎭守. 彼俗稱宰爲吉. 故謂其苗裔之姓 爲吉氏. 男從五位下知須等 家居奈良京田村里. 仍天璽国押開豊櫻彦天皇〈謚聖武〉 神龜元年 賜吉田連姓〈吉本姓田取居地名也〉. 今上 弘仁二年 改賜宿禰姓也. 續日本記合.

키치타노무라지(吉田連)는 오오카스가노아손[大春日朝臣祖]과 조상이 같다. 미마츠히코카에시네노스메라미코토[觀松彦香殖稻天皇]〈시호는 효소(孝昭; 재위 809~823년)이다〉의 미코[황자(皇子)]인 아메타라시히코쿠니오시히토노미코토[天帶彦国押人命] 4세손인 히코쿠니부쿠노미코토[彦国葺命]의 후예이다. 옛날에 시키노미즈카키노궁(磯城瑞籬宮)에서 천하를 다스린 미마키이리히코노스메라미코토[御間城入彦天皇] 시대에 임나국(任那国)이 아뢰어 말하기를 신(臣)의 나라 동북쪽에 세 기문(己汶)의 땅이 있습니다〈상기문(上己汶) · 중기문(中己汶) · 하기문(下己汶)이다〉 땅은 사방 3백리로 토지와 인민이 또한 부유하고 풍요롭습니다. 신라국(新羅国)과 서로 다투어 피차 차지해서 다스릴 수가 없고 전쟁으로 서로 침범하니 인민들이 즐기며 살수가 없습니다. 신(臣)이 청컨대 장군(將軍)을 시켜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귀국(貴国)의 베(部)로 삼겠습니다." 천황이 크게 기뻐하며 경들(群卿)에게 칙을 내려 보내기에 적합한 사람을 아뢰도록 경(卿)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 "히코쿠니부쿠노미코토(彦国葺命)의 손자 시오타리츠히코노미코토[塩垂津彦命]가 머리에 혹이 있는데 세 개의 가지가 나서 마치 소나무와 같았다〈그래서 마츠키노키미(松樹君)라 불렀다〉 그 키가 5척이나 되고 힘이 뭇 사람보다 세며 성정이 용맹스럽습니다."고 하였다. 천황이 시오타리츠히코노미코토[塩垂津彦命]를 보내 칙을 받들어 머물러 지키(鎭守)게 하였다. 저들 풍속에 미코토모치(宰)를 키치(吉)라 한다. 그런 까닭에 그 후예의 성(姓)을 키치씨(吉氏)로 하였다. 아들 종5위 하의 치스(知須) 등은 나라경(奈良京)의 타무라노사토(田村里)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에 아메시루시쿠니오시하루키토요사쿠라노히코노스메라미코토[天璽国押開豊櫻彦天皇]〈시호는 성무(聖武)이다〉가 진키(神龜) 원년(724년)에 키치타노무라지(吉田連)의 카바네(姓)를 내려 주었다〈키치(吉)는 본래의 성(姓)이고 타(田)는 거주지 이름을 취하였다〉 지금 천황의 코우닌(弘仁) 2년(811년)에 스쿠네(宿禰)의 카바네(姓)로 고쳐 주었다. 『속일본기』에 부합한다.

94년 가야, 신라의 마두성을 포위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十五年 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湌吉元 將騎一千擊走之.

파사이사금 15년(94년) 봄 2월에 가야적(加耶賊)이 마두성(馬頭城)을 포위하여 아찬(阿湌) 길원(吉元)을 보내 기병 1천을 인솔케 하여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甲午 漢永元六年 新羅婆娑王十五年 高句麗太祖王四十二年 百濟己婁王十八年〉 春二月 加耶兵圍新羅馬頭城. 新羅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갑오년(94년) 한(漢) 영원 6년, 신라 파사왕 15년, 고구려 태조왕 42년, 백제 기루왕 18년〉 봄 2월에 가야병(加耶兵)이 마두성을 포위하여 아찬 길원을 보내 기병 1천을 인솔케 하여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甲午 漢永元六年 新羅婆娑王十五年 高句麗太祖王四十二年 百濟己婁王十八年〉 春二月 加耶兵圍新羅馬頭城. 新羅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갑오년(94년) 한(漢) 영원 6년, 신라 파사왕 15년, 고구려 태조왕 42년, 백제 기루왕 18년〉 봄 2월에 가야병(加耶兵)이 마두성을 포위하여 아찬 길원을 보내 기병 1천을 인솔케 하여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사료4 **『역대기년』** 권 하 동방35국 | **『歷代紀年』** 卷 下 東方三十五國

加耶國〈和帝 永元六年甲午 加耶兵圍馬頭城 新羅擊走之〉

가야국(加耶國)〈화제(和帝) 영원 6년(94년) 갑오년에 가야병이 마두성을 포위하자 신라가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사료5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婆娑王]十五年〈漢和帝六年〉 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 擊走之.

[파사왕]15년(94년)〈한(漢) 화제 6년〉 봄 2월에 가야적(加耶賊)이 마두성(馬頭城)을 포위하여 아찬(阿飡) 길원(吉元)을 보내 기병 1천을 이끌게 하여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96년 가야, 신라의 남경을 공략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十七年 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出戰敗之 虜獲甚多.

파사이사금 15년(96년) 9월에 가야인(加耶人)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니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 막게 했으나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해 깨뜨렸는데 사로잡고 빼앗은 것이 심히 많았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丙申 漢永元八年 新羅婆娑王十七年 高句麗太祖王四十四年 百濟己婁王二十年〉 九月 加耶人襲新羅南鄙. 遣加城主長世 拒之 戰敗死. 王怒 親率勇士五千 出戰破之 虜獲甚多.

〈병신년(96년) 한(漢) 영원 8년, 신라 파사왕 17년, 고구려 태조왕 44년, 백제 기루왕 20년〉 가을 9월에 가야인(加耶人)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니 가성주 장세를 보내 막았으나 패하고 전사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해 깨뜨렸는데 사로잡고 빼앗은 것이 심히 많았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丙申 漢永元八年 新羅婆娑王十七年 高句麗太祖王四十四年 百濟己婁王二十年〉秋九月 加耶人襲新羅南鄙. 新羅遣加城主長世 拒之. 戰敗死. 王怒 親率勇士五千 出戰破之. 虜獲甚多.

〈병신년(96년) 한(漢) 영원 8년, 신라 파사왕 17년, 고구려 태조왕 44년, 백제 기루왕 20년〉 9월에 가야인(加耶人)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니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 막았으나 패하고 전사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해 깨뜨렸는데 사로잡고 빼앗은 것이 심히 많았다.

사료4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婆娑王]十七年 秋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出戰敗之 虜獲甚多.

[파사왕]17년(96년) 가을 9월에 가야인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 막게 하였는데, 적에게 살해당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명을 거느리고 출전해 사로잡고 빼앗은 것이 심히 많았다.

97년 신라, 가야정벌계획을 중지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十八年 春正月 新羅擧兵 欲伐加耶 其國主遣使謝罪 乃止.

파사이사금 18년(97년) 봄 정월에 가야(加耶)를 정벌하기 위해 병을 일으키니 그 나라 임금(國主)이 사신을 보내 사과하기에 멈추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丁酉 漢永元九年 新羅婆娑王十八年 高句麗太祖王四十五年 百濟己婁王二十一年〉春正月 新羅擧兵 欲伐加耶 加耶國主遣使謝罪 乃止.

〈정유년(97년) 한(漢) 영원 9년, 신라 파사왕 18년, 고구려 태조왕 45년, 백제 기루왕 21년〉 봄 정월에 가야(加耶)를 정벌하기 위해 병을 일으켰으나 가야국주(加耶國主)가 사신을 보내 사과하기에 멈추었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丁酉 漢永元九年 新羅婆娑王十八年 高句麗太祖王四十五年 百濟己婁王二十一年〉春正月 新羅擧兵 欲伐加耶. 加耶國主遣使謝. 乃止.

〈정유년(97년) 한(漢) 영원 9년, 신라파사왕 18년, 고구려 태조왕 45년, 백제 기루왕 21년〉 봄 정월에 가야를 정벌하기 위해 병을 일으켰으나 가야국주가 사신을 보내 사과하였다. 멈추었다.

사료4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婆娑王十八年 以國家 西隣百濟 南接伽倻 築加召·馬頭二城.加召 卽今居昌縣 馬頭 未詳地分 而似是馬利縣 即今安義所屬廢縣利安也. 觀於此則 西至地理山者 可知.

파사왕 18년(97년)에 국가가 서쪽으로는 백제, 남쪽으로는 가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소(加召)·마두(馬頭) 두 개의 성을 쌓았다고도 하였습니다. 가소는 곧 지금[조선]의 거창현(居昌縣)입니다. 마두는 지역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현(馬利縣)인 듯하니, 곧 지금의 안의(安義) 소속의 폐현(廢縣)인 이안(利安)입니다. 이를 본다면, 서쪽으로 지리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5 **『강역고』권2 변진별고 | 『疆域考』卷二 弁辰別考**

[婆娑王] 十八年 擧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파사왕] 18년(97년) 병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그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다. 이에 그쳤다.

鏞案 黃山津者 潢水入海之口也. 在今梁山郡西十餘里. 與金官府隔水相望. 二國之戰旣在黃山津口 則加耶者金官也.
又按 加召城 所以備百濟也. 馬頭城 所以備加耶也. 今淸道郡東百餘里有馬谷山 在慶州之南. 馬頭城 或在此山之頭也.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황산진(黃山津)은 황수(潢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로 지금[조선]의 양산군(梁山郡)서쪽 10여 리에 있으며, 금관부(金官府)와는 강을 건너 서로 바라보는 곳이다. 두 나라의 전쟁이 황산진 입구에서 있었다면 [그때의] 가야는 금관가야이다.

其後五 · 六年 迦羅 · 新羅 忽有和睦之跡. 意者 婆娑王中年 迦羅乞和 而暫相親附也.

그 후 5~6년 간 가라(迦羅)와 신라(新羅)가 느닷없이 화목했던 흔적이 있는데, 생각해보건대 파사왕(婆娑王) 중년에 가라(迦羅)가 화해를 청하여 잠깐 서로 친해졌던 것이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新羅婆娑王十八年 王欲征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신라 파사왕 18년(97년)에 왕이 가야(加耶)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그 나라 임금(主)이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하기에 그만두었다.

사료7 **『역사집략』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丁酉〉〈新羅婆娑王十七年 高句麗太祖王四十四年 百濟己婁王二十年 東漢和帝永元九年〉 先是駕洛國人襲新羅南鄙. 羅王遣加城主長世 拒之. 戰敗死. 羅王怒 親帥勇士五千 出戰破之 虜獲甚多. 春正月 又欲擧兵 伐之.駕洛王懼 遣使謝. 乃止.

〈정유(丁酉)〉〈신라 파사왕 17년, 고구려 태조왕 44년, 백제 기루왕 20년, 동한(東漢) 화제 영원 9년(97년)〉 이에 앞서 가락국 사람들이 신라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신라왕이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어 막게 하였으나 패전하여 죽었다. 신라왕이 노하여 스스로 용사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깨뜨리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봄 정월에 또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고자 하였다. 가락왕이 두려워서 사신을 보내 사과하기에 그만두었다.

102년 수로왕, 신라에 가서 국경분쟁을 조정해 주다

사료1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

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湌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 · 押督二國王來降.

파사이사금 23년(102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이 실직곡국(悉直谷國)과 국경을 다투어 [신라]왕에게 와서 결정을 청하니 왕이 이를 난처히 여겨 이르기를 "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이 연로하고 지식이 많다." 하여 그를 불러 물었다. 수로가 의논을 중재해 분쟁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은 6부에 명해 모여 수로를 접대[향연(饗宴)]할 때, 6부 중에 5부가 모두 이찬(伊湌)으로 (접대의) 주(主)를 삼았으나 오직 한지부(漢祇部)만 위계가 낮은 자로 주관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종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해 한지부주(漢祇部主)인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종은 도망하여 음즙벌주(音汁伐主) 타추간(陁鄒干)의 집에 머물렀다. 신라왕이 사람을 보내 그 종을 수색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지 아니하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임금(主)이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悉直) · 압독(押督)의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壬寅 漢永元十四年 新羅婆娑王二十三年 高句麗太祖王五十年 百濟己婁王二十六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新羅王 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決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以饗首露. 五部皆以伊湌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晼下里 執漢祇部主保齊而殺之. 奴不從 逃依音汁伐主陁鄒家. 首露使人索其奴. 不送. 首露怒 以兵伐之. 陁鄒與其衆降.

〈임인[년](102년), 한(漢) 영원 14년, 신라 파사왕 23년, 고구려 태조왕 50년, 백제 기루왕 26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이 실직곡국(悉直谷國)과 경계를 다투어 신라왕에게 나아가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금관국(金官國)의 수로왕(首露王)은 연로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고 불러 물으니 수로왕이 즉석에서 판결해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5부가 모두 이찬(伊湌)으로써 접빈을 주관케 하였으나 오직 한지부(漢祇部)만 지위가 낮은 자로 주관케 하였다. 수로왕이 노하여 종인 완하리(晼下里)로 하여금 한지부주 보제(保齊)를 잡아 죽이도록 하였으나 종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쳐 음집벌주 타추(陁鄒)의 집에 의지하였다. 수로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지 않으니 수로왕이 노해 군사를 이끌고 음집벌국을 치자 타추가 그 무리와 함께 항복하였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동국통감』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壬寅 漢永元十四年 新羅婆娑王二十三年 高句麗太祖王五十年 百濟己婁王二十六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新羅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決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以饗首露. 五部皆以伊湌儐之 唯漢祇部 以位卑者儐之. 首露怒 命奴晼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 · 押督二國王來降.

〈임인[년](102년), 한(漢) 영원 14년, 신라 파사왕 23년, 고구려 태조왕 50년, 백제 기루왕 26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경계를 다투다가 신라왕에게 나아가 판결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이 나이가 많고 식견이 많으니 그를 불러 물었다. 수로왕이 즉시 판결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했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접대하게 하였다. 5부가 모두 이찬으로 접대케 하였으나 오직 한지부(漢祇部)만 지위가 낮은 자로 인도하게 하므로 수로왕이 노하여 종인 완하리(晼下里)에게 명해 한지부주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종이 도망하여 음집벌주 타추간(陁鄒干)의 집에 의지하였는데, 왕이 사람을 시켜 종을 찾았으나 타추간이 돌려보내지 않았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집벌국을 치니 그 주가 무리와 더불어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悉直) · 압독(押督) 두 나라가 신라에 항복하였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首露]六十一年 秋八月 音汁伐國〈今屬與慶州安康縣〉與悉直谷國〈今三陟府〉爭疆 詣新羅請決. 王難之 謂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決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以饗首露. 五部皆以伊湌儐之 唯漢祇部 以位卑者儐之. 首露怒 命奴畹〈音浣〉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수로]61년 가을 8월 음즙벌국(音汁伐國)〈지금 경주 안강현에 속해 있다〉과 실직곡국(悉直谷國)〈지금의 삼척부이다〉이 경계를 다투어 신라를 찾아 결정을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수로왕(首露王)이 연로하고 지식이 많으니 불러 물었다. 수로가 결정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를 대접하게 하였다. 5부 모두가 이찬(伊湌)으로 대접하였으나 오직 한지부(漢祇部)만이 위계가 낮은 자로 접대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노비인 완(畹)〈음은 완(浣)이다〉하리(下里)를 보내 한지부주(漢祇部主)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사료5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首露之世 黎民太康 四方來則之 有音汁伐與悉直谷 爭地相攻伐 兩國爭質於新羅. 新羅以爲首露神明之治 召問之. 首露至 以所爭地 屬之音汁伐. 而兩國之難解. 新羅國君婆娑命六部大人 享首露 諸部畏之 皆使伊湌主客 而獨漢祇部主客 不使貴人. 首露以爲慢禮不恪 擊殺其大人保齊. 駕洛有得罪亡者 依音汁伐 首露遣使索之 音汁伐不與. 首露擧兵攻之 音汁伐降.

수로가 다스릴 적에 백성들이 태평하고 편안하여 사방에서 와서 그를 본받았다. 음즙벌(音汁伐)과 실직곡(悉直谷)이 땅을 다투어 서로 공격하다가, 두 나라가 다투어 신라에 와서 질정해 주기를 청하였다. 신라는 수로가 신명(神明)으로 다스린다고 여기고 불러서 물었는데, 수로가 이르러 다투던 땅을 음즙벌에 소속시키니, 두 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신라의 임금 파사(婆娑)가 6부의 대인(大人)에게 명하여 수로를 대접하게 하였다. 여러 부에서는 수로를 두려워하여 모두 이찬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였는데, 유독 한지부(漢祇部)만이 접대를 귀인(貴人)에게 시키지 않았다. 수로가 예를 소홀히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여겨 한지부의 대인 보제(保齊)를 쳐서죽였다. 가락에 죄를 얻고 도망한 자가 음즙벌에 의탁하였다. 수로가 사신을 보내 그를 요구하였으나 음즙벌이 내주지 않았다. 이에 수로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니 음즙벌이 항복하였다.

사료6 **『동사강목』 제1 하 삼국 | 『東史綱目』 第一 下 三國**

〈漢永元十四年 [壬寅] 新羅婆娑王二十三年 高句麗太祖王五十年 百濟己婁王二十六年〉 秋八月 駕洛人殺鷄林漢岐部主保齊. 鷄林伐音汁伐國 降之. 音汁伐國〈今屬慶州安康縣一云今興海郡〉與悉直谷國〈今三陟府〉爭疆 鷄林羅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 召問之. 首露立決 以所爭之地 屬音汁伐. 於是 王命六部 饗首露. 諸部畏之 皆以伊湌主客 而獨漢祇部主客 不使貴人. 首露以爲慢禮不恪 命奴畹下里 殺漢祇部主保齊 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降.

〈한(漢) 영원 14년(102년), [임인년] 신라 파사왕 23년, 고구려 태조왕 50년, 백제 기루왕 26년〉 가을 8월에 가락(駕洛) 사람이 계림(鷄林)의 한지부주(漢祇部主)인 보제(保齊)를 죽이니 계림이 음즙벌국(音汁伐國)을 벌하여 항복시켰다. 음즙벌국〈지금 경주 안강현(安康縣)에 속하며, 일설에는 지금의 흥해군(興海郡)이라 한다〉이 실직곡국(悉直谷國)〈지금의 삼척부(三陟部)이다〉과 경계를 다투어 계림을 찾아 판결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기며 이르기를 금관국(金官國)의 수로왕(首露王)이 연로하고 지혜가 많다 하고, 불러 물으니 수로왕이 즉시 판결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소속시켰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니, 여러 부가 그를 두려워하여 모두 이찬(伊湌)으로 하여금 손님 접대를 주관하게 하였으나 유독 한지부(漢祇部)만 손님 접대의 주관을 귀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수로왕은 이를 예의를 게을리 하고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하여, 종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해 한지부주인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오게 하였다. 종이 도망하여 음즙벌국인 타추간(陁鄒干)의 집에 의지하였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벌하니, 그 주인이 무리와 함께 항복하였다.

사료7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云 婆娑王二十三年〈和帝十四年〉 秋八月 音汁伐國〈古安康縣 在慶州北三十里〉與悉直谷國 〈今三陟〉爭疆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 召問之. 首露立議 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湌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漢祇部 本加利部 姓裵〉 鏞案 首露王生十五歲卽位 則是年七十五歲 亦云老矣. 後四年 新羅 · 迦羅復相侵伐者十餘年. 自是厥後 兩國無事者八十年 而首露王薨.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파사왕(婆娑王) 23년(102년)〈화제(和帝) 14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옛 안강현[古安康縣]으로 경주 북쪽 30리에 있다〉과 실직곡국(悉直谷國)〈지금[조선] 삼척(三陟)〉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이르러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기다가 금관국의 수로왕이 나이도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고는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즉석에서 의견을 내어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六部)에게 명하여 모여서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5부(五部)는 모두 이찬을 주(主)로 삼았는데, 유독 한지부(漢祇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노(奴)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지부주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가 버렸다.〈한지부는 본래 가리부(加利部)로 성은 배씨(裵氏)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로왕은 태어나서 15세에 즉위하였으니, 이 때 나이가 75세이므로 역시 늙었다고 말한 것이다. 4년 뒤에 신라와 가라가 다시 서로 침공한 것이 10여 년 동안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양국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은 지 80년 만에 수로왕이 돌아갔다[薨].

사료8 **『증보문헌비고』** 권122 병고14 [보]변금 | **『增補文獻備考』** 卷百二十二 兵考十四 [補]邊禁

[婆娑王]十三年 音汁代國 與悉直谷國 爭疆詣新羅請決. 王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決 以所爭之地 屬音汁代國.〈上見與地考〉

[파사왕]23년(102년)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을 찾아 와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금관국의 수로왕이 나이도 많고 지식이 많다 하고는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즉석에서 판결하여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위에 「여지고(與地考)」에도 보인다〉

사료9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新羅婆娑王二十三年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以金官國王金首露 年老多智 召問之. 首露王 立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湌爲主 唯漢柢部以位卑者主之. 首露王怒 使奴耽下里 殺漢柢部主保齊而去.

신라 파사왕 22년(102년)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신라왕에게 와서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신라왕이 어렵게 여겨 금관국왕(金官國王) 김수로(金首露)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으므로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즉석에서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육부(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오부(五部)는 모두 이찬(伊湌)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하였는데, 오직 한지부(漢柢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써 주재하게 하였다. 수로왕이 노하여 노(奴)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지부의 우두머리[主]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사료10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壬酉〉〈新羅婆娑王二十二年 高句麗太祖王四十九年 百濟己婁王二十五年 東漢和帝永元十四年〉 秋八月 音汁伐國〈今興海〉與悉直谷國〈今三陟〉 詣新羅請決.羅王難之 謂駕洛王首露 年老多智識 請而問之.首露立決 以所爭之地屬音汁伐.於是羅王命六部 以饗首露.五部皆以伊飡儐之.惟漢祇部以位卑者儐之.首露怒 命奴殺漢祇部主 而歸.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羅王使人索其奴.陁鄒不肯送.羅王怒 以兵伐音汁伐國.其主與衆來降.

〈임인[년]〉〈신라 파사왕 22년, 고구려 태조왕 49년, 백제 기루왕 25년, 동한(東漢) 화제 영원 14년(102년)〉 가을 8월

에 음즙벌국(音汁伐國)〈지금[대한제국]의 흥해(興海)〉과 실직곡국(悉直谷國)〈지금[대한제국]의 삼척(三陟)〉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신라왕에게 와서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신라왕이 어렵게 여기다가 가락왕 수로(首露)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즉석에서 판결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6부(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5부(五部)는 모두 이찬[伊湌]으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였는데, 오직 한지부(漢祇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써 대접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노(奴)에게 명하여 한지부의 임금[主]을 죽이라 하고는 돌아갔다. 노(奴)는 음즙벌국의 임금[主] 타추간(陀鄒干)의 집으로 달아나 의탁하였다. 신라왕이 사람을 보내 그 노를 색출하게 하였지만, 타추가 보내지 않았다. 신라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임금[主]과 백성이 항복하였다.

106년 신라 마두성주 가야를 공략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二十七年 秋八月 命馬頭城主伐加耶.

파사이사금 27년(106년) 가을 8월에 마두성주에게 명을 내려 가야를 정벌케 하였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丙午 漢殤帝延平元年 新羅婆娑王二十七年 高句麗太祖王五十四年 百濟己婁王三十年〉 秋八月 新羅王命馬頭城主 伐加耶.

〈병오년, 한(漢) 상제 연평 원년, 신라 파사왕 27년, 고구려 태조왕 54년, 백제 기루왕 30년〉 가을 8월에 마두성주에게 명을 내려 가야를 정벌케 하였다.

사료3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云 婆娑王二十七年〈漢殤帝元年〉 秋八月 命馬頭城主伐加耶.

신라사[『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 말하기를 파사왕 27년(106년)〈한(漢) 상제 원년〉 가을 8월에 마두성주에게 명해 가야(加耶)를 정벌하게 하였다.

108년 신라, 비지국·다벌국·초팔국을 병합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二十九年 夏五月 遣兵伐比只國 · 多伐國 · 草八國幷之.

파사이사금 29년(108년) 여름 오월에 병사를 파견해 비지국 · 다벌국 · 초팔국을 병합하였다.

115년 신라왕, 황산강 전투서 가야군의 매복에 걸리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祗摩尼師今四年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지마이사금 4년(115년) 봄 2월에 가야가 신라의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친히 가야를 정벌하려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너자 가야인 복병이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직전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자 복병이 일어나 왕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왕이 군을 지휘해 떨쳐 싸워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乙卯 漢元初二年 新羅祇摩王四年 高句麗太祖王六十三年 百濟己婁王三十九年〉 春二月 加耶國寇新羅南邊. 秋七月 新羅王伐加耶國 帥渡黃山河 加耶伏兵發 圍王數重 王奮擊 決圍而退.

〈을묘년, 한 원초 2년, 신라 지마왕 4년, 고구려 태조왕 63년, 백제 기루왕 39년〉 봄 2월에 가야국이 신라의 남쪽 변경에 침입하였다. 가을 7월에 신라왕이 가야국을 정벌하고자 황산하(黃山河)를 건너자 가야의 복병이 일어나 왕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왕이 떨쳐 싸워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乙卯 漢元初二年 新羅祇摩王四年 高句麗太祖王六十三年 百濟己婁王三十九年〉 春二月 加耶國寇新羅南邊. 秋七月 新羅王伐加耶國 師渡黃山河 加耶伏兵發 圍王數重 王奮擊決圍而退.

〈을묘년, 한(漢) 원초 2년, 신라 지마왕 4년, 고구려 태조왕 63년, 백제 기루왕 39년〉 봄 2월에 가야국이 신라의 남쪽 변경에 침입하였다. 가을 7월에 신라왕이 가야국을 정벌하고자 황산하(黃山河)를 건너자 가야의 복병이 일어나 왕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왕이 떨쳐 싸워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사료4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祗摩王四年〈漢安帝九年〉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 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五年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 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乃還. 鏞案 八十年 都無一事者 史失之也.

지마왕 4년(115년)〈한(漢) 안제 9년〉 봄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가을 7월에 [지마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하여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너는데, 가야 사람이 병사를 숲 속에 숨겨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나아가니, 복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왕이 군사를 지휘하여 힘껏 싸워 포위를 헤치고 퇴각하였다.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하였다. 왕이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때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려,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사료5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臣謹按 金官四履 古記所載 有可以證者.三國史 新羅祇摩王四年 春 伽倻寇南邊. 秋 王親征伽倻 帥步騎度黃山江 伽倻人伏兵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王奮擊 決圍而退. 觀於此則 東界黃山江者 加知.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금관의 사방 경계는 옛 기록에 실려 있는 것 중에 고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

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신라 지마왕 4년(115년) 봄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가을에 왕이 가야를 친히 정벌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강을 건너는데, 가야 사람이 군사를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니, 복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왕이 힘껏 공격해서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본다면, 동쪽으로 황산강을 경계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6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乙卯〉〈新羅祗摩王三年 高句麗太祖王六十二年 百濟己婁王三十八年 東漢安帝元初二年〉 春二月 駕洛國侵新羅南邊. 秋七月 羅王伐駕洛. 師渡黃山河.〈卽黃山江〉 駕洛人伏兵林薄以待之. 羅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羅王奮擊決圍而退.

〈을묘[년]〉〈신라 지마왕 3년, 고구려 태조왕 62년, 백제 기루왕 38년, 동한(東漢) 안제 원초 2년(115년)〉 봄 2월에 가락국이 신라 남쪽 변경으로 쳐들어왔다. 가을 7월에 신라왕이 가락을 정벌하였다. [군사를]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곧 황산강(黃山江)〉를 건너는데, 가락 사람이 군사를 숲 속에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라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나아가니, 복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신라왕이 힘껏 싸워 포위를 헤치고 퇴각하였다.

116년 신라의 침입에 가야가 굳게 지켰다

사료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祗摩尼師今五年 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乃還.

지마이사금 5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치게 하고 왕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장마를 만나 돌아왔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2 | **『三國史節要』** 卷二

〈丙辰 漢元初三年 新羅祗摩尼師今五年 高句麗太祖王六十四年 百濟己婁王四十年〉 八月 新羅王先遣將 侵加耶 帥精兵一萬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병진년, 한(漢) 원초3년, 신라 지마이사금 5년, 고구려 태조왕 64년, 백제 기루왕 40년〉 8월에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침략하게 하고 왕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장마를 만나 돌아왔다.

사료3 **『동국통감』** 권2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丙辰 漢元初三年 新羅祗摩尼師今五年 高句麗太祖王六十四年 百濟己婁王四十年〉 秋八月 新羅王先遣將 侵加耶 帥精兵一萬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병진년, 한(漢) 원초 3년, 신라 지마이사금 5년, 고구려 태조왕 64년, 백제 기루왕 40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침략하게 하고 왕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장마를 만나 돌아왔다.

사료4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祗摩王]五年 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 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鏞案 八十年 都無一事者 史

失之也.

[지마왕]5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하였다. 왕이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가야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때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려,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사료5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丙辰〉〈新羅祗摩王四年 高句麗太祖王六十三年 百濟己婁王三十九年 東漢安帝元初三年〉 秋八月 新羅王先遣將侵駕洛 帥精兵一萬繼之. 駕洛嬰城固守. 會久雨 羅師乃還.

〈병진[년]〉〈신라 지마왕 4년, 고구려 태조왕 63년, 백제 기루왕 39년, 동한(東漢) 안제 원초 3년(116년)〉 가을 8월에 신라왕이 먼저 장수를 보내 가락으로 쳐들어갔다. [신라왕이] 정예 병사 1만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가락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때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려, 신라왕이 이에 돌아왔다.

187년경 한韓과 예濊가 성장하고 군현이 약해져 많은 유망민이 한韓으로 들어가다

사료1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靈帝末 韓 · 濊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영제 말에 한(韓)과 예(濊)가 강성해져 군현이 능히 통제할 수가 없어 백성이 힘들고 어지러워 유망해 한(韓)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았다.

사료2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桓鮮卑東夷傳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환제·영제 말에 한과 예가 강성해져 군현이 통제할 수가 없어 많은 백성들이 한국(韓國)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료3 **『책부원구』** 권1000 외신부45 강성 | **『册府元龜』** 卷千 外臣部四十五 强盛

韓濊 北與高句麗 · 沃沮 南與辰韓接 本皆朝鮮之地也. 靈帝末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한예(韓濊)는 북쪽으로 고구려·옥저와 더불고 남으로 진한(辰韓)과 접하였는데, 본래는 모두 조선(朝鮮)의 땅이었다. 영제 말에 함께 왕성해져 군현이 능히 통제할 수가 없어 백성이 힘들고 어지러워 유망해 한(韓)으로 들러가는 자가 많았다.

사료4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靈帝末 韓 · 濊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同上〉

영제 말에 한(韓)과 예(濊)가 강성해져 군현이 능히 통제할 수가 없어 백성이 힘들고 어지러워 유망해 한(韓)으로 들러 가는 자가 많았다.〈위와 같다〉

189년 가락국의 허왕후가 돌아가다

사료1 **『삼국유사』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靈帝 中平 六年〉 己巳 三月 一日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媵臣泉府卿申輔·宗正監趙匡等到國三十年後 各産二女焉 夫與婦踰一二年而皆 信也. 其餘臧獲之輩 自來七八年間 未有玆子生 唯抱懷土之悲 皆首丘而沒. 所舍賓館 圓其無人.

〈[후한(後漢)] 영제 중평 6년(189년)〉 기사년 3월 1일에 왕후가 돌아가니 157세였다. 나라사람(國人)이 마치 땅이 무너진 것과 같이 서러워하여 구지봉(龜旨峰) 동북쪽 언덕에 장사하고 그가 백성을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처음 상륙하던 도두촌(渡頭村)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綾袴)를 벗던 높은 언덕(高岡)을 능현(綾峴)이라 하고, 붉은 기(旗)가 들어오던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 하였다. 따르던 신하 잉신(媵臣)인 천부경(泉府卿)의 신보(申輔)와 종정감(宗正監)의 조광(趙匡) 등은 가락국에 온지 30년 만에 각각 두 딸을 낳고 부부가 1~2년을 지나 다 세상을 떠났다. 그 나머지 노비들은 온지 7~8년에 자녀의 생산없이 다만 고향 땅을 생각하는 슬픔을 안고 다 죽으니 그들의 살던 빈관(儐館)이 텅비어버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권3 | 『三國史節要』卷三**

〈己巳 漢中平六年 獻帝永漢元年 新羅伐休王六年 高句麗故國川王十一年 百濟肖古王二十四年〉 春三月 駕洛國王后許氏崩 壽百五十七.

〈기사년(189년), 한(漢) 중평 6년, 헌제 영한(永漢) 원년, 신라 벌휴왕 6년, 고구려 고국천왕 11년, 백제 초고왕 24년〉 봄 3월에 가락국 왕후 허씨(許氏)가 돌아갔다. 157세였다.

사료3 **『기언』권41 허씨선묘비문석지 가락국보주허태후묘비음기 | 『記言』卷四十一 許氏先墓碑文石誌 駕洛國普州許太后墓碑陰記**

太后姓許氏. 譜牒記阿踰陀國君之女. 金官古事 或曰 南天竺國君之女. 又曰 自言西域許國君之女. 許 或曰許黃之國 方外別國 其有一國而互稱 或如中國之殷商·梁魏耶. 古遠後世 傳說不同. 誌記其先君之命 曰 東土當有駕洛元君 得汝爲配 浮海而至云. 首露王立爲后 號曰普州太后 或曰皇玉夫人. 當東漢光武皇帝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及靈帝中平六年三月 太后薨 壽百五十七. 太后有子十人 得后姓者二人. 後世 各以其所受封之地 別爲族 爲孔巖·河陽之許. 又其餘 各以其鄕 著姓者非一. 而其初皆本於太后. 太后墓在王陵後一里. 舊俗 邦人 以冬至日 大祀先王 以太后配食 至今不絶也. 我昭敬大王二十五年 有倭寇 掘先王墓 幷及太后葬. 邦人輿封築之. 上之二十四年 嶺南觀察使許積 大修墓 仍立石 記其事. 有父老傳 萬曆八年 古有觀察使許公曄 嘗修二陵云 至今追計六十七年.

태후의 성은 허씨이다. 『보첩(譜牒)』은 아유타국(阿踰陀國) 임금의 딸이라고 기록하였다. 『금관고사(金官古事)』에 또 말하기를 남천축국(南天竺國) 임금의 딸이라기도 하고, 또는 태후 자신은 서역(西域)에 있는 허국(許國) 임금의 딸이라 했다고도 한다. 허국(許國)은 혹 허황국(許黃國)이라고도 하는데, 방외(方外)의 별도로 떨어져 있는 나라로 한 나라를 두고서 번갈아 부르는 것이니, 혹 중국의 은상(殷商)이나 양위(梁魏)와 같은 것인가? 멀고 먼 후세로 전해지면서 그 설이 같지 않다. 지(誌)가 그(태후의) 선군(先君)의 명을 기록해 말하기를 "동토(東土)에 가락 원군(駕洛元君)이 있어 너를 얻어 배필로 삼을 것이다."하여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였다. 수로왕이 세워 후로 삼고 호를 보주태후(普州太后)라고 하고 혹은 황옥부인(皇玉夫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때는 동한 광무황제 건무 24년(48년)으로 수로왕 7년이다.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9) 3월에 이르러 태후가 돌아가니 수(壽)는 157세였다. 태후는 아들 10인을 두었는데, 태후의 성을 받은 자가 2인이었다. 후세에 각자 받은 봉지(封地)로 따로 씨족을 삼아 공암 허

씨(孔巖許氏)와 하양 허씨(河陽許氏)가 되었다. 또 그 나머지 각자 자기 고향으로 성을 나타낸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시초는 모두 태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태후의 묘는 수로왕릉 뒤쪽으로 1리에 있다. 옛 풍속에 나라 사람들이 동짓날이면 선왕(先王)에게 큰 제사(大祀)를 지내고 태후를 배식(配食)하였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소경대왕(昭敬大王; 선조) 25년(1592년)에 왜(倭)의 침입이 있어 선왕의 묘가 파헤쳐졌고 아울러 태후의 장지에도 미쳤다. 나라 사람들이 다시 봉축하였고, 금상(今上; 인조) 24년(1646년)에 영남관찰사 허적(許積)이 묘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이어 비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였다. 부로(父老)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 만력 8년(1580년, 선조 13년)에 관찰사 허엽(許曄)이 두 능을 보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 거슬러 계산하면 67년 만이다.

사료4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孝靈 中平六年 太后許氏卒 壽百五十七. 太后有十男 得母姓者二人云.

효령제 중평 6년(189년)에 태후 허씨(許氏)가 졸(卒)하였다. 수(壽)는 157세이다. 태후는 아들 열을 두었는데, 어머니의 성을 얻은 자가 두 사람이라고 한다.

사료5 **『동사강목』 제2 상 삼국 | 『東史綱目』 第二 上 三國**

[己巳]〈新羅伐休王六年 高句麗故國川王十一年 百濟肖古王二十四年〉 春三月 駕洛君妃許氏卒. 許氏稱皇玉夫人 或號普州太后. 卒年百五十七歲. 有子十人 得后姓者 二人.〈后陵在今金海府西王陵後一里〉

[기사년(189년)]〈신라 벌휴왕 6년, 고구려 고국천왕 11년, 백제 초고왕 24년〉 봄 3월 가락군(駕洛君)의 왕비(妃) 허씨(許氏)가 졸(卒)하였다. 허씨는 황옥부인(皇玉夫人)이라 칭하였고, 혹은 보주태후(普州太后)라 부르기도 하였다. 졸년(卒年)이 1백 57세이고, 아들이 10명인데 태후의 성을 가진 자가 2명이었다. 〈태후의 능은 지금 김해부(金海府) 서쪽에 있는 왕릉 뒤편 1리에 있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 권49 제계고10 씨족4 | 『增補文獻備考』 卷四十九 帝系考十 氏族四**

許氏〈駕洛國記曰 首露王十世孫仇衡 以國納新羅 駕洛遂亡 子孫失位 以所住爲貫 留在舊邦者 爲金海許氏. 移住者 爲河陽許氏 爲秦安許氏 一爲漢山許氏 一爲孔巖許氏〉 河陽許氏始祖安康〈戶長. 本駕洛王金首露之後 從母姓爲許氏〉 十一世孫周〈判漢城尹簡肅公〉 周弟稠〈文左議政 文敬公 配享世宗廟庭〉 僴〈中樞府使〉 僴子詡〈文參贊 貞簡公 享書院〉 詡姪慥〈文校理選湖堂〉 僴子誠〈文吏參判 吏恭簡公〉 金海許氏姪祖琰〈大匡駕洛君 本駕洛國王金首露之後 後母姓爲許. 一本以高麗上將軍甘勿阿伯元清爲始祖〉 五世孫有全〈文政丞 金海府院君〉 有全六世孫伯琦〈文參判 選湖堂〉 許修〈直長爲一派〉 許邕〈高麗忠肅王時文科典理判書爲一派〉

허씨(許氏)〈『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는 수로왕의 10세손 구형이 국가를 신라에 바쳤다고 하였다. 가락이 드디어 망하자 자손이 지위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흘러 흩어지면서, 거주하는 곳으로 본관을 삼았다. 옛 나라에 머문 자들은 김해 허씨가 되었다. 이주한 자들은 하나는 하양(河陽) 허씨가 되고, 하나는 태안(泰安) 허씨가 되고, 하나는 한산(漢山) 허씨가 되고, 하나는 공암(孔巖) 허씨가 되었다〉 하양(河陽) 허씨 시조 안강(安康)〈호장(戶長) 본래는 가락왕 김수로의 후예인데, 어머니의 성을 따라 허씨가 되었다〉 11세손 주(周)〈판한성윤(判漢城尹). 간숙공(簡肅公)〉 주의 동생 조(稠)〈문과에 급제. 좌의정. 문경공(文敬公). 세종 묘정(世宗廟庭)에 배향됨. 척(僴)〈중추부사(中樞府使)〉 척의 아들 후(詡)〈문과에 급제. 참찬(參贊). 정간공(貞簡公). 서원에 배향됨〉 후의 조카 조(慥)〈문과에 급제. 교리(校理). 호당(湖當)에 뽑힘〉 척(僴)의 아들 성(誠)〈문과에 급제. 이조참판(吏曹參判). 공간공(恭簡公)〉 김해(金海) 허씨 시조 염(琰)〈대광(大匡) 가락군(駕洛君) 본래 가락왕 김수로의 후손인데, 어머니의 성을 따라 허씨가 되었다. 또는 고려 상장군(上將軍) 감물아백(甘勿阿佰) 원청(元淸)을 시조로 하는 본도 있다〉 5세손 유전(有全)〈문과에 급제. 참판(參判). 호당(湖當)에 뽑힘〉 허수(許修)〈직장(直長). 하나의 파가 됨〉 허옹(許邕)〈고려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전리판서(典理判書). 하나의 파가 됨〉

196~200년경 대방군이 한과 예를 쳐서 복속시키다

사료1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제30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桓·鮮卑東夷傳 第三十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건안 연간(196~200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쪼개어 대방군을 만들었다. 공손모와 장창 등을 보내어 유민들을 수습해 군사를 일으켜서 한과 예를 치자, 옛 백성들이 조금씩 돌아왔다. 이 뒤로 왜와 한이 모두 대방군에 속하였다.

사료2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獻帝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 · 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 倭·韓遂屬帶方.〈三國志〉

헌제(獻帝) 건안 연간에 공손강(公孫康)이 둔유현(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쪼개어 대방군(帶方郡)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공손모(公孫模)와 장창(張敞) 등을 보내어 유민들을 수습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한과 예를 치자, 옛 백성들이 조금씩 돌아왔다. 이 뒤로 왜(倭)와 한(韓)이 모두 대방군(帶方郡)에 속하였다.〈『삼국지』〉

199년경 가락국의 수로왕이 돌아가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元君每歎鰥枕 悲嘆良多 隔二五歲 以獻帝立安四年己卯三月二十三日而殂落 壽一百五十八歲矣. 國中之人若亡天只 悲慟甚於后崩之日. 遂於闕之艮方平地 造立殯宮 高一丈 周三百步而葬之 號首陵王廟也. 自嗣子居登王洎九代孫仇衝 之享是廟. 須以每歲孟春三之日七之日·仲夏五之日·仲秋初五之日十五之日 豊潔之奠 相繼不絶.

원군(元君; 시조)이 매양 외로운 벼개[고침(孤枕)]에 의지하여 비탄(悲嘆)함이 많더니 10년이 되어 헌제 입안 4년(199년) 기유년 3월 23일에 돌아가니 158세였다. 나라 안에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슬퍼함이 왕후가 돌아갔을 때보다 더 하였다. 마침내 궁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을 세우고 1장 높이에 3백보 둘레로 장사지냈는데 수로왕묘(首露王廟)라 불렀다. 상속자 거등왕(居登王)부터 9대손 구형(仇衝)에 이르기까지 이 묘에 제향하였다. 반드시 매해 2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에 풍요롭고 정결한 제사가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己卯 漢建安四年 新羅奈解王四年 高句麗山上王三年 百濟肖古王三十四年〉 三月 駕洛國王 首露薨 壽百五十八. 子居登立.

〈기묘[년] 한(漢) 건안 4년(199년), 신라 나해왕 4년, 고구려 산상왕 3년, 백제 초고왕 34년〉 3월에 가락국왕(駕洛國王) 수로(首露)가 돌아가니 158세였다. 아들 거등(居登)이 즉위했다.

사료3 **『동국통감』** 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己卯 漢建安四年 新羅奈解王四年 高句麗山上王三年 百濟 肖古王三十四年〉春三月 駕洛國王首露卒 壽百五十八. 子居登立.

〈기묘[년] 한(漢) 건안(建安) 4년, 신라 나해왕 4년, 고구려 산상왕 3년, 백제 초고왕 34년〉 봄 3월에 가락국왕 수로가 돌아가니 158세였다. 아들 거등이 즉위했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首露]王卒 壽百五十八. 子居登立.

[수로]왕이 돌아가니 158세였다. 아들 거등이 즉위하였다.

사료5 **『경상도속찬지리지』** 진주도 김해도호부 | **『慶尙道續撰地理誌』** 晋州道 金海都護府

金海都護府. 前代名賢祠墓 · 旌表門閭處. 駕洛國始祖首露王陵 在邑城西大岐音里. 首露王妃 南天竺國公主許黃玉 諡普州太后陵 在府北三山里龜旨山.

김해도호부. 전대 명현(名賢)의 사당(祠堂)과 묘(墓) 정려(旌閭)와 표문(表門). 가락국 시조 수로왕릉은 읍성 서쪽의 대기음리(大岐音里)에 있다. 수로왕비 남천축국(南天竺國) 공주 허황옥(許黃玉) 시호 보주태후(普州太后)의 능은 부(府) 북쪽 삼산리(三山里)의 구지산(龜旨山)에 있다.

【題詠】按廉使大司成鄭夢周詩. 訪古伽倻草色春 興亡幾變海爲塵當時腸斷留詩客 自是心淸如水人. 次宰相朱悅韻詩. 首露陵前草色靑 招賓臺下海波明 春風遍入流亡戶 開盡梅花慰客情. 平壤伯修文殿大提學趙俊詩. 七點微茫一靑 五雲零落夕陽明 英雄往矣山如昨 斗酒難燒一片情. 右. 煙鬟髴面海山靑 雲錦波頭夕照明 多謝伽倻舊時月 夜深偏照倚樓情.

【제영(題詠)】안렴사(按廉使) 대사성(大司成) 정몽주(鄭夢周)의 시. "옛 가야 찾아오니 풀빛이 봄이다. 흥망이 몇 번 변하여 바다가 진토되었나. 당시 애끓음에 시를 남긴 객이여, 마음이 맑기가 물 같은 사람이었네." 차운(次韻)한 재상(宰相) 주열(朱悅)의 시. "수로릉(首露陵) 앞의 풀빛이 푸르고, 초빈대(招賓臺) 아래의 바다 물결이 밝다. 봄바람은 유망한 집에도 골고루 미쳐, 매화를 활짝 피워 객의 마음 위로하네." 평양백(平壤伯) 수문전대제학(修文殿大提學) 조준(趙浚)의 시. "일곱 점(七點)이 희미하고 망망한데 머리카락 하나가 푸르고, 오색구름이 시들어 떨어지는데 저녁 하늘이 밝구나. 영웅이 가도 산은 어제와 같으니, 말술로도 한 조각 정을 태우기가 어렵네. 위를 받아 시를 쓰다. 자욱한 산 그림자 물위에 비치니 바다와 산이 푸르고, 높고 아름다운 물결 위로 저녁 햇살이 밝구나. 옛날 가야의 달이 진실로 고마우니, 밤 깊도록 누(樓)의 정취를 한껏 비추는구나."

사료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陵墓】首露王陵〈在府西三百步. 每歲春秋 府中父老 共會設祭.〈漢獻帝建安四年〉伽倻始祖首露王薨. 葬城北納陵傍田三十頃 以充春秋祭祀之費. 新羅之季將軍忠至 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於將軍 奪廟饗而致告祠堂 梁折墮於英規頂 途斃焉.忠至懼 畫王眞安於屋壁 朝夕以祀 及三日 影流血淚 貯於地幾一斗. 忠至懼而焚之. 後有群盜謂 陵中必藏金銀寶器 欲發冢 有猛士被甲 從陵中出射之 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皆僵仆而走.〈淳化二年〉量田使趙文善 將以陵田減其半 屬于民 其夕夢神人七八 操劒而至云 爾有大憝 故欲斬耳.文善驚覺得疾 宵遁死于道傍. 高麗文宗時 有知州事撰陵銘曰 元胎肇啓 利眼初明 人倫雖誕 君位未成 中朝累世 東國分京 鷄林先定 駕洛後營 自無銓宰 誰察民氓 遂玆玄造 顧彼蒼生 用授符命 特遣精靈 山中降卵 霧裏藏形 內猶漠漠 外亦冥冥 望如無象 聞乃有聲 群歌而奏 衆舞而呈 七日而後 一時所寧 風吹雲卷 空碧天靑 下六圓卵 垂一紫纓 殊方異土 比屋連甍 觀者如堵 覩者如羹 五歸各邑 一在玆城 同時同迹 如弟如兄 實天生德 爲

世作程 寶位初陟 寰區欲淸 華構徵古 土階尙平 萬機始勉 庶政施行 無偏無儻 惟一惟精 行者讓路 農者讓耕 四方奠枕 萬姓迓衡 俄晞薤露 靡保椿齡 乾坤變氣 朝野痛情 金相其躅 玉振其聲 來苗不絶 薦藻惟馨 日月雖逝 規儀不傾. 徐居正詩 金陵往事與誰論 千古猶存首露墳 龜旨曲亡人不見 伽倻琴在妙堪聞 銅駝故里山如戟 翁仲遺墟樹似雲 百六十年能享國 可憐荒壠幾斜曛

【능묘(陵墓)】 수로왕릉(首露王陵)〈부(府) 서쪽 300보(步) 되는 곳에 있다. 해마다 봄, 가을로 부중(府中)의 부로(父老)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한(漢) 헌제 건안 4년(199년)〉에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돌아가니[薨] 성 북쪽에 장사하고 능 주변의 밭 30경(頃)을 능에 들여 봄, 가을로 제사지내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하는데,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빙자하여 제물을 빼앗고 고하였더니 사당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치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眞影)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충지가 두려워 [진영을]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있어서 능 안에 틀림없이 금은보화를 보관하였을 것이라 하고는 무덤을 파헤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러운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나머지 도적들이 모두 놀라 나자빠지면서 달아났다. 〈순화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날 저녁 꿈에 귀신 7, 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가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고려 문종 때 지주사(知州事)가 능명(陵銘)을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해와 달이 비로소 밝았다. 사람의 무리는 비록 태어났으나, 임금의 자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중국 왕조는 여러 대였으나, 우리나라는 서울을 나누었다. 계림(鷄林)이 먼저 정해졌고, 가락(駕洛)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제대로 다스릴 이 없으니, 누가 백성을 다스리리. 이에 하늘이 저 창생을 돌보시어, 부명(符命)을 내리시고 특별히 정령(精靈)을 보내셨다. 산중에 알을 내렸으나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추었다. 안은 더욱 막막하고, 겉도 또한 어두웠다. 바라보아도 형상이 없으나 들어보면 소리가 들렸다. 무리가 노래하며 연주하고, 춤추며 부탁하였다. 이레가 지나니 일시에 모두 조용해졌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며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여섯 개의 둥근 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 가닥 자줏빛 끈이 드리워졌다. 먼 지방 딴 지역에 집들이 나란히 잇닿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섰고 국같이 들끓었다. 다섯 사람은 각각 자기 고을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이 성에 남았다, 같은 때, 같은 자취를 남겼으니 마치 아우 같고 형 같았다. 진실로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낳았고,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보위(寶位)에 처음 오르니 다스리는 지역이 청명하였다. 화려하게 지으면서도 옛 것을 따르니 흙섬돌이 바르게 되었다. 큰 정무에 비로소 힘쓰니 일반 정사도 시행되었다. 치우침이 없고 파당을 짓지 않으며 오직 하나같고 오직 정성스러웠다. 길가는 사람들이 길을 서로 양보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밭 갈기를 사양하였다. 사방이 베개를 높이 베고 만백성이 화평하였다. 잠깐 동안 해로(薤露)가 마르니 춘령(椿齡)을 보전할 수 없었다. 천지가 기색을 잃고 조야(朝野)가 마음 아파하였다. 그 발자취는 금의 모습이었고, 그 목소리는 옥 부딪치는 소리였다. 후손은 끊어지지 않아서 바치는 제물이 늘 향기롭다. 세월이 비록 흘렀어도 의식은 기울지 않았다. 서거정(徐居正)의 시는 다음과 같다. "금릉(金陵)의 지난 일을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랴. 천고(千古)에 오직 수로의 봉분이 남아 있네. 구지곡(龜旨曲)은 없어져 사람이 볼 수 없으나, 가야금(伽倻琴)이 있어서 신묘한 소리를 들을 만하네. 동타(銅駝) 옛 마을에 산이 창 같고, 옹중(翁仲) 빈 터에 나무만 구름 같다. 160년 동안 나라를 누렸으나, 가련하다. 거친 무덤에 몇 번이나 저녁 해 비쳤던가."〉

許王后陵 〈在龜旨山東.世傳王妃阿踰陀國王女.或云南天竺國王女.姓許 名黃玉 號普州太后.邑人祭王陵之共祀〉

허왕후릉(許王后陵)〈구지산(龜旨山)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비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왕녀(王女)라고

하고, 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읍 사람들이 왕릉에 제사할 때에 함께 제사를 지냈다〉

【古蹟】首露王宮〈遺址在 今府內〉. 望山島〈東漢建武二十四年七月 許王后 自阿踰陁國.渡海而至 首露王命留天干望於望山島 神鬼干望於乘岾見緋帆茜旗 自海酉南隅而指北 神鬼馳奏之. 王於宮西 設幔殿候之. 王后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着綾袴 贄于山靈.及至 王迎入幔殷 越二日 同輦還闕 立以爲后. 至靈帝中平六年 己巳三月 后崩 壽一百五十七.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村 解綾袴處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猶存其名〉
【고적(古跡)】 수로왕궁(首露王宮)〈옛 터가 지금[조선] 부(府) 안에 있다〉 망산도(望山島)〈동한(東漢) 건무 24년(48년) 7월 허왕후(許王后)가 아유타국(阿踰陁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왔다.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望山島)에서 바라보게 하고, 신천간(神鬼干)에게는 승점(乘岾)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붉은 빛 돛과 꼭두서니 빛 기가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신귀가 달려와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궁 서쪽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왕후가 배를 받치고 육지에 올라 높은 산[高嶠]에서 쉬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쳤다. [왕후가] 도착하자 왕이 맞아들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이틀이 지나서 같은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와 왕후로 삼았다. 영제 중평 6년(189년) 기사 3월에 이르러 왕후가 돌아갔는데[崩], 나이가 157세였다. 국인(國人)들이 [왕후가] 처음 와서 배를 묶었던 곳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 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꼭두서니 빛 기가 들어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불렀다. [망산도는] 주포(主浦)의 왼쪽에 있으며, 지금[조선]까지 그 이름이 전해 온다〉

王后寺〈舊址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왕후사(王后寺)〈옛 터가 장유산(長遊山)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 질지왕(銍知王)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혼인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王后寺]라 이름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莊)으로 삼았다〉

招賢臺〈在府東七里小山也.俗傳 駕洛國居登王 招 七點山旵始仙人 旵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戲 因以爲名王所坐蓮花石與棋局石 至今存焉〉
초현대(招賢臺)〈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 작은 산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俗傳]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부르자 참시가 배를 타고 고[琴]를 안고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는데, 이로 인하여 [초현(招賢)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을 두었던 돌이 지금[조선]도 남아 있다〉

婆娑石塔〈在虎溪邊. 凡五層. 其色赤斑. 其質良脆 雕鏤甚奇. 世傳 許后自西域來時 船中載此塔 以鎮風濤〉
파사석탑(婆娑石塔)〈호계(虎溪) 변에 있다. 모두 5층으로 그 빛깔은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은 좋고 무르며, 조각해 새긴 것이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허왕후가 서역으로부터 올 때 배 안에 이 탑을 싣고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사료7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孝獻建安四年 首露卒 壽百五十八. 葬納陵.
효헌제 건안 4년(199년)에 수로가 돌아갔다. 수는 158세이다. 납릉(納陵)에 장례하였다.

사료8 **『지봉유설』 권19 궁실부 능묘 | 『芝峯類說』卷十九 宮室部 陵墓**

壬辰年後 倭賊發金海首露王墓.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盆 手足脛骨亦甚偉. 柩傍有二女 面貌如生 年可二十.出置壙外 則旋卽銷滅. 蓋其殉葬者也.

임진년[왜란] 후에 왜적이 김해의 수로왕묘를 팠다. 광 안이 매우 넓고 두개골의 크기가 청동대야만 했으며 팔다리와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관 옆에 있던 두 여인은 얼굴이 살아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20세는 되었다. 광 밖에 내놓자 곧 사라져 없어졌다. 아마도 순장자일 것이다.

사료9 **『기언』권40 허씨선묘비문석지 가락국군수로왕납릉비음기 | 『記言』卷四十 許氏先墓碑文石誌 駕洛國君首露王納陵碑陰記**

王姓金氏. 或曰 先古應祥化生 始爲生民之祖. 或曰 少昊金天氏之後也. 東漢光武皇帝建武十八年 王始建國 號爲君. 或曰 以其神明之後. 有九干. 共尊之爲王. 都駕洛. 首露. 史記以爲王名. 而因以爲爲君之號曰首露王.王御國百五十八年薨.葬納陵. 或曰首陵. 當孝獻皇帝建安四年. 傳居登, 痲品, 居叱彌, 伊尸品, 坐知, 吹希, 銍知, 鉗知, 仇衡凡十世. 四百九十一年. 仇衡生武力.武力生舒玄.舒玄生庾信.庾信碑.言其祖所出.古時載籍不詳. 惟王之世. 黎民大化.四方來則之. 號爲淳厖之治. 舊俗邦人追祀王以報德.至今以冬至日大祀. 皇明萬曆八年. 嶺南觀察使許曄.大修王墓.其後十三年. 國有倭寇. 其年. 掘王之墓. 邦人共對築之. 歷泰昌 天啓 崇禎.至今五十五年 巡察使許積增修之. 建墓碑曰駕洛國君首露王墓.

왕의 성은 김씨(金氏)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고(先古) 시대에 상서(祥瑞)에 응하여 화생(化生)하였는데, 처음으로 생민(生民)의 조상이 되었다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소호(少昊) 금천씨(金天氏)의 후손인데, 동한(東漢) 광무황제 건무 18년(42년)에 왕이 비로소 나라를 세우고 호칭을 임금(君)이라고 하였다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명(神明)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홉 명의 간(干)이 있어 함께 높여서 왕으로 삼고 가락에 도읍하였다고 하였다. 수로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이르기를 왕의 이름인데, 그대로 임금의 호로 삼아 수로왕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158년 만에 훙서하여 납릉에 장사 지냈다. 납릉은 혹 수릉(首陵)이라고도 하니, 이때는 효헌황제(孝獻皇帝; 후한 헌제(後漢獻帝)) 건안 4년(199년)에 해당된다. 거등(居登)·마품(痲品)·거질미(居叱彌)·이시품(伊尸品)·좌지(坐知)·취희(吹希)·질지(銍知)·겸지(鉗知)·구형(仇衡)까지 모두 10세 동안 왕위를 전하였는데 역년(歷年)은 491년이다. 구형이 무력(武力)을 낳고, 무력이 서현(舒玄)을 낳고, 서현이 유신(庾信)을 낳았다. 유신의 비문에 그 조상의 내력을 언급했으나 옛날 문서의 기록에는 자세하지 않다. 오직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백성이 크게 교화되어 사방에서 와서 본받았으며, 순박하고 후덕한 정치를 하였다고만 일컬어진다. 옛 풍속에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 은덕을 갚았으며, 지금까지 동짓날이면 대사(大祀)를 지낸다. 황명(皇明) 만력 8년(1580년, 선조 13년)에 영남 관찰사 허엽(許曄)이 왕의 묘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그 후 13년 뒤에 나라에 왜인(倭人)의 침략이 있어 그해에 왕의 묘가 파헤쳐져서 나라 사람들이 함께 묘를 봉축(封築)하였으며, 태창(泰昌), 천계(天啓), 숭정(崇禎)을 지나 지금 55년 만에 순찰사 허적(許積)이 묘를 증수하고 묘비를 세워 가락국군수로왕묘(駕洛國君首露王墓)라고 하였다.

사료10 **『성호사설』권10 인사문 속절 | 『星湖僿說』卷十 人事門 俗節**

八月十五爲秋夕 起於首露王陵墓之祭.

8월 15일이 추석이 된 것은 수로왕릉묘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사료11 **『성호사설』권11 인사문 사절일상묘 | 『星湖僿說』卷十一 人事門 四節日上墓**

按東史 新羅儒理十九年 首露王立 至仇衡十王 合四百九十一年 法興王十九年 仇衡降于新羅. 初立始祖廟於首陵之側 享祀必於孟春三日七日 仲夏重午 仲秋五日十五日. 逮仇衡失位 有英規阿干 奪廟享而淫祀 當端午致告梁壓而死 後圭林繼世 年八十八而卒. 其子間元 續而克禋 端午日謁廟之祭. 據此端午及仲秋十五日上墳 自駕洛始而端午為尤重也. 首陵者 首露王之葬地 立廟墓側而祭 則廟與墓之祭 初無別 而後来高麗之制 許立家廟 仍許并祭两所. 夫廟與墓近者 撤於此 而又設於彼 涉於褻瀆 其遠者 或子姓單孑 則一付諸婦孺臧獲之手 可乎.

우리 역사[동사(東史)]를 상고하건대, 신라 유리왕 19년(42년)에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이 선 뒤로부터

구형(仇衡)에 이르기까지 10왕에 도합 4백 91년간인데, 법흥왕(法興王) 19년(53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당초에 시조묘(始祖廟)를 수릉(首陵) 옆에 세우고, 매년 1월 3일이나 7일, 5월 5일이나, 8월 5일이나 15일에는 제향을 올렸다. 구형이 왕위를 잃음에 미쳐 아간(阿干) 영규(英規)라는 자가 묘향(廟享)을 폐하고 음사(淫祀)로 하여 단오에 고유(告由)하다가 대들보가 내려앉아 압사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구형의 후손인 규림(圭林)이 대를 이어 향사하다가 나이 88세에 죽자 그의 아들 간원(間元)이 대를 이어 향화(香火)를 올렸다 하였으니, 단옷날 사당에 제향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또 단오와 8월 15일 묘소에 참배하는 것도 가락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단오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수릉은 수로왕의 능인데, 능 옆에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올렸다 하였으니 처음에는 묘제(廟祭)와 묘제(墓祭)의 구별이 없었던 것인데, 그 후 고려에서 가묘(家廟) 세우는 제도를 만들고 인하여 사당과 묘소에 모두 향사하도록 하였다. 사당과 묘소가 가까운 자는 겨우 이곳에서 제사를 끝내고 또 저곳에서 제사를 올렸으니, 이는 설만(褻慢)에 가깝고, 또 묘소가 멀거나 혹은 자손이 홀로 외로운 자는 제향의 절차를 모두 여자와 어린이[婦孺]와 노복의 손에 맡겨 버리니 어찌 옳겠는가.

사료12 **『성호사설』권13 인사문 하 상망귀 | 『星湖僿說』卷十三 人事門 下 禓亡鬼**

春官司巫 凡喪事掌巫降之禮 註降下也 巫下神之禮. 今世或死既斂 就巫下 其遺禮 此恐非聖人之意. 余見村巫歌舞招魂作亡魂 語誣誘愚俗以賭財 國宜有法 以禁絶之豈合反著在經訓耶. 又見國俗 好事鬼 有曰萬明者 即新羅金庾信之母也. 必為中凸大面鏡 有曰王神者 似指首露王 王最著靈異故也. 事之者 必為裰翼衣. 裰翼者 今武士衣裳 相連之 服腰有襞積似玄端 兩掖縫合似深衣 濶袖無袪似襴衫 鏡與衣必當時之制 而流傳至今也. 若此類 其神豈有數千歳不昧 尚著靈恠之理. 其禱祀或應者 莫非戯魔之套弄愚氓 被瞞也. 明智者 自知之耳.

「춘관」(春官; 『주례』의 편명)에 사무(司巫)가 상사(喪事) 때에 무강(巫降)의 예를 맡았다 하였고, 주에는 강(降)은 내린다[下]는 뜻이며, 무당[巫]이 신(神)을 내리게 하는 예는 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 염(斂)한 뒤에 무당을 불러 길귀신[禓]을 내리게 하는 것이 그 유례(遺禮)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내가 보건대 시골 무당이 노래와 춤으로 망혼(亡魂)을 불러 망혼의 말을 흉내 내면서 어리석은 세속인을 유혹하여 재물을 사취하니, 마땅히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여 없애야 할 것인데, 어찌 도리어 경전[경훈(經訓)]에 보였단 말인가? 또 보건대, 우리나라 풍속이 귀신 섬기기를 좋아한다. 그 중에 만명(萬明)이라는 것은 곧 신라 김유신의 어머니인데 신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가운데가 뾰족한 큰 면경(面鏡)을 만들어 쓰며, 왕신(王神)이란 것은 수로왕(首露王)을 가르친 것 같다. 이는 왕이 가장 영검하고 괴이한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인데, 신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철익의(裰翼衣)를 만들어 입는다. 철익이란 지금 무사가 입는 의상으로, 서로 연결된 것인데 허리춤에는 주름이 있어 현단복(玄端服)과 같고, 양쪽 겨드랑은 한데 꿰매어져 심의(深衣)와 같고, 넓은 소매에는 끝동이 없어 난삼(襴衫)과 같은 것이다. 이 면경과 옷은 반드시 당시의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들이 어찌 수천 년이 지나도록 뚜렷하여 영험하고 괴이한 것을 나타낼 이치가 있겠는가? 기도하고 제사하여 혹시 감응을 얻었다는 것도 전혀 마귀의 희롱에 불과한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속은 것이다. 밝고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알아야 한다.

사료13 **『강역고』권2 변진별고 | 『疆域考』卷二 弁辰別考**

東史云 金官國初立始祖廟於首陵之側. 享祀必於孟春三日 · 七日 仲夏重五 · 仲秋五日 · 十五日. 逮仇衡失位 有英規阿干奪廟而享淫祀 當端午致告 梁壓而死. 後圭林繼世 年八十八而卒. 其子間元續而克禋.〈出僿說〉 鏞案 圭林繼世者 奉祀而已 非其國統再興也.

우리 역사[동사(東史)]에 이르기를 금관국에서는 처음에 수릉(首陵) 옆에 시조묘(始祖廟)를 세우고 1월[孟春] 3일 · 7일, 5월[仲夏] 5일[重五], 8월[仲秋] 5일 · 15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 구형(仇衡)이 왕위를 잃자 아간(阿干)에 영규(英規)가 묘향(廟享)을 빼앗아 음사(淫祀)를 지내다가 단오(端午) 때 고유(告由)하다가 대들보에 깔려 죽었다. 뒤에 규림(圭林)이 대를 잇다가 88세에 죽자, 그 아들 간원(間元)이 이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

냈다.』〈[성호(星湖)사설(僿說)]에서 나왔다〉 나(鏞)는 이렇게 생각한다. 규림(圭林)이 대를 이은 것은 제사를 받들기 위함일 뿐이지 그 나라를 통일하여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료14 **『증보문헌비고』**권47 제계고8 씨족2 | **『增補文獻備考』**卷四十七 帝系考八 氏族二

金氏〈見總敍金宗直彝尊錄曰 金閼智以其生於金樻 姓爲金 或云自謂金天氏之後.金庾信碑曰 軒轅之裔 少昊之胤也.駕洛之金 與新羅之金 同姓云 則其金樻·金榼之說 恐是訛言也〉〈三國事蹟 玄遠難徵 俗尚荒誕 不可盡信.然玄鳥巨 迹之說 古亦有之.蓋一時神異 其人而贊成其說耶〉 金海金氏始祖首露〈新羅儒理王時 有盒卵之異 見總敍 以其首出庶物 故稱首露 金卵故稱金氏 號大駕洛. 首露王妃許氏 南天竺國王女. 浮海而至 迎立爲后.生九子 而二子從母姓. 今金海之金 金海之許 皆首露王之裔.其餘五男子 分王五伽倻. 至首露九世孫仇衡王享書院〉 仇衡王子武力〈新羅 角干〉 武力子舒玄〈匝干〉 舒玄子庾信〈爲新羅統合三韓功臣拜舒發翰 享書院〉 後孫裕簡〈知門下省 事爲一派〉 後孫牧卿〈高麗忠宣王時 三重大匡金寧君〉 子喜〈侍中忠簡公〉 喜五世孫永貞〈文大司憲安敬公〉 永貞七世孫守連〈進勇校尉 首露王後孫 少尹添釗之七世孫爲一派〉 後孫宜〈分籍高靈〉 後孫匀〈有金邊. 分籍咸昌〉 後孫昉〈分籍水原〉 後孫〈名失傳. 分籍固城〉 後孫許琰〈爲金海許氏鼻祖〉 後孫許安康〈爲河陽許氏鼻祖〉 後孫許斯文〈爲泰仁許氏鼻祖〉 金琢〈麗末侍中爲一派〉 金濤〈高麗恭愍王時 侍中金城君爲一派〉 金龍角〈仇衡王之後〉 子管〈麗朝版圖判書爲一派〉 五世孫克〈私謚節孝享書院〉 克一孫馹孫〈文吏曹正郎 選湖堂 享書院〉 馹孫侄大有〈文正言享書院〉 克一五世孫玄成〈文同敦寧〉 金孝老〈爲一派〉 金時興〈新羅敬順王之後 賜貫金海爲一派〉 金濂〈本慶州人 侍郎殷悅第三子 奉御金海君 別籍金海爲一派〉 後孫稟言〈分籍云水源〉 又一派〈本安東人 太師宜平 後別籍金海爲一派〉

김씨〈총서(總敍)를 보면 김종직(金宗直)의 「이존록(彝尊錄)」에서는 김알지(金閼智)는 금궤에서 나왔다하여 김을 성으로 하였다. 혹은 스스로 금천씨(金天氏)의 후예라고 한다고도 하였다. 김유신(金庾信) 비문에는 "헌원(軒轅)의 후예인 소호(少昊)의 자손이다. 가락의 김씨는 신라의 김씨와 동성(同姓)이다."라 하였다. 그 금궤와 금합의 이야기는 아마 잘못 전해진 말이 아닌가 한다. 삼국의 사적은 현묘하고 심원하며 세속의 숭상함이 허황되니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조거적(玄鳥巨迹)의 이야기는 옛날에도 있었다. 대저 한때 그 사람이 신이하다 하여 그 이야기에 찬성하겠는가〉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시조 수로(首露)〈신라 유리왕 때 금합 속에 알이 들어 있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盒卵之異]. 총서(總敍)에 보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왔다 하여 수로(首露)라고 불렀다. 금 알로 인해서 김씨라 칭하였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수로왕비 허씨(許氏)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이다. 바다를 건너 도착하니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아홉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 어머니 성을 따랐다. 지금 김해(金海)의 김씨와 허씨는 모두 수로왕의 후손이다. 나머지 다섯 사내아이는 나뉘어 5가야의 왕이 되었다. 수로의 9세손 구형왕(仇衡王)에 이르러 나라가 없어졌다〉 구형왕의 아들 무력(武力)〈신라의 각간(角干)〉 무력의 아들 서현(舒玄)〈잡간(匝干)〉 서현의 아들 유신(庾信)〈신라를 위해 삼한(三韓)을 통합한 공신으로 서발한(舒發翰)에 임명되었다. 서원(書院)에 배향됨〉 후손 유간(裕簡)〈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하나의 파(派)가 됨〉 후손 목경(牧卿)〈고려 충선왕(忠宣王) 때 삼중대광(三重大匡) 금녕군(金寧君)〉 아들 보(普)〈시중(侍中), 충간공(忠簡公)〉 보의 5세손 영정(永貞)〈문과에 급제. 대사헌(大司憲). 안경공(安敬公)〉 영정의 7세손 우항(宇杭) 〈문과에 급제. 우의정(右議政). 충정공(忠靖公)〉 후손 수연(水連)〈진용교위(進勇校尉) 수로왕 후손 소윤(少尹) 첨쇠(添釗)의 7세손. 하나의 파가 됨〉 후손 의(宜)〈고령(高靈)으로 분적(分籍)〉 후손 균(匀)〈금변(金邊)이 있는 균(鈞)이라고도 함. 함창(咸昌)으로 분적〉 후손 방(昉)〈수원(水原)으로 분적〉 후손〈이름이 전하지 않음. 고성(固城)으로 분적〉 후손 허염(許琰)〈김해 허씨의 비조(鼻祖)가 됨〉 후손 허안강(許安康)〈하양(河陽) 허씨의 비조가 됨〉 후손 허사문(許斯文)〈태인(泰仁) 허씨의 비조가 됨〉 김탁(金琢)〈고려말 시중(侍中). 하나의 파가 됨〉 김도(金濤)〈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시중(侍中). 금성군(金城君). 하나의 파가 됨〉 김용각(金龍角)〈구형왕(仇衡王)의 후예〉 아들 관(管)〈고려조 판도판서(版圖判書). 하나의 파가 됨〉 5세손 극일(克一)〈사시(私謚)는 절효(節孝). 서원에 배향됨〉 극일의 손자 일손(馹孫)〈문과에 급제. 이조정랑(吏曹正郎). 호당(湖堂)에 뽑힘. 서원에 배향됨〉

일손의 조카 대유(大有)〈문과에 급제. 정언(正言). 서원에 배향됨.〉 극일의 5세손 현성(玄成)〈문과에 급제. 동돈령(同敦寧)〉 김효로(金孝老)〈하나의 파가 됨〉 김시흥(金時興)〈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손. 김해를 본관으로 하사받아 일파가 되었다〉 김렴(金濂)〈본래 경주(慶州) 사람인 시랑(侍郞) 은열(殷悅)의 셋째 아들이다. 김해군(金海君)을 받들어 모셔, 별도로 김해를 본적으로 하는 하나의 파가 되었다〉 후손 품언(稟言)〈수원(水源)으로 분적〉 또 하나의 파〈본래 안동(安東) 사람이다. 태사(太師) 의평(宜平)이 후에 별도로 김해를 본적으로 하여 하나의 파가 되었다〉

사료15 **『증보문헌비고』권55 예고2 종묘1 묘제 | 『增補文獻備考』卷五十五 禮考二 宗廟一 廟制**

駕洛國立始祖廟 於首陵之側.

가락국(駕洛國)이 시조묘(始祖廟)를 수릉(首陵) 옆에 세웠다.

사료16 **『증보문헌비고』권56 예고3 종묘2 제향1 | 『增補文獻備考』卷五十六 禮考三 宗廟二 祭享一**

駕洛國祀始祖廟 以每歲孟春三之日·七之日·仲夏重午之日 仲秋初五之日·十五之日.

가락국(駕洛國)이 시조묘(始祖廟)에 매년 정월 3일 · 7일, 5월 5일, 8월 5일 · 15일에 제사지냈다.

사료17 **『증보문헌비고』권64 예고11 제묘 | 『增補文獻備考』卷六十四 禮考十一 諸廟**

[續]崇善殿. 崇善殿 在慶尙道金海郡南. 今上二十二年 命駕洛始祖首露王 建設賓官 宣額禮享 一依崇德殿例.

[속(續)]숭선전(崇善殿). 숭선전은 경상도 김해군 남쪽에 있다. 지금 주상[고종] 22년(1885년)에 명하여 가락시조(駕洛始祖) 수로왕(首露王)의 사당을 건립하여 관원을 두고 편액을 내리며 제사지내는 것을 한결같이 숭덕전(崇德殿)의 예에 의해 하라고 하였다.

사료18 **『증보문헌비고』권70 예고17 산릉 | 『增補文獻備考』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駕洛國首露王陵 在慶尙道金海府 許王后陵亦同塋. [補]邑誌陵號納陵〈一名首陵〉 高一丈 周三百步 每歲孟春三·七日 端午 仲秋五日·十五日祭之. 後以冬至大祀 以太 后配食. 本朝 英祖二十二年 命陵四方百步 立石爲標.改築陵塋 每歲春秋 府中父老 共會設祭. [補]四十四年 陵自陷.五十年 命本府改封築 而祭之. [補]正祖四年 致祭 改竪碑. 輿地勝覽曰 漢建安四年 王薨 葬城北納陵 傍田三十 頃以祀. 新羅之季 將軍忠至鎭金官城 有英規者 假威 於將軍奪廟饗 而致告祠 堂梁折而障於英規頂 遂斃. 後有群盜爲陵中必葬金銀寶器 欲發塚 有猛士被甲 從陵中出射之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大蟒 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陵傍而出 咬殺九人 賊皆僵仆而走.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以陵田減其半屬于民 其夕夢 神人七人 操釗而至云 爾有大怒 故欲斬耳 文善驚覺 得疾宵遁 遂死於道傍. 東史補遺曰 首露王陵 自漢建安四年 逮遼太康二年凡八百七十餘年 所封美土 不騫不崩 所植嘉木 不枯不朽. 李晬光類說曰 宣祖壬辰倭寇 發首露王陵 頭骨大如銅盆 傍有二女 面貌如生 出置壙外則旋卽消滅 盖其殉 葬者也. [補]盆山五金寺峰西 有雙陵 麗史云 朝鮮武康王及妃陵也俗號永通大王陵. [補]高靈縣西二里許 有古藏 俗稱大伽倻錦林大王陵. [補]開寧縣北二十里 有大塚 俗傳甘文金孝王陵 縣西熊峴里 稱甘文國漳夫人陵. [補]會寧邑誌 府北二十五里 花豊山下 世傳 有宋徽欽陵狀如造山 傍有纍纍衆塚 卽當時侍女塚.本朝英祖乙未春 傳敎 令本府 修補本塚 使座首 持一器酒 灑酒諸塚一以示予八旬感舊之懷 一以慰幾百年孤魂. [補]高麗忠肅王十二年 先代陵廟官禁樵牧. [補]十六年 盜發金馬郡馬韓祖虎康王陵. [補]本朝成宗二十四年 以前代諸王陵墓 或有頽毁者 命所在修葺禁樵牧. [補]宣祖三十五年 命禮曹 修治封植前代諸王陵墓. [補]英祖二十二年 命自檀君至前朝諸王陵 令道臣 待秋修治自儀曹 降香致祭. [補]三十九年 命修檀君·箕子及新羅·百濟·高句麗始祖之陵. [補]正祖十六年 命定金海府所在 駕洛國始祖陵 春秋時享之 儀遣承旨告由.

가락국(駕洛國) 수로왕릉(首露王陵). 경상도 김해부에 있다. 허왕후릉(許王后陵)도 같은 영(塋)내에 있다. [보(補)] 『읍지(邑誌)』에 능의 이름은 납릉(納陵)이다.〈또는 수릉(首陵)이라고도 부른다〉 높이가 한 길[장(丈)]이며

둘레는 300보(步)이다. 매년 정월 3일 · 7일, 단오(端午), 8월[仲秋] 5일 · 15일에 제사지낸다. 뒤에는 동지(冬至)의 대사(大祀)에 태후를 배향하였다. 본조 영조 22년(1746년)에 명하여 능 사방 100보에 돌을 세워 표식을 하도록 하고 능 무덤[능영(陵塋)]을 개축하였다. 매년 봄 가을에 [김해]부의 노인[父老]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보(補)] [영조] 44년(1768년)에 능이 저절로 꺼졌다. 50년(1774년)에 본부(本府)[김해부]에 명하여 다시 쌓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보(補)] 정조 4년(1780년)에 제사를 지내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동국]여지승람(輿地勝覽)』에 한(漢) 건안 4년(199년)에 왕이 돌아갔다. 성 북쪽 납릉(納陵)에 장사지내고 능 옆의 밭 30경(頃)으로 제사 비용을 삼았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忠至)가 금관성(金官城)을 진수(鎭守)하였다.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빙자하여 제물[廟饗]을 빼앗고는 사당에 고하였더니, [사당의] 대들보가 부러져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뒤에 도적떼가 있어서 능에 금은보화를 넣었을 것이라 하고는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그러자]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척이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커다란 구렁이가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모두 엎어지면서 달아났다. 순화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趙文善)이 장차 능전(陵田)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다. 그 날 저녁 꿈에 귀신[神人] 7~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옆에서 죽었다. 『동사보유(東史補遺)』에 수로왕릉은 한(漢) 건안 4년(199년)부터 요(遼) 태강 2년(1076년, 고려 문종 30년)에 이르기까지 87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좋은 흙이 떨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심어 놓은 아름다운 나무가 시들거나 썩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類說)』에 선조 임진년(1592년, 조선 선조 25년)에 왜구(倭寇)가 수로왕릉을 파헤쳤는데, 머리뼈가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다. 옆에는 얼굴 생김새가 살아있는 것 같은 여자 두 명이 있었다. 구덩이 밖에 꺼내 두었더니 곧 사라졌다. 아마 순장(殉葬)한 사람인 듯하다고 하였다. [보(補)] 익산(益山) 오금사(五金寺) 봉우리 서쪽에 쌍릉(雙陵)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조선 무강왕(武康王)과 왕비의 무덤이다. 민간에서 영통대왕릉(永通大王陵)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보(補)] 고령현(高靈縣) 서쪽 2리가량에 옛 무덤이 있다. 속칭 대가야 금림대왕릉(錦林大王陵)이라고 부른다. [보(補)] 개녕현(開寧縣) 북쪽 20리에 큰 무덤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감문(甘文)[국] 금효왕릉(金孝王陵)이라고 한다. 현 서쪽 웅현리(熊峴里)에 감문국 장부인릉(獐夫人陵)이라 불리는 무덤이 있다고 하였다. [보(補)] 『회령읍지(會寧邑誌)』에 부(府) 북쪽 25리 화풍산(花豊山) 아래 송휘흠릉(宋徽欽陵)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는데, 모양이 만든 산[造山]같다. 주변에는 여러 겹으로 많은 무덤이 있는데, 바로 당시 시녀(侍女)의 무덤이다. 본조 영조 을미년(1775년, 조선 영조 51년)에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본부[회령부]에 명령하여 본총(本塚)을 수리하도록 하고, 좌수(座首)에게 한잔 술로 여러 무덤에 술을 뿌리도록 하라. 하나는 내 팔순의 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수백년 된 고혼(孤魂)을 달래는 것이다."라 하였다. [보(補)] 고려 충숙왕 12년(1235년)에 선대 능묘는 관(官)에서 땔나무 하는 것과 가축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보(補)] [충숙왕]16년(1329년)에 도적이 금마군(金馬郡) 마한 시조 무강왕[虎康王]의 능을 파헤쳤다. [보(補)] 본조 성종 24년(1493년)에 전대 여러 왕의 능묘(陵墓)로 혹 무너져 훼손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 지방 관청에 명하여 수리하게 하고, 땔나무하는 것과 가축치는 것을 금하라고 하였다. [보(補)] 선조 35년(1602년)에 예조에 전대 여러 왕의 능묘(陵墓)를 수리하고 봉식(封植)하라고 명하였다. [보(補)] 영조 22년(1746년)에 단군(檀君)에서 전왕조의 여러 왕릉에 이르기까지 관찰사[道臣]에게 가을을 기다려 수리하도록 하고, [일이 끝난 뒤에] 예조[儀曹]에서 향을 내려 치제(致祭)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보(補)] [영조]39년(1763년)에 단군·기자·신라·백제·고구려 시조의 능을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보(補)] 정조 16년(1792년)에 김해부에 있는 가락국 시조릉에 봄 가을로 시향(時享)을 지내도록 정하고, 의례에 따라 승지를 보내 고유(告由)하도록 명하였다.

사료19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乙卯〉〈新羅奈解王三年 高句麗山上王二年 百濟肖古王三十三年 東漢獻帝建安四年〉 春三月 駕洛王金首露租 在位百 五十八年. 太子居登立. 葬于納陵. 王之世 黎民大化 四方則之 號爲淳鹿之治. 及殂 國人悲慟. 芝峯李氏睟光類說云 壬辰〈我朝宣祖 二十五年〉 日寇發首露王納陵.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盆 手足脛骨甚偉. 柩傍有二女子 而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 旋卽消滅. 盖其殉 葬者也.

〈기묘(己卯)〉〈신라 나해왕 3년, 고구려 산상왕 2년, 백제 초고왕 33년, 동한(東漢) 헌제 건안 4년(199년)〉 봄 3월에 가락왕 김수로(金首露)가 돌아갔다. 158년간 재위하였다. 태자 거등(居登)이 왕위에 올랐다. [수로왕을] 납릉(納陵)에 장사지냈다. 왕의 세대에 백성이 크게 교화되어 사방에서 그를 본받았으니, 순방(淳龐)의 치세라고 불렀다. [수로왕이] 죽게 되자 나라 사람이 몹시 슬퍼하였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李氏睟光類說]에 임진년(1592년)〈우리 조정 선조(宣祖) 25년〉에 왜적이 수로왕의 납릉(納陵)을 파헤쳤다. 구덩이[壙] 속이 매우 넓고, 두개골의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으며, 팔다리와 정강이뼈[脛骨]도 매우 컸다. 널[柩] 옆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나이는 20세 가량 되었다. [두 여자의 시신을] 구덩이 밖에 내놓자 금새 사라져 없어졌다. 아마도 순장(殉葬)된 사람인 듯하다.

199년 가락국 거등왕이 즉위해 55년을 다스리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建安〈丙子〉 第二 居登王 首露子 母許皇后 己卯立 理五十五年 姓金氏

건안(建安) 〈병자년〉 제2대 거등왕은 수로의 아들로 어머니는 허황후였다. 기묘(己卯)년(199년)에 즉위해 55년을 다스렸다. 성은 김씨이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居登王. 父首露王 母許王后. 立安四年己卯三月十三日卽位 治三十九年. 嘉平五年癸酉九月十七日崩. 王妃泉府卿申輔女慕貞 生太子麻品. 開皇曆云 姓金氏 盖國世祖金卵而生 故以金爲姓爾.

거등왕(居登王). 부친은 수로왕(首露王)이고 모친은 허왕후(許王后)이다. 입안 4년 기묘년(199년) 3월 13일에 즉위해 39년을 다스렸다. 가평(嘉平) 5년 계유년(253년) 9월 17일에 돌아갔다. 왕비는 천부경(天府卿) 신보(申輔)의 딸 모정(慕貞)으로 태자 마품(麻品)을 낳았다. 『개황력(開皇曆)』에 말하기를 성(姓)은 김씨(金氏)로 대개 세조(世祖)가 금알(金卵)에서 태어난 까닭에 김(金)을 성(姓)으로 했다고 하였다.

사료3 **『역대기년』** 권 하 삼한 | **『歷代紀年』** 卷 下 三韓

居登王〈首露子. 己卯立. 後帝延熙癸酉卒〉

거등왕〈수로의 아들이다. 기묘년(199년)에 즉위하였다. 후제(後帝) 연희 계유년(253년)에 돌아갔다〉

사료4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子居登立. 召七點山人旵始 作招賢臺.

아들 거등(居登)이 즉위하였다. 칠점산(七點山)의 선인(仙人) 참시(旵始)를 부르고, 초현대(招賢臺)를 지었다.

199~253년 가락국 거등왕이 칠점산의 선인을 초대하다

사료1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금주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金州

招賢臺〈在州東. 世傳 駕洛國居登王 登此臺 招七點山旵始仙人 旵始乘舟而來 因名焉〉

초현대〈주(州)의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이 이 대(臺)에 올라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불렀더니 참시가 배를 타고 왔으므로 그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사료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招賢臺在府東五里. 〈世傳駕洛國 居登王登此 招七點山棲止旵始仙人 旵始乘舟抱琴而來 相與遊戲 因名招賢臺〉

초현대(招賢臺)는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이곳에 올라 칠점산(七點山)에 살고 있는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불렀더니 참시가 가야금[琴]을 안고 배를 타고 와서 함께 즐겼으므로 이 때문에 초현대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사료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題詠】 招賢臺下海波明〈朱悅詩 首露陵前草色青云云 春風遍入流亡戶 開徧梅花慰客情.〉

【제영(題詠)】 초현대(招賢臺) 아래의 바다 물결이 밝다(招賢臺下海波明)〈주열(朱悅)의 시에 "수로릉(首露陵) 앞의 풀빛이 푸르고, 초현대 아래의 바다 물결이 밝다. 봄바람이 유망한 집에도 골고루 미쳐, 매화를 활짝 피워 객의 마음을 위로하네."라 하였다〉

사료4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古蹟】 …(중략)… 招賢臺〈在府東七里小山也. 俗傳 駕洛國居登王 招七點山旵始仙人 旵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遊 因以爲名. 王所坐蓮花石與棋局石 至今在焉〉

【고적(古蹟)】 …(중략)… 초현대(招賢臺)〈부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 작은 산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俗傳] 가락국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부르자 참시가 배를 타고 고[琴]를 타고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는데, 이로 인하여 [초현(招賢)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을 두었던 돌이 지금도 남아 있다〉

사료5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居登王] 招七點山〈山名 在梁山郡〉仙人旵始〈旵邊減絶人名〉 乘舟包琴而來 相與歡戲于小山. 號曰招賢臺.

[거등왕이] 칠점산 선인〈산 이름인데 양산군에 있다〉 참시(旵始)〈참은 변이 빠졌는데 전하지않는 인명이다〉를 초대하니 배를 타고 거문고(琴)를 안고 왔다. 서로 어울려 작은 산에서 기뻐하며 놀았으니 초현대(招賢臺)라 이름지어 불렀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子居登立. 召七點山人旵始 作招賢臺.

아들 거등(居登)이 즉위하였다. 칠점산(七點山)의 선인(仙人) 참시(旵始)를 부르고, 초현대(招賢臺)를 지었다.

사료7 **『증보문헌비고』** 권22 여지고10 산천4 |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二 輿地考十 山川四

慶尙道 金海 招賢臺〈在東三里〉 世傳 駕洛國居登王 招七點山旵始仙人 旵始乘舟抱琴而來 相與歡戲 因以名. 所坐蓮花石 與棋局石 至今存焉.

경상도 김해(金海) 초현대(招賢臺)〈동쪽 7리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가락국(駕洛國)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의 참시선인(旵始仙人)을 초대하였다. 참시선인이 금(琴)을 안고 배를 타고서 와서 서로 즐겁게 놀았다. 이로 인해서 이름붙인 것이다. 앉았던 연화석(蓮花石)과 바둑판으로 쓰던 돌[碁局石]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한다.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癸酉〉〈新羅沾解王六年 高句麗中川王五年 百濟古尒王十九年 蜀漢後帝延熙十六年〉 秋九月 駕洛國王居登殂. 子痲品立. 世傳 居登王招七點山〈在 金海〉隱士旵始. 旵始乘舟抱琴而來. 王與之歡遊. 後人因名其地爲招賢臺.

〈계유(癸酉)〉〈신라 첨해왕 6년, 고구려 중천왕 5년, 백제 고이왕 19년, 촉한(蜀漢) 후제 연희 16년(253년)〉 가을 9월에 가락국왕 거등(居登)이 죽었다. 아들 마품(痲品)이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전하기를 거등왕(居登王)이 칠점산(七點山)〈김해(金海)에 있다〉의 은사(隱士) 참시(旵始)를 초대하였다. 참시가 금(琴)을 안고 배를 타고 오니, 왕이 그와 즐겁게 놀았다. 뒷사람들이 이로 인해 그 땅의 이름을 초현대(招賢臺)라 하였다고 한다.

201년 가야국이 신라에 화친을 청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

나해이사금 6년(201년) 봄 2월에 가야국(加耶國)이 화친을 청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辛巳 漢建安六年 新羅奈解王六年 高句麗山上王五年 百濟肖古王三十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于新羅.

〈신사년(201년), 한(漢) 건안(建安) 6년, 신라 나해왕 6년, 고구려 산상왕 5년, 백제 초고왕 36년〉 봄 2월에 가야국이 신라에 화친을 청했다.

사료3 **『동국통감』** 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辛巳 漢建安六年 新羅奈解王六年 高句麗山上王五年 百濟肖古王三十六年〉 春二月 加耶國請和于新羅.

〈신사년(201년), 한(漢) 건안(建安) 6년, 신라 나해왕 6년, 고구려 산상왕 5년, 백제 초고왕 36년〉 봄 2월에 가야국이 신라에 화친을 청했다.

사료4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首露王薨 子居登王立. 旣立三年 請和於新羅. 此漢獻帝建安六年也. 新羅史云 奈解王六年〈漢建安六年〉春二月 加耶國請和.

수로왕이 돌아가 아들 거등왕(居登王)이 왕이 되었다. 즉위 3년에 신라에 화친를 청하였으니, 이때가 한(漢) 헌제 건안 6년(201년)이다. 신라사[『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 말하기를 나해왕(柰解王) 6년(201년)〈한(漢) 건안 6년〉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사료5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柰解王六年 加耶國 遣使請和.

나해왕 6년(201년)에 가야국(加耶國)이 사신을 보내 화의를 청하였다.

사료6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辛巳〉〈新羅柰解王五年 高句麗山上王四年 百濟肖古王三十五年 東漢獻帝建安六年〉 春二月 駕洛請和于新羅.

〈신사(辛巳)〉〈신라 나해왕 5년, 고구려 산상왕 4년, 백제 초고왕 35년, 동한(東漢) 헌제 건안 6년(201년)〉 봄 2월에 가락(駕洛)이 신라에 화의를 청하였다.

209년 포상팔국이 가라를 침략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柰解尼師今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

나해이사금 14년(209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침략하였다. 가라(加羅)왕자가 (신라에)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태자(太子) 우로(于老)와 이벌찬(伊伐湌) 이음(利音)에게 명해 6부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였다. 팔국(八國) 장군(將軍)을 쳐서 죽이고 6천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己丑 漢建安十四年 新羅柰解王十四年 高句麗 山上王十三年 百濟 肖古王 四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請救於新羅.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是役也 勿稽子有大功 以見忌於利音 故不記其功. 或謂曰 子之功莫大 而不見錄 怨乎. 曰 何怨之有. 或曰 盍聞之於王. 曰 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志以待後時而已. 勿稽子 家勢平微 爲人倜儻 有壯志.

〈기축년(209년) 한(漢) 건안 4년, 신라 나해왕 14년, 고구려 산상왕 13년, 백제 초고왕 44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蒲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침략하였다. 가라왕자(加羅王子)이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태자(太子) 우로(于老)와 이벌찬(伊伐湌) 이음(利音)에게 명해 6부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였다. 팔국(八國) 장군(將軍)을 쳐서 죽이고 6천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이 전쟁에서 물계자(勿稽子)에게 큰 공이 있었으나 이음(利音)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功)이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대의 공이 가장 큰데 기록되지 않았으니 원망하지 않는가." 하였다.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고 대답했다. 또 누군가 묻기를 "왜 왕께 아뢰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공을 자랑해 명성을 얻는 것은 지사(志士)의 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뜻을 가다듬어 다음을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물계자는 집안이 미천하고 평범하였지만 기개가 있고 장한 뜻이 있었다.

사료3 **『동국통감』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己丑 漢建安十四年 新羅奈解王十四年 高句麗 山上王十三年 百濟 肖古王 四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請救於新羅. 王命太子于老與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是役也 有勿稽子功最大 以見忌利音 不見記錄. 人曰 子功大而不見錄 怨乎. 曰 何怨之有. 曰 盍聞之於王. 曰 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志待時而已.

〈기축년(209년) 한(漢) 건안 4년, 신라 나해왕 14년, 고구려 산상왕 13년, 백제 초고왕 44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침략하였다. 가라왕자(加羅王子)가 신라(新羅)에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태자 우로(于老)와 이음(利音)에게 명해 6부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였다. 팔국(八國) 장군(將軍)을 쳐서 죽이고 6천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이 전쟁에서 물계자(勿稽子)의 공이 가장 컸으나, 이음에게 미움을 받아 공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의 공이 큰데 기록되지 않았으니 원망하지 않는가."하였다.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왜 왕께 아뢰지 않습니까."하자 "공을 자랑해 명성을 얻는 것은 지사(志士)의 할 바가 아니다. 다만 뜻을 가다듬어 다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사료4 **『강역고』권2 변진별고 | 『疆域考』卷二 弁辰別考**

[奈解王]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飡 利音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十七年 春〈建安十七年〉加耶送王子爲質. 鏞案 浦上八國者 今昌原 · 漆原 · 咸安 · 固城之地.〈已見前〉本皆迦羅之屬 同是弁辰之族. 而首露新薨 八國作亂 故居登王請救於新羅也. 勿稽子傳云 浦上八國同謀伐柯羅國. 柯羅遣使請救. 王使王孫捺音 率近部及六部軍 往救. 遂敗八國兵. 後三年 骨浦〈卽合浦. 今合于昌原〉· 漆浦〈今漆原〉· 古史浦 〈疑固城〉三國人 來攻竭火城.〈今未詳〉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鏞案 旣云浦上 不云海中 則今巨濟 · 南海 不在計也. 今浦上之地 東自昌原 西至昆陽 恰爲八邑. 而咸安 · 固城本有加耶之名 骨浦 · 漆浦已著新羅之史 八邑之爲浦上八國 無疑. 縱有沿革 不甚相遠也.

[나해왕]14년(209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가라(加羅)를 치려고 모의하였다.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인 우로(于老)와 이벌찬 이음(利音)에게 명하여 6부병(六部兵)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8국 장군을 쳐서 죽이고 포로 6천 명을 빼앗아 돌아왔다. [나해왕]17년(212년)〈건안(建安) 17년〉 봄에 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포상팔국은 지금[조선]의 창원(昌原), 칠원(漆原), 함안(咸安), 고성(固城)의 땅이니〈이미 앞에 나왔다〉 본래 모두 가라(迦羅)의 속국으로 같은 변진(弁辰)의 족속이었다. 그런데 수로(首露)왕이 죽자마자 8국이 난을 일으켰으므로 거등왕(居登王)이 신라에 구원을 청한 것이다. [『삼국사기』] 물계자(勿稽子) 열전에서 말하기를 포상팔국이 함께 모의하여 가라국(柯羅國)을 치니 가라국이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나음]왕이 왕손 나음(捺音)으로 하여금 근부(近部)와 6부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도와주도록 하여 마침내 8국 군사를 이겼다. 3년 뒤에 골포(骨浦)〈곧 합포(合浦)이니 지금 창원에 합쳐있다〉, 칠포(漆浦)〈지금 칠원이다〉, 고사포(古史浦)〈고성(固城)으로 생각된다〉 3국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碣火城)〈지금은 알 수 없다〉을 공격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여 삼국의 군사를 크게 이겼다. [이때] 물계자가 수 십여 급을 베고 빼앗았다고 하였다. 나 정약용[鏞]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포상(浦上)이라고 말하고 바다 가운데[海中]라고 하지 않았으니, 지금 거제(巨濟)와 남해(南海)는 셈에 들지 않는다. 지금 포상의 땅은 동쪽으로 창원(昌原)으로부터 서쪽으로 곤양(昆陽)에 이르기까지 8읍에 꼭 들어맞는다. 그리고 함안(咸安)과 고성(固城)은 본래 가야의 명칭이었으며, 골포(骨浦)와 칠포(漆浦)는 이미 신라의 역사에 나타나 있다. 8읍이 포상팔국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설사 변천되어 온 내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멀지는 않을 것이다.

사료5 **『역사집략』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己丑〉〈新羅奈解王十三年 高句麗山上王十二年 百濟肖古王四十三年 東漢獻帝建安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

侵駕洛. 駕洛王子請救於新羅. 羅王命太子于老及利音 將兵救之. 奪八國所虜六千人 還駕洛. 按 浦上八國 今可知者 惟保羅·史勿·骨浦·漆浦·古浦 五國. 而古浦今固城〈本名古自浦〉 史勿今泗川地 骨浦今合于昌 原 漆浦疑今之漆原 餘未聞. 張志淵以爲浦上八國 疑卽大加耶之屬國. 此說甚好.
〈기축(己丑)〉〈신라 나해왕 13년, 고구려 산상왕 12년, 백제 초고왕 43년, 동한(東漢) 헌제 건안 14년(209년)〉 가을 7월에 포상팔국(蒲上八國)이 가락(駕洛)을 치려고 모의하였다. 가락왕자(駕洛王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니, 신라왕이 태자인 우로(于老)와 이음(利音)에게 명하여 군사로 구원하게 하였다. 8국에 포로로 잡힌 6천 명을 빼앗아 돌아왔다. 살펴보건대 포상팔국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보라(保羅) · 사물(史勿) · 골포(骨浦)·칠포(漆浦)·고포(古浦)의 단지 다섯 나라뿐이다. 고포는 지금[대한제국]의 고성(固城)〈본명은 고자포(古自浦)〉, 사물은 지금의 사천(泗川) 땅이다. 골포는 지금의 창원(昌原)과 합치한다. 칠포는 지금의 칠원(漆原)이 아닐까 의심된다.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장지연(張志淵)은 포상팔국은 의심컨대 대가야의 속국이 아닐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매우 좋다.

209년 물계자가 포상팔국 전쟁에서 활약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48 열전8 물계자 |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家世平微 爲人倜儻 少有壯志. 時 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捺音 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是役也 勿稽子有大功 以見憎於王孫 故不記其功. 或謂勿稽子曰 子之功莫大而不見錄 怨乎. 曰 何怨之有. 或曰 盍聞之於王. 勿稽子曰 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志 以待後時而已.
물계자(勿稽子)는 나해이사금 때 사람이다. 집안이 대대로 미미하지만 사람됨이 활발하고 젊어서 장한 뜻이 있었다. 이때 포상(浦上)의 8국(國)이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阿羅國)을 치니, 아라(阿羅)의 사신이 (신라에)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尼師今)이 왕손(王孫) 나음(奈音)으로 하여금 가까운 군(郡)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여 드디어 8국 군사를 깨뜨렸다. 이 싸움에 물계자(勿稽子)가 큰 공(功)이 있었는데, 왕손(王孫)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누가 물계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공이 제일 컸는데 기록되지 않았으니 원망스럽지 않은가."하니, "무슨 원망이 있으랴 하였다." 또 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 아뢰지 않느냐."고 하니, 물계자는 "공을 자랑하고 이름을 구하는 일은 지사(志士)의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뜻을 흔들어 힘써서 후일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後三年 骨浦 · 柒浦 · 古史浦三國人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及其論功. 又無所得 乃語其婦曰 嘗聞爲臣之道 見危則致命 臨難則忘身 前日浦上 · 竭火之役 可謂危且難矣. 而不能以致命忘身聞於人 將何面目以出市朝乎. 遂被髮携琴 入師彘山 不反.
[그] 후 3년에 골포(骨浦; 창원) · 칠포(柒浦; 칠원) · 고사포(古史浦; 고성)의 3국(國)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竭火城; 울산)을 공격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여 3국의 군사를 크게 깨뜨렸다. 물계자가 수십여 명을 베었는데, 공(功)을 의논할 때에 또 소득이 없었다. 여기서 그 부인(婦人)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신하된 도리는 위태롭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잊는다고 하였소. 전일의 포상(浦上)과 갈화(竭火)의 싸움은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는 것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자(市)와 조정(朝廷)에 나갈 것이냐."하고 그만 머리를 풀고 거문고(琴)를 가지고 사체산(師彘山)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212년 가야가 신라에 인질을 보내다

사료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1 |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一

奈解尼師今十七年 春三月 加耶送王子爲質.

나해이사금 17년 봄 3월에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壬辰 漢建安十七年 新羅奈解王十七年 高句麗山上王十六年 百濟肖古王 四十七年〉 春三月 加耶王送子爲質于新羅.

〈임진년(212년), 한(漢) 건안(建安) 17년, 신라 나해왕 17년, 고구려 산상왕 16년, 백제 초고왕 47년〉 봄 3월에 가야왕(加耶王)이 아들을 신라에 인질(質)로 보냈다.

사료3 **『동국통감』** 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壬辰 漢建安十七年 新羅奈解王十七年 高句麗山上王十六年 百濟肖古王 四十七年〉 春三月 加耶王送子質新羅.

〈임진년(212년), 한(漢) 건안(建安) 17년, 신라 나해왕 17년, 고구려 산상왕 16년, 백제 초고왕 47년〉 봄 3월에 가야왕(加耶王)이 아들을 신라에 인질(質)로 보냈다.

사료4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奈解王]十七年 春〈建安十七年〉 加耶送王子爲質. …(중략)… 建安以後 二百六十八年 迦羅之跡 史冊無文. 至齊高帝建元元年 迦羅國王荷知遣使于南齊.

[나해왕]17년 봄〈건안 17년〉 가야국이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중략)… 건안 이후 268년 동안 가라(迦羅)의 자취는 역사책에 글이 없다가, 제(齊)나라 고제(高帝) 건원(建元) 원년(479년) 가라국왕(迦羅國王) 하지(荷知)가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냈다.

사료5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奈解王]十七年 加耶國 送子爲質.

[나해왕]17년(212년)에 가야국이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사료6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壬辰〉〈新羅奈解王十六年 高句麗山上王十五年 百濟肖古王四十六年 東漢獻帝建安十七年〉 春三月 駕洛王送子 質新羅.

〈임진(壬辰)〉〈신라 나해왕 16년, 고구려 산상왕 15년, 백제 초고왕 46년, 동한(東漢) 헌제 건안 17년(212년)〉 봄 3월에 가락왕이 아들을 신라에 인질로 보냈다.

212년 물계자 2차 포상팔국 전쟁에서 다시 활약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5 피은8 물계자 | **『三國遺事』** 卷五 避隱八 勿稽子

勿稽子. 第十奈解王卽位十七年壬辰 保羅國·古自國〈今固城〉·史勿國〈今泗州〉等八國 倂力來侵邊境 王命太子㮈音. 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時 勿稽子軍功第一 然爲太子所嫌 不賞其功. 或謂勿稽子 此戰之功 唯子而已 而賞不及子 太子之嫌君其怨乎. 稽曰 國君在上 何怨人臣. 或曰 然則 奏聞于王幸矣. 稽曰 伐功爭命 揚己掩人 志士之所不爲也 勵之待時而已. 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來攻竭火〈疑屈弗也 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 稽所獲數十級 而人不言稽之功. 稽謂其妻曰 吾聞仕君之道 見危致命 臨難忘身 仗於節義 不顧死生之謂忠也. 夫保羅〈疑發羅. 今羅州〉. 竭火之役 誠是國之難. 君之危 而吾未曾有忘身致命之勇 此乃不忠甚也. 旣以不忠而仕君 累及於先人 可謂孝乎. 旣失忠孝 何顏復遊朝市之中乎. 乃被髮荷琴 入師彘山〈未詳〉 悲竹樹之性病 寄托作歌 擬溪澗之咽響 扣琴制曲 隱居不復現世.

물계자(勿稽子). 제10(대) 나해왕(奈解王) 즉위 17년 임진(壬辰)년(212년)에 보라국(保羅國; 함안?) · 고자국(古自國)〈지금의 고성(固城)이다〉 · 사물국(史勿國)〈지금의 사천(泗川)이다〉 등 8국(國)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범하였다. 왕이 태자 나음(㮈音)과 장군(將軍) 일벌(一伐) 등에게 명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8국(國)이 모두 항복하였다. 이때 물계자(勿稽子)의 군공(軍功)이 으뜸이었다. 그러나 태자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功)에 상(賞)을 주지 않았다. 누가 물계자에게 이르되 "이번 싸움의 공은 오직 그대만인데, 그대에게 상이 미치지 않으니 그대는 태자가 미워함을 원망하는가 하였다." 계(稽)가 말하기를 "국군(國君)이 위에 계시니 어찌 사람의 신하(人臣; 태자)를 원망하겠는가."하였다. 그 사람이 "그러면 왕께 아뢲이 좋을 것이다."하니, 계(稽)가 "공을 세우려고 이름을 다투고 나를 나타내려고 남을 덮는 것은 지사(志士)의 하는 바가 아니다. 오직 힘써 때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10년(212년) 을미(乙未)년에 골포국(骨浦國)〈지금의 합포(合浦)이다〉등 3국왕(國王)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갈화(竭火)〈굴불(屈弗)인 듯하니 지금의 울주(蔚州)이다〉에 와서 공격하였다.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막으니 3국이 모두 패하였다. 계(稽)가 잡은 것이 수십 급(級)이었으나 사람들이 계(稽)의 공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계(稽)가 그 처(妻)에게 이르되 "내가 듣건대 임금에 봉사(仕君)하는 도(道)는 위태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하여 몸을 잊으며 절의를 지켜 죽고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을 충(忠)이라 하였으니, 보라(保羅)〈발라(發羅)인 듯하니 지금 나주(羅州)이다〉와 갈화(竭火)의 싸움은 진실로 국난이요 임금의 위태함이었으나, 내가 아직 몸을 잊고 목숨을 다하는 용맹이 없었으니, 이것은 불충이 심했던 것이다. 이미 불충으로 임금을 섬기고 선인에게 누를 끼쳤으니 어찌 효(孝)라 하겠는가. 이미 충효의 도를 잃었으니 무슨 낯으로 다시 저자(市中)에서 놀 수 있겠는가."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문고를 메고 사체산(師彘山)〈잘 알 수 없다〉에 들어갔다. 대나무의 성벽(性癖)을 슬퍼하고 그것에 비유하여 노래를 짓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의지하여 거문고를 타고 곡조(曲調)를 지으며 은거하여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사료2 **『삼국사기』** 권48 열전8 |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중략)… 後三年 骨浦 · 柒浦 · 古史浦 三國人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及其論功 又無所得. 乃語其婦曰 嘗聞爲臣之道 見危則致命 臨難則忘身 前日浦上 · 竭火之役 可謂危且難矣. 而不能以致命忘身聞於人 將何面目以出市朝乎. 遂被髮携琴 入師彘山 不反.

물계자(勿稽子) …(중략)… 그 후 3년에 골포(骨浦; 창원) · 칠포(柒浦; 칠원) · 고사포(古史浦; 고성군)의 3국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竭火城)을 공격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여 3국 군사를 크게 깨뜨렸다. 물계자(勿稽子)가 수십여 급(級)을 베었는데, 공(功)을 의논할 때 또 소득이 없었다. 여기서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일

찍이 들으니 신하된 도리는 위태롭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잊는다고 하였소. 전일의 포상(浦上) · 갈화(竭火)의 싸움은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능히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는 것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자(市)와 조정(朝廷)에 나갈 것이냐."하고 마침내 머리를 풀고, 금(琴)을 가지고 사체산(師彘山)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238년 대방태수와 낙랑태수가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과 읍장의 인수를 하사하다

사료1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30 한 |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桓·鮮卑東夷傳三十 韓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遵戰死，二郡遂滅韓.

경초 연간(237~239년)에 명제(明帝)가 몰래 대방태수 유흔(劉昕)과 낙랑태수 선우사(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 대방(帶方)과 낙랑(樂浪)의 두 군을 평정케 하였다.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더 하사하고, 그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읍장(邑長)을 주었다. 그들의 풍속은 책(幘) 쓰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가 군(郡)에 나가서 조회할 때는 모두 책을 빌려 쓰고 나갔으며, 스스로 인수를 차고 책을 쓴 자들이 1천여 명이 되었다.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이 낙랑으로 한국을 통제하였다. 진한(辰韓) 8국을 나누어 낙랑에게 주었다. 관의 통역이 와전되어 같고 다름이 있어 신지(臣智)가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태수(太守) 궁준(弓遵)과 낙랑태수 유무(劉茂)가 병력을 일으켜 싸우다 준(遵)이 전사했으나 마침내 2군이 한(韓)을 멸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3 외신부8 봉책1 | 『冊府元龜』 卷九百六十三 外臣部八 封冊一

〈魏 明帝 景初〉二年 是年 遣帶方太守劉昕 · 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樂浪太守鮮于嗣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위(魏) 명제 경초〉 2년(238년) 이 해에 대방태수(帶方太守) 유흔(劉昕)과 낙랑태수(樂浪太守) 선우사(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 2군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하사하고 그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읍장(邑長)을 주었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魏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名.〈同上〉

〈위(魏) 경초〉 연간(237~234년)에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帶方太守) 유흔(劉昕)과 낙랑태수(樂浪太守) 선우사(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 대방(帶方)과 낙랑(樂浪) 두 군을 평정케 하였다. 한(韓) 땅에 있는 여러 나라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하사하고 그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읍장(邑長)을 주었다. 그들의 풍속은 책(幘) 쓰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가 군(郡)에 나가서 조회할 때는 모두 책을 빌려 쓰고 나갔으며, 스스로 인수를 차고 책을 쓴 자들이 1천여 명이나 되었다.〈위와 같다〉

246년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에 한나해 등 수십 국이 항복하다

사료1 **『삼국지』** 권4 위서4 삼소제기4 | **『三國志』** 卷四 魏書四 三少帝紀四

齊王 正始七年 春二月 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제왕 정시 7년(246년) 봄 2월에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를 쳤다. 여름 5월에 예맥(濊貊)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했다. 한나해(韓那奚) 등 수 십국이 부락을 들어 항복했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魏 齊王 正始〉七年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위(魏) 제왕 정시〉 7년(246년)에 한나해(韓那奚) 등 수 십국이 부락을 들어 항복했다.

사료3 **『책부원구』** 권983 외신부28 정토2 | **『冊府元龜』** 卷九百八十三 外臣部二十八 征討二

〈[魏] 齊王 正始〉七年 二月 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麗. 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위(魏)] 제왕 정시〉 7년(246년) 2월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쳤다. 여름 5월에 예맥(濊貊)을 토벌해 모두 격파했다. 한나해(韓那奚) 등 수 십국이 부락을 들어 항복했다.

사료4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魏] 齊王 芳 正始〉七年 春二月 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麗. 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謹按 那奚國 疑馬韓所屬狗奚國〉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傳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是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二郡遂滅韓〈竝同上 謹按 部從事 卽南部從事也. 吳林之攻辰韓 當在正始七年間也. 詳見四郡事實條〉

〈[위(魏)] 제왕 방(芳) 정시〉 7년(246년) 2월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고, 5월에 예맥(濊貊)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하였다. 한(韓)의 나해(那奚) 등 수십 나라가 각각 종족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삼가 살펴보건대 나해국(那奚國)은 마한(馬韓)에 소속된 구해국(狗奚國)인 듯하다〉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이 낙랑이 본디 한국을 통치하였다고 해서 진한의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붙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역관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자, 신지(臣智)가 한(韓)의 분노를 자극해 대방군(帶方郡)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방태수 궁준(弓遵)과 낙랑태수 유무(劉茂)가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여, 두 군이 비로소 한국(韓國)을 멸망시켰다.〈모두 위와 같다. 삼가 살펴보건대 부종사는 바로 낙랑 남부의 종사이다. 오림이 진한을 공격한 것은 정시(正始) 7년(246년)의 일이다. 이 일은 사군사실조(四郡事實條)에 상세하게 보인다〉

247년 『역사집략』이 「신공기」를 채록하고 신라의 일로 해석하다

사료1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丁卯〉〈新羅助賁王十七年 高句麗東川王二十年 百濟古尒王十三年 蜀漢後帝延熙十年〉 是時 新羅·百濟俱遣使餽物于日本〈日后神功 四十七年〉. 羅使潛易濟物以遣. 日后知之 逐羅使 遣荒田別等 將兵援濟 攻羅破之. 遂定大加耶七國以連濟 仍於大加耶置行府駐兵. 日本史云 任那卽大加耶. 神功皇后之征韓也 置政府於其地. 後任那爲新羅

所滅. 按 大加耶卽今高靈地 在新羅·百濟二國之間. 故日人以威加之 駐兵其地 以爲西結百濟·東圖新羅之根本. 盖以區區之大加耶 處在羅·濟之間 形勢倡側 而能久保其國 後駕洛而亡者 直以爲日人所親故也. 然而三國史 其事都不一見 千載之間 聲跡浸寢. 噫 孰知今日厚夜之暗 忽借明於醫舍之火也哉. 但其君之可知者 自始祖以下 不過三人. 惜也. 又按 大加耶七國者 明是浦上八國之屬耳. 張志淵所著疆域考 增補任那考曰 日本史云 崇神天皇六十五年〈新羅始祖二十五年〉 任那國遣蘇那曷叱知 入貢. 任那之通日本 在三國之先. 而五加耶同時幷立云者 可知其無稽也. 愚按 五加耶幷立之跡 崔孤雲·金富軾皆著于史傳. 今豈可遽屈二說 而信日本史乎. 新羅始祖八年 日本來侵而旋退 則其時當有信使之交聘. 然則 任那入貢云云者 安知非誤書新羅之事者耶.

〈정묘〉〈신라 조분왕 17년, 고구려 동천왕 20년, 백제 고이왕 13년, 촉한(蜀漢) 후제 연희 10년(247년)〉 이때 신라와 백제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日本)〈일후(日后) 신공(神功) 47년(247)〉에 공물을 보냈는데[餽], 신라 사신이 몰래 백제 물건과 바꿔서 보냈다. 일후(日后)가 이 사실을 알고 신라 사신을 쫓아내고는, 아라타와케[荒田別] 등을 보내 군사로 백제를 구원하고 신라를 공격하여 깨트렸다. 드디어는 대가야(大加耶) 일곱 나라를 평정하여 백제에 부쳤다. 이에 대가야에 행부(行府)를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일본사(日本史)에 임나(任那)는 곧 대가야이다. 신공황후(神功皇后)가 한(韓)을 정벌하고, 그 지역에 정부(政府)를 설치하였다. 뒤에 임나는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살펴보건대 대가야는 곧 지금[대한제국]의 고령(高靈) 땅이니,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이 위협을 더하여 그 땅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서쪽으로 백제와 결합하고 동쪽으로는 신라의 근거지를 도모하였다. 대개 작은 나라인 대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어서 형세가 위태로웠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고 가락 뒤에 망한 것은 바로 일본인과 친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삼국사(三國史)』에는 그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천년 사이에 흔적이 점차 사라진 것이다. 아, 오늘의 두터운 밤의 어둠을 홀연 의사(醫舍)의 불을 빌려 밝힐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다만 [대가야의] 왕으로서 알 수 있는 자는 시조(始祖) 이하 세 명에 불과하니, 애석하도다. 또 살펴보건대 대가야 일곱 나라는 분명 포상팔국에 속할 뿐이다. 장지연(張志淵)이 저술한 『강역고(疆域考)』의 「증보임나고(增補任那考)」에 일본사에서는 숭신천황(崇神天皇) 65년(기원전 33년)〈신라 시조 25년〉 가을 7월에 임나국(任那國)이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를 보내 조공케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로 보아] 임나(任那)가 일본(日本)과 통한 것은 삼국보다 앞섰다. 5가야가 동시에 병립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살펴보건대 5가야가 병립한 흔적은 최치원[崔致遠]과 김부식(金富軾)이 모두 역사와 전기[史傳]에 썼다. 지금 어찌 두 설(說)을 굽히고 일본사를 믿겠는가. 신라 시조 8년(기원전 50년)에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곧 돌아갔다. 그때 마땅히 서로 사신을 보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나가 조공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신라의 일을 잘못 쓴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249년 『해동역사』가 『일본서기』 신공기를 인정해 채록하다

사료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魏主 芳 正始〉九年 神功四十九年 依以新羅久不朝〈百濟通便不闕〉 以荒田別及鹿香別爲將軍 以百濟久氐等爲導擊新羅. 至卓淳 百濟王命木羅斤資·沙沙奴跪〈按二人〉等 加領精兵數千攻. 新羅王請和 將軍不聽 遂攻破之. 因以平比自炑·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人回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其王肖古及王子貴須〈按仇首之譌〉等來會將軍於古奚津.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 翌年春 將軍歸朝. 使百濟久氐等來聘 增賜多沙城 爲是往還路驛 又定韓國宮倉 以任那王爲宮倉首 比自炑·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共

七國 及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大邑 倚於任那爲宮藏.〈日本書紀〉

〈위주(魏主) 방 정시〉 9년(249년) 신공(神功) 49년에 신라가 오랫동안 조공하지 않아〈백제사신으로 통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아라타와케[荒田別]와 카가와케[鹿香別]를 장군으로 삼고 백제(百濟)의 구저(久氐) 등을 길잡이로 삼아 탁순(卓淳)에 이르렀다. 백제왕이 목라근자(木羅斤資)와 사사히코(沙沙奴跪)〈살피건대 두 사람이다〉 등에게 명해 정예병 수천을 더해 공격하였다. 신라왕이 화친을 청했으나 장군은 듣지 않고 마침내 공격해 파하였다. 이로써 비자발(比自炑)·남가라(南加羅)·탁국(啄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사람을 돌려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의 침미다례(忱彌多禮)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내려주었다. 그 초고(肖古)왕과 귀수(貴須) 왕자〈생각건대 구수(仇首)의 와전이다〉 등이 와서 고해진(古奚津)에서 장군을 만났다. 이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다음해 봄에 장군이 돌아가니 백제가 구저(久氐) 등을 시켜 조공(朝貢)하였다. 이에 다사성(多沙城)을 더 주어 가고 오는 길의 역(驛)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한국(韓國)을 궁의 창고로 정해 임나왕(任那王)을 궁창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 비자발(比自炑)·남가라(南加羅)·탁국(喙國)·아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총 7국과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대읍을 임나(任那)에 부쳐 궁장(宮藏)으로 삼았다.〈『일본서기(日本書紀)』〉

253년　가락국 거등왕이 돌아가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居登王] 父首露王 母許王后 立安四年己卯 三月十三日即位. 治三十九年. 嘉平五年癸酉九月十七日崩. 王妃泉府卿申輔女慕貞 生太子麻品. 開皇曆云 姓金氏 盖國世祖金卵而生 故以金爲姓爾.

[거등왕(居登王)] 부친은 수로왕(首露王)이고 모친은 허왕후(許王后)이다. 입안 4년 기묘년(199년) 3월 13일에 즉위해 39년을 다스렸다. 가평(嘉平) 5년 계유년(253년) 9월 17일에 돌아갔다. 왕비는 천부경(天府卿) 신보(申輔)의 딸 모정(慕貞)으로 태자 마품(麻品)을 낳았다. 『개황력(開皇曆)』에 말하기를 성(姓)은 김씨(金氏)로 대개 세조(世祖)가 금알(金卵)에서 태어난 까닭에 김(金)을 성(姓)으로 했다고 하였다.

사료2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癸酉〉〈新羅沾解王六年 高句麗中川王五年 百濟古尒王十九年 蜀漢後帝延熙十六年〉 秋九月 駕洛國王居登殂. 子麻品立.

〈계유(癸酉)〉〈신라 첨해왕(沾解王) 6년, 고구려 중천왕(中川王) 5년, 백제 고이왕(古爾王) 19년, 촉한(蜀漢) 후제 연희 16년(253년)〉 가을 9월에 가락국왕 거등(居登)이 죽었다. 아들 마품(麻品)이 왕위에 올랐다.

253년 가락국 마품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1 | 『三國遺事』 卷一 王曆一**

第三 痲品王 父居登王 母泉府卿申輔之女 慕貞夫人. 己卯立 理三十二年.

제3대 마품왕은 아버지가 거등왕이고 어머니는 천부경 신보(申輔)의 딸 모정부인(慕貞夫人). 기묘년에 즉위해 32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癸酉 魏 嘉平五年 新羅 沾解王七年 高句麗 中川王六年 百濟 古爾王二十年〉 駕洛國王居登薨. 王子痲品立.

〈계유년 위(魏) 가평 5년(253년), 신라 첨해왕 7년, 고구려 중천왕 6년, 백제 고이왕 20년〉 가락국왕(駕洛國王) 거등(居登)이 돌아갔다. 왕자(王子) 마품(痲品)이 즉위했다.

사료3 **『동국통감』 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癸酉 魏嘉平五年 新羅沾解王七年 高句麗中川王六年 百濟古爾王二十年〉 秋九月 駕洛國王居登薨. 王子痲品立.

〈계유년 위(魏) 가평 5년(253년), 신라 첨해왕 7년, 고구려 중천왕 6년, 백제 고이왕 20년〉 가을 9월 가락국왕(駕洛國王) 거등(居登)이 돌아갔다. 왕자(王子) 마품(痲品)이 즉위했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居登王] 子痲品立.

[거등왕] 아들 마품이 즉위하다.

사료5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痲品王〈居登子. 癸酉立. 晉惠帝元康辛亥卒〉

마품왕〈거등의 아들이다. 계유년에 즉위하였다. 진(晉) 혜제(惠帝) 원강(元康) 신해년(291년)에 돌아갔다〉

261년 한韓의 무리들, 위魏 낙랑군에 조공하다

사료1 **『삼국지』 권4 위서4 삼소제기 제4 | 『三國志』 卷四 魏書四 三少帝紀 第四**

陳 留王 景元二年 秋七月 樂浪外夷韓 · 濊貊 各率州其屬來朝貢.

진(陳) 류왕 경원 2년 가을 7월에 낙랑의 외이 한과 예맥이 각각 땅과 인민을 들어와 조공해 속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朝貢一**

[魏 陳 留王 景元二年] 七月 樂浪外夷韓 · 濊貊 各率州其屬來朝貢.

[위진 류왕 경원 2년] 7월에 낙랑의 외이(外夷) 한과 예맥이 각각 땅과 인민을 들어와 조공해 속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陳 留王 景元〉二年 秋七月 樂浪外夷韓·濊 各率其屬來朝貢〈同上〉

〈진 류왕 경원〉 2년(261년) 7월에 낙랑(樂浪)의 외이(外夷)인 한(韓)과 예(濊)가 각각 그 족속을 이끌고 와서 조공하였다.〈위와 같다〉

264년 동이가 서진에 춤을 바치다

사료1 **『진서』** 권2 제기2 | **『晉書』** 卷二 帝紀二

景元四年 冬十月 天子以諸侯獻捷交至, 乃申前命曰 …(중략)… 是以東夷西戎, 南蠻北狄, 狂狡貪悍, 世爲寇讎者, 皆感義懷惠, 款塞內附, 或委命納貢, 或求置官司. …(중략)… 司空鄭沖率群官勸進曰 …(중략)… 是以時俗畏懷, 東夷獻舞.故聖上覽乃昔以來禮典舊章, 開國光宅, 顯兹太原

경원 4년(264년) 겨울 10월에 천자(天子)는 제후(諸侯)의 승전보가 교대로 이르자 이에 전의 명령을 다시 은밀하게 내리기를 …(중략)… 이런 까닭으로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 사납고 교활하며 탐욕스럽고 흉폭하여 대대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모두 의리를 느끼고 은혜를 입어서 변방의 요새에 이르러 내부하여 혹은 명에 의탁하여 공물을 바치고 혹은 관사(官司)의 설치를 구하였다. …(중략)… 사공(司空) 정충(鄭沖)이 여러 관리들을 인솔하고 권하여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중략)… 이런 까닭으로 지금 풍속이 두려움을 품어 동이(東夷)가 춤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성상께서는 선대 이래의 예전(禮典)과 구장(舊章)을 살피시어 나라를 열고 천하를 밝게 다스려 태원(太原)을 더욱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276년 동이 8국과 17국이 서진에 귀화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咸寧二年 二月 東夷八國歸化. 秋七月 東夷十七國內附.

함녕 2년(276년) 2월에 동이(東夷) 8국이 귀화하였다. 가을 7월에 동이 17국이 내부(內附)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조공1 | **『冊府元龜』** 卷九百六十八 朝貢一

[晉 武帝 咸寧]二年 二月 東夷八國歸化. 七月 東夷十七國內附.

[진(晉) 무제 함녕 2년(276년)] 2월에 동이(東夷) 8국이 귀화(歸化)하였다. 7월에 동이의 17국이 내부(內附)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晉 武帝 咸寧〉二年 二月 東夷八國歸化. 秋七月 東夷十七國內附.〈晉書 按晉時東夷之朝獻內附者 皆三韓諸國也〉

〈진(晉) 무제 함녕〉 2년(276년) 2월에 동이(東夷) 8국이 귀화하였다. 가을 7월에 동이 17국이 내부(內附)하였다.〈『진서(晉書)』 살피건대 진(晉)나라 때 조공하고 귀부한 자는 모두 삼한(三韓)의 여러 나라들이었다〉

276년 『역사집략』, 백제·신라·대가야 일본에 조공했다는 설을 채록하다

사료1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丙申〉〈新羅味鄒王十五年 高句麗西川王六年 百濟古尒王四十二年 晉武帝元咸寧二年〉百濟·新羅·大加耶俱遣人餽物于日本〈日皇應神七年〉日皇令其臣武內宿禰 用三國人穿池.名曰韓人池.

〈병신〉〈신라 미추왕 15년, 고구려 서천왕 6년, 백제 고이왕 42년, 진(晉) 무제 함녕 2년(276년)〉 백제, 신라, 대가야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일황(日皇) 응신(應神) 7년(276년)〉에 공물을 보냈다[餽]. 일황이 그 신하 다케우치노스쿠네[武內宿禰]에게 명하여 삼국사람들을 써서 못을 만들게 하였다. [그 못을] 이름하여 카라히토노이케[한인지(韓人池)]라고 부른다.

277년 동이 3국이 와서 항복하다

사료1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晉 武帝 咸寧] 三年 西北雜虜及鮮卑 · 匈奴 · 五溪 · 蠻夷 · 東夷三國 前後十餘輩 各率種人部落內附.

[진(晉) 무제 함녕 3년(277년)]에 서북의 잡로와 선비 · 흉노 · 오계 · 만이 · 동이 3국이 전후 십여 무리가 각기 종족과 부락을 이끌고 내부(內附)하였다.

277년 마한왕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책부원구』** 권999 외신부44 입근 | **『冊府元龜』** 卷九百九十九 外臣部四十四 入覲

〈晉 武帝 咸寧〉中 馬韓王來朝.

〈진(晉) 무제 함녕〉 연간((275~279년, 277년?)에 마한왕(馬韓王)이 조공해 왔다.

사료2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晉 武帝 咸寧] 三年 馬韓主遣使來貢. 東夷三國 前後千餘輩 各帥種人部落內附.〈同上〉

[진 무제 함녕] 3년(277년)에 마한(馬韓)의 임금(主)이 사신을 보내 조공해 왔다. 동이(東夷) 3국의 전후 천여 무리가 각기 종족과 부락을 이끌고 내부(內附)하였다.〈위와 같다〉

278년 동이 6국과 9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咸寧 四年 三月 東夷六國來獻. 是歲東夷九國內附.

함녕 4년(278년) 3월에 동이(東夷) 6국이 조공해 왔다. 이 해에 동이(東夷) 9국이 내부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咸寧] 四年 東夷九國內附.

[함녕] 4년(278년)에 동이(東夷) 9국이 내부(內附)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咸寧〉 四年 十二月 東夷九國內附〈同上〉

〈함녕〉 4년(278년) 12월에 동이(東夷) 9국이 내부(內附)하였다.〈위와 같다〉

280년 동이 10국과 20국, 마한왕과 진한왕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元年 六月 甲申 東夷十國歸化. 秋七月 東夷二十國朝獻.

태강 원년(280년) 6월 갑신(甲申)에 동이(東夷) 10국이 귀화(歸化)하였다. 가을 7월에 동이(東夷)의 12국이 조공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晉武帝] 太康元年 六月 東夷十國歸化.

〈[진(晉) 무제] 태강〉 원년(280년) 6월에 동이(東夷) 10국이 귀화(歸化)하였다.

사료3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冊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1

〈晉 武帝 太康〉 元年 辰韓王遣使獻方物. 是年 東夷二十國朝獻.

〈진(晉) 무제 태강〉 원년(280년)에 진한왕(辰韓王)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이 해에 동이 20국이 조공하였다.

사료4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 元年 馬韓主遣使來貢方物. 辰韓王遣使獻方物.〈謹按辰韓王指新羅王也〉 六月 甲申 東夷十國歸化.

〈태강〉 원년(280년)에 마한(馬韓)의 임금(主)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방물을 바쳤다. 진한왕(辰韓王)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삼가 살피건대 진한왕은 신라왕(新羅王)을 가리킨다〉 6월 갑신(甲申)에 동이(東夷) 10국이 조공하였다.

사료5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삼한시종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三韓始終

然 晉武帝 太康中 三來朝貢 則其傳世亦遠矣.

그러나 진(晉) 무제 태강 연간(280~289년)에 세 차례나 조공을 바쳤으니 전해진 세대 수 또한 오래 되었다.

281년 동이 5국과 진한왕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二年 三月 東夷五國來獻. 夏六月 東夷五國來附.

태강 2년(281년) 3월에 동이(東夷) 5국이 조공하였다. 여름 6월에 동이(東夷) 5국이 와서 속하였다(來附).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太康]二年 三月 東夷辰韓等五國朝獻.

[태강]2년(281년) 3월에 동이(東夷)의 진한(辰韓) 등 5국이 조공하였다.

사료3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太康]二年 六月 東夷五國內附.

[태강]2년(281년) 6월에 동이(東夷) 5국이 내부(內附)하였다.

사료4 **『책부원구』** 권999 외신부44 입근 | **『册府元龜』** 卷九百九十九 外臣部四十四 入覲

〈太康〉二年 辰韓王復.來朝貢.

〈태강〉2년(281년)에 진한왕(辰韓王)이 다시 와서 조공하였다.

사료5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二年 夏六月 東夷五國來附歸.〈同上〉

〈태강〉2년(281년)에 여름 6월에 동이(東夷) 5국이 와서 속하였다.〈위와 같다〉

282년 동이 29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三年 九月 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태강 3년(282년) 9월에 동이(東夷) 29국이 귀화해 그 방물을 바쳤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太康]三年 九月 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태강]3년(282년) 9월에 동이(東夷) 29국이 귀화해 그 방물을 바쳤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三年 張華都督幽州諸軍事 撫納新舊夷夏懷之. 東夷馬韓新彌諸國 依山帶海 去州四千里. 歷世未附者 二十餘國. 並遣使朝獻.〈同上〉

[태강]3년(282년) 도독유주제군사(都督幽州諸軍事) 장화(張華)가 신구를 위무하여 받아들이자 오랑캐와 중국이 따랐다. 동이(東夷) 마한(馬韓)의 신미(新彌) 등 여러 나라가 산에 의지하고 바닷가에 살았으나 구주(九州)에서 4천리나 떨어져 있어 대대로 내부하지 않는 자가 20여 국이 되었다가 함께 사신을 파견해 조공하였다.〈위와 같다〉

283년 백제인민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하려 하다

사료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晉 武帝 太康〉四年 應神十四年 弓月君自百濟來歸 因奏曰 臣領己國之人夫 百二十縣而歸化. 然因新羅 人之拒 皆留加羅國. 爰葛城襲津彦 召弓月人夫於加羅 經三年 而襲津彦不來.〈同上〉

〈진(晉) 무제 태강〉 4년(283년) 응신(應神) 14년에 유츠키노키미(弓月君)가 백제로부터 와서 귀의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우리 120현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귀화하려 했으나, 신라 사람들이 방해해 모두 가라국에 머물러 있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카츠라기소츠히코[葛城襲津彦]를 보내 유츠키노키미의 백성들을 가라에서 불러오게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소츠히코가 돌아오지 않았다.〈위와 같다〉

285년 가라에 체류 중인 백제인민을 신라가 막다

사료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晉 武帝 太康〉六年 應神十六年 八月 遣平群木菟宿禰 · 的戶田宿禰於加羅仍授精兵 詔之曰 襲津彦久而不還 必有新羅人拒而滯之. 汝等急往擊新羅披其道路. 於是木菟宿禰等進精兵莅新羅之境. 新羅王 愕之. 乃率弓月之人夫與襲津彦 共來焉.〈並同上〉

〈진(晉) 무제 태강 6년(285년)〉 응신 16년 8월에 헤구리츠쿠노스쿠네[平群木菟宿禰]와 이쿠하토다노스쿠네[的戶田宿禰]를 가라(加羅)에 파견하면서 이어 정병을 주고 조칙을 내리기를 소츠히코(襲津彦)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신라 사람들이 막아서 체류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급히 가서 신라를 쳐 그 길을 열라고 하였다. 이에 츠쿠노스쿠네(木菟宿禰) 등이 정병을 보내 신라의 경계에 다가가니 신라의 왕이 경악하였다. 이에 미유키(弓月)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츠히코와 함께 돌아왔다.〈모두 위와 같다〉

286년 동이 11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七年 八月 東夷十一國內附.

태강 7년(286년) 8월에 동이(東夷) 11국이 내부(內附)하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太康]七年 八月 東夷十一國內附.

[태강]7년(286년) 8월에 동이(東夷) 11국이 내부하다.

286년 진한왕, 서진에 다시 오다

사료1 **『책부원구』** 권999 외신부44 입근 | **『册府元龜』** 卷九百九十九 外臣部四十四 入覲

[太康]七年 [辰韓王]又來.

[태강]7년(286년)에 [진한왕이] 다시 왔다.

287년 동이 2국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八年 八月 東夷二國內附.

태강 8년(287년) 8월에 동이(東夷) 2국이 내부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太康]八年 八月 東夷二國內附.

[태강]8년(286년) 8월에 동이(東夷) 2국이 내부하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八年 八月 東夷二國內附.〈同上〉

[태강]8년(286년) 8월에 동이(東夷) 2국이 내부하다.〈위와 같다〉

288년 동이 7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晉書』** 卷三 帝紀三

〈太康〉九年 九月 東夷七國詣校尉內附.

〈태강〉9년(288년) 9월에 동이(東夷) 7국이 교위(校尉)를 찾아 내부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冊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太康]九年 九月 東夷七國詣校尉內附.

[태강]9년(288년) 9월에 동이(東夷) 7국이 교위(校尉)를 찾아 내부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九年 九月 東夷七國詣校尉內附 郡國二十四.〈同上〉

[태강]9년(288년) 9월에 동이(東夷) 7국이 교위(校尉)를 찾아 내부하니 군국(郡國)이 24개였다.〈위와 같다〉

289년　동이 11국과 30여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晋書』** 卷三 帝紀三

太康十年 五月 東夷十一國內附. 是歲 東夷絶遠三十餘國 西南夷二十餘國

태강 10년(289년) 5월에 동이(東夷) 11국이 내부하였다. 이해에 멀리 떨어진 동이(東夷) 30여 국과 서남이(西南夷) 20여 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太康]十年 東夷絶遠三十餘國 西南夷二十餘國 各遣使來獻.

[태강]10년(289년) 멀리 떨어진 동이(東夷) 30여 국과 서남이(西南夷) 20여 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사료3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太康]十年 五月 東夷十一國內附.

[태강]10년(289년) 5월에 동이(東夷) 11국이 내부하였다.

사료4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康〉十年 五月 東夷十一國內附. 十二月 東夷絶遠三十餘國來獻虜.〈同上〉

〈태강〉10년(289년) 5월에 동이(東夷) 11국이 내부하였다. 12월에 멀리 떨어진 동이 30여 국이 와서 포로(虜)를 바쳤다.〈위와 같다〉

290년　동이 7국과 마한·진한이 서진과 동이교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3 제기3 ｜ **『晋書』** 卷三 帝紀三

太熙元年 二月 辛丑 東夷七國朝貢.

태희 원년(290년) 2월 신축(辛丑)에 동이(東夷) 7국이 조공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太康]十年 辰韓詣東夷校尉何龕上獻. 太熙元年 東夷七朝貢.

[태강]10년(289년) 진한(辰韓)이 동이교위(東夷校尉) 하감(何龕)에게 공물을 바쳤다. 태희(太熙) 원년(290년)에 동이(東夷) 7국이 조공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太熙〉 元年 馬韓·辰韓又詣東夷校尉 何龕上獻.〈同上〉

〈태희〉 원년(290년)에 마한(馬韓)과 진한(辰韓)이 동이교위 하감(何龕)에게 나아가 공물을 바쳤다.〈위와 같다〉

사료4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惠帝〉 元康元年 東夷十七國 詣校尉內附.〈同上〉

〈혜제〉 원강 원년(290년)에 마한(馬韓)과 진한(辰韓)이 동이교위 하감(何龕)에게 공물을 바쳤다.〈위와 같다〉

291년 가락국 마품왕 39년을 다스리고 돌아가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麻品王] 治三十九年 永平元年 辛亥 一月二十九日崩 王妃宗正監趙匡孫女好仇 生太子居叱彌.

[마품왕] 39년을 다스리다 영평 원년 신해년 1월 29일에 돌아가다. 왕비는 종정감(宗正監) 조광(趙匡)의 손녀 호구(好仇)로 태자(太子) 거질미(居叱彌)를 낳았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麻品王 一云馬品 金氏. 嘉平五年癸酉即位 治三十九年 永平元年 辛亥 一月二十九日崩. 王妃宗正監趙匡孫女好仇 生太子居叱彌.

마품(麻品)왕 또는 마품(馬品)으로 김씨이다. 가평 5년 계유년에 즉위하다. 39년을 다스리다 영평 원년 신해년 1월 29일에 돌아가다. 왕비는 종정감(宗正監) 조광(趙匡)의 손녀 호구(好仇)로 태자(太子) 거질미(居叱彌)를 낳았다.

사료3 **『삼국사절요』** 권3 | **『三國史節要』** 卷三

〈辛亥 晉 永平元年 新羅 儒禮王八年 高句麗 西川王二十二年 百濟 責稽王六年〉 駕洛國王麻品薨. 太子居叱彌立.

〈신해년 진(晉) 영평 원년, 신라 유례왕 8년, 고구려 서천왕 22년, 백제 책계왕 6년〉 가락국왕(駕洛國王) 마품(麻品)이 돌아가다. 태자 거질미(居叱彌)가 즉위하였다.

사료4 **『동국통감』** 권3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三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辛亥 晉惠帝元康元年 新羅儒禮王八年 高句麗西川王二十二年 百濟責稽王六年〉 二月 駕洛國王麻品卒. 子居叱彌立.

〈신해년 진(晉) 혜제 원강 원년, 신라 유례왕 8년, 고구려 서천왕 22년, 백제 책계왕 6년〉 2월에 가락국왕(駕洛國王) 마품(麻品)이 돌아가다. 아들 거질미(居叱彌)가 즉위하였다.

사료5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麻品王] 子居叱彌立.

[마품왕] 아들 거질미가 즉위하다.

사료6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辛亥〉〈新羅儒禮王七年 高句麗西川王二十一年 百濟責稽王二年 晉惠帝元康元年〉 春二月 駕洛國王麻品徂. 子居叱彌立.

〈신해(辛亥)〉〈신라 유례왕 7년, 고구려 서천왕 21년, 백제 책계왕 5년, 진(晉) 혜제 원강 원년(291년)〉 봄 2월에

가락국왕 마품(麻品)이 죽었다. 아들 거질미(居叱彌)가 왕위에 올랐다.

291년 가락국 거질미왕이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四居叱彌王〈一作今勿〉 父麻品 母好仇 辛亥立 治五十五年

제4대 거질미왕〈또는 금물(今勿)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마품(麻品)이고 어머니는 호구(好仇)이다. 신해년에 즉위해 55년 동안 다스렸다.

사료2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居叱彌王〈一云今勿〉 金氏. 永平元年卽位 治五十六年 永和二年丙午七月八日崩. 王妃阿躬阿干孫女阿志 生王子伊品.

거질미왕〈또는 금물(今勿)이라고도 한다〉 김씨(金氏)이다. 영평 원년에 즉위하여 56년 동안 다스렸다. 영화 2년 병오년(346년) 7월 8일에 돌아가다. 왕비는 아궁아간(我躬阿干)의 손녀 아지(阿志)로 왕자 이품(移品)을 낳았다.

사료3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注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麻品王] 子居叱彌立.

[마품왕] 아들 거질미가 즉위하다.

291년 동이 17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사료1 **『진서』 권4 제기4 | 『晉書』 卷四 帝紀四**

永平元年 是歲 東夷十七國 南夷二十四部 竝詣校尉內附.

영평 원년(291년) 이 해에 동이(東夷) 17국과 남이(南夷) 24부(部)가 함께 교위(校尉)에게 나아가 내부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77 외신부22 강부 |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七 外臣部二十二 降附**

〈[晉] 惠帝 元康〉 元年 東夷十九國 南夷二十四部 竝並詣挍尉 內附.

〈진[晉] 혜제 원강〉 원년(291년) 동이(東夷) 19국과 남이(南夷) 24부(部)가 함께 교위(校尉)에게 나아가 내부하였다.

조선시대까지 『금관지』가 전해지다

사료1 **『증보문헌비고』** 권246 예문고5 여지류 |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四十六 藝文考五 輿地類

金官誌 一卷.

『금관지(金官誌)』1권.

346년 가락국 이품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第五伊品王〈父居叱旀 母阿志 丙午立 理六十年〉

제 5대 이품왕〈아버지는 거질미이고, 어머니는 아지이다. 병오(346년)에 즉위하여 60년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4 | **『三國史節要』** 卷四

〈丙午 晉 永和 二年 新羅 訖解王 三十七年 高句麗故國原王 十六年 百濟契王 三年 近肖古王 元年〉秋七月 駕洛國王 居叱彌薨 子伊尸品立.

〈병오 진 영화 2년(346년), 신라 흘해왕 37년, 고구려 고국원왕 16년 백제 계왕 3년 근초고왕 원년〉 가을 7월에 가라국왕 거질미가 죽었다. 아들 이시품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3 **『동국통감』** 권4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四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丙午 晉 永和 二年 新羅 訖解王 三十七年 高句麗 故國原王 十六年 百濟 契王 三年 近肖古王 元年〉秋七月 駕洛國王 居叱彌薨 子伊尸品立.

〈병오 진 영화 2년(346년), 신라 흘해왕 37년, 고구려 고국원왕 16년, 백제 계왕 3년, 근초고왕 원년〉 가을 7월에 가라국왕 거질미가 죽었다. 아들 이시품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子伊尸品立.

아들 이시품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5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伊尸品王〈居叱彌子 丙午立 安帝 義熙 丁未卒〉

이시품왕〈거질미의 아들이다. 병오년에 왕위에 올랐다. 안제 의희 정미년에 죽었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史二 新羅世家 上 駕洛

傳麻品 居叱彌 伊尸品

[왕위가] 마품, 거질미, 이시품으로 이어졌다.

사료7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東晉 永和 居叱彌卒 子伊尸品立.

동진 영화 연간에 거질미가 죽었다. 아들 이시품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丙午 新羅 訖解王 三十六年 高句麗 故國原王 十五年 百濟 契王 二年 東晉 穆帝 永和 二年〉 秋七月 駕洛國王 居叱彌殂 子伊尸品立.

〈병오 신라 흘해왕 36년, 고구려 고국원왕 15년, 백제 계왕 2년, 동진 목제 영화 2년(346년)〉 가을 7월에 가락국왕 거질미가 죽었다. 아들 이시품이 왕위에 올랐다.

367년(수정 연대) 탁순국 왜와 통교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46년 |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攝政 四十六年

卌六年春三月乙亥朔 遣斯摩宿禰于卓淳国〈斯痲宿禰者 不知何姓人也〉 於是 卓淳王末錦旱岐告斯摩宿禰曰 甲子年七月中 百済人久氐彌州流莫古三人 到於我土曰 百濟王聞東方有日本貴国 而遣臣等 令朝其貴国 故求道路以至于斯土 若能教臣等 令通道路 則我王必深德君王

46년 봄 3월 을해 1일에 시마노스쿠네[斯摩宿禰]를 탁순국〈시마노스쿠네는 무슨 성(姓)의 사람인지 모른다〉에 보냈다. 이때에 탁순왕 말금한기는 시마노스쿠네에게 말하기를 갑자년의 칠월 중에 백제인 구저와 미주류, 막고 삼인이 우리 땅에 와서 "백제왕은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국(貴国)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그 귀국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그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만일 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통하게 하시면, 우리 왕은 반드시 군왕의 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時謂久氐等曰 本聞東有貴国 然未曾有通 不知其道 唯海遠浪嶮 則乘大船 僅可得通 若雖有路津 何以得達耶 於是久氐等曰 然卽今當不得通也 不若 更還之備船舶 而後通矣 仍曰 若有貴国使人來 必應告吾国 如此乃還

그때 왕이 구저 등에게 '본디 동쪽에 귀국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지만, 아직 왕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다만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거칠어서 큰 배를 타고서야 겨우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길이 있다고 해도 어찌 능히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구저 등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건너갈 수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선박을 준비한 다음에 왕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만약 귀국의

사신이 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알려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이내 돌아갔다.

爰斯摩宿禰卽以傔人爾波移与卓淳人過古二人 遣于百濟国 慰勞其王 時百濟肖古王 深之 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疋 及角弓箭 并鐵鋌卌枚 幣爾波移 便復開寶藏 以示諸珍異曰 吾国多有是珍寶 欲貢貴国 不知道路 有志無從 然猶今付使者 尋貢獻耳 於是 爾波移奉事而還 告志摩宿禰 便自卓淳還之也.

그래서 시마노스쿠네는 종자인 니하야(爾波移)와 탁순인 과고 둘을 백제국에 보내어 그 왕을 위로하게 하였다. 백제의 초고왕은 기뻐하고 후대하였다. 오색의 채견(綵絹) 각 한필, 각궁전(角弓箭)과 아울러 철정(鐵鋌) 사십매를 이파이에게 주었다. 또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각종의 진기한 물건을 보이며, "이 진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귀국에 공상하려 해도 길을 모른다. 뜻은 있어도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사자에게 부탁하여 공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 니하야는 받아가지고 돌아와 시마노스쿠네[志摩宿禰]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탁순에서 돌아왔다.

369년(수정 연대)　신공황후가 가라 등 7국을 평정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49년 |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攝政 四十九年

卌九年春三月 以荒田別 ·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国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 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 · 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㶱 · 南加羅 · 㖨国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七国

49년 봄 3월에 아라타와케[荒田別], 카가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 때 누군가가 말하였다.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개로를 보내 군사를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에 곧 목라근자와 사사노궤〈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후 모두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부수고 이로서 비자발(比自㶱), 남가라(南加羅), 탁국(㖨国),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했다.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 · 辟中 · 布彌支 · 半古 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 · 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 州流須祇〉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国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絶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氐等而送之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忱彌多禮)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때 백제 초고왕과 왕자 귀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 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아라타와케, 카가와케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지금은 주류수지(州流須祇)라고 한다〉에 모였다. 서로 보며 기뻐하며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치쿠마나가히코[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약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사산

(古沙山)에 올라서 함께 반석(磐石) 위에 앉았다. 그 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 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千秋萬歲)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 칭하고 해마다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는 치쿠마나가히코를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딸려서 보냈다.

사료2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魏主芳 正始 九年〉 神功四十九年 依新羅久不朝〈百濟通使不闕〉 以荒田別及鹿香別爲將軍 以百濟久氏等爲導 擊新羅至卓淳 百濟王命木羅斤資 沙沙奴跪〈按二人〉 加精兵數千 攻之 新羅王請和 將軍不聽 遂攻破之 因以 平定比自炑 · 南加羅 · 㖨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七國

〈위주(魏主) 방(芳) 정시 9년(248년이지만 뒤의 신공 49년의 기년을 따름)〉 신공 49년(369년, 수정연대)에 신라가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자 〈백제는 사신을 보내어 교통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아라타와케[荒田別]와 카가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고 백제의 구저 등을 길잡이로 삼아 신라를 공격하여 탁순에 이르렀다. 백제왕은 목라근자와 사사노궤〈살펴보건대 두 사람이다〉 등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수천을 더하여 공격하였다. 신라왕이 화해를 청했으나 장군은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비자발(比自炑), 남가라(南加羅), 탁국(㖨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했다.

人回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其王肖古及王子貴須〈按仇首之僞〉 等來會 將軍於古奚津 時比利 · 辟中 · 布彌支 · 半古 四邑 自然降服

군사를 옮겨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忱彌多禮)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백제 초고왕과 왕자 귀수〈살펴보건대 구수의 잘못이다〉 또한 와서 고해진에서 만났다. 이 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사료3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변진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弁辰**

[日本書紀] 神功四十九年〈魏 正始 九年〉 以荒田別爲將軍 以百濟久氏等爲導 擊新羅破之 因以平比自炑 · 南加羅 · 㖨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 七國. 人回至古奚津 百濟王肖古等 來會將軍於古奚津 時比利 · 辟中 · 布彌支 · 半古 四邑 自然降服

[『일본서기』] 신공 49년(369년, 수정연대)〈위 정시 9년〉에, 아라타와케[荒田別]를 장군으로 삼고 백제의 구저 등을 길잡이로 삼아 신라를 공격하여 깨트렸다. 그로 인하여 비자발(比自炑), 남가라(南加羅), 탁국(㖨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했다. 군사를 옮겨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렀다. 백제왕 초고 등이 또한 와서 고해진에서 만났다. 이 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사료4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日本史云 任那卽大加耶 神功皇后之征韓也 置政府於其地 後任那爲新羅所滅 ○按 大加耶卽今高靈地在新羅百濟二國之間 故日人以威加之 駐兵其地 以爲西結百濟 東圖新羅之根本 盖以區區之大加耶 處在羅濟之間 形勢偪側而能久保其國 後駕洛而 亡者 直以爲日人所親故也 然而三國史 其事都無一見 千載之間 聲跡遂寢 噫 孰知今日厚夜之暗 忽借明於醫舍之火也哉 但其君之可知者 自始祖以下 不過三人 惜也 又按 大加耶七國者 明是浦上八國之屬耳.

『일본사(日本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임나는 곧 대가야이다. 신공황후가 한(韓)을 정벌하고,

그 지역에 정부(政府)를 설치하였다. 뒤에 임나는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살펴보건대, 대가야는 곧 지금[대한제국 시기]의 고령 땅이니,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위협을 더하여 그 땅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서쪽으로 백제와 결합하여, 동쪽의 신라를 도모하는 근거지로 하고자한 것이다. 대개 작은 나라인 대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어서 형세가 위태로웠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가락 뒤에 망한 것은 바로 일본인과 친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삼국사(三國史)』에는 그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천년 사이에 흔적이 점차 사라진 것이다. 아, 오늘의 두터운 밤의 어둠을 홀연 의사(醫舍)의 불을 빌려 밝힐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다만 [대가야의]왕으로서 알 수 있는 자는 시조 이하 세 명에 불과하니, 애석하도다. 또 살펴보건대, 대가야 일곱 나라는 분명 포상팔국에 속할 뿐이다.

사료5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丁卯 新羅 助賁王 十七年, 高句麗 東川王 二十年, 百濟 古爾王 十三年, 蜀漢 後帝 延熙 十年〉 是時 新羅百濟俱遣使 餽物于日本〈日后 神功 四十七年〉 羅使 潛易濟物以遣 日后知之 逐羅使 遣荒田別等 將兵援濟 攻羅破之 遂定大加耶七國 以連濟 仍於大加耶置 行府駐兵

〈정묘 신라 조분왕 17년, 고구려 동천왕 20년, 백제 고이왕 13년, 촉한 후제 연희 10년(247년)〉 이 때, 신라와 백제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일본 황후 신공 47년(247년)〉에 공물을 보냈는데, 신라 사신이 몰래 백제 물건과 바꾸어 보냈다.

일본 황후가 그 사실을 알고 신라의 사신을 내쫓았다. 아라타와케[荒田別] 등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도와 신라를 공격하여 깨트렸다. 드디어 대가야 7국을 평정하고 백제와 연계하였다. 그리고 대가야에 일본부를 두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369~370년 한국의 궁창을 정하여 임나왕을 궁창의 우두머리로 삼다

사료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又定韓國宮倉 以任那王 爲宮倉首 比自炑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共七國 及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四大邑 倚於任那爲宮藏.〈日本書紀〉

또 한국(韓國)의 궁창(宮倉)을 정하여 임나왕을 궁창의 우두머리로 삼고, 비자발(比自炑),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총 일곱 나라와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읍을 임나에 붙여 궁장(宮藏)으로 삼았다.〈『일본서기』〉

사료2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변진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弁辰

[日本書紀] 定三韓宮倉 以任那王 爲宮倉首 比自炑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共七國 及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四大邑 倚於任那爲宮藏. 〈鎭書〉 謹按 比自等 諸國 明是加羅之類 而與任那隣比者也 意亦弁辰之屬 故附於此 以備參考.

[『일본서기』] 삼한의 궁창(宮倉)을 정하고 임나왕을 궁창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비자발(比自炑),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총 일곱 나라와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네 대읍을 임나에 붙여 궁장(宮藏)으로 삼았다. 〈진서(鎭書; 해동역사 저자 한진서)〉 삼가 살펴보건대, 비자벌 등 여러 나라는 분명 저 가라의 부류로 임나와 인접하고 있는 것들이다. 변진에 속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붙여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369년~6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　백제 왕세자가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다

사료1　**『일본』** 나라시 이소노카미 신궁 소장 칠지도 명문 ｜ **『日本』** 奈良市 石上神宮 所藏 七支刀 銘文

【前面文】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 造百練銕七支刀 生辟百兵宜 供供侯王 □□□□作

【裏面文】先世以來 未有此刀 百濟王世子奇生聖音 故爲倭王旨造 傳示後世

【앞면부의 글】 태화 4년(369년) 5월 16일 병오일의 한낮에 백번이나 단련한 철로 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모든 병해(兵害)를 물리칠 수 있고 후왕(侯王)에게 주기에 알맞다. □□□□가 만든 것이다.

【안쪽면의 글】 선세(先世) 이래 아직까지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의 왕세자가 뜻하지 않게 성음(聖音)이 생긴 까닭에, 왜왕을 위하여 정교하게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도록 할 것이다.

370년(수정 연대)　백제가 다사성을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50년 ｜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攝政 五十年

夏五月 千熊長彦 久氐等至自百濟 於是皇太后歡之問久曰 海西諸韓旣賜汝国 今何事以頻復來也 久氐等奏曰 天朝鴻澤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여름 오월에 치쿠마나가히코[千熊長彦], 구저 등이 백제에서 돌아왔다. 이에 황태후는 기쁘게 맞이하여 구저에게 “바다 서쪽에 여러 한(韓)을 이미 너희 나라에게 주었다. 지금은 무슨 일로 빈번히 또 오느냐?”라고 물었다. 구저 등이 “천조의 큰 은택은 멀리 폐읍(弊邑)까지 미치니 우리 왕[근초고왕]이 매우 기뻐하여 춤을 추면서 마음에만 담아 둘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신 편에 다시 정성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만세에 이를지라도 어느 해인들 조공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황태후도 칙을 내려 “너의 말이 훌륭하도다. 이것은 짐도 생각하고 있던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사성을 더해 주고 왕래하는 길의 역으로 삼도록 하였다.

사료2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使百濟使久氐等來聘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백제에 사신으로 갔던 구저 등이 내빙했다. 다사성을 더해 주고 왕래하는 길의 역으로 삼도록 하였다.

372년(수정 연대) 백제가 왜에 칠지도와 칠자경을 주다

사료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52년 |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攝政 五十二年

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国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海東貴国 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国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歛土物 奉貢不絶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52년 가을 9월 정묘삭 병자(10일)에 구저 등이 치쿠마나가히코[千熊長彦]를 따라왔다. 이 때에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그 수원은 곡나철산입니다. 너무 멀어서 7일 동안 가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의 철을 얻으니 영원토록 성스러운 조정에 바치고자 합니다."하였다. 이에 백제왕이 손자 침류왕에게 "지금 내가 교류하고 있는 바다 동쪽의 귀국(貴国)은 하늘이 계시하여 세운 나라이다. 그러므로 천은(天恩)을 베풀어 바다 서쪽을 나누어 나에게 주니, 나라의 기틀이 영원히 견고해졌다. 너도 마땅이 우호를 잘 닦아 토물을 모아 공물을 끊임없이 바친다면 죽어도 무슨 한이 있겠느냐?"라고 일러두었다. 이후로 매년 끊임없이 조공하였다.

382년(수정 연대) 가라국왕 기본한기의 누이 기전해가 왜에 가다

사료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 62년 |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攝政 六十二年

六十二年 新羅不朝 卽年遣襲津彦擊新羅〈百済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国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受其美女 反伐加羅国

62년에 신라가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 해에 소츠비코(襲津彦)을 보내어 신라를 치게 하였다. 〈『백제기(百済記)』에는 임오년(壬午年)에 신라가 귀국에 봉상하지 않으므로 귀국이 사치히쿠(沙至比跪)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다. 신라인은 미녀 2인을 단장시켜 항구에서 마중하여 유혹하였다. 사치히쿠는 그 미녀를 받고서는 도리어 가라국를 쳤다.

加羅国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 阿首至 国沙利 伊羅麻酒 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国王妹既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繩新羅美女捨而不討 反滅我国 兄弟人民皆爲流沈 不任憂思 故以來啓 天皇大怒 既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가라국왕 기본한기(己本旱岐) 및 그 아들 백구지(百久至), 아수지(阿首至), 국사리(国沙利), 이라마주(伊羅麻酒), 이문지(爾汶至) 등이 그 인민을 거느리고 백제로 도망 왔다. 백제는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가라국왕의 여동

생 기전지(旣殿至)가 대왜(大倭)를 향해 가서 아뢰기를 "천황은 사치히쿠를 보내서 신라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미녀를 받고는 버려서 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형제 인민이 모두 유랑하였습니다.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와서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곧 목라근자를 보내어 하여금 가라에 이르러 그 사직을 되돌렸다.

一云 沙至比跪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密遣使人間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免 入石穴而死也〉
어떤 곳에서는, 사치히쿠는 천황이 노하였음을 알고 감히 공공연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몰래 잠입하였다. 그 누이 동생이 황궁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히쿠는 가만히 사람을 보내 천황의 노여움이 풀렸는지를 알아 보게 하였다. 누이동생은 꿈을 핑계 삼아 '어제 밤 꿈에서 사치히쿠를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어떻게 감히 히쿠가 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 몹시 분노하였다. 누이동생이 천황의 말을 전하자 히쿠는 용서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석굴에 들어가 죽었다〉

382년　동이 다섯 나라가 중국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사료1　**『해동역사』** 권3 세기3 삼한 | **『海東繹史』** 卷三 世紀三 三韓

孝武帝 太元七年九月 東夷五國 遣使來貢方物
[동진] 효무제 태원 7년(382년) 9월에 동이 다섯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고 공물을 바쳤다.

396년(수정 연대)　임나인이 고구려·백제·신라인 등과 함께 왜로 가서, 한인지를 만들다

사료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7년 | **『日本書紀』** 卷十 應神紀 七年

七年秋九月 高麗人 百済人 任那人 新羅人 並来朝 時命武内宿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名池号韓人池
7년 가을 9월에 고려인, 백제인, 임나인, 신라인이 함께 조공하였다. 이 때 다케우치노스쿠네[武内宿禰]에게 명하여, 여러 한인(韓人)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연못의 이름을 한인지(韓人池)라고 불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應神天皇 七年〈新羅 味鄒王 十五年〉 百濟 新羅 任那入貢 令武內宿禰 役韓人穿池 池曰韓人池.
응신천황 칠년〈신라 미추왕 15년(276년)〉 백제, 신라, 임나가 조공해 왔다. [일황이 그 신하] 다케우치노스쿠네

[武内宿禰]에게 명하여, 한인들을 시켜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연못의 이름을 한인지(韓人池)라고 불렀다.

사료3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권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丙申 新羅 味鄒王 十五年 高句麗 西川王 六年 百濟 古爾王 四十二年 晉 武帝 咸寧 二年〉 百済 新羅 大加耶俱遣人 餽物于日本〈日皇 應神 七年〉 日皇令其臣武内宿禰 用三國人穿池 名曰韓人池

〈병신 신라 미추왕 15년, 고구려 서천왕 6년, 백제 고이왕 42년, 진(晉) 무제 함녕 2년(276년)〉 백제, 신라, 대가야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일본 황제 응신 7년(276년)〉에 공물을 보냈다. 일황이 그 신하 다케우치노스쿠네[武内宿禰]에게 명하여, 삼국 사람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연못의 이름을 한인지(韓人池)라고 불렀다.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임나와 백제를 토벌하다

사료1 **『증보문헌비고』** 권36 여지고24 | **『增補文獻備考』** 卷三十六 輿地考二十四

【續】〈附〉 西間島疆界[高句麗廣開土王碑銘曰] ~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任殘〈任卽任那 殘百濟〉國.

【속】〈부(續)〉 서간도강계[고구려 광개토왕비의 명문에] 6년 병신(396년)에 왕이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임잔(任殘)〈임은 곧 임나이고, 잔은 백잔이다〉국을 토벌하였다고 하였다.

又曰 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任殘國 軍功取數十餘城 任殘卽任那百殘也 任那之跡 史皆闕失 因此碑文 而始著 其他 俘濟王破倭賊救新羅之文 皆可以補史家之缺脫 千載之下 賴有一片古石 使國疆證明 而事蹟表彰 豈不與禹碑周鼓 併爲千古之奇寶歟.

또 말하기를, "6년 병신년(396년)에 왕이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임잔국(任殘國)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수십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잔은 바로 임나(任那)와 백잔(百殘)입니다. 임나는 역사책에 모두 빠져 있는데, 이 비문으로 인하여 비로소 들어났습니다. 그 밖에 백제왕을 포로로 잡고, 왜적을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하였다는 문장들은 모두 역사책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 조각 오래된 돌에 힘입어 나라의 영토를 증명하고 사적이 밝게 드러났으니, 어찌 우비(禹碑), 주고(周鼓)와 더불어 천고의 기보(奇寶)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97년(수정 연대) 백제가 침미다례 등 동한의 땅을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8년 | **『日本書紀』** 卷十 應神紀 八年

八年春三月 百済人来朝〈百済記云 阿花王立旡礼於貴国 故奪我枕弥多礼 及峴南 支侵 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8년 봄 3월에 백제인이 내조하였다.〈백제기에서는, “아화왕(阿花王)이 즉위하여 귀국에 무례하였다. 이에 우리 침미다례와 현남(峴南), 지침(支侵), 곡나(谷那) 등 동한(東韓) 땅을 빼앗았다. 이에 왕자 직지(直支)를 천조에 보내 선왕의 우호를 닦도록 하였다.”고 한다〉

400년 고구려군이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고, 안라인수병과도 관계하다

사료1 **『광개토왕릉비문』** 10년 경자년 | **『廣開土王陵碑文』** 十年 庚子年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滿倭潰城□□盡更□來安羅人戍兵滿□□□□其□□□□□□□言□□□□□□□□□□□□□□□□□□□□□□□□□□辭□□□□□□□□□□□□□潰□以□□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

십년 경자(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지나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가득 차 있었다. 고구려군이 이르니 왜적은 물러나고 …결락… 뒤를 좇아가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했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신라성… 성. 왜가 가득했는데 그들을 괘멸시키고, …안라인수병…, 안라인수병. 옛날 신라의 매금이 직접 온 적이 없었는데, …광개토경호태왕…매금…복구(僕勾)…조공.

사료2 **『증보문헌비고』** 권36 여지고24 | **『增補文獻備考』** 卷三十六 輿地考二十四

[續]〈附〉 西間島疆界[高句麗廣開土王碑銘曰] ~ 十年庚子 敎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邑城倭滿倭潰城大〈八字缺〉 來背息追至〈四字缺〉 九盡臣有尖安羅人戍兵〈十四字缺〉 赤〈三字缺〉 安羅人戍兵.

[속(續)]〈부(附)〉 서간도강계 [고구려 광개토왕비의 명문에] “십년 경자(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어)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했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 신라성… 성. 왜가 가득했는데 그들을 괘멸시키고, 〈8자 결락〉 도망가는 뒤를 좇아 〈4자 결락〉…안라인수병 〈14자 결락〉 적 〈3자 결락〉 안라인수병”라고 보입니다.

臣謹按 西北間島之原係我疆 歷史昭載 不俟更論 而至於高句麗廣開土王碑銘 頗多刓缺 文亦不雅 然考其文字 則足以補句麗史之佚脫 而千古疑案之國疆 可證矣 其曰始祖鄒牟王 卽朱蒙之轉音也 不曰東明 而曰鄒牟 則後漢書所云北夫餘始祖東明之說 恐或有據 其曰出自 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 與本史合 奄利大水卽淹褫水也
又曰 路由夫餘 苙沸流谷忽本西城山上 而建都云 則沸流卒本之在鴨江以北 今興京界內明矣 成川卒本之說 不攻自破矣 又曰負碑至鹽水上 鹽水卽鹽難水也 今波猪江是也.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북간도가 원래 우리 영토에 속하였음은 역사에 환히 실려 있어서 재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비명에는 닳아 없어진 글자도 자못 많고 문장 또한 우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고찰하면 고구려 역사의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며, 먼 옛날의 확실하지 않은 나라의 영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모왕은 바로 주몽(朱蒙)의 바뀐 음입니다. 동명(東明)이라고 하지 않고 추

모라고 하였는데, 후한서에서 말한 '북부여 시조 동명'이라는 설이 혹시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천제(天帝)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라는 것은 본사(本史)와 합치합니다. 엄리대수(奄利大水)는 바로 엄사수(淹㴲水)입니다.

또 말하기를, 부여로부터 길을 나서서 비류곡(沸流谷)에 이르러 홀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라고 하였는데, 비류는 졸본(卒本)의 압록강 북쪽, 지금[조선 시기]의 흥경(興京) 경계 안쪽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천(成川)이 졸본이라는 설은 공격할 것도 없이 스스로 파기해야 합니다. 또 말하기를, "비석을 짊어지고 염수(鹽水) 위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는데, 염수는 바로 염난수(鹽難水)이니 지금의 파저강(波猪江)이 바로 이곳입니다.

403년(수정 연대) 백제 궁월군의 인부가 가라국에 머물다

사료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14년 | 『日本書紀』卷十 應神紀 十四年

是歲 弓月君自百済来帰 因以奏之曰 臣領己国之人夫百廿県而帰化 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国爰遣葛城襲津彦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 然経三年而襲津彦不来焉

이 해에 궁월군(弓月君)이 백제로부터 돌아왔다. 그래서 아뢰기를 "신은 저희 나라의 인부 120현(県)을 이끌고 귀화하고자 하였으나, 신라인이 방해하여 모두 가라국에 머물러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카즈라키노소츠비코[葛城襲津彦]를 보내 궁월군의 인부를 가라에서 불러들이도록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소츠비코가 돌아오지 않았다.

405년(수정 연대) 동한의 땅 감라, 고난, 이림성을 백제가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16년 | 『日本書紀』卷十 應神紀 十六年

是歲 百済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国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이 해에 백제 아화왕(阿花王)이 죽었다. 천황이 직지왕(直支王)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라."고 말하고, 이에 또한 동한(東韓)의 땅을 돌려주면서 보냈다〈동한은 감라성(甘羅城), 고난성(高難城), 이림성(爾林城)을 말한다〉

407년　가락국 좌지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第六坐知王〈一云 金叱王 父伊品 母眞信 丁未立 治十四年〉

제 6대 좌지왕〈어떤 곳에서는 김질왕이라고도 되어 있다. 아버지는 이품이고 어머니는 진신이다. 정미(407년)에 즉위하여 14년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5　|　**『三國史節要』** 卷五

〈丁未 晉 義熙三年 新羅 實聖王 六年 高句麗 廣開土王 十六年 百濟 腆支王 三年〉 夏四月 駕洛國王 伊尸品薨 子坐知立 坐知得傭女而嬖之 又寵任女黨 國大亂 新羅謀伐之 其臣朴元道諫曰 遺草閱閱亦含羽 況乃人乎 天亡地陷人保何基 又卜士爲 坐知筮之 得解卦 其辭曰 解而悔朋至斯孚 坐知謝之 擯女于荷山島.

〈정미 진 의희 3년, 신라 실성왕 6년, 고구려 광개토왕 16년, 백제 진지왕 3년〉 여름 4월에 가락국왕 이시품이 죽고, 아들인 좌지가 왕위에 올랐다. 좌지는 품팔이 여인을 총애하고 그 여자의 무리들을 관직에 등용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려 하였다. 신하인 박원도가 [좌지왕에게] 간하면서 말하기를, "버려진 풀도 잘 살펴보면 깃털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입니까. 하늘이 망하고 땅도 꺼졌으니 사람이 어느 터전에서 보존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점치는 사람이 좌지왕을 위하여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풀었던 것을 후회하고 없애면 벗이 이르러 이에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좌지왕이 사과하고 그 여자를 하산도로 물리쳤다.

사료3　**『동국통감』** 권4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四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丁未 晉 義熙三年 新羅 實聖王 六年 高句麗 廣開土王 十六年 百濟 腆支王 三年〉 夏四月 駕洛國王 伊尸品卒 子坐知立 坐知得傭女而嬖之 又寵任女黨 國大亂 新羅謀伐之 其臣朴元道諫之 又卜士爲坐知筮之 得解卦 其辭曰 解而拇朋至斯孚 坐知謝之 擯女于荷山島.

〈정미 진 의희 3년, 신라 실성왕 6년, 고구려 광개토왕 16년, 백제 진지왕 3년〉 여름 4월에 가락국왕 이시품이 죽고, 아들인 좌지가 왕위에 올랐다. 좌지는 품팔이 여인을 총애하고 그 여자의 무리들을 관직에 등용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려 하였다. 신하인 박원도가 간하였다. 또 점치는 사람이 좌지왕을 위하여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엄지손가락을 없애면 벗이 이르러 이에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좌지왕이 사과하고 그 여자를 하산도로 물리쳤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子坐知立 得傭女而嬖之 寵任女黨 國內大亂 新羅謀伐之 其臣朴元道諫之 卜士爲筮之 得解卦 其辭曰 解而拇朋至斯孚 王謝之 擯女于荷山島.

아들 좌지가 왕위에 올랐다. [좌지는] 품팔이 여인을 총애하고 그 여자의 무리들을 관직에 등용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려 하였다. 신하인 박원도가 간하였다. 또 점치는 사람이 좌지왕을 위하여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엄지손가락을 없애면 벗이 이르러 이에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좌지왕이 사과하고 그 여자를 하산도로 물리쳤다.

사료5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坐知王〈伊尸品子 丁未立 宋 武帝 永初 辛酉卒〉

좌지왕〈이시품의 아들이다. 정미년에 왕위에 올랐다. 송 무제 영초 신유년에 죽었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至坐知 得傭女而嬖之 女黨用事 國大亂 其臣元道諫 筮之得解 解之繇曰 解而拇朋至斯孚 坐知謝之 擯女于荷山 國以治强.

좌지 때에 이르러 품팔이 여인을 얻어 총애하고 그 여자의 무리들이 국사를 좌지우지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그 신하인 원도가 간하고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뜻을 풀이하여 노래로 부르기를, 네 엄지손가락을 없애면 벗이 이르러 이에 믿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과하고 그 여자를 하산으로 물리치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강성해졌다.

사료7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晉義熙三年 伊尸品卒 子坐知立 得傭女嬖 寵任女黨 國內大亂 新羅謀伐之 其臣朴元道諫之 又卜者筮得解卦 其辭曰 解而栂朋至斯孚 王擯女于荷山島.

[동]진 의희 3년(407년)에 이시품이 죽었다. 아들 좌지가 왕위에 올랐다. 천한 여인을 얻어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무리를 총애하고 신임하여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려고 꾀하였다. 그 신하인 박원도가 간하고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뜻을 풀이하기를, "엄지손가락을 풀어버리면 벗이 이르러 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여자를 하산도로 내쳤다.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丁未 新羅 實聖王 五年 高句麗 廣開土王 十五年 百濟 腆支王 二年 東晉 安帝 義熙 三年〉夏四月 駕洛國王 伊尸品殂 子坐知立 坐知得傭女而嬖之 又寵任女黨 國大亂 新羅謀伐之 其臣朴元道諫之 又卜士爲坐知筮之 得解卦 其辭曰 解而拇朋至斯孚 坐知謝之 擯女于荷山島.

〈정미 신라 실성왕 5년, 고구려 광개토왕 15년, 백제 전지왕 2년, 동진 안제 의희 3년(407년)〉 여름 4월에 가락국왕 이시품이 죽었다. 아들 좌지가 왕위에 올랐다. 좌지가 천한 여인을 얻어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무리를 총애하고 신임하여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려고 꾀하였다. 그 신하인 박원도가 간하였다. 또 점을 쳐서 점괘를 얻었는데, 그 뜻을 풀이하기를, "엄지손가락을 풀어버리면 벗이 이르러 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죄하고 여자를 하산도로 내쳤다.

414년(수정 연대) 목만치가 임나에서 전횡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0 응신기 25년 | **『日本書紀』** 卷十 應神紀 二十五年

廿五年 済直支王薨 即子久爾辛立為王 王年幼 大倭木満致執国政 与王母相婬 多行無礼 天皇聞而召之〈百済記云 木満致者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国婦而所生也 以其父功専於任那 来入我国往還貴国 承制天朝執我国政 権重当世 然天皇聞其暴召之〉

25년,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이에 아들 구이신(久爾辛)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 나이가 어려 대왜(大倭)의 목만치(木滿致)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의 어머니와 간통하면서 많은 무례를 행하였다. 천황은 이를 듣고 소환하였다〈『백제기(百済記)』에 말하기를, "목만치는 목라근자(木羅斤資)가 신라를 토벌할 때 그 나라의 여자를 취하여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과 왕래하였다. 천조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서 소환하였다."고 한다〉

421년 가락국 취희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第七 吹希王〈一云 金喜 父坐知王 母福 辛酉立 治三十年〉

제 7대 취희왕〈어떤 곳에서는 김희라고도 되어 있다. 아버지는 좌지왕이고 어머니는 복이다. 신유(421년)에 즉위하여 30년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5 | 『三國史節要』 卷五**

〈辛酉 宋 永初 二年 新羅 訥祇王 五年 高句麗 長壽王 九年 百濟 久爾辛王 二年〉 夏五月 駕洛國王坐知薨 子吹希立.

〈신유 송 영초 2년, 신라 눌지왕 5년, 고구려 장수왕 9년, 백제 구이신왕 2년〉 여름 5월에 가락국왕 좌지가 죽고 아들 취희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3 **『동국통감』 권4 삼국기 신라·고구려·백제 | 『東國通鑑』 卷四 三國紀 新羅·高句麗·百濟**

〈辛酉 宋 永初 二年 新羅 訥祇王 五年 高句麗 長壽王 九年 百濟 久爾辛王 二年〉 夏五月 駕洛國王坐知卒 子吹希立.

〈신유 송 영초 2년, 신라 눌지왕 5년, 고구려 장수왕 9년, 백제 구이신왕 2년〉 여름 5월에 가락국왕 좌지가 죽고 아들 취희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子吹希立

아들 취희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5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吹希王〈坐知子 辛酉立 文帝 元嘉 辛卯卒〉

취희왕〈좌지의 아들이다. 신유년에 왕위에 올랐다. 문제 원가 신묘년에 죽었다〉

사료6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南宋 少帝 子業 景平 元年 坐知王卒 子吹希立.

남송 소제 자업 경평 원년(423년; 다른 기록에 모두 송 영초 2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에 좌지왕이 죽었다. 아들 취희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7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辛酉 新羅 訥祇王 四年 高句麗 長壽王 八年 百濟 久爾辛王 元年 宋 武帝 永初 二年〉 夏月 駕洛國王坐知殂 子吹希立.

〈신유 신라 눌지왕 4년, 고구려 장수왕 8년, 백제 구이신왕 원년, 송 무제 영초 2년(421년)〉 여름 5월에 가락국왕 좌지가 죽고 아들인 취희가 왕위에 올랐다.

424~453년　왜왕 미가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라고 칭하다

사료1 **『한원』** 권30 번이부 신라 | **『翰苑』** 卷三十 蕃夷部 新羅

開源拓構 肇基金水之年〈括地志云 案宋書 元嘉中 倭王弥 自稱使持節 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此則新羅有國在晉宋之間 且晉宋齊梁 並無正傳 故其有國所出 靡得詳也 金水晉宋之也〉

나라를 열어 기틀을 개척하였으니, 그 터는 진(晉)과 송(宋)나라 시기에 비롯된 것이다.〈괄지지(括地志)에서 이르기를, "『송서』를 보건대, '원가(元嘉) 연간(424~453년)에 왜왕 미(彌)가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라고 칭하였다.'고 하였다. 이런즉 신라는 진과 송 사이에 존재하였던 나라이다. 또한 진, 송, 제, 양 나라가 모두 정전(正傳)이 없으니 이런 이유로 그 나라의 유래를 상세하게 알 수 없다. 금수(金水)는 진과 송나라이다." 라고 하였다〉

425년　왜국왕 찬이 왜·신라·임나·가라·진조한 6국 안동대장군 왜왕에 제수되다

사료1 **『책부원구』** 권963 외신부8 봉책1 | **『冊府元龜』** 卷九百六十三 外臣部八 封册一

宋文帝 元嘉二年…(중략)…是年 倭國王倭讃 遣使奉表獻方物 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父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業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紹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詔除督倭新羅任那加羅秦朝韓六國 安東大將軍 倭王.

송 문제(文帝) 원가 2년(425년).…(중략)…이 해에 왜국왕 왜찬(倭讃)이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리고, 특산물을 바쳤다. 표에서 이르기를, "본국(왜)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책봉을 받아 해외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느라고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인(毛人) 55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오랑캐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도(王道)가 두루 전파되었으며, 영토를 넓혀서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역대의

왜왕은 종주(宗主) 이래로 해마다 [중국에] 사자를 보내는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신이 비록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이 왕통을 이어 받아서 통치하는 바를 이끌어서 천자에 지극한 존경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칙을 내려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조한 6국 안동대장군 왜왕에 제수했다.

사료2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按通考倭條云 宋文帝 元嘉二年 倭遣使 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 諸軍事安東大將軍 倭國王.

『통고』의 왜조를 살펴보면, "송 문제 원가 2년(425년) 왜가 사신을 보내 스스로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을 칭하였다."고 하였다.

438년 왜국왕 진이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을 칭하다

사료1 **『송서』 권97 열전57 동이전 왜국 | 『宋書』 卷九十七 列傳五十七 東夷傳 倭國**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 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 征虜 冠軍 輔國將軍號 詔並聽.

찬(讚)이 죽자 동생 진(珍)이 왕이 되어 [중국의 송에 사신을 보내] 공헌하면서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또 표를 올려서 [그 관직을] 정식으로 제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송의 태조가] 조서를 내려서 [진을] 안동장군 왜국왕에 제수하였다. 진이 또한 왜수 등 13인에게 평서·정로·관군·보국의 장군 칭호를 정식으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조서를 내려 모두 들어 주었다.

사료2 **『남사』 권79 열전 제69 이맥전 하 동이 왜국 | 『南史』 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傳 下 東夷 倭國**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 倭國王 珍又求除正倭洧等十三人平西 征虜 冠軍 輔國將軍等號 詔並聽之.

찬(讚)이 죽자 동생 진(珍)이 왕이 되었다. [진이 중국의 송에 사신을 보내] 공헌하면서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또 표를 올려서 [그 관직을] 정식으로 제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송의 문제가] 조서를 내려서 [진을] 안동장군 왜국왕에 제수하였다. 진이 또한 왜유(倭洧) 등 13인에게 평서·정로·관군·보국장군 등의 칭호를 정식으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조서를 내려서 모두 들어 주었다.

사료3 **『태평어람』 권 제782 사이부3 동이3 왜 | 『太平御覽』 卷 第七百八十二 四夷部三 東夷三 倭**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詔除安東將軍 倭國王 珍又求除正倭洧等十三人平西 征虜 冠軍號 詔並聽之 自此朝貢不絶.

찬(讚)이 죽자 동생 진(珍)이 왕위에 올랐다. [진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송의 태조가] 조칙을 내려서 [진을] 안동장군 왜국왕으로 제수하였다. 진이 또한 왜유(倭洧) 등 13인에게 평서·정로·관군의 칭호를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

자, 조칙을 내려서 모두 제수해 주었다. 이로부터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사료4 **『강계고』** 제3 가라국 임라국 | **『疆界考』** 第三 加羅國 任羅國

文獻通考 宋文帝元嘉三年 倭王珍遣使 自稱持節都督 百濟新羅任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倭國王

『문헌통고』에, 송나라 문제 원가 3년(426년; 정확하지 않다)에 왜왕 진이 사신을 보내와 '지절 도독 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왜국왕'을 자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사료5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임나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任那

〈太祖元嘉中 倭王珍立 自稱使持節都督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表求除正 詔許之〉

〈태조 원가 연간에 왜왕 진(珍)이 왕위에 올랐다. [진이] 스스로 '사지절 도독 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하고, 표를 올려서 그 관작을 정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의 태조가) 조칙을 내려서 허락하였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임라국 |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任羅國

文獻通考 宋文帝元嘉間 倭王珍遣使 自稱持節都督 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倭國王 後宋加倭王職皆如故 以任羅列於百濟新羅 則任羅亦不小之國也.

『문헌통고』를 보면, 송 문제 원가 연간에 왜왕 진이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지절 도독 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그 후 송이 더해준 왜왕직에도 모두 그대로 임나를 백제, 신라의 반열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임나 역시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451년 왜국왕 제에게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를 더해 주다

사료1 **『송서』** 권97 열전57 동이전 왜국 | **『宋書』** 卷九十七 列傳五十七 東夷傳 倭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并除所上二十三人軍號.

28년(451년)에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의 칭호를 더해 주고 안동장군의 지위는 전과 같이 인정해 주었다. 아울러 [제가] 올린 23인에게 [장]군의 호칭을 제수하였다.

사료2 **『남사』** 권79 열전 제69 이맥전 하 동이 왜국 | **『南史』** 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傳 下 東夷 倭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并除所上二十三人職.

28년(451년)에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의 칭호를 더해 주고 안동장군의 지위는 전과 같이 인정해 주었다. 아울러 [제가] 올린 23인에게 관직을 모두 제수해 주었다.

사료3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二十八年 宋加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28년(451년)에 송이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의 칭호를 더해 주었다.

사료4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임나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任那**

〈二十八年 加倭王濟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원가] 28년(451년)에 왜왕 제에게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의 칭호를 더해 주었다〉

사료5 **『강계고』 제3 가라국 임라국 | 『疆界考』 第三 加羅國 任羅國**

二十八年 宋加倭王濟 職如故.

[원가] 28년(451년)에는 송나라가 왜왕 제에게 전과 같은 직을 더해 주었다.

451년 가락국 질지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第八銍知王〈一云 金銍 ㅁㅁ 母仁德 辛卯立 治三十六年〉

제 8[대] 질지왕〈어떤 곳에서는 김질이라고도 되어 있다. 아버지는 ㅁㅁ이고 어머니는 인덕이다. 신묘(451년)에 즉위하여 36년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5 | 『三國史節要』 卷五**

〈辛卯 宋 元嘉二十八年 新羅 訥祇王三十五年 高句麗 長壽王三十九年 百濟 毗有王二十五年〉 春二月 駕洛國王 吹希薨 子銍知立.

〈신묘 송 원가 28년, 신라 눌지왕 35년, 고구려 장수왕 39년, 백제 비유왕 25년〉 봄 2월에 가락국왕 취희가 죽고 아들 질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3 **『동국통감』 권지4 삼국기 신라 고구려 백제 | 『東國通鑑』 卷之四 三國紀 新羅 高句麗 百濟**

〈辛卯 宋 元嘉二十八年 新羅 訥祇王三十五年 高句麗 長壽王三十九年 百濟 毗有王二十五年〉 春二月 駕洛國王 吹希卒 子銍知立.

〈신묘 송 원가 28년, 신라 눌지왕 35년, 고구려 장수왕 39년, 백제 비유왕 25년〉 봄 2월에 가락국왕 취희가 죽고 아들 질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子銍知立

아들 질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5 **『역대기년』** 권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下 駕洛國

銍知王〈吹希子 辛卯立 齊 武帝 永明 壬申卒〉

질지왕〈취희의 아들이다. 신묘년에 왕위에 올랐다. 제의 무제 영명 임신년에 죽었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傳吹希銍知 銍知祀國母黃玉夫人.

왕위가 취희·질지에게 이어졌다. 질지가 국모인 황옥부인에게 제사지냈다.

사료7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南宋 元嘉 二十八年 吹希卒 子銍知立.

남송 원가 28년(451년)에 취희가 죽었다. 아들 질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辛卯 新羅 訥祗王三十四年 高句麗 長壽王三十八年 百濟 毗有王二十四年 宋 文帝 元嘉二十八年〉 春正月 駕洛國王 吹希卒 子銍知立.

〈신묘 신라 눌지왕 34년, 고구려 장수왕 38년, 백제 비유왕 24년, 송 문제 원가 28년(451년)〉 봄 정월에 가락국왕 취희가 죽고 아들 질지가 왕위에 올랐다.

452년 가락국 질지왕이 왕후사를 창건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紀異二 駕洛國記

元君八代孫金銍王克勤爲政 又切崇眞 爲世祖母許皇后奉資冥福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合婚之地創寺 額曰王后寺 遣使審量近側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

수로왕의 8대손 김질왕(金銍王)은 정치에 부지런하고 또 참된 일을 매우 숭상하여 시조모(始祖母) 허황후를 위해서 그의 명복을 빌고자 했다. 이에 원가(元嘉) 29년 임진(壬辰;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합혼하던 곳에 절을 세워 절 이름을 왕후사(王后寺)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절 근처에 있는 평전(平田) 10결을 측량해서 삼보(三寶)를 공양하는 비용으로 쓰게 했다.

自有是寺五百後 置長遊寺 所納田柴幷三百結 於是右寺三剛 以王后寺在寺柴地東南標內 罷寺爲莊 作秋收冬藏之場 秣馬養牛之廐 悲夫.

이 절이 생긴지 500년 후에 장유사(長遊寺)를 세웠는데, 이 절에 바친 전시(田柴)가 도합 300결이나 되었다. 이때 오른편에 있는 삼강사(三剛寺)가 자신들의 시지(柴地) 동남쪽 지역 안에 왕후사가 있다고 해서 왕후사를 폐해서 장사(莊舍)를 만들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겨울에 저장하는 장소와 말을 기르고 소를 치는 마구간으로 만들었으니 슬픈 일이다.

사료2 **『삼국유사』** 권3 탑상4 금관성파사석탑 |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金官城婆娑石塔

金官虎溪寺婆娑石塔者 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 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 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 初公主承二親之命 泛海將指東 阻波神之怒 不克而還 白父王 父王命載玆塔 乃獲利涉 來泊南涯 …(중략)… 聘迎之 同御國一百五十餘年.

금관에 있는 호계사(虎溪寺)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일 때 세조 수로왕의 비 허황후 황옥이 동한 건무 24년 갑신(48년)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배에 싣고 온 것이다. 처음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아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하였는데, 수신(水神)의 노여움을 받게 되어 가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께 아뢰자 왕은 이 탑을 배에 싣고 가라고 하였다. 덕분에 편하게 바다를 건너 남쪽 언덕에 도착하여 배를 대었다. …(중략)… 수로왕이 왕후를 맞아서 같이 나라를 다스린 것은 150여 년이 된다.

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 蓋像教未至 而土人不信伏 故本記無創寺之文 逮第八代銍知王二年壬辰 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在阿道訥祇王之世 法興王之前〉至今奉福焉 兼以鎭南倭 具見本國本記 塔方四面五層 其彫鏤甚奇 石微赤斑色 其質良脆 非此方類也.

하지만 그 때까지도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을 신봉하는 일이 없었으니, 대개 상교(象教)가 정해 오지 않아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런 때문에 가락국본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러던 것이 제 8대 질지왕 2년 임신(452년)에 이르러 그 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王后寺)를 세워 〈아도와 눌지왕의 시대에 해당된다. 법흥왕 이전의 일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다. 또는 겸해서 남쪽 왜국을 진압사겼으니, 가락국기에 자세히 실려있다. 파사석탑은 4면으로 모가 나고 5층인데, 그 조각이 매우 기이하다. 돌에는 희미하게 붉은 반점이 있다.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특이하여 이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 아니다.

사료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古跡】王后寺〈舊趾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고적(古跡)】왕후사〈옛 터가 장유산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결혼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을 삼았다〉

사료4 **『동국여지지』** 권4 하 김해도호부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金海都護府

【古跡】王后寺〈舊趾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迎后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고적(古跡)】왕후사〈옛 터가 장유산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수로왕이] 장막에 나아가 왕후를 맞이했던 땅에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을 삼았다〉

사료5 **『여지도서』** 경상도 김해 | **『輿地圖書』** 慶尙道 金海

【古跡】王后寺〈舊趾在長遊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고적(古跡)】왕후사〈옛 터가 장유산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결혼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을 삼았다〉

사료6 **『경상도읍지』** 제10책 김해부읍지 | **『慶尙道邑誌』** 第十册 金海府邑誌

【佛宇】臨江寺〈許后自天竺來 泊于此 王設幔殿迎之 王八代孫銍知王建寺 名曰王后寺 今改名臨江寺〉

【불우(佛宇)】임강사〈허후가 천축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정박하니, 왕이 만전을 설치하고 맞이하였다. 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이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지금[조선]은 임강사로 이름을 고쳤다〉

사료7 『김해부읍지』 | 『金海府邑誌』

【寺刹】臨江寺〈許后自天竺來 泊于此 王設幔殿迎之 王八代孫銍知王建寺 故名曰王后寺 今名臨江寺〉

【사찰(寺刹)】임강사〈허후가 천축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정박하니, 왕이 만전을 설치하고 맞이하였다. 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절을 짓고 그런 연유로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지금[조선]은 임강사라 부른다〉

사료8 『김해읍지』 | 『金海邑誌』

【古跡】王后寺〈舊基在長有山 首露王八代孫銍知王 就幔殿合婚之地 建寺名曰王后寺 後罷寺爲莊〉

【고적(古跡)】왕후사〈옛 터가 장유산에 있다. 수로왕의 8대손인 질지왕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장막에 나아가 결혼했던 곳에 절을 짓고 왕후사라 이름 하였다. 뒤에 절을 없애고 장을 삼았다〉

462년 왜가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라 칭하다

사료1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孝武 大明 六年 又自稱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효무 대명 6년(462년)에 왜가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라 칭하였다.

463년 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타사가 임나국사에 임명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7년(463) 시세 | 『日本書紀』 卷十四 雄略紀 七年 是歲

是歲 吉備上道臣田狭侍於殿側 盛称稚媛於朋友曰 天下麗人莫若吾婦 …(중략)… 当時独秀者也 天皇傾耳 遥聴而心悦焉 便欲自求稚媛為女御 拝田狭為任那国司 俄而天皇幸稚媛 田狭臣娶稚媛而生兄君 弟君也〈別本云 田狭臣婦名毛媛者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体貌閑麗 殺夫自幸焉〉田狭既之任所聞天皇之幸其婦 思欲求援而入新羅 于時 新羅不事中国

이 해, 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타사[吉備上道臣田狹]가 임금을 옆에 모시고 있다가 친구에게 와카히메(稚媛)를 한창 칭찬하여 천하의 미인이라도, 나의 처 같은 이는 없다. …(중략)… 이 시대에 홀로 빼어났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귀를 기울여 멀리서 듣고는 마음에 기뻐하였다. 스스로 와카히메를 찾아서 후궁으로 하려고 하였다. 타사(田狹)를 임나국사(任那國司)로 임명하였다. 조금 후에 와카히메를 불렀다. 타사노오미(田狹臣)은 와카히메에 장가들어 에키미(兄君), 오토키미(弟君)를 낳았었다.〈다른 책에서 말하였다. 타사노오미의 처를 케히메(毛媛)라 한다. 카즈라키노소츠히코[葛城襲津彦]의 아들인 타마타노스쿠네[玉田宿禰]의 딸이다. 천황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지아비를 죽이고 빼앗았다〉 타사가 임명된 장소에 가서 천황이 자기 처를 빼앗은 것을 듣고는 신

라에 구원을 청하여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때 신라는 왜(倭)를 섬기지 않았다.

天皇詔田狭臣子弟君与吉備海部直赤尾曰 汝宜往罰新羅 於是西漢才伎歓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多在韓国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歓因知利副弟君等 取道於百済 并下勅書 令献巧者 於是弟君銜命 率衆行到百済而入其国 国神化為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国之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不伐而還 …(중략)… 吾児汝者 跨拠百済 勿使通於日本 吾者拠有任那 亦勿通於日本.

천황은 타사노오미의 아들인 오토키미와키비노아마노아타히아카오[吉備海部直赤尾]에게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신라를 쳐라."고 명하였다. 그때, 서한재기(西漢才伎)인 환인지리(歓因知利)가 측근에 있었다. 나아가 주하여 "저보다 잘하는 자가 한국(韓国)에는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천황이 군신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면 환인지리를 오토키미들과 같이 백제에 보내 칙서를 내려 잘하는 자를 바치게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오토키미는 명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에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 국신(国神)이 노파가 되어 갑자기 길에 나타났다. 오토키미는 앞길이 얼마나 먼가를 물었다. 노파는 "다시 하루를 간 연후에라야 다다를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오토키미는 스스로 길이 멀다고 생각하여 신라를 치지 않고 돌아왔다. …(중략)… "내 아들인 너는 백제에 머물러 일본과는 통하지 말라. 나는 임나에 거점을 가지고, 또 일본에는 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雄略天皇七年〈新羅 慈悲王五年〉以吉備田狹爲任那國司 又遣其子弟君 伐新羅 奪其妻 田狹據任那反.

웅략 천황 7년(463년)〈신라 자비왕 5년〉 키비노타사[吉備田狹]를 임나국사로 삼았다. 또한 그 아들 오토키미(弟君)를 보내어 신라를 치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사노(田狹)가 임나를 근거로 하여 모반하였다.

464년 신라가 임나에 구원을 청하자 임나왕이 신라를 구원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8년(464) | **『日本書紀』** 卷十四 雄略紀 八年

春二月 自天皇即位至于是歳 新羅国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国之心 脩好於高麗 由是高麗王遣精兵一百人 守新羅 有頃高麗軍士一人取仮帰国 時以新羅人為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毘〉而顧謂之曰 汝国為吾国所破非久矣〈一本云 汝国果成吾士非久矣〉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国説其所語 於是新羅王乃知高麗偽守 遣使馳告国人曰 人殺家内所養鶏之雄者 国人知意 尽殺国内所有高麗人 惟有遺高麗一人 乗間得脱逃入其国 皆具為説之

봄 2월 천황이 즉위 이래 이 해에 이르기까지 신라국이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은 지가 8년이 되었다. 중국(中國; 일본)의 마음을 두려워하여 고구려와 수호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왕이 정병 100인을 보내 신라를 지켰다. 고구려 병사가 휴가를 얻어 귀국할 때 신라인이 마부〈전마(典馬)를 우마가히(于麻柯毘)라 한다〉로 따라 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패할 바가 머지않았다."라고 하였다〈어떤 책에는 "너희 나라가 우리 땅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하였다〉 마부가 듣고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여 뒤로 물러나 있다가 나라로 돌아와 그 말하는 바를 알렸다. 이 때 신라왕이 고구려가 거짓으로 지켜주는 것을 알고 사신을 보내 나라 사람들에게 "집 안에 키우는 수탉을 죽이라."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국내에 있는 고구려인들을

모두 죽였다. 오직 한 고구려인이 남아 사이를 틈타 그 나라로 탈출해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다.

高麗王卽発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遂歌舞興楽 於是 新羅王夜聞高麗軍四面歌舞 知賊尽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国 当此之時若綴旒然 国之危殆過於累卵 命之脩短大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任那王勧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屡餓〉吉備臣小梨 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중략)… 乃縦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二国之怨自此而生〈言二国者 高麗新羅也〉

고[구]려왕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축족류성(筑足流城)〈어떤 책에는 도구사기성(都久斯岐城)이라 하였다〉에 주둔하였다. 가무하며 음악소리를 냈다. 신라왕은 밤에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가무하는 것을 듣고, 적이 모두 신라 땅에 들어온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을 임나 왕에게 보내 "고구려의 왕이 우리나라를 정벌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나라는 매달려 있는 깃발과 같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누란의 위기보다 더하다. 명의 장단도 헤아릴 수 없다. 엎드려 일본부(日本府)의 장군들에 도움을 청한다"라 말하였다. 이 때문에 임나의 왕은 카시하데노오미이카루가[膳臣斑鳩]〈반구(斑鳩), 이를 이카루가(伊柯屡餓)라 한다〉 키비노오미오나시[吉備臣小梨], 나니와노키시아카메코[難波吉士赤目子]에 권하여, 가서 신라를 도와주게 하였다. …(중략)… 거기에서 기습병을 내어 보병과 기병으로 협공하여 크게 파하였다. 두 나라의 원한이 이에서 생겼다.〈두 나라라 함은 고구려와 신라이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高麗與新羅相攻 新羅乞援於任那日本府 府帥遣兵 大破高麗兵.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공격하였다. 신라가 임나일본부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일본]부의 장수가 병사를 보내어 고구려 병사를 크게 깨트렸다.

사료3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甲辰 新羅 慈悲王六年 高句麗 長壽王五十一年 百濟 蓋鹵王九年 宋 孝武帝 大明 八年(464)〉高句麗與新羅相攻 羅乞援於大加耶日本府 府帥率膳斑鳩 往救.

〈갑진 신라 자비왕 6년, 고구려 장수왕 51년, 백제 개로왕 9년, 송 효무제 대명 8년(464년)〉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공격하였다. 신라가 대가야 일본부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일본]부의 장수 가시하데노이카루가[膳斑鳩]가 가서 구하였다.

465년 잡라와 탁의 존재

사료1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9년(465) | **『日本書紀』** 卷十四 雄略紀 九年

三月 天皇欲親伐新羅 神戒天皇曰 無往也 天皇由是不果行 乃勅紀小弓宿禰 蘇我韓子宿禰 大伴談連〈談 此云箇陀利〉小鹿火宿禰等曰 新羅自居西土 累葉称臣 朝聘無違 貢職允済 逮乎朕之王天下 投身対馬之外 竄跡匝羅之表 阻高麗之貢 呑百済之城 况復朝聘闕 貢職莫脩 狼子野心 飽飛飢附 以汝四卿 拝為大将 宜以王師薄伐天罰龔行.

3월에 천황이 친히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신(神)이 천황에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였다. 천황이 이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키노오유미노스쿠네[紀小弓宿禰], 소가노가라코노스쿠네[蘇我韓子宿禰], 오호토모노카타리노무라지[大伴談連]〈담(談)은 카타리(箇陀利)라고 읽는다〉 오카히노스쿠네[小鹿火宿禰] 등에게 "신라는

본래 서쪽 땅에 있는데 대대로 신하를 칭하였다. 조공하여 알현하는 일을 어긴 적이 없으며 공직(貢職)도 정성껏 바쳤다. 짐이 천하의 왕이 되기에 이르러서 몸을 쓰시마(対馬)의 바깥에 두고, 자취는 잡라(匝羅)의 바깥에 숨기면서 고구려의 공물을 막고 백제의 성을 삼켰다. 이에 다시 전혀 조빙하지 않고, 공직을 행하지 않는다. 이리 새끼와 같은 거친 마음을 품고 배부르면 날아가고 배고프면 붙는다. 이에 너희들 네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한다. 마땅히 왕사(王師)로서 핍박하고 정벌하여 천벌을 받들어 행하라."고 칙을 내렸다.

於是 紀小弓宿禰使大伴室屋大連 憂陳於天皇曰 臣雖拙弱敬奉勅矣 但今臣婦命過之際 莫能視養臣者 公冀将此事具陳天皇 於是 大伴室屋大連具為陳之 天皇聞悲頽歎 以吉備上道采女大海 賜於紀小弓宿禰 為随身視養 遂推轂以遣焉 紀小弓宿禰等卽入新羅 行屠傍郡〈行屠 並行並撃〉新羅王夜聞官軍四面鼓声 知尽得喙地 与数百騎馬軍乱走是以大敗 小弓宿禰追斬敵将陣中 喙地悉定 遺衆不下 紀小弓宿禰亦収兵 与大伴談連等会 兵復大振 与遺衆戦 是夕大伴談連及紀岡前来目連 皆力闘而死 談連従人同姓津麻呂 後入軍中尋覓其主 従軍不見出問曰 吾主大伴公何処在也 人告之曰 汝主等果為敵手所殺 指示屍処 津麻呂聞之踏叱曰 主既已陥 何用独全 因復赴敵 同時殞命 有頃遺衆自退 官軍亦随而却 大将軍紀小弓宿禰値病而薨.

이에 키노오유미노스쿠네는 근심하여 오호토모노무로야노오호무라지[大伴室屋大連]에게 "신은 비록 졸렬하고 약하지만 삼가 칙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신의 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의 시중 들 사람이 없습니다. 공께서는 이 사정을 천황에게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오호토모노무로야노오호무라지가 자세히 아뢰었다. 천황은 이를 듣고 슬프하고 탄식하며, 키비노카미츠미치노우네메오호시아마[吉備上道采女大海]를 키노오유미노스쿠네에 주어 그를 따르며 시중들게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수레를 밀어서 전장으로 보냈다. 키노오유미노스쿠네 등은 신라로 들어가서 근처의 고을을 다니면서 공격하였다.〈행도(行屠)는 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이다〉 신라왕은 밤에 사방에서 관군의 북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탁(喙)의 땅이 모두 점령되었다고 생각하여 수백 명의 군사와 더불어 도주하였다. 이에 크게 패하였다. 오유미노스쿠네는 쫓아가 적장을 진중에서 베었다. 그리고 탁지를 모두 평정하였는데 남아있던 무리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오유미노스쿠네는 또한 병사를 거두어 오호토모노카타리노무라지 등과 만났다. 병사들은 크게 떨쳐 일어나 남은 무리들과 함께 싸웠다. 이 날 저녁에 오호토모노카타리노무라지 및 키노오카자키노쿠메노무라지[紀岡前来目連]은 모두 힘껏 싸우다 죽었다. 카타리노 무라지(談連)의 시종이자 같은 성을 가진 츠마로(津麻呂)는 후에 군중으로 들어가 그 주인을 계속 찾았다. 그러나 군중에서 보이지 않자. "나의 주인 오호토모노키미(大伴公)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주인들은 결국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체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츠마로가 듣고는 발을 구르고 절규하며, "주인이 이미 돌아가셨다. 어찌 홀로 온전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다시 적에게 나아가 함께 죽었다. 얼마 후에 남은 무리들이 스스로 물러나자 관군 또한 마침내 물러났다. 대장군 키노오유미노스쿠네는 병에 걸려 죽었다.

477년 임나국 하다호리현의 별읍 구마나리를 백제에 주다

사료1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21년(477) | 『日本書紀』 卷十四 雄略紀 二十一年

廿一年春三月 天皇聞百済為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国 時人皆云 百済国雖属既亡聚憂倉下 実頼於天皇 更造其国 〈汶洲王盖鹵王母弟也 日本旧記云 以久麻那利賜末多王 盖是誤也 久麻那利者任那国下哆呼利県之別邑也〉

21년 봄 3월에 천황이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되었다는 것을 듣고 구마나리(久麻那利)를 문주왕(汶洲王)에게 주어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백제국이 비록 무리들은 이미 죽거나 창고 아래에 모여 근심하였는데도 오로지 천황에 의지하여 다시 그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였다.〈문주왕은 개로왕(盖鹵王)의 모제(母弟)이다. 『일본구기(日本旧記)』에 이르기를 구마나리를 말다왕(末多王)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아마도 잘못일 것이다. 구마나리는 임나국(任那国)의 하다호리현(下哆呼利県)의 별읍(別邑)이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雄略天皇二十一年〈新羅慈悲王十九年〉 賜久麻那利地於百濟 文周王圖復其國.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웅략천황(雄略天皇) 21년(477년)〈신라 자비왕 19년〉 구마나리(久麻那利) 땅을 백제에 내려 주었다. 문주왕(汶洲王)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다."

○淵案 久麻那利 未詳何地 想是任那境土 而屬於日本者也 特文周王父蓋鹵王 爲句麗所殺 故使文周 移都熊津 以圖復故地.

○나 장지연[淵(張志淵)]은 이렇게 생각한다. 구마나리가 어느 땅인지 잘 모른다. 생각건대 임나의 국경으로 일본에 속한 곳일 것이다. 특히 문주왕의 아버지 개로왕(蓋鹵王)이 고구려에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문주왕으로 하여금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도록 하여 옛 땅을 회복하려 한 것이다.

478년 왜국왕 무가 스스로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을 칭하다

사료1 『송서』 권97 열전57 동이전 왜국 | 『宋書』 卷九十七 列傳五十七 東夷傳 倭國

興死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於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於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逕百濟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呑 掠抄邊隷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흥(興)이 죽고 동생 무(武)가 왕이 되어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순제 승명 2년(478년)에 [무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책봉을 받아 해외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느라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인(毛人) 55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오랑캐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도가 융성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대대로 조공하여 해마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신이 비록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이 선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곳의 산물을 모두 싣고 천자의 조정에 조공하고자 하여 [송으로] 가는 길에 백제에 들러서 선박을 꾸미고 수리하는데, 고구려가 무도하여 [그 선박을] 삼키려고 변방의 예속민을 침공하여 살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체되고 또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을 놓쳐 비록 길을 나아갔다고는 해도, 혹은 통하기도 하고, 혹은 통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臣亡考濟實忿寇讎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大擧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簣 居在諒闇 不動兵甲 是以偃息未捷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士虎賁 文武效功 白刃交前 亦所不顧 若以帝德覆載 摧此強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鹹各假授以勸忠節 詔除武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신의 돌아가신 아비 제(濟)가 실로 원수(고구려)가 중국에 가는 뱃길을 막는 것에 분노하니, 활 잘 쏘는 병사 1백만이 의로운 소리에 감격하여 바야흐로 크게 일어나 출정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아버지와 형의 상을 당하여 거의 이루어질 뻔한 공을 한 삼태기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喪) 중에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이에 누워서 편안하게 쉴 뿐 싸우러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금에 이르러 무기를 닦고 병사를 훈련시켜서 아버지와 형의 유지를 펴려고 하니, 의로운 인사와 용맹한 군인, 문관과 무관들이 서로 공을 세우려고 수많은 칼날이 부딪쳐도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은덕으로 천지를 덮어 강적(고구려)을 꺾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면, 선대의 공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삼가 제가 스스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라고 가칭하였습니다. 그 나머지의 관직도 모두 제수해주셔서 [저의] 충절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순제가 조칙을 내려 무(武)를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왕’에 임명하였다.

사료2 **『남사』 권79 열전 제69 이맥전 하 동이 왜국 | 『南史』 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傳 下 東夷 倭國**

興死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 羅任那加羅秦韓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 言 自昔祖禰 躬擐甲胄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陵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道逕百濟 裝飾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呑
흥(興)이 죽고 동생 무(武)가 왕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칭했다.
순제(順帝) 승명 2년(478년)에 [무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느라고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인(毛人) 55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오랑캐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도가 융성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대대로 조공하여 해마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송으로] 가는 길에 백제에 들러서 선박을 꾸미고 수리하는데, 고구려가 무도하여 [그 선박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臣亡考濟 方欲大擧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簣 今欲練兵 申父兄之志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 詔除武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신의 돌아가신 아비 제(濟)가 크게 일어나 출정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아버지와 형의 상을 당하여 거의 이루어질 뻔한 공을 한 삼태기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무기를 닦고 병사를 훈련시켜서 아버지와

형의 유지를 펴려고 합니다. 삼가 제가 스스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라고 가칭하였습니다. 그 나머지의 관직도 모두 제수해주셔서 [저의] 충절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조칙을 내려 무(武)를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왕'에 임명하였다.

사료3 **『태평어람』권 제782 사이부3 동이3 왜 | 『太平御覽』卷 第七百八十二 四夷部三 東夷三 倭**

至順帝昇明二年 倭王武遣使上表言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陵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於歲 道過百濟 裝飾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呑

순제 승명 2년(478년)에 이르러 왜왕 무(武)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친히 갑주를 입고 많은 산하를 두루 밟느라고 편안한 여가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인(毛人) 55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오랑캐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도가 융성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대대로 조공하여 해마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송으로] 가는 길에 백제에 들러서 선박을 꾸미고 수리하는데, 고구려가 무도하여 [그 선박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臣亡考濟 方欲大擧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簣 今欲練兵 申父兄之志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 詔除武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신의 돌아가신 아비 제(濟)가 크게 일어나 출정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아버지와 형의 상을 당하여 거의 이루어질 뻔한 공을 한 삼태기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무기를 닦고 병사를 훈련시켜서 아버지와 형의 유지를 펴려고 합니다. 삼가 제가 스스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라고 가칭하였습니다. 그 나머지의 관직도 모두 제수해주셔서 [저의] 충절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조칙을 내려 무(武)를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에 임명하였다.

사료4 **『강계고』제3 가라국 임라국 | 『疆界考』第三 加羅國 任羅國**

順帝昇明二年 加倭王武 職如故 以任羅於百濟新羅之下 諸觀之 任羅亦不小之國而蓋在南海之傍者也.

순제 승명 2년(478년)에는 송나라가 왜왕 무에게 전과 같은 직을 더해 주었는데, 임라를 백제와 신라 아래에 둔 것을 본다면 임라 역시 작은 나라는 아니였다. 대체로 남해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다.

사료5 **『성호사설』권19 경사문 삼한시종 | 『星湖僿說』卷十九 經史門 三韓始終**

劉宋時封倭 爲倭百濟新羅任那加羅辰韓慕韓七國諸軍事 慕韓恐是馬韓 倭之方音如此 加羅任那 註云三韓地 而隋文帝以後 爲新羅襲滅 則駕洛伽耶之外 更無其地 此時 三國餘裔 尙存於羅濟之間 可知辰韓立國 先於箕準而不知都何地.

유송 때 왜를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에 봉하였는데, 모한은 아마도 마한인 듯하므로 왜의 지방 발음이 이와 같았다. 가라와 임나는 주에서 "삼한 땅인데 수나라 문제 이후 신라의 습격으로 멸망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가락·가야 이외에는 다시 그 땅이 없고, 이 때 세 나라의 남은 후예들이 아직 신라와 백제 사이에 존재하였다. 진한이 나라를 세운 것이 기자와 준왕보다 먼저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느 땅에 도읍을 두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료6 **『동사강목』권2 하 삼국 | 『東史綱目』卷二 下 三國**

戊午〈新羅 慈悲王 二十一年 高句麗 長壽王 六十六年 百濟 三斤王 二年〉是歲 倭遣使 貢于宋 倭自卑彌呼以來 累受中國爵命 晉末及宋初 倭王讚〈倭史所稱 履中天皇〉遣使朝貢 讚死弟珍〈倭史所稱 反正天皇〉立 貢獻中國 自稱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按 任那伽耶之誤也 加羅駕洛之訛也 秦韓辰韓也 慕韓馬韓

也 任那或云今忠州古任那國 竝詳地理考〉 中國亦因以册之
무오〈신라 자비왕 21년(478년), 고구려 장수왕 66년, 백제 삼근왕 2년〉 이 해에 왜가 사신을 보내 송에 조공하였다. 왜는 비미호(卑弥呼) 이래로 여러 번 중국의 작명을 받았다. 진나라 말 송나라 초에 왜왕 찬〈왜 사서에 말하는 이중천황〉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찬(讚)이 죽자 동생 진(珍)〈왜 사서에서 말하는 반정천황〉이 왕위에 올라 중국에 공헌하면서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라 칭하자〈살피건대, 임나는 가야의 잘못이고 가라는 가락이 와전된 것이다. 진한(秦韓)은 진한(辰韓)이고, 모한(慕韓)은 마한이다. 임나를 간혹 지금의 충주로 옛날의 임나국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지리고에 자세히 있다〉 중국 역시 그대로 책봉하였다.

至是 王武〈倭史 雄略天皇〉 遣使入宋 表言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東征毛人五十五國〈今蝦峽國〉 西服衆夷六十六國 陵平海北九十五國 臣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宗天極 道遥百濟 裝船理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呑 每致稽滯 臣欲鍊兵 摧此强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宋主詔除安東大將軍 倭國王.〈南史補〉
이 무렵 왜왕 무〈왜 사서의 웅략천황〉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였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친히 갑주를 입고 동쪽으로는 모인(毛人) 55국〈지금의 하이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오랑캐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 신이 선왕의 계통을 이어 통합된 나라들을 거느리고 송나라에 귀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백제를 경유하여 배를 꾸미고 정비하는데, 무도한 고구려가 [그 선박을] 삼키려고 하여 매번 늦고 지체됩니다. 신이 군사를 훈련시켜 이 강한 적을 꺾고 어려움을 평정하여 전대의 공이 쇠퇴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송나라 임금이 조칙을 내려 안동대장군 왜국왕에 제수하였다.〈『남사(南史)』에서 보충하였다〉

사료7 **『동사강목』 부록 권 상 잡설 삼한후설 | 『東史綱目』 附錄 卷 上 雜說 三韓後說**

更按南史 宋時封倭爲百濟新羅任羅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秦韓是辰韓 慕韓是馬韓 然則劉宋之際 猶有辰韓之號耶.
다시 『남사』를 살펴보면, "송나라 때 왜를 봉하여 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진한은 바로 진한이고, 모한은 마한이다. 그렇다면 남송 때에도 아직 진한과 마한의 이름이 있었던 듯하다.

사료8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임나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任那**

〈順帝昇明二年 倭王武 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遣使上表詔除正〉
〈순제 승명 2년(478년)에 왜왕 무(武)가 스스로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을 칭하며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조칙을 내려 그 관작을 정식으로 제수하였다〉

사료9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 하 변진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 下 弁辰**

〈○ [宋書] 昇明中 倭王 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송서』]에 승명 연간에 왜왕이 스스로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를 칭하였다고 되어 있다〉

479년 왜왕 무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 진동대장군을 제수 받다

사료1 『남제서』 권58 열전39 동남이전 왜국 | 『南齊書』 卷五十六 列傳三十九 東南夷傳 倭國

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武號爲鎭東大將軍

[건원 원년(479년)] 새롭게 제수한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제군사 진동대장군 왜왕 무(武)의 진동대장군으로 삼았다.

사료2 『태평어람』 권 제782 사이부3 동이3 | 『太平御覽』 卷 第七百八十二 四夷部三 東夷三

至齊建元中 及梁武帝時 竝來朝貢.

제(齊)의 건원 연간(479~482년) 및 양(梁) 무제 시기에 모두 와서 조공을 바쳤다.

사료3 『책부원구』 권963 외신부8 봉책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三 外臣部八 封册一

南齊太祖 建元 元年 五月 …(중략)… 又詔新除使持節 都督 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 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武進號爲鎭東大將軍.

남제(南齊) 태조 건원 원년(479년) 5월에 …(중략)… 또 조칙을 내려서 새로이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왕 무(武)를 제수하고, 나아가 [장군호를] 더 높여서 진동대장군으로 삼았다.

사료4 『동사강목』 부록 권 하 지리고 가라·임나·모한·휴인·주호고 | 『東史綱目』 附錄 卷 下 地理考 加羅·任那·慕韓·休忍·州胡考

通典云 新羅襲加羅任那諸國 滅之 北史云 新羅附庸於迦羅國 南史倭傳 宋齊時 皆 封倭王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辰韓慕韓七國諸軍事 按 秦韓指辰韓 慕韓指馬韓 加羅指駕洛 音似而誤傳也 任那伽倻字相似而誤分也 更按 三國史强首傳曰 臣本任那加良人 史又以强首爲云中原京沙良人 中原京今忠州 然則任那國卽忠州歟.

『통전』에서, “신라가 가라·임나 등 여러 나라를 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하고, 『북사』에서, “신라가 가라국에 부용하였다.”라고 하고, 『남사』 왜전에서는, “송나라, 제나라 때 모두 왜왕을 도독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 제군사로 봉하였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진한은 진한을 가리키고, 모한은 마한을 가리키며, 가라는 가락을 가리키는데, 음이 비슷하여 잘못 전한 것이다. 임나는 가야를 가리키는데,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잘못 구분한 것이다. 다시 살피건대, 『삼국사기』 강수전에서, “신은 본래 임나가량 사람입니다.”하였고, 사서에서는 다시 강수를 중원경 사량 사람이라고 하였다. 중원경은 지금의 충주이다. 그렇다면 임나국은 바로 충주인가?

479년 가라국왕 하지 남제로부터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 받다

사료1 **『남제서』** 권58 열전39 동남이전 가라국조 |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三十九 東南夷傳 加羅國條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荷知)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도량이 넓은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먼 오랑캐가 교화에 젖도다. 가라왕 하지가 바다 밖에서 방문하여 동쪽 멀리서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한다."라고 하였다.

사료2 **『책부원구』** 권963 외신부8 봉책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三 外臣部八 封册一

是時 加羅國王 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이때에 가라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널리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랑캐가 감화를 받는구나.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의 해외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으로 제수할 만 하도다."라고 하였다.

사료3 **『책부원구』** 권968 외신부13 조공1 | **『册府元龜』** 卷九百六十八 外臣部十三 朝貢一

南齊太祖 建元元年 五月 河南王 吐谷渾拾寅 迦羅國王 荷知 竝遣使貢獻.

남제 태조 건원 원년(479년) 5월에 하남왕 토곡혼습인, 가라국왕 하지가 모두 와서 공물을 바쳤다.

사료4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가라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加羅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南齊書〉

가라국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널리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랑캐가 감화를 받는구나.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의 해외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으로 제수할 만 하도다."라고 하였다.〈『남제서』〉

사료5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建安以後二百六十八年 迦羅之跡 史册無文 至齊高帝建元元年 迦羅國王荷知 遣使于南齊 南齊書東南夷傳云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迦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건안 이후 268년 동안 가라의 자취는 역사책에 글이 없다가, 제나라 고제 건원 원년(479년) 가라국왕 하지가 남제에 사신을 보냈다. 남제서 동남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라국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제나라 고제가]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널리 헤아려 비로소 [제나라의 조정에] 다다르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랑캐가 두루 감화를 받은 덕분이리라.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의 해외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바쳤으니,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으로 삼을만 하도다.'라고 하였다."

○鏞案 首露子孫有坐知王銍知王鉗知王之等 所謂荷知 亦是三知之一也.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로왕의 자손은 좌지왕(坐知王), 질지왕(銍知王), 겸지왕(鉗知王) 등이 있었으니, 이른바 하지(荷知)는 당연히 3지(知) 가운데 하나이다.

481년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를 침입하자, 신라는 백제·가야 구원병과 함께 방어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 **『三國史記』** 卷三 新羅本紀三 炤知麻立干 三年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경계에 침입하여 고명(狐鳴) 등 일곱 성(城)을 취하고 다시 미질부(彌秩夫)로 진군하므로, 아군(신라군)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았다. 적이 패해 달아나므로 이를 추격하여 니하(泥河)의 서쪽에서 깨트리고 목 천여 급을 베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제5 | **『三國史節要』** 卷第五

〈辛酉 齊 建元 三年 新羅 炤智王 三年 高句麗 長壽王 六十九年 百濟 東城王 三年〉 三月 高句麗與靺鞨入新羅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新羅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高句麗靺鞨兵退 追擊之 破於泥河西 斬首千餘級.

〈신유 제 건원 3년, 신라 소지왕 3년, 고구려 장수왕 69년, 백제 동성왕 3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호명성 등 일곱 성을 취하고 다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신라군이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공격하였다. 고구려와 말갈 군대가 물러나자 이들을 추격하여 이하의 서쪽에서 깨트리고 목 천여 급을 베었다.

사료3 **『동국통감』** 권지4 삼국기 신라 고구려 백제 | **『東國通鑑』** 卷之四 三國紀 新羅 高句麗 百濟

〈辛酉 齊 建元 三年 新羅 炤智王 三年 高句麗 長壽王 六十九年 百濟 東城王 三年〉 春三月 高句麗與靺鞨入新羅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新羅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擊之 高句麗靺鞨兵退 追擊之 破於泥河西 斬首千餘級.

〈신유 제 건원 3년, 신라 소지왕 3년, 고구려 장수왕 69년, 백제 동성왕 3년〉 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호명성 등 일곱 성을 취하고 다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신라군이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공격하였다. 고구려와 말갈 군대가 물러나자 이들을 추격하여 이하의 서쪽에서 깨트리고 목 천여 급을 베었다.

사료4 **『동사강목』** 제2 하 삼국 | **『東史綱目』** 第二 下 三國

辛酉〈新羅 炤智王 三年 高句麗 長壽王 六十九年 百濟 東城王 三年〉 三月 鷄林與百濟加耶 敗高句麗靺鞨 于泥河西 麗人與靺鞨 入北邊 取狐鳴〈今未詳〉等七城 進軍彌秩夫〈今興海郡〉 羅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擊敗之 追至泥河西 斬首千餘級.

신유〈신라 소지왕 3년(481년), 고구려 장수왕 69년, 백제 동성왕 3년〉 3월에 신라가 백제, 가야와 함께 고구려,

말갈을 니하 서쪽에서 이겼다. 고구려인과 말갈이 [신라]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호명성〈지금은 알 수 없다〉 등 일곱 성을 취하고 미질부〈지금의 흥해군〉로 진군하였다. 신라군이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공격하여 이기고, [계속] 추격하여 이하의 서쪽에서 목 천여 급을 베었다.

사료5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云 炤知王三年〈齊 高帝 三年〉 春三月 高句麗與靺鞨 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今興海〉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지왕 3년〈제 고제 3년(481년)〉 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에 쳐들어 왔다. 호명성 등 일곱 성을 빼앗았다. 또 미질부〈지금[조선]의 흥해〉까지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와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았다.

사료6 **『동사변의』 변진위가락 | 『東史辨疑』 弁辰爲駕洛**

新羅史云 炤知王三年 高句麗與靺鞨 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伽倻援兵 分道禦之. 彌秩夫 今之興海郡也 狐鳴等七城 雖不可詳 旣取七城乃進興海 今淸河盈德寧海平海眞寶 卽其地也 當時竹嶺久已開路 句麗已據丹城等 數邑 其自竹嶺之路 直衝慶州之北 明矣 百濟者馬韓 新羅者辰韓 駕洛者弁辰也.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지왕 3년(481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여 호명성 등 일곱 성을 빼앗았다. 또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와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았다.

미질부는 지금[조선]의 흥해군(興海郡)이다. 호명 등 일곱 성은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일곱 성을 빼앗고 이에 흥해로 진격하였으므로 지금[조선]의 청하(淸河), 영덕(盈德), 영해(寧海), 평해(平海), 진보(眞寶)가 곧 그 땅이다. 당시 죽령(竹嶺)은 이미 길이 난지 오래였고, 고구려는 이미 단성(丹城) 등 여러 고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죽령으로부터 곧장 경주 북쪽을 쳤음이 분명하다. 백제는 마한이고, 신라는 진한이며, 가락은 변진이다.

사료7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云 炤知王三年 春三月 高句麗與靺鞨 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鏞案 輿地勝覽 彌秩夫 今之興海郡也 狐鳴等七城 雖不可詳 旣取七城 乃進興海則 今淸河盈德寧海平海眞寶之等 卽其地也 當時竹嶺久已開路 句麗已據丹陽等 數邑 其自竹嶺之路 直衝慶州之北 明矣 百濟者馬韓也 新羅者辰韓也 迦羅者弁辰也 三韓會盟以擯句麗 其間聘享遊說之迹 必多奇偉之觀 而文獻無徵 悲夫.

『신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지왕 3년(481년) 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에 쳐들어 왔다. 호명 등 일곱 성을 빼앗았다. 또 미질부〈현재[대한제국] 경북 포항시 흥해읍〉까지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와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았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지승람』에 미질부는 지금(조선)의 흥해군(興海郡)이다. 호명 등 일곱 성은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일곱 성을 빼앗고 이에 흥해로 진군하였다면, 지금(조선)의 청하(淸河), 영덕(盈德), 영해(寧海), 평해(平海), 진보(眞寶) 등이 그 곳일 것이다. 당시 죽령(竹嶺)은 이미 길이 난지 오래되었는데, 고구려가 이미 단양(丹陽) 등 여러 읍을 근거지로 하여 죽령의 길로 바로 경주의 북쪽을 공격하였음이 분명하다. 백제는 마한이고, 신라는 진한이며, 가락은 변진이다. 삼한이 회맹하여 고구려를 물리쳤으니, 그 동안 빙향(聘享; 사신이 오고가면서 서로 대접함)과 유세(遊說; 자기 주장을 펼치며 상대를 설득함)의 흔적과, 기이하고 괴상한 광경이 반드시 많았을 것이지만, 문헌이 증명하지 못하니 슬프구나."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辛酉 新羅 炤智王 二年 高句麗 長壽王 六十八年 百濟 東城王 二年 齊 高帝 建元 三年〉 春三月 高句麗與靺鞨 入新羅北

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今興海〉 羅軍與百濟駕洛援兵 分道擊之 麗鞨兵退 追擊之 破於泥河西 斬首千餘級.

〈신유 신라 소지왕 2년, 고구려 장수왕 68년, 백제 동성왕 2년, 제 고제 건원 3년(481년)〉 봄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호명 등 일곱 성을 빼앗았다. 또 미질부〈지금[대한제국]의 흥해〉로 진군하였다. 신라군이 백제 및 가락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방어하니,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가 퇴각하였다. 추격하여 이하의 서쪽에서 깨트리고 목 천여 급을 베었다.

487년 키노오히하노스쿠네가 임나에 머물면서 고구려와 교통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5 현종기 3년(487) 시세 | **『日本書紀』** 卷十五 顯宗紀 三年 是歲

是歲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將西王三韓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距守東道 斷運糧津令軍飢困 百濟王大怒遣領軍古爾解 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百濟国殺左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이 해에 키노오히하노스쿠네[紀生磐宿禰]는 임나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려에 교통하고, 서쪽에서 삼한의 왕이 되려고 하여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 신성(神聖)이라 칭하였다. 그는 임나의 좌로나기타갑배[佐魯那奇他甲背] 등이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적막이해(適莫爾解)를 이림(爾林)[이림은 고려의 땅이다]에서 죽였으며, 대산성(帶山城)을 쌓고 동쪽 길을 막아 지켜서 양곡을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군(軍)을 굶어 지치게 하였다. 백제왕은 크게 노하여 영군(領軍) 고이해(古爾解)와 내두(內頭) 막고해(莫古解) 등을 파견하여 무리를 이끌고 대산(帶山)에 모여 공격하였다. 이에 오히하노스쿠네[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받아 쳤는데, 담기가 더욱 왕성해져서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하고, 한사람이 백사람을 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사가 다하고 힘이 지쳐서 일이 성취되지 못함을 알고,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그리하여 백제국은 좌로나기타갑배[佐魯那奇他甲背] 등 300여 명을 죽였다.

492년 가락국 겸지왕 즉위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一

第九鉗知王〈父銍知王 母邦媛 壬申立 理二十九年〉.

제 9[대] 겸지왕〈아버지는 질지왕이고 어머니는 방원이다. 임신(492년)에 즉위하여 29년을 다스렸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6 | **『三國史節要』** 卷六

〈壬申 齊 永明 十年 新羅 炤智王 十四年 高句麗 文咨王 元年 百濟 東城王 十四年〉 駕洛國王銍知薨 子鉗知立.

〈임신 제 영명 10년, 신라 소지왕 14년, 고구려 문자왕 원년, 백제 동성왕 14년〉 가락국왕 질지가 죽고 아들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3 **『동국통감』 권지5 삼국기 신라 고구려 백제 | 『東國通鑑』 卷之五 三國紀 新羅 高句麗 百濟**

〈壬申 齊 永明 十年 新羅 炤智王 十四年 高句麗 文咨王 二年 百濟 東城王 十四年〉 駕洛國王銍知卒 子鉗知立.

〈임신 제 영명 10년, 신라 소지왕 14년, 고구려 문자왕 2년, 백제 동성왕 14년〉 가락국왕 질지가 죽고 아들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子鉗知立.

아들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5 **『역대기년』 권 하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 駕洛國**

甘知王〈銍知子 壬申立 梁 武帝 普通 辛丑卒〉

감지왕〈질지의 아들이다. 임신년에 왕위에 올랐다. 양의 무제 보통 신축년에 죽었다〉

사료6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駕洛**

銍智卒 鉗知立.

질지가 죽고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7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南齊 永明 十年 銍知卒 子鉗知立.

남제 영명 10년(492년)에 질지가 죽었다. 아들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사료8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壬申 新羅 炤智王 十三年 高句麗 文咨王 元年 百濟 東城王 十三年 齊 武帝 永明 十年 〉 夏六月 駕洛國王銍知殂 子鉗知立.

〈임신 신라 소지왕 13년, 고구려 문자왕 원년, 백제 동성왕 13년, 제 무제 영명 10년(492년)〉 여름 6월에 가락국왕 질지가 죽고 아들 겸지가 왕위에 올랐다.

494년 대국 셋, 소국 하나

사료1 **『동사강목』 권3 상 삼국 | 『東史綱目』 卷三 上 三國**

〈齊 明帝 建武 元年 魏 孝文帝 太和 十八年〉 甲戌 〈新羅 炤智王 十六年 高句麗 文咨王 三年 百濟 東城王 十六年 ○駕洛 鉗知王 三年 ○大國三 小國一 凡四國〉

〈제 명제 건무 원년(494년), 위 효문제 태화 18년〉 갑술〈신라 소지왕 16년, 고구려 문자왕 3년, 백제 동성왕 16년 ○가락 겸지왕 3년 ○대국 셋, 소국 하나로 모두 4국이었다〉

496년 가야가 신라에 흰 꿩을 보내다

사료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18년 | **『三國史記』** 卷三 新羅本紀三 炤知麻立干十八年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봄 2월에 가야국이 흰 꿩(白雉)을 보내왔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 제6 | **『三國史節要』** 卷 第六

〈丙子 齊 建武 三年 新羅 炤智王 十八年 高句麗 文咨王 五年 百濟 東城王 十八年〉 春二月 加耶國送白雉于新羅 尾長五尺.

〈병자 제 건무 3년, 신라 소지왕 18년, 고구려 문자왕 5년, 백제 동성왕 18년〉 봄 2월에 가야국에서 흰 꿩을 신라에 보냈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사료3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十八年春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소지왕] 18년(496년) 봄에 가야국이 흰 꿩(白雉)을 보내왔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사료4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十八年春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소지왕] 18년(496년)에 가야국이 흰 꿩(白雉)을 보내왔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사료5 **『증보문헌비고』** 권12 상위고12 물이4 금이 | **『增補文獻備考』** 卷十二 象緯考十二 物異四 禽異

[炤智王] 十八年 二月 伽倻國送白雉 尾長五尺.

[소지왕] 18년(496년) 2월에 가야국이 흰 꿩(白雉)을 보내왔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사료6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炤智王 十八年 加耶國獻白雉 尾長五尺.

소지왕 18년(496년)에 가야국이 꼬리 길이가 다섯 자 되는 흰 꿩을 바쳤다.

504년 일본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대가야에 도망해 있는 백성을 조사하고 돌아가다

사료1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甲申 智證王四年 高句麗文咨王十三年 百濟武寧王三年 梁武帝天監三年〉是歲 日本日皇繼體二年遣人至百濟 檢其民逃在大加耶者 以歸.

〈갑신년, 신라 지증왕 4년, 고구려 문자왕 13년, 백제 무령왕 3년, 양 무제(武帝) 천감(天監) 3년(504)년〉 이 해에 일본〈일황(日皇) 계체 2년(504년)〉이 사람을 백제에 보내, 대가야에 도망해 있는 그 백성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505년 거도가 가야국을 빼앗다

사료1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이사부 | **『三國史記』** 卷四十四 列傳 第四 異斯夫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 或云加羅國, 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이사부〈혹은 태종(苔宗)이라고 한다〉의 성은 김씨이고, 나물왕의 4대손이다. 지도로왕(智度路王)때 연해 변경 지역의 지방관이 되었다. 거도(居道)의 임기응변의 꾀를 답습하여 마희(馬戲)로써 가야(加耶)〈혹은 가라(加羅)라고 한다〉를 미혹시켜 빼앗았다. [지도로왕] 13년 임진(512년)에 이르러 [이사부는]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우산국의 병합을 계획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 위엄으로 복종시켜 항복받기는 어렵고 계략으로써 복속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에 나무로 만든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랐다. 거짓으로 고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6 을유 | **『三國史節要』** 卷六 乙酉

〈乙酉〉〈梁天監四年 新羅智證王六年 高句麗文咨王十四年 百濟武寧王五年〉春二月 新羅王新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金異斯夫爲軍主 異斯夫嘗爲邊官 用居道術 以馬戲 取加耶國 軍主之名始於此.

〈을유〉〈양 천감 4년(505년), 신라 지증왕 6년, 고구려 문자왕 14년, 백제 무령왕 5년〉 봄 2월에 신라왕이 직접 국내의 주(州), 군(郡), 현(縣)을 정하였다.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김이사부(金異斯夫)를 군주로 삼았는데, 이사부는 일찍이 변방의 관리였을 때 거도(居道)의 술책을 사용하여 말놀이[馬戲]로서 가야국을 빼앗았다. 군주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사료3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을유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乙酉

〈乙酉〉〈梁天監四年 新羅智證王六年 高句麗文咨王十四年〉百濟武寧王五年 春二月 新羅王 親定國內州郡縣 置

悉直州 以金異斯夫爲軍主 異斯夫嘗爲邊官 用居道術 以馬戲 取加耶國.

〈을유〉〈양 천감 4년(505년), 신라 지증왕 6년, 고구려 문자왕(文咨王) 14년, 백제 무령왕(武寧王) 5년〉 봄 2월에 신라왕이 직접 국내의 주(州) 군(郡) 현(縣)을 정하였다.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김이사부(金異斯夫)를 군주로 삼았다. 이사부는 일찍이 변방의 관리였을 때 거도의 술책을 사용하여 말놀이[馬戲]로서 가야국을 빼앗았다.

사료4 **『동국역대총목』** 삼국 신라 지증왕 | **『東國歷代總目』** 三國 新羅 智證王

智證王 〈乙酉〉 遣異斯夫 取小伽倻國 〈今固城〉

지증왕 〈을유(505년)〉 이사부(異斯夫)를 보내 소가야국(小伽倻國)〈지금[조선]의 고성이다〉을 빼앗았다.

사료5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下

新羅智證王六年〈梁武帝四年〉 取小伽倻.

신라 지증왕 6년(505년)〈양 무제(武帝) 4년〉에, [신라가] 소가야를 취하였다.

사료6 **『강역고』** 권1 변진고 | **『疆域考』** 卷一 弁辰考

新羅之史 智證王時 取小伽耶〈今固城〉 法興王時 取金官伽耶〈今金海〉 眞興王時 取大伽耶〈今高靈〉 此方是新羅呑滅弁辰之宗跡也 〈竝詳別考〉

신라의 역사에는 지증왕 때 소가야(小伽耶)〈지금[조선] 고성(固城)〉를 차지했고, 법흥왕 때 금관가야(金官伽倻)〈지금[조선] 김해(金海)〉를 차지했고, 진흥왕 때 대가야(大伽耶)〈지금[조선] 고령(高靈)〉를 차지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가 변진을 차지하여 멸망시킨 자취이다. 〈모두 「별고(別考)」에 상세하다〉

사료7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小加耶者 卽弁辰古資國今之固城縣也 新羅智證王滅之 東史略云 智證王六年〈梁武帝天監四年〉 遣異斯夫 取小加耶國.

소가야(小加耶)는 곧 변진의 고자국(古資國)이니 지금[조선]의 고성현(固城縣)이다. 신라 지증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東史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증왕 6년(505년)〈양 무제 천감 4년〉에 이사부를 보내어 소가야국을 빼앗았다."

사료8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新羅史異斯夫傳云 智證王時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 取之. 〈馬戲所以滅于尸山國. 詳見居道傳〉 鏞案 于山國之來降在智證王十一年 則小加耶之伐取 當在其後. 東史略六年之說 誤矣.

『신라사』 이사부전(異斯夫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증왕 때에 연변관(沿邊官)이 되어 거도의 계략을 이어받아 말놀이[馬戲]로서 가야〈가라라고도 한다〉국을 속이고, 빼앗았다."〈말놀이는 우시산국(于尸山國)을 멸망시킬 때 이용했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거도전(居道傳)」에 보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해 온 것이 지증왕 11년(510년)이었으니 소가야를 쳐서 빼앗은 것은 당연히 그 뒤에 있어야 한다. 『동사략』의 6년 설은 잘못되었다.

사료9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小伽耶者 卽弁辰古資國 今之古城縣也 新羅智證王滅之 東史略云 智證王六年 遣異斯夫 取小伽耶國.

소가야(小加耶)는 곧 변진의 고자국(古資國)이니 지금[조선]의 고성현(固城縣)이다. 신라 지증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東史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증왕 6년(505년)에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 소가야국을 빼앗았다."

사료10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乙酉 新羅智證王五年 高句麗文咨王十四年 百濟武寧王四年 梁武帝天監四年〉 春二月 新羅王欲收復高句麗侵地親定國內州郡 置悉直州 以金異斯夫爲軍主 此軍主爲外官之始也 異斯夫嘗爲邊官 用居道術 以馬戲 誤小加耶國取之.

〈을유 신라 지증왕 5년, 고구려 문자왕 14년, 백제 무령왕 4년, 양(梁) 무제 천감 4년(505년)〉 봄 2월에 신라왕이 고구려에게 빼앗긴 땅을 수복하려고, 국내 주군(州郡)을 친히 정하였다. 실직주(悉直州)를 두고 김이사부(金異斯夫)를 군주(軍主)로 삼았다. 이 군주가 외관(外官)의 시작이었다. 이사부는 일찍이 변방의 관리[邊官]였는데, 거도(居道)의 술수를 이용해서 말놀이로써 소가야를 희롱하고, [소가야를] 빼앗았다.

509년 백제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3년 2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三年 二月

三年春二月 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 久羅麻致支彌 從日本來 未詳也 括出在任那日本縣邑 百濟百姓 浮逃絶貫三四世者 並遷百濟附貫也

3년(509년) 봄 2월 백제에 사신을 보냈다. 『백제본기』에 구라마치지미(久羅麻致支彌)가 일본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으나 자세하지 않다. 임나의 일본 현읍(縣邑)에 있는 백제의 백성으로 도망하여 호적에서 빠진 지 3·4대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백제로 옮기고 호적에 넣었다.

512년 4월 백제에 말 40필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6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六年 四月

六年 夏四月辛酉朔丙寅 遣穗積臣押山 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匹

6년(512년) 여름 4월 신유 초하루 병인에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穗積臣押山]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내어 쓰쿠시노쿠니의 말 40필을 주었다.

512년 12월 임나4현을 백제가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6년 12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六年 十二月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

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迺以物部大連麤鹿火 宛宣勅使 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 · 百濟 · 新羅 · 任那等 授記胎中譽田天皇 故大后息長足姬尊 與大臣武內宿禰 每國初置官家 爲海表之蕃屛 其來尙矣 抑有由焉 縱削賜他 違本區域 綿世之刺 詎離於口 大連報曰 敎示合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쳤다.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의 상치리·하다리·사타·모루의 4현을 요구했다. 치리국수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穗積臣押山]가 "이 4현은 백제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는) 아침 저녁으로 통하기 쉽고 (어느 나라의) 닭과 개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니 지금 백제에게 주어 합쳐서 같은 나라로 만들면 굳게 지키는 계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주어서 나라를 합치더라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태로울 것인데, 하물며 다른 곳이 된다면 몇 년이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 아뢰었다. 오호토모노오후무라지가나무라[大伴大連金村]가 이 말을 다 듣고 같은 계책을 아뢰었다. 이에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아라카히[物部大連 麤鹿火]를 칙을 선포하는 사신으로 삼았다.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가나니하[難沽]의 객사[館]을 향해 출발하여 백제객에게 칙을 선포하고자 하였다. 그의 처가 진실로 간하기를 "스미노에노오호카미[主吉大神]가 처음에 바다 밖의 금은의 나라 고려·백제·신라·임나 등을 태중(胎中)의 호무다노스메라미코토[譽田天皇]에게 주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후(大后) 오키나가 다라시 히메노미토코(息長足姬尊)과 오호오미[大臣] 다케시우치노스쿠네[武內宿禰]가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가를 두어 바다 밖의 번병으로 삼았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또한 까닭이 있습니다. 만약 떼어서 다른 곳에 주면 본래의 구역을 어기게 되니 길이 이어질 비난이 어찌 입에서 떠나겠습니까."라 하였다.

大連報曰 敎示合理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幷制旨 依表賜任那四縣 大兄皇子 前有緣事 不關賜國 晩知宣勅 驚悔欲改 令曰 自胎中之帝 置官家之國 輕隨蕃乞 輒爾賜乎 乃遣日鷹吉士 改宣百濟客 使者答啓 父天皇 圖計便宜 勅賜旣畢 子皇子 豈違帝勅 妄改而令 必是虛也 縱是實者 持杖大頭打 孰與持杖小頭打痛乎 遂罷 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 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 受百濟之賂矣
오호무라지가 응답하기를 "가르쳐 준 것이 이치에 맞으나 천칙을 거스를까 두렵다."라 하였다. 그 처가 간절하게 "병이라고 핑계대고 선포하지 마십시오."라 하자 오호무라지가 이를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사신을 바꾸어 칙을 선포하고 내리는 물건과 제지(制旨)를 붙여서 표에 따라 임나의 4현을 주었다. 오호에노미코(大兄皇子)가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라를 내려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칙을 선포한 것을 알고 놀라서 뉘우치며 고치고자 하였다. 영을 내려 "태중(胎中)의 천황 때부터 관가를 두었던 나라를 경솔하게 번국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줄 수 있느냐."라 하였다. 이에 히타카노키시(日鷹吉士)를 보내어 백제객(百濟客)에게 칙을 바꾸어 선포했다. 사자가 답하여 아뢰기를 "아버지 천황이 편의를 도모하여 칙으로써 주는 것을 이미 마쳤습니다. 아들인 황자가 어찌 천황의 칙을 어기고 함부로 고쳐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는 가짜일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진짜일지라도 큰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과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아프겠습니까"라 하고 드디어 파기했다. 이 때 혹 떠도는 말로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와 다리노쿠니노미코토모치[哆唎國守]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가 백제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513년 6월 백제가 기문의 반환을 요구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7년 6월 | 『日本書紀』卷十七 繼體 七年 六月

七年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即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秦云 伴跛国略奪臣国己汶之地 伏願天恩判還本屬

7년(513년) 여름 6월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장군과 주리즉차(州利即爾)장군을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穗積臣押山]〈『백제본기』에는 위의사이마기미(委意斯移麻岐彌)라 하였다〉에 딸려 보내어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또 따로 아뢰기를 "반파국(伴跛國)이 저희 나라 기문(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하늘 같은 은혜로 판단하시어 본래 속했던 곳으로 되돌려 주게 해주십시오."라 하였다.

513년 11월 백제가 기문과 대사를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7년 11월 | 『日本書紀』卷十七 繼體 七年 十一月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 · 滞沙 賜百濟国 是月 伴跛国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겨울 11월 신해 초하루 을묘 조정에서 백제의 저미문귀장군과 사라(斯羅)의 문득지(汶得至), 안라의 신이해(辛已奚), 분파위좌(賁巴委佐), 반파의 기전해(既殿奚)와 죽문지(竹汶至) 등을 불러놓고 은칙을 선포하여 기문과 대사(滞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 반파국이 즙지(戢支)를 보내어 진기한 보물을 바치고 기문의 땅을 요구했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

514년 반파가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아 일본에 대비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8년 3월 | 『日本書紀』卷十七 繼體 八年 三月

三月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 · 麻須比 而絙麻且奚 · 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驅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3월 반파가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와 이어서 봉수와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했다. 또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와 추봉(推封)에 걸치게 했다.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촌읍을 노략질하였으니 흉악한 세력이 가해진 곳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었다. 포학하고 사치하였으며 괴롭혀 해를 끼치고 침략하여 죽인 것이 매우 많으므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료2 『기언』 권33 외편 동사2 가락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駕洛

新羅法興王元年 仇衡降新羅 王待以客禮 以其國爲金官郡 封之食邑.

신라 법흥왕 원년 구형(仇衡)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의]왕이 손님을 맞이하는 예로 대접하고 그 나라를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아 식읍(食邑)으로 봉해 주었다.

514년 지증왕이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다

사료1 『대동지지』 권10 경상도 함안 | 『大東地志』 卷十 慶尙道 咸安

新羅智證王十五年取之 置小京於阿尸村. 徙六部及南地人戶寔之.

신라 지증왕 15년(514년)에 빼앗고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두었다. 〈6부와 남쪽 지방 사람들을 옮겨 그 곳을 채웠다〉

515년 2월 모노노베노무라지가 대사강으로 나아가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9년 2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九年 二月

九年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强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봄 2월 갑술 초하루 정축에 백제의 사신 문귀장군 등이 물러가기를 청했다. 이에 명을 내려〈모노노베노무라지[物部連]이름은 빠졌다〉을 딸려 보내어 돌아가게 했다.〈『백제본기』에는 물부지지련이라 하였다〉 이 달 사도도(沙都嶋)에 이르러 반파인(伴跛人)이 한을 품고 독을 머금었으며 강성함을 믿고 사납기가 이를 데 없음을 전해 들었다. 모노노베노무라지가 수병 5백 명을 이끌고 곧바로 대사강(帶沙江)으로 나아갔으며 문귀장군은 신라로부터 갔다.

515년 4월 반파가 군사를 일으키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9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九年 四月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 〈汶慕羅嶋名也〉

여름 4월 모노노베노 무라지가 대사강에서 6일 동안 머물렀는데, 반파가 군사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옷을 벗기고 가지고 간 물건들을 빼앗고 막사를 모두 불태우자, 모노노베노무라지 등이 두려워 도망해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문모라(汶慕羅)에 머물렀다.〈문모라는 섬 이름이다〉

516년 5월 백제가 일본사신을 위로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10년 5월 | 『日本書紀』卷十七 繼體 十年 五月

十年夏五月 百濟遣前部木刕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国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庭 慰問慇懃 賞祿優節

10년(516년) 여름 5월 백제가 전부(前部)의 목협부마갑배(木刕不麻甲背)를 보내어 모노노베노무라지 등을 기문(己汶)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이끌어서 나라로 들어왔다. 여러 신하들이 각각 옷과 쇠도끼·면포를 내어 국물(國物)에 더하여 조정에 쌓아놓고 은근하게 위로했으며 상과 록이 매우 많았다.

516년 9월 백제가 기문의 땅에 대해 사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10년 9월 | 『日本書紀』卷十七 繼體 十年 九月

秋九月 百濟遣州利卽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가을 9월 백제가 주리즉차장군을 보냈는데 모노노베노무라지를 따라 와서 기문의 땅을 준 것에 사례하였다. 따로 오경박사 한고안무를 보내어 박사 단양이와 교대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교대시켰다.

521년 구해, 금관국의 왕이 되다

사료1 『삼국사기』 권41 열전 제1 김유신 | 『三國史記』卷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曽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 與新羅同姓也.

김유신(金庾信)은 왕경사람이다. [그의] 12세조 [김]수로(首露)는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김수로는] 후한(後漢) 건무(建武) 18년 임인[유리이사금 19년, 42년]에 구봉(龜峯)에 올라 가락(駕洛)의 9촌을 보고는 마침내 그

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加耶)라고 하였다.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그 자손들이 서로 이어져 9세손 [김]구해(仇亥)에 이르렀는데, 혹 구차휴(仇次休)라고도 하며 [김]유신에게 증조할아버지가 된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金)으로 한다고 하였고 유신비(庾信碑)에 또한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자손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김]수로는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6 신축 | 『三國史節要』 卷六 辛丑**

〈辛丑〉〈梁普通二年 新羅法興王八年 高句麗安臧王三年 百濟武寧王二十一年〉 駕洛國王鉗知薨. 子仇衡立.

〈신축〉〈양(梁) 보통 2년(521년), 신라 법흥왕 8년, 고구려 안장왕 3년, 백제 무령왕 21년〉 가락국왕 겸지(鉗知)가 죽고 아들 구형(仇衡)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3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신축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辛丑**

〈辛丑〉〈梁普通二年 新羅法興王八年 高句麗安臧王三年 百濟武寧王二十一年〉 駕洛國王鉗知薨 子仇衡立.

〈신축〉〈양(梁) 보통 2년(521년), 신라 법흥왕 8년, 고구려 안장왕 3년, 백제 무령왕 21년〉 가락국왕 겸지가 죽고 아들 구형이 왕위에 올랐다.

사료4 **『역대기년』 권 하5 가락국 | 『歷代紀年』 卷 下五 駕洛國**

仇衡王 一元仇亥 甘知子 辛丑立 中大通壬子及子武力 降于新羅 以其國爲金官郡 右駕洛國十王 〈起首露壬寅止仇衡壬子〉 四百九十一年

구형왕 또는 구해(仇亥)라고도 하였다. 감지(甘知)의 아들이다. 신축년(521년)에 왕위에 올랐다. 중대통 임자년(532년)에 아들 무력(武力)과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에서] 그 나라를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았다.

오른쪽의 가락국은 10왕(王)〈수로왕 임인년(42년)부터 구형왕 임자년(532년)까지이다〉 491년이다.

사료5 **『해동역사』 권10 세기10 신라 | 『海東繹史』 卷十 世紀十 新羅**

梁武帝 普通二年〈法興王八年〉 後襲加羅任那諸國滅之 〈通典 謹按新羅法興王時 滅加羅諸國詳見地志.〉

양 무제 보통 2년(521년)〈법흥왕 8년〉 뒤에 가라(加羅), 임나(任那)의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다. 〈『통전(通典)』을 삼가 살펴보면, 신라 법흥왕 때에 가라의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다. 지지(地志)에 상세하게 나온다.〉

사료6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辛丑 新羅法興王七年 高句麗安臧王二年 百濟武寧王二十年 梁武帝普通二年〉 駕洛國王鉗知殂. 子仇衡立.

〈신축 신라 법흥왕 7년, 고구려 안장왕 2년, 백제 무령왕 20년, 양(梁) 무제 보통 2년(521년)〉 가락국왕 겸지(鉗知)가 죽었다. 아들 구형이 왕위에 올랐다.

522년 가야국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다

사료1 **『삼국사기』신라본기 제4 법흥왕 9년 3월 |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九年 三月**

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湌比助夫之妹送之

9년 봄 3월에 가야(加耶)의 국왕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였으므로, 왕이 이찬(伊湌)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를 보냈다.

사료2 **『삼국사절요』권6 임인 | 『三國史節要』卷 六 壬寅**

〈壬寅〉〈梁普通三年 新羅法興王九年 高句麗安臧王四年 百濟武寧王二十二年〉春三月 加耶國王遣使新羅 請婚 王以伊湌比助夫妹 歸之.

〈임인〉〈양(梁) 보통 3년(522년), 신라 법흥왕 9년, 고구려 안장왕 4년, 백제 무령왕 22년〉봄 3월에 가야(加耶) 국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자 왕이 이찬(伊湌)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시집보냈다.

사료3 **『동국통감』권5 삼국기 신라 임인 | 『東國通鑑』卷 五 三國紀 新羅 壬寅**

〈壬寅〉〈梁普通三年 新羅法興王九年 高句麗安臧王四年 百濟武寧王二十二年〉春三月 加耶國王遣使新羅 請婚 王以伊湌比助夫妹 歸之.

〈임인〉〈양(梁) 보통 3년(522년), 신라 법흥왕 9년, 고구려 안장왕 4년, 백제 무령왕 22년〉봄 3월에 가야국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자 왕이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을 시집보냈다.

사료4 **『성호사설』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法興王八年 駕洛國王鉗知卒 明年 伽耶國王遣使新羅 時則梁普通三年也 是時 猶有此兩稱 意者 此云 伽耶卽五伽耶之一 而非駕洛也.

법흥왕 8년(521년) 가락국왕 겸지(鉗知)가 죽고, 다음 해(522년)에 가야국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이 때가 양 보통 3년이었는데, 이 때 여전히 이 두 명칭이 있었다. 생각하면 이것은 즉 가야(伽耶)는 5가야의 하나이지 가락(駕洛)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 듯하다.

사료5 **『동문광고』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第一冊 駕洛考**

梁普通二年 鉗知卒 子仇衡立 三年 伽耶王請婚於新羅 羅人以伊飡助夫之妹歸之〈梁中大通四年〉駕洛王仇衡降于新羅 新羅法興王授官上等 以其國爲食邑 曰金官郡.

양 보통[普通] 2년(521년)에 겸지가 죽었다. 아들 구형이 왕위에 올랐다. [보통] 3년(522년)에 가야왕이 신라에 청혼하니, 신라 사람들이 이찬 [비]조부(助夫)의 누이를 보냈다.〈양 중대통 4년(532년)〉에 가락왕 구형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 법흥왕이 상등(上等)의 관위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주어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사료6 **『수산집』권11 동사 세가 가야세가 | 『修山集』卷十一 東史 世家 伽倻世家**

遂服屬於 新羅 法興王妻以宗女.

마침내는 신라 법흥왕에게 복속하여 [신라] 종실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사료7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壬寅 新羅法興王八年 高句麗安臧王三年 百濟武寧王二十一年 梁武帝普通三年〉 春三月 駕洛國或曰大加耶王 遣使新羅請婚 羅王 以伊飡比助夫妹 歸之 安崔致遠釋順應傳云 大加耶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丁氏引此 以證比助夫事 然其事未免牽強 尤其可疑者 大加耶傳世十六 而距此不過四十年 豈有四十年之間 更歷六七世者哉 十世句有脫誤則已否則與比助夫事 無涉耳.

〈임인 신라 법흥왕 8년, 고구려 안장왕 3년, 백제 무령왕 21년, 양 무제 보통 3년(522년)〉 봄 3월에 가락국〈혹은 대가야(大伽耶)라고도 한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청혼하였다. 신라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살펴보건대,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바로 정견모주[正見]의 10세손이다. 아비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청혼하여 이찬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이해서 태자를 낳았다." 정씨(丁氏)는 이것을 끌어다가 비조부의 일로 고증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억지로 끌어다가 붙인 것에 불과하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대가야는 16대[世]까지 전해졌는데 [16대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40년에 불과하니, 어찌 40년 사이에 다시 6~7세대를 지날 수 있겠는가? 10세라는 문구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만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비조부의 일과는 관계가 없을 뿐이다.

사료8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法興王九年 加耶國王 遣使請婚 王以伊湌比助夫之妹送之.

법흥왕 9년(522년)에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청혼하였다. 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523년 백제와 주변 소국들

사료1 **『양직공도』** 백제국사 도경 | **『梁職貢圖』** 百濟國使 圖經

百濟舊來夷 馬韓之屬 晉末駒驪旣略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晉平縣 自晋已來常修蕃貢, 義熙中, 其王餘腆, 宋元嘉中其王餘毗, 齊永明中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 除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普通二年, 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所治城曰固麻, 謂邑檐魯 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 叛波, 卓, 多羅, 前羅, 新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等附之. 言語衣服略同高麗, 行不張拱拜不申足, 以帽爲冠, 襦曰複衫, 袴曰褌.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

백제는 옛 [동]이(夷)로서 마한에 속한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침략하여 차지하자, 낙랑 역시 요서 진평현을 차지하였다. 진나라 이래로 항시 제후국으로 공물을 바쳤다. 의희 연간(405~418년)에 그 왕 여전(餘腆)이, 송 원가 연간(424~453년)에는 그 왕 여비(餘毗), 제 영명 연간(483~493년)에 그 왕 여태(餘太)가 모두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 양 나라 초에 여태가 정동장군에 제수되었다. [백제는] 얼마 뒤에 고구려에게 격파 당하였다. 보통 2년(521년)에 그 왕 여융(餘隆)이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자주 고구려를 격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백제는 도성을 고마 라고 하며, 읍을 담로라 하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22담로가 있는데, [왕의] 자제와 종족들을 [담로]로 삼았다. 주변의 소국으로는 반파, 탁, 다라, 전라, 신라,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침라 등이 있었는데, 백제에 부속하였다. 언어와 의복은 거의 고려[고구려]와 같았다. 걸을 때 두 팔을 벌리지 않고, 절할 때 다리를 펴지 않는다. 모자를 관이라 부르고, 짧은 속옷을 복진, 고를 곤이라 불렀다. 그 말에 중국의 말이 뒤섞여 있는데, 역시 진한의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24년 법흥왕이 남쪽 변방을 순행하니 가야국왕이 오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법흥왕 11년 9월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十一年 九月

十一年 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11년 가을 9월에 왕이 남쪽 변방의 새로 넓힌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이때 가야(加耶)의 국왕이 찾아왔으므로 만났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6 갑진 | 『三國史節要』 卷六 甲辰

〈甲辰〉〈梁普通五年 新羅法興王十一年 高句麗安臧王六年 百濟聖王二年〉 秋九月 新羅王巡南境. 加耶國王來會.

〈갑진〉〈양 보통 5년, 신라 법흥왕 11년(524년), 고구려 안장왕 6년, 백제 성왕 2년〉 가을 9월에 신라왕이 남쪽 변경을 순행하는데 가야 국왕이 찾아왔으므로 만났다.

사료3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갑진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甲辰

〈甲辰〉〈梁普通五年 新羅法興王十一年 高句麗安臧王六年 百濟聖王二年〉 秋九月 新羅王巡南境 加耶國王來會.

〈갑진〉〈양 보통 5년, 신라 법흥왕 11년(524년), 고구려 안장왕 6년, 백제 성왕 2년〉 가을 9월에 신라왕이 남쪽 변경을 순행하였는데 가야국왕이 찾아왔으므로 만났다.

사료4 『표제음주동국사략』 권3 신라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三 新羅

法興王十一年 王巡南境 加耶國王來會.

법흥왕 11년(524년) 왕이 남쪽 변경을 순행하였는데 가야국왕(加耶國王)이 찾아와서 만났다.

사료5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法興王十一年〈梁武帝普通五年〉 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법흥왕 11년(524년)〈양 무제 보통 5년〉 가을 9월에 왕이 남쪽 국경을 순행하였는데, 가야국왕이 찾아왔으므로 만났다.

사료6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甲辰 新羅法興王十年 高句麗安臧王五年 百濟聖王元年 梁武帝普通五年〉 秋九月 新羅王巡南境. 駕洛國王來會.

〈갑진 신라 법흥왕 10년, 고구려 안장왕 5년, 백제 성왕 원년, 양 무제 보통 5년(524년)〉 가을 9월에 신라왕이 남쪽 국경을 순행하였다. 가야국왕이 찾아왔으므로 만났다.

사료7 『증보문헌비고』 권180 교빙고10 역대각국교빙 | 『增補文獻備考』 卷百八十 交聘考十 歷代各國交聘

十一年 王南巡 加耶國王來會.

[법흥왕] 11년(524년)에 왕이 남쪽[국경]을 순행하였다. 가야국왕이 왔으므로 만났다.

526년 신라가 대가야를 침략하다

사료1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丙午 新羅法興王十二年 高句麗安臧王七年 百濟聖王三年 梁武帝普通七年〉 先時 新羅侵取大加耶地 是歲 〈日本日皇繼體二十一年〉 遣近江毛野臣 將兵六萬 赴大加耶 責羅 還其地.

〈병오에 신라 법흥왕 12년, 고구려 안장왕 7년, 백제 성왕 3년, 양 무제 보통 7년(526년)〉 이에 앞서, 신라가 대가야로 쳐들어가 그 땅을 빼앗았다. 이 해에, 일본〈일황(日皇) 계체(繼體) 21년(526년)〉이 아후미노게나노[近江毛野]를 파견하여 장병 6만 명으로 대가야로 가게 하여, 땅을 되돌려주도록 신라를 꾸짖었다.

527년 아후미노게나노오미가 신라에 멸망한 남가라, 탁기탄을 다시 세우려 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1년 6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一年 六月

廿一年夏六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 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豐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 · 百濟 · 新羅 · 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亂語揚言曰 今爲使者 昔爲吾伴 摩肩觸肘 共器同食 安得率爾爲使 俾余自伏儞前 遂戰而不受 驕而自矜 是以 毛野臣 乃見防遏 中途淹滯 天皇詔大伴大連金村 · 物部大連麤鹿火 · 許勢大臣男人等曰 筑紫磐井反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麤鹿火右 天皇曰 可

21년(527년) 여름 6월 임진 초하루 갑오 아후미노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가 군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탁기탄을 다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 때 쓰쿠시노쿠니노미야쓰코[筑紫國造] 이하이[磐井]가 몰래 반역을 도모하였는데 꾸물거리다가 해를 넘겼다. 일을 이루기 어려울까 염려하며 늘 틈을 엿보았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이와이의 거소에 뇌물을 보내어 게나노오미[毛野臣]의 군대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하이가 히노쿠니[火國]와 도요쿠니[豐國] 두 나라에 세력을 뻗쳐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 밖으로는 바닷길을 끊어 고려·백제·신라·임나 등의 나라에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배를 꾀어서 이르게 하고, 안으로는 임나에 파견되는 게나노오미의 군대를 막고 무례하게 말하기를, "지금 사신이 된 사람은 전에 나의 동료로서 어깨를 맞대고 팔꿈치를 부딪치며 같은 그릇에 함께 밥 먹던 사람이다. 어찌 별안간 사신이 되어 나로 하여금 자기 앞에 스스로 엎드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드디어 싸우고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교만하게 스스로 뽐내었다. 이 때문에 게나노오미는 길이 막혀서 중도에서 지체했다. 천황은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가나무라[大伴大連金村]와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아라카히[物部大連麤鹿火]·고세노오호노미오히토[許勢大臣男人] 등에게 "쓰쿠시[筑紫]의 이하이[磐井]가 반란을 일으켜 서쪽 오랑캐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누가 장수가 될 만한가."라고 조를 내렸다.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 등이 모두 "정직하고 어질고 용감하며 병사에 능통한 것은 지금 아라카히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라 아뢰었다. 천황이 "좋다."라고 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繼體天皇二十一年〈新羅法興王十三年〉 夏 遣近江毛野 專兵六萬 赴任那 復新羅侵地.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체 천황(繼體天皇) 21년(527년)〈신라 법흥왕 13년〉 여름에 아후미노 게나노[近江毛野]를 보내어 병사 6만을 맡게 하여 임나로 가서 다시 신라가 침범한 땅에 쳐들어갔다."

529년 3월 백제가 다사진을 요구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3년 3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三年 三月

廿三年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国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玆 濕所齎 全壞無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23년(529년) 봄 3월 백제왕이 아루시타리노코니노미코토모치[下哆唎国守] 호즈미노오시야마노오미[穗積押山臣]에게 이르기를 "무릇 조공하는 사자는 늘 섬 구비〈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해안을 말한다. 속칭 미사키[美佐祁]라고 한다〉를 피하느라 매번 풍파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고 가는 물건이 젖어서 모두 상하여 보기 흉합니다. 가라의 다사진(多沙津)을 신들이 조공하는 나루길로 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오시야마노 오미가 듣고 아뢰었다.

529년 3월 가라왕이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3년 3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三年 三月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国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餘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加羅已富利知伽〈未詳〉 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 · 古跛 · 布那牟羅 三城 亦拔北境五城.

이 달 모노노베노이세노무라지치치네[物部伊勢連父根]와 기시노오키나[吉士老] 등을 보내어 (다사)진을 백제왕에게 내려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르기를 "이 진은 관가를 둔 이래로 신의 조공하는 나루터였습니다. 어찌 갑자기 바꾸어서 이웃나라에 줄 수 있으며 처음에 봉해 주었던 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라 하였다. 칙사 치치네 등은 이 때문에 바로 줄 수 없어서 큰 섬으로 되돌아 왔다가 따로 녹사를 보내어 결국 부여[백제]에게 내려 주었다. 그러자 가라가 신라와 한 편이 되어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은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아 드디어 자식을 두었다. 신라가 처음에 왕녀를 보낼 때에 100인을 함께 보내어 왕녀의 종자로 삼았다. 받아서 여러 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 의관을 착용하게 했다. 아리시토(阿利斯等)가 복장을 바꾼 것에 화를 내며 사신을 보내어 되돌아가게 했다. 신라가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을 바꾸어 왕녀를 되돌아오도록 하려고 "전에는 너희들

의 요청을 받아 우리가 문득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와 같으니 왕녀를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가라의 기부리지가(己富利知伽)〈자세하지 않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이 있으니 버리고 어찌 가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 [신라는] 마침내 길목의 도가·고파·포나모라의 3성을 쳐부수고 또 북쪽 경계의 5성을 쳐부수었다.

529년 3월 안라에서 고당회의가 개최되다

사료1 **『일본서기』** 계체 23년 3월 | **『日本書紀』** 繼體 二十三年 三月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㖨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 · 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国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国主隨後昇階 国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이 달 아후미노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를 안라(安羅)에 사신으로 보내어 명령을 내려 신라에게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세우도록 권하게 하였다. 백제는 장군군(將軍君) 윤귀(尹貴)와 마나갑배(麻那甲背)·마노(麻鹵) 등을 보내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받게 했다. 신라는 번국의 관가를 없앤 것이 두려워서 대인을 보내지 않고 부지나마례(夫智奈麻禮)와 해나마례(奚奈麻禮) 등을 보내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게 했다. 이에 안라는 새로이 높은 (堂)을 세워서 칙사를 오르게 하고 국주는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국내의 대인으로서 당(堂)에 올랐던 사람은 한둘 정도였다. 백제의 사신 장군 군 등은 당 아래에 있었는데 몇 달간 여러 번 당 위에 오르고자 하였다. 장군 군 등은 뜰에 있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529년 4월 신라의 침략에 가야가 구원을 요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3년 4월 | **『日本書紀』** 巻十七 繼體 二十三年 四月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內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 奏天皇 救助臣国 大伴大連 依乞奏聞.

여름 4월 임오 초하루 무자에 임나왕 기능말다한기(己能末多干岐)가 와서 조회하였다. 〈기능말다(己能末多)란 자는 아마도 아리시토(阿利斯等)이다〉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가나무라[大伴大連金村]에게 아뢰기를 "바다 밖의 여러 번국들은 호무타노미카도[胎中天皇]가 내관가(內官家)를 두었을 때부터 본토를 저버리지 않았으므로 그 땅을 봉하였는데 그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는 원래 내려주었던 경계를 어기고 자주 경계를 넘어 침략해 오니 청컨대 천황께 아뢰어 신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는 요청한대로 아뢰었다.

529년 4월 신라가 4개 촌을 공략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3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三年 四月

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 并詔在任那近江毛野臣 推問所秦 和解相疑 於是 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 召集新羅百濟二國之王 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 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 百濟遣恩率彌騰利 赴集毛野臣所 而二王不自來參 毛野臣大怒 責問二國使云 以小事大 〈天之道也一本云 大木端者以大木續之 小木端者以小木續之〉 何故二國之王 不躬來集受天皇勅 輕遣使乎 今縱汝王 自來聞勅 吾不肯勅 必追逐退 久遲布禮 · 恩率彌縢利 心懷怖畏各歸召王 由是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 〈新羅 以大臣爲上臣 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 來請聽勅 毛野臣 遙見兵仗圍繞 衆數千人 自熊川 入任那己叱己利城伊叱夫禮智干岐 次于多多羅原 不敬歸待三月 頻請聞勅 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 於聚落乞食 相過毛野臣傔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 待乞者過 捲手遙擊 乞者見云 謹待三月 佇聞勅旨 尙不肯宣 惱聽勅使 乃知欺誑 誅戮上臣矣 乃以所見 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 · 背伐 · 安多 · 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 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

이 달 사신을 보내어 기능말다한기(己能末多干岐)를 보냈다. 아울러 임나에 있는 아후미노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에게 명령하여 "아뢴 바를 알아보고 서로 의심하는 것을 화해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게나노오미는 웅천(熊川)에 머물면서〈어떤 책에는 임나의 구사모라에 머물렀다고 한다〉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신라왕 좌리지(佐利遲)는 구지포례(久遲布禮)를 보내었고〈어떤 책에는 구례이사지우나사마리(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라 하였다〉 백제는 은솔 미등리(彌騰利)를 보내어 게나노오미가 있는 곳에 가서 모이게 하고 두 왕은 참석하러 오지 않았다. 게나노오미가 매우 화를 내며 두 나라 사신을 꾸짖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어떤 책에는 큰 나무의 끝은 큰 나무로 잇고 작은 나무의 끝은 작은 나무로 잇는다고 하였다〉 무엇 때문에 두 나라의 왕이 몸소 와서 천황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가벼이 사신을 보내는가. 이제 비록 너희 왕이 스스로 와서 명령을 받겠다 하더라도 나는 칙을 선포하지 않고 반드시 쫓아가서 물리칠 것이다."라 하였다. 구지포례와 은솔 미등리가 마음속으로 두려워 각각 돌아가서 왕을 부른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그 상신(上臣) 이질부례지간기(利叱夫禮智干岐)로 바꾸어 보냈는데,〈신라에서는 대신을 상신이라 하는데 어떤 책에는 이질부례지내말이라 하였다〉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칙을 듣기를 청했다. 게나노오미가 멀리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무리가 수천 명인 것을 보고, 웅천으로부터 임나의 기질기리성으로 들어갔다. 이질부례지간기는 다다라원(多多羅原)에 머물며 공경하여 돌아가지 않고 세 달을 기다리며 칙을 들으려고 자주 청했으나 끝내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질부례지가 거느린 사졸들이 마을에서 걸식하고 있었는데 게나노오미의 종자 가후치노 우마카히노오비토미카리[河內馬飼首御狩]와 마주쳤다. 미카리[御狩]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 숨어서 걸식하는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쳤다. 걸식자가 보고 "삼가 세 달을 기다리며 칙지를 듣고자 했으나 아직도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칙을 들으려는 사신을 괴롭히는 것은 곧 속여서 상신을 죽이려 하는 것임을 알겠다."라 하였다. 이에 본 것을 모두 상신에게 아뢰었더니, 상신은 4개의 촌〈금관·배벌·안다·위타가 4개 촌이다. 어떤 책에는 다다라·수나라·화다·비지를 4개 촌이라 하였다〉을 노략질하여 빼앗고 사람과 물건을 다 가지고 본국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다다라 등의 4개 촌을 노략질하게 한 것은 게나노오미의 잘못이다."라 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二十三年 百濟任那訴新羅背約 遣近江毛野 和解諸蕃 毛野綏御失 方召還之.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체 천황] 23년(529년) 백제, 임나가 신라가 맹약을 어겼다고 하소연하였다. 아후미노게나노[近江毛野]를 보내어 제번(諸蕃)을 화해시켰다. 게나노(毛野)가 잘 다스리지 못하자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530년 9월 백제와 신라가 구례모라성을 쌓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4년 9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四年 九月

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 遂於久斯牟羅 起造舍宅 淹留二歲〈一本云三歲者 連去來歲數也〉 懶聽政焉 爰以日本人與任那人 頻以兒息 諍訟難決 元無能判 毛野臣樂置誓湯曰 實者不爛 虛者必爛 是以 投湯爛死者衆 又殺吉備韓子那多利 · 斯布利〈大日本人 娶蕃女所生 爲韓子也〉 恒惱人民 終無和解 於是 天皇聞其行狀 遣人徵入 而不肯來 顧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 奉詣於京而秦曰 臣未成勅旨 還入京鄕 勞往虛歸 慙恧安措 伏願 陛下 待成国命 入朝謝罪 奉使之後 更自謨曰 其調吉士 亦是皇華之使 若先吾取歸 依實秦聞 吾之罪過 必應重矣 乃遣調吉士 率衆守伊斯枳牟羅城 於是 阿利斯等 知其細碎爲事 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 悉知行迹 心生飜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 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 則捉奴須久利 杻械枷鏁 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国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 拔騰利枳牟羅 · 布那牟羅 · 牟雌枳牟羅 · 阿夫羅 · 久知波多枳 五城

가을 9월 임나의 사신이 "게나노오미가 드디어 구사모라에서 집을 짓고 2년〈어떤 책에 3년이라고 한 것은 가고 온 해를 센 것이다〉을 머물며 다스리기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인과 임나인이 자식 때문에 자주 다투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고 처음부터 판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나노오미는 즐겨 서탕(誓湯)을 설치해 놓고 '진실된 사람은 문드러지지 않을 것이고 거짓된 사람은 반드시 문드러질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탕에 던져져 데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기비노가라코나타리[吉備韓子那多利]·시후리[斯布利]〈오호야마토[大日本人]가 이웃나라의 여자[蕃女]를 취하여 낳은 자식을 가라코[韓子]라 한다〉를 죽이고 인민을 괴롭혔으며 끝내 화해시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뢰었다. 이에 천황이 그 행실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 들였으나 오려고 하지 않았다. 도리어 가후치노오모노키노우마카히노오비토[河內母樹馬飼首御狩]로 하여금 서울에 가게 하여 "신은 왕명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서울로 되돌아간다면 힘써 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되니 부끄러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국명을 달성한 후에 조정에 들어가 사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요."라 아뢰었다. 사자를 보낸 후 다시 스스로 꾀하기를 "그 쓰키노키시[調吉士]는 또한 임금[皇華]의 사신이니 만약 나보다 먼저 돌아가서 사실대로 아뢰면 나의 죄과는 반드시 더 무겁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쓰키노키시를 보내어 무리를 거느리고 이사지모라성(伊斯枳牟羅城)을 지키게 했다. 이에 아리사등은 그가 사소한 일만 일삼고 맡은 바 임무에 힘쓰지 않는 것을 알고 조정으로 돌아가라고 자주 권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행적을 모두 알고 배반하려는 마음이 생겼으므로 구례사기모(久禮斯己母)를 보내어 신라에 가서 군대를 청하고 노수구리(奴須久利)를 백제에 보내어 청병했다. 게나노오미가 백제병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배평〈背評은 지명인데 또한 능비기부리(能備己富里)라고도 한다〉에서 맞아 토벌했는데 부상하거나 죽은 자가 반이었다. 백제는 노수구리를 붙잡아 형틀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신라와 함께 성을 에워쌌다. 아리사등을 책망하며 꾸짖기를 "게나노오미를 내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게나노오미는 성에 의지하여 스스로 굳게 지켰으므로 사로잡을 수 없었다. 이에 두 나라는 편리한 곳을 찾아 한 달을 머물다가 성을 쌓고 돌아갔는데 구례모라성이라 한다. 돌아올 때 길목의 등리지모라·포나모라·모자지모라·아부라·구지파다지의 다섯 성을 쳐부수었다.

530년 10월 쓰기노키시의 횡포를 고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4년 10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四年 十月**

調吉士至自任那 奏言 毛野臣爲人傲佷 不閑治體 竟無和解 擾亂加羅 倜儻任意 而思不防患 故遣目頬子 徵召目頬子未詳也

겨울 10월 쓰기노키시[調吉士]가 임나로부터 와서 “게나노오미는 사람됨이 거만하고 거칠며 다스리는 것을 익히지 않아 끝내 화해시키지 않고 가라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거침이 없고 마음대로 하여 환난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라 아뢰었다. 그리하여 메구라코[目頬子]를 보내어 불러 들였다.〈메구라코는 자세하지 않다〉

530년 쓰기노키시가 대마도에서 죽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4년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十四年**

是歲 毛野臣 被召到于對馬 逢疾而死.

이 해 게나노오미는 소환당하여 쓰시마[對馬]에 이르렀는데 병에 걸려 죽었다.

531년 백제가 안라에 이르러 걸탁성을 쌓다

사료1 **『일본서기』 권17 계체 25년 12월 |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 二五年 十二月**

冬十二月丙申朔庚子 葬于藍野陵〈或本云 天皇 廿八年歲次甲寅崩 而此云 廿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乇城 是月 高麗弑其王安 又聞 日本天皇及太子皇子 俱崩薨 由此而言 辛亥之歲 當廿五年矣 後勘校者 知之也〉

겨울 12월 병신 초하루 경자에 [천황을] 아이노노마사자키[藍野陵]에 장사지냈다.〈어떤 책에는 천황이 28년 갑인년에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25년 신해년에 죽었다고 한 것은 『백제본기』를 취하여 쓴 것이다. 거기에 “신해년 3월에 군대가 나아가서 안라에 이르러 걸탁성을 쌓았다. 이 달에 고려는 그 왕 안(安)을 죽였다. 또한 일본의 천황과 태자·황자가 함께 죽었다고 들었다.”라 하였다. 이에 따라 말한다면 신해년은 25년에 해당한다. 뒤에 교감하는 자는 알라〉

532년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법흥왕 19년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十九年

〈十九年〉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19년〉에 금관국(金官國)의 왕인 김구해(金仇亥)가 왕비와 세 명의 아들 즉 큰 아들인 노종(奴宗), 둘째 아들인 무덕(武德), 막내 아들인 무력(武力)을 데리고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예(禮)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인 무력은 벼슬이 각간(角干)에 이르렀다.

사료2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金海小京 古金官國 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 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김해소경은 옛 금관국인데, 한편으로는 가락국(伽落國)이라고도 이르고 한편 가야(伽耶)라고도 한다. 시조 수로왕(首露王)으로부터 10대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양 중대통 4년〉 신라 법흥왕 19년(532년)에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여 그 땅을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았다. 문무왕 20년, 영륭(永隆) 원년(680년)에 소경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김해경(金海京)으로 고쳤다. 지금은 금주이다.

사료3 『삼국유사』 권1 왕력 |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十仇衝王 〈鉗知子 母□女 辛丑立 理四十三年 中大通四年壬子 納土投羅〉

제10대 구충왕(仇衝王)〈겸지(鉗知)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녀이다. 신축년에 즉위하여 12년간 다스렸다. 중대통(中大通) 4년 임자년에 땅을 바치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사료4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0권 경상도 진주목 김해도호부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150卷 慶尙道 晉州牧 金海都護府

新羅 法興王旣受仇亥降 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始置金官小京 景德王改爲金海小京

신라 법흥왕이 이미 구해(仇亥)의 항복을 받아 예의에 맞게 대접하고, 그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고, 이름을 금관군(金官郡)으로 하였는데, 문무왕(文武王)이 비로소 금관소경을 설치하고, 경덕왕이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고쳤다.

사료5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 『慶尙道地理志』 晉州道

十世金仇亥王 降于新羅 法興王禮待之 以本國爲食邑 稱金官郡.

10세 김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하자 법흥왕이 예로써 대우하여 본국을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사료6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금주 |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慶尙道 金州

至九代孫仇亥 賚國帑寶物 降于新羅. 自首露以後 居登王·麻品王·居叱彌王·伊尸品王·坐知王·吹希王·銍知王·鉗知王 至仇亥王 亥 三國遺事駕洛國記作衡 有國凡四百九十一年. 新羅法興王 旣受降 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爲金海小京.

9대손인 구해에 이르러 국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으니, 수로왕으로부터 거등왕(居登王), 마품왕

(麻品王), 거질미왕(居叱彌王), 이시품왕(伊尸品王), 좌지왕(坐知王), 취희왕(吹希王), 질지왕(銍知王), 겸지왕(鉗知王) 이후 구해왕〈해(亥)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형(衡)으로 되어 있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있은 지 모두 491년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항복을 받은 뒤 [구해왕을] 객례(客禮)로써 대우하여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다. 경덕왕이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삼았다.

사료7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卷百五十 地理志 慶尚道**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8 **『삼국사절요』권6 임자 | 『三國史節要』卷六 壬子**

〈壬子〉〈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高句麗安原王二年〉百濟聖王十年 駕洛國王金仇亥 與其妃及子武力等 降于新羅 王授位上等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武力仕至角干.

〈임자〉〈양(梁) 중대통 4년(532년), 신라 법흥왕 19년, 고구려 안원왕 2년, 백제 성왕 10년〉 가락국왕 김구해가 왕비 및 아들 무력 등과 함께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 왕이 [김구해에게] 상등의 관위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게 하고는 금관군(金官郡)으로 불렀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까지 이르렀다.

사료9 **『동국통감』권5 삼국기 신라 임자 | 『東國通鑑』卷五 三國紀 新羅 壬子**

〈壬子〉〈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高句麗安原王二年〉百濟聖王十年 冬 駕洛國王金仇衡 降于新羅. 王授位上等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仇衡子武力 仕至角干.

〈임자〉〈양 중대통 4년(532년), 신라 법흥왕 19년, 고구려 안원왕 2년, 백제 성왕 10년〉 겨울 가락국왕 김구형(金仇衡)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왕이 [김구해에게] 상등의 관위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게 하고는 금관군으로 불렀다. 김구형의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까지 이르렀다.

사료10 **『동국사략』권4 임자 | 『東國史略』卷四 壬子**

〈壬子〉法興王十八年〈高安原王元年〉金官國王仇亥來降〈仇亥與其妃及子奴宗武德武力等 賫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其國爲食邑 子武力 仕至角干〉

〈임자〉 법흥왕 18년(532년)〈고구려 안원왕 원년〉금관국왕(金官國王) 구해(仇亥)가 와서 항복하였다.〈구해는 왕비와 아들인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 등과 함께 국가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법흥]왕이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관등을 제수하였으며 그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아들인 무력은 벼슬이 각간(角干)까지 이르렀다〉

사료11 **『동국사략』권1 삼국 | 『東國史略』卷一 三國**

駕洛亡〈自始祖至亡 凡十王 總五百二十年.〉

가락(駕洛)이 멸망하였다.〈시조(始祖)로부터 망할 때까지 모두 10왕 520년이었다〉

사료12 **『신증동국여지승람』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金海都護府**

仇亥降于新羅 法興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구해가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식읍을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사료13 **『표제음주동국사략』 권4 가락국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四 駕洛國**

壬子 降于新羅 王授位上等以其國爲食邑 凡十世 歷四百九十一年 而亡.

임자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왕이 상등의 관위를 주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무릇 10세 491년이 지난 뒤 망하였다.

사료14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법흥왕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法興王**

法興王 駕洛國君仇衡降. 駕洛亡.

법흥왕대에 가락국의 왕 구형(仇衡)이 항복하였다. 가락국이 망하였다.

사료15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新羅法興王十九年 駕洛王金仇衡 降于新羅 時卽梁中大通四年 若駕洛已亡 倭必不云爾 仇衡之後 有繼世者 圭林間元二人 則雖曰降附 而國尙存 至隋文以後 方爲新羅所幷馬韓·伽耶亦同 不然 新羅開國 至隋時 已六百有餘年矣 夫豈馬韓之外 復有慕韓 駕洛之外 復有加羅 伽耶之外 復有任那乎 東史 駕洛亦稱伽耶 固城爲小伽耶 星州爲碧珍伽耶 咸安爲阿那伽耶 咸昌爲古靈伽耶 與駕洛 皆六卵所出矣.

"신라 법흥왕 19년(532년) 가락왕 김구형이 신라에 항복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가 양 중대통 4년이었는데 만약 가락이 이미 망하였다면 왜가 반드시 [봉작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형 이후에 세대를 이은 자로 규림(圭林)과 간원(間元) 두 사람이 있으므로 비록 항복하였다고는 하지만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수 문제[隋文] 이후 바야흐로 신라에 병합되었다. 마한과 가야(伽耶)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라가 개국한 이래 수 때까지 이미 600여 년이 넘었는데, 어찌 마한 이외에 다시 모한(慕韓)이 있으며, 가락(駕洛) 이외에 다시 가라(加羅)가 있으며, 가야(伽耶) 이외에 다시 임나(任那)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서[『東史』]에서는 가락(駕洛)을 가야(伽耶)라고도 부르고, 또 금관국(金官國)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조선]의 김해 땅이 이곳이다. 그 나머지 5가야는 고령의 대가야(大伽耶), 고성의 소가야(小伽耶), 성주의 벽진가야(碧珍伽耶), 함안의 아나가야(阿那伽耶), 함창(咸昌)의 고녕가야(古寧伽耶)였으니, 가락(駕洛)과 함께 모두 여섯 알에서 태어났다.

사료16 **『동국역대총목』 삼국 신라 법흥왕 | 『東國歷代總目』 三國 新羅 法興王**

法興王 〈壬子〉 駕洛國王金仇衡來降 自始祖首露 〈至仇衡 凡十王 總四百九十一年〉

법흥왕 〈임자(532년)〉 가락국왕 김구형이 와서 항복하였다. 〈시조 수로로부터 구형까지 10왕에 모두 491년이다〉

사료17 **『기년아람』 권5 삼국 신라속국 | 『紀年兒覽』 卷五 三國 新羅屬國**

新羅法興王十九年壬子 駕洛王金仇衡 亦作仇亥 來降 置金官郡.

신라 법흥왕 19년(532년) 임자년에, 가락왕 김구형이 와서 항복하였다. 구형은 또한 구해라고도 썼다. [신라가] 금관군을 설치하였다.

사료18 **『여지도서』 경상도 김해 | 『輿地圖書』 慶尙道 金海**

仇亥降于新羅法興王 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구해가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왕이 객례(客禮)로 대우하여 그 나라로써 식읍을 삼고 금관군(金官郡)이라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경으로 삼았다.

사료19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下**

法興王十九年〈梁武帝三十一年〉 金官伽倻國仇亥王降 以其地置金官小京 〈自首露王至仇亥 十世 凡四百九十一年〉

법흥왕 19년(532년)〈양 무제 31년〉에 금관가야국(金官伽倻國)의 구해왕이 항복하였다. 그 땅에 금관소경을 두었다.〈수로왕에서 구해에 이르기까지 10세 491년이다〉

사료20 『강역고』 권1 변진고 | 『疆域考』 卷一 弁辰考

〈梁武帝中大通四年〉 仇亥始降新羅〈又晉文帝天嘉三年異斯夫滅伽耶〉 駕洛者 新羅之耦國也 新羅旣爲辰韓則 駕洛自爲弁辰 無用崎嶇然辨論也 漢史魏志 弁辰與辰韓雜居 羅史麗志 駕洛與新羅雜居 其差北差南 差強差弱 東史所記與華史所載 毫髮不爽情形悉合 駕洛之爲弁辰 無可疑也 韓久菴以首露所起爲弁辰 豈非卓見乎 如云不然 弁辰非可食之物 請一思之.

〈양 무제 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구해가 비로소 신라에 항복하였으니,〈또 진 문제 천가 3년(562년) 이사부(異斯夫)가 가야를 멸망시켰다〉 가락은 신라의 이웃 나라였다. 신라가 이미 진한이 된 것이니, 가락은 저절로 변진이 된 것임은 까다로운 변론이 필요 없다. 『한사(漢史)』와 『위지(魏志)』에는 "변진이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고, 『나사(羅史)』와 『여지(麗志)』에는 "가락이 신라와 더불어 섞여 살았다"고 하였다. [또] 그 조금 남쪽에 있고 조금 북쪽에 있으며,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하다고 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의 기록과 중국 역사책의 기록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고 정황이 모두 합치되니 가락이 변진에서 된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구암(久菴) 한백겸은 수로왕이 일어난 곳이 변진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탁견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진이 먹을 만한 [작은] 물건이 아니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료21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鏞案 迦羅之亡 在梁武帝三十一年. 大加耶之亡 在陳文帝天嘉三年. 此云迦羅舍者 或者六加耶之中有一後亡者歟. 今不可考.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라가 망한 것은 양 무제 31년(532년)이고, 대가야가 망한 것은 진 문제 천가 3년(562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사(迦羅舍)란 것이 혹시 6가야 가운데 유일하게 뒤에 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사료22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 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金庾信傳云首露子孫相承至九世孫. 仇亥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曾祖父〉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 장남 노종(奴宗), 차남 무덕(武德), 삼남 무력(武力)을 데리고 나라의 보물을 갖고서 항복해왔다. 왕이 예로 대접하였다. 상등(上等)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을 하여 각간(角干)에 이르렀다.〈「김유신전」에 이르기를 "수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서 9세손인 구해(仇亥)-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도 부른다-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고 하였다〉

사료23 『가락삼왕사적고』 권5 탄영 왕산사기 | 『駕洛三王事蹟考』 卷五 坦英 王山寺記

〈蕭梁大通八年〉 新羅法興王來攻于駕洛 駕洛仇衡王不忍以土地傷民 遜國于新羅 降爲金官郡都督 後幷與其食邑而舍之 來居于此.

〈소양(蕭梁) 대통 8년〉 신라 법흥왕이 가락을 공격해오자 가락의 구형왕이 차마 토지때문에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신라에 나라를 양보하고 항복하여 금관군의 도독(都督)이 되었다. 뒤에 그 식읍을 아울러 받았으나, 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았다.

사료24 『동사변의』 변진위가락 | 『東史辨疑』 弁辰爲駕洛

至梁武帝大通四年 仇亥始降新羅 駕洛者 新羅之耦國也 辰韓旣爲新羅 則弁辰自爲駕洛 無用辨論也 漢書魏志弁辰與辰韓雜居 羅史麗志 駕洛與新羅雜居 其差北差南 差強差弱 東史所記 與中國史所載 毫髮不爽 弁辰之爲駕洛 無可疑也.

양 무제 [중]대통 4년(532년)에 이르러 구해(仇亥)가 비로소 신라에 항복하니, 가락은 신라의 한 짝[耦]이 되었다. 진한이 이미 신라로 되었다면, 변진이 스스로 가락이 되었음은 변론할 것이 없다. 『한서(漢書)』와 『위지(魏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변진과 진한이 섞여 있었다" 『신라사[羅史]』와 『여지(麗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락과 신라가 섞여 있었다" 그 북과 남의 차이,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사서[『東史』]에 기록한 것과 중국사에 실린 것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 변진이 가락으로 되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사료25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壬子 新羅法興王十八年 高句麗安原王元年 百濟聖王九年〉 梁武帝中太通四年 冬 駕洛國王金仇衡 見新羅日強度難自保 擧國而降. 羅王授位上大等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駕洛自始祖至此 凡十五世而亡 共四百九十一年. 駕洛與辰韓 言語法俗相似 惟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西.

〈임자 신라 법흥왕 18년, 고구려 안원왕 원년, 백제 성왕 9년, 양 무제 중대통 4년(532년)〉 겨울에 가락국왕 김구형(金仇衡)이 신라가 날로 강성해져서 스스로를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여기고는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신라왕이 상대등(上大等)의 관등을 주었다. 또 그 나라를 식읍으로 주고, 금관군(金官郡)이라고 불렀다. 가락은 시조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5세만에 망하였으니 도합 491년이다. 가락과 진한은 언어, 법과 풍속이 서로 비슷하다. 다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다른 점이 있으니, 조왕신(竈王神)을 차려 놓은 것이 모두 [입구] 서쪽에 있었다.

사료26 『증보문헌비고』 권47 제계고8 씨족2 | 『增補文獻備考』 卷四十七 帝系考八 氏族二

〈至首露九世孫仇衡王 國除〉 仇衡王子武力〈新羅角干〉 武力子〈舒玄〉〈匝干〉 舒玄子庾信〈爲新羅統合三韓功臣拜舒發翰 享書院〉

〈수로의 9세손 구형왕에 이르러 나라가 없어졌다〉 구형왕의 아들 무력〈신라의 각간〉 무력의 아들 서현(舒玄)〈잡간(迊干)〉 서현의 아들 유신(庾信)〈신라를 위해 삼한(三韓)을 통합한 공신으로, 서발한(舒發翰)에 임명되었다. 서원(書院)에 배향되다〉

536년 대가야 멸망하다

사료1 『성호사설』 권19 경사문 가락가야 | 『星湖僿說』 卷十九 經史門 駕洛伽耶

至法興王二十三年 命異斯夫 滅大伽耶 而他不復見. 則五國中存者 只大伽耶 而史所稱嘉實 卽其亡國之主也. 且三韓獨漏弁韓 何也. 意者 是時 已滅也. 赫居世十九年 弁韓降于新羅 降卽非滅也. 弁之地方 恐是今晉州等地數邑 而終爲百濟所幷 則至六朝之際 已入於濟 久矣. 此其所以不言也.

법흥왕 23년(536년)에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대가야(大伽耶)를 멸망시켰는데, 다른 [가야국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즉 다섯 나라 중 대가야만 존재하였으므로, 사서에서 가실(嘉實)이라 부른 사람은 바로 그 멸망한 나라의 임금이었다. 또 삼한 중 변한만 빠진 것은 왜일까? 생각건대 이 때는 이미 멸망되었다. 혁거세 19년(기원전 39년) 변한이 신라에 항복하였는데, 항복[降]하였다면 멸망[滅]된 것이 아니다. 변한 지역은 아마도 지금[조

선]의 진주(晉州) 등 여러 고을인데 결국 백제에게 병합되었다. 따라서 육조(六朝) 시대에는 이미 백제에 편입된 지 오래 되었다. 이 때문에 [변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537년 법흥왕이 아시량군을 설치하다

사료1 **『대동지지』** 권10 경상도 함안 | **『大東地志』** 卷十 慶尙道 咸安

法興王二十四年 置阿尸良郡 景德王十六年 改咸安郡 〈領縣二 玄武宜寧〉

법흥왕 24년(537년) 아시량군(阿尸良郡)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년)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 〈영현(領縣)이 둘인데, 현무(玄武)와 의령(宜寧)이다〉

537년 10월 신라가 가야를 침략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8 선화 2년 10월 | **『日本書紀』** 卷十八 宣化 二年 十月

二年冬十月壬辰朔 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彦 以助任那 是時 磐留筑紫 執其国政 以備三韓 狹手彦往鎭任那 加救百濟

2년(537년) 겨울 10월 임진 초하루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침략하였으므로 오호토모노가나무라노오호무라지[大伴金村大連]에게 조서를 내여, 그 아들 이하[磐]와 사데히코[狹手彦]를 보내어 임나를 돕게 했다. 이 때 이하는 츠쿠시[筑紫]에 머물면서 국정을 장악하고 삼한(三韓)에 대비하고 있었다. 사데히코는 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아울러 백제를 구원했다.

사료2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梁武帝 大同三年〉 宣化二年 新羅與任那戰 遣狹手彦鎭之.

〈양 무제 대동 3년〉 선화 2년(537년)에 신라가 임나와 싸우자, 사데히코를 보내서 진정시켰다.

사료3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宣化天皇二年〈法興王建元二年〉 新羅侵任那 遣大伴金村及二子磐狹手彦 援之 狹手彦赴任那府.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화 천황(宣化天皇) 2년(537년)〈법흥왕 건원 2년〉 신라가 임나를 쳐들어갔다. 오호토모노가나무라와 두 아들 이하, 사데히코를 보내어 도와주었다. 사데히코가 임나부로 갔다."

사료4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丁巳 新羅法興王建元二年 高句麗安原王六年 百濟聖王十四年 梁武帝大同三年〉 新羅攻大加耶. 日本〈日皇宣化二年〉遣兵 赴行府 援之.

〈정사년 신라 법흥왕 건원 2년, 고구려 안원왕 6년, 백제 성왕 14년, 양 무제 대동 3년(537년)〉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였다. 일본〈일황(日皇) 선화(宣化) 2년(537년)〉이 군사를 보내 행부(行部)에 다다라서 구원하였다.

538년 신라가 아시량국을 멸망시키다

사료1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함안군은 법흥왕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량국 〈아나가야라고도 한다〉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영현은 둘이다.

사료2 **『삼국사절요』** 권6 무오 | **『三國史節要』** 卷六 戊午

〈戊午〉〈梁大同四年 新羅法興王二十五年 高句麗安原王八年〉 百濟聖王十六年 新羅滅阿尸良國 以其地爲郡.

〈무오(戊午)〉 〈양 대동 4년(538년), 신라 법흥왕 25년, 고구려 안원왕 8년, 백제 성왕 16년〉 신라가 아시량국(阿尸良國)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사료3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무오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戊午

〈戊午〉 〈梁大同四年 新羅法興王二十五年 高句麗安原王八年 百濟聖王十六年〉 新羅滅阿尸良國 以其地爲郡.

〈무오〉 〈양 대동 4년(538년), 신라 법흥왕 25년, 고구려 안원왕 8년, 백제 성왕 16년〉 신라가 아시량국(阿尸良國)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사료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本阿尸良國 〈一云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본래 아시량국〈또는 아나가야라고도 하였다〉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5 **『함주지』** 건치연혁 | **『咸州志』** 建置沿革

本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본래 아시량국이었으며, 일명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하였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6 **『동국여지지』** 권4 하 함안군 | **『東國輿地志』** 卷四 下 咸安郡

古阿尸良國 〈一云阿那伽倻〉 新羅法興王幷其地爲郡.

옛 아시량국이다 〈또는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이 그 땅을 병합하고 군으로 삼았다.

사료7 **『동국역대총목』** 삼국 신라 법흥왕 | **『東國歷代總目』** 三國 新羅 法興王

戊午 伐阿尸良國 今咸安 滅智.

〈무오(538년)〉 아시량국〈지금[조선]의 함안(咸安)이다〉을 쳐서 멸망시켰다.

사료8 **『강계고』 제3 아라가야국 | 『疆界考』 第三 阿羅伽倻國**

新羅法興王 滅阿良國 以其地爲州 景德王改爲咸安郡 輿地志 咸安郡北白沙里 有古國墟 牛谷東西壠上 有古塚高五丈者 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 古老相傳.

신라 법흥왕이 아량국(阿良國)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주(州)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함안군(咸安郡)으로 고쳤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함안군 북쪽의 백사리(白沙里)에 옛 나라 터가 있고, 우곡(牛谷) 동서의 언덕 위에는 옛 무덤이 있어서 높이가 다섯 길이 되는 것들이 40여 개인데, 모두 그 나라 임금들의 무덤이라고 노인들이 서로 전한다.

사료9 **『동사강목』 제3 상1 삼국 | 『東史綱目』 第三 上一 三國**

東魏元象元年[戊午]〈新羅法興王二十五年 高句麗安原王八年〉 百濟聖王十六年 新羅滅阿尸良國今成安郡.

〈동위(東魏) 원상 원년(538년)〉 [무오] 〈신라 법흥왕 25년, 고구려 안원왕 8년, 백제 성왕 16년〉 신라가 아시량국〈지금[조선]의 함안군〉을 멸망시켰다.

사료10 **『여지도서』 경상도 함안 | 『輿地圖書』 慶尙道 咸安**

本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본래 아시량국〈또는 아나가야(阿那伽倻)라고도 하였다〉이었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11 **『기년아람』 권5 삼국 아나가야국 | 『紀年兒覽』 卷五 三國 阿那伽倻國**

新羅法興王二十五年戊午 滅之 置阿尸良國.

신라 법흥왕 25년(538년) 무오년에 멸망시키고 아시량군[阿尸良國]을 설치하였다.

사료12 **『대동장고』 제1책 역대고 신라소속제국 | 『大同掌攷』 第一册 歷代攷 新羅所屬諸國**

新羅法興王二十五年戊午滅之 置阿尸良郡.

신라 법흥왕 25년(538년) 무오년에 멸망시키고, 아시량군(阿尸良郡)을 설치하였다.

사료13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東史略云 法興王二十五年〈梁武帝大同四年〉 伐阿尸良國 滅之.

『동사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 25년(538년)〈양 무제 대동 4년〉에 아시량국(阿尸良國)을 쳐서 멸하였다."

사료14 **『대동지지』 권29 방여총지1 신라소병제국 | 『大東地志』 卷二十九 方輿總志一 新羅所并諸國**

阿那加耶國 〈一云阿尸良國 新羅法興王二十五年 滅之 今咸安郡〉

아나가야국〈아시량국(阿尸梁國)이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 25년(538년) 멸망시켰다. 지금[조선] 함안군이다〉

사료15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阿那加耶者 今之咸安郡也 新羅法興王滅之 東史略云 法興王二十五年〈梁武帝大同四年〉 伐阿尸良國 滅之.

아나가야(阿那加耶)는 지금[조선]의 함안군이다.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켰다. 동사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법흥왕 25년(538년)〈양 무제 대동 4년〉에 아시량국(阿尸良國)을 쳐서 멸하였다."

사료16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戊午 新羅法興王建元三年 高句麗安原王七年 百濟聖王十五年 梁武帝大同四年〉 新羅滅阿羅〈一曰阿那加耶一名阿尸良〉 以其地爲郡

按 阿那加耶國都 在今咸安郡 咸安古號爲阿尸良 故阿那亦名阿尸良國 而前史因而書之 今改書之 使讀者便焉 又据新羅眞興王十二年 王謂群臣曰 加耶王淫亂自滅 此卽指阿那言者 而十二年之距此 爲一十四年 則今亦不得不表出國名而使上下相明也.

〈무오년 신라 법흥왕 건원(健元) 3년, 고구려 안원왕 7년, 백제 성왕 16년, 양 무제 대동 4년(538년)〉 신라가 아라를 멸망시키고,〈아나가야(阿那加耶)라기도 하고, 아시량(阿尸良)이라고도 한다〉 그 땅이 군(郡)이 되었다.

살펴보건대, 아나가야의 도읍은 지금[대한제국]의 함안군(咸安郡)에 있었다. 함안의 옛 이름이 아시량이다. 그러므로 아나를 또한 아시량국이라고 부른 것이니, 앞선 역사책들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썼다. 지금 고쳐 써서 읽는 사람에게 편하도록 하였다. 또 신라 진흥왕 12년에 왕이 뭇 신하에게 말하기를, "가야왕은 음란하여 자멸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는 곧 아나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진흥왕] 12년이면 이 때와 14년의 거리가 있다. 따라서 지금 부득불 나라 이름을 드러내어 상하가 서로 밝혀지도록 하였다.

540년 8월 가야 등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원년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元年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竝遣使獻 竝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国郡 編貫戸籍 秦人戸數 總七千五十三戸 以大藏掾 爲秦伴造.

8월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함께 사신을 보내고, 아울러 공물을 바쳤다. 진인(秦人), 한인(漢人) 등 여러 나라에서 투화하여 온 사람을 불러모아, 국군(国郡)에 안치하고 호적을 편성하였다. 진인의 호수(戸數)가 총 7,053호였다. 오호구라노후비토[大藏掾]를 도모노미야츠코[秦伴造]로 삼았다.

540년 9월 백제가 임나4현을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원년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元年

九月乙亥朔己卯 幸難波祝津宮 大伴大連金村 · 許勢臣稻持 · 物部大連尾輿等從焉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 伐得新羅 物部大連尾輿等奏曰 少許軍卒 不可易征 曩者 男大迹天皇六年 百濟遣使 表請任那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大伴大連金村 輒依表請 許賜所求 由是 新羅怨曠積年 不可輕爾而伐 於是 大伴大連金村 居住吉宅 稱疾不朝 天皇遣靑海夫人句子 慰問慇懃 大連怖謝曰 臣所疾者 非餘事也 今諸臣等謂臣滅任那 故恐怖不朝耳 乃以鞍馬贈使

厚相資敬 靑海夫人 依實顯奏 詔曰 久竭忠誠 莫恤衆口 遂不爲罪 優寵彌深.

9월 을해 초하루 기묘에 나니하[難波]의 하후쓰노미야[祝津宮]에 행차하였다.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가나무라[大伴大連金村]·고세노오미이나모치[許勢臣稻持]·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오코시[物部大連尾輿] 등이 뒤따라갔다. 천황이 여러 신하에게, “어느 정도의 군사가 있으면 신라를 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모노노베노 오호무라지 오코시 등이, “적은 군사로는 쉽게 칠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오호도노스메라미코토[男大迹天皇 : 繼體天皇] 6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임나의 상다리(上哆唎)·하다리(下哆唎)·사타(娑陀)·모루(牟婁)의 네 현을 청하였는데,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가나무라가 즉시 청하는 대로 구하는 곳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의 원망이 여러 해 동안 쌓여 갔으니 가볍게 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때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가나무라는 스미노에[住吉]의 집에 있으면서 병을 핑계대고 조정에 나아오지 않았다. 천황은 아오미노 오호토지마가리코[靑海夫人句子]를 보내 은근하게 위문하였다. 오호무라지는 두려워하여 사죄하면서, “신(臣)이 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요즘 여러 신하들이 신이 임나를 멸망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장식한 말을 사신에게 주어 후하게 접대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아오미노오호토지[靑海夫人]가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명령을 내려, “오랫동안 충성을 다하였으니, 여러 사람의 말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드디어 허물삼지 않고 총애함이 더욱 깊었다.

540년 대가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다

사료1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欽明天皇元年〈新羅眞興王元年〉任那入貢.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흠명 천황] 원년(540년)〈신라 진흥왕 원년〉 임나가 입공(入貢)하였다.”

사료2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辛酉〉〈新羅眞興王元年 高句麗安原王十年 百濟聖王十八年 梁武帝大同七年〉大加耶遣使 餽物于日本〈日皇欽明元年 明年〉日本勸大加耶 與百濟 謨復新羅侵地.

〈신유〉 신라 진흥왕 원년, 고구려 안원왕 10년, 백제 성왕 18년, 양 무제 대동 7년(541년)〉 대가야가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일황(日皇) 흠명(欽明) 원년(540년)〉에 공물을 보냈다[餽]. 이듬해, 일본이 대가야에게 권하여, 백제와 함께 다시 신라로 쳐들어갈 것을 도모하라고 하였다.

541년 4월 백제 성왕의 주도로 1차 사비회의가 개최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年 四月

夏四月 安羅次旱岐夷呑奚 · 大不孫 ·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旱岐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斯二岐

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厥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盍各盡忠 奉展聖懷 任那旱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更告新羅 尙無所報 今宜俱遣使 往奏天皇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国 有敗亡之禍〉

여름 4월 안라의 차한기 이탄해·대불손·구취유리 등과 가라의 상수위 고전해, 졸마의 한기, 산만해의 한기의 아들, 다라의 하한기 이타, 사이기의 한기의 아들, 자타의 한기 등이 임나의 야마토노미코토모치[日本府]의 기비노오미[吉備臣]〈이름자를 잃었다〉와 더불어 백제에 가서 함께 조칙을 들었다. 백제의 성명왕이 임나의 한기들에게, “일본의 천황이 명령한 바는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지금 어떤 계책으로 임나를 다시 일으키겠는가. 어찌 각기 충성을 다하여 천황의 마음을 받들어 펼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임나의 한기 등이, “전에 두세 번 신라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모하려는 뜻을 다시 신라에 이른다 하여도 여전히 대답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함께 사신을 보내어 천황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임나를 재건하는 일은 대왕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공경하게 [왕의] 교지를 받드려 하는데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임나의 경계는 신라와 접해 있어서 탁순(卓淳) 등과 같은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탁순] 등이라 함은 탁기탄(喙己呑), 가라(加羅)를 말한다. 탁순 등의 나라와 같은 패망의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而今被誑新羅 使天皇忿怒 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 而遣下部中佐平麻鹵 · 城方甲背昧奴等 赴加羅 會于任那日本府相盟 以後 繫念相續 圖建任那 旦夕無忘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由是 欲共爾曹謨計 樹立任那等国 宜善圖之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 乃俱遣使 奏聞天皇 恭承示敎 儻如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 侵逼任那 我當往救 不足爲憂 然善守備 謹警無忘 別汝所導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强故 所能爲也 其喙己呑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 三国之敗 良有以也 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尙不剋之 新羅安獨滅任那乎 今寡人 與汝戮力幷心 翳賴天皇 任那必起 因贈物各有差 忻忻而還

성명왕은, “옛적에 우리 선조 속고왕, 귀수왕의 때에, 안라·가라·탁순의 한기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고 서로 통교하여 친교를 두터이 맺어, 자제의 나라로 여기고 더불어 융성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신라에게 속임을 당하여 천황을 노엽게 하고 임나를 한에 사무치게 한 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뉘우쳐 하부 중좌평마로, 성방갑배 매노 등을 보내어 가라에 나아가 임나의 야마토노미코토모치에 모여 서로 맹세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마음을 두고 임나를 재건하려고 하는 일을 아침 저녁으로 잊은 적이 없었다. 지금 천황이 명령을 내려, ‘속히 임나를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대들과 함께 계책을 모의하여 임나 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잘 생각하여야 한다. 또 임나의 경계에서 신라를 불러, (조를) 받들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야겠다. 함께 사신을 보내어 천황에 아뢰고 삼가 교시를 받들자. 만일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라가 틈을 엿보아 임나를 침략해 오면 나는 마땅히 가서 구원할 것이니 근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잘 방비하고 삼가 경계하기를 잊지 말라. 또한 그대들은 말하기를, 탁순 등과 같은 화를 입을까 두렵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신라가 혼자 강하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탁기탄은은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 해마다 공격을 받아 패배하였는데, 임나도 구원할 수가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 남가라(南加羅)는 땅이 협소하여 불의의 습격에 방비할 수 없었고 의지할 바도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망하였다. 탁순은 위아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지녔는데, 군주가 혼자 항복하려고 신라에 내응하여, 이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살펴보니 삼국의 패망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옛적에 신라가 고려에 구원을 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쳤으나 오히려 이기지 못하였는데, 신라가 어찌 혼자서 임나를 멸망시키겠는가. 지금 과인이 그대들과 더불어 힘을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천황에게 의지하면 임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541년　7월 백제가 안라와 신라의 공모를 힐난하다

사료1　**『일본서기』권19 흠명 2년 7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二年 七月**

秋七月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 · 奈率宣文中部奈率木刕眯淳紀臣奈率彌麻沙等〈紀臣奈率者 蓋是紀臣娶韓婦所生 因留百濟 爲奈率者也 未詳其父 他皆效此也〉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 通計新羅 深責罵之〈百濟本記 云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 未詳也〉

가을 7월 백제는 안라의 야마토노미코토모치가 신라와 더불어 계책을 공모한다는 말을 듣고, 전부(前部) 나솔(奈率) 비리막고(鼻利莫古), 나솔(奈率) 선문(宣文), 중부(中部) 나솔(奈率) 목례미순(木刕眯淳), 기노 오미[紀臣] 내솔 미마사(彌麻沙) 등을 보내〈기노 오미 나솔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기노 오미가 한국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얻어 낳은 사람으로서, 백제에 머물러 나솔이 된 사람일 것이다. 아버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도 모두 이와 비슷하다〉 안라에 가서 신라에 온 임나의 집사를 불러 임나를 세울 것을 도모하게 하였다. 따로 안라의 야마토노 미코치의 가후치노아타히[河內直]가 신라와 공모한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백제본기』에는 '가부지비직(加不至費直)·아현이나사(阿賢移那斯)·좌로마도(佐魯麻都) 등'이라고 하였으나 잘 알 수 없다〉

乃謂任那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 與故旱岐等 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 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共事天皇 俱距强敵 安国全家 至于今日 言念先祖 與舊旱岐 和親之詞 有如皎日 自玆以降 勤修隣好 遂敦與国 恩踰骨肉 善始有終 寡人之所恒願 未審 何緣輕用浮辭 數歲之間 慨然失志 古人云 追悔無及 此之謂也 上達雲際 下及泉中 誓神乎今 改咎乎昔 一無隱匿 發露所爲 精誠通靈 深自克責 亦所宜取 蓋聞 爲人後者 貴能負荷先軌 克昌堂構 以成勳業也 故今追崇先世和親之好 敬順天皇詔勅之詞 拔取新羅所折之国南加羅 · 㖨己呑等 還屬本貫 遷實任那 永作父兄 恒朝日本 此寡人之所食不甘味 寢不安席 悔往戒今之 所勞想也.

그리고 왕은 임나에게, "옛적에 우리 선조 속고왕, 귀수왕이 옛날의 한기 등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고서 형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그대를 자제로 여기고, 그대는 우리를 부형(父兄)으로 생각하며, 함께 천황을 섬기고 함께 강적에게 항거하며,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왕실을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선조가 옛날에 한기와 화친할 때의 말을 생각하면 해와 같이 밝음이 있다. 그 후 이웃과 삼가 우호를 닦아서 드디어 다른 나라와 돈독하게 되었으니, 은혜가 골육보다 더하였다. 처음을 잘 하고 끝도 좋아야 한다는 것은 과인이 항상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가벼이 헛된 말들을 하고 몇 해 사이에 한탄스럽게 뜻을 잃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옛날 사람들이 '후회막급이다'라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이로다. 위로 하늘에 다다르고 아래로 지하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에게 맹세컨대, 옛날의 허물을 고치겠으며, 하나도 숨김없이 행할 바를 밝히겠다. 정성이 신령에 통하고 깊이 자기를 책하는 것은 역시 취할 만한 바가 있다. 듣건대 선대의 뒤를 계승한 자는 조상이 남긴 궤범을 이어받고, 선조의 업을 번성하게 하여 공훈을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선세의 화친한 우호를 받들고 삼가 천황이 명령한 말에 따라, 신라에게 빼앗긴 나라인 남가라와 탁기탄 등을 취하여 본래대로 돌이켜 임나에 옮기고, 길이 부형(父兄)의 나라가 되어 항상 일본에 조회하려고 한다. 이는 과인이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자리가 편안치 못한 바이다. 지난 일을 뉘우쳐 오늘의 경계로 삼아 힘써 생각할 바이다.

夫新羅甘言希誑 天下之所知也 汝等妄信 旣墮人權 方今任那境接新羅 宜常設備 豈能弛柝 爰恐 陷罹誣欺網穽 喪国亡家 爲人繫虜 寡人念玆 勞想而不能自安矣 竊聞 任那與新羅運策席際 現蜂蛇怪 亦衆所知 且夫妖祥 所以戒行 災異所以悟人 當是 明天告戒 先靈之徵表者也 禍至追悔 滅後思興 孰云及矣 今汝遵余 聽天皇勅 可立任那 何患不成 若欲長存本土 永御舊民 其謨在玆 可不愼也.

무릇 신라가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그대들은 망령되이 믿었다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빠졌다. 바야흐로 지금 임나의 경계는 신라와 접하고 있으니, 항상 방비를 하여야 한다. 어찌 경계를 게을리 할 것인가. 속임수의 함정에 빠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남에게 포로가 될까 두려우니, 과인은 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 편안히 지낼 수 없다. 몰래 들으니 임나와 신라가 계책을 꾸미는 자리에 벌과 뱀이 괴이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대개 괴이한 조짐은 행동을 경계하는 것이며, 재난과 이변은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다. 곧 이는 하늘이 경계하는 것이고 조상이 징조를 보이는 것이니, 화가 미친 다음에 후회가 따르고, 멸망한 후에 부흥하기를 생각하여도 누가 미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대가 나를 따라 천황의 명령을 들으면 임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만약 본래의 땅을 길이 보존하고 원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고 싶다면, 그 계략이 여기에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聖明王更謂任那日本府曰 天皇詔稱 任那若滅 汝則無資 任那若興 汝則有援 今宜興建任那 使如舊日 以爲汝助 撫養黎民 謹承詔勅 悚懼塡胸 誓效丹誠 冀隆任那 永事天皇 猶如往日 先慮未然 然後康樂 今日本府 復能依詔 救助任那 是爲天皇 所必褒讚 汝身所當賞祿 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国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謨防日本 其來尚矣 匪唯今年 而不敢動者 近羞百濟 遠恐天皇 誘事朝庭 僞和任那 如斯感激任那日本府者 以未禽任那之間 僞示伏從之狀 願今候其間隙 佔其不備 一擧兵而取之 天皇 以詔勅 勸立南加羅㖨己呑 非但數十年 而新羅一不聽命 亦卿所知 且夫信敬天皇 爲立任那 豈若是乎 恐卿等輒信甘言 輕被謾語 滅任那国 奉辱天皇 卿其戒之 勿爲他欺 秋七月 百濟遣紀臣奈率彌麻沙中部奈率己連 來奏下韓任那之政 并上表之.

성명왕이 다시 임나의 야마토노미코토모치에게, "천황이 명령하여, '임나가 멸망하면 너희는 의지할 데가 없어질 것이고, 임나가 일어나면 너희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마땅히 임나를 일으켜 세워 옛날과 같게 하여, 너희의 도움으로 삼고,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삼가 조칙을 받들고 나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차서,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임나를 융성시킬 것을 기약하였다. 영원히 천황을 섬기기를 지난날과 같이 할 것이며, 먼저 앞의 일을 생각한 후에 편안히 쉴 것이다. 이제 야마토노미코토모치가 조칙에 따라 임나를 구하면, 이는 천황이 반드시 칭송하는 바가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당연히 포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야마토노 미코토모치의 경(卿) 등은 오랫동안 임나국에 머물러 있고, 신라의 경계와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신라의 정세를 역시 알 것이다. 임나를 해치고 야마토[日本]을 막으려고 모의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단지 올해 뿐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가까이는 백제를 경계하고, 멀리는 천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신라가] 거짓으로 조정(日本)을 섬기는 척 하고 거짓으로 임나와 화해해서 임나의 야마토노미코토모치를 기쁘게 한 것은 아직 임나를 빼앗지 못했으므로 거짓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제 그 틈을 염탐하여 방비하지 못함을 엿보아, 한 번에 군사를 일으켜 [임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황이 조를 내려 남가라(南加羅), 탁기단(㖨己呑)을 세우라고 권한 것은 단지 수십 년 동안만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신라가 한결같이 명을 듣지 않는 것은 경들도 아는 바이다. 천황의 조칙을 삼가 믿고 임나를 세우려고 하는 데 어찌 이와 같은가. 경 등이 번번이 달콤한 말만 믿고 경솔하게 거짓말에 속아서 임나국을 멸하고 천황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경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남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가을 7월 백제가 기노오미[紀臣] 나솔(奈率) 미마사, 중부 나솔 기련(己連)을 보내어 하한(下韓)과 임나의 정사를 아뢰고, 아울러 표를 올렸다.

543년 11월 백제의 삼좌평이 군령 성주의 일본부 귀속을 반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4년 11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四年 十一月

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 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 幷持詔書 宣曰 爾屢抗表 稱當建任那 十餘年矣 表奏如此 尙未成之 且夫任那者 爲爾国之棟梁 如折棟梁 詎成屋宇 朕念在玆 爾須早建 汝若早建任那 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 自當止退 豈足云乎 是日 聖明王 聞宣勅已 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 詔勅如是 當復何如 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 我郡令城主 不可出之 建国之事 宜早聽聖勅.

겨울 11월 정해 초하루 갑오에 쓰리모노무라지[津守連]를 보내어 백제에 조서를 내려, "임나의 하한(下韓)에 있는 백제의 군령성주(郡令城主)는 야마토노미코토모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조서를 지니고 가서 선포하기를, "그대가 여러 번 표를 올려 꼭 임나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 10여 년이 되었다. 표에서 아뢴 것이 이와 같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대저 임나는 그대 나라의 동량(棟梁)이다. 만일 동량이 부러지면 어떻게 집을 짓겠는가. 짐의 걱정이 여기에 있다.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세우도록 하라. 그대가 만약 빨리 임나를 세운다면, 가후치노아타히[河內直]〈가후치노아타히는 이미 윗글에 나왔다〉 등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니,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날 성명왕이 칙을 듣기를 마치고 삼좌평과 내두(內頭) 및 여러 신하에게, "조칙이 이와 같으니,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두루 물었다. 삼좌평이, "하한에 있는 우리 군령 성주 등은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은 빨리 칙을 따르는 것이 마땅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43년 12월 백제가 가야재건을 위해 가야의 한기와 일본부의 집사들을 소집할 것을 의논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4년 12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四年 十二月

十二月 百濟聖明王 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 上佐平沙宅己婁中佐平木刕麻那 · 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 · 德率木刕眯淳德率国雖多奈率燕比善那等 同議曰 臣等稟性愚闇 都無智略 詔建任那 早須奉勅 今宜召任那執事 · 国国旱岐等 俱謀同計 抗表述志 又河內直移那斯麻都等 猶住安羅 任那恐難建之 故亦幷表 乞移本處也 聖明王曰 群臣所議 甚稱寡人之心 …(중략)… 是月 乃遣施德高分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過正旦而往聽焉.

12월 백제의 성명왕이 다시 이전의 조서를 여러 신하들에게 널리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였다. 상좌평 사택기루, 중좌평 목례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비리막고, 덕솔 동성도천, 덕솔 목례미순, 덕솔 국수다, 내솔 연비선나 등이 함께 의논하여, "신들은 품성이 아둔하여 지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나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으니, 빨리 칙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제 임나의 집사와 각국의 한기들을 소집하여 함께 계책을 모의하고 표를 올려 뜻을 말해야 합니다. 또 가후치노아타히[河內直]·이나사(移那斯)·마도(麻都) 등이 여전히 안라에 있게 되면 아마도 임나는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표를 올려 본처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성명왕이, "군신들이 의논한 바가 심히 과인의 마음에 맞다."고 말하

였다. …(중략)…이 달에 [백제가] 시덕 고분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야마토노 미코토모치의 집사를 불렀다. 다 함께, "정월 초하루를 지내고 가서 듣겠다."라고 대답하였다.

544년 1월 백제의 가야와 일본부의 집사 소집이 실행되지 못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 1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五年 一月

五年春正月 百濟国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 是月 百濟復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日本府 · 任那 俱不遣執事 而遣微者 由是 百濟不得俱謀建任那国.

봄 정월 백제국이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집사를 불렀다. 모두, "신(神)에게 제사지낼 때이므로 제사를 마치면 가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달 백제가 또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집사를 불렀다.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임나가 모두 집사를 보내지 않고 지위가 미천한 사람을 보냈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가 임나국을 세울 것을 함께 모의할 수 없었다.

544년 2월 백제가 가야재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집사를 꾸짖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 2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五年 二月

二月 百濟遣施德馬武施德高分屋施德斯那奴次酒等 使于任那 謂日本府與任那旱岐等曰 我遣紀臣奈率彌麻沙奈率己連物部連奈率用奇多 朝謁天皇 彌麻沙等 還自日本 以詔書宣曰 汝等 宜共在彼日本府 早建良圖 副朕所望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 從日本來〈百濟本記云 津守連已麻奴跪 而語訛不正 未詳〉 宣詔勅 而問任那之政 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 議定任那之政 奉奏天皇 遣召三廻 尙不來到 由是 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 奉奏天皇矣 今欲請留津守連 別以疾使 具申情狀 遣奏天皇 當以三月十日 發遣使於日本 此使便到 天皇必須問汝 汝日本府卿任那旱岐等 各宜發使 共我使人 往聽天皇所宣之詔.

2월 백제가 시덕 마무, 시덕 고분옥, 시덕 사나노차주 등을 임나에 사신으로 보내어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임나의 한기 등에게, "나는 기신 나솔미마사, 나솔 기련, 모노노베노무라지[物部連], 나솔 용기다를 보내어 천황에게 조회하고 알현하였는데, 미마사 등이 야마토[日本]에서 돌아와 조서를 선포하였다. '그대들은 거기에 있는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함께 빨리 좋은 계책을 세워 짐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라. 그대들은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다. 또 쓰리모노 무라지[津守連]이 야마토에서 와서,〈『백제본기』에서는 쓰리모노 무라지는 기마노궤[已麻奴跪]라고 기록하였는데, 와전되어 정확하지 않아 잘 알 수 없다〉 조칙을 전하고 임나의 정사를 물었다. 그러므로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임나의 집사와 함께 임나의 정사를 의논하여 천황에게 아뢰려고, 사자를 보내어 부른 것이 세 번이나 되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임나의 정사를 도모할 계획

을 함께 의논하여 천황에게 아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쓰리모노무라지를 머무르도록 청하고, 따로 빠른 사자로써 상황을 갖추어 천황에게 아뢰고자 한다. 3월 10일에 야마토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도달하면 천황은 반드시 그대들을 문책할 것이다. 그대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경(卿)과 임나의 한기들은 각기 사자를 보내어 내가 보내는 사자와 함께 천황이 베푸는 조서를 들으라."라고 말하였다.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 河內直移那斯麻都 而語訛未詳其正也〉 自昔迄今 唯聞汝惡 汝先祖等〈百濟本記云 汝先那干陀甲背加獵直岐甲背 亦云那奇陀甲背 · 鷹奇岐彌 語訛未詳〉 俱懷姦僞誘說 爲哥可君〈百濟本記云 爲哥岐彌名有非岐〉 專信其言 不憂国難 乖背吾心 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汝等來住任那 恒行不善 任那日損 職汝之由 汝是雖微 譬猶小火燒焚山野 連延村邑 由汝行惡 當敗任那 遂使海西諸国官家 不得長奉天皇之闕 今遣奏天皇乞移汝等 還其本處 汝亦往聞 又謂日本府卿 · 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之国 不假天皇之威 誰能建也 故我思欲就天皇 請將士 而助任那之国 將士之糧 我當須運 將士之數 未限若干 運糧之處 亦難自決 願居一處 俱論可不 擇從其善 將奏天皇 故頻遣召 汝猶不來 不得議也.
따로 가후치노아타히〈『백제본기』에는 가후치노아타히와 이나사와마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와전되어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대의 악행만을 들어왔다. 그대의 선조들도〈『백제본기』에는, '그대의 선조 나간타갑배, 가렵직기갑배'라고 하였다. 또한 '나기타갑배, 응기기미'라고도 하였는데, 말이 와전되어 잘 알 수 없다〉 모두 간악함을 품고 거짓되이 말하였다. 이카카노키미[爲哥可君]〈『백제본기』에 위가기미(爲哥岐彌)이고 이름은 유비기(有非岐)라고 하였다〉 이 그 말만을 믿어 국난을 걱정하지 않고, 내 뜻을 어기고 포악한 일을 마음대로 자행하다가, 이 때문에 쫓겨났으니 오로지 그대의 탓이다. 그대들은 임나에 와서 살면서 항상 나쁜 짓을 행하였다. 임나가 날마다 해를 입는 것은 오로지 그대들 때문이다. 그대는 비록 하찮다고 할지 모르나, 비유컨대 작은 불이 산야를 태우고 마을로 번지는 것과 같다. 그대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임나는 패망할 것이고, 마침내는 바다 서쪽 여러 나라의 관가(官家)로 하여금 길이 천황의 곁에서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사신을 보내어 천황에게 아뢰어 그대들을 옮겨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청하겠다. 그대 또한 가서 들으라."라고 말하였다. 또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경과 임나의 한기 등에게, "임나국을 세우는 일은 천황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천황에게 가서 군사를 청하여 임나국을 도우려 한다. 병사들의 양식은 내가 운반해야 하겠으나, 군사의 수를 아직 모르고 군량을 운반할 곳도 역시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가부를 의논하고, 그 좋은 것을 택하여 천황에게 아뢰기를 원하나, 여러 번 불러도 그대들이 오지 않아 의논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日本府答曰 任那執事 不赴召者 是由吾不遣 不得往之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朕當以印奇臣語訛未詳 遣於新羅 以津守連 遣於百濟 汝 待聞勅際 莫自勞往新羅百濟也 宣勅如是 會聞印奇臣使於新羅 乃追遣問天皇所宣 詔曰 日本臣與任那執事 應就新羅 聽天皇勅 而不宣就百濟聽命也 後津守連 遂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 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聽天皇勅 故不往焉 非任那意 於是 任那旱岐等曰 由使來召 便欲往參 日本府卿 不肯發遣 故不往焉 大王 爲建任那 觸情曉示 覩玆忻喜 難可具申.
야마토노미코토모치가, "임나의 집사가 부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던 까닭으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황에게 아뢰기 위하여 보낸 사신이 돌아와서, '짐이 이가노오미[印奇臣]〈말이 와전되어 상세하지 않다〉을 신라에 보내고, 쓰리모노무라지[津守連]를 백제에 보내겠다. 그대는 칙을 들을 때를 기다리고, 혼자 수고로이 신라·백제에 가지 말라.'고 답했다. 칙이 이와 같았는데 마침 이가노오미가 신라에 사신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 쫓아 보내어 천황이 말씀하신 바를 물었습니다. 조에는 '야마토의 신(臣)과 임나의 집사는 신라에 가서 천황의 칙언을 들으라'하였고, 백제에 가서 명을 들으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후에 쓰리모노무라지가 이 곳을 지날 때, '지금 내가 백제에 파견되는 것은 하한에 있는 백제의 군령 성주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이 말만을 들었고, 임나와 야마토노미코토모치가 백제에 모여서 천황의 칙언을 들으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았으니 임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에 임나의 한기들이, "사신이 와서 부르므로 곧 가려고 하였으나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경이 떠나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가지 못했습니다. 대왕은 임나를 세우려고 자세한 것까지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함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544년　백제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 가야 재건에 대한 사정을 말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 3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五年 三月

三月 百濟遣奈率阿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上表曰 奈率彌麻沙奈率己連等 至詔蕃 奉詔書曰 爾等宜共在彼日本府 同謀善計 早建任那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等 至臣蕃奉勅書 問建任那 恭承來勅 不敢停時 爲欲共謀 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 遣召烏胡跛臣 蓋是的臣也〉與任那 俱對言 新年旣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俱對言 祭時旣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而由遣微者 不得同計.

3월 백제에서 나솔 아탁득문·고세[許勢]의 나솔 가마[奇麻], 모노노베[物部]의 나솔 가히[奇非] 등을 보내어 표를 올려 말하였다. "나솔 미마사·나솔 기련 등이 신의 나라에 이르러 조서를 받들어 '너희들은 저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함께 좋은 계책을 꾀하여 빨리 임나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는 경계하여 남에게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쓰모리노무라지[津守連] 등이 신의 나라에 이르러 칙서를 받들어 임나를 세우는 일을 물었습니다. 삼가 조칙에 따라 감히 시간을 지체하지 못하고 함께 도모하려고 사신을 보내어,〈『백제본기』에는 오호파신[烏胡跛臣]을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쿠하노오미[的臣]인 듯하다〉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임나를 불렀으나 모두 대답하기를 '새해가 이미 왔으니 지나간 다음에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았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내어 부르니 모두 대답하기를 '이미 제사지낼 때가 되었으니 지나간 다음에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 불렀는데, 미천한 자를 보낸 까닭으로 함께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夫任那之 不赴召者 非其意焉 是阿賢移那斯 · 佐魯麻都〈二人名也 已見上文〉姦佞之所作也 夫任那者 以安羅爲兄 唯從其意 安羅人者 以日本府爲天 唯從其意〈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也〉今的臣吉備臣河內直等 咸從移那斯麻都指撝而已 移那斯麻都 雖是小家微者 專擅日本府之政 又制任那 障而勿遣 由是 不得同計 奏答天皇 故留己麻奴跪〈蓋是津守連也〉別遣疾使迅如飛鳥 奉奏天皇 假使〈二人二人者 移那斯與麻都也〉在於安羅 多行姦佞 任那難建 海西諸国 必不獲事 伏請 移此二人 還其本處 勅喩日本府與任那 而圖建任那 故臣遣奈率彌麻沙 · 奈率己連等 副己麻奴跪 上表以聞.

무릇 임나가 부름에 나오지 않은 것은 본심이 아니라, 아현 이나사·좌로 마도〈두 사람의 이름이다. 이미 위의 문장에 보인다〉가 간교하게 속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릇 임나는 안라를 형으로 삼아 오직 그 뜻을 좇고, 안라인들은 야마토노미코토모치를 하늘로 삼아 오직 그 뜻을 따르므로〈『백제본기』에는 안라를 아버지로 삼고 야마토노미코토모치로써 근본을 삼았다고 하였다〉 이제 이쿠하노오미[的臣]·기비노오미[吉備臣]·가후치노 아타히

[河內直] 등은 모두 이나사·마도의 지휘를 따를 뿐입니다. 이나사·마도는 비록 작은 가문의 미천한 자이지만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정사를 오로지 제멋대로 하며 또한 임나를 제압하여 막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함께 계획을 세워 천황에게 답변을 아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마노궤〈아마도 쓰리모노무라지[津守連]인 듯하다〉가 머무르게 하고 특별히 나는 새와 같이 빠른 사신을 보내어 천황에게 아뢰기를, '만일 두 사람〈두 사람은 이나사와 마도이다〉이 안라에 있어 간특하고 아첨하는 일을 많이 행하면 임나도 세우기 힘들 것이며, 바다 서쪽의 여러 나라도 반드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두 사람을 옮겨 그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임나에게 칙을 내려 임나 건설을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이 나솔 미마사·나솔 기련 등을 기마노궤에게 딸려 보내어 표를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於是 詔曰 的臣等〈等者 謂吉備弟君臣 河內直等也〉 往來新羅 非朕心也 曩者 印支彌〈未詳〉 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迴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若已建任那 移那斯 · 麻都 自然却退 豈足云乎 伏承此詔 喜懼兼懷 而新羅誑朝 知匪天勅 新羅春取㖨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斯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而移那斯麻都 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 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旣洒臣時 皆未詳〉 新羅無復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이에 조를 내려, '이쿠하노오미[的臣] 등〈등(等)이라 한 것은 기비노오토키미노오미[吉備弟君臣]·가후치노아타히[河內直] 등을 말한다〉이 신라를 왕래하는 것은 짐의 뜻이 아니다. 옛날 이키미[印支彌]〈자세하지 않다〉와 아로한기가 있을 때 신라의 핍박을 받아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였는데, 백제는 길이 멀어 그 위급함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쿠하노오미 등이 신라를 왕래함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은 일찍이 들었다. 만일 임나를 이미 세웠다면 이나사·마도는 자연히 물러났을 것이니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이 조를 받자오니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신라가 천조를 속이고 칙명을 따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신라는 봄에 탁순을 취하고 이어 우리의 구례산 수비병을 내쫓고 드디어 점유하였습니다. 안라에 가까운 곳은 안라가 논밭을 일구어 씨를 뿌렸고, 구례산에 가까운 곳은 사라(斯羅)가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각각 경작하여 서로 침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나사·마도가 남의 경계를 넘어 경작하다가 6월에 도망하였습니다. 이키미[印支彌]의 뒤에 온 고세노오미[許勢臣]의 때에는〈『백제본기』에는 "우리가 이키미를 머무르게 한 뒤에 온 기쇄신[旣灑臣]의 때에 이르러."라고 하였으나 모두 자세하지 않다〉 신라가 다시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라는 신라의 핍박을 받아 경작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臣嘗聞 新羅每春秋 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 或聞 當襲加羅 頃得書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息也 頻發銳兵應時往救 是以 任那隨序耕種 新羅不敢侵逼 而奏百濟路迴 不能救急 由的臣等 往來新羅 方得耕種 是上欺天朝 轉成姦佞也 曉然若是 尙欺天朝 自餘虛妄 必多有之 的臣等 猶住安羅 任那之国 恐難建立 宜早退却 臣深懼之 佐魯麻都 雖是韓腹 位居大連 廁日本執事之間 入榮班貴盛之例 而今反着新羅奈麻禮冠 卽身心歸附 於他易照 熟觀所作 都無怖畏 故前奏惡行 具錄聞訖 今猶着他服 日赴新羅域 公私往還 都無所憚 夫㖨国之滅 匪由他也 㖨国之函跛旱岐 貳心加羅国 而內應新羅 加羅自外合戰 由是滅焉 若使函跛旱岐 不爲內應 㖨国雖少 未必亡也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国主 不爲內應新羅招寇 豈至滅乎 歷觀諸国敗亡之禍 皆由內應貳心人者 今麻都等 腹心新羅 遂着其服 往還旦夕 陰構姦心 乃恐 任那由玆永滅 任那若滅 臣国孤危 思欲朝之 豈復得耶 伏願天皇 玄鑒遠察 速移本處 以安任那.
신이 일찍이 듣건대 "신라는 매년 봄과 가을에 군사와 무기를 많이 모아놓고 안라와 하산(荷山)을 습격하려 한다 하며, 또는 가라를 습격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신을 받고서 바로 군대를 보내어 임나를 굳게 지키는 데 게으르지 않았으며 자주 날랜 군사를 보내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나가 때에 따라 농사를 짓고 신라가 감히 침범하여 핍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길이 멀어 능히 위급함을 구하지 못하

였는데, 이쿠하노오미[的臣] 등이 신라를 왕래하면서부터 바야흐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었으니, 이는 위로는 천조를 속이는 것으로서 매우 간특한 일입니다. 사실의 명확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천조를 속이니 그 밖에도 거짓됨이 필시 많을 것입니다. 이쿠하노오미 등이 여전히 안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나를 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일찍 물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매우 두려워 하는 것은 좌로 마도가 비록 한(韓)의 출신으로서 지위가 오호무라지[大連]에 이르러 야마토[日本]의 집사의 사이에 섞여 명예롭고 권세있는 자리에 들어섰지만, 이제는 오히려 신라 나마례(奈麻禮)의 관(冠)을 쓰고 있으니 곧 몸과 마음으로 귀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행한 바를 자세히 보면 도무지 두려워 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악행을 아뢰어 모두 낱낱이 적어 알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의 관복을 입고 날마다 신라의 땅에 나아가 공·사의 일로 왕래하면서 도대체가 꺼려하지 않습니다. 무릇 탁국(㖨国)의 멸망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탁국의 함파한기가 가라국에 두 마음을 품어 신라에 내응하고 가라는 밖에서 싸움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망한 것입니다. 만일 함파한기로 하여금 내응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탁국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탁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탁순국의 왕이 신라에 내응하여 적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멸망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패망하게 된 화근을 살펴 보면 모두 안에서 응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도 등이 신라에 마음을 두어 드디어는 그 나라의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내왕하면서 속으로 간악한 마음을 굳혀왔습니다. 이에 임나가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임나가 만일 멸망한다면 신의 나라가 고립되어 위태할 것이니, 조회하려고 하나 어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황께서는 깊이 살피시고 멀리 헤아리시어, 속히 본래 있었던 곳으로 옮기셔서 임나를 안정시키십시오."

544년 10월 백제의 사신이 일본에서 귀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 10월 | 『日本書紀』 巻十九 欽明 五年 十月

冬十月 百濟使人奈率得文奈率奇麻等罷歸〈百濟本記云 冬十月 奈率得文奈率奇麻等 還自日本曰 所奏河內直移那斯麻都等事 無報勅也〉

겨울 10월 백제의 사신 나솔 득문·나솔 가마[奇麻] 등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백제본기』에는 "겨울 10월 나솔 득문·나솔 가마 등이 야마토로부터 돌아와 '가후치노아타히·이나사·마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이에 대한 조칙은 없었다'고 말하였다"라 하였다〉

544년 11월 백제 성왕이 사비회의에서 세가지 계책을 내놓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 11월 | 『日本書紀』 巻十九 欽明 五年 十一月

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国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

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旱岐久嗟旱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聖明 略以詔書示曰 吾遣奈率彌麻佐奈率己連奈率用奇多等 朝於日本 詔曰 早建任那 又津守連奉勅 問成任那 故遣召之 當復何如 能建任那 請各陳謀 吉備臣·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國 唯在大王 欲冀遵王 俱奏聽勅.

11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야마토노미코토모치 신[臣]과 임나 집사를 불러, "천황에게 조알하기 위하여 보낸 나솔 득문·고세[許勢]의 나솔 가히[奇麻]·모노노베[物部]·나솔 가히[奇非] 등이 야마토로 부터 돌아왔다. 이제 야마토노 미코토모치 신과 임나국 집사는 마땅히 와서 칙을 듣고 함께 임나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야마토의 기비노오미, 안라의 하한기 대불손과 구취유리, 가라의 상수위 고전해, 졸마군, 사이기군, 산반해 군의 아이, 다라의 이수위 흘건지, 자타 한기, 구차 한기가 이에 백제로 나아갔다. 이 때 백제왕 성명왕이 대략 조서를 보이며, "내가 나솔 미마사[彌麻佐]·나솔 기련·내솔 요우가타[用奇多] 등을 보내어 야마토에 조회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조속히 임나를 건설하라'고 하였다. 또 쓰리모노아타히[津守連]가 조칙을 받들어 임나를 건립하는 일을 물으므로 [사신을] 보내 부른 것이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임나를 세울 수 있겠는가. 각각 자신의 계책을 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비노오미[吉備臣]·임나한기 등이 "무릇 임나국을 세우는 일은 오직 대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을 따르고자 하니 모두 갖추어 아뢰어 조칙을 듣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国 與吾百济 自古以來 約爲子弟 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 旣討新羅 更將伐我 又樂聽新羅虛誕謾語也 夫遣印岐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国〈未詳〉 往古來今 新羅無道 食言違信 而滅卓淳 股肱之国 欲快返悔 故遣召到 俱承恩詔 欲冀 興繼任那之国 猶如舊日 永爲兄弟 竊聞 新羅安羅 兩国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 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 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国 亦復當興 所請兵士 五給衣糧 欲奏天皇 其策一也.

성명왕이 이들에게 일러, "임나라는 나라는 우리 백제와 예로부터 자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이제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이키미〈임나에 있던 야마토 신하의 이름이다〉가 이미 신라를 토벌하고 다시 장차 우리를 치려고 하며, 또 신라의 허망한 거짓말을 즐겨 듣는다. 무릇 이키미를 임나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탈하여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자세하지 않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신라는 무도하며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거스려 탁순을 멸망시켰다. 팔다리같은 나라를 속히 회복코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후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신을 보내어 오게 하여 함께 은혜로운 조칙를 받들어, 임나의 나라를 일으켜 맥을 잇고 옛날처럼 길이 형제가 되기를 바랬다. 가만히 듣건대 신라·안라 두 나라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 적을 방비하기 좋은 곳이라 한다. 내가 이를 차지하여 6성을 수축하려고, 삼가 천황에게 3천 병사를 청하여 매성마다 5백명씩 배치하고 아울러 우리 병사들로 [신라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괴롭히면, 구례산의 5성이 거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탁순의 나라 당연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청한 병사는 내가 옷과 식량을 지급할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게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계책이다.

猶於南韓 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 遮斷貢調之路 唯庶 剋濟多難 殲撲强敵 凡厥凶黨 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国微弱 若不置南韓 郡領城主 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 攻逼新羅 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 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国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 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宜與日本臣任那旱岐等 俱奉遣使 同奏天皇 乞聽恩詔 於是吉備臣 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 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오히려 남한에 군령 성주를 두는 것이 어찌 천황을 거스려 조공의 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바라는 바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강적[고구려]을 물리치는 것이니, 무릇 그 흉칙한 무리들이 누구인들 부용하려고 꾀하지 않겠는가. 북쪽의 적[고구려]은 강대하고 우리나라는 미약하니, 만일 남한에 군령·성주를 설치하여 방호시설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강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신라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오히려 이들을 두어 신라를 공격 핍박하여 임나를 위로하고 보존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해 조빙할 수 없을까 두렵다. 이를 천황에게 주청하고자 하니 그 책략의 둘째이다. 또 기비노오미·가후치노 아타히·이나사·마도가 오히려 임나국에 있기 때문에, 천황이 비록 조를 내려 임나를 세우라 하였으나 이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 4명을 옮겨 각각 그 본읍에 돌려보낼 것을 천황에게 아뢰어 청하는 것이 그 계책의 셋째이다. 마땅히 야마토 신(臣)·임나 한기 등과 더불어 모두 받들어 사신을 보내어 함께 천황에게 아뢰고 은혜로운 조칙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비노오미와 한기 등이, "대왕이 말한 세 가지 책략은 또한 우리의 뜻과 같을 뿐입니다. 이제 돌아가 야마토 대신(大臣)〈임나에 있는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대신을 일컫는다〉, 안라왕·가라왕에게 공경히 아뢰고 모두 사신을 보내어 함께 천황에게 주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천 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기회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계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545년 백제가 가야에 사신을 보내 여러 한기와 일본부에게 재화를 나눠주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6년 9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六年 九月

秋九月 百濟遣中部護德菩提等 使于任那 贈吳財於日本府臣及諸旱岐 各有差

가을 9월 백제가 중부 호덕 보리(菩提) 등을 임나에 사신으로 보내어 오의 재화를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의 신(臣)과 여러 한기에게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546년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니, 백제가 구원하다

사료1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丁卯 新羅眞興王七年 高句麗陽原王二年 百濟聖王二十四年〉 梁武帝大淸元年 新羅攻大加耶. 百濟遣兵 救之.

〈정묘 신라 진흥왕 7년, 고구려 양원왕 2년, 백제 성왕 24년, 양 무제 태청(太淸) 원년(547년)〉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였다. 백제가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548년 4월 백제가 안라 등이 고구려와 몰래 내통했음을 일본에 알리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9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九年 四月

夏四月壬戌朔甲子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德率宣文等 奉勅至臣蕃曰 所乞救兵 應時遣送 祇承恩詔 嘉慶無限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国與日本府 招來勸罰 以事準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竝不來 故深勞念 伏願 可畏天皇〈西蕃皆稱日本天皇 爲可畏天皇〉先爲勘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 詔曰 式聞呈奏 爰覩所憂 日本府與安羅 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朕命卽自遣之 不命何容可得 願王 開襟緩帶 恬然自安 勿深疑懼 宜共任那 依前勅 戮力俱防北敵 各守所封 朕當遣送若干人 充實安羅逃亡空地.

여름 4월 임술 초하루 갑자에 백제가 중부 간솔 약엽례 등을 보내어 "덕솔 선문 등이 칙을 받고 신의 나라에 이르러 '청하는 구원병을 때에 맞춰 보내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은혜로운 조를 받고 기쁘고 즐겁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진성(馬津城)의 전투에서〈정월 신축에 고려가 군대를 이끌고 마진성을 포위하였다〉 사로잡은 포로가 '(고려가 마진성을 공격한 것은) 안라국과 야마토노미코토모치(日本府)가 불러 들여 벌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정으로 미루어 상황을 보더라도 진실로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밝히고자 하여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내 불렀으나 모두 오지 않으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가외천황(可畏天皇)께서〈서번들은 야마토[日本] 천황을 모두 가외천황이라 일컫는다〉 먼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청했던 구원병을 잠시 멈추시고 신의 보고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이에 조를 내려 "법식에 따라 올린 글을 보고 근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야마토노미코토모치와 안라가 이웃의 어려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짐이 또한 매우 싫어하는 바이다. 또 그들이 몰래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짐이 명하였다면 스스로 보냈을 것이지만 명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갔겠는가. 원하건대 왕은 흉금을 터놓고 안심하여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임나와 함께 지난 번의 조칙에 따라 힘을 다하여 모두 북쪽의 적을 막고 각각 봉토를 지키라. 짐이 마땅히 약간의 사람을 보낼 것이니 안라가 도망한 빈 땅을 채우도록 하라."고 하였다.

548년 6월 일본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9년 6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九年 六月

六月辛酉朔壬戌 遣使詔于百濟曰 德率宣文 取歸以後 當復何如 消息何如 朕聞 汝国爲狛賊所害 宜共任那 策勵同謀 如前防距.

6월 신유 초하루 임술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조를 내려, "덕솔 선문이 돌아간 후에 앞으로 어찌 할 것인가, 소식은 어떠한가. 짐이 듣건대 너희 나라는 맥적(狛賊; 고구려)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땅히 임나와 함께 힘써 도모하여 전과 같이 막도록 하라."고 하였다.

549년 백제의 사신이 귀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0년 6월 | 『日本書紀』 巻十九 欽明 十年 六月

十年夏六月乙酉朔辛卯 將德久貴固德馬次文等請罷歸 因詔曰 延那斯 · 麻都 陰私遣使高麗者 朕當遣問虛實 所乞軍者 依願停之.

10년(549년) 여름 6월 을유 초하루 신묘 장덕 구귀·고덕 마차문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이에 조를 내려 “연나사·마도가 몰래 사사로이 고려에 사신을 보낸 것은 짐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허실을 물을 것이며, 청한 군사는 청원에 따라 멈추겠다.”라고 하였다.

550년 2월 일본이 백제에 화살 30구를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1년 2월 | 『日本書紀』 巻十九 欽明 十一年 二月

十一年春二月辛巳朔庚寅 遣使詔于百濟百濟本記云 三月十二日辛酉 日本使人阿比多 率三舟 來至都下 曰 朕依施德久貴固德馬進文等所上表意 一一教示 如視掌中 思欲具情 冀將盡抱 大市頭歸後 如常無異 今但欲審報辭 故遣使之 又復朕聞 奈率馬武 是王之股肱臣也 納上傳下 甚協王心 而爲王佐 若欲国家無事 長作官家 永奉天皇 宜以馬武爲大使 遣朝而已 重詔曰 朕聞 北敵强暴 故賜矢卅具 庶防一處

11년(550년) 봄 2월 신사 초하루 경인에 사신을 백제에 보내어, 〈『백제본기』에는 “3월 12일 신유에 야마토의 사신 아히타[阿比多]가 배 3척을 거느리고 도성 아래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짐이, 시덕 구귀·고덕 마진문 등이 올린 표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교시하여,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이시즈[大市頭]가 돌아온 뒤로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지만, 이제 다만 보고한 말을 밝히고자 하여 사신을 보낸다. 또 다시 짐이 듣건대 나솔 마무는 왕의 아끼는 신하로서 위의 말을 받아 아래에 전하는데 왕의 마음에 매우 흡족하도록 하며 왕을 잘 보좌한다고 한다. 만일 국가가 무사하여 오랫동안 관가가 되어 길이 천황을 받들려고 한다면 마땅히 마무를 대사로 삼아 조공토록 하라.”고 하였다. 다시 조를 내려 “짐이 듣건대 북쪽의 적이 강하고 사나우므로 화살 30구를 내리니 한 곳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550년 4월 일본 사신이 돌아가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1년 4월 | 『日本書紀』 巻十九 欽明 十一年 四月

夏四月庚辰朔 在百濟日本王人 方欲還之百濟本記云 四月一日庚辰 日本阿比多還也 百濟王聖明 謂王人曰 任那之事 奉勅堅守 延那斯麻都之事 問與不問 唯從勅之 因獻高麗奴六口 別贈王人奴一口皆攻爾林 所禽奴也.

여름 4월 경진 초하루 백제에 있는 야마토왕의 사람이 바야흐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백제본기』에는 “4월 1일 경진에 야마토 아히타[阿比多]가 돌아갔다.”고 하였다〉 백제왕 성명왕이 야마토왕의 사람에게 “임나의 일은 조칙을 받들어 굳게 지키고, 연나사·마도의 일은 문책할 것인지와 않을 것인지를 오로지 조칙에 따르겠다.”라 말하고, 고려의 노 6구를 바치고, 따로 왕의 사람에게 노(奴) 1구를 주었다. 〈모두 이림(爾林)을 공격하여 사로잡은 노이다〉

551년 백제 성왕이 신라, 가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성의 땅을 차지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2년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十二年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国兵〈二国謂新羅 · 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이 해 백제 성명왕이 몸소 군사 및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두 나라는 신라·임나를 말한다〉 고려를 정벌하여 한성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는데, 무릇 옛 땅 6군을 회복하였다.

551년 진흥왕이 낭성에서 우륵에게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2년 |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二年

三月 王巡守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歌奏之 先是 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 以象十二月之律 乃命于勒製其曲 及其國亂 操樂器投我 其樂名加耶琴.

3월에 왕이 순행(巡幸)을 하다가 낭성(娘城)에 이르렀다.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尼文)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河臨宮)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加耶國)의 가실왕(嘉悉王)이 12줄 현금(弦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열두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 이에 우륵에게 명하여 곡을 만들게 하였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귀의하였다. 그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加耶琴)이다.

사료2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1 악, 가야금 | 『三國史記』卷三十三 雜志 第一 樂, 加耶琴

加耶琴 亦法中國樂部箏而為之 風俗通曰 箏秦聲也 釋名曰 箏施絃高 箏箏然 并梁二州箏 形如瑟 傅玄曰 上圓象天下平象地 中空准六合 絃柱擬十二月 斯乃仁智之器 阮瑀曰 箏長六尺 以應律數 絃有十二 象四時 柱高三寸 象三才 加耶琴 雖與箏制度小異 而大槩似之

가야금도 또한 중국 악부의 쟁(箏)을 본떠 만들었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쟁은 진(秦)의 음악이다.” 한다.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쟁은 줄을 높이 올려 소리가 쟁쟁하며, 병(并)·양(梁) 2주(州)의 쟁은 형상이 비파[瑟]와 같다.”고 하였다. 부현(傅玄)이 말하기를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의 모양이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의 모양이며, 가운데가

빈 것은 육합(六合)에 준하고, 현의 기둥은 12월에 비겼으니, 이것은 인(仁)과 지(智)의 기구이다." 하였다. 완우(阮瑀)가 말하기를 "쟁(箏)은 길이가 6자이니 음률수(音律數)에 응한 것이며, 현이 12개 있음은 사시(四時)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둥(柱)의 높이가 3치인 것은 3재(才)를 상징한 것이다." 하였다. 가야금은 비록 쟁과 제도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유사하다.

新羅古記 加耶国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国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後于勒以其国將亂 携樂器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国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 傳其業 三人既傳十一曲 相謂曰 此繁且淫 不可以為雅正 遂約為五曲 于勒始聞焉而怒 及聽其五種之音 流淚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爾其奏之王前 王聞之大悅 諫臣獻議 加耶亡国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盖聖人制樂 緣人情以為撙節 国之理亂 不由音調 遂行之 以為大樂 …(중략)… 干校勘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신라고기(新羅古記)』에서 이르기를 "가야국(加耶國)의 가실왕(嘉實王)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기 다르니 음악이 어찌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 하며, 이에 성열현 사람 악사 우륵에게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후에 우륵이 그 나라가 어지러워져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귀부하였다. 왕이 받아들여서 국원에 편안히 두었다. 그리고 대나마 주지(注知)·계고(階古)·대사 만덕(萬德)을 보내어 그 기예를 전수받게 했다. 세 명이 이미 12곡을 전해 받고 서로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번다하고 또 음란해서 우아하고 바르다고 할 수 없다.' 하고, 마침내 5곡으로 요약하였다. 우륵(于勒)이 처음 듣고 화를 냈지만 그 다섯 곡의 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즐거움이 넘치지 않고, 애절하면서 슬프지 않으니, 가히 바르다고 할 수 있다. 너희는 왕의 앞에서 그것을 연주하라.' 하였다. 왕이 듣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간신(諫臣)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것이 못됩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加耶王)이 음란하여 자멸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는가. 대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하는 것은 인정에 연유하여 법도(節)를 따르도록 하게 한 것이니, 나라의 다스려짐(理)과 어지러움은 음악의 곡조(音調)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마침내 그 곡을 연주하게 하고, 대악(大樂)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력)… 우륵(于勒)이 지은 12곡은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都),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已),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째 사팔혜(沙八兮), 열한째 이사(爾赦), 열두째 상기물(上奇物)이다.

사료3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 **『慶尙道地理志』** 晉州道

伽倻國嘉悉王 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之律命于勒 製其曲 及國亂 于勒操樂器 授新羅 今之伽倻琴是也.

가야국 가실왕이 열두 줄[絃]의 고[琴]를 만들어 열두 달의 음율을 상징하고, 우륵에게 명하여 그 곡을 짓도록 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우륵이 악기를 가져다가 신라에 주었으니, 지금[조선]의 가야금이 이것이다.

사료4 **『삼국사절요』** 권6 신미 | **『三國史節要』** 卷六 辛未

〈辛未〉〈梁大寶二年 新羅法興王二十五年 高句麗陽原王七年 百濟聖王二十九年〉 三月 新羅王如娘城 召見于勒及其弟子尼文于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河臨嫩竹二調 奏之. 調共一百八十五曲. 先是 伽倻國王嘉悉 法唐樂部箏 而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 乃以諸國方言各異聲音難一 命樂師于勒 造十二曲 曰下加都 曰上加羅都 曰寶伎 曰達已 曰思勿 曰勿慧 曰下奇物 曰師子伎 曰居烈 曰沙八兮 曰爾赦 曰上奇物 尼文所製 亦有三曲 曰烏 曰鼠 曰鶉.
後于勒知其國將亂 携樂器 投新羅. 王置之國原.

〈신미〉〈양 대보(大寶) 2년(551년), 신라 진흥왕 12년, 고구려 양원왕(陽原王) 7년, 백제 성왕 29년〉 3월에 신라왕이 낭성에 가서 우륵과 그의 제자 니문을 하림궁으로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하림조(河臨

調)와 눈죽조(嫩竹調)를 만들어 연주하였는데 그 곡조가 모두 185곡이었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왕 가실(嘉悉)이 중국[唐] 악부의 쟁(箏)을 본떠서 십이현금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두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어 [가실은] 여러 나라의 말이 각기 달라서 소리를 통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악사인 우륵에게 12곡을 만들게 하였는데, 하가도(下加都), 상가라도(上加羅都), 보기(寶伎), 달이(達已), 사물(思勿), 물혜(勿慧), 하기물(下奇物), 사자기(師子伎), 거열(居烈), 사팔혜(沙八兮), 이혁(爾赦), 상기물(上奇物)이다. 니문이 만든 것도 세 곡이 있는데 오(烏), 서(鼠), 순(鶉)이다. 후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는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는데, 진흥왕이 그를 국원(國原)에 머무르게 하였다.

사료5 **『동국통감』권5 삼국기 신라 신미 | 『東國通鑑』卷五 三國紀 新羅 辛未**

〈辛未〉〈梁大寶二年 新羅法興王二十五年 高句麗陽原王七年 百濟聖王二十九年〉三月 新羅王如娘城 召見于勒及其弟子尼文于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河臨嫩竹二調 奏之 調共一百八十五曲. 先是 伽倻國王嘉悉 法唐樂部箏而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 乃以諸國方言各異聲音難一 命樂師于勒 造十二曲 曰下加都 曰上加羅都 曰寶伎 曰達已 曰思勿 曰勿慧 曰下奇物 曰師子伎 曰居烈 曰沙八兮 曰爾赦 曰上奇物. 尼文所製 亦有三曲 曰烏 曰鼠 曰鶉. 後于勒等知國將亂 携樂器 投新羅. 王置之國原.

〈신미〉〈양 대보(大寶) 2년(551년), 신라 진흥왕 12년, 고구려 양원왕 7년, 백제 성왕 29년〉 3월에 신라왕이 낭성에 가서 우륵과 그의 제자 니문을 하림궁에서 불러 보고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를 만들어 연주하였는데 그 곡조가 모두 185곡이었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왕 가실(嘉悉)이 중국[唐] 악부(樂部)의 쟁(箏)을 본떠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두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여러 나라의 말이 각기 달라서 소리를 통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악사인 우륵에게 12곡을 만들게 하였는데, 하가도(下加都), 상가라도(上加羅都), 보기(寶伎), 달이(達已), 사물(思勿), 물혜(勿慧), 하기물(下奇物), 사자기(師子伎), 거열(居烈), 사혜(四八兮), 이혁(爾赦), 상기물(上奇物)이다. 니문이 만든 것도 세 곡이 있는데 오(烏), 서(鼠), 순(鶉)이다. 후에 우륵 등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는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는데, 진흥왕이 그들을 국원(國原)에 머무르게 하였다.

사료6 **『동국사략』권4 신미 | 『東國史略』卷四 辛未**

〈辛未〉眞興王十一年〈梁預章王大正元年〉春三月 王如娘城 王聞于勒及其弟子尼文曉音律特召之 引見河臨宮 令奏樂 二人製河臨·嫩竹二調 奏之 先是 伽耶國嘉悉王時 法唐之樂部箏 而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 嘉悉以謂 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來投 王置之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 大舍萬德 傳其業 三人旣傳十二曲相謂曰 此繁且淫 不雅正 遂約爲五曲 于勒始聞而怒 及聽終 流涕嘆曰 樂而不流 哀而不悲可謂正也 爾其奏之王前 王聞之 大悅 諫臣獻議 伽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伽耶王淫 亂自滅 於琴何有 遂用之 因名加耶琴.

〈신미(辛未)〉 진흥왕 11년(551년) 〈양 예장왕 대정(大正) 원년〉 봄 3월 왕이 낭성에 갔다. 〈왕은 우륵과 그 제자인 니문이 음률에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하림궁으로 불러 만나보고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 가실왕(嘉悉王) 때 중국[唐] 악부(樂部)의 쟁(箏)을 본떠서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는데 열두 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가실이 말하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方言)이 서로 다르니 성음(聲音)을 어찌 똑같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성열현(省熱縣) 사람인 악사(樂師) 우륵으로 하여금 12곡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후에 우륵이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 질 것이라 여기고서 악기를 가지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를 국원(國原)에 두고는 대나마(大奈麻)인 주지(注知)와 계고(階古) 그리고 대사(大舍)인 만덕(萬德)을 보내 그 업(業)을 전수하게 하였다. 세 사람이 이미 12곡을 전수받고는 서로 말하기를, "이 곡들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단아하고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이 곡들을] 요약하여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이것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으나 다 듣고서는 눈물 흘리며 감탄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바르다[正]고 할 만 하다. 너희들은 그것을 임금 앞에서 연주하여라." 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서 크게 기뻐하였다. 간하는 신하가 의견을 올려 아뢰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 라고 하였으나,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금(琴)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 하고는, 마침내 수용하고, 때문에 이름을 가야금(伽耶琴)이라고 하였다〉

사료7 **『표제음주동국사략』 권3 신라 | 『標題音註東國史略』 卷三 新羅**

眞興王十二年 三月 王與娘城 〈未詳〉 召見于勒其弟子尼文于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河臨嫩竹二調 奏之 先是 伽倻國王嘉悉 法唐樂部箏 而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 乃以諸國方言各異 聲音難一 命樂師于勒 造十二曲 其後于勒等知國亂 携樂器來投 王置之國原 卽今忠州. 命法知 · 階古 · 萬德等 學樂. 業成 奏之 王大悅 原賞焉. 諫者曰 加倻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伽倻王淫亂自滅 於樂何有. 盖聖人制樂 緣人情以爲節. 國之理亂 不由音調. 遂用 名其琴曰伽倻.

진흥왕 12년(551년) 왕이 낭성〈알 수 없다〉에 가서 우륵과 그의 제자 니문을 하림궁에서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두 사람이 하림조와 눈죽조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왕 가실이 중국[唐] 악부(樂部)의 쟁(箏)을 본떠 십이현금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두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어 여러 나라의 말이 각기 달라서 소리를 통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악사인 우륵에게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그 후에 우륵 등은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투항하였다. 진흥왕이 그들을 국원〈곧, 지금[조선]의 충주이다〉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리고 법지(法知), 계고(階古), 만덕(萬德) 등으로 하여금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학업이 이루어져 이를 연주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상을 후하게 내렸다. 간(諫)하는 자가 아뢰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 라고 하였으나, 왕이 "가야왕이 음란(淫亂)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음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음악을 제정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끌어내어 법도를 따르게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잘못 다스려지는 것은 음악의 곡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가야의 음악을] 사용하였고, 그 금(琴)의 이름을 가야(伽倻)라 하였다.

사료8 **『지봉유설』 권18 기예부 음악 | 『芝峯類說』 卷十八 技藝部 音樂**

新羅時 伽倻國王 法唐樂府箏 製十二絃琴 名曰伽倻 盖今所謂伽倻琴. 卽是俗傳崔孤雲所造 非.

신라 때, 가야국왕이 당나라 악부(樂府)의 쟁을 본떠 십이현금을 만들고서 이름을 가야(伽倻)라고 하였으니, 대개 지금[조선] 가야금(伽倻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속설에 최고운(崔孤雲)이 만들었다고 전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료9 **『동국여지지』 권4 下 고령현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高靈縣**

琴谷. 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秦箏而製琴 號伽倻琴 懸北三里 有地名琴谷 世傳 勒率工人肄琴之地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代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금곡(琴谷). 〈가야국 가실왕의 악사(樂師) 우륵이 중국의 진나라의 쟁(箏)을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현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금곡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료10 **『기언』 권33 외편 동사2 대가야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大伽倻**

或傳嘉悉時 有伶人于勒 學奏箏 作十二絃琴云.

어떤 전설에는 가실(嘉悉) 때에 영인(伶人) 우륵이 진나라의 쟁을 본떠 십이현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사료11 『성호사설』 권4 만물문 가야금 | 『星湖僿說』 卷四 萬物門 伽倻琴

新羅眞興王時 伽倻國王嘉悉 法唐樂部箏 而制十二絃琴以象十二月 其樂師于勒 知國將亂 携樂器投新羅 名其琴曰伽倻琴.

신라 진흥왕 때 가야국왕 가실은 당나라 악부의 쟁을 본떠 십이현금을 만들었는데, 열두 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악사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서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 금(琴)을 가야금(伽倻琴)이라고 이름하였다.

사료12 『수산집』 권11 동사 세가 가야세가 | 『修山集』 卷十一 東史 世家 伽倻世家

後世有嘉悉王者妙解音律 製十二絃琴 以象十二月 其法祖中國樂部箏 而以華東方言之各異 而聲音之難一也 命樂師于勒 更造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爾赦 十二上奇物 勒弟子泥文所製 又三曲 一烏 二鼠 三鶉. 後更爲河臨·嫩竹二調 調共一百八十五曲. 今世所傳伽倻琴 是也. 後勒等知國將亂 抱樂器投新羅.

후대에, 가실왕이 음율을 신묘하게 풀어서 12현금을 제작하였는데, 12달을 본뜬 것이다. 이것은 중국 악부의 쟁을 본떠서 만든 것이나, 중국과 우리 나라의 말은 서로 달라서 성음이 어렵기는 한가지였다. 악사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다시 만들도록 하였다.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都),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已),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 번째 사팔혜(沙八兮), 열한 번째 이사(爾赦), 열두 번째 상기물(上奇物)이다. 우륵의 제자 이문(泥文)이 또 세 곡을 만들었는데, 첫째가 까마귀(烏), 둘째가 쥐(鼠), 셋째가 메추라기[鶉]다. 뒤에 다시 하림(河臨)·눈죽(嫩竹)의 두 음조를 만들었는데, 음조는 모두 185곡이었다. 지금 세상에 전하는 가야금이 바로 이것이다. 뒤에 우륵 등은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임을 알고는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사료13 『동사강목』 제3 상1 삼국 | 『東史綱目』 第三 上一 三國

[辛未]〈新羅眞興王十二年 高句麗陽原王七年 百濟聖王二十九年〉 加耶樂師于勒 投新羅.

初加耶王嘉悉 見唐樂部有箏 以爲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倣箏製十二絃琴 象十二月之律. 乃命樂師省熱縣今夫詳人于勒 造下伽倻·上伽倻等十二曲. 名曰加耶琴. 至是 勒以其國國將亂 携樂器 投新羅. 王巡次娘城今青州府聞于勒及其弟子尼文 知音樂 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家奏之. 王喜 置之國原今忠州府. 命大奈麻法知·階古·大舍萬德等三人 傳其業. 勒量其能而教之 教階古以琴 法知以歌 萬德以舞. 三人旣傳十二曲 相謂曰 此聲繁淫不可以爲雅正 遂約爲五曲. 勒始聞而怒 及聽其五種之音 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業成奏之. 王大悅而厚賞焉. 諫臣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聖仁制樂 緣人情以爲樽節. 國之理亂 不由音調. 乃行之以爲大樂. 有河臨·嫩竹二調 共百八十五曲.

[신미]〈신라 진흥왕 12년(551년), 고구려 양원왕 7년, 백제 성왕 29년〉 가야의 악사 우륵이 신라에 망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왕 가실이 당나라 악부에 쟁(箏)이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기 다르니 음악이 어찌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쟁을 본떠 십이현금을 만들어 열두 달의 음률을 상징하였다. 이에 성열현 사람인 악사 우륵에게 명하여 하가야(下伽倻), 상가야(上伽耶) 등 12곡을 만들게 하고는 가야금(加耶琴)이라고 이름붙였다. 이 때에 우륵은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라 여겨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왕이 낭성〈지금[조선]의 청주부(靑州府)〉을 순행하다가 우륵과 그 제자 니문이 음악을 안다는 것을 듣고는 하림궁에 머물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두 사람이 각기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왕이 기뻐서 이들을 국원〈지금의 충주부(忠州府)〉에 두게 하고는, 대나마(大奈麻) 법지(法知), 계고(階古)와 대사(大舍) 만덕

(萬德) 등 세 사람에게 그 업을 전하게 하였다.

우륵이 그 재주에 따라 계고에게는 금(琴)을, 법지에게는 노래[歌]를, 만덕에게는 춤[舞]을 가르쳤다. 학업이 성취되어 연주하게 하자, 왕이 “이전에 낭성에서의 소리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고는 상을 후하게 내렸다. 세 사람이 12곡을 전수받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 음악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단아하지 않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줄여서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처음에 듣고서 화를 냈으나 다 듣고 나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바르다[正]고 할만하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연주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간하는 자가 아뢰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금(琴)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음악을 제정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끌어내어 법도를 따르게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잘못 다스려지는 것은 음악의 곡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이를 시행하여 대악(大樂)으로 삼았다. 눈죽조와 하림조가 있으며 모두 185곡이다.

사료14 『영남읍지』 제15책 고령현읍지 | 『嶺南邑誌』 第十五册 高靈縣邑誌

肄琴 伽倻國嘉悉王 樂師于勒 象中國奏箏製琴 號伽倻琴 于勒率工人肄琴 或云 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 但金海伽倻 世無稱嘉悉王者 恐出於此爲是 縣北有肄琴谷.

이금(肄琴) 〈가야국 가실왕의 악사 우륵이 중국의 진쟁(秦錚)을 본떠서 고[琴]를 만들고 가야금(伽倻琴)이라 불렀다. 우륵이 공인(工人)들을 이끌고 [가야]금을 익혔다. 혹은 말하기를 “이 [가야]금은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해의 가야에는 역대 왕 중에 가실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 북쪽에 이금곡(肄琴谷)이 있다〉

사료15 『증보문헌비고』 권95 악고6 악기1 사지속 속부 | 『增補文獻備考』 卷九十五 樂考六 樂器一 絲之屬 俗部

伽倻琴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風俗通曰 箏奏聲也 釋名曰 箏施絃高箏箏然 幷梁二州 箏形如瑟.

가야금도 역시 중국 악부의 쟁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었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쟁은 진성(秦聲)이다.” 라고 하였다.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쟁은 현을 높이 설치하여 쟁쟁하며, 병주(幷州)와 양주(梁州)의 쟁은 모양이 큰 고[瑟]와 같다.”

사료16 『증보문헌비고』 권95 악고6 악기1 사지속 속부 | 『增補文獻備考』 卷九十五 樂考六 樂器一 絲之屬 俗部

伽倻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 諸國方言 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晩德傳其業 三人旣傳十二曲 相謂曰此繁且淫 不可以爲雅正 遂約爲五曲 于勒始聞焉而怒 及廳其五種之音 流淚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爾其奏之王前 王聞之大悅 諫臣獻議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蓋聖人制樂 緣人情以爲撙節 國之理亂 不由音調 遂行之以爲大樂. 伽倻琴有二調 一河臨調 二嫩竹調 共一百八十五曲.

가야국 가실왕(嘉實王)이 중국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서 만들었다. 왕이 생각하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기 성음이 다르니 어찌 하나로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서, 성열현 사람인 악사 우륵에게 명하여 열두 곡을 만들게 하였다. 뒤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악기를 가지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왕이 받아들이고 국원(國原)에 안치하였다. 그리고는 대나마(大奈麻) 주지(注知)와 계고(階古), 대사(大舍) 만덕(萬德)을 보내어 그 업을 전하게 하였다. 세 사람이 십이곡을 전수받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들은 번다하고 음란하다.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서로 약속하여 다섯 곡을 만들었다. 우륵은 처음에 듣고서 매우 노하였으나, 그 다섯 종류의 음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흐르지 않고, 애처로우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가히 올바른 것이라고 할 만하다. 너희들은 왕 앞에 나아가 연주하도록 하

라."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서 매우 기뻐하였다. 간(諫)하는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기를, "가야 같은 망한 나라의 음악은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가야는 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개 성인이 음악을 만드신 것은 사람의 정에 따라 마디를 누르고자 함이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못 다스려지고는 음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것을 행하여 대악(大樂)으로 삼았다. 가야금에는 두 가지 음조가 있으니, 하나는 하림조(河臨調)이고, 다른 하나는 눈죽조(嫩竹調)이다. 모두 185곡이다라고 하였다.

사료17 **『증보문헌비고』 권95 악고6 악기1 사지속 속부 | 『增補文獻備考』卷九十五 樂考六 樂器一 絲之屬 俗部**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泥文所製三曲 一曰烏 二曰鼠 三曰鶉.

우륵이 만든 12곡은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都),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已),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번째 사팔혜(沙八兮), 열한번째 이사(爾赦), 열두번째 상기물(上奇物)이다. 이문(泥文)이 지은 세 곡은 첫째가 까마귀(烏), 둘째가 쥐(鼠), 셋째가 메추라기[鶉]이다.

造法 伽倻琴之制 以銅木爲之 粧飾木及染尾與玄琴同凡粧飾等 具不用膠付羊耳頭 則揷於尾端擔棵支於絃端 凡十二絃 武絃縚大 至五短音 漸次而細柱 亦漸次而低 按法 以左手食長名三指拘把 母小二指按之 彈法 以右手母食長三指 遞用彈之 用雙絃法 必併彈一律之絃 如以母指彈宮絃則以長指併彈下五絃 以母指彈上二絃則以長指併彈下三絃之類 〈先用長指次用母指〉 彈絃 用食長兩指則自外句之 用母指則自內句之 合字之法 於第八絃用母指 於第三絃用長指 同彈則作八亅 於第九絃用母指 於第四絃用長指 同彈則作九亅 以食指只彈第七絃則作七人 以長指只彈第五絃則作五亅 以母指只彈第十二絃則作㐀 於第一絃用無名指 於第三絃用食指 一時挑之則作𡿨三 〈他指他絃倣此〉

만드는 방법[造法] 가야금을 만드는 것은 오동나무[銅木]로 한다. 장식목(粧飾木)과 염미(染尾)는 현금(玄琴)과 같다. 무릇 장식구(粧飾具) 등은 아교를 쓰지 않고 붙인다. 양이두(羊耳頭)는 미단(尾端)에 삽입하며, 담괘(擔棵)는 현단(絃端)에 괸다. 12줄은 무현(武絃)이 조금 큰데, 오단(五短)에 이르기까지 음(音)이 점차 가늘어지며 기둥도 또한 점차 낮아진다. 누르는 방법[按法]. 왼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을 구부려 잡고, 첫째, 다섯째 손가락으로 누른다. 연주 방법[彈法]. 오른손 첫째, 둘째, 셋째의 세 손가락을 번갈아 사용하여 탄다. 쌍현(雙絃)을 사용하는 방법. 반드시 하나의 율(律)의 현을 함께 연주한다. 즉 만약 첫째 손가락[母指]으로 궁현(宮絃)을 연주한다면 셋째 손가락(長指)으로는 하오현(下五絃)을 함께 연주한다든지, 첫째 손가락으로 상이현(上二絃)을 연주한다면 셋째 손가락으로는 하삼현(下三絃)을 연주하는 식이다. 〈먼저 셋째 손가락을 사용하고 다음에 첫째 손가락을 사용한다〉 현을 타는 것은 둘째, 셋째 손가락을 쓸 때는 밖으로부터 당기며, 첫째 손가락을 쓸 때는 안으로부터 당긴다. 합자법[合字之法]. 제8현에 첫째 손가락을 쓰고 제3현에 셋째 손가락을 써서 동시에 연주하면[八亅]라고 쓴다. 제9현에 첫째 손가락을 쓰고 제4현에 셋째 손가락을 써서 동시에 연주하면[九亅]라고 쓴다. 둘째 손가락으로 제 7현만 연주하면[七人]라고 쓴다. 셋째 손가락으로 제5현만 연주하면[五亅]라고 쓴다. 첫째 손가락으로 제12현만 연주하면[㐀]라고 쓴다. 제1현에 넷째 손가락을 쓰고 제3현에 둘째 손가락을 써서 일시에 튕기면[挑][𡿨三]라고 쓴다.〈다른 손가락, 다른 줄도 이를 본뜬다〉

552년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하다

사료1 **『일본서기』권19 흠명 13년 5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十三年 五月**

〈十三年〉五月戊辰朔乙亥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劦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并勢 謀滅臣国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詔曰 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 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狀聞訖 亦宜共任那 并心一力 猶尙若玆 必蒙上天擁護之福 亦賴可畏天皇之靈也.

〈13년(552년)〉 5월 무진 초하루 을해 백제·가라·안라가 중부덕솔목례금돈·가후치베노아시히타[河內部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고려가 신라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조를 내려 "지금 백제왕·안라왕·가라왕이 야마토노미코토모치[日本府]의 신하들과 함께 사신을 보내 아뢴 것을 다 들었다. 역시 임나와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하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지켜주는 복을 받을 것이며 황공하신 천황의 영령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552년 진흥왕이 계고 등에게 우륵의 음악을 배우게 하다

사료1 **『삼국사기』신라본기 제4 진흥왕 13년 |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三年**

十三年 王命階古法知萬德三人 學樂於于勒 于勒量其人之所能 敎階古以琴 敎法知以歌 敎萬德以舞 業成 王命奏之 曰 與前娘城之音無異 厚賞焉.

13년에 왕이 계고(階古)·법지(法知)·만덕(萬德) 세 명에게 명하여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륵은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서 계고에게는 가야금(加耶琴)을 가르쳤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쳤으며,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학업이 끝나자 왕이 그들에게 연주하게 하고, 말하기를 "예전에 낭성(娘城)에서 들었던 음과 다름이 없다."라 하고 상을 후하게 주었다.

사료2 **『삼국사절요』권6 임신 | 『三國史節要』卷六 壬申**

〈壬申〉〈梁元帝承聖元年 新羅眞興王十三年 高句麗陽原王八年 百濟聖王十三年〉新羅王命法知階古萬德等三人學樂於于勒 于勒因其材 敎階古以琴 法知以歌 萬德以舞 業成 奏之 王曰 與前娘城之音 無異 乃厚賞焉 三人旣傳十二曲 相謂曰 此樂繁淫不雅 遂約爲五曲 于勒始聞而怒 及聽終 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已遂奏之 王大悅 諫者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於琴何有 盖聖人制樂 緣人情以爲節 國之理亂 不曲音調 遂用之 名其琴曰伽耶.

〈임신(壬申)〉〈양 원제 승성 원년(552년), 신라 진흥왕 13년, 고구려 양원왕 8년, 백제 성왕 13년〉 신라왕이 법지(法知), 계고(階古), 만덕(萬德) 등 세 사람에게 명하여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우륵이 그 재주에 따라 계고에게는 금[琴]을, 법지에게는 노래[歌]를, 만덕에게는 춤[舞]을 가르쳤다. 학업이 성취되어 연주하게 하자, 왕이 "이전에 낭성(娘城)에서의 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는 상을 후하게 내렸다. 세 사람이 12곡을 전수받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 음악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단아하지 않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줄여서 다섯 곡으로 만

들었다. 우륵이 처음에 듣고서 화를 냈으나 다 듣고 나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바르다[正]고 할만하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왕 앞에서] 연주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간(諫)하는 자가 아뢰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 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금(琴)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음악을 제정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끌어내어 법도를 따르게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잘못 다스려지는 것은 음악의 곡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그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 금(琴)을 가야금(加耶琴)이라고 이름지었다.

사료3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임신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壬申**

〈壬申〉〈梁元帝承聖元年 新羅眞興王十三年 高句麗陽原王八年 百濟聖王十三年〉新羅王命法知階古萬德等三人學樂於于勒 于勒因其材 教階古以琴 法知以歌 萬德以舞 業成 奏之 王曰 與前娘城之音 無異 乃厚賞焉 三人旣傳十二曲 相謂曰 此樂繁淫不雅 遂約爲五曲 于勒始聞而怒 及聽終 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已遂奏之 王大悅 諫者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於琴何有 盖聖人制樂 緣人情以爲節 國之理亂 不曲音調 遂用之 名其琴曰伽耶.

〈임신(壬申)〉〈양(梁) 원제 승성 원년(552년), 신라 진흥왕 13년, 고구려 양원왕 8년, 백제 성왕 13년〉 신라왕이 법지(法知), 계고(階古), 만덕(萬德) 등 세 사람에게 명하여 우륵(于勒)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우륵(于勒)이 그 재주에 따라 계고에게는 금(琴)을, 법지에게는 노래[歌]를, 만덕에게는 춤[舞]을 가르쳤다. 학업이 성취되어 연주하게 하자, 왕이 “이전에 낭성(娘城)에서의 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는 상을 후하게 내렸다. 세 사람이 12곡(曲)을 전수받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 음악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단아하지 않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줄여서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처음에 듣고서 화를 냈으나 다 듣고 나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바르다[正]고 할만하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왕 앞에서] 연주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간(諫)하는 자가 아뢰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금(琴)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음악을 제정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끌어내어 법도를 따르게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잘못 다스려지는 것은 음악의 곡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그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 금(琴)을 가야금(加耶琴)이라고 이름지었다.

사료4 **『동국사략』 권4 임신 | 『東國史略』 卷四 壬申**

〈壬申〉 十二年 梁承聖元年 命學樂調 〈王命階古法知萬德三人 學樂於于勒 勒量其所能 教階古以琴 法知以歌 萬德以舞 業成 奏之 王曰 與前所聞娘城之音無異 厚賞焉〉

〈임신〉 [진흥왕] 12년(552년) 〈양 승성(承聖) 원년〉 악조(樂調)를 배울 것을 명하였다. 〈왕은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 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륵에게서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우륵이 그들의 재능을 살피고서 계고에게는 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舞]을 가르쳤다. 학업을 이루고서 연주하자 왕이 말하기를, “이전에 낭성(娘城)에서 들었던 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는 후하게 상을 주었다〉

사료5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壬申 新羅眞興王開國二年 高句麗陽原王七年 百濟聖王二十九年 梁元帝承聖元年〉 初加耶盖〈阿羅加耶〉 王嘉悉法中國樂部箏 而製十二絃琴 命樂師于勒 造十二曲 後勒等知國將亂 携樂器 投新羅. 羅王當〈是法興王置〉之國原〈今忠州〉 去年 羅王幸娘城清州 召見勒及其弟子尼文 于河臨宮娘城亦置京歟 令奏其樂 二人各製河臨嫩竹二調 奏之 至是 王命法知階古萬德等學樂於勒 勒因其材 教階古以琴 法知以歌 萬德以舞 三人旣傳十二曲 相謂曰 此樂繁淫不雅 乃約爲五曲 勒始聞而怒 及聽終 歎曰 正聲也 遂奏之 王大悅 諫者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

淫亂自滅 樂何罪乎 遂用之 名其琴曰加耶 凡羅之樂有三絃 一玄琴 二加耶琴 三琵琶 三竹 一大笒 二中笒 三小笒.
按 此加耶或認爲大加耶 然以加耶亡國之文 觀之 明是指阿羅加耶 若大加耶則 在此時何嘗亡耶.

〈임신 신라 진흥왕 개국(開國) 2년, 고구려 양원왕 7년, 백제 성왕 29년, 양 원제 승성 원년(552년)〉 이보다 앞서, 가야〈아라가야(阿羅加耶)〉왕 가실(嘉悉) 때 중국 악부(樂部)의 쟁(箏)을 본떠서 12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다. [가실왕이] 우륵(于勒)에게 12곡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우륵이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서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신라왕〈이는 법흥왕이다〉이 그를 국원(國原)〈지금[대한제국]의 충주〉에 두었다. 이보다 전 해(551년)에, 신라왕이 낭성〈청주〉에 행차하였다가, 우륵과 그 제자인 니문을 하림궁(河臨宮)〈낭성에도 서울을 설치하였는가?〉으로 불러 만나보고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각각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왕이 법지(法知), 계고(階古), 만덕(萬德) 등에게 명하여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륵이 그 재주를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세 사람이 이미 12곡을 전수받고는 서로 말하기를, "이 음악은 번잡하고 음란하여 단아하지 못하다." 하고는, 마침내 [이 곡들을] 요약하여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이것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으나 다 듣고는, "바른 소리[正聲]로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이 음악을] 연주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간(諫)하는 신하가 말하기를, "가야의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취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인데 음악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곡을] 수용하고, 그 금(琴)을 가야[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무릇 신라의 악기에는 삼현(三絃)이 있으니, 첫째 현금(玄琴), 둘째 가야금(加耶琴), 셋째 비파(琵琶)이며, [또] 삼죽(三竹)이 있으니, 첫째 대금(大笒), 둘째 중금(中笒), 셋째 소금(小笒)이다. 살펴보건대, 여기 가야는 혹 대가야인줄 알았다. 그러나 '가야의 나라를 망친'이라는 문구를 보면, 분명 이는 아라가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만약 대가야라면, 이 때에 어찌 이렇게 일찍 망하였겠는가?

553년 7월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4년 7월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四年 七月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湌武力爲軍主.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湌) 무력(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았다.

553년 신라와 고구려가 공모하여 백제와 가야를 침략하려는 것을 일본에 알리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4년 8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十四年 八月

八月辛卯朔丁酉 百濟遣上部奈率科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 上表曰 去年臣等同議 遣內臣德率次酒任那大夫

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 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狛国通謀云 百濟與任那 頻詣日本 意謂是乞軍兵 伐我国歟 事若實者 国之敗亡 可企踵而待 庶先日本軍兵 未發之間 伐取安羅 絶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玆深懐危懼 卽遣疾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逮于秋節 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晩者 噬臍無及矣 所遣軍衆 來到臣国 衣糧之費 臣當充給 來到任那 亦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充 令無乏少 別的臣敬受天勅來撫臣蕃 夙夜乾乾 勤修庶務 由是 海表諸蕃 皆稱其善 謂當萬歲 肅淸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 誰可修治 伏願 天慈速遣其代 以鎭任那 又復海表諸国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禦强敵 伏願 天慈多貺弓馬

8월 신묘 초하루 정유에 백제가 상부의 나솔 과야신라[科野新羅], 하부의 고덕 문휴대산[汶休帶山] 등을 보내 표를 올려 "지난 해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내신 덕솔 차주[次酒]·임나 대부 등을 보내 바다 밖 여러 미야케[彌移居]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엎드려 은혜로운 조칙을 기다리기를 봄에 돋은 풀이 단비를 기다리듯 하였습니다. 올해 문득 들으니 신라가 맥국[고구려]과 함께 모의하여 '백제와 임나가 자주 야마토에 나아가니, 생각건대 군사를 빌려 우리나라를 치려는 듯하다.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은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야마토의 군대가 떠나기 전에 안라를 공격해 빼앗아 일본과의 통로를 끊자.'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이 이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깊이 품었습니다. 바로 빠른 배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룁니다. 천황께서 빨리 전군(前軍)과 후군(後軍)을 보내 서로 이어 와서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가을까지는 바다 밖 미야케[彌移居]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만약 지체하여 늦는다면 배꼽을 깨물려해도 입이 닿지 않는 격이 됩니다. 보낸 군대가 신의 나라에 도착하면 옷과 식량은 신이 마땅히 공급할 것이고, 임나에 도착하여도 다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임나(任那)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신이 도와 충당하여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쿠하노오미[的臣]가 삼가 천황의 칙을 받들고 와서 신의 나라를 위로하고 일찍부터 늦게까지 쉬지 않고 모든 일에 힘썼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나라가 모두 그의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하여 '틀림없이 영원히 바다 밖을 깨끗이 할 것이다.'라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죽었다 하니 깊이 추모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임나의 일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천황께서 속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 임나를 진정시키기 바랍니다. 또 바다 밖의 나라들은 활과 말이 매우 부족한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천황에게 받아 강한 적을 막았으니, 천황께서 활과 말을 많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554년 1월 백제가 왜에 원군을 요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15년 1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十五年 一月**

[十五年春正月] 丙申 百濟遣中部木刕施德文次前部施德曰佐分屋等於筑紫 諮內臣佐伯連等曰 德率次酒杆率塞敦等 以去年閏月四日到來云 臣等〈臣等者謂內臣也〉 以來年正月到 如此導而未審 來不也 又軍數幾何 願聞若干 預治營壁 別諮 方聞 奉可畏天皇之詔 來詣筑紫 看送賜軍 聞之歡喜 無能比者 此年之役 甚危於前 願遣賜軍 使逮正月 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 · 馬一百匹 · 船卌隻.

15년(554년) [봄 정월 무자 초하루] 병신에 백제가 중부의 목례 시덕 문차, 전부의 시덕 왈좌분옥 등을 쓰쿠시[筑紫]에 보내 우치노오미[內臣]·사헤키노무라지[佐伯連] 등에게 묻기를 "덕솔차주·간솔 새돈 등이 지난 해 윤달 4일에 와서 '신 등은〈신 등은 우치노오미[內臣]을 말한다〉 내년 정월에 도착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뿐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또 군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약간이나마 들어 미리 군영을 쌓고자 합니다."라 하였다. 또 따로 "이제 들으니 '황공하옵신 천황의 조를 받들어 쓰쿠

시[筑紫]에 나와서 보내줄 군대를 살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쁨은 이루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해의 싸움은 전보다 매우 위태로우니 보내줄 군대를 정월에 도착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우치노오미[內臣]가 명령을 받들어 "바로 도와줄 군대 1천, 말 1백필, 배 40척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54년 12월 백제 성왕이 전사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5년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五年

百濟王明襛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飡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于校勘 都刀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백제의 왕인 명농(明襛)이 가량(加良)과 함께 와서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하였다. 군주(軍主)인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飡) 탐지(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新州)의 군주인 김무력(金武力)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高干) 도도(都刀)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서 좌평 네 명과 군사 2만9천6백명의 목을 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사료2 『일본서기』 권19 흠명 15년 12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十五年 十二月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国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国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并以奏聞 今事方急 單船遣奏 但奉好錦二匹㲪㲢一領斧三百口 及所獲城民 男二女五 輕薄追用悚懼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国 有何懼也 遂入新羅国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玆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国中兵 斷道擊破 是時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 已而苦都 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国法 違背所盟 雖曰国王 當受奴手一本云 明王乘踞胡床解授佩刀於谷知令斬 明王仰天 大息涕泣 許諾曰 寡人每念 常痛入骨髓 顧計不可苟活 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殺掘坎而埋一本云 新羅留理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埋明王骨於北廳階下 名此廳曰都堂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遑駭 不知所圖 有能射人 筑紫国造 進而彎弓 占擬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 發箭之利 通所乘鞍前後橋 及其被甲領會也 復續發箭如雨 彌厲不懈 射却圍軍 由是 餘昌及諸將等 得從間道逃歸 餘昌讚国造射却圍軍尊而名曰鞍橋君鞍橋 此云矩羅膩 於是 新羅將等 具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 以任那事屢責吾国 況復謀滅百濟官家 必招後患 故止之.

겨울 12월 백제가 하부의 간솔 문사간노를 보내 표를 올려 "백제왕 신 명(明)과 안라에 있는 왜신들, 임나 여러 나라의 旱岐들은 아뢰니다. 사라(斯羅)가 무도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구려[狛]과 마음을 함께 하여 바다 북쪽의 미야케[彌移居]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유지신(有至臣) 등을 보내 우러러 군사를 청해 사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천황께서 유지신을 보내시니, 군사를 거느리고 6월에 왔

으므로 신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12월 9일에 사라를 공격하러 보내면서, 신이 먼저 동방령(東方領)인 모노노베노마가무노무라지[物部莫奇武連]를 보내 자기 방(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산성(函山城)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유지신이 데리고 온 백성 죽사(竹斯) 모노노베노마가와사카[物部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천황의 위령의 도움을 받아 이 달 9일 유시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으므로 한 사람의 사신을 빠른 배로 보내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따로 아뢰기를 "만약 신라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맥(狛)이 사라와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하였으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죽사도에 있는 군사들을 빨리 보내, [그들이] 와서 신의 나라를 돕고 또 임나를 돕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또 "신이 따로 군사 만 명을 보내 임나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뢰니다. 이번 일이 매우 급하여 한 척의 배를 보내 아뢰며, 단지 좋은 비단 2필, 탑등(毾㲪) 1령(領), 도끼 300구, 사로잡은 성의 백성 남자 둘과 여자 다섯을 바칩니다. [보낸 물건이] 적어 송구합니다."라 아뢰었다. 여창(餘昌)이 신라를 정벌할 것을 계획하자 기로(耆老)가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니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하였다. 여창이 "늙었구려. 어찌 겁내시오. 우리는 대국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겁낼 것이 있겠소."라 하고,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구타모라(久陀牟羅)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스스로 가서 위로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이 때 신라에서 좌지촌(佐知村)의 말키우는 노예 고도(苦都)〈다른 이름은 곡지(谷智)이다〉에게 "고도는 천한 노이고 명왕은 뛰어난 군주이다. 이제 천한 노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하여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의 손에 줄 수 없다."고 하니,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의 손에 죽습니다."라 하였다. 〈다른 책에는 "명왕이 호상에 걸터 앉아 차고 있던 칼을 곡지에게 풀어주어 베게 했다"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라 하고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했다.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 묻었다. 〈다른 책에는 "신라가 명왕의 두골은 남겨두고 나머지 뼈를 백제에 예를 갖춰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었는데, 이 관청을 도당(都堂)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여창은 포위당하자 빠져나오려 하였으나 나올 수 없었는데 사졸들은 놀라 어찌할 줄 몰랐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인 쓰쿠시노쿠니노미야쓰코[筑紫国造]가 나아가 활을 당겨 신라의 말 탄 군졸 중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을 헤아려 쏘아 떨어뜨렸다. 쏜 화살이 날카로워 타고 있던 안장의 앞뒤 가로지른 나무[鞍橋]를 뚫었고, 입고 있던 갑옷의 옷깃을 맞추었다. 계속 화살을 날려 비오듯하였으나 더욱 힘쓰고 게을리 하지 않아 포위한 군대를 활로 물리쳤다. 이로 말미암아 여창과 여러 장수들이 샛길로 도망하여 돌아왔다. 여창이 쿠니노미야스코[国造]가 활로 포위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고 높여 "안교군〈鞍橋君〉"이라 이름하였다. 〈안교는 우리 말로 구라니(矩羅膩)라고 한다〉 이 때 신라 장수들이 백제가 지쳤음을 모두 알고 드디어 멸망시켜 남겨두지 않으려 했다. 한 장수가 "안된다. 야마토 천황이 임나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우리나라를 책망하였다. 하물며 다시 백제관가를 멸망시키기를 꾀한다면 반드시 후환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만두었다.

554년 신라가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다

사료1 **『북사』 권94 열전 제82 신라 |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新羅**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初附庸于百濟 百濟征高麗 不堪戎役 後相率歸之 遂致强盛 因襲百濟 附庸於迦羅國焉.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당초에는 백제에 부용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하여 [고구려 사람들이] 군역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와 신라에 귀화하니, [신라는] 마침내 강성하여졌다. 그리하여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迦羅國)을 부용국으로 삼았다.

사료2 **『통전』 권185 변방문1 동이상 신라 | 『通典』 卷百八十五 邊防門一 東夷上 新羅**

至隋文帝時 遣使來貢 其王姓金名眞平 隋東〈蕃風俗記云「金姓相承三十餘葉」〉 文帝拜爲樂浪郡公 · 新羅王 〈其王至今亦姓金 按梁史云姓慕 未詳〉中間易姓之由 其先附屬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强盛 因襲加羅任那諸國 滅之 〈並三韓之地〉 其西北界犬牙出高麗百濟之間.

수 문제시기에 사신을 보내 조공해왔다. 그 왕의 성씨는 김씨이고 이름은 진평이다.〈수나라 「풍속기」에는 '김성이 서로 이어져 30여대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진평왕]을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그 왕은 지금도[당나라] 역시 김씨이다. 『양사(梁史)』를 보면 성이 모라고 했는데, 중간에 성을 바꾼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선대에 백제에게 부용했는데 후에 백제의 고구려 정복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인들이 힘든 군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귀부하니, 마침내 강성해졌다. 이로 인하여 가라와 임나 등 여러 나라를 급습하여 멸망시켰다. 〈모두 삼한의 땅이다〉 그 북서쪽 경계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서로 맞물려 있다.

사료3 **『태평어람』 권781 사이부2 동이2 | 『太平御覽』 卷七百八十一 四夷部二 東夷二**

[魏]將毌丘儉討高麗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有留者 遂爲新羅 亦曰斯盧 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濊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初附庸于百濟 百濟征高麗 不堪戎役 後相率歸之 遂致强盛 因襲百濟 附庸於迦羅國焉.

[위]장수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자, [고구려인들이] 옥저로 쫓겨 도망갔다. 그 후에 다시 옛 나라로 되돌아갔고, [그 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사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중국인, 고려, 백제의 종족들이 있다. 아울러 옥저, 불내, 한, 예의 땅을 겸병하였다. 그 왕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바다로부터 도망하여 신라로 들어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백제에게 부용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정복하자, [고구려인들이] 힘든 군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신라에] 귀부하니 마침내 강성해졌다. 이로 인하여 백제를 급습하여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았다.

555년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6년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六年

十六年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16년 봄 정월에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

561년 신라가 아라 파사산에 성을 쌓아 왜에 대비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2년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十二年

廿二年 新羅遣久禮叱及伐干貢調賦 司賓饗遇禮數減常 及伐干忿恨而罷

是歲 復遣奴氐大舍 獻前調賦 於難波大郡 次序諸蕃 掌客額田部連 · 葛城直等 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 大舍怒還不入館舍 乘船歸至穴門 於是 修治穴門館大舍問曰 爲誰客造 工匠河內馬飼首押勝欺紿曰 遣問西方無禮使者之所停宿處也 大舍還国 告其所言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

22년(561년) 신라가 구례질급벌간을 보내어 조부를 바쳤다. 사신을 대접하는 연회를 베풀었는데 예우가 평상시보다 덜하였다. 급벌간이 분하고 한스럽게 여기며 돌아갔다.

이 해 다시 노저 대사를 보내어 지난번의 조부를 바쳤다. 나니하[難波]의 오호코호리[大郡]에서 여러 이웃나라들의 서열을 매겼는데, 장객(掌客) 누카타베노무라지[額田部連]와 가즈라키노아타히[葛城直] 등이 백제의 아래쪽 열에 서도록 인도했다. 대사가 화를 내고 돌아가 관사에 들지 않고 배를 타고 돌아가 아나토[穴門]에 이르렀다. 이 때 아나토노무로쓰미[穴門館]를 수리하고 있었다. 대사가 묻기를 "어떤 손님을 위하여 짓는가."라고 하자 공장(工匠) 가후치노 우마카히노오비토오시카쓰[河內馬飼首押勝]가 거짓으로 "서방의 무례한 짓을 문책하러 보낼 사자가 머물 숙소이다."라고 말하였다. 대사가 나라에 돌아가 그가 말한 것을 고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아라(阿羅)의 파사산(波斯山)에 성을 쌓고서 야마토에 대비하였다.

562년 1월 임나가 신라에 멸망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3년 1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十三年 一月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湌國稔禮國 合十國.

23년(562년) 봄 정월 신라가 임나 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어떤 책에서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고 한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 다라국,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산

반하국, 걸찬국, 임례국 등 모두 열 나라이다〉

사료2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 〈一云内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景徳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에서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眞興王)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둘이다.

사료3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사다함 | 『三國史記』 卷四十四 列傳 第四 斯多含**

真興王命伊湌異斯夫 襲加羅 〈一作加耶〉國 時斯多含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亦衆 及抵其國界 請於元帥 領麾下兵 先入旃檀梁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 謂門爲梁云〉 其國人不意兵猝至 驚動不能禦 大兵乗之 遂滅其國.

진흥왕이 이찬(伊湌) 이사부(異斯夫)에게 명령하여 가라국(加羅國) 〈가야(加耶)라고도 한다〉을 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가 힘써 청하고 뜻이 확고하여 마침내 명령하여 귀당(貴幢) 비장(裨將)으로 삼았다. 그의 낭도(郎徒) 중에서 따르는 자도 또한 많았다. 곧 그 나라[가라국] 경계에 이르자 원수에게 청하여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전단량(旃檀梁)〈전단량은 성문 이름이다. 가라(加羅) 말로 문(門)을 양(梁)이라 했다고 한다〉으로 들어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군사가 쳐들어옴을 보고 놀라서 막지 못하였다.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사료4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奇異 第二 駕洛國記**

金氏正光二年即位 治四十二年 保定二年壬午九月 新羅第二十四君真興王興兵薄伐 王使親軍卒 彼衆我寡不堪對戰也 仍遣同氣脫知尒叱今留在於國 王子上孫卒支公等降入新羅 王妃分叱水尒叱女桂花 生三子 一世宗角干 二茂刀角干 三茂得角干 開皇録云 梁中大通四年壬子降于新羅 議曰 案三國史 仇衡以梁中大通四年壬子 納土投羅 則計自首露初即位東漢建武十八年壬寅 至仇衡末壬子得四百九十年矣 若以此記考之 納土在元魏保定二年壬午 則更三十年捴五百二十年矣 今两存之.

김씨(金氏)이다. 정광 2년에 즉위하였다. 치세는 42년으로 보정 2년 임오 9월(562년)에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니 왕은 친히 군사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적병의 수는 많고 이쪽은 적어서 대전할 수가 없었다. 이에 동기(同氣) 탈지이질금(脫知爾叱今)을 보내서 본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왕자와 상손(上孫) 졸지공(卒支公) 등은 항복하여 신라에 들어갔다. 왕비는 분질수이질(分叱水爾叱)의 딸 계화(桂花)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세종(世宗) 각간, 둘째는 무도(茂刀) 각간, 셋째는 무득(茂得) 각간이다. 『개황록(開皇錄)』에 보면, "양 무제 중대통 4년 임자(53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논평하여 말한다. 『삼국사(三國史)』를 살펴보면, 구형왕은 양의 무제(武帝) 중대통 4년 임자(壬子)에 땅을 바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로왕이 처음 즉위한 동한(東漢)의 건무 18년 임인(42년)으로부터 구형왕 말년 임자(532년)까지를 계산하면 490년이 된다. 만약 이 기록으로 상고한다면 땅을 바친 것은 원위(元魏) 보정 2년 임오(562년)이다. 그러면 30년을 더하여 도합 520년이다. 지금 두 가지 설(說)을 모두 기록해 둔다.

사료5 **『동국사략』 권1 삼국 | 『東國史略』 卷一 三國**

新羅王命伊飡異斯夫 討大伽倻〈即今高靈縣〉滅之 〈軍副斯多含 年十六 先入栴檀門 立白旗 異斯夫引兵臨之 遂滅

其國 王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斯多含 以其田 分與戰士生口放爲良人 始與武官郎約爲死友 及武官死 哭之慟 七日亦卒〉

신라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대가야〈즉 지금[조선]의 고령현이다〉를 토벌하여 멸망시켰다.〈군부인 사다함은 16살이었는데, 먼저 전단문에 들어가 백기(白旗)를 꽂았다. 이사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사다함은] 처음에 무관랑과 죽음을 같이하는 친구[死友]가 될 것을 약속하였었는데, 무관랑이 죽자 슬피 통곡하다 7일 만에 같이 죽었다〉

사료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건치연혁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九 高靈縣 建置沿革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사료7 **『기언』** 권33 외편 동사2 신라세가 상 진흥왕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新羅世家 上 眞興王

眞興王 異斯夫 又滅大伽倻. 先是 伽倻政亂 樂師于勒 以樂器來奔 館於國原 命知法階古萬德 傳伽倻十二曲 于勒作十二絃琴 又作玄琴 於是 徙貴滅大姓 六部豪傑於國原以爲小京.

진흥왕때 이사부가 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보다 앞서 가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악사(樂師) 우륵이 악기를 가지고 달아나 [신라로] 왔다. [신라에서는 우륵을] 국원에 머물게 하고는, 법지, 계고, 만덕 등에게 가야(伽倻)의 12곡 전수받게 하였다. 우륵은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고 또 거문고[玄琴]도 만들었다. 이에 귀족과 유력자[貴戚大姓] 및 6부의 호걸(豪傑)들을 국원(國原)으로 옮기고 소경(小京)으로 삼았다.

사료8 **『기언』** 권33 외편 동사2 대가야 | **『記言』** 卷三十三 外篇 東事二 大伽倻

大伽倻 自伊珍阿致 九世有貽惱 貽惱七世 至道設智 滅於新羅 凡十六世 五百二十七年 伊珍阿致之世 富強五百年.

대가야는 이진아치(伊珍阿致)로부터 9세(世) 뒤에 이뇌(貽惱)가 있고, 이뇌의 7세 뒤에 도설지(道設智)에 이르는데, [도설지 때에] 신라에 멸망되었다. 무릇 16세 527년이었으니, 이진아치(伊珍阿致)로부터 500년간 부강하였다.

사료9 **『동국여지지』** 권4 하 고령현 | **『東國輿地志』** 卷四 下 高靈縣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幷其地 置大伽倻郡.

대가야국의 월광태자는 정견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대가야군(大伽倻郡)을 설치하였다.

사료10 **『여지도서』** 경상도 고령 | **『輿地圖書』** 慶尙道 高靈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신라 진흥왕을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11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二十三年春〈眞興王開國十二年〉 新羅侵任那 毁我官府 秋 新羅貢調使至 拘留之 以紀男麻呂爲大將 率兵討新羅 我軍不利 軍人伊企儺爲虜所擒.

[흠명 천황] 23년(562년)〈진흥왕 개국 12년〉 봄에 신라가 임나를 쳐들어와서 우리 관부[임나부]를 없앴다. 가을에 신라의 공조사(貢調使)가 이르렀는데 붙잡아 두었다. 기노오마로[紀男麻呂]를 대장으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쳤다. 우리 군대가 불리하여 군인 이키나[伊企儺]가 사로잡혔다.

사료12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임라국가야국 |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任那國伽倻國

三國史斯多含傳 眞興王命異斯夫襲加羅 註云 加羅一云加耶 然則加羅是加耶別稱歟. 異斯夫所滅卽大伽倻也 續臣謹按 任那之見於東史者 僅不過新羅史任強首傳云國原京任那人 國原 今忠州舊號 故後世遂以任那爲忠州屬地 然據日本史 則任那國之交通 已在崇神〈新羅赫居世二十五年〉之代 居三國之最先 歷三百餘年 至孝德〈新羅善德王仁平十二年〉之初 其間 交聘 · 侵伐 置府 · 屯戍之跡 昭載歷歷 往來如織 與新羅百濟竝稱 而列數之 則其國之大亦非甘文押督之可比 其迹不少 槪見於三國史 何也 且當時伽倻加羅之國 其地在今慶尙東南沿海 最與日本接近 則宜其與日本交通 頻繁於羅濟 而日本之史 亦無加羅之迹 何哉 今以日史考之 則任那之爲伽倻 明矣 新羅史眞興王二十三年 討滅大伽倻 而與日本史新羅滅任那之年相符 又其地界來往之跡 亦分明於伽倻之地 則任那之爲伽倻 無疑矣 且日本史每擧新羅任那百濟三國 而稱爲三韓 則任那之爲三韓 確矣 大伽倻亡後 樂士于勒 入國原地 有彈琴之臺 則或者國原一部原屬伽倻之地界 故國亡之後 于勒入此 而國原一部有任那之稱歟. 通典註稱 任那 三韓之地 其亦有據乎.

『삼국사[기]』 사다함전[斯多含傳]을 보면,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를 공격하였는데, 그 주에 "가라는 또는 가야(加耶)라고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라는 바로 가야의 별칭이 아닐까 합니다. 이사부가 멸망시킨 것은 곧 대가야(大伽倻)입니다. [속(續)]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임나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타나는 것은, 겨우 『신라사』 강수전(强首傳)에 "국원경(國原京) 임나인(任那人)"이라고 말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원은 지금[조선]의 충주(忠州)의 옛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마침내 임나를 충주의 속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사에 근거해 보면, 임나국이 [일본과] 교통한 것은 이미 숭신(崇神)〈신라 혁거세 25년(기원전 33년)〉 시대였으니, 삼국에서 가장 앞선 위치였습니다. 300여 년을 거쳐 효덕(孝德)〈신라 선덕왕 인평 12년(643년)〉의 초에 이르기까지 그 간의 교빙, 공격과 정벌, 부의 설치, 군대 주둔 등의 자취가 환히 실려 있으며, 빈번하게 왕래하여[往來如織] 신라, 백제와 병칭(竝稱)되어 나열하기를 여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크기가 또한 감문(甘文), 압독(押督)에 비할 것이 아니며 그 자취가 적은 것이 아닌데, 삼국사에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당시 가야(伽倻), 가라의 나라는 그 땅이 지금[조선]의 경상도 동남쪽 연해에 있었으니, 일본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으므로 마땅히 일본과의 교통(交通)이 신라, 백제 보다 빈번하였을 것인데, 일본의 역사에 또한 가라의 흔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일본사로 고찰해 볼 때, 임나가 가야가 됨은 명백합니다. 『신라사』에서는 진흥왕 23년(562년)에 대가야를 토벌하여 멸망시켰는데, 일본사의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킨 해와 서로 부합합니다. 또 그 영토를 왕래한 자취 또한 가야의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임나가 가야가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일본사』에서 매번 신라, 임나, 백제의 세 나라를 들어서 삼한(三韓)이라고 칭하였으니, 임나가 삼한이 됨은 확실합니다. 대가야가 망한 후에 악사 우륵(于勒)이 국원 땅으로 들어갔느니, [국원에는] 탄금대[彈琴之臺]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국원 일부가 원래 가야의 영토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후에 우륵이 여기로 들어간 것이라고도 하니, 국원 일부란 임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통전의 주(註)에서 임나를 삼한의 땅이라고 지칭한 것도 또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562년 6월 신라에 의한 임나 멸망을 한탄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3년 6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十三年 六月

夏六月 詔曰 新羅西羌小醜 逆天無狀 違我恩義 破我官家 毒害我黎民 誅殘我郡縣 我氣長足姬尊 靈聖聰明 周行天下 劬勞群庶 饗育萬民 哀新羅所窮見歸 全新羅王將戮之首 授新羅要害之地 崇新羅非次之榮 我氣長足姬尊 於新羅何薄 我百姓 於新羅何怨 而新羅 長戟强弩 凌蹙任那 鉅牙鉤爪 殘虐含靈 刳肝斮趾 不厭其快 曝骨焚屍 不謂其酷 任那族姓 百姓以還 窮刀極俎 旣屠且膾 豈有率土之賓 謂爲王臣 乍食人之禾 飮人之水 孰忍聞此 而不悼心 況乎太子大臣 處趺蕚之親 泣血銜怨之寄 當蕃屛之任 摩頂至踵之恩 世受前朝之德 身當後代之位 而不能瀝膽抽腸 共誅姦逆 雪天地之痛酷 報君父之仇讐 則死有恨臣子之道不成.

여름 6월 조를 내려 "신라는 서쪽의 오랑캐로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라이다. 하늘을 거스리고 예의가 없어 우리의 두터운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관가(官家)를 깨뜨렸으며 나의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고 나의 군현(郡縣)을 멸망시켰다. 우리 오키나가다라시히메노미코토[氣長足姬尊]는 거룩하고 총명하여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뭇 인민(人民)을 힘써 보살피시고 온 백성을 먹이고 길렀다. 신라가 곤궁해져가는 것을 애달피 여기시고 신라왕이 장차 목베일 것을 온전히 두었으며 신라에게 요충의 땅을 주었고 신라를 남달리 번영하게 해주었다. 우리 오키나가다라시히메노미코토[氣長足姬尊]께서 신라에 대하여 무엇을 가볍게 대우했으며 우리 백성이 신라에 무슨 원한이 있었는가. 그러나 신라는 긴 창과 강한 활로 임나를 능욕(凌辱)해 멸망시켰고 강한 잇빨과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 잔인하게 백성을 죽였다. 간을 꺼내고 발목을 끊어도 마음에 흡족해하지 않고 뼈를 드러내고 주검을 태워도 혹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나(任那)의 귀족과 백성 이하 모두는 칼을 다 쓰고 도마를 다하도록 이미 살륙당하고 회(膾)쳐졌으니 어찌 온 천하가 왕의 신하라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 곡식을 먹고 다른 사람 물을 마시면서 누가 차마 이것을 듣고 누가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태자와 대신은 꽃받침처럼 친한 관계이므로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을 품을 만한 연고가 있다. 변방(蕃邦)을 지키는 임무를 맡음에 있어서도 이마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갈아도 모자라는 은혜를 입혜를 입었고, 대대로 전조(前朝)의 덕을 받아 후대의 지위를 맡았다. 쓸개를 마시고 창자를 꺼내어 함께 간악한 역적을 죽여 천지의 큰 아픔을 씻고 임금과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신하와 아들의 도리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562년 7월 신라의 사신이 귀화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3년 7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十三年 七月

秋七月己巳朔 新羅遣使獻調賦 其使人知新羅滅任那 恥背国恩 不敢請罷 遂留不歸本土 例同国家百姓 今河內國更荒郡鸕鷀野邑新羅人之先也.

가을 7월 기사(己巳) 초하루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부(調賦)를 바쳤다. 그 사신이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나라[일본]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고 마침내 머물러 본토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를] 국가의 백성과 같은 예로 대우하였는데, 지금 가후치노쿠니[河內国] 사라라노고호리[更荒郡] 우노노사토[鸕鷀野邑] 시라기노히토[신라인]의 선조이다.

562년 7월 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다

사료1 **『일본서기』권19 흠명 23년 7월 |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二十三年 七月**

是月 遣大將軍紀男麻呂宿禰 將兵出哆唎 副將河邊臣瓊缶 出居曾山 而欲問新羅攻任那之狀 遂到任那 以薦集部首登弭 遣於百濟 約束軍計 登弭仍宿妻家 落印書弓箭於路 新羅具知軍計 卒起大兵 尋屬敗亡 乞降歸附 紀男麻呂宿禰 取勝旋師 入百濟營 令軍中曰 夫勝不忘敗 安必慮危 古之善敎也 今處疆畔 豺狼交接 而可輕忽 不思變難哉 況復平安之世 刀劒不離於身 蓋君子之武備 不可以已 宜深警戒 務崇斯令 士卒皆委心而服事焉 河邊臣瓊缶 獨進轉鬪 所向皆拔 新羅更擧白旗 投兵降首 河邊臣瓊缶 元不曉兵 對擧白旗 空爾獨進 新羅鬪將曰 將軍河邊臣 今欲降矣 乃進軍逆戰 盡銳遄攻破之 前鋒所破甚衆 倭国造手彦 自知難救 棄軍遁逃 新羅鬪將 手持鉤戟 追至城洫 運戟擊之 手彦因騎駿馬 超渡城洫 僅以身免 鬪將臨城洫而歎曰 久須尼自利〈此新羅語 未詳也〉 於是 河邊臣 遂引兵退 急營於野 於是 士卒盡相欺蔑 莫有遵承 鬪將自就營中 悉生虜河邊臣瓊缶等 及其隨婦 于時 父子夫婦 不能相恤 鬪將問河邊臣曰 汝命與婦 孰與尤愛 答曰 何愛一女 以取禍乎 如何不過命也 遂許爲妾 鬪將遂於露地 姦其婦女 婦女後還 河邊臣欲就談之 婦人甚以慙恨 而不隨曰 昔君輕賣妾身 今何面目以相遇 遂不肯言 是婦人者 坂本臣女 曰甘美媛 同時所虜 調吉士伊企儺 爲人勇烈 終不降服 新羅鬪將 拔刀欲斬 逼而脫褌 追令以尻臀向日本 大號叫叫咷也曰 日本將 嚙我臏脽 卽號叫曰 新羅王 啗我臏脽 雖被苦逼 尙如前叫 由是見殺 其子舅子 亦抱其父而死 伊企儺 辭旨難奪 皆如此 由此 特爲諸將帥所痛惜 其妻大葉子 亦竝見禽 愴然而歌曰 柯羅俱爾能 基能陪儞陀致底 於譜磨故幡 比例甫囉須母 耶魔等陛武岐底 或有和曰 柯羅俱爾能 基能陪儞陀陀志 於譜磨故幡 比禮甫羅須彌喩 那儞婆陛武岐底

이 달 대장군 기노오마로노스쿠네[紀男麻呂宿禰]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다리(哆唎)에서 출동하고, 부장군 가하베노오미니혜[河邊臣瓊缶]는 거증산으로부터 출동하도록 하여 신라가 임나를 공격한 상황에 대하여 문책하고자 하였다. 드디어 임나에 도착하여 고모쓰메베노오비토도미[薦集部首登弭]를 백제에 보내어 군사계책을 약속하게 했다. 도미[登弭]가 처가에 묵었는데, 봉인한 서신과 활과 화살을 길에 떨어뜨렸다. 신라가 군사계획을 모두 알고 갑자기 군사를 크게 일으켰으나 얼마 후에 패하였으므로 항복하여 귀부하기를 빌었다. 기노오마로스스쿠네[紀男麻呂宿禰]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군사를 돌려 백제의 군영에 들어가서 군중(軍中)에 명을 내렸다. “무릇 이겨도 패하는 것을 잊지 말고 편안할 때도 반드시 위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가르침이다. 지금 처해 있는 땅은 승냥이와 이리와 같이 사나운 무리들과 이웃해 있다. 가볍고 소홀히 하여 변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으랴. 하물며 또 태평한 시대에도 칼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법이니, 무릇 군자가 무기를 갖추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깊이 경계하고 이 명령을 받드는 데 힘쓰라.”라고 하였다. 병졸들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섬겼다. 가하베노오미니혜[河邊臣瓊缶]는 홀로 나아가 이 곳 저 곳에서 싸워 가는 곳마다 모두 함락시켰다. 신라가 문득 흰 깃발을 들고 무기를 던져버리고 항복했다. 가하베노오미니혜는 원래 군사에 밝지 못하여 마주 대하여 흰 기를 들고 헛되이 혼자 앞으로 나아갔다. 신라 장군이 “장군 가하베노오미[河邊臣]가 지금 항복하려고 한다.”고 하고는 진군하여 역습하여 싸웠다. 매우 날쌔고 빠르게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선봉부대는 피해가 매우 많았다. 야마토노쿠니노미야쓰코[倭國造手彦]가 스스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버리고 도망했다. 신라 장군이 손에 갈고리창을 쥐고 성의 해자까지 뒤쫓아와 창을 휘두르며 공격하였다. 데히코[手彦]은 날랜 말을 타고 있었으므로 성의 해자를 뛰어 건너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신라 장군이 성의 해자가에 서서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이는 신라말로 자세하지 않다〉라고 탄식하였다. 이에 가하베노오미[河邊臣]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와 들에 급히 군영을 만들었다. 이 때 병졸들은 모두 서로 속이고 업신여기며 준수하여 따르지 않았다. 신라 장군이 스스로 군영에 나아가 가하베노오미니혜[河邊臣瓊缶] 등과 그를 따라왔던 부인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 때는 아버지와 아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도울 수가 없었다. 신라

장군이 가하베노오미[河邊臣]에게 "너의 목숨과 부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아끼는가"라고 묻자 "어찌하여 한 여자를 아껴 화를 취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목숨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라 대답하고 첩으로 삼기를 허락하였다. [신라] 장군은 마침내 벌판에서 그 여자를 간음하였다. 여자가 후에 돌아가니, 가하베노오미가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부인은 매우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따르지 않고 "옛날에 당신이 저의 몸을 가볍게 팔았는데 지금 무슨 낯으로 서로 만나겠는가."하고는 마침내 승락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부인은 사카모토노오미[坂本臣]의 딸인데 이름을 우미시히매[甘美媛]라 한다. 함께 사로잡혔던 쓰키노키시이카나[調吉士伊企儺]는 사람됨이 용맹하여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신라 장군이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며 억지로 잠뱅이를 벗기고 이어서 엉덩이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고 "야마토 장군은 내 엉덩이를 깨물어 보아라."라고 크게 부르짖게 하자〈부르짖는다[叫]는 것은 울부짖으며 소리친다는 말이다〉, 곧 "신라왕은 내 엉덩이를 깨물어 보아라."고 소리쳤다. 비록 고통과 핍박을 받았으나 여전히 앞에서와 같이 소리쳤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아들 오지코[舅子] 역시 그의 아버지를 안고서 죽었다. 이키나[伊企儺]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빼앗기 어려운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특히 여러 장수들이 가슴 아파하는 바가 되었다. 그의 아내 오호바코[大葉子]도 역시 잡혔는데 비통하게 노래하기를 "한국(韓國)의 성위에 서서 오호바코[大葉子]는 머리에 쓰는 천을 흔들며 일본으로 향하네."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화답하기를 "한국의 성위에 서서 오호바코는 머리에 쓰는 천을 흔들어 보이며 난파로 향하네."라고 하였다.

562년 9월 신라가 대가야를 복속하다

사료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23년 9월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二十三年 九月**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栴檀門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論功 斯多含爲最 王賞以良田及所虜二百口 斯多含三讓 王强之 乃受其生口 放爲良人 田分與戰士 國人美之.

9월에 가야(加耶)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副將)이 되었다. 사다함은 5천명의 기병(騎兵)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전단문(栴檀門)에 들어가서 흰 깃발을 세우자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할 때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백명을 상으로 주었다. 사다함이 세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서 포로는 풀어 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고, 토지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사료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고령현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高靈縣**

新羅眞興王二十二年壬午 滅之 以其地爲伽倻郡〈卽陳文帝天嘉三年〉 景德王改今名.

신라 진흥왕 22년 임오(562년)〈진 문제 천가 3년〉에 멸망시키고 그 땅을 가야군(伽倻郡)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이 지금[조선] 이름으로 고쳤다.

사료3 **『삼국사절요』 권6 임오 | 『三國史節要』 卷六 壬午**

〈壬午〉〈陳天嘉三年 新羅眞興王二十三年 高句麗平原王四年 百濟威德王九年〉 九月 加耶叛 新羅王命伊飡異斯夫

討之 以斯多含爲副 斯多含者 柰密王七世孫也 年十六爲國仙 其徒千餘人 至是 請從軍 王以年幼不許 固請 許之 至伽耶 含領麾下五千騎 先入栴檀門 立百旗 城中驚懼 於是 異斯夫引兵臨之 遂滅其國 以其地爲大伽耶郡 伽耶傳世十六 凡五百二十年 師還 策功含爲最 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含固辭 王強之 乃受以其田 分與戰士 只受閼川不毛之地 生口放爲良人無一留者. 國人美之 含始與武官郎約爲死友 及武官死哭之慟甚 七日亦卒 時年十七.

〈임오〉〈진 천가 3년(562년), 신라 진흥왕 23년, 고구려 평원왕 4년, 백제 위덕왕 9년〉 9월에 가야(加耶)가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왕이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斯多含)이 도와주게 하였다. 사다함(斯多含)은 나밀왕[柰密王]의 7세손으로 16살에 국선(國仙)이 되었고 낭도는 1,000여 명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종군(從軍)할 것을 청했으나 왕이 나이가 어리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굳이 청하므로 허락하였다. 가야에 도착하여 사다함이 휘하의 기병(騎兵)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전단문(栴檀門)에 들어가 성에 백기(百旗)를 세우자 성안이 놀라 떨었다. 이때 이사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내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가야군(大伽耶郡)으로 삼았다. 가야는 16대 520년을 이어 왔다. 군대가 돌아오자 [왕은] 사다함의 공을 가장 높게 책정하여 양전(良田)과 포로 300구(口)를 상으로 주었다. 사다함이 완고하게 사양하였으나 왕이 억지로 받게 하자, 그 토지를 받아서 군사들에게 나눠 주고 단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 받았다. 생구(生口; 포로)는 풀어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국인(國人)들이 이를 칭송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다함은 무관랑(武官郎)과 죽음을 같이하는 친구[死友]가 될 것을 약속하였었는데 무관랑이 죽자 매우 슬피 울다 7일 만에 같이 죽었다. 이때 나이 17살이다.

사료4 **『동국통감』 권5 삼국기 신라 임오 | 『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新羅 壬午**

〈壬午〉〈陳天嘉三年 新羅眞興王二十三年 高句麗平原王四年 百濟威德王九年〉 九月 加耶叛 新羅王命伊湌異斯夫討之 以斯多含爲副 斯多含者 柰密王七世孫也 年十六爲國仙 其徒千餘人 至是 請從軍 王以年幼不許 固請 許之 至伽耶 含領麾下五千騎 先入栴檀門 立百旗 城中驚懼 於是 異斯夫引兵臨之 遂滅其國 以其地爲大伽耶郡 伽耶傳世十六 凡五百二十年 師還 策功含爲最 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含固辭 王強之 乃受以其田 分與戰士 只受閼川不毛之地 生口放爲良人無一留者 國人美之 含始與武官郎約爲死友 及武官死哭之慟甚 七日亦卒 時年十七.

〈임오〉〈진 천가(天嘉) 3년(562년), 신라 진흥왕 23년, 고구려 평원왕 4년, 백제 위덕왕 9년〉 9월에 가야(加耶)가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왕이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이 도와주게 하였다. 사다함은 나밀왕(柰密王)의 7세손으로 16살에 국선이 되었고 낭도(郎徒)는 1,000여 명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종군(從軍)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나이가 어리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사다함이] 굳이 청하자 허락하였다. 가야에 도착하여 사다함이 휘하의 기병(騎兵)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전단문(栴檀門)에 들어가 성에 백기(百旗)를 세우자 성안이 놀라 떨었다. 이때 이사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내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가야군(大伽耶郡)으로 삼았다. 가야는 16대 520년을 이어 왔다. 군대가 돌아오자 [왕은] 사다함의 공을 가장 높게 책정하여 양전(良田)과 포로 300구(口)를 상으로 주었다. 사다함이 완고하게 사양하였으나 왕이 억지로 받게 하자, 그 토지를 받아서 군사들에게 나눠 주고 단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 받았다. 생구(生口)는 풀어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국인(國人)들이 이를 칭송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다함은 무관랑(武官郎)과 죽음을 같이하는 친구[死友]가 될 것을 약속하였었는데 무관랑이 죽자 매우 슬피 울다 7일 만에 같이 죽었다. 이때 나이 17살이다.

사료5 **『동국사략』 권4 임오 | 『東國史略』 卷四 壬午**

〈壬午〉 二十二年 九月 伽耶叛 討滅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者奈勿王七世孫也風標淸秀 志氣剛正 是時年十六 請從軍 王以幼不許 固請之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者亦衆 抵其國請於元帥 領麾下兵 先入栴檀門 立白旗 其國人不意猝至 驚動不能禦 異斯夫引兵臨之 遂滅其國 及師還 王策功斯多含爲最 賜伽耶人口三百 受已皆放 無一留

者 又賜田 固辭王強之 只受閼川不毛地而已 含始與武官郎約爲死友 及武官郎病卒 哭之慟甚 七日亦卒. 時年 十七.〉
〈임오〉 [진흥왕] 22년(562년) 9월 가야(伽耶)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들을 토벌하여 멸망시켰다.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斯多含)이 도와주게 하였다. 사다함은 나물왕(奈勿王)의 7세손으로서 풍채가 맑고 수려하며 뜻과 기개가 강직하고 발랐다. 이때 나이 16세로 종군(從軍)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어리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굳이 청하자 마침내 귀당비장(貴幢裨將)으로 삼았는데 그 낭도로서 따르는 자가 또한 많았다. 가야에 다다르자 원수(元帥)에게 청하여 휘하의 병사를 거느리고 먼저 전단문(栴檀門)에 들어가 백기(白旗)를 세웠다. 가야인들은 갑자기 다다르자 놀라 동요하여 막지를 못하였다. 이사부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군대가 돌아오자 왕은 사다함의 공이 가장 크다고 책정하여 가야인 300구(口)를 주었는데 받고서 모두 풀어주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또 토지를 하사하기에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왕이 억지로 주자 단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 받았다. 사다함은 처음에 무관랑(武官郎)과 죽음을 같이하는 친구[死友]가 되기로 약속하였었는데, 무관랑이 병으로 죽자 매우 슬피 울다 7일 만에 같이 죽었다. 이때 나이 17살이었다〉

사료6 『수산집』 권11 동사 세가 가야세가 | 『修山集』 卷十一 東史 世家 伽倻世家

陳文帝天嘉三年 道設智王 通國之衰弱 而見凌於新羅 謀侵其國 以復其恥 反爲所攻. 新羅將斯多含 以五千騎馳入奪栴檀門 而立白旗城中. 大將異斯夫率軍繼之. 王城驚潰 遂爲所滅. 伽倻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於五伽倻最後亡 而所傳琴聲 平淡近古 可以推知其治云.

진 문제 천가 3년(562년)에 도설지왕이 나라가 쇠약하여 신라에게 능멸당하는 것을 원통하게 여겨 신라를 공격하여 그 치욕을 씻으려고 도모하였는데, 도리어 공격을 당하였다. 신라의 장수 사다함이 5천의 기병으로 치고 들어와 전단문을 빼앗고는 성안에 백기를 꽂으니, 대장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뒤를 이었다. 왕성(王城)이 놀라 궤멸하여서 마침내는 멸망당하였다. 가야는 무릇 16세 520년 간 있었다. 다섯 가야는 망하였으나 전해 오는 가야금의 소리가 평이하고 담백하여 고음(古音)에 가까우니, 그 다스림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사료7 『동국역대총목』 삼국 신라 진흥왕 | 『東國歷代總目』 三國 新羅 眞興王

眞興王 〈壬午〉 伐大伽倻國 〈今高靈〉 滅之.

진흥왕 〈임오(562년)〉 대가야국〈지금[조선]의 고령이다〉을 쳐서 멸망시켰다.

사료8 『강계고』 제3 대가야국 | 『疆界考』 第三 大伽倻國

新羅眞興王二十三年九月 伽倻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一時盡降 三國地理志 高寧郡 本大伽倻國 眞興王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 改爲高靈郡.

신라 진흥왕 23년(562년)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지리지』에, 고령군(高寧君)은 본래 대가야국이었는데, 진흥왕이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삼았으며, 경덕왕 고령군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사료9 『동사강목』 제3 상1 삼국 | 『東史綱目』 第三 上一 三國

〈北齊河淸元年〉[壬午]〈新羅眞興王二十三年 高句麗平原王四年 百濟威德王九年〉 秋九月 新羅伐大加耶國 滅之

〈북제(北齊) 하청 원년(562년)〉 [임오] 〈신라 진흥왕 23년, 고구려 평원왕 4년, 백제 위덕왕 9년〉 가을 9월에 신라가 대가야국(大伽耶國)을 쳐서 멸망시켰다. 가야는 신라에 복속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반하였다. 왕이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였다.

加耶服屬于羅 至是叛 王命伊飡異斯夫討之 有斯多含者 奈勿王七世孫也 年十六爲國仙 其徒千餘人 盡得其歡心 請從軍 爲貴幢裨將 領五千騎 先馳入旃檀梁加耶謂門爲梁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大兵乘之 遂滅其國 大加耶

餘駕洛并立 自始祖伊珍阿豉王惑云內珍朱智 九世有異腦貽惱七世至設智而亡 凡十六世 五百二十一年〈按 今高寧縣南一里 有大加耶宮闕遺址 又縣西二里許 有古藏 俗稱錦村王陵〉

사다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나물왕(奈勿王)의 7세손이었다. 16살에 국선(國仙)이 되어 그 무리가 천여 명이었는데 그들의 환심을 모두 얻고 있었다. 종군(從軍)을 청하여 귀당비장(貴幢裨將)이 되었다. 5천 명의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먼저 전단량(旃檀梁)에 달려 들어가 백기(白旗)를 세우자 성안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병이 이에 편승하여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대가야(大伽耶)는 가락(駕洛)과 병립(竝立)하였다.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9세(世)에 이뇌(異腦)가 있었고 이뇌의 7세(世)인 설지(設智)에 이르러 망하였다. 무릇 16세(世) 521년이었다.〈살피건대, 지금[조선]의 고령현(高寧縣) 남쪽 1리(里)에 대가야의 궁궐터가 있다. 또 현 서쪽 2리쯤에 옛 무덤[古藏]이 있는데 속칭 금촌왕릉(錦村王陵)이라 한다〉

사료10 **『기년아람』 권5 삼국 대가야국 | 『紀年兒覽』 卷五 三國 大伽倻國**

新羅眞興王二十二年壬午 道設智王 爲新羅所滅. 置大伽倻郡.

신라 진흥왕 22년 임오(壬午)년(562년) 도설지왕(道設智王) 때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신라가] 대가야군(大伽倻郡)을 설치하였다.

사료11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新羅背盟 數侵任那至欽明天皇二十三年 新羅遂滅任那 自神功皇后以來五百九十三年 任那之存 如此永久也 此非神功皇后之大神餘烈乎 其後 新羅滅百濟 新羅亦降于高麗 三韓失鼎峙之勢 而高麗至宋不忌 故舊朝聘無絶〈異稱日本傳.〉

신라가 맹약을 배신하고 여러 차례 임나를 침략하더니, 흠명천황(欽明天皇) 23년(562년)에 이르러, 신라가 마침내 임나를 멸망시켰다. 신공황후(神功皇后) 이래로 593년이 지났으니, 임나가 존속한 것이 이처럼 오랫동안이었다. 이 어찌 신공 황후의 크게 신령스러운 공적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 후,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 역시 고려에 항복함에, 삼한의 솥발과 같은 형세[鼎峙之勢]가 사라졌다. 그러나 고려는 송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옛 일을 잊지 않고 조빙(朝聘)을 끊이지 않았다. 〈『이칭일본전』〉

사료12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陳文帝 天嘉三年 欽明二十三年 新羅滅任那〈日本紀〉

진 문제 천가 3년 흠명 23년(562년)에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다. 〈『일본기(日本紀)』〉

사료13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下**

日本紀欽明二十三年 新羅滅任羅. 而據新羅史 是年滅大伽倻. 以此參考 任那之爲大伽倻明矣. 大伽倻者 加羅國首露王之同種 今之高靈縣卽其地也. 今考日本書 崇神時任那通于日本 則任那之稱 已在前漢時矣. 又按 任那是加羅與國也. 加羅是弁辰屬國也. 此云任那改名爲彌摩那國 . 彌摩那 似是弁辰彌烏邪馬國之音轉也.

『일본기(日本紀)』 흠명(欽明) 23년(562년)조에는 "신라가 임라(任羅)를 멸망시켰다."라고 하였다. 신라사에 의하면 이 해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를 참고하면, 임나가 대가야가 됨은 분명하다. 대가야는 가라국의 수로왕과 같은 종족이니, 지금[조선]의 고령현이 곧 그 땅이다. 지금 일본서를 참고해보면, 숭신(崇神) 시기에 임나가 일본과 통하였으니, 임나의 칭호는 이미 전한(前漢) 시기에 있었다. 또 살펴보건대, 임나는 곧 가라의 동맹국이었다. 가라는 곧 변진에 속한 나라였다. 여기서 임나가 미마나국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하였는데, 미마나는 곧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의 음이 바뀐 것이 아닌가한다.

사료14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下**

[日本紀] 欽明二十三年〈陳文帝三年〉 新羅滅任那.

[『일본기』] 흠명 23년(562년)〈진 문제 3년〉에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다.

사료15 **『해동역사』 속집 권3 지리고3 삼한하 | 『海東繹史』 續集 卷三 地理考三 三韓下**

眞興王二十三年〈陳文帝三年〉 命異斯夫 取大伽倻. 此是新羅呑滅弁辰之實跡也.

진흥왕 23년(562년)〈진 문제 3년〉에 이사부에게 명하여 대가야(大伽倻)를 취하였다 이것이 신라가 변진을 병합하여 멸망시킨 실제 자취이다.

사료16 **『대동지지』 권9 경상도 고령 전고 | 『大東地志』 卷九 慶尙道 高靈 典故**

典故 新羅眞興王二十三年 加耶叛 命金異斯夫討之 副將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栴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고사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23년(562년) 가야가 배반하니 김이사부(金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부장(副將) 사다함이 5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장서 전단문(栴檀門)으로 달려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니 한 순간에 모두들 항복하였다.

사료17 **『역사집략』 권4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四 新羅·高句麗·百濟紀**

〈壬午 新羅眞興王開國十二年 高句麗平原王三年 百濟威德王八年 陳文帝天嘉三年〉 是時 大加耶服於新羅 秋九月復叛 羅王命伊飡異斯夫 討之 以斯多含爲副 斯多含者奈勿王七世孫 風標淸秀 志氣方正 時人奉爲花郎一名國仙 其徒千人 盡得其歡心 時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固請 許之 斯多含至加耶 領麾下五千騎 先入栴檀門 立白旗 城中驚懼 於是 異斯夫引兵乘之 遂滅其國 仍毁日本府 大加耶 自始祖阿豉王 歷異腦 至道設智而亡 凡十六世 五百二十一年 師還 羅王策斯多含功第一 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斯多含 以其田分與戰士 生口放爲良人 國人美之 斯多始與武官郎 約爲死友 及武官死 哭之慟七日亦卒 年止十七.

〈임오 신라 진흥왕 개국 12년, 고구려 평원왕 3년, 백제 위덕왕 8년, 진나라 문제(文帝) 천가(天嘉) 3년(562년)〉 이때 대가야는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가을 9월에 다시 배반하였다. 신라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하도록 하고, 사다함을 부지휘관으로 삼았다. 사다함은 나물왕(奈勿王)의 7세손이니 풍모가 뛰어나고 기개가 방정하였다. 이 때 사람들이 받들어 화랑〈또는 국선이라고도 부른다〉으로 삼았다. 그 무리가 1천 명이었는데,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이때 나이 15·6세로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간절히 청하므로 허락하였다. 사다함이 가야에 이르러, 휘하의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앞장서 전단문(栴檀門)으로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때,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뒤를 이으니, 마침내 그 나라[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일본부(日本府)를 무너뜨렸다. 대가야는 시조 아시왕(阿豉王)으로부터 이뇌(異腦)[왕]을 거쳐 도설지(道設智)에 이르러 망하였으니, 무릇 16세 521년이었다. 군대가 돌아오자, 신라왕이 사다함의 공을 제일로 책정하여 좋은 토지와 포로 300명을 상으로 내렸다. 사다함이 그 토지는 병사에게 나누어주고, 사로잡은 포로는 양인(良人)으로 풀어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사다함은 무관랑(武官郎)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였었다. 무관이 죽게 되자, 7일 동안 통곡하다가 또한 죽었다. 이때 나이 17세에 불과하였다.

사료18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2 역대국계2 대가야국 |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大伽倻國**

眞興王二十三年 伽倻叛 王命異斯夫 討降之 輿地志曰 大伽倻 今高靈縣 縣南一里 有宮闕遺址 傍有石井 俗傳御井 縣西二里許 有古藏 世傳錦林王陵 琴谷在縣北三里 世傳 伽倻國嘉悉王樂士于勒 率工人肄琴之地 惑云 此琴出於金官之伽倻國 東京堤 在縣東十里 世傳 新羅謀攻大伽倻 擧兵來 知有備而退 夜築此堤 以示其衆.

진흥왕 23년(562년)에 가야(伽倻)가 배반하였다. 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하도록 하여 항복시켰다. 『여지지(輿地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가야는 지금[조선]의 고령현(高靈縣)이다. 현의 남쪽 1리에 궁궐 터가 있는데, 곁에는 돌로 된 우물이 있다. 민간에 어정(御井)이라고 전해진다. 현의 서쪽 2리쯤에는 옛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전해진다. 금곡(琴谷)은 현의 북쪽 3리에 있다. 민간에서는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의 악사 우륵(于勒)이 악공을 데리고 금을 연주하던 지역이라고 전해진다. 혹은 이 금이 금관가야국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동경제(東京提)는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할 것을 도모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 왔으나 [대가야가] 방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퇴각하였다. 밤에 이 제방을 쌓아서 무리가 많음을 보였다." 라고 한다.

사료19 **『증보문헌비고』** 권217 직관고4 제부 |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十七 職官考四 諸府

[補]眞興王二十三年 滅大伽倻. 策功軍副斯多含爲最 賞以良田及所虜三百口. 含固辭. 王強之. 乃受之 以其田分於戰士 只取閼川不毛之地 生口放爲良人.

[보(補)] 진흥왕 23년(562년)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군공을 책정하는데 부지휘관인 사다함(斯多含)이 으뜸이었다. 상으로 좋은 토지[良田]와 포로 300명을 주었다. 함이 거듭 사양하였으나 왕이 억지로 권하니 마침내 받았다. 그 토지는 전사에게 나누어주고 단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을 취하였으며, 포로[生口]는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562년 11월 신라의 조부를 보내오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23년 11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二十三年 十一月

冬十一月 新羅遣使獻 幷貢調賦 使人悉知國家 憤新羅滅任那 不敢請罷 恐致刑戮 不歸本土 例同百姓 今攝津國三嶋郡埴廬新羅人之先祖也.

겨울 11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물건을 바치고 아울러 조부를 바쳤다. 사신은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킨 것을 야마토가 분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를] 백성과 같은 예로 취급하였는데, 지금의 쓰노쿠니[攝津國] 미시마노고호리[三嶋郡] 하니이호[埴廬]의 시라기노히토[新羅人]의 선조이다.

571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 임나 멸망의 이유를 묻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32년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三十二年

卅二年春三月戊申朔壬子 遣坂田耳子郎君 使於新羅 問任那滅由.

32년(571년) 봄 3월 무신 초하루 임자에 사카타노미미코노이라쓰기미[坂田耳子郎君]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임나를 멸망시킨 사유를 물었다.

571년　임나 재건을 태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다

사료1　**『일본서기』** 권19 흠명 32년 4월　|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 三十二年 四月

夏四月戊寅朔壬辰 天皇寢疾不豫 皇太子向外不在 驛馬召到 引入臥內 執其手詔曰 朕疾甚 以後事屬汝 汝須打新羅 封建任那 更造夫婦 惟如舊日 死無恨之.

여름 4월 무인 초하루 임진에 천황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다. 황태자는 밖에 나가 없었으므로 역마를 보내 불러들였다. [천황이] 누워 있는 내전에 불려 들어가니, 그의 손을 잡고 명하기를 "내 병이 심하니 이후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반드시 신라를 쳐서 임나를 세워 봉하라. 다시 서로 화합하여 옛날과 같이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三十二年春 遣使新羅詰其滅任那狀 夏四月 天皇不豫 召皇太子入臥內 執其手曰 朕欲征新羅復任那 不果 汝繼朕志 死無恨 遂崩.

[흠명 천황] 32년(571년) 봄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를 멸망시킨 데 대해 나무랐다. 여름 4월 천황이 앓아 누웠다. 황태자를 병석에 불러 들여 손을 잡고 말하기를, "짐이 신라를 정벌하여 다시 임나로 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네가 짐의 뜻을 잇는다면 죽어서도 한이 없겠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죽었다.

575년　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4년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四年

〈四年二月〉乙丑 百濟遣使進調 多益恒歲 天皇 以新羅未建任那 詔皇子與大臣曰 莫懶懈於任那之事.

〈4년, 2월〉 을축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쳤는데 여느 해보다 더욱 많았다.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세우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황자와 대신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575년　4월 신라, 임나, 백제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4년 4월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四年 四月

夏四月乙酉朔庚寅 遣吉士金子 使於新羅 吉士木蓮子使於任那 吉士譯語彦使於百濟.

여름 4월 을유 초하루 경인에 기시카네[吉士金子]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기시노이타비[吉士木蓮子]를 임나에 사신으로 보냈으며, 기시노오사히코[吉士譯語彦]를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

575년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 4읍의 조를 바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4년 6월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四年 六月

六月 新羅遣使進調 多益常例 幷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四邑之調.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쳤는데 보통 때보다 매우 많았으며, 아울러 다다라·수나라·화타·발귀 4읍의 조를 바쳤다.

583년 백제와 함께 임나 재건을 계획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12년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十二年

十二年秋七月丁酉朔 詔曰 屬我先考天皇之世 新羅滅內官家之国〈天国排開廣庭天皇廿三年 任那爲新羅所滅 故云新羅滅我內官家也〉 先考天皇 謨復任那 不果而崩 不成其志 是以 朕當奉助神謀 復興任那 今在百濟火葦北国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 賢而有勇 故朕欲與其人相計 乃遣紀国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 喚於百濟.

12년 가을 7월 정유 초하루에 조를 내려 "나의 아버지 천황 때에 신라가 내관가의 나라를 멸망시켰다〈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하노[天国排開廣庭天皇] 23년에 임나가 신라에게 멸망당하였으므로 신라가 우리 관가를 멸망시켰다고 하였다〉 아버지 천황이 임나를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짐은 신의 모책을 도와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한다. 지금 백제에 있는 히노아시키타노쿠니노미야스코[火葦北国造] 아리시코[阿利斯登]의 아들 달솔 니치라[日羅]가 어질고 용맹스럽다고 하므로 짐은 그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기노쿠니노미야쓰코[紀国造押勝]와 기비노아마노아타히[吉備海部直] 하시마[羽嶋]를 보내어 백제에서 불러왔다.

사료2 『해동역사』 권41 교빙지9 통일본시말 | 『海東繹史』 卷四十一 交聘志九 通日本始末

〈陳後主 至德元年〉 敏達十二年 百濟日羅來朝. 先此 新羅滅任那 敏達欲復與任那 聞日羅賢而有勇 爲與日羅相計 遣紀押勝于百濟 召日羅 百濟王惜之 不肯聽 復遣吉備羽島 於是 日羅與恩率德爾等來朝 敏達使大伴糠手 問擊新羅之謀 日羅答以上策 恩率〈按恩率百濟官名〉 蓋闕其名 嫉之 譖使德爾 殺日羅 因縛德爾下獄 恩率遇風沒海 惑傳 此時 日羅以諸葛亮之兵法 及六十四陳 傳于聖德太子 日羅生時 人尊事之 爲大郎房 及其死也 尊祀爲愛巖山權現守神 日本書紀.

〈진 후주(後主) 지덕 원년〉 민달(敏達) 12년(583년)에 백제의 니치라[日羅]가 와서 조회하였다. 이에 앞서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는데, 민달이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민달은] 니치라가 어질고 용기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니치라와 함께 계책을 만들기 위하여 기노오시카츠[紀押勝]를 백제에 보내어 니치라를 부르게 하였다. 백제왕이 그를 아껴서 허락하지 않으려 하자, 다시 기비노 하시마[吉備羽島]를 보내었다. 이에 니치라와 은솔(恩率), 덕이(德爾)등이 와서 조회하였다. 민달이 오호토모노아라테[大伴糠手]로 하여금 신라를 칠 계책을 묻도록 하니, 니치라가 상책으로 답하였다. 은솔〈살펴보건대, 은솔은 백제의 관명이니, 대개 그 이름을 빠뜨린 것이다〉 이 이를 질투하여, 몰래 덕이로 하여금 니치라를 죽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덕이를 묶어 하옥시켰는데, 은솔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혹은, 이 때에 니치라가 제갈량의 병법 및 64진을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전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니치라가 살았을 적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섬겨서 대즉방(大朗房)으로 삼았는데, 그가 죽게 되자 애암산권현수신(愛巖山權現守神)으로 삼아 높이 받들어 제사지냈다. 〈『일본서기』〉

사료3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敏遠天皇十二年〈新羅眞平王四年〉初 我葦北國造阿利斯登 在任那府 生子日羅 居百濟 帝聞其才 勅百濟徵之 諮以討新羅 服任那 日羅曰 服夷之道 在培養國本 何必動凶器事末節 爲當今之計 上自臣連二造 下至小吏 節用薄斂 訓士敎民 結以信義 二年食給兵足然後 多造舟艦 列置海津 大張聲勢 使韓人見之 乃遣才辯士 明視恩威 召其國王 國王不來 召其太佐平王子 先服其心 而問其罪云云.

민달 천황 12년(583년)〈신라 진평왕 4년〉 이보다 앞서서 우리 아시키타노쿠니노미야쓰코[葦北國造] 아리시토[阿利斯登]가 임나에 있으면서 아들 니치라[日羅]를 낳았는데 [니치라는] 백제에 머물렀다. 천황이 그의 재능이 있음을 듣고 백제에 칙령을 내려 [일본으로] 불러 신라를 치고 임나를 복속시킬 것을 물었다. 니치라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랑캐를 복속시키는 길은 나라의 근본을 배양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필이면 흉기를 움직이는 끄트머리의 일을 지금의 계획으로 삼겠습니까. 위로는 오미[臣], 무라지[臣連], 도모노미야쓰코[伴造], 쿠니노미야쓰코[國造]에서부터 아래로는 소리(小吏)에 이르기까지 쓰임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며, 선비를 가르치고 백성을 교화시키며, 신의로써 결속시키고 2년 간의 식량을 병사들에게 충분히 지급한 뒤에 군함을 많이 만들고 해진(海津)을 줄지어 두며, 명성과 위세를 크게 하여 한인(韓人)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시오, [그 후에] 재능있는 자를 보내 은혜와 위엄을 분명히 보이고 그 국왕을 부르십시오. 국왕이 오지 않으면 그 태좌평(太佐平) 왕자를 불러서 먼저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 죄를 물으십시오.

584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13년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十三年

十三年春二月癸巳朔庚子 遣難波吉士木蓮子 使於新羅 遂之任那

13년 봄 2월 계사 초하루 경자에 나니하노키시[難波吉士] 이티비[木蓮子]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마침내 임나에 갔다.

585년 임나를 세우려고 사신을 뽑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0 민달 14년 | **『日本書紀』** 卷二十 敏達 十四年

〈十四年三月〉丙戌 物部弓削守屋大連 自詣於寺 踞坐胡床 斫倒其塔 縱火燔之 幷燒佛像與佛殿 旣而取所燒餘佛像 令棄難波堀江 是日 無雲風雨 大連被雨衣 訶責馬子宿禰 與從行法侶 令生毁辱之心 乃遣佐伯造御室更名 於閭礙 喚馬子宿禰所供善信等尼 由是 馬子宿禰 不敢違命 惻愴啼泣 喚出尼等 付於御室 有司便奪尼等三衣 禁錮 楚撻海石榴

市亭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 卒患於瘡 故不果遣 詔橘豊日皇子曰 不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也 又發瘡死者 充盈於国 其患瘡者言 身如被燒被打被摧 啼泣而死 老少竊相語曰 是燒佛像之罪矣.
〈14년, 3월〉 병술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호무라지[物部弓削守屋大連]가 스스로 절에 나아가 의자[胡床]에 걸터앉았다. 그 탑을 무너뜨리고 불을 놓아 태워 버렸으며 또 불상과 불전을 불태웠다. 태우고 남은 불상을 모아서 나니하[難波]의 호리에[堀江]에 버리게 했다. 이 날 구름도 없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오호무라지[大連]는 비옷을 입고 우마코노스쿠네[馬子宿禰]와 그를 따라 수행하는 승려들을 꾸짖고, 욕보이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에 사헤키노미야츠코미무로[佐伯造御室]〈다른 이름은 오로게[於閭礙]이다〉를 보내어 우마코노스쿠네가 공양하는 젠신[善信] 등의 비구니를 불러 오게 하였다. 이 때문에 우마코노스쿠네는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슬피 울며 비구니 등을 불러내어 미무로[御室]에게 맡겼다. 유사가 곧 비구니 등의 법복을 벗기고 가두어 쓰바키치[海石榴市]의 객사[亭]에서 매질 하였다. 천황이 임나를 세우려고 생각하여 사사타노미미코노오호키미[坂田耳子王]를 뽑아 사신으로 삼았다. 이 때 마침 천황과 오호무라자[大連]이 갑자기 종기를 앓게 되어 보낼 수 없었다. 다치바나노토요히노미코[橘豊日皇子]에게 명령하여 "아버지 천황의 조를 거스릴 수 없다. 임나의 정치를 힘써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기가 생겨 죽은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 했는데 종기를 앓는 자들이 "몸이 불타고 매맞고 부러지는 듯하다."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죽었다.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몰래 서로 "이는 불상을 불태운 죄이다."라고 말하였다.

591년 8월 임나를 세우고자 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1 숭준 4년 | **『日本書紀』** 卷二十一 崇峻 四年

〈四年〉 秋八月庚戌朔 天皇詔群臣曰 朕思欲建任那 卿等何如 群臣奏言 可建任那官家 皆同陛下所詔.
〈4년〉 가을 8월 경술 초하루 천황이 군신에게 조를 내려, "짐이 임나를 세우고자 생각하는데, 경들은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다. 군신들이, "임나관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폐하께서 조를 내리신 바와 같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91년 11월 신라와 임나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일을 묻다

사료1 **『일본서기』** 권21 숭준 4년 | **『日本書紀』** 卷二十一 崇峻 四年

冬十一月己卯朔壬午 差紀男麻呂宿禰 · 巨勢猿臣 · 大伴囓連 · 葛城烏奈良臣 爲大將軍 率氏氏臣連 爲裨將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遣吉士金於新羅 遣吉士木蓮子於任那 問任那事.
겨울 11월 기묘 초하루 임오에 기노오마로노스쿠네[紀男麻呂宿禰]·고세노사루노오미[巨勢猿臣]·오호토모노쿠히노무라지[大伴囓連]·가즈라키노오나라노오미[葛城烏奈良臣]를 대장군을 삼았다. 각 씨의 오미·무라지[臣連]를 비장부대로 삼아 2만여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쓰쿠시[筑紫]에 머물게 했다. 기시노카네[吉士金]을 신라에 보내고, 기시노이타비[吉士木蓮子]를 임나에 보내어 임나의 일을 물었다.

591년　임나가 신라에 귀속되다

사료1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崇峻天皇四年〈眞平王建福八年〉以紀南麿巨勢比良夫膳賀拖夫大伴齧葛城烏柰良爲大將軍 率兵二萬餘 屯築紫 遣使於新羅 新羅行成 遂復任那 …(중략)… 至崇峻四年 雖與新羅行成 而暫復任那 然而旋復旋侵 不復服屬於日本 故使百濟攝其使事 至孝德二年 竟罷其調 而氷歸新羅者也.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숭준 천황 4년(591년)〈진평왕 건복 8년〉 기노오마로[紀男麻呂], 고세노히라부[臣勢比良夫], 가시하데노카타부[膳賀拖夫], 오호토모노쿠히[大伴齧], 가즈라키노오나라[葛城烏柰良]를 대장군으로 삼아 병사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츠쿠시[筑紫]에 주둔하게 하고는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가 화해를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임나를 회복하였다. …(중략)… 숭준 4년(591년)에 비록 신라와 화해를 행하여 잠시 임나를 회복하였지만, 회복하였다가 침범당하여 다시 일본에 복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백제로 하여금 그 사사(使事)를 맡게 하였고, 효덕 2년에 결국 그 조를 없애고 영원히 신라에 귀속시켰던 것이다."

594년　신라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전 신라　|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傳 新羅

傳祚至金眞平 開皇十四年 遣使貢方物 高祖拜眞平爲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其先附庸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高麗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强盛 因襲百濟附庸於迦羅國〈因襲百濟附庸於迦羅國 通典一八五作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 據三國史記 有金官古寧諸加邪國 均爲新羅所併 疑 於 字是 諸 字之訛〉

왕위가 김진평에 이른 개황 14년(594년, 진평왕 16년)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고조는 진평을 상개부 악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그의 선대는 백제에 부용하였는데, 뒤에 백제의 고구려 정벌로 말미암아 고구려인이 군역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와 신라에 귀화하니, 마침내 강성하여져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았다.〈백제를 습격하여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았다는 것은 『통전』 185권에 '가라와 임나 제국을 침략하여 멸망시켰다' 『삼국사기』의 의거하면 금관과 고령 등 여러 가야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

600년　2월 임나를 구원하려 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8년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八年

八年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8년(600년) 봄 2월 신라가 임나와 더불어 서로 공격하자, 천황이 임나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600년 신라를 공격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8년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八年

是歲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 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 惶之擧白旗 到于將軍之麾下而立 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阿羅羅六城 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强擊不可 則奏上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竝檢校事狀 爰新羅任那 二国遣使貢調 仍奏表之曰 天上有神 地有天皇 除是二神 何亦有畏乎 自今以後 不有相攻 且不乾船柁 每歲必朝 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即新羅亦侵任那

이 해 사카히베노오미[境部臣]를 대장군으로 삼고 호즈미노오미[穗積臣]를 부장군으로 삼아〈모두 이름은 빠졌다〉 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곧바로 신라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신라에 이르러 5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에 신라왕이 두려워하여 백기를 들고 장군의 깃발 아래에 이르러 서서 다다라·소나라·불지귀·위타·남가라·아라라 6성을 떼어 주며 항복을 청하였다. 그 때 장군이 함께 의논하여, "신라가 죄를 알고 항복하니 억지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 하고, 곧 아뢰었다. 천황이 다시 나니하노키시미와[難波吉師神]를 신라에 보내고, 또 나니하노키시이타비[難波吉士木蓮子]를 임나에 보내어 일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라·임나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표를 올려 "하늘에는 신이 있고 땅에는 천황이 있으니, 이 두 신을 제외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후로 서로 공격하지 않겠으며, 또 배와 노가 마르지 않도록 해마다 반드시 조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곧 사신을 보내어 장군을 불러 들였다. 장군들이 신라로부터 이르자, 신라가 또 임나를 침략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推古天皇八年〈眞平王建福八十年〉 新羅侵任那 遣境部臣等 率兵萬餘 伐新羅 拔其五城 復侵地. 既而又叛侵任那 十年春 以來目皇子爲征新羅將軍 率兵二萬五千 討新羅 三十一年建福四十年 新羅復侵任那 遣大德境部雄摩呂等 將兵伐之 新羅降 新羅任那入貢.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추고 천황 8년(600년)〈진평왕 건복 80년〉 신라가 임나에 쳐들어갔다. 사카히베노오미[境部臣] 등을 보내 병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쳐서 그 다섯 성을 빼앗고 침범한 땅을 회복하였다. 또 배반하여 임나에 쳐들어갔다. [추고 천황] 10년(602년) 봄에 쿠메노미코[來目皇子]를 정신라장군(征新羅將軍)으로 삼아 병사 2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 [추고 천황] 31년(623년)〈건복 40년〉 신라가 다시 임나에 쳐들어갔다. 다이토쿠[大德]·사카히베[境部臣]·오마로[雄摩侶] 등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신라가 항복하였다. 신라, 임나가 조공을 바쳤다.

601년 고구려, 백제를 보내어 임나 구원을 요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9년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九年

〈九年〉 三月甲申朔戊子 遣大伴連囓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

〈9년〉 3월 갑신 초하루 무자에 오호토모노무라지쿠히[大伴連囓]을 고려에 보내고, 사카모토노오미아라테[坂本臣糠手]를 백제에 보내어 "급히 임나를 구원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603년 임나가량 사람 우두를 강수선생이라고 부르다

사료1 『삼국사기』 권46 열전 제6 강수 |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第六 强首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 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 一見說釋 無疑滯. 王驚喜 恨相見之晚 問其姓名 對曰 臣夲任那加良人 名字頭 王曰 見卿頭骨 可稱強首先生.

태종대왕이 즉위하자 당나라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하였다.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왕이 그를 불러 물었다. 왕 앞에서 한 번 보고는 설명하고 해석하였는데 머뭇거리거나 막힘이 없었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며 그를 늦게 만난 것을 유감스러워 하였다. 그 성명을 물으니 "신은 본래 임나가량(任那加良) 사람으로 이름은 우두(牛頭)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대의 머리뼈를 보니 강수선생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하였다.

607년 가라국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해동역사』 권16 세기16 제소국 | 『海東繹史』 卷十六 世紀十六 諸小國

隋煬帝 大業三年 四月壬戌 迦羅〈按齊書作加羅〉國 見使來貢 北史按東史 駕洛國 自首露王 至王仇亥 新羅法興王十九年 來降 凡十王四百九十一年.

수 양제 대업 3년(607년) 4월 임술에, 가라〈『제서(齊書)』에는 가라(加羅)라고 썼다〉국(迦羅國)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북사』〉 우리 나라 역사서를 살펴보건대, 가락국은 수로왕으로부터 왕 구해(仇亥)가 신라 법흥왕 19년에 와서 항복할 때까지 10왕 491년이었다.

608년 백제, 왜, 가라사국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다

사료1 **『강역고』** 권2 변진별고 | **『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鄭麟趾地理志云 咸安本阿那伽耶 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隋書煬帝本紀云 大業四年 百濟倭迦羅舍國 竝遣使貢方物.

정인지의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함안은 본래 아나가야(阿那伽耶)였는데 법흥왕이 멸하여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수서(隋書)』 양제본기(煬帝本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업 4년(608년) 백제, 왜, 가라사국(迦羅舍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610년 7월 신라와 임나가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8년 7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八年 七月

秋七月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가을 7월에 신라의 사신 사탁부 내말죽세사가 임나의 사신 탁부 대사 수지매와 함께 쓰쿠시[筑紫]에 이르렀다.

610년 9월 신라와 임나의 사신을 부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8년 9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八年 九月

九月 遣使召新羅任那使人

9월 사신을 보내어 신라와 임나의 사신을 불렀다.

610년 10월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도착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9년 10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九年 十月

冬十月己丑朔丙申 新羅任那使人臻於京 是日 命額田部連比羅夫 爲迎新羅客莊馬之長 以膳臣大伴爲迎任那客莊馬之長 卽安置阿斗河邊館

겨울 10월 기축 초하루 병신에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 날에 누카타베노무라지히라부[額田部連比羅夫]에게 명령하여 신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식말[莊馬]의 우두머리로 삼고, 가시하데노오미오호토모[膳臣大伴]를 임나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식말[莊馬]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리고 아토[阿斗]의 가하혜노무로츠미[河邊館]에서 편히 머무르게 하였다.

610년 10월 신라와 임나 사신이 조정에 이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8년 10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八年 十月

丁酉 客等拜朝庭 於是 命秦造河勝土部連菟 爲新羅導者 以間人連鹽蓋阿閉臣大籠 爲任那導者 共引以自南門入立于庭中 時大伴咋連蘇我豐浦蝦夷臣坂本糠手臣阿倍鳥子臣 共自位起之 進伏于庭 於是 兩国客等各再拜 以奏使旨 乃四大夫 起進啓於大臣 時大臣自位起 立廳前而聽焉 旣而賜祿諸客 各有差

정유에 사신들이 조정에 배례하였다. 이에 하다노미야츠코가하카츠[秦造河勝]와 하지노무라지우사기[土部連菟]를 명하여 신라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고, 하시히토노무라지시호후타[間人連鹽蓋]와 아헤노오미오호코[阿閉臣大籠]를 임나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모두 인도하여 남문으로 들어와서 조정 안에 섰다. 이 때 오호토모노쿠히노무라지[大伴咋連], 소가노토유라노에미시노오미[蘇我豐浦蝦夷臣], 사카모토노아라테노오미[坂本糠手臣], 아헤노토리코노오미[阿倍鳥子臣]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에 나가 엎드렸다. 그러자 양국의 사신들은 각각 두 번씩 절하고 사행의 뜻을 아뢰었다. 이에 4명의 마헤쓰키미[大夫]가 일어나 오호노미[大臣]에게 나아가 여쭈었다. 오호노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청 앞에 서서 들었다. 그리고 나서 사신들에게 록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610년 10월 신라와 임나의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8년 10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八年 十月

乙巳 饗使人等於朝 以河內漢直贄爲新羅共食者 錦織首久僧爲任那共食者 辛亥 客等禮畢 以歸焉

을사에 사신들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가후치노아야노아타히니헤[河內漢直贄]를 신라 사신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삼고, 니시코리노오비토쿠소[錦織首久僧]를 임나 사신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신해에 사신들이 의례를 마치고 돌아갔다.

610년 10월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귀국하다

사료1 **『일본서기』** 추고 18년 10월 | **『日本書紀』** 推古 十八年 十月』

辛亥 客等禮畢 以歸焉.

신해에 사신들이 의례를 마치고 돌아갔다.

611년 신라와 임나가 사신을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19년 8월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十九年 八月

〈十九年〉 秋八月 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 共朝貢

〈19년〉 가을 8월 신라가 사탁부 나말 북질지를 보내고, 임나가 습부 대사 친지주지를 보내어 함께 조공하였다.

623년 7월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이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31년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三十一年

卅一年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竝來朝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幷舍利 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秦寺 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 皆納于四天王寺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醫惠日福因等 竝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国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国者 法式備定之珍国也 常須達

31년(623년) 가을 7월 신라가 대사 나말 지세이를, 임나가 달솔 내말지를 보내어 함께 내조하였다. 불상 1구 및 금탑과 사리, 또한 큰 관정번 1구와 작은 번 12조를 바쳤다. 이에 불상은 가도노[葛野]의 우즈마사테라[秦寺]에 모시고, 그 나머지 사리와 금탑, 관정번 등은 모두 시텐와우지[四天王寺]에 들였다. 이 때 당나라에서 학문을 닦던 승려인 에사이[惠齋]·에쿠와우[惠光] 및 의사 에니치[惠日]·후쿠인[福因] 등이 모두 지세이 등을 따라 돌아왔는데, 에니치 등은, "당나라에 머물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업을 달성하였으므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저 당나라는 법식이 두루 정비된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모름지기 항상 왕래하여야 합니다."라고 함께 아뢰었다.

623년 신라가 임나를 복속하다

사료1 **『일본서기』권22 추고 31년 | 『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 三十一年**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於是 天皇將討新羅 謀及大臣 詢于群卿 田中臣對曰 不可急討 先察狀 以知逆後擊之 不晚也 請試遣使覩其消息 中臣連国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征伐新羅 以取任那 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国 道路之間尙詐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則不果征焉 爰遣吉士磐金於新羅 遣吉士倉下於任那 令問任那之事 時新羅国主 遣八大夫 啓新羅国事於磐金 且啓任那国事於倉下 因以約曰 任那小国 天皇附庸 何新羅輒有之 隨常定內官家 願無煩矣 則遣奈末智洗遲 副於吉士磐金 復以任那人達率奈末遲 副於吉士倉下 仍貢兩国之調 然磐金等 未及于還 卽年 以大德境部臣雄摩侶 · 小德中臣連国爲大將軍 以小德河邊臣禰受 小德物部依網連乙等 · 小德波多臣廣庭 · 小德近江脚身臣飯蓋 · 小德平群臣宇志 · 小德大伴連闕名小德大宅臣軍爲副將軍 率數萬衆 以征討新羅 時磐金等 共會於津 將發船以候風波 於是 船師滿海多至 兩国使人 望瞻之愕然 乃還留焉 更代堪遲大舍 爲任那調使而貢上 於是 磐金等相謂之曰 是軍起之 旣違前期 是以 任那之事 今亦不成矣 則發船而度之 唯將軍等 始到任

이 해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여 임나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에 천황은 장차 신라를 치고자 오호오미[大臣]들에게 묻고 여러 경들과 의논하였다. 다나카노오미[田中臣]는, "서둘러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서 반역을 알아 본 뒤에 공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시험 삼아 사자를 보내어 그 사정을 엿보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나카토미노무라지쿠니[中臣連国]는, "임나는 원래 우리나라의 내관가였는데 오늘날 신라인이 그것을 쳐서 소유하였습니다. 청컨대 군대를 정비하여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취하여 백제에 부속시키십시오. [그것이] 신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이익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다나카노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는 배반함이 많은 나라로 길가는 잠깐 사이에도 오히려 속임수를 씁니다. 무릇 그가 청한 바는 다 잘못된 것이므로 백제에 부속시켜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결국 정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기니노이하카네[吉士磐金]를 신라에 보내고 기시노쿠라지[吉士倉下]를 임나에 보내어 임나의 일을 묻게 하였다. 이 때 신라의 국왕은 8명의 대부를 파견하여 신라국의 일을 이하카네[磐金]에게 아뢰고 또한 임나국의 사정을 쿠라지[倉下]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임나는 작은 나라이지만 천황의 부용국이다. 어찌 신라가 함부로 그것을 영유하겠는가. 평상시대로 내관가로 정할 것이니 원컨대 걱정하지 말라."라고 약속하고, 나말 지세지를 기니노이하카네에게 딸려 보내고, 또한 임나인 달솔 나말지를 기시노쿠라지[吉士倉下]에 딸려 보내어 두 나라의 조를 바쳤다. 그러나 이하카네[磐金] 등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해에 다이토쿠[大德] 사카히베노오미오마로[境部臣雄摩侶]·제우토쿠[小德] 나카토미노무라지쿠니[中臣連国]를 대장군으로 하고, 제우토쿠가하헤노오미네즈[河邊臣禰受]·제우토쿠모노노베노요사미노무라지오토[物部依網連乙等]·제우토쿠하타노오미히로니하[波多臣廣庭]·제우토쿠아후미노아나무노오미이히후타[近江脚身臣飯蓋]·제우토쿠해구리노오미우시[平群臣宇志]·제우토쿠오호토모노무라지[大伴連]〈이름은 빠졌다〉·제우토쿠오호야케노오미이쿠사[大宅臣軍]를 부장군으로 하여, 수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를 정벌하게 하였다. 그 때 이하카네[磐金] 등은 모두 항구에 모여서 배를 띄우려 바람과 파도를 살피고 있었는데, 바로 이 때에 군대를 실은 배가 바다를 가득 채우며 수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두 나라의 사신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 돌아가 머무르며, 대신에 감지대사를 임나의 조공 사신으로 삼아 바치게 하였다. 이 때에 이하카네[磐金] 등은,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이전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나의 일은 이번에도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라 서로 말하고, 배를 내어 건너갔다. 장군들은 처음에 임나에 도착해 의논하여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 국왕은 많은 군대가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미리 두려워하여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장군들이 함께 의논하여 표를 올리니, 천황이 허락하였다.

623년 11월 신라와 임나에 보냈던 사신이 귀국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2 추고 31년 |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 三十一年

冬十一月 磐金 · 倉下等 至自新羅 時大臣問其狀 對曰 新羅奉命 以驚懼之 則竝差專使 因以貢兩国之調 然見船師至 而朝貢使人更還耳 但調猶貢上 爰大臣曰 悔乎 早遣師矣 時人曰 是軍事者 境部臣 · 阿曇連 先多得新羅幣物之故 又勸大臣 是以 未待使旨 而早征伐耳 初磐金等 度新羅之日 比及津 莊船一艘 迎於海浦 磐金問之曰 是船者何国迎船 對曰 新羅船也 磐金亦曰 曷無任那之迎船 卽時 更爲任那加一船 其新羅以迎船二艘 始于是時歟

겨울 11월 이하카네[磐金]·쿠라지[倉下] 등이 신라에서 귀국하였다. 이 때 오호오미[大臣]가 그 상황을 물으니, "신라는 명령을 받들고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나란히 사자를 파견하여 두 나라의 조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를 실은 배가 이르는 것을 보고 조공사신은 다시 돌아가 버렸으므로 다만 조만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오호오미는 "후회스럽구나, 너무 빨리 군대를 파견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때 사람들은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일은 사카히베노[境部臣]와 아즈미노무라지[阿曇連]가 일찍이 신라의 폐물을 받았던 까닭에, 오호오미에게 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자의 뜻을 미처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정벌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이하카네[磐金] 등이 신라로 건너가던 날 항구에 도착할 즈음에 장식한 배 한 척이 바닷가에서 맞이하였다. 이하카네는 "이 배는 어느 나라의 영접선인가."하고 물으니, "신라의 배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하카네는 또 "어찌하여 임나의 영접선은 없는가."라고 물으니, 곧바로 임나를 위하여 배 한 척을 더하였다. 신라가 영접선을 2척으로 하는 것은 이 때부터 시작된 일인 듯하다.

623년 임나를 침범한 신라를 공격하다

사료1 **『대한강역고』** 권2 변진별고 | **『大韓疆域考』** 卷二 弁辰別考

日本史推古天皇三十一年 新羅復侵任那遣將伐之 新羅任那入貢 此時卽唐高祖武德六年也 任那之亡 在唐太宗貞觀之代 則隋書所云迦羅舍國 卽任那無疑.

『일본사』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추고 천황 31년(623년, 신라 진평왕 45년)에 신라가 다시 임나를 침범하니 장수를 보내어 쳤다. 신라, 임나가 조공하였다." 이 때가 곧 당나라 고조 무덕 6년(623년)이다. 임나가 망한 것은 당나라 태종 정관의 시대에 있었으니 수서에서 이른바 가라사국(迦羅舍國)은 곧 임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38년 백제, 신라, 임나가 조공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3 서명 10년 | 『日本書紀』 卷二十三 舒明 十年

〈十年〉 是歲 百濟新羅任那 竝朝貢.

〈10년〉 이 해 백제, 신라, 임나가 나란히 조공하였다.

642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에 보낼 사신을 정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4 황극 원년 | 『日本書紀』 卷二十四 皇極 元年

戊申 饗高麗 · 百濟客於難波郡 詔大臣曰 以津守連大海可使於高麗 以国勝吉士水鷄可使於百濟水鷄 此云俱毗那 以草壁吉士眞跡可使於新羅 以坂本吉士長兄可使於任那

무신에 고려·백제의 사신에게 나니하노코호리[難波郡]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오호오미[大臣]에게 조를 내려 "쓰모리노무라지오호아마[津守連大海]를 고려에 보낼 사신으로 삼을 만하고 구니카쓰노키시쿠히나[國勝吉士水鷄]는 백제에 보낼 사신으로 삼을 만하다.〈수계(水鷄)는 우리말로 쿠히나[俱毗那]라 한다〉 구사카베노키시마토[草壁吉士眞跡]는 신라에 보낼 사신으로 삼을 만하며, 사카모토노키시나가에[坂本吉士長兄]는 임나에 보낼 사신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였다.

645년 7월 백제사신이 임나의 조를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5 효덕 원년 | 『日本書紀』 卷二十五 孝德 元年

〈大化元年 秋七月〉 丙子 高麗百濟新羅 竝遣使進調 百濟調使 兼領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 遇病留津館 而不入於京 巨勢德太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既往短而將來長 是故 可以溫和之心 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国 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国 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 觀察任那国堺 是故 百濟王隨勅 悉示其堺 而調有闕 由是 却還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国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人 · 馬飼造闕名 又勅 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

〈다이카[大化] 원년, 645년, 가을 7월 정묘 초하루〉 병자에 고려·백제·신라가 함께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백제의 조사가 임나의 사신을 겸하여 임나의 조를 바쳤다. 다만 백제의 대사인 좌평 연복만이 병에 걸려 나루의 객사에 머물러 있고 수도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세노토코다노오미[巨勢德太臣]가 고려의 사신에게 조서를 내려 "밝은 신이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야마토의 스메라미코토[明神御宇日本天皇]의 조서이다. 천황이 보낸 사신과 고구려의 신의 아들이 보낸 사신은 여태까지 짧았으나 앞날은 길다. 그러므로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 이어 왕래할

만하다."고 하였다. 또 백제 사신에게 조서를 내려 "밝은 신이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야마토의 스메라미코토[明神御宇日本天皇]의 조서이다. 과거 우리의 먼 조상의 시대에 백제국은 내관가가 되었으니, 비유하자면 세 개로 묶은 그물과 같았다. 중간에 임나국을 백제에 속하도록 주었고, 후에미와노쿠루쿠마노키미아즈마히토[三輪栗隈君東人]를 보내 임나국의 경계를 살피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왕은 칙명에 따라 그 경계를 다 보여주었으나, 조에 빼놓은 것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조를 돌려보냈다. 임나에서 나는 물건은 천황이 환히 아는 것이니, 앞으로는 나라와 나오는 물건을 갖추어 적어야 할 것이다. 너희 좌평 등은 얼굴도 바뀌지 않고 왔으니, 빨리 분명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거듭 미와노키미아즈마히토[三輪君東人]·우마카히노미야츠코[馬飼造]〈이름이 빠져 있다〉를 보낸다. 또 명하여 귀부의 달솔인 의사의 아내와 자식 등을 보내라."고 하였다.

사료2 **『대한강역고』 권2 증보임나고 | 『大韓疆域考』 卷二 增補任那考**

又云 孝德天皇大化元年〈新羅善德王仁平十二年〉七月 百濟新羅來貢 百濟攝任那使事 其數有闕詔却之 遣栗隈東人 觀察任那國界 二年九月 遣使徵新羅質 罷任那調.

또 [『일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효덕 천황 다이카[大和] 원년(645년)〈신라 선덕왕 인평(仁平) 12년〉 7월 백제, 신라가 조공해 왔다. 백제의 섭임나사사(攝任那使事)의 수가 모자람이 있어 조서를 내려 없애버렸다. 쿠루쿠마노아즈마히토[栗隈東人]를 보내 임나국의 경계를 관찰하였다. 2년(646년) 9월 사신을 보내어 신라의 볼모를 부르고 임나의 조를 없앴다."

646년 2월 고구려·백제·임나·신라가 조를 보내다

사료1 **『일본서기』 권25 효덕 2년 2월 | 『日本書紀』 卷二十五 孝德 二年 二月**

〈二年〉 二月甲午朔戊申 …(중략)… 高麗百濟任那新羅 竝遣使 貢獻調賦.

〈다이카 2년, 646년〉 2월 갑오 초하루 무신에 …(중략)… 고려·백제·임나·신라가 함께 사신을 보내 조부를 바쳤다.

646년 9월 신라에 인질을 요구하다

사료1 **『일본서기』 권25 효덕 2년 9월 | 『日本書紀』 卷二十五 孝德 二年 九月**

九月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 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 更名玄理〉

9월 세우토쿠[小德] 다카무쿠노하카세쿠로마로[高向博士黑麻呂]〈구로마로[黑麻呂]의 다른 이름은 구엔리[玄理]이다〉를 신라에 보내 인질을 바치게 했다. 〈드디어 임나의 조를 그만두었다〉

661년 문무왕이 구형왕의 제사를 지내게 하다

사료1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 『三國遺事』 卷二 奇異 第二 駕洛國記

洎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衝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之子庶云匝干之女文明皇后寔生我者 兹故元君於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曽敗 所葬廟者今尚存 合于宗祧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趾 近廟上上田三十頃爲供營之資號称王位田付屬夲土 王之十七代孫賡世級干祗禀朝旨, 主掌厥田每歳時釀醪醴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内五日也. 芬苾孝祀於是乎在於我 自居登王即位己卯年置便房 降及仇衝朝未三百三十載之中 享廟禮曲永無違者 其乃仇衝失位去國 逮龍朔元年辛酉六十年之間 享是廟禮或闕如也 美矣哉 文武王 〈法敏王諡也〉 先奉尊祖 孝乎惟孝 継泯絶之祀復行之也.

신라 제30대 왕 법민왕은 용삭 원년 신유 3월에 조서를 내렸다. "가야국(伽耶國) 시조의 9대손 구형왕이 이 나라에 항복할 때 이끌고 온 아들 세종의 아들인 솔우공의 아들 서운(庶云) 잡간(匝干)의 딸 문명황후가 나를 낳았다. 따라서 시조 수로왕은 나에게 곧 15대 시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으나 그를 장사지낸 묘는 지금도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해서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따라서 그 옛 궁터에 사자를 보내서 묘에 가까운 상전 30경을 공영의 비용으로 하여 왕위전(王位田)이라 부르고 본토에 소속시켰다. 수로왕의 17대손 갱세(賡世) 급간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하여 매해 때마다 술과 단술을 빚고 떡·밥·차·과실 등 여러 맛있는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였다. 그 제삿날은 거등왕이 정한 연중 5일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비로소 그 향기로운 효사(孝祀)가 우리에게 맡겨졌다. 거등왕이 즉위한 기묘에 편방(便房)을 설치한 뒤로부터 구형왕 말년에 이르는 330년 동안에 묘에 지내는 제사는 길이 변함이 없었으나 그 구형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후부터 용삭원년 신유(661년)에 이르는 60년 사이에 이 묘에 지내는 제사지내는 예를 가끔 빠뜨리기도 하였다. 아름답도다, 문무왕〈법민왕의 시호이다〉은 먼저 조상을 받드니 효성스럽고 또 효성스럽다. 끊어졌던 제사를 다시 향하였다.

668년 능안이 가야의 춤을 추다

사료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8년 10월 |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八年 十月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湌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及樂作 奈麻緊周子能晏 年十五歲 呈加耶之舞 王見容儀端麗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賜幣帛頗厚.

25일에 왕이 나라로 돌아오면서 욕돌역에 도착하였는데, 국원의 사신인 대아찬 용장이 사사로이 잔치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마 긴주의 아들 능안이 15살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이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앞에 불러서 등을 어루만지며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권하고 선물을 자못 후하게 내려 주었다.

680년 금관소경을 설치하다

사료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20년 5월 | **『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二十年 五月

加耶郡置金官小京

가야군에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사료2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 **『慶尙道地理志』** 晉州道

文武王二十年 置金官小京.

문무왕 20년(680년)에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

852년 다자이후의 중요성을 말하다

사료1 **『일본문덕천황실록』** 권4 문덕 인수 2년 | **『日本文德天皇實錄』** 卷四 文德 人壽 二年

〈仁壽二年二月〉乙巳 參議正四位下行宮內卿兼相摸守시게노 사다누시[滋野朝臣貞主]卒貞主者 右京人也 …(중략)… 嘉祥二年春兼尾張守 于時大宰府吏多不良 衰弊日甚 貞主上表曰 夫大宰府者 西極之大壤 中国之領袖也 東以長門爲關 西以新羅爲拒 加以九国二嶋 郡縣闊遠 自古于今 以爲重鎭 夫謀事必就祖 發政占古語 因檢舊記 大唐高麗新羅百濟任那等 悉託此境 乃得入朝 或緣貢獻之事 或懷歸化之心 可謂諸藩之輻湊 中外之關門者也 因玆有德爲帥貳 才良爲監典 若無其人 選取弁官式部 頃年以來 絶而不行 近得飛語云 彼吏或擊目閉口 似避時之人 或忘恥貪財 爲聚斂之吏 府司国宰莫不悲傷

〈인수 2년, 2월〉 을사에 참의 정4위 하 행궁내경 겸 상모수 시게노사다누시[滋野朝臣貞主]가 죽었다. 정주는 우쿄 사람[右京]이다. …(중략)… 가상 2년(849년) 봄에 미장수를 겸직하였다. 그 때 다자이후의 많은 관리들이 좋지 못하여 폐해가 날로 심하였다. 정주가 표를 올려, “무릇 다자이후는 서쪽 끝의 큰 땅으로 중국[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동쪽은 장문국으로써 관문을 삼고 서쪽은 신라를 막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홉 나라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현은 넓고 먼 곳으로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진으로 여겨 왔습니다. 무릇 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조상에게 나아가 옛말에서 정치에 관한 점을 쳤으므로, 옛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당나라와 고려·신라·백제·임나 등은 모두 이 곳에 의탁하여 입조하여 조공하기도 하고, 혹은 귀화하려는 마음을 품기도 하였으니, [다자이후는] 여러 번국들이 모이는 곳이며 외국과 국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자로 우두머리를 삼고 재주가 좋은 자로 감전을 삼았으며, 만일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변관식부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끊어져 행하여지지 않으니 요즈음의 떠도는 말에 ‘관리들이 눈으로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어 세상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으며,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을 잊고 재물을 탐하여 탐관오리가 되었다’고 하니, 후시[府司]와 쿠니사이[国宰]가 슬프고 마음 아프지 않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853년 임나왕족의 후예인 진경대사가 태어나다

사료1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문』 | 『眞鏡大師 寶月凌空塔碑文』**

大師 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 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鼇山 稟氣 鰈水騰精 握文符而 出自相庭 携武略而 高扶王室 ㅁㅁ終平 二敵永安 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 考盃相 道高莊老 志慕松喬 水雲雖縱其閑居 朝野恨其無貴仕 妣朴氏 嘗以坐而假寐 夢得休ㅁ ㅁ後追思 因驚有娠 便以斷其葷血 虛此身心 潛感幽靈 冀生智子 以大中九年 十二月 十日 誕生.

대사의 이름은 심희요, 속성은 김씨이니,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다. 풀에서 성스러운 가지를 뽑았으나 이웃나라의 침략에 괴로워하다가 우리나라에 투항하였다. 먼 조상인 흥무대왕은 오산(鼇山)의 정기를 타고, 바다[鰈水]의 정기에 올라서, 문신의 길조를 잡아 재상의 뜰에 나왔고, 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평생토록 ㅁㅁ하여 두 적이 영원히 안정되고 토군(兎郡)의 사람들이 능히 세 조정을 받들어 멀리 진한의 풍속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배상(盃相)은 도(道)는 노장사상을 높였고 뜻은 송교(松喬)를 흠모하였으며, 물과 구름이 비록 그 한가로움을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조야(朝野)는 그가 벼슬을 귀히 여기지 않음을 아쉬워 하였다. 어머니 박씨가 일찍이 앉은 채로 선잠이 들었다가 꿈에 휴ㅁ(休ㅁ)를 얻었다. 나중에 미루어 생각해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임신을 하였다. 곧 냄새나는 음식을 끊고 그 몸과 마음을 비웠으며, 가만히 그윽한 신령에 감응하여 지혜로운 아들을 낳기를 빌었다. 대중(大中) 7년(853년) 12월 10일에 태어났다.

861년 사데히고의 공적을 아뢰다

사료1 **『일본삼대실록』** 권5 청화 정관 3년 | **『日本三代實錄』** 卷五 淸和 貞觀 三年

〈八月〉 十九日庚申 左京人散位外從五位下伴大田宿禰常雄賜伴宿禰姓 先是 正三位行中納言兼民部卿皇太后宮大夫伴宿禰善男等奏言 常雄款稱 謹稽家諜 伴大田宿禰同祖 金村大連公第三男狹手彦之後也 狹手彦 宣化天皇世奉使任那 征新羅 復任那 兼助百濟 欽明天皇世 百濟以高麗之寇 遣使乞救 狹手彦復爲大將軍 伐高麗 其王踰城而遁 乘勝入宮 盡得珠寶貨賂 以獻之 磯城嶋天皇世 還來獻高麗之囚 今山城国狛人是也 狹手彦再使海外 征伐兩国 盡力絶域 復立二国 身尊當時 功流後代 但古人朴質 除兩国盡力非私 皆賜別姓 是以子孫不得大部 別賜大田宿禰 而狹手彦之弟阿彼布古 承父爲大部連公 自斯而後 恐子孫之不廣 無復更賜別姓 今阿彼布古之後 歷代尊顯 而狹手彦之後 擧朱紱者 曠世無聞 一祖之枝 榮枯殊隔 沈淪之歎 告訴無止 常雄幸逢昌泰 新參花轂 門蔭中興 寔爲榮慶 刊大田兩字 同歸於一宗 然則外不辱功臣之序 內方敦孔懷之親 善男等伏檢家記 所陳不虛 請刊彼兩字 直賜宿禰 控其支派 入此本源 從之

〈8월〉 19일 경신에 사키야우[左京] 사람 산위 외종5위하 도모노오호타노스쿠네토코오[伴大田宿禰常雄]에게 도모노스쿠네[伴宿禰]의 성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정3위 행중납언 겸 민부경 황태후궁대부 도모노스쿠네요시오[伴宿禰善男]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 "토코오[常雄]이 간곡하게 말하기를, 삼가 가첩을 살펴보니 도모노오호타노스쿠네[伴大田宿禰]는 [저희들과] 조상이 같은데 가나무라 오호무라지[金村大連公]의 셋째 아들 사데히고[狹手彦]의 후예입니다. 사데히고는 선화천황 때(535~539년) 임나에 사신으로 가서 신라를 정벌하고 임나를 회복하였

으며, 아울러 백제를 도왔습니다. 흠명천황 때(539~571년)에 백제는 고려의 침입으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사데히고는 다시 대장군이 되어 고려를 정벌하였는데, 그 왕이 성벽을 넘어 도망하였으므로 승기를 틈타 궁에 들어가 보화와 재물을 모두 취하여 바쳤습니다. 스메마미코토[礒城嶋天皇] 때(573~585년)에 돌아 와서 고려의 포로를 바쳤는데 지금 야마시로쿠니[山城国]의 박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데히고는 다시 해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두 나라를 정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힘을 다하여 두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몸은 당시에 높았고 공은 후대에까지 남았습니다. 다만 옛 사람들이 질박하여 두 나라를 정벌하는 데 힘을 다하고 사사롭지 않았으므로 모두 별성을 내렸었습니다. 이로써 자손들이 대부(大部)가 될 수 없어 별도로 오호타노스쿠네[大田宿禰]를 내렸고, 사데히고의 아우 아히호코[阿彼布古]는 아버지를 이어 대부의 무라지[連] 공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후로 자손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다시 별성(別姓)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히호코[阿彼布古]의 후예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에 현달하였으나, 사데히고의 후예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는 오랫동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조상의 후예로서 번영과 쇠락이 크게 달라 매우 한탄스러우며 [이에] 고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코오[常雄]가 다행이 태평한 시대를 만나 새로이 천황의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문음(門蔭)이 중흥하여 진실로 영예와 기쁨이 됩니다. 대전(大田) 두 자를 새겨 함께 한 종(宗)으로 돌아가게 하면 밖으로는 공신의 차서를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안으로는 바야흐로 형제간의 우애를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요시오[善男] 등이 엎드려 집안의 기록을 살펴 말하는 바가 헛되지 않으면 저 두 자를 새기고 곧 바로 스쿠네[宿禰]를 내리시어 그 지파를 끌어 들여 이 본원에 들어오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다.

867년 백제인, 임나인에게 사성하다

사료1 **『일본삼대실록』** 권14 청화 정관 9년 | **『日本三代實錄』** 卷十四 淸和 貞觀 九年

〈貞觀九年 四月〉 廿五日甲午 主稅少允從六位上錦部連三宗麻呂 木工少允正六位上錦部連安宗賜姓惟良宿禰 其先 百濟国人也 伊賀權目正六位下韓人眞貞賜姓豊瀧宿禰 其先 任那國人也

〈정관 9년, (867년) 4월〉 25일 갑오에 주세소윤 종6위상 니시코리노무라지미르무네마로와 목공 소윤 정6위상 니시코리노무라지야스무네에게 오콘미료오소쿠네[惟良宿禰]의 성(姓)을 내렸다. 그 선조는 백제국 사람이다. 이하 권목 정6위하 한인진정(韓人眞貞)에게 유타카타레스쿠테[豊瀧宿禰]의 성을 내렸다. 그 선조는 임나국 사람이다.

신라말 장군 충지가 수로왕의 진영을 그리고 제사지내다

사료1 **『김해부읍지』** 능침 | **『金海府邑誌』** 陵寢

羅季 將軍忠至鎭金官城 有英規者 奪陵享陵 閣樑摧墮英規頂 遂斃 忠至懼 畵王之眞 安於屋壁 朝夕以祀之 及三日影像流血淚 貯於地幾一斗 懼以焚之 後群盜欲發塚 有猛士被甲 從陵中出 射之中殺八人 盜驚走 數日復來 有蟒長三十餘尺 眼如電 自陵傍咬殺九人 賊驚走.

신라 말에 장군 충지가 금관성을 진수(鎭守)하는데, 영규라는 자가 능의 제물을 빼앗았더니, 능각의 들보가 꺾여 영규의 정수리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충지가 두려워하여 [수로]왕의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 사흘이 되자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이었다. 두려워 불태워버렸다. 뒤에 도적떼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였다. 갑옷을 입은 용맹스런 병사가 능 가운데서 나와서 활을 쏘아 여덟 사람을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길이가 30여 자나 되고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나는 뱀이 능 부근에서 나타나 아홉 사람을 물어 죽이니, 도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991년　　수로왕릉의 능전을 줄이다

사료1　**『김해부읍지』** 능침　|　**『金海府邑誌』** 陵寢

淳化二年 量田使趙文善 將減陵田之半 屬于民 其夕夢 神人七人操劒而至曰爾有大憝 欲斬之耳. 文善驚覺得疾 宵遁死于道傍.

순화 2년(991년, 고려 성종 10년)에 양전사 조문선이 장차 능의 밭을 반으로 줄이고 민전(民田)에 속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날 저녁 꿈에 귀신 7, 8명이 칼을 들고 와서는 "네게 큰 원한이 있어 죽이겠다."고 하므로 문선이 놀라 깨어서 병을 얻었고, 밤에 도망하다가 길 곁에서 죽었다.

1439년　　김해 읍성에 있는 수로왕 능침에 표석 세우기를 청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86 세종21년(1439) 10월　|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卷八十六 世宗二十一年 十月

慶尙道觀察使李宣馳啓 臣巡至金海 親審邑城 西面道傍駕洛始祖首露王陵寢 湮沒水田 或開道踐履 或牛馬放牧 非惟簡慢無禮 而律有禁制 臣竊意首露雖據海隅[卯]〔卵〕生 異於常人 享國百有餘年 傳祚之久 幾於數百 比諸羅濟始祖 厥功雖有優劣 當鴻荒之初 務農創業 民受其賜 一方按堵 乞依羅祖褒典 量其制禮 陵傍四面五十[少]〔步〕內田 竝使陳荒 禁耕栽松 爲之兆域 命竪表石 擇定守護一二戶 以時[茜]〔灑〕掃 敦示奬禮

下禮曹 禮曹啓 首露王陵寢 不須立表石置守護 但令四面各限三十步 禁耕樵採 從之°

경상도 관찰사 이선(李宣)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에 이르러 친히 살펴본 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침이 수전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옵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하던 예전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옵소서."하였다.

예조로 내려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四面)으로 각각 30보씩을 한정하여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71년　수로왕의 능실에서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10권 성종2년(1471) 5월 25일 정유 |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十卷 成宗二年 五月 二十五日 丁酉

禮曹啓曾下校正廳單子 一時遵行 不載大典條件 開坐以啓 請令該曹 仍舊奉行從之 一 新羅始祖及首露王高麗 太祖以下四位陵室禁田柴.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정청에 내린 단자(單子)는 한때는 준행하였으나 『대전(大典)』의 조건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목을 열거하여서 아뢰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봉행하여 따르게 하소서.

1. 신라 시조와 수로왕, 고려 태조 이하 4위의 능실에서는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禁)하게 하소서."

1592년　왜구가 수로왕릉을 파헤치다

사료1　**『지봉유설』** 권18 궁실부 | **『芝峯類說』** 卷十八 宮室部

壬辰年後 倭賊發金海首露王墓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盆手足脛骨亦甚偉 柩傍有二女 面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則 旋卽銷滅 盖其殉葬者也.

임진년 이후, 왜적이 김해 수로왕릉을 팠다. 구덩이 속이 매우 넓고, 두개골의 크기가 동으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으며, 팔 다리와 정강이뼈[脛骨]도 역시 매우 컸다. 널 옆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나이는 20세 쯤 되었다. [두 여자의 시신을] 구덩이 밖에 내놓자 금새 사라져 없어졌다. 아마도 순장(殉葬)된 사람인 듯하다.

사료2　**『기언』** 권41 허씨선묘비문석지 | **『記言』** 卷四十一 許氏先墓碑文石誌

皇明萬曆八年 嶺南觀察使許曄 大修王墓 其後十三年 國有倭寇 其年掘王之墓 邦人共封築之 歷泰昌天啓崇禎 至今五十五年 巡察使許積 增修之 建墓碑 日 駕洛國君首露王墓.

명 만력 8년(1580년)에 영남 관찰사 허엽(許曄)이 왕의 묘를 크게 수리하였는데 13년 뒤 나라에 왜의 침입이 있었다. 그 해에 수로왕의 무덤을 파헤치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봉분을 쌓았다. 태창, 천계, 숭정을 거쳐 지금까지 55년이 지나, 순찰사 허적(許積)이 무덤을 증수하고 묘비를 세우고서 가락국군수로왕묘(駕洛國君首露王墓)라 하였다.

사료3 **『기언』** 권41 가락국 보주허태후 묘비 음기 | **『記言』** 卷四十一 駕洛國 普州許太后 墓碑 陰記

我昭敬大王二十五年 有倭敵 掘先王墓 并及太后葬 邦人更封築之 上之二十四年 嶺南觀察使許積 大修墓 仍立石 記其事 有父老傳 萬曆八年 古有觀察使許公曄 嘗修二陵云 至今追計六十七年.

소경대왕 25년(1592년) 왜가 침입하여 선왕의 묘를 파헤치고 아울러 태후의 무덤까지 파헤쳤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쌓았다. 인조 24년(1646년)에 영남 관찰사 허적이 묘를 크게 수리하고, 이어 비석[石]을 세우고 그 일을 기록하였다. 부로(父老)들이 전하기를, "만력(萬曆) 8년(1580년)에 관찰사 허엽이 일찍이 두 능을 수리 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거슬러 계산하면 67년이 된다.

사료4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國朝 壬辰倭寇發其塚 棺中殮以金玉 頭骨大如銅盆 棺外有二美人 顔色如生 出置壙外 見日卽消 蓋當時殉葬者也.

우리 나라[조선]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그 무덤을 파헤쳤다. 관 안에는 금과 옥으로 염을 하였고 머리뼈는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만 하였다. 관 밖에는 두 미인이 있는데,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꺼내어 구덩이 옆에 두니, 햇빛을 보자 곧 사라졌다. 아마도 당시에 순장(殉葬)한 사람인 듯 하다.

사료5 **『김해부읍지』** 능침 | **『金海府邑誌』** 陵寢

壬辰倭賊發王陵 壙中甚闊頭骨大如銅盤手足脛骨亦甚偉 傍有二女 貌如生 年可二十 出壙中卽消 盖殉葬者也.

임진년(1592)에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하며 손, 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쇠해졌으니, 곧 순장(殉葬)한 것이었다.

사료6 **『김해읍지』** 능묘 | **『金海邑誌』** 陵墓

壬辰年亂倭賊撥王陵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盤 手足脛骨 亦甚偉 柩傍有二女 面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 旋卽消滅 盖殉葬者也 事見芝峯類說.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의 난에 왜적이 왕릉을 파헤쳤는데, 구덩이가 매우 넓고 두개골이 크기가 구리 쟁반 만하며 손, 발과 정강이뼈가 매우 컸다. 널 옆에는 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나이는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곧바로 사라져 없어졌는데 곧 순장(殉葬)한 것이다. 〈이 일은 『지봉유설』에 보인다〉

사료7 **『역사집략』** 권3 신라·고구려·백제기 | **『歷史輯略』** 卷三 新羅·高句麗·百濟紀

芝峯李氏睟光類說云 壬辰我朝宣祖二十五年 日寇發首露王納陵 壙中甚闊 頭骨大如銅盆 手足脛骨甚偉 柩傍有二女子 而貌如生 年可二十 出置壙外 旋卽消滅 盖其殉葬者也.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李氏睟光類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임진년(1592년)〈우리 조정[조선] 선조 25년〉에 왜적이 수로왕의 납릉(納陵)을 파헤쳤다. 구덩이[壙]속이 매우 넓고, 두개골의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으며, 팔 다리와 정강이뼈[脛骨]도 매우 컸다. 널[柩] 옆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나이는 20세 가량 되었다. [두 여자의 시신을] 구덩이 밖에 내놓자 금새 사라져 없어졌다. 아마도 순장(殉葬)된 사람인 듯하다."

사료8 **『증보문헌비고』** 권70 예고17 산릉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李睟光類說曰 宣祖壬辰倭寇 發首露王陵 頭骨大如銅盆 傍有二女 面貌如生 出置壙外則旋卽消滅 盖其殉葬者也.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類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조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에 왜구가

수로왕릉을 파헤쳤는데, 머리뼈가 크기가 구리로 만든 동이[銅盆]만 하였다. 옆에는 얼굴 생김새가 살아있는 것 같은 여자 두 명이 있었다. 구덩이 밖에 꺼내 두었더니 곧 사라졌다. 아마 순장한 사람인 듯하다."[1]

1603년　전대 임금의 능묘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권166 선조36년(1603) 9월 임술 |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卷百六十六 宣祖三十六年 九月 壬戌

備忘記曰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其本官 隨便修治破毁 禁其樵牧 前代忠臣如新羅之金庾信金陽 百濟之成忠階伯 高麗之姜邯贊鄭夢周之墓 亦似當封植 禁其樵牧 只擧一二而言 餘不能悉 政院啓曰 伏覩聖敎 其無間異代 追崇封植之意 至矣 令禮曹 廣加聞見 前代諸王陵墓及忠賢之表表著稱者 依上敎 從便施行宜當 啓下禮曹 禮曹啓曰 聞見未博 典籍無憑 勢難容易擧行 令各官 在前所封植修治前代諸王及忠賢表表著稱 在人耳目 不至[諲設]〔湮沒〕者 一一訪問 啓聞後處置次 八道監司及開城府留守處 竝爲行移何如 上從之 禮曹又啓曰 今見各官所報 或有不辨表表與否 只將境內有名墳墓 泛然書送之處 國家封植之盛典 不可混施 依啓下表表著稱人及前代諸王陵墓各以啓本內所載 開錄于左 令各道 先爲封植 禁其樵牧 前代諸王及忠賢 必不止此 如備忘記所及成忠階伯姜邯贊各道不爲開報 是必年代久遠 未能聞知而然 各道監司處 更爲移文 詳細訪問馳啓事 行移何如 啓依允 江原道 寧越魯山君墓開城府 高麗始祖顯陵境內昭穆陵十處 慶尙道 金海 駕洛國始祖首露王陵慶州 新羅始祖赫居世墓, 金春秋陵, 金陽墓味鄒王陵孝昭王陵, 善德王陵, 大角干金庾信墓晋州贈大司諫𡜋植墓禮安 上洛公 金方慶墓贈領議政李滉墓仁同 高麗忠臣注書吉再墓淸道 金馹孫墓密陽 文簡公 金宗直墓興海贈領議政李彦迪墓 咸陽贈右議政文獻公鄭汝昌墓玄風贈領議政文敬公 金宏弼墓京畿 長湍 文成公 安裕墓文敬公 金安國墓贈右議政徐敬德墓朱溪君墓高陽 高麗 恭讓王兩位墓龍仁 文忠公 鄭夢周墓, 文正公 趙光祖墓黃海道 海州 文憲公 崔冲墓平安道 平壤 箕子墓中和 東明王墓.

비망기로 이르기를,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전대의 충신으로 신라의 김유신·김양과 백제의 성충·계백 및 고려의 강감찬·정몽주같은 이의 묘소도 봉식(封植)하고 초목을 금해야 할 듯하다. 한둘만 들어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보건대 이대(異代)를 차별없이 추숭(追崇)하여 봉식하라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예조를 시켜 널리 더 듣고 보아 전대 임금들의 능묘와 충현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자는 상교(上敎)에 따라 편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일이 예조에 계하(啓下)되자, 예조가 아뢰기를, "듣고 본 것이 넓지 못하고 전적(典籍)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쉽사리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각 고을을 시켜 전에 봉식하고 수리한 전대 임금들과 충현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져 사람들의 이목에서 잊혀지지 않은 자를 낱낱이 탐문하여 아뢴 뒤에 처리할 일로 팔도의 감사와 개성부 유수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이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뛰어난 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지경 안의 유명한 분묘를 범연히 써 보낸 곳도 있습니다. 국가가 봉식하는 성전(盛典)을 혼잡하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계하(啓下)에 따라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사람과 전대의 임금들의 능묘를 각각 계본(啓本)에 실린 것에 따라 뒤에 나열하여 적었으니, 각도를 시켜 먼저 봉식하고 나무하거나 방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전대의 임금들과 충현이 이뿐만 아닐 것인데 비망기에 언급된 성충·계백·강감찬같은 이를 각도에서 적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대가 오래 되어 알 수 없어서 그런 것

이니,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이문(移文)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치계(馳啓)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능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영월(寧越)에 있는 노산군(魯山君)의 묘, 개성부(開城府)에 있는 고려 시조 현릉(顯陵)의 경내에 있는 소목릉(昭穆陵) 열 곳,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 경주(慶州)에 있는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능, 김춘추(金春秋)의 능, 김양(金陽)의 묘, 미추왕(味鄒王)의 능, 효소왕(孝昭王)의 능, 선덕왕(善德王)의 능,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의 묘, 진주(晉州)에 있는 증 대사간(贈大司諫) 조식(曹植)의 묘, 예안(禮安)에 있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묘,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황(李滉)의 묘, 인동(仁同)에 있는 고려의 충신 주서(注書) 길재(吉再)의 묘, 청도(淸道)에 있는 김일손(金馹孫)의 묘, 밀양(密陽)에 있는 문간공(文簡公) 김종직(金宗直)의 묘, 흥해(興海)에 있는 증 영의정 이언적(李彦迪)의 묘, 함양(咸陽)에 있는 증 우의정(贈右議政)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의 묘, 현풍(玄風)에 있는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묘, 경기 장단(長湍)에 있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묘,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의 묘, 증 우의정 서경덕(徐敬德)의 묘, 주계군(朱溪君)의 묘, 고양(高陽)에 있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양위(兩位)의 묘, 용인(龍仁)에 있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묘,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묘, 황해도 해주(海州)에 있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의 묘, 평안도 평양(平壤)에 있는 기자(箕子)의 묘,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이다.

1646년 수로왕릉에 비를 세우다

사료1 **『김해읍지』 능묘 | 『金海邑誌』 陵墓**

崇禎丙戌 觀察使許積 加土竪碑 銘曰 正姓金氏 生於漢光武建武十八年 始建國 號駕洛 薨於獻帝建安四年 壽百五十八 葬納陵 首露史稱王名 因以爲王號云 梁大統四年 國亡 傳世九 歷年四百九十一年 王有子十人 感后言 賜后姓者二 東方之許 本原于此 王之世治臻淳厖 邦人追思王以報德 至今冬至 祀用太牢 以后配焉 葬後千有餘載 逮皇明庚辰 後之孫許曄爲方伯 修墓備床砌. 壬辰倭寇堀發 鄕人改封之 後庚辰六十七年 積以遣紹而忝按道 又加封植 碑于墓前 惟月若日 工告訖功 寀丁亥仲春也 床若砌皆新焉 而安于尊所者 即前日陳牲石也. 同宗幼學穆 省峴察訪崙 進士嵰 新寧縣監垳幹其事 噫. 煌煌功德 浹民骨入人耳深 一片石不足爲輕重 在子孫報本之誠 又安得不爾. 後孫 觀察使許積 識 己卯春 許侯梓齊室四門謹廚舍四間營建 除一吏以爲典守.

숭정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銘]은 다음과 같다. "왕의 성은 김씨로, 한나라 광무 건무 18년(42년)에 태어나 처음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가락이라고 하였다. 헌제 건안 4년(199년)에 죽으니 나이가 158세였으며 납릉(納陵)에 장사지냈다. 수로는 사서에서 이르기를 왕의 이름인데 그대로 왕호(王號)를 삼았다고 한다. 양나라 [중]대통 4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9세를 전하였고, 역년은 491년이다. 왕은 아들을 열 명 두었는데 왕후의 말에 감동하여 왕후의 성을 내려준 사람이 두 명이었다. 동방의 허씨는 여기에 본원(本源)을 두었다. 왕의 다스림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다.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그 덕에 보답하였으니 지금 동지에 이르러 대뢰(大牢)를 써서 제사를 지내고 왕후를 짝하게 하였다. 장사를 지낸 후 천여 년이 지나 황명(皇明) 만력(萬曆) 경진년(1580년, 선조 13년)에 이르러 후손 허엽(許曄)이 방백이 되어 묘를 수리하고 상석(床石)과 섬돌을 마련하였다. 임진 왜구가 파헤쳤는데 마을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만들었다. 경진년에서 67년 후인 병술년(1646년, 인조 24년)에 이르러 허적이 후손으로서 황송하게도 [경상]도를 어루만지게 되어 또한 봉분을 더하고 묘 앞에 비를 세웠다.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여 끝낸 때가 실로 정해년(1647년, 인조 25년) 중춘

(仲春)이었다. 상석과 섬돌 모두 새롭게 하였는데, 술단지[樽] 놓는 곳에 둔 것은 곧 전날의 희생을 진설하는 돌[陳牲石]이었다. 같은 종씨 유학(幼學) 목(穆), 성현찰방(省峴察訪) 윤(崙), 진사(進士) 겸(嵰) 신령현감(新寧縣監) 구(坵)가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 아, 빛나는 공덕이 뼈에 사무쳐 백성들의 귀에 깊이 들어갔으니 한 조각 돌로 경중을 따지기에 부족하다. 빛나는 공덕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자손들이 근본에 보답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으니 또한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손 관찰사 허적이 짓다."

1646년 허왕후릉에 비를 세우다

사료1 『김해읍지』 능묘 | 『金海邑誌』 陵墓

許王后陵. 在龜旨峰東 世傳 王妣阿踰陀國王女 或云南天竺國王女 姓許 名黃玉 號普州載籍不詳 無所徵 漢建武二十四年 首露王七年 立爲后 號普州太后 媲德匹休 克贊內化 靈帝中平六年三月薨 壽百五十七 葬龜旨峯東 去王陵二里餘 有子十人 自以客於東土 悲無傳姓爲言 王甚慽 錫二子以后姓 我國之許 本於此 修墓立石顚末 在王陵表與王陵同立 祭王陵祝文 王函自天 金卵墮地 定錫伽倻 傳祚十二 一區民物 莫非雲仍 歲具香火 瞻拜遺陵盆山峯峯洛水洋洋 惟王化澤 山水共長 沒世何忘 千秋萬代 願言來格 王妃與配.

허왕후릉. 구지봉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비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왕녀라고 하고, 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이다. 읍 사람들이 왕릉에 제사할 때 함께 제사를 지냈다. 숭정 병술년(1646년) 관찰사 허적(許積)이 증수(增修)하고 비를 세웠다. 비명은 다음과 같다. "태후의 성은 허씨인데, 재적(載籍)이 분명치 않아서 알 수가 없다. 한나라 건무 24년(48년) 수로왕 7년에 왕후가 되었으며 호를 보주태후라고 하였다. 배필의 덕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수로왕을] 도와 안으로 교화를 펼 수 있었다. 영제 중평 6년(186년) 3월에 죽으니[薨] 나이가 157세였다. 구지봉의 동쪽에 장사지냈으니 왕릉과 2리 정도 떨어져 있다. 아들 10명을 두었는데 스스로 동토의 객으로서 성씨를 전해줄 수 없음을 비통하게 여겨 말을 삼았더니 왕이 매우 슬퍼하고 두 아들에게 왕후의 성을 내려주었다. 우리나라의 허씨는 여기에 근원을 둔다. 묘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전말은 왕릉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 왕릉과 같이 세웠다." 제왕릉축문(祭王陵祝文). 옥함(玉函)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정하여 내려 준 가야이며, [하늘에서] 전하여 준 복이 열 둘이니 한치 땅의 백성과 만물이 구름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향화를 갖추어 남겨진 능에 우러러 절을 하니 분산(盆山)은 높고 높으며, 낙수(洛水)는 잘도 흐르며 왕의 교화와 은택으로 산수가 모두 좋아졌으니 영원토록 잊겠습니까, 천추만대(千秋萬代)까지 가리니. 왕림하시길 청하며 왕비와 더불어 배향합니다.

1746년 수로왕릉을 개축하다

사료1 **『증보문헌비고』** 권70 예고17 산릉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本朝 英祖二十二年 命陵四方百步 立石爲標 改築陵塋每歲春秋 府中父老 共會設祭.

본조[조선] 영조 22년(1746년)에, 명하여 능 사방 100보에 돌을 세워 표식을 하도록 하고, 능영(陵塋)을 개축하였다. 매년 봄, 가을에 [김해]부의 노인[父老]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1755년 금관수령이 성황에 제사를 지내다

사료1 **『동문광고』** 제1책 가락고 | **『同文廣考』** 第一册 駕洛考

余友李平一爲余言 乾隆甲戌爲金官守 明年乙亥 依舊俗 祭城隍潔齊 致處旣罷 還府就寢 依俙見一老公 金冠五色斑錦衣 體貌偉碩 來坐公堂 余遽前拜 不覺膝跪稱臣 神人謝其厚意 余方知其爲首王靈 就問夫來休咎 答曰 公五六年後頗不吉 宜戒云 平友果以庚辰八月 奄歸道山 亦可異也.

내 친구 이평일(李平一)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건륭(乾隆) 갑술년(1754년, 영조 30년)에 금관의 수령이 되어, 이듬해인 을해년(1755년, 영조 31년)에는 옛 풍속에 따라 성황(城隍)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끝내고 관부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렴풋이 한 노인[老公]이 보였다. 그는 금관을 쓰고 오색 무늬의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며 체격과 용모가 뛰어났다. [그가] 와서는 공당(公堂)에 앉으니, 나는 놀라서 앞에 나가 절하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신하를 칭하였다. 신인(神人)은 내 후의에 사례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그가 수로왕의 영혼임을 알고는, 즉지 미래의 길흉[休咎]을 물어보았다. [그가] 대답하기를, "공은 오륙년 후가 자못 불길하니, 마땅히 경계하라." 라고 하였다. 그 친구[平友]는 과연 경진년(1760년, 영조 36년) 8월에 갑자기 죽었다. 또한 기이하지 않은가."

1768년 수로왕릉이 저절로 함몰되다

사료1 **『증보문헌비고』** 권70 예고17 산릉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補]四十四年 陵自陷 五十年 命本府改封築 而祭之.

[보(補)] [영조] 44년(1768년)에 능이 저절로 함몰되었다. 50년(1774년)에 본부[김해부]에 명하여 다시 쌓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774년 청도 유학 김은이 상소하여 수로왕릉의 수호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청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권122 영조50년(1774) 6월 |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卷百二十二 英祖五十年 六月

淸道幼學金垽等上疏 略曰 臣等始祖駕洛國 首露王 天毓嘉祥 首出荒屯 紫纓金榼 實符於玄禽之墮卵 巨人之降跡 而金海 龜旨峰 卽王誕降之地 而歲値亢旱 有所祈禱 則靈應不忒 朝家區劃七十名良丁 以爲守護之道 逮于壬辰 倭寇掘塚之變 則自朝家特遣禮官 望祭于咸陽之境 崇奉之至意 孰不欽歎 始祖姓孫諸人 創設數十間廳事 三十頃祭田, 田屬於本府鄕廳 惟行冬至一祭 而鄕品獻侑 胥吏執事 禮儀乖錯 牲酒酸瘠 願如崇仁崇德之規

答曰 所請不無意思 而與崇仁崇德崇義有異 且新羅本始祖 亦無此例 今何可創開於新羅小國 噫 千有餘年塋域尙在 以鄕廳功也 令道臣詳細看審修築 體國初守塚之義 令府 祭文稱國王致祭 爾等可謂千載一時 隨本官參祭.

청도(淸道)의 유학 김은(金垽) 등이 상소를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의 시조(始祖)는 가락국 수로왕인데, 하늘이 경사스러운 징조를 내려서 미개한 세상에 우뚝하게 나타났으니, 자영(紫纓)의 금합(金榼)은 진실로 〈은 시조 설(契)이 탄생할 때의〉 제비가 알을 떨어뜨린 것[玄禽之墮卵]과, 〈주(周) 시조 후직(后稷)이 탄생할 때의〉 거인이 디딘 발자국[巨人之降跡]의 사실과 부합됩니다. 김해의 구지봉은 곧 수로왕이 탄강한 곳인데, 해마다 심한 가뭄이 들 때에 기도를 드리면 신령(神靈)의 감응이 어긋나지 않았으니, 조정에서 70명의 양정(良丁)을 배정하여 수호하는 방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진년에 이르러 왜구가 무덤을 파헤치는 변고를 당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예관을 보내어 함양(咸陽) 지경에서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높이 받드는 지극한 뜻을 누군들 흠탄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시조의 후손 여러 사람들이 수십 칸의 청사를 창설하고 30경의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제전은 김해부의 향청에 속하게 하고, 오직 동지에 한번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품관이 헌작(獻爵)과 유식(侑食)을 하고 서리(胥吏)가 제사일을 맡아보게 되니, 예의(禮儀)가 어긋나고 희생(犧牲)과 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숭인전(崇仁殿)·숭덕전(崇德殿) 의 규모와 같게 하도록 하여 주소서."하였다. 비답하기를, "청원한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숭인전·숭덕전·숭의전(崇義殿) 과는 차이가 있고, 또 신라의 본시조(本始祖)도 또한 이러한 예는 없었는데, 지금 어찌 신라에 딸린 작은 나라에 처음 개시(開始)할 수 있겠는가. 아! 천여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영역(瑩域)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향청(鄕廳)의 공 때문이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살펴서 수축하도록 하고, 국초에 무덤을 지키던 의리를 본받아, 부사로 하여금 제문에 국왕을 칭하여 치제(致祭)하라고 할 것이니, 그대들은 천년에 한번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본관(本官)을 따라서 제사에 참여 하도록 하라."하였다.

1780년 수로왕릉에 치제하고 축문을 다시 지어 바치게 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권9 정조4년(1780) 5월 병술 |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九 正祖四年 五月 丙戌

丙戌/致祭于首露王陵 敎曰 昔在先朝 命守土臣 就首露王陵四方百步 立石爲標 改築陵塋 每歲春秋 會府中父老設祭 著爲式 聖意可以仰認也 蓋以事跡 不但卓然 葬近千年 封土不騫 丘木不朽 明知其陵在是地也 觀此本道伯狀啓,

以陵碑改竪 請下香祝 其追述聖意之道 不可無提飭 立標設祭等事 一依丙寅受教 擧行與否 問于本府狀聞事下諭 改竪碑時 使之致祭 本陵祝文 更令知製敎 措辭撰進.

수로왕릉에 치제(致祭)하였다. 하교하기를, "예전에 선조(先朝)에서 수토신(守土臣)에게 명하여 수로 왕릉의 사방 1백보(步)에 돌을 세워 표하고 능영(陵塋)을 개축(改築)하게 하여 해마다 봄·가을에 부중(府中)의 부로(父老)를 모아 제사지내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으니, 성의(聖意)를 우러러 알 수 있다. 대개 사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묻은 지 1천년 가까운데 봉토가 이지러지지 않고 구목(丘木)이 썩지 않아서 그 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 도백의 장계를 보건대, 능비를 고쳐 세우기 때문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주기를 청하였으니, 성의를 계술(繼述)하는 도리로서 신칙(申飭)이 없을 수 없다. 입표(立標)하고 설제(設祭)하는 따위 일을 한결같이 병인년의 수교(受敎)대로 거행하는지를 본부에 물어서 장문하라고 하유하고, 비석을 고쳐 세울 때에 치제하게 하되 본릉(本陵)의 축문은 다시 지제교(知製敎)를 시켜 조사(措辭)하여 지어 바치게 하라."하였다.

1780년 수로왕릉에 제사지내고 비석을 다시 세우다

사료1 **『증보문헌비고』** 권70 예고17 산릉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補]正祖四年 致祭 改竪碑.

[보(補)] 정조 4년(1780년)에 제사를 지내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1792년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에 봄·가을로 제사올리게 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권34 정조16년(1792) 3월 1일 경오 |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三十四 正祖十六年 三月 一日 庚午

定駕洛國始祖首露王陵春秋時享之儀 敎曰 伽倻始祖 厥享國一百五十有八年 偉功靈蹟 至今爲東人之傳頌 其宮墓陵地 在金海府 府之父老 建宇扁之曰 會老 祭之日 受胙肉飮福 遵以爲常 自朝廷 劃祀田置守丁 立石以表界 禁民犯墾 逮予嗣服 遣官致侑 復竪龜頭 近來監護不如式 極目蕪菜 過封前無不指點咨嗟者 又奸民藉其地所出 蠶食之 其遺裔 具以事訴籲于輦路 申命有司 治其民贖其賦 大抵致敬於歷代陵廟 卽帝王之令典 而文化平壤月城之立監降香 其儀可就 而倣嗣後春秋時享送香祝 邑倅奠獻 監一人貫於是鄕者充之 尋親撰祭文 遣閣臣 以寒食日告事行祭 修治祭田祭閣 祝文 令文任撰進.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에 봄가을로 올리는 제사의 의식을 정하고, 전교하기를, "가야의 시조는 그 국가를 1백58년 동안 향유하였는데, 위대하고 신령스런 공적은 지금까지 동방 사람들에게 전송(傳頌)되고 있다. 그 대궐터와 묘자리가 김해부에 있는데, 김해부의 노인들이 사당을 짓고 편액을 '회로(會老)'라고 하였다. 제사지내는 날에는 조육을 받고 음복하는 것을 준행해 와서 상례(常禮)로 삼고 있고, 조정에서 제전을 떼어주고 능지기를 두었으며 표석(表石)을 세워 경계를 표하여 백성들이 침해하거나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였었다. 내가 즉위함에 미쳐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귀두(龜頭)를 다시 세웠는데, 근래에 감시와 보호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온 능에

쑥대만 무성하여 봉분 앞을 지나는 자치고 손가락질하며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 간악한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빙자하여 잠식하고 있다. 그의 후손이 사실을 갖추어 연로(輦路)에서 호소하기에 유사에게 명하여 그 백성을 치죄하고 세금을 내게 하였다. 대저 역대의 능묘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바로 제왕(帝王)의 훌륭한 법이니, 문화(文化)·평양(平壤)·월성(月城)에 감(監)을 세우고 향을 내려주는 의식은 따라서 모방할 만하다. 이 뒤로 봄가을 제향시에는 향과 축문을 보내고 고을 원이 전(奠)을 드리며 감독관 한 사람은 이 고을에 본관(本貫)을 둔 자로 충당하라."하고, 조금 있다가 몸소 제문을 짓고 각신(閣臣)을 보내어, 한식날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제전(祭田)과 제각(祭閣)을 수리하게 하고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축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사료2 『증보문헌비고』 권70 예고17 山陵 | 『增補文獻備考』 卷七十 禮考十七 山陵

[補]正祖十六年 命定金海府所在 駕洛國始祖陵 春秋時享之 儀遣承旨告由.

[보(補)] 정조 16년(1792년)에 김해부에 있는 가락국 시조릉에 봄, 가을로 시향(時享)을 지내도록 정하고, 의례에 따라 승지를 보내 고유(告由)하도록 명하였다.

1792년 3월 15일 가락국 수로왕의 제삿날을 택일하라고 명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권34 정조16년(1792) 3월 15일 |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三十四 正祖十六年 三月 十五日

命駕洛國 首露王陵享祀日 令雲觀 依三聖祠崇靈殿崇德殿例推擇.

가락국 수로왕 능의 제사 날짜를 관상감으로 하여금 삼성사·숭령전·숭덕전의 규례에 의거하여 택일하라고 명하였다.

1792년 4월 예조가 각신 이만수의 별단을 아뢰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권34 정조16년(1792) 4월 7일 |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三十四 正祖十六年 四月 七日

禮曹啓言 閣臣李晚秀別單諸條 其一 駕洛王陵在金海府城西二里許平野中 四面皆是汚下水田 雖値大潦 陵傍十步內 水不渟滀 居民傳爲異事 封築則不甚高廣 莎草不枯 象設則魂遊石一坐 香爐石一坐 陳牲石一坐 陵前短碑 書 首露王陵 四字 承以龜頭籠臺 卽庚子年因特教改竪者 繚以石墻 前抵于祭閣 許王后陵在城北二里許龜旨峰之東 龜峰卽首露王降生之地 兩陵相距 亦爲二里許 封築象設 與王陵同 而短碑書 首露王普州太后許氏陵 十字, 石墻前面 設三門 無他閣宇 祭閣四間 用丁字之制 神廚四間 齋廊四間 齋室四間 卽舊會老堂 祭閣 楹外椽端 間間滲漏 丹雘多有剝落 神廚椽木 太半腐傷 若經今夏潦雨 易致傾頹之患 今番則旣未兼告由 勢難始役 待秋享修改 恐不可已 祭品一依本陵冬至亨前例 而稻粱榛栗牲鱐葅醢等屬 略似崇德殿 祭器 則祭床二 香床一 燭臺二 簠簋各二 豆六 籩十 爵六 尊所無尊罍 以磁甁盛祭酒 故臣言于本府使 使之趁秋享新備尊一勺一 以存品式 許后陵距王陵頗遠 旣非同局則間隔一坪 而后陵無祭閣 故自前享事 合設于王陵祭閣 今番致祭 因下教各設 此後節享只當依前合設

예조가 아뢰기를, "각신 이만수의 별단(別單)의 여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락국의 왕릉이 김해부(金海府) 성 서쪽 2리쯤 되는 평야에 있는데, 사면이 모두 낮은 논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큰 장마를 만나더라도 능 곁의 10보(步) 안에는 물이 고이지 않으니,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봉분(封墳)을 쌓은 것은 그리 높지도 넓지도 않고 사초(莎草)도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설치한 물건은 혼유석(魂遊石) 1좌(坐), 향로석(香爐石) 1좌, 진생석(陳牲石) 1좌이고, 능 앞의 짤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릉(首露王陵)'이란 4글자를 써서 거북머리의 받침돌에 세워 놓았으니, 이는 바로 경자년에 특별 전교로 인하여 고쳐 세운 것입니다. 돌담으로 둘러 쌓았는데 앞은 제각(祭閣)까지 닿았습니다. 허 왕후(許王后)의 능은 성(城) 북쪽 2리쯤 되는 구지봉(龜旨峰)의 동쪽에 있는데, 구봉(龜峰)은 바로 수로왕이 탄생한 곳입니다. 수로왕과 허왕후의 두 능은 서로의 거리가 또한 2리쯤 되고, 봉분 쌓은 것과 설치한 물건은 수로왕릉과 같으며, 짤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보주태후허씨능(首露王普州太后許氏陵)'이란 10글자를 썼습니다. 돌담 전면에 삼문(三門)을 설치하고 다른 각우(閣宇)는 없습니다. 제각(祭閣)은 4칸인데 정자각(丁字閣)의 제도를 사용하였고, 부엌 4칸, 재랑(齋廊) 4칸, 재실(齋室) 4칸으로 바로 옛 회로당(會老堂)입니다. 제각(祭閣)의 기둥 밖 서까래 끝에는 간간이 물이 새고 단청은 벗겨져 떨어진 곳이 많으며 부엌의 서까래는 태반이나 썩었으니, 올 여름의 장마를 지내면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금번에는 이미 고유(告由)하지 못했으니 역사를 시작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추향(秋享)을 기다려 수리하는 것은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제물은 한결같이 본릉(本陵)의 동지(冬至) 제사의 전례대로 장만하는데, 벼[稻]·기장[梁]·개암[榛]·밤[栗]·희생[牲]·포[鱐]·김치[菹]·젓갈[醢] 따위는 대략 숭덕전(崇德殿)의 제물과 같습니다. 제기(祭器)는 제상(祭床) 2개, 향상(香床) 1개, 촛대[燭臺] 2개, 보(簠)와 궤(簋) 각각 2개, 목기[豆] 6개, 대그릇[籩] 10개, 술잔[爵] 6개이며, 술독이 있는 곳에 술잔이 없어 자기병[磁甁]에 제주(祭酒)를 담아 놓았으므로 신이 본 부사에게 말하여 추향(秋享) 때까지 술잔[尊] 1개와 구기[勺] 1개를 새로 장만하여 격식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허 왕후의 능은 수로왕의 능에서 거리가 다소 멀어 이미 같은 국내(局內)가 아니고 들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허 왕후의 능에는 제각(祭閣)이 없으므로 전부터 제사지낼 때 수로왕릉의 제각에 합설(合設)하였었습니다. 금번 제사를 지낼 때는 하교로 인하여 각각 진설하였으나, 이후 절향(節享)에는 다만 전례대로 합설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其一 位田事 臣到金海 詳查本府吏鄕及金許諸人 始知顚末 名以陵位田者 爲一結零金熙明上言以爲 自朝家劃給文跡無徵 年條未詳 所謂會老堂位田 爲四結零 卽二去戊寅 故府使許梓所置者 蓋許梓以伽洛後裔 作宰是邑 爲先陵鳩材買土 以備祀享修理之需 仍付鄕人 此會老堂位田之所以稱 而考之本府已決立案 此非鄕人所可干與 更無可疑 鄕俗近不如古 王陵之南至一享則只以民戶分定物種 謹備牲酒之品, 而許田所出 公然盡歸私用, 末又嫌會老堂之猶近王陵 堂扁則移揭鄕廳 田名則改錄鄕屯, 始則假托乾沒 終至公肆攘奪 而向有作奸鄕人嚴刑遠配之命 遐陬頑俗 庶知懲戢 原田亦自本府 以王陵修理位田 釐正量案 此後名色始正 奸弊可杜 惟是位田之尙屬鄕任 實恐久又生弊 金許諸人 皆欲使陵監主之 而所謂陵監未必勝於鄕任 臣意則今番春秋節享 定行後 王陵事體 視前尤別 勿論陵位田會老堂田 一竝屬之本府 凡出納之數 支用之節 使本府使主管 最爲正當 今考實數 陵位田及會老堂田收租 每年假令爲四十二石零 陵卒五十名 除役價錢爲六十二兩 各面祭需各種代捧錢 爲八十九兩 合一百五十兩 以此依冬至享例磨鍊 則兩次節享時所入租 當爲二十八石 錢當爲一百四兩 餘數租爲十四石 錢爲四十六兩 若依崇德殿例 祭需自本府會減 則位田所出 陵卒役價 當全數儲置 祭閣祭品修改等節 陵監陵直廩料之屬 皆可不煩公費 優可支給 而祭儀旣有令該曹參考磨鍊下送之命 亦令本府 斟酌事勢 裁定品式 以爲永久遵行之道.

1. 위전(位田)에 관한 일은 신이 김해(金海)에 도착하여 본부(本府)의 아전·향임과 김씨·허씨 등 여러 사람을 상세히 조사하여 비로소 전말(顚末)을 알았습니다. 능의 위토전이라고 이름한 것은 1결(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김희명(金熙明)이 상언(上言)하기를 조정에서 떼어준 문서도 증거될 만한 것이 없고 연조(年條)도 상세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회로당(會老堂)의 위토전은 4결(結)이 조금 넘는데, 이는 바로 지난 무인년에 고 부사

(府使) 허재(許梓)가 장만한 것입니다. 대개 허재는 가락왕의 후예로서 이 고을의 원이 되어서 선조의 능을 위해 재목을 모으고 토지를 사서 제사를 지내고 건물을 수리할 수용을 구비하여 그대로 고을 사람에게 맡겼었습니다. 이것이 회로당 위토전이라 일컫게 된 원인인데, 본부(本府)에서 기사년에 결정한 입안(立案)을 상고해 보면 이는 고을 사람이 간여할 바가 아님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시골 풍속이 근래에는 예전과 달라 왕릉의 동지 제사에는 다만 민가에 배정한 물건만으로 희생과 술을 마련하고 허씨의 전답에서 나온 것은 공공연히 모두 사용(私用)으로 돌렸으며 종말에는 또 회로당이 왕릉에 가까운 것을 혐의하여 당의 현판은 향청(鄕廳)으로 옮겨 걸고 전답의 이름은 고을 둔전(屯田)이라고 고쳐 기록하였으며, 처음에는 몰수한 것이라고 핑계대었다가 결국에는 공공연히 빼앗았습니다. 지난번 간사한 짓을 한 고을 사람을 엄중하게 형신하고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령이 있자 먼 변방의 완악한 풍속이 거의 징계할 줄 알게 되었고, 원래의 전답도 또한 본부(本府)에서 왕릉을 수리하는 위토전으로 양안(量案)을 정리하였으니, 이후로는 명목이 비로소 바로잡히고 간사한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토전이 아직까지 향임(鄕任)에 속해 있으니, 실로 오래 되면 또 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김씨와 허씨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능감(陵監)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른바 능감이 꼭 향임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금번 춘추(春秋) 절사(節祀)를 거행한 뒤에는 왕릉의 사체(事體)가 전보다 더욱 각별하니 능의 위토전과 회로당의 위토전을 막론하고 모두 본부(本府)에 소속시키고 모든 출납의 숫자와 지출의 절차를 본 부사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실제 숫자를 조사해보면, 능의 위토전과 회로당(會老堂)의 토지에서 받는 벼가 가정하여 매년마다 42석이 되며, 능졸(陵卒) 50명에게 군역(軍役)을 면제한 대가로 받는 돈이 61냥이 되고, 각면(各面)에서 각종의 제수(祭需)를 대신하여 바치는 돈이 89냥이 되니, 합하면 1백 50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지 제사의 준례에 의하여 제수를 마련하면, 두 차례 절사(節祀) 때에 들어가는 벼가 28섬이고 돈이 1백 4냥이니, 남은 숫자는 벼가 14섬이고 돈이 46냥입니다. 만약 숭덕전(崇德殿)의 준례에 의해 제수(祭需)를 본부(本府)에서 회감(會減)한다면, 위토전에서 나오는 것과 능졸(陵卒)에게서 군역을 면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전량을 저축해 놓을 수 있으니, 제각(祭閣), 제수(祭需)를 수리 개조하는 등의 절목과 능감(陵監), 능직(陵直)에게 주는 봉급 따위는 모두 공비(公費)를 쓰지 않고도 넉넉히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 의식은 이미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고하여 마련해서 내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또한 본부(本府)로 하여금 사세(事勢)를 참작해 품식을 결정해서 영구히 준수할 수 있는 방도를 삼게 하소서.

其一 伽洛王陵許后陵百步內 曾因先朝特敎 立石標禁耕葬 而近來頑民 不畏法禁 兩陵禁標內犯耕之患 種種有之 今番判付後 本府使査治嚴禁 臣行後詳察 則姑無新墾者 至於犯葬 則王陵處在平地 故本無此患 后陵有一二犯禁處 年久者有難查究 其中昨年新葬者 不可仍置 故令本府使 嚴加懲治 刻期掘移.

1. 가락왕릉과 허 왕후의 능에서 1백보(步) 안에는 일찍이 선조(先朝)의 특별한 전교로 인하여 표석(標石)을 세워 경작과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근래 완악한 백성들이 금지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능의 금지 표시 안에 침범하여 경작하는 걱정거리가 종종 있습니다. 금번 판부(判付)한 뒤에 본부사(本府使)가 조사하여 다스리고 엄하게 금지하였으므로 신이 간 뒤에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새로 개간한 것은 없었습니다. 침범하여 장사 지내는 것에 이르러서는 왕릉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본래 이러한 걱정이 없으나 허 왕후의 능에는 금지 구역을 침범한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여러 해가 된 것은 조사하여 규명하기가 어렵고 그중 작년에 새로 장사 지낸 것은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본부사(本府使)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고 기한을 정해 파서 옮기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其一 新羅諸王陵中 十二陵 在二十里內 故臣進去看審 十六陵 在二十里外 故令本州府尹 看審報來 而皆封築完固 莎草茁密 望之鬱然 大抵諸陵 皆在平野 惟太宗武烈王陵 有龜頭短碑 大書陵號 其外則漫然無一標識 某丘之爲何

王陵 只憑野老之指點 邑吏之口傳 古稱四十八王陵 今之可尋者 只二十八陵 而亦未敢詳的象設 則或有魂遊屛風等石 而只存形體 古制難考 憲德王陵相望地 有敬順王殿 而影幀一本 去戊戌年 自永川 銀海寺移安 故臣於歷路 一體看審.
1. 신라의 여러 왕릉 중에 12위의 왕릉은 20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이 가서 살펴보았고, 16위의 왕릉은 20리 밖에 있기 때문에 본주(本州)의 부윤(府尹)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와서 보고토록 하였는데, 모두 봉분이 완전하고 견고했으며 사초(莎草)가 잘 자라서 바라보기에 무성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여러 왕릉은 모두 평야에 있으며, 오직 태종무열왕릉(太宗武烈王陵)만은 거북머리 받침돌의 짤막한 비석에 능호(陵號)가 큰 글자로 적혀 있을 뿐, 그밖에는 하나의 표시도 없어 어느 무덤이 어느 왕릉이라는 것은 다만 촌노인들의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것과 고을 아전의 구전(口傳)에 의거할 뿐입니다. 옛날에는 48위의 왕릉이라고 일컬었으나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만 28위의 왕릉 뿐인데 그 또한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설치한 물건은 간혹 혼유석(魂遊石)과 병풍석(屛風石) 등이 있으나 다만 형체만 있어서 옛 제도를 상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덕왕릉(憲德王陵)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경순왕전(敬順王殿)이 있는데, 영정(影幀) 1장은 지난 무술년에 영천(永川)의 은해사(銀海寺)에서 옮겨 봉안하였으므로 신이 지나는 길에 일체 살펴보았습니다.

其一 崇德殿敬順王殿皆有參奉 崇德殿參奉 卽啓下窠 故判書朴文秀爲嶺伯時 以他道人苟充 便作假銜 長多空齋 陵殿守護 未免踈虞 此後依節目 非本道居生者 毋得差出 申飭該道 恐爲得宜 新羅諸王陵 例有守陵三戶 而近因本府軍役之疊侵 不能奠居 往往逃避 臣之看審時 或有無一陵卒處 故使本府使 卽速定立 而此後諸陵陵卒 勿侵他役事 亦爲嚴飭 有不可已 請依此定式 分付道臣 敎曰 以此啓謄出全本 下送該道 令道伯與邑倅 相議釐正後 詳載於邑中掌故 陵卒之闕額 聞甚駭然 此後道臣 頻加考察 復循謬習者 守令論罪 而令廟堂 取考本府京納軍布中守陵戶除給役戶 使之移屬守護 以爲不離之地 陵在同崗者 亦不必各定 竝以此意知悉.
1. 숭덕전(崇德殿)과 경순왕전(敬順王殿)에는 모두 참봉(參奉)이 있는데, 숭덕전의 참봉은 바로 계하(啓下)하는 자리였습니다. 고 판서(判書) 박문수(朴文秀)가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다른 도(道)의 사람으로 구차하게 충원하고 임시 벼슬로 만들어서 오래도록 재실(齋室)을 비우는 때가 많았으니, 능(陵)과 전(殿)의 수호가 자연 소홀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절목(節目)에 의거하여 본도(本道)에 사는 자가 아니면 차출하지 말도록 해도(該道)에 신칙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신라의 여러 왕릉에는 으레 왕릉을 수호하는 3호(戶)가 있었는데, 근래 본부(本府) 군역(軍役)에 거듭 침탈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왕왕 도피하고 있습니다. 신이 살펴볼 때에 간혹 능졸(陵卒)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었으므로 본 부사(府使)로 하여금 즉시 정해서 세우도록 하였으니, 이 뒤로는 여러 능의 능졸에게 다른 역사(役事)로 침해하지 말도록 엄하게 신칙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규정을 정하도록 감사에게 분부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계본(啓本) 전체를 등사하여 해도(該道)에 내려보내고 감사와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개정한 뒤에 고을의 장고(掌故)에 상세히 기록하게 하라. 능졸(陵卒)의 정원이 빠졌다는 말은 듣고 보니 매우 놀랍다. 이후로 감사는 다시 못된 습속을 따르는 자가 있는지 자주 조사해서 수령을 논죄하라. 그리고 묘당으로 하여금 본부에서 서울에 바치는 군포에서 능을 지키는 호는 역호(役戶)에서 제해 주고 그들을 수호하는 부서로 이속시켜 떠나지 않는 기반을 만들게 하라. 같은 기슭에 있는 왕릉들도 또한 각각 정할 것 없이 아울러 이런 뜻으로 알려 주어라."하였다.

1792년 수로왕 제사에 제품 바로잡기를 청하다

사료1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권35 정조16년(1792) 8월 병자 |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三十五 正祖十六年 八月 丙子

召見備局堂上 禮曹判書洪檍奏曰 金吾罪人所囚西間頹圮 有巖墻之患 南間則已全頹 不可不速改 而以有俗忌之故不敢議到云矣 有司堂上徐有隣曰 臣於己酉 修改典獄 而越明年霈澤旁流 囹圄空虛 豈不爲破俗訛之一證乎 上謂趙鼎鎭曰 以俗忌而不修王府 豈有如許國體 戶判爲知義禁 今月內畢役可也 禮曹判書洪檍啓言 首露王陵祭 用素饌一款 前禮判未及覆奏 而臣見則陵享之不用犧牲 乃是麗朝之禮 駕洛國未必然 以神道言之 千餘年血食 今忽以蔬設行恐未安 依前用肉, 而但其祭式猥雜 殆若叢祠 請今釐正其祭品 從之.

비국 당상을 소견하였다. 예조 판서 홍억(洪檍)이 아뢰기를, "금오(金吾)의 죄인을 가두어 놓는 서쪽 칸이 헐어서 무너지려 하니 사람이 깔려죽을 근심이 있고, 남쪽 칸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으니 속히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속기(俗忌)가 있기 때문에 감히 의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하였다. 유사 당상(有司堂上)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신이 기유년에 전옥(典獄)을 고쳤는데 그 이듬해에 큰 은택이 널리 미쳐 감옥이 비게 되었으니 어찌 세속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만한 한 가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조정진(趙鼎鎭)에게 이르기를, "속기 때문에 왕부(王府)를 수리하지 못하다니 어찌 이런 나라의 체모가 있겠는가. 호조 판서가 지의금(知義禁)이니 이달 안으로 역사를 다 마치도록 하라."하였다. 예조 판서 홍억이 아뢰기를, "수로왕릉의 제사에 소찬(素饌)을 사용한다는 한 조항에 대해 전 예조 판서가 미처 복주(覆奏)하지 못하였는데, 신의 견해로는 능향(陵享)에 희생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고려 때의 예이고 가락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도(神道)로 말하더라도 1천여 년 동안 해온 혈식(血食)을 이제 갑자기 소채만으로 지낸다면 미안할 듯합니다. 전대로 고기를 쓰되 다만 그 제식(祭式)이 혼란스럽기가 거의 총사(叢祠)와 같으니, 그 제품(祭品)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하니, 따랐다.

가야 문헌
사료편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부록

사료 목록

사료 목록

표제	자료명	페이지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이 남하해 한왕(韓王)이 되다	후한서, 삼국지, 삼국사절요, 표제음주동국사략, 지봉유설, 기언, 해동역사	48
기원전 157년 임나가 마한에 조공하다	역사집략	49
기원전 144년 변한인이 문신하는 것을 금하였다	역사집략	49
기원전 108년 고조선 유민이 나뉘어 변한 12개 소국이 되다	삼국유사, 표제음주동국사략, 동사찬요, 역대기년, 동사보유, 동국통감제강, 기언, 동국역대총목, 성호사설, 동사강목, 수산집, 동국지리지, 강계고	50
(기원전 108년 이후 사정) 신라 최치원 이래 삼한 삼국의 계통론과 위치를 주장하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절요, 동국사략, 동사찬요, 동국통감제강, 동사회강, 성호사설, 환영지, 수산집, 해동역사, 강역고, 증보문헌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 강계고	60
기원전 87년 임나국이 마한에 산호(珊瑚) 바치다(?)	역사집략	107
기원전 73년 임나대인을 임나군에 봉하다(?)	역사집략	107
기원전 39년 변한이 신라에 항복하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표제음주동국사략, 제왕역년통고, 동국역대총목, 동사회강, 수산집, 성호사설,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108
기원전 33년 『일본서기』 임나국을 처음으로 언급하다	일본서기, 해동역사	113
기원전 27년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귀국을 청하다	해동역사	115
기원전 20년 마한왕이 진·변한을 속국으로 주장하다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해동역사, 역사집략	116
기원전 20~19년 탈해 금관국에 오다	삼국사기	118
기원전부터 가야의 이주민 일본열도에 천손으로 강림하다	고사기, 일본서기	118
8년 탈해, 가락국(금관국) 해변에 나타나다	삼국유사, 동국통감	120
23~43년경 이후부터 변한(변진), 중국사 동이전에 기록되다	후한서, 삼국지, 진서, 한원, 책부원구	121
23~43년 이후의 변한(변진)이 조선시대 사서에 기록되다	해동역사, 성호사설, 동사강목, 강역고, 동사변의, 증보문헌비고,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동국통지, 역사집략, 대한강역고	130

표제	자료명	페이지
48년 가락국 관제를 정비하다	삼국유사,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270
49년 거등왕이 탄생하다	삼국유사	271
수로왕 대에 만어산 나찰녀를 제압하다 (만어사 불법 효험 전설)	삼국유사	271
57~59년 탈해왕 때 신라가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복하다	삼국사기	272
76년 수로왕, 신라를 침공하다	강역고	272
77년 가야와 신라 황산진구에서 싸우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 강역고,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273
87년 신라, 가야에 대비해 가소·마두 2성을 쌓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 강역고,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274
일본신화와 숭신 시대 등의 조상전승을 주장하는 가야계통의 씨족들	신찬성씨록	276
87년경(또는 기원전 33년경) 임나국 소나갈질지를 파견하다	일본서기	278
91년경(또는 기원전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카라 전승	일본서기	278
91년경(또는 기원전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신라 전승	일본서기	278
91년경(또는 기원전 27년경) 스사노오노미코토 관련 최초의 카라쿠니 전승	일본서기	279
92년경(또는 기원전 28년경)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귀국을 청하다	일본서기, 신찬성씨록	280
94년 가야, 신라의 마두성을 포위하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역대기년, 강역고	282
96년 가야, 신라의 남경을 공략하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강역고	283
97년 신라, 가야정벌계획을 중지하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증보문헌비고, 강역고, 역사집략	284
102년 수로왕, 신라에 가서 국경분쟁을 조정해 주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표제음주동국사략, 기언, 동사강목, 강역고,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285
106년 신라 마두성주 가야를 공략하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강역고	289
108년 신라, 비지국·다벌국·초팔국을 병합하다	삼국사기	289
115년 신라왕, 황산강 전투서 가야군의 매복에 걸리다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강역고, 증보문헌비고, 역사집략	290

표제	자료명	페이지
276년 동이 8국과 17국이 서진에 귀화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17
276년 『역사집략』, 백제·신라·대가야 일본에 조공했다는 설을 채록하다	역사집략	318
277년 동이 3국이 와서 항복하다	책부원구	318
277년 마한이 서진에 조공하다	책부원구, 해동역사	318
278년 동이 6국과 9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19
280년 동이 10국과 20국, 마한왕과 진한왕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성호사설	319
281년 동이 5국과 진한왕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0
282년 동이 29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1
283년 백제인민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하려 하다	해동역사	321
285년 가라에 체류 중인 백제인민을 신라가 막다	해동역사	322
286년 동이 11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322
286년 진한왕, 서진에 다시 오다	책부원구	322
287년 동이 2국,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3
288년 동이 7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3
289년 동이 11국과 30여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4
290년 동이 7국과 마한·진한이 서진과 동이교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해동역사	324
291년 가락국 마품왕 39년을 다스리고 돌아가다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표제음주동국사략, 역사집략	325
291년 가락국 거질미왕이 즉위하다	삼국유사, 표제음주동국사략	326
291년 동이 17국이 서진에 조공하다	진서, 책부원구	326
조선시대까지 『금관지』가 전해지다	증보문헌비고	327

표제	자료명	페이지
561년 신라가 아라 파사산에 성을 쌓아 왜에 대비하다	일본서기	416
562년 1월 임나가 신라에 멸망하다	일본서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사략,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언,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대한강역고, 증보문헌비고	416
562년 6월 신라에 의한 임나 멸망을 한탄하다	일본서기	420
562년 7월 신라의 사신이 귀화하다	일본서기	420
562년 7월 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다	일본서기	421
562년 9월 신라가 대가야를 복속하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국사략, 수산집, 동국역대총목, 강계고, 동사강목, 기년아람, 해동역사, 대동지지, 역사집략, 증보문헌비고	422
562년 11월 신라의 조부를 보내오다	일본서기	427
571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 임나 멸망의 이유를 묻다	일본서기	427
571년 임나 재건을 태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다	일본서기, 대한강역고	428
575년 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다	일본서기	428
575년 4월 신라, 임나, 백제에 사신을 보내다	일본서기	428
575년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 4읍의 조를 바치다	일본서기	429
583년 백제와 함께 임나 재건을 계획하다	일본서기, 해동역사, 대한강역고	429
584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다	일본서기	430
585년 임나를 세우려고 사신을 뽑았다	일본서기	430
591년 8월 임나를 세우고자 하다	일본서기	431
591년 11월 신라와 임나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일을 묻다	일본서기	431
591년 임나가 신라에 귀속되다	대한강역고	432
594년 신라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다	수서	432
600년 2월 임나를 구원하려 하다	일본서기	432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문헌 사료편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집필	남재우, 백승옥, 이영식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다빈, 김형철, 김태희, 문정희, 윤다혜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09-7 94910 978-89-299-1408-0 (전7권)

Copyright©2018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Historical Documents on Gaya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9 788929 914097 94910
ISBN 978-89-299-1409-7
ISBN 978-89-299-1408-0 (전7권)